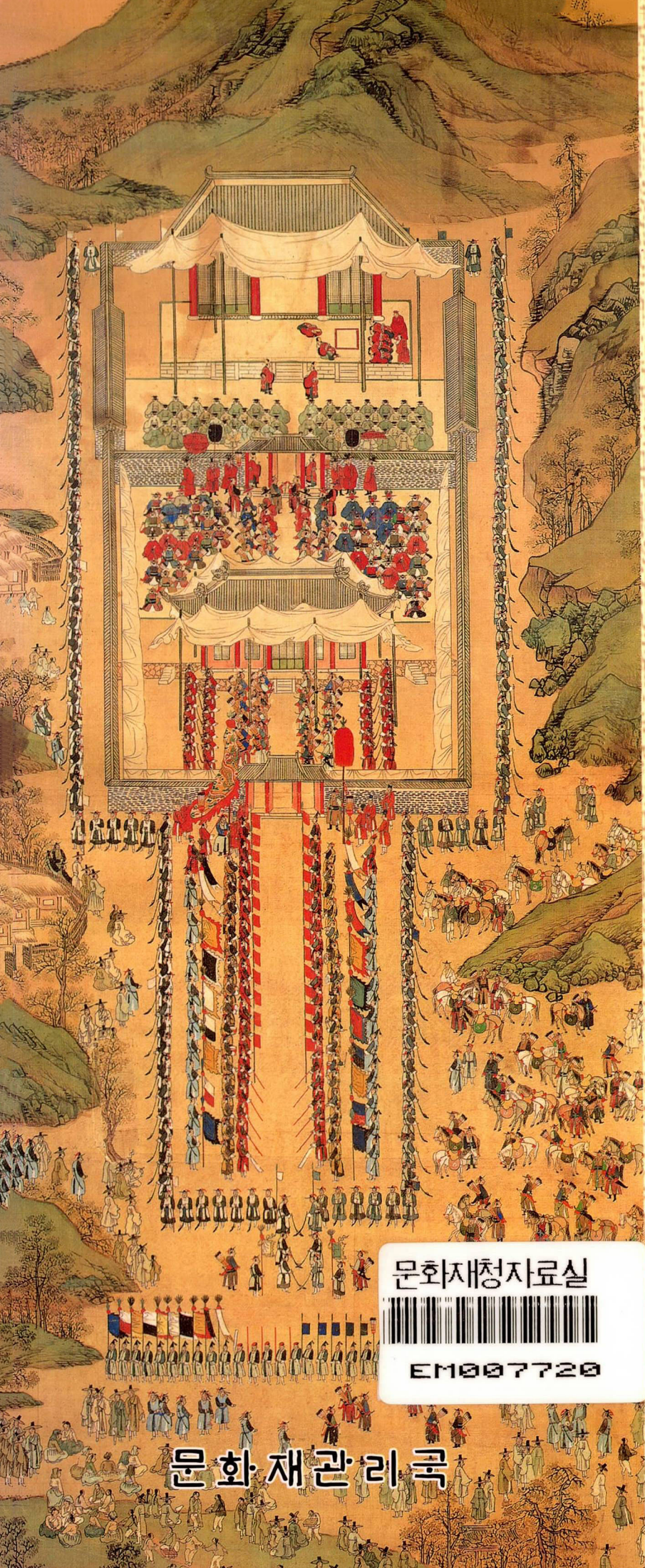


한국의 향교 건축

박왕희 지음

문화재청자료실
EM007720

문화재관리국

행정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28800-8670-57-9901

한국의 향교 건축

文化財管理局
No. 7720
1999. 2. 18
接受
資料室

문화재관리국

발 간 사

우리나라 思想史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儒敎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구심체 역활을 하여 왔고, 오늘날에도 사회 · 교육 · 문화 등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鄕校는 大成殿과 明倫堂이 중심이 되어 옛 聖賢을 奉祀하고 유교의 이념을 가르치는 官立敎育機關으로, 건축적으로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교이념처럼 절제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 책은 서울의 成均館을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된 233개소의 향교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향교의 역사와 기능, 건축물의 구조와 양식, 그리고 주요건물의 도면과 배치도를 수록하였습니다.

바쁜 업무속에서도 향교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이 책을 발간한 저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문화관광부가 1999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제정한 것에 발맞추어 『韓國의 鄕校建築』을 발간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古建築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과 특히 향교건축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8년 12월

文化財管理局長 鄭 文 敎

머 리 말

향교건축을 비롯한 유교 건축은 불교건축과 뚜렸하게 대비됩니다. 불교건축이 화려하고 정제된 건축이라면 유교건축은 절제된 소박미를 갖춘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교건축은 향교, 서원, 정려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한국 전통 건축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중동국여지승람』에는 329개소, 영조 41년(1765)년경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327개소의 향교가 전국에 걸쳐 존재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지역에는 233개소의 향교가 있으며, 북한지역에도 113개소의 향교가 있었음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교가 우리 전통건축의 일맥을 이어 오고 있었음에도 최근 1980년대에 접어 들어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조사 · 연구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면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많은 자료와 선학들의 학문을 바탕으로 향교건축 분야에 일조를 하고 싶은 뜻에서 감히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셔서 차후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향교 건축』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문교 문화재관리국장님, 이돈종 문화재기획관님, 관계관 및 문화재보수과 동료직원들과 기꺼이 원고 감수를 맡아 주신 목포대 김지민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박 왕 희

차 례

발간사 3

머리말 5

제1장 향교의 역사적 배경

1. 유학의 도입과 정착 13
2. 향교의 성립과 현황 20
3. 주·부·현학 건축과 곡부의 공묘 25
   가. 주·부·현학 건축 / 나. 곡부의 공묘

제2장 향교의 기능

1. 문묘 향사 기능 35
   가. 석전제의 유래 / 나. 석전제관 / 다. 석전제향일
   라. 석전제물 / 마. 설위와 배향인물
2. 교육기능 50
   가. 교육의 목적
   나. 교생 및 교육
      교생의 신분 / 입학자격 / 교생정원 / 교육과목 / 교관 및 운영

제3장 향교의 입지, 건물구성 및 배치

1. 향교의 입지 57
   가. 관부위치에 따른 향교의 입지 / 나. 향교 소재 지명고
   다. 향교의 좌향 및 지형 / 라. 행단
2. 구역별 구성건물 63
   가. 문묘구역 건물구성 / 나. 강학구역 건물구성
   다. 부속건물
3. 건물배치 67
   가. 전묘후학 배치
   나. 전학후묘 배치
      일축선형 배치 / 절곡축선형 배치 / 직교축선형 배치
   다. 우묘좌학배치
   라. 좌묘우학 배치
4. 구역별 배치 81
   가. 문묘구역 배치
   나. 강학구역 배치
      전당후재형 배치 / 전재후당형 배치 / 무재후당형 배치

제4장 대성전

1. 대성전의 평면구성 ····· 89
   가. 평면형식 / 나. 평면비례 / 다. 건물규모
2. 대성전의 기단, 계단, 초석구성 ····· 97
   가. 기단구성 / 나. 계단구성 / 다. 초석
3. 대성전의 가구 짜임 ····· 105
   가. 기둥 / 나. 공포구성 / 다. 가구짜임 – 5량가구/7량가구
4. 대성전의 지붕형식 ····· 116
   가. 지붕구성 / 나. 처마구성
5. 대성전의 창호구성 ····· 118
   가. 3칸건물 창호구성 / 나. 5칸건물 창호구성
   다. 창호양식 – 문양식 / 창양식
6. 대성전의 벽체구성 ····· 125
7. 대성전의 단청과 벽화 ····· 126

제5장 명륜당

1. 명륜당의 평면구성 ····· 133
   가. 평면형식
      객사형 평면 / 양방형 평면 / 일방형 평면 / 마루형 평면
   나. 평면규모 / 다. 평면비례
2. 명륜당의 기단, 초석의 구성 ····· 143
   가. 기단구성 / 나. 초석
3. 명륜당의 가구짜임 ····· 144
   가. 기둥 / 나. 공포구성 / 다. 가구짜임
4. 명륜당의 지붕형식. ····· 148
   가. 지붕구성 / 나. 처마구성
5. 명륜당의 창호구성 ····· 152
   가. 대청전면 창호구성 / 나. 대청배면 창호구성
   다. 방 전면 창호구성 / 라. 청-방간 창호구성

제6장 누각

1. 누각 건물의 형성 ····· 157
2. 누각 건물의 당호 ····· 158
3. 누각 건물의 평면구성 ····· 160
4. 누각건물의 구조 양식 ····· 163

가. 기단, 초석 / 나. 기둥 / 다. 공포구성 / 라. 가구짜임
마. 지붕구성 / 바. 벽체구성

제7장 동·서무

1. 동·서무의 평면형식, 규모 171
2. 동·서무의 구조양식 174
가. 기단, 초석 / 나. 기둥, 공포, 가구구성
다. 처마, 지붕구성 / 라. 벽체, 창호

제8장 동·서재

1. 동·서재의 평면형식 185
2. 동·서재의 규모 189
3. 동·서재의 구조, 양식 189
가. 기단과 초석 / 나. 기둥, 공포
다. 구조짜임 / 라. 지붕형식

제9장 내·외삼문

1. 내신문의 구성 197
2. 외삼문의 구성 202
3. 내·외삼문의 평면구성 203
4. 내·외삼문의 구조양식 205
5. 내·외삼문의 지붕형식 209

제10장 향교 관련 기타 건물

1. 계성사 215
2. 제기고 217
3. 전사청 217
4. 존경각 217
5. 향관청 218
6. 비천당 218
7. 정록청 218
8. 육일각 218
9. 양사재 218
10. 사마재 219
11. 홍살문 219
12. 주사(교직사) 220

제11장 향교내의 석물

1. 성생단 223
2. 창홀대 224
3. 정료대 224
4. 관세대 225
5. 망료대 226
6. 하마비 227
7. 탕평비 228
8. 기타 비석 229

제12장 향교내의 수목 233

부 록

1. 전국 향교 현황 239
2. 용어해설 252
3. 향교 관련 민속 속담 260
4. 유교건축년보 262

자 료 편

1. 전국 향교 배치도 268
2. 주요 건물 도면 503
   (1) 대성전 503
   (2) 명륜당 571
   (3) 누각 619
   (4) 동·서무 644
   (5) 동·서재 661
   (6) 내·외삼문 676

※ 〈참고문헌〉 685

제1장

향교의 역사적 배경

1. 유학의 도입과 정착
2. 향교의 성립과 현황
3. 주·부·현학 건축과 곡부의 공묘
   가. 주·부·현학 건축
   나. 곡부의 공묘

제1장 鄕校의 歷史的 背景

1. 儒學의 도입과 정착

『향교란 시골에 있는 문묘(文廟)와 그곳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 일명 교궁(校宮), 제궁(齊宮), 학궁(學宮), 향학(鄕學)이라 하고,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에 계승된 관학(官學)으로서의 지방교육기관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牧民心書』에는 "옛날의 소위 학교는 예(禮)를 익히고 락(樂)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향(鄕)은 서울을 제외한 행정구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고 교(校)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지방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향교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천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교(儒敎)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죽은 뒤에 영생을 추구하는 내세관(來世觀)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도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질문에 "인간이 해야 할 올바른 일도 다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느냐"며 사후 세계보다도 현실문제 해결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는 역대 왕의 선악득실(善惡得失)을 분석하여 올린 28조의 상서(上書)에서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금일(今日)의 급무이니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여 불교의 연등회, 팔관회를 폐지하고 유교를 숭상하였으며, 대학을 수리하고 지방의 자제를 모집하여 교육시켜 12목(牧)에 경학박사(經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를 배치하여 가르치게 하여 중앙과 지방의 교육균등을 도모하였다.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집대성한 철학 사상으로 유가(儒家), 유도(儒道), 유학(儒學)이라고도 하며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원래 유교(儒敎)의 "유(儒)"는 고대 중국에서 「사회의 교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예의(禮儀)를 담당하던 직업」이었다.

유교의 성립시기는 공자의 탄신을 전후한 기원전 5~6세기경으로 주(周)왕조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공자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선성(先聖)가운데 한 분인 주공(周公)이 조카인 왕을 도와 주나라 문화를 크게 부흥시켜 유교형성의 밑거름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기원전 551년에 노나라 추(鄒)읍〈지금의 산동성 곡부현〉에서 태어난 공자에 의해서 훗날 유교가 인간을 구원할 위대한 가르침으로 자리잡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유교는 중국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라고 알려진 요순(堯舜)시대와 하·은·주(夏殷周)시대를 거쳐 노(魯)나라의 공자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이야기하는 유교는 요순과 주공에 의해 완성된 것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진(秦)의 시황(始皇)의 통일(BC 246)로 사상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분서갱유(焚書坑儒 : 사상탄압의 일환으로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생매장하여 죽인 사건)등을 통하여 경전과 유학자들을 탄압하였다.

한(漢 : BC 206~AD 24)대에는 경전을 다시 수집 정리하고 복구하는 훈고학(訓誥學 : 경전의 자구를 주석하고 풀이하는 경전 해석 중심 학문)으로 흘러 쇠퇴하면서 도교와 불교에 오히려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송(宋 : 북송 AD 960~1126, 남송 1127~1279)을 건국한 태조(太祖)는 유교를 장려하고 유교경전 편찬사업을 일어켜 유교 부흥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불교와 도교를 바탕으로 한 본체론(本體論 : 우주의 생성과 근원등에 대한 철학적 규명)을 유교에 도입함으로서 형이상학(形而上學)적 유교 이론 체계를 세우게 되고, 정호(程顥)는 천리(天理)를 논하였고, 그의 동생인 정이(程頤)는 인성(人性)을 추가하여 성(性)이 바로 이(理)라는 성리학(性理學)의 학설을 제창하고, 그 후 주희(朱熹)는 정호·정이 형제의 '이(理)'에 관한 학설과 장횡거(張橫渠)·소강절(邵康節)의 '기(氣)'에 관한 학설을 종합하여 이기론(理氣論)적 유교이론 체계를 확립 집대성하였다.

향교의 설립이전 우리나라에 유학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중국과의 관계로 보아 한군현(漢郡縣)을 설치한 전후로 여겨진다.

한나라 무제가 오경박사를 두어 유학을 부흥시키고, 기원전 108년에 사군(四郡)을 설치하여 유학을 전파시켰을 것으로 추측되나 기록적인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유학이 크게 발전하였으니 삼국 초에 한문학이 보급되었던 것은

『三國史記』 고구려 본기 영양왕 11년조(600)에 태학(太學)박사 "이문진(李文眞)을 시켜 신집(新集)을 만들었는 바 국초의 유기(留記)를 수찬한 것이다"라 하였고, 백제는 『百濟本記』 근초고왕 30년조(375)에 "…박사 고흥(高興)에 의하여 서기(書記)가 이루어졌다". 신라는 『新羅本記』 진흥왕 6년조(545)에 "거칠부(居柒夫)등에 명하여 국사(國史)를 수찬하였다 " 고 하였는 바 삼국초기 즉 1세기경에는 한문학이 삼국에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

유학 교육의 역사적 근간으로 백제에서는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 :詩經,書經,禮記,春秋,易經)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었을 뿐 아니라, 고이왕 52년(285)에는 일본 응신천황(應神天皇)의 초청으로 왕인(王仁)이 『論語』와 『千字文』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태자의 유교교육을 맡았다는 것을 볼 때 공자의 유학 교육이념이 이미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 까지 전파 보급되었음이 입증된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太學)을 세워 유교의 기본 경전인 오경(五經)과 사학(史學)을 향제자에게 교육시켰다는 사실로서 유교적 교육의 효시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유교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태학이 상류층의 중앙 귀족 자제를 교육하는 유교 교육기관인 관학인데 대하여, 문무일치(文武一致)의 교육주의로 지방 평민층의 자제에게 유교경전과 궁술을 교습시키기 위하여 평양천도 이후 각처에 설립한 공립기관으로 생각되는 경당(扃堂)이란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학교가 건립되는 최초의 기록으로 지방교육이 처음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당에 관하여는 『新唐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며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까지도 서로 힘써 배우므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른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어 경(經)을 외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진덕여왕 2년(648)에 견당사(遣唐使) 김춘추(金春秋)가 그곳의 태학원(太學院)을 찾아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고 돌아왔다는 『三國史記』 기록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국학 설립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면 신라에서는 아직 문묘제도가 일반화 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설총(650년경~?)은 이두문자로 유교경전을 해석하여 유교의 토착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통일신라 31대 신문왕 2년(682)에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학(國學)을 창설하여 유

학을 장려하였다고 하나 『文獻備考』서 권근(權近)의 말에 의하면 "진덕여왕 5년(651)에 대사(大舍)를 두었는 바 대사는 국학을 맡은 관(官)이므로 신문왕대 이전에 이미 국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33대 성덕왕 16년(717) 9월에는 왕자인 태감(太監) 김수충(金守忠)이 당에서 돌아오면서 문선왕(文宣王)인 공자 및 그의 제자중 학문이 뛰어난 10철(哲)과 공자의 제자 72현(賢)의 화상(畵像)을 모셔다가 국학에 문묘를 설치하고 봉안하여 석전의 예를 행한 것이 문묘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 이미 제도가 완비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고려시대의 유학은 당나라의 유풍을 이어받아 시와 문장을 짓기에 몰두하였고 중기에는 풍수지리 등 미신적 풍조의 만년으로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문종때에 최충(崔沖)이 우리나라 사학(私學)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구재(九齋)를 설치하여 유교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고려의 국학은 시대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태조부터 성종11년 (992)까지는 「경학(京學)」이라하고, 성종 11년 이후부터는 「국자감(國子監)」으로 바꾸고, 몽고 즉 원의 간섭하에서는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충렬왕 24년(1298)에는 「성균감(成均監)」으로, 충렬왕 34년(1308)에는 「성균관(成均館)」으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는 다시 「국자감」이라하고, 11년(1362)에는 또다시 성균관으로 여러차례 명칭이 바꾸어 조선에 이르렀다.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국자감에서 석전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성종 2년(983) 박사 임성노(任成老)가 송(宋)으로 부터 「文廟堂圖」「社稷堂圖」를 가져오는 가운데 「文宣王廟圖」 한폭, 「祭器圖」 1권, 「七十二賢贊記」 1권을 각각 가져와 그것을 모범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성종 11년(992)에 대묘의 낙성과 아울러 국자감의 창립도 보게 되었다.

옛날에는 문선왕을 화상(畵像)이나 소상(塑像)으로 향사하다가 조선 선조5년(1572)부터 국령에 의하여 화상을 없애고 나무 즉 밤나무에 쓴 위패(位牌)로 대신하여 오고 있는데 밤나무는 서쪽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죽은 사람의 방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국자감 시설에 관하여는 송나라의 사신인 서긍(徐兢)이 인종 원년(1123)개경에 약1개월간 머물면서 견문한 것을 저술한 『宣和奉使高麗圖經』 즉 『高麗圖經』 의 기록에 의하면 "… 전면에 대문이 있고, 거기에 국자감이란 현판이 붙어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 중앙에 선성전(宣聖殿)이 있고 양무(兩廡)와 그리고 재사(齊舍)가 있으며…" 란 기록이 있고, 그리고

『高麗史』에 지금의 명륜당에 해당하는 돈화당(敦化堂)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체로 현존 성균관 건물의 주요부와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향교도 국자감의 배치유형을 따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종 11년(1020) 8월에는 그때까지 문묘에 중국의 성철(聖哲)만 모셨던 것을 우리나라의 유현(儒賢) 최치원(崔致遠)을 선성묘에 배향하였고, 동왕 13년(1022)에는 설총(薛聰)을 모셨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현을 문묘에 배향하는 시초가 되었고, 또 국자감에 지방학당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후대 향교의 시초가 되었다.

선종 8년(1091)에는 문선왕묘 벽상에 72현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고, 예종 9년(1114) 사신 안직승이 귀국 할 때 송(宋) 휘종이 신악기와 악보 및 지결도(指訣圖)를 보내주었다. 이 때 보내준 악기는 속악기와 아악기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 악기를 받을 하례사로 왕자지(王子之)와 문공미(文公美)가 파견되어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보내주어 원구, 사직, 선농, 선잠, 문선왕묘 등의 제사에 쓰이게 되었다.

국학 진흥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이가 안향(安珦-安裕)이다. 안향은 가계가 순흥의 향리출신 이었지만 47세 되던 충렬왕 15년(1289)11월 「고려유학제거(高麗儒學提擧)」로서 세자 충선왕을 받들어 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朱子全書』를 처음 접하고 성리학을 도입하여 유학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촉진하여 재도약에 공헌하였으며, 또 문선왕전을 짓고 원나라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 72현의 화상을 모셔와 반궁(泮宮)제도를 일신시켰다. 또한 주자의 호를 따라 자신의 호를 회헌(晦軒)이라 할 정도로 주자를 사숙하였으며 국학재건을 위해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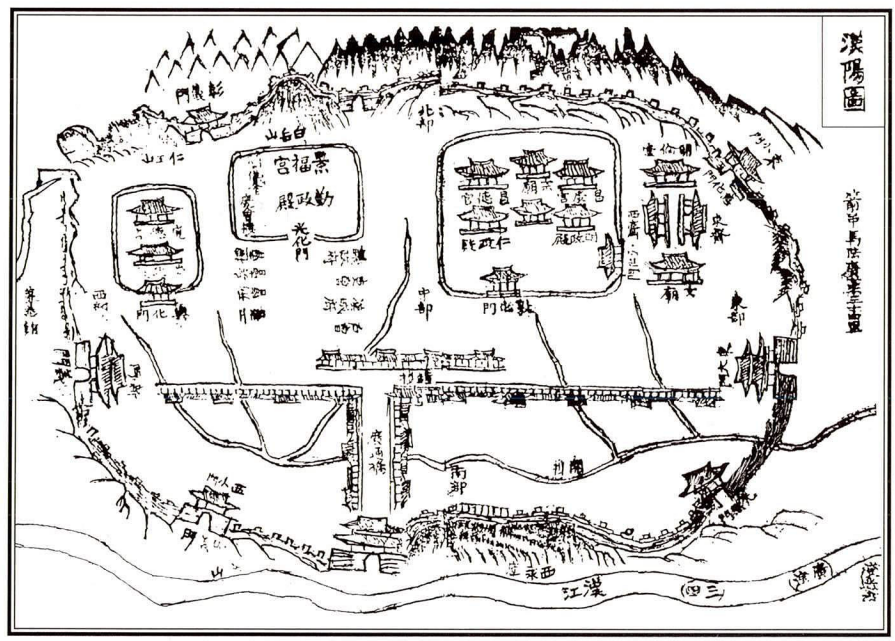
27대 충숙왕 6년 (1319)에는 안향을 성묘 동무 제2위에 배향하였다. 또한 이 때에 공자의 익호(謚號)도 당나라식인 문선왕(文宣王)에서 원나라식인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문묘를 선문전(宣文殿)에서 대성전(大成殿)으로 고치게 되었다.

유학은 조선조에 들어와 절정을 이루었다.

태조는 건국 초부터 유교를 장려하고 발전시켰다. 유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한양의 면모는 우선 도읍의 건설과정에서 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신도(新都) 한양의 건설은 『周禮』에 의거하여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제도로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고, 사대문과 종각의 명칭에 유교의 오상(五常 : 仁 · 義 · 禮 · 智 · 信)을 대응시키는 등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국초기 정도전(鄭道傳)은 유교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임을 역설하여 국교화

를 주장하였다.

태조는 한양 숭교방(崇敎坊)에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건립하고 또한 동, 서, 남, 북 중의 오부학당(五部學堂 : 세종조에 북부를 폐하고 四部學堂 즉 四學으로 바뀜)을 세우고, 지방에는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향교를 세워 유교 발전을 꾀했다.



『한양도(漢陽圖) : 목판본, 정조 14년(1790)』

성균관과 사학은 예조(禮曹)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성균관은 오늘의 국립대학에 해당되고, 사학은 성균관에 들어가는 준비교육처로서 관립학교로 볼 수 있으며, 향교는 지방의 주, 부, 군, 현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현재의 공립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향교는 본래 경학(京學) 또는 국학(國學)에 대칭되는 지방 향읍(鄕邑)의 학교라는 의미로 고려후기에 와서 일반화된 명칭이지만 중국에서는 수도의 국학(國學)에 대칭되는 지방의 학교란 뜻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

기록에 의하면 향학의 설치는 고려 태조 13년(930) 평양에 학교를 설치하여 육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시초가 된다. 그후 성종 6년(987)에는 전국 12목(양주 · 광주 · 충주 · 청주 · 공주 · 진주 · 상주 · 전주 · 나주 · 성주 · 해주 · 황주)에 학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배치하고, 주군(州郡)에 학사(學舍)를 세워 지방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향교란 공식 명칭이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고려 17대 인종 5년(1127)으로 기록되는데 『高麗史』 學校條에 「仁宗 五年 三月 詔諸州 立學 以廣教道…」 즉 " … 제주(諸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기록을 보면 이때 처음으로 향교설립을 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仁宗 二十年 三月… 在外生徒 各於界首官 鄕校都會 給牒赴試 」 "…재외생도(在外生徒)는 각기 계수관(界首官) 향교로 집합하여 상(牒)을 받아 봉시(赴試)하라…"는 기록으로 향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유추하여 볼 때 이미 인종 5년 이전에 상당수의 향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숙왕 1년(1314)에는 이곡(李穀)을 모든 주에 파견하여 향교를 부흥케하여 각 지방에 널리 설치되었고 유학교육에 이바지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는 『文獻備考』에 "…東國 舊無學校 高麗 忠烈王時 江陵 安廉使 李承印 創立 文廟 於花浮山 硯滴岩下 列邑文廟 繼起"란 기록에서 고려 충렬왕 때 강릉 안렴사 이승인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 문묘를 세운 것이 처음이라 기록하고 있다.

조선 태조는 즉위 원년(1392)에 성균관안에 문묘를 세우고 정전인 대성전에는 공부자를 비롯한 4성, 10철, 송조6현 등 21위를 봉안했고 동 · 서무에는 중국의 공문(孔門) 72제자와 명현 22위등 그리고 우리나라 선현 3위를 추향하고, 제도(諸道) 안찰사(按察使)에게 학교의 흥폐로 수령을 고과(考課)하도록 하고 제주(諸州)에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그후 『東國輿地勝覽』이 나온 성종 17년(1488)까지는 전국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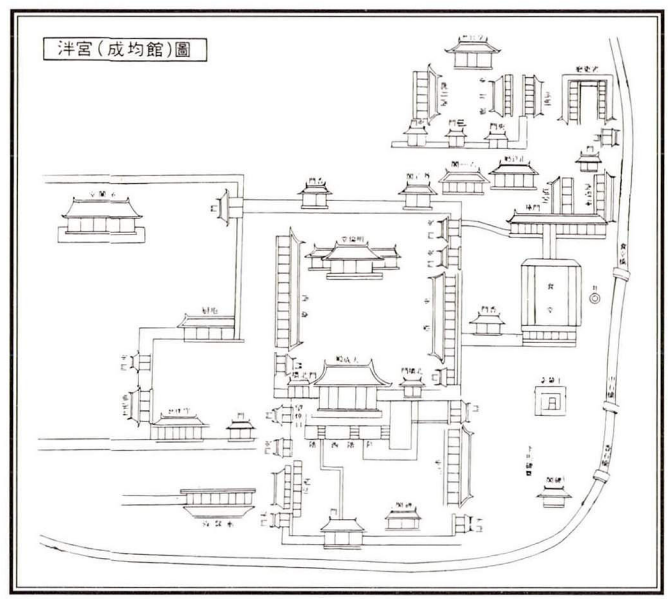
원래 "성균(成均)" 이라는 말은 『周禮』의 「大司樂掌 成均之法 以治建國之學政」의 「成均」을 따서 붙인 이름으로 즉 '균등하게 만든 법전(法典)을 장악하고 나라를 세우는 학정(學政)을 다스린다' 는 유래가 있고, 또한 '음악의 가락을 맞춘다' 는 뜻으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整成」 과불급을 고르게「均平」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일찌기 주나라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고려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조선 태조 때 새 도읍인 한양을 건설하면서 태조 7년(1398) 숭교방(현 명륜동)에 성균관을 세웠다.

그러나 이때 지은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선조 때와 그후에 지어진 것이다.

성균관을 일명 반궁(泮宮)이라고도 한다. 주대(周代) 천자의 도성에 있는 학교 주변이 벽

(璧)과 같이 둥글고 물이 둘려있었기 때문에 벽옹(璧雍)이라고 하고, 제후의 도읍에 있는 것은 동서의 문 남쪽이 물로 둘려 있었기 때문에 반궁이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반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성종 9년(1478) 성균관에 반수(泮水)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균관 앞의 다리를 반교(泮橋), 또는 반수교(泮水橋)라 하였으며, 성균관의 동쪽 마을은 동반동(東泮洞), 서쪽 마을은 서반동(西泮洞)이라 하였다. 또한 성균관은 반궁 이외에도 국학(國學), 태학(太學), 현각(賢閣), 수선지지(首善之地)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泮宮(成均館)圖』

일제하에서는 유교교육뿐 아니라 인재의 양성, 풍속의 교화 등으로 유교이념을 근본으로 하여 교육하던 성균관과 향교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문화정책에 따라 향교는 문묘에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이 허용되고, 성균관은 경전을 교육하는 전문학원인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하고 명륜전문학교를 부설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다 해방후 1946년 다시 성균관으로 환원하고 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하였다.

2. 鄕校의 成立과 現況

향교의 설립이 최초로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인종 5년(1127)이나 그 이전에 이미 향교가 설립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처음 향교설립을 명한 인종 재위 이전에도 5개소의 향교가 설립되었음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꾸준히 향교가 설립되어 조선 태조에서 세종년간에 많은 향교가 설립되어 유지되어 오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맞아 많은 수의 향교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이는 조선

의 통치이념이 유교사상이었고 백성들의 정신적 근간이나 왕권의 기반이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교사상의 정신적 근간을 말살하려는 왜구의 고의적인 방화나 훼손이 대부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란후 대다수 향교들의 복원,중수,이전등을 겪으면서 고종년간인 1901년에 통영향교, 1905년에 오천향교를 설립되었다. 그 후 일정기간 고을의 많은 읍성이 흘리고 시가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향교들이 변형, 훼철되고, 6 · 25동란으로 파손 소실된 곳도 많았다.

〈향교 조성년대 비교〉

년 대	왕 조	신설 향교수
~1122이전	고려 ~ 예종	5
1122~1146	인종	12
1146~1274	의종 ~ 원종	2
1274~1351	충렬왕 ~ 충정왕	7
1351~1374	공민왕	6
1374~1392	우왕 ~ 공양왕	6
.....	고려말	12
.....	고려말 ~ 조선초	5
.....	조선초	47
1392~1398	태조	70
1398~1400	정종	4
1400~1418	태종	54
1418~1450	세종	26
1450~1674	문종 ~ 현종	9
1674~1905	숙종 ~ 고종	9
1905년 이후	대한민국	3

이와같이 향교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900년 가까이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향교의 배치와 건축양식 등 한국건축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는 전국에 329개소의 향교와 2개소의 성균관이 있었고, 영조 41년(1765)경에 간행된『輿地圖書』에서는 327개소의 향교와 개성과 한양에 2개소의 성균관이 있었다.

1918년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당시 향교수는 335개소로 기록되고 있다.

남한에는 서울에 성균관이 있고 전국에 231개소의 향교가 분포되어 있었으나, 1965년 경남 합천군에 강양향교(江陽鄕校), 1995년에 강원도 동해시에 동해향교(東海鄕校)가 건

립되어 233개소의 향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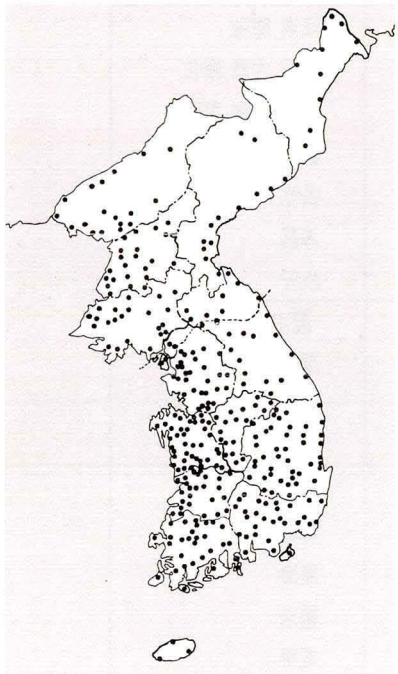
향교의 설립은 전국의 주·부·군·현(州府郡縣)에 1 교(校)씩 설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했으나 현재는 행정구역의 변천으로 한 시·군에 여러 향교가 소재한 곳도 상당수 있다.

1998년 현재 현존하고 있는 1개소의 성균관과 233개소의 향교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 향교 분포 현황〉 1998.12 현재

市·道	市·郡	鄕校名稱	市·郡	鄕校名稱
서울特別市	서울市	*成均館,陽川	仁川市	仁川,富平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喬桐	水原市	水原
京畿道	高陽市	高陽	平澤市	平澤,振威
(성균관-1)	河南市	廣州	果川市	果川
(30개소)	龍仁市	龍仁,陽智	坡州市	坡州,交河,積城
	驪州郡	驪州	利川市	利川
	抱川郡	抱川	漣川郡	漣川
	楊平郡	楊根,砥平	加平郡	加平
	楊州郡	楊州	華城郡	南陽
	金浦郡	金浦,通津	安城郡	安城,竹山,陽城
江 原 道	春川市	春川	原州市	原州
(16개소)	江陵市	江陵	三陟市	三陟
	洪川郡	洪川	橫城郡	橫城
	寧越郡	寧越	平昌郡	平昌
	旌善郡	旌善	鐵原郡	鐵原
	華川郡	華川	楊口郡	楊口
	麟蹄郡	麟蹄	高城郡	杆城
	襄陽郡	襄陽	東海市	東海
忠 淸 北 道	淸州市	淸州	忠州市	忠州
(18개소)	堤川市	堤川,淸風	淸原郡	文義
	報恩郡	報恩,懷仁	沃川郡	沃川,靑山
	永同郡	永同,黃澗	鎭川郡	鎭川
	槐山郡	槐山,淸安,延豊	陰城郡	陰城
	丹陽郡	丹陽,永春		
大田 廣域市	大田市	懷德,鎭岑	天安市	天安,稷山,木川
忠 淸 南 道	公州市	公州	保寧市	保寧,藍浦,鷲川
(38개소)	牙山市	牙山,溫陽,新昌	瑞山市	瑞山,海美
	論山市	魯城,連山,恩津	燕岐郡	燕岐,全義
	錦山郡	錦山,珍山	扶餘郡	扶餘,林川,石城,鴻山
	舒川郡	舒川,韓山,庇仁	靑陽郡	靑陽,定山
	洪城郡	洪州,結城	禮山郡	禮山,大興,德山
	泰安郡	泰安	唐津郡	唐津,沔川

全 羅 北 道 (26개소)	全州市	全州	群山市	沃溝,臨陂
	益山市	益山,咸悅,龍安,礪山	井邑市	井邑,古阜,泰仁
	南原市	南原,雲峰	金堤市	金堤,金溝,萬頃
	完州郡	高山	鎭安郡	鎭安,龍潭
	茂朱郡	茂朱	長水郡	長水
	任實郡	任實	淳昌郡	淳昌
	高敞郡	高敞,茂長,興德	扶安郡	扶安
光州 廣域市 全 羅 南 道 (29개소)	光州市	光州	麗水市	麗水,突山
	順天市	順天,樂安	羅州市	羅州,南平
	光陽市	光陽	潭陽郡	潭陽,昌平
	谷城郡	谷城,玉果	求禮郡	求禮
	高興郡	高興	寶城郡	寶城
	長興郡	長興	和順郡	和順,綾州,同福
	海南郡	海南	康津郡	康津
	務安郡	務安	靈岩郡	靈岩
	靈光郡	靈光	咸平郡	咸平
	莞島郡	莞島	長城郡	長城
	新安郡	智島	珍島郡	珍島
大邱 廣域市 慶 尙 北 道 (43개소)	大邱市	大邱,漆谷,玄風	浦項市	迎日,淸河,興海,長鬐
	慶州市	慶州	金泉市	金山,開寧,知禮
	安東市	安東,禮安	龜尾市	仁同,善山
	榮州市	榮州,豊基,順興	永川市	永川,新寧
	尙州市	尙州,咸昌	聞慶市	聞慶
	慶山市	慶山,河陽,慈仁	軍威郡	軍威,義興
	義城郡	義城,比安	靑松郡	靑松,眞寶
	英陽郡	英陽	盈德郡	盈德,寧海
	淸道郡	淸道	高靈郡	高靈
	星州郡	星州	醴泉郡	醴泉,龍宮
	奉化郡	奉化	蔚珍郡	蔚珍,平海
釜山 廣域市 蔚山 廣域市 慶 尙 南 道 (30개소)	釜山市	東萊	蔚山市	蔚山,彦陽
	昌原市	昌原	晋州市	晋州
	統榮市	統榮	泗川市	泗川,昆陽
	金海市	金海	密陽市	密陽
	巨濟市	巨濟	梁山市	梁山,機張
	咸安郡	咸安,漆原	昌寧郡	昌寧,靈山
	宜寧郡	宜寧	固城郡	固城
	南海郡	南海	河東郡	河東
	山靑郡	山靑,丹城	咸陽郡	咸陽,安義
	居昌郡	居昌	陜川郡	陜川,三嘉,草溪,江陽
濟 州 道 (3개소)	濟州市	濟州	南濟州	大靜,旌義



『전국향교 분포도』

현재 향교의 조직은 서울의 성균관 관장하에 중앙에 유도회(儒道會) 총본부를 두고 지방조직으로는 시도에 시·도 지부, 시·군에는 향교단위로 지부를, 읍·면에는 지회를 두어 전국적인 유림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향교에서 석전대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유교이념이 우리 민족사에 정신적 지주를 이루고 있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성균관을 포함한 전국에 분포된 향교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성균관의 문묘는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고, 중요 건물(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삼문)들은 보물 제141호, 경내의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석전 행사때 행해지는 석전대제(釋奠大祭)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 않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기와 제기를 보유하고 고전음악인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 : 응안지악)과 고전무용인 팔일무(八佾舞), 제관이 입는 전통적이고 권위있는 의상과 고전적 의식 절차등이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 233개 향교중 보물로 지정된 건물은 장수,나주,영천,강릉향교의 대성전이 있고, 전주향교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지정 문화재로는 지방기념물로 2개소, 유형문화재 130개소, 문화재자료 91개소가 지정되어 대다수의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역별 향교(성균관)지정문화재 현황〉 1998.12현재

지역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계
鄕校現況	30(1)	16	18	38	26	29	43	30	3	233(1)
寶物	(1)	1			1	1	1			4(1)
史蹟	(1)				1					1(1)
天然記念物	(1)									(1)
重要無形文化財	(1)									(1)
有形文化財	4	5	18	35	6	20	12	27	3	130
文化財資料	21	8		3	20	10	27	2		91
地方記念物	1							1		2

( ) : 성균관

현존하는 남한의 향교와『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및 최근 발간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북한지역 종교자료집』등에서 종합 정리한 결과 이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는 2개소의 성균관과 345개소의 향교소재 기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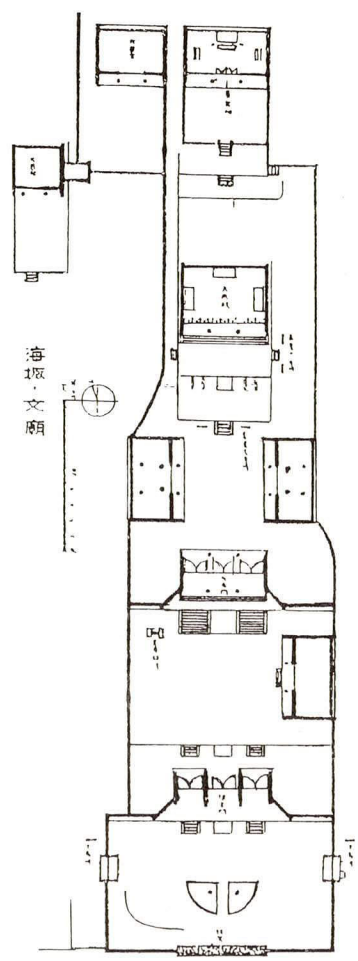
이북 소재의 현존 향교수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지방행정 체제와 여러 문헌 기록에서 볼 때 개성 성균관과 113개소의 향교(경기도:7, 강원도 : 10, 황해도 : 25, 평안남도 : 23, 평안북도 : 21, 함경남도 : 16, 함경북도 : 11)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남한에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기록에만 나타나고 있는 향교도 10개소 있다.

3. 州·府·縣學 建築과 曲阜의 孔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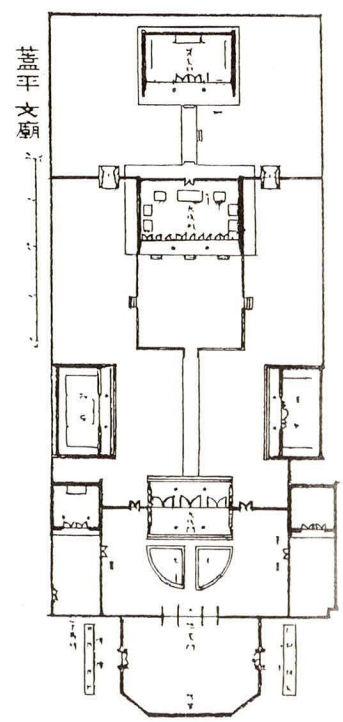
가. 州·府·縣學 建築

우리나라 성균관과 향교의 건물배치에서 볼 때, 곡부(曲阜)의 공묘(孔廟)와 성균관을 비교하면 평탄한 지형위에 대성전과 대성문을 중앙축선의 정위치에 두고 그 좌우에 동·서무를 배치한 형식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만주의 개평문묘(蓋平文廟), 해성문묘(海城文廟) 배치도를 볼 때 대성전을 후면 중앙에 두고, 대성전 기단 앞에는 월대(越臺) 형식의 넓은 의식공간을 만들고 월대 양옆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 전면 좌우에는 동·서무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성전의 일축선상에는 내·외신문의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다.



『海城文廟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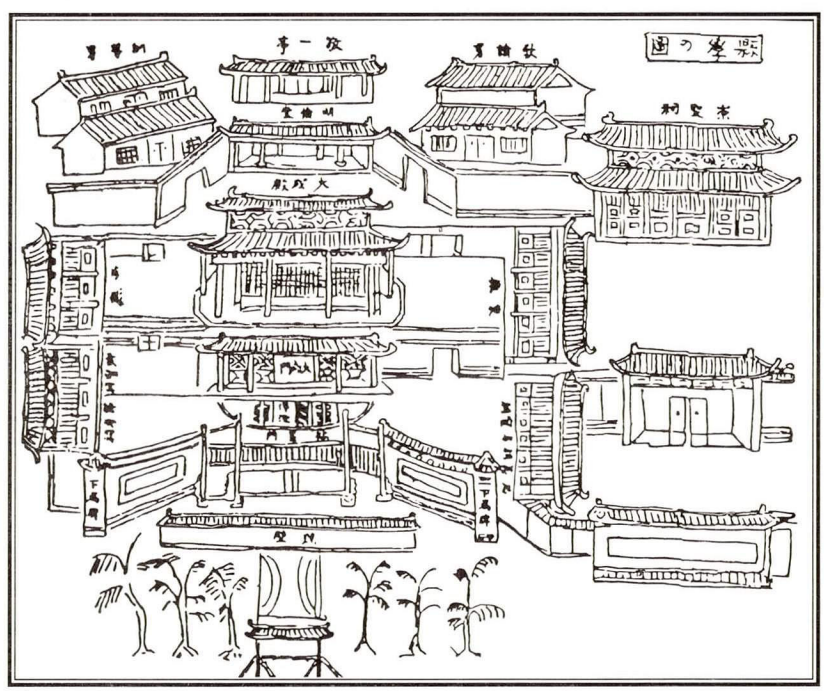
『蓋平文廟 配置圖』

이와같이 중국의 문묘와 우리나라의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항그배치 공간에서 문묘구역의 배치형태와 거의 흡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수(隋)·당(唐)·송(宋)·원(元)·명(明)·청(淸)조를 통하여 지방교육기관인 주학(州學), 부학(府學), 현학(縣學)을 설립하였으며, 그곳에는 반드시 선성(先聖), 선사(先師)를 봉사하면서 교육을 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 할 때 공자를 선성으로 배향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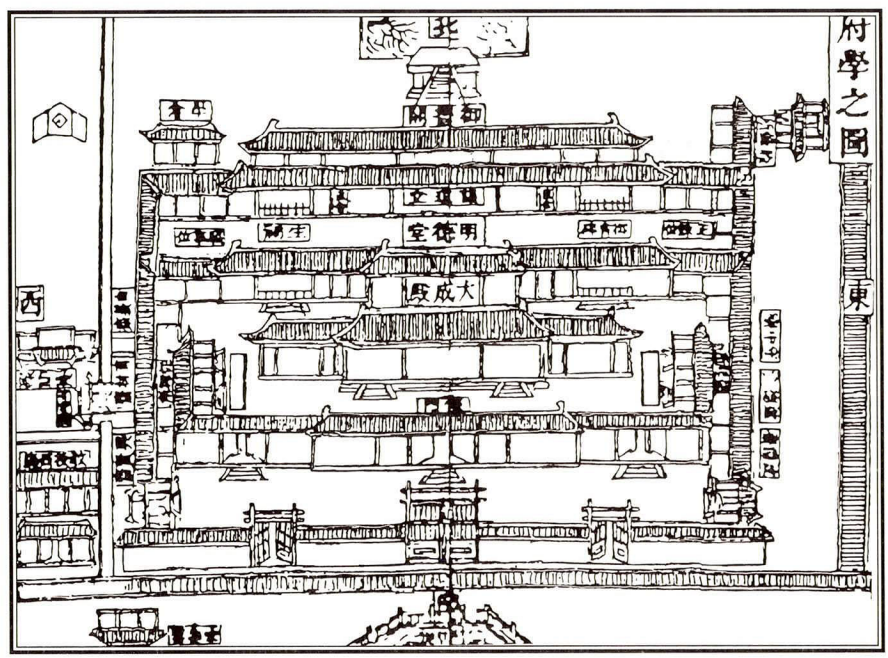


『明代 縣學의 建物配置』



『淸代 縣學의 建物配置』(자료 : 孔子聖蹟志)

명대의 현학(縣學)배치에서 건물명칭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청대의 현학 배치도와 비교할 때 주건물의 배치 골격은 큰 차이가 없다. 청대의 현학 배치나 송대의 건강(建康) 부학(府學)배치를 보면 중앙 전면에 중층건물(重層建物)의 대성전이 있고 그 뒤에 명덕당(明德堂)이 놓여 있고 이들 일축선상의 전면에는 내삼문, 외삼문을 두고 대성전 좌우에는 동 · 서무를 배치하고 있다. 그림상으로 볼 때 평지에 자리한 것으로 보이며 배치방법은 우리나라의 향교 배치형식중 전묘후학 배치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宋代 建康 府學配置』

이와같이 중국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신라,고려,조선을 통하여 도입된 문묘제도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기본 배치형식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지형적 여건에 맞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나 좌묘우학(左廟右學) 또는 우묘좌학(右廟左學) 배치형태로 변천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향교의 제도는 성균관의 모든 형을 따르고 있다. 문묘의식에 따른 절차 제도나, 문묘건물인 '大成殿' '東廡' '西廡' 등의 당호나, 이들 건물내에 모셔지는 성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에서의 '明倫堂' '東齋' '西齋' 등 모든 면에서의 기능이나 형식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나. 曲阜의 孔廟

중국은 수천년 동안의 봉건제 사회속에서 공자의 사상, 즉 수기치인(修己治人)－먼저 자신을 수양한 후 남을 지도하는데, 인(仁)으로서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아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이념의 목표로 봉건제에 의해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개조되고 이용되어 왔다.

한(漢) 이래 봉건 황제는 매년 공자를 모시게 되었다. 송대부터는 전국 각지의 현(縣) 이상의 모든 도시에 공자를 모시는 문묘가 설치되었다. 문묘곁에는 학교가 부설되었는데 도성(都城)에는 국자감(國子監), 부(府)에는 부학(府學), 현(縣)에는 현학(縣學)이라 불리웠다. 각지에 있는 문묘의 건축배치는 대개 유사하지만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은 유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즉 공자가 태어나고 또한 묻혀 있는 산동성(山東省) 곡부(曲阜)에 세워진 공묘(孔廟)이다.

공묘의 명칭은 중국 왕조에 따라 다르게 불리었는데 한(漢)에서 수(隋)까지는 중니묘(仲尼廟)라 했고, 당(唐)대에는 공성묘(孔聖廟) 문선왕묘(文宣王廟), 송(宋)대에는 선성묘(宣聖廟) 부자묘(夫子廟), 원(元)대에는 선성묘(先聖廟)등으로 불리어졌으며 현재는 공묘라 한다.

곡부에는 공자와 관련된 유적으로 크게 세 곳이 있는데, 첫째 공자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하는 공묘(孔廟)이고, 둘째는 공자의 묘가 있는 공림(孔林)이며, 세째는 공자의 후손인 역대 연성공(衍聖公)의 관사 겸 사택으로 쓰던 공간을 증축 재건하여 둔 공부(孔府)이다.

곡부에 있는 공묘는 한대(漢代)에 창건되어 그뒤 각시대에 끊임없이 증개축되었다. 현재 곡부 공묘의 구성, 규모는 명대(明代)의 홍치(弘治) 17년(1504)에 완성한 것이다. 묘내(廟內)의 건물들은 금(金), 원(元)시대에 건설된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 주요한 것은 모두 명.청시대의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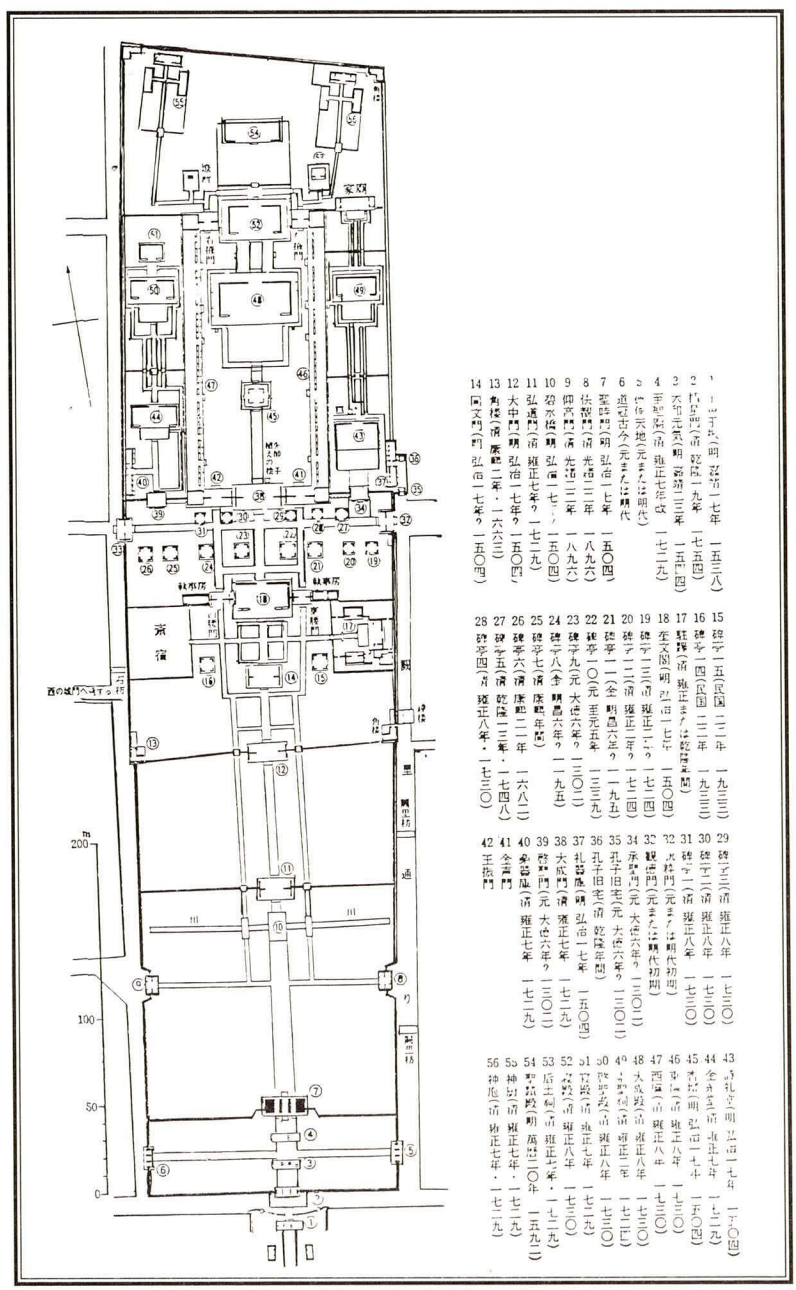
곡부현성(曲阜縣城)은 원래 공묘 동쪽 10여리 되는 곳에 있었지만 명대에 공묘를 지키기 위하여 현치(縣治; 縣廳)를 공묘 소재지로 옮기었기 때문에 현성 전체가 공묘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도시구성에 있어서 매우 특수한 예이다.

공묘는 부지 면적이 약 10ha이며 남북방향으로 종장(縱長)이 축을 이루는 건축군으로, 곡부성 남문을 들어서면 횡단하는 도로를 떨어져 바로 공묘의 정문이 있다.

공묘는 남북의 종방향(縱方向)의 안길이가 630m, 동서 정면 폭은 140m 이고, 주위를 두터운 담으로 둘러싸여 대중문(大中門) 좌우측 담장과 북측 담장 양 모서리에는 각루(角樓)가 세워져 있다. 공묘의 남북 축선상에는 모두 합하여 11동의 건물이 있으며 전후 2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측은 공묘의 도입부로 횡방향의 담에 의해 안길이가 깊은 공간을 대소 다양한 중정군(中庭群)으로 분할하고 있으며 각 중정에는 오래된 측백나무가 가득 심

어져 있어 언제나 푸르름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의 통로 양측에는 명대의 황제가 세운 비석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도입 부분의 길이는 공묘 안길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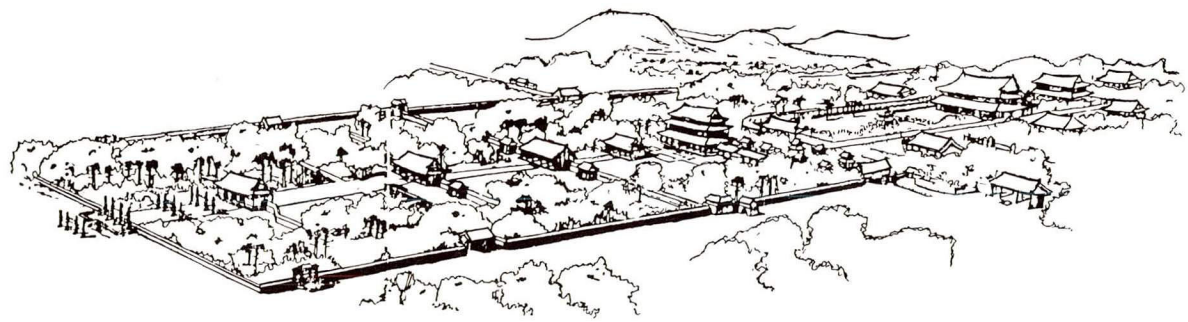
엄숙한 분위기가 거듭되는 중정군을 지나가면 북쪽 끝에 고대한 외관을 가진 이 도입부분의 중심건물인 높이 24.7m의 규문각(奎文閣)이 있다. 규문각 북쪽은 동서로 세장(細長)한 중정이고 그 동서 양측에는 협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은 공묘의 북부로 통하는 대성문(大成門)으로 되어 있다. 규문각 동남측에는 주탁(駐蹕)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마굿간에 말을 두고 걸어서 들어 가야 한다.



『曲阜 孔廟 配置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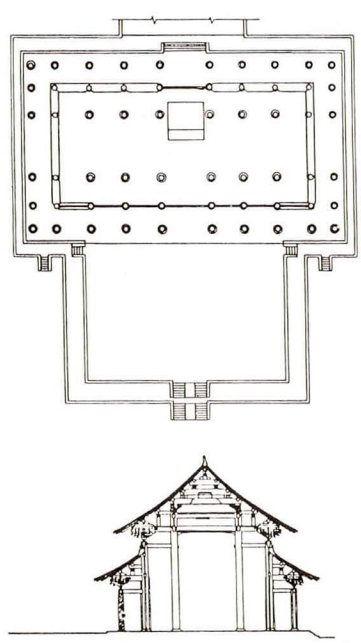
이 중정의 공간에는 당대 이래 역대 황제나 관리가 세운 비석(碑石) 및 비정(碑亭)이 동서 2열로 모두 13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몇개의 비정은 금(金)대나 원(元)대 이래 남아있는 목조건축이다.

북쪽은 공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성전(大成殿)이 위치한 공간이 전개된다. 이 부분의 규모 배치는 명(明)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것으로 그후 명대 중기에 개축되고 청(淸)대에 재건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장방형 정원이고 양측면에 회랑을 배치하였으며 중심부분에 공자가 강론하던 곳으로 전해오는 행단(杏壇)이 있으며 중심축을 따라 행단 바로뒤에 대성전이 배치되어 있고 중정의 남면이 대성문(大成門)이고, 북문에 공묘의 가장 주요한 건축인 대성전이 우뚝 서 있고 그 배후에도 부차적인 건물이 종으로 2동 줄지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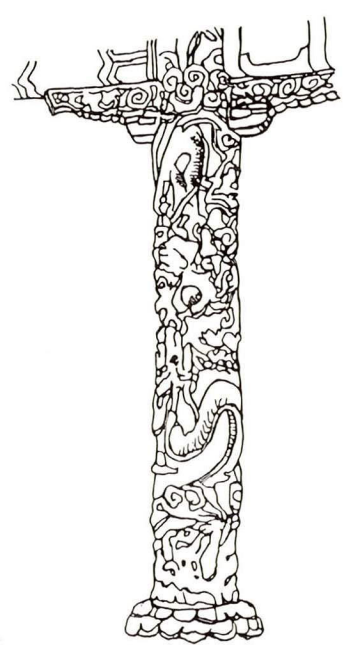


『曲阜 孔廟 鳥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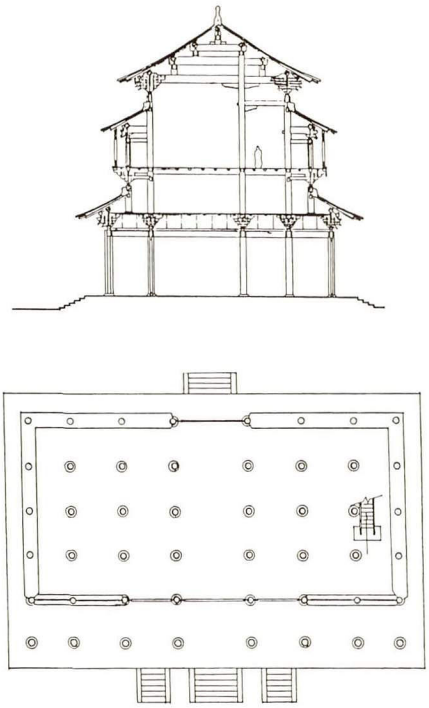
대성전은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높은 기단위에 있다. 이 기단은 상당히 넓고 제사를 지낼 때는 건물앞이 춤과 음악을 행하는 장소로 되었다. 대성전의 건물 본체는 높이 24.3m이고 기단을 더하면 더욱 더 높아 공묘의 건축군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건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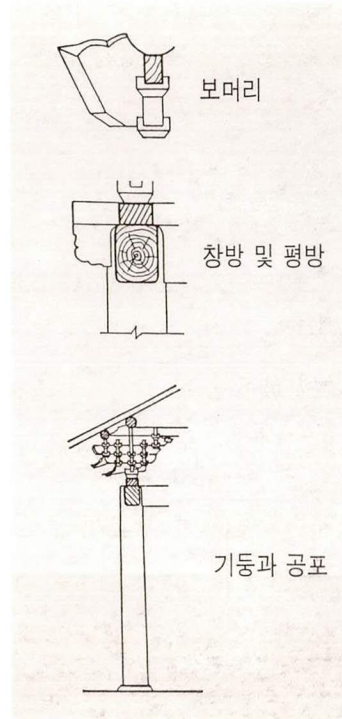
『孔廟 大成殿 平面圖, 斷面圖』



『孔廟 大成殿 籠柱』



『孔廟 奎文閣 斷面圖, 平面圖』



『奎文閣 부재 상세도』

대성전은 정면 9칸 측면 5칸이며 황색 유리기와로 이은 2층 팔작집 구조의 지붕으로, 황제의 주요한 궁전에 버금가는 중요도를 갖는 건축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성전 주위 28주의 돌기둥에는 생생하고 풍만한 반용(蟠龍) 72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공자의 72제자를 상징한다. 이것은 명대의 장인들이 힘을 합하여 완성한 우수한 석각예술 작품이다. 대성전 앞쪽은 공자가 강의를 한 장소로 전해오는 「행단(杏壇)」이 세워져 있다. 그 주위는 오래된 측백나무가 남아 있으며 이 일곽 전체에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가득 넘쳐 흐르고 있다.

공묘 건축군의 윤곽은 곡부성 밖의 건축을 훨씬 능가하여 멀리에서도 공묘 일군의 황색지붕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공묘의 위용은 그 자체의 건축형태, 길게 취한 도입부분, 도시속에서의 전체적인 위치 및 도시의 어떤 건축보다도 두드러진 높이 등의 다양한 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부학(府學), 현학(縣學)건축을 월등히 능가하는 중국 고대의 제사건축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향교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제2장

향교의 기능

1. 문묘 향사 기능

가. 석전제의 유래

나. 석전제관

다. 석전제향일

라. 석전제물

마. 설위와 배향인물

2. 교육 기능

가. 교육의 목적

나. 교생 및 교육

교생의 신분/입학자격/교생정원

교육과목/교관 및 운영

제2장 鄕校의 機能

향교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묘 선현봉사(先賢奉祀) 임무이다. 이는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를 빛내고 발전시킨 성현들의 훌륭한 덕을 기리고 그 위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 기능으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후 1차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생은 생원(生員) 또는 진사(進士)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며, 성균관에서 문과시에 응시하여 고급관리로 발탁되는 까닭에 국가 동량 양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세째로 지역사회의 민풍교화(民風敎化)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유교이념이요 향교 교육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유교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까지를 포함한다.

향교는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고 각종 의례의 보급 및 전파등을 통하여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역사회의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太祖實錄』에 "농상(農桑)은 왕정(王政)의 근본이요,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다" 라 하여 즉위 이래 여러번 교서를 내려 농상을 권장하고 학교를 일어키는 뜻을 보였다.

향교 주기능 중 문묘 선현봉사 기능과 교육기능에서 다루고자 한다.

1. 文廟 享祀 機能

조선시대 각 지방관아에서 행하였던 공적이고 정규적인 제사의 대상은 삼단(三壇 - 社稷壇, 厲壇, 城隍壇) 일묘(一廟 - 文廟)가 있다고『牧民心書』에서 밝히고 있다.

사직단은 인간의 생존을 관장하는 토지와 곡식의 신령을 위해 마련된 단이며, 성황단은 고을의 수호신을 모신 곳이고, 여단은 주인없는 고을의 잡귀를 위해 제사지내는 단이다.

공적이고 정규적인 제사의 대상 중 하나인 문묘는 유학적 이념의 계승을 위한 의례적(儀禮的)인 공간으로 유학의 전통에 기여한 선현들을 받들어 제사하는 곳이다.

문묘란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약칭하여 불리우는 명칭으로, 문선왕은 세계 4대 성현중의 한분인 공자를 말하므로 공자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다. 문묘는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

감, 조선의 성균관 등 국립대학 구내(構內)에 건립하여 국가적 대사인 석전대제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어 온 공간으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을 문묘라 하고, 일반적으로 대성전과 동·서무를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는 그 경역 전체를 의미한다.

향교기능중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이 바로 문묘향사 기능이다. 향교에는 반드시 문묘가 있어 공자이하 중국의 성현(聖賢) 성철(聖哲)과 우리나라 현유(賢儒)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배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취급되고 있다.

『東文選』에 "…本國鄕校之制 廟學同宮…"이라하여 문묘가 중요한 의미로 취급되어 묘(廟) 즉 대성전이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가. 釋奠祭의 由來

석전(釋奠)이라 함은 문묘에서 공자가 남긴 인의도덕(仁義道德)의 이상을 근본으로 사람으로써 마땅이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써 공자에게 제사지내는 의식(儀式)을 일컫는데, 제자들이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육포 열 다발을 바치는 속수례(束修禮)를 행하는 것에서 비롯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묘에 봉안된 공자이하 제현(諸賢)을 봉안하는 제사를 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 하며 석전제(釋奠祭), 석채(釋菜), 석화(釋華),상정(上丁) 또는 정제(丁祭)라고도 한다.

석전은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던 사전체제(祀典體制)에서 오례(五禮 - 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의 길례중의 하나로서 옛부터 선성과 선사, 성현들께 드리는 향사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 선현들의 학문과 인격과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崇慕)하고 존중히 여기어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묘에서 거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이는 중국 고례(古禮)에 입학자(立學者)가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춘추로 석전례를 행한데서 유례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성이란 대체로 주(周)대의 요(堯)·순(舜)·우(禹)· 탕(湯)·문왕(文王)을 일컫고, 선사란 앞서간 전대(前代)의 훌륭했던 스승을 일컫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이고, 한(漢)이후 유교가 중시되면서 공자에게 선성선사의 자리를 올려 문묘의 주향으로 제사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삼아 공자의 옛집을 찾아가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수(隋)·당(唐)에 와서 공자를 선성, 안자(顔

子)를 선사로 정하고 석전례를 지냈다.

특히 당태종 정관(貞觀) 4년(630)에는 각 주(洲)의 현(縣)마다 공자묘를 세웠는데 당 현종(玄宗)이 개원 27년(739)에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으로 추봉하였다. 이는 공자에 대한 지극한 존칭으로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공자가 유일한데 이는 후세에 끼친 교육의 공로가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공자가 죽은 후 그의 옛집 곡부에 묘(廟)를 세우고 후제(後齊)에 이르러 태학 가운데에 공안(孔顔)의 묘(廟)를 두었다. 명(明)에 와서 태학의 문묘를 대성전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 되었다.

석전은 '석(釋)'과 '전(奠)'은 모두 차려 놓는다는 뜻으로, 간단한 채수를 차리고 단조롭게 지내는 제사를 석채(釋菜)라 하고, 석전은 생폐(牲幣)와 합악(合樂),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전(祭奠)을 뜻하고 있다.



『孔子의 肖像畵』

〈孔子의 歷代 尊稱〉

봉작년대(封爵年代)	봉작자(封爵者)	봉 호(封號)
周敬王 41년(BC 479)	魯 哀公	니보(尼父)
元始 원년(AD 1년)	漢 平帝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
太和 16년(492년)	北魏 孝文帝	문성니보(文聖尼父)
大象 2년(580년)	北周 靜帝	추국공(鄒國公)
開皇 원년(581년)	隋 文帝	선사니보(先師尼父)
貞觀 2년(628년)	唐 太宗	선성(先聖)
貞觀 11년(637년)	唐 太宗	선보(先父)
乾封 원년(666년)	唐 高宗	태사(太師)
天授 원년(690년)	唐 武則天	융도공(隆道公)
開元 27년(739년)	唐 玄宗	문선왕(文宣王)
大中祥符 원년(1008)	宋 眞宗	현성문선왕(玄聖文宣王)
大中祥符 5년(1012)	宋 眞宗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
大德 11년(1307)	元 武宗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嘉靖 8년(1529)	明 世宗	지성선사(至聖先師)
順治 2년(1645)	淸 世祖	대성지성문선선사(大成至聖文宣先師)
順治 14년(1657)	淸 世祖	지성선사(至聖先師)
民國年間	國民政府	대성지성선사(大成至聖先師)

석전제는 당(唐)에서는 중춘(仲春) 중추(仲秋)의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무일(上戊日)로 하고, 명(明)에서는 상정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高麗史』文宣王廟條에 의하면 고려 이후 중춘(2월),중추(8월)의 상정일로 정해져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 일제히 드린다.

『禮記』월령(月令)의 진씨(陳氏)가 주(註)한 바에 의하면 "정일(丁日)을 택하는 이유는 「丁日」은 바로 〈先庚三日 後甲三日〉이 되는 천간(天干)으로 「用丁爲文明也」이기 때문이다. 즉 정장성취(丁壯成就)의 뜻을 취한 것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의 예업(藝業)이 성취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다 " 하였다.

또한 춘추 가운데 달인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석전을 지내는 날로 잡은 것은 농경사회에서 춘추 시제(時祭)를 지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 석전대제(八佾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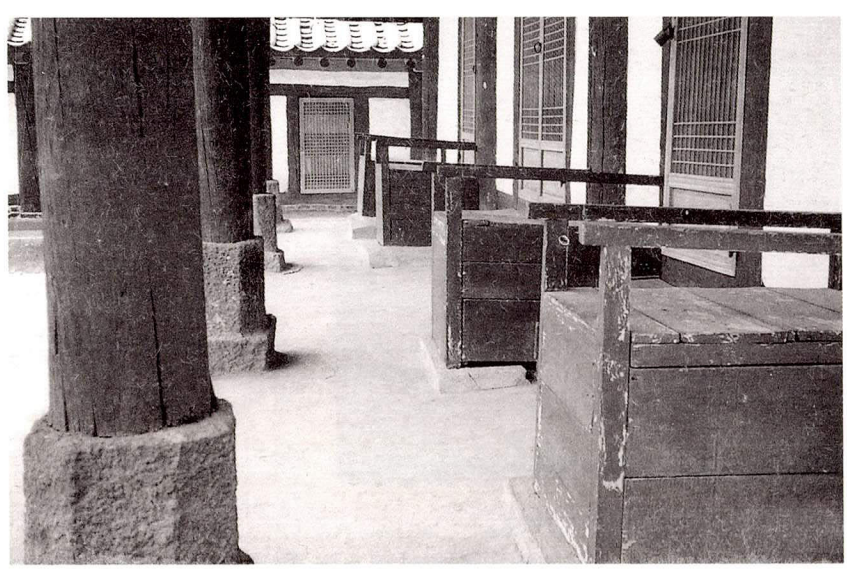


『성균관 석전대제(合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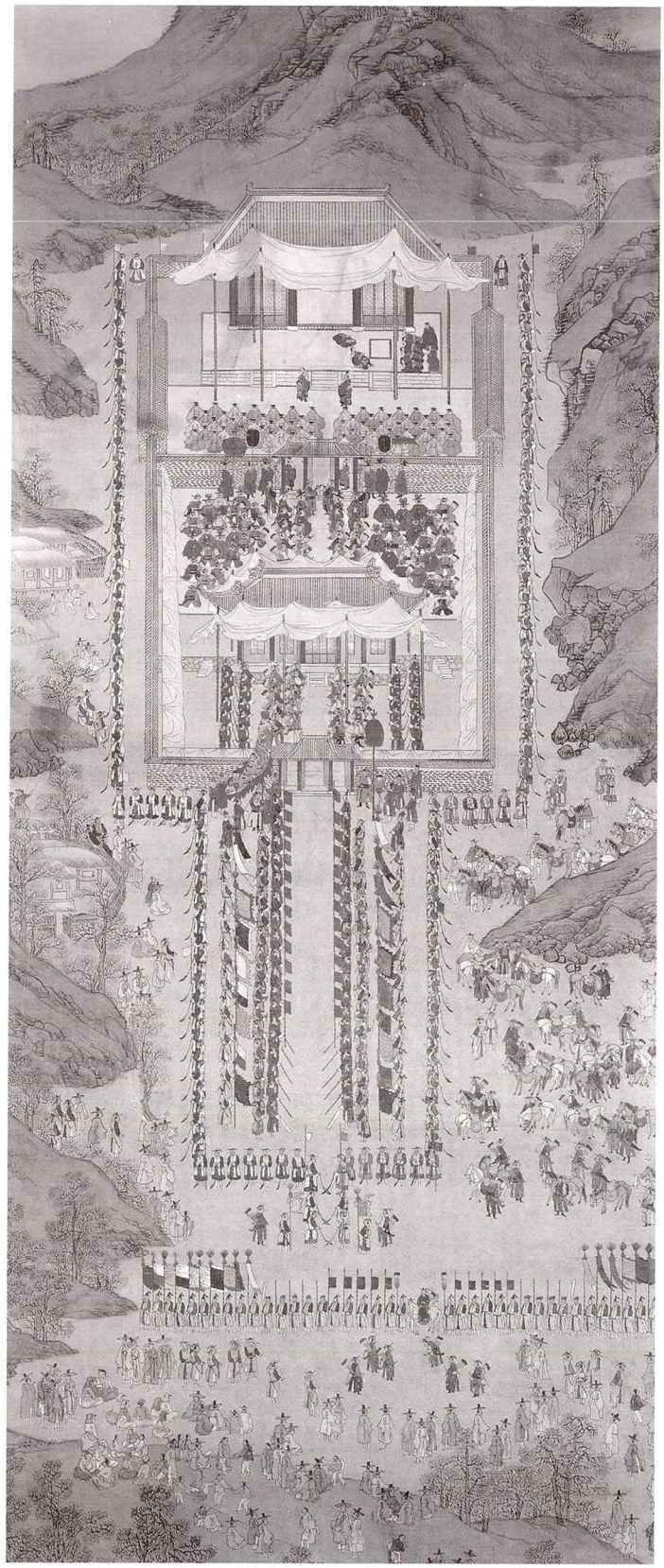
나.釋奠祭官

석전제의 제관은 헌관(獻官), 전례관(典禮官), 제집사(諸執事), 알자(謁者), 찬인(贊引)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헌관 및 집사의 명칭과 임무는

- 초헌관(初獻官) : 오성위(五聖位)에 향(香)을 사르고 첫 술잔을 올리는 제관(祭官)으로 제향의 주인이다.
- 아헌관(亞獻官) : 오성위에 두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 종헌관(終獻官) : 오성위에 세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 분헌관(分獻官) : 종향위(從享位)에 향을 사르고 잔을 올리는 제관
- 당상집례(堂上執禮) : 홀기(笏記)를 읽어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 당하집례(堂下執禮) : 원래는 동 · 서무 진행을 담당하는 집례였으나 현재는 동 · 서무에 위폐를 모시지 않아 대성전 월대 밑에 서서 해설을 담당하는 제관
- 전사관(典祀官) :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차리는 일을 맡은 제관
- 대축(大祝) : 축문을 읽는 제관
- 알자(謁者) : 초헌관을 안내하는 집사
- 찬인(贊引) : 아헌관, 종헌관을 안내하는 집사
- 봉향(奉香) : 향을 받드는 집사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드는 집사
- 봉작(奉爵) : 준소(樽所－술항아리를 놓아두는 곳)에서 사준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 전작(奠爵) : 헌관에게 술잔을 받아 신위앞에 올리는 집사
- 사준(司樽) : 준소에서 술을 잔에 따르는 집사



『서천향교 대성전의 준소』



『華城陵幸圖의 華城聖廟殿拜圖』
1795년 2월(정조 19) 행차를 그린 일부.
〈호암미술관 소장〉

헌관은 공자이하 사성에게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각1인과 분헌관으로 나눈다.

성균관의 헌관은 초헌관이 정2품, 아헌관은 정3품 당상관,종헌관은 정3품,전내 동 · 서분헌관 2명은 4품, 양무종향 분헌관 각 10명은 5~6품의 관원이 맡았다.

국왕이 석전제를 친히 행할 때는 국왕이 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았고, 왕세자가 행할 때는 왕세자가 헌관,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정3품 당상관이 맡았다.

조선왕조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제사나 유교의 종장인 공자의 제사에는 국왕이 직접 헌관이 되어 주관하게 되어 있었다. 국왕은 3년마다 한번씩 석전제를 주관하게 되어 있었으며, 간혹 특별히 석전제를 행하기도 하였다. 국왕이 친임하는 석전제가 끝나면 성균관 유생들에게 알성시(謁聖試)를 보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같이 국왕이 정기적으로 문묘를 찾는 외에도 『華城陵幸圖』에 나타난 『華城聖廟殿拜圖』를 보면 정조가 부(父)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모(母) 혜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의 현륭원(顯隆園)을 찾아 갈 때 공자를 모신 향교의 문묘를 참배하는 것으로 능행(陵幸)의 공식일정이 시작되는데 국왕의 나라에 대한 충

(忠)과 가정에 대한 효(孝)가 곁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정치의 근본이 유교의 근본사상임을 알 수 있다.

지방향교에서의 석전행사도 그 지방의 장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도 석전제향때는 그 지방의 시장 군수가 초헌관을 맡아 참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 초헌관으로 맡는 경우도 있다.

석전제관들의 임명은 향교 유도회의(儒道會議)에서 결정하여 전교와 유도회장이 석전제를 지내기 일주일전에 알려 준다. 이때 제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든 불미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2~3일간은 매일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석전제에 참여한다.

다. 釋奠 祭享日

최초로 태학을 설립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도 석전과 유사한 제사를 봉행했으리라는 추측이 있지만 석전봉행 기록은 조선시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제향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춘추계초(春秋季初) 정일(丁日)이 많고 공자 탄신일인 추계(秋季) 8월 27일(陰)에 제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석전을 올리고 있다.

향교의 석전은 원래 당나라에서 행하던 「釋奠禮典」에 따라 성균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철마다 그 가운데 달인 2월, 6월, 8월, 10월의 상정일에 행하고, 지방의 향교에서는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에 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하인 1937년부터 양력 4월과 10월의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1948년 설위(設位)의 방법개정과 석전의 일자도 함께 고쳐져 봄, 가을 두차례만 제사를 행하게 되었는데, 중국 유현 113위의 위패를 매안(埋安)하고 5성위와 송조 2현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여 춘추 석전을 폐하고 8월 27일(음) 기념석전을 봉행하다가 그후 공문 10철과 송조 4현을 복위하고 석전도 2월과 8월 상정일로 환원하여 봉행하여 왔다.

춘추 중월(仲月) 즉 초봄인 음력 2월과 초가을인 음력 8월 첫 정일(丁日)인 상정일에 문묘에 제사를 드린다. 첫 정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흔히 석전제(釋奠祭)로 향교에서 가장 큰 행사로 불려지고 있다.

1997년 부터는 춘계(春季)는 공부자 기일(忌日)인 4월 11일(陰)에 성균관과 향교에서, 추계(秋季)는 공부자 탄강일인 8월 27일(陰)에 성균관에서 석전을 봉행토록 결정하였다.

석전제를 지내는 시간은 옛날에는 축시(丑時 : 밤2시~밤4시) 오각(五刻 : 3시경)에 지냈으나 지금은 정오에 지내고 있다.

이와같이 지식인이었던 사대부들은 전국적인 단위로 일제히 거행되는 문묘 석전제를 통해서 상호 동일성 내지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국가의 사전체제(祀典體制)는 유교의 전통적 분류체제로 제사대상을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에 따라 분류하였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바람, 비, 구름등을 천신(天神), 땅과 산천등을 지기(地祇), 죽은사람의 경우에는 인귀(人鬼)라 하여 제사대상을 구별하였으며 제사의 명칭도 사(祀), 제(祭), 향(享)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천신을 모신 제단에는 요(燎)를 설치하여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반면, 지신과 인귀를 모신 제단이나 묘에는 예(瘞)를 설치하여 묻었다. 그리고 해·독의 경우 축문과 폐백을 물에 띄었다.

또한 제사에는 大,中,小 삼사(三祀)의 지위를 두어 국가를 상징하는 사직과 왕조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종묘는 대사(大祀), 천신의 풍운뇌우, 지기의 악·해·독, 인귀의 선농·문선왕·역대시조 등은 중사(中祀), 명산대천에 대한 독제(纛祭),.여제(厲祭)등 나머지는 소사(小祀)에 포함되었다.

〈五禮의 吉禮 神位의 區別〉

	天 神	地 祇	人 鬼
大祀		社稷	宗廟(능제.문소.광효전)
中祀	風雲雷雨	악.해.독 성황	文宣王.先農.先蠶.朝鮮檀君 우사.후기조선기자.고려시조
小祀	영성.마조	名山大川.마사.마보 영제.칠사	선목.사한
제사명칭	사(祀)	제(祭)	향(享)

석전은 중사(中祀)로서 성균관의 경우에는 10변(籩－대나무로 만든 마른 제수를 담는 제기) 10두(豆－나무로 만든 젖은 제수를 담는 제기)를 사용하고, 향교의 석전에는 8변 8두의 제기를 사용한다.

제의 절차는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분헌례(焚獻禮)－음복례(飮福禮)－망예례(望瘞禮)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석전제와 함께 매월 삭망(朔望)에는 분향례(焚香禮)를 정기적으로 지내고 있는 향교도 있다.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행사로는 나라 또는 문묘에 큰 일이 생겼을 때 행하는 고유제(告由祭),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내부의 위패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수리가 끝난 후에는 환안제(還安祭)가 있고, 문묘가 도난 화재 뇌우등 불의의 재난을 당

했을 때의 위안제(慰安祭), 문묘의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켰을 때의 예성제(禮成祭)등이 있는데 이는 전교(典校)가 장의(掌議)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라. 釋奠 祭物

문묘의 제사는 생식(生食)으로만 모시고 화식(火食)으로는 모시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성인은 하늘과 더불어 덕(德)이 한가지라 하늘을 좋아하므로 생물로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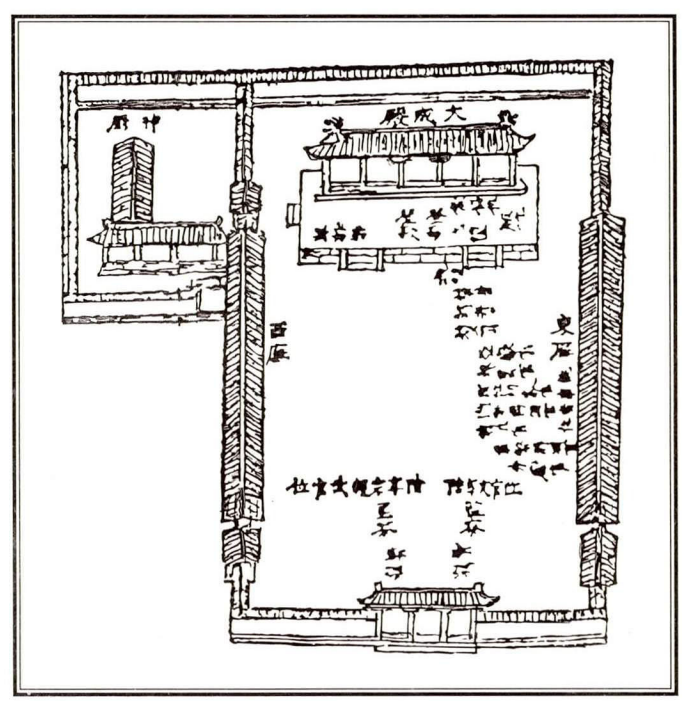
제향을 올릴 때의 제물을 희생(犧牲)이라 하는데 희(犧)는 소〈牛〉의 기운〈羲〉이라는 뜻으로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바침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소의 기운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같은 소일지라도 병든 소나 얼룩소는 금물이었다. 곧 희(犧)는 털에 잡색이 섞이지 않는 소를 뜻한다.

그것은 소를 잡아 고기를 바친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를 바쳤다는 뜻이다. 곧 희생은 문묘향사때 제물로 바쳤던 소를 뜻한다. 다만 암컷은 바치지 않고 여위거나 비루먹지 않은 튼튼하고 우람한 수컷만을 골라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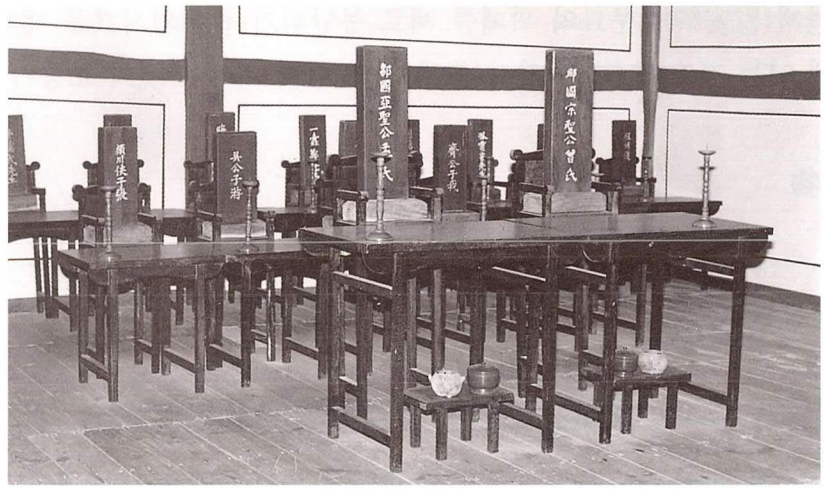
그런데 희생에는 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생(三牲)이라하여 양이나 돼지도 제물로 쓰곤한다.

마. 設位와 配享人物

문묘에 배향하는 인물은 공적, 국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향교의 대소 규모에 따라 문묘종사자의 설위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대설위(大設位) 중설위(中設位) 소설위(小設位)로 구분되어 설위절차 및 배열형식은 『國祖五禮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文宣王廟圖(國朝五禮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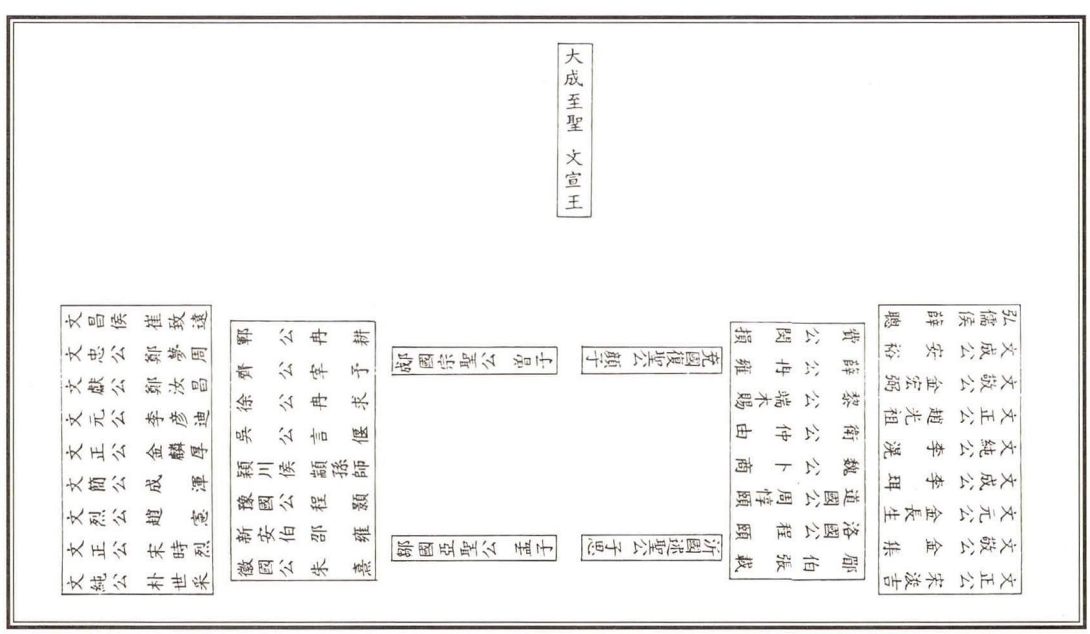


『보은향교 대성전내 위패』

(1) 大設位

성균관의 제도와 같이 주로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계수관(界守官) 및 주(州) 부(府) 목(牧)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세워진 향교에 취해진 설위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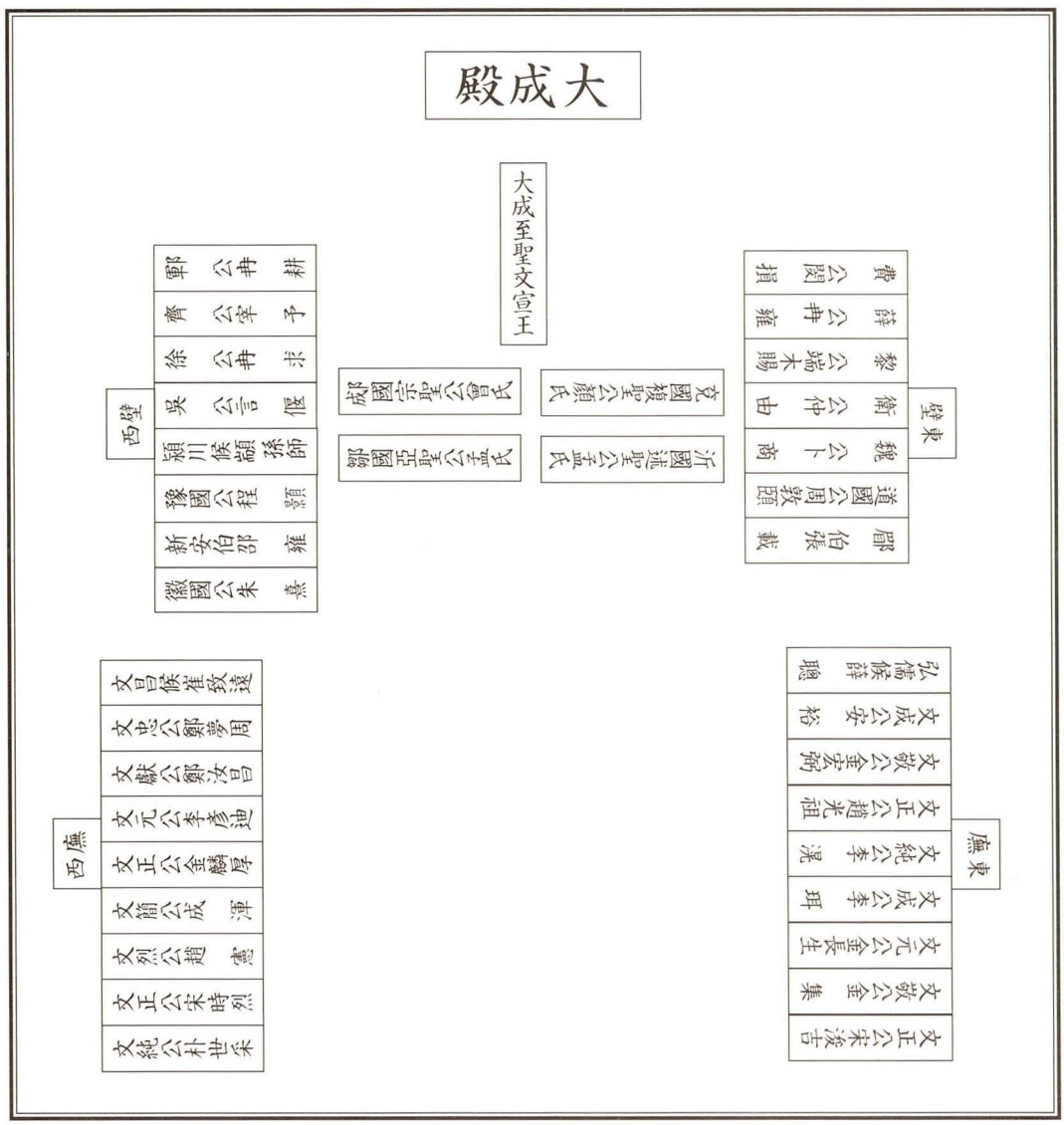
대설위는 원래 『大成至聖文宣王』이라 쓴 공자의 위패와 영정을 모셨으나 후에는 바뀌어 공자의 위패를 중앙 정위(正位)에 봉안하고 그앞에 사성(四聖)【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을 배향하고 사성뒤에 공자의 수제자인 십철(十哲) 【민손(閔損) 염경(冉耕) 염옹(冉雍) 재여(宰予) 단목사(端木賜) 염구(冉求) 중유(仲由) 언언 (言偃) 복상(卜商) 전손사(顓孫師)】 및 송조육현(宋朝六賢)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주희(朱熹)】을 종사한다. 또 동 · 서무에는 공문(孔門) 72현과 한당(漢唐) 22현 및 우리나라 18현유를 종사한다.


大成至聖 文宣王
文昌侯 崔致遠
文忠公 鄭夢周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金馹孫
文正公 趙光祖
文簡公 成 渾
文烈公 李珥
文純公 朴世采
文正公 宋時烈
文成公 李珥
文元公 金長生
文敬公 金集
文正公 宋浚吉
弘儒侯 薛聰
文成公 安珦
文純公 周敦頤
文正公 趙 翼
文敬公 李 穡
文忠公 白 頤
文成公 閔 漬
文敬公 金 坵
文正公 崔 冲
魏國公 徐 敬德
豫國公 金 麟厚
新安伯 朱 熹
豫國公 鄭 夢周
豫國公 趙 憲
豫國公 金 宏弼
豫國公 鄭 汝昌
豫國公 崔 致遠
豫國公 李 彦迪
豫國公 李 滉
豫國公 成 渾
豫國公 趙 憲
豫國公 金 長生
豫國公 宋 浚吉
豫國公 宋 時烈
豫國公 朴 世采
豫國公 尹 拯
豫國公 李 珥
豫國公 成 渾
豫國公 金 集
豫國公 宋 浚吉

(2) 中設位

주로 도호부(都護府)와 군(郡)에서 취해진 설위형식으로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시키고 4성을 배향으로 모시고 10철 송조6현을 종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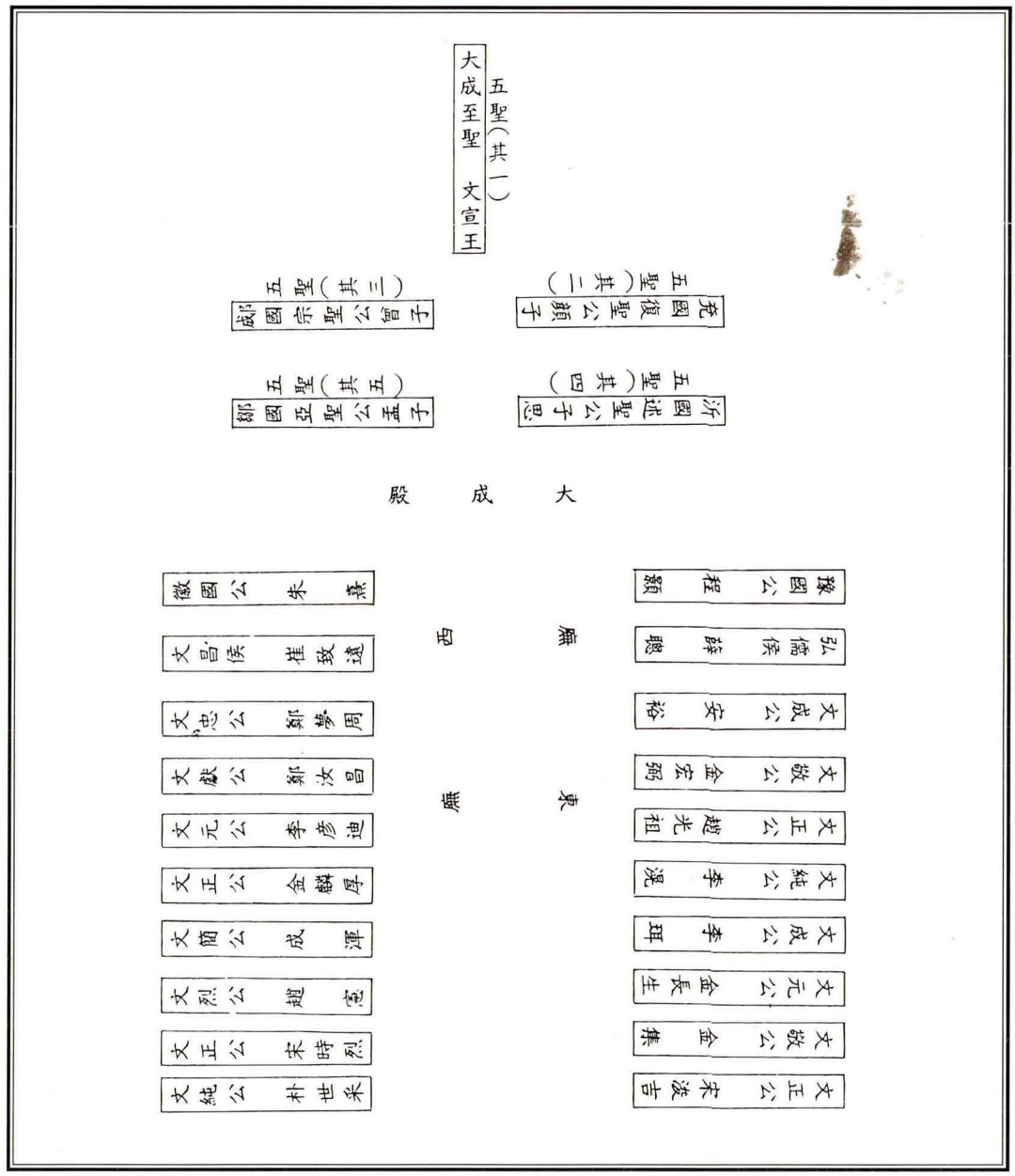
동 · 서양무에는 승무(陞廡)된 우리나라 18현을 종향한다.



『天安鄕校 正配從享從祀位圖』

(3) 小設位

소설위는 주로 소군(小郡)이나 현(縣)에서 취해진 설위형식으로 대성전에 공자와 4성 및 송조4현(주돈이.정호.정이.주희)을 모시고, 10철은 제외하였으며, 동서벽에는 우리나라의 18현을 모신다.



『槐山鄕校 大成殿 東西廡 先聖先賢位牌奉安位次圖』

이와 같이 향교의 규모 및 위계에 따라 대,중,소설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향교에 따라 일정치 않다.

1948년 당시의 유도회장(儒道會長) 김창숙(金昌淑)이 우리나라의 문묘에 중국의 10철 이하 72현, 한 · 당의 명유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사상의 여풍이라하여 공자, 4성, 정이(程頤), 주희(朱熹)이외의 설위는 모두 철폐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18현만을 배향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전국의 향교도 이를 시행할 것을 시달하여 한때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뒤 이명세(李明世)가 성균관장이 되면서 매안(埋安)했던 위패

〈五聖 一覽表〉

聖人	爵 號	諱	字	生沒年	國籍	摘 要
공자(孔子)	大成至聖文宣王	丘	仲尼	BC 551~BC 479	魯	曲阜에서 탄생. 사후 제자들이 공자언행을 모은 것이『논어』
안자(顔子)	兗國復聖公	回	淵	BC 521~BC 490	魯	공자의 수제자. 德行으로 꼽히는 제자. 仁을 실천
증자(曾子)	郕國宗聖公	參	子輿	BC 505~BC 436	魯	공자의 제자. 孝의 실천자 大學.孝經 저술. 공자의 학통 전수
자사(子思)	沂國述聖公	伋	子思	BC 483~BC 402	魯	공자의 손자,증자의 제자 中庸 저술. 天人合一 이론세움
맹자(孟子)	鄒國亞聖公	軻	子輿 子車	BC 372~BC 289	鄒	孟子七編저술. 仁義之道 체계 王道政治 제시. 性善說 주장

〈孔門 十哲 一覽表〉

哲 人	字	爵號	生 沒 年	國籍	摘 要
민손(閔損)	子騫	費公	BC 507~ ?	魯	孝行 德行의 대표적 제자
염경(冉耕)	伯牛	鄆公	B C 544~ ?	魯	德行이 뛰어남
염옹(冉雍)	仲弓	薛公	BC 522~ ?	魯	德行이 민손과 병칭됨
재여(宰予)	子我	齊公	BC 522~BC 458	魯	言語에 단목사와 병칭
단목사(端木賜)	子貢	黎公	BC 507~BC 420	衛	言語에 능하고 利財에 밝음
염구(冉求)	子有	徐公	BC 522~BC 489	魯	政治에 능함. 부국강병술
중유(仲由)	子路	衛公	BC 542~BC 480	魯	政事에 능함
언언(言偃)	子遊	吳公	BC 506~ ?	吳	文學에 능함. 德治主義 실행
복상(卜商)	子夏	魏公	BC 507~BC 400	魯	文學에 뛰어남
전손사(顓孫師)	子張	陳公	BC 503~ ?	陳	義,德,道를 역설

〈宋朝 六賢 一覽表〉

賢 人	號	字	諡號	出生地	生沒年	摘 要
주돈이(周敦頤)	濂溪	茂叔	道國公	北宋 道州	1017~1073	宋學의 비조. 태극도설 저술
정호(程顥)	明道	伯淳	豫國公	宋 河南	1032~1085	주렴계의 제자
정이(程頤)	伊川	正叔	洛國公	宋 河南	1033~1107	정호의 아우
소옹(邵雍)	康節	堯夫	新安伯	宋 河南	1011~1077	象數學에 정통함. 先天說
장재(張載)	橫渠	子厚	郿伯	宋 大梁	027~1077	太虛로 우주를설명
주희(朱熹)	晦菴	元晦	徽國公	宋 徽州	1130~1200	性理學 집대성
※ 宋朝四賢 : 주렴계.정명도.정이천.주회암						

를 복설(復設)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일부 향교에서는 중국계 현철은 대성전에 모시고 우리나라의 유현은 동 · 서무에 모시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라 하여 우리나라 유현도 대성전 안으로 이안(移安)하는 향교도 있었다.

현재는 각 지방향교의 사정에 따라 배향인물의 수나 위차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향교가 동 · 서무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이안하여 동 · 서무는 비어 있는 향교가 많이 있다.

문묘에 종사(從祀)한 우리나라의 선현은 신라시대의 6두품 출신의 유학자인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과 고려의 안향(安珦)이 처음이고, 조선 중종 12년(1517)에 정몽주(鄭夢周)를 문묘에 종사하고, 광해군 숙종년간에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이이(李珥),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등을 주,부,군, 현의 모든 문묘에 배향하도록 하였다. 그후 영조대에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박세채(朴世采)를 추가하였고, 정조대에 김인후(金麟厚)를 더하고, 고종 20년(1883)에 마지막으로 조헌(趙憲) 김집(金集)을 종사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현으로서 문묘에 배향된 선현은 18인이 된 것이다. 이중 2현인 최치원과 설총을 제외하고 모두 송학(宋學)인 성리학파(性理學派)의 유현(儒賢)이다.

우리나라의 문묘는 중국문묘와 달리 성리학의 본령인 송나라의 주자학을 일어킨 주희(朱熹)를 비롯한 6현을 대성전 10철의 대열에 승격시킨 것이나 양명학자를 문묘종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조선 유교의 성리학 일변도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문묘종사는 학문의 전수보다는 절의라는 도학적 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서 결정하였다.

문묘에 종사된 18현 이외에 1805년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 네분을 영남 유림의 추천으로 문묘 종사를 청원하였으나 서열 시비로 승인이 기각된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문묘 종사 청원기록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옛말에 이르기를 왕비를 배출한 집안보다도 대제학을 배출한 집안이 낫고, 대제학을 배출한 집안보다도 문묘 배향자를 배출한 집안이 낫다고 하였으니….

〈十八賢 一覽表〉

時代	先賢名	生沒死	諡號	號(字)	從祀年代	摘　要
高麗	설 총 薛聰	650경~740경	弘儒候 (1022)	雨堂 (聰智)	顯宗13년(1022)	원효의 아들. 慶州薛氏 시조. 이두문자 집대성. 신라의 석학
新羅	최치원 崔致遠	857~?	文昌候 (고려조)	(孤雲)	顯宗11년(1020)	慶州崔氏시조. 계원필경. 토황소 격문. 해인사에서 졸
高麗	안 향 安珦(裕)	1243~1306	文成公 (1306)	晦軒 (士蘊)	忠肅王6년(1319)	順興安氏 시조. 공자 및 주자상을 모셔온 최초의 주자학도. 성리학 처음 소개
〃	정몽주 鄭夢周	1337~1392 (영천출생)	文忠公 (1392)	圃隱 (達可)	中宗6년(1319)	延日鄭氏시조. 東方理學의 祖. 고려말 충신
朝鮮	김굉필 金宏弼	1454~1504	文敬公 (1574)	寒暄堂 (大猶)	光海君2년(1610)	金宗直문하. 성리학 통달. 甲子士禍때 사사됨. 동방사현
〃	조광조 趙光祖	1482~1519	文正公 (1560)	靜庵 (孝直)	光海君 2년(1610)	金宏弼의 문인. 기묘사화때 능주에서 사사. 東方四賢
〃	이 황 李 滉	1501~1570	文純公 (1576)	退溪 (景浩)	光海君 2년(1610)	朱子學집대성(동방의 주자) 陶山書院창건. 영남학파
〃	정여창 鄭汝昌	1450~1504	文獻公 (1575)	伯勗 (一 蠹)	光海君 2년(1610)	金宗直문인. 동방사현, 무오사화때 사사
〃	이언적 李彦迪	1491~1553	文元公 (1605)	晦齊 (復古)	光海君 2년(1610)	主理學波 창시, 동방사현 玉山書院(경주)에 배향
〃	이 이 李 珥	1536~1584 (강릉출생)	文成公 (1624)	栗谷 (叔獻)	肅宗8년(1682)	師任堂申氏의 子. 기호학파 동방이학 집대성. 대동법 주장
〃	성 혼 成 渾	1535~1598 (파주 출생)	文簡公 (1633)	牛溪 (浩原)	숙종7년(1681)	백인걸 문인. 성리학자 성수침의 子. 성리학의 대가. 坡山書院에 배향
〃	김장생 金長生	1548~1631	文元公 (1657)	沙溪 (希元)	肅 宗43년(1717)	이율곡 문하. 遯巖書院에 배향. 예학파 유학의 거두
〃	송시열 宋時烈	1607~1689 (옥천 출생)	文正公 (1695)	尤庵 (英甫)	英祖32년(1756)	김장생의 문하 여주 江漢祠에 배향
〃	송준길 宋浚吉	1606~1672 (한양 출생)	文正公 (1681)	同春堂 (明甫)	英祖32년(1756)	김장생의 문하, 송우암 동문생. 상주 興岩書院에 배향
〃	박세채 朴世采	1631~1695	文純公 (1698)	玄石 南溪 (和叔)	英祖40년(1764)	金尙憲의 문인 東儒師友錄저술
〃	김인후 金麟厚	1510~1560 (장성 출생)	文正公 (1669)	河西 (厚之)	正祖 20년(1796)	金安國의 문인 필암서원에 배향
〃	조 헌 趙 憲	1544~1592	文烈公 (1649)	重峯 (汝式)	高宗20년(1883)	이율곡의 문인, 의병장으로 금산전투에서 전사.김포 牛渚書院에 배향
〃	김집 金 集	1574~1656 (연산 출생)	文敬公 (1659)	愼獨齊 (士剛)	高宗20년(1883)	김장생의 아들로 부자가 함께 문묘에 배향됨.

2. 教育 機能

가. 教育의 目的

조선시대의 유학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문과(文科)를 준비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과 문과의 예비시험인 생원과 진사시를 준비하는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를 관학으로 육성하였고, 사학(私學)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다.

중앙의 성균관에서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의 향교는 새로운 통치체제에 필요한 치국(治國)의 전제가 되는 관리양성 및 확보의 목적도 있었겠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성리학의 철학적 교육이 아니고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도덕적 규범에 의한 교양교육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이는 고려가 망한 원인이 불교의 타락으로 인한 민풍예속(民風禮俗)의 붕괴에 있었다고 보고 조선은 국초부터 유교적 예제(禮制)를 중심으로 민풍(民風)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 의한 흥학(興學)을 통하여 국가의 기반을 다지려 노력하였다.

억불숭유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관학(官學)이며 그중에서도 유교이념에 따라 지방의 민풍을 순화할 수 있는 곳이 향교였다. 향교는 성균관과는 달리 전국 각 고을마다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민문화에 깊이 접촉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초부터 국가에서는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중앙관리를 지방군현에 파견하여 수령이 지방의 정치를 담당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수단으로 뿐 아니라 향교에는 교관(敎官－敎授, 訓導, 敎導)을 두어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향교가 교육제도상 성균관과 직결된 하부 교육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것으로 보아 관료양성의 목적보다는 민풍교화(民風敎化)에 설치 의의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나. 校生 및 教育

(1) 校生의 身分

교생의 신분은 양반자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로는 공신(功臣)의 자제로부터 국역(國役) 전반을 담당하는 평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교생으로 입학을 하게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평생동안 교생신분이 유지된다. 교생의 정년은 60세로 교육년한이 없으며 60세가 넘어야 교생신분에서 노제자로 밀리게 된다.

명륜당 좌우에는 교생들이 거처하는 동·서재가 배치되는데 동재에는 액내교생(額內校生)이라하여 양반들이 거처하고, 서재에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하여 평민이나 서류(庶

類)들이 거처하여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재유생을 유생(儒生)으로 호칭하고 명부는 청색(青色) 표지로 되어 『青衿錄』『青衿案』『東齋案』『東齋儒生案』『儒生案』『儒案』등으로 불렸으며, 서재유생을 교생(校生)이라 하고 명부는 황색(黃色) 표지로 되어 『校案』『西齋校生案』『西齋儒生案』『西齋儒案』등으로 불렸다.

인조대에 교생고강(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양반들은 액내교생으로서의 입학을 회피하였다. 그대신 고강(考講-시험)이 면제되는 중앙의 성균관이나 사학을 모방하여 동재유생〈=青衿案儒生〉이라 이름하고 별도로 청금록(青衿錄)을 작성하여 일반교생과 구분하려 하였다. 이에 평민 서얼들이 양반대신 액내교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이들은 동재유생과 구별하여 서재교생이라 호칭되었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청금단령(青衿團領)을 입고 복두(幞頭)를 섰다. 그리하여 관학유생들의 명부를 청금록이라 하였다.

교생은 4부학당과 같이 향교에서 수학을 마치고 1차 과거 즉 경서(經書)시험에 합격한 자는 생원(生員), 시부(詩賦)시험에 합격하면 진사(進士)의 칭호를 얻고, 다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문과시(文科試)에 응하여 고급관리에 오를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성균관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향시(鄕試)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향교는 향시를 위한 교육기관이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의 준비장이 되었는데 중기이후 서원이 발흥하고 향교가 쇠퇴하면서 고종 31년(1894) 과거제도의 폐지로 향교는 문묘를 향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2) 入學資格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선발되며,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의 서당에서 한문의 기초를 닦은 지방 양반의 아들 이었다.

『經國大典』「生徒條」에 "府 大都護府 牧 九十年 十六歲以下 不在額內 都護府 郡縣同"이란 기록을 볼 때 향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연령기준은 16세를 기준으로 16세 이상인 자는 정식 입교가 가능하고 그것에 미달이면 부교(赴校)하여 청강(聽講)을 할 수 있으나 정원내의 정식 교생으로 간주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년령규정은 고종 2년에 완성한 『大典會通』에 이르기 까지의 각종 법규에도 변동이 없었다.

(3) 校生定員

교생정원은 조선초기부터 정부에서 책정하여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고, 소재 관부의 대소에 따라 차이를 두어 책정하였다.

태종 6년에 교생의 정원을 정하고 성종 2년에 재조정하여 『經國大典』에 법제화하여 조선말까지 변동이 없었다.

〈校生 定員 對比〉

	太宗代	成宗代	增 員
府.大都護府.牧	50명	90명	40명
都護府	40명	70명	30명
郡	30명	50명	20명
縣	15명	30명	15명

그러나 인조때 법제상으로는 정원이 있었으나 소위 액외(額外)라 하여 법정의 정원을 초과하여 납표(納票)만하면 교적(校籍)에 입속(入屬)시키었다. 또한 임병양란 이후 향교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생의 피역장소(避役場所)로 변함에 따라 법제화된 정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4) 教育科目

향교의 교육에 채택된 교육과목은 『小學』 과 유교의 기본 경전인 『四書五經』(四書 : 論語, 孟子, 中庸, 大學. 五經 : 詩經, 書經, 易經, 春秋, 禮記)이 주요학과 였는데 그중에서도 『小學』을 가장 중요시하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소학은 송나라의 유자징(劉子澄)이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아동용 수신서(修身書)로서 예의범절 충효사상등의 유교적 윤리관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小學』은 인륜세도(人倫世道)에 지극히 필요한 책이니 다른 어떤 책보다도 먼저 배워 익히며 완전히 익힌 다음에 다른 책을 익히도록하며 '생원시(生員試)에 지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책을 통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하게 하라'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향교의 기능이 민풍순화의 역할을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주요 과목으로 『大學』을 들 수 있는데, 유학은 나만의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함께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유학의 경전인 『大學』에서 유교 교육의 목적을 「삼강령(三綱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팔조목(八條目)」에서 유학의 근본사상과 덕행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三綱領에서 『大學』의 道는

『명명덕(明明德)』: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밝고 선한 마음을 밖으로 발휘하며 〈나〉
『친민(親民)』: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화시켜 혁신하게 하고 〈이웃〉
『지어지선(止於至善)』: 나아가 이것을 확대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을 착하게 한다 〈세상 〉

즉 「스스로를 밝게 닦고 이웃(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른다」는 유학의 근본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八條目에서는

『격물(格物)』: 사물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며
『치지(致知)』: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으로 나의 지식을 완성하며
『성의(誠意)』: 남을 속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삼가하며
『정심(正心)』: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사사로운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수신(修身)』: 나 자신을 수양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며
『제가(齊家)』: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질서를 바로 잡으며
『치국(治國)』: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발전에 선봉이 되며
『평천하(平天下)』: 만방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즉 「사물 혹은 사소한 인간의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야 나라의 정사에 개입하고 마침내는 유학의 이상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룩 할 수 있다」는 덕행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四書三經』『性理大典』『三綱行實』『二倫行實』『孝經』등이 있었고 때로는 『近思錄』『史書』등도 지도하였다.

(5) 敎官 및 運營

향교교육은 예조(禮曹)에서 관할하고 각도에는 관찰사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관찰사는 다시 각 지방 수령을 통하여 교육을 지도감독하였다. 즉 교생에 대한 교육은 교관(敎官)이 하게 되나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 수령이 하였다.

조선시대 지방행정 및 교육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민 순화의 책임자로 교관의 교육활동을 감독하고 장려하며 때로는

교생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였다.

교관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유학자로 중앙관부에서 선발하여 파견하였으며 그 임기는 900일이 법정기한이었다.

향교 교관의 법정인원은 각 향교에 1명의 교관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교관으로는 주·부·목(州府牧)에서는 대개 종육품(從六品) 교수(敎授) 1인이 있었고, 오백호 이상의 군현에서는 종구품(從九品)의 훈도(訓導) 1인을 두고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감독케 하였다. 또한 오백호 미만의 소고을에는 학장(學長)을 두었으며 향교마다 교장(校長), 제장(齋長), 장의(掌議) 색장(色掌), 유사(有司), 재임(齋任)과 교노(校奴) 방자(房子)를 두었다.

전국적으로 교수는 72명 훈도는 257명으로 교관이 329명이었다.

〈全國 道別 敎授 訓導數〉

	京畿道	忠淸道	慶尙道	全羅道	江原道	黃海道	平安道	永吉道	計
敎授	11	4	12	8	7	6	11	13	72
訓導	26	50	55	49	18	19	31	9	257

교생이 독서하는 일과는 매달 수령으로부터 관찰사에게 보고되고 관찰사는 순행하면서 교생을 고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유생에게는 호역(戶役)을 감해 주었다. 또 각 도의 관찰사들은 도내 교생을 골라 1년에 한번씩 도회소(都會所)를 열고 문관(文官) 3명을 파견하여 강론과 제술로 시험하여 충청, 전라, 경상 삼도는 각 5명씩을 그외의 도는 각 3명씩 선발하여 생원 진사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된다. 다시 성균관에 입학자격을 얻게 되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과거 문과에 응시한다.

제3장

향교의 입지, 건물구성 및 배치

1. 향교의 입지
   - 가. 관부위치에 따른 향교의 입지
   - 나. 향교 소재 지명고
   - 다. 향교의 좌향 및 지형
   - 라. 행단
2. 구역별 구성건물
   - 가. 문묘구역 건물구성
   - 나. 강학구역 건물구성
   - 다. 부속건물
3. 건물배치
   - 가. 전묘후학 배치
   - 나. 전학후묘 배치
     - 일축선형 배치/절곡축선형 배치/직교축선형 배치
   - 다. 우묘좌학배치
   - 라. 좌묘우학 배치
4. 구역별 배치
   - 가. 문묘구역 배치
   - 나. 강학구역 배치
     - 전당후재형 배치/전재후당형 배치/무재후당형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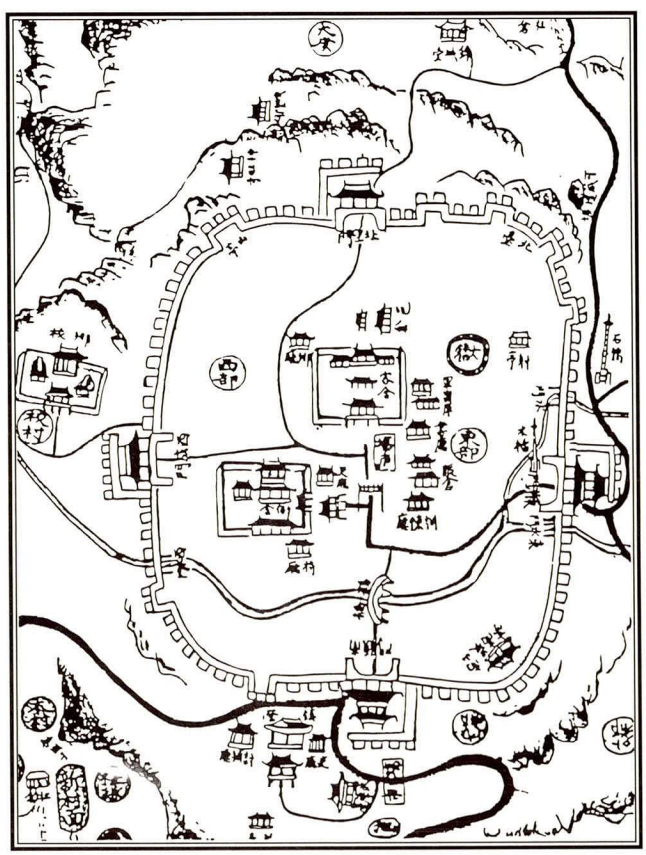
제3장 鄕校의 立地, 建物 構成 및 配置

1. 鄕校의 立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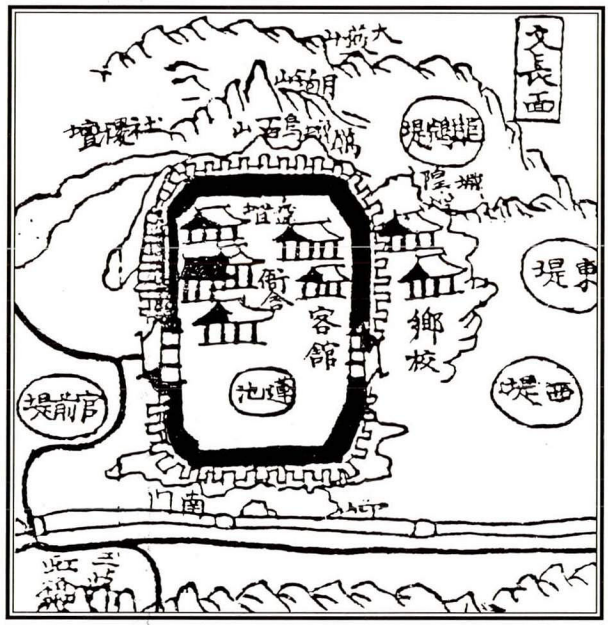
가. 官府 位置에 따른 鄕校의 立地

향교는 선화당(宣化堂)이나 동헌(東軒), 객사(客舍)와 함께 제향과 교육을 위한 경건한 장소이므로 입지 선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위치는 대개 고을을 약간 벗어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에 자리하게 되는데, 주로 관부(官府 : 또는 客舍.城.鎭山)를 중심으로 읍성(邑城)밖의 구릉지에 배치되고 있다. 이는 향교가 관부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 제향과 교육의 양대 기능을 중시하였던 관계로 관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산언덕의 경사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택지선정의 이론적 근거인 양택론(陽宅論)에 근거하여 남향으로 좌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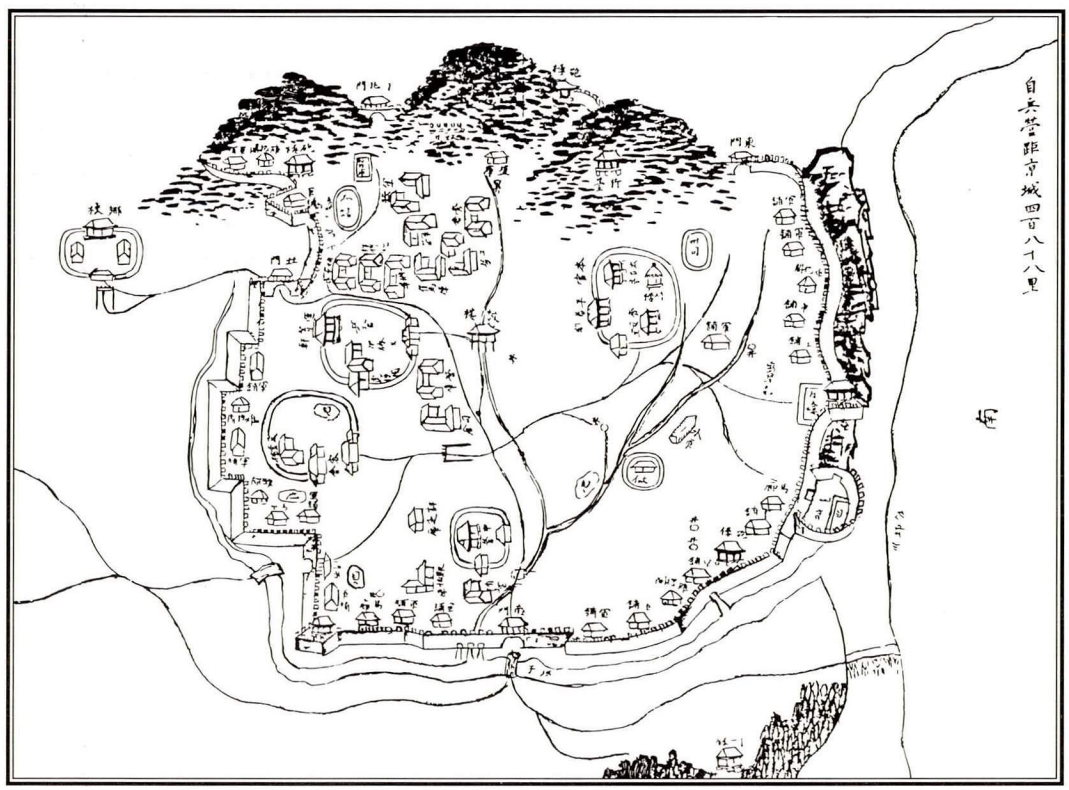


『朝鮮後期 羅州邑城圖』〈규장각소장〉



『舒川郡圖』〈輿地圖書〉

관부의 입지에 따라 향교의 위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방향에도 위치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대체로 관부의 동쪽과 북쪽에 주로 위치하고 서쪽에도 일부 두고 있지만 남쪽 방향에는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헌이나 객사등 관부가 주로 자좌오향(子坐午向)하는 관계로 그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위해 입지 선정으로 취해진 조치인 듯하며, 남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부와는 인접되지 않고 2-3里 떨어져 산이나 언덕을 넘어 관부와의 시야에 벗어난 일정거리를 둔 위치에 입지한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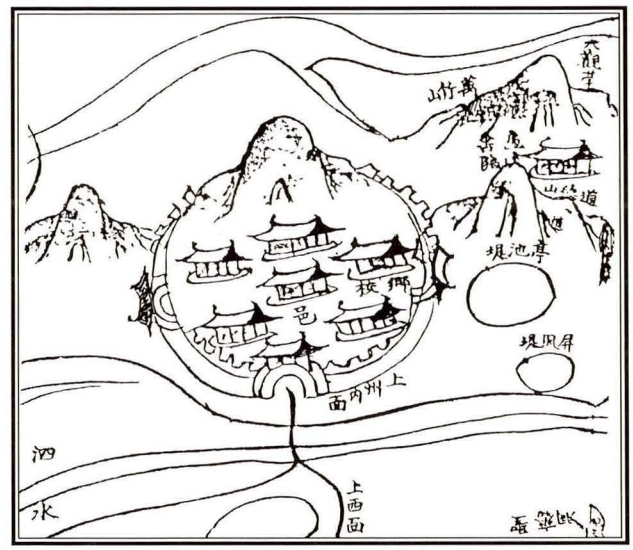
『黃海道 兵營城圖』〈輿地圖書〉

관부와의 거리는 대개 1리(里)에서 3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대다수 5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향교가 중앙조직의 지휘에 의해 유학교양을 갖춘 관리들이 설립한 관학이었으며, 문묘향사 강학의 기능뿐 아니라 지방민의 교화 기능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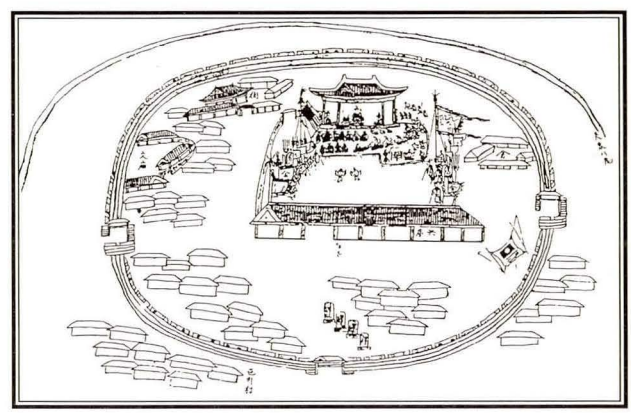
읍치(邑治)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함경도의 삼수(三水)·경원(慶源)·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흥(慶興)·부령(富寧)·무산(茂山)·평안도의 안주(安州)·의주(義州)·창성(昌城)·삭주(朔州)·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벽동(碧潼) 등의 변방(邊方)과 제주도의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및 일부 남해안 지방의 동래(東萊)·기장(機張)·사천(泗川)·서해안 지방의 강화(江華)·만경(萬頃)·임피(臨陂) 등의 해변에서는 외적의 침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성내(城內)에 향교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또 시대가 내려갈수록 관부와의 거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문헌 기록에서도 많은 수의 향교가 기록되지 않음을 볼 때 향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泗川郡圖』〈輿地圖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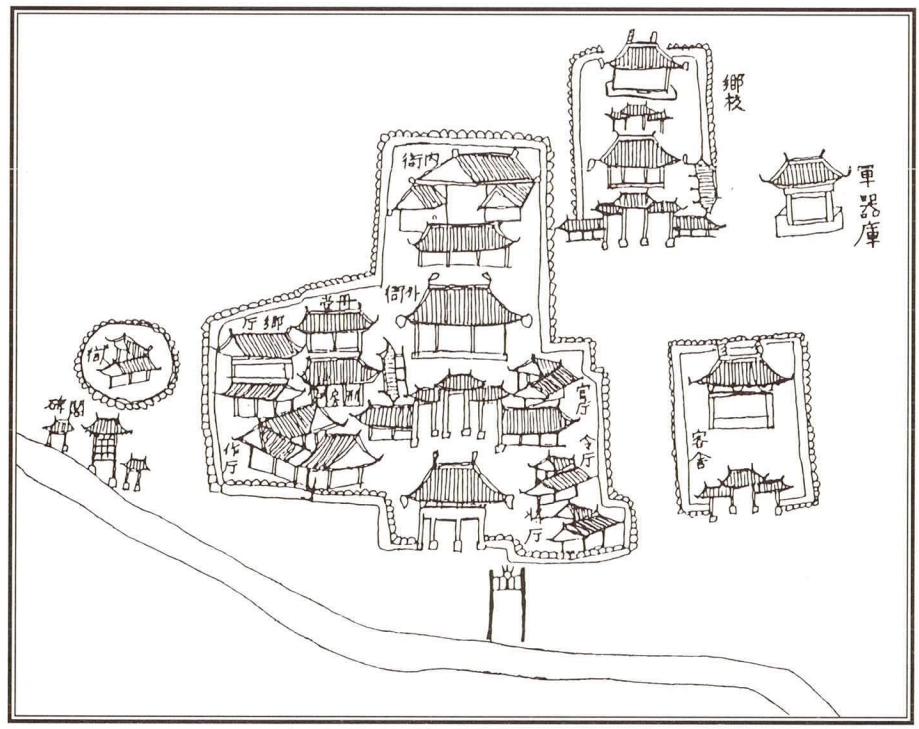


『旌義養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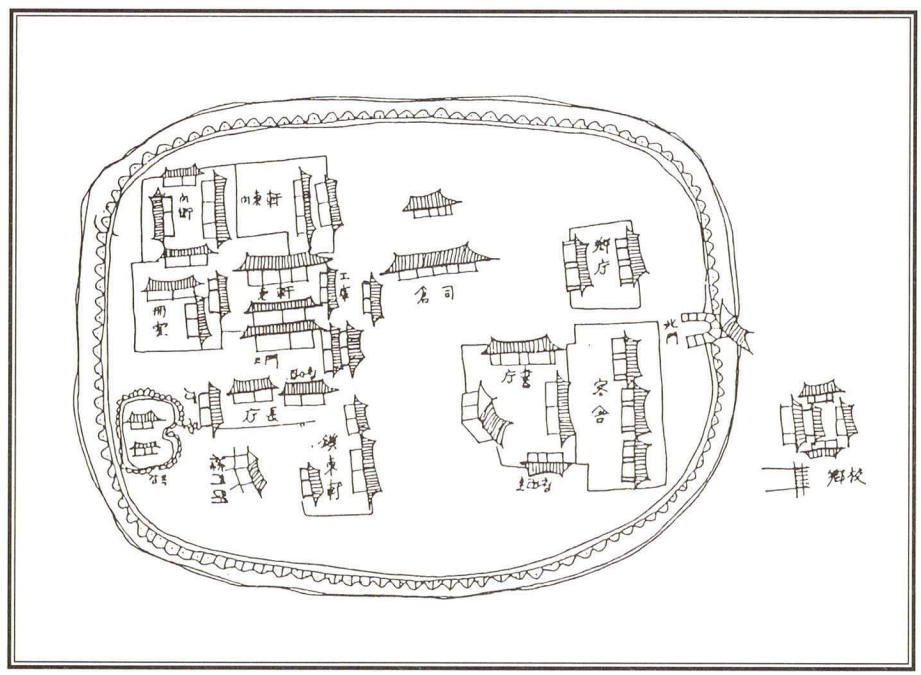
〈官府 位置에 따를 鄕校의 位置 및 距離〉 (단위:개소)

	新增東國與地勝覽					輿地圖書				
거리\위치	東	西	南	北	計	東	西	南	北	計
1里	47	27	7	33	114	29	14	4	30	77
2里	35	16	10	31	92	23	14	7	21	65
3里	15	16	4	20	55	18	8	8	21	55
4里	·	3	3	3	9	·	2	1	1	4
5里	7	5	2	6	20	7	5	2	4	18
6里	1	·	·	2	3	·	·	·	1	1
7里	·	1	·	·	1	2	·	·	2	4
8里	·	·	1	·	1	·	·	·	·	·
9里	·	·	·	·	·	·	·	·	·	·
10里	1	·	·	·	1	·	·	2	12	14
기타	11	7	2	6	26	13	1	·	10	24
計	117	75	29	101	322	92	44	24	102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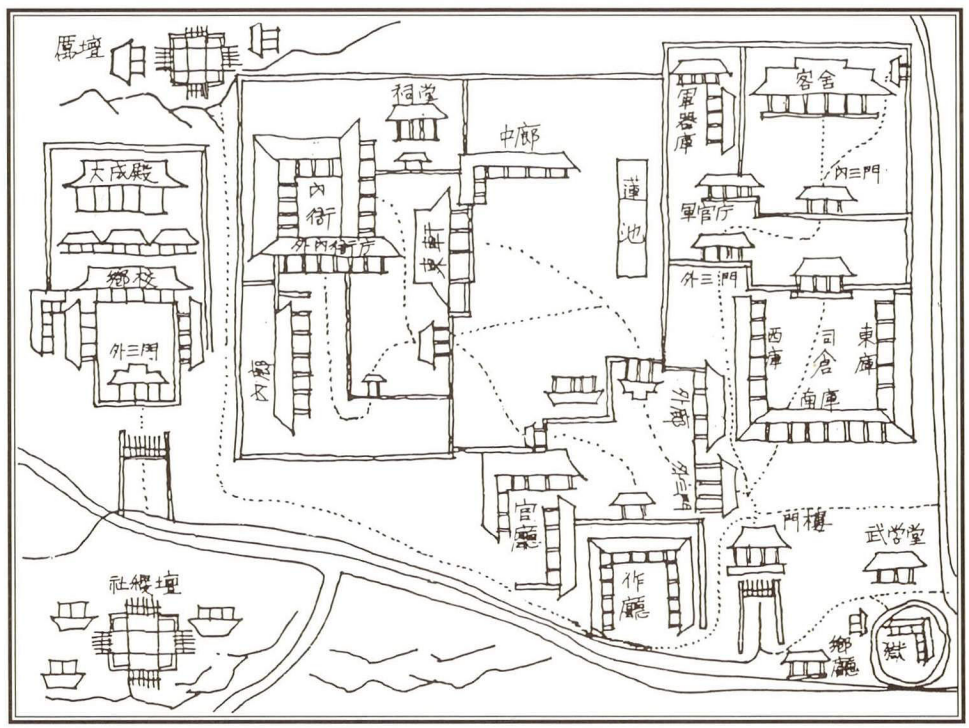
※기타 : 客舍·城·鎭山 등에 따른 입지 위치



『陽智縣 官衙 · 鄕校圖』〈京畿邑誌〉



『洪州牧 官衙.鄕校圖』〈忠淸左右道都會衙舍細地圖-서울대도서관소장〉



『全義縣 官衙.鄕校圖』〈韓國近代道地-4〉

나. 鄕校 所在 地名 考

향교가 위치한 곳은 읍치에서 보통 5리 이내의 거리로 가장 경관이 좋고 조용한 낮은 산기슭을 끼며 돌고 앞쪽은 얕은 내(川)나 들(野)을 둔 평지, 완만한 구릉지 등에 입지하고 인접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향교가 위치한 곳이 짧게는 100년에서 수 백년간 터를 지켜오면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명화(地名化)되어 오늘날에 교촌(校村),교동(校洞),향교리(鄕校里), 명륜동(明倫洞), 대성동(大成洞), 향교골, 향교곡, 향교터, 향교말 등 향교에 연유된 지명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지금은 향교가 다른 곳으로 이건되어 없어졌지만 옛터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구교리(舊校里) 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향교가 이건되면서 생긴 신교리(新校里), 성인을 모시고 있는 곳을 연유하여 성산리(聖山里), 군자리(君子里)등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옛터에 자라고 있던 행단(杏壇)의 상징인 고목(古木)의 은행나무가 옛터를 증명해 주고있다.

〈현 소재지에 나타난 향교 관련 지명〉

校 洞	校 里	校村里	明倫洞	鄕校里
校山里	校院里	大成洞	官校里	校士里
校坪里	校成里	校峴里	校城里	校聖里
校興里	校雲里	校社里	校北里	校月里
大校里	新校里	舊校里	紅門里	校塔里
杏村里	杏丁里	聖山里	君子里	鄕石里
柏田里	文廟里			

다. 鄕校의 坐向 및 地形

산(山) · 수(水) · 방위(方位) 사람 등 네가지 풍수구성요소 중 좌향은 방위에 관계된다.

원래 좌향은 혈(穴)에서의 위치로 본 방위 즉, 혈의 뒤쪽 등진 방위를 좌(坐)로 그리고 혈의 정면을 향(向)으로 하여 한 지점이나 장소는 무수한 방향을 가질 수 있으나 선호성(選好性)에 의해 결정되는 좌향은 단 하나 뿐이다.

하나의 건축환경이 특정한 좌향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향은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양의 운행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향으로서 시간성과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는 절대향(絶對向)과 지세(地勢), 시계(視界), 실존성(實存性) 등 사회성을 반영하는 상대향(相對向)이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주거로서는 동남향 내지 남향 사이가 이상적인 절대좌향(絶對坐向)이 된다.

제향기능(祭享機能)과 강학기능(講學機能)을 복합적으로 갖춘 향교는 혈(穴)의 중심건물인 대성전을 좌(坐)라 볼 때 자좌오향(子坐午向) 즉, 남향을 취한 향교가 전향교의 과반수 이상인 약 54 %, 남동향이 약 17%, 남서향이 약 15%로 대다수의 향교 배치가 남향 또는 그 좌우향인 남동, 남서향을 취하고 있고 동향 및 서향은 각 5%정도의 향을 두고 있으나 그외 북향이나 서북, 동북향은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향교가 야산기슭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향교의 약 90%정도가 된다. 지형여건상 보통 1~2단 내지 2~3단으로 정지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나 급경사지인 경우는 4~5단으로 정지된 곳도 있다.

그러나 성균관과 같이 일부 향교가 평지에 배치된 경우도 있는데 남한 소재 향교중 20여 향교가 평지에 있다. 평지에 배치된 대상 향교로는 경기도에 광주(廣州)향교, 강원도에 영월향교가 있고 경상도의 경주 · 경산 · 청도 · 통영 · 언양 · 거제 · 안의향교, 전라도의 전주 · 정읍 · 금구 · 나주 · 장수 · 함평 · 영광 · 돌산 · 낙안향교 등이 있다.

평지에 위치한 향교는 주로 전묘후학 배치 유형을 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학후묘, 좌묘우학, 우묘좌학배치 등도 나타난다. 다만 전묘후학 배치에서 성균관 · 경주 · 나주 · 전주향교에서는 지역의 광역행정 중심지에 취해진 경향이 있다.

라. 杏 壇

행단(杏壇)이란 원래 중국 산동성 곡부현에 있는 공자의 성묘(聖廟)앞 공자가 강론하던 터에 제자들이 학문을 강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은행나무를 심고 주위에 단을 만든 것에서 연유되며, 당회영(堂懷英)이 「杏壇」이라는 석비를 세웠다. 그 후 공자의 사상을 받드는 후예들은 뜰에 은행나무를 심어 그 뜻을 기렸다. 일설에 「杏」은 원래 살구나무로 도입과정에서 잘못 해석하여 은행나무를 심고 있다는 설도 있다.

전국의 많은 향교에는 향교와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고목의 은행나무 한 두그루가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기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대개 행단 아래에서 학문을 강의한 것을 연유하여 문묘공간내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심어진 경우가 일반적이고 강학구역내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경역밖에 위치한 곳도 일부 있다.

향교내에는 은행나무외에 곡부 공묘에 많이 심어진 측백나무(柏)나 느티나무(槐) 소나무(松), 비자나무(榧)등의 고목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단에 대한 상징성의 대체된 수종으로 볼 수 있다.

영천향교의 명륜당 앞에는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周)나라 때는 회화나무를 대궐안에 심어 삼공(三公)이 그 밑에서 송사(訟事)를 판결하였고 당나라 때는 회화나무가 꽃피는 음력 7월에 과거를 보았다. 특히 당나라의 낙양(洛陽) 동쪽에는 회화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숲 밑에서 선비들이 손수 쓴 책을 사고 팔았으며, 또한 강론을 하였기에 이곳을 괴시(槐市:회화나무 밑의 시장)라 하였고,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불러 출세한 사람 또는 선비의 상징으로 이 나무를 즐겨 심었으며, 후대에 와서는 대학을 괴시라 부르게 되어 향교와 회화나무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향교에 심어진 고수목에 연유하여 행촌리(杏村里), 행정리(杏丁里), 백전리(柏田里) 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향교마을이 지속되고 있다.

2. 區域別 構成建物

향교는 기능상 대성전을 중심으로 제향의식공간(祭享儀式空間)인 문묘구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교육공간(敎育空間)인 강학구역으로 구분되어 어울어져 있고 이들 양기능의 역

할을 보조지원 또는 부속되는 건물로 구성되며 주변의 은행나무 등의 수목과 부수되는 석물등으로 종합적인 교육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가. 文廟區域 建物構成

문묘구역에는 제향의식에 관련된 건물만이 존재한다. 이곳의 주된 건물로는 대성전, 동·서무가 있으며, 보조 지원기능의 건물로는 제향의식때 제(祭)를 마련하는 곳인 제기고, 전사청 및 문묘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내신문을 들 수 있다.

문묘구역의 가장 중심건물인 대성전은 경역의 중앙 주축선상에 전면으로 좌향하여 배치되고 건물 내부에는 반드시 공자를 주향으로하여 중국 4성 및 옛 성현들을 종배향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면 중앙칸 상부에는 『大成殿』이란 현판을 달고 있다. 대성전을 『聖廟』『聖堂』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서무는 대성전 전면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며 대칭되게 배치되고 대성전 우측에 배치된 건물이 동무, 좌측의 건물을 서무라 명칭한다. 내부에는 우리나라 18현과 중국의 현철들을 봉안하고 있는데, 많은 향교에서 대성전으로 이안(移安)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건물앞에는 현판을 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달고 있는 경우는 『東廡』『西廡』 또는 『東廟』『西廟』로 편액된 경우도 있다.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 제사를 준비하는 준비실 역할을 하는 전사청(典祀廳)은 제향의식때의 보조 지원건물로 주로 문묘구역내의 대성전 전면 좌측 또는 우측에 배치되며 대개 좌측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동·안의향교의 제기고나 고양·사천·울산향교의 전사청은 강학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능, 동선상 고직사와 가깝고 문묘구역과는 인접되어 있다. 경주와 제주향교의 전사청은 외곽 경역에 배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기고, 전사청의 배치 및 분포현황〉

	문묘구역		강학구역	경외
	좌측	우측		
제기고	성균관, 정선, 한산, 당진 익산, 순천, 무안, 자인 성주, 통영, 거제, 단성	연천, 홍주, 해남 하양, 울진, 거창	교동, 안의	
전사청	성균관, 장흥, 비안, 영천 하양, 봉화	가평, 단성	고양, 사천 고성, 울산	경주 제주

서적을 보관하고 있는 존경각(尊經閣)을 성균관과 함양향교는 문묘구역에, 언양·공주·경주향교는 강학구역에 각기 두고 있다.

그 외에 증반실(蒸飯室 - 해남·거제향교), 분향각(焚香閣 - 구례향교)을 두고 있으며, 고령향교의 대성전 전면 좌측에 빈흥재를 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향교내에서 대성전과 동·서무외에 사묘(祀廟)의 성격을 갖는 건물들이 일부 있는데 전주·제주향교에서는 5성의 부위(父位)를 모시는 계성사(啓聖祀)가 있고 전주향교는 강학구역의 좌측에 인접하여 경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제주향교에서는 별도로 경역이 조성되어 있다. 성균관에서도 경역의 좌측에 동떨어져 별도로 경역이 조성되어 계성사가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철거되고 없다.

또한, 영동향교의 노후사(盧侯祠), 공자의 영당을 모시고 있는 함열향교의 영소전(靈昭殿), 고산 및 옥구향교의 성묘(聖廟), 합천향교의 사당, 삼가향교의 별묘, 칠원향교의 경덕사(景德祠) 등이 비슷한 성격의 건물들이다.

〈全國 鄕校의 建物構成 現況〉

건 물 구 성 내 용								향교수
대성전	동무	서무	내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58
대성전	동무	서무	내신문	명륜당	동재		외삼문	8
대성전	동무	서무	내신문	명륜당		서재	외삼문	3
대성전	동무	서무	내신문	명륜당			외삼문	17
대성전	동무	서무	내신문	명륜당				1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2
대성전	동무		내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2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1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66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동재		외삼문	19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서재	외삼문	5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외삼문	36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4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2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1
대성전			내신문	명륜당	동재	서재		1
기 타								4

* 제기고, 전사청, 관리사, 기타 부속건물은 포함하지 않았음.
* 외삼문은 협문, 사주문, 삼문, 누문 등을 통칭함.

문묘구역의 출입은 반드시 삼문을 통하여 출입토록되어 있는데 대성전과 일축선상에 위치한 문을 일반적으로 신삼문(神三門)이라하여 중앙문은 의식행사 때에만 사용하고 평시에는 그 좌우문이나 별도의 다른 문을 사용한다.

삼문이란 대개 세개의 문이 나란히 있는 문으로 중앙에 정문과 그 좌우에 동·서협문이 있으며 문마다 그 기능이 다르다. 정문은 그 시설물에 모셔져 있는 신(神)이 출입하는 문이고, 시설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문 양옆의 협문으로 출입하는 것이다.

문묘구역의 의식행사 출입은 동입서출(東入西出) 즉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가 제향의식 절차를 치른 후 서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동(東)은 해가 뜨는 곳으로 생명력을 상징하고, 생기를 얻게하는 의례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의 기본원리인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

나. 講學區域 建物構成

강학구역인 교육공간에는 명륜당, 동재, 서재가 주된 건물로 구성되고 보조 지원기능의 건물로는 고직사, 외삼문이나 누문 등이 있다.

강학구역의 가장 중심건물인 명륜당은 모든 향교에 존재하며 공자의 사상을 강론하는 곳으로 반드시 『明倫堂』이란 현판을 달았다. 또한 내부에 온돌방을 둔 경우에는 간혹 방앞에 「… 室」 「… 齋」등의 편액(扁額)을 붙인 경우도 있다.

동·서재는 학생들이 독서하며 기숙하는 곳으로 명륜당의 오른쪽을 동재 왼쪽을 서재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동재에는 수준이 높은 유생이 거처하고 서재에는 수준이 낮은 유생이 거처토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명륜당 전면 또는 후면에 좌우 대칭되게 배치되는데 보통 현판을 달지 않은것이 보편적이나 『東齋』『西齋』의 현판을 올린 경우도 있다. 동·서재 명칭외에 별도의 당호를 올린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물다. 당호외에 각실에는 「…室」「…齋」「…堂」등의 편액을 붙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동·서재 외에 상재(광양향교), 중재(삼척향교)등의 재각을 둔 경우도 있다.

경역으로 출입하는 문은 보통 전면에 삼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주문이나 협문으로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 삼문외에 누문(樓門)을 두어 하층은 출입 정문으로 하고 상층은 난간을 두어 사방을 개방한 누정(樓亭)으로 모든 건물에 『風化樓』『萬化樓』『菁莪樓』『光風樓』『…樓』등 건물마다 당호(堂號)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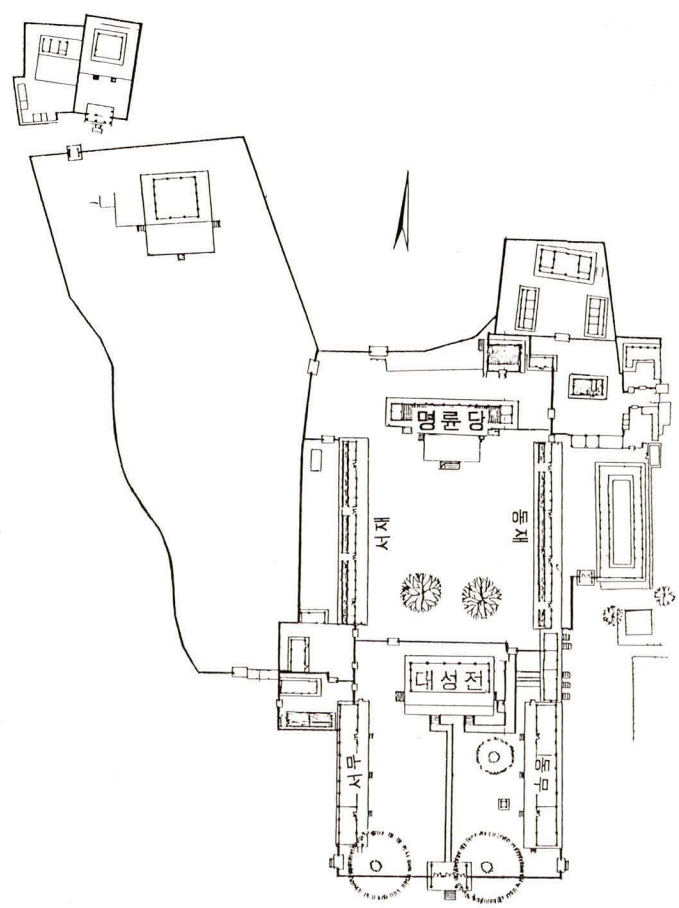
다. 附屬建物

문묘 제향기능이나 강학기능 외에 이 양대기능을 지원보조하는 관리기능으로 고직사(庫直舍)가 있는데 고사(庫舍), 교직사(校直舍)라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관리사라 흔히 부른다. 이곳에는 원래 관노(官奴)가 거처하면서 향교를 관리하고 제향시에는 제수를 준비하던 곳으로 현재는 별도로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직사의 위치는 강학구역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경역밖 향교 진입의 입구나 좌측 또는 우측에 별도로 경역을 만들어 살림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의 협문이나 사주문을 통하여 경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 향교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장수 · 나주 · 전주향교 등에서는 『司馬齋』를 두고, 운봉 · 고부 · 무주 · 남원 · 정읍 · 흥덕 · 광주 · 성주 · 하동향교등에서는 『養士齋』를 두고 있으며 고창향교는 양사재와 사마재를 동일건물 좌우에 두고 있다.

3. 建物配置

향교건축은 엄격한 유교적 제례절차와 같이 건물의 배치에서도 질서의식 개념이 공간의 위계성을 지닌 종적 횡적인 축선으로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건축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배치 개념은 성리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경(敬)의 공간이 위계적 질서 체계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건축의 특징이 비대칭성의 균형 조화를 들 수 있는 반면에 향교건축은 기능에 따른 축선의 대칭성이 공간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균관 배치도』

향교의 배치는 성균관을 모방하고 있는데, 대체로 자좌오향(子座午向)을 주축선으로하여 공자와 선사선현을 봉사하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 ·

서무를 좌우에 배치하는 문묘향사공간(文廟享祀空間)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 · 서재가 배치되는 강학공간(講學空間)으로 구분 배치된다.

배치형식은 대성전과 명륜당의 위치에 따라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좌묘우학(左廟右學), 우묘좌학(右廟左學) 배치형태로 구분된다.

성균관이나 나주향교 등과 같이 평지에 위치한 전묘후학 배치는 중국 곡부(曲阜)의 공묘(孔廟)나 부학(府學), 현학(縣學)의 제도를 도입한 배치방법이라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형여건에 맞게 경사지형에 취해진 전학후묘배치는 우리나라 향교의 정형배치(定型配置)라 할 수 있다.

가. 前廟後學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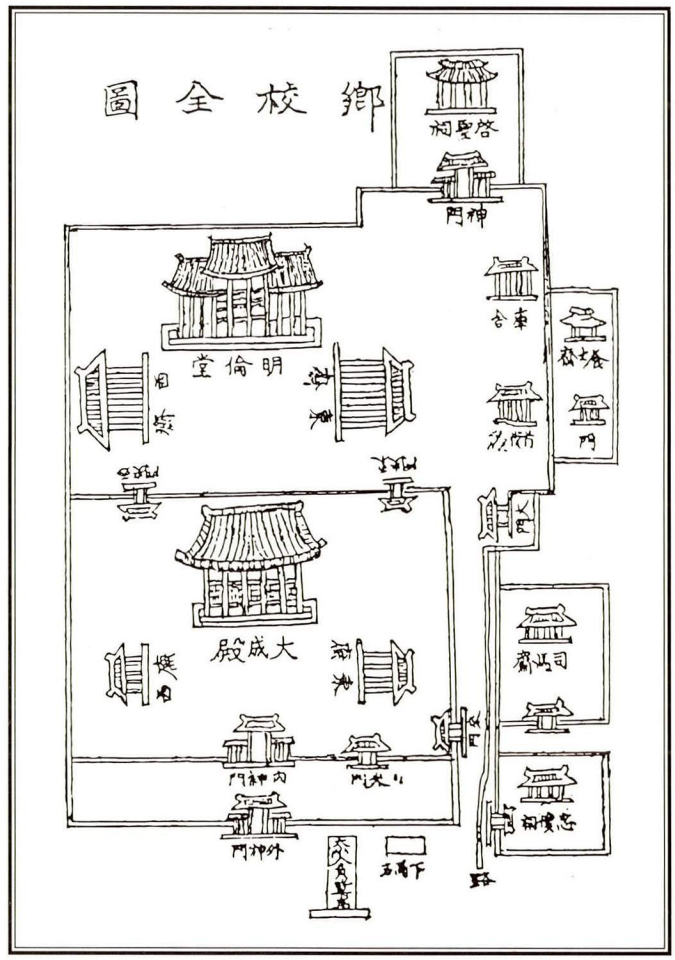
전묘후학 배치란 대성전을 중심으로한 문묘구역을 전면에 배치하고 명륜당을 중심으로한 강학구역을 후면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많은 향교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교배치의 전형(典型)으로 볼 수 있다. 전묘후학 배치를 취하고 있는 향교는 서울의 성균관을 비롯하여 부(府)와 목(牧)의 계수관(界守官) 고을이었던 전주 · 나주 · 경주향교와 군(郡), 현(縣)의 고을로서 정읍 · 영광 · 함평향교 등이 이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체로 지형적으로 평지에 나타나는 배치형식으로 서울의 성균관을 비롯한 대도읍(大都邑)인 주부(州府)에 해당되는 행정중심 위치였던 나주 · 경주향교와 조선의 어향(御鄕)으로 지목되었던 전주향교와 같이 평탄한 대지위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군현(郡縣)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정읍 · 영광 · 함평향교 등에서도 성균관의 제도를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낮은 구릉지 위를 평탄하게 지형을 조성하거나 평지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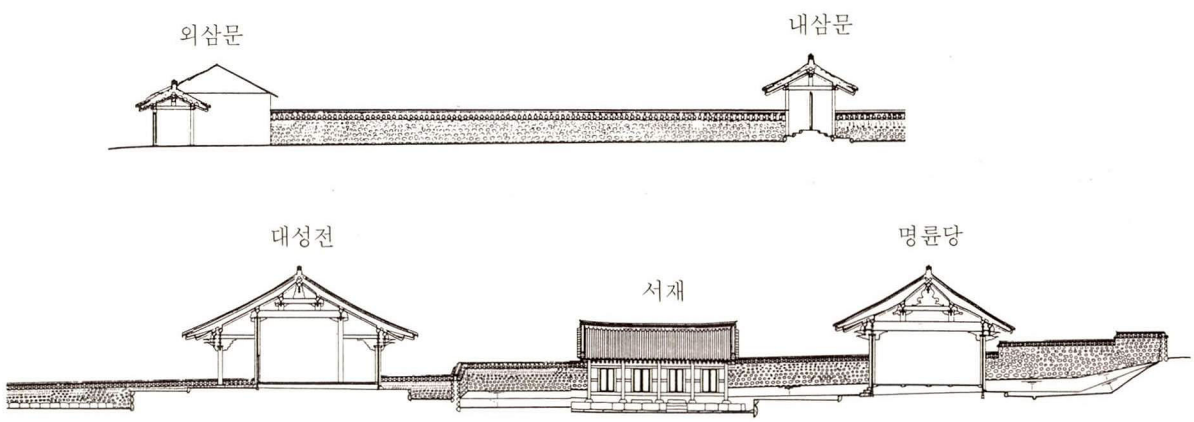
영광향교의 지형을 보면 문묘구역의 전면에 높은 축대를 쌓아 담장과 외신문으로 외곽을 조성한 것을 볼때 전면을 인위적으로 성토하여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을 평탄지형으로 조성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평지에 조성된 향교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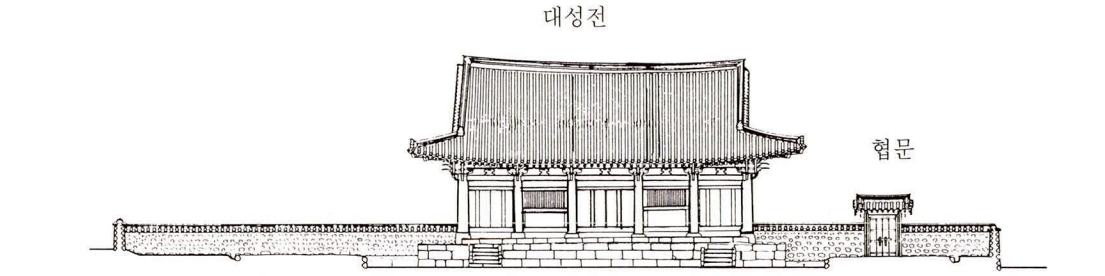
배치구분	전묘후학	전학후묘	우묘좌학	좌묘우학
대상향교	성균관, 나주 경주, 전주 정읍, 영광 함평, (경산)	광주(廣州) 장수, 거제 안의, 통영 영월, 언양 금구, 낙안	영암, 청송 풍기, 청도 장기	돌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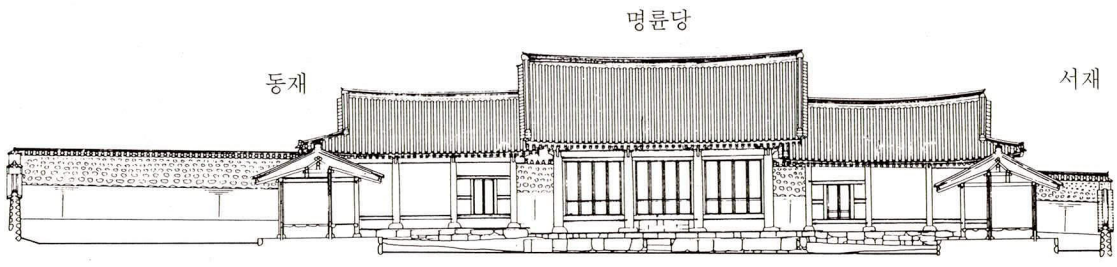
『조선시대 나주향교 배치』



『나주향교 지형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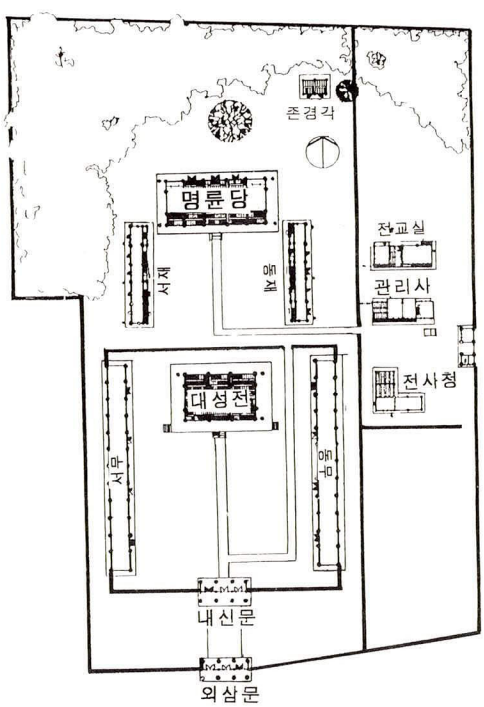


대성전 앞쪽에서 본 북측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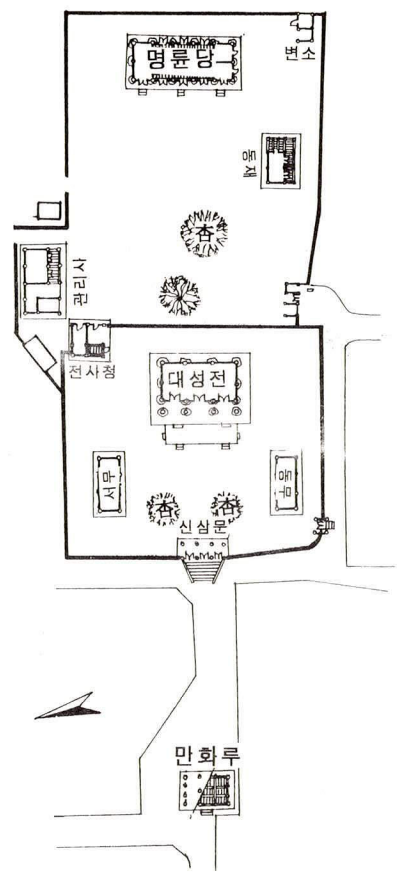


명륜당 앞쪽에서 본 북측면 전개도

『나주향교 지형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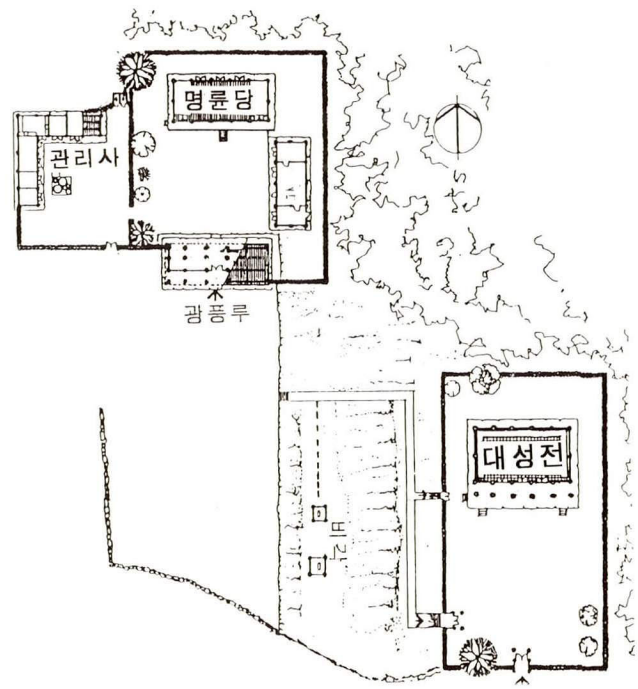


『경주향교 배치도』



『영광향교 배치도』

『大邱府邑誌』(1833年 刊)에 의하면 "현 대구향교는 달성에 있었으나 선조 38년(乙巳年 1605)에 지금의 교동(校洞)으로 이전 개축하였다. 명륜당과 동·서재는 모두 성균관 제도대로 했으며, 이들 건물은 성묘의 뒤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대구부(大邱府) 역시 전묘후학의 배치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또 현재의 의성향교는 경사지에 전묘후학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이 서로 인접되어 경역이 조성되지 않고 서로 경역을 달리하여 경역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경산향교는 평지에 배치된 향교로 1946년 명륜당이 현위치로 이건 전에는 대성전 뒤에 배치된 전묘후학 배치였다고하나 지금은 대성전 우측 후면의 직교하는 위치에 있어 변이된 전묘후학 배치형태로 볼 수 있다.



『의성향교 배치도』

전묘후학(前廟後學)의 일반적인 배치특징을 살펴보면

① 대성전과 명륜당을 일축선상에 두고 동·서무나 동·서재는 각기 구역전면 좌우에 대칭되게 배치한다.

② 제향의식 공간인 문묘구역의 출입은 내·외신문의 주축선상에 이중문(二重門)을 두어 보다 경건한 자세로 경역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전주·나주·경주·함평향교)

③ 강학구역의 출입은 문묘구역 외곽을 우회 또는 강학구역 측면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하여 문묘구역의 일상 출입을 금기한다.

④ 강학구역에서 문묘구역으로의 출입은 전학후묘 배치에서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三門을 설치하지 않고 문묘구역 후면에 협문 또는 사주문을 1~2개소 설치하여 출입토록 하고 제향의식때의 주출입은 문묘구역 앞의 신문을 이용한다.(정읍향교 예외)

⑤ 누각건물을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이는 루(樓)에서 대성전등 문묘구역을 내려다보게 되어 유교 예법(禮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지지형에 경역이 조성된 전주향교에서는 1987년 만화루(萬化樓)를 문묘구역 전면에 건립하였다.

단지 구릉지위에 설치된 영광향교에서는 경역밖의 지형상 낮은 지역에 주축선을 비켜서 만화루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⑥ 반드시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을 담장으로 구별하여 구획한다.

⑦ 문묘구역이 강학구역보다 격식을 따르는 엄숙한 공간으로 위계성(位階性)을 확립하여야 하므로 주변 건물보다 우위의 공간으로 보이게 하는 건축적 구조 양식상의 특징이 있다.

나. 前學後廟 配置

전학후묘 배치란 명륜당을 주축으로 한 강학구역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뒤쪽으로는 대성전을 중심으로한 문묘구역을 배치한 유형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향교배치가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형적인 특성상 우리나라 지형이 대부분 고저기복이 적은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히 지형에 적합한 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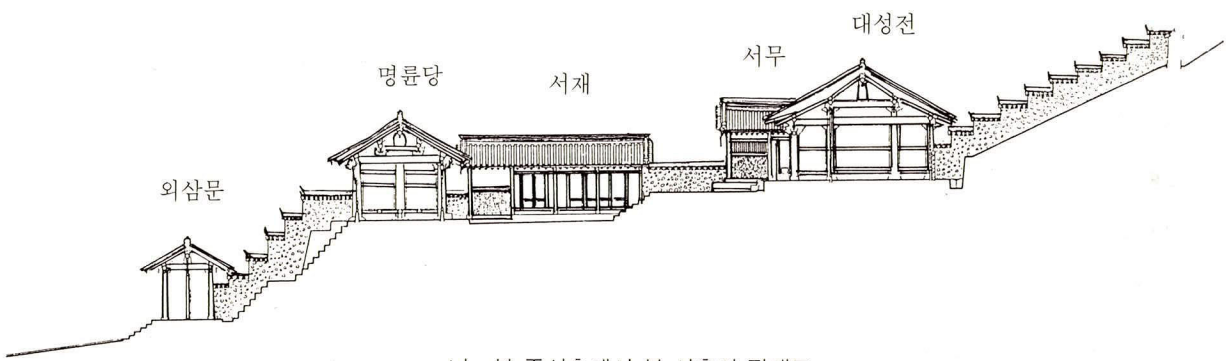
전학후묘 배치란 명륜당을 대성전 앞의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전학후묘의 배치를 취하고 있는 향교 중 광주(廣州) · 장수향교 등 극히 일부 향교만이 평지위에 배치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향교는 완만한 경사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급경사지에 배치된 향교(함양 · 산청 · 합천 · 진주 · 양산 · 기장 · 하동 · 청주 · 이천 · 고양 · 여수향교 등)도 있다. 경사지형을 각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형 및 부수되는 여건에 따라 대성전과 명륜당의 연결 배치축을 일축선형(一軸線形), 절곡축선형(折曲軸線形), 직교축선형(直交軸線形) 등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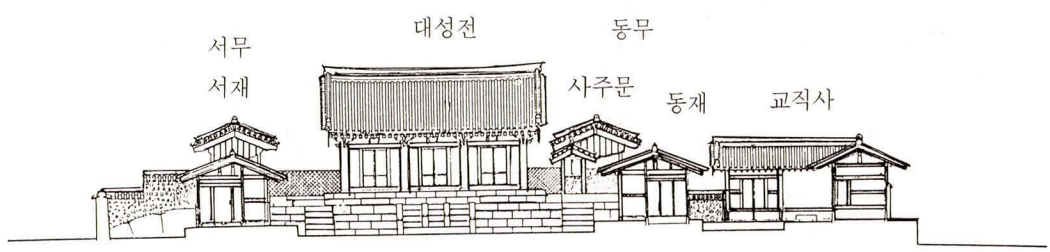
『화천향교 전경』



『의흥향교 지형 종단면도』



남-북 중심축에서 본 서측면 전개도



남-북 중심축에서 본 북측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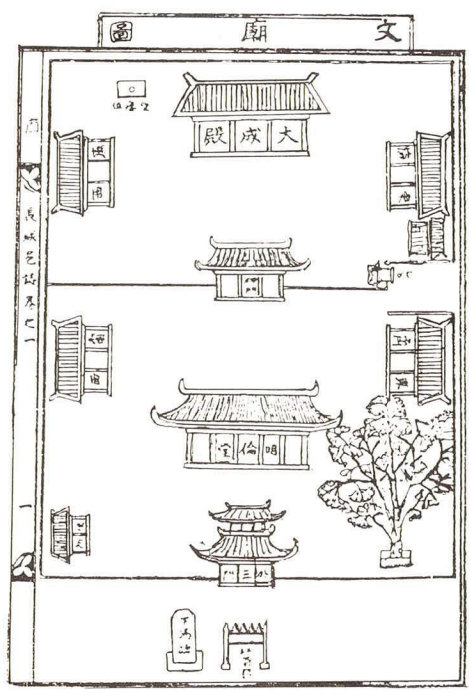
『인천향교 지형단면 전개도』

(1) 一軸線形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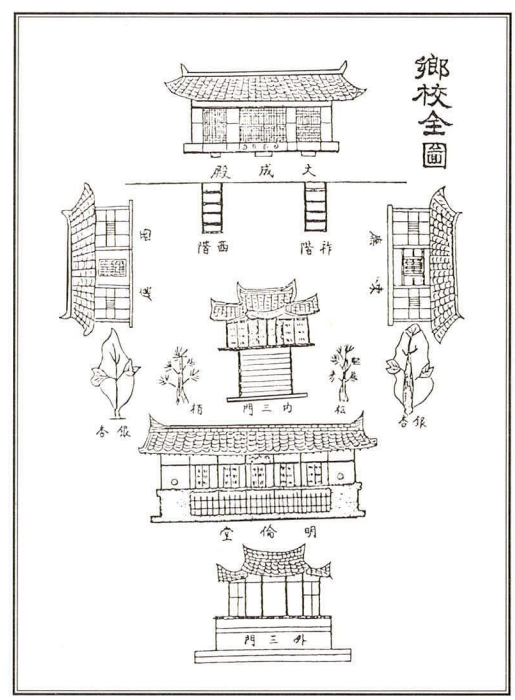


『김산향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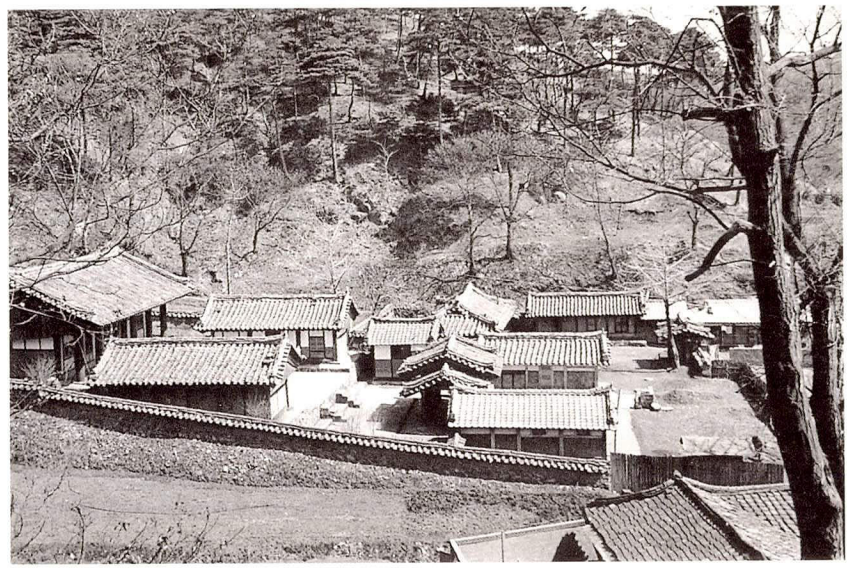
대성전과 명륜당의 배치 축선이 대체로 건물주칸의 중앙을 지나는 경우로 대다수의 향교가 이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묘구역의 배치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전면 좌우에 동·서무를 대칭하여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학구역에서는 명륜당이 대성전과 서로 마주보고 전면 양옆에 동·서재를 대칭되게 배치하는 경우 즉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과 대성전과 같은 좌향으로 명륜당의 방향을 두는 경우 즉 지형적으로 명륜당을 후면에 배치하고 동·서재를 전면에 두는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 두가지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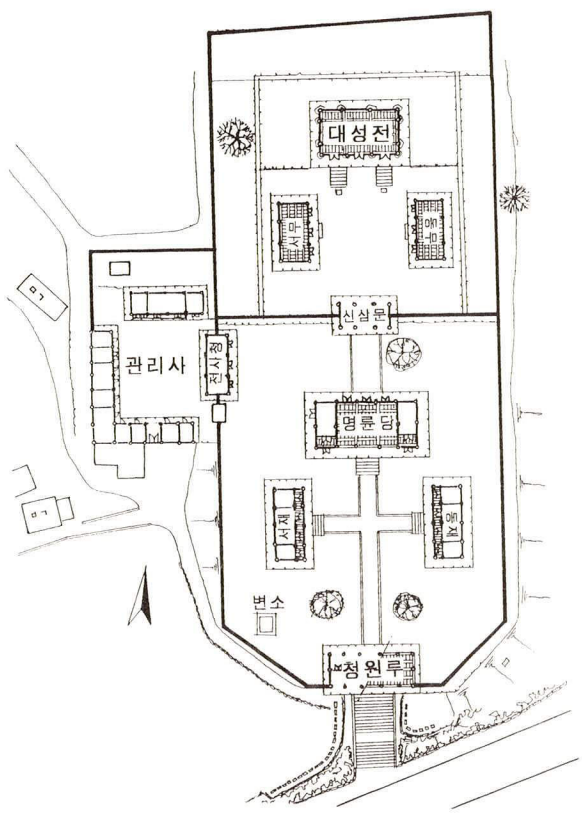
『장성향교 문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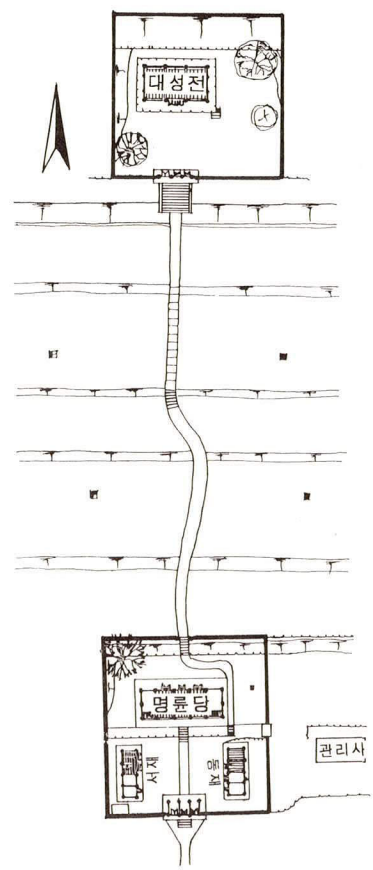
『담양향교 전도 』



『삼척향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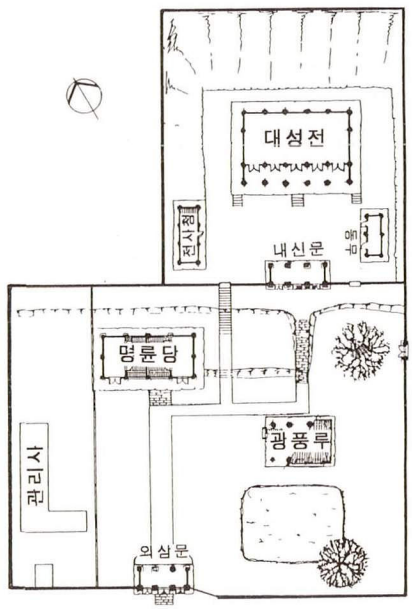
『울산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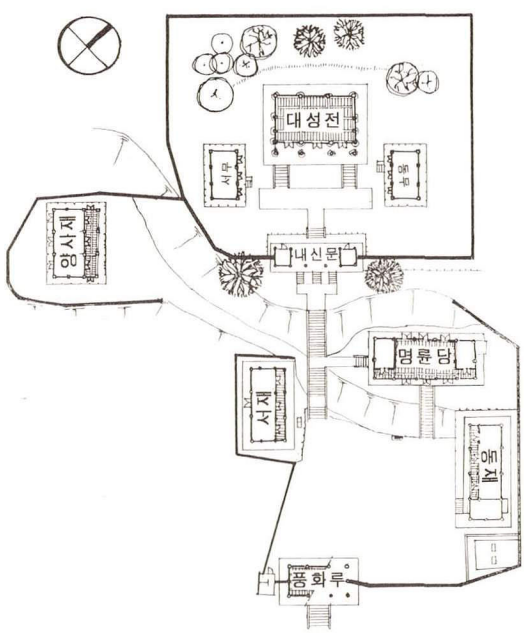
『영산향교 배치도』

이 배치형식에서 특이한 배치법을 취하고 있는 영산향교는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이 인접되지 않고 별도로 경역을 조성하여 약 70m의 거리를 두어 떨어져 배치한 이형적인 배치방법을 취한 경우도 있다.

(2) 折曲軸線形 配置



『비안향교 배치도』



『하동향교 배치도』

명륜당을 대성전의 중심축에서 좌 또는 우측으로 벗어나게 배치되는 유형으로 명륜당이 반드시 내신문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배치는 문묘구역의 진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향교의 배치 여건상 기본 배치법이라 할 수 있는 일축직선형 배치를 할 수 없는 지형일때 이 배치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배치유형은 경상도 일부지역에서 취해진 배치형태로 주로 강학구역에서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으로 배치되며 전면의 향교입구에는 공간확보가 가능하므로 누문(樓門)을 많이 두고 있다. 전북지방의 일부 누문을 두고 있는 향교에서는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을 취한 경우도 있다.

대개 조선중기 즉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으로 난후의 수난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그 교육기능이 서원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문묘에는 향사기능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향교배치의 기본 축(軸)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구제(舊制)를 지키려는 의도가 약해짐으로서 나타난 배치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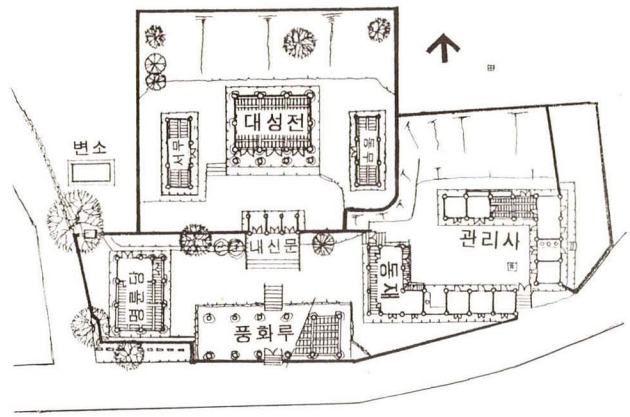
(3) 直交軸線形 配置

대성전의 좌향은 다른 향교와 같이 위치에 변함이 없으나 명륜당은 축(軸) 및 좌향(坐向)이 대성전과 직각으로 배치된 형으로 평창·단양향교 등이 이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축 당시의 지형여건에 따른 배치형태로 볼 수 있으나 전형적인 축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 배치법이라 볼 수 있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반적인 배치특징을 살펴보면

① 대성전은 반드시 지형적으로 제일 높은 지대의 뒷쪽에 위치하고 문묘구역 중앙에 배치한다.

② 문묘구역은 반드시 외곽에 담장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강학구역은 일반적으로 담장을 두고 있으며, 담장없이 개방한 경우도 있다.(여주 · 이천 · 죽산 · 진위 · 가평 · 양지 · 통진향교 등)



『단양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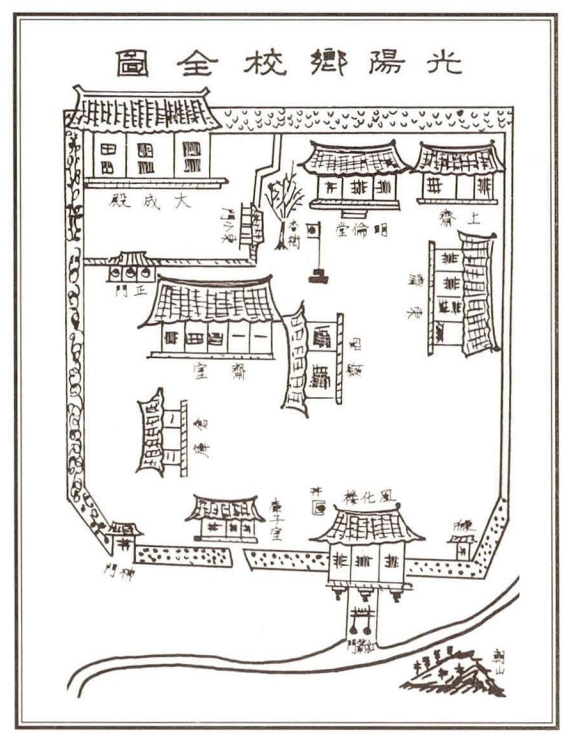
③ 강학구역은 동 · 서재의 위치에 따라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과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의 배치형으로 분류되며 전재후당형일 경우 입구에 누문(樓門)을 둔 경우가 많으며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④ 지형적으로 경사지를 취하여 지반을 2-3단으로 지형을 정지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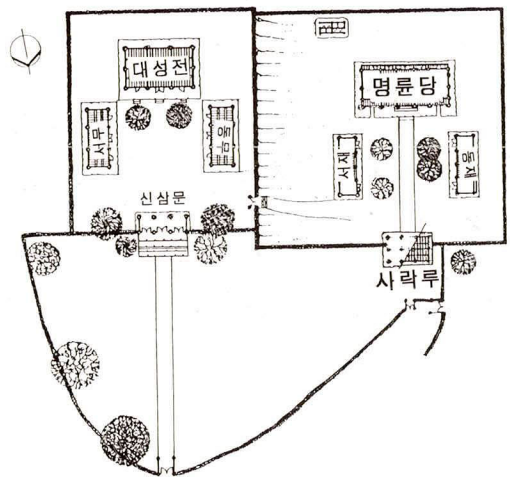
⑤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의 경계는 중앙에 신삼문을 두고 좌우로 담장으로 연결하여 구획한다.

다. 右廟左學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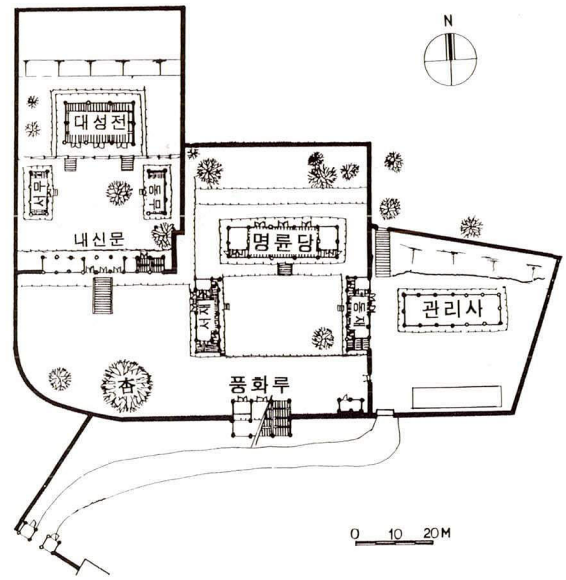
우묘좌학 배치(좌우기준은 좌향(左向)개념, 즉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방향)는 전학후묘 배치법에서 파생된 배치방법으로 볼 수 있다. 대성전을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의 후면에 배치한다는 기본개념은 같으나, 두개의 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배치방법으로 우측에 문묘구역을 두고 좌측에 강학구역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각 구역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동선(動線)이 교차하지 않고 별도의 축을 이루는 배치로서 지형적으로 경사지에 취해진 경우(진천 · 대구 · 거창 · 합천향교 등)와 평지 또는 완경사 지형에 배치한 경우(영암 · 청송 · 풍기 · 청도 · 장기향교 등)가 있다. 또한 밀양.광양향교와 같이 경사지를 절토 또는 성토하여 문묘구역을 주변 지형보다 높게 형성하여 강학구역보다 높게 하여 경역간의 위계성을 분명히 표현한 곳도 있다.



『광양향교 전도』



『청도향교 배치도』



『밀양향교 배치도』

이 배치형태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나타난 배치형태로 볼 수 있는데 종축(縱軸)의 길이가 짧아서 동일축선에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와 충분한 배치면적은 있으나 지반이 거의 평지에 가까워 위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배치성격상 양대기능의 영역이 독립되는 2축선 전학후묘의 배치로서 1축선 전학후묘의 배치에 비해 공간의 성격이 독립된 기능적 배치라 할 수 있다.

우묘좌학(左廟右學) 배치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은

① 문묘구역의 대성전은 지형적으로 강학구역의 명륜당보다 높은 위치에 두거나, 기단을 높게하여 위계성을 강조한다.
② 전학후묘의 기본개념에 따라 문묘구역을 강학구역보다 후편으로 배치한다.
③ 대성전의 횡축이 명륜당의 횡축보다 후면에 위치한다.
④ 외삼문 또는 누문을 거쳐 각 공간 구역별로 독립된 동선으로 연결된다
⑤ 강학구역의 배치에서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형식을 취한다.

라. 左廟右學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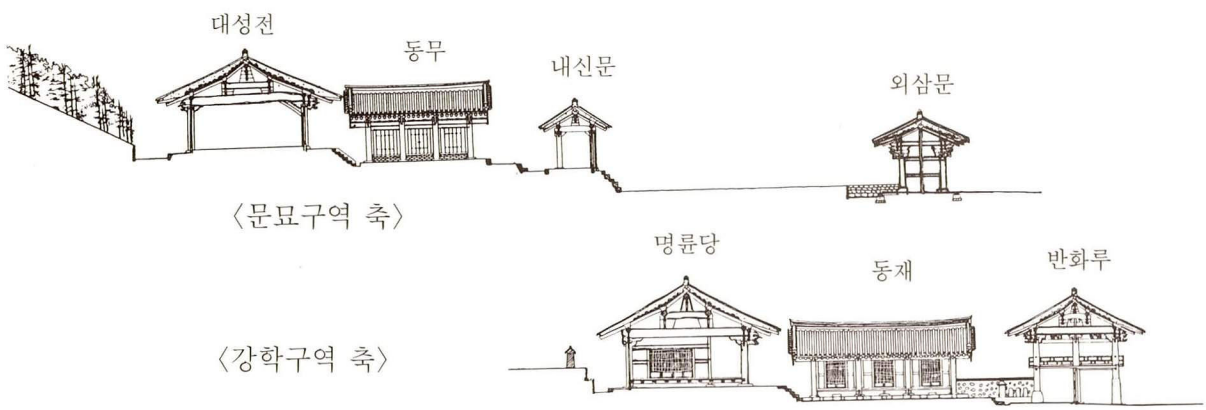
문묘구역이 우측에 강학구역이 좌측에 배치되는 형식으로 배치양식, 축, 지형적인 특성 등 일반적인 여건은 우묘좌학 배치와 비슷하다.

지형적으로 전학후묘 배치와 같이 경사지에 배치한 경우(강화 · 성주 · 동래 · 곤양 · 제주향교)와 완경사지 또는 평지에 배치한 경우(돌산 · 정의향교)가 있다.

주건물의 배치는 전학후묘 배치와 같이 반드시 대성전은 명륜당과 같은 수평축선보다 뒤쪽의 높은 곳에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출입동선은 전묘후학 배치와 같이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의 출입동선이 분리되고 문묘구역은 전묘후학의 일부 향교 배치와 같이 내 · 외신문을 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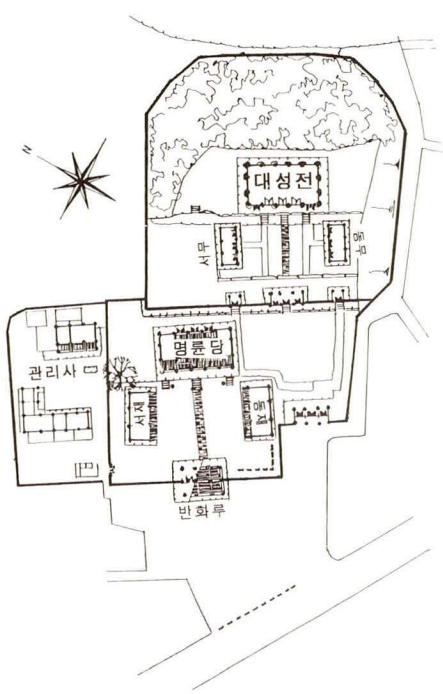
『성주향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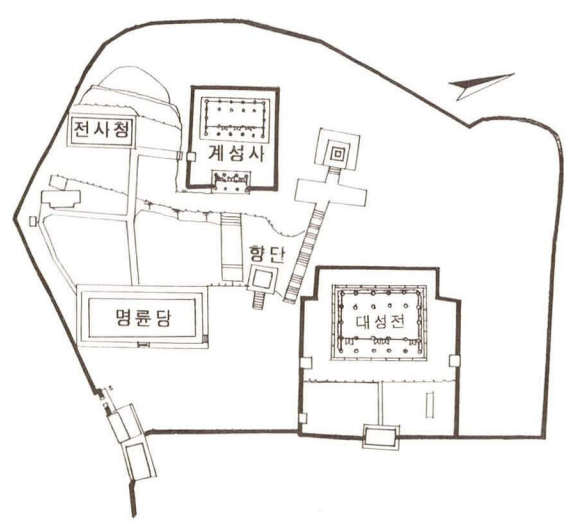
〈문묘구역 축〉

〈강학구역 축〉

『동래향교 지형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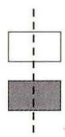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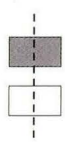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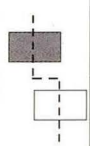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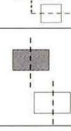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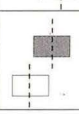
『동래향교 배치도』〈자료 : 동래향교 실측조사 보고서〉



『제주향교 배치도』

〈향교 배치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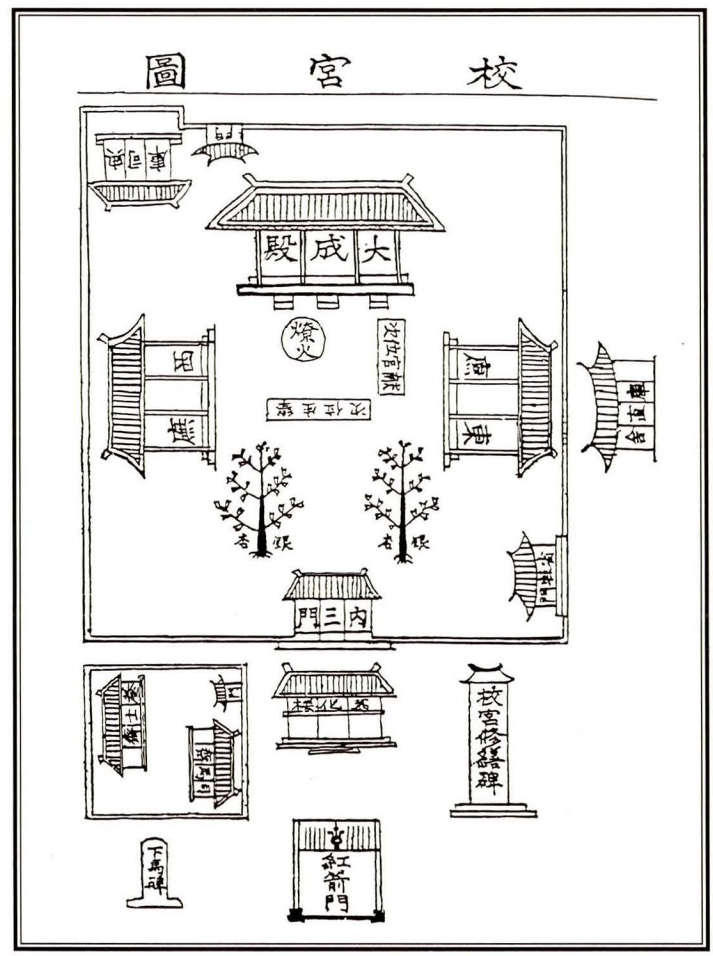
※ ■ 대성전 □ 명륜당

配置類型		配置軸	文廟區域	講學區域				
			동 · 서무	前堂後齊形		前齊後堂形		兩齊全無形
			有 · 無	동재+서재	동재(서재)	동재+서재	동재(서재)	–
前廟後學			동무+서무			성균관, 전주 나주, 경주	영광	함평
							의성	정읍, 경산
前學後廟	一軸線型		동무+서무	부평,수원,교동 교하,양근,삼척 양양,간성,서천 서산,면천,남원 순창,광주,순천 낙안,능주,보성 고흥,장성,진도 상주,단성,강릉 영주, 인천	괴산,목천,무주 옥천,임천	고양,안성,연천 춘천,영월,청풍 대흥,금산,김제 영천,현풍,함안 창녕,울산,김해 창원,통영,고성 남해,함양,원주 정선	공주,순흥,광주 천안	양주,여주,죽산 청주,충주,여산 담양,인동,평해 초계,통진,흥해
			–	평택,음성,연풍 청양,태안,고산 용담,장수,고창 흥덕,금구,임피 남평,해남,무안 옥과,강진,장흥 완도,구례,하양 김산,대정,횡성 예산,덕산,해미 당진,신창,만경 함열,창평,화순 곡성,함창,문경 봉화	청산,진보,김포 부여,홍주,직산	보령,양천,포천 홍천,인제,제천 진잠,연산,은진 정산,임실,무장 여수,군위,안동 신령,의령,영산 양산,기장,산청 안의,영해,영덕	지례,파주,양구 노성,한산,온양 자인, 용궁	과천,지평,용인 양성,진위,화천 문의,보은,청산 황간,청안,회덕 연기,전의,석성 비인,남포,진안 태인,옥구,지도 영일,영양,고령 선산,예천,울진 삼가,적성,회인 영동,홍산
	折曲軸線型		동무+서무				거제	비안, 칠곡 이천, 고부
			–	진안, 운봉		진주,하동,남양 예안, 언양,	사천,아산,청하	가평,양지,부안 의흥,개령,칠원
	直交軸線型		동무+서무			익산		평창, 단양
右廟左學			동무+서무			대구,청도,밀양		진천,풍기,합천
			–			광양,거창		철원,청송,영암
左廟右學			동무+서무			동래	장기	성주
			–			곤양	돌산, 영춘	제주,정의,강화

4. 區域別 配置

가. 文廟區域 配置

문묘구역은 향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역으로 존현사상(尊顯思想)에 입각하여 현인들의 몸가짐과 사상을 받들어 모시고 본받음으로서 인격을 닦을 수 있도록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문묘인 대성전과 동·서 양무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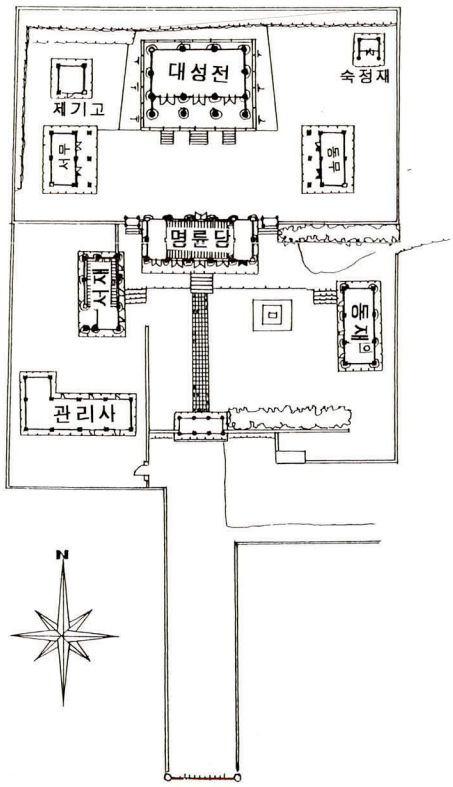


『영광향교 배치도』

문묘구역의 배치는 대성전을 중심축으로, 전면 좌우에 동·서무를 대칭되게 배치하는 형태와 동·서무를 두지 않고 대성전만 배치하고 그 전면에 신문(神門)을 두는 형태를 기본 배치법으로 하고 있으며, 각 향교에 따라 문묘구역내의 다른 부속건물은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헌관청(獻官廳), 분향각(焚香閣) 등 주로 제향의식에 필요한 시설을 두고 있다.

전자는 주로 주·부·군의 행정구역인 대설위(大設位), 중설위(中設位)에서 주로 취하고 있는 배치유형으로 전향교의 약 40%이고, 후자는 소설위(小設位)를 취하고 있는 현 또는 소군의 행정구역에서 주로 하는 배치유형으로 약 60% 이다.

문묘구역의 배치방법으로는 대체로 외곽에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담장으로 구획하여 경역내를 엄숙한 의식공간이 되도록 계획되고,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평지에서는 기단을 높게 설치)의 중앙에 대성전을 배치하고 전면의 일축선상에 내신문을 두어 전면으로 좌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의 다른 모든 건물은 대성전과 같은 방향의 좌축을 취하지 않는다(예외 : 정선향교－제기고, 숙청실, 울진향교－제기고 등)



『정선향교 배치도』

이와같이 문묘구역 내에서도 위계성에 따라 「殿」과 「廡」로하여 위계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공자와 사성을 모신 곳은 성전(聖殿)으로 「殿」이라 하여 대궐과 같은 위계를 갖게 하고 18현과 중국 선사(先師)를 모신 동 · 서무는 「廡」라하여 행랑, 창고 정도로 명명하여 위계 차이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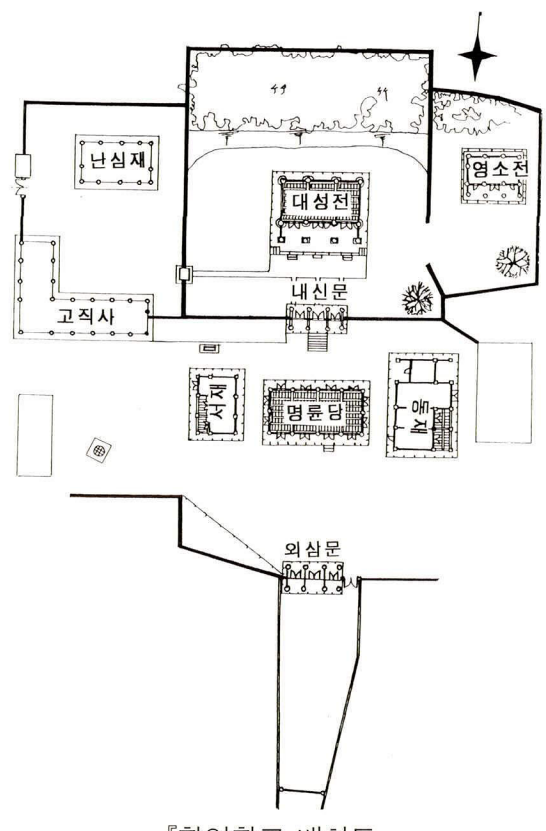
대성전 전면에 동 · 서무를 배치하는 경우는 대성전보다 전면의 좌우에 위치하며 수평좌축(水平坐軸)으로 서로 대칭(對稱) 대향(對向)하게 배치하고 있다.

문묘구역내에 대성전과 동 · 서무 외에 별도로 문묘향사와 관련된 사당을 두는 경우(함열향교－영소전, 영동향교－노후사)가 있는 반면에 서울문묘(현재는 계성사가 철거되고 없음) 및 전주 · 제주향교에서는 문묘구역과는 별도로 경역이 조성된 계성사(啓聖祀)가 있다. 그외에 역사적으로 문묘향사에 공헌한 자를 위해 경역을 구획하여 별도로 사당을 건립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 강학구역의 일정한 곳에 설치된 경우이다.

문묘구역으로 통하는 출입동선인 내신문은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제향의식적 의도에서 동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몇가지의 형식으로 분류된다.

즉 대성전 전면의 출입문 구성방법에 따라 몇 가지의 배치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반드시 대성전의 중심축선의 전면에는 신문을 두며, 제향의식 기능에 따라 중심축선상의 신문 좌측, 우측, 좌우측 또는 측면의 좌, 우, 좌우측에 사주문이나 협문을 두어 기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문묘구역의 출입동선별 배치유형은 제9장에서 설명코자 한다.



『함열향교 배치도』

문묘공간에 설치되는 석물(石物)로는 정료대(庭燎臺), 관세대(盥洗臺)와 망료대(望燎臺)가 대성전의 전면과 측면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나무가 경역 전면에 식재된 곳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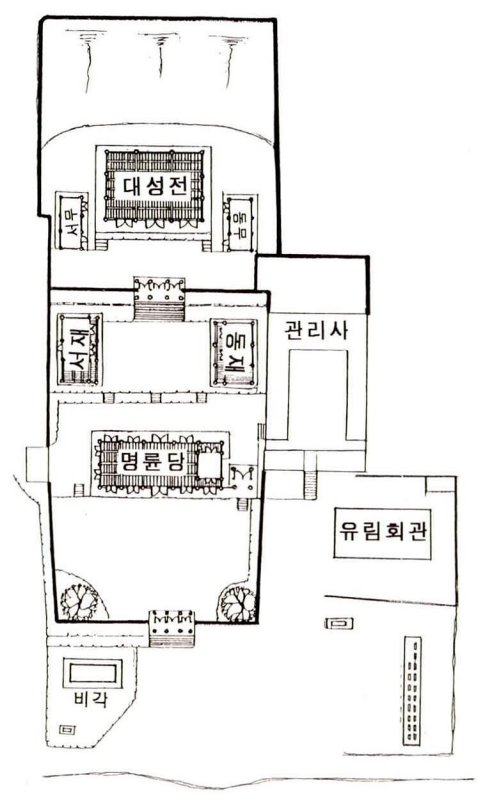
나. 講學區域 配置

강학구역은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명륜당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과 기숙의 장소로 동 · 서재가 명륜당과 직교축으로 하여 대칭되게 배치하고 입구에는 삼문 내지 누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학구역의 배치형식은 지역적,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명륜당 및 동 · 서재의 위치와 좌향을 달리하여 건물의 공간형성에서 배치를 달리하고 있다. 즉 향교 외삼문과 인접하여 명륜당을 두고 내신문 쪽으로 동 · 서재를 배치하여 문묘구역과 연결되도록 계획된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 이와 반대로 내신문쪽에 명륜당을 두고 입구 외삼문쪽으로 양재를 배치하는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 그리고 양재를 두지 않는 무재후당형(無齋後堂形)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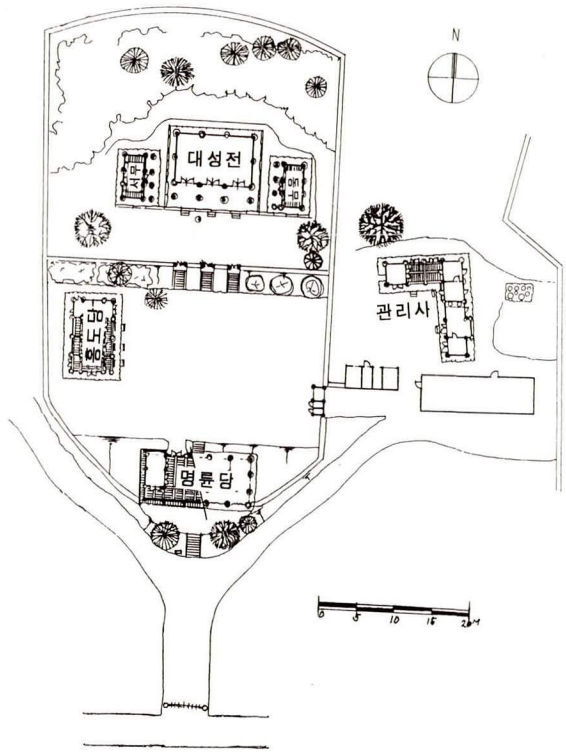
(1) 前堂後齋形 配置

대성전과 명륜당이 서로 마주보게 좌향하고 명륜당 앞의 좌우 양쪽에 동 · 서재가 서로 마주보며 대칭되게 배치되는 유형, 즉 향교 전체적인 배치형태상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이 상호대칭형(相互對稱形)을 이루는 배치형태이다. 따라서 향교의 기능상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문묘제향 의식에서 문묘구역의 진입 과정상 전면의 넓은 공간확보가 가능하고 경사지에서 문묘 앞의 공간이 넓게 되어 시각상의 막힘을 완화시킴으로 향교배치에서 가장 많이 취해진 배치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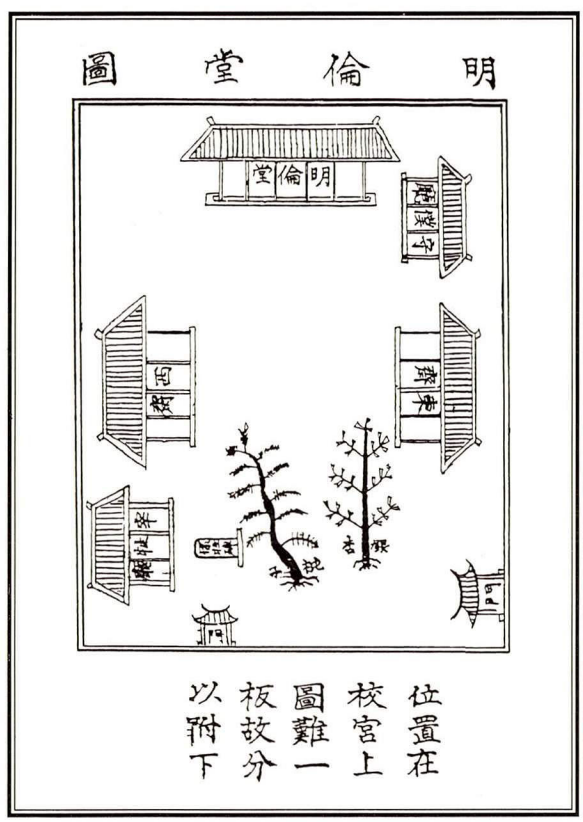


『고흥향교 배치도』

지역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이 배치형태를 주로 많이 취하고 있으며, 지형상 대지의 경사가 급할 경우 지형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명륜당 후면에는 기단 축대를 높이거나 누각식(樓閣式) 건물을 구성하고, 전면에는 주변의 지반을 정리하여 동 · 서재 또는 부속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지형이 완경



『옥천향교 배치도』



『영광향교 명륜당도』

사지일 경우에는 명륜당을 고상형(高床形)의 건물형태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경역의 진입동선에는 명륜당과의 주축선에 외삼문을 배치하고 문 좌우에 담장을 두른 것이 일반적이나, 외삼문을 두지 않고 명륜당을 경역 외곽으로 노출시키거나 누각형식을 취하여 누(樓)·문(門)·학(學)의 공간기능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향교(강릉·횡성·삼척·양양·옥천·괴산·청양·예산·당진·목천·창평·능주·곡성향교 등)도 있다. 이 배치형태는 전학후묘 배치유형에서만 취해지고 있으며 전묘후학, 좌묘우학, 우묘좌학 배치에서는 취해지지 않는 배치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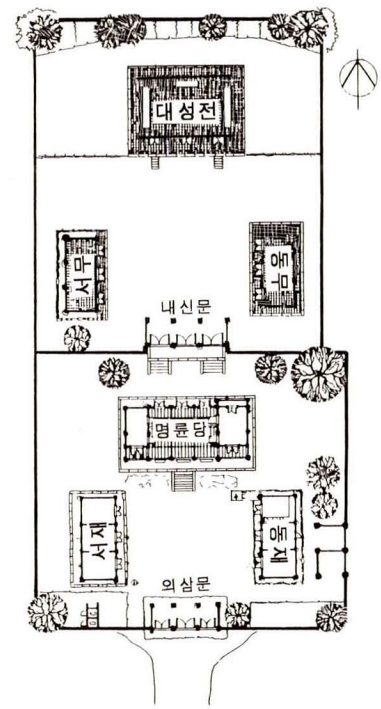
(2) 前齋後堂形 配置

명륜당의 좌향을 대성전과 같은 좌향으로 배치하고 동·서재를 명륜당 전면의 좌우에 배치되는 유형으로, 지형적으로 경사지에 배치되나 문묘구역 앞의 시야가 대체로 막히고, 문묘구역의 출입동선이 명륜당 후면의 좁은 공간 형성으로 문묘의 제향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명륜당 앞에는 시야가 터인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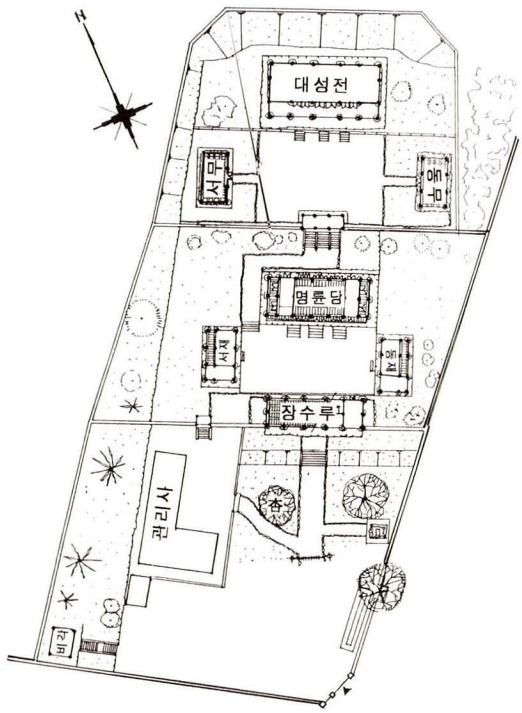
지역적으로 경상도에서 이러한 배치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문묘구역에는 전면에 삼문과 연결하여 토석담장으로 막아 강학공간과 경역을 분리하여 폐쇄된 공간으로 구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사이를 삼문-담장으로 막지 않고 석축으로만 구획(원주·영해·인천·적성·흥해향교)하거나, 문묘공간앞

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명륜당을 문묘경역에 접하여 배치하고 좌우에는 문과 담장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구성한 경우(영덕 · 정선향교)도 있다.



『현풍향교 배치도』



『춘천향교 배치도』

강학구역의 전면 입구에는 일반적으로 삼문을 두고 있으나 누각건물이 배치된 경우도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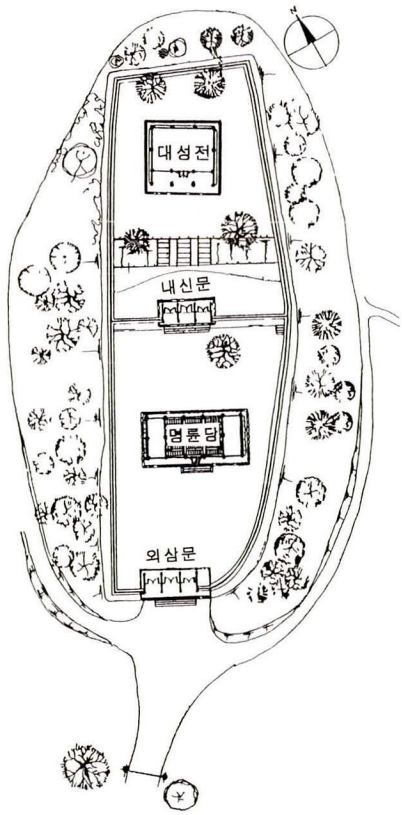
전학후묘, 좌묘우학, 우묘좌학 배치방법에서의 강학공간 배치는 주로 이 형식의 배치법을 취하고 있다.

(3) 無齋後堂形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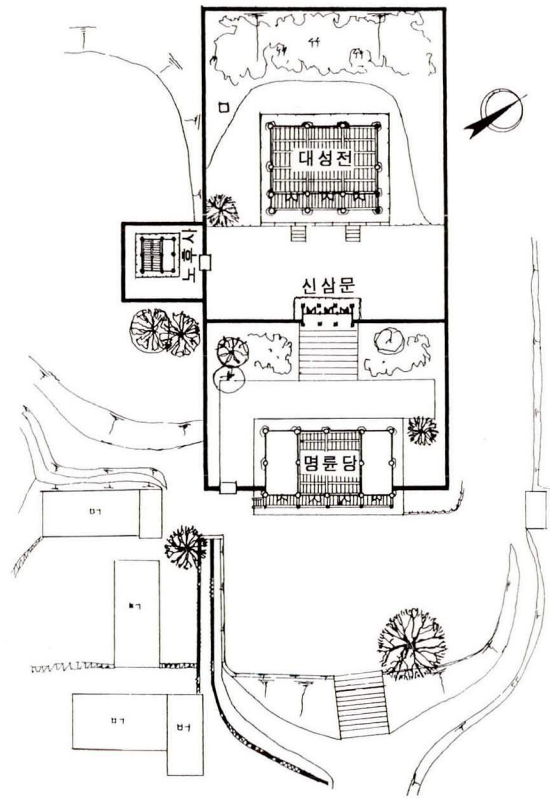
전재후당형 배치방법에서 재(齋)가 설치되지 않고 명륜당만 배치되어 있는 유형으로 전재후당형과 같이 대성전과 같은 방향으로 좌향되어 있다.

이 형식은 전국적으로 동 · 서재가 배치되지 않는 향교는 모두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재후당형 배치는 경상도지역, 전당후재형은 전라도지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중부지역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은 두가지 유형이 혼재하여 배치되고 있다.



『양성향교 배치도』



『영동향교 배치도』

제4장

대 성 전

1. 대성전의 평면구성
   - 가. 평면형식　　나. 평면비례
   - 다. 건물규모
2. 대성전의 기단·계단·초석구성
   - 가. 기단구성　　나. 계단구성
   - 다. 초석
3. 대성전의 가구 짜임
   - 가. 기둥　　나. 공포구성
   - 다. 가구짜임 – 5량가구 / 7량가구
4. 대성전의 지붕형식
   - 가. 지붕구성　　나. 처마구성
5. 대성전의 창호구성
   - 가. 3칸건물 창호구성
   - 나. 5칸건물 창호구성
   - 다. 창호양식 – 문양식 / 창양식
6. 대성전의 벽체구성
7. 대성전의 단청과 벽화

제4장 大 成 殿

대성전은 문묘구역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로 건축적으로도 향교내에서 다른 건물과 비교할 때 가장 우수하고 규모, 구조, 양식 및 의장적인 측면에서도 중심건물로서의 상징성을 보이고 있다.

전면 중앙칸 상부에는 반드시 『大成殿』이란 현판이 걸리고 있으며, 성균관에는 『聖廟』라는 현판이 더 걸려 있다.

당(唐)대에는 문선왕전(文宣王殿)이라 불렀다가 송(宋)의 휘종황제(徽宗皇帝)가 공자를 숭앙하여 「新古聖先賢之大成」이라고한 말에서 기인하여 『大成殿』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공부자를 경칭에서 연유되었다고도 한다.

결국 『大成殿』이란 대성지성문선왕공부자(大成至聖文宣王孔夫子)의 성훈과 유덕을 추모하여 봉사하는 문묘로, 공자의 위패를 정위에 배치하고 4성 10철 등의 선성(先聖) 위패를 배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사건축(祭祀建築)이다.

지방 교육기관으로서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즉 향교는 지방민을 교육 교화하는 교육기관 이전에 성현의 가르침을 기리는 문묘라는 제사공간이 있음으로서 존재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大成殿 의 平面構成

가. 平面形式

제사구역 즉 문묘구역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무, 제기고, 전사청, 내신문 등 문묘향사에 관련된 시설물이 함께하여 구성된 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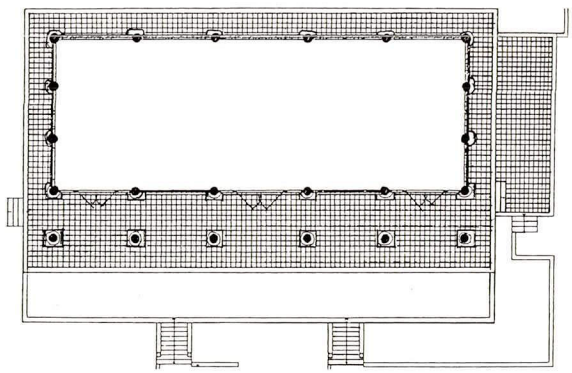
대성전은 향교 내에서도 규모 양식면에서 가장 규모가 있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 평면구성면에서도 다른 어느 건물과 달리 정형화된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석전제향 의식의 기능에 합당한 평면형태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곡부 공묘의 대성전은 정면 9칸, 측면 5칸의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성전의 평면형식은 정면 칸수를 반드시 홀수칸을 취할 뿐 아니라, 3칸과 5칸을 취하며 그이상 그이하의 칸수를 취한 예는 없다.

일반적인 평면형식은 전면의 퇴칸 유무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면에 퇴칸을 둔 개방형의 경우가 전향교 대성전의 약 67%(약 150개소)를 차지하고 있

어 퇴가 없는 폐쇄형인 평면구성보다 전퇴가 개방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제향의식에 따른 공간활용 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평면구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기, 강원, 충청, 제주지역은 대체로 전퇴 개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남으로 내려 올수록 두가지 평면형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북지역은 오히려 폐쇄형 평면형을 많이 취하고 있다.



『성균관 대성전 평면도』

정면 칸수로는 3칸 평면을 취한 대성전이 전향교 대성전의 대부분인 약 80%를 차지하는 한편, 5칸 평면구성은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하여 수원 · 춘천 · 강릉 · 충주 · 나주 · 순천 · 상주 · 동래향교 등 대체로 각지역의 주요 행정구역을 담당했던 주(州) · 부(府)나 규모가 큰 군에서 주로 취하고 있다.



『양주향교 대성전 내부바닥의 연화문 전돌』

전면 퇴칸 구성에서 퇴칸의 전면과 측면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와 전면은 개방하고 측면은 벽체로 막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칸 좌우 및 전면 모두 개방된 구성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퇴칸 측면벽체 구성에서 한쪽은 벽체로 막고 다른 한쪽은 개방한 경우도 있다.

평면규모를 살펴보면 전퇴 개방형(前退 開放形)은 정면 3칸 건물에서는 측면은 2~4칸까지, 5칸 건물에서는 측면을 3~4칸을 두고 있는 반면에, 폐쇄형(閉鎖形)은 3칸, 5칸 모두 측면을 2~3칸만을 취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측면 칸수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전퇴(前退)의 유무에 따라 구조적으로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물내부의 바닥은 대부분 기둥과 벽체를 두지 않는 통칸형식으로 하며, 구성재료로는 마루를 깔아 바닥을 높인 경우와 전돌 또는 박석을 깔거나 봉당형식으로 강회,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된 바닥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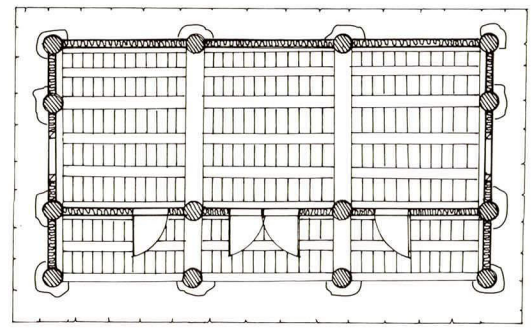
대성전의 평면구성에서 퇴칸의 유무에 따른 개방형 내지 폐쇄형 평면 외에 특이한 평면형태를 취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주칸구성은 변함이 없으나 평면 구성면에서 일반적인

평면형과 달리 변화를 둔 3가지 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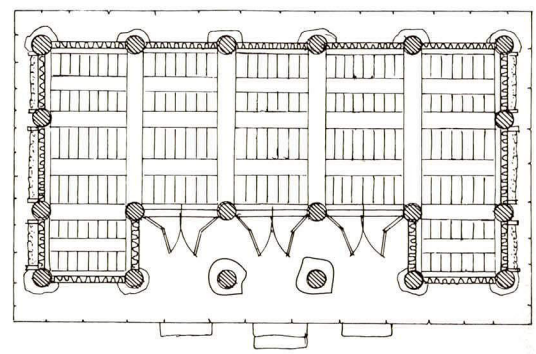
첫째－툐칸 개방형으로 내부를 마루로 구성하고 외부 퇴칸도 마루를 깔아 평면을 구성한 예로 영동 · 회덕 · 정산 · 아산 · 진산 · 용담향교 등이 이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해미향교의 평면형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의 맞배집으로 전면의 중앙 3칸을 퇴칸으로 개방한 반면에 그 퇴칸의 양측면은 벽체로 막은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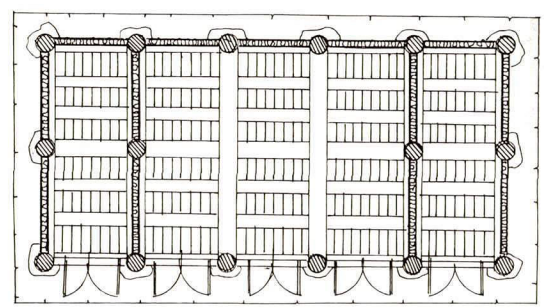
세째－보은향교의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형태로 중앙에 3칸을 구성하고 좌우퇴칸 1칸씩 벽체로 구획하여 동 · 서무의 기능을 대성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특이하다.



『정산향교 대성전 평면도』



『해미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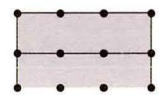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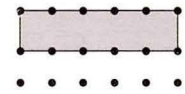
『보은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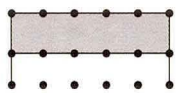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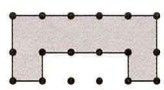
나. 平面比例

대성전의 평면형은 장방형으로 각 건물측면의 칸수.규모에 따라 비례상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칸 건물 평면에서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은 정면장(正面長) : 측면장(側面長)의 비례는 대략 1.60 : 1,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은 1.39 : 1, 정면 3칸 측면 4칸은 1.17:1 의 평균 평면비례가 나타나고, 5칸 건물 평면에서는 정면 5칸 측면 3칸은 1.83 : 1, 정면 5칸 측면 4칸은 1.5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측면칸이 적을수록 세장(細長)한 형태로, 측면칸이 많아질수록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됨을 알 수 있다. 정면 3칸 건물은 평균 1.41 : 1 정도의 비례를 갖고, 5칸 건물은 1.81 : 1 정도의 비례를 갖고 있다. 평면비례에서 특이한 것은 측면칸이 정면칸보다 많은 의령 · 청풍 · 개령향교의 대성전은 그 비례가 거의 1 : 1 에 가까운 정방형(正方形) 평면을 갖고 있다.

〈大成殿 平面形式 및 規模〉

	전퇴개방형								
전면칸	3칸 평면							5칸 평면	
평면형									
정면×측면	3×2	3×3	3×4	3×2	3×3	3×4	3×3	5×3	5×4
서울 · 인천 경기	파주	남양,김포,포천 연천, 인천	광주	고양 양지	교하,용인,통진 죽산,진위,양주 양성	부평		평택	성균관
강원		인제,화천,양구		평창	홍천,원주,정선 양양			춘천,삼척 강릉	
충북	청안	진천,음성,단양 청주,옥천,청산 황간,괴산			연풍	청풍	영동	충주	
대전 충남	금산	서천,태안,온양 목천,석성,진잠 공주,노성,은진 홍산,오천,청양 서산,천안,연산	당진		부여,홍주,예산 한산,비인,남포 결성		회덕,정산 아산,진산	임천,직산	
전북		부안,고산,진안 무장,만경,익산 용안,여산	장수 운봉 정읍	함열	흥덕,김제	고창	용담		
광주 전남		광주,보성,해남 창평,동복,영광 광양			강진			여수,화순 능주,순천	나주,장흥
대구 경북		의흥,예안,함창 영주,봉화,풍기	순흥 개령		군위,인동			영양,울진 선산	
부산 · 울산 경남		진주,고성,남해 산청,함양,안의 거창,삼가,곤양	하동 의령 단성			창원		거제	사천
제주									

전 퇴 개 방 형			폐 쇄 형				
5칸 평면			3칸평면			5칸평면	
							
5×3	5×4	5×3	3×1	3×2	3×3	5×2	5×3
안성,수원,강화 교동,가평				시흥,지평 양근	이천,여주		
영월	횡성,간성		철원				
				영춘	문의,회인 제천	보은	
신창	전의	해미			덕산		연기
				금구	전주,임피,무주 남원,태인,임실 순창,옥구		고부
지도					낙안,돌산,무안 담양,옥과,함평 고흥,장성,완도 진도,구례,영암		곡성,남평
의성,비안 상주				청송,영일 청도,고령 문경,장기 경산	진보,청하,흥해,경주 신령,하양,김산,예천 용궁,성주,대구,현풍 안동,자인,칠곡,지례	영덕,영해	영천,평해
				창녕,밀양 함안	영산,울산,언양 김해,초계,통영 합천,양산,기장		동래
	대정,제주,정의						

전돌깔기

다. 建物規模

건물규모는 약 9.7평 규모의 창녕향교 대성전에서부터 약 49평 규모의 대정향교 대성전에까지 다양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15~30평 규모가 일반적이다. 규모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행정중심지인 주(州)·부(府)에 위치하였던 수원, 강화, 강릉, 춘천, 청주, 홍주, 전주, 남원, 나주, 순천, 경주, 상주, 동래 등의 향교 대성전 규모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또는 버금갈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성균관은 향교와 비교할 때 기능면에서는 같으나 성격면에서는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교육기관이란 면에서 달리 볼 수 있으나 건축적인 면에서 성균관의 건축물이 모든 향교의 근간이 되는 바 대성전의 규모도 가장 크게 계획되어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집으로 약 90평의 건축면적을 갖고있다.

제주도에는 현재 제주·대정·정의향교가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3개소 향교 대성전 모두가 45~50평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데 규모가 큰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대성전의 평면 비례〉

정면칸 ×측면칸		正面長×側面長	比例		正面長×側面長	比例
3×2	고양	8,950×6,300	1.42 : 1	파주	8,640×5,600	1.54 : 1
	양근	9,180×6,500	1.41 : 1	지평	9,600×6,400	1.50 : 1
	양지	9,350×7,000	1.34 : 1	연천	10,200×6,300	1.62 : 1
	영춘	8,100×5,400	1.50 : 1	함열	10,370×7,810	1.33 : 1
	청송	9,300×6,200	1.50 : 1	연일	9,660×6,150	1.57 : 1
	장기	7,850×5,700	1.38 : 1	청도	11,450×6,350	1.80 : 1
	고령	10,000×6,300	1.59 : 1	문경	11,100×5,200	2.13 : 1
	함안	10,780×5,640	1.91 : 1	창녕	7,800×4,000	1.95 : 1
	밀양	11,700×6,990	1.67 : 1			
3×3	인천	9,210×7,110	1.30 : 1	남양	9,300×7,250	1.28 : 1
	김포	8,090×7,080	1.14 : 1	풍기	9,300×7,900	1.18 : 1
	양주	9,600×8,610	1.12 : 1	통진	8,200×6,600	1.24 : 1
	이천	9,945×5,775	1.72 : 1	포천	10,170×5,900	1.72 : 1
	진위	8,700×6,140	1.42 : 1	양성	7,485×6,570	1.14 : 1
	청주	12,830×9,570	1.34 : 1	화천	8,160×5,260	1.55 : 1
	회인	10,150×7,800	1.30 : 1	문의	7,650×7,350	1.04 : 1
	청산	12,360×9,440	1.31 : 1	옥천	10,350×7,230	1.43 : 1
	정산	8,950×6,250	1.43 : 1	단양	7,800×6,600	1.18 : 1
	석성	10,350×7,530	1.37 : 1	서산	11,000×8,300	1.33 : 1
	목천	7,650×5,980	1.28 : 1	진안	11,400×7,400	1.54 : 1
	용담	10,350×8,800	1.18 : 1	무주	10,200×7,800	1.31 : 1
	남원	12,180×6,900	1.77 : 1	무장	10,800×8,400	1.29 : 1
				부안	11,010×7,200	1.53 : 1

정면칸 ×측면칸		正面長×側面長	比例		正面長×側面長	比例
3×3	흥덕	10,600×8,550	1.24 : 1	임피	10,650×6,900	1.54 : 1
	옥구	9,800×5,880	1.67 : 1	용안	9,400×6,500	1.45 : 1
	익산	10,050×7,950	1.26 : 1	광주	11,300×8,000	1.41 : 1
	여산	10,600×7,200	1.47 : 1	해남	11,550×8,100	1.43 : 1
	낙안	9150×6660	1.37 : 1	담양	9,750×6,100	1.60 : 1
	무안	12,300×7,200	1.71 : 1	옥과	10,590×8,100	1.31 : 1
	창평	11,700×7,200	1.63 : 1	보성	8,700×7,500	1.16 : 1
	광양	11,700×10850	1.08 : 1	함평	9,540×6,960	1.37 : 1
	강진	12,190×10,230	1.19 : 1	장성	11,520×7,620	1.51 : 1
	고흥	12,750×8,520	1.50 : 1	구례	10,500×7,100	1.48 : 1
	진도	10,350×6,930	1.49 : 1	의흥	10,200×7,800	1.31 : 1
	현풍	9,600×6,200	1.55 : 1	예안	8,700×7,400	1.18 : 1
	안동	10,500×9,000	1.17 : 1	흥해	9,900×6,450	1.53 : 1
	진보	9,600×7,900	1.22 : 1	신령	12,000×7,200	1.69 : 1
	경주	13,050×9,200	1.42 : 1	칠곡	11,700×7,300	1.60 : 1
	성주	11,660×8,500	1.37 : 1	함창	10,850×8,800	1.23 : 1
	인동	10,135×8,570	1.18 : 1	용궁	10,100×6,450	1.57 : 1
	예천	10,550×6,180	1.71 : 1	양산	11,600×7,260	1.60 : 1
	울산	10,250×7,200	1.42 : 1	통영	8,800×6,000	1.47 : 1
	고성	11,200×7,700	1.45 : 1	남해	11,700×8,040	1.46 : 1
	산청	9,720×7,590	1.28 : 1	함양	8,800×6,610	1.33 : 1
	거창	12,150×8,220	1.48 : 1	삼가	10,560×8,640	1.22 : 1
	초계	9,000×5,920	1.52 : 1	합천	10,350×6,900	1.50 : 1
3×4	부평	8,400×6,560	1.28 : 1	광주	10,300×8,400	1.23 : 1
	청풍	9,180×9,100	1.01 : 1	장수	11,600×8,350	1.39 : 1
	운봉	9,450×8,400	1.13 : 1	고창	10,800×9,660	1.12 : 1
	개령	8,650×8,680	1.00 : 1			
5×2	보은	16,900×6,800	1.49 : 1			
5×3	수원	15,900×9,400	1.69 : 1	강화	12,200×6,720	1.82 : 1
	교동	12,180×6,700	1.82 : 1	안성	12,600×6,950	1.81 : 1
	평택	12,300×7,070	1.74 : 1	영월	10,300×7,200	1.43 : 1
	강화	12,450×8,380	1.49 : 1	간성	12,150×7,320	1.66 : 1
	고부	14,500×6,300	2.30 : 1	순천	13,875×8,500	1.63 : 1
	능주	14,100×7,560	1.87 : 1	영천	15,350×6,700	2.29 : 1
	선산	12,400×7,600	1.63 : 1	상주	17,300×9,150	1.89 : 1
	동래	12,610×7,120	1.77 : 1	거제	12,450×6,090	2.04 : 1
	울진	14,160×8,070	1.75 : 1	신창	12,450×7,950	1.56 : 1
	평해	12,840×6,420	2.00 : 1	남평	15,450×6,760	2.28 : 1
5×4	성균관	24,560×12,100	2.03 : 1	나주	14,850×10,740	1.38 : 1
	제주	14,610×10,740	1.36 : 1	정의	14,460×10,080	1.43 : 1

〈大成殿 建物面積 比較〉

평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10~15	시흥(14.1) 파주(14.7) 양성(14.8) 교하(10.4)	철원(10.3) 화천(13) 양구(13.5)	영춘(12.7)	목천(13.8) 오천 면천 덕산	임실	돌산(14.2) 동북(13.8) 완도(13.9)	장기(13.5) 하양(13.4) 영덕(14.0)	창녕(9.7)	
15~20	인천(19.8) 부평(16.7) 김포(17.4) 통진(16.4) 고양(17.1) 포천(18.1) 양근(18.1) 지평(18.6) 이천(19.3) 용인(18.7) 양지(19.8) 진위(16.2) 연천(19.5) 적성(15.7)	원주(19.3)	문의(17.1) 괴산 단양(16.7) 청안 연풍(19.2) 충주 제천 진천(16.7)	정산(16.9) 예산 공주 홍산 보령(18.6) 온양 천안(18.4) 대흥(17.1)	옥구(17.4) 용안(18.5)	낙안(18.5) 담양(18.0) 보성(19.8) 영암(19.4) **지도(18.6)**	영주(18.6) 예천(19.8) 현풍(18.1) 예안(19.5) 청송(17.4) 영일(18.2) 청하(18.2) 봉화(15.7) 용궁(19.7) 흥해(19.8) 자인(16.3) 고령(18.6) 김산(17.7) 문경(17.5)	함안(18.4) 초계(16.1) 통영(16.0) 함양(17.6) 언양 곤양	
20~25	남양(20.5) 여주(22.8) 죽산(21.8) **교동(24.7)**	홍천(21.2) 평창(21.8) 양양(21.5) **영월(22.75)**	옥천(22.8) 청풍(25.3) 청안(21.1)	회덕 은진 임천 석성(23.6) 서천 당진 아산 금산(20.8) 진산	무주(22.4) 운봉(24.1) 익산(24.2) 부안(23.9) 임피(22.3) 여산(23.1) 함열(24.5) 김제 만경 순창 정읍(23.7)	함평(20.1) 진도(21.7) 구례(22.6) **여수(23.2)**	군위(21.3) 의흥(24.2) 진보(22.9) 경산(23.6) 청도(21.9) 개령(22.8) 풍기(22.3) 순흥(22.8) 지례 **비안(24.5)** **영해(24.8)** **평해(24.8)**	밀양(24.8) 울산(25.0) 거제(21.0) 산청(22.3) 합천(21.6) 영산(24.0) 기장 김해 단성	
25~30	양주(25.1) 광주(26.1) **안성(26.6)** **평택(26.4)**	**간성(27.1)** **횡성**	황간(26.2) 회인(26.2) 영동(26.3)	서산(27.5) 청양(29.7) **신창(29.9)** **연기** **직산** 결성(28.2) 태안(28.9)	남원(25.5) 진안(25.6) 고부(27.7) 용담(27.6) 태인(25.7) 장수(29.4) 무장(27.5) 흥덕(27.4)	광주(27.3) 해남(28.8) 무안(26.8) 영광(28.3) 옥과(25.9) 장성(26.6) **장흥(28.7)**	안동(28.6) 신령(26.2) 칠곡(25.9) 함창(28.9) **영양(28.9)** **선산(28.6)**	양산(25.5) 고성(26.1) 남해(26.9) 하동(26.2) 삼가(27.6) **동래(27.0)**	
30~35	**강화(30.5)**	**강릉(31.6)**	청주(37.2) 보은(34.8) 청산(35.4)	홍주(34.2) 진잠 **전의** **해미(30.1)**	금구 전주(34) 고창(31.6)	고흥(32.9) **남평(31.6)** **능주(32.6)** **곡성(31.6)**	성주(30.1) 대구(30.7) **의성(30.68)** **영천(31.2)** 울진(34.6)	거창(30.3)	
35~40		춘천(35.4)				광양(38.5) 강진(38.7) **순천(35.7)** **화순(36.8)** 창평(35.4)	경주(36.4)	**사천(37.6)**	
40평 이상	**수원(45.6)** **성균관** **(90.5)**					**나주(48.3)**	**상주(48.1)**		**정의(44.2)** **제주(46.9)** **대정(46.5)**

※ 진한글씨는 5칸 건물

2. 大成殿 基 壇 · 階段 · 礎石構成

가. 基 壇 構 成

대성전의 기단도 평면구성과 마찬가지로 문묘 제향의식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다분히 엿볼 수 있다. 이는 기단의 폭, 이중기단, 계단설치 방식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단은 대성전의 중요성과 위계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기단의 높이, 축조방식, 재료 등에 따라 주변건물보다 일반적으로 높고, 정교 정연하게 가공되어 쌓아지고 재료의 선정에도 다른 건물과 차이를 두고 있다.

평면구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향교의 약 67%가 전면에 퇴칸을 두고 있는 데, 전퇴는 바로 기단과 연결되어 전면의 넓은 공간에 의식공간(儀式空間)을 확보하여 대성전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면의 기단폭을 측면이나 후면의 기단폭보다 넓게 조성된 것은 기단 구성의 일반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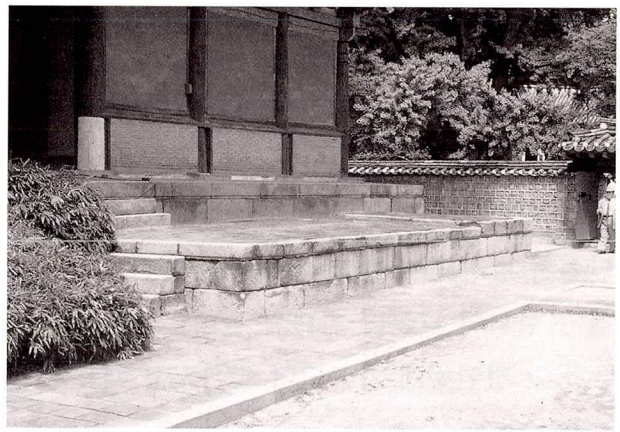
성균관, 전주 · 나주 · 영광 · 파주향교 등의 대성전은 전면에 넓직한 월대(越臺), 즉 이중기단(二重基壇)을 두어 의식행사(儀式行事)를 도울 수 있도록 단(壇)이 조성되어 있다.

전주향교는 전면에 8.1m 폭의 월대(가로폭－19.4m)를 형성하였다. 성균관 대성전은 전면폭 27.75m 측면 2.9m의 월대를 두었는 바, 각기 건물기단보다 한단 낮게 설치하고 양측과 전면에 계단을 두고 있다. 나주향교 대성전의 월대는 기단바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며 퇴칸 전면에는 장대석을 설치하여 월대와 경계를 두었으며 월대의 전면은 기단폭과 같은 19.14m,측면폭은 3.88m이며 전면에 2개소, 양측면에 각 1개소씩의 장대석 계단을 두고 있다. 또한 영광향교 대성전은 전면폭이 11.5m, 측면폭이 2m의 월대가 건물기단보다 한단 낮게 장대석으로 설치하고 전면과 측면에 각기 계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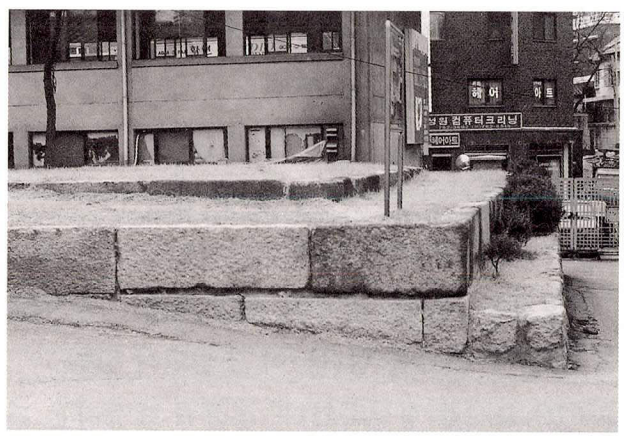


『영광향교 대성전 월대』

특이한 기단월대가 형성된 곳은 성균관 대성전 동측에 소차망(所遮網) 즉 소차(所遮)라는 월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세벌대의 장대석으로 동측 기단에 덧붙여 장변 12m, 단변 3.4m로 한단 낮게 설치



『성균관 대성전 우측 소차망』



『성균관 하연대』

되어 있는데, 이는 임금이 친행시 동측 어삼문 밖의 하연대(下輦臺)에서 내려 어삼문(御三門)으로 들어와 배향을 드리기 전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차일을 설치하는 용도로 만든 단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기능의 월대이다.

이외에도 지형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사지형에 단을 형성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지형에 관계없이 단순히 의식행사를 위한 공간구획을 확보한 의도적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묘후학 배치 이외의 대다수의 향교에서는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건물을 배치 조성하였는 바, 기단 또한 지형에 맞게 축조된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전면은 지형조성을 위한 축대 겸 높은 기단으로 축조하고, 측면과 후면은 낮은 기단으로 축조하는 기법이다. 이외에 지형에 맞게 축대 등으로 주변을 정리하여 기단을 조성하는 경우로 대체로 기단의 높이가 일정하고 높지 않게 축조되었다.

기단 재료로는 장대석으로 축조된 것이 가장 일반적인 축조기법이고, 자연석으로 축조된 경우도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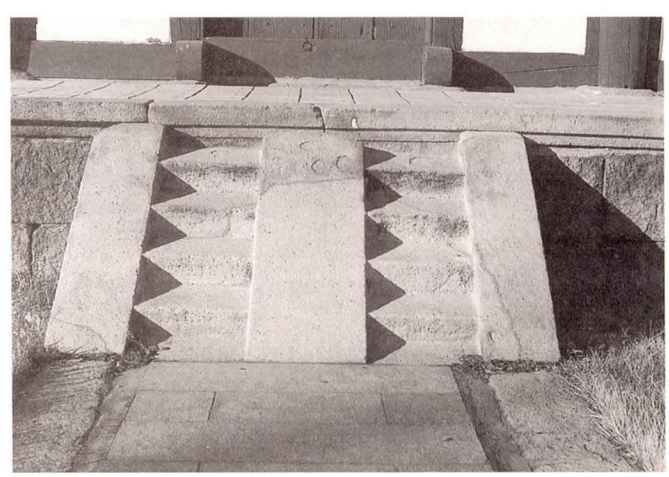
장대석으로 축조하는 방법에는 외벌대 기단에서부터 다섯벌대 기단까지 구성되는데 보통 두벌대 내지 세벌대 기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벌대로 설치된 경우도 일부가 있다. 성균관 대성전과 같이 수원 · 안성 · 춘천 · 남원 · 홍주 · 밀양 · 산청 등 일부 향교의 대성전도 위계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사지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다섯벌대의 높은 기단을 구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두 재료를 혼용하여 쌓는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전면은 장대석으로 쌓고 측면이나 후면은 자연석으로 쌓는 방법과 하부는 자연석으로 쌓고 상부는 장대석으로 갑석(甲石)을 얹어 기단을 조성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도 있다.



『보성향교 대성전』

향교조성의 시대적 배경 및 입지적 여건에 부합하여 주변의 폐사지(廢寺址)나 옛 유적지(遺蹟址)에 사용되었던 석조물들이 건물의 초석이나 기단, 계단의 조성에 일부 사용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주향교 대성전의 전면 계단석은 통돌로 이중계단으로 조성되었는 바, 임해전지(臨海殿址)의 석조물을 옮겨와 사용하였다고 하며, 부여향교는 정림사지(定林寺址)의 유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창평향교 대성전에는 초석 및 기단에 석탑의 옥개석이 9개, 석등의 연화좌대 2개, 탑의 갑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8년 보수시 제거되었으며 명륜당의 초석에는 탑부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1990년에는 입구 진입로 확장공사시에 두부(頭部)가 없는 파손된 불상 1구가 출토되어 폐사지에 향교가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풍향교 대성전 전면의 기단과 각 건물의 초석에는 연화문이 양각된 배례석과 안상이 조각된 탑, 석등 등의 부재 들이 여러 곳에 삽입되어 있는데, 『玄風邑誌』의 기록에서 보면 이곳에 향교를 건립할 당시 금화사(金化寺)의 석탑 부재로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산, 황간, 순흥 등 많은 향교의 대성전 기단에 사지(寺址) 등의 석물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주향교 대성전 전면 통돌 계단석 』

음택(陰宅)은 쉽게 찾을 수 없으나 양택(陽宅)은 수천년간 우리 민족이 이동하면서 살아온 터전이 바로 양택지로 본다. 천재지변이나 사회변화와 인재(人災)를 겪으면서 향교도 지역의 최적지를 정하여 건립하거나 이전하게 되면서 비록 수를 다하여 없어진 사지를 정하여 기존의 남은 부재를 이



『현풍향교 대성전 기단석의 연화문』



『밀양향교 대성전앞 계단석(석탑 기단석)』

용하여 향교 건립에 이용되었다.

김일손(金馹孫)이 쓴『重修 淸道學記』(성종 16년 1485)에「구사찰을 응당히 무너뜨린 것을 모두 실어와 기와로서 지붕을 새롭게 하고 재목으로서 그집을 수선하였으니, 옛날에는 절 집에 더부살이를 한…」이라 기록하고 있어 향교와 사지(寺址) 석물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창원향교 대성전의 기단은 4벌대의 장대석 기단으로「壬子三月」의 각인이 뚜렸하다.

경사지에 전학후묘로 배치된 경우는 대성전을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여 의도적인 위계성에 따른 기단조성보다는 주변의 지형여건에 맞게 기단의 높이를 결정한 경향이 있으나, 평지에 배치된 전묘후학, 좌묘우학 배치에서는 대성전의 기단을 의도적으로 주변건물의 기단보다 높게 설치하여 건물의 위계성(位階性)을 표현하고 있다.

평지에 배치된 각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나주향교는 평지에 건축되었는데 대성전의 기단을 높게하여 초석상부가 명륜당의 초석상부보다 64cm높게 건축되었으며, 전주향교도 대성전이 명륜당보다 63cm 높게 건축되어 건물의 위계성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성균관의 경우에도 대성전과 명륜당의 지반차가 84cm정도 있으며 대성전의 초석상부보다 60m 낮게 건축되었는데, 건물의 기단높이는 대성전이 202cm이고 명륜당이 178cm로 24cm더 높게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대성전이 더 높음을 암시하고 용마루 까지의 전체 높이도 대성전이 훨씬 높아 역시 건물의 위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階段構成

계단의 구성은 대성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가장 뚜렸하고 분명하게 위계성이 잘 표현되고 제향의식적(祭享儀式的) 기능에 맞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한 통행이나 출입을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다.

제향의식 기능상 동입서출(東入西出) 즉 오른쪽인 동쪽 계단으로 오르고 왼쪽인 서쪽 계

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규범으로 하고, 중앙에 계단이 있는 경우는 신(神)만이 통행하는 신계(神階)로서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다.

계단의 위치는 전면에 설치하는 방법과 측면에 설치하는 방법 및 전면과 측면에 동시에 설치되는 혼용형이 있다.

전면에 계단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개소, 2개소 또는 3개소 설치되는데

① 기단전면에 1개소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물의 중앙인 어칸(御間)앞에 두는 경우로, 이는 의식(儀式)때 제관(祭官)들이 이 계단을 사용치 않음이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신(神)만이 통할 수 있는 신계(神階)라 표현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이로 볼 때 하나의 상징적인 계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성 · 개령향교 대성전과 같이 기단 전면 우측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향의식에 따른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원칙에 의해 취해진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경주향교나 목천향교와 같이 전면 중앙에 1개소의 계단을 두고 기단 좌 · 우측에 계단을 두는 보기 드문 설치방법도 있다.

② 기단 전면에 2개소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이는 대체로 성균관의 설치방법을 모범으로 삼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치방법은 중앙의 어칸 앞을 피해서 양협칸이나, 5칸일 경우는 퇴칸 앞에 설치하게 되는데 때로는 건물 주칸 밖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 제향의식상 전면 2개소의 계단만 있으면 기능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성균관 · 나주 · 김해향교의 대성전의 경우는 양측면에도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③ 기단 전면에 3개소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설치는 중앙어칸 전면에 반드시 1개소를 설치하고, 협칸, 퇴칸앞에 두는 경우나, 주칸 밖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2개소 설치방법과 같다. 전면에 3개소의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에서도 청주 · 함열 · 창원 · 거창향교의 경우는 전면 계단 외에 양측면 기단 앞에 다시 별도의 계단을 두고 있다. 비인향교의 계단 설치방법은 특이한 예로 어칸 앞에 3개소의 계단을 두고 있는 점이다.

④ 계단구성 방법에서 보기드문 예로 강릉 · 진산 · 비안 · 영산향교 등과 같이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고 측면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⑤ 계단을 건물 주칸 전면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로 이는 계단설치 격식과는 달리 계단의 성격보다 제향의식의 공간활용 면에서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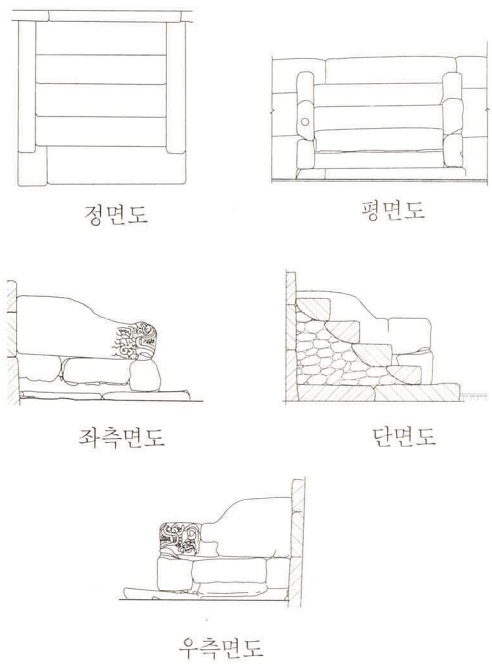
⑥ 기단앞에 계단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것은 기단이 낮아 계단 설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나 전면의 넓은 공간에 통로를 설치하여 의식공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진향교 대성전』

계단에 설치되는 재료는 보통 장대석으로 설치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연석으로 설치된 경우도 흔히 있다.

나주향교 대성전의 월대 전면 좌우에는 소맷돌이 있는 계단이 있는데 하단의 받침돌 위에 두단의 소맷돌을 설치하였다. 하단의 소맷돌은 장대석을 이용하였고 상단의 소맷돌은 무지개형 석재에 마구리쪽에 용문(龍紋)을 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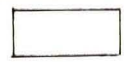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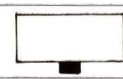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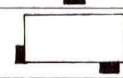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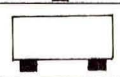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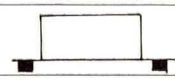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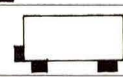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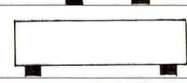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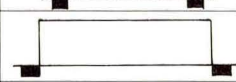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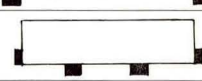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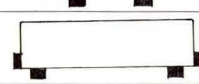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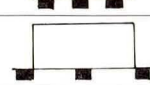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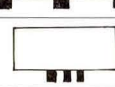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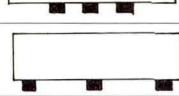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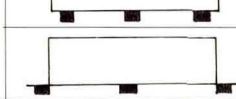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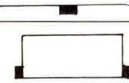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계단 상세도』



『나주향교 대성전 기단 · 계단』

〈大成殿 階段 位置〉

계단 형식		계단 위치			대상향교수	비 고
무계단형		—			19	시흥,원주,보은,청양,의흥 등
전1계단형		—			10	회인,은진,낙안,청송,함안 등
		측면 1			2	무안,안동
					1	보성
		측면2			2	목천,경주
전2계단형	3칸	—			40	인천,영동,진당,고창,울산 등
					2	양구,고흥
		측면1			1	창평
		측면2			1	김해
	5칸		협칸		5	교동,삼척,지도,영양,영해
			퇴칸		4	능주,의성,울진,사천
			외부		1	상주
		측면2	협칸		1	성균관
			퇴칸		1	나주
전3 계단형	3칸	—			63	석성,여주,홍천,옥천,전주,대구 등
					8	양근,대흥,김제,구례,비안 등
					1	비인
		측면2			4	청주,함열,창원,거창
	5칸	—			13	안성,춘천,충주,직산,영천,곡성 등
					7	남평,수원,간성,고부,순천,대정,정의
					1	장흥
측면계단형		측면2			10	강릉,예산,진도,자인,영산 등
전체계단형		전면			8	영월,진안,해남,영덕 등

다. 礎 石

초석은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받아 이를 다시 기단을 통하여 지반에 전달시키는 역학적 구조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의장적으로 다양한 수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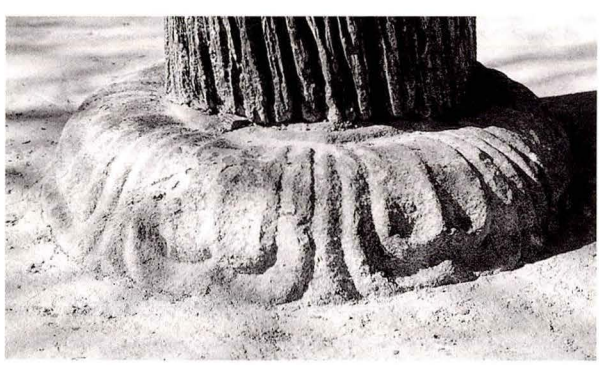
대성전의 초석 또한 향교의 다른 어느 건물의 초석보다 위계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연석의 덤벙주초보다 화강석 등으로 가공된 초석을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초석의 형태는 주로 원형으로 가공된 초석이 많이 쓰이고 방형으로 가공된 초석도 상당수 사용되는데 성균관이나 경주향교 대성전과 같이 방형으로 가공된 초석상부의 기둥자리에는 원형으로 운두를 둔 경우도 있다.

사용장소에 따라 전면에는 가공된 초석을 주로 사용하고 측면이나 후면에는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혼용하여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다.

가공초석중 특징적인 면은 전면의 퇴칸이 개방된 경우 전면 퇴주열의 초석에는 여주 · 익산향교등의 대성전과 같이 원통형의 장초석(長礎石)이 사용된 경우와 남양 · 직산향교 등의 대성전과 같이 민흘림을 둔 방형의 장초석을 설치한 경우와 통진 · 남원향교와 같이 8각으로 접어 가공된 장초석을 사용하여 위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8이란 수는 초석뿐 아니라 기둥, 지붕, 기타 석물 등 여러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8이란 수의 의미는 주역(周易)에 나오는 음양설의 마지막 것으로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팔괘(八卦)의 근원인 태극 즉 우주의 모든 구성은 음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학설로 고대 중국사상을 형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고건축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평향교 대성전 연화문 초석』



『황간향교 대성전 연화문 초석』

덤벙주초는 대체로 큼직한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이용하거나, 적당한 크기로 쪼게어 노출면을 거칠게 가공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기둥자리 상부를 거칠게 운두를 가공조성하여 설치된 경우도 있다.

기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초석도 주변의 폐사지(廢寺址)등에서 옮겨진 탑재(塔

材)나 유구(遺構)등이 대성전의 초석으로 사용된 흔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나주 · 창평 · 영동향교등이 대표적이다. 나주향교 대성전 퇴주초석(退柱礎石)은 인접하여 위치한 고찰인 심향사(尋香寺)에서 옮겨다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전주향교에서도 최근 보수시 초석으로 사용되었던 탑 옥개석이 제거 되어 있다. 이는 조선조의 억불정책과 사원(寺院)에 부과된 일종의 사역인 속사제도(屬寺制度)등에 기인하여 보다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大成殿 礎石類形〉

사 용 재 료	초 석 유 형		대 상 향 교
자연석	덤벙주초		약 35%
자연석+화강석	덤벙주초+	원형초석	인천,안성,부평,단양,천안,예산,부안,지도,구례,진보,선산,영주,울진
		방형초석	함열
		원형+방형초석	양지,춘천
		8각+4각초석	청풍
화강석	원형초석		약 20%
	방형초석		가평,용인,인제,철원,옥천,용안,통영
	원형+방형초석		죽산,목천
	4각(원형)위 원형주좌		성균관,화천,아산,은진,영광,비안,경주,청하
	장초석+	원형장초석	여주,서산,태안,익산,여수,사천,제주, 정의,강화(후면)
		방형장초석	남양,강화,직산
		8각 장초석	통진,교동,해미,남원,보성,고성
		연화문, 탑재 등	영동,황간,연풍,부여,흥덕,나주,창평,하양,고령(귀갑문),개령,풍기,순흥,현풍,창녕,안의

3. 大成殿의 架構 짜임

가. 기둥(柱)

기둥은 구조적으로 지붕의 하중을 받아 그 하중을 초석에 전달하는 가구식(架構式) 구조물의 축부(軸部)이고 실제적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가 된다.

대성전에 사용된 기둥은 대다수가 원주(圓柱)를 사용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이긴하나 배흘림을 둔 경우도 있다. 모든 기둥에 방주(方柱)를 사용한 경우는 없고, 다만 전면과 측면 일부에서 원주를 사용하고 후면과 다른 일부 측면에서는 방주를 사용한 경우가 간혹 있다. 이외에 특이한 단면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양지향교 대성전과 같이 모든 기둥을 8각기둥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대성전은 의례적인 제례향사를 위한 공간으로 주로 실내의 후면과 양측면 공간은 위패를 봉안하고 전면은 의례를 행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면 공간에는 평면구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부에 개방된 퇴칸을 둔 경우가 있어 평면구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주(高柱)를 세워 양측면을 보완 충족시키고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내부를 통칸으로 계획됨이 일반적이나 성균관, 수원 · 나주 · 경주향교 대성전 등 대체로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구조 역학적 문제 등으로 내진주(內陳柱)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大成殿 기둥 형태 비교〉

기둥단면 및 사용기능		대 상 향 교
기둥단면	원기둥	각기둥을 둔 향교 이외의 모든향교 대성전(약93%)
	원기둥+각기둥	부평,교동,강화,가평,양성,적성,양지(8각주),홍주 여수,지도,고흥,예안,영덕,진보,하양,창녕 등
사용기능	활주가 있는 대성전	서산,전주,무장,자인,경주,통영,단성
	내진주를 둔 대성전	성균관,수원,여수,문의,진잠,무주,익산,나주,남평 돌산,곡성,고흥,경주,동래,사천,제주,대정,정의
	외부에 별도 받침 기둥	결성,능주,곡성,제주

활주(活柱)는 팔작지붕의 추녀 아래몸을 끼워 세우는 세장주(細長柱)로 단면은 원형 또는 팔각형으로 추녀길이가 길때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대성전에서 팔작집을 취한 향교는 10개소 정도로 그중에서 서산향교 대성전 만이 활주를 두고 있으나, 그 외는 전주 · 무장 · 경주 · 자인 · 통영 · 단성향교 대성전 등 맞배집에서 추녀가 아닌 도리 외부를 받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栱包 構成

공포는 주두, 소로, 첨차, 제공, 한대, 살미 등이 조합되어 상부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부재이며, 역학적 의미 이외에 장식적 의장면에서도 건물의 형식을 결정지어주는 중요

한 부재군(部材群)이다. 높이 조절도 공포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향교 대성전에 나타나는 공포대는 크게 익공계(翼工系)와 주심포계(柱心包系)로 대별되며 민도리계통의 무공아계(無拱牙系)도 상당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포계(多包系) 건물도 4동이나 있다.

출목(出目)이 없는 익공계를 채택한 대성전은 전체의 약 55%, 출목을 둔 주심포계는 약 35%를 차지하고, 그 외에 민도리의 무공아계나 주심포계를 통틀어 약 10% 정도이다.

유교건축에서 중심건물의 건축형식으로 주심포계 또는 익공계 양식을 채택하는 것은 상징적 일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큰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성균관 대성전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한양에 위치하고, 다른 향교 대성전과는 명칭은 같더라도 성격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향교에서 규모면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간략한 익공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 때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중요 사찰이나 관아건물들과 비교할 때 보다 간략하고 검소하게 지어진 면도 없지는 않으나 다른 측면보다 시대적인 추세에 따른 향교건축 흐름의 경향에 따랐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적으로 볼 때 충청도 이북 지역은 익공계통의 간략한 구조로, 전라 · 경상도지역은 출목을 둔 주심포계통의 보다 화려한 기법으로 공포대가 조성된 경향을 볼 수 있고, 주요 행정중심 지역일수록 주심포계통, 작은 군 · 현일수록 초익공 무공아계의 간략한 공포대가 조성된 경향이 있다.

공포구성에서 대량머리에도 봉(鳳)이나 용(龍)머리,연봉 등을 조각하여 화려한 위풍을 보이고, 초가지 형태는 앙서에 화문장식이나 쇠서에 용봉장식을 한 예가 있고, 첨차는 정교함은 덜하나 양단을 수직으로하여 하단부에서 곡면으로 접은 경우가 많다.

공포대의 구성 방법에서도 대성전의 위계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목이 없는 익공계에서 초익공의 공포구성 빈도를 살펴보면 전후면 모두 초익공을 취하는 향교는 중부이북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공포구성 방법이며 중부이남 지역에는 이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전면에는 초익공을 취하고 후면에는 익공이 없는 무공아계를 취하는 곳은 경기도 지역에 거의 편중된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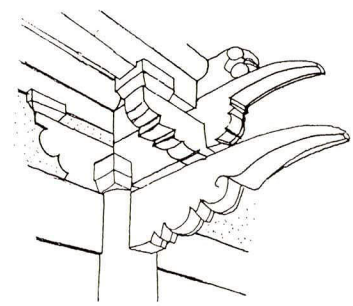
이익공 공포구성은 익공계에서 가장 많이 취해진 구성방법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보편화된 경향이다. 이익공에서 전후면에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면에 초익공 또는 민도리계의 무공아계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지 않은 구성방법이다.

출목이 있는 주심포 계통에서는 외2출목까지 취하고 있는데, 전후면에 외1 출목을 취한 경우가 일반적이나 주로 중부이남 지역인 경상 ·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취해진 공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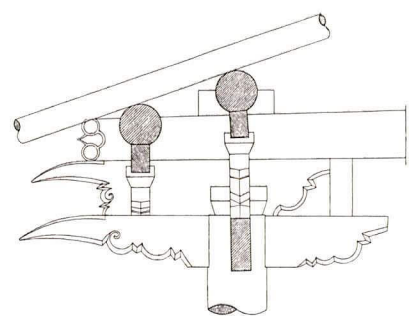
성 방법으로 중부 이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구성방법이다. 전면에는 외1출목을 취하고 후면에는 민도리계 또는 초익공, 이익공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구성방법의 실례는 몇몇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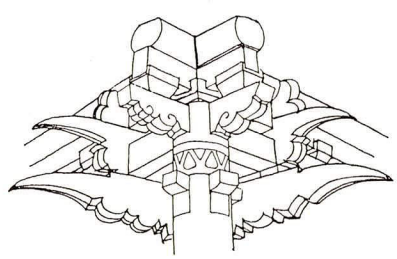
『영천향교 대성전 공포』



공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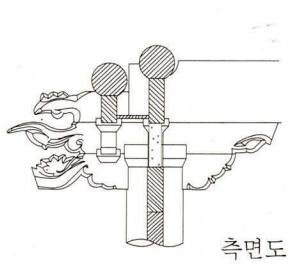


공포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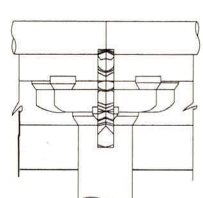


귀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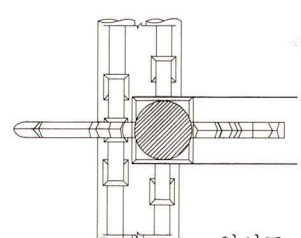
『제주향교 대성전 공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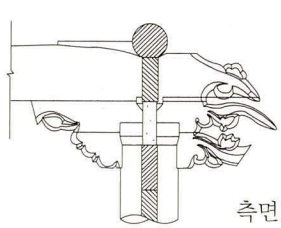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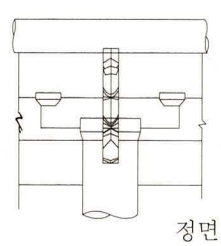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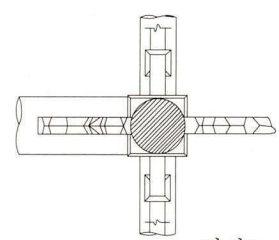
앙시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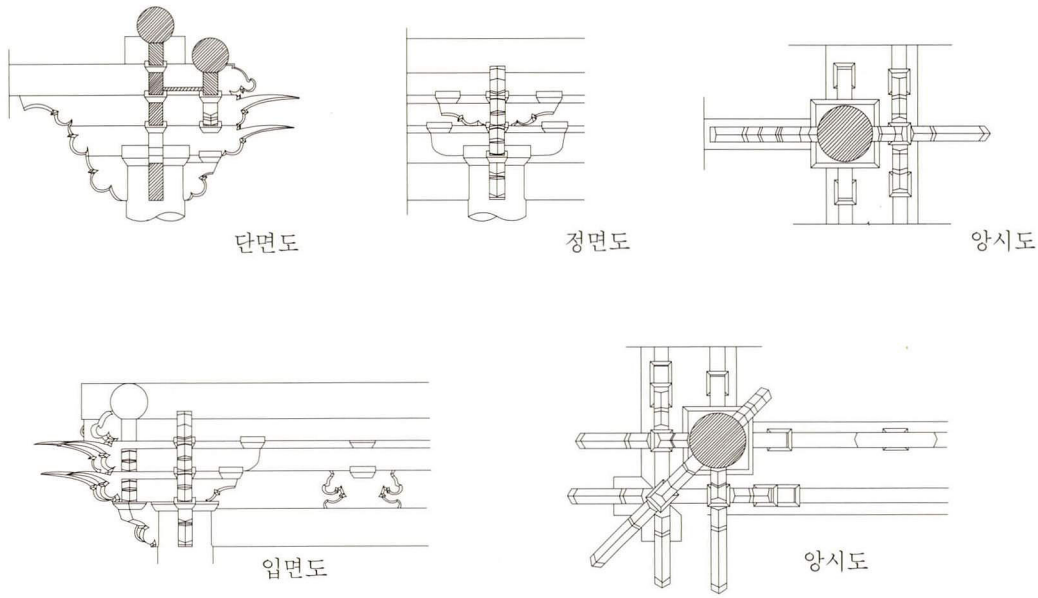


정면도



앙시도

『동래향교 대성전 정면(上) · 배면(下) 익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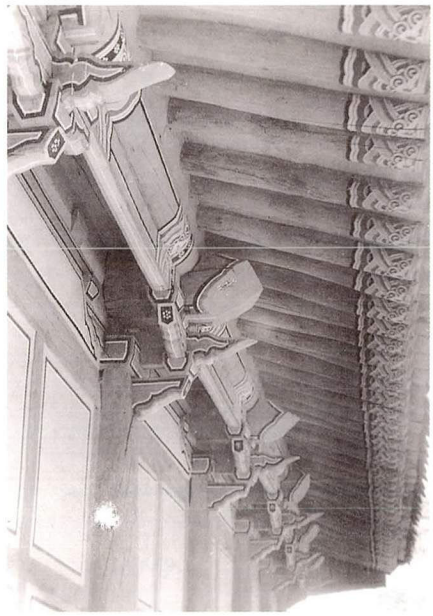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공포(上) · 귀공포(下) 상세도』

외2출목(外二出目)을 취한 공포구성은 극히 일부분의 건물에 불과하다. 전후면 모두 외2출목을 취한 곳은 고산 · 순천 · 칠곡 · 하동향교 대성전 등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중부이북 지역은 광주향교(廣州鄕校) 대성전에만 이 공포구성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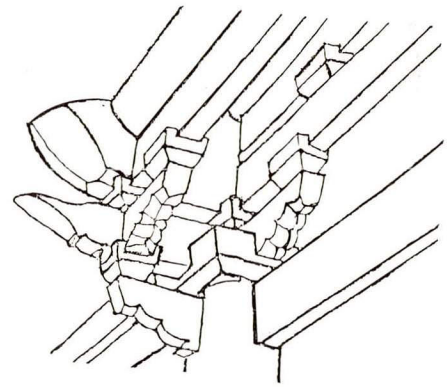
전면의 외2출목에서도 전후면의 공포구성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로, 후면에 외1출목을 둔 경우는 장수 · 의령향교에서 취하고, 초익공을 취한 경우는 남해향교 대성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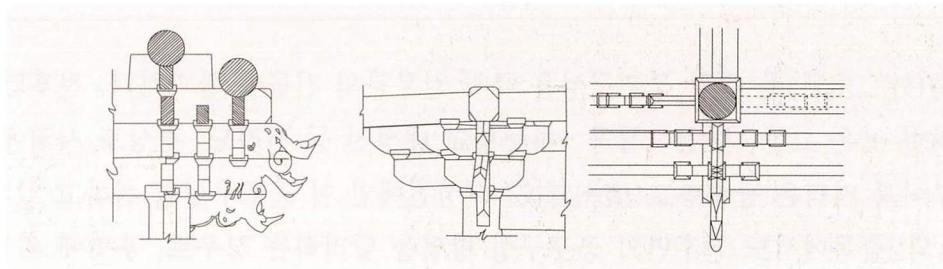
『순천향교 대성전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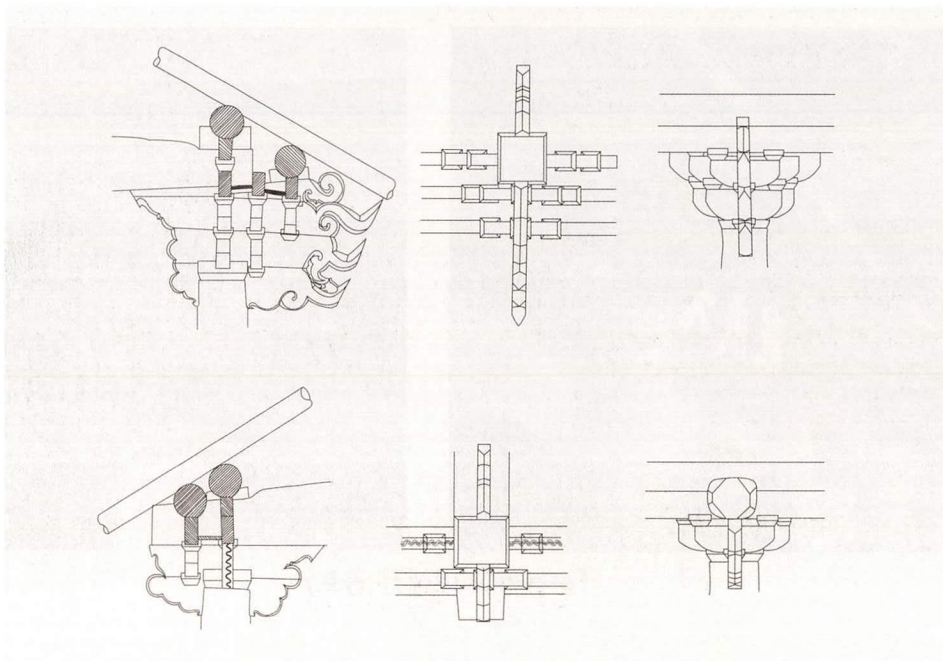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공포』



『강릉향교 대성전 공포도』



『인동향교 대성전 공포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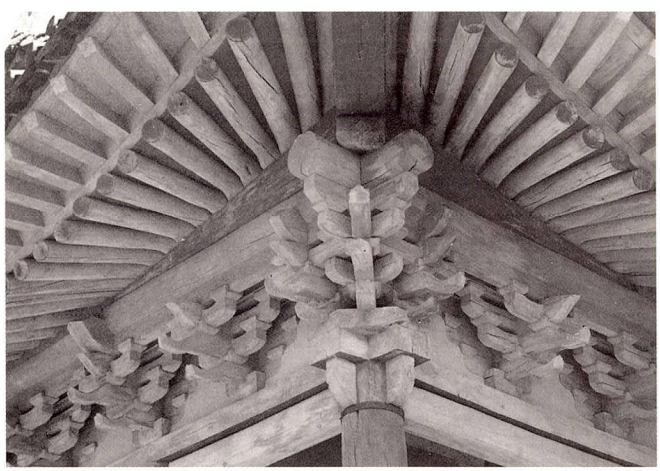


『의흥향교 대성전 전면(上) 및 배면(下) 공포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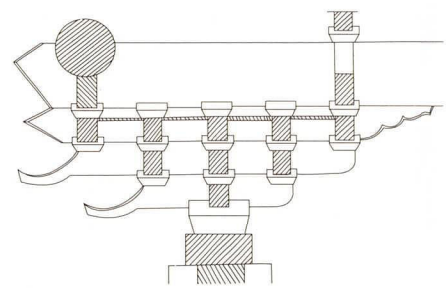
대성전에서 다포계의 공포구성을 한 경우는 성균관, 익산 · 대구 · 성주향교만 있는데, 성균관의 대성전은 팔작집으로 내외2출목의 다포집으로 전후면의 어칸에 3개의 간포(間包)를 배치하고 협칸과 퇴칸에는 각각 간포 2개를 측면은 1개씩 배치하고 있다. 대구 · 성주향교는 맞배집으로 내외 2출목에 각 주칸마다 간포 2개씩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익산향교는 전면은 내외 1출목이고 후면은 외1출목으로 어칸은 간포를 2개씩 협칸은 1개씩 배치하고 있다.

칠곡향교 대성전은 외2출목의 주심포계 건물이나 주칸 창방위에 소대첨을 소로를 끼워 중첩시켜 화반을 형성한 것이 출목은 없으나 다포계의 간포와 같은 형상을 취한 것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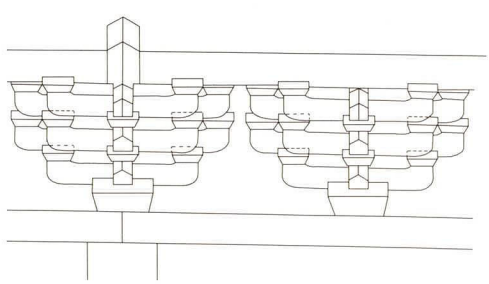
대성전의 건물 성격상 격식이 떨어지지만 공포를 두지 않은 민도리의 무공아계도 일부 있음을 주지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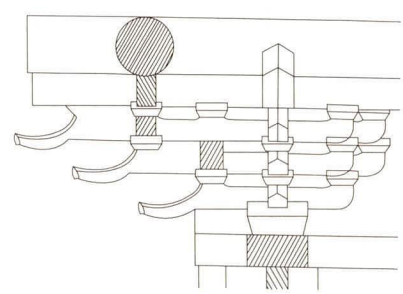
『성균관 대성전 공포구성』



〈주심공포 단면도〉



〈정면 공포 입면도〉



〈귀공포도〉

『성균관 대성전 공포도』

〈대성전 공포 類形〉

	전면	후면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다포계			성균관				익산		대구 성주		
민도리계			부평,가평			정산	고부	여수,돌산 지도,능주 동복,장흥	예안,영덕 봉화	칠원	
무출목익공계	초익공		수원,고양 포천,양근 지평,용인	춘천 홍천 원주 간성 철원 화천	보은,정산 영동,청안 충주,제천	회덕,서산 당진,아산 온양		담양,영광 고흥	청송,영해 고령	울산	
	초익공	민도리	시흥,김포 통진,교동 양주,이천 양성	횡성			고창,흥덕	낙안	용궁,풍기		대정
	이익공		남양,여주 양지,죽산	정선 양양	청주,문의 회인,황간 진천,음성 괴산,연풍 단양,영춘	진잠,공주 부여,서천 청양,해미 태안	전주,진안 부안,만경	보성,영암 완도	의성,비안 청도,인동 상주,함창 예천,영주 순흥	함안,기장 통영,산청	정의
	이익공	초익공	인천					곡성	개령		
	이익공	민도리	강화,파주 교하,진위 연천		옥천		함열	남평	문경,울진	창녕	
외출목익공계	외1출목			강릉		목천,금산		창평	영천		
	외1출목 이익공				청풍	남포,홍주 예산,직산	남원,정읍 김제,임피 여산,무주	나주,무안 화순,옥과 광양,강진 함평,장성 진도,구례	현풍,군위 안동,영양 진보,청하 흥해,장기 경주,신령, 자인,선산, 금산,지례, 하양,영일	진주,밀양 양산,언양 사천,곤양 단성,안의 거창,합천 삼가,초계	제주
	외1출목	민도리		영월		신창		광주			
	외1출목	초익공	안성,평택			석성				고성,함양	
	외1출목	삼익공							평해	동래,거제	
	외2출목 삼익공		광주				고산,용담 순창	순천,해남	의흥,경산 칠곡	김해,하동 창원,영산	
	외2출목	외1출목					장수			의령	
	외2출목	초익공								남해	

다. 架 構 짜 임

가구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한 여러 부재가 결구되는 것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가구재에는 보와 도리 대공이 기본부재가 된다.

대성전에서 도리는 대다수 굴도리가 사용되고, 대공은 외부에 접하는 부분은 제형의 판대공을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파련대공이 사용된 경향이 있으나 동자대공이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성전은 내부 평면이 통칸으로 형성되고, 외부는 전면만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극히 일부만 팔작집 형태를 취할 뿐이며 대다수가 맞배집으로 전면에 퇴칸을 두고 있는 관계상 상부의 가구 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의 구성에는 5량가구와 7량가구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다수 5량가구로 짜여진 반면에 7량가구는 규모가 큰 향교에 취해지나 많지는 않다.

벽체가 구성되는 양측면에는 고주(高柱)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내부에는 퇴칸의 유무에 따라 고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건물 단면만으로 내부의 가구구성을 분석한다.

(1) 5樑架構

퇴칸의 유무에 따라 고주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퇴칸이 없는 폐쇄형 평면구성에서는 고주가 없는 맞걸이로 된 무고주오량(無高柱五樑)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화된 가구수법으로 대부분의 폐쇄형 평면에서는 이 가구양식을 취하고 있다.

전면에 퇴칸이 형성된 전퇴 개방형의 평면에서는 퇴와 연결부분에 고주를 세우는 일고주오량(一高柱 五樑) 가구가 일반적인데 대부분 이 가구수법을 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양 · 해남 · 인동 · 산청향교 등에서는 퇴칸에 평주를 세우고 그위에 다시 동자주를 덧세워 고주형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폐쇄형 평면이면서 1고주 5량가구를 취한 경우는 문의향교 대성전을 들 수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거의 정방형(正方形)의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구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해진 수법으로 해석되며 평면내에는 내진주(內陳柱)를 두게 된다.

5량가구로 전면에 퇴칸을 만들기 위하여 취해진 가구방법으로 전퇴오량(前退 五樑)가구를 들 수 있는데 양주 · 김포향교와 같이 무고주오량(無高柱 五梁)가구 형식을 취한 앞에 1량(樑)을 덧달은 형식이 있는가 하면, 영월 · 운봉 · 의흥 · 남해향교 등과 같이 5량으로 구성한 내부에 평주를 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대들보를 걸고 퇴보를 연결하는 방법과 대들보를 통재로 걸치고 평주를 받치는 방법이 있다. 또 거제 · 삼가향교에서는 받쳐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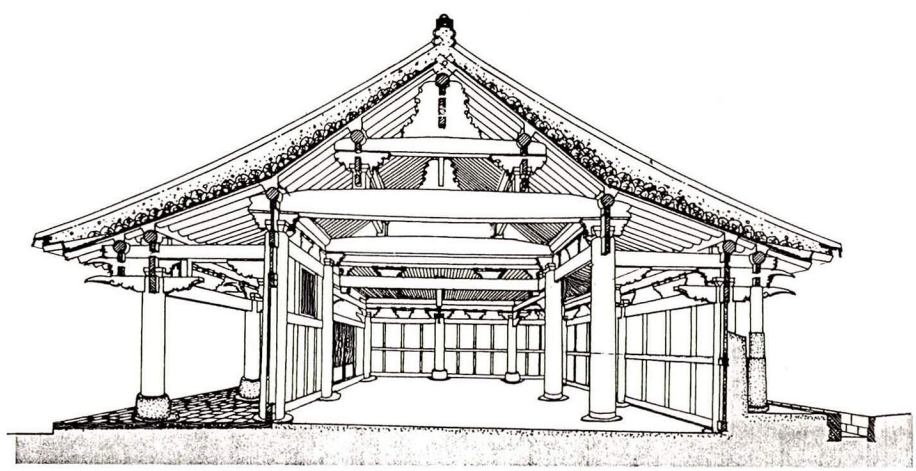
부평주위에 다시 대공형식으로 받침하여 그위에 도리를 얹어 고주형식을 취하고 있다.

(2) 7樑架構

7량가구 구조체는 규모가 큰 건물일 때 적용된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경간이 넓은 것과 일맥 상통한다. 넓은 경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7량가구 이상에서는 고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고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내진주(內陣柱)가 들어서게 되는데 전면 또는 후면 한쪽에 설치되는 1고주형식과 전후면 양쪽에 대칭적으로 설치되는 2고주형식이 있다.

대성전은 7량가구로 구성될 때는 전면에 퇴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수 · 상주 · 청풍향교와 같이 1고주7량일 때는 내진주가 없으나 성균관, 나주 · 제주향교 등 2고주 7량가구일 때는 반드시 내진주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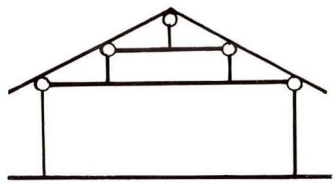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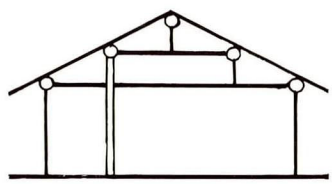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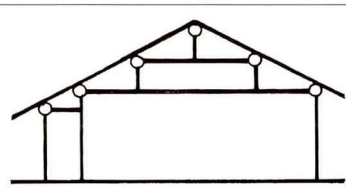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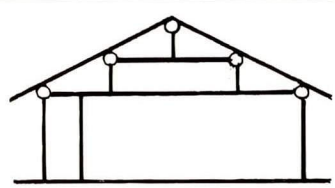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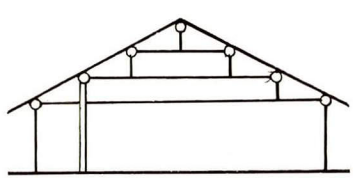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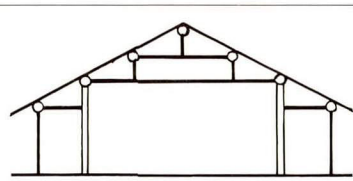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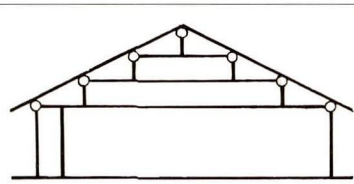
7량가구에서 광양 · 사천향교와 같이 고주를 세우지 않고 7량으로 구성한 내부에 평주를 세워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대들보를 걸치고 전면에 퇴보와 접합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주향교 대성전 내부가구 투시도』

맞배집으로서 특이한 가구를 취한 곳으로는 단양 · 경산향교 대성전을 들 수 있는데 측면 가운데의 평주위에 충량을 얹어 대량위에 걸쳤는데 팔작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구법을 맞배집에서 취하고 있다.

〈大成殿의 平面構成에 따른 架構形式〉

가구형식	가 구 도	개 방 형	폐 쇄 형
無高柱5樑		인천,청안	시흥,양근,지평,이천,보은,영춘 전주,남원,고부,함평,낙안,옥과 담양,무안,구례,진도,장성,고흥 영천,신령,흥해,영일,진보,현풍 용궁,예천,문경,칠곡,성주,동래 양산,밀양,창녕,함안,초계,통영 언양,합천,무주,평해
1高柱5樑		통진,진위,남양,교하,고양,포천 양지,평택,부평,강화,파주,연천 강릉,화천,간성,진천,괴산,단양 청산,옥천,연풍,부여,석성,서산 홍주,예산,신창,진잠,정산,목천 김제,함열,여산,익산,부안,광주 순천,보성,능주,창평,해남,예안 풍기,선산,안동,거창,산청	문의
前退5樑		양주,김포,당진	
		영월,운봉,흥덕,영양,의흥,고성 함양,남해,거제,삼가	
1高柱7樑		양성,죽산,교동,안성,광주,충주 음성,청풍	여주
2高柱7樑		성균관,수원, 나주, 제주, 정의	
前退7樑		광양, 사천	

※ 문의 : 폐쇄형 평면이면서 고주를 둔 경우
※ 거제 · 삼가 : 퇴칸 평주위에 다시 대공으로 받침하여 도리를 얹어 고주형식을 취하고 있음.
※ 단양,광주,해남,안동,산청 : 퇴칸 평주위에 다시 동자주를 덧세워 고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4. 大成殿의 지붕 形式

가. 지붕構成

지붕은 건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빗물을 막고 일사(日射)를 피하게 하며 실온(室溫)을 조절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건축에서의 지붕은 단순히 빗물이나 실온을 위한 기능만이 아닌 외관상의 의장효과도 크게 의식하였던 것 같다.

대성전에서 취해진 지붕형태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다수 맞배지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성균관, 서산 · 나주향교 등 10개소 정도의 향교만이 팔작지붕 형태로 사용된 경우이다. 통영향교 대성전은 맞배집으로서 팔작집 구성법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후가물로 취급되지만 장흥향교에는 퇴칸 전면에 다시 퇴칸을 덧달아 이중퇴칸을 형성하여 지붕은 부섭지붕 형태로 처리하였다.



『장흥향교 대성전』

대성전은 건물의 성격상 지붕에서도 상징성과 위계적인 요소가 장식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성균관 대성전의 경우는 용마루에 양성바르기하여 취두(鷲頭)를 올리고 귀마루에는 잡상(雜像)까지 설치하여 궁궐건축을 연상케하는 위계적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경기지방에 소재한 향교중 절반 이상이 지붕 용마루에 양성바름을 한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강릉 · 덕산 · 남원 · 통영 등 일부 향교만이 양성바름을 하였다. 부평 · 광주향교 등에서는 취두(鷲頭)나 용두(龍頭)를 올려 장식하였고, 양양 · 현풍 · 진주향교 등에서는 미출장식(眉出裝飾)까지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지붕장식 중에서도 통영향교에서는 명륜당 풍화루와 함께 용마루에 팔괘(八卦)를 형성한 독특한 면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처마면에는 일반적으로 막새를 끼워 처마끝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여주고 있는 반면에 와구토

로 마감된 경우도 많이 있다. 간혹 전면이나 측면은 막새를 드리우고 후면은 와구토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양양향교 대성전 미출장식』



『남양향교 대성전 지붕 양성』

〈大成殿의 지붕形式〉

	지붕구성	대 상 향 교
지붕양식	맞배지붕	팔작지붕 이외의 모든 향교 대성전
	팔작지붕	성균관,서산,나주,지도,영덕,진주,산청 칠원,제주,대정,정의
지붕장식	용마루 양성바르기	성균관,부평,수원,남양,시흥,통진,강화 파주,교하,양근,여주,광주,용인,평택,진위 강릉,덕산,남원,통영
	용두, 취두	성균관,부평,광주,죽산,진위,통영,진주
	잡상	성균관
	미출장식	양양,순천,현풍,진주,함안,고성,산청,삼가
	기타	통영(용마루에 八卦를 형성)

나. 처마 구성

처마는 건물내부의 조명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대성전이 겹처마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홑처마를 취한 경우는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겹처마를 취한 건물중에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를 취한 경우와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구성된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전라도 ·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이용되고 후자는 중부이북 지역으로 경기지역에 많이 분포되고 있다.

5. 大成殿의 窓戶 樣式

창호는 출입이나 통풍 채광을 위하여 벽에다 설치한 시설물로 건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의장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식건물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은 출입, 통풍, 채광 등을 위해 사방에 문을 두어 개방적인 공간인 반면에,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사묘공간(祀廟空間)에서는 기능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성전도 묘의 공간으로 전면에만 제향의식을 위해 출입문을 두고 있어 예외는 아니다.

대성전의 창호구성면에서 전면에만 출입문을 설치하고 좌우측 및 후면은 출입문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다. 출입문 외에 협칸 또는 5칸 건물일 경우 퇴칸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측면에도 통풍을 위하여 창을 설치한 예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면에는 문이나 창이 전혀 설치된 예가 없다.

가. 3칸 건물 창호구성

3칸 건물의 전면 문설치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칸에는 반드시 두짝문 이상의 여닫이문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문의 양식에 따라 설치방법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칸 모두 창을 두지 않고 2분합문으로 설치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이 어칸에는 쌍여닫이문 협칸에는 외여닫이문을, 각칸 모두 4분합문, 어칸에는 4분합문을 협칸에는 2분합문을 설치하는 순서로 그 설치 빈도를 알 수 있다.

어칸은 2분합, 3분합, 4분합, 6분합문을 두고 협칸은 외여닫이문에서 2분합, 3분합, 4분합, 5분합문까지 두고 있다. 협칸에는 문외에 창을 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과 창을 같은 주칸내에 설치한 경우와 창만 설치하여 출입은 어칸으로만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곳도 일부 있다.

문의 배치상 특이한 면을 보이는 곳은 삼가향교의 경우 어칸 중앙에 쌍여닫이문을 두고 양측에 격자창을 배치하였는데 대성전 건물의 어칸에 창을 배치한 경우는 유일하다. 회덕

향교는 어칸에만 4분합문을 두고 양협칸은 미장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임피 · 함열향교는 어칸에 3분합문을, 영산 · 양지향교에는 어칸에 6분합문까지 설치하고 있다.

또한 판문은 쌍여닫이 즉 2분합문에서만 사용되고 3분합문 이상 설치된 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5칸 건물 창호구성

3칸건물과 마찬가지로 어칸에는 2분합문이 주로 사용되고 4분합문이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창이 설치된 예는 없다.

어칸 좌우의 협칸에는 주로 2분합문이 설치되고 외여닫이문, 4분합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성균관, 나주 · 평해 · 제주 · 정의향교 등과 같이 창을 설치할 예도 있는데 정의향교에서는 쌍여닫이 창을 두고 있다. 남평향교에서는 창이 없이 미장벽체로 막았다.

퇴칸에는 협칸과 마찬가지로 외여닫이, 쌍여닫이 문이 주로 설치되고 4분합문을 둔 경우도 있으나 창을 설치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동래향교에서는 쌍여닫이 창을 설치하였는데 판문형식의 창을 둔 것이 특이한 창호 구성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동 · 여수향교 등과 같이 문이나 창을 설치하지 않고 미장벽체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5칸 건물에서 많이 사용된 창호구성 방법에는 어칸 협칸에는 각기 2분합문을 설치하고 퇴칸에는 창을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이 각칸 모두 쌍여닫이의 2분합문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는 각기 다른 설치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 창호양식

(1) 門 樣式

대성전에 사용된 창호양식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문에 사용된 양식으로는 세살문형, 판문형, 격자살문형, 빗살문형으로 구별되고 혼합된 유형도 간혹 사용되고 있다.

① 세살문형

대성전의 출입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양식으로 전향교의 약 45%가 이 양식을 취하고 있다.상부에는 세살로 문살을 짜고 하부는 판재 궁판을 끼워 처리한 형태로 궁판의 크기 및 울거미의 처리방법에 따라 문의 모양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세살문 양식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이북 지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향교 대성전은 대부분 이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大成殿 窓戶 構成 實例 (3칸 건물)〉

3칸 건물								
어칸	협칸	전면 주칸 창호 구성			주칸 문 양식			
		협칸	어칸	협칸	세살문	판문	격자문	빗살문
쌍여닫이문	창				봉화	예안		
							청안	
						회인		
	외문				정산,김제,순흥 운봉,용궁,함양	고성 문경 단성 여산	정읍 진안 청도 완도	옥구,창원 진도
					청양	창평 산청 여산 부안	단양	양산
					안의	신령 문의		
						인동		
	외문+창				장수			
					금산			
						고창		
	2분합문				이천,파주,김포 포천,원주,황간 진천,청풍,은진,비인 보령,결성,온양,임천 진산,목천,동복,거창 금구,연풍	옥천,남원,돌산 흥해,밀양,전주 영광,의흥,경주	예천	해남 영일 옥과
						교하,연천,영동 익산,용담,철곡 고령,창녕,울산, 합천	진보 순창 자인 무주	광주 안동
					영춘 괴산 홍주 자인 양근	남해 성주 함안 초계	청송	광양
					정선 함평	무장 고산	죽산	보성
					구례	여주,영암,현풍 금산,이천,청하 김해	지례	장기
					고흥 (이중문)	개령 함창 낙안		
	2분합문+창				평창 경산	대구		
						삼가		

3칸 건물								
어칸	협칸	전면 주칸 창호 구성			주칸 문 양식			
		협칸	어칸	협칸	세살문	판문	격자문	빗살문
3분 합문	창						임피	
	2분 합문				함열			
4분 합문	벽						회덕	
	창				무안,양성,영주		진잠	
					예산 풍기			
	창+외문				광주(廣州)			
	2분 합문				통진,양양,지평 담양	용인	남포	인제,서산
	2분합문+창				양주			
	3분 합문							흥덕
	4분 합문				부평,시흥,고양,적성 양구,철원,화천,청산 공주,석성,당진 아산,강진,통영	진위	홍천	청주
	5분 합문				남양			
6분 합문	쌍창						영산	
	4분 합문				양지			

※측면에 창을 둔 향교 대성전

격자창 : 정산,함열,여주,성주,지례,창녕,삼가,초계

사롱창 : 고부,문경,고성,연풍

세살창 : 장성,울진,남해

8각격자창 : 황간

〈大成殿 窓戶 構成 實例 (5칸건물)〉

5칸 건물											
어칸	협칸	퇴칸	전면 주칸 창호 구성					주칸 문 양식			
			퇴칸	협칸	어칸	협칸	퇴칸	세살문	판문	격자문	빗살문
2분합문	벽	2분합문						남평			
	창	외문						평해			
		2분합문							성균관 나주		
	외문	벽						화순, 울진 상주			
		창						안성		영양	
	2분합문	벽						가평	영덕 사천		강릉
		창						평택 간성 횡성	의성 선산	신창 영천	곡성
									비안		
								삼척			
									동래		
		외문						영월			
		2분합문							고부 보은	거제 직산	장흥 순천
4분합문	창	2분합문						제주			
										정의	
	4분합문	벽						교동 여수			해미
		창						순천			능주
		4분합문						수원 영해 강화		지도	

② 판문형

세살문형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문양식으로 전제의 약 35%가 이 양식을 취하고 있다. 통판으로 만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외부에 울거미를 연귀로 짜맞추고 내부는 울거미를 짜서 판을 끼운 형태로 내부 울거미의 짜맞추는 위치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대문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띠장널판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성전 문양식에 맞지 않는다.

판문양식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에선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 격자문형

일부 향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양식으로 문짜임 방법은 세살문과 같이 상부에는 격자형으로 짜맞추고 하부는 울거미 내부에 판재 궁판으로 처리한 형태로 내부 울거미 처리 방법에 따라 문의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사용빈도는 일부이긴 하지만 충청도 주변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양식이다.

④ 빗살문형

이 양식도 격자문형과 같이 일부 향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양식으로 문짜임 방법은 상부에는 빗살로 짜고 하부는 세살문형이나 격자문형과 같이 판재 궁판으로 처리하였다.

전남지역 일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격자살문과 같이 경기지역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양식이다.

대성전에는 어칸, 협칸 또는 퇴칸에 설치되는 문은 모두 같은 양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이긴하나 어칸과 협칸의 문양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죽산 · 청양 · 흥덕 · 보성 · 장기 · 양산 · 인동 · 구례 · 보은향교 등이다. 주목할 점은 고흥향교의 경우로 내부는 세살문 외부는 판문으로한 이중문 형태로 취한 경우도 있다.

(2) 窓 樣式

창의 사용장소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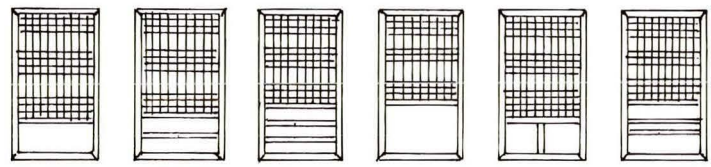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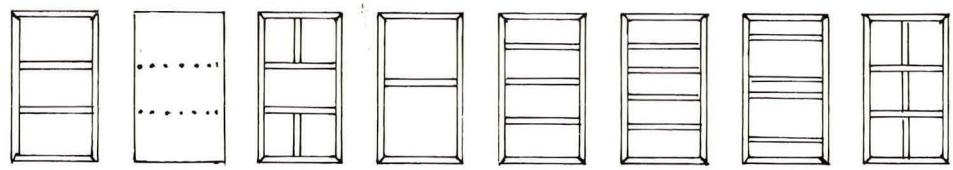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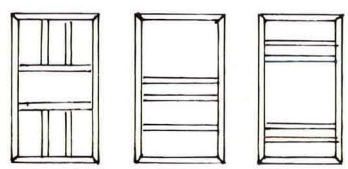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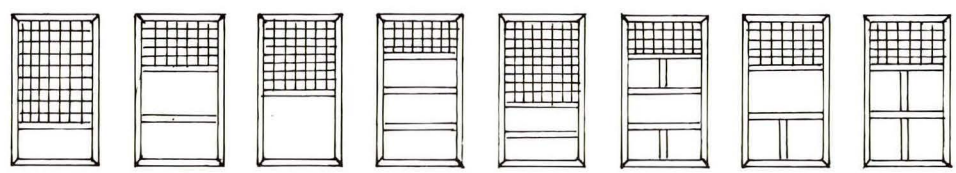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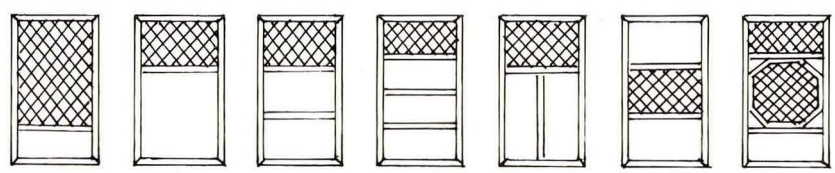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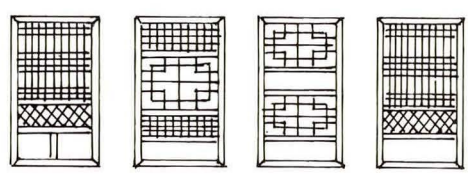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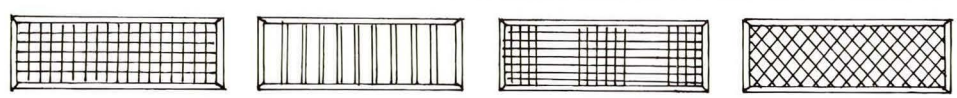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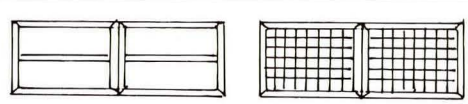
첫째 전면 주칸내의 상하인방 가운데 즉 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창이 설치된 경우이고,

둘째 전면의 상인방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로 단순한 채광이나 의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째 건물 측면의 벽체 중간부위에 설치된 것으로 통풍을 위한 기능만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면의 벽체에는 창호를 전혀 두지 않는다.

〈大成殿에 使用된 窓戶 類型〉

	형 태	세 부 유 형 별 (번호는 사용 빈도순)
문	세살문형	 ① ⑨
	판문형	 ② ③ ⑥ ⑦ ⑧
		
	격자문형	 ⑤
	빗살문형	 ④ ⑩
	혼합형	
창		
		

창에 사용된 양식은 크게 4가지 양식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양식은 격자살창으로 대다수 이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롱창, 세살창, 빗살창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동래향교에서는 퇴칸에 쌍여닫이의 판문형 창을 단 것이 유일하다.

6. 大成殿의 壁體 構成

대성전도 다른 일반 한식건물의 벽체와 마찬가지로 중깃을 넣고 외를 엮어 토벽으로 처리한 위에 제사나 회로 미장을 마감하고 일부는 벽긋기나 가칠로 단청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 전면은 창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창호와 벽체가 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측면에는 간혹 창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고 대체로 벽체로만 구성된다. 후면은 창호를 전혀 두지 않고 벽체로만 구성된다.

대성전의 벽체구성에 주목되는 점은 벽체하부를 화방벽(火防壁)으로 막아 엄숙한 실내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보통 좌우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좌우측면에만 두고 후면은 미장벽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화방벽 설치는 대성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벽체구성 방법으로 경상도 · 전라도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으나 중부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지역은 수원, 김포, 여주, 가평, 연천 등 몇몇 향교만 제외하고 대다수가 화방벽이 설치되어 있다.

〈大成殿의 火防壁 位置〉

설치구분	좌우측면 및 후면	좌우측면
대상향교	성균관,인천,부평,남양,시흥,통진,교동,고양,교하,양주 포천,이천,광주,용인,양지,죽산,양성,평택,진위,적성 춘천,원주,영월,정선,진천,음성 진잠,공주,남포,덕산,태안,아산,온양,신창,직산 용담.장수,무장,여수,강진 군위,진보,거창,대정	강화,파주,양근 지평,안성,사천 화천,홍성.청산 인동,용궁,기장

벽체구성 재료에서 대부분 미장벽으로 구성되나 일부 향교에서는 판벽으로 구성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성전의 기능상 사묘(祀廟)의 공간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천 · 고흥향교는 벽전체가 창호외에는 모두 판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월 · 장수 · 운

봉 · 통진 · 함열 · 옥과 · 구례 · 함안 · 거제 · 삼가 · 초계향교 대성전 등은 전면에만 판벽으로 처리하였는데, 영월 · 장수 · 운봉향교 대성전은 벽체 짜임수법이 독특하게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고령향교와 같이 전면과 측면은 판벽으로 구성되고 배면은 미장벽으로 마무리된 경우, 남원향교 대성전과 같이 전면과 후면을 판벽으로 하고 측면은 미장벽으로, 상주향교는 양측면과 후면을 판벽으로 하고 전면은 창호와 함께 미장벽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7. 大成殿의 丹靑과 壁畵

단청이란 오행사상(五行思想)에 의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색 등 오색을 기본으로 배색하여 무늬를 그려 아름답게 장식하여 권위적 장엄뿐 아니라 건축물의 미비한 부분을 은폐시키고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청에서 나타나는 문양과 상징적인 무늬, 벽화의 성격 등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 신앙 관습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목조 건축물의 단청은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성전에는 대다수 모로단청를 취하고 있으며 긋기단청이나 가칠단청, 금단청을 취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단청을 하지 않는 백골집의 대성전은 없다.

내외부를 가칠단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성균관 대성전과 전주, 광주 등 일부향교에서 취하고 있는데, 전주향교 대성전은 내외부가 모로단청이었으나 최근 가칠단청으로 개채되었다. 내외부 긋기단청을 취한 향교는 경주 · 부평 · 예안 · 안동향교 등 일부이다.

또한 내외부 단청을 달리하고 있는 향교로

① 외부는 모로단청을 취하고 내부는 긋기단청(교동, 곡성, 보성 등), 가칠 단청(남양, 합천)을 취한 향교도 있으나 대다수의 대성전이 모로단청을 취하고 있다.

② 외부를 긋기단청하고 내부는 모로단청(평택 · 원주 · 청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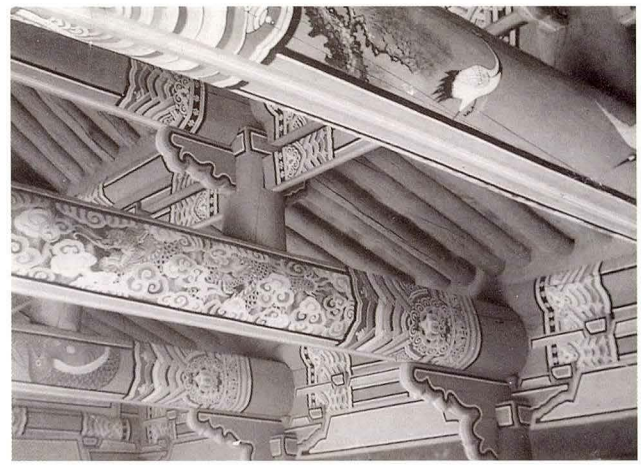
③ 외부는 가칠단청을 취하고 내부는 모로단청(廣州鄕校)

그리고 직산 · 고흥 · 삼가향교 대성전에는 금단청으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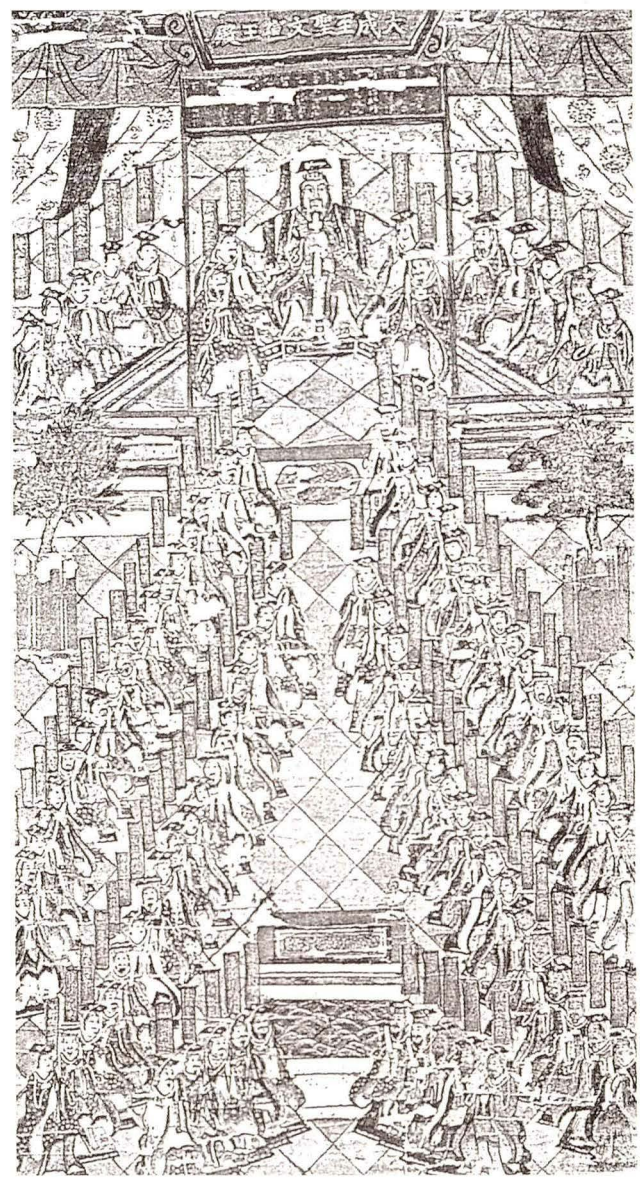
내부단청에서는 모로,긋기단청이 혼용된 경우도 있으며 머리초의 중간부나 도채되지 않는 공백부분 즉 계풍(界風)부분에는 별화(別畵)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별화장식은 대상성격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지만 사령수(四靈獸－용, 거북, 봉, 기린), 맹수(猛獸－사자, 천마, 범), 길조(吉鳥－학, 오리), 사군자(四君子－매, 난, 국, 죽), 화초 등이 그려진다.

의령 · 동래 · 양성 · 장기 · 지례향교 등의 대성전에는 대들보에 용(龍)을 그렸다. 용은 영험과 신비 권위의 상징으로, 길상과 벽사, 또는 수호의 능력을 동시에 갖춘 영물로 궁중에서 많이 애호되었다. 용은 곧 왕(王)의 상징물이었고 왕실만이 사용하는 문양으로 대성전에 사용된 용문양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원(元)의 무제(武帝)가 공자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시호하여 공자를 「文宣王」으로 칭하고 있으며,『新增東國輿地勝覽』에 명(明)의 예겸(倪謙)의 시에서 "…萬歲의 儒宗 素王을 思慕…" 즉 공자는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도덕적으로 왕같이 높인다 하여 〈素王〉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유에서 왕의 상징물로 용을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수서원에 소장되고 있는 「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는 공자와 제자들의 배열 순서를 그린 그림으로 중앙의 공자상을 중심으로 좌우와 단아래 제자들이 중앙을 향하여 의자에 앉은 자세로 모자를 쓰고 홀(笏)을 든 차림으로 묘사되어 마치 군신(君臣)의 조례식 광경을 연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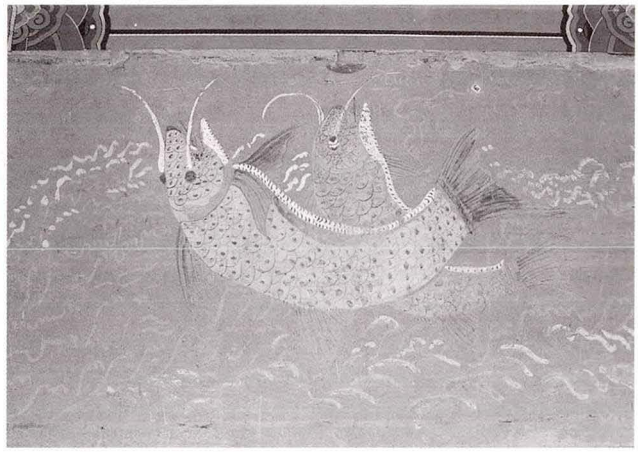
일부에는 대들보나 벽체에 백학(白鶴)을 표현하고 있는데 학은 십장생(十長生)중의 하나로 장수를 의미하고, 관리들의 관복에 착용하는 흉배(胸背)에 쓰여졌는데 교육기능으로서의 유능한 관리를 배출기관인 향교역할을 의미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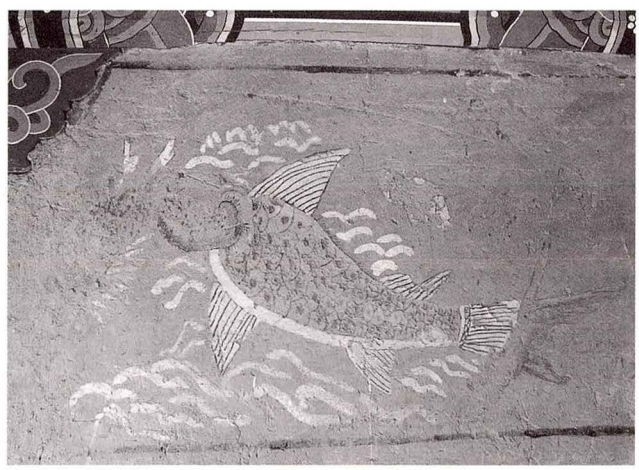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내부구조 및 단청』



『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소수서원 소장〉



『양성향교 대성전 벽화(1)』



『양성향교 대성전 벽화(2)』

장식이다.

또한 특이한 면을 보이는 곳은 안의향교 대성전에서 익공에 물고기 조각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양성향교 대성전 전면 벽체에는 잉어가 그려진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두 향교에서 나타나는 물고기의 공통된 특징이 다른 향교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면이라 볼 수 있다.

향교 주요 교육과목인『五倫行實圖』의 孝子條에 -왕상부빙(王祥剖氷) 즉「진나라의 왕상이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얼음을 깨자 잉어 두마리가 저절로 뛰어 올라왔다」, 왕연약어(王延躍魚) 즉「진나라의 왕연이 계모를 위해 한겨울에 물고기를 구할 때 왕연을 위해 물고기가 뛰어나왔다」는 고사(古事)에서 나타나는 물고기 즉 잉어는 부모를 공양하는 효(孝)의 상징물로 볼 수 있고, 공자가 주장하는 가족도덕인 효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덕치주의(德治主義) 사상을 형상화 시켰다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잉어를 타고 승천했다는 선인(仙人)을 금고(琴高)라고 하는데 불로 장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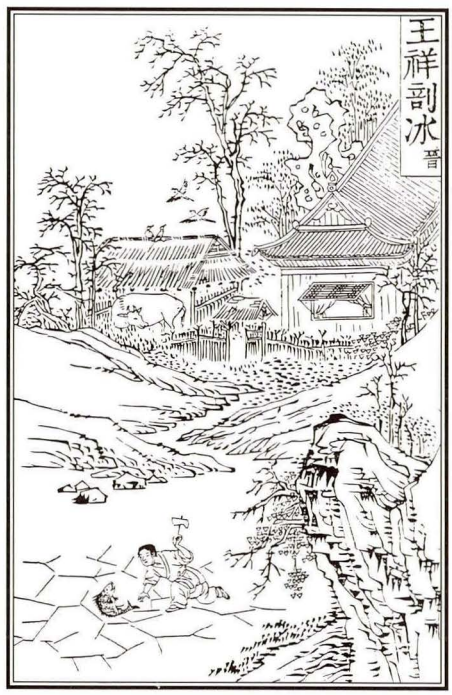
이와같이 용과 잉어를 단청벽화를 통해「忠」과「孝」를 상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성향교 벽체에는 잉어가 용으로 변신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벽화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효를 바탕으로 충으로 연결되고 충의 근본이 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자의 아들이요 자사(子思)의 부(父)의 이름이 리(鯉)로 두 성인의 연결관계에서 잉어를 형상화 하였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으나 확실한 고증은 알 수 없다.

기둥의 경우, 의식적(儀式的)으로 표현되고 있는 요소로 기둥하단 즉 초석상부에서 60~70cm 높이까지 백분(白粉)을 칠하고, 그 상단에 3~5cm의 먹선대를 두르기도 한다. 일부 향교의 대성전에는 백분 위에 한지(韓紙)를 붙인 경우도 있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기둥상부에 흑선-백선대의 문양을 두르고 있다.

표현방법은 건물내부에만 표현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외부, 내외부 모두, 또는 전면 기둥에만 표현된 경우도 있다.



『王祥剖氷』〈五倫行實圖〉



『王延躍魚』〈五倫行實圖〉



『강릉향교 대성전의 기둥하단 흑백분』

제5장

명 륜 당

1. 명륜당의 평면구성
   가. 평면형식 – 객사형 평면/양방형 평면
      일방형 평면/마루형 평면
   나. 평면규모
   다. 평면비례
2. 명륜당의 기단 · 초석의 구성
   가. 기단구성
   나. 초석
3. 명륜당의 가구짜임
   가. 기둥
   나. 공포구성
   다. 가구짜임
4. 명륜당의 지붕형식
   가. 지붕구성
   나. 처마구성
5. 명륜당의 창호구성
   가. 대청전면 창호구성
   나. 대청배면 창호구성
   다. 방 전면 창호구성
   라. 청-방간 창호구성

제5장 明 倫 堂

'명륜(明倫)이란 대개 군자의 학문을 명륜이라하고, 학문을 배우고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 는 뜻으로 이를 닦는 집을『明倫堂』이라 한다.

『孟子』의「膳文公篇」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 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즉 「명륜당은 인륜(人倫)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시공(時空)을 함께하는 입체적 인간관계를 체계화한 오륜(五倫)을 강학하던 강당으로서, 공자가 만년에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행단(杏壇)에서 비롯된 곳이다. 향교 교육의 중심적 시설이며 강학구역의 중심건물로 공자의 사상을 유생들에게 강론하고 유교 이념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또한 명륜당은 강론장일 뿐 아니라 교관의 거처소로서 생활공간의 평면구성면에서 강학을 위한 넓은 대청과 거처를 위한 온돌방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 구조, 양식 및 의장적인 면에서 대성전 보다는 보다 간결하게 건축되었으며 기능면에서 강학(講學)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1. 明倫堂의 平面 構成

가. 平面 形式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 건물로서 대성전과는 평면구성이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 건물의 좌우측 또는 한쪽에 방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방법이다. 이는 조선초부터 국가에서는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지방군현에 교관(敎官)을 파견하여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관 거처소의 필요에 따라 명륜당 평면구성에서 방을 드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본다.

명륜당의 평면구성 방법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평면구성 방법에는 객사형(客舍形), 양방형(兩房形), 일방형(一房形), 마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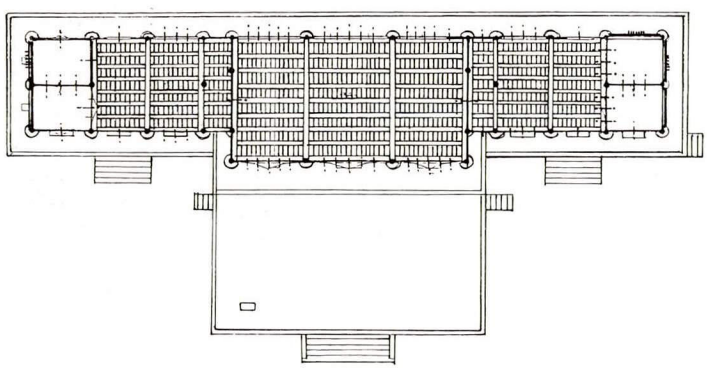
① 客舍形 平面

명륜당의 평면구성 방법에서 보기드문 예로 성균관, 나주 · 고창 · 제주향교 명륜당에서만 취해진 평면구성으로 중앙에 마루로 된 본당(本堂)을 두고 좌우에는 양익사(兩翼舍)를 연결하여 내부에는 방을 드리고 있다.

평면상 성균관, 고창 · 제주향교는 중앙의 본당과 양익사가 서로 연결된 평면구성을 하는



『성균관 명륜당』



『성균관 명륜당 평면도』

반면에 나주향교는 각기 분리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객사형태를 취한 명륜당을 또 하나 들 수 있다면 김제향교 명륜당을 들 수 있는데 정면 5칸 건물로 좌측 1칸은 방을 드리고 우측 4칸은 마루로 구성한 일방형 평면으로 명륜당의 일반적인 평면구성과 다를바 없으나 지붕형태에서 중앙의 3칸은 고설형(高設形) 맞배지붕으로 하고 그 좌우는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다.

성균관 본당은 정면3칸 측면3칸에 양익사는 각기 정면4칸 측면2칸, 고창향교는 정면5칸 측면2칸의 본당에 정면2칸 측면1칸의 양익사가 구성되고 본당은 누각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주향교는 정면3칸 측면3칸의 본당에 익사는 각기 정면3칸 측면2칸이다.

② 兩房形 平面

양방형 평면에는 중앙에 대청을 두고 전후면에 퇴칸 없이 좌우에 방을 배치하는 방법과 좌우에 방을 두고 전면에 퇴칸을 두는 방법, 전후면에 퇴칸을 두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명륜당 평면 구성 방법에서 양방형 배치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방법이다.

일반적인 양방형 평면배치와 특이성이 보이는 몇몇 향교를 살펴보면, 춘천향교는 7칸건물로 중앙3칸에 대청을 드리고 그 좌우로 방을 1칸씩 배치하고 양끝칸에 툇마루를 둔 평면구성을 하고 있으며, 여주 · 상주 · 고성향교등은 ㄷ자형 평면으로 양측면이 돌출된 평면을 취하고 있다. 또 양방(兩房)을 두고 전후면 모두 툇마루가 배치된 형식은 남원 · 장수향교에서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전퇴가 없는 양방형 또는 일방형 평면은 경기지방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평면형식이고 전퇴 양방형(前退 兩房形) 평면은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면형이다.

평면구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2층 누각 또는 고상(高床) 누각형의 건물로서 2층에 방을 구성한 경우로 옥천 · 담양 · 단성 · 금산 등의 향교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옥천향교 명륜당은 메달은 온돌구조로 양방을 누하주(樓下柱)에 결구하여 온돌을 조성한 특

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一房形 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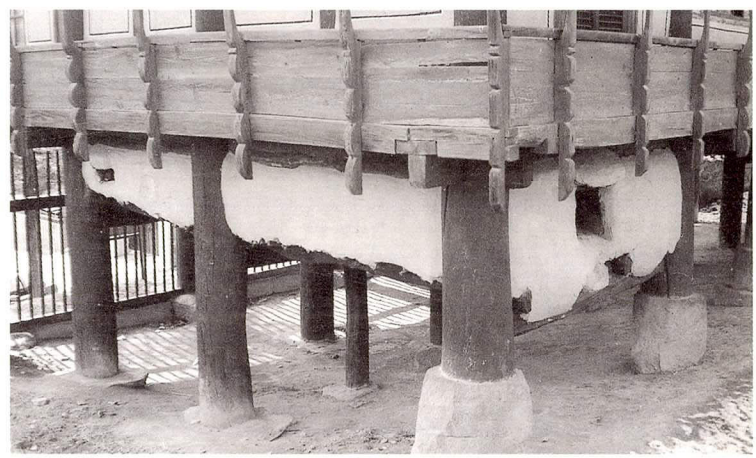
한쪽은 대청을 두고 다른 한쪽은 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양방형에서 파생된 평면으로 해석된다.

평면유형은 양방형과 같이 퇴가 없는 방식, 방 전면에 퇴가 있는 방식, 방 전후면에 퇴를 두는 평면형으로 세분된다. 이 유형에서는 전면에 퇴가 없는 일방형 평면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삼척· 강릉향교 등도 2층 루건물로서 이 유형의 평면형을 취하고 있다.



『용궁향교 명륜당』



『옥천향교 명륜당의 메달은 온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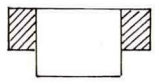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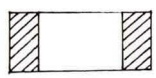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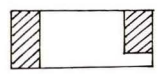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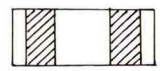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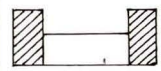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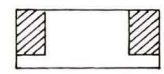
④ 마루形 平面

내부에 방을 두지 않고 마루로만 구성된 평면형으로 주로 2층 누건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외부는 대다수 벽체와 창호를 둔 폐쇄형 평면으로 구성되고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평면유형을 취한 향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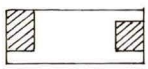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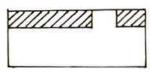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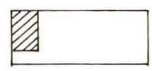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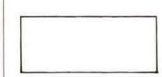


『흥덕향교 명륜당』

〈명륜당 평면형식〉

	客舍形	雨 房 形				
						
서울 인천 경기	성균관	교동,진위,시흥 고양,양주,지평 양지,안성,평택 양성,수원	양구		여주	강화,광주,연천
강원		화천,원주,영월 정선,양구		춘천		
충북		영동,청풍,문의 보은,회인,황간 음성,충주,연풍				청안,옥천
충남 대전		회덕,임천,해미 온양,직산,금산	목천			태안
전북	고창	용담	고산,금구			전주,무주,정읍 고부,태인,무장 순창
광주 전남	나주	여수,돌산,화순 영광,구례,장성 담양,능주,보성				지도,남평,낙안 함평,장흥,순천 진도
대구 경북		비안,청하,경산 문경,의흥,영덕 흥해,영천,예천 용궁,군위	영양,함창		상주	장기,순흥,울진 현풍,의성,안동 진보,영해,영일 경주,신령,하양 자인,청도,고령 성주,칠곡,인동 선산,김산,개령 평해,영주
부산 울산 경남		사천,의령,칠원 창원,함양,초계				진주,남해,동래 창녕,영산,밀양 양산,울산,언양 기장,김해,거제 곤양,하동,산청 단성,거창,합천 삼가
제주	제주	대정,정의				

범례 : ▨ 방 ▭ 마루

			一 房 形			마루形
						
			교하,죽산,적성 포천,양근,부평 파주			이천,용인,인천 김포
			삼척	강릉		홍성,간성,횡성 양양
	청주		진천,괴산,영춘	단양		
		노성	진잠,서천,덕산	정산,결성		은진,홍주,예산 당진,아산,진산 청양,서산,신창 보령
		장수,남원	진안,임실,김제			부안,익산,함열 흥덕
			완도	강진,광주	고흥	곡성,광양,창평 영암,무안,옥과
			예안,풍기,봉화 지례			
통영,고성(ㄷ형)	함안		안의			

명륜당 평면에서 특이한 면을 보이는 곳은 대정 · 정의향교로 입면상으로는 외부에 제주석으로 높게 벽을 쌓고 지붕을 낮게 처리한 것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면구성에서 양방형 평면의 기본 골격은 차이가 없으나 전후좌우 사방에 퇴칸을 두고 대성전이나 동 · 서무에서 흔히 보이는 개방된 퇴칸을 전면에 두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창평, 흥덕향교 명륜당은 전체가 마루로 구성되었으나 전면은 창호나 벽체가 없이 개방되고 후면과 측면은 벽체와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또 태안향교 명륜당은 전면에 후가물로 보이는 부섭지붕이 덧 설치되고 개방된 퇴주열이 대성전의 퇴칸과 비슷하다. 명륜당에는 2층 누각 건물이 상당수 있는데 강릉, 횡성, 회인, 옥천, 곡성, 단성향교등의 경우는 문루기능을 하는 누건물로 하층에는 문을 달아 외삼문 역할을 하고 상층은 방을 드리거나 마루를 깔았다. 그외에 간성 · 진산 · 남원 · 옥과향교 등의 명륜당은 경역내에 위치하는 건물들이다.

또한 고상형으로 되거나, 완전한 2층 누건물은 아니지만 주변의 지형적 여건이나 바닥을 의도적으로 높여 건물을 높게 설치한 의도, 외부에 난간을 설치하여 루형태의 감각을 느끼도록 처리한 건물도 상당수 있다.

〈樓建物 또는 樓形式을 취한 明倫堂〉

명륜당의 외형 양식	대 상 향 교
누각 건물	횡성.삼척.강릉.간성.회인.옥천 진산.남원.담양.옥과
낮은 반루형식	고창.부안.흥덕.남해.구례.영해.금산
전면은 누각,후면은 단층	청양.보성.울진.함창.상주
단층으로 난간,장초석등 양식을 가미	영동.고흥.평해.문경 - 난간 무안 - 장초석
기 타	양양.단성(중앙부가 누형식)

나. 平面 規模

명륜당은 대성전의 규모와는 달리 다양한 평면규모를 취하고 있다. 정면은 3칸에서 11칸인 강릉향교까지, 측면은 1칸에서 4칸까지 취하고 있다.

사용 빈도상 정면 5칸건물이 약60% 그 다음으로는 4칸, 3칸순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면과 측면의 규모는 5칸×2칸이고, 그 다음이 5칸×3칸, 4칸×2칸, 3칸×2칸 순으로 사용 빈도를 알 수 있다.

또 객사형으로 분류된 향교들은 본당과 익사의 규모가 모두 달리 적용되었다. 대성전 규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명륜당에서도 중요 행정 중심지였던 주부(州府)나 큰 군(郡)이 위치하였던 곳은 대체로 정면5칸 측면3칸 이상의 규모를 취하거나 객사형 평면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작은 군(郡)이나 현(縣)에서는 정면5칸 측면2칸 또는 그 이하의 규모를 채택하고 있다.

〈명륜당의 평면규모〉

	정면×측면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11칸	11×2		강릉							
8칸	8×2						광주			
7칸	7×4									대정 정의
	7×3						담양			
	7×2		춘천,양양				순천,능주 보성,진도			
	7×1		삼척			순창				
6칸	6×2	가평					장성	군위		
5칸	5×3	여주,연천		청주,옥천 청안	목천	전주,남원 정읍,고부 태인,무장 김제,금구 여산	낙안,돌산 무안,함평 장흥	의흥,안동 진보,영해 경주,영천 신령,하양 고령,성주 칠곡,인동 선산,금산 상주	동래,창녕 언양,김해 통영,고성 산청,거창 삼가	
	5×2	양천,인천 부평,수원 시흥,김포 통진,고양 파주,양주 지평,광주 양지,안성 양성,평택	횡성,원주 영월,정선 양구	문의,보은 회인,청산 황간,음성 괴산,충주	회덕,전의 공주,부여 임천,비인 청양,서산 해미,태안 온양,신창 직산,금산	고산,무주 운봉,흥덕 만경,옥구 임피	남평,여수 해남,화순 영광,옥과 강진,고흥 구례	현풍,의성 영양,영덕 영일,흥해 자인,청도 개령,지례 함창,예천 용궁,평해 영주	의령,함안 칠원,영산 밀양,양산 울산,기장 창원,곤양 하동,단성 함양,합천 초계,거제	
	5×1				덕산					
4칸	4×3	강화			석성	장수,임실 용안	지도,영암	예안,풍기 순흥,울진	진주	
	4×2	교동,포천 양근,용인 진위	평창,간성 화천	영동,청풍 영춘	서천,결성 천안	진안,용담 함열	창평,완도	비안,청송 청하,장기 문경,봉화	사천,남해	
	4×1							경산		
3칸	3×3				연기,노성 정산,예안 당진,아산 진산		곡성,광양			
	3×2	교하,이천 죽산,적성	홍천,인제	진천,연풍 제천,단양	진잠,은진 보령,홍주 면천	부안,익산			안의	
객사 형		성균관 (4×2)(3×3)(4×2)				고창(2×1)(5×2) (2×1)	나주(3×2)(3×3)(3×2)			제주

〈명륜당의 면적 비교〉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10~15평	죽산(12.0) 통진(11.0) 파주(12.8) 양지(13.0) 부평(14.2) 포천(14.9) 교하(11.0) 이천(11.3) 교동(13.0) 고양(13.8) 평택(14.6)	간성(13.4) 홍천(13.7) 평창(13.7) 화천(14.6) 정선(14.7)	단양(12.3) 문의(13.6)	면천(10.5) 아산(10.6) 정산(11.0) 당진(12.5) 홍주(12.7) 서천(13.6) 보령(10.1)	용안(10.8) 용담(11.9) 부안(14.3)		흥해(10.4) 예안(13.3)		
15~20평	김포(15.2) 양근(16.0) 양성(16.9) 양주(17.5) 시흥(18.9) 강화(15.7) 인천(16.7) 수원(17.5) 안성(17.2) 연천(19.7)	횡성(15.7) 원주(18.8) 철원(19.5)	영춘(16.7) 충주(18.9) 회인(19.6)	결성(16.1) 신창(17.6) 청양(17.9)	임피(16.0) 함열(16.1) 흥덕(16.7) 만경(17.0) 금구(18.5) 옥구(18.9) 익산(19.6) 진안(19.9) 장수(17.5)	영암(15.1) 지도(15.4) 완도(16.7) 옥과(18.0) 무안(18.3) 돌산(19.4) 곡성(19.8) 광양(19.9)	봉화(15.1) 순흥(15.6) 장기(16.1) 비안(16.7) 영주(16.7) 용궁(17.9) 청하(18.5) 진보(19.3)	사천(16.0) 거제(18.6)	
20~25평	광주(23.4) 가평(24.6) 여주(24.0)	영월(21.2)	보은(20.4)	회덕(22.3) 목천(22.6)	임실(20.0) 김제(22.0) 여산(22.6) 고산(23.2) 태인(23.4)	창평(21.7) 여수(21.9) 강진(21.1)	현풍(20.5) 하양(20.8) 지례(20.7) 선산(20.9) 문경(20.9) 풍기(21.0) 평해(21.5) 대구(21.8) 울진(22.1) 의성(22.6) 금산(23.0) 예천(23.6) 영양(24.3)	단성(21.6) 영산(22.8) 산청(22.9) 통영(24.3) 합천(24.3)	대정(24.5) 정의(24.9)
25~30평	지평(25.5)		옥천(26.3) 황간(27.2)		무주(25.4) 고부(26.8)	화순(25.8) 구례(25.8) 함평(29.0) 고흥(29.6)	신령(25.1) 자인(25.4) 인동(26.3) 함창(26.6) 청도(27.0) 고령(27.6) 영해(27.8) 칠곡(28.8) 군위(29.5) 개령(29.5)	삼가(25.2) 창녕(27.6) 동래(28.8) 울산(29.0)	
30~35평		양양(32.6)			고창(30.2) 순창(32.3)	영광(30.2) 남평(30.5) 진도(31.0) 장성(31.0) 낙안(32.1) 보성(33.6) 담양(34.3)	성주(32.8)		
35~40						능주(35.1) 장흥(36.7) 광주(37.3)	영천(36.1)	밀양(35.5)	
40평 이상	성균관(79.6)		강릉(55.6)	청주(44.6)			경주(50.1) 순천(41.6) 나주(68.0)		

건물의 정면, 측면에 따른 칸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면적이 넓다는 등식 관계가 있는데 성균관 명륜당의 경우 약 80평 규모이며, 지방향교 명륜당으로는 나주향교가 약68평으로 으뜸이다. 그외에 40평 이상의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향교는 경주(50평) · 청주(44평) · 순천(42평)향교 등이다.

10평 내외의 작은 규모의 명륜당도 경기, 충청지방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 · 강원 · 충청도 지역에서는 대체로 10~20평내의 작은 규모이고,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20평이상 40평 내외까지 대체로 규모를 크게 잡고 있다.

대성전은 문묘에서 뿐 아니라 향교전체에서 대표하는 건물이고 명륜당은 강학구역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다. 향교내에서 대성전과 명륜당의 규모 면적을 비교할 때 대체로 대성전의 규모를 크게 잡고 있다. 이는 곧 향교가 교육기능보다 문묘향사 기능을 더 중시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방에서는 시흥, 지평 등 몇몇 향교에서는 명륜당의 규모를 약간 큰 면적을 취하고 있을 뿐 그외는 대성전의 면적을 크게 잡고 있다. 반면에 경상도, 전남지역에서는 대성전보다 명륜당의 면적을 크게 취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주요 행정기관인 주부(州府)가 소재하였던 여주 · 강릉 · 양양 · 청주 · 나주 · 순천 · 담양 · 장흥 · 경주 · 성주 · 동래 · 밀양 · 울산 등의 향교에서도 대성전보다 오히려 명륜당의 규모를 크게 잡은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다. 平面 比例

명륜당은 평면규모가 정면3칸 측면2칸 규모에서 정면11칸 측면2칸 규모로 정면칸수가 대성전과 같이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면6칸 이상의 건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평면 비례 산정에서는 5칸, 4칸, 3칸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해 분석한다.

도리방향:보방향에서

정면5칸 측면3칸은 2.31:1, 정면5칸 측면2칸은 2.58:1 정도로 나타나고

정면4칸 측면3칸은 1.89:1, 정면4칸 측면2칸은 2.02:1 정도이며

정면3칸 측면3칸은 1.59:1, 정면3칸 측면2칸은 1.53:1 정도로 나타난다.

5칸, 4칸건물은 측면에 칸이 적은 경우가 세장한 평면을 이루는 반면에 3칸은 거의 대등하다.

규모가 같은 칸수를 가진 대성전과 명륜당을 서로 비교하면 명륜당 건물이 대성전보다 세장한 평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칸건물은 2.48:1(대성전-1.81:1), 3칸건물은 1.55:1 (대성전-1.41:1)정도이다. 그리고 4칸은 2.02:1 정도의 평면비례를 갖고 있다.

명륜당보다 대성전의 평면비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향의식상 대성전 내부에는 공자이하 성현들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공간이 필요하고 전면은 제사를 위한 공간의 필요에 따라 보칸과 도리칸의 비례가 명륜당보다 세장하게 계획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륜당 평면 비례〉

정면칸× 측면칸	대상 명륜당	正面長×側面長	比例	대상 명륜당	正面長×側面長	比例
3×2	이천	7,740×4,800	1.61 : 1	적성	6,400×4,200	1.52 : 1
	단양	7,800×5,200	1.50 : 1	홍주	7,650×5,200	1.47 : 1
	오천	7,500×4,600	1.63 : 1	부안	8,400×5,600	1.50 : 1
	익산	8,760×5,760	1.52 : 1	나주(좌)	9,200×6,270	1.47 : 1
	보령	7,510×4,440	1.69 : 1	나주(우)	9,440×6,240	1.51 : 1
3×3	정산	7,380×4,920	1.50 : 1	아산	7,120×4,920	1.45 : 1
	곡성	10,200×6,400	1.59 : 1	광양	10,160×6,450	1.58 : 1
	성균관(정)	15,200×7,900	1.92 : 1	나주(정)	11,020×7,513	1.47 : 1
4×2	포천	9,730×5,080	1.92 : 1	양근	10,280×5,140	2.00 : 1
	진위	11,000×4,125	2.67 : 1	간성	9,700×4,540	2.14 : 1
	화천	9,800×4,900	2.00 : 1	영춘	10,200×5,400	1.89 : 1
	서천	10,200×4,400	2.32 : 1	진안	12,360×5,320	2.32 : 1
	용담	9,480×4,140	2.29 : 1	함열	10,600×5,000	2.12 : 1
	완도	9,720×5,660	1.72 : 1	장기	10,000×5,300	1.89 : 1
	문경	11,060×6,160	1.80 : 1	결성	10.290×5.160	1.99 : 1
	장수	11.100×5.200	2.13 : 1			
4×3	강화	9,720×5,340	1.82 : 1	임실	11,200×5,800	1.90 : 1
	용안	7,300×4,900	1.49 : 1	창평	12,350×5,800	2.13 : 1
	예안	9,800×4,500	2.18 : 1	풍기	11,150×6,200	1.80 : 1
5×2	인천	12,400×4,450	2.79 : 1	부평	11,450×4,080	2.81 : 1
	김포	11,170×4,500	2.48 : 1	양주	12,000×4,800	2.50 : 1
	지평	14,000×6,000	2.33 : 1	광주	13,200×5,880	2.25 : 1
	양지	11,700×3,600	3.25 : 1	안성	11,520×4,920	2.34 : 1
	양성	11,600×4,900	2.37 : 1	평택	11,850×3,780	3.13 : 1
	횡성	12,150×4,260	2.85 : 1	영월	13,800×4,800	2.88 : 1
	정선	11,400×4,260	2.68 : 1	문의	12,150×3,700	3.28 : 1
	보은	12,700×5,300	2.40 : 1	회인	12,450×5,200	2.39 : 1
	황간	14,250×6,300	2.26 : 1	충주	12,500×5,000	2.50 : 1
	청양	11,900×4,960	2.40 : 1	고산	15,000×5,100	2.94 : 1
	무주	12,900×6,520	1.98 : 1	흥덕	12,210×4,500	2.71 : 1
	옥구	12,260×5,100	2.40 : 1	옥과	12,850×4,620	2.78 : 1
	강진	13,650×5,340	2.56 : 1	구례	14,710×5,800	2.54 : 1
	영양	14,470×5,540	2.61 : 1	청도	14,250×6,250	2.28 : 1
	구례	12,650×5,400	2.34 : 1	함창	15,150×5,800	2.61 : 1
	예천	13,800×5,640	2.45 : 1	용궁	12,150×4,860	2.50 : 1
	영산	14,550×5,160	2.82 : 1	거제	13,320×4,620	2.88 : 1
	울산	14,500×6,600	2.20 : 1	밀양	18,540×6,320	2.93 : 1
	여천	12,100×4,860	2.49 : 1	합천	14,050×5,620	2.50 : 1
				고창	16,190×6,160	2.63 : 1
5×3	여산	13,300×5,600	2.38 : 1	낙안	16,740×6,330	2.65 : 1
	무안	12,300×4,910	2.51 : 1	함평	13,800×7,020	1.97 : 1
	진보	12,600×5,050	2.50 : 1	경주	18,800×8,800	2.14 : 1
	신령	15,200×5,440	2.79 : 1	고령	13,850×6,350	2.18 : 1
	성주	14,700×7,980	1.99 : 1	칠곡	15,500×6,130	2.53 : 1
	인동	13,465×6,315	2.13 : 1	선산	12,750×5,400	2.36 : 1
	동래	13,240×7,180	1.84 : 1	창녕	15,700×5,800	2.71 : 1
	통영	12,750×6,300	2.02 : 1	산청	13,350×5,670	2.36 : 1
	삼가	13,000×6,400	2.03 : 1	연천	11,700×5,550	2.11 : 1
	청주	16,980×8,680	1.96 : 1	목천	14,550×5,130	2.84 : 1
	고부	14,150×6,260	2.26 : 1	태인	13,620×5,670	2.40 : 1
	김제	12,300×5,900	2.08 : 1	금구	12,600×4,800	2.63 : 1
6×2	군위	17,400×5,600	3.11 : 1			
7×1	삼척	21,400×4,600	4.65 : 1	순창	21,600×4,970	4.35 : 1
7×2	양양	19,710×5,460	3.61 : 1	순천	21,280×6,460	3.29 : 1
7×3	담양	22,450×5,550	4.05 : 1			
7×4	대정	14,820×5,460	2.71 : 1	정의	13,740×6,000	2.29 : 1
8×2	광주	22,080×5,570	3.96 : 1			
11×2	강릉	34,640×4,600	7.53 : 1			

2. 明倫堂의 基壇 礎石의 構成

가. 基壇 構成

명륜당의 기단양식은 격식상 대성전보다 많이 떨어짐을 느낄 수 있다. 또 경사진 주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기둥이나 초석으로 바닥 높이를 조절하는 등 대성전보다 자유스런 평면구성을 취한 향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단은 보통 자연석으로 바른층 혹은 허튼층 쌓기하고 그위에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다음이 장대석으로 축조되는 경우이다.

경기도 지역은 자연석 기단외에 장대석으로 기단이 조성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드물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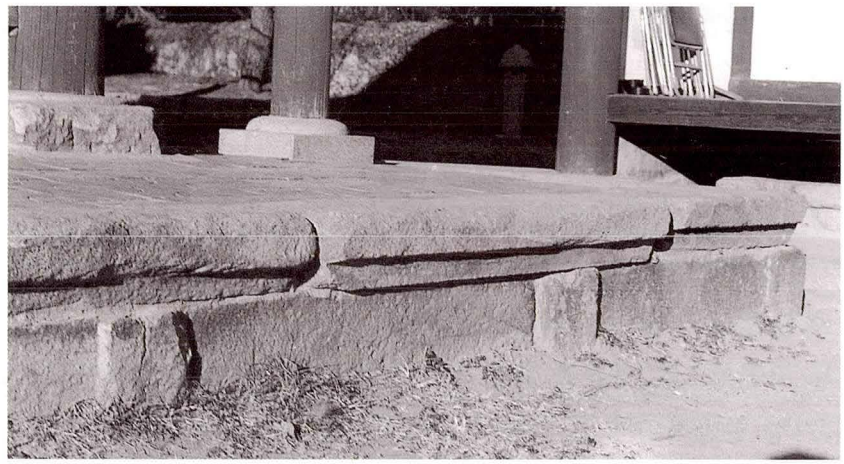
축조 높이는 외벌대에서 5벌대 정도까지 이용되었으며 안성 · 목천 · 김제향교 등과 같이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쌓고 후면이나 측면은 자연석으로 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청주 · 통영, 홍주향교 등과 같이 하부는 자연석으로 쌓고 상부는 장대석으로 갑석(甲石)을 설치한 기법도 있다. 또한 대성전등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폐사찰의 탑재나 다른 석물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명륜당의 기단 평면구성에서 특기할 것은 성균관과 나주향교에서 나타나는 월대(越臺)인데 본당앞에 넓고 높게 단(壇)을 만든 것으로, 성균관의 월대는 전면 17.5m 측면 9m의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임금이 친히 석전향사에 왔을 때 향사후 명륜당에서 강학을 친히 할 때 신하들이 월대에 서서 경청하는 장소라고 한다. 또한 작헌례나 알성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1997년에는 명륜당 월대상부 우측에 석전제기중 작(爵)의 모양을 석물로 제작하여 '97 세계 동계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을 위한 성화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나주향교의 월대는 전면 14.18m, 측면은 5.85m로 성균관 명륜당의 월대 기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문헌에서 관찰사가 도내의 우수한 교생을 골라 매 6월에 도회소(道會所)를 열고 문관 3명씩을 파견하여 강론과 제술로써 시험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응시장소나 관찰사의 석전행사에 참석하여 강론하는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향교는 장대석의 가구식 기단으로 하부에는 우주와 탱주가 표현되고 상부에 돌출되게 갑석을 얹어 설치된 것이 특이하다.

명륜당에 설치된 계단은 대성전이 제향의식에 관계된 계단이라면 명륜당은 단순히 출입을 위한 기능만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설치장소는 건물 전면 중앙에 1개소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단이 낮아 계단을 두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경주향교 명륜당 가구 기단』

나. 礎 石

명륜당에 사용된 초석은 자연석 초석과 가공석 초석으로 분류되는데 약80% 이상이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가공초석으로는 원형이나 방형으로 가공된 초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원향교와 같이 원형과 방형을 혼용하여 사용된 경우도 있다. 또 죽산향교에서는 방형으로 가공한 초석위에 원형주좌를 만든 경우도 있다.

위치에 따라 전면이나 우주에 가공초석을 쓰고 후면등에는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초석(長礎石)이 사용된 예는 대개 2층 누각 건물이거나 고상형(高床形), 반루형(半樓形) 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남원 · 고창 · 무장 · 부안 · 무안 · 보성향교 등에서는 방형의 장초석을, 태안 · 흥덕 · 창원 · 정의향교 등에서는 원형의 장초석이 사용되었고, 구례향교에서는 8각과 방형의 장초석을 혼용하여 사용 되었다.

또한 다른 건물과 같이 사찰 건물의 석조물인 탑재등을 초석으로 사용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3 . 明倫堂의 架構 짜임

가. 기 둥

명륜당에 사용된 기둥은 대부분 원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은 현읍(縣邑)에서는 각주만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명륜당은 보통 방이 꾸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벽체 구성상 원주와 각주가 혼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 구조체인 기둥외에 팔작집의 추녀끝에 받쳐지는 활주(活柱)가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함평 · 창원 · 통영 · 하동향교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맞배집으로서 경주향교 명륜당에서는 도리뻘목 받침으로 활주가 사용되었는데 도리뻘목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가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栱包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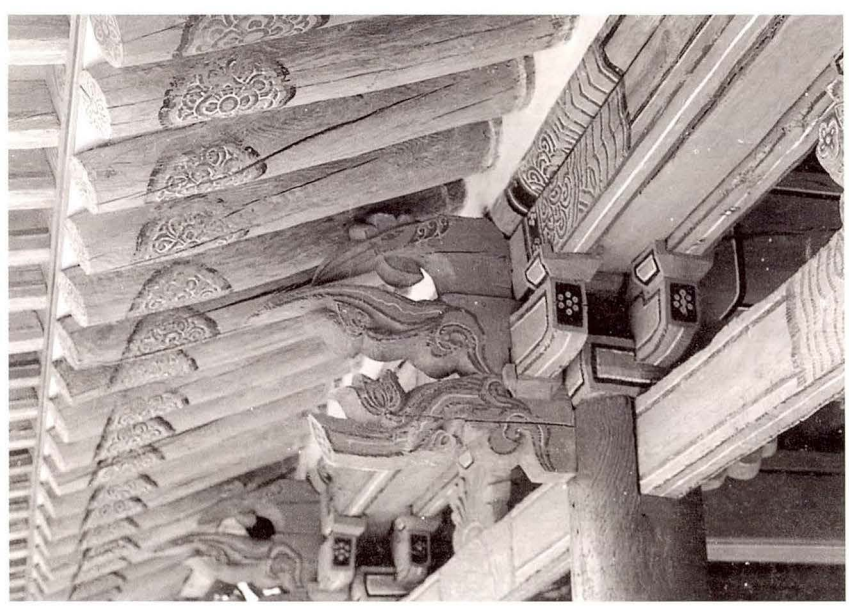
대성전의 공포구성은 이익공이나 외1출목 주심포계통으로 공포구성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명륜당은 양식상 격식이 떨어져 초익공이 약 45%로 공포구성의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이 민도리집의 무공아계가 약 30%, 이익공이 약 15%를 차지하는 순으로 구성되었다.

성주 · 함평 · 광양 · 동래향교 등의 명륜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후가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면은 초익공 내지 이익공, 후면은 민도리의 무공아계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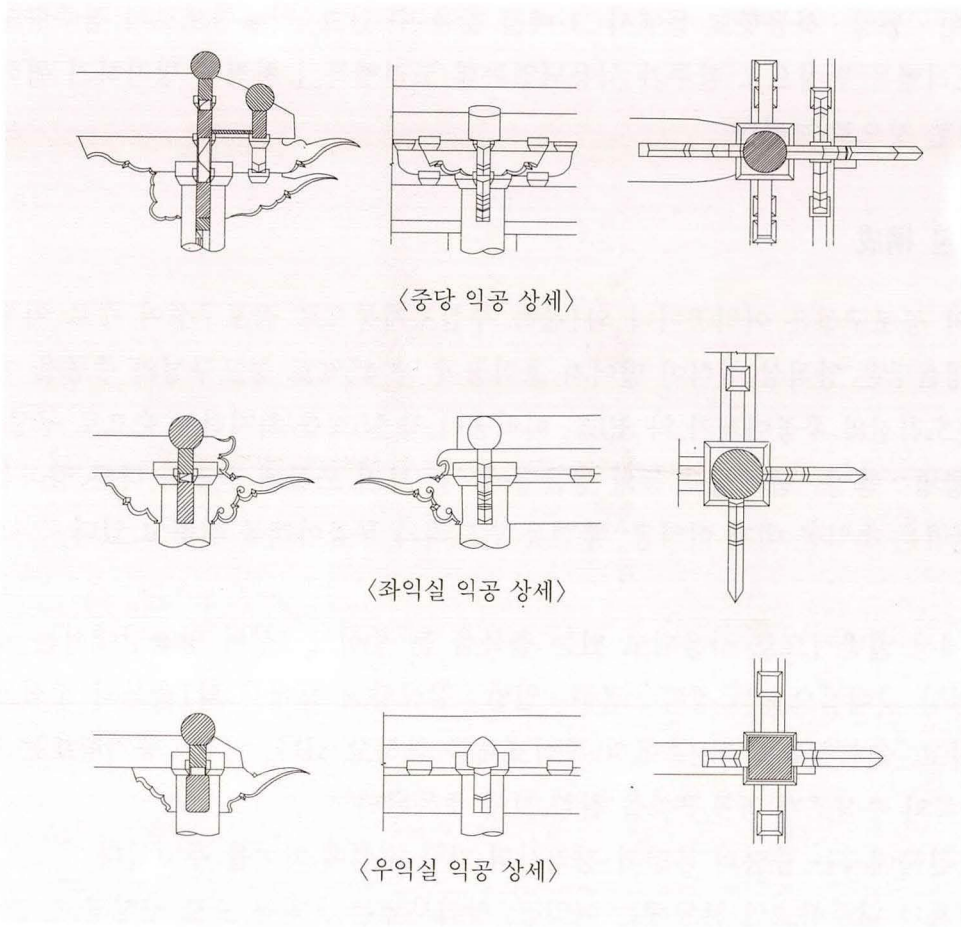
대성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출목을 둔 주심포구성이 명륜당에서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맞배집으로서 창평 · 경주 · 밀양 · 김해향교 등에서 외1출목의 주심포계 익공식을 취하고, 순천향교는 외2출목의 주심포계를 취하고 있다. 익산 · 풍기향교는 팔작집으로 외1출목의 주심포계 공포구성을 취한 것이 주목된다.

객사형 건물에서는 중앙의 본당과 양익사의 가구 구성에 차이를 두고있다.

즉 성균관과 나주향교의 본당에는 이익공, 양익사에는 초익공 으로 구성되고, 고창향교는 중앙의 본당은 초익공, 양익사는 민도리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사형 건물외에도 어칸부인 중앙부와 협퇴칸부인 외부측의 공포구성 양식이 다르게 표현된 곳은 시흥 · 평택 · 보은향교등으로 어칸부는 익공계, 협퇴칸부는 민도리계로 양식을 달리 한 경우도 있다.



『동래향교 명륜당 공포(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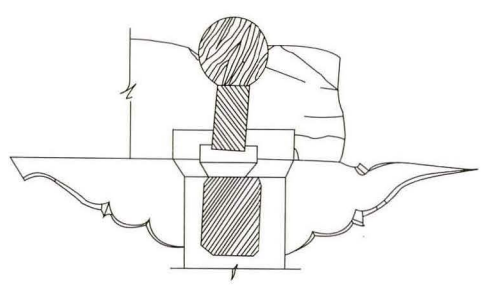


〈중당 익공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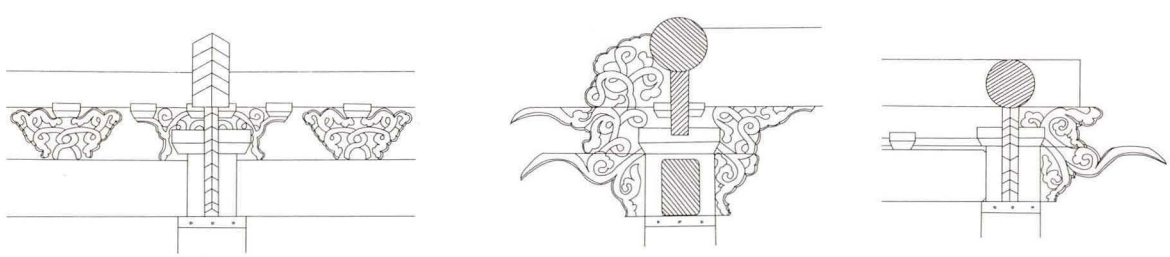
〈좌익실 익공 상세〉

〈우익실 익공 상세〉

『나주향교 명륜당 익공』



『인동향교 명륜당 익공』



『성균관 명륜당 공포도(본당 주심포 외부, 주포단면도, 우익실 공포도)』

다. 架構 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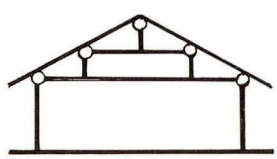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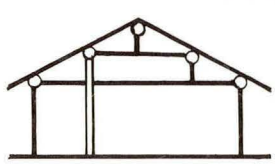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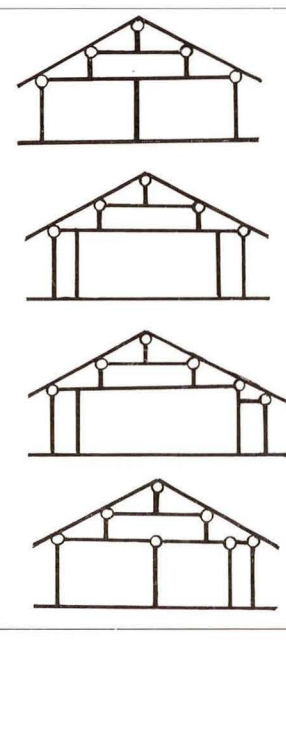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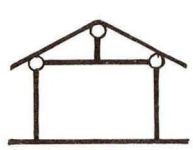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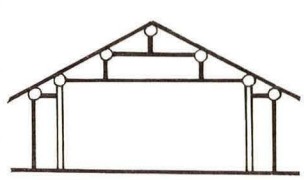
대성전에는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어 고주를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인 가구수법이지만 명륜당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좌우에 방이 구성되고, 주칸(柱間)이 대성전보다 좁기 때문에 고주가 없는 즉 무고주(無高柱)의 평오량가구(平五梁架構)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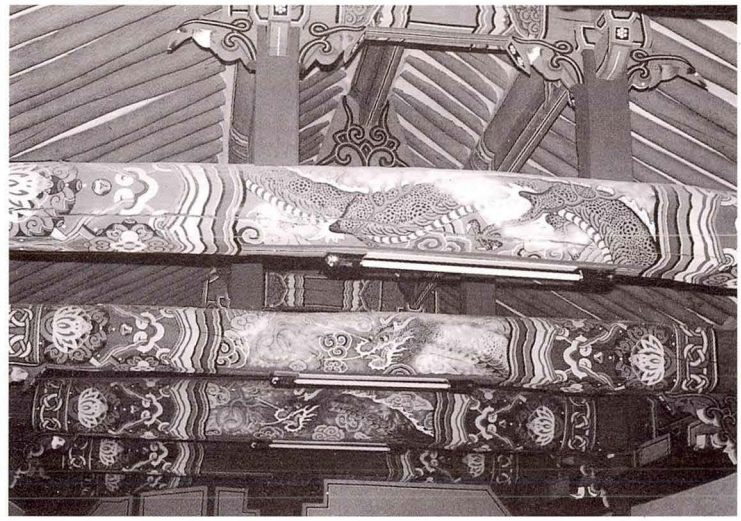
나주향교 중앙 본전은 외1출목의 무고주 5량으로 가구되었으나 익사는 일고주오량을 취하고 있다.

1고주 5량가구는 보통 양방 전퇴형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흔히 사용되는 구조법은 아니다. 칠곡향교는 고주 대신 평주를 세우고 그위에 동자주를 얹어 고주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 고주는 두지 않고 좌우에 배치된 방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주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들보 밑을 평주로 받치는 경우가 있고 대들보와 퇴보를 연결하는 평주를 짜 맞추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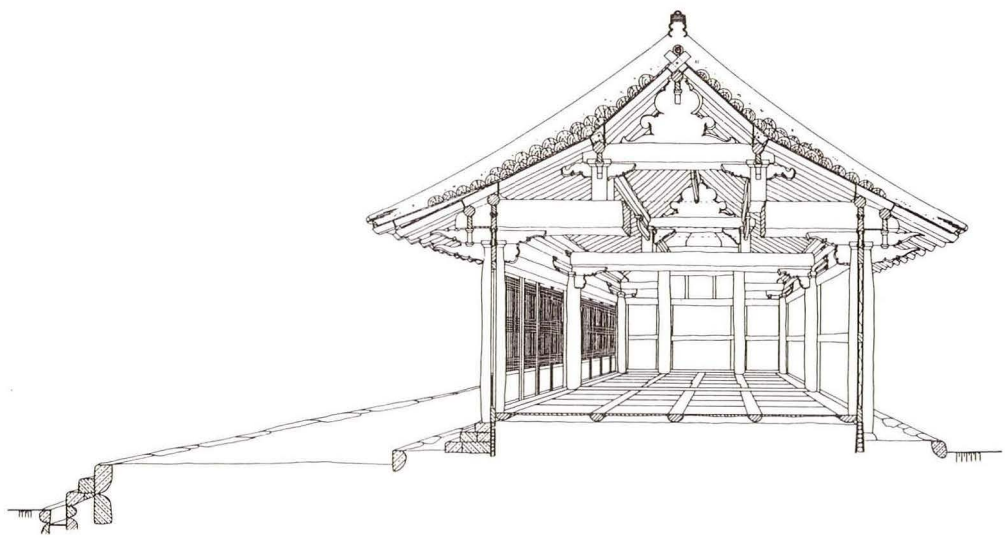
5량가구외에 측면이 1칸인 순창향교는 3량가구를 취한 경우도 있으며, 정의향교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는 2고주 7량가구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

명륜당의 가구형식

<table>
<tr><th>가구형식</th><th>가 구 도</th><th colspan="4">대 상 향 교</th></tr>
<tr><td>無高柱五樑</td><td></td><td colspan="4">성균관,인천,부평,김포,파주,양주,포천,양근,지평,이천,양지,안성,평택,진위,적성
횡성,화천,영월,정선,강릉,삼척,양양,화천,문의,황간,결성,회덕,청양,보령,신창
목천,고산,임실,장수,고부,태인,고창,부안,김제,금구,용담,광주,나주,순천,낙안
무안,담양,곡성,옥과,광양,강진,함평,구례,군위,지례,의흥,문경,예안,예천,영양
용궁,성주,인동,동래,영산,산청,단성,거제</td></tr>
<tr><td>一高柱五樑</td><td></td><td>강화,여주,연천
청주,정산,아산
흥덕,칠곡</td><td rowspan="3">五樑</td><td rowspan="3"></td><td rowspan="3">합천
무주
통영
진보</td></tr>
<tr><td>三樑</td><td></td><td>순창</td></tr>
<tr><td>二高柱七樑</td><td></td><td>정의</td></tr>
</table>



『순천향교 명륜당 내부가구 및 단청』



『나주향교 명륜당 실내투시도』
〈자료 : 나주향교 실측조사보고서〉

4. 明倫堂의 지붕形式

가. 지붕 構成

명륜당의 지붕형식은 향교내의 다른 어느 건물보다 다양한 외형을 갖고 있는데, 대성전과는 달리 주로 팔작지붕(약60%)을 사용하고 그 다음이 맞배지붕(약35%)을 취하고 있다. 그외는 두가지 유형의 지붕 형태가 혼용된 경우등이다. 또 대정향교는 유일하게 우진각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객사형의 솟을지붕을 취하고 있는 명륜당은 성균관, 고창, 김제, 나주, 제주향교

등 5개소로 고창향교만이 본당(本堂)과 익사(翼舍) 모두 맞배지붕으로 처리되고 그외는 본당은 맞배, 익사는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명륜당의 지붕이 자유스럽게 취할 수 있다는 단적인 표현이 가적지붕, 부섭지붕, 눈섭지붕등이 가설된 점이다.

가적지붕으로는 맞배집 형태에서 좌우에 1칸씩을 덧달아 평지붕으로 덧 설치한 맞배형 팔작지붕으로 시흥 · 전주 · 영광 · 군위 · 신령향교 등에서 취한 형식이다. 화순향교는 완전한 맞배에서 풍판하부에 좌우 1칸씩 가적시킨 경우이고, 청주향교는 눈섭지붕으로 측면에 덧 달았다. 태안향교 명륜당은 우측은 팔작지붕으로되고 좌측은 맞배지붕으로 특이하게 구성하였으며, 전면에는 1칸을 덧 달아낸 부섭지붕으로 개방된 퇴칸을 둔 평면이다.

평면형태는 일자형이나 지붕은 공자형(工字形) 맞배지붕으로 된 곳으로 영양, 인동, 단성향교에서 취한 형태로 경북지방의 서원(書院) 재사(齊舍)나 민가에서 간혹 쓰이는 지붕구성 방법이다.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이 명종16년(1561)에 도산서당(陶山書堂)과 농운정사(隴雲精舍)를 직접 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강론하던 곳이며 그후 선생이 돌아가신 4년후인 1574년에 제자들과 유림들이 선생을 추모하고 학문을 이어받기 위해 도산서당 뒤에 도산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선생께서 직접 세운 농운정사는 문도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곳으로 제자들이 자율적으로 심체공부(心體工夫)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선생의 정신을 반영하여 공자형(工字形)으로 건축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명륜당도 공부(工夫)하는 곳으로 같은 성격의 건물로 이들이 서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명륜당에서 평면구성이 일자형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나 여주 · 고성향교는 ㄷ자형으로 맞배와 팔작이 혼용되어 지붕이 꾸며졌고, 보성향교는 동서재와 연결된 ㄷ자형집으로 지붕은 팔작으로 되었다. 익산향교는 ㄱ자집으로 후면에 방을 들인 꺽인 부분은 후에 덧 달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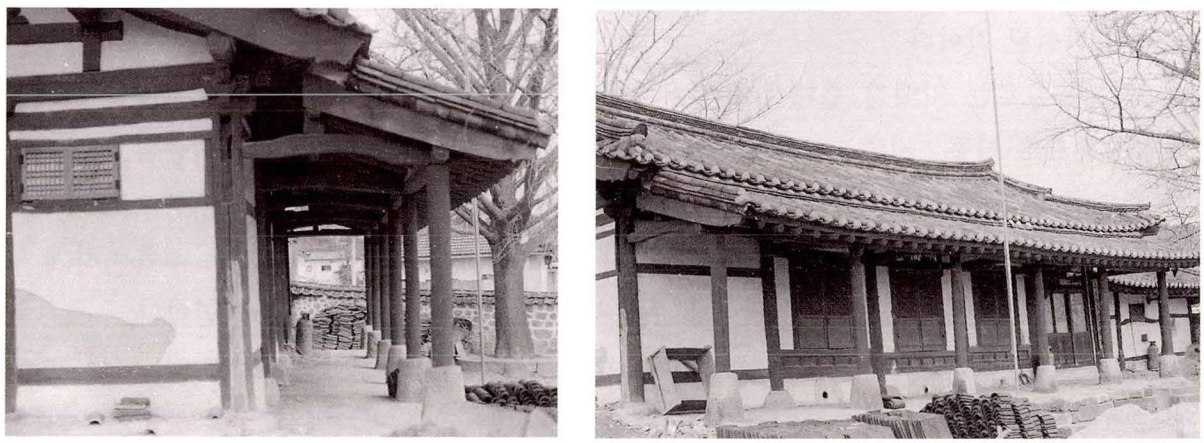


『단성향교 명륜당』

지붕의 장식적 의장으로는 통영향교 대성전과 풍화루의 용마루에 팔괘(八卦)를 장식하였으며, 현풍 · 성주 · 창녕 · 안의 · 초계향교 등에서는

미출(眉出)장식을 하였는데 초계향교는 최근 보수시 없으졌다.

성균관 명륜당의 지붕은 양성을 바른위에 취두를 올려놓았다.



『태안향교 명륜당』(측면, 정면)

나. 처마 構成

대성전은 약 97%가 맞배집이고 그 중에서 겹처마가 약 85%로 대다수 맞배집 겹처마를 취한 반면에 명륜당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것이 약60%를 차지하고 있어 대성전과는 대조를 이룬다.

팔작지붕은 지붕구성상 겹처마나 홑처마로만 구성되는데 홑처마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겹처마 구조도 상당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겹처마와 홑처마가 혼재된 경우인데 광주(廣州)향교 명륜당은 전면에는 겹처마 측면과 후면은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고, 용궁향교 명륜당은 전면과 측면은 겹처마로 구성되고 후면은 홑처마로 된 것이 특이한 기법이다.

맞배지붕은 겹처마나 홑처마를 대등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데 처마구성상 전면에는 겹처마 후면에는 홑처마로 된 경우로 청주, 홍성, 창평, 함열향교 등 일부 사용되고 있다.

맞배지붕이면서 측면에 가적지붕을 취한 향교중 신령향교만이 겹처마를 취하고 그 외는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적된 부분은 솟음이나 앙곡을 두지않고 경사진 평지붕 형태의 홑처마로만 구성되고 있다.

객사형 지붕을 취한 명륜당중 성균관은 전후면 겹처마, 나주향교는 전면과 우측면은 겹처마이고 후면과 좌측면은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의 고창 · 김제향교는 모두 홑처마이다.

H형 맞배지붕을 취한 향교중 단성향교는 중앙부에 겹처마 측면의 날개부위는 홑처마를 취하고 있으며 영양 · 인동향교는 홑처마로만 구성되었다.

유일하게 우진각 지붕을 취한 대정향교 명륜당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명륜당의 지붕형식과 처마구성〉

지붕형식	처마구성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팔작지붕	홑처마	부평,수원 김포,통진 강화,고양 파주,교하 지평,양지 양성,평택 진위,연천 적성	춘천,평창 영월,인제 화천	문의,보은 옥천,영동 황간,청풍	진잠,공주 부여,서천 비인,남포 청양,정산 해미,면천 온양,신창 직산,결성	무주,흥덕 부안,금구 만경,옥구 임피,여산	해남,지도 능주,보성 영암,강진 장흥,장성 완도,진도	예안,청송 흥해,장기 함창,문경 풍기,흥해	창녕,양산 울산,통영 산청	
	겹처마	양천,인천 양주,가평 죽산	홍천,철원	진천,충주	회덕	장수,무장	여수,돌산 함평	의성,진보 영덕,영천 선산,예천 울진	영산,합천 삼가	정의
	겹처마+홑처마	광주						용궁		
맞배지붕	홑처마	포천,양근 이천,안성	횡성,정선 강릉,양양 간성	음성,연풍	홍산,서산 당진,아산 목천,보령	고산,용담 남원,고부 태안	광주,남평 무안,담양 곡성,광양 고흥	의흥,칠곡 지례 영양(I형) 인동(H형)		
	겹처마		원주,삼척	괴산	연기,은진, 예산,진산	임실,순창	순천,낙안 옥과,구례	현풍,비안 경주,성주 하양,자인 청도,고령 김산,개령	동래,진주 밀양,곤양	
	겹처마+홑처마			청주	홍주	함열	창평		단성(H형) 거제	
맞배가적지붕		시흥(양옆1칸씩가적)		청주(측면에 눈섭지붕)		전주(좌우에 1칸씩 가적)	화순(1칸씩가적) 영광 (맞배형 팔작)	군위 (맞배형 팔작) 신령 (맞배형 팔작)		
우진각지붕										대정(홑)
솟을지붕(객사형)	겹처마	성균관 (맞배+팔작)					나주(겹+홑) (맞배+팔작)			
	홑처마					고창,김제 (맞배+맞배)				제주 (맞배+팔작)
팔작+맞배		여주(홑) (ㄷ자형)			태안 우측팔작,좌측 맞배 전면은 부섭지붕)	익산(ㄱ자형)				
지붕장식		성균관 (양성,취두)						현풍(미출) 성주(미출)	안의(미출) 초계(미출) 창녕(미출) 통영 (용마루에 팔괘)	

5. 明倫堂의 窓戶 構成

명륜당은 대성전과 달리 교육과 생활공간으로서 평면구성에서도 일반적으로 좌우에 방을 드리고 그 중앙에는 대청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방을 한쪽에만 두거나 전체를 대청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창호구성에서도 평면과 공간기능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 특히 교육적 공간 기능상 내부를 보다 밝게 유지하기 위해 대청 전면을 창호없이 개방하거나, 많은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를 밝게 유지하고 있다.

명륜당의 창호배치에는 중앙의 대청 전면과 후면, 좌우의 방 전면 및 대청과 방사이의 청방(廳房)간의 창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대청전면 창호구성

대청 전면은 외부와의 연결 내지 주이동 동선로에 위치하여 전면에 문을 두지 않고 개방하거나 전체적으로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경북지역은 영양 · 봉화 · 의흥 · 청하 · 문경 · 예천 · 울진 등 일부 향교를 제외한 대다수 향교에서는 전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개방을 하고 있다. 또한 김포 · 흥덕 · 창평 · 익산향교 등의 극히 일부 향교에서는 방을 배치하지 않고 내부 전체가 마루로 구성된 경우에도 전면에 창호를 두지 않고 개방하고 있다.

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살문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격자문이나 빗살문 또는 판문을 둔 경우는 극히 일부 향교에서만 있으며, 창호배치에서는 각 주칸마다 4분합문을 주로 설치하고 3분합문이나 2분합문을 취한 경우도 있으나 외짝문을 둔 경우는 없다.

3분합이나 4분합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다수 들문으로 구성하여 여건에 따라 들어 올려 외부와 개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대청배면 창호구성

대부분의 명륜당은 대청 후면에 문을 둔 경우가 일반적이나 남원· 영해향교 등은 대청 전면 뿐 아니라 후면도 모두 문을 두지 않고 개방하고 있는 특이한 예도 있다.

대체적으로 쌍여닫이 판문에 문인방 하부에는 머름을 둔 띠장널판문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지게문널판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살문의 쌍여닫이문이나 4분합문을 둔 경우도 있다.

다. 방 전면 창호구성

방전면에 설치되는 문은 쌍여닫이의 세살문에 문인방 하부에는 머름을 두고 문하부는 보통 굽널궁판을 두지않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 기법이다.

포천향교 명륜당은 4분합세살문, 능주향교 명륜당은 쌍여닫이의 빗살문을 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문을 두지않고 창을 설치한 예도 있는데 태인향교는 사롱창을 두고, 양성 · 죽산 · 홍천 · 부평향교 등에서는 격자창을 두었다.

라. 廳-房間 창호구성

대청과 방간의 주칸은 보통 2칸 또는 1.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배치는 쌍여닫이문이 가장 일반적이며 3분합, 4분합 또는 외여닫이를 배치하기도 하는데 각 주칸별로 배치양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좌우방이 대칭인 경우 문설치 방법도 대칭되게 같은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양식을 달리 설치된 경우도 있다

세살문을 다는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영천향교는 격자문을, 용궁 · 인동향교는 세살문과 격자문을 혼용하여 설치한 예가 있고, 신령향교는 맹장지문을, 경주 · 진보향교는 불발기문을 설치한 특이한 창호구성을 한 예도 있다.

제6장

누 각

1. 누각 건물의 형성
2. 누각 건물의 당호
3. 누각 건물의 평면구성
4. 누각건물의 구조 양식
   - 가. 기단.초석
   - 나. 기둥
   - 다. 공포구성
   - 라. 가구짜임
   - 마. 지붕구성
   - 바. 벽체구성

제6장 樓 閣

향교에서의 누각은 유생들의 여가공간이며 여름철의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접객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누각의 위치는 문묘구역과는 멀리 떨어진 강학공간의 전면 입구에 배치되며, 경사지형의 전학후묘 배치형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1. 樓閣建物의 形成

누(樓)는 위치상 주로 강학구역의 입구에서 정문 자리에 세워져 상층의 하부로는 향교 내로 통하는 정문 역할을 하고 상층은 마루를 깔고 주위에 난간을 두어 주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사면을 개방한 누문(樓門)형식으로 형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화순·영광향교는 경역밖에 루가 설치된 경우이고, 순천·의흥·비안·영해·영주·평해·기장·사천향교 등은 경역내에 누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외의 누가 있는 향교는 모두 문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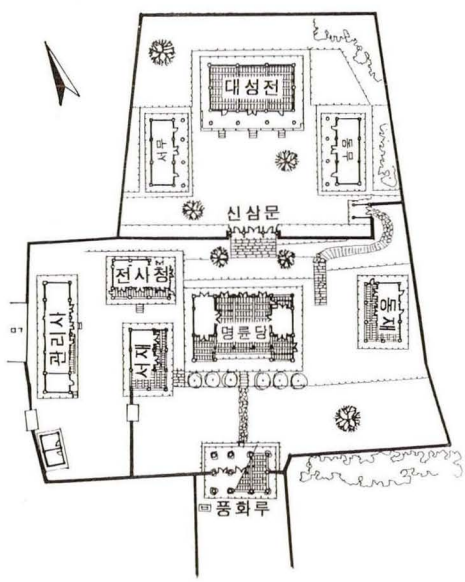
『울산향교 청원루』

별도의 누건물을 취한 향교 외에 강릉·옥천·곡성향교 등은 명륜당을 누건물로 건립된 향교들이 있는가 하면 부안·흥덕향교 등과 같이 하층이 낮은 누각형식을 취한 건


『밀양향교 풍화루』



『영광향교 만화루』



『고성향교 배치도』

물들도 있다. 또한 흥해 · 청양향교 등과 같이 경사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은 2층누각 형식을 후면은 단층건물로 처리된 경우도 있고, 문경향교와 같이 단층건물로 건립되었으나 전면의 기단축대를 높게하여 중층효과가 나게 축조하여 건물 주변에는 계자난간을 두르고 누각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단성향교 명륜당과 같이 중앙부는 누각형태 좌우 측면은 단층으로 취한 경우, 양양향교와 같이 높은 축대기단을 설치하여 단층건물로 구성하고 그 하부 중앙부 기단 일부를 통행로로 종단하여 누하부로 통행하는 느낌을 가질수 있게 구성한 경우도 있다.

누건물은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취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 지역은 29개 향교중 25개 향교가 두었을 정도로 대다수 향교에서 누건물을 두고 있다. 반면에 충청도 지역은 극히 일부 향교만 있고 경기도 지역은 안성향교와 최근에 건립된 통진향교만이 설치된 점을 볼 때 지역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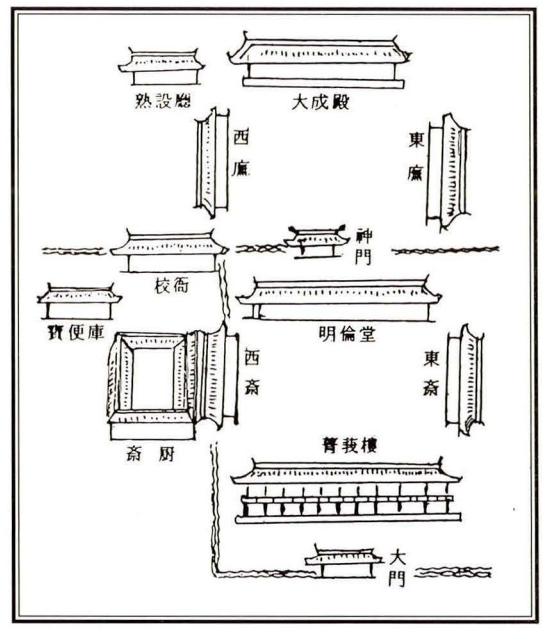
2. 樓閣 建物의 堂號

명륜당이 누건물인 경우는『明倫堂』이란 당호(堂號)가 정해져 있으나, 명륜당 이외의 누각 건물은 모두 별도의 당호가 걸려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된 당호는 60여 건물의 누각중 24개향교에서『風化樓』란 당호를 사용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경남지역에서 누건물이 있는 25개 향교중 15개의 향교가 풍화루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인접지역인 경북 지역은 누건물을 취한 19개소의

향교중 풍화루란 당호를 전혀 사용않고 있다.

풍화(風化)란 '향교가 그 지역사회의 교화기능을 할 때 즉 풍화'인 것으로, 누(樓)는 지역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교화의 기능을 갖는 의미에서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동향교 배치도』

『風化樓』 다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당호는 『萬化樓』로 전라도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만화(萬化)의 어원은 『孔子之道 萬物化生』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萬化樓"의 당호를 쓰고 있는 곳은 태인, 부안 등 7개향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북 성주향교에서도 만화루가 있었음이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아루(菁莪樓 : 4개소), 광풍루(光風樓 : 4개소).영귀루(詠歸樓:3개소), 태화루(太和樓 : 2개소)등은 2개소 이상 사용된 당호이나 그외에 장수루(藏修樓 : 춘천), 진강루(振綱樓 : 남원), 유래루(𠆢來樓 : 영천), 반화루(攀化樓 : 동래) 등 20여개소의 누건물은 향교마다 각기 다른 명칭의 당호를 사용하고 있다.

〈樓建物 分布 및 堂號名稱〉

堂 號	대상향교	堂 號	대상향교	堂 號	대상향교
風化樓	안성.평창.영월 진천.단양.순천 여수.돌산.광양 진주.함양.창녕 밀양.기장.김해 창원.통영.고성 사천.곤양.하동 삼가.초계.칠원 통진.(거제)	萬化樓	태인.부안.김제 금구.화순.영광 전주.(성주)	菁莪樓	정산.안동.청송 선산
		光風樓	군위.의흥.의성 비안	詠歸樓	영주.순흥.합천
		太和樓	평해.영해.울진 흥해	藏修樓	춘천
		石花樓	홍천	靈昭樓	인제
興學樓	진잠	振綱樓	남원	𠆢來樓	영천
慕聖樓	자인	思樂樓	청도	思泮樓	지례
諷詠樓	양산.(예천)	洗心樓	용궁	攀化樓	동래
數仞樓	의령	淸遠樓	울산	浴沂樓	산청
太極樓	함양	在川樓	안의	春風樓	거창
瀾化樓	(청하)	養心樓	(풍기)	····樓	봉화.(인동.상주)
育英樓	(영양)	講學樓	(공주)		

(　　) : 현재 없어진 누건물

영천향교의 유래루는 "글 배우러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來者莫拒)"는 말뜻이 "유래"라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유문에서 연유한 것이다.

동래향교의 반화루의 「攀化」는 "공부자에게 미치지 못함은 마치 하늘에 계단을 놓고 올라 갈 수 없음과 같다"는 말뜻이 있다.

3. 樓閣建物의 平面構成

누(樓)는 보통 강학공간의 전면 즉 전학후묘 배치의 향교에서 지형적으로 제일 낮은 전면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좌묘우학 또는 우묘좌학 배치에서도 일부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치에서 보통 문누의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평면규모도 문루기능에 맞게 정면칸을 3칸에서 11칸까지 다양한 평면형을 취하고, 또한 평면구성 형식에서 상층은 통칸 대청으로 마루를 깔아 구성되고 대청주변은 계자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청주변에 온돌방이나 마루방을 들인 경우도 있다.

명륜당이 누형식을 취한 경우는 본장에서 제외한다.

(1) 3 間 平面

정면3칸 평면에서 측면은 1칸에서 3칸까지 구성되고 있는데 정면3칸 측면2칸 평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평면구성이다. 이는 하층에 출입문 설치의 평면 계획상 가장 합리적인 구조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면3칸 측면1칸을 취한 향교는 인제 · 진잠 · 산청향교가 있다. 인제향교의 영소루(靈昭樓)는 전통 한식 누각 건물과는 양식이 맞지 않는 변형된 건물이며, 진잠향교의 흥학루(興學樓)는 맞배집 솟을삼문의 외삼문으로 단층건물을 중앙칸 문 위에 다락을 설치하여 루의 기능을 첨가한 형태로 흥학루라 명칭하고 있는데 누건물로 취급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정면3칸 측면2칸 규모의 평면은 언급된 바와 같이 누건물 평면구성상 구조적으로 하층 중앙으로 출입문 설치가 용이하고 건물비례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취해진 누건물의 평면구성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문루기능의 건물외에 사천향교와 같이 경역내에 별도로 세워진 경우도 있다.

정면3칸 측면3칸을 취한 경우는 남원, 부안, 순천, 영광향교 뿐인데 영광향교의 만화루는 전묘후학 배치로 경외에 배치하고 있다. 부안향교 만화루는 루하주를 가공된 단초석(短礎石)으로 꾸민 낮은 반누각형 건물로 상층은 사면에 꽃살문을 달아 벽체를 구성하였다. 순천향교 풍화루는 경역내에 위치하고 하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김해향교 풍화루는 좌우에 방을 드린 정면5칸, 측면2칸의 장초석을 둔 단층 팔작집으로 변형되어 있었으나 1994년에 정면3칸, 측면2칸의 2층 누각의 팔작집으로 개축되었다.

〈누건물의 평면형식〉

규모	上層 평면 구성		
	계자난간 설치	평난간 설치	기타
3×1	산청	진잠	
3×2	홍천,영월,광양,군위,비안 영천,자인,청도,지례,밀양 양산,통영,고성,곤양,안의 합천,초계,돌산,김해	평창,금구,화순,동래,의령 기장,사천,거창,삼가,함안	
3×3	남원,영광,순천		부안(사면에 꽃살문)
4×2			태인,의흥(난간 없음) 여수(동재와 평면연결)
5×1	영주	봉화(전면판문, 측면판벽,배면난간)	정산(판문과 판벽으로 구성)
5×2	춘천,단양,안동,청송,울산	순흥	
5×3	의성,평해	김제	
6×2	영해		
7×2	용궁(전면은 판문 측면 후면은 난간)	진천	선산(전면은 판문 후면은 개방된 ㄷ자형)
11×1			안성(전면은 판문,배면은 개방,측면은 벽체를 둔 동서재와 연결된 ㄷ자형 평면)

下層 평면 구성		
설치위치	문구성	대 상 향 교
출입문루	문1개소	안성,단양,의성,선산,밀양
	문2개소	태인
	문3개소	춘천,홍천,평창,영월,진천,진잠,남원,금구,광양,영천,자인,청도,지례,봉화,동래,진주, 의령,함안,양산,울산,창원,통영,고성,곤양,하동,산청,함양,안의,거창,합천,삼가,초계,김해
	문5개소	정산
경외위치	영광	
경내위치	부안,순천,화순,군위,청송,의흥,비안,용궁,영주,순흥,평해,기장,사천	

(2) 4 間 平面

4칸 평면을 취한 경우는 태인·여수·의흥향교 뿐으로 모두 정면4칸 측면2칸 규모를 취하고 있다.

태인향교 만화루는 하층의 내부 중앙 2칸에 문을 2개소 설치된 것이 평면 계획상의 제약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문설치 방법과 차이가 있다. 의흥향교 광풍루(光風樓)는 경내에 위치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여수향교 풍화루는 동제와 동일 건물로 건축되었으

나 동제보다 한단 높게 처리하여 문루형식을 취한 것으로 누건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감도 있다.

(3) 5 間 平面

5칸도 3칸과 마찬가지로 측면을 1칸에서 3칸까지 평면이 구성되고 주로 문루건물을 취하고 있다.

정산향교 청아루(菁莪樓)는 정면5칸 측면1칸 규모로 하층은 5칸 모두 문으로 짜여지고 상층은 전체적으로 판문과 판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화향교의 누건물은 당호를 알 수 없으며 하층은 중앙 3칸에 문을 달고 양측은 판벽으로 막았으며, 상층 전면은 각칸 모두 쌍여닫이 판문으로 측면은 판벽으로 하고 배면은 난간을 두었다.

정면5칸 측면2칸인 춘천향교 장수루(藏修樓)는 출입문을 3개소 설치하고 양측칸에는 벽으로 막아 고방(庫房)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양향교 풍화루는 문을 1개소만 두고 있다.

(4) 6 間 平面

6칸으로 구성된 누건물은 영해향교 태화루(太和樓)에서 취해진 평면으로 건물규모는 정면6칸 측면2칸으로 경역내에 위치하며 상층은 사방을 벽체와 창호로 막고 계자난간도 설치되었으며 하층은 중앙부 4칸은 개방하고 양쪽 끝칸은 벽체로 막았다.

(5) 7 間 平面

7칸의 누건물을 취한 곳은 진천· 선산· 용궁향교뿐으로 모두 정면7칸 측면2칸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천향교 풍화루는 특이한 외형을 취한 누문 건물로 솟을집이다. 누와 외삼문, 동 · 서재의 세가지 기능을 함께하는 건물로 중앙 3칸은 문루형 맞배집, 하층은 3개소의 문을 달아 출입토록 하고 상층은 마루를 깔고 외곽에는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좌우의 익사에는 팔작지붕의 단층건물로 각각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방과 마루로 구성하였는데 동 · 서재의 기능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선산향교 청아루는 안성향교 풍화루와 같이 ㄷ자형의 평면을 가진 구조이다. 전면은 누각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후면은 단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층은 중앙칸을 통하여 경내로 출입토록 하였으며, 상층은 중앙 5칸을 대청, 양측의 끝칸은 마루방, 돌출된 익사는 온돌로 꾸며 동서재의 역할을 겸비하고 있으며, 전면은 판문으로 구성하고 후면은 벽체없이 개방하였다.

용궁향교의 세심루(洗心樓)는 현재는 경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층에 문을 설치한 흔

적으로 볼 때 문루건물이었을 것이다. 상층은 전면에는 주칸마다 판벽과 쌍여닫이의 판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면과 및 측면에는 난간을 둘렀다.

(6) 11 間 平面

11칸의 누건물은 안성향교 풍화루(風化樓)뿐이다. ㄷ자형 평면의 건물로 동서재와 연결된 풍화루는 누각건물이고, 동 · 서재는 단층건물이다. 누하층의 중앙칸에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을 1개소만 두고 최근에 외곽은 홍살을 설치하였다. 상층은 전면에는 판문을 설치하고 측면은 미장벽체로, 배면은 문이 없이 완전 개방하였다.

4. 樓閣建物의 構造 樣式

가. 基壇 및 礎石

누건물은 보통 향교의 입구에서 하층에 삼문을 두어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대다수로 70%이상을 차지한다.

누의 초석은 다른 건물들과 달리 큼직한 자연석 덤벙주초를 우뚝하게 높여 설치하거나 장초석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단은 보통 외벌대의 자연석으로 낮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춘천· 태인향교 등에서는 장대석으로 조성한 곳도 있다. 또한 큼직한 덤벙주초나 장초석등을 많이 사용하고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단을 두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초석은 언급된 바와 같이 안성 · 단양 · 영광 · 영천 · 고성향교 등 대다수의 누건물이 큼직한 자연석 덤벙주초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 장초석으로 세워졌다. 김제 · 부안 · 순천 · 광양 · 곤양 · 함안 · 삼가 · 김해, 밀양향교 등에서는 원형의 장초석을, 춘천 · 홍천향교등에서는 방형의 장초석으로 구성되었으며,청송 · 동래 · 초계향교에서는 8각의 장초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부안 · 곤양향교등과 같이 짧게 가공된 초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초계향교 풍화루의 전열(前列) 초석에는 거북 조각의 초석을 사용하고 그위에 8각 초석을 설치한 것이 특이한 기법이다.

나. 기둥

기둥의 단면에 따라 원주와 각주로 구분되는데 안성향교 풍화루와 선산향교 청아루는 하층은 원주로 세우고 상층은 각주로 세워졌는데 이 두 건물외에는 방주를 사용한 경우는 없다. 곤양향교 풍화루는 하층 전면 어칸주에 8각주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건물의 입면상 누상주(樓上柱)와 누하주(樓下柱)로 구분되는데 누상주는 고주를 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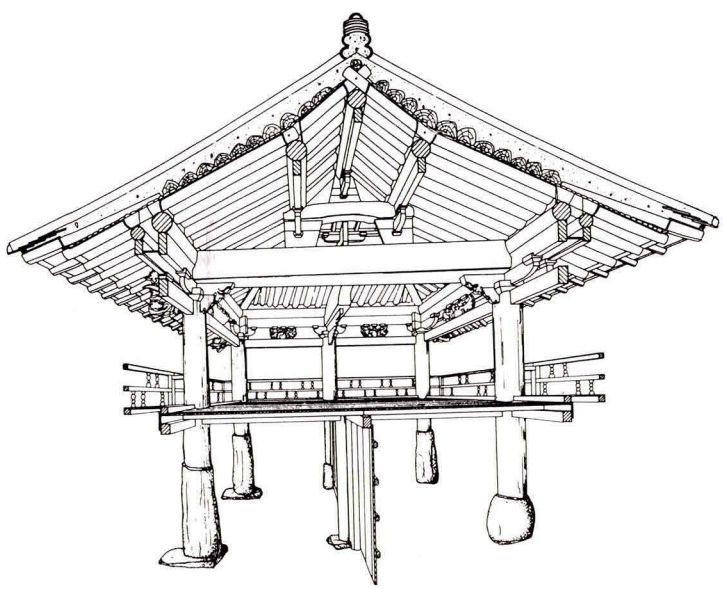
경우 외에는 주장(柱長)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누하주는 의흥향교 광풍루나 밀양향교 풍화루와 같이 주변 지형여건에 맞게 건축될 경우 기둥의 길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덤벙주초 설치에 따른 초석의 높낮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동래향교 반화루의 경우 서로 다른 높이의 장초석을 사용했을 때 상부의 통재주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누하주는 덤벙주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상당수 장초석 또는 단초석이 혼용하여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부안향교 만화루는 짧은 단초석의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마루를 설치한 특이한 구조이다.

기둥 설치에서 보통 하주(下柱)를 설치한 후 마루귀틀을 짜맞추고 상주(上柱)를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나 금구향교 만화루와 같이 상하주(上下柱)를 분리하지 않고 통재주(通材柱)로 세운 경우도 있다.

또한 팔작집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례 · 자인 · 남원 · 통영향교 등의 누는 돌출된 추녀 처마의 시각적인 교정과 처짐을 받쳐주는 활주(活柱)를 세우고 있다.

다. 栱包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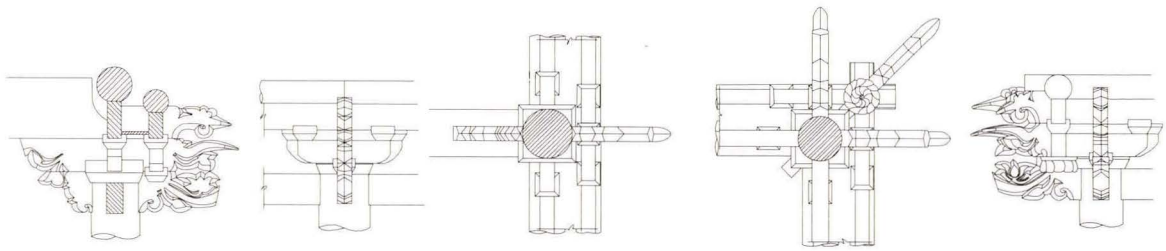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투시도』

공포구성에서 대성전은 이익공 외1출목 주심포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명륜당은 초익공,민도리 계통의 공포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누각 건물에서는 이익공, 민도리, 초익공 순으로 빈도를 두고 있으며 서로 큰 차이는 없다.

공포의 구성 양식상 대성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명륜당과 비슷한 양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는 향교의 가장 전면에 위치하고 외형적으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 노출성 때문에 격을 높인 것 중의 하나로 짐작된다.

또한 출목(出目)을 둔 주심포계 익공 건물이 있어 화려함을 더해 주고 있는데 자인향교의 모성루(慕聖樓), 동래향교 반화루, 기장향교 풍화루는 외1출목을 둔 주심익공으로 구성하고 있다. 남원향교의 진강루(振鋼樓)는 1935년 동헌의 문루인 환월루(喚月樓)를 옮겨다 지은 건물이지만 누각건물에서 유일하게 외2출목의 주심포계 익공 건물이다.



『동래향교 반화루 공포상세도』

〈大成殿, 明倫堂, 樓閣의 공포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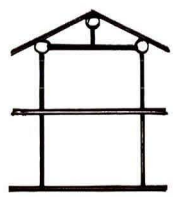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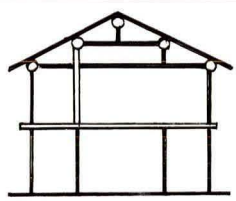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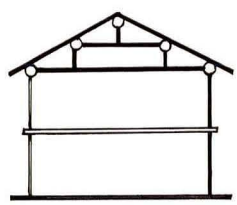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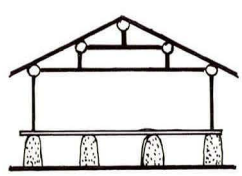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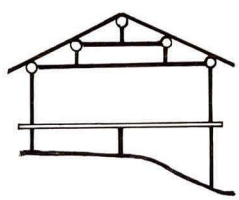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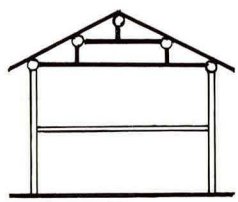
향교명	대성전	명륜당	루각	향교명	대성전	명륜당	루각
안성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민도리	춘천	초익공	초익공	민도리
홍천	초익공	초익공	초익공	평창	초익공		익공
영월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인제	이익공		초익공
진천	이익공	초익공		단양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진잠	이익공	초익공		정산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남원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외2출목이익공	태인		민도리	이익공
부안	이익공	이익공	이익공	김제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이익공
금구		민도리	이익공	순천	외2출목 이익공	외2출목 이익공	민도리
여수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돌산	민도리	민도리	초익공
화순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영광	초익공	무익공	민도리
광양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군위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의흥	외2출목 이익공	민도리	이익공	의성	이익공		삼익공
비안	이익공	이익공	이익공	안동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청송	초익공	초익공	초익공	영해	초익공		민도리
영천	외1출목 이익공	무익공	초익공	자인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외1출목 이익공
청도	이익공	이익공	이익공	선산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민도리
지례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초익공	용궁	초익공	이익공	민도리
영주	이익공	초익공	무익공	순흥	이익공	외1출목 이익공	무익공
봉화	무익공	초익공	민도리	평해	외1출목 이익공	무익공	이익공
동래	외1출목 이익공	외1출목이익공	외1출목이익공	진주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의령	외2출목 삼익공	이익공	민도리	함안	이익공	민도리	민도리
밀양	외1출목 이익공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양산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민도리
울산	초익공	초익공	이익공	기장	이익공	이익공	외1출목 이익공
김해	외2출목 삼익공	외1출목 이익공		창원	외2출목 삼익공	이익공	이익공
통영	이익공	민도리		고성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이익공
사천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민도리	곤양	외1출목 이익공	민도리	이익공
하동	외2출목 삼익공	초익공		산청	이익공	민도리	민도리
함양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안의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초익공
거창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이익공	합천	외1출목 이익공	이익공	초익공
삼가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이익공	초계	외1출목 이익공	초익공	이익공

라. 架構 짜임

가구형식은 3량가구와 5량가구로 짜여져 있다.

3량가구는 측면칸이 주로 1칸이나 주(柱)경간이 좁은 2칸에서 사용된 가구로 안성· 산청 · 영천향교등의 루에서 적용되었다.

〈樓閣建物의 架構形式〉

가구형식	가 구 도	대 상 향 교
3량		• 안성(풍화루) • 합천(영귀루) • 영천(유래루) • 함안(풍화루) • 단양(풍화루) • 진잠(홍학루) • 산청(욕기루)
1고주 5량		• 김제(만화루)
무고주 5량		• 인제(영소루) • 홍해(태화루) • 부안(만화루) • 평해(태화루) • 태인(만화루) • 초계(풍화루) • 돌산(풍화루) • 청송(청아루) • 화순(만화루) • 진주(풍화루) • 광양(풍화루) • 의령(수인루) • 영광(만화루) • 양산(풍영루) • 밀양(풍화루) • 울산(청원루) • 동래(반화루) • 창원(풍화루) • 고성(풍화루) • 사천(풍화루) • 기장(풍화루) • 함양(태극루) • 삼가(풍화루) • 안의(재천루) • 곤양(풍화루) • 거창(춘풍루) • 순천(풍화루) • 김해(풍화루)
5량		• 부안(만화루)
		• 의성(광풍루)
		• 금구(만화루)

5량가구는 무고주 평5량가구와 1고주 5량가구로 분류되는데 대다수가 무고주 5량가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구조상 상층에 방이나 다른 공간이 구성되지 않고 통칸의 대청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주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김제향교 만화루는 상층에 내진주를 두어 1고주 5량가구를 취하고 있다.

5량가구 형식중 부안향교 만화루는 누하주(樓下柱)가 낮은 석주(石柱)로 구성되고, 의성향교 광풍루는 지형적인 고저를 이용하여 누하주의 길이를 전후에 달리하고 있으며, 금구향교 만화루는 상 · 하주가 연결된 통재주를 사용한 특징이 있다.

마. 지붕 構成

지붕의 형태는 약75%가 팔작지붕이다. 누건물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경남지역과 전라남북도 지역은 모두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지역 다음으로 누건물이 많이 분포된 경북지역은 팔작지붕보다 오히려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팔작이나 맞배지붕 외에 진천향교 풍화루와 같이 객사형의 솟을집 형태를 취하여 중앙 3칸은 누마루를 두어 맞배지붕을 취하고 양익사는 방과 마루를 두어 팔작지붕으로 조성한 것이 특이하다. 또 진잠향교 홍학루는 맞배형 솟을 삼문의 규모가 적은 외삼문으로 중앙칸의 문위에 다락을 두어 누형식을 취하고 당호도 홍학루라 명명한 것이 이채롭다.

처마는 대체로 팔작집에서는 겹처마, 맞배집에서는 홑처마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맞배집으로서 홍천 · 정산 · 의흥 · 청송 등 일부 향교가 겹처마를 취하고 있다.



『진잠향교 흥학루』

〈누건물의 지붕 · 처마양식〉

	팔작지붕	맞배지붕	솟을 지붕
겹처마	영월,인제,남원,태인,부안 순천,돌산,광양,비안,안동 자인,청도,기장,통영,고성 지례,동래,밀양,울산,곤양 하동,안의,합천,부안	홍천,정산,의흥,청송,흥해	
홑처마	춘천,평창,김제,금구,여수 화순,영광,군위,선산,함안 사천,삼가,초계,김해	안성,단양,의성,영해,영천 용궁,영주,순흥,봉화,평해	진천,진잠

바. 壁體 構成

누의 하층은 일반적으로 3칸 출입문을 두어 문루 역할을 취한 것이 일반적이며, 상층은 전체를 넓은 대청마루로 깔고 주변은 계자난간이나 평난간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면구성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향교의 누건물에는 벽체나 창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누건물을 취하고 있는 명륜당은 건물의 성격상 방을 드리고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고 있으나 본 구성에서 언급을 생략한다.

누각건물의 벽체 창호를 구성한 예를 살펴보면

① 사면이 벽체 창호로 구성된 경우—부안, 정산, 영해

② 삼면이 벽체 창호로 구성되고 나머지 한쪽이 개방된 경우—봉화, 안성, 선산, 사천, 진천, 영주, 순흥

③ 양측면에 벽체를 설치한 경우—의흥(현재는 벽체가 철거되고 없음)

④ 정면에만 벽체를 둔 경우—용궁

상기에서 벽체 창호를 두지 않고 개방시키는 면은 반드시 대성전 방향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7장

동·서무

1. 동·서무의 평면형식. 규모
2. 동·서무의 구조양식
   - 가. 기단. 초석
   - 나. 기둥. 공포. 가구구성
   - 다. 처마. 지붕구성
   - 라. 벽체. 창호

제7장 東廡 · 西廡

동 · 서무는 문묘구역내에서 대성전을 중앙의 정위(正位)에 배치하고 그 좌우 또는 전면 좌우에 대성전과 직각으로 서로 대칭대향되게 배치되며, 대성전의 좌향에 따라 좌측에 배치된 건물을 동무 우측에 배치된 건물을 서무라 칭한다. 대성전보다 뒤쪽으로 동 · 서무 건물 일부가 침범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무는 대성전의 전면 기단을 벋어나 좌우 대칭되게 배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나 건축 의장적인 면에서도 대다수의 동 · 서무가 서로 같은 구조와양식을 취하고 있다.

무에는 공자의 제자 및 우리나라의 선현을 봉사하고 있는데 대설위(大設位), 중설위(中設位), 소설위(小設位)등 설위방법에 따라 동 · 서 양무의 설립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위수(設位數)에 따라 건물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에는 대부분 동 · 서무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이안(移安)하여 비어 있는 향교가 많다.

동 · 서무의 설치는 보통 대설위, 중설위의 향교에서 설치되며 대설위의 향교에서는 그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 또 소설위에서도 일부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작게 지어졌다.

1. 東 · 西廡의 平面形式, 規模

무(廡)는 문묘구역 내에서 대성전과 같이 석전제향(釋奠祭享)을 위한 공간으로 의식(儀式)의 기능에 맞게 평면구성을 취한 것이 대성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평면형식은 전면에 퇴칸의 유무에 따라 전퇴개방형(前退開放形)과 폐쇄형(閉鎖形)으로 분류되나 정면칸수는 대성전과 같이 3칸, 5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설위수에 따라 변화성 있게 나타나는데 부평 · 낙안 · 광주(光州)향교 등과 같이 2칸에서부터 3칸, 4칸, 5칸(강릉, 청주), 7칸(원주, 충주), 9칸(전주), 10칸(상주), 11칸(성균관), 12칸의 경주향교 동 · 서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측면칸수는 1칸, 2칸으로만 구성되는데 전면의 퇴간 개방형에서는 모두 2칸으로 구성되나 폐쇄형 평면에서는 교동 · 홍주 · 진주 · 김해 · 충주 · 상주 등에서만 2칸으로 구성되고 그외는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형은 정면3칸 측면1칸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건물면적은 약 3.5평 규모의 교하향교, 4.2평 규모의 평창향교에서부터 경주(42.32평), 상주(53.84평)같이 큰 규모의 동 · 서무

를 둔 경우도 있으며 성균관의 동 · 서무는 94.61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동 · 서무의 규모는 대체로 5~10평 내외의 평면규모를 갖고 있다.

평면구성에서 같은 기능의 대성전에서는 전퇴 개방형 평면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동 · 서무에서는 오히려 폐쇄형 평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전퇴 개방형 평면에서 퇴칸의 양측면에 벽체로 막아 퇴칸을 구성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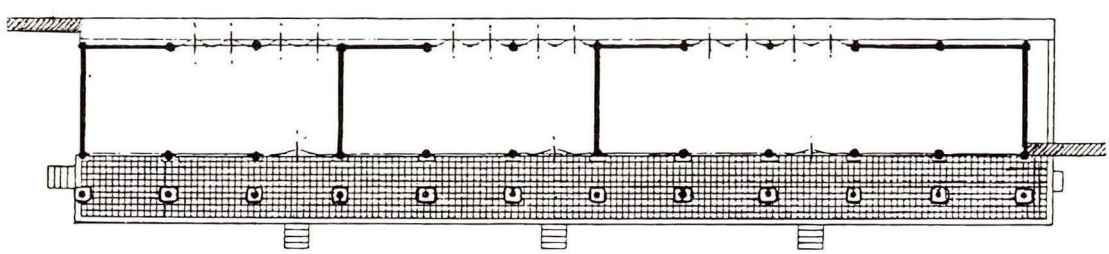
내부바닥 구성재료로는 대부분 시멘트, 강회나 전돌, 박석 등을 깔아 봉당형식을 취하여 바닥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마루를 깔아 바닥을 높인 경우도 있다.

동 · 서무의 평면구성에서 특이한 구성을 보이는 몇 곳을 찾아보면, 성균관의 동 · 서무는 정면 11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퇴칸을 두고 규모가 큰 대설위를 취한 건물로 원래는 내부 통칸의 평면이었으나 지금은 2개소의 격벽으로 내부공간을 분리하여 일반적인 통칸의 평면구성과 달리하고 있다. 남해향교의 동 · 서무는 정면 3칸 측면1칸의 평면으로 각기 1칸의 벽체를 두어 평면을 분리하였는데 특히, 동무는 별도의 삼문을 두면서도 우측1칸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문묘구역으로 출입토록 되어 있으며, 서무는 격벽을 두어 제기고나 전사청등 다른 용도를 겸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보은향교로 대성전 평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별도로 동서무를 두지 않고 있으나, 5칸의 대성전 양측 1칸씩을 벽체로 막아 동 · 서무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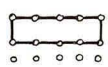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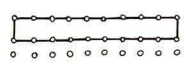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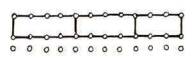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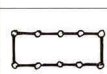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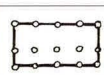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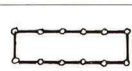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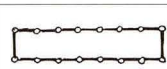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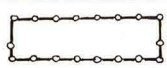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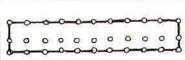
현재 무(廡)를 두고 있는 향교는 94개소의 향교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미 없으진 향교도 다수 있으며 동무 또는 서무 한 곳만 있는 곳도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는 대다수의 동 · 서무에는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겨 기능을 못하고 일부 향교만이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나주향교의 동 · 서무는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겨 기능이 상실되자 헐어버려 약 10.5평의 정면3칸 측면 1칸 규모로 초석만 남아 있었으나 최근 복원되었다.



『성균관 문묘 서무 평면도』

〈동 · 서무 규모 및 평면형식, 면적 비교〉

구분	규모(정면×측면)		평면형	5평이하	5~10평	10~15평	15평이상
전퇴개방평	2칸	2×2		부평(4.75)			
					정선 光州(8.7)		
	3칸	3×2			廣州(8.5) 여산(7.75) 간성(8.91)	수원(11.74) 양양(12.8)	
					옥천(6.56) 목천(8.93) 공주 능주(7.21) 영주 순흥 거제(8.8)	순천(11.4) 고성(11.95) 통영(9.87)	
	4칸	4×2			양주	함양(10.32)	
	9칸	9×2					전주
	11칸	11×2					성균관(94.61)
폐쇄형	2칸	2×1		평창(4.21) 단성(3.02)	낙안(5.65) 진도(5.38) 비안 문경		
	3칸	3×1		인천(4.7) 교하(3.52) 이천(4.3)	고양(5.09) 여주 양근 안성(6.3) 삼척 죽산(5.23) 춘천(7.8) 단양(5.4) 서천(6.35) 서산(6.45) 무주(8.09) 남원(6.05) 남해(8.09) 김제(7.36) 순창(6.36) 고부(7.95) 담양(5.5) 영광(8.2) 고흥(5.4) 장성(6.59) 보성(6.95) 현풍(7.3) 성주(6.85) 칠곡(6.37) 풍기(5.8) 평해(6.64) 흥해(5.59) 동래(6.45) 하동(6.66) 함안(6.88) 밀양(6.76)	울산(12.0) 나주(10.5) 청도(10.36)	
		3×2			교동(9.54) 홍주(6.69) 고령(7.36)		
	4칸	4×1			금산 창녕(9.0) 합천(6.57)		
		4×2					김해(16.24)
	5칸	5×1					강릉(20.28) 청주(18.36)
	7칸	7×1					원주
		7×2					충주
	10칸	10×2					상주(53.84)
	12칸	12×1					경주(42.32)

2. 東·西廡의 構造 樣式

가. 基壇. 礎石

문묘구역의 단(壇)의 구성은 주건물인 대성전과 부건물인 동·서무와 전사청, 제기고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건물인 대성전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게 된다. 동·서무는 대성전과 같은 지반위에 두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대성전보다 한단 낮은 위치에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같은 지반위에 동·서무가 위치할 경우라도 대성전은 기단의 높이를 동·서무보다 높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의 위계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반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서무의 기단은 주변의 다른 중요 건물보다 기단의 높이를 높게 두는 경우는 없다.

기단 축조재료는 자연석으로 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옥천·순창·함양·보성향교 등과 같이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설치하고 측면이나 후면에는 자연석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다.

가공된 장대석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성균관 동·서무와 같이 4벌대의 높은 기단을 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외벌대의 장대석으로 설치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두벌대의 장대석 이상으로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

무(廡)는 건물규모가 보통 3칸으로 5~10평 내외로 건물규모나 기둥, 가구 등 모든 면에서 대성전이나 명륜당, 누각건물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석의 규모도 작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사용하고 있으며, 옥천·담양향교 등과 같이 가공석과 혼용하기도 한다. 가공초석은 원형이나 방형으로 가공된 경우이고 자연석을 거칠게 가공하기도 하고, 가공된 초석과 자연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면은 가공된 초석이 사용되고 후면은 자연석이 사용되는 형태로 극히 드문 예이다.

영광향교 동·서무와 같이 주변의 폐사찰이나 관아지의 석물을 옮겨 설치된 경우도 있다.

무에서는 대성전, 명륜당, 누각에서 간혹 사용된 장초석을 사용한 예는 없다.

나. 기둥, 공포, 가구구성

(1) 기둥

동·서무는 규모면에서는 일반 다른 건물보다 작으나,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위계

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위계성에서 각주보다 원주가 사용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성전과 같이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면 퇴주는 원주를 사용하고 후면은 각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면에 퇴칸을 두면서 퇴주열에 각주가 사용된 곳은 부평 · 광주(廣州) · 간성 · 공주 · 통영향교 등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또 퇴칸을 두는 경우 고주를 두어 가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2) 공포

무는 소박한 민도리형식 내지 물익공 가구를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초익공을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진도 · 평해 · 김해향교 등과 같이 전면에는 초익공 후면에는 익공없이 민도리로 처리되기도 한다.

초익공이 사용된 곳은 성균관을 비롯하여 주로 계수관 향교로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릉, 경주, 동래 등과 진천 · 낙안 · 영광 · 청도 · 밀양 · 성주 · 현풍 등 20여 향교에 불과하다.

조사된 향교에서 거제향교 동 · 서무가 2익공을 채택한 유일한 경우이고, 출목을 둔 공포구성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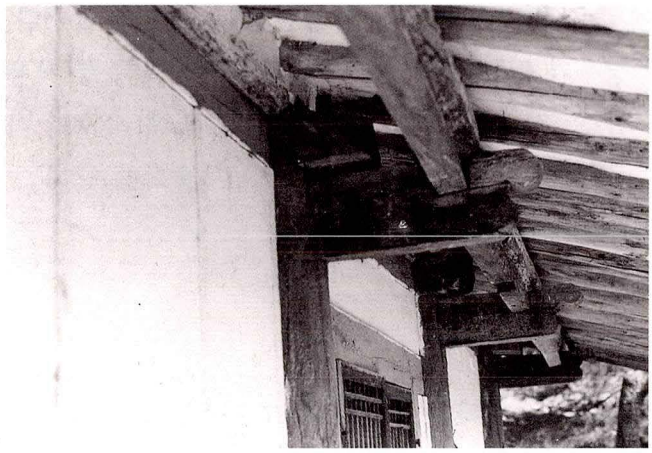
(3) 架構 構成

평면구성에서 측면을 1칸으로 구성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구구성에서도 대량위에 제형판대공이나 동자대공을 받쳐 종도리를 걸친 맞걸이 3량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에 퇴칸을 둘 때는 1퇴주 3량, 4량, 5량가구로 구성된다.

1퇴주 3량가구는 순천 · 능주 · 거제 · 고성향교 등과 같이 3량가구를 구성하면서 내부에 평주를 받쳐주는 방법이 있고, 함양향교와 같이 퇴보를 설치하여 대들보와 연결하고 평주가 받쳐주는 방법이 있다.

4량가구에는 1퇴주 4량, 1고주 4량으로 구분되는데 1퇴주 4량은 목천향교와 같이 3량가구를 구성하면서 전면에 퇴주를 세워 퇴보로 연결하는 방법이며, 1고주 4량은 광주(廣州) · 옥천향교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5량가구는 무고주 5량과 1고주 5량으로 분류되는데 교동 · 춘천 · 진주향교 등과 같이 퇴칸이 없는 폐쇄형 평면에서는 무고주 5량의 가구구성이 적용되고, 성균관 · 부평 · 수원 · 상주 · 영주향교 등 퇴주를 둔 곳에서는 1고주 5량을 취하고 있다. 김해향교는 평주를 세워 그위에 동자주를 다시 세워 고주같이 처리하여 것도 특이한 가구수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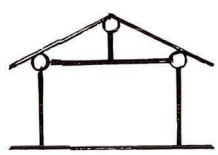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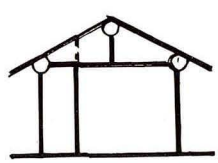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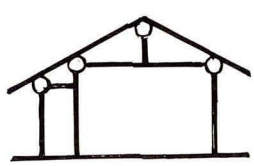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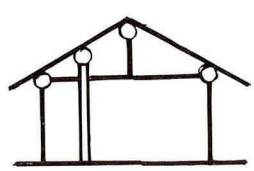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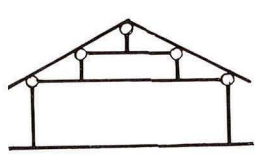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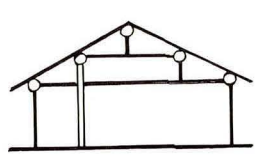
3량가구로써 특수한 기법을 취한 것으로 풍기향교 동 · 서무를 들 수 있는데, 전면의 가구



『풍기향교 서무 처마가구』

구성에서 보하부에 보아지를 밖으로 길게 뽑아 보아지 위에 도리를 얹어 길게 빠져나온 지붕의 처마를 받쳐주는 외목도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재의 위치나 기능적 차이는 다소 있으나 구조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흡사 완주 화암사 극락전의 하앙(下昻)구조와 유사한 성격의 구조로 볼 수 있다.

〈동 · 서무의 가구형식〉

가구 형식	가구도	대 상 향 교
3량가구		인천,원주,청주,임천,남원,낙안,대구,동래,합천,고양,평창,진천,홍주,순창 현풍,함안,이천,정선,청풍,서천,고부,영광,영천,하동,안성,강릉,단양,서산 김제,보성,성주,밀양,죽산,익산,고흥,청도,남해,양근,장성,칠곡,단성,완도 평해,담양
퇴주형 3량		순천,능주,거제,고성,통영,함양(퇴보+대들보)
1퇴주 3량		목천
1고주 4량		廣州,옥천
무고주 5량		교동,춘천,진주
1고주 5량		부평,수원,성균관,상주,영주 김해(평주위에 동자주를 세워 고주같이 보임)

다. 지붕 構成

문묘구역의 주건물인 대성전의 지붕이 대다수 맞배지붕으로 구성되고 일부 팔작지붕도 있으나, 동·서무의 지붕은 모든 건물이 맞배지붕으로만 구성되고 다른 지붕양식을 취한 경우는 없다.

지붕장식을 취한 경우는 없으나 현풍, 통영향교의 동·서무에는 지붕 용마루에서는 미출장식을 하고 있다.

처마구성에서 삼척·이천·고흥·청도·동래향교 등에서는 겹처마로, 장성·밀양향교 등에서는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전후면의 처마구성을 달리하고 있으며, 간성향교는 동무는 홑처마 서무는 겹처마로 각기 양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상의 몇몇 향교 외에는 대다수 홑처마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다수 동·서무가 맞배지붕의 홑처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성전에 봉안된 성현과 동·서무에 봉안된 성현의 위상 차이뿐 아니라, 위계성이 이미 대성전에서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패봉안 기능의 역할만 하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라. 壁體.窓戶構成

① 벽체

동·서무도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건물전면은 창호와 벽체로 구성되고 측면과 후면은 미장벽체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방벽 설치는 사묘건축에서 흔히 사용되는 벽체구성 방법으로 대성전 건물에도 많이 사용된 점을 밝힌 바와 같이 동·서무에서도 일부 설치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 다수 사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극히 일부 향교에서만 사용되었다. 하방벽체가 설치된 동·서무를 보면 성균관·인천·부평·교동·고양·양근·광주·안성·춘천·진천·홍성·서산·영천·평해·창원·거제향교 등이다.

② 창호

동·서무의 공간도 대성전과 같이 제향공간의 출입기능을 위해 전면에만 문을 두고 측면이나 후면에는 전혀 두지 않고 있다.

전면 주칸(柱間)에는 문을 설치한 외에 창을 설치한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일부는 벽체로 막은 부분도 있다.

〈동 · 서무 창호구성 실례〉

주칸	전면 주칸 창호 구성			주칸 문			
	제1칸	제2칸	제3칸	세살문	판문	격자문	빗살문
2칸				문경	단성 + 비안		진 도
				평창 광주 정 선	낙안	부 평	
3칸				+ + 평 해			
				순흥 풍기	익산 광주 남해 남원 순창		
				인 천 춘 천	담 양 수원,옥천 고부,영광 밀양		
				고양 안성 홍 목천 주	초 대 능 계 구 주		
					단양		
				삼척	이천		
				서천	고 칠 장 성 곡 성	청 도	
				진 주 양양,간성 진천,공주 청풍,보성 김제,고령,통영	하 성주 괴 동 함안 산 여주 동래 현풍	거 제 영 천	울 흥 산 해 순천
							고흥
				교동			

주칸	전면 주칸 창호 구성												주칸문 평태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제8칸	제9칸	제10칸	제11칸	제12칸	세살문	판문	격자문	빗살문
4칸													함양			
													김해	합천 창녕		
5칸													강릉			
													청주			
7칸													충주			
													원주			
9칸																전주
10칸													(상주)			
11칸														성균관		
12칸													경주			

※측면에 창을 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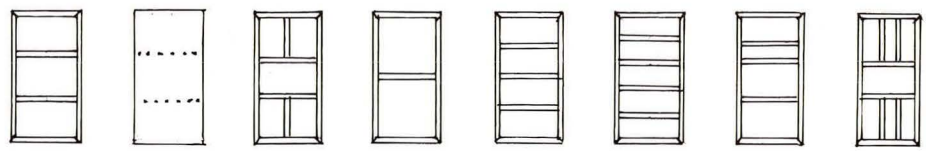
합천, 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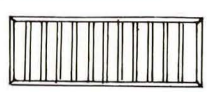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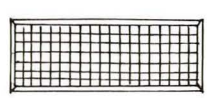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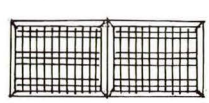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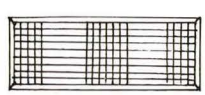
김해

※후면에 창을 둔 경우

성균관

〈동 · 서무에 사용된 창호 유형〉

	문 형 식	유 형 별 (사용 빈도순)
문	세살문형	
	판문형	
	격자살문형	
	빗살문형	

	창 형 식	유 형 별	전면에 사용된 창	측면창	후면창
창	사롱창		인천,옥천,영광,성균관,수원 담양,밀양,춘천,고부,강릉		
	격자창		고양,목천,초계,능주,안성 홍주,대구	합천,김해,성주	
	쌍세살창		삼척,이천,원주,교동		
	세살창		단양,충주		
	빗살창				성균관

문의 설치는 대성전 문설치와는 달리 외짝문이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보통 2짝의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이상의 문짝을 둔 경우는 없다.

정면 칸수는 설위에 따라 홀수칸, 짝수칸의 개념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3칸, 5칸, 7칸의 홀수칸에는 어칸, 협칸, 퇴칸 등의 개념을 일부 두고 있으나, 그외에는 칸수에 따른 창호 배치에서 어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창호구성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3칸 건물중 각칸 모두 쌍여닫이 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중앙칸에는 쌍여닫이문 협칸에는 창을 두는 경우이다.

동·서무의 창호구성에서 특이한 면을 보이는 몇 곳을 보면 평해향교 동·서무는 3칸 모두 외짝문을 설치하고 각칸 모두 창호 양식을 달리하고 있다.

남원·순창·남해향교 등에서는 중앙칸에만 문을 두고, 고흥, 교동향교 등에서는 중앙칸에는 문을 두지 않고 양측칸에만 문을 두고 있다. 충주향교도 7칸 건물로 중앙칸에만 문을 두고 양측칸에는 모두 창을 두고 있다.

측면에 창을 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합천·성주·김해향교에서는 격자창을 두고 있다. 후면에 창을 둔 경우는 성균관의 동·서무에서만 나타나는데 하방벽 상부에 빗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문에 사용된 창호 양식에는 대성전과 같이 세살문형, 판문형, 격자살문형, 빗살문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세살문형과 판문형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창의 양식은 사롱창, 격자창, 세살창, 쌍세살창으로 구분되고 성균관 후면 벽체에 사용된 빗살창도 있다.

제8장

동·서재

1. 동·서재의 평면형식
2. 동·서재의 규모
3. 동·서재의 구조.양식
   가. 기단과 초석
   나. 기둥. 공포
   다. 구조짜임
   라. 지붕형식

제8장 東·西 齋

동·서재는 유생들의 기숙과 학문연마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일반적 건축 양식은 살림집 형태를 취하고 교생수에 따라 건물규모에 차이를 두고 있다.

동재는 양반의 자제가 서재는 양민의 자제가 거처하는 장소로 통용되었으나, 향교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규모가 줄어 들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관리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동·서재는 명륜당 전면 또는 후면의 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하여 중정(中庭)을 이루는 배치형식이 일반적이다.

동·서 양재를 배치한 향교는 약130여 향교(전체의 약56%)를 차지하고 동재 또는 서재 한쪽에 만 두고 있는 향교는 약 30여 향교에 달하고 있는데 주로 동재를 취하고 있다.

동·서재가 대칭이면서 규모 및 평면형태가 서로 같은 재가 있는 반면, 규모는 같으나 평면형태가 다른 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동·서 양재는 대칭을 이루면서 평면형태 및 규모를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재의 배치는 대칭되면서 전면이 서로 마주보는 배치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균관·춘천·함열향교와 같이 건물은 대칭되게 배치하였으나 전면이 서로 외곽으로 향하여 배면이 맞보게 계획된 경우도 있다. 또 순천향교와 같이 동·서재를 대칭되게 배치하였으나 좌향(坐向)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계획된 경우도 있다.

동·서재를 배치하고 있으면서 삼척향교는 중재를 두고 있으며, 광양향교는 상재를 배치한 것이 다른 일반 향교와 달리 특이한 배치구성이라 할 수 있다.

1. 東·西齋의 平面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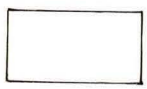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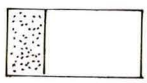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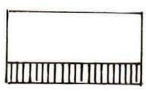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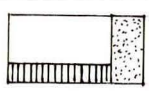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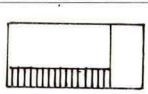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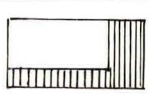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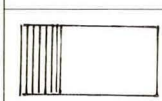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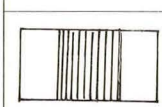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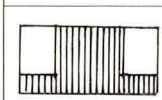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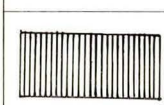
동·서재는 명륜당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격의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명륜당은 강론을 위한 대청 위주의 평면계획에 양쪽 또는 한쪽에 방을 두는 평면구성 이라면, 재(齋)는 유생들의 기숙을 위해 온돌을 둔 방을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향교의 다른 어느 건물보다 평면형식이 다양하게 계획된 것으로 볼 때 격식과 규범적인 성격이 희박한 자유스런 평면계획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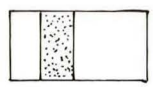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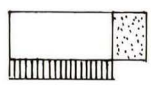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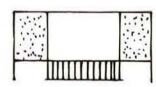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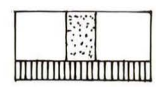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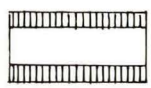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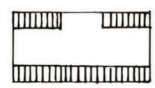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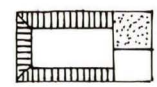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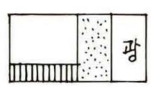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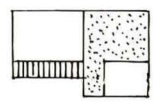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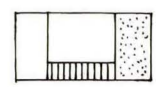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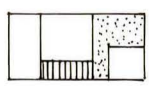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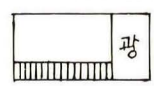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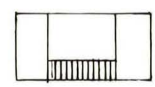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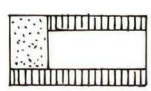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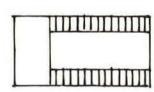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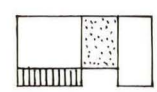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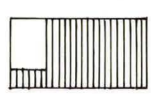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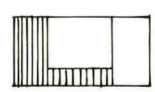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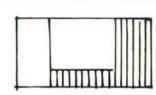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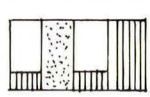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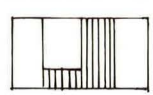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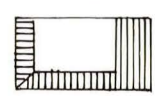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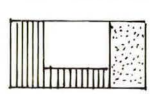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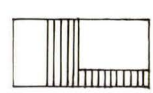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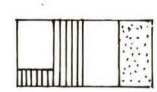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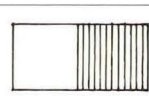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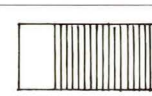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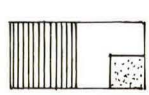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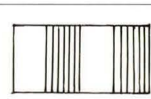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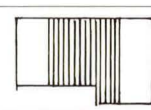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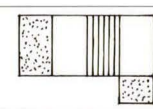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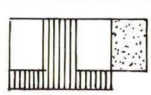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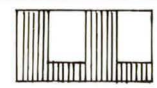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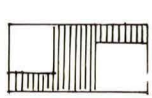
동·서재의 일반적인 평면구성은 온돌과 마루 부엌으로 구성된다. 평면형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온돌방 앞에 툇마루가 없는 형식과 툇마루가 있는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 · 서재의 평면형식〉

□ 방 ▥ 마루 ⁞⁞ 부엌

평면형식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교하 연천	삼척(중)	영춘(동)	온양(동)	남원(서)	무안(동),옥과(동) 구례,진도(동) 광양(서)	현풍(서),의흥(동) 의성(동),청하(동) 영덕(서),하양(서)
	양근(서)	정선(동) 삼척(동)	괴산(동)	아산(동) 해미(동)	금구		현풍(동),장기(동)
	성균관 남양	홍천(서) 원주(동)	청풍(동)	공주(동) 석성(동) 서천(동)	진안,장수 남원(동) 김제(서) 익산(동)	광주(서),낙안(서) 남평,화순,능주 곡성,옥과(서) 강진(서), 장흥 장성,완도(동)	봉화,군위(서) 안동(서),예안 경주,함창(동) 영주,순흥(동)
	인천(동) 파주(동) 평택	간성(서)	음성(서)	진잠 정산(서) 결성(동) 해미(서)	흥덕(서) 익산(서) 함열(서)	무안(서),보성(서)	풍기(서)
				부여(동)	운봉(동) 김제(동)	여수(서),완도(서)	흥해(동)
		인제			용담 운봉(서) 고창(동) 흥덕(동)	나주,해남(동) 여수(동),창평(서) 영광(동),고흥 강진(동),광양(동)	신령,함창(서) 문경(동)
				직산	고창(서)		자인(동),문경(서) 풍기(동)
							청도,창녕
	부평(서) 광주(서)				부안(제)		안동(동), 상주
		강릉(서)				광양(서)	

※(동)동재 · (서)서재, (동)(서)표기가 없는 것은 동 · 서재 동일 평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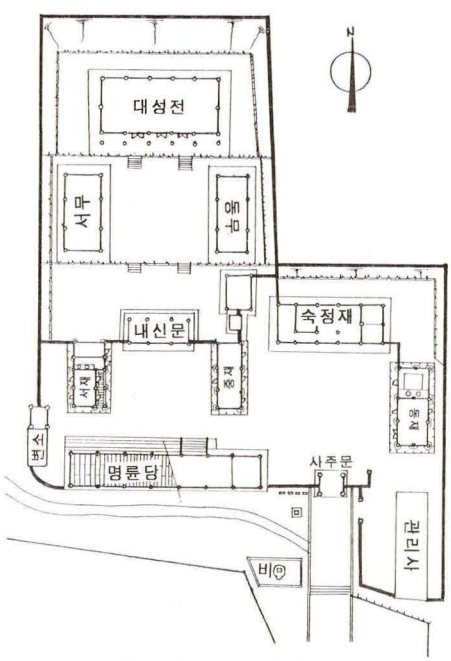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평 면 형 태 비 교
동래		
		 진도(서)
양산,울산,기장 김해,하동(서) 산청,함양		 광주(동)  영해  홍주  안성  함평  옥천(서)
		 삼척(서) 함열(동) 거제(서)  교동(동)  영덕(동)
		 은진(동) 무주  춘천 청풍(서)  서천(서)
진주,의령,함안 하동(동)		 금산  부안(서)  창평(동)
통영,고성		 원주(서) 창원(서)  양양 신창(서)  음성(동)
		 해남(서)  남해(동)  진보(서)
		 보성(동)  횡성(동)  군위(동)
		 영천,남평(동),언양(동) 하양(동),영산(동)  인천(서),지례(서) 횡성(서),정선(서)
		 강릉(동)
사천,단성(서)		 단성(동)  김포(동)  목천(동)
창원(동),곤양 거창,안의(동)		 부평(동)  순천  낙안(동) 밀양  안의(서)
	대정 (서)	※쪽마루가 설치된 평면 • 전면설치 : 연천,광양(동),청하(동),동래,장기(동),구례(서),영천,하양(동),풍기(동) • 전후면 설치 : 구례(동) • 전면 · 측면에설치 : 진도(동)

(가) 툇마루가 없는 형식

① 온돌방으로만 평면구성
② 온돌방과 부엌으로 평면구성
③ 온돌과 대청으로 평면구성
④ 대청으로만 평면구성

이 평면형식은 툇마루가 없으나 일부 향교에서는 전면 또는 전후면에 쪽마루를 둔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나) 툇마루가 있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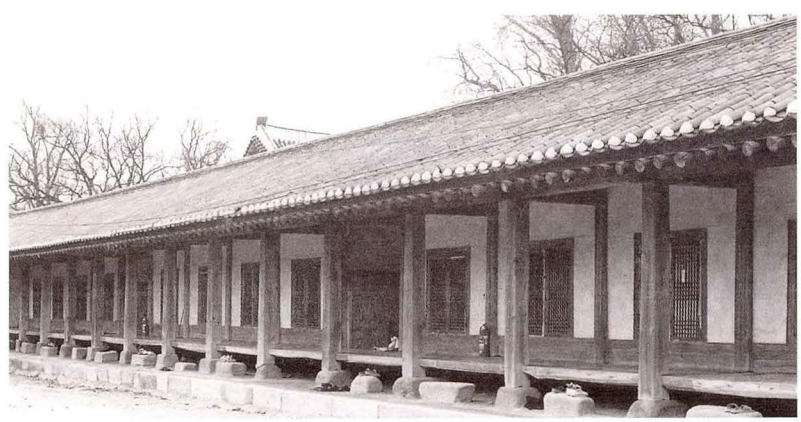


『삼척향교 배치도』

① 툇마루 후면에 온돌로만 평면구성
② 툇마루 좌측 또는 우측에 온돌이나 대청 또는 부엌을 둔 평면형식
③ 대청 좌우에 온돌을 두고 온돌 전면에 툇마루를 둔 평면형식

이상과 같이 온돌을 중심으로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고 대청과 부엌이 좌우에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재(齋)의 일반적인 평면형식이라 할수 있다.

마루칸 구성에서 대청을 방과 방사이에 두거나 바깥측에 두어 마루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창향교 동·서재와 같이 대청마루 한면 또는 3면을 벽체나 창호를 두지않고 외부와 개방하여 열린 공간을 형성하여 유생들의 교육적 기능을 도울 수 있게 계획된 향교도 많이 있다.



『성균관 동재』

2. 東·西齋의 規模

문묘구역의 동·서무 배치는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같은 규모의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재(齋)는 무(廡)와는 달리 동·서재가 대칭을 이루면서 평면형태나 규모가 같은 향교는 약 50개 정도의 향교에서만 취하고 대부분 달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의 규모는 3칸 내지 4칸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순흥향교 동재나 봉화향교 서재와 같이 2칸의 아주 소규모의 평면에서부터 전주·해남·밀양향교 등과 같이 6칸까지 다양한 규모를 취하고 있다. 또 부평향교의 동재는 부엌이 덧달린 부분이긴하나 7칸까지 취하고 있다.

성균관의 동·서재는 전후 퇴칸을 둔 정면 20칸 측면 3칸의 대규모 건물로 전면은 툇마루를 두고 그뒤에 온돌을 설치하였다.

김포·서산향교 등과 같이 ㄱ자형으로 평면을 취한 향교도 있다.

3. 東·西齋의 構造 樣式

재는 대성전이나 동·서무와 같이 제향의식이나 위계성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유생들의 기숙 기능만을 취하는 건물로 모든 면에서 소박한 구조양식을 취하고 있다.

가. 基壇과 礎石

동·서재의 기단은 대부분 자연석으로 1~2단으로 낮게 설치하고 있다. 장대석으로 가공된 기단을 설치한 경우는 극히 일부로서 동래·경주·나주·광주·직산·횡성(서재)·부안·간성(동재)향교 등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외벌대 내지 두벌장대로 설치되어 있다. 낮은 기단이 일반적이나 함창향교 동·서재는 지형적인 영향도 있겠으나 높은기단이 설치된 것이 특이하다.

초석도 기단과 같이 대다수의 재에서 규모면에서 큼직하지않은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균관을 비롯하여 원주·직산·인천·신창·직산·해남(서재)·옥과(서재) 향교등에서 일부 방형의 가공된 초석이 사용되고 부여·장수·나주·화순향교 등에서는 원형의 가공초석이 사용되었다. 김제향교는 방형과 원형이 혼재되어 사용되었고, 익산향교는 방형초석 위에 원형주좌를 두고 있다.

경주향교의 재에서는 원형, 방형 및 8각운두를 둔 초석이 혼재되어있고, 무안향교에서는 대성전이나 루건물에서 간혹 사용되는 장초석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고흥향교 서재는

〈동 · 서재의 평면규모〉

※(동) : 동재, (서) : 서재

	정면×측면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2칸	2×2							순흥(동),봉화(서)		
3칸	3×1	고양 포천 연천	영월 정선(서)		영산,덕산(서) 직산(동)	고창(서)	구례 광양(서) 진도(동)	현풍,의흥(동) 지례(서),진보(서) 문경(서),자인(동)	동래	
	3×2	남양 교하 평택	춘천 홍천 인제 정선(동) 삼척(동) 양구(동)	연풍 청풍 제천 음성(서)	진잠,서천(동) 해미(동),태안(서) 공주(동),정산(서) 결성(동)	진안,용담 장수,운봉 김제,익산 흥덕(서), 만경(서) 함열(서)	능주,동복 곡성,고흥 장성,장흥 완도 낙안(서) 여수(서) 보성(동) 영광(동)	예안,신령,상주 함창,영주,군위(서) 봉화(동)	진주,의령 양산,기장 고성,곤양 산청,함양 통영(동) 하동(서) 사천(서)	
	3×3	안성				부안(서)		금산		
	3×4								거제(동)	
4칸	4×1	양근	양양	괴산 제천(서) 영춘(동)	금산(서) 아산(동)	남원(서)		영천,하양,청도 영덕(서),청하(동) 장기(동)	창녕,영산 단성(서) 언양(동)	
	4×2	인천 파주(동)	원주 횡성(동) 간성(서)	음성(동)	서천(서),청양(동) 정산(동),당진(동) 결성(동)	임실(서) 고창(동) 만경(동) 함열(동) 무주(동)	광주,여수(동) 나주,무안(서) 남평,창평(서) 옥과(서), 광양(동), 보성(서)	영덕(동),군위(동) 의성(동)	함안,울산 김해,창원 통영(서) 하동(동) 안의(서) 남해,거제(서)	
	4×3		간성(동)	옥천(서)			화순,함평 강진(서)			
5칸	5×1					금구	무안(동) 진도(서)		단성(동)	
	5×2	부평(서) 광주(서)	강릉 횡성(서)		덕산(동),해미(서) 태안(동),당진(서) 신창(서),금산(동) 임천(서),홍주(동)	임피 임실(동) 남원(동)	낙안(동) 해남(서) 창평(동)	안동,영해,경주 용궁(동)	기장,안의(동)	
	5×3					무장	순천			
6칸	6×1				온양(동)					
	6×2				예산,신창(동)	전주	해남(동)		밀양	
7칸	7×2	부평(동)								
20칸	20×3	성균관								
ㄱ자형		교동(동) 김포		단양(동)	목천(동),서산 청양(서),태안(동)					

약 70cm 높이의 장초석을 설치하고 좌측은 대청을 두어 외부에 계자난간을 두른 것이 누양식(樓樣式)을 취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나. 기둥,공포

동 · 서재는 방형 기둥을 세운 것이 보편적이나 강릉 · 장수 · 경주 · 영천 · 동래 등 일부향교에서는 원주를 사용하고 있다. 간혹 원주와 각주를 혼용(옥천 · 광주 · 나주 · 청도 · 밀양)하여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전면이나 외곽에는 원주를 세우고 방이 구성되는 내부는 각주를 설치하기도 한다.

구조체의 짜임은 보통 공포가 없는 민가형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짜임방법이나 괴산 · 밀양(동재) · 강진(동재)향교와 같이 초익공 양식을 취한 경우와 부안 · 익산(동재)향교와 같이 이익공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장수향교와같이 화려한 익공구성으로 짜여진 경우도 있다.

다. 架構 짜임

재는 평면구성에서 툇마루의 유무에 따라 가구양식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측면 즉 도리칸이 1칸으로 구성된 경우는 3량 가구로 짜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2칸 이상인 경우는 퇴주나 고주를 두어 4량 또는 5량으로 짜여진다.

① 3량가구

퇴칸 즉 툇마루가 없는 경우는 맞걸이 3량으로 가구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구 방법이다. 전면에 퇴칸이 있을 때는 내진주를 두어 1퇴주 3량가구 형식으로 원주(동재) · 양양 · 김제 · 보성 · 진보향교등에서 적용된 경우이다.

② 4량가구

낙안 · 창평(서재)향교 등과 같이 3량가구의 전면에 퇴주를 둔 1퇴주 4량가구 형식과 廣州(서재) · 평택 · 光州 · 곡성(동재)향교와 같이 내부에 고주를 둔 1고주 4량가구로 구분된다.

③ 5량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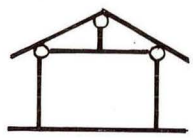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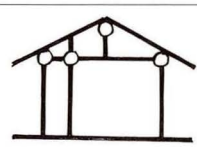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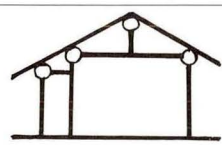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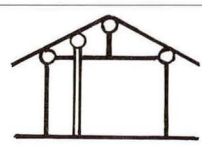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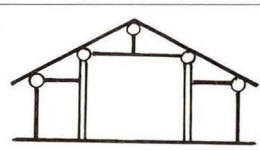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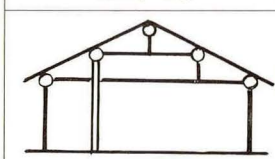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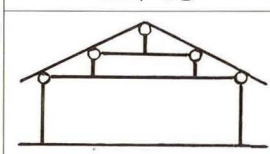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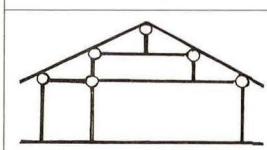
5량가구는 보통 전면 또는 전후면에 퇴칸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균관 · 안성 · 부안 · 화순향교 등과 같이 전후면에 퇴를 두어 2고주 5량으로 가구된 경우와 부평 · 춘천 · 나주향교 등과 같이 전면에만 퇴를 두어 1고주 5량으로 가구한 경우도 있다. 또 단양 · 운봉향교와 같이 평주를 설치하여 그 위에 다시 동자주를 올려 고주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다.

교하 · 강릉향교등과 같이 평오량으로 가구된 경우도 있으나 대개 퇴주와 혼용되어 가구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동 · 서재의 가구형식〉

양식	가구도	대 상 향 교
3량 가구	 맞걸이 3량	양근 정선 연산 금구 구례 청도 장기 사천 연천 삼척 아산 남원(서) 영산 지례(서) 동래 창녕 고양 영월 직산 남평 현풍 문경(서) 단성 포천 괴산 목천 옥과 의흥 청하 거창 원주(서) 영춘 고창(서) 진도 영천 자인 언양
	 1퇴주 3량	원주(동) 용담 보성 예안 함양 거제(서) 양양 김제 익산 진보 상주 문경(동)
4량 가구	 1퇴주 4량	낙안 신령 영광 창평(서) 정산
	 1고주 4량	廣州(서) 光州 곡성(동) 평택
5량 가구	 2고주 5량	성균관 부안 화순 안성
	 1고주 5량	부평 춘천 진잠 나주 함창 인천 교동 홍천 신창 장성 영주 파주(동) 인제 결성
	 평5량	교하 횡성 옥천 순천 강릉 무안 고흥
	 1퇴주 5량	단양 운봉 대정

라. 지붕 形式

강학구역내에서 명륜당은 팔작지붕이 주종을 이루고 맞배지붕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동·서재는 약 75%가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동·서 양재 모두 맞배지붕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 형태를 취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동·서 양재를 팔작지붕으로 처리된 곳은 당진·무장·통영향교 등 10여개 향교에서만 취하고 있다.

우진각지붕으로 된 곳은 임피·대정향교에서 취해지고 있다. 운봉향교의 동·서재도 우진각지붕이었으나 최근에 맞배지붕으로 바뀌었다.

동·서재의 지붕형식을 달리하는 곳도 일부 있는데 간성·청양·태안·면천·여수·해남·고흥향교 등에서는 동·서재가 각각 팔작지붕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으며, 옥과·장흥·남해향교는 동재가 맞배지붕 서재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있고, 문경향교는 동재가 팔작지붕 서재가 우진각지붕이다.

지붕양식에서 혼합된 양식을 취한 경우가 있는데 기장·하동·신창향교와 "ㄱ"자형으로 꺾인 형태를 취한 교동·단양향교에서는 맞배와 팔작지붕이 혼재한 경우이고, 남평향교 동재는 우진각형과 맞배지붕이 혼용된 양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의 처마는 거의 모든 재에서 홑처마로 구성되나 장수·익산(동재)향교의 재는 겹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재의 지붕형식〉

지붕형식	대 상 향 교	
맞배지붕	조사대상 향교의 약 75%를 차지함	
팔작지붕	양천.옥천(서).부여(동).당진.무장.흥덕 부안(서).만경.강진.순흥(동).의령.함안.통영	
우진각지붕	임피.대정	
맞배+팔작 혼합형	교동(서).단양(동).신창.기장.하동	
맞배+우진각 혼합형	남평(동)	
동·서재의 지붕 형식이 다른 양식 (동재 - 서재)	팔작-맞배	간성.청양.태안.면천.여수.해남.고흥
	맞배-우진각	옥과.장흥
	팔작-우진각	문경

※ 동(동재).서(서재)

제9장

내 · 외삼문

1. 내신문의 구성.
2. 외삼문의 구성
3. 내 · 외삼문의 평면구성
4. 내 · 외삼문의 구조양식.
5. 내 · 외삼문의 지붕형식

제9장 內 · 外三門

향교의 경역은 반드시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경역의 구분은 주변에 담장으로 경역을 조성하고 각 경역에는 출입문을 두어 경역을 구획하여 출입을 위한 기능적인 용도 외에 상징적인 의미도 함축한다. 즉 생자(生者)를 위한 출입 기능외에 사자(死者) 또한 출입한다고 보아 신문(神門)이라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문묘구역의 주된 출입문은 내삼문이라 하고 또한 제향의식을 위한 공간의 문으로 신문(神門), 신삼문(神三門), 묘삼문(廟三門) 또는 내신문(內神門)이라 불리기도 한다.

강학구역의 주 출입문은 외삼문이라 통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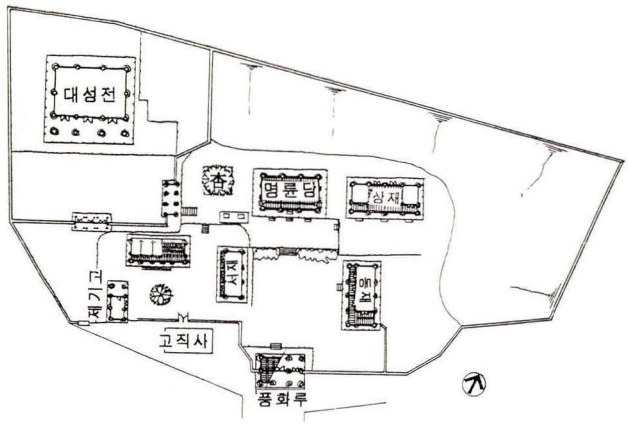
1. 內神門의 構成

문묘구역의 문의 구성은 단순한 출입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석전제향을 위한 의식기능에 맞게 격식을 따르는 문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내에 들어가서도 다시 신전(神殿)으로 들어가는 문을 따로 설치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며 정결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문이다. 신문이 세 개의 문으로 나누어 만들어 지는 것은 신의 출입과 사람의 출입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세개의 문중 중앙은 신문(神門) 양측문은 인문(人門)이라 하여 신문은 항상 닫아두는 것이 상례이고 제향의식 때에만 열어 놓는다.

인문은 열어 두어 참배객의 내왕을 허용하며, 중앙의 신문은 춘추제향이나 삭망참알(朔望參謁)때 열어서 헌관(獻官)만 출입하게 하고, 일반 제관은 동입서출(東入西出)이라 하여



『옥천향교 내신문』



『광양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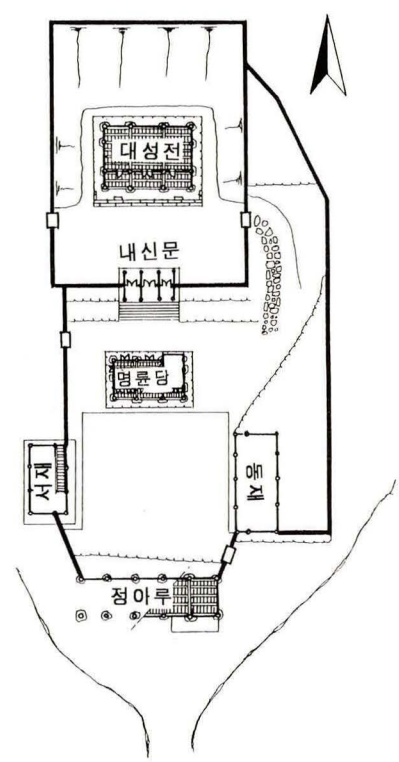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오도록 명시되어 있다. 신문의 배치 방법은 대성전 계단의 배치구성과 기능이 서로 상통하고 있다.

대성전 전면의 내신문은 설치방법에서 1개소에서 3개소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외신문의 이중문을 둔 경우도 있다.

대성전 전면 내신문의 일반적인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문 1개소 : 문의 설치는 보통 대성전 전면의 중심축에 맞게 1개소만 설치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구성방법이며 보통 정면3칸 측면 1칸의 삼문으로 구성되나 영산 · 통영 · 김해 · 신령 · 곡성향교와 같이 3칸의 일주문을 배치한 경우도 있다. 양지 · 개령 · 하동향교등과 같이 5칸, 간성 · 청주향교등은 7칸, 강릉 · 밀양향교는 9칸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오천 · 의흥 · 용궁향교 등은 사주문 내지 협문으로 내신문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입서출의 제향의식 기능상 동측이나 서측 또는 동 · 서양측에 별도의 협문이나 사주문을 두어 기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문 2개소 : 2개소의 문이 설치된 경우는 1개소의 문을 설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성전 중심축 전면에 삼문을 두고 그 좌측 또는 우측에 협문이나 사주문을 두는 경우이다. 동측 즉 우측에 문을 두는 형태는 제향절차에 따른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의식기능에 맞게 설치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향사준비를 위한 관리사와 긴밀한 동선유지와도 관계가 있다. 서측 즉, 좌측에 문을 설치한 경우는 대다수 관리사와의 동선상 필요한 문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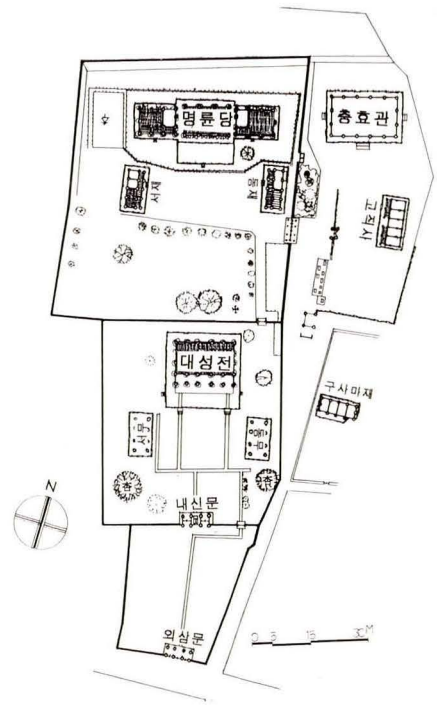


『정산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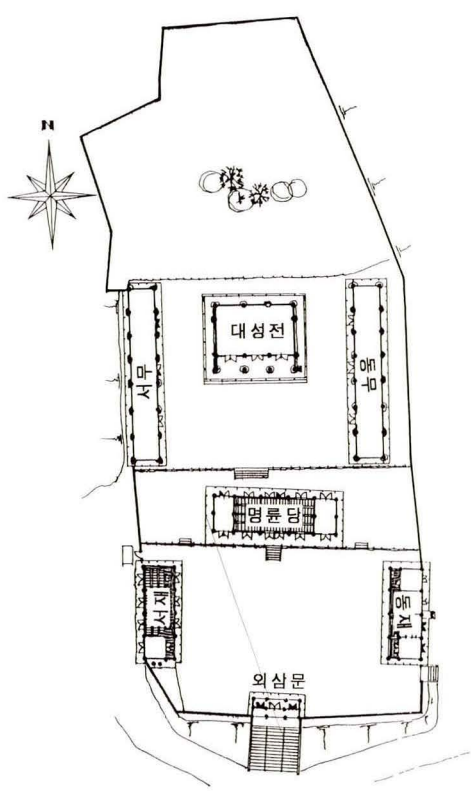
③ 문 3개소 : 3개소의 문을 두는 경우는 대성전 전

면 중앙에 삼문이나 사주문을 두고 그 좌·우에 사주문 또는 협문을 두는 방식으로 제향의식 기능에 맞게 좌우에 문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앙은 신문의 역할을 하고 좌우문은 동입서출의 의식기능을 위해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창원향교는 전면에 3개소의 협문을 배치하고 우측에 별도의 협문을 두었다.

④ 내·외신문의 이중문 : 전주·나주·함평·경주향교와 같은 전묘후학의 배치에서나 돌산·성주·동래·곤양향교등과 같이 좌묘우학 배치에서 간혹 설치되는 신문의 설치방법으로 내신문(內神門)과 외신문(外神門) 즉 이중(二重)의 신문을 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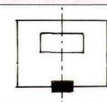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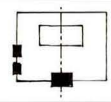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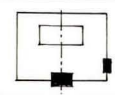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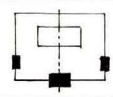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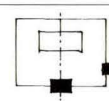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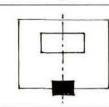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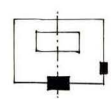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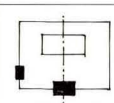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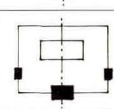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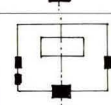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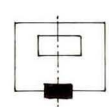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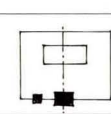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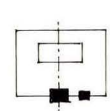
『나주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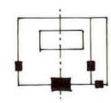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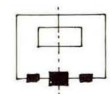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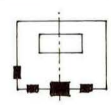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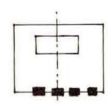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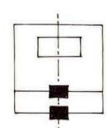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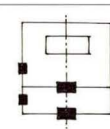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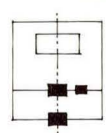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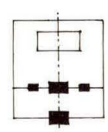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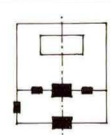


『원주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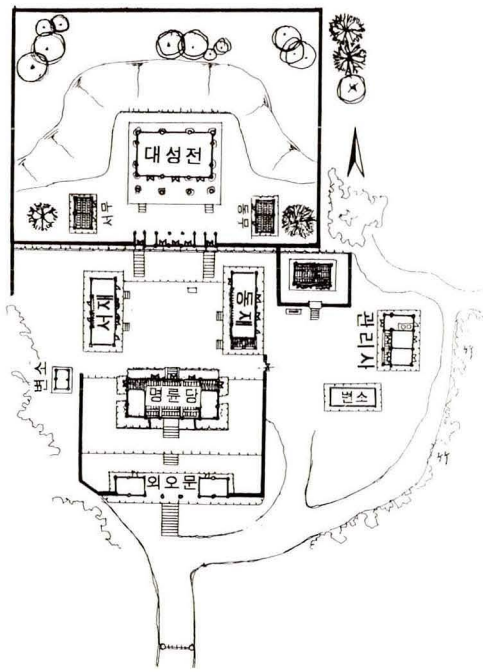
⑤ 신문이 없는 문묘구역 : 문묘구역은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천·적성·원주·영덕·영해향교 등에서는 신문이 없이 강학구역과 경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축대로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지형적 여건상 공간이 협소하여 구획상 문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묘 출입동선 배치유형〉

전면 출입동선			측면 출입 동선		배치유형	대 상 향 교
			좌측면	우측면		
문1개소	사주문(협문)		—	—		오천,의흥,용궁(우측에 배치)
			협문+협문	—		의성
			—	3칸문		화순
			—	협문		순흥
			사주문	사주문		창평,영주
	2칸문		—	협문		창녕
	3칸문	정면3칸측면1칸	—	—		· · · · · 약 135개소
		3칸 일주문	—	—		곡성,영산,통영,김해,신령
			—	사주문		고성
			—	사주문 (협문)		교동,삼척,홍주,대흥,담양,능주,영광,청도,영양,청송,경산,대구,연기,진산,부안,영암,장성,의령,대정
			—	3칸문		광양
			사주문 (협문)	—		이천,공주,무주,정읍,태인,함열,남평,예안
			사주문 (협문)	사주문 (협문)		성균관,횡성,정산,진도,정의,보은
			협문+협문	협문		제주
	5칸 3문		—	—		양지,개령,하동,청안
	7칸	5문	—	—		간성
		2문	—	—		청주
	9칸 3문		—	—		강릉,밀양
문2개소	3칸문+협문(좌측)		—	—		고양,장흥,고령
	3칸 일주문+협문(좌측)		—	—		거제,금산
	3칸문+사주문(협문-우측)		—	—		순창,풍기,평해,양양,낙안
	3칸문+동무1칸		—	—		남해
			—	—		천안

전면 출입동선			측면 출입 동선		배치유형	대 상 향 교
			좌측면	우측면		
문2개소	3칸문+사주문(우측)(협문)		협문	협문		광주(光州)
	사주문+사주문		—	—		정선
문3개소	사주문(협문)+3칸문+사주문(협문)		—	—		시흥,여수,강진,비안,단성
	사주문+3칸일주문+사주문		—	—		순천
	협문+사주문(협문)+협문		—	—		양주,양구,옥천,진잠,태안
			협문	—		부여
문4개소	(협문+협문+협문)+(협문)		—	—		창원
이중문	내신문	외신문	—	—		전주
	3칸문	루문				
	3칸문	3칸문	—	—		함평,경주
	3칸문	사주문	—	—		곤양
			협문+협문	—		성주
	3칸문+협문	3칸문	—	—		나주
	사주문+3칸문+사주문	3칸문	—	—		동래
	협문+3칸문+협문	사주문	협문	—		돌산
신문이 없는 향교						인천,적성,원주,철원,영덕,영해

2. 外三門의 構成



『단성향교 배치도』

강학구역의 문은 문묘구역의 문과는 달리 단순히 외부와의 출입역할을 할 수 있는 문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보통 1개소의 삼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누문(樓門)이 설치된 때는 누각 하부에 출입문을 두어 통행토록 하고 있다.

남원, 거창향교에서는 누문과 삼문 2개소의 문을 인접하여 두고 있으나 각기 명륜당과 대성전을 연결하는 다른 동선을 취하고 있다.

명륜당도 누문을 취하고 있는 횡성 · 강릉 · 회인 · 옥천향교에서는 2층 루각으로서 하부에 문을 두어 출입문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사주문이나 협문을 두어 외부에서 출입토록 한 경우와 동 · 서재나 관리사등의 1칸을 별도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강학구역의 출입동선 유형〉

칸수	문 구성	대 상 향 교
3칸	1문	문의,영광,영덕,영일,청하,장기,인동
	3문	조사대상 향교의 약120 개소
5칸	1문	영양
	3문	시흥,포천,서천,비인
7칸	3문	단성
협문 또는 사주문		양근,삼척,영동,음성,괴산,연기,당진,면천,해미,지도,창평,함평,의흥,예안,경주 경산,성주,풍기,대정
3문 +협문		전주,나주
누문	누문	안성,춘천,홍천,평창,영월,인제,진천,단양,정산,태인,부안,김제,금구,여수,돌산 곡성,광양,군위,의성,안동,영해,영천,자인,청도,선산,지례,순흥,봉화,동래,진주 의령,함안,함양,창녕,밀양,안의,양산,울산,김해,합천,통영,고성,곤양,하동,산청 삼가,초계
	명륜당	횡성,강릉,양양,회인,옥천
	누문+삼문	남원,거창
기 타		회덕,예산,아산,신창,목천,대구
출입문이 없는 강학구역		통진,강화,진위,가평,여주,이천,죽산,청송,흥해,칠곡,상주,울진

문묘구역은 반드시 외곽에 담장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강학구역의 일부 향교에서는 지형적인 여건 또는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출입문과 외곽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정비공사로 문과 담장으로 구획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3. 內·外三門의 平面 構成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의 출입문으로 설치된 문의 평면형은 1칸, 3칸, 5칸, 7칸, 9칸까지 구성되고 있다.

출입문의 평면구성 방법에는 문의 위치,벽체 구성방법 및 주변 담장과의 연결방법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① 3칸 평면형

문설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평면형으로 대부분 정면 3칸 측면 1칸이 사용되고 있다.

문의 설치위치는 보칸의 중앙에 간주(間柱)를 세워 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면의 기둥에 문설주와 인방을 두어 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흔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장성향교 내삼문과 같이 후면 기둥열에 문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벽체의 구성은 양측면에 벽체를 설치하는 경우와 각 칸마다 벽체로 구획한 경우도 있으나 출입문만 설치하고 벽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문의 전면 또는 후면의 한쪽에만 설치된 곳도 있다.

문과 담장과의 연결은 측면의 앞쪽 또는 중앙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풍, 괴산, 예천, 거창향교 내삼문이나 흥덕향교 외삼문과 같이 뒤쪽으로 연결된 예도 있다.



『신령향교 내삼문』

3칸으로서 일주문으로 건립된 삼문으로는 금산 · 순천 · 곡성 · 광양 · 청송 · 신령 · 영산 · 김해 · 통영 · 거제 · 고성향교 등에서 취해진 삼문으로 모두 내삼문에서만 일주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해향교의 내신문은 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좌우는 낮은 협문으로 중앙 문은 높게 일주문으로 설치되었는데 솟을삼문 형태를 느끼게 한다.

또한 가평 · 청산향교 내삼문은 중앙칸은 사주문으로 구성되고 양측칸은 일주문의 협문으로 연결된 삼문을 취하고 있다.

3칸으로 중앙칸에만 문을 설치하고 양측칸에는 방을 드린 예로 능주 · 청하 · 장기 · 인동향교등 일부 향교의 외삼문에서만 취해진 평면형이다.

이외에도 유사한 평면형으로 문의 설치방법,벽체구성,담장연결등이 특이한 면을 보이는 삼문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② 5칸 평면형

5칸의 평면을 취하고 있는 내 · 외삼문은 극히 일부 향교에서만 취해지고 있다. 내신문이 5칸을 취하고 있는 곳은 하동 · 양지 · 개령향교등이 있고, 외삼문으로 5칸의 평면을 취한 곳은 시흥 · 서천 · 비인 · 김해 · 포천 · 영양향교 등이 있다. 평면구성은 중앙 3칸에는 일반적으로 삼문을 설치하고 문 좌우에는 각기 방이나 광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내신문에 두고 있는 방은 주로 제기고나 전사청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③ 7칸 평면형

내신문으로 7칸의 평면형을 취하고 있는 곳은 간성 · 청주향교가 있는데 간성향교는 중앙에 3칸의 문을 두고 그 좌우에는 벽을 막아 다시 문을 설치하여 5칸에 문을 두고 있으며 양끝칸에는 각기 방을 두고 있다. 청주향교는 전면 중앙에만 문을 두고 문좌 · 우에는 홍살과 벽이 설치되고 우측에 별도의 문을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외삼문으로서 7칸 평면을 취한 곳은 단성 · 회덕향교에서 취하고 있다.

④ 9칸 평면형

강릉, 밀양향교 내신문이 9칸의 평면형을 취하고 있다.

회랑형식인 강릉향교 내신문은 중앙칸과 좌우 끝칸에 문을 설치하고 있으며 밀양향교 내신문은 중앙의 3칸에 문을 설치하고 그 외의 좌우 각칸은 벽체로 막았다.

⑤ 사주문 · 협문

문은 각 경역내에 진입하는 얼굴로서 3칸 이상의 격식을 갖춘 평면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내신문으로서 의흥 · 영주 · 순흥향교는 사주문을 용궁향교는 협문을 취하고 있다. 또한 양근 · 회인 · 음성 · 당진 · 지도 · 예안향교 등의 외부 출입문도 사주문을 취하고 있다.

4. 內 · 外三門의 構造形式

내 · 외삼문의 구조양식 차이는 거의 없다. 대체로 자연석의 기단위에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설치하여 상부가구가 짜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양식이다.

장대석의 기단을 설치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1~2단의 낮은 기단으로 구성되고 외삼문보다 내삼문의 기단이 장대석 기단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초석은 가공하여 설치된 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일반적이나 동래 · 태안향교 내삼문은 8각의 초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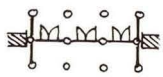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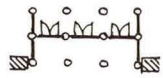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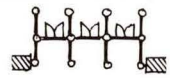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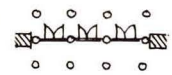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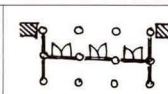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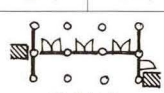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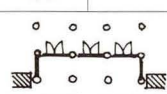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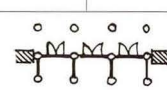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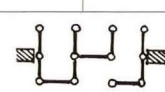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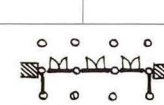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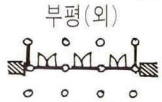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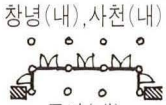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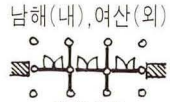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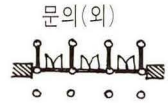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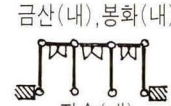
보통 내삼문은 성현을 봉사하는 문묘구역의 출입문으로 외삼문보다 구조양식면에서 격을 높여 건축되었다. 초석의 설치에서 외삼문은 일부 풍화루나 명륜당 같은 문루건물(門樓建物) 외에는 장초석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으나, 내삼문에서는 죽산 · 태안 · 흥덕 · 부안 · 무안 · 영암 · 진도 · 고흥 · 예천 · 동래향교 등에서는 장초석을 설치하여 건물의 격을 높였다.

기둥은 내 · 외삼문 모두 각기둥보다 오히려 원기둥을 세운 경우가 많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천 · 태안향교 내삼문과 같이 8각 기둥을 세운 경우도 있다. 또한 전면이나 중앙칸에는 원주를 세우고, 후면이나 양 협칸에는 방형기둥을 사용한 경우도 일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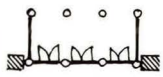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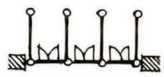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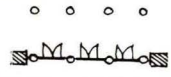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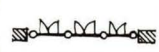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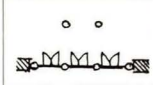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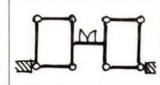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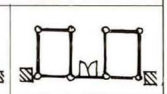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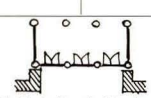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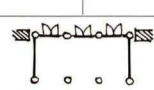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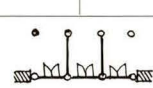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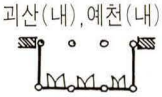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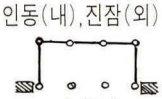
가구 구성에서 성균관의 삼문이 5량가구를 취한 경우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일주문이나 협문을 제외한 모든 내 · 외삼문이 3량가구를 취하고 있다.

가구짜임에서 일반적으로 공포가 없는 민도리집으로 짜여 있다. 보통 외삼문은 민도리집 가구가 일반적이나 양지 · 간성 · 고산 · 보성 · 고령 · 예천향교 등 일부 향교에서 초익공 양식을 취하고 있고 이익공 양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없는 반면에 내신문은 성균관,광주 · 임실 · 남평 · 대구 · 청도 · 진주 · 초계향교 등 상당수의 향교들이 초익공 양식을 취하고 있고, 태인 · 밀양 · 양산향교등은 초익공과 민도리 양식을 혼용하고 있고, 광주(廣州)향교는 초익공과 이익공이 혼용된 양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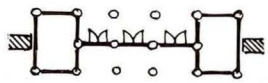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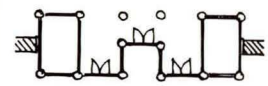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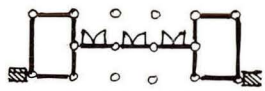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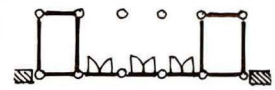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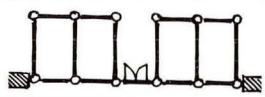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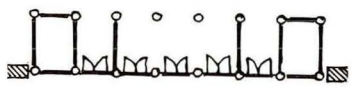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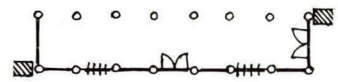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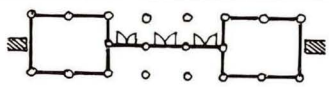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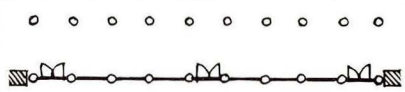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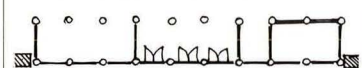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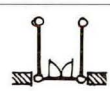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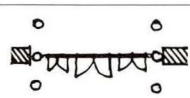
〈내 · 외삼문 평면형식(1)〉

	문의 위치, 벽체구성, 담장 연결 관계											
	중앙에 문을 설치한 3칸 유형											
평면형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서울 인천 경기	성균관 양근,여주	인천 이천	통진,죽산 고양,이천	양천,양지	남양,교동 용인,김포 포천,연천 강화,지평	남양,파주 김포,지평 교동,연천 양주	양천,양성 수원,파주	수원,교하 양성	부평,광주 시흥	적성		
강원			화천		인제			원주	영월			
충북	회인	청산	영동,청안 충주		황간,진천 제천	황간,연풍			문의		연풍	
대전 충남	공주,예산 노성,임천 홍산,청양	전의,서산 노성,홍산	회덕,해미 신창,홍주 아산,서산 온양	온양,금산	서천,정산	임천,홍산 직산			전의,부여 남포			
전북	전주,김제 순창,만경 고부,임피 용안	고산,임피 임실,고부	전주,무장 고산,흥덕 임실	고창,무장 익산,운봉	진안,함열 용담,무주	진안,함열	남원,고창 여산	무주,남원 정읍	태인			흥덕
광주 전남	남평,여수 돌산	나주,낙안 장성	광주,완도	담양,진도		무안,영암 함평	나주,장흥 무안,진도 영암	광주,남평 화순,장흥	낙안,고흥 담양,구례 동복	순천,구례 고흥		
대구 경북	경주	고령,김산		개령,예천			예안,성주		대구,영천 자인,풍기 현풍,칠곡 청하,경산 하양	진보,신령		
부산 울산 경남			동래,기장	사천,기장					진주,언양 울산	창녕,언양 거제,남해		
제주	정의	정의	대정									
유사 평면	 부평(외)		 창녕(내),사천(내)		 남해(내),여산(외)		 문의(외)		 금산(내),봉화(내)			
	 경주(외)		 곤양(내)		 廣州(외)				 장수(내)			

(내 : 내삼문, 외 : 외삼문)

유 형													
전면에 문을 설치한 3칸 유형						일주문형				방 둔 경우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교하,진위	안성					가평					
홍천,평창 양양,횡성 삼척	화천			춘천									
보은,청풍 충주	청주,청풍 보은	제천,단양	청풍					청산					
당진	공주,천안 석성,보령	직산,목천		덕산	청양	금산							
장수	순창		용담,장수	익산									
화순	해남,보성	옥과,함평 지도		해남,영광 능주,강진	옥과,강진 완도	순천,곡성 광양					능주		영광
비안,청도 안동,영양 문경	현풍,비안 문경,함창	군위,연일 선산	하양	진보,울진 장기	평해	청송,신령					청하		영일 장기 인동 영덕
의령,안의 합천,삼가 칠원,초계 단성,함안	거창	양산	영산	함양,산청		영산,김해 통영,거제 고성							칠원
 함창(내)지례(내)		 괴산(내),예천(내)		 인동(내),진잠(외)		 평해(내)							
 평택(내,외),고령(내)		 거창(내)		 장성(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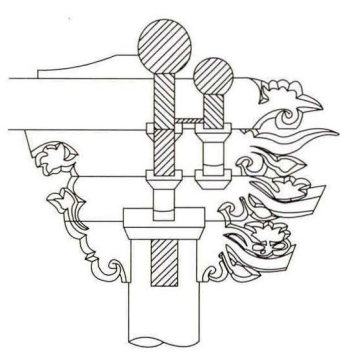
〈내 · 외삼문 평면형식(2)〉

	평 면 형	대상향교	평 면 형	대상향교
5칸		하동(내),시흥(외) 서천(외),비인(외) 김해(외)		포천(외)
		양지(내)		개령(내)
		양양(내)		
7칸		간성(내)		청주(내)
		단성(외)		회덕(외)
9칸		강릉(내)		밀양(내)
사주문		(내) - 의흥,영주 (외) - 회인,음성 오천,면천		(내) - 용궁(협문) (외) - 양근,당진 지도,예안
		순흥(내)		

이익공양식을 취하고 있는 향교는 괴산 · 光州 · 곡성 · 장성향교 등이 있는 반면에 동래 · 거창향교에서는 외1출목을 둔 익공양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남지역의 영산 · 김해 · 창원 · 거제 · 고성향교 등 취해진 일주문 양식의 내신문은 2출목 내지 3출목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일주문 양식을 취한 순천향교의 중앙부의 신삼문은 맞배집의 솟을삼문으로 어칸은 출목을 둔 다포양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며 겹처마로 연목과 부연을 한부재로 치목하여 걸친 것이 주목된다.



『동래향교 외삼문 공포』

처마구조는 대체로 간단한 홑처마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나 겹처마로 된곳도 많이 있으며, 전면에는 겹처마 후면에 홑처마로 구성하여 전후면의 처마양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솟을문인 경우 중앙의 어칸은 겹처마로 좌우 협칸에는 홑처마를 취한 경우도 간혹 있다.

〈내 · 외삼문 공포형식〉

	공포구성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내삼문	민도리	부평,수원 김포,강화 고양,파주 포천,지평 안성,죽산 평택,진위	춘천,횡성 양양,화천	청산,충주	정산,홍주 온양,목천	남원,정읍 김제,함열 운봉,장수	나주,낙안 여수,돌산 담양,능주 보성,강진 완도,진도	현풍,의흥 예안,진보 영천,성주 인동,선산 문경,예천 평해	동래,의령 창녕,언양 사천,곤양 남해,하동 산청,단성 함양,합천 함안	대정
	초익공	성균관 양지,용인 연천,여주	간성,삼척		예산	임실	남평,옥과	대구,자인 청도,칠곡	진주,울산 안의,거창 삼가,초계	
	초익공+ 이익공	광주								
	초익공+ 민도리					태인			밀양,양산	
	이익공			괴산			곡성,장성 광주			
	주심포							경산(외1) 거제(3출목) 고성(3〃) 거창(1〃)	동래(외1출목) 영산(외2〃) 김해(외2〃) 창원(3출목)	
	다포						순천			
외삼문	민도리	인천,부평 수원,시흥 김포,교동 파주,포천 광주,평택	원주,화천	충주	공주,아산 온양	진안,임실 남원,운봉 고창,함열	나주,남평 순천,낙안 담양,옥과 영암,강진	인동,개령 문경,진보	칠원,창녕 영산,언양 김해,거제 사천,남해 단성	
	초익공	양지,양주 이천	간성	청안		고산	보성	고령,예천		

5. 內 · 外三門의 지붕形式

삼문의 형식에는 크게 솟을삼문과 평삼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붕형식은 대다수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을 취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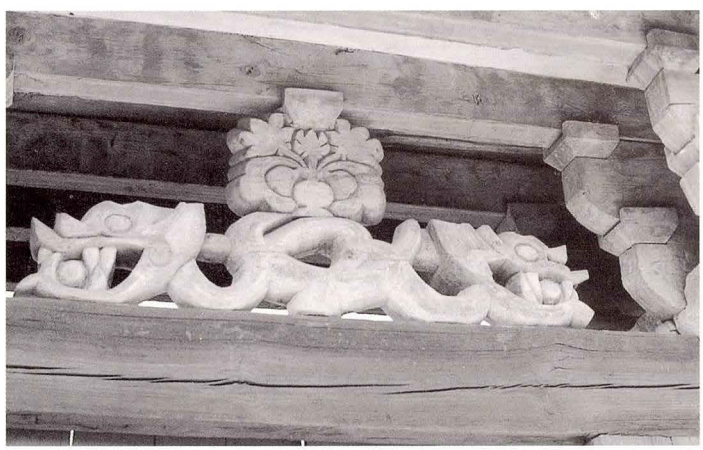
삼문에는 문묘경역으로 통하는 내신문과 강학구역으로 통하는 외삼문이 각구역의 기능성격상 지붕양식이 몇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고성향교 내삼문 전경

① 내 · 외삼문을 모두 맞배지붕의 솟을삼문을 취한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지붕형식이다.
② 내삼문은 맞배 평삼문, 외삼문은 맞배 솟을삼문 취한 형식
③ 내삼문은 솟을삼문을 취하고 외삼문은 루문을 취한 형식
④ 내 · 외삼문을 모두 맞배 평삼문 형식
⑤ 내삼문은 평삼문,외삼문은 루문을 취한 형식
⑥ 내삼문은 맞배지붕의 솟을삼문, 외삼문은 맞배 평삼문의 형식을 취한 곳으로 양천 김포 · 고산 · 낙안 · 완도 · 연일 · 정의향교 등에서 취해지고 있다.

이외에 내삼문이 팔작지붕을 취한 곳으로 춘천 · 장성 · 함안향교 등이 있고 나주 · 대정향교에서는 우진각지붕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광주(廣州)향교 내삼문은 솟을삼문으로 어칸은 이익공양식의 겹처마에 각재의 연목을 걸친 우진각지붕이고 양협칸은 초익공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특이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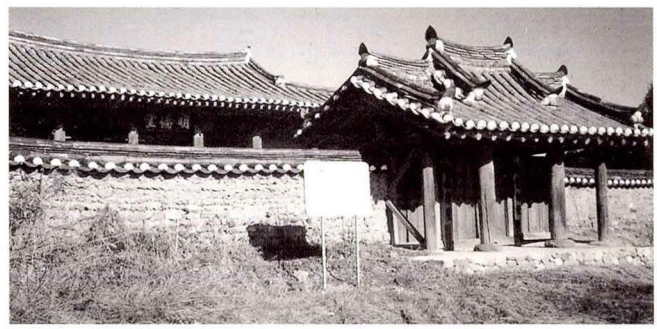
『고성향교 내삼문 용형상 장식』

외삼문으로서 팔작지붕 형식을 취한 곳은 간성 · 무장 · 완도 · 평해, 김해향교 등이 있으며 영산향교는 솟을지붕의 팔작지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청하 · 거제향교는 우진각지붕이다.

이외에 특이한 지붕구성 향교는 단성향교 내신문으로 중앙에 맞배형의 평삼문과 좌우 양측에

도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으나 측면으로 출입토록 구성한 H형의 지붕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진보향교 외삼문은 솟을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한구조체로 구성한 솟을형 평삼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태안향교 내삼문은 맞배형의 솟을지붕으로 연결되었으나 하부의 구조체는 서로 결구되지 않고 별동으로 분리된 3동이 결합된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동간의 분리된 공간을 벽체로 막아 한건물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서울문묘 내신문에는 용마루에 양성을 바르고 취두를 설치하였으며, 수원향교의 외삼문에도 취두를 얹은 것이 주목된다.



『진보향교 외삼문』



『순천향교 내삼문』



『거창향교 외삼문』

〈내 · 외삼문의 지붕형식〉

내삼문	외삼문	서울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 울산 경남	제주
맞배 솟을삼문	맞배 솟을삼문	수원,남양 교동,고양 파주,포천 지평,광주 양지,평택 여주	화천,삼척	문의,보은 청풍,영춘	회덕,전의 임천,서천 청양,대흥 온양	진안,용담 장수,임실 운봉,고부 만경,함열 여산	순천,해남 담양,능주 옥과,보성 영암,강진 고흥,장흥 진도,구례	금산,개령 문경	칠원,창녕 영산,밀양 기장,남해	
	맞배 평삼문	양천,김포				고산	낙안,완도	연일		정의
	누문	안성	춘천,홍천 횡성,창평 강릉,양양 영월	단양,영동	정산	태인,김제 금구	여수,돌산 곡성,광양	선산	진주,통영 고성,하동 함양,삼가	
	팔작		간성			무장	완도		영산 (솟을팔작)	
맞배 평삼문	맞배 솟을삼문	부평,시흥 교하,양성		연풍,충주	아산,직산	남원,순창 임피	무안,장성	비안,영양 진보,신령 하양,고령 함창,장기	언양,사천 단성	
	맞배 평삼문				공주,홍주	고창,흥덕 옥구	광주,나주 남평,화순 영광,함평	현풍,경주 인동,청하	동래	
	누문							영천,청도 지례,순흥 자인	동래,의령 양산,울산 곤양,산청 안의,합천 초계	
	팔작							평해	김해	
	우진각								거제	
	기타							청하(모임)		
팔작	( )	광주 < 팔작+우진각 (솟을 삼문)		춘천 < 팔작 (누)			장성 < 팔작 (솟을삼문)		함안 < 팔작 (누)	
우진각	( )									대정 (협문)
솟을삼문		통진,강화 가평,양근 여주,이천 죽산		회인	결성,덕산 신창	용안	동복	풍기,울진		제주
평삼문		성균관,진위		괴산	해미,당진 면천,목천	부안	지도	대구,예안 청송,경산 성주,칠곡 상주,영주 봉화,평해	김해	
	솟을삼문	인천,적성 양주	정선,원주		진잠,부여					

제10장

향교관련 기타 건물

1. 계성사
2. 제기고
3. 전사청
4. 존경각
5. 향관청
6. 비천당
7. 정록청
8. 육일각
9. 양사재
10. 사마재
11. 홍살문
12. 주사(교직사)

제10장 鄕校關聯 其他建物

1. 계성사(啓聖祠)

마장춘길(馬場春吉)의 『孔子聖蹟志』에 의하면 계성사(啓聖祠)란 원래 중국 명나라의 가정(嘉靖) 9년(1530) 국자감안에 건립되어 공자의 아버지 숙양흘(叔梁紇)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다가 그후 청나라 옹정 원년(1723)에 오성(五聖)의 부친을 왕작(王爵)에 봉해서 합사(合祠)한 후에는 그 명칭을 숭성사(崇聖祠)로 바꾸었다고 한다.

공자묘 건축에서는 숭성사의 위치가 대성전 후방에 배치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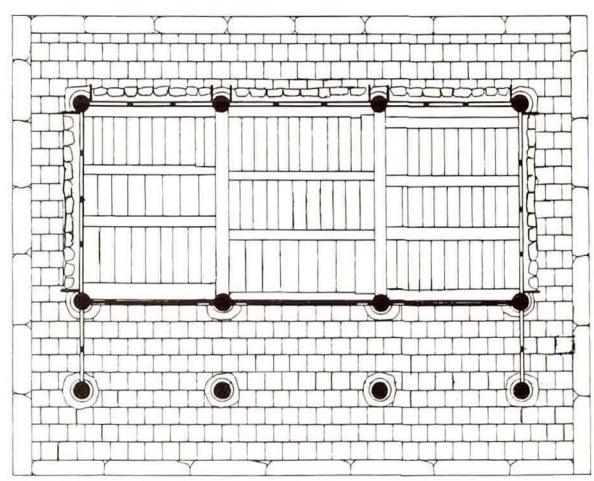
계성사는 문묘 대성전에 봉안되는 5성의 선고위패(先考位牌=父位)를 봉안하는 곳으로 제향된 위패는 다음과 같이 봉안하고 있다.

주향(主享)으로 공자의 아버지－제국공 공숙량흘(齊國公 孔叔梁紇)
동배향(東配享)으로 안자의 아버지－곡부후 안무요(曲阜侯 顔無繇)
자사의 아버지－사수후 공리(泗水侯 孔鯉)
서배향(西配享)으로 증자의 아버지－채무후 증점(萊蕪侯 曾點)
맹자의 아버지－주국공 맹격(주國公 孟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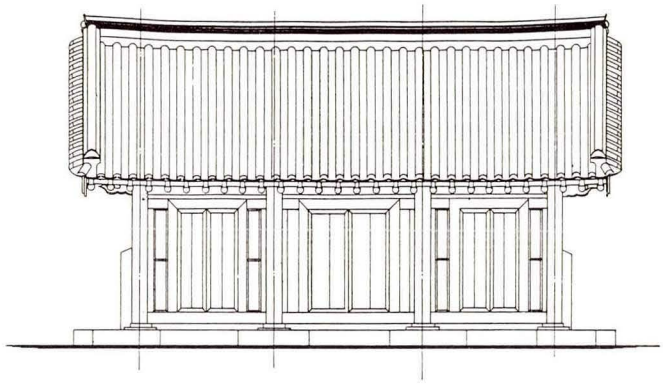
계성사의 향사는 석전제 전날밤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선조7년(1574) 조헌(趙憲)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본뜬 것이다.

현재 계성사가 있는 곳은 전주, 제주향교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없으졌으나 성균관에서는 광복후 성균관대학교를 지으면서 헐리고 향사의 예도 폐하게 되었다. 나주향교도 계성사가 있었음이 『羅州鄕校誌』의 향교전도에 나타나고 또 『조선고적도보』에 의하면 계성 성균관에도 계성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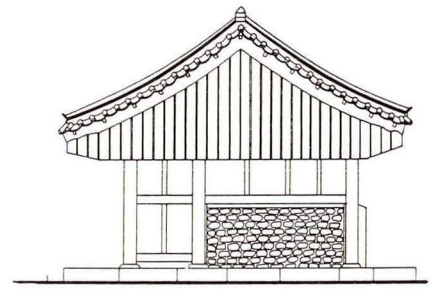
『增補文獻備考』에 「英祖十五年命 諸道州府大邑 待年豊계建 啓聖詞」의 기록으로



『전주향교 계성사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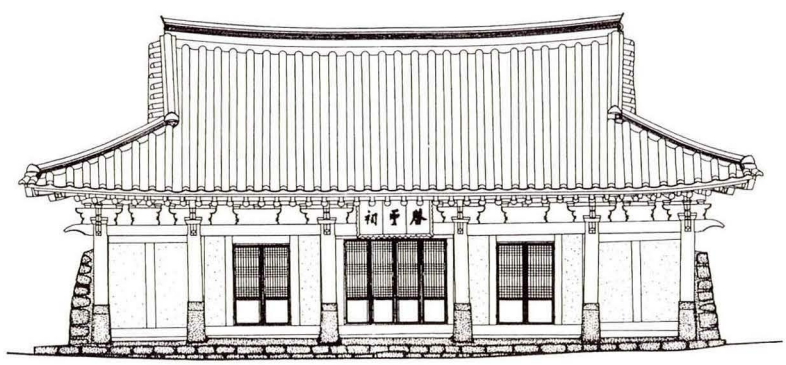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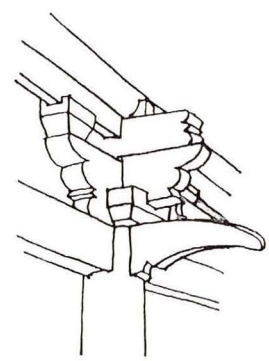
『전주향교 계성사』

보아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주부대읍(州府大邑)의 향교에서는 계성사의 건립을 명하였으나 실제로 계성사가 건립된 향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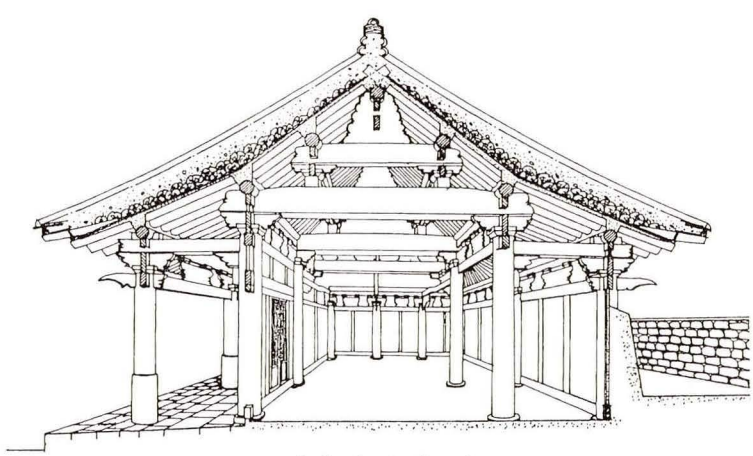
계성사의 배치는 외곽에 담장을 두르고 전면에는 삼문을 설치하여 일정경역을 조성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제주향교가 5칸평면, 성균관 · 전주 · 개성 성균관은 3칸을 취하고 있으며 모두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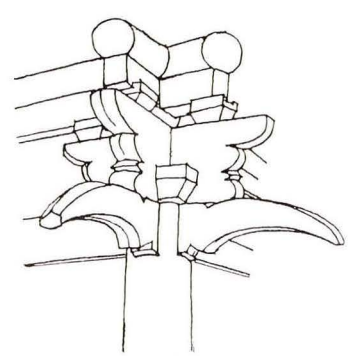
〈정면도〉



〈평주익공〉



〈실내투시도〉



〈귀포익공〉

『제주향교 계성사』〈자료 : 제주향교 실측 조사보고서〉

2. 제기고 (祭器庫)

제기고란 문묘향사에 필요한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장소로 20여 향교에서 제기고를 두고 있는데 성균관의 배치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문묘구역의 대성전 좌측면에 배치하고 있다. 해남 · 하양 · 거제향교 등에서는 대성전의 우측면에 배치되었으나 같은 제향기능인 전사청, 증반실 등이 좌측에 배치되어 대칭되게 배치하고 있다.

교동 · 청풍 · 광양 · 안의향교 등에서는 강학구역의 측면에 제기고를 배치한 경우도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 일반적이며 기능을 위주로 마루를 깔아 간결하게 건축된다. 구조 양식은 민도리 형식의 3량가구로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구성되고 창호는 넌출문이나 판장문을 달고 있는 곳이 일반적이다.

3.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이란 제례 전날 제수용품(祭需用品)을 장만하여 보관하고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석전대제때 문묘향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생(犧牲)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성균관, 영천 · 경주향교 등을 비롯하여 20여 향교에 배치되고 있다.

전사청, 제기고 등은 성균관의 배치법에 따라 문묘구역의 좌측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묘구역 밖의 강학구역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그 기능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 문묘구역의 우측공간은 제향을 위한 사람이 출입하는 생(生)의 공간이고, 좌측공간은 신(神)을 위한 사(祠)를 준비 수행하는 사(死)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평면은 마루방과 온돌방이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마루방은 제기고의 역할을 겸용하는 경우가 있다.

4. 존경각 (尊經閣)

존경각은 장판각(藏板閣),경판고(經板庫), 경각(經閣)이라 불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 선현들의 사상 문집등의 목판이나 서책등 도서를 펴내고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 역할을하는 건물로 성균관, 공주 · 경주 · 언양향교 등에서 강학구역 내에 배치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무나 서무의 한곳을 존경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경판고라 부른다.

주로 통풍이나 방습을 고려하여 마루를 깔아 통풍이 잘 되도록 기능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건축되고 단청은 하지 않고 백골집으로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5. 향관청(享官廳)

대성전에서 석전대제를 지낼 때 쓰이는 갖가지 도구(道具)와 의복(衣服)등을 보관하던 장소 즉 제관들이 제계(齊戒)하고 향축(香祝)을 보관하는 곳이다.

6. 비천당(丕闡堂)

비천당은 성균관에만 존재하는 건물로, 당호는 주희(朱熹)가 말한 "큰 도를 밝힌다(丕闡大猷)" 라는 뜻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소과(小科) 및 대과(大科)를 행할 때에 응시자가 많으면 명륜당과 합하여 2개소에서 과거를 시행하였던 곳이다. 1950년 6.25때 소실 되었던 것을 1988년에 복원하였다.

7. 정록청(正錄廳)

정록청은 성균관에만 존재하는 건물로 성균관 관원의 사무실이다. "정록(正錄)이란 학정(學正), 학록(學錄)이라는 뜻으로 설립 초기에는 각종 과거응시자들의 예비심사와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임란이후에는 이러한 기능은 폐지되고 관내의 서무(庶務)만을 담당하였다.

8. 육일각(六一閣)

영조 19년(1743)에 성균관에 건립된 건물로 활과 화살, 대사례(大射禮)에 사용하는 각종 기구(器具)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射) 즉 궁술(弓術)은 육례(六禮 : 禮, 樂, 射, 御, 書, 數)의 한 과목으로 활쏘기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방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수양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뜻에서 육일각이라 명명한 것이다.

9. 양사재(養士齋)

양사재란 향교가 관립인데 비해 사립으로, 향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지방교육기관으로 인재 양성에 뜻이 있는 지방 수령의 주선 혹은 유림들의 발의 합력으로 향교에 이웃해서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장소로서 설립되어 조선후기에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운영에는 재임(齋任)과 재생(齋生)이 있었으며 재임은 향교 기능과는 별도로 선출되고

그 지방의 양반이 담당하며, 재생은 군 현의 형편과 양사재의 경제 정도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어 대개 양반 자제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켰다. 즉 향교를 대신하는 교육기관으로 주로 과거 준비기관으로 존재하였다.

주로 강학구역에 인접하여 배치하거나 별도로 경역을 구획하여 조성된 경우도 있다.

양사재가 배치된 향교는 주로 전라도 지역의 10여개 향교에서 배치하고 있다. 고창향교에는 강학구역 좌측에 별도로 3칸 팔작집으로 중앙칸에 대청을 두고 좌측에는 양사재, 우측에는 사마재의 현판(懸板)이 걸려 있어 동일 건물에 두 성격의 기능을 위해 건축되었음이 특이하다.

명칭은 양사재 외에 흥학재(興學齋), 사교재(四敎齋), 육영재(育英齋), 대영재(待英齋)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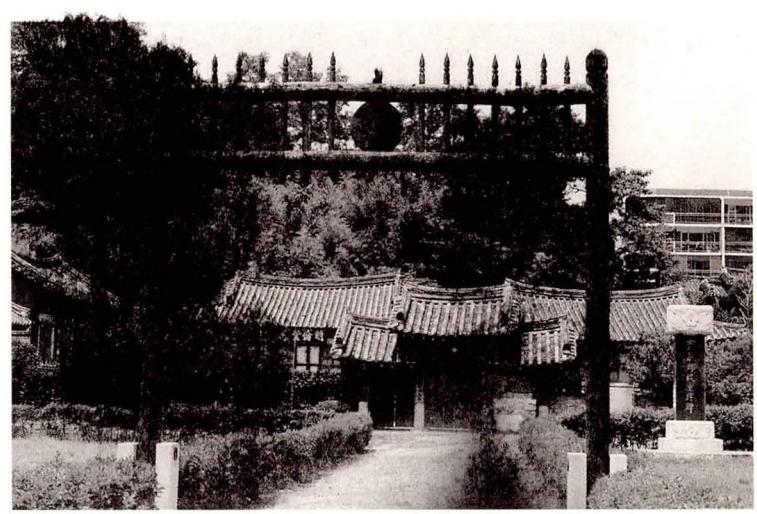
10. 사마재(司馬齋)

성균관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사마시(司馬試) 급제자인 그 고을 출신의 생원(生員) 진사(進士)들의 교육장소로 교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교에 인접하여 별도로 건립되었는데 군·현의 생원 진사의 배출정도에 따라 건립되었다. 일반적으로 양사재와 사마재는 향교의 교육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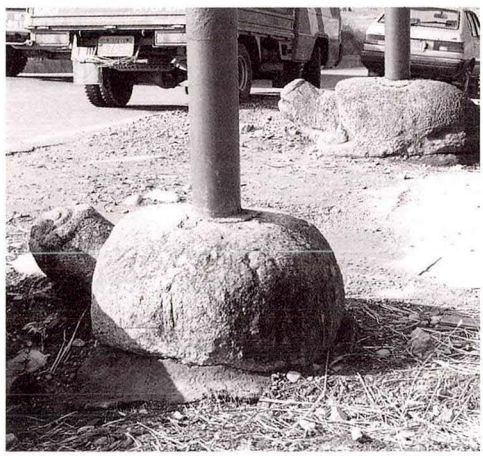
영천향교의 입구 좌측에 위치한 삼일재(三一齋)는 맹자가 "부모형제가 다 건강하여 걱정없음이 첫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 봐서 부끄러움 없음이 둘째 즐거움이요, 세상의 뛰어난 재주꾼을 교육함이 셋째 즐거움이라"고 하신 삼락(三樂)중의 하나, 즉 교육함을 즐겁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고을의 큰 선비 즉 대소과(大小科)에 등과한 분들이 후진을 장학(奬學)하는 곳이다. 삼일재를 일명 사마소(司馬所)라고도 하니 사마는 생원과 진사를 총칭하는 말이다.

11. 홍살문(紅箭門)

문묘는 유학의 상징으로서 앞에는 신성한 성역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홍살문이 있고 그 앞에는 하마비가 있다. 위치는 대다수 향교의 입구 정면에 두고 있으며 대략 거리는 30~100m 내에 위치하는데, 심지



『영암향교 홍살문』


『영춘향교 홍살문 거북초석』

어는 200~300m정도 떨어져 둔 곳도 있다.

왕도 향교앞을 행차할 때는 하마(下馬)하거나 하가(下駕)해야 했으며, 감사(監司)가 군현을 순역할 때나 수령이 도임할 때에는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례로 문묘의 알성이었다.

성균관의 진사식당 남쪽에는 장대석 이중단으로 하연대(下輦臺)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군왕(君王)이 문묘에 거동할 때 타고온 수레 즉 연(輦)을 내려놓는 곳으로 지방 향교의 홍살문 앞 하마비와 같은 성격의 단이라 볼 수 있다.

12. 주사(廚舍 : 校直舍)

주사는 고직사(庫直舍) 또는 교직사(校直舍)라 하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로 지칭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문묘향사때 필요한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기숙하는 선생과 교생의 숙식을 지원하고 향교의 관리 및 제반살림을 맞아보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다. 옛날에는 향교 노비들도 이곳에서 기거하며 생활하였다.

건물구성은 거의 모든 향교가 일반 민가의 살림집 형태로 배치되고 있다. 배치위치는 보통 강학구역 밖의 좌측이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역밖의 입구 전면에 배치되기도 하고 강학구역내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제11장

향교내의 석물

1. 성생단
2. 창홀대
3. 정료대
4. 관세대
5. 망료대
6. 하마비
7. 탕평비
8. 기타 비석

제11장 鄕校內의 石物

향교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은 제향의식때 절차상 필요한 석물이 주로 설치되고 또한 교육의 기능상, 경계, 위엄, 업적의 표석 등 여러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1. 성생단(省牲壇)

성생단은 생단(牲壇) 또는 성생석(省牲石)이라고도 하는데 제향때에 제수(祭需)로 쓰이는 생물(牲物)을 검사하기 위해 세운 단(壇) 즉, 생간품(牲看品)을 행하기 위한 제단(祭壇)이다. 생간품이란 향사 전날 제관들이 제물로 살아 있는 짐승을 이 단위에 세워놓고 품평을 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단(祭壇)의 형태는 단순하여 돌로 정방형의 낮은 단을 쌓기도 하고, 가구식으로 6각형 단을 쌓기도 하며 때로는 토단(土壇)으로 주변 지반보다 약간 높게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설치위치는 보통 내신문 앞 또는 명륜당 측면 등 일정한 위치는 없다.

생단에 올려놓는 희생(犧牲)으로는 보통 소를 쓴다.

희생이란 생뢰(牲牢), 전희(奠犧)라고도 하는데 천지신명이나 문묘제향, 종묘에 제사를 올릴 때 제물로 바쳤던 소등의 짐승을 뜻한다.

희(犧)와 생(牲)은 약간 다르다.

희(犧)는 소〈牛〉의 기운〈羲〉이라는 뜻으로 제향 때 소를 바침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소의 기운을 누리게 하도록 위함이었는데 희(犧)는 야위었거나 옴에 걸리지않고, 얼룩반점이나 잡털이 섞이지 않는 순색의 소를 뜻한다.

생(牲)은 소(牛)중에서도 살아 있는(生) 소를 뜻한다. 즉 소를 잡아 고기를 바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를 바쳤다는 뜻이다. 다만 암컷은 바치지 않고 튼튼하고 우람한 수컷만을 골라 바쳤다.

그런데 희생에는 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생(三牲)」이라하여 양이나 돼지도 제물로 쓰곤 했다. 그러나 『牧民心書』에 '시중에서 양이나 돼지를 사다가 희생으로 써서는 안된다' 고 하였으니 제물감으로 정성들여 키운 희생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제물로 써온 소, 돼지, 양을 영검스러운 동물로 여겨 성수(聖獸)로 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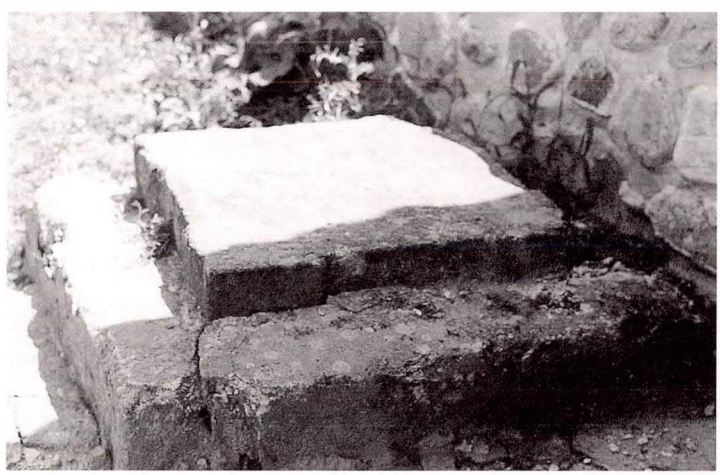
더욱 놀라운 것은 가축 대신 「사람」이 희생이 된 고사(古事)도 있었다. 중국의 하(夏)나라의 폭군 걸(桀)왕을 정벌한 탕(湯)왕은 은나라를 세웠다. 천하를 다스렸지만 무려 5년동

안의 한발로 백성의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는 자신이 직접 희생이 되어 기우제(祈雨祭)를 올렸다. 머리를 깍고 사지를 묶은 다음 희생이 되어 제단 위에 섰다. 그의 정성에 감격한 천신이 큰 비를 내렸음은 물른이다. 이 때부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제물, 명예등을 기꺼이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게 되었다.

청주향교 명륜당 좌측에 위치하여 세워진 비석형의 석물은 높이가 150cm(폭 51cm)로 이 높이를 기준으로 생간품의 제물로 사용될 소를 고를 때 석물 키만큼의 소를 택했다고 한다.

영광향교에는 대성전 우측에 별도로 생성문을 두어 제향때 희생물이 들어 올 때만 사용되고 있다.

2. 창홀대(唱笏臺)



『보성향교 대성전앞의 창홀대』

문묘제례 의식 때 향사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찬자(贊者)의 창홀(唱笏)에 의하여 모든 의례가 엄숙하고 정중하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의식순서를 인도하기 위하여 만든 단으로 오늘날의 사회석 역할을 하며 대성전의 전면 오른쪽 동쪽 계단앞에 위치한다. 별도로 단이 설치된 곳도 있으나 대다수 단이 없이 의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성향교에는 대성전 전면 우측에 탑신석을 창홀대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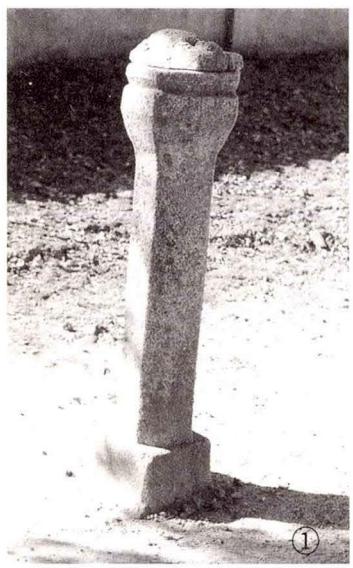
3. 정료대(庭燎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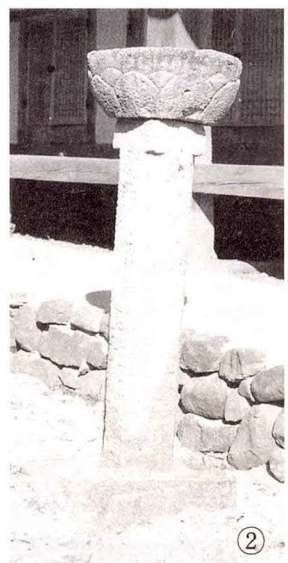
대성전 앞 또는 명륜당, 전사청 앞 등 넓은 뜰을 갖는 경역에서 야간 조명이 필요한 곳에 세우는 석물로서 보통 대칭으로 2개가 놓이는데 지금은 없어지거나 1개만 남아 있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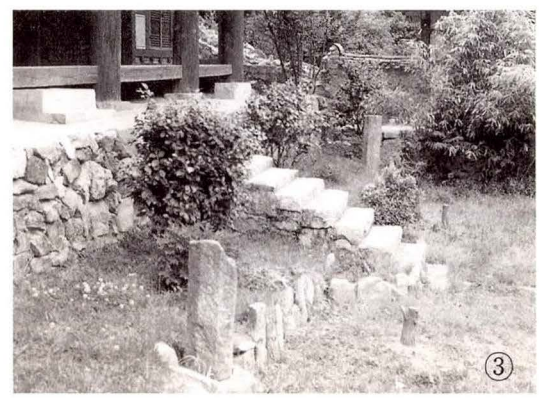
석전제를 지내는 시간은 지금은 정오에 지내고 있으나, 원래 새벽 즉 축시(丑時 : 밤2시~밤4시) 오각(五刻 : 3시경)에 행해졌으므로 대성전 앞에는 춘추 석전제향시 새벽에 불밝

힐 때 사용하고, 명륜당 앞에 설치된 정료대는 교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되었다.

보통 1~1.5m의 석주위에 대석을 올려놓는데 방형, 육각 또는 팔각형 석주에 반구형 사발모양의 대석이나 연꽃무늬를 조각한 대석을 얹고, 이 위에 관솔가지를 피우거나 기름 등을 태워 마당을 밝히던 곳으로 노주석(爐柱石) 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불우리라 불리운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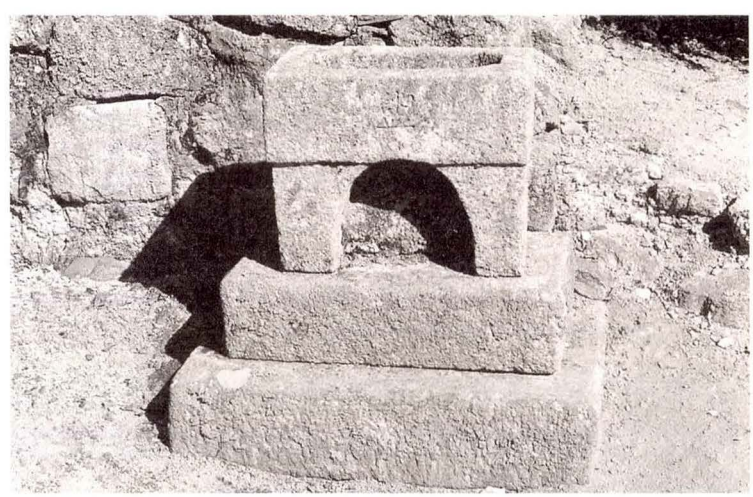
① 『홍주 향교 서무앞의 정료대』
② 『고성향교 동재 앞 정료대』
③ 『밀양향교 명륜당 앞 정료대』

4. 관세대(盥洗臺)

향사때 헌관 및 집사등 임원이 의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대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석물로서 상부에는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사각형 또는 둥글게 홈을 파고 하부는 물이 빠지도록 배수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물홈통이 없이 상단을 평평하게 만들어 물그릇을 올려 놓는 세수대로 만든 경우도 있다.

배치위치는 제향의 동입서출하는 의식절차에 따라 대성전의 오른쪽인 동쪽 즉 우측의 계단 밑이나 기단위, 또는 기단앞에 놓인다. 정형화된 형태는 없으나 네모 뿔대나 원통형 또는 사각형 모양이 일반적이다.

전주향교 대성전 앞에 설치된 관세대는 석물자체에 사각형의


『홍주향교 동무앞의 관세대』





▲『원주향교 대성전 우측의 관세대』
◀『전주향교 대성전앞 관세대와 작세위』

홈을 파서 물을 담도록 가공하였으며 그옆에는 작세위(爵洗位 - 잔 씻는 자리)를 마련하여 잔과 수건을 얹도록 별도로 대석을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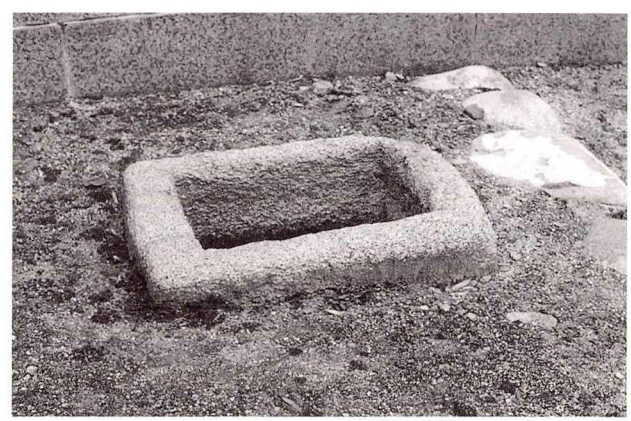
5. 망료대(望燎臺)

일명 예감대(瘞坎臺)라 부르기도 하는 향사의식 석물로, 석전향사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망료례(望燎禮)때 축문이나 행사후 소각 대상물을 태워 묻는(瘞) 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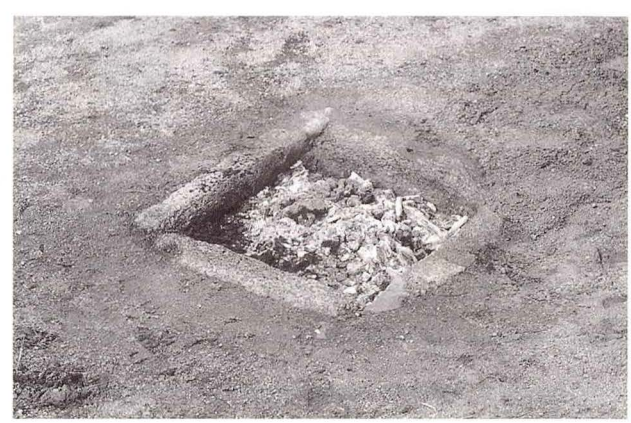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望瘞」라 하여 묻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 후에는 「望燎」라 하여 태우는 의식으로 바뀌었다. 예(瘞)란 묻는 것이고 료(燎)란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망료대는 대성전내의 의식이 끝나고 나오는 대성전 좌측면의 떨어진 뒤쪽에 위치한다.

형태는 방형이 일반적이며 높이는 높지 않고 상면에는 축문을 태워 묻을 수 있도록 네모난 홈을 만들고 그위에는 납작한 뚜껑을 덮게 되어 있다. 간혹 화강석에 방형이나 원형으로 홈을 파서 땅에 매설



『춘천향교 대성전앞 망료석』



『성균관 대성전 좌측의 망료』

하여 망료례가 끝나면 홈을 흙으로 묻어두는 경우도 있으며, 자연석으로 방형의 작은 단을 쌓기도 하고 탑의 탑신이나 옥개석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영광향교에서는 대성전 전면 월대 앞에 화강석으로 둥글게 홈을 파서 지면에 묻은 경우도 있다.

6. 하마비(下馬碑)

하마비는 보통 향교 외삼문 밖의 홍살문 앞에 세워 성역(聖域)임을 알리는 표석으로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게 했다.

대개 「下馬碑」「大小人下馬」「大小人員皆下馬(碑)」 등으로 음각(陰刻)한 문귀가 세겨져 있는데, 전주향교에는 높이 198cm로 전면에 「過此者皆下馬」라 기록하고 뒷면에는 「正憲己卯九月日立」이라 세겨져 있는데 중종14년(1519)에 해당된다. 구례향교의 하마비는 「過此皆下馬碑」라 기록되어 있고, 강화의 교동향교 하마비는 「守令邊將下馬碑」라 기록되어 있어 변방에 세워진 하마비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 중종 14년(1519)에 와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문묘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성현을 대하는 법도가 아니라 하여 승마(乘馬)한 채 통행하는 것을 금하면서 세워진 것이다.



『보성향교 입구의 하마비』

북경 공묘에 세워져 있는 하마비(1191)는 "무관은 말에서 내리고 문관은 가마에서 내려라" 「官員人等至此下馬」는 명령문의 규정을 적어 공묘의 존엄함을 표현하고 있다.

성균관의 입구 탕평비각 앞에는 지방의 향교앞에 세워진 하마비와는 비교되지 않는 비좌가 설치된 높이 2m 정도의 큼


『옥과향교 입구의 차단석』

직한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데 앞면에는 「大小人員過此者皆下馬」라 기록되고 뒷면에는 「正德十四年月日建」으로 기록되어 중종14년(1519)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사식당 남쪽에는 장대석 이중단으로 하연대(下輦臺)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군왕(君王)이 문묘에 거동할 때 타고 온 수레 즉 연(輦)을 내려놓는 곳으로 하마비와 같은 성격의 단이라 볼 수 있다.

능주 · 옥과향교 입구에는 제주도 민가입구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정낭」과 비슷한 판석에 구멍을 뚫어 향교 입구 양옆에 세워져 장대를 끼워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데, 하마비와 유사한 성격의 석물이라 할 수 있다.

하마비의 규모는 대개 묘비형의 1m 내외 정도로 가공하여 방형의 좌대를 하여 전면에 비명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명문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조성년대가 기록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보성향교 입구의 하마비는 귀부위에 비신을 꽂고 조각된 이수를 얹은 3.1m의 거대하게 조성된 예도 있다.

7. 탕평비(蕩 平 碑)

탕평비는 성균관 입구에 세워진 비로 성균관 유생들을 훈계하는 뜻에서 영조 18년(1742)년에 당쟁을 탕평하기 위하여 어필(御筆)로 유생들에게 "周內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라는 20자를 내려 이에 왕훈(王訓)을 명념하기 위해 비 앞면에 음각하고 뒷면에는 건립 날짜와 뜻을 새겨 세웠다. 탕평(蕩平)이라함은 「毋偏毋黨 王道蕩蕩 毋黨毋偏 王道平平 蕩蕩平平」이라는 고전에서 탕탕평평(蕩蕩平平)을 인용한 것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을 뜻한다. 영조는 당파싸움을 염려하여 그 원년(1725)에 탕평의 교서(敎書)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원래 반수교(泮水橋) 옆에 있던 것을 1942년에 성균관대학교 옛 정문 왼쪽에 옮겼다가 1970년대에 정문을 확장하면서 현재의 정문 왼쪽 위치로 옮겼다. 비 높이 155cm 폭 62cm 두께 30cm의 오석으로 방형대석위에 옥개석을 얹은 형태로, 정면1칸 측면1칸의 사모지붕의 비각이 세워져 있는데 탕평비각(蕩平碑閣)이라 하며 일명 어서비각(御書碑閣)이라고도 한다

8. 기타비석



『대구향교 내의 비석군』

거의 모든 향교의 입구나 경내의 강학 구역에는 관련 기념비가 2~3기, 많게는 10~15기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의 성격상 역대 수령들의 선정비(善政碑)를 비롯하여 흥학비(興學碑), 공적비(功績碑), 유허비(遺墟碑), 숭유비(崇儒碑), 존성비(尊聖碑), 호성비(護聖碑), 모성비(慕聖碑), 묘정비(廟庭碑), 청덕비(淸德碑), 송덕비(頌德碑), 중창비(重創碑), 중건비(重建碑), 중수비(重修碑), 기공비(紀功碑), 기념비(紀念碑), 혜민비(惠民碑), 청백비(淸白碑), 거사비(去思碑), 불망비(不忘碑), 기적비(紀蹟碑), 향약비(鄕約碑), 사적비(事蹟碑), 연혁비(沿革碑)등 다양한 비들이 있다.



『장흥향교 입구의 비석군』



『보은향교 입구의 모성흥학 철비』

제12장

향교내의 수목

제12장 鄕校內의 樹木

향교는 제향 교육를 위한 경건한 장소이므로 입지 선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위치는 대개 고을을 약간 벗어나 읍치에서 보통 5리 이내의 주변에서 가장 경관이 좋고 조용한 낮은 산기슭을 끼고, 앞은 내나 들을 둔 완만한 구릉지에 입지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을 찾아 자리하게 되는데, 양택론(陽宅論)에 근거하여 남향으로 좌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접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교는 주변 야산기슭에 입지하며 주변에는 자생적 수목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향교 경역에는 대개 향교와 역사를 같이 할 고수목이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기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고 그 향교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향교내의 전통 수종으로는 은행(杏)나무, 느티(槐)나무, 회화(槐)나무, 측백(柏)나무, 소나무(松), 향(香)나무, 대(竹)나무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비자(榧)나무, 밤(栗)나무, 오동(桐)나무,감(柿)나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심기도 하였다.

수목자체가 상징성이 부여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행나무 : 대다수의 향교에 심어져 있는 수종으로 주로 문묘경역의 전면 좌우에 대칭적으로 식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학구역 또는 경역밖에 있는 경우도 있다.

   향교에 은행나무를 심는 연유는 원래 공자가 은행나무 우거진 언덕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은행나무를 심고 주위에 단을 만든 것을 행단(杏壇)이라 한데서 연유된다.

   「杏」자를 은행나무가 아닌 살구나무로 알고 은행 나무를 잘못 심고 있다는 설도 있다.

2. 측백나무 : 곡부의 공묘 중정군(中庭群)과 대성전 앞쪽의 공자가 강의를 한 장소로 전해오는 「행단(杏壇)」의 주위는 오래된 측백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어 언제나 푸르름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향교에서도 곡부의 공묘의 근본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느티나무 · 회화나무 : 영천향교의 명륜당 앞에는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周)나라 때는 회화나무를 대궐안에 심어 삼공(三公)이 그 밑에서 송사(訟事)를 보았다하여 왕실의 별칭을 괴신(槐宸)이라하고 정승이나 판서의 높은 지위를 느티나무, 회화나무 위치라 하여 괴위(槐位)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는 회화나무가 꽃피는 음력7월에 과거를 보았다. 특히 당나라의 낙양(洛陽) 동쪽에는 회화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숲 밑에서 선비들이 손수 쓴 책을 사고 팔고, 또 강론을 하였기에 이곳을 괴시(槐市 : 회화나무 밑의 시장)라 하였고,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불려 출세한 사람 또는 선비의 상징으로 이 나무를 즐겨 심었으며, 후대에 와서는 대학을 괴시라 부르게 되어 향교와 회화나무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며 궁궐이나 관아의 뜰에 흔히 볼 수 있다.

4. 향나무 : 제사와 관련된 곳에는 향나무를 심는데, 향(香)은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드릴 때 사용하여 부정을 제거하여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정화 기능을 가지며, 또한 신계(神界)의 상징이며 초자연적 존재인 신과 인간의 교통 매개물이기도 하다. 향을 사르는 것은 의례의 권리와 지위를 상징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제향 때의 분향(焚香)은 신이 강림하여 좌정할 수 있는 순수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며, 영혼이 향내를 맞고 찾아오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향교에서도 향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향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밤나무 : 향교에 밤나무를 심은 경우는 극히 일부이나 문묘주변에 식재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밤나무는 신목(神木)이라 하여 신주(神主)즉 위패(位牌)나 마을앞 장승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그래서 위패를 밤나무로 만드는 것은 조상에 대한 공경심 때문이다. 또한 밤나무는 서쪽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죽은 사람의 방위를 뜻한다. 복숭아나무와 더불어 밤나무를 가구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적 대상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다. 문묘제도로 중국에서는 화상(畵像)과 소상(塑像)을 썼는데, 우리나라도 화상이나 소상으로 향사를 하다가 조선 선조 5년(1572)부터 조서를 내려 소상을 헐고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게 하였다. 구례 연곡사는 영조21년(1745)에 왕가의 신주목 봉납장소 즉 「栗木封山之所」로 지정하여 밤나무가 공급되기도 하였다.

6. 오동나무 : 향교에 오동나무를 심는 경우도 극히 일부이다.
오동나무는 깨끗한 선비를 상징하여, 글공부하는 서재 부근에 심었으며, 또한 봉황이 깃들인다는 길상(吉祥)의 나무이다. 봉황은 벽오동에 집을 짓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상상의 새이므로, 이렇게 하면 봉황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감으로써 길상지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봉황은 임금을 상징하는 상스러운 새이다. 문묘에 모셔진 문선왕(文宣王)즉 공자도 지극한 존칭으로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칭호를 받고 있다. 이는 후세에 끼친 교육의 공로가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동나무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향교에 심어진 고수목에 연유하여 행촌리(杏村里) 행정리(杏丁里) 백전리(柏田里) 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향교마을이 지속되고 있다.

부 록

1. 전국 향교 현황
2. 용어해설
3. 향교 관련 민속 속담
4. 유교건축년보

1. 全國 鄕校 現況

- 천기 : 천연기념물
- 지기 : 지방기념물
- 문자 : 문화재자료
- 명 : 명륜당
- 무형 : 중요무형문화재
- 지유 : 지방유형문화재
- 대 : 대성전
- 만 : 만화루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 서울成均館	서울 鐘路區 明倫洞 3街 53	1398(태조7)	사적 143
		문묘:보물 141. 문묘은행나무:천기 59. 석전제례:무형 85	
1. 陽川鄕校	〃 江西區 加陽洞 234	1411(태종11)	지기 8
2. 仁川鄕校	仁川市 南區 官校洞 118	1132(인종10)	지유 11
3. 富平鄕校	〃 北區 桂山洞 892-1	1127(인종5)	지유 12
4. 江華鄕校	〃 江華郡 江華邑 官廳里	1127(인종5)	지유 34
5. 喬桐鄕校	〃 江華郡 喬桐面 邑內里	1127(인종5)	지유 28
6. 水原鄕校	水原市 勸善區 校 洞 43	1285(충렬왕11)	문자 1
7. 平澤鄕校	平澤市 彭城面 客舍里 185	려말-선초	문자 4
8. 振威鄕校	〃 振威面 鳳南里 167	1398(태조7)	대:문자 40
9. 高陽鄕校	高陽市 德陽區 高陽洞 306	1398(태조7)	문자 69
10. 果川鄕校	果川市 中央洞 81	1398(태조7)	문자 9
11. 廣州鄕校	河南市 校山洞 277-3	고려말	문자 13
12. 坡州鄕校	坡州市 坡州里 335	1398(태조7)	대:문자 83
13. 交河鄕校	〃 金村邑 金陵洞 355	1407(태종7)	문자 11
14. 積城鄕校	〃 積城面 舊邑里 467	조선태종년간	—
15. 利川鄕校	利川市 倉前洞 336	1402(태종20)	문자 22
16. 龍仁鄕校	龍仁市 駒城面 彦南洞 335	1400 ?	—
17. 陽智鄕校	〃 陽智面 陽智里 379	1413(태종13)	문자 23
18. 楊州鄕校	楊州郡 州內面 維陽里 266	1401(태종1)	문자 2
19. 驪州鄕校	驪州郡 驪州邑 校里 261-1	고려말	문자 3
20. 南陽鄕校	華城郡 南陽面 南陽里 335	1397(태조5)	문자 34
21. 漣川鄕校	漣川郡 漣川邑 車灘里 345	1398(태조7)	—
22. 抱川鄕校	抱川郡 郡內面 舊邑里 176	1173(명종3)	문자 16

23. 加平鄕校	加平郡 加平邑 邑內里 551	1398(태조7)	–
24. 楊根鄕校	楊平郡 楊根面 玉泉里 817-1	1398 ?	문자 19
25. 砥平鄕校	〃 楊平面 砥平里 343	조선초기	문자 20
26. 安城鄕校	安城郡 安城邑 明倫里 118	조선초기	문자 27
27. 竹山鄕校	〃 二竹面 竹山里 314	조선초기	문자 26
28. 陽城鄕校	〃 陽城面 東恒里 114	중종 이전	문자 28
29. 金浦鄕校	金浦郡 金浦邑 北邊里 371-1	???	문자 29
30. 通津鄕校	〃 月津面 郡下里 220	1127(인종5)	문자 30

강 원 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31. 春川鄕校	春川市 校 洞 27-1	1398 ?	지유 98
32. 原州鄕校	原州市 明倫洞 255	고려말	문자 98
33. 江陵鄕校	江陵市 校 洞 233	1313(충선왕5)	대:보물214 지유 99
34. 三陟鄕校	三陟市 校 洞 566	1398(태조7)	지유 102
35. 東海鄕校	東海市 部曲洞	1995	–
36. 洪川鄕校	洪川郡 洪川邑 希望里 174	???	문자 99
37. 橫城鄕校	橫城郡 橫城邑 邑上里 山12-2	1398(태조7)	문자 100
38. 寧越鄕校	寧越郡 寧越邑 永興2里 892	1404(태종4)	지유 100
39. 平昌鄕校	平昌郡 平昌邑 下里 204	1392?	지유 101
40. 旌善鄕校	旌善郡 旌善邑 鳳陽里 385	려말-선초	문자 101
41. 鐵原鄕校	鐵原郡 鐵原邑 花地里 99	???	–
42. 華川鄕校	華川郡 華川邑 下里 108	1413 ?	문자 102
43. 楊口鄕校	楊口郡 楊口邑 上里 322	1405(태종5)	–
44. 麟蹄鄕校	麟蹄郡 麟蹄邑 上東里 28-2	조선 초기 ?	문자 103
45. 杆城鄕校	高城郡 杆城邑 校洞里 664	1420(세종2)	문자 104
46. 襄陽鄕校	襄陽郡 襄陽邑 林泉里 297	1490(성종21)	문자 105

충청북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47. 淸州鄕校	淸州市 上黨區 大成洞 67	987 ?	지유 39
48. 忠州鄕校	忠州市 校峴洞 179-1	1398(태조7)	지유 57
49. 堤川鄕校	堤川市 校 洞 86	1389(공양왕1)	지유 105

50. 淸風鄕校	堤川市 淸風面 勿台里 산6-5	1398(태조7)	지유 64
51. 文義鄕校	淸原郡 文義面 米川里 220-1	1259(고종46)	지유 94
52. 報恩鄕校	報恩郡 報恩邑 校士里 283	조선 세종 ?	지유 95
53. 懷仁鄕校	報恩郡 懷北面 富壽里 405-2	조선 세종	지유 96
54. 沃川鄕校	沃川郡 沃川邑 校洞里 320	1398(태조7)	지유 97
55. 靑山鄕校	〃 靑山面 校坪里 267	1398(태조7)	지유 98
56. 永同鄕校	永同郡 永同邑 芙蓉里 372	고려말기 ?	지유 99
57. 黃澗鄕校	〃 黃澗面 南城里 150-1	충혜왕 ?	지유 100
58. 鎭川鄕校	鎭川郡 鎭川邑 校成里 416	1398(태조7)	지유 101
59. 槐山鄕校	槐山郡 槐山邑 西部里 104	조선 태종 ?	지유 102
60. 淸安鄕校	〃 淸安面 邑內里 278	1403(태종3)	지유 40
61. 延豊鄕校	〃 延豊面 杏村里 590	1394 ?	지유 103
62. 陰城鄕校	陰城郡 陰城邑 邑內里 156-1	1560(명종15)	지유 104
63. 丹陽鄕校	丹陽郡 丹成面 上坊里 137-1	1415(태종15)	지유 107
64. 永春鄕校	〃 永春面 上 里 461	1399(정종1)	지유 106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65. 懷德鄕校	大田市 大德區 邑內洞 134	조선 태종 ?	대:문자 5
66. 鎭岑鄕校	〃 儒城區 校村洞 151	1405(태종5)	대:문자 6
67. 天安鄕校	天安市 留糧洞 190-2	1398(태조7)	지기 110
68. 稷山鄕校	〃 稷山面 郡西里 164-1	1398(태조7)	지기 109
69. 木川鄕校	〃 木川面 校村里 129	조선 태조	지기 108
70. 公州鄕校	公州市 校洞 211	1397(태조6)	지유 75
71. 保寧鄕校	保寧市 周浦面 保寧里 47-1	1721 ?	지기 112
72. 藍浦鄕校	〃 藍浦面 玉東里 9	1413(태종13)	지기 111
73. 鰲川鄕校	〃 鰲川面 校城里 산166	1905	대:문자 137
74. 牙山鄕校	牙山市 靈仁面 牙山里 643	???	지기 114
75. 溫陽鄕校	〃 邑內洞 209	1398(태조7)	지기 115
76. 新昌鄕校	〃 新昌面 邑內里 320-3	태조－태종	지기 113
77. 瑞山鄕校	瑞山市 東門洞 580	1402(태종2)	지기 116
78. 海美鄕校	〃 海美面 烏鶴里 226	1407(태종7)	지기 117
79. 魯城鄕校	論山市 魯城面 校村里 308	1398(태조7)	지기 118
80. 連山鄕校	〃 連山面 官洞里 431	1398(태조7)	지기 119
81. 恩津鄕校	〃 恩津面 校村里 19	조선 태종	지기 120

82. 錦山鄕校	錦山郡 錦山邑 上里 4	???	지기 121
83. 珍山鄕校	〃 珍山面 校村里 355	1398(태조7)	지기 122
84. 燕岐鄕校	燕岐郡 南 面 燕岐里 34	1416(태종16)	지기 123
85. 全義鄕校	〃 全義面 邑內里 149-1	1416(태종16)	지기 124
86. 扶餘鄕校	扶餘郡 扶餘邑 東南里 44-1	???	지기 125
87. 林川鄕校	扶餘郡 林川面 郡司里 213	태종－인종	지기 127
88. 石城鄕校	〃 石城面 石城里 646-2	조선 초기	지기 126
89. 鴻山鄕校	〃 鴻山面 校院里 233	1413직후?	지기 128
90. 舒川鄕校	舒川郡 舒川邑 郡司里 315	1314(충숙왕1)	지기 130
91. 韓山鄕校	〃 韓山面 芝峴里 389	1398(태조7)	지기 131
92. 庇仁鄕校	〃 庇仁面 城內里 169	1398(태조7)	지기 129
93. 靑陽鄕校	靑陽郡 靑陽邑 校月里 34-1	려말－선초	지기 133
94. 定山鄕校	〃 定山面 西亭里 516-2	1398 ?	지기 132
95. 洪州鄕校	洪城郡 洪城邑 大校里 239-1	려말-선초	지기 135
96. 結城鄕校	〃 結城面 邑內里 586	1010	지기 134
97. 禮山鄕校	禮山郡 禮山邑 香泉里 132-1	1413(태종13)	지기 138
98. 大興鄕校	〃 大興面 校村里 538	1398 ?	지기 136
99. 德山鄕校	〃 德山面 社洞里 121	1398(태조7)	지기 137
100. 泰安鄕校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725	1407(태종7)	지기 139
101. 唐津鄕校	唐津郡 唐津邑 邑內里 215-1	1407(태종7)	지기 140
102. 沔川鄕校	〃 沔川面 城下里 513	1392 ?	지기 141

전라북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103. 全州鄕校	全州市 完山區 校洞 1街 26	1380(우왕6) 사적 379	대:지유 7
104. 沃溝鄕校	群山市 沃溝邑 上坪里 626	1403(태종3	대:문자 96
105. 臨陂鄕校	〃 臨陂面 邑內里 538	1403(태종3)	대:문자 95
106. 益山鄕校	益山市 金馬面 東古都里 389	1398(태조7)	대:지유 115
107. 咸悅鄕校	〃 咸羅面 咸悅里 579	1406(태종6)	대:문자 85
108. 龍安鄕校	〃 龍安面 校洞里 163-1	1391(공양왕3)	대:문자 86
109. 礪山鄕校	〃 礪山面 礪山里 101-1	1403(태종3)	대:문자 83
110. 井邑鄕校	井邑市 長明洞 39-2	1398(태조7)	대:문자 73
111. 古阜鄕校	〃 古阜面 古阜里 166	려말－선초	대:문자 74
112. 泰仁鄕校	〃 泰仁面 泰成里 182-1	1386	대:문자 75 만:지유 121
113. 南原鄕校	南原市 鄕校洞 512	1410(태종10)	대:지유 8

114. 雲峰鄕校	南原市 雲峰面 山德里 600	1410(태종10)	대:문자 50
115. 金堤鄕校	金堤市 校洞 39	1404(태종4)	대:지유 9
116. 金溝鄕校	〃 金溝面 金溝里 152	1396(태조5)	대:문자 113
117. 萬頃鄕校	〃 萬頃面 萬頃里 183-1	1407(태종7)	대:문자 114
118. 高山鄕校	完州郡 高山面 邑內里 144	1398(태조7)	대:지유 116
119. 鎭安鄕校	鎭安郡 鎭安邑 郡上里 527-1	1414(태종13)	대:문자 14
120. 龍潭鄕校	〃 龍潭面 玉渠里 358	1391(공양왕3)	대:문자 17
121. 茂朱鄕校	茂朱郡 茂朱邑 邑內里 264-1	1398(태조7)	대:문자 103
122. 長水鄕校	長水郡 長水邑 長水里 254-1	1407(태종7)	대:보물 272
123. 任實鄕校	任實郡 任實邑 二道里 812	???	대:문자 26
124. 淳昌鄕校	淳昌郡 淳昌邑 校星里 134-1	???	대:문자 68
125. 高敞鄕校	高敞郡 高敞邑 校村里 248-1	고려 공민왕	대:문자 98
126. 茂長鄕校	〃 茂長面 校興里 416	1420(세종2)	대:문자 107
127. 興德鄕校	〃 興德面 校雲里 126	1407(태종7)	대:문자 108
128. 扶安鄕校	扶安郡 扶安邑 西外里 266	1414(태종14)	대:문자 93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129. 光州鄕校	光州市 西區 龜洞 22-3	조선 태조	지유 9
130. 麗水鄕校	麗水市 君子洞 165	???	문자 124
131. 突山鄕校	麗水市 突山邑 內里 604	1897	문자 41
132. 順天鄕校	順天市 金谷洞 182	1407(태종7)	지유 127
133. 樂安鄕校	〃 樂安面 校村里 222	1397(태조6)	지유 112
134. 羅州鄕校	羅州市 校 洞 32-3	1398(태조7) 대:보물 394	지유 128
135. 南平鄕校	〃 南平邑 校院里 161	1420(세종2)	지유 126
136. 光陽鄕校	光陽市 光陽邑 牛山里 509	조선 태조	지유 111
137. 潭陽鄕校	潭陽郡 潭陽邑 鄕校里 323	1398(태조7)	지유 103
138. 昌平鄕校	〃 古西面 校山里 138	1399(정종1)	지유 104
139. 谷城鄕校	谷城郡 谷城邑 校村里 190	1415년 전후	문자 27
140. 玉果鄕校	〃 玉果面 玉泉里 14-1	1392	지유 109
141. 求禮鄕校	求禮郡 求禮邑 鳳西里 1473	조선 태조	지유 110
142. 高興鄕校	高興郡 高興邑 杏丁里 149	1441(세종23)	지유 108
143. 寶城鄕校	寶城郡 寶城邑 寶城里 126	1397(태조6)	지유 106
144. 和順鄕校	和順郡 和順邑 校 里 183	1433 대:지유63	만:문자 60
145. 綾州鄕校	〃 綾州面 南井里 328	1392(태조1)	지유 124

146. 同福鄕校	和順郡 同福面 蓮月里 864	1444(세종26)	문자 125
147. 長興鄕校	長興郡 長興邑 校村里 4	1398(태조7)	지유 107
148. 康津鄕校	康津郡 康津邑 東城里 691-1	1398 ?	지유 115
149. 海南鄕校	海南郡 海南邑 靑星里 110	고려 충렬왕	대:문자 77
150. 靈岩鄕校	靈岩郡 靈岩邑 校洞里 256	???	문자 126
151. 務安鄕校	務安郡 務安邑 校村里 126-1	1394(태조3)	지유 114
152. 咸平鄕校	咸平郡 大洞面 鄕校里 590-1	조선 태종 ?	지유 113
153. 靈光鄕校	靈光郡 靈光邑 校村里 393	고려 공민왕?	지유 125
154. 長城鄕校	長城郡 長城邑 聖山里 110	1394(태조3)	지유 105
155. 莞島鄕校	莞島郡 莞島邑 竹淸里 860-1	1897(고종34)	문자 107
156. 珍島鄕校	珍島郡 珍島邑 校洞里 275	1438(세종20)	문자 127
157. 智島鄕校	新安郡 智島面 邑內里 112	1898(고종35)	문자 111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158. 大邱鄕校	大邱市 中 區 南山洞 735-4	1398(태조7)	대:문자 1
159. 漆谷鄕校	〃 北 區 邑內洞 600	조선 인조 ?	대:문자 6
160. 玄風鄕校	〃 達城郡 玄風面 上里 326-1	조선 초기	대:문자 27
161. 迎日鄕校	浦項市 南 區 孝子洞 407	조선 명종 ?	대:문자 1
162. 淸河鄕校	〃 北 區 淸河面 德星里 190	1398((태조7)	대:문자 328
163. 興海鄕校	〃 北 區 興海邑 玉城里 132	1398(태조7)	대:문자 87
164. 長鬐鄕校	〃 南 區 長鬐面 邑內里 203	1396(태조5)	문자 327
165. 慶州鄕校	慶州市 校 洞 17-1	682(신라?)	지유 191
166. 金山鄕校	金泉市 校 洞 437	1127(고려인종)	문자 257
167. 開寧鄕校	〃 開寧面 東部里 408	1478(성종4)	대:문자 119
168. 知禮鄕校	〃 知禮面 校川里 739	1426(세종8)	대:문자 118
169. 安東鄕校	安東市 松川洞	???	—
170. 禮安鄕校	〃 禮安面 西部里 204	1415(태종15)	지유 28
171. 仁同鄕校	龜尾市 臨洙洞 409-3	???	대:문자 20
172. 善山鄕校	〃 善山邑 校 里 838	조선 초기	문자 123
173. 榮州鄕校	榮州市 下望洞 167	1368(공민왕17)	대:문자 23
174. 豊基鄕校	〃 豊基面 校村里 147-1	1432(세종14)	지유 211
175. 順興鄕校	〃 順興面 靑邱里 431	1304(충렬왕30)	—
176. 永川鄕校	永川市 校村洞 46-1	???	대:보물 616
177. 新寧鄕校	〃 新寧面 花城里 525	1432	대:문자 102 명:지유 168

178. 尙州鄕校	尙州市 新鳳洞 203-1	1426(세종8)	대:지유 155
179. 咸昌鄕校	〃 咸昌邑 校村里 304	1413 ?	문자 124
180. 聞慶鄕校	聞慶市 聞慶邑 校村里 322	1392(태조1)	대:문자 132
181. 慶山鄕校	慶山市 新校洞 62	1390(공양왕2)	대:문자 105
182. 河陽鄕校	〃 河陽邑 校里 158	???	문자 107
183. 慈仁鄕校	〃 慈仁面 校村里 230	1360(공민왕8)	문자 106
184. 軍威鄕校	軍威郡 軍威邑 東部里 629	조선 태종	문자 185
185. 義興鄕校	軍威郡 義興面 邑內里 223-2	1398(태조7)	대:지유 198
186. 義城鄕校	義城郡 義城邑 道東里 810	1394(태조3)	지유 150
187. 比安鄕校	〃 安溪面 校村里 285	1398 ?	문자 263
188. 靑松鄕校	靑松郡 靑松邑 月幕里 251	1426(세종8)	—
189. 眞寶鄕校	〃 眞寶面 廣德里 221-1	1404(태종4)	지유 201
190. 英陽鄕校	英陽郡 日月面 道溪里 128	1683(숙종9)	문자 75
191. 盈德鄕校	盈德郡 盈德邑 華開里 160	1403(태종3)	—
192. 寧海鄕校	〃 寧海面 城內里 24	1346(충목왕1)	—
193. 淸道鄕校	淸道郡 華陽邑 校村里 48	고려중기 ?	지유 207
194. 高靈鄕校	高靈郡 高靈邑 延詔里 608	???	문자 229
195. 星州鄕校	星州郡 星州邑 禮山里 131	1397	대:문자114 명:지유 165
196. 醴泉鄕校	醴泉郡 醴泉邑 柏田里 199-1	1398(태조7)	문자 138
197. 龍宮鄕校	〃 龍宮面 鄕石里 266	1398(태조7)	지유 210
198. 奉化鄕校	奉化郡 鳳城面 鳳城里 267	조선 세종	지유 253
199. 蔚珍鄕校	蔚珍郡 蔚珍邑 邑內里 653-1	1484(성종15)	대:문자 159
200. 平海鄕校	〃 平海邑 平海里 901	1357(공민왕5)	대:문자 160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201. 東萊鄕校	釜山市 東萊區 明倫洞 235	조선 초기	지유 6
202. 機張鄕校	〃 機張郡 機張邑 校 里 59	1440(세종22)	지기 39
203. 蔚山鄕校	蔚山市 中區 校洞 171-1	???	지유 7
204. 彦陽鄕校	〃 蔚州郡 三南面 校洞里 1086	???	지유 8
205. 昌原鄕校	昌原市 召沓洞 432-2	1405(태종5)	대:지유 135
206. 晉州鄕校	晉州市 玉峰北洞 232-1	1398(태조7)	지유 50
207. 統營鄕校	統營市 光道面 竹林里 945	1901	지유 218
208. 泗川鄕校	泗川市 泗川邑 宜仁里 119	1421(세종3)	지유 220
209. 昆陽鄕校	〃 昆陽面 松田里 355	1510(중종5)	지유 221

210. 金海鄕校	金海市 大成洞 224	1408(태종8)	지유 217
211. 密陽鄕校	密陽市 校 洞 733	1127(고려 인종)	지유 214
212. 巨濟鄕校	巨濟市 巨濟邑 西亭里 625	1432(세종14)	지유 206
213. 梁山鄕校	梁山市 校 洞 198	1397(태조6)	지유 205
214. 宜寧鄕校	宜寧郡 宜寧邑 西 里 395	???	지유 201
215. 咸安鄕校	咸安郡 咸安邑 鳳城里 1319-2	1392(태조1)	지유 211
216. 漆原鄕校	〃 漆原面 龍山里 299	???	문자 181
217. 昌寧鄕校	昌寧郡 昌寧邑 校 里 442-1	조선 효종 ?	지유 212
218. 靈山鄕校	昌寧郡 靈山面 校 里 52	???	지유 213
219. 固城鄕校	固城郡 固城邑 校社里 370	1398(태조7)	지유 219
220. 南海鄕校	南海郡 南海邑 北邊里 586	1450(세종32)	지유 222
221. 河東鄕校	河東郡 河東邑 邑內里 1069	1415(태종15)	지유 223
222. 山靑鄕校	山靑郡 山靑邑 池里 369-1	1440(세종22)	지유 224
223. 丹城鄕校	〃 丹城面 江樓里 594	1127(인종5)	지유 88
224. 咸陽鄕校	咸陽郡 咸陽邑 校山里 793	1398 ?	지유 225
225. 安義鄕校	〃 安義面 校北里 148	1473(성종4)	지유 226
226. 居昌鄕校	居昌郡 居昌邑 加旨里 346	1415(태종15)	지유 230
227. 陜川鄕校	陜川郡 冶爐面 九汀里 311	1419(세종1)	지유 228
228. 三嘉鄕校	〃 三嘉面 巢梧里 341	고려 공민왕	지유 229
229. 草溪鄕校	〃 草溪面 草溪里 산7	고려 충숙왕	지유 227
230. 江陽鄕校	〃 陜川邑 陜川里 690-2	1965	문자 210

제 주 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指 定 別
231. 濟州鄕校	濟州市 龍潭 1洞 298-1	1392(태조1)	지유 2
232. 大靜鄕校	南濟州郡 安德面 沙溪里 3126	1408(태종8)	지유 4
233. 旌義鄕校	〃 表善面 城邑里 820	1416(태종16)	지유 5

北韓 所在 鄕校 分布 現況

경 기 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開城成均館	開城市 선죽동	1089년 국자감 설치(사적50호)
• 開城鄕校	〃 雲鶴洞	???
• 長湍鄕校	長湍郡 郡內面 邑內里	1127(고려 인종5)
• 豊德鄕校(開豊)	開豊郡 大聖面 大聖里	???
• 朔寧鄕校	漣川郡 삭녕면	???
• 麻田鄕校	漣川郡 미산면	???
• 康翎鄕校	옹진군 용현면 용현리	???
• 永平鄕校	抱川郡 영중면	???

강 원 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高城鄕校	高城郡	
• 通川鄕校	通川郡 通川邑 西里 쌍학산	조선 초기
• 翕谷鄕校		
• 淮陽鄕校	淮陽郡 下北面 初一里	
• 金化鄕校	金化郡 金化面 邑內里	
• 金城鄕校	〃 金城面 上里	
• 狼川鄕校		
• 伊川鄕校	伊川郡 伊川邑 鄕校里	
• 安峽鄕校	〃 安峽面 邑內里	
• 平康鄕校	平康郡 平康邑 西邊里	조선 초기

황 해 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黃州鄕校	黃州郡 黃州邑 德月里	조선 초기
• 平山鄕校	平山郡 平山面 氷庫里	조선 초기
• 瑞興鄕校	瑞興郡 瑞興面 明義里	1754(영조30)

• 鳳山鄕校	鳳山郡 사리원읍 경암리	조선 초기
• 安岳鄕校	安岳郡 安岳邑 板八里	1368(공민왕17)
• 載寧鄕校	載寧郡 載寧邑 鄕校里	1574(선조7)
• 遂安鄕校	遂安郡 遂安面 倉後里	???
• 谷山鄕校	谷山郡 谷山面 능동리	???
• 信川鄕校	信川郡 信川邑 校塔里	1393(태조2)
• 文化鄕校	〃 文化面 東閣里	1393(태조2)
• 新溪鄕校	新溪郡 新溪面 鄕校里	1530(중종25)
• 金川鄕校	金川郡 金川面 金陵里	???
• 牛峰鄕校	〃 牛峰面 송정리	???
• 兎山鄕校	〃 兎山面 堂官里	조선 중기
• 江陰鄕校	〃 西北面 江陰里	조선 초기
• 殷栗鄕校	殷栗郡 殷栗面 紅門里	1396(태조5)
• 長連鄕校	〃 長連面 東部里	1414
• 海州鄕校	海州市 옥계동	1423(세종5)
• 延安鄕校	延白郡 延安邑 延城里	1394
• 白川鄕校	〃 銀川面 蓬東里 용청동	조선 초기
• 松禾鄕校	松禾郡 松禾面 邑內里	1410(태종10)
• 豊川鄕校	〃 풍해면 세교리	1700(숙종26)
• 瓮津鄕校	瓮津郡 北面 花山東里	???
• 康翎鄕校	長淵郡 백령면	???
• 長淵鄕校	〃 長淵邑 邑東里	1400년경

평안남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平壤鄕校	平壤市 下水口里	조선 초기
• 中和鄕校	中和郡 中和面 草峴里	조선 초기
• 祥原鄕校	〃 祥原面 신읍리	???
• 龍岡鄕校	龍岡郡 龍岡面 玉桃里	조선 초기
• 三和鄕校	〃 三和面 내교리	조선 초기
• 江西鄕校	江西郡 江西面 德興里	1516
• 咸從鄕校	〃 咸從面 咸從里	???
• 甑山鄕校	〃 甑山面 취룡리	???
• 順安鄕校	平原郡 順安面 구교리	???
• 肅川鄕校	〃 肅川面 심정리	???
• 永柔鄕校	〃 永柔面 槐泉里	고려 말기
• 安州鄕校	安州郡 安州邑 北門里	조선 초기

• 慈山鄕校	順川郡 慈山面 용연리	조선 초기
• 順川鄕校	〃 順川邑 창리	조선 초기
• 殷山鄕校	〃 殷山面 殷山里	조선 초기
• 江東鄕校	江東郡 江東面 阿達里	???
• 三登鄕校	〃 三登面 봉의리	???
• 陽德鄕校	陽德郡 東陽面 下石里	조선 초기
• 孟山鄕校	孟山郡 孟山面 수정리	조선 초기
• 寧遠鄕校	寧遠郡 寧遠面 永樂里	1467(세종13)
• 成川鄕校	成川郡 成川面 下部里	조선 초기
• 德川鄕校	德川郡 德川面 邑北里	조선 초기
• 价川鄕校	价川郡 朝陽面 鳳鳴里	???

평안북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定州鄕校	定州郡 定州邑 城內洞	???
• 郭山鄕校	〃 郭山面 鹽湖洞	조선 중기
• 博川鄕校	博川郡 博川邑 松德洞	???
• 嘉山鄕校	〃 嘉山面 東門洞 봉두산	???
• 義州鄕校	義州郡 義州邑 鄕校洞	조선 초기
• 鐵山鄕校	鐵山郡 鐵山邑 東川里	???
• 龍川鄕校	龍川郡 東上面 東部洞	조선 중기
• 昌城鄕校	昌城郡 昌城面 城豊洞	조선 초기
• 朔州鄕校	朔州郡 朔州面 東部洞	고려 말기
• 龜城鄕校	龜城郡 龜城面 左部洞	고려 말기
• 宣川鄕校	宣川郡 宣川邑 明倫洞	???
• 寧邊鄕校	寧邊郡 寧邊面 西部洞	1127
• 雲山鄕校	雲山郡 雲山面 邑內洞	고려 말기
• 熙川鄕校	熙川郡 熙川邑 邑下洞	고려 말기
• 泰川鄕校	泰川郡 泰川面 西部洞	???
• 江界鄕校	江界郡 江界邑 東部洞	고려 인종
• 渭原鄕校	渭原郡 渭原面 城內洞	조선 초기
• 理山鄕校(楚山)	楚山郡 楚山面 城西洞	고려 인종
• 碧潼鄕校	碧潼郡 碧潼面 一洞	조선 태조
• 慈城鄕校	慈城郡 慈城面 邑內洞	???
• 厚昌鄕校	厚昌郡 厚昌面 郡內洞	???

함경남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咸興鄕校	咸興市 반룡동	조선 초기
• 永興鄕校	永興郡 永興邑 三思里	고려 말기(보물급문화재46호)
• 定平鄕校	定平郡 定平邑 東川里	조선 초기
• 高原鄕校	高原郡 高原邑 銅山里	조선 초기
• 安邊鄕校	安邊郡 安邊邑 玉里	1471(성종2)
• 德源鄕校	德源郡 府內面 新校里	조선 초기
• 文川鄕校	文川郡 文川邑 城底里	조선 태조
• 北靑鄕校	北靑郡 北靑邑 北里	조선 태조
• 端川鄕校	端川郡 端川邑 大成里	조선 초기
• 利原鄕校	利原郡 利原面 校洞里	???
• 洪原鄕校	洪原郡 洪原邑 東門東里 학두봉	조선 초기
• 甲山鄕校	甲山郡 甲山邑 東部里	조선 초기
• 三水鄕校	三水郡 襟水面 城內里	조선 초기
• 豊山鄕校	豊山郡 豊山面 新豊里	조선 말기
• 新興鄕校	新興郡 新興面 東德里	
• 長津鄕校	長津郡 東門面 邑上里	

함경북도

鄕 校 名	所 在 地	創 建 年 代
• 鏡城鄕校	鏡城郡 鏡城面 城北洞	조선 초기
• 吉州鄕校	吉州郡 吉州邑 吉南洞	조선 초기(보물급문화재50호)
• 明川鄕校	明川郡 下雲面 明川洞	조선 중종
• 慶源鄕校	慶源郡 慶源面 城內洞	1437(세종19)
• 會寧鄕校	會寧郡 會寧邑 일동	1445(세종27)(보물급문화재51호)
• 鍾城鄕校	鍾城郡 鍾城面 周山洞	1441(세종23)
• 穩城鄕校	穩城郡 穩城面 東和洞	1445(세종27)
• 慶興鄕校	慶興郡 慶興面 慶興洞	조선 초기
• 富寧鄕校	富寧郡 富寧面 富寧洞	1449(세종31)
• 茂山鄕校	茂山郡 茂山邑 城川洞	???
• 城津鄕校	城津郡 城津邑 旭洞	

現在 없어진 南韓 所在 鄕校

鄕 校 名	所 在 地	出 處
• 陰竹鄕校	경기도 이천군	신증, 여지
• 安山鄕校	경기도 시흥시 수암동	신증, 여지
• 衿川鄕校	경기도	신증, 여지
• 山陰鄕校	경상남도	신증
• 安陰鄕校		신증
• 鎭海鄕校	경상남도 진해시	신증, 여지
• 熊川鄕校	경상남도	신증, 여지
• 桂城鄕校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창녕군지
• 珍原鄕校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신증
• 興陽鄕校	전라남도 고흥군	
• 海平鄕校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낙성동	선산의 맥락

참 고

? : 추정
??? : 미상
신증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 : 여지도서

※이북 소재의 향교 및 현재 없어진 남한소재 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민족문화대백과사전』『북한지역 종교자료집』등을 정리 수록

2. 用 語 解 說

- 강학구역(講學區域) :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
- 강당(講堂) : 강학구역의 중심건물, 향교에서는 명륜당에 해당
- 견생(牽牲) : 제사지내는 사무를 맡은 직책 명칭, 즉 제향 때 희생을 끌고 가는 직책을 맡은 사람
- 경학원(經學院) : 성균관의 별칭. 1887년 성균관을 경학원이라 개칭하였다.
- 계성사(啓聖祀) : 五聖(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의 아버지를 제사지내는 사당으로 전주, 제주향교 등에 있음.
- 고유제(告由祭) : 나라 또는 문묘에 큰일이 생겼을 때 행하는 제사
- 고직사(庫直舍) : = 교직사
- 공문십철(孔門十哲) : 공자의 10 대 제자(민손, 염경, 염옹, 재여, 단목사, 염구, 중유, 언언, 복상, 전손사)
- 공묘(孔廟) : 중국에 공자를 모신 사당
- 공부자(孔夫子) : 공자의 높임 말. (夫子란 스승처럼 남의 존경을 받을만한 사람을 일컬음)
- 공성탄신연화(孔聖誕辰筵話) : 공자의 사적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책
- 공자(孔子) : B.C 552 ~ B.C 479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로 유교의 시조, 이름은 구(丘),자는 중니(仲尼), 노(魯)나라 곡부(曲阜)사람.
- 공자묘(孔子廟) : = 공묘. = 문묘
- 과예(課藝) : 생도에게 시험을 보이는것
- 관세대(盥洗臺) : 향사때 헌관들이 손을 씻기 위하여 물그릇을 올려놓는 대
- 관세위(盥洗位) : = 관세대
- 교관(敎官) : 향교에서 교수(敎授), 훈도(訓導), 교도(敎導)등을 통칭
- 교생(校生) : 향교의 유생(儒生)
- 교수(敎授) : 조선시대 종6품의 관직으로 향교의 지도를 위하여 州, 府에 두었으며 후기에는 폐하였음.
- 교위(校衛) : 전교가 거처하는 곳
- 교임(校任) : 교수, 훈도를 통칭함
- 교직사(校直舍) : 향교의 관리 및 식사준비등 제반 업무를 하던곳.(고직사)
- 근궁(芹宮) : 문묘의 별칭
- 내삼문(內三門) : = 내신문, 신문

- 내신문(內神門) : 문묘구역의 주출입 정문으로 제향의식을 위한 문.
- 노주석(爐柱石) : = 정료대(庭燎臺)
- 논어(論語) : 유교경전으로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언행을 제자들이 엮은 책.

- 당상집례(堂上執禮) : 한문 홀기(笏記)를 읽어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 당하집례(堂下執禮) : 원래 동 · 서무의 집례를 담당하는 제관이었으나 현재는 동 · 서무에 위패를 모시지 않아 대성전 월대 밑에서 해설을 담당하는 제관
- 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선성에게 제향하고 활을 쏘던 예.
- 대사성(大司成) : 조선시대 정3품 관직. 성균관의 최고관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유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 대제학(대제학)이 겸직하는 일이 많았으며, 순조 이후 금지되었음.
- 대성전(大成殿) : 향교의 문묘공간의 중심 건물로 공자를 비롯하여 四聖, 十哲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
- 대축(大祝) : 축문 작성과 초헌례 때에 축문을 읽는 제관. = 축(祝), 축관
- 동 · 서무(東西廡) : 문묘공간의 대성전 전면 좌우에 대칭되게 위치한 행각
- 동 · 서재(東西齋) : 성균관이나 향교의 명륜당 앞 동 · 서에 있는 집으로 유생들이 거처하며 독서하고 숙식하던 곳.
- 두(豆) : 젖은 제수를 담기 위해 나무를 깎아 만든 제기

- 망료(望燎) : 축문을 불사르는 절차
- 망요례(望燎禮) : 초헌관이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고 그 재를 땅에 묻는 의식. = 망예위(望瘞位)
- 망료대(望燎臺) : 향사가 끝난 후 축문을 태워 묻는 석물.= 예감대(瘞坎臺)
- 명륜당(明倫堂) : 공자의 사상을 받들어 유생들에게 강학을 하던 곳
- 문묘(文廟) :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중앙에는 성균관에 지방에는 향교에 있음. = 문선왕묘.
- 문묘구역(文廟區域) : 대성전을 중심으로한 제향의식 공간
- 문묘악(文廟樂) : 공자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뢰던 음악.
- 문묘향사(文廟享祀) : 대성전에 모셔진 성현들에게 받들어 제사드리는 의식
- 문묘향사록(文廟享祀錄) : 문묘에 향사한 상황을 기록한 책.
- 문선왕(文宣王) : = 공자
- 문선왕묘(文宣王廟) : 공자를 흠모하여 제사지내는 사당. = 문묘
- 목주(木主) : 神主,位牌라고도 하며 주로 밤나무로 만들었음

- 묘(廟) : 조상이나 성현의 위패를 모셔 두고 제향하는 집, 종묘와 문묘
- 묘사(廟祠) : 제왕 또는 성현의 신위를 안치하고 제사지내는 일
- 미름(米廩) : 학궁의 생도들을 먹일 곡식.

- 반궁(泮宮) : 성균관의 별칭
- 반통(泮通) : 성균관의 대사성을 뽑을 때 3사람의 후보자 속에 추천되는 일. 성균관 앞에 있는 내(川)를 반(泮)이라 하여 반통은 반궁(성균관)에 들어갈 사람을 말함.
- 배향(配享) : 功臣,名臣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神主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일
- 변(籩) : 마른 제수를 담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제기
- 별묘(別廟) : 따로 지은 사당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드는 집사
- 봉심(奉審) : 유림이나 봉행을 원하는 사람이 수시로 거행하는 문묘의례
- 봉작(奉爵) : 준소(樽所-항아리를 놓아두는 곳)에서 사준(司樽)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 봉향(奉香) : 香을 받들고 서 있는 집사
- 부자묘(夫子廟) : 문묘의 딴이름
- 분향(焚香) :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학궁에서 행하는 행사
- 분헌관(分獻官) : 제향때 從享位에 향을 사르고 잔을 올리는 제관
- 분헌례(分獻禮) : 분헌관이 종향위(從享位) 앞에 잔을 올리는 의식

- 사당(祠堂) :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향의식을 행하는 건물
- 사마재(司馬齋) : 그 고을 출신의 생원, 진사들의 집합소
- 사문(斯文) : 유학을 의미하며, 유학자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쓰임
- 사서오경(四書五經) : 유교의 기본 경전으로 사서는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일컫고 오경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를 말함
- 사성(四聖) :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네분의 성인
- 사예(司藝) :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의 관직.
- 사준(司樽) : 준소(樽所－제주 항아리를 놓아둔 곳)에서 술을 잔에 따르는 집사. = 사준관(司樽官)
- 삭망분향(朔望焚香) :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에 거행하는 문묘의례로 질명(質明 : 날이 샐 무렵)에 제생들이 건복(巾服)을 갖추어 입고 공자 신위전에 분향하는 의식

- 삼헌관(三獻官) : 제향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총칭
- 상정석전(上丁釋奠) : 석전을 2.8월의 상정일에 지내므로 이른말
- 색장(色掌) : 성균관, 향교, 사학등에 기거하던 역원(役員)중의 하나
- 생(牲) : 제향때 쓰이는 짐승(소, 양, 돼지 등)
- 생간품(牲看品) : 향사 전날 제관들이 제물로 살아 있는 짐승을 성생단위에 세워놓고 품평을 하는 의례. = 성생의(省牲儀). = 희생의(犧牲儀)
- 생단(牲壇) : = 성생단(省牲壇)
- 생뢰(牲牢) : = 희생(犧牲)
- 생원(生員) : 소과 종장(終場)에 합격한 사람.
- 석전(釋奠) :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 선사등 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 석채, 석전제, 석화
- 석전제(釋奠祭) : = 석전
- 석전제관(釋奠祭官) : = 제관, 헌관
- 석전제악(釋奠祭樂) : = 문묘악
- 석화(釋華) : = 석전
- 석채(釋菜) : = 석전
- 설위(設位) : 문묘종사자의 위패 설치 내용. 향교의 대소규모에 따라 대설위 (大設位), 중설위(中設位),소설위(小設位)로 구분
- 성균관(成均館) : 우리나라 옛 최고의 유교교육을 맡아 보던 기관.
- 성묘(聖廟) : = 대성전
- 성생단(省牲壇) : 향사때 쓸 제물을 올려놓고 품평을 하는 제단. = 생단 = 성생석
- 성생의(省牲儀) : 향사에 쓸 희생을 검사하는 예식. = 생간품(牲看品). =희생의(犧牲儀)
- 승무(陞廡) : 학행(學行)과 덕망이 겸비한 사람이 죽은 뒤에 문묘에 종사하던 제도. 우리나라 18현을 모심.

- 아헌관(亞獻官) : 제향 때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
-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오성위 앞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 알자(謁者) : 제사때 초헌관에게 처음 시작과 끝남을 알리고 의례 전 과정 동안 헌관을 인도하는 집사
- 액내유생(額內儒生) :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아니라 15세이상 60세까지 각종 향교임원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액외유생(額外儒生) : 60세 이상의 유생과 15세 미만의 童蒙이거나 혹은 향교에 재정을 願納한 유생

- 양사재(養士齋) : 지방고을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장소
- 예감대(瘞坎臺) : = 망료대(望燎臺)
- 예성제(禮成祭) : 문묘의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켰을 때 행하는 제사
- 오성(五聖) : 다섯 성인(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 오성위(五聖位) : 유교의 다섯 성인의 위패.
- 외삼문(外三門) : 강학구역의 주 출입문
- 우묘좌학배치(右廟左學配置) : 우측에 문묘구역을 좌측에 강학구역을 배치하는 향교 배치법
- 원점(圓點) : 성균관 유생의 출결(出缺)을 알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올 때 도기(到記 - 출석부)에 점을 찍게 하던 일.
- 위안제(慰安祭) : 문묘가 도난, 화재, 비, 바람, 뇌우 등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때 행하는 제사
- 위패(位牌) : 단(壇), 묘(廟), 원(院)등에 모시는 신주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 유교(儒敎) :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 고래의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학문을 받드는 교. 일명 공교(孔敎), 공자교(孔子敎).
- 유생(儒生) :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수학하는 선비
- 음복(飮福) : 제사에 올렸던 술과 제수등을 나누어 먹는 의식.= 飮福受昨禮
- 음복례(飮福禮) :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에 올렸던 잔을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하는 의식
- 음복수작례(飮福受昨禮) : 祭를 지낸 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禮
- 이안제(移安祭) : 건물을 수리할 때 내부의 위패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행하는 제사
- 일무(佾舞) : 석전제때 사람을 여러 줄로 벌려 세워 추게하던 춤. 춤추는 사람의 줄 수는 종횡이 같으며 줄 수의 사람수에 따라 팔일무(八佾舞), 육일무, 사일무, 이일무 등의 구별이 있음.

- 작세위(爵洗位) : 제향때 쓸 잔을 씻는 자리
- 작헌례(酌獻禮) : 임금이 종묘, 문묘, 왕릉등에 몸소 지내던 제례(祭禮)의 하나. 문묘에 작헌례를 행할 때 시사(試士)하였는데 초시(初試)는 없었으며 그날에 즉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 장의(掌儀) : 향교의 전교를 도와서 각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각 지역별로 1~2명씩 두고 있음.
- 장의(掌議) : 성균관 재생(齋生)중 으뜸가는 사람
- 재(齋) : 유생들이 기숙하는 곳으로 보통 강당 전면에 대칭하여 배치됨. = 동 · 서재
- 재사(齋舍) : 향교, 서원에서 교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집
- 재실(齋室) :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집. = 齋殿

- 재전(齋殿) : = 재실
- 전교(典校) : 향교 재산을 관리하고 祭禮를 掌理하는 소임을 맡은 사람
- 전내집사(殿內執事) : 대성전 안에서 일을 보는 집사
- 전례관(典禮官) : 제사의 모든 진행을 맡아 보는 사람
- 전묘후학배치(前廟後學配置) : 향교, 서원등의 건물 배치법으로 앞쪽에 묘당을 배치하고 뒤쪽에 학업용 건물을 배치
- 전사관(典祀官) :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차리는 일을 맡은 제관
- 전사청(典祀廳) : 서원, 향교등에서 제사의 업무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건물로 문묘공간에 인접하여 위치
- 전외집사(殿外執事) : 대성전 밖의 일을 보는 집사로 동무의 제사를 담당하는 동무집사와 서무를 담당하는 서무집사로 나눈다.
- 전작(奠爵) : 헌관에게 술잔을 받아 신위앞에 올리는 집사
- 전폐례(奠弊禮) : 초헌관이 오성위 앞에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식
- 전학후묘배치(前學後廟配置) : 향교, 서원등의 건물배치법으로 앞쪽에 학업용 건물을 배치하고 뒤쪽에 묘당을 배치
- 전희(奠犧) : = 희생(犧牲). 생뢰(牲牢)
- 정록청(正錄廳) : 성균관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감추어 두던 곳. 뒤에 성균관의 직소(直所)의 이름이 되었다. 성균관의 관리를 맡아보던 오늘날의 학교 사무실 기능
- 정료대(庭燎臺) : 야간조명이 필요한 곳에 석주를 세워 마당을 밝혔던 석물, = 노주석(爐柱石)
- 제관(祭官) : 석전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贊者, 謁者, 贊引등이 있다. = 석전제관. = 헌관
- 제기고(祭器庫) : 제사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마련하고, 器物, 그릇, 기구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문묘공간 인접에 위치.
- 제주(祭酒) : 제향때 사용하는 술
- 제주(祭酒) : 성균관에서 교회(敎晦)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3품 이상의 학덕이 높은 사람으로 이조판서가 겸임하고, 주로 석전제향때만 일을 보았다.
- 제집사(諸執事) : 제향의 사무를 맡은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 = 제집관 殿內執事와 殿外執事로 구분
- 존경각(尊經閣) : 성현들의 사상과 문집등의 서적을 펴내고 보관하는 곳. 장판각
- 종향위(從享位) : 공자의 제자 10위, 우리나라 성현 18위, 중국의 성현 6위의 위패
- 종헌관(終獻官) : 제향 때 마지막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

-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오성위 앞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 좌묘우학배치(左廟右學配置) : 향교 배치법으로 좌측에 문묘구역을 우측에 강학구역을 배치
- 주사(廚舍) : 음식물을 준비하는 곳
- 증반소(蒸飯所) : 제향에 제상(祭床)에 올리는 젯메를 짓고 기물(器物)을 보관,준비하는 집
- 직월(直月) : 조선시대 향약직책의 하나
- 진설(陳設) : 준비된 제물을 사당으로 옮길 때 집사들과 같이 운반하고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는 집사. 제상에 제물을 차리는 것.= 진설관
- 집례(執禮) : 석전의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으로 홀(笏)을 읽는 사람. = 찬자(贊者)
- 집사(執事) : 제사의식 때 절차에 따른 의식 진행에 일정한 소임을 띤 사람

- 찬인(贊引) : 의례과정에서 아헌관과 종헌관이 예를 행할 때 그 왼쪽에 서서 각 헌관을 인도하는 집사.
- 찬자(贊者) : 향사의 전 과정을 적어 놓은 홀기를 낭독하는 사람. = 집례(執禮)
- 찬창(贊唱) : 집례가 홀기에 따라 말하면 그 순서의 말을 다시 따라 부르는 사람
- 창홀대(唱笏臺) : 제례의식때 의식순서를 인도하기 위하여 만든 단
- 척기(滌器) : 제향때 그릇을 씻는 업무를 맡은 사람
- 천조관 : 제향의식때 고기로 된 제사음식을 올리는 제관
- 철변두(徹籩豆) : 대축이 변(邊)과 두(豆)를 거두어 들이는 의식, 즉 제사를 지낸 그릇을 덮는 절차를 말함
- 청금록(靑衿錄) : 성균관, 향교, 서원등에 있는 유생의 명부
- 초헌관(初獻官) : 제향 때 오성위에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제사의 주인.
-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오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祝文)을 읽는 의식
- 축(祝) : = 대축(大祝).축관(祝官)
- 축관(祝官) : 축을 읽는 사람

- 팔일무(八佾舞) : = 일무
- 풍화루(風化樓) : 유생들이 풍류를 즐기며 詩作, 思索을하며 여가를 보내는곳

- 하마비(下馬碑) : 성균관, 향교등의 입구에 세워 성역임을 알리는 표석
- 학교등록(學校謄錄) :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한 책.
- 학전(學田) : 교육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 행단(杏壇) : 향교에 은행나무를 흔히들 심는데 공자가 행단(은행나무 우거진 높은 언덕)에서 제자들을 교육한데 유래된 것임

- 향관청(享官廳) : 제관들이 齊戒하고 香祝을 보관하는 곳
- 향교(鄕校) : 시골에 있는 문묘와 거기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 일명 校宮, 齊宮 이라하고,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에 계승된 관학으로서 공립 지방교육기관
- 향교전(鄕校田) : = 학전
- 향사(享祀) : =제사(祭祀)
- 향사례(鄕射禮) : 향음주례때 활을 쏘는 예절
- 향음주례(鄕飮酒禮) : 고을의 유생이 모여 향악을 읽고 술마시며 잔치하는 예절
- 향학(鄕學) : 고려 때의 지방교육 기관
- 헌관(獻官) : 위패 앞에 잔을 올리는 제관. = 제관, 석전제관
- 홀기(笏記) : 소정의 절차에 따라 享祀하는데 높은 소리로 부르는 제사순서
- 홍문(紅門) : = 홍살문
- 홍살문(紅箭門) : 신성한 성역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
- 환안제(還安祭) : 건물의 수리를 끝내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던 위패를 다시 옮겨 와서 행하는 제사.
- 훈도(訓導) : 조선시대 종9품의 관직으로 500호 이상의 군현의 유생을 교육 시켰으며 조선중기 이후에는 관직이 없어짐.
- 희생(犧牲) : 천지신명이나 문묘제향, 종묘에 제사를 올릴때 사용되었던 제물. = 생뢰(牲牢), 전희(奠犧)
- 희생의(犧牲儀) : 향사에 쓸 희생물을 검사하는 禮. = 생간품(牲看品) = 성생의(省牲儀)

3. 鄕校 關聯民俗 · 俗談

• 희생,제미(祭米)를 헌납하면 자손이 총명하여 과거에 입격한다고 믿는다. 희생이나 제미를 헌납한 집에는 제사에 썼던 포와 일정 부위의 생육을 보낸다.

• 정위(正位)에 올렸던 밤, 대추, 잣 등의 과일을 경기가 있는 어린이에게 달여 먹이면 잘 낫는다.

• 정위에 올렸던 제주를 고루 먹은 사람은 과거할 자손이 난다고 믿는다. 요즘도 시험치를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나누어진 제수를 먹지 않고 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희생의 머릿고기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는 초헌관 댁으로 보내어 지므로 얻기가 어렵다.

• 희생용 돼지털로 물붓(글자를 익히기 위하여 나무 서판(書板)에 물로 쓰는 붓)을 만들어 쓰면 글씨를 잘 쓴다고하여 주인(廚人)에게 부탁하여 털을 얻어 간다.

• 혹시 정위 상위에 먼지가 떨어졌으면 도포소매로 쓸어내므로 유생들의 옷소매끝은 언제나 때가 묻어 있다.

• 석전제가 가까와 오면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하여 기후변동이 있다. 이를 석전절기라 부른다.

• 괴질을 앓는 환자는 달 없는 밤에 대성전을 한 바퀴 돌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 향교의 여러 가지 연회에 쓰일 등절비를 곱게 만들면 장원할 아들을 낳고, 만디를 곱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한다. 또 서자(庶子)는 승적(昇籍)하고 천인(賤人)은 면천(免賤)하며 교생은 청금에 오른다고 한다.

• 행제(行祭)에서 실수하여 명고(鳴鼓)를 당한 집사에게는 번포(번脯 : 제관과 집사들에게 음복 후에 나누어 주는 육포)를 반감했다고 한다.

• 석전제의 제수는 모두 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장 먹지 못

하고 쳐다만 봐야 할 음식을 가리켜 석전제상 음식이라고 한다.

- 낮은 단〈勵壇〉제사의 제물 수는 밥 한동이, 술 한동이, 희생 한마리, 바닷고기 열마리를 익혀서 쓴다. 석전이 끝난 다음 유생 한 사람과 수복이가 가서 지내고 온다. 그러므로 낮은 단 제사 음식은 풍족하고 석전제에서는 음식이 풍족치 못하다. 체면 돌보지 않고 음식에 탐내는 사람을 가리켜 석전 대축 아니하고, 낮은 단 제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비웃는다. 또 귀한 것을 버리고 재물에 욕심을 내서, 천한 것을 취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 행조(行조), 반포(頒脯)라하여 석전제 음복 후 남은 생육이나 포를 제관과 참가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데, 이 일이 어쩌다 고르게 되지 않았을 때는 관청의 행정이 잘못되거나 큰 송사(訟事)가 일어 난다고 믿었다.

- 석전제향 제수를 감독 관리하는 전사관(典祀官)이 제수를 남겨 가져가면 미련한 자손이 태어난다고 믿어, 만약 제수가 남으면 가져가지 않고 수복이나 종사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 공자왈 맹자왈 : 공자, 맹자를 거론하며 유교의 가르침을 아는체 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자앞에 문자쓰네

- 문선왕(文宣王)끼고 송사한다 : 남이 반대하지 못할 사람을 내세워 세력을 쓴다는 말

4. 儒教建築年譜

왕 조	년	대	내 용
노국	周靈王 21년	BC 551	孔子(BC 551~BC 479) 탄생, 夏歷 8월 27일 탄생하고
	魯襄公 22년		2월 11일 졸함
	周景王 24년	BC 521	顔子 탄생 (BC 521 ~ BC 490)
	魯昭公 21년		
	周敬王 15년	BC 505	曾子 탄생 (BC 505 ~ BC 436)
	魯定公 5년		
	周敬王 37년	BC 483	子思 탄생 (BC 483 ~ BC 402)
	魯哀公 12년		
추국		BC 372	孟子 탄생 (BC 372 ~ BC 289경)
백제	고이왕 52년	AD 285	일본 應神天皇의 초청으로 王仁이 『論語』『千字文』을 가지고가 일본태자의 교육 맡음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	최초의 관학인 『太學』을 세워 교육시킴
백제	근초고왕	. . .	왕자 阿直岐,박사 段楊甫 高安茂등이 일본을 오가면서 유교경전을 가르킴
백제	근초고왕	375	高興에 의해 『書記』 편찬
고구려	....	...	평양천도 (427)이후 私學으로 지방학교인『扃堂』이란 지방교육기관이 건립
신라	진흥왕 6년	545	居柒夫등이 『國史』 수찬
고구려	영양왕 11년	600	李文眞이 『新集』 5권 편찬
신라	진덕여왕 2년	648	遣唐使 金春秋가 唐에서 釋奠禮를 참관하고 돌아와 국학에서 강론
통일신라	신문왕 2년	682	國學 설치
	성덕여왕 16년	717	王子 金守忠이 唐에서 공자,10철,72현의畵像을 모셔와 문묘에 설치
	경덕왕 6년	747	국학에 三科制의 수업 실시
	원성왕 4년	788	讀書三品科 실시
고려	태조 13년	930	西京(평양)에 학교를 설치하여 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향교의 시초
	광종 9년	958	科擧制를 실시
	성종 2년	983	任成老가 宋으로부터 『文廟堂圖』를 가져오는 가운데 『文宣王廟圖』『祭器圖』『七十二賢贊記』를 가져와 그것을 모범으로 國子監 설립추진

왕조	년	대	내 용
고려	성종 6년	987	전국 12牧에 학교를 설치하고 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기틀을 마련
	성종 11년	992	國子監 설치
	현종 11년	1020	文昌候 崔致遠을 선성묘에 배향
	현종 13년	1022	弘儒候 薛聰을 종사배향
	문종 7년	1053	崔沖이 서당을 세워 후에 九齋로 발전하여 유교활성화에 기여
	선종 8년	1091	국학 문선왕묘 벽상에 72현의 초상을 그림
	예종 14년	1119	국자감내에 최초의 장학기구인 養賢庫를 설치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적 뒷바침
	인종 원년	1123	宋의 사신인 徐兢이 저술한 『高麗圖經』에 국자감 배치에 대한 기록
	인종 5년	1127	鄕校란 공식 명칭이 『高麗史』에 처음으로 기록으로 나타남
	충렬왕(1274~1308)		安珦이 성리학을 도입하여 유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문선왕전을 짓고 원에서 공자와 72제자의 화상을 구해와 모심
	충렬왕		『文獻備考』에 충렬왕때 강릉 안렴사 이승인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 문묘를 세운 것이 처음이라 기록됨
	충렬왕 24년	1298	국자감을 성균감으로 개칭
	충렬왕 30년	1304	개성의 國子監을 成均館으로 개칭
	충숙왕 1년	1314	李穀을 각주에 파견하여 향교를 널리 설치하고 유학교육을 부흥시킴
	충숙왕 6년	1319	文成公 安珦(安裕)을 성묘 동무 제2위에 배향하고, 孔子의 익호를 唐식인 文宣王에서 元식인 大成至聖文宣王으로, 문묘를 宣文殿에서 大成殿으로 개칭
	공민왕 5년	1356	성균관을 다시 국자감으로 개칭
	공민왕 11년	1362	국자감을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
조선	태조 원년	1392	성균관안에 문묘를 세우고 공자등 성현봉안 각도 안찰사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 수령의 능력을 가늠하는 제도마련하고 향교설치를 강조
	태조 4년	1395	종묘 건립
	태조 7년	1398	성균관을 한양 崇敎坊에 건축, 성균관과 병행할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설치를 재차 촉구
	정종 2년	1400	성균관 소실. 곧 재건
	태종 13년	1413	향교의 관리 및 유지에 충당할 비용을 마련토록 학전(學田)을 지급
	성종 17년	1488	「東國輿地勝覽」 편찬 - 전국에 一邑一校 체제를 갖춤

왕조	년	대	내 용
조선	중종 12년	1517	文忠公 鄭夢周를 종사배향
	중종 25년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편찬 - 전국에 329개소의 향교와 2개소의 성균관 있었음
	중종 38년	1543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옛집터에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紹修書院 -安裕 주향)설립으로 서원건축 등장
	명종 5년	1550	군수 李滉이 "紹修書院"을 賜額받음
	명종 7년	1552	藍溪書院(鄭汝昌 주향)설립 (함양군 소재)
	명종 16년	1561	西岳書院(薛聰 주향)설립 (경주시 소재) 퇴계의 농운精舍 설립
	선조 1년	1568	文會書院(李珥 주향)사액 (황해도 백천군)
	선조 5년	572	畵像이나 塑像으로 향사하던 문선왕을 국령으로 位牌로 대신토록함
	선조 6년	1573	玉山書院(李彦迪 주향)설립 (경주시 소재) 崧陽書院(鄭夢周 주향) 설립 (개성시 소재)
	선조 7년	1574	陶山書院(李滉 주향)설립 (안동시 소재)
	선조 11년	1578	율곡의 隱屛精舍 설립
	선조 23년	1590	筆巖書院(金麟厚 주향)설립 (장성군 소재)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1592~1598)으로 성균관과 많은 향교등 유교건축들이 소실. 종묘 소실
	선조 38년	1605	道東書院(金宏弼 주향)설립 (달성군 소재)
	광해군 2년	1610	文敬公 金宏弼,文正公 趙光祖,文純公 李滉,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등 5위를 종사배향
	광해군 5년	1613	屛山書院(柳成龍 주향)설립 (안동시 소재)
	광해군 7년	1615	武城書院(崔致遠 주향)설립(정읍시 소재)
	인조 12년	1634	遯巖書院(金長生 주향)설립(논산시 소재)
	인조 14년	1636	병자호란으로 많은 유교건축 소실
	인조 26년	1648	牛樁書院(趙憲 주향)설립(김포군 소재)
	효종 1년	1650	深谷書院(趙光祖 주향)설립(용인시 소재)
	숙종7년	1681	文簡公 成渾 종사배향
	숙종 8년	1682	文成公 李珥 종사배향
	숙종 21년	1695	鳳陽書院(朴世采 주향)설립(황해도 장연군)
	숙종 28년	1702	興巖書院(宋浚吉 주향)설립 (상주시 소재)
	숙종 43년	1717	文元公 金長生을 종사배향
	영조 32년	1756	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 2위 종사배향
	영조 36년	1760	「輿地圖書」편찬 - 전국에 327개 향교와 2개소의 성균관이 있었음
	영조 40년	1764	文純公 朴世采를 종사배향
	정조 9년	1785	大老祠(= 江漢祠 - 宋時烈 주향)설립 (경기도 여주군 소재)

왕조	년	대	내 용
조 선	정조 20년	1796	文正公 金麟厚를 종사배향
	고종 5년	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고종 8년	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전국 679개 서원 중 47개 서원 존치
	고종 20년	1883	文烈公 趙憲,文敬公 金集 2위를 종사배향
	고종 31년	1894	과거제도 폐지로 향교는 문묘향사 기능만 남게 됨
대한제국	광무 1년	1897	여수, 돌산, 완도, 지도향교 설립
	광무 5년	1901	통영향교 설립
	광무 9년	1905	오천향교 설립
일제시대		1911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향교에 直員을 두어문묘를 지키게 함. 1918 전국 향교조사(335개소)
		....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칭하고 명륜전문학교를 부설하여 교육
		1937	춘추 석전일을 양력 4월과 10월의 15일로 변경 실시
대한민국		1946	성균관을 다시 환원하여 儒道會를 결성하고 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학교로 발전
		1949	5성위, 송조2현만 봉안하고 중국유현 113위를 매안하고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에 陞奉從享하고, 춘추석전을 폐하고 공자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석전봉행
		1950	6.25동란으로 많은 향교.서원들이 소실
		1953	공문10철 및 송조4현을 복위하고 춘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환원
		1965	강양향교 건립
		1980년대	사회교화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
		1995	동해향교 건립

부록

자료편

1. 전국 향교 배치도
2. 주요 건물 도면
   (1) 대성전
   (2) 명륜당
   (3) 누각
   (4) 동·서무
   (5) 동·서재
   (6) 내·외삼문

1. 全國 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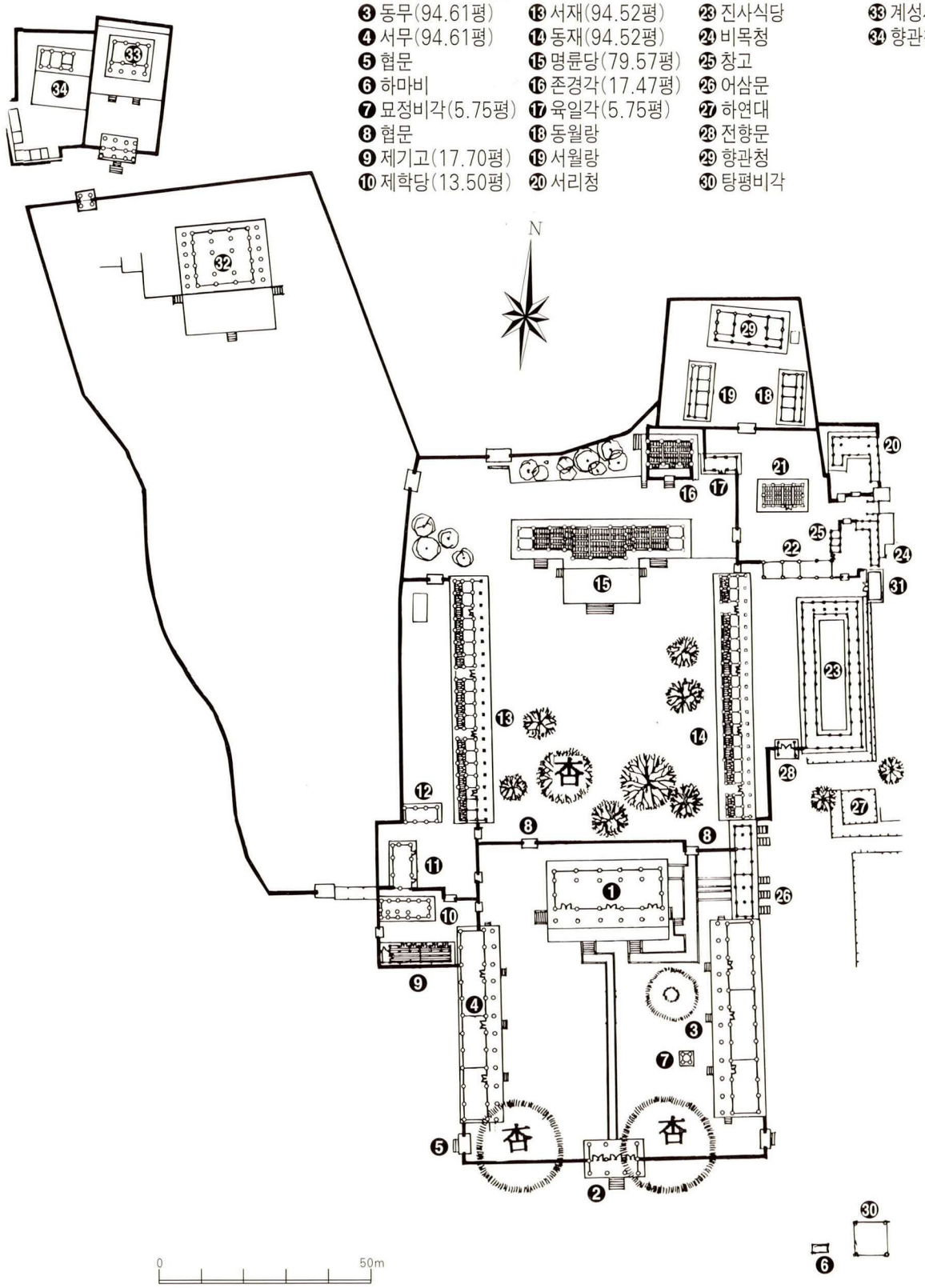
※ 배치도는 아래 순번에 따라 게재되었음

※성균관		1	양천	2	인천	3	부평	4	강화	5	교동	6	수원
7	평택	8	진위	9	고양	10	과천	11	광주	12	파주	13	교하
14	적성	15	이천	16	용인	17	양지	18	양주	19	여주	20	남양
21	연천	22	포천	23	가평	24	양근	25	지평	26	안성	27	죽산
28	양성	29	김포	30	통진	31	춘천	32	원주	33	강릉	34	삼척
35	동해	36	홍천	37	횡성	38	영월	39	평창	40	정선	41	철원
42	화천	43	양구	44	인제	45	간성	46	양양	47	청주	48	충주
49	제천	50	청풍	51	문의	52	보은	53	회인	54	옥천	55	청산
56	영동	57	황간	58	진천	59	괴산	60	청안	61	연풍	62	음성
63	단양	64	영춘	65	회덕	66	진잠	67	천안	68	직산	69	목천
70	공주	71	보령	72	남포	73	오천	74	아산	75	온양	76	신창
77	서산	78	해미	79	노성	80	연산	81	은진	82	금산	83	진산
84	연기	85	전의	86	부여	87	임천	88	석성	89	홍산	90	서천
91	한산	92	비인	93	청양	94	정산	95	홍주	96	결성	97	예산
98	대흥	99	덕산	100	태안	101	당진	102	면천	103	전주	104	옥구
105	임피	106	익산	107	함열	108	용안	109	여산	110	정읍	111	고부
112	태인	113	남원	114	운봉	115	김제	116	금구	117	만경	118	고산
119	진안	120	용담	121	무주	122	장수	123	임실	124	순창	125	고창
126	무장	127	흥덕	128	부안	129	광주	130	여수	131	돌산	132	순천
133	낙안	134	나주	135	남평	136	광양	137	담양	138	창평	139	곡성
140	옥과	141	구례	142	고흥	143	보성	144	화순	145	능주	146	동복
147	장흥	148	강진	149	해남	150	영암	151	무안	152	함평	153	영광
154	장성	155	완도	156	진도	157	지도	158	대구	159	칠곡	160	현풍
161	영일	162	청하	163	흥해	164	장기	165	경주	166	김산	167	개령
168	지례	169	안동	170	예안	171	인동	172	선산	173	영주	174	풍기
175	순흥	176	영천	177	신령	178	상주	179	함창	180	문경	181	경산
182	하양	183	자인	184	군위	185	의흥	186	의성	187	비안	188	청송
189	진보	190	영양	191	영덕	192	영해	193	청도	194	고령	195	성주
196	예천	197	용궁	198	봉화	199	울진	200	평해	201	동래	202	기장
203	울산	204	언양	205	창원	206	진주	207	통영	208	사천	209	곤양
210	김해	211	밀양	212	거제	213	양산	214	의령	215	함안	216	칠원
217	창녕	218	영산	219	고성	220	남해	221	하동	222	산청	223	단성
224	함양	225	안의	226	거창	227	합천	228	삼가	229	초계	230	강양
231	제주	232	대정	233	정의	#	개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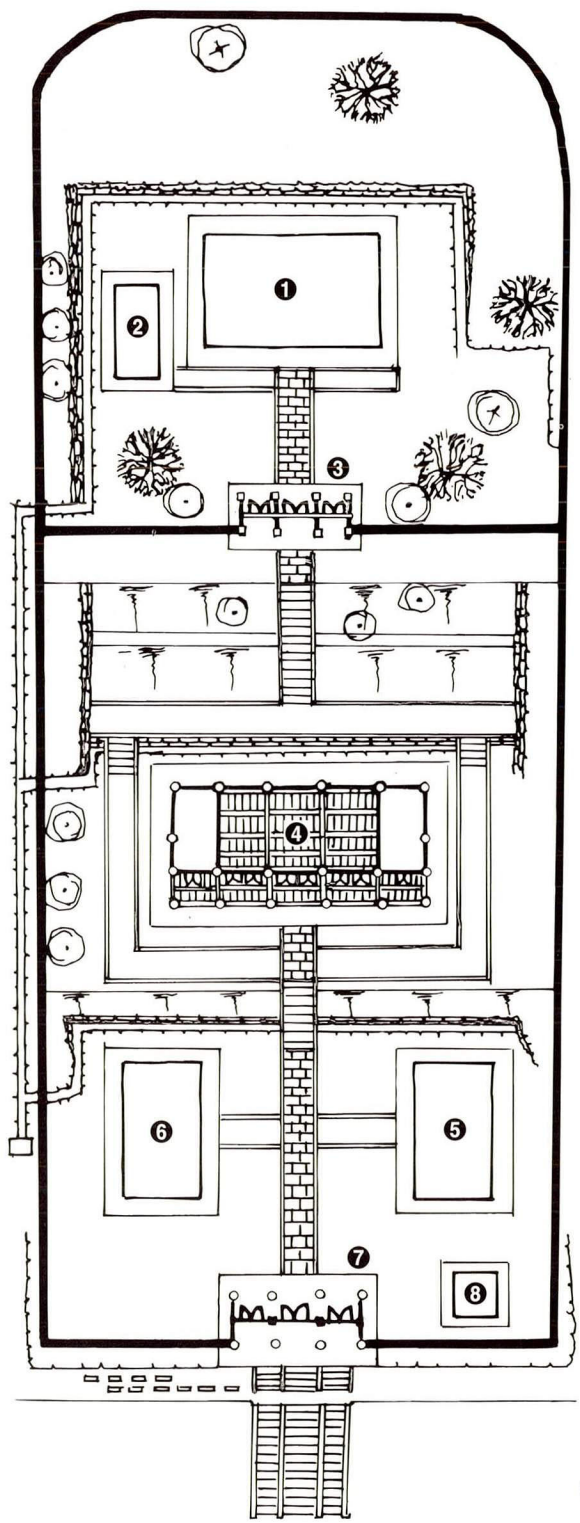
※게재된 배치도는 보수, 정비 과정에서 현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5 동해향교 배치도는 게재되지 않음

※ 成均館 配置圖

❶ 대성전(90.05평)
❷ 신삼문(21.15평)
❸ 동무(94.61평)
❹ 서무(94.61평)
❺ 협문
❻ 하마비
❼ 묘정비각(5.75평)
❽ 협문
❾ 제기고(17.70평)
❿ 제학당(13.50평)
⓫ 전사청(8.69평)
⓬ 숙수청
⓭ 서재(94.52평)
⓮ 동재(94.52평)
⓯ 명륜당(79.57평)
⓰ 존경각(17.47평)
⓱ 육일각(5.75평)
⓲ 동월랑
⓳ 서월랑
⓴ 서리청
㉑ 전록청(16.83평)
㉒ 고직사
㉓ 진사식당
㉔ 비목청
㉕ 창고
㉖ 어삼문
㉗ 하연대
㉘ 전향문
㉙ 향관청
㉚ 탕평비각
㉛ 변소
㉜ 비천당
㉝ 계성사
㉞ 향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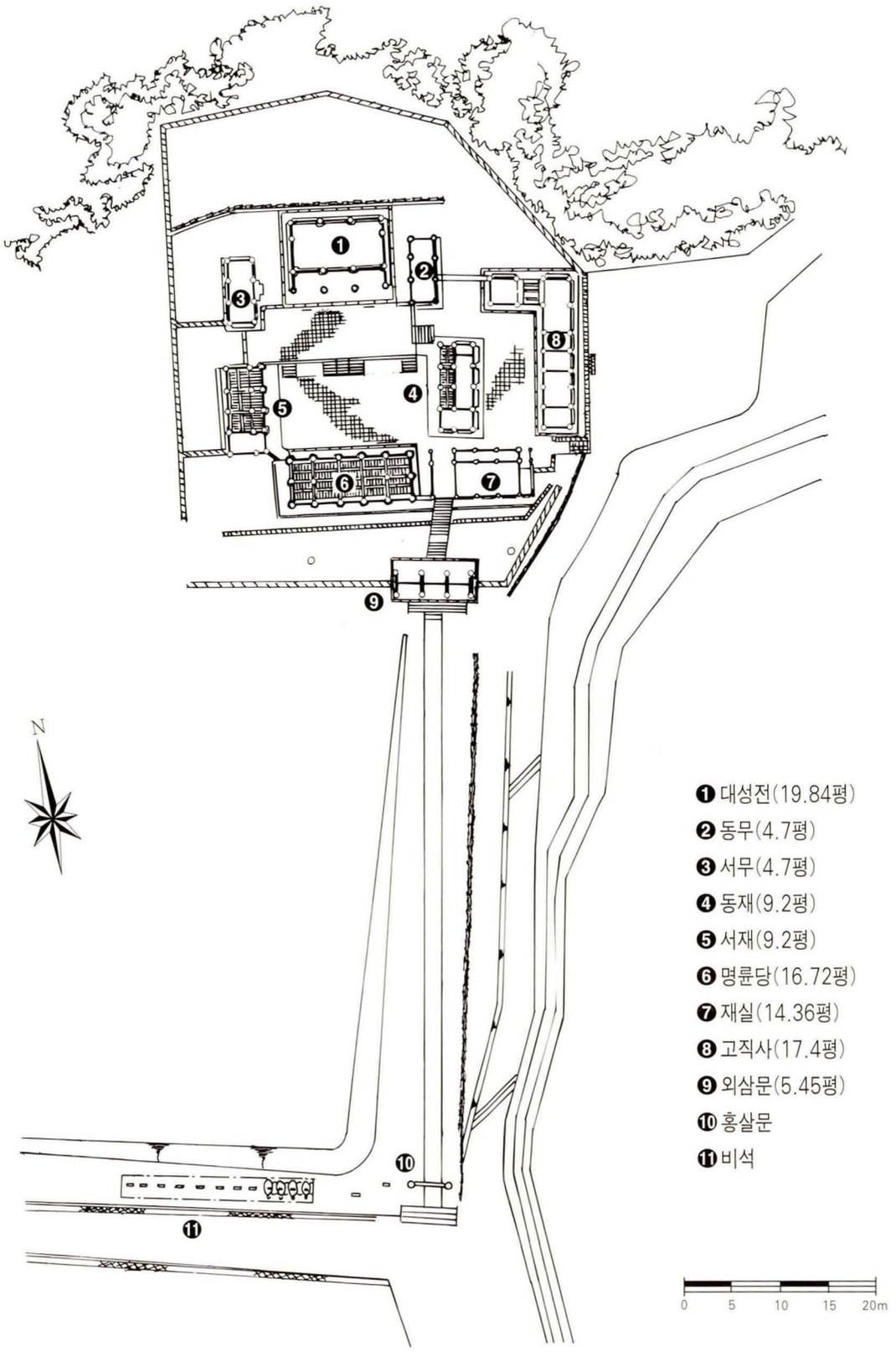
1. 陽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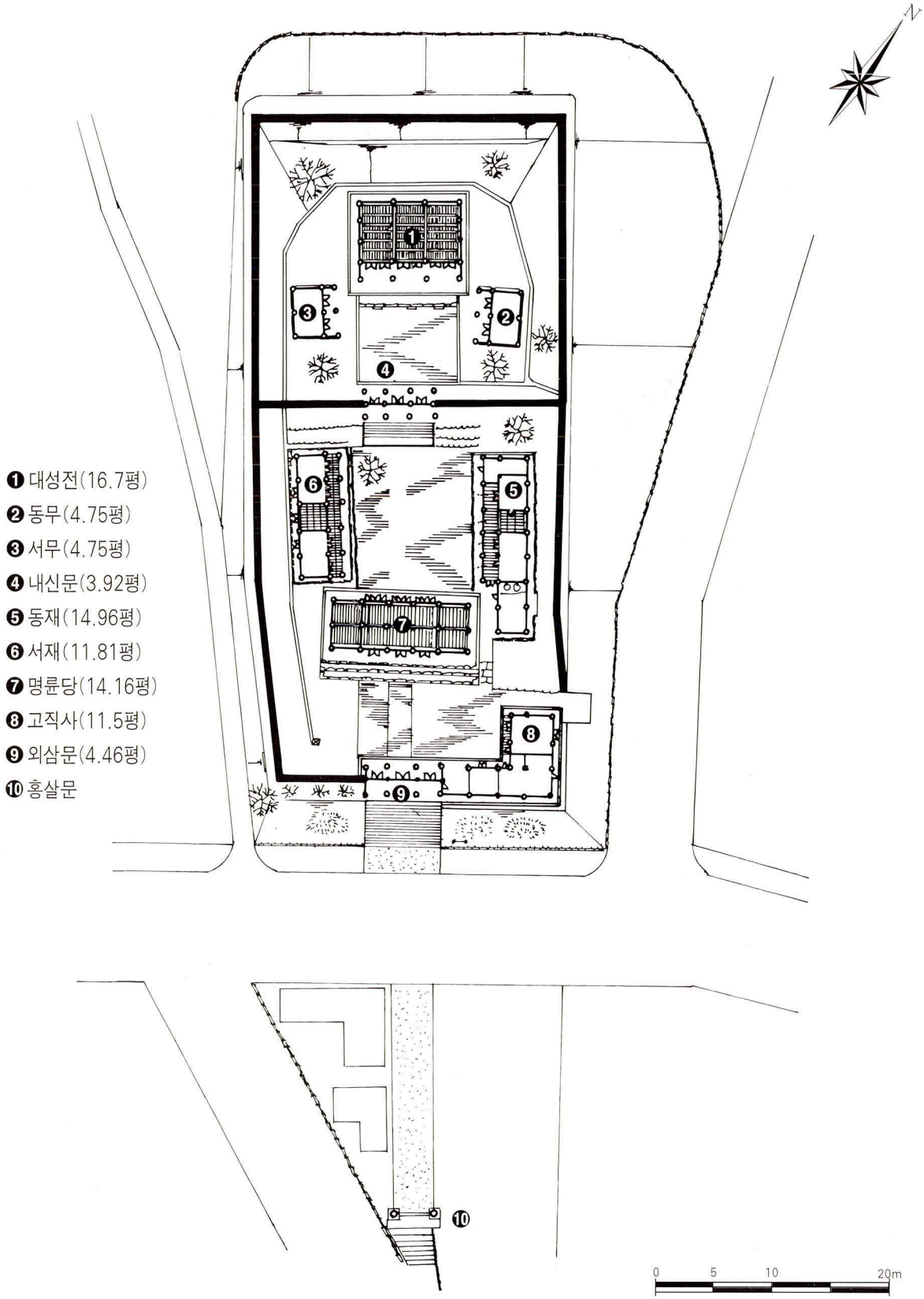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전사청
❸ 내삼문
❹ 명륜당
❺ 동재
❻ 서재
❼ 외삼문
❽ 변소

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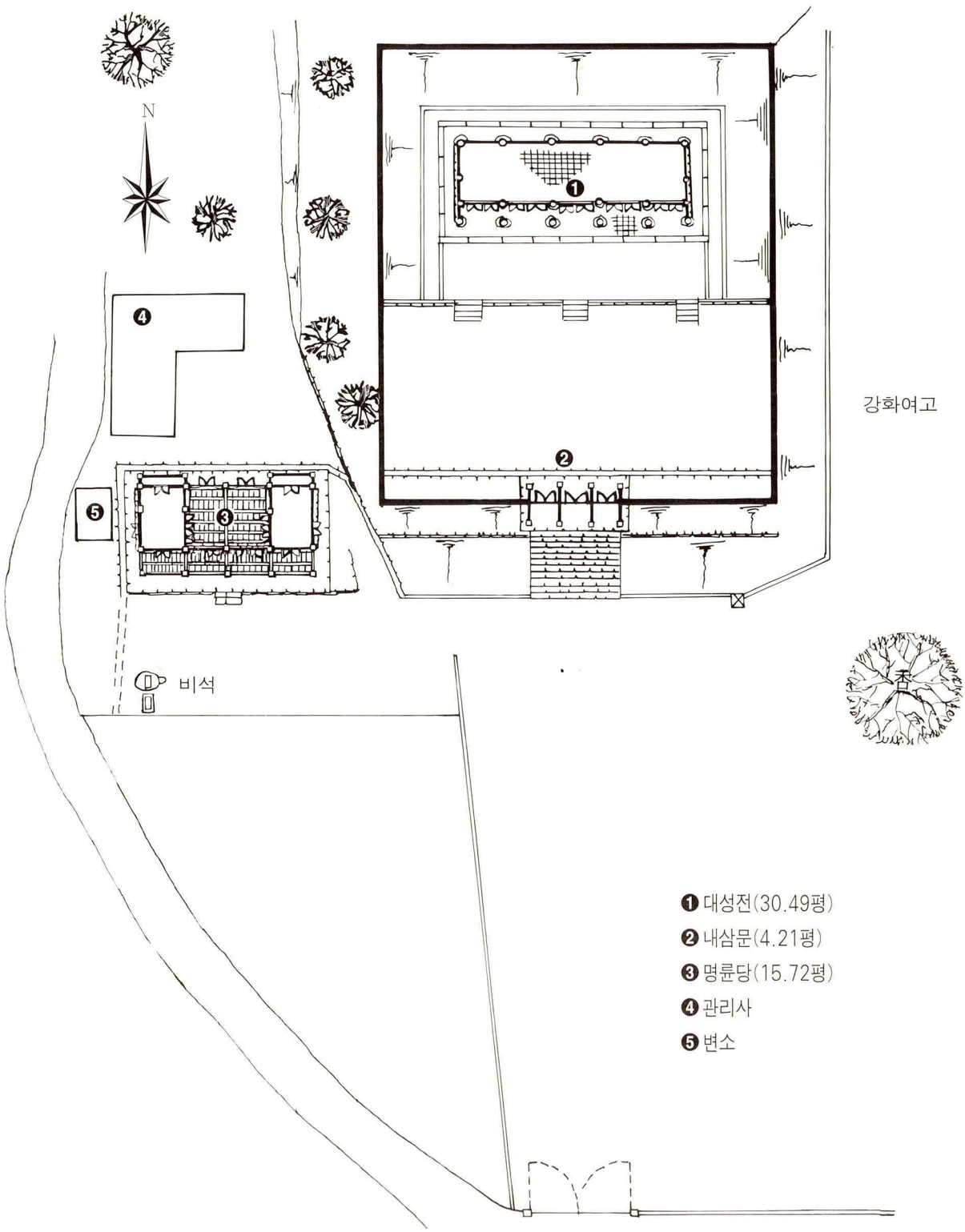
2. 仁川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19.84평)
❷ 동무(4.7평)
❸ 서무(4.7평)
❹ 동재(9.2평)
❺ 서재(9.2평)
❻ 명륜당(16.72평)
❼ 재실(14.36평)
❽ 고직사(17.4평)
❾ 외삼문(5.45평)
❿ 홍살문
⓫ 비석
0 5 10 15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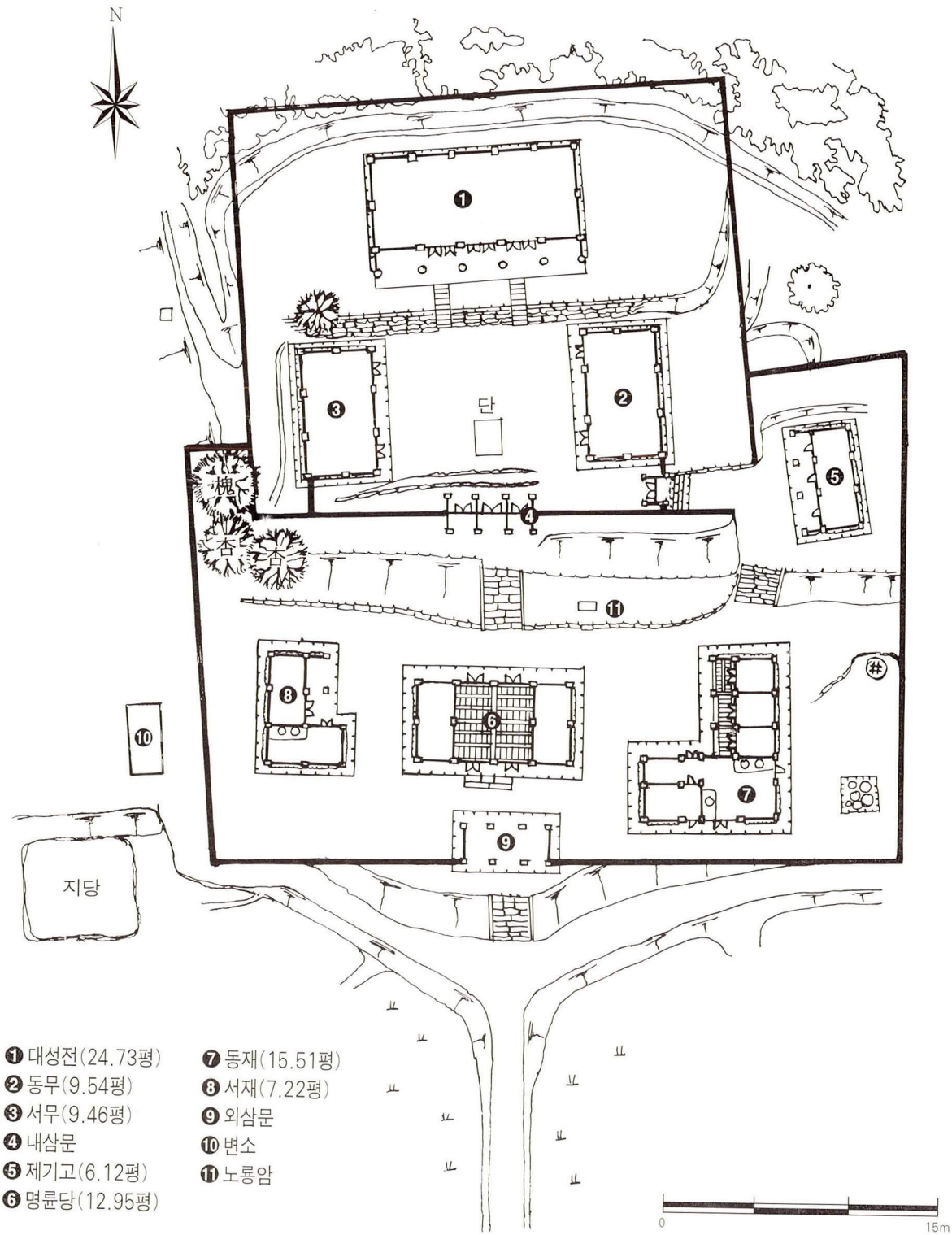
3. 富平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6.7평)
❷ 동무(4.75평)
❸ 서무(4.75평)
❹ 내신문(3.92평)
❺ 동재(14.96평)
❻ 서재(11.81평)
❼ 명륜당(14.16평)
❽ 고직사(11.5평)
❾ 외삼문(4.46평)
❿ 홍살문
N
0 5 10 20m

4. 江華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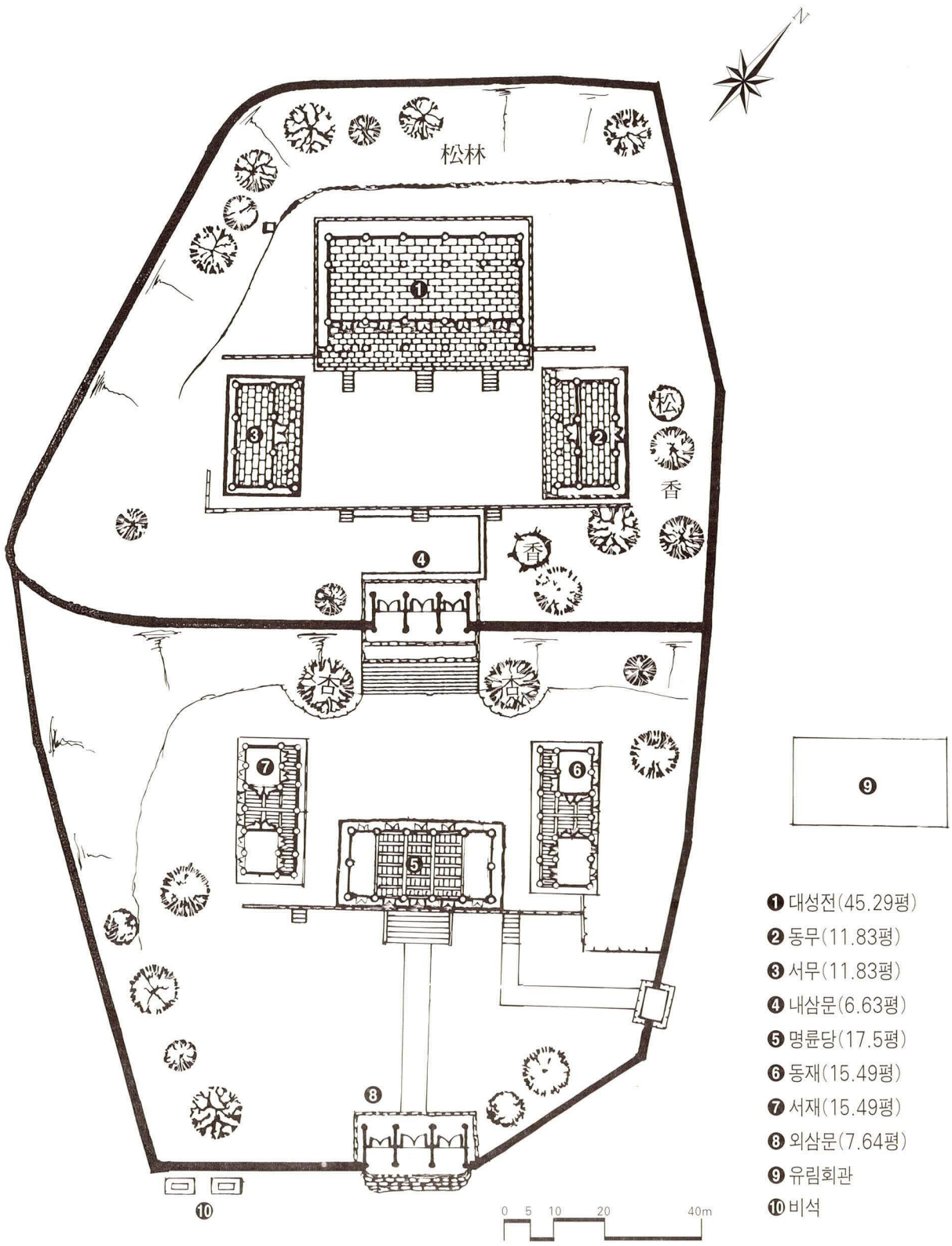


5. 喬桐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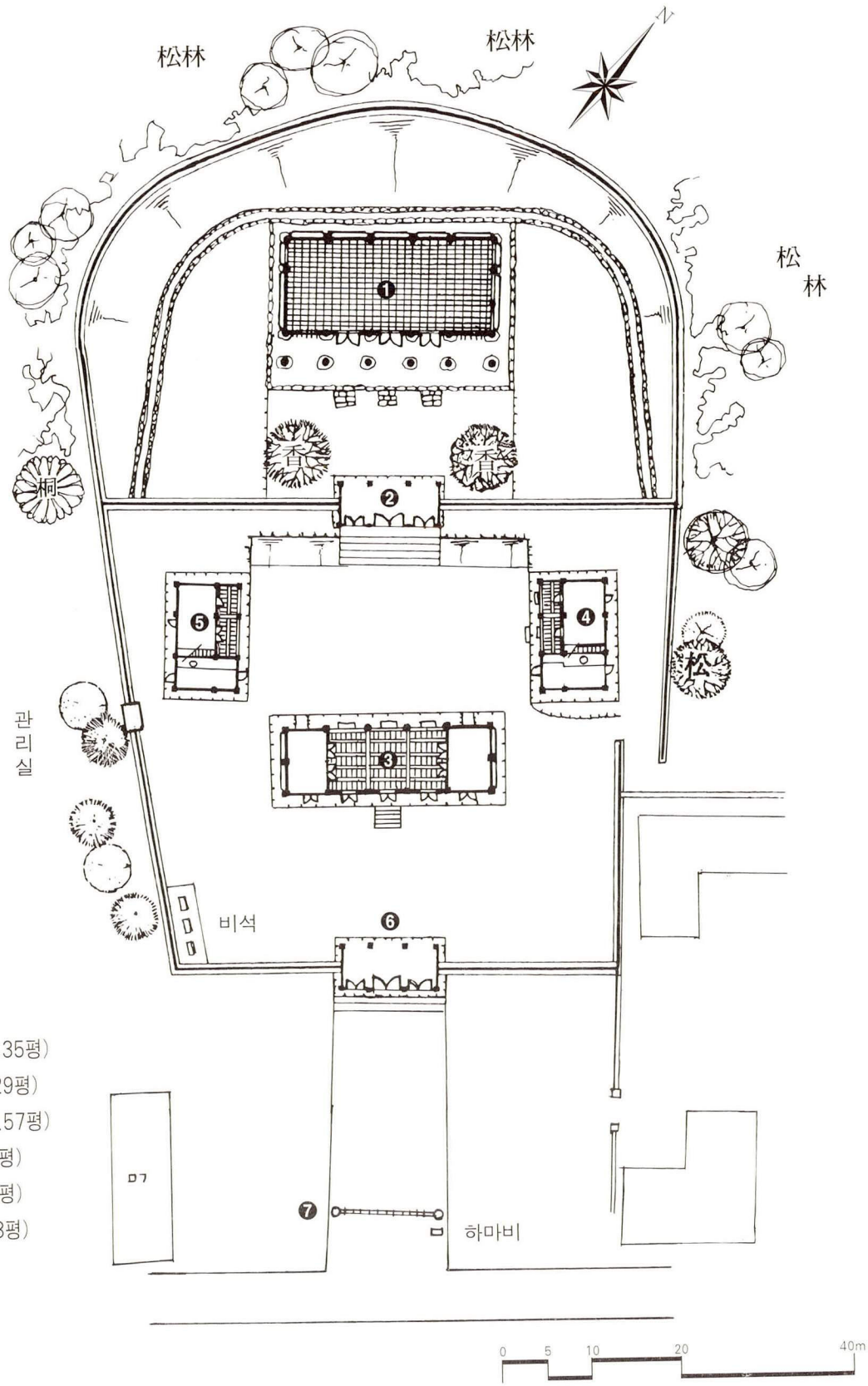
❶ 대성전(24.73평)
❷ 동무(9.54평)
❸ 서무(9.46평)
❹ 내삼문
❺ 제기고(6.12평)
❻ 명륜당(12.95평)
❼ 동재(15.51평)
❽ 서재(7.22평)
❾ 외삼문
❿ 변소
⓫ 노룡암

6. 水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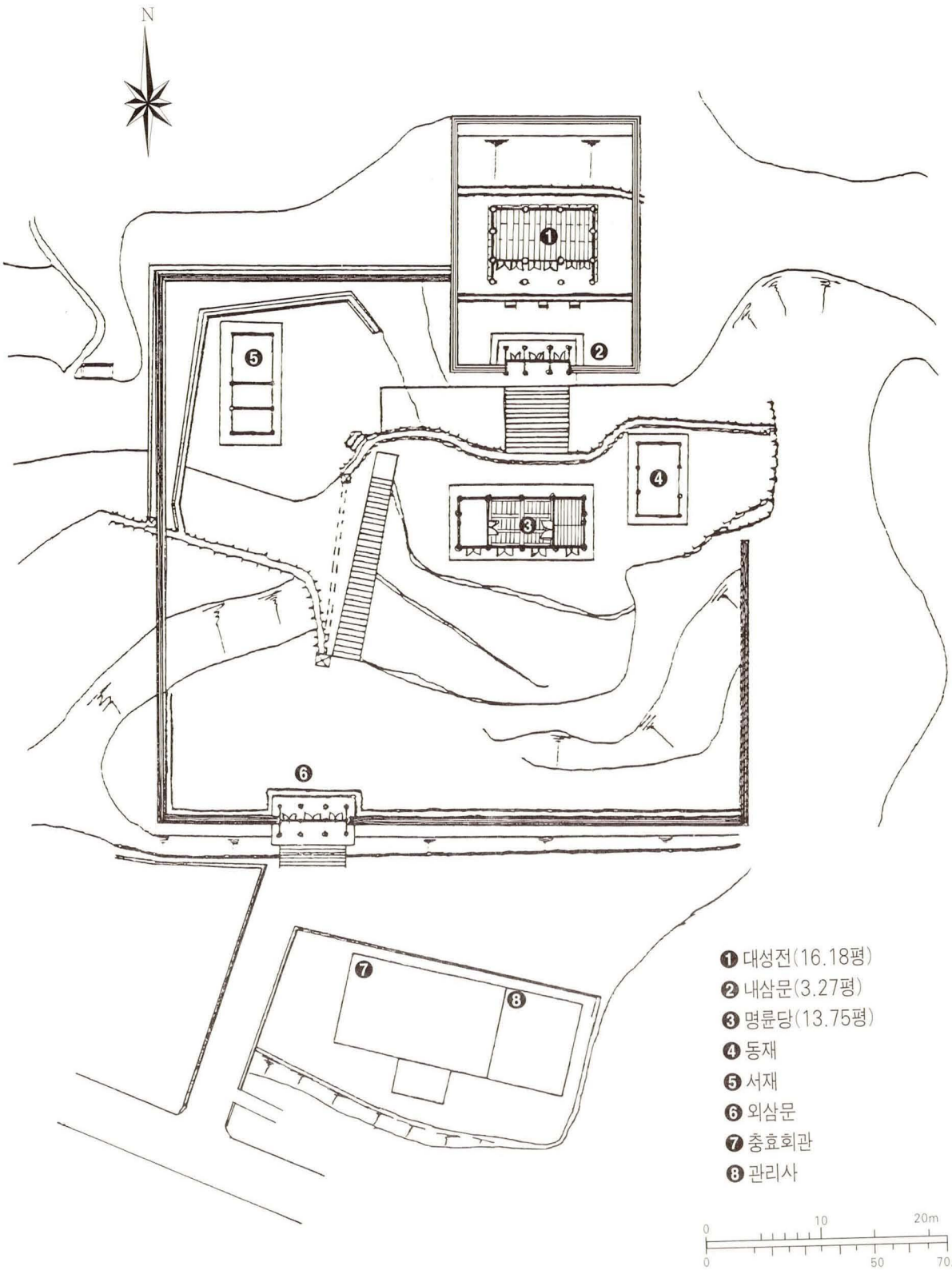


❶ 대성전(45.29평)
❷ 동무(11.83평)
❸ 서무(11.83평)
❹ 내삼문(6.63평)
❺ 명륜당(17.5평)
❻ 동재(15.49평)
❼ 서재(15.49평)
❽ 외삼문(7.64평)
❾ 유림회관
❿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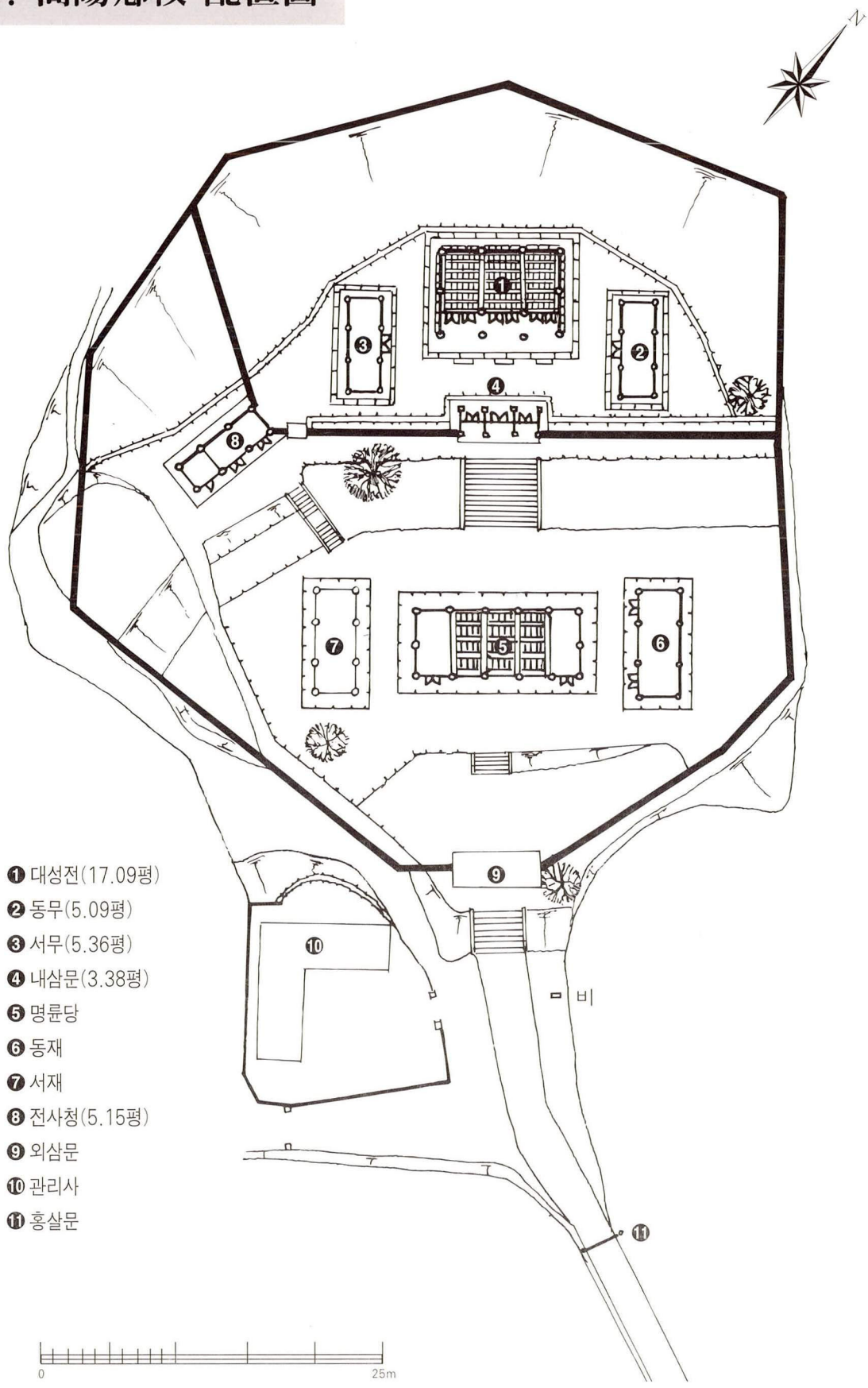
7. 平澤鄕校 配置圖


松林
松林
松林
香
香
桐
松
관리실
비석
하마비
❶ 대성전(26.35평)
❷ 내삼문(4.29평)
❸ 명륜당(13.57평)
❹ 동재(7.08평)
❺ 서재(6.68평)
❻ 외삼문(4.3평)
❼ 홍살문
0 5 10 20 40m

8. 振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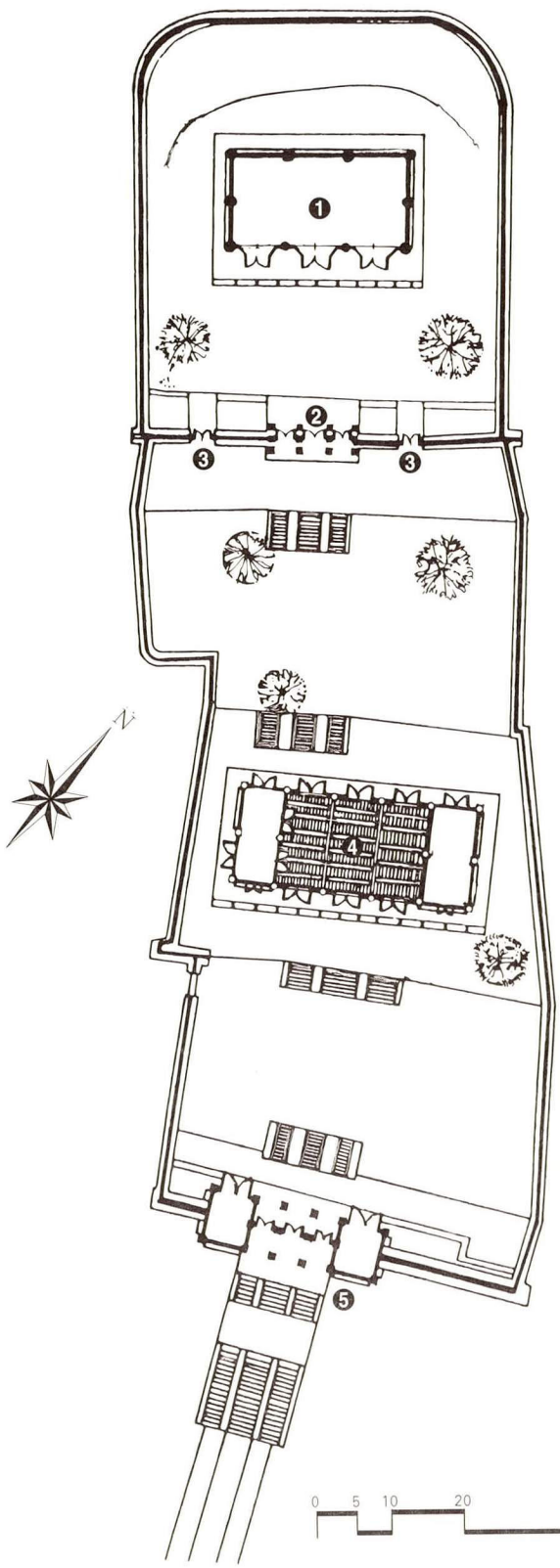

N
❶ 대성전(16.18평)
❷ 내삼문(3.27평)
❸ 명륜당(13.75평)
❹ 동재
❺ 서재
❻ 외삼문
❼ 충효회관
❽ 관리사
0 10 20m
0 50 70尺

9. 高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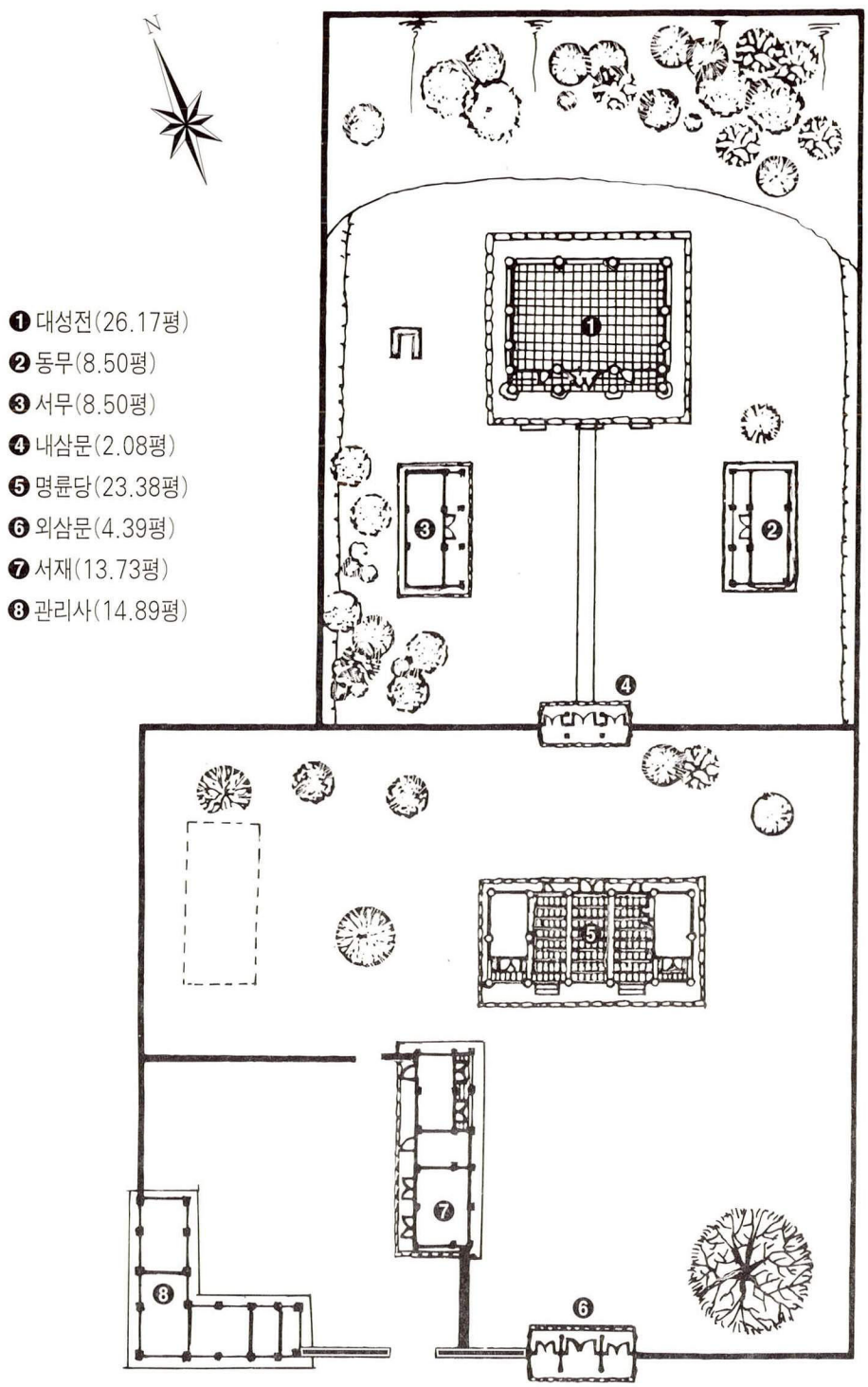
❶ 대성전(17.09평)
❷ 동무(5.09평)
❸ 서무(5.36평)
❹ 내삼문(3.38평)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
❽ 전사청(5.15평)
❾ 외삼문
❿ 관리사
⓫ 홍살문

10. 果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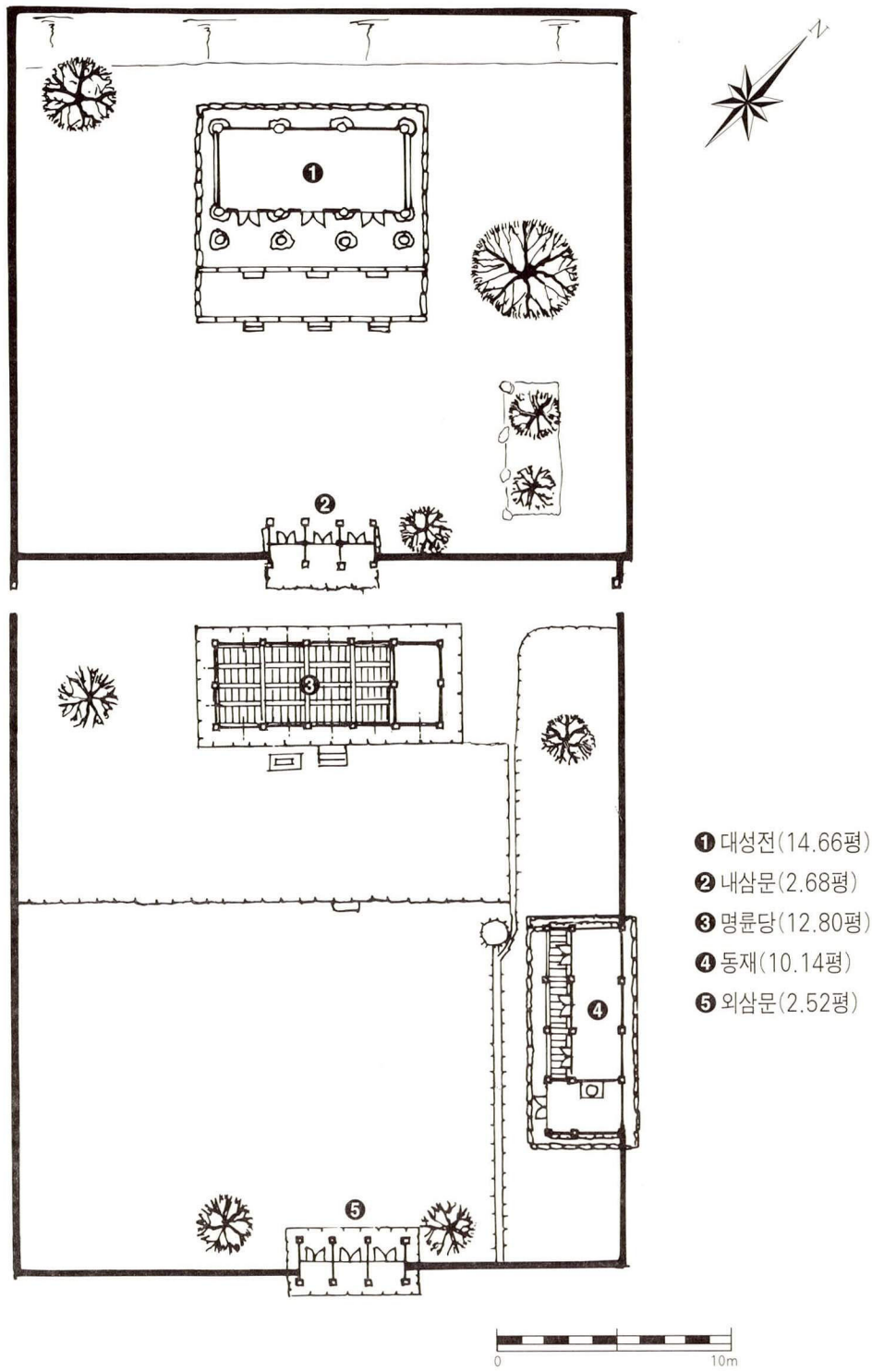


❶대성전(14.09평)
❷내삼문
❸협문
❹명륜당(18.93평)
❺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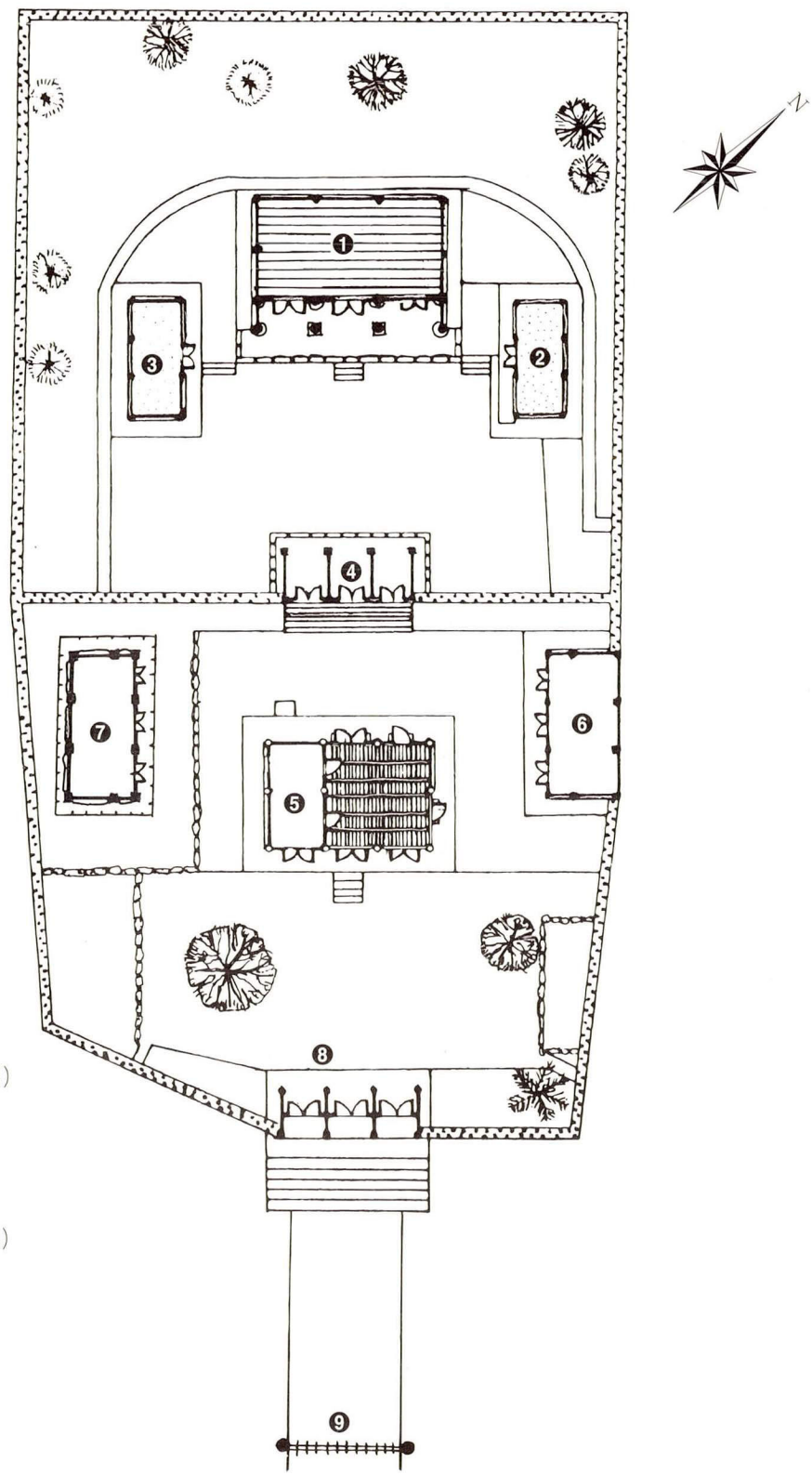
11. 廣州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6.17평)
❷ 동무(8.50평)
❸ 서무(8.50평)
❹ 내삼문(2.08평)
❺ 명륜당(23.38평)
❻ 외삼문(4.39평)
❼ 서재(13.73평)
❽ 관리사(14.89평)

12. 坡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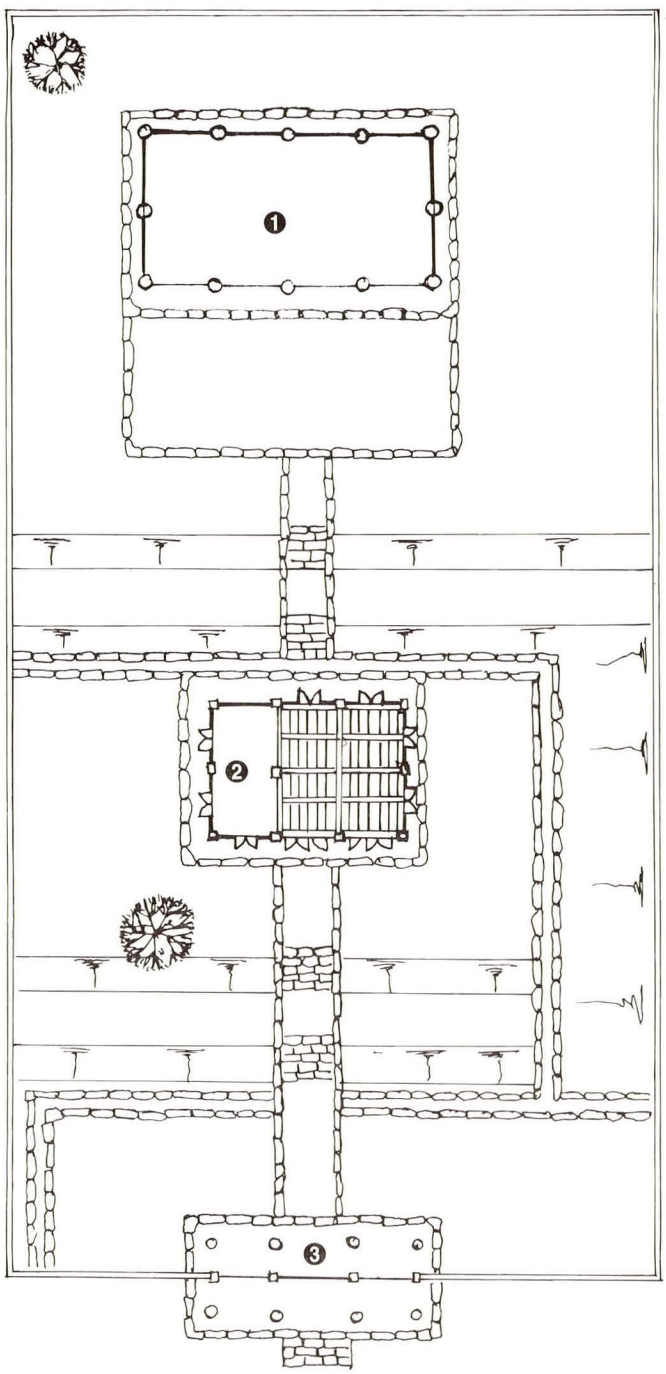


13. 交河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0.38평)
❷ 동무(3.23평)
❸ 서무(3.52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10.99평)
❻ 동재(6.40평)
❼ 서재(6.39평)
❽ 외삼문
❾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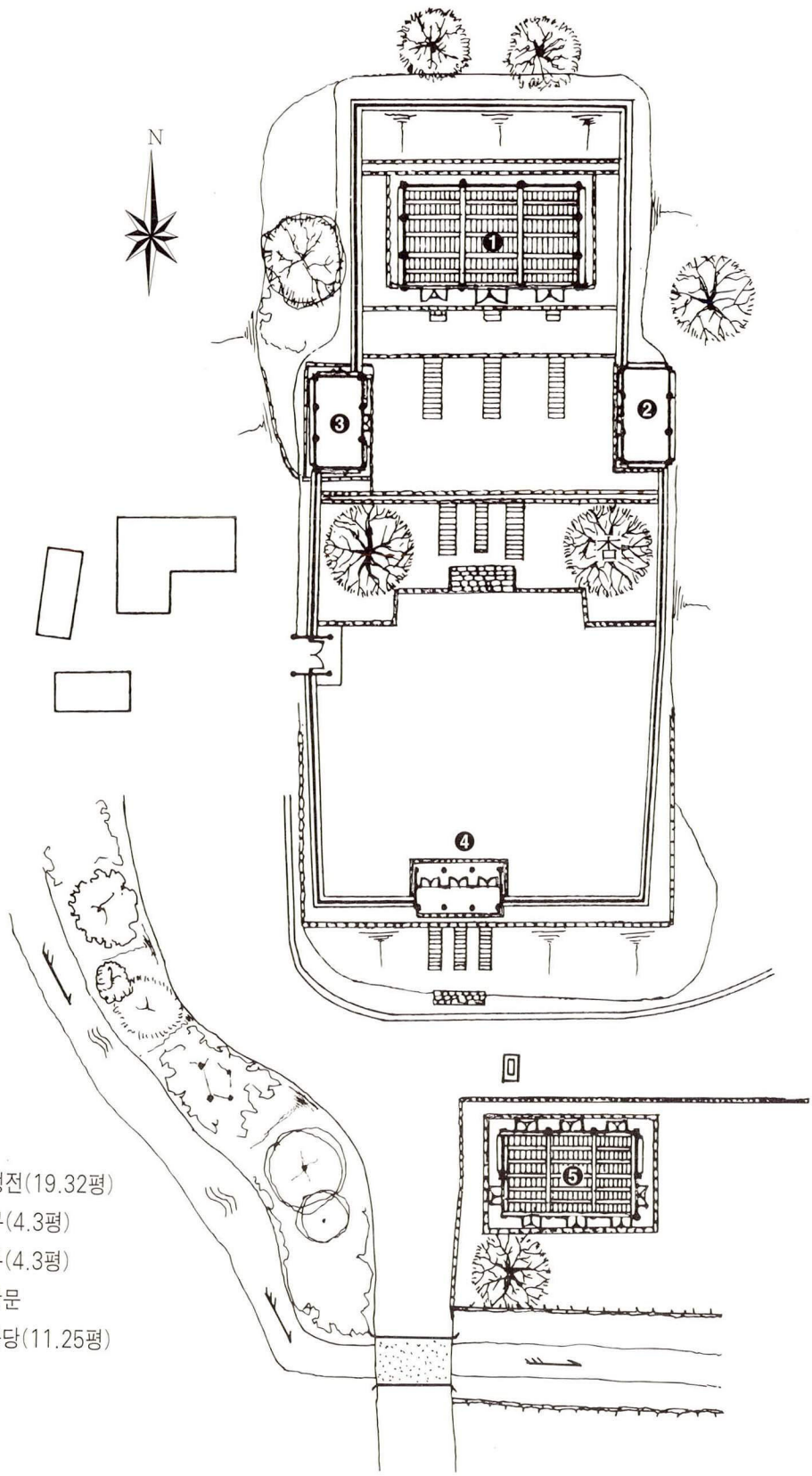
14. 積城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
❷ 명륜당(8.01평)
❸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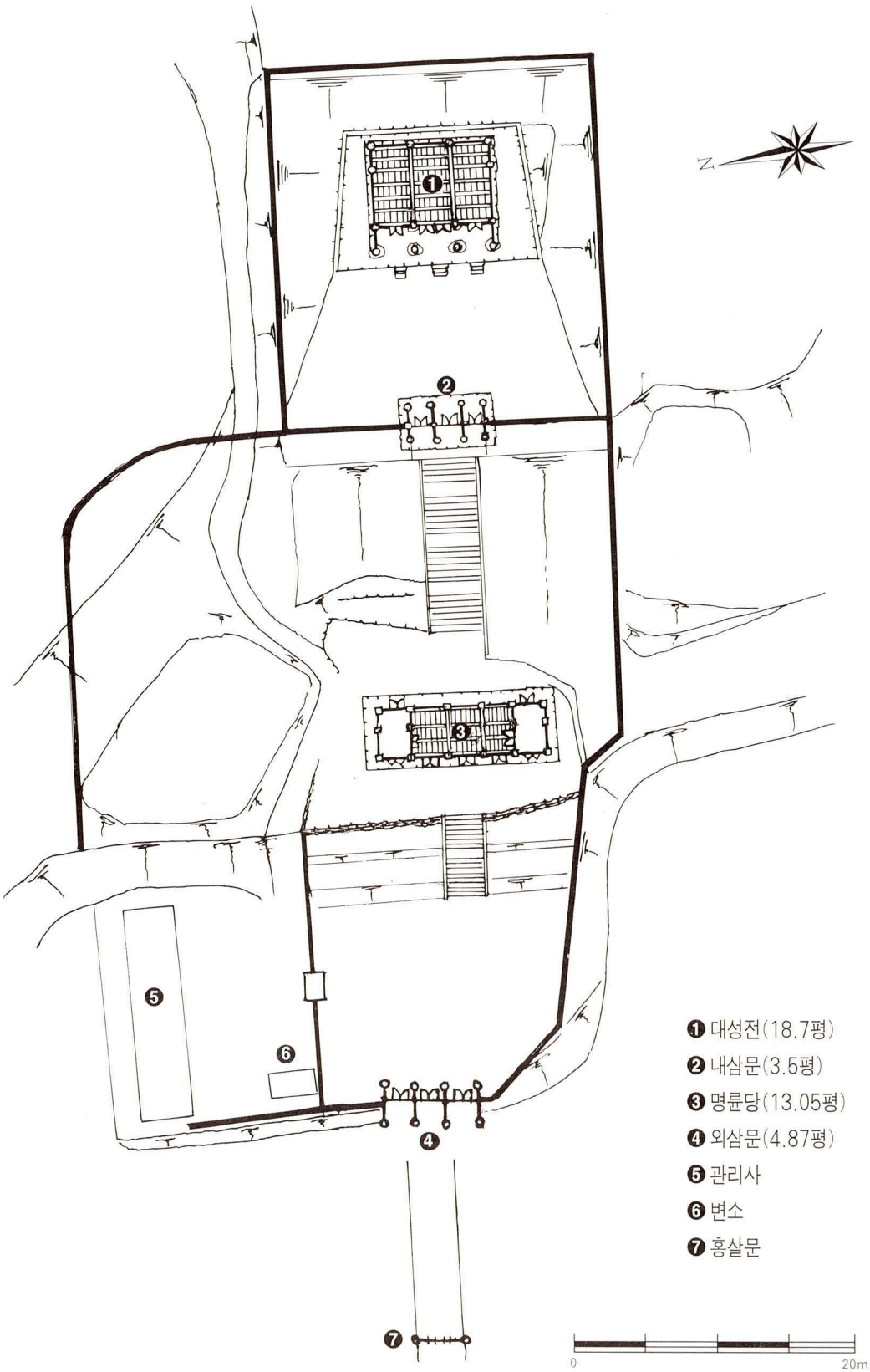
0 10m

15. 利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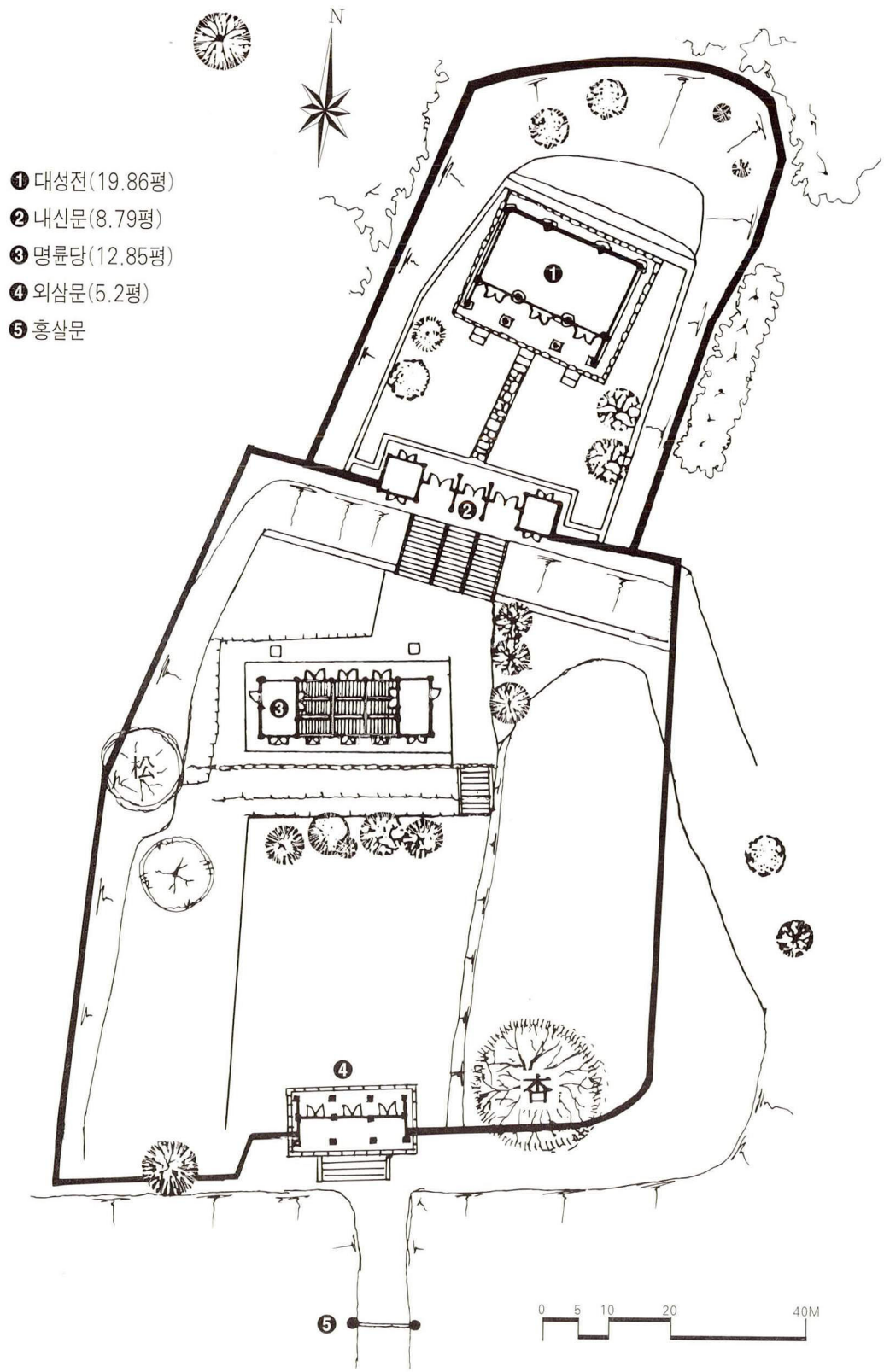


❶ 대성전(19.32평)
❷ 동무(4.3평)
❸ 서무(4.3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11.2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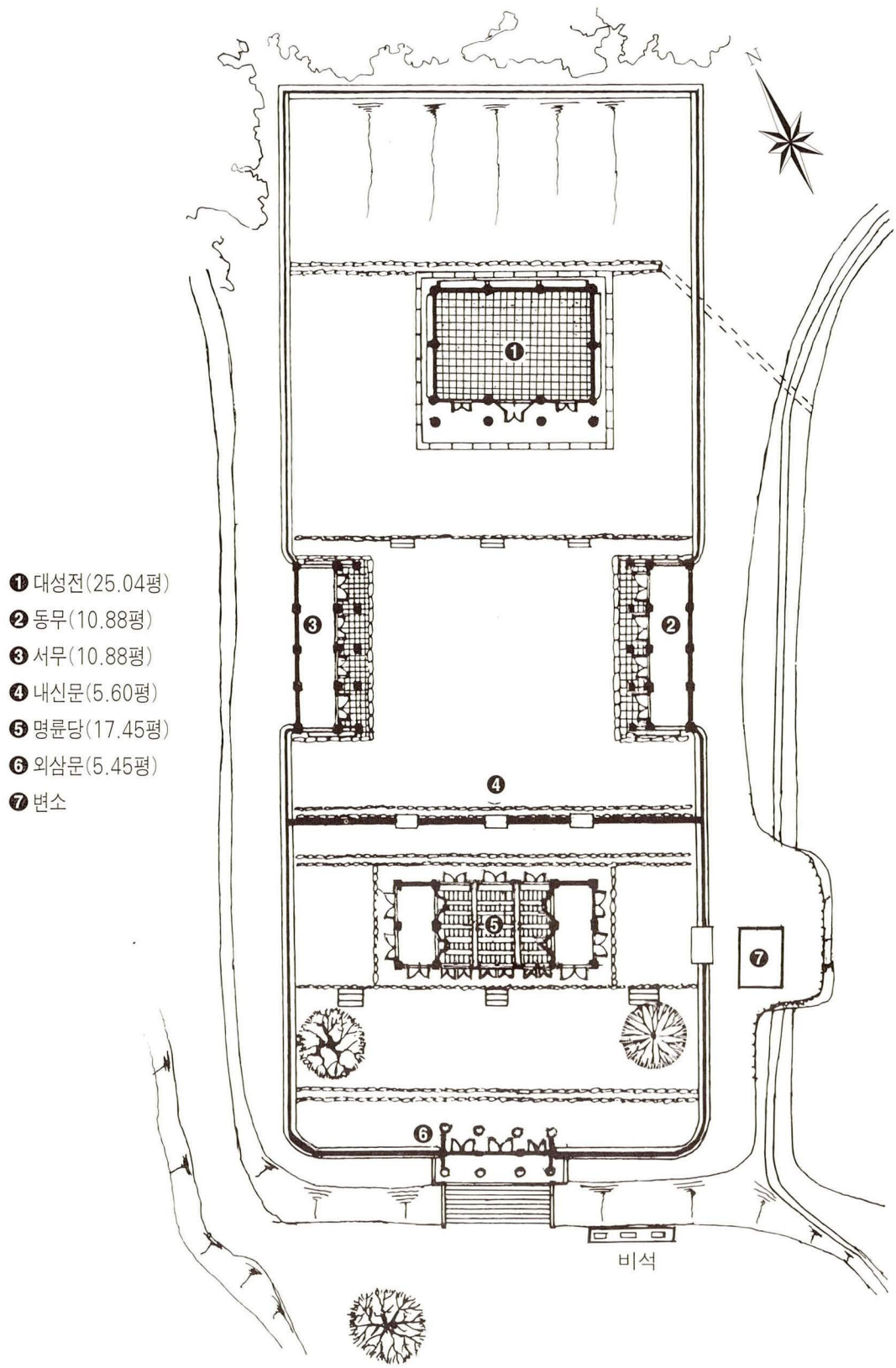
16. 龍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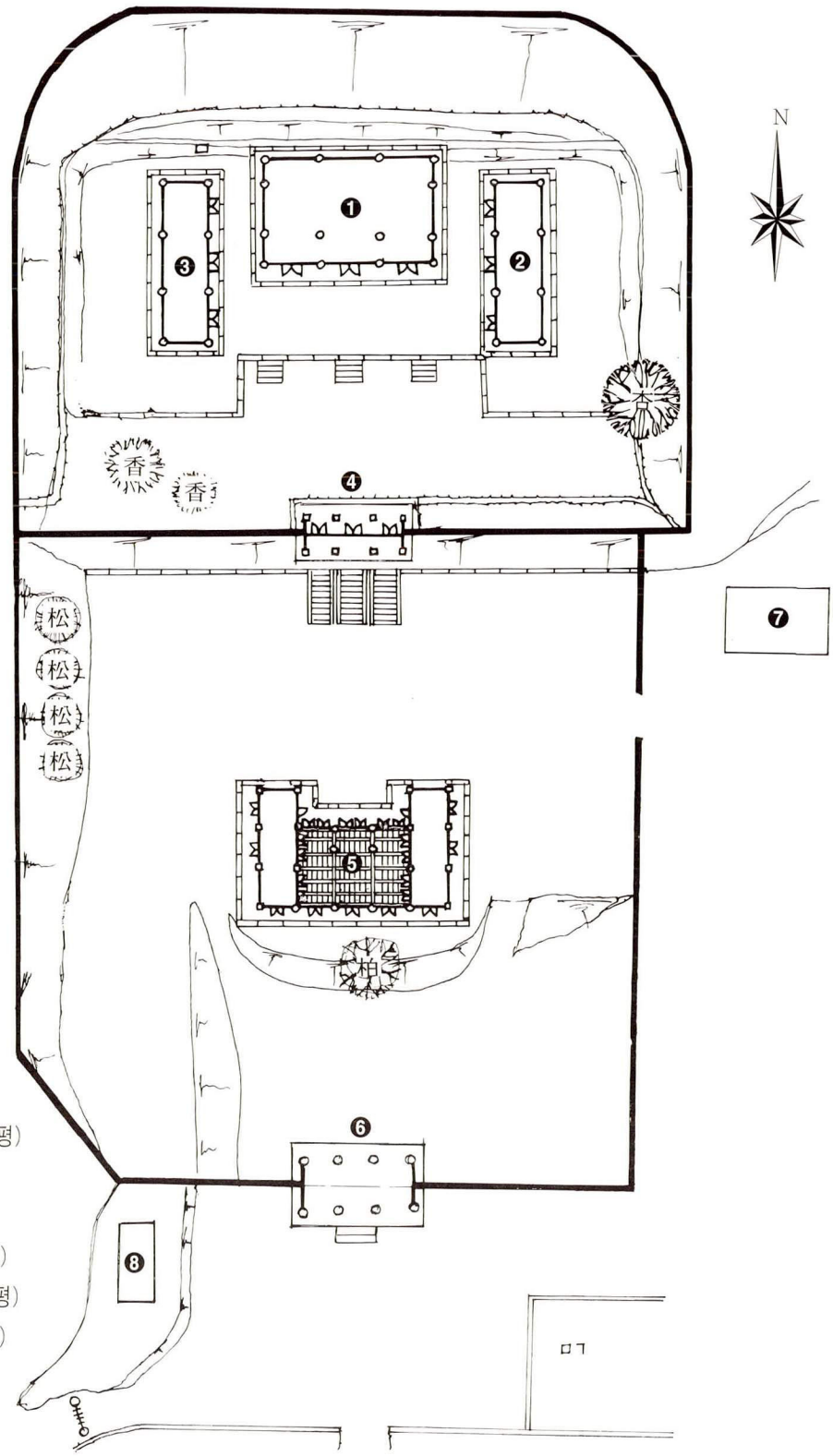
17. 陽智鄕校 配置圖



18. 楊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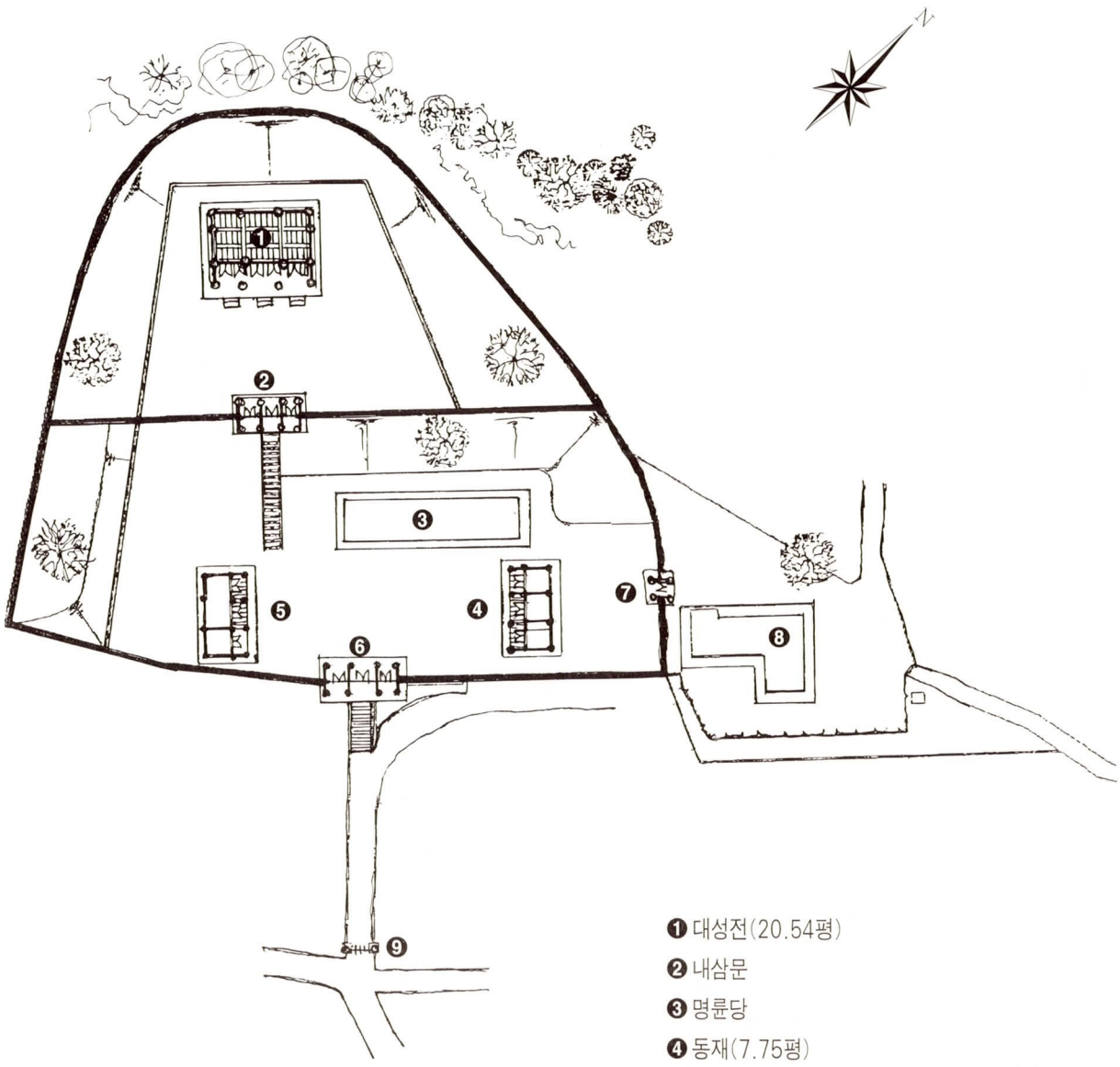

❶ 대성전(25.04평)
❷ 동무(10.88평)
❸ 서무(10.88평)
❹ 내신문(5.60평)
❺ 명륜당(17.45평)
❻ 외삼문(5.45평)
❼ 변소
N
비석

19. 驪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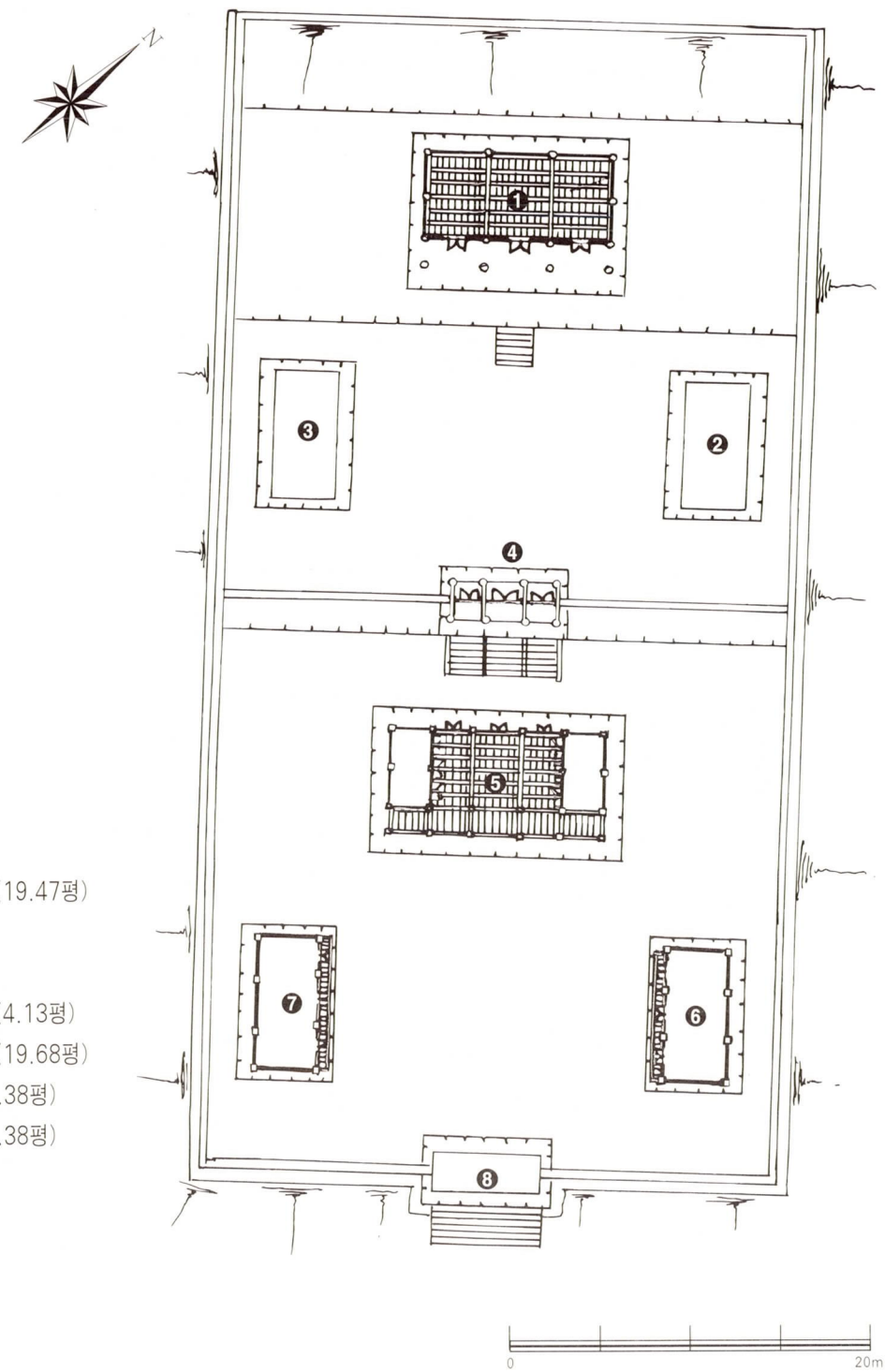
❶ 대성전(22.86평)
❷ 동무(7.27평)
❸ 서무(7.27평)
❹ 내삼문(3.73평)
❺ 명륜당(21.38평)
❻ 외삼문(4.71평)
❼ 관리사
❽ 변소

20. 南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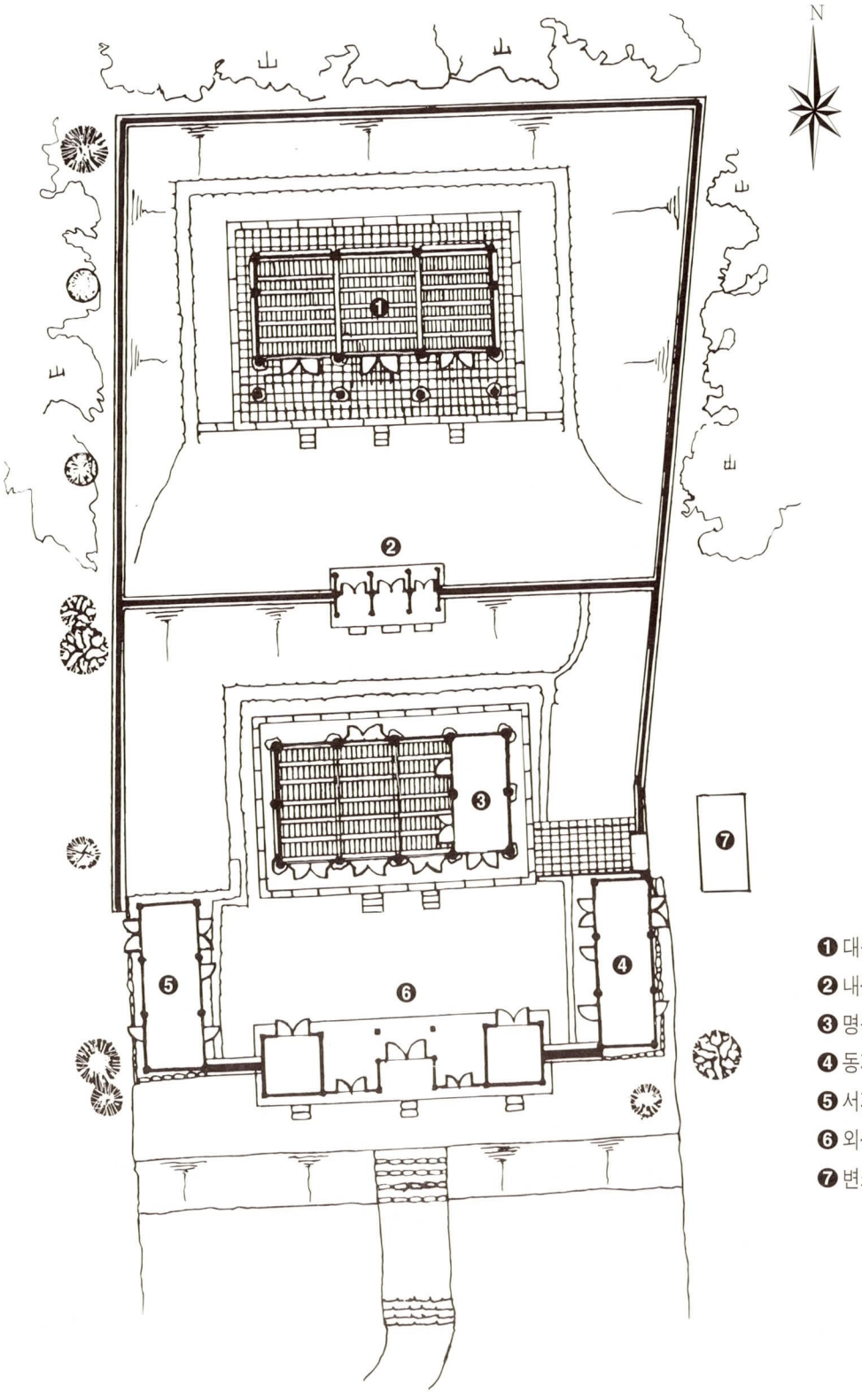


❶ 대성전(20.54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7.75평)
❺ 서재(6.3평)
❻ 외삼문
❼ 협문
❽ 관리사
❾ 홍살문

21. 漣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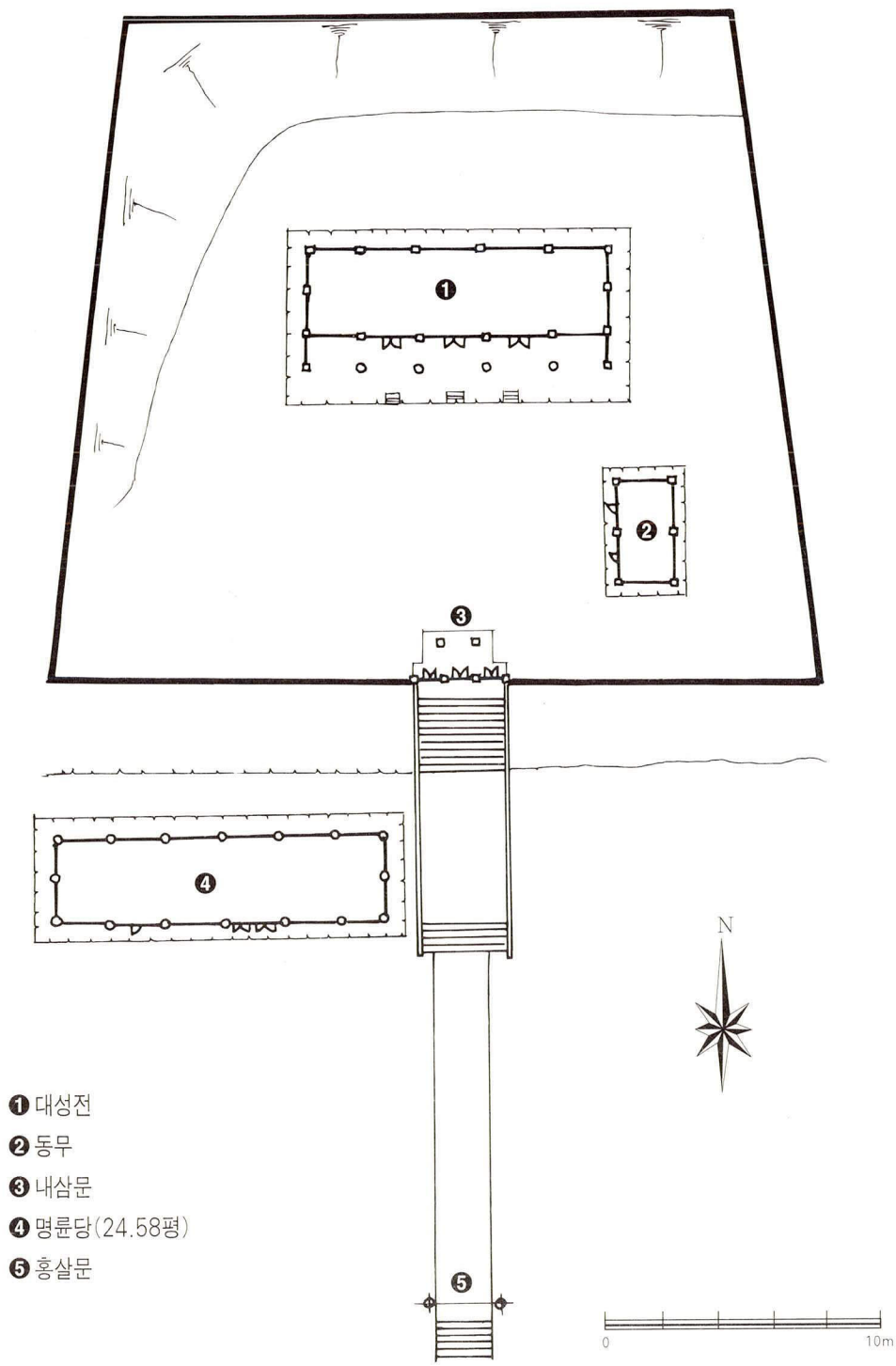

❶ 대성전(19.47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4.13평)
❺ 명륜당(19.68평)
❻ 동재(8.38평)
❼ 서재(8.38평)
❽ 외삼문
0
20m

22. 抱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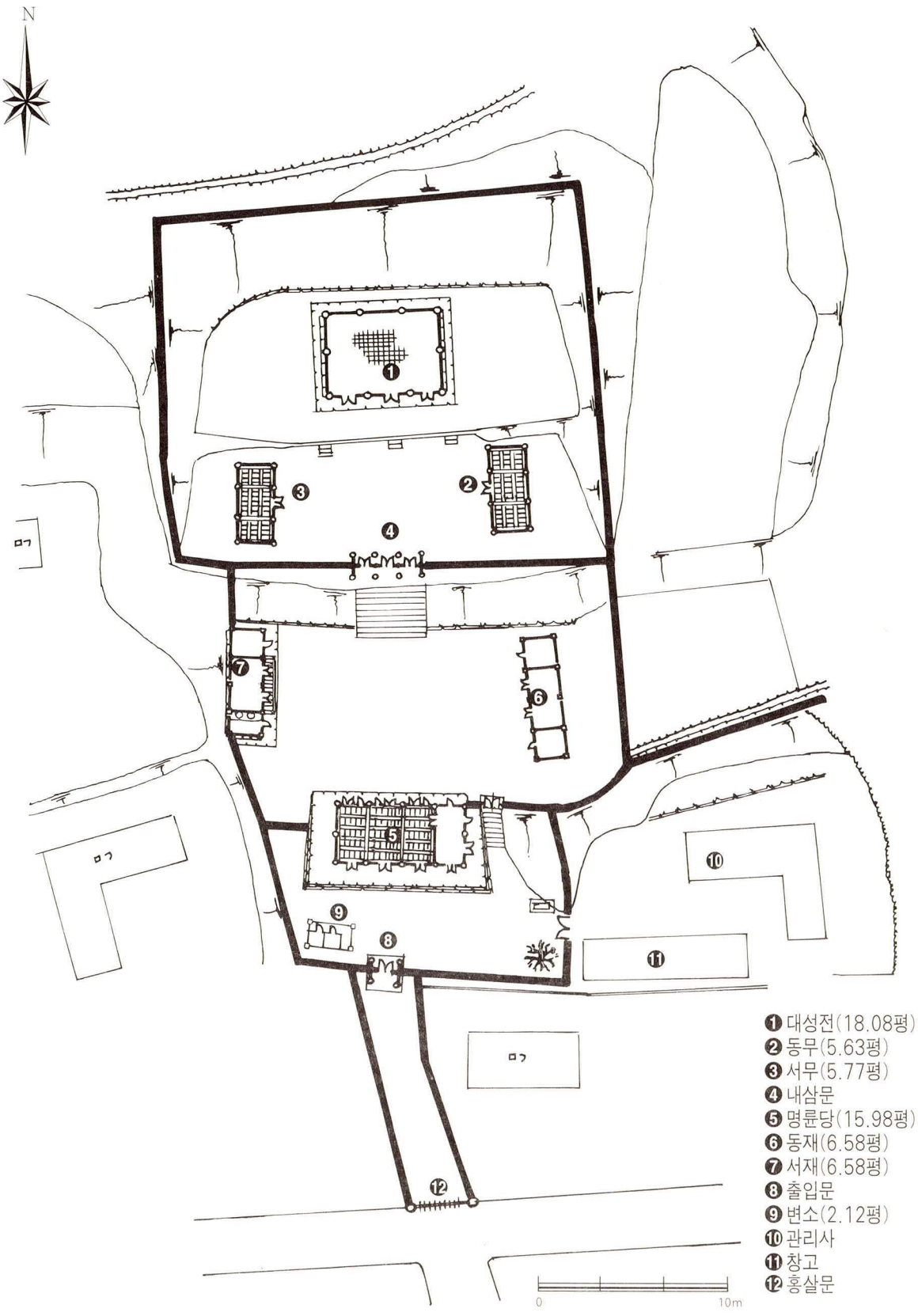
❶ 대성전(18.18평)
❷ 내삼문(1.5평)
❸ 명륜당(14.97평)
❹ 동재(5.17평)
❺ 서재(5.17평)
❻ 외삼문(8.75평)
❼ 변소(2.4평)

23. 加平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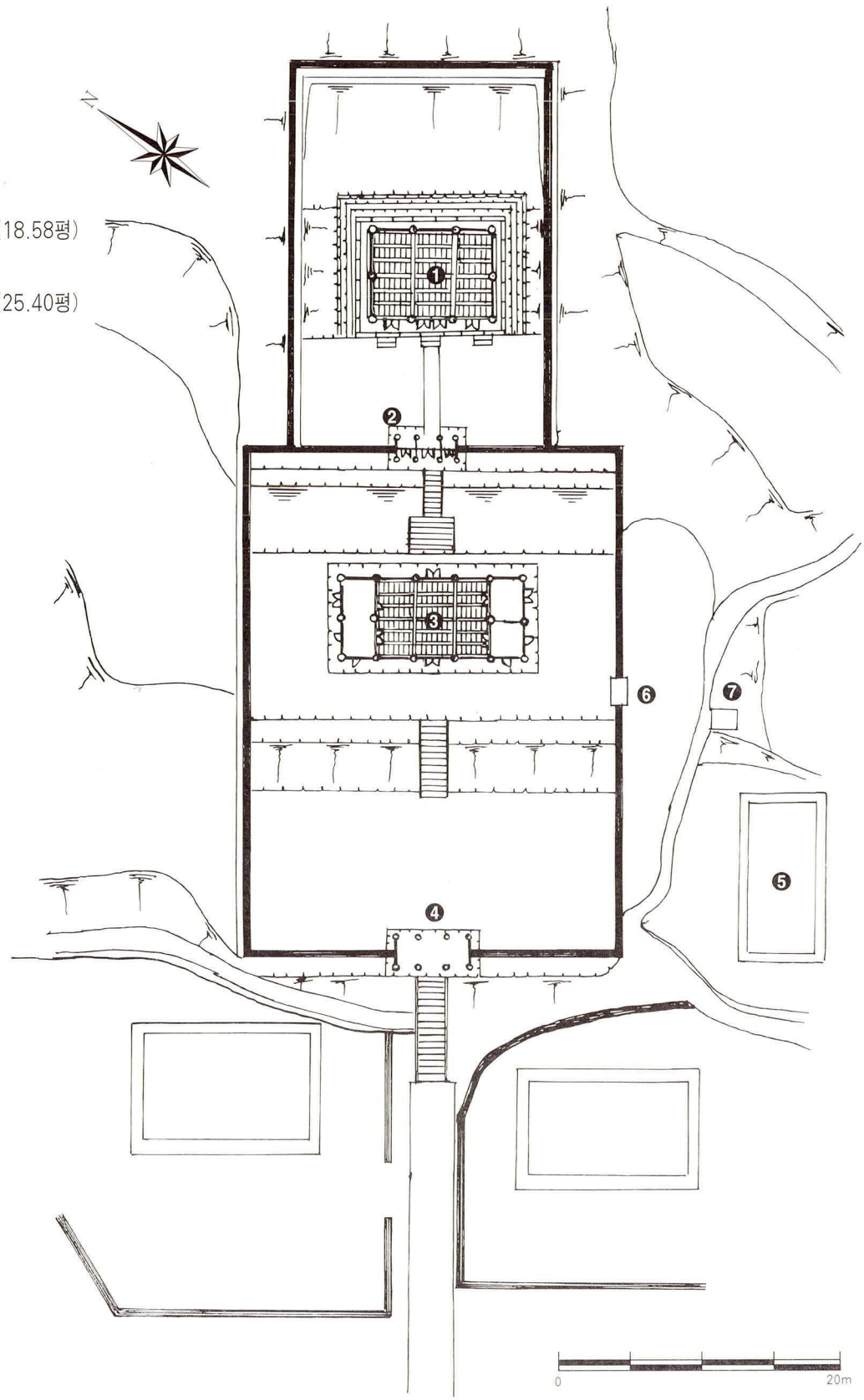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내삼문
❹ 명륜당(24.58평)
❺ 홍살문

24. 楊根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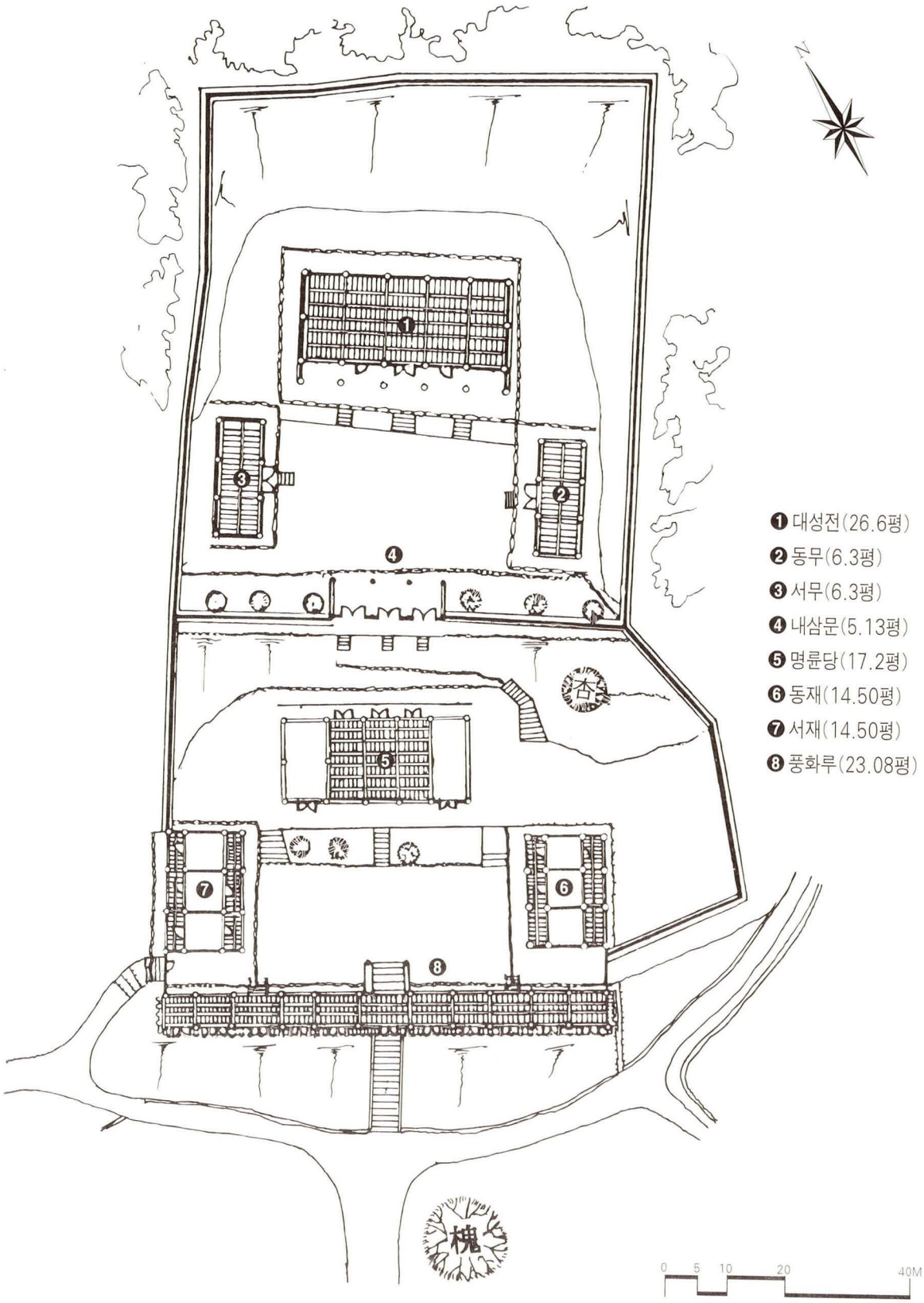

N
❶ 대성전(18.08평)
❷ 동무(5.63평)
❸ 서무(5.77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15.98평)
❻ 동재(6.58평)
❼ 서재(6.58평)
❽ 출입문
❾ 변소(2.12평)
❿ 관리사
⓫ 창고
⓬ 홍살문
0
10m

25. 砥平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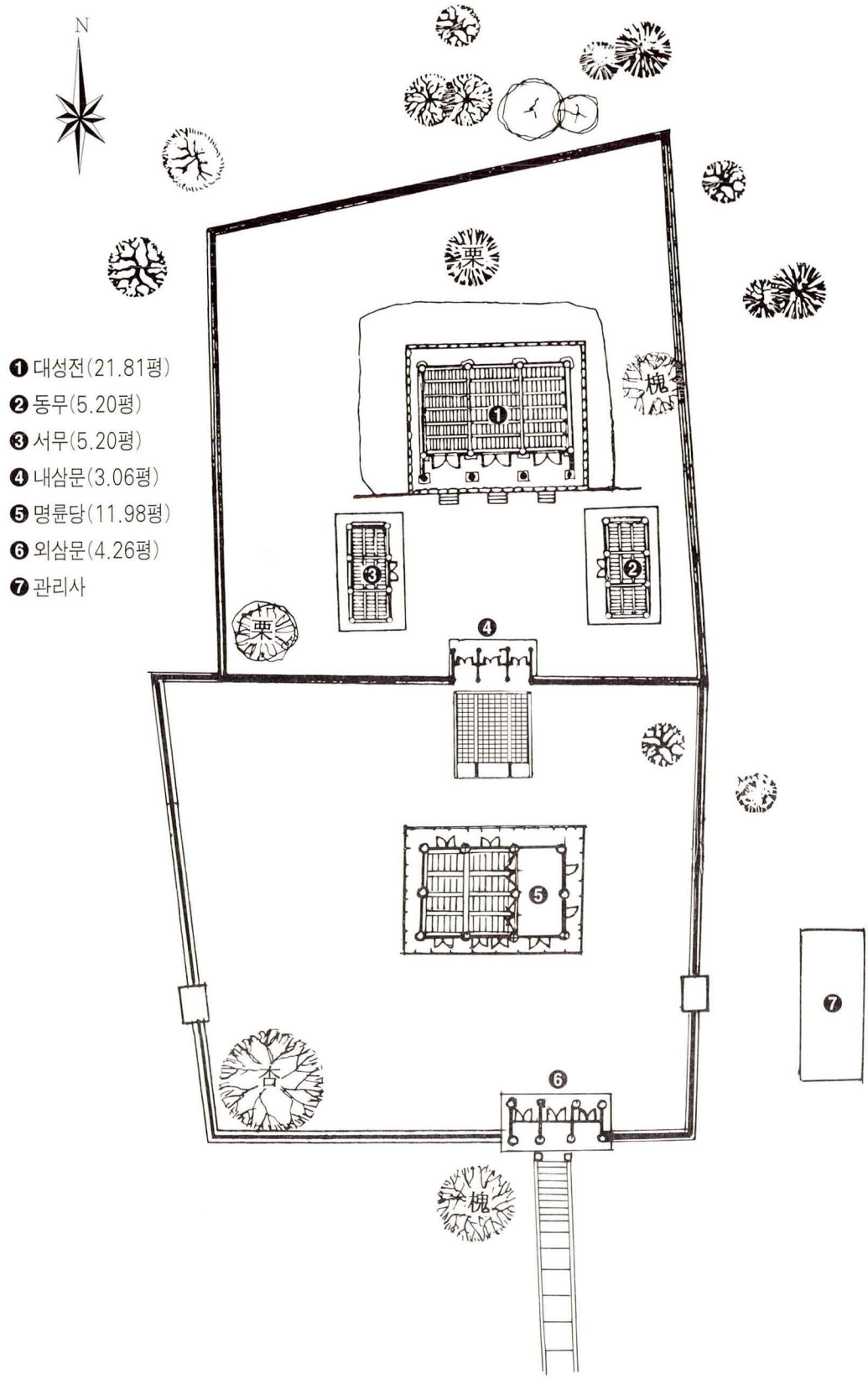
❶ 대성전(18.58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25.40평)
❹ 외삼문
❺ 관리사
❻ 협문
❼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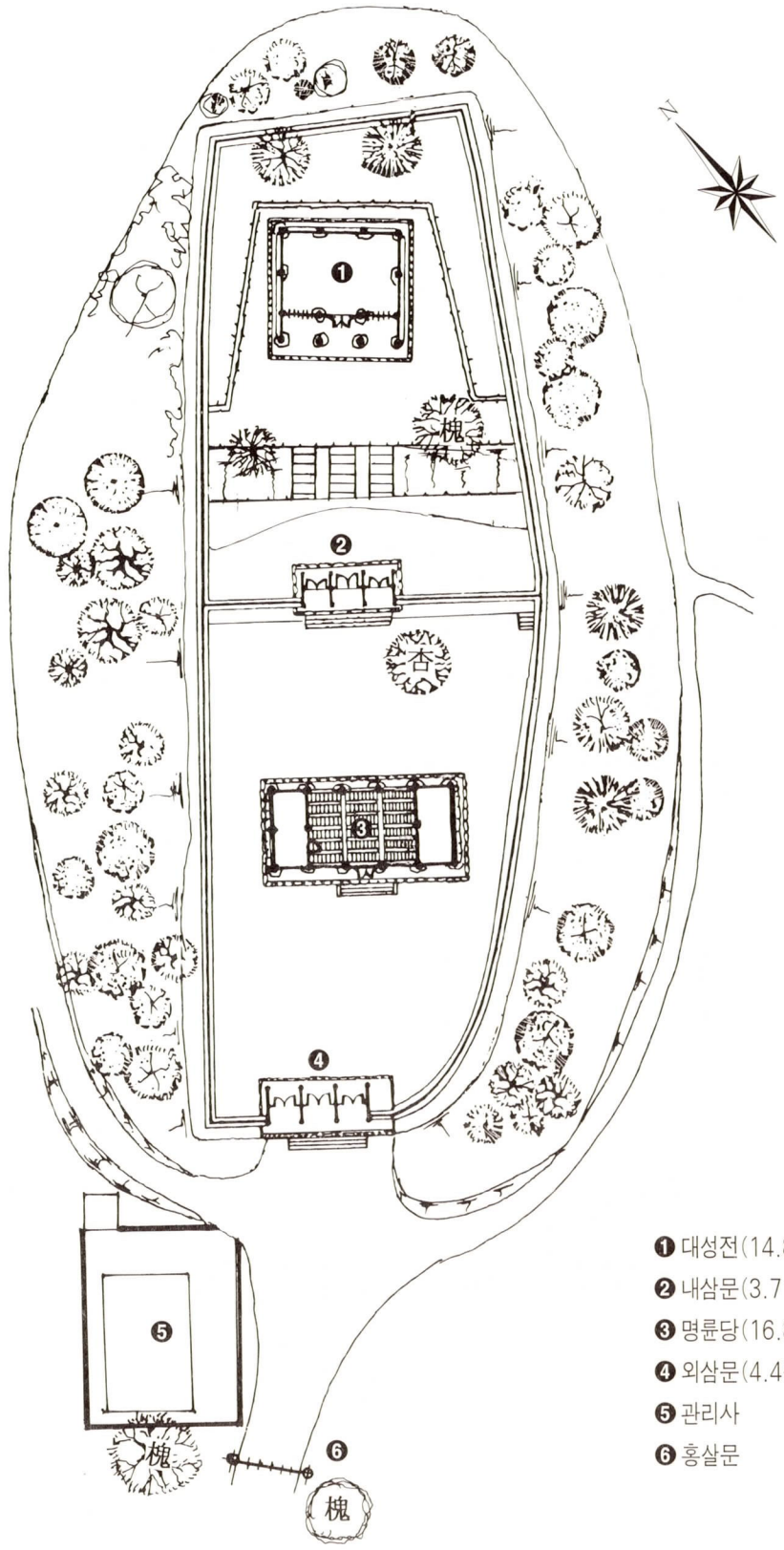
26. 安城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6.6평)
❷ 동무(6.3평)
❸ 서무(6.3평)
❹ 내삼문(5.13평)
❺ 명륜당(17.2평)
❻ 동재(14.50평)
❼ 서재(14.50평)
❽ 풍화루(23.08평)
杏
槐
0 5 10 20 40M

27. 竹山鄕校 配置圖


N
栗
槐
栗
杏
槐
❶ 대성전(21.81평)
❷ 동무(5.20평)
❸ 서무(5.20평)
❹ 내삼문(3.06평)
❺ 명륜당(11.98평)
❻ 외삼문(4.26평)
❼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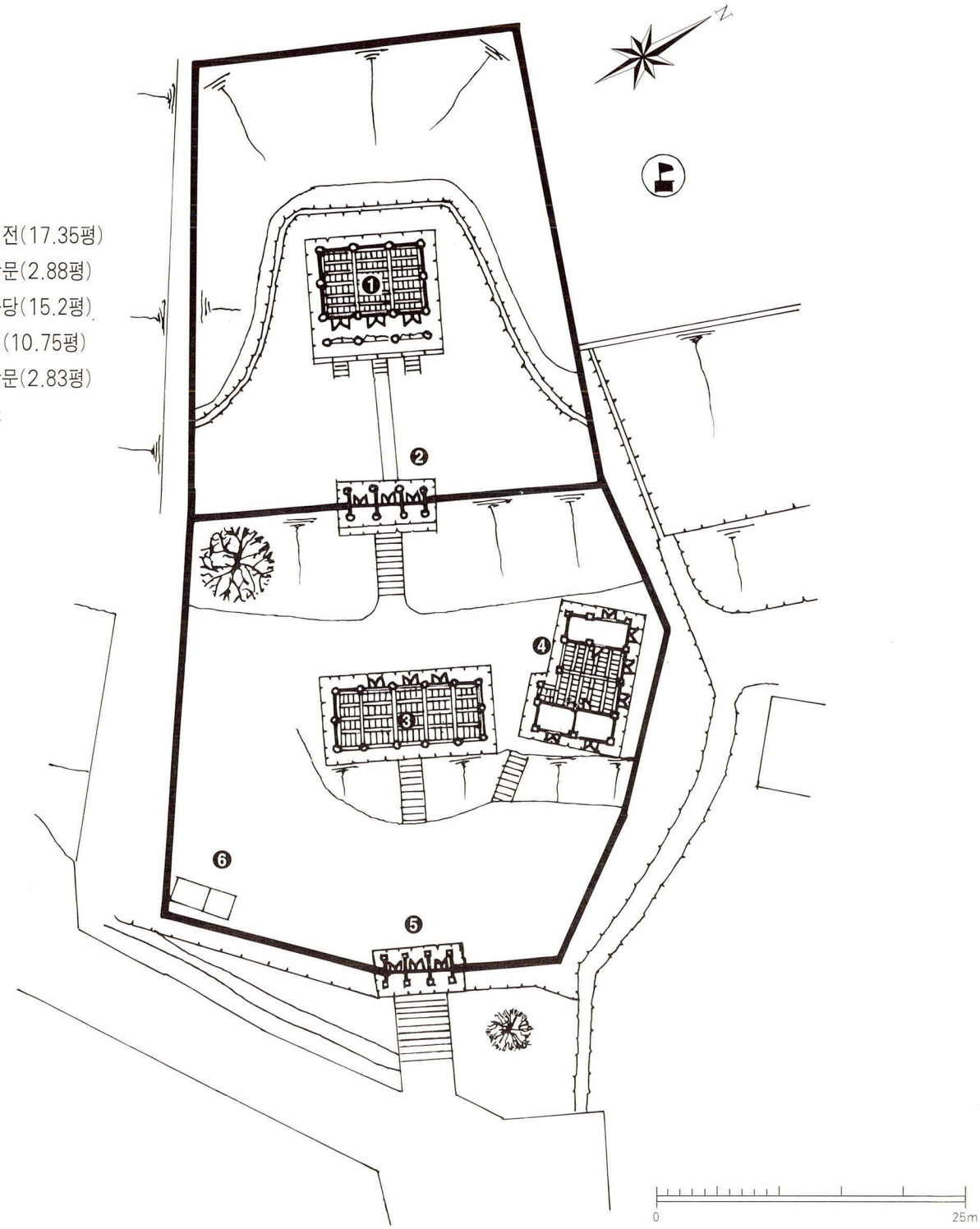
28. 陽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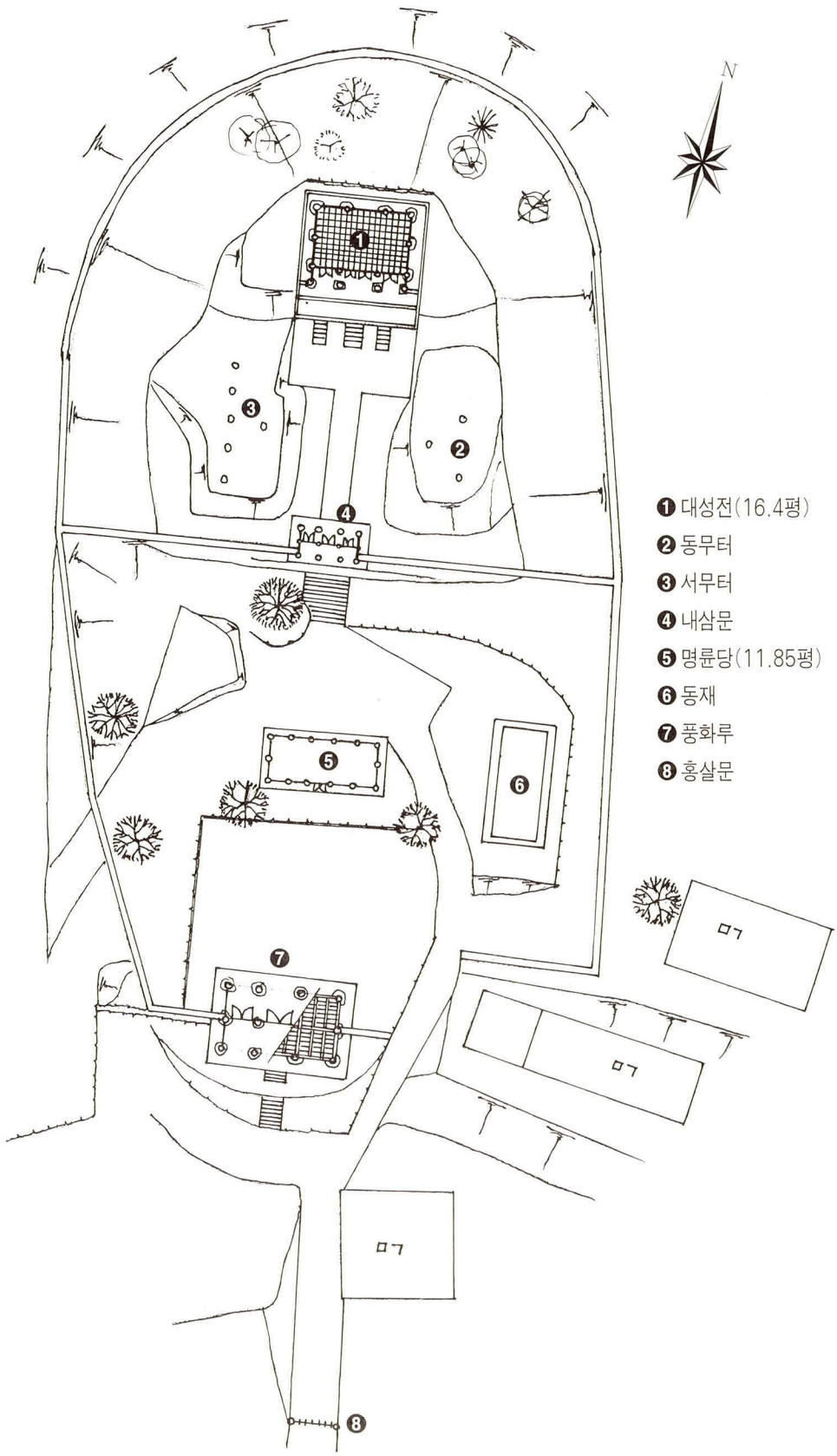
❶ 대성전(14.82평)
❷ 내삼문(3.71평)
❸ 명륜당(16.80평)
❹ 외삼문(4.4평)
❺ 관리사
❻ 홍살문

29. 金浦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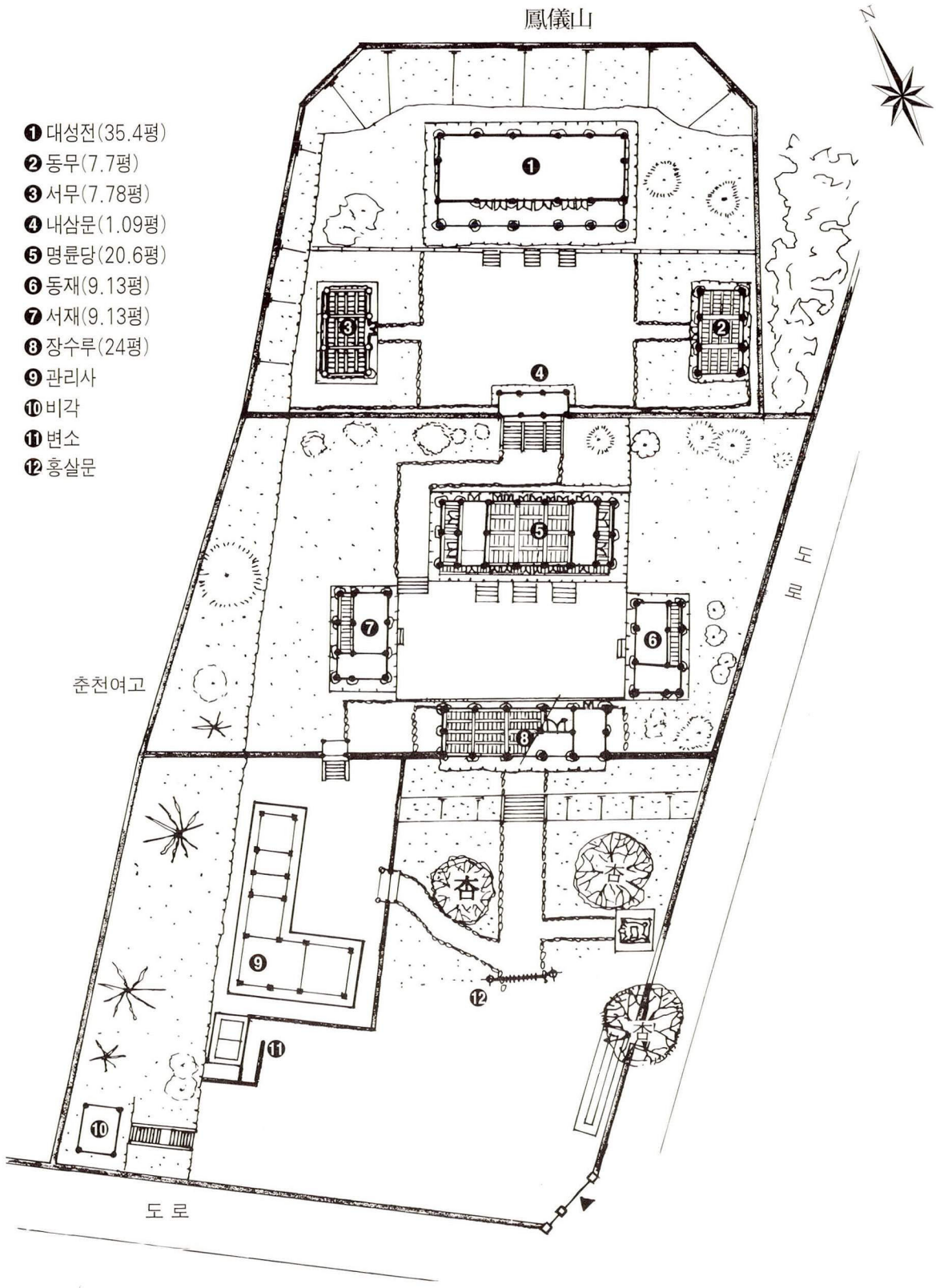
❶ 대성전(17.35평)
❷ 내삼문(2.88평)
❸ 명륜당(15.2평)
❹ 재실(10.75평)
❺ 외삼문(2.83평)
❻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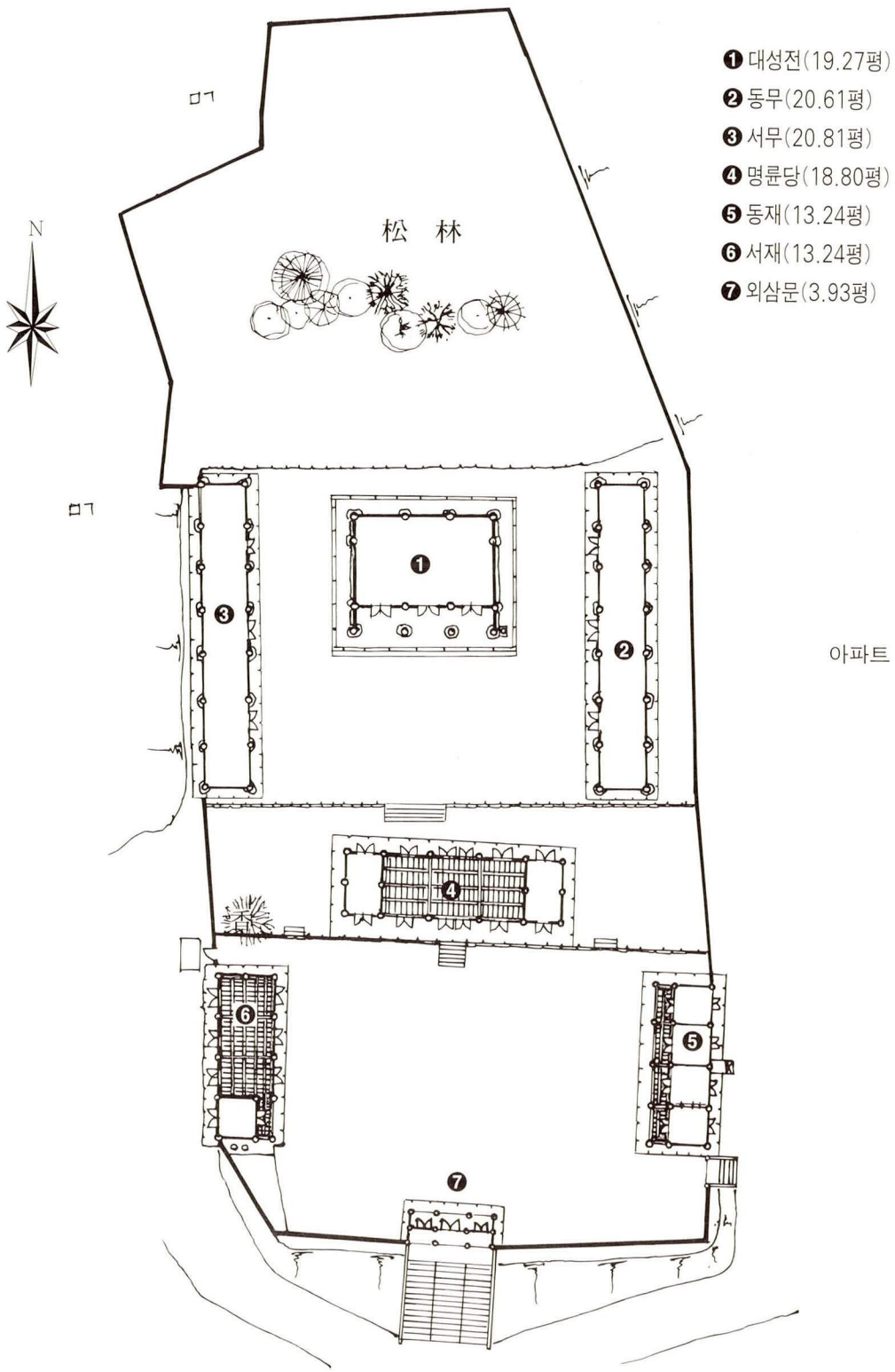
30. 通津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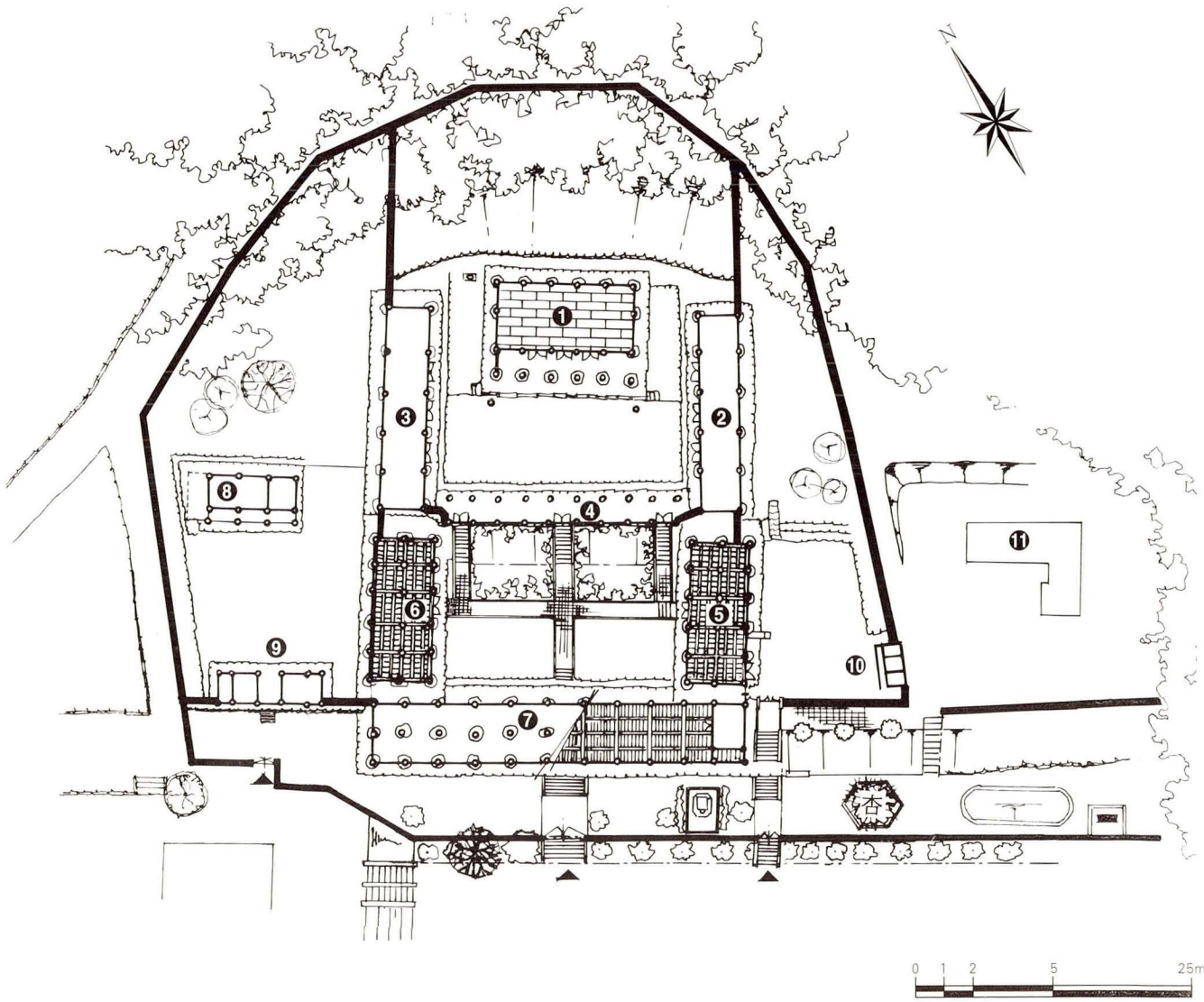
31. 春川鄕校 配置圖


鳳儀山
N
❶ 대성전(35.4평)
❷ 동무(7.7평)
❸ 서무(7.78평)
❹ 내삼문(1.09평)
❺ 명륜당(20.6평)
❻ 동재(9.13평)
❼ 서재(9.13평)
❽ 장수루(24평)
❾ 관리사
❿ 비각
⓫ 변소
⓬ 홍살문
춘천여고
도 로
도 로
杏
杏
杏

32. 原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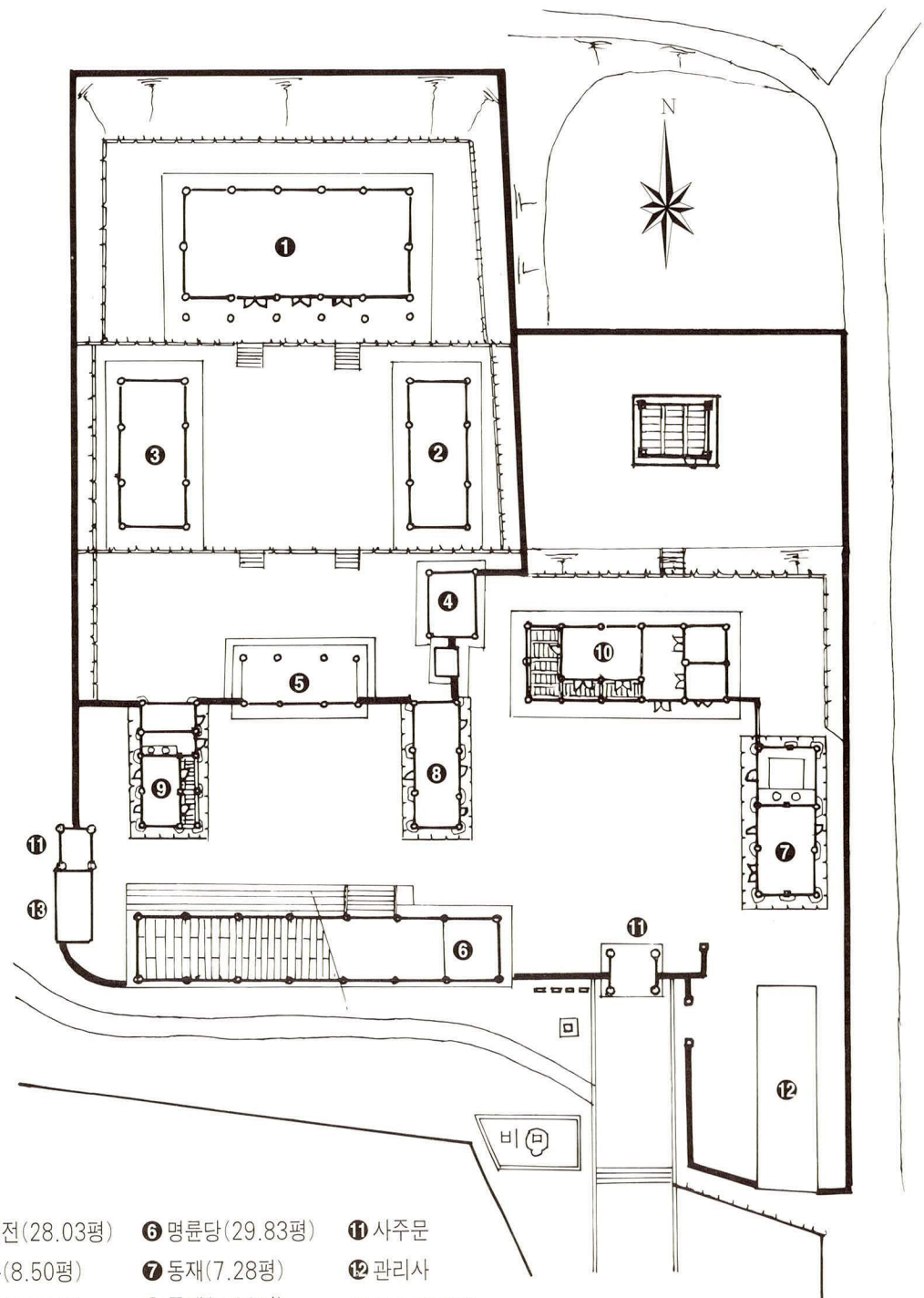

❶ 대성전(19.27평)
❷ 동무(20.61평)
❸ 서무(20.81평)
❹ 명륜당(18.80평)
❺ 동재(13.24평)
❻ 서재(13.24평)
❼ 외삼문(3.93평)
N
松 林
아파트

33. 江陵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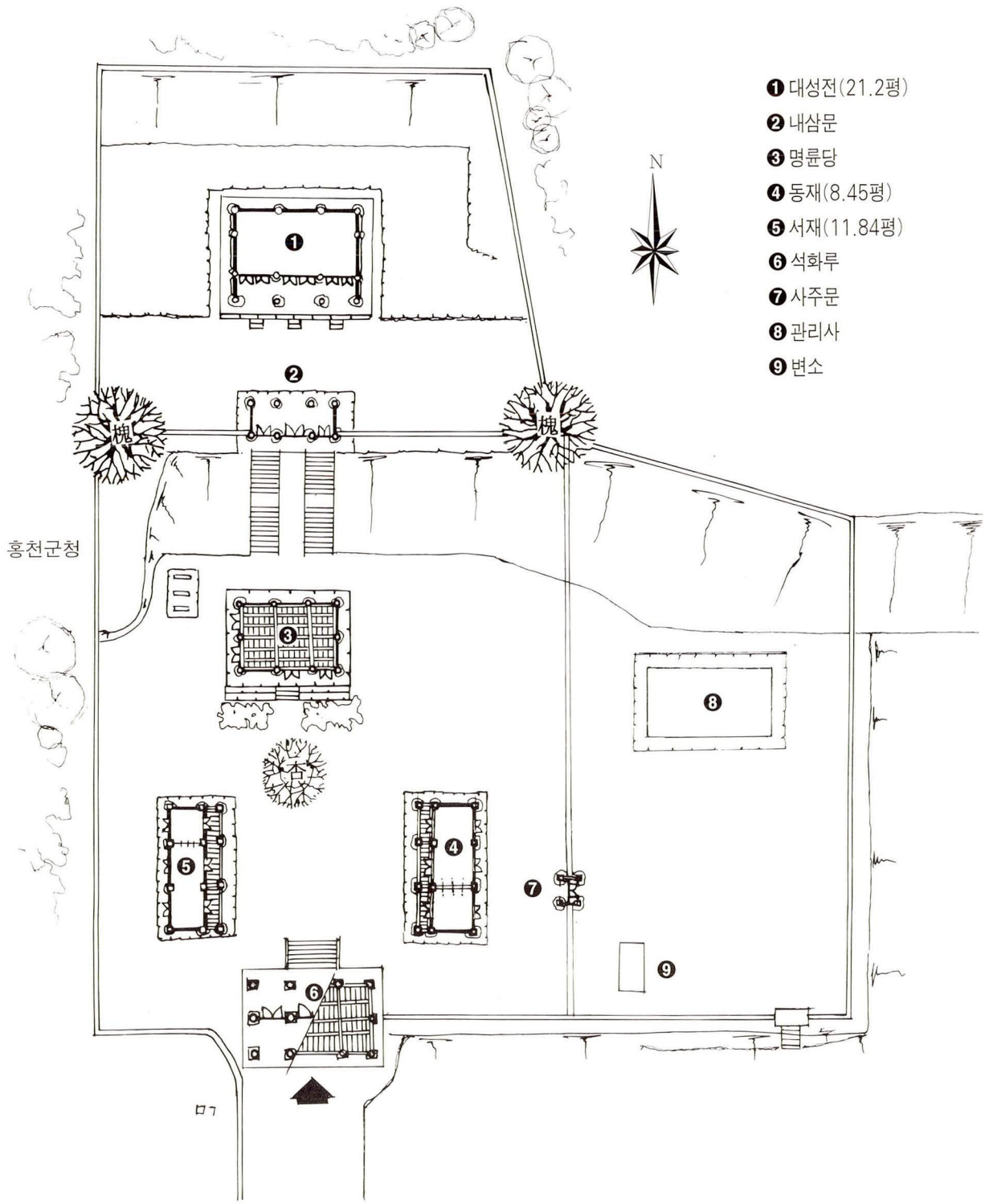
❶ 대성전(31.62평)
❷ 동무(20.12평)
❸ 서무(21.13평)
❹ 회랑(13.75평)
❺ 동재(21.56평)
❻ 서재(22.09평)
❼ 명륜당(55.63평)
❽ 재방
❾ 삼문
❿ 변소
⓫ 관리사

34. 三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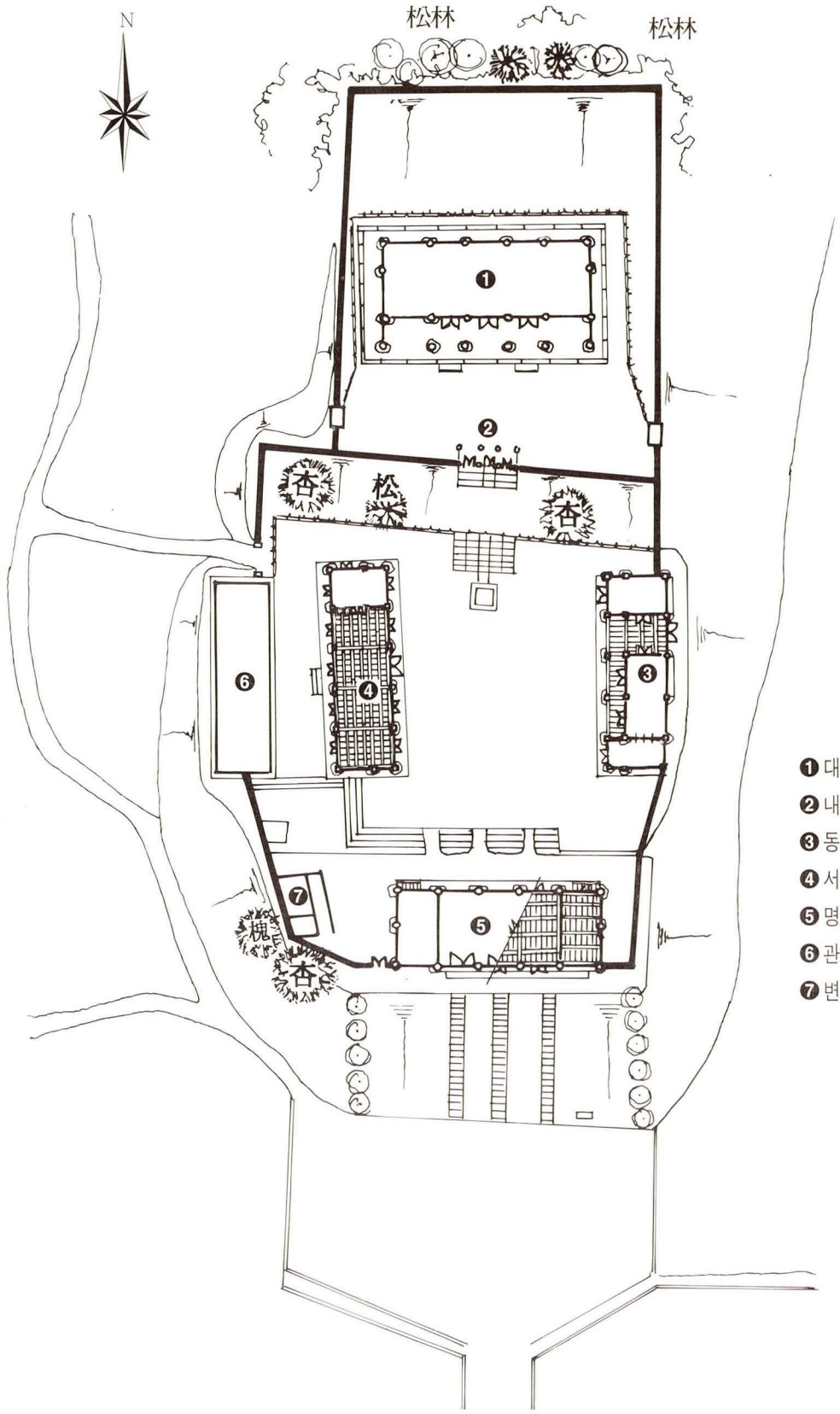


❶ 대성전(28.03평)
❷ 동무(8.50평)
❸ 서무(8.50평)
❹ 장경실(3.23평)
❺ 내삼문(4.85평)
❻ 명륜당(29.83평)
❼ 동재(7.28평)
❽ 중재(5.33평)
❾ 서재(6.31평)
❿ 숙정재(13.19평)
⓫ 사주문
⓬ 관리사
⓭ 변소(3.2평)

36. 洪川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1.2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8.45평)
❺ 서재(11.84평)
❻ 석화루
❼ 사주문
❽ 관리사
❾ 변소
N
槐
槐
홍천군청
ㅁ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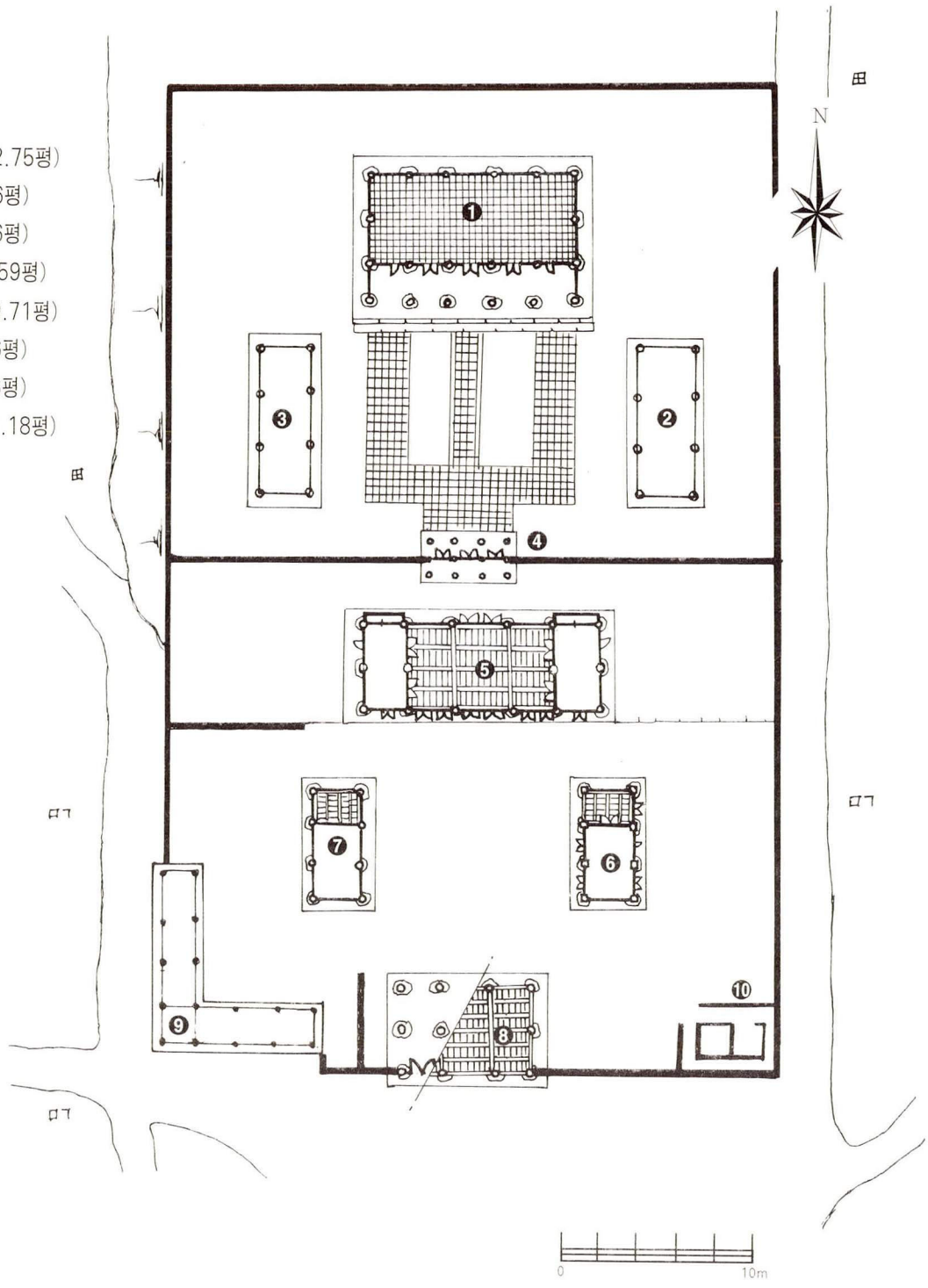
37. 橫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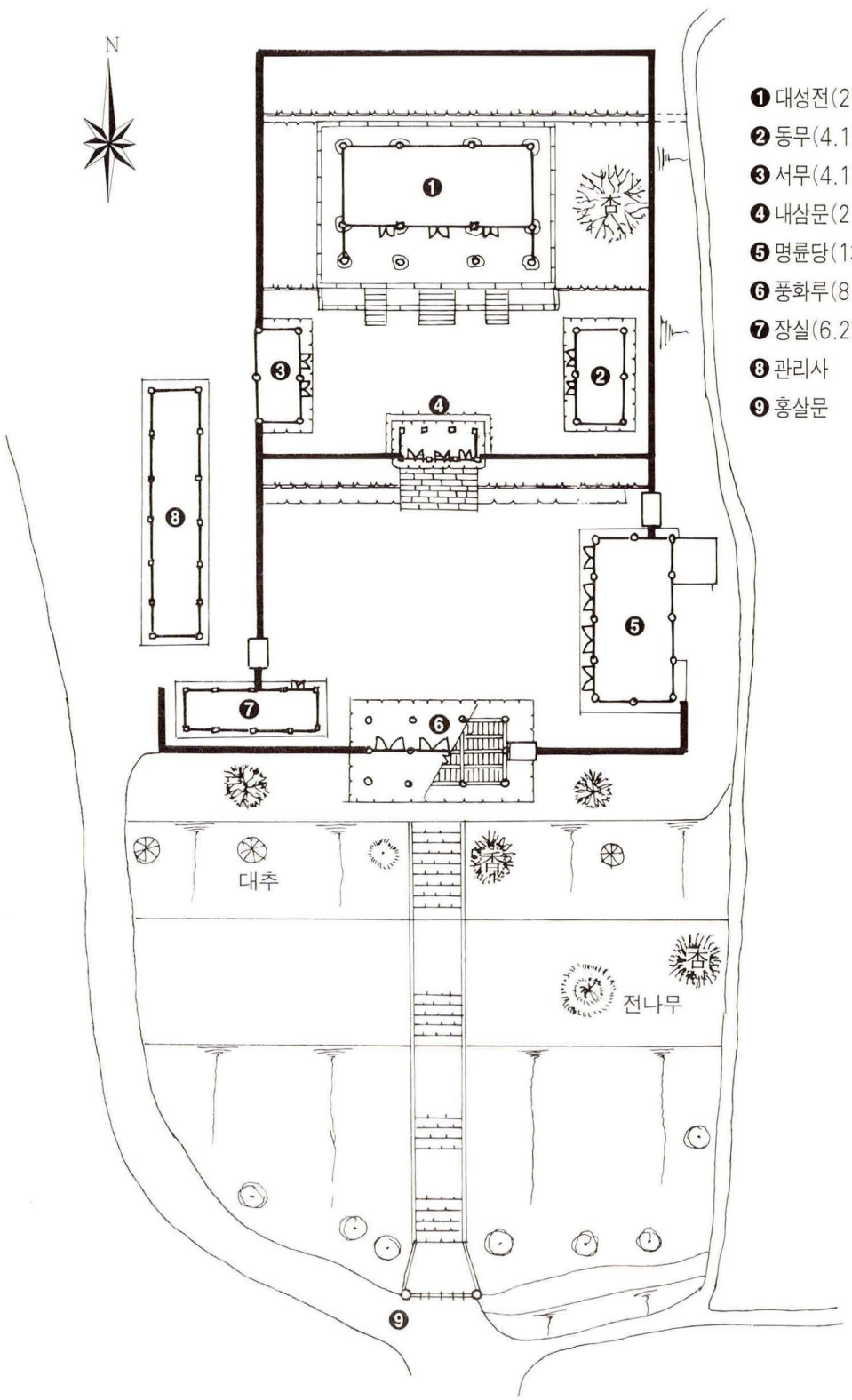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동재(13.44평)
❹ 서재(13.44평)
❺ 명륜당(15.65평)
❻ 관리사
❼ 변소

38. 寧越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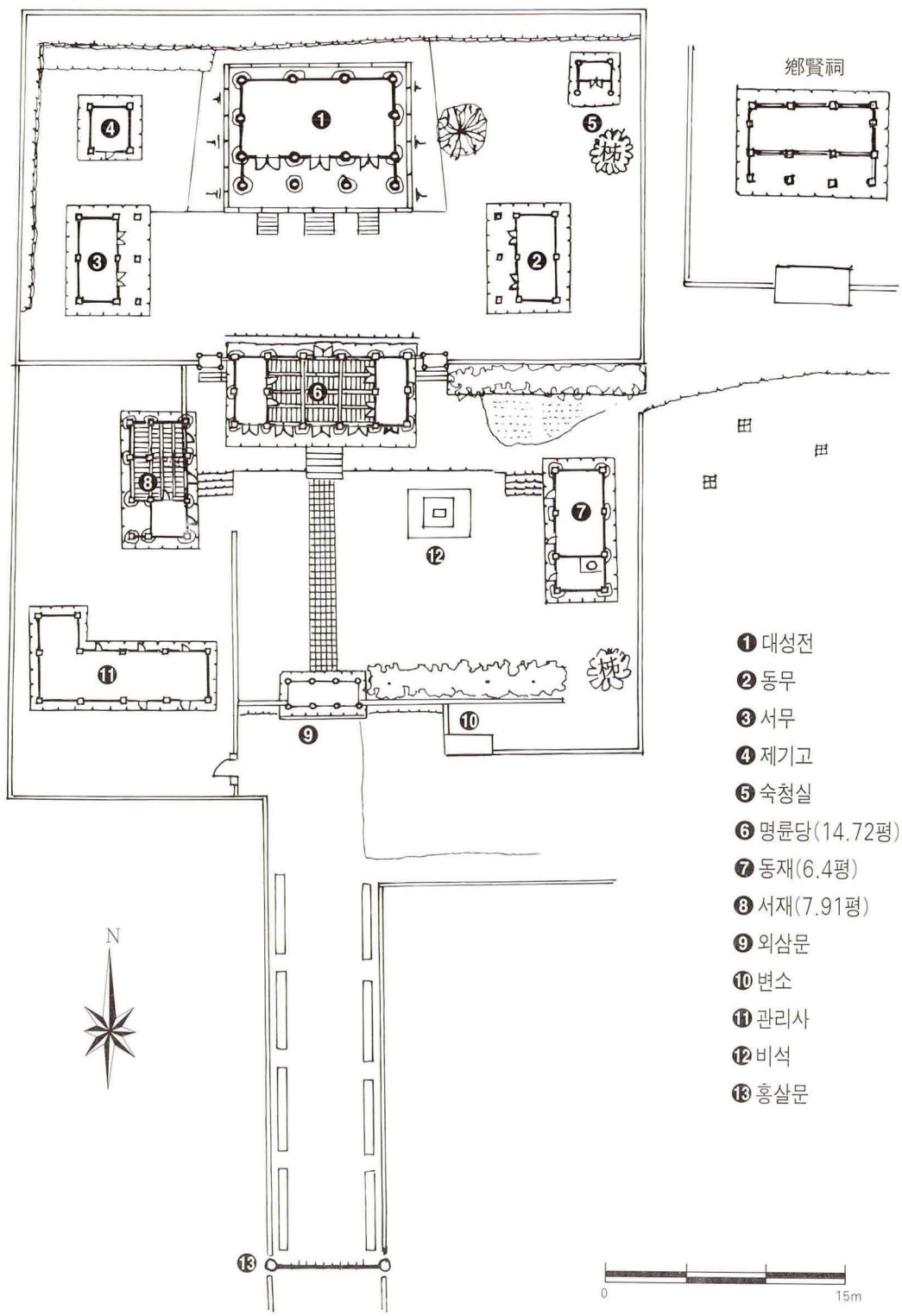
❶ 대성전(22.75평)
❷ 동무(7.66평)
❸ 서무(7.66평)
❹ 내삼문(2.59평)
❺ 명륜당(19.71평)
❻ 동재(7.36평)
❼ 서재(7.36평)
❽ 풍화루(11.18평)
❾ 관리사
❿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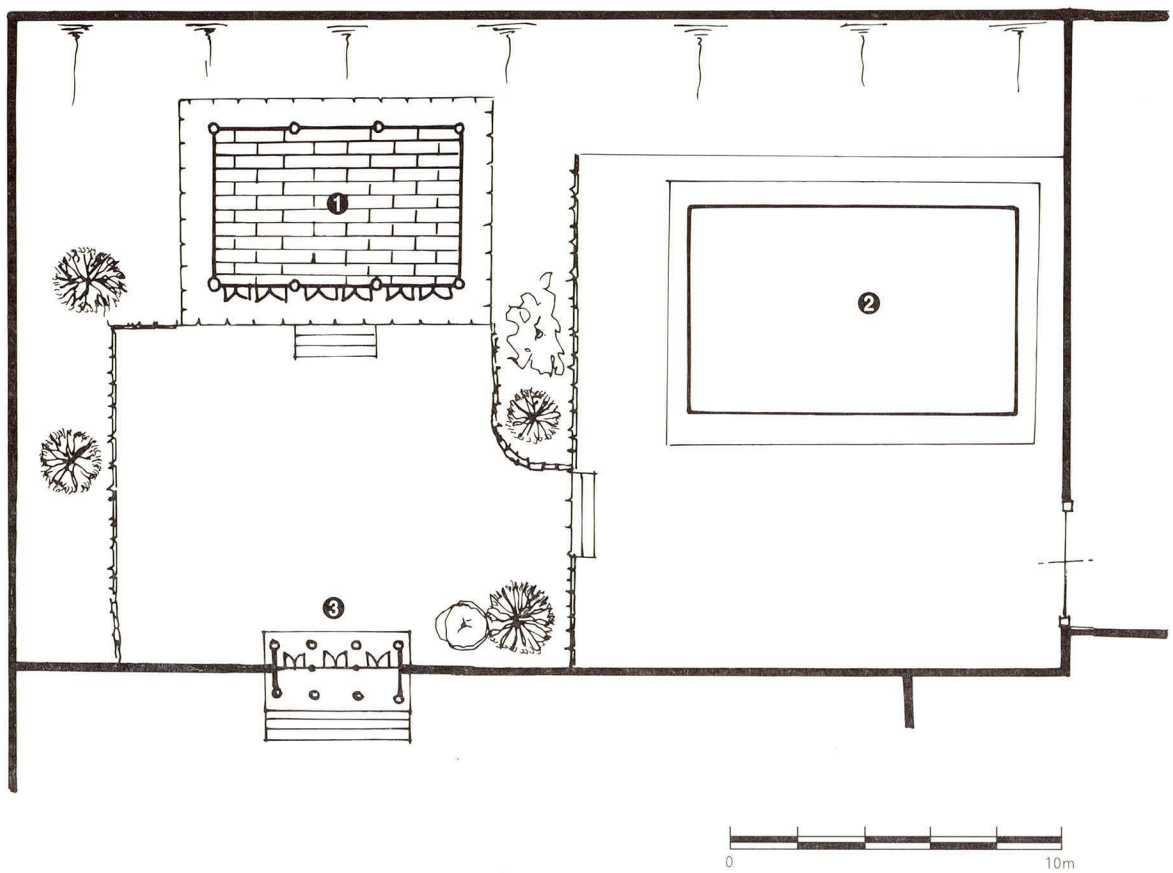
39. 平昌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1.8평)
❷ 동무(4.17평)
❸ 서무(4.17평)
❹ 내삼문(2.16평)
❺ 명륜당(13.60평)
❻ 풍화루(8.94평)
❼ 장실(6.22평)
❽ 관리사
❾ 홍살문
대추
전나무

40. 旌善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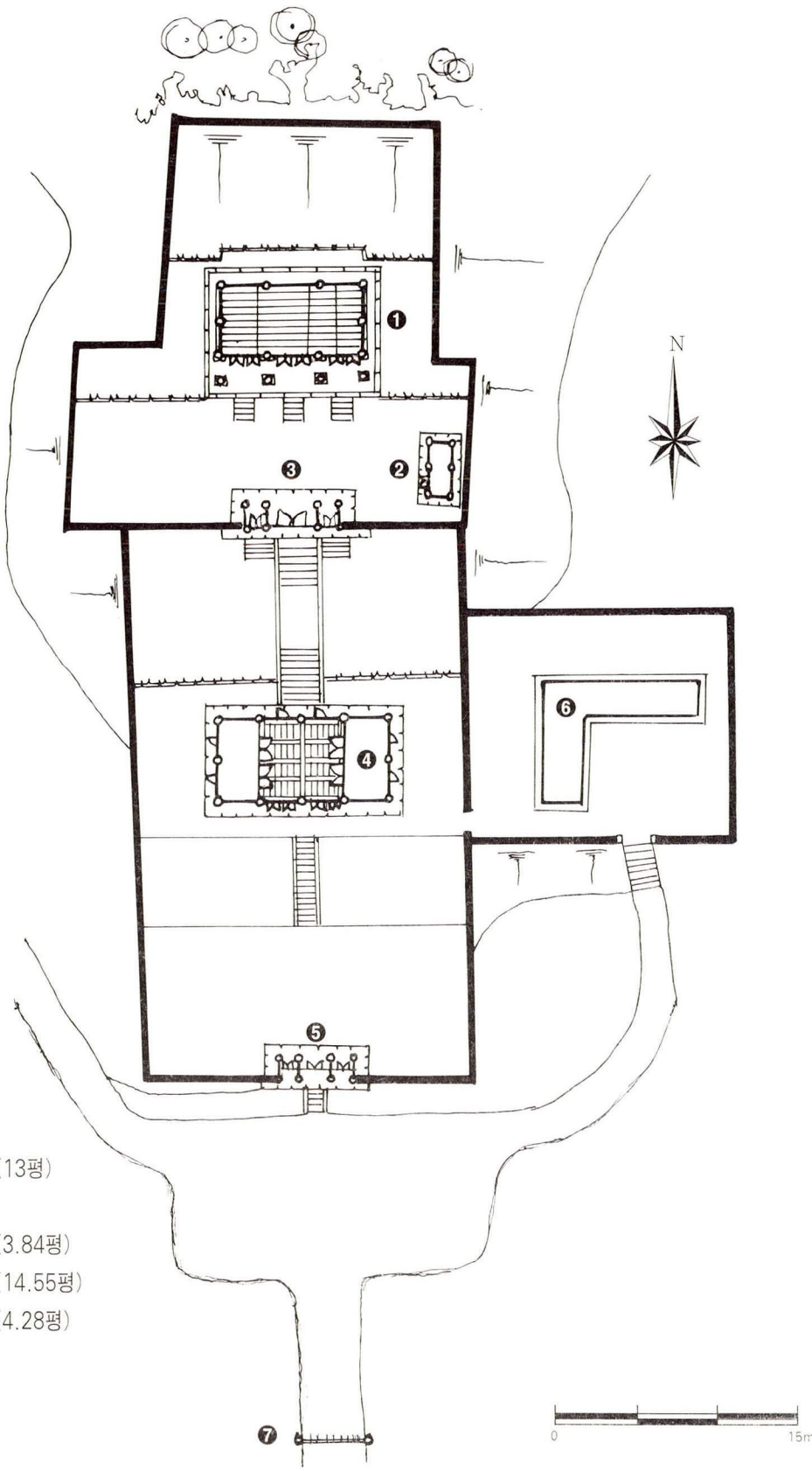

鄕賢祠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서무
❹ 제기고
❺ 숙청실
❻ 명륜당(14.72평)
❼ 동재(6.4평)
❽ 서재(7.91평)
❾ 외삼문
❿ 변소
⓫ 관리사
⓬ 비석
⓭ 홍살문
N
0
15m

41. 鐵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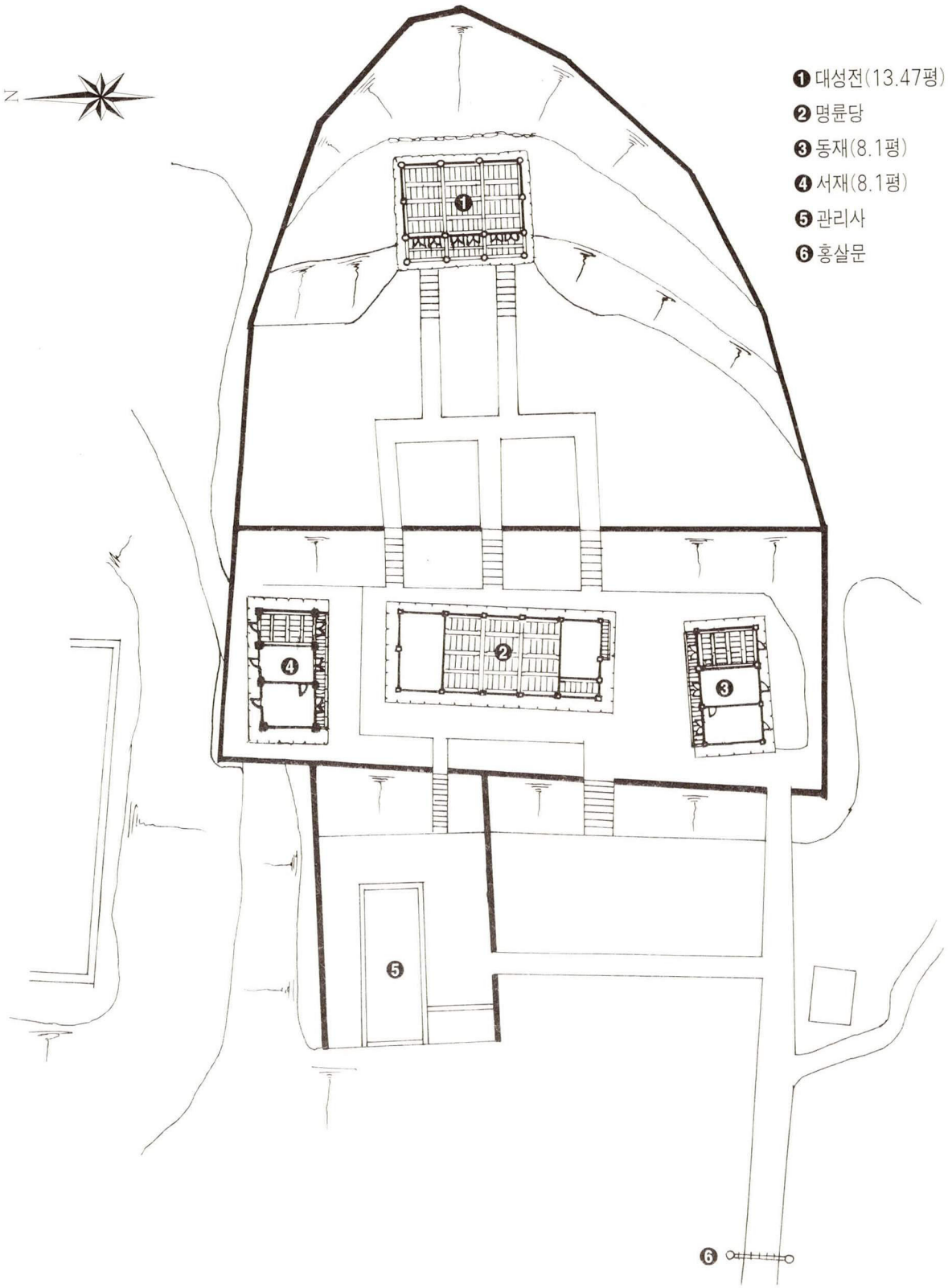
❶ 대성전(10.3평)
❷ 명륜당(19.47평)
❸ 내삼문

42. 華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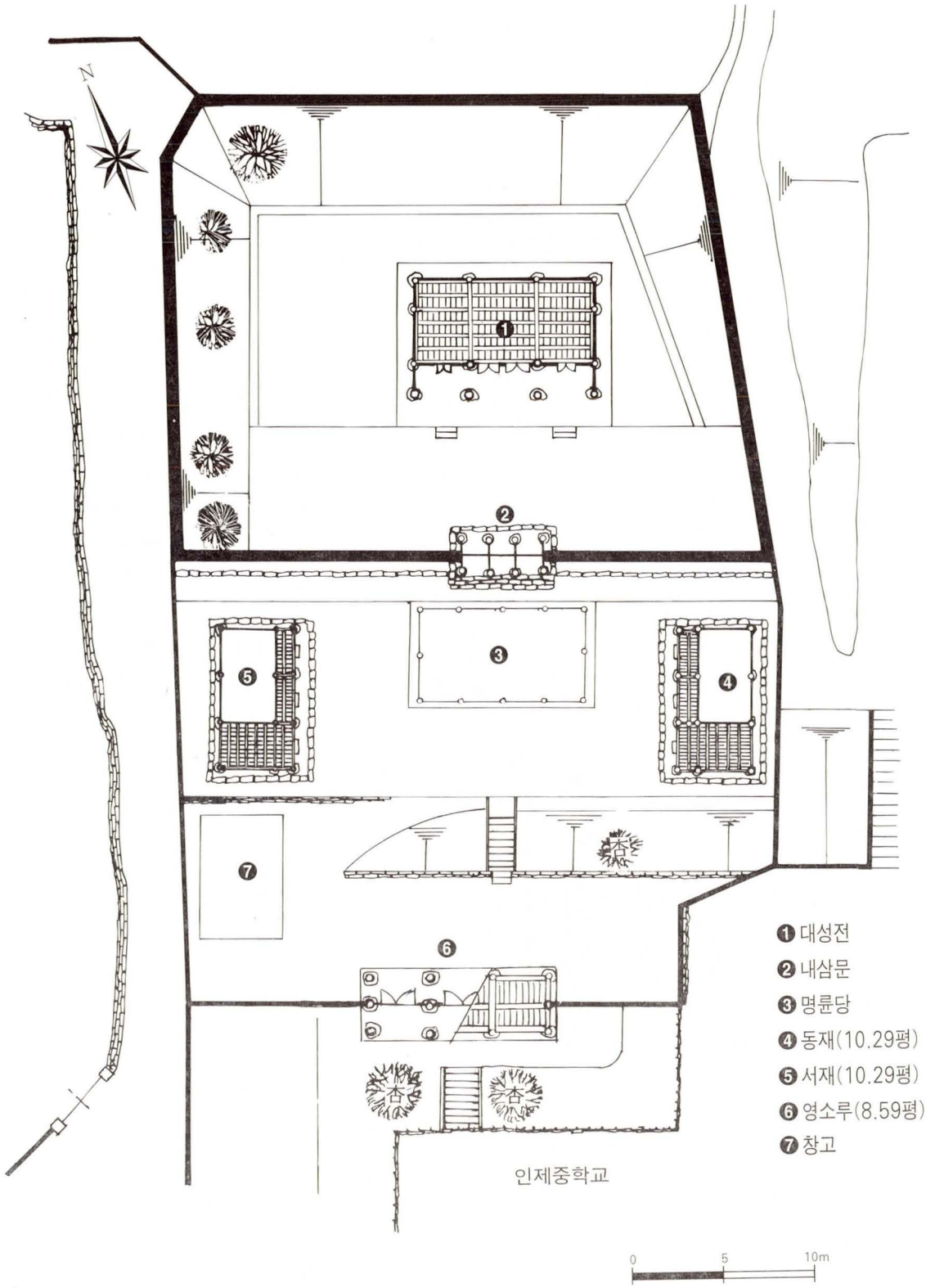


❶ 대성전(13평)
❷ 제기고
❸ 내삼문(3.84평)
❹ 명륜당(14.55평)
❺ 외삼문(4.28평)
❻ 고직사
❼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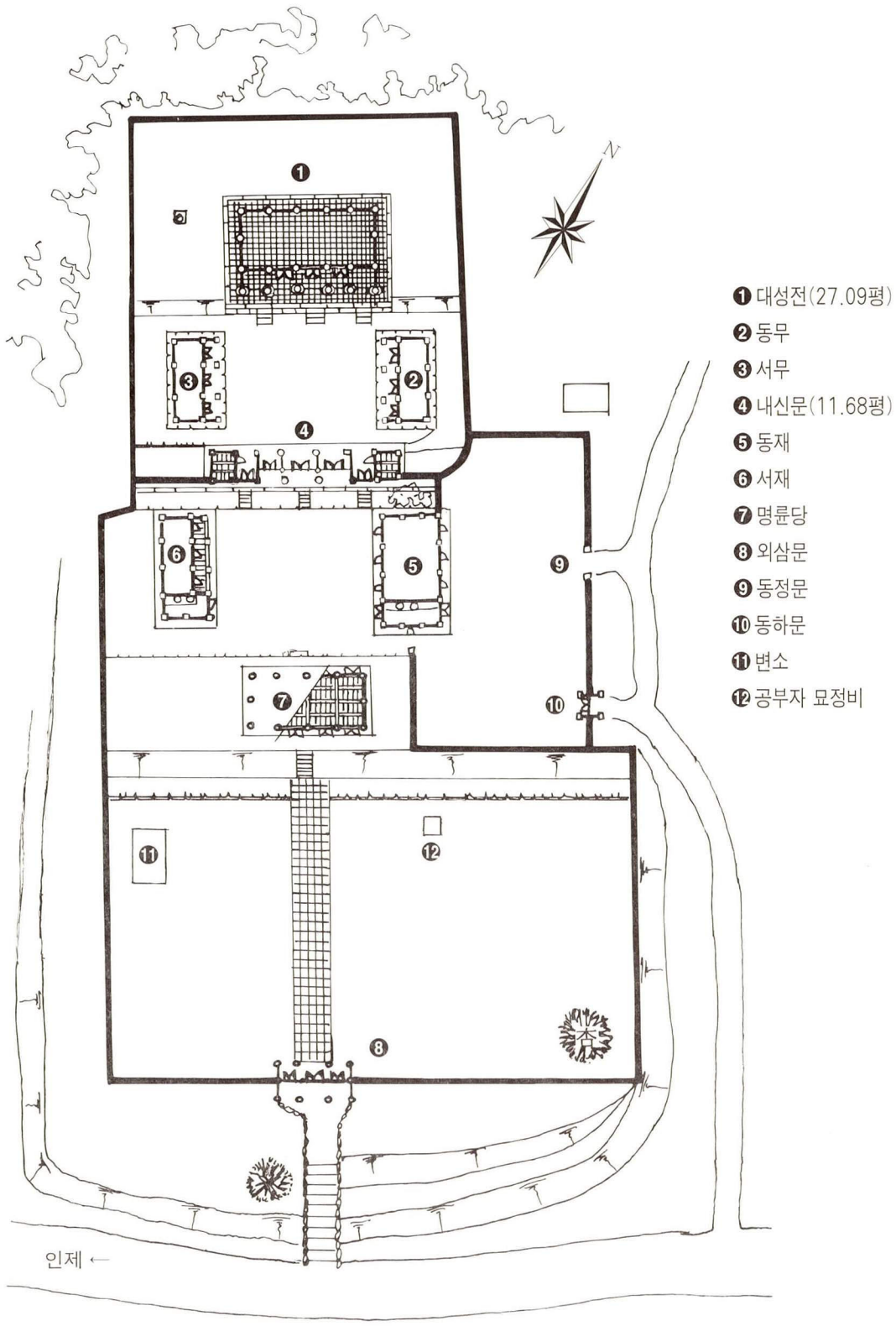
43. 楊口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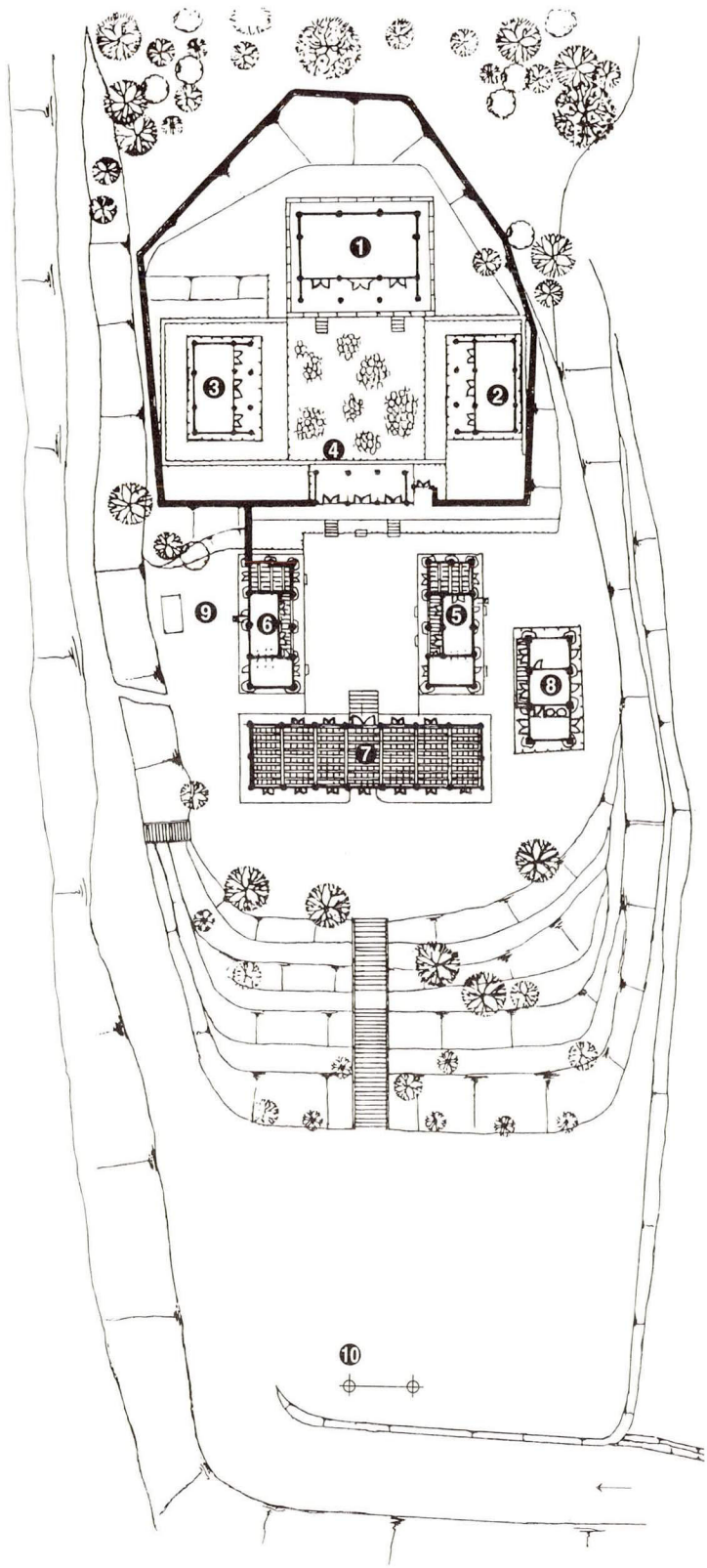
44. 麟蹄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10.29평)
❺ 서재(10.29평)
❻ 영소루(8.59평)
❼ 창고
杏
杏
杏
인제중학교
0
5
10m

45. 杆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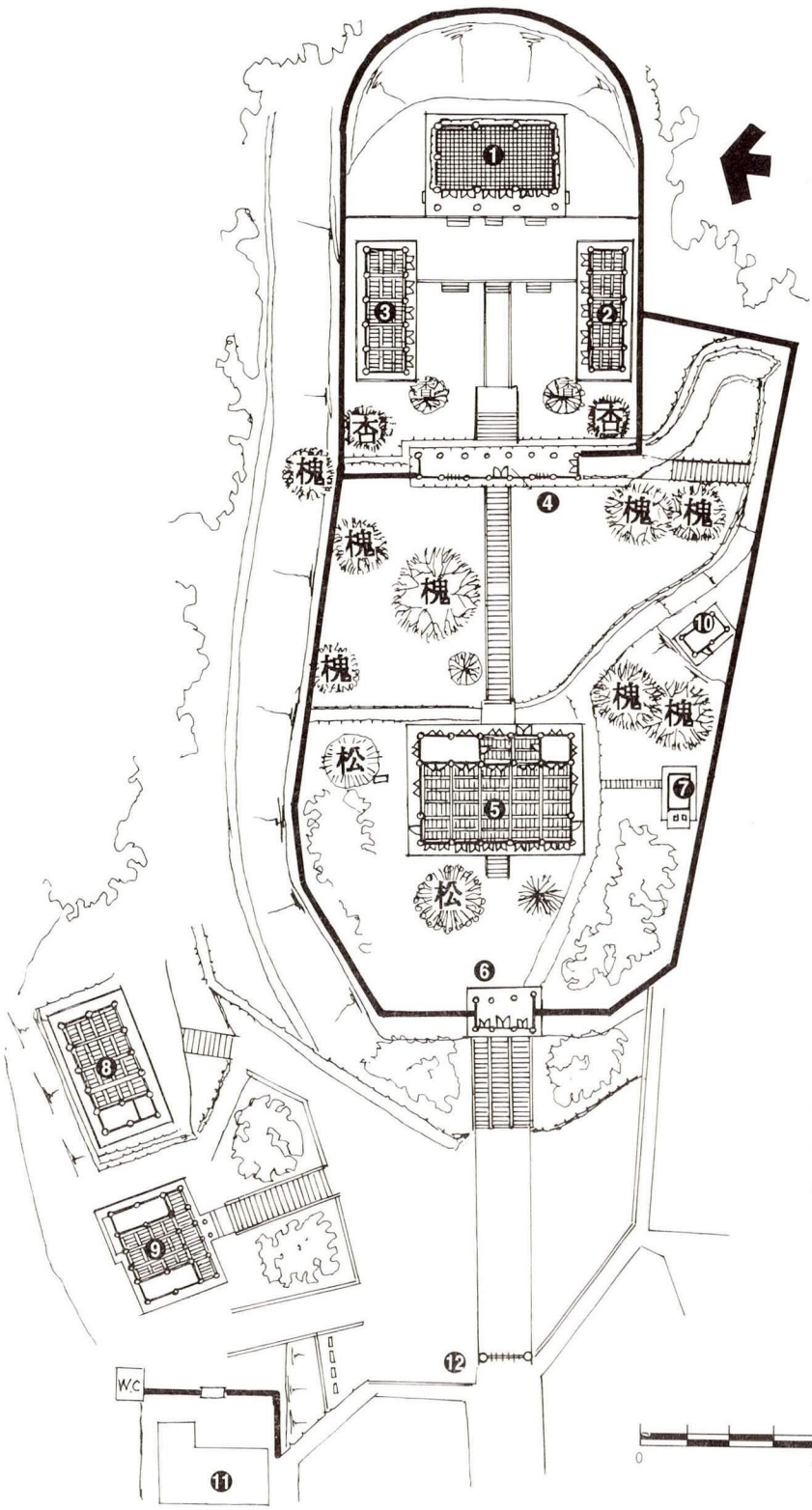

❶ 대성전(27.09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신문(11.68평)
❺ 동재
❻ 서재
❼ 명륜당
❽ 외삼문
❾ 동정문
❿ 동하문
⓫ 변소
⓬ 공부자 묘정비
N
本
인제 ←

46. 襄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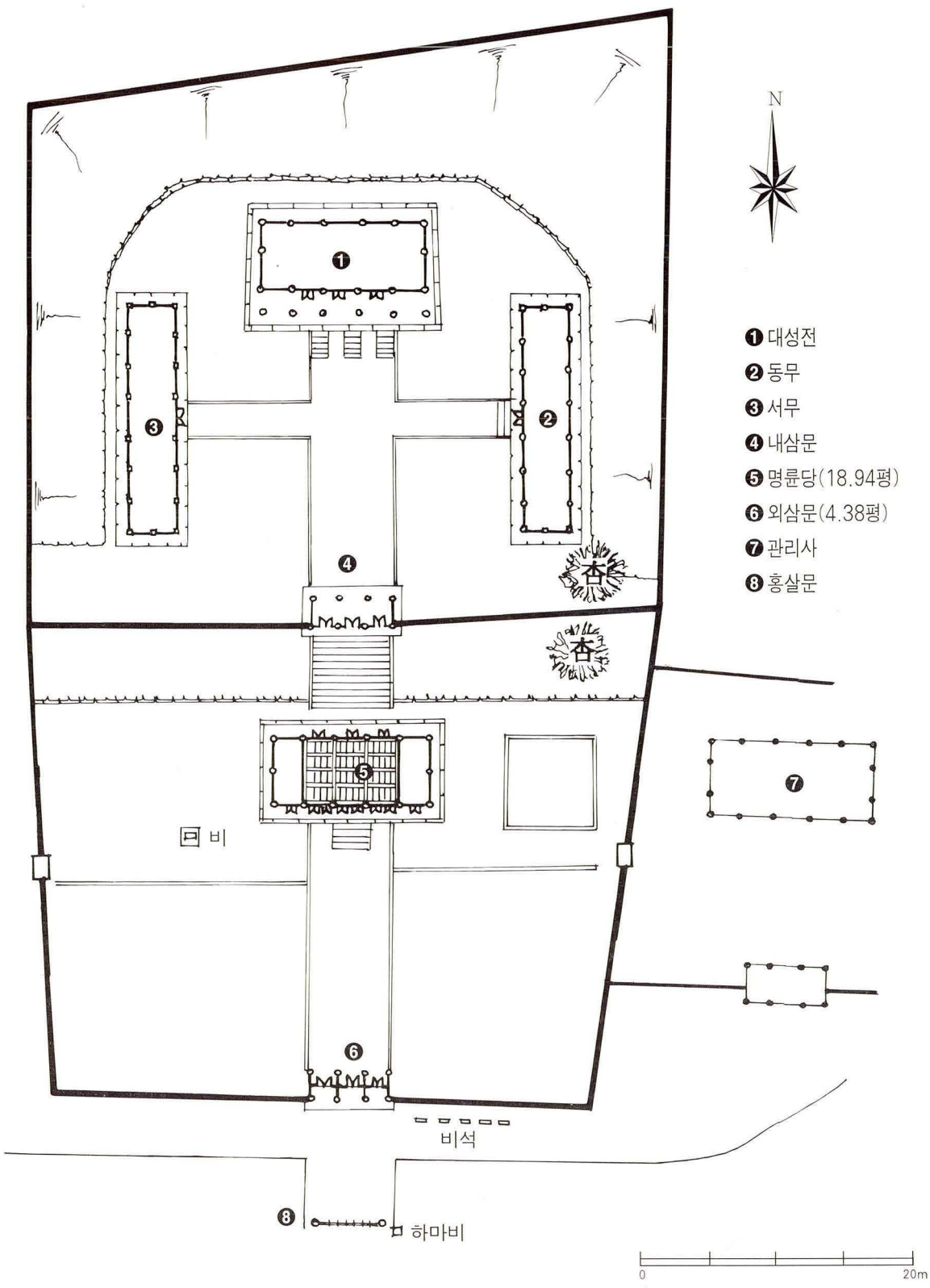
❶ 대성전(21.5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동재(12.44평)
❻ 서재(12.44평)
❼ 명륜당(32.61평)
❽ 관리사(7.36평)
❾ 변소
❿ 홍살문

47. 淸州 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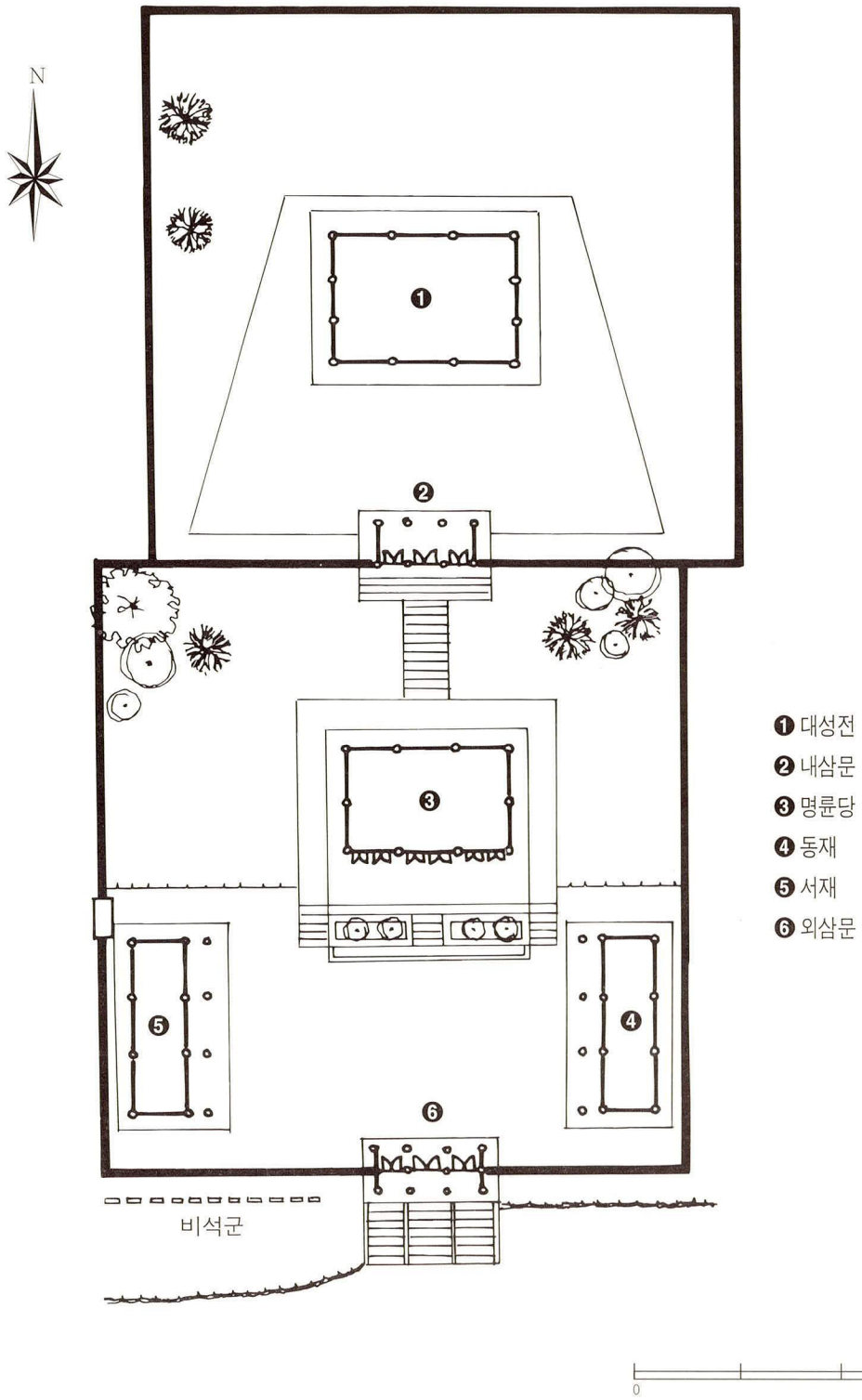


❶ 대성전(37.21평)
❷ 동무(17.95평)
❸ 서무(17.95평)
❹ 원앙문(18.3평)
❺ 명륜당(44.58평)
❻ 외삼문(5.24평)
❼ 변소
❽ 양현당(24.5평)
❾ 경의재
❿ 증반실(3.34평)
⓫ 관리사
⓬ 홍살문

48. 忠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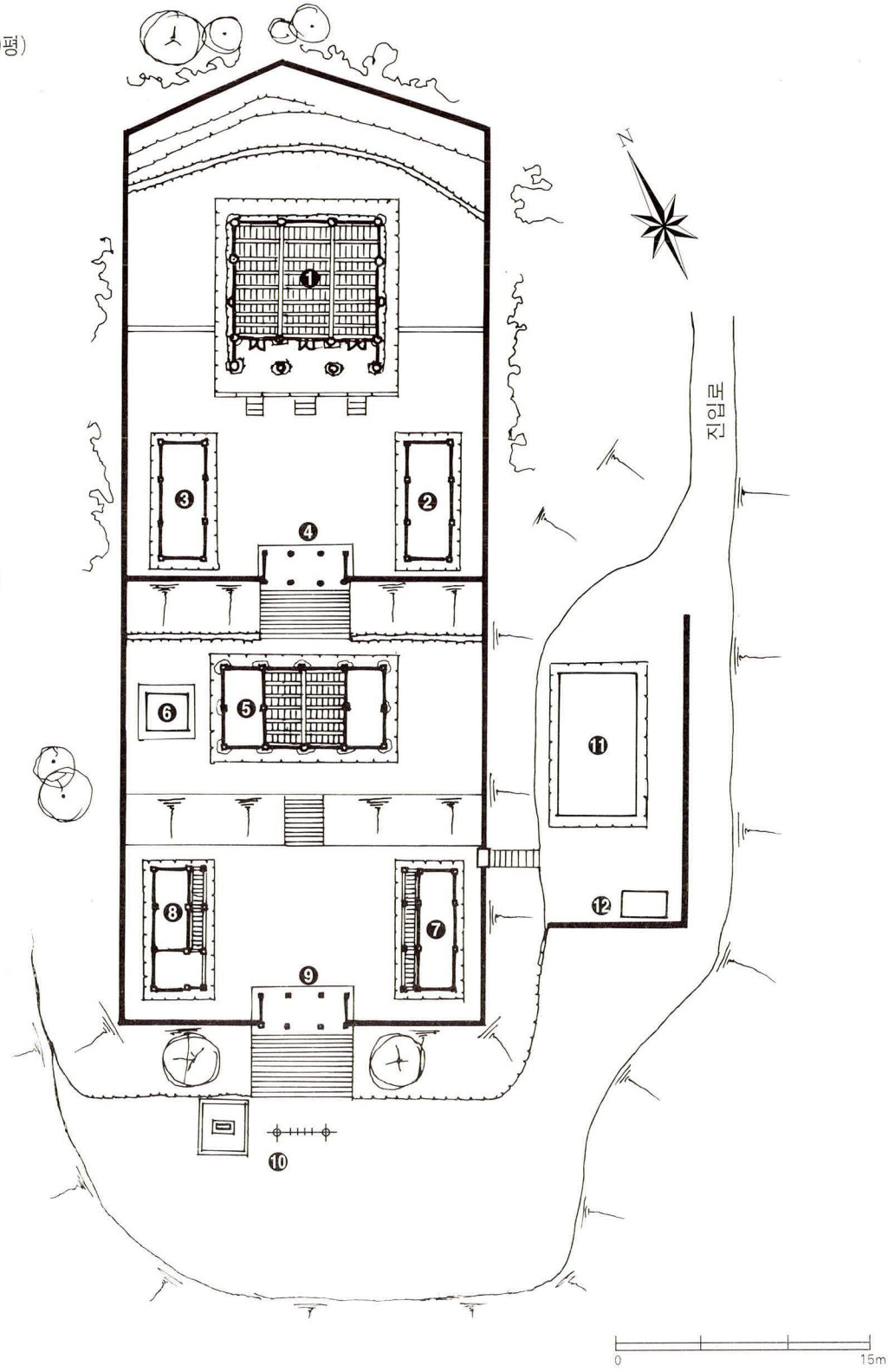

N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18.94평)
❻ 외삼문(4.38평)
❼ 관리사
❽ 홍살문
杏
杏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비
비석
하마비
0
20m

49. 堤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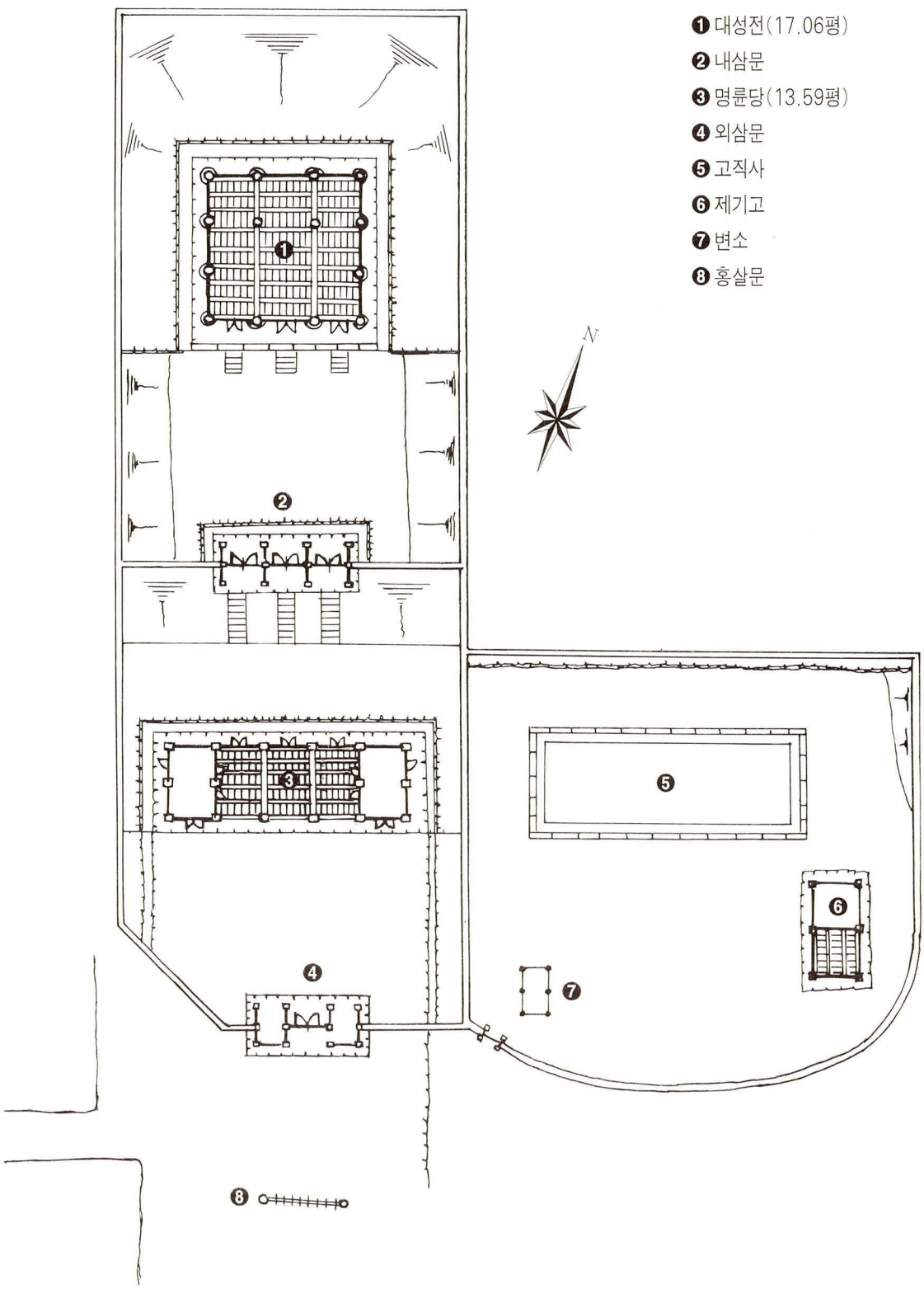


50. 淸風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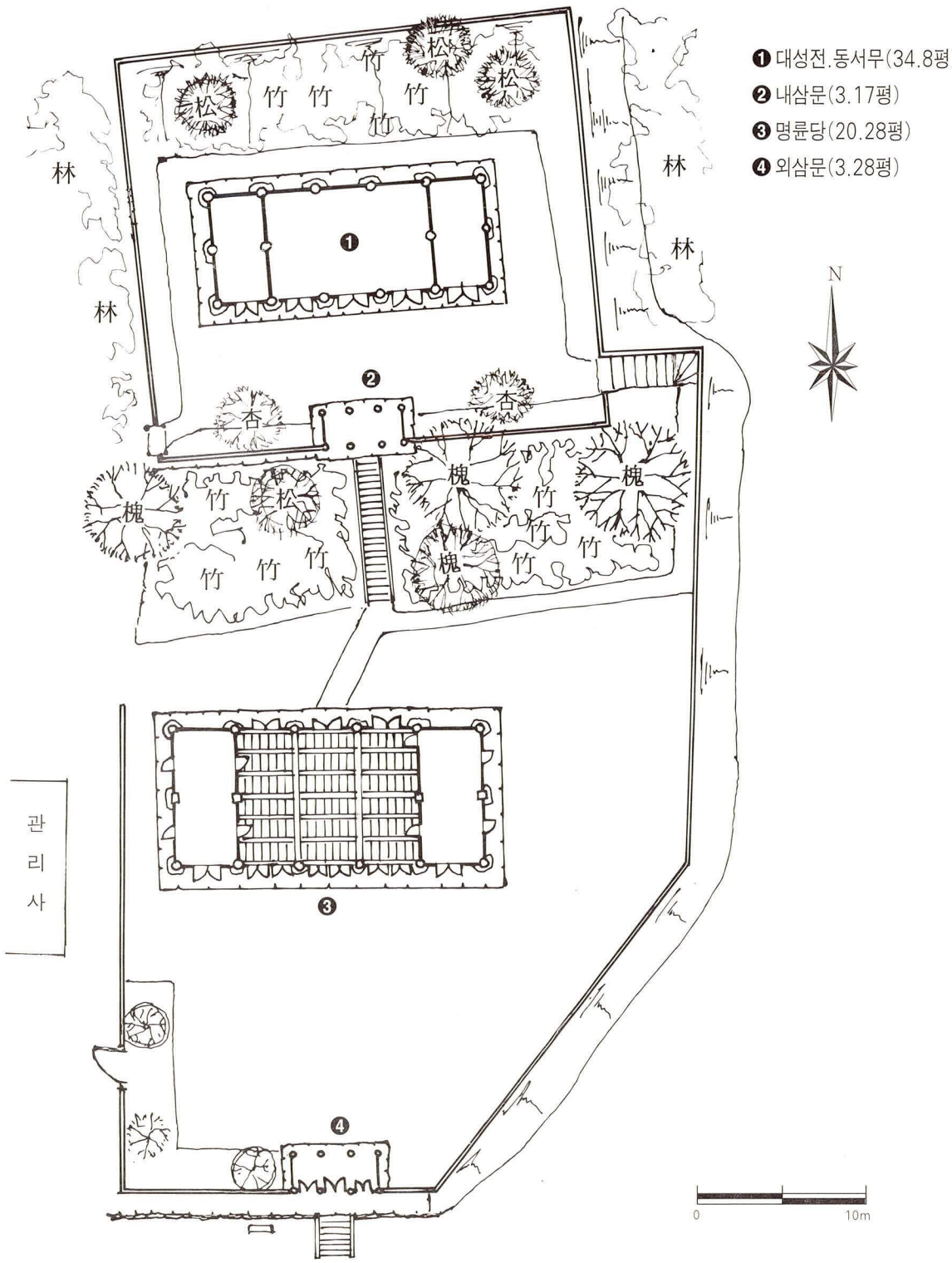
❶ 대성전(25.29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제기고
❼ 동재
❽ 서재
❾ 외삼문
❿ 홍살문
⓫ 고직사
⓬ 헛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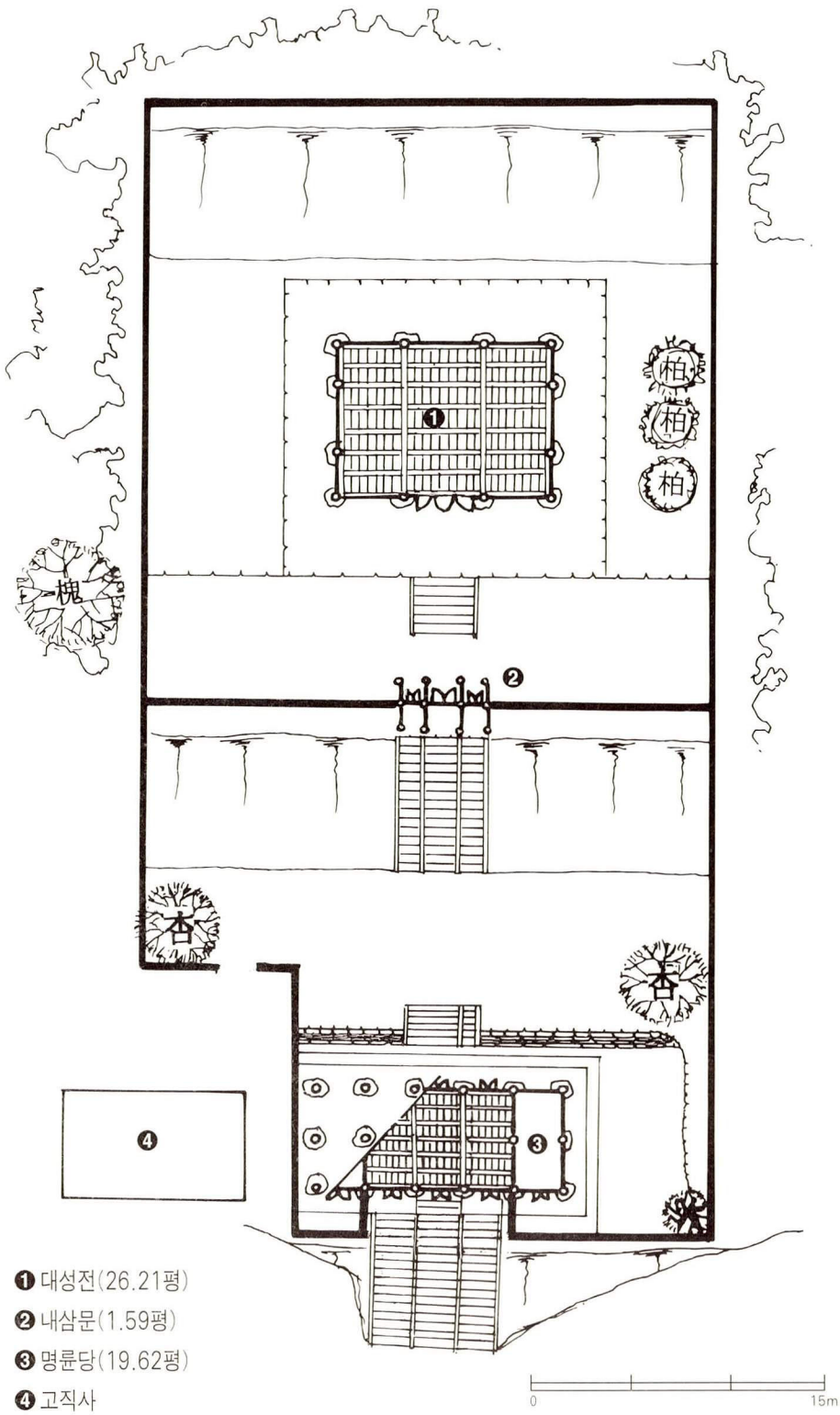
51. 文義鄕校 配置圖



52. 報恩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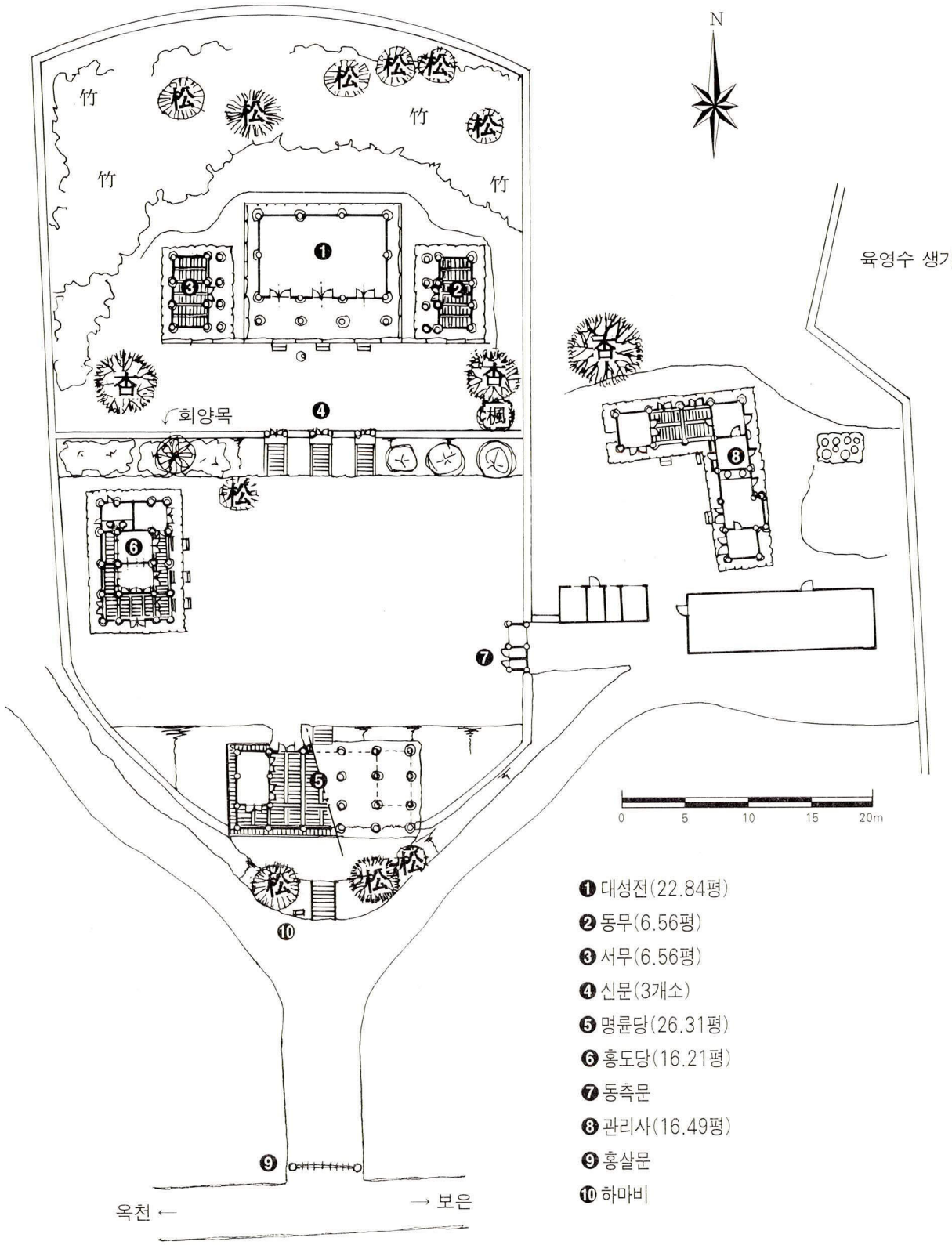


53. 懷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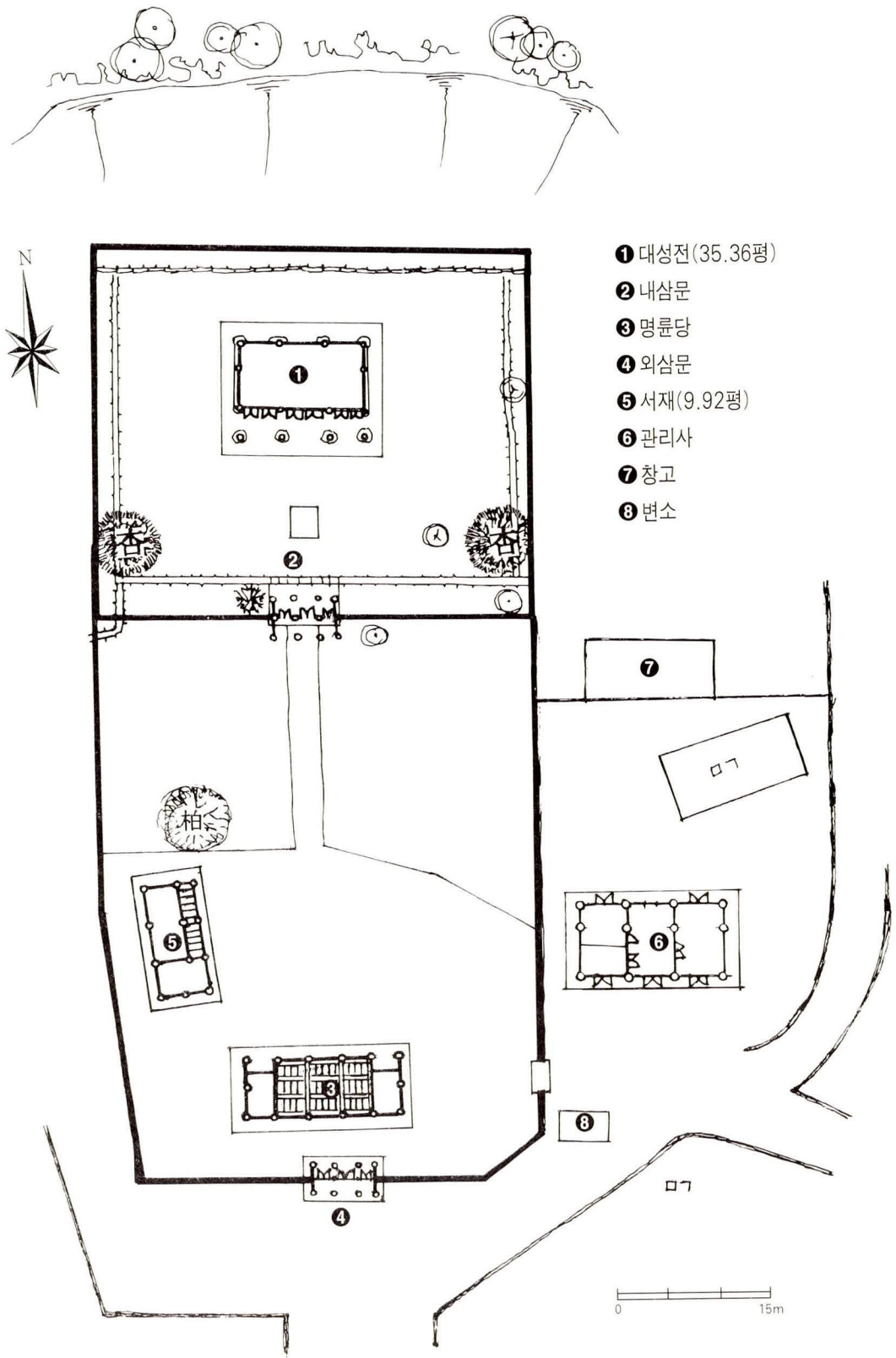
❶ 대성전(26.21평)
❷ 내삼문(1.59평)
❸ 명륜당(19.62평)
❹ 고직사

54. 沃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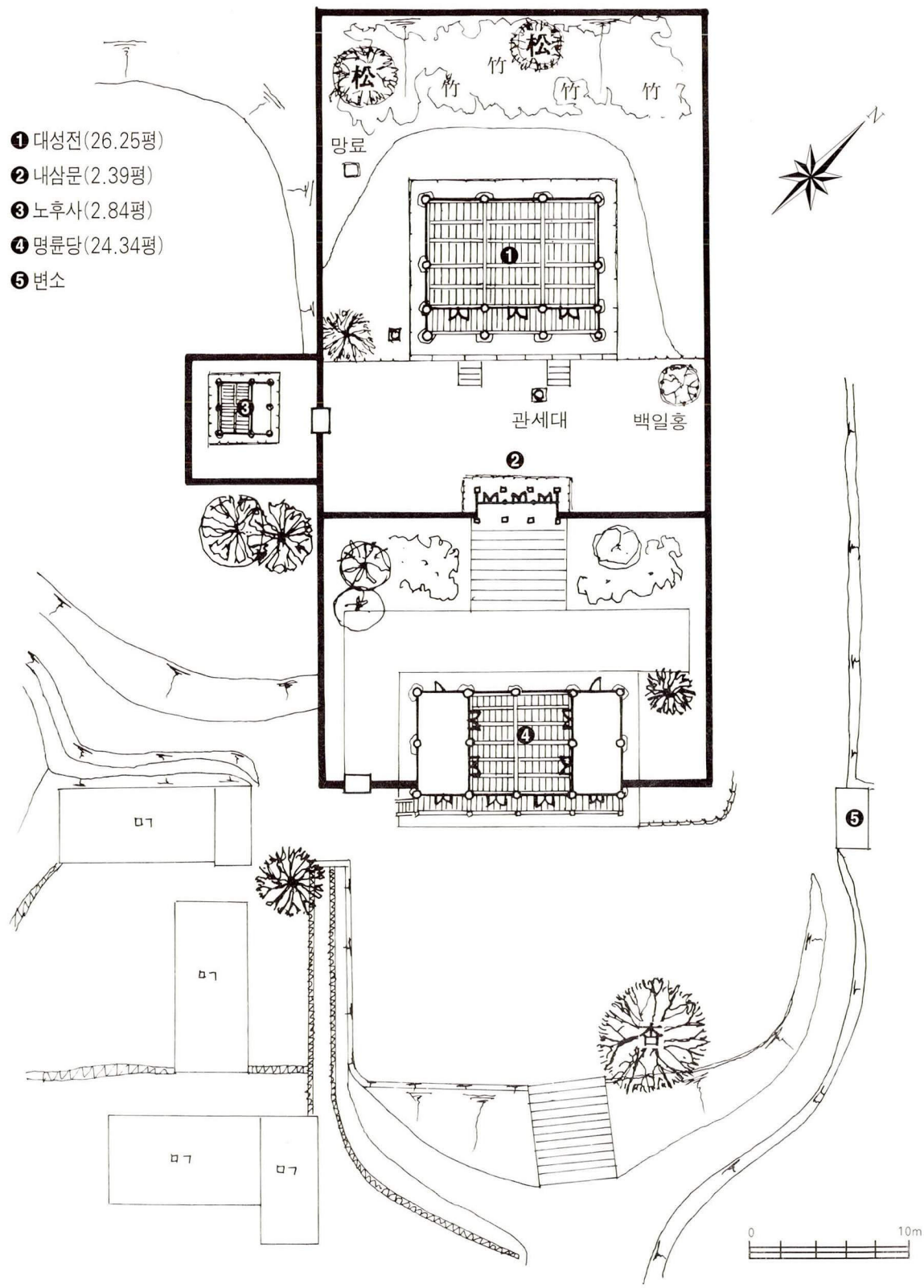


❶ 대성전(22.84평)
❷ 동무(6.56평)
❸ 서무(6.56평)
❹ 신문(3개소)
❺ 명륜당(26.31평)
❻ 홍도당(16.21평)
❼ 동측문
❽ 관리사(16.49평)
❾ 홍살문
❿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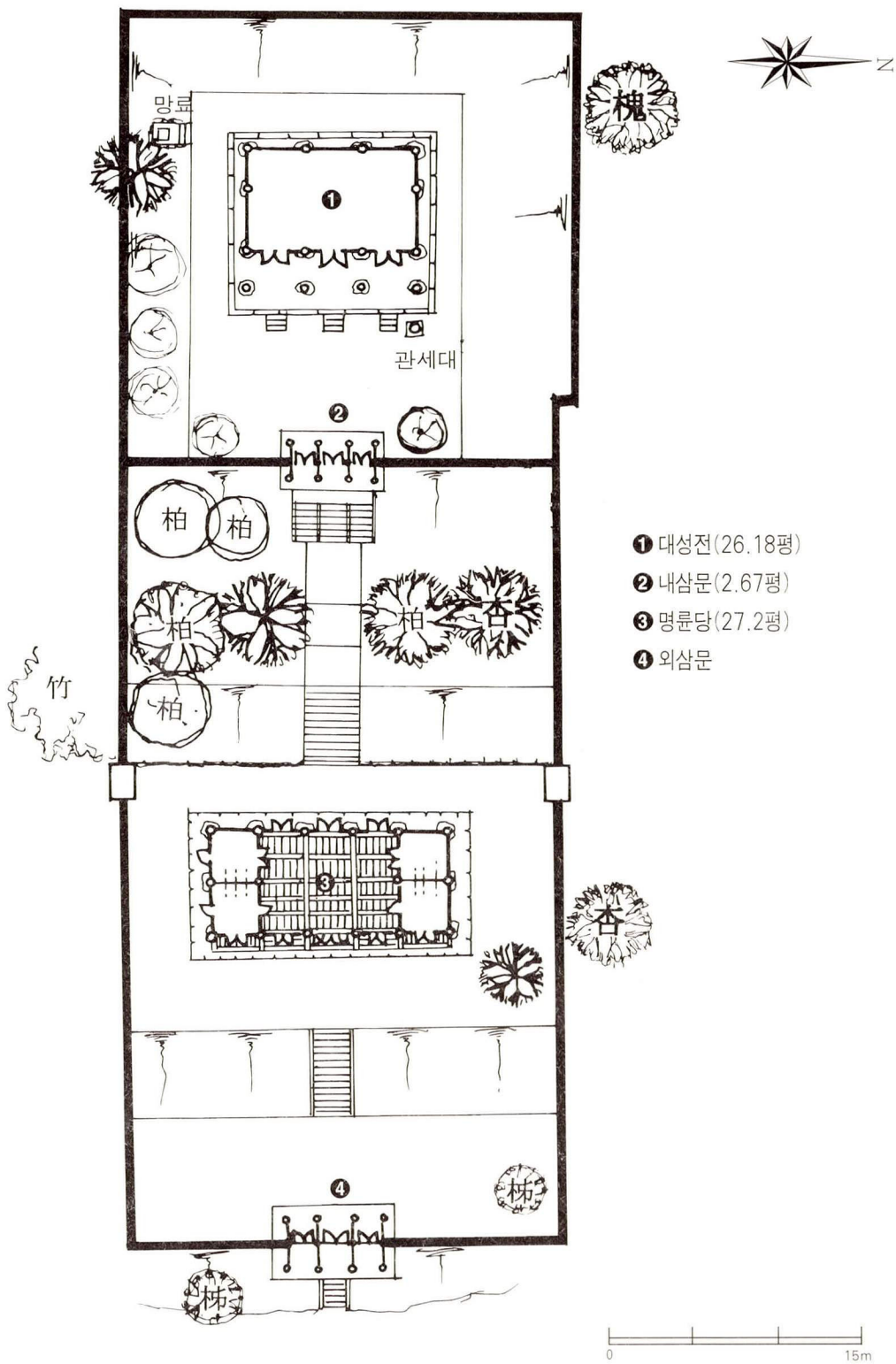
55. 靑山鄕校 配置圖


N
❶대성전(35.36평)
❷내삼문
❸명륜당
❹외삼문
❺서재(9.92평)
❻관리사
❼창고
❽변소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杏
杏
柏
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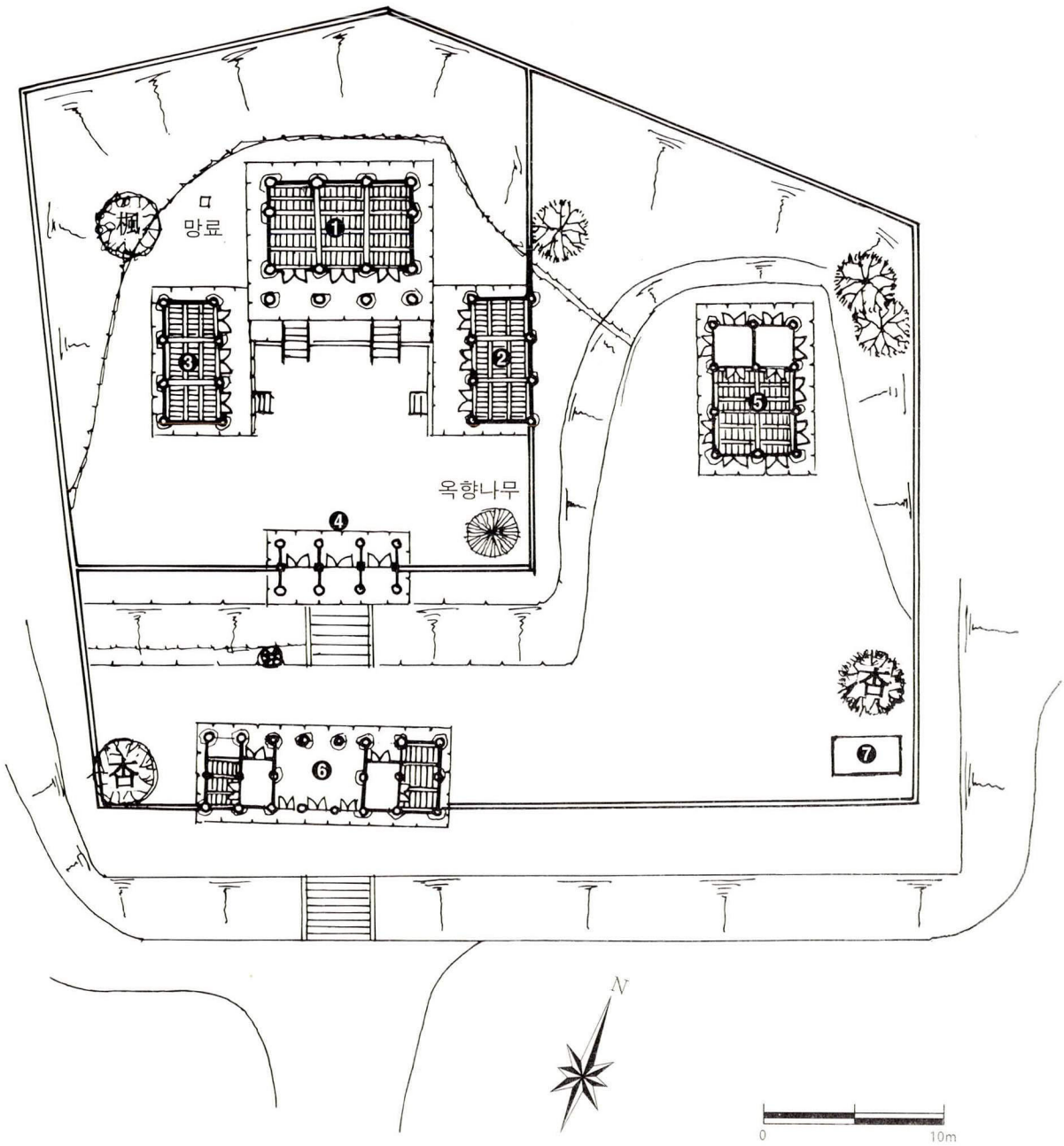
56. 永同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6.25평)
❷ 내삼문(2.39평)
❸ 노후사(2.84평)
❹ 명륜당(24.34평)
❺ 변소
松
竹
竹
竹
松
망료
관세대
백일홍
0
10m

57. 黃澗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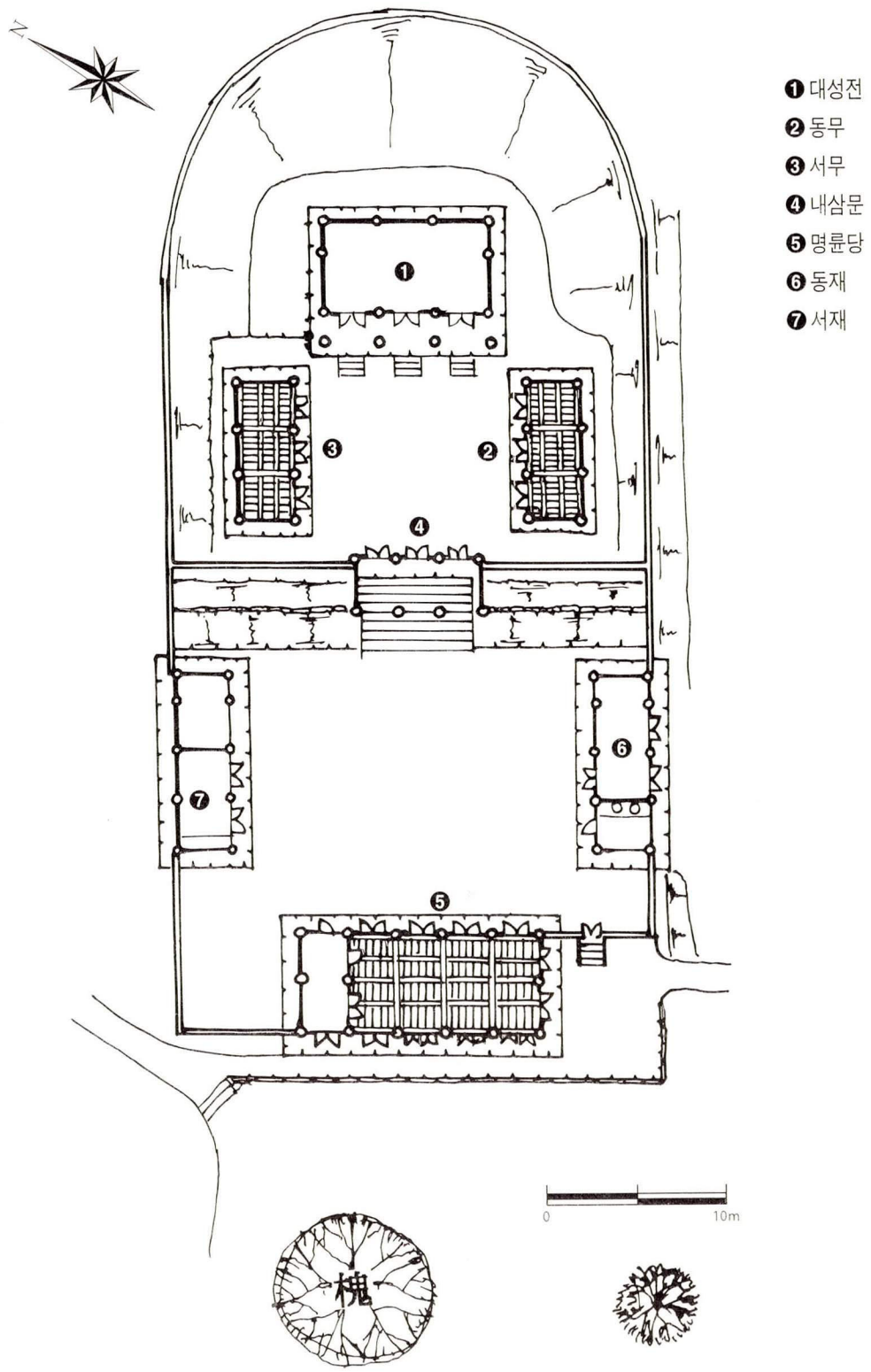


58. 鎭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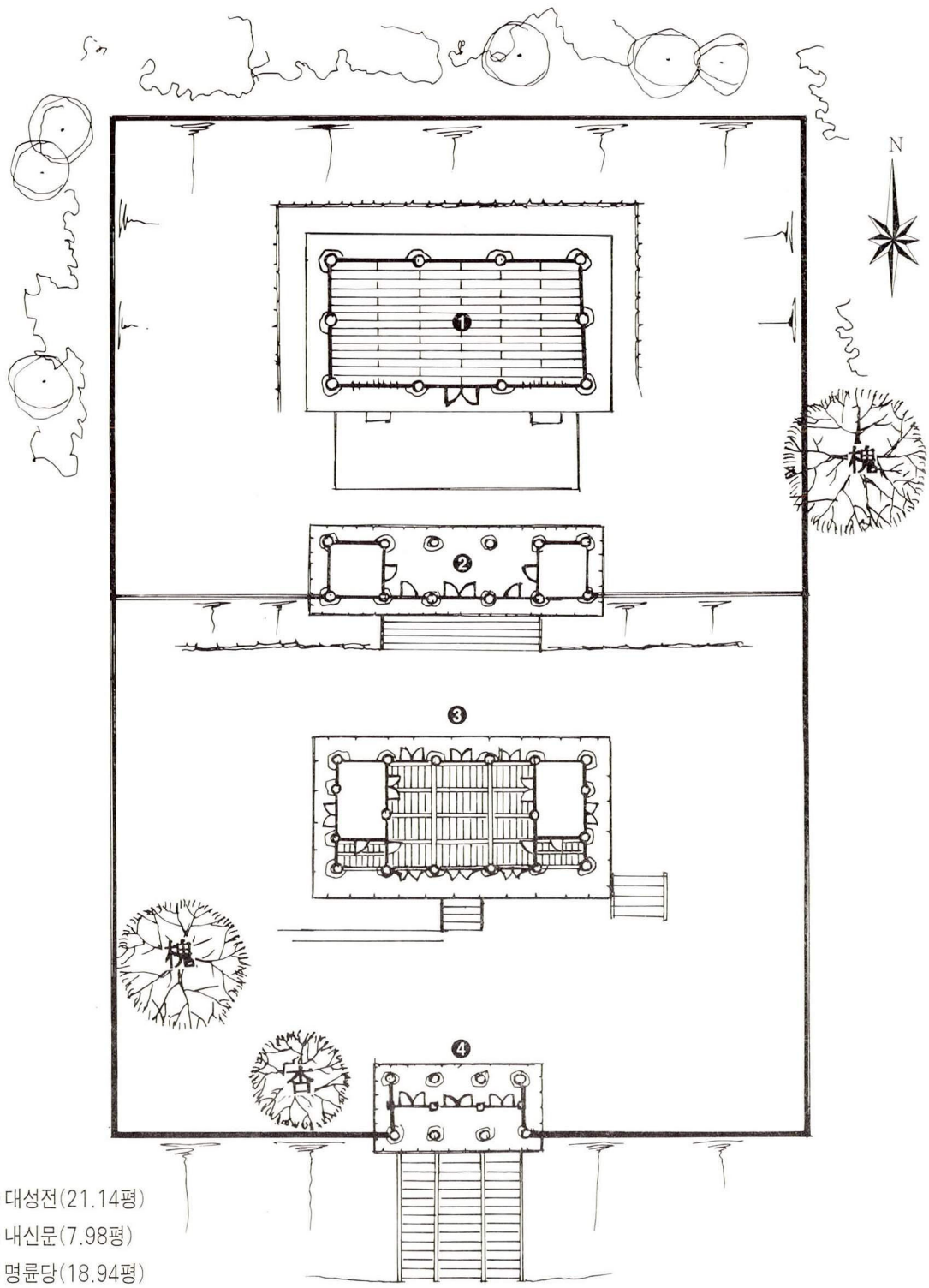


❶ 대성전(16.69평)
❷ 동무(7.31평)
❸ 서무(7.31평)
❹ 내삼문(5.11평)
❺ 명륜당(11.39평)
❻ 풍화루(15.65평)
❼ 변소

59. 槐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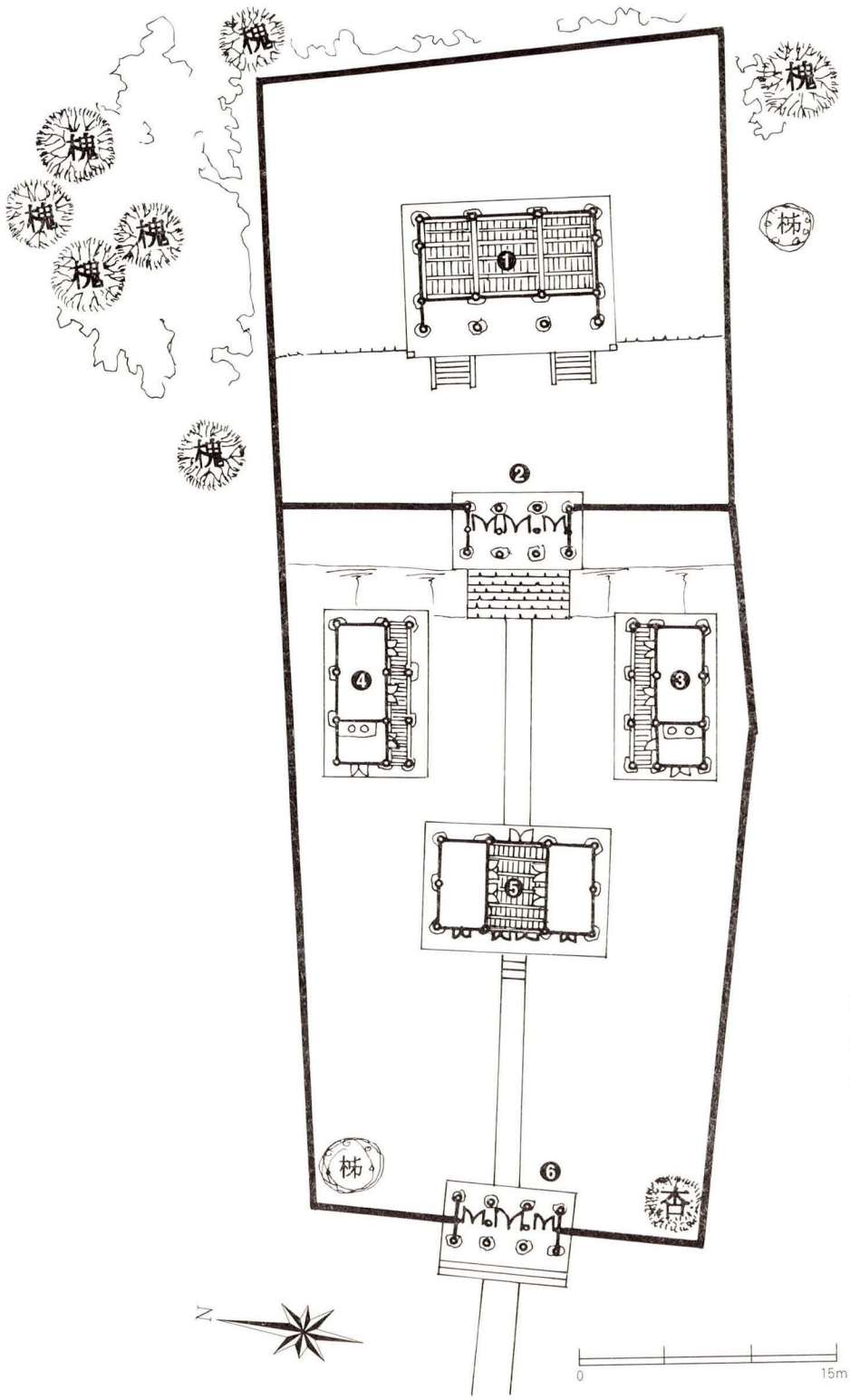


60. 淸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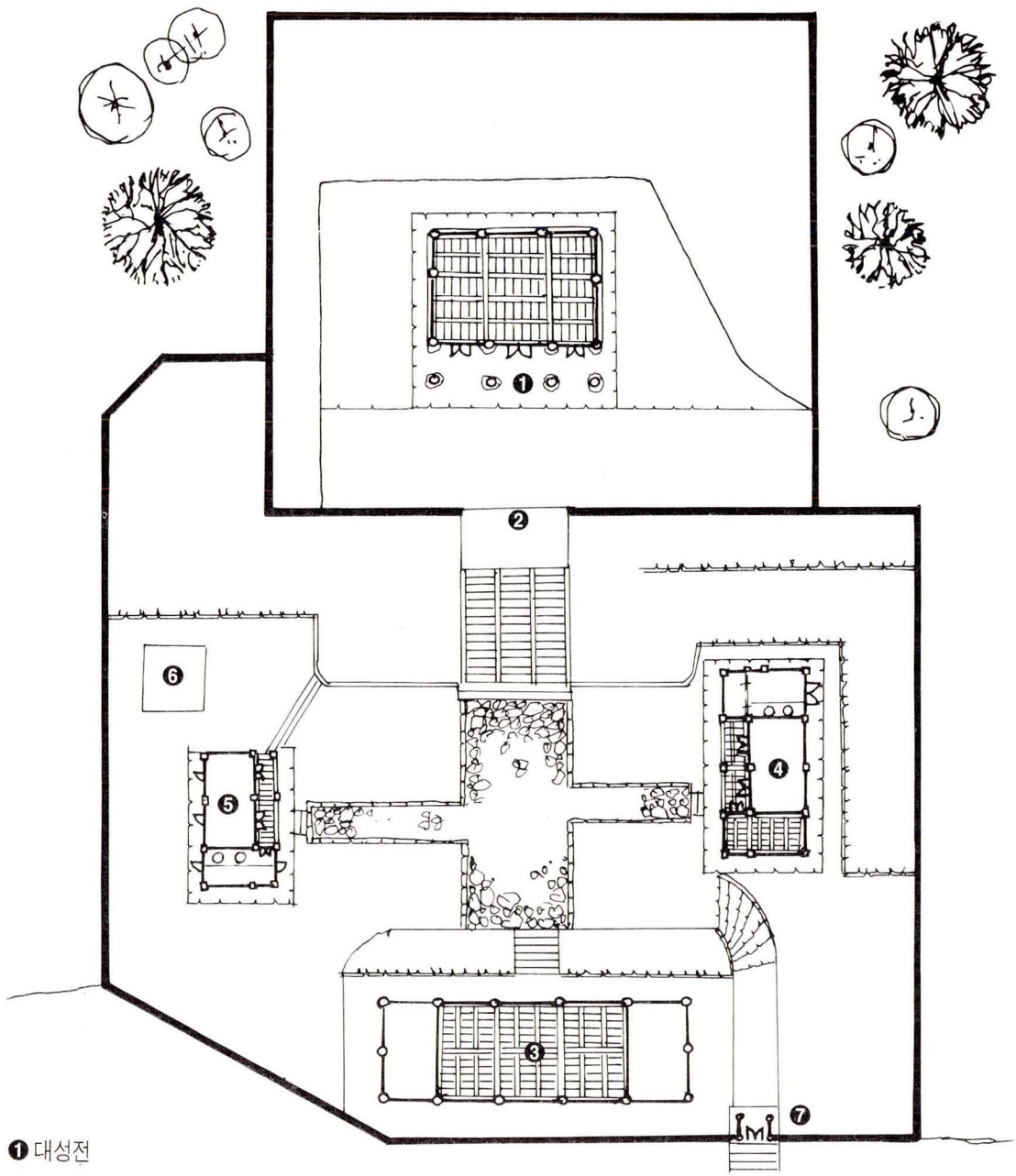
❶ 대성전(21.14평)
❷ 내신문(7.98평)
❸ 명륜당(18.94평)
❹ 외삼문(4.15평)

61. 延豊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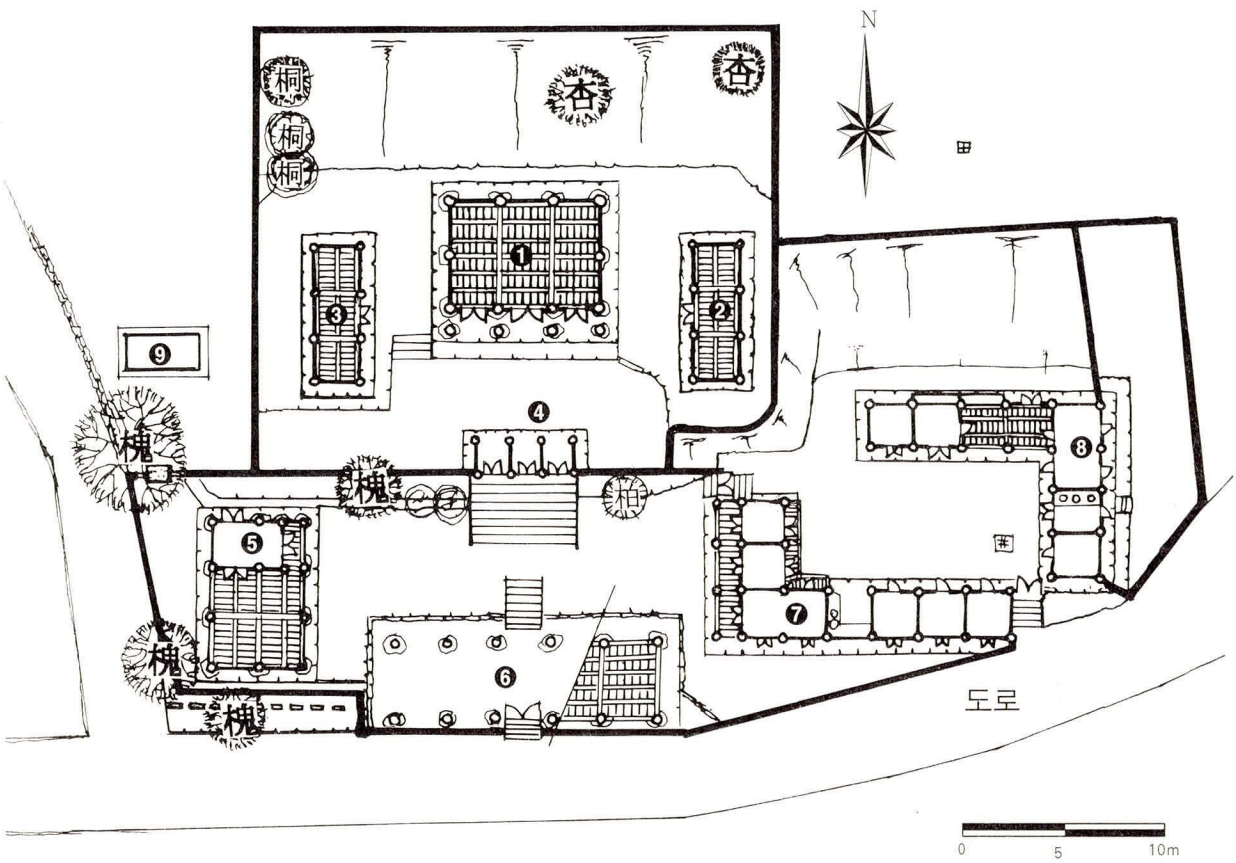


❶ 대성전(19.17평)
❷ 내삼문(4.37평)
❸ 동재(9.57평)
❹ 서재(9.57평)
❺ 명륜당(13.14평)
❻ 외삼문(4.85평)

62. 陰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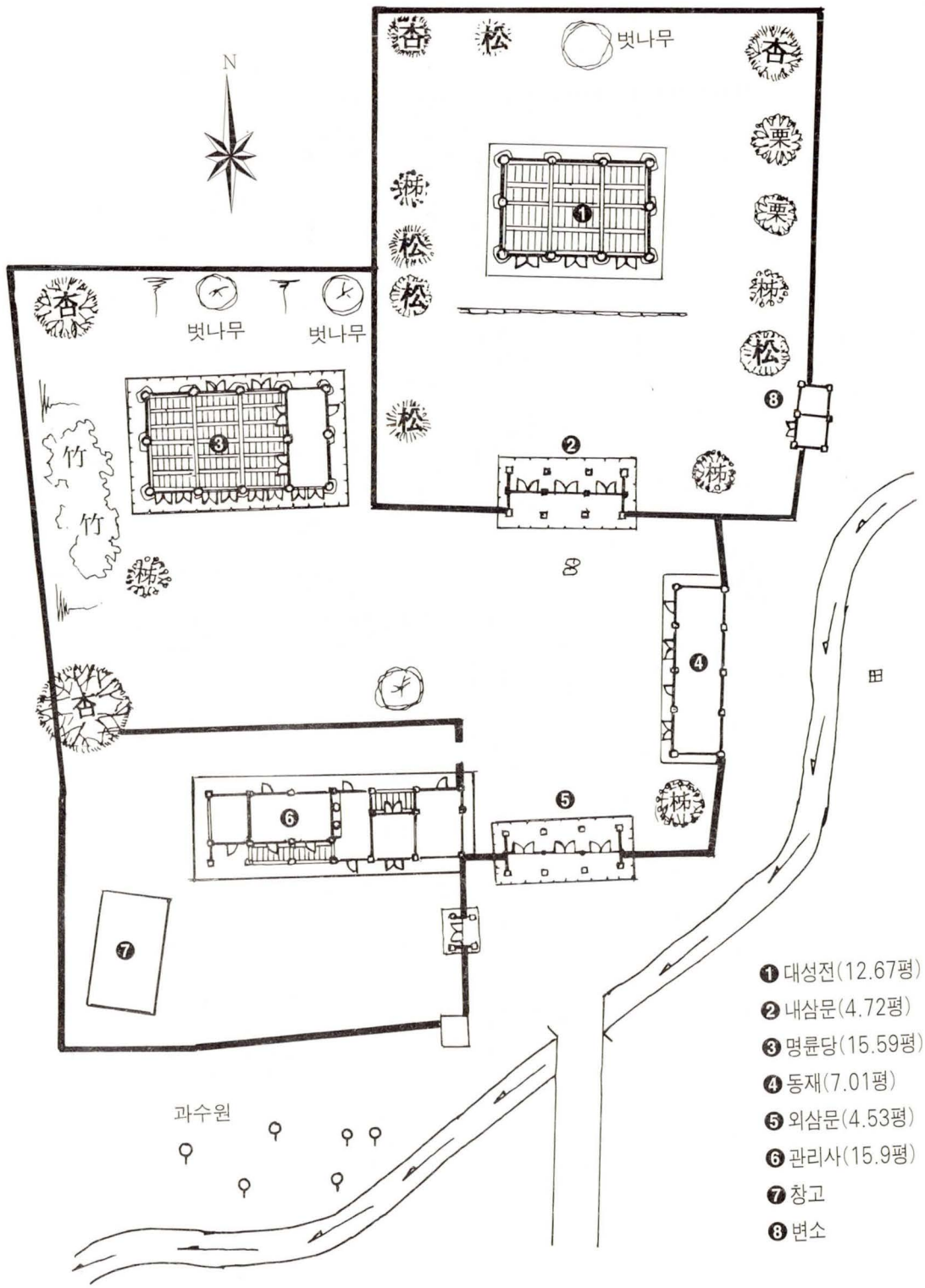


63. 丹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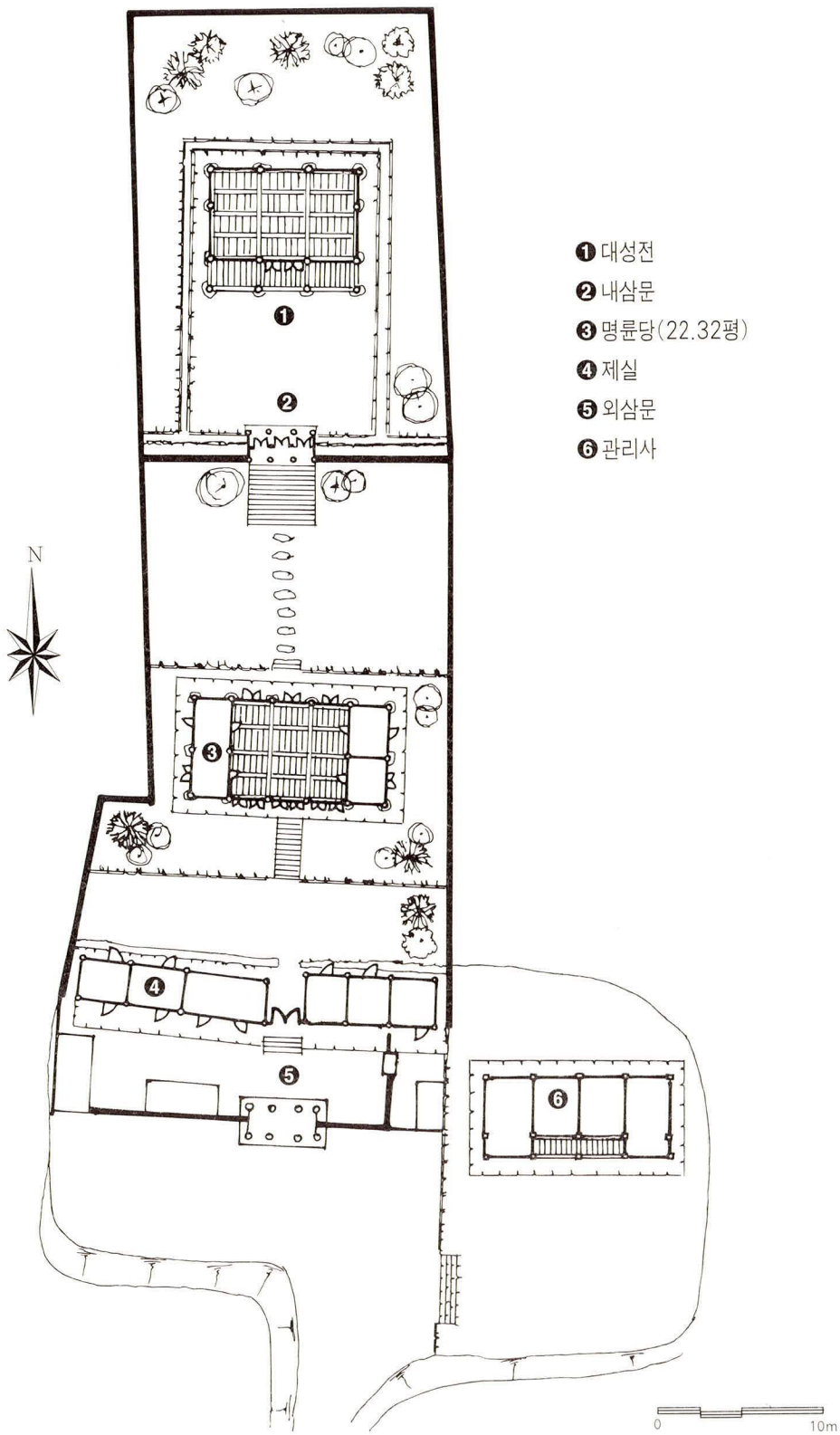


❶ 대성전(16.75평)
❷ 동무(5.4평)
❸ 서무(5.4평)
❹ 내삼문(2.96평)
❺ 명륜당(12.13평)
❻ 풍화루(18.06평)
❼ 수업재(16.38평)
❽ 관리사(14.43평)
❾ 변소

64. 永春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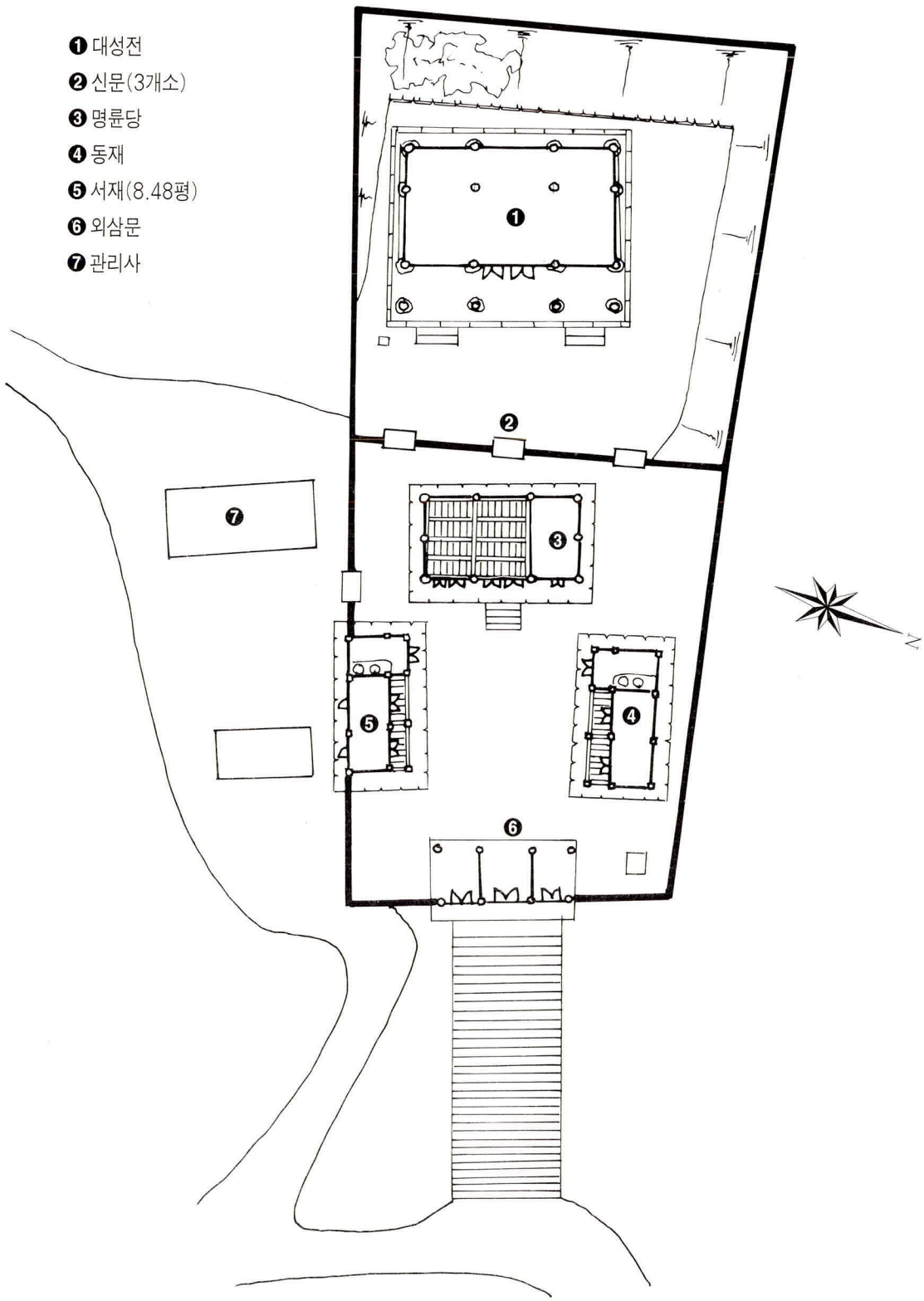

N
杏
松
벗나무
栗
楸
竹
田
과수원
❶ 대성전(12.67평)
❷ 내삼문(4.72평)
❸ 명륜당(15.59평)
❹ 동재(7.01평)
❺ 외삼문(4.53평)
❻ 관리사(15.9평)
❼ 창고
❽ 변소

65. 懷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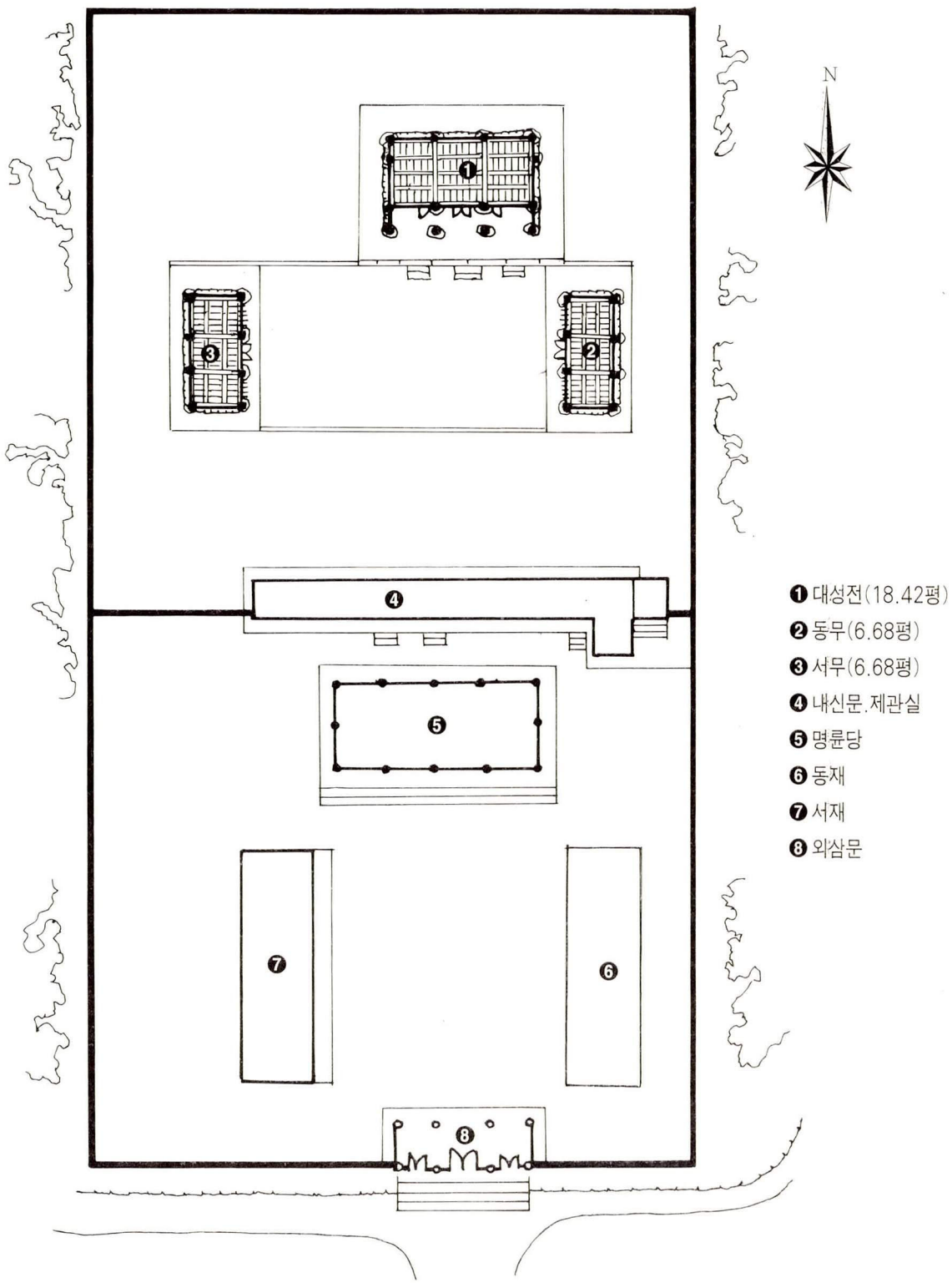


66. 鎭岑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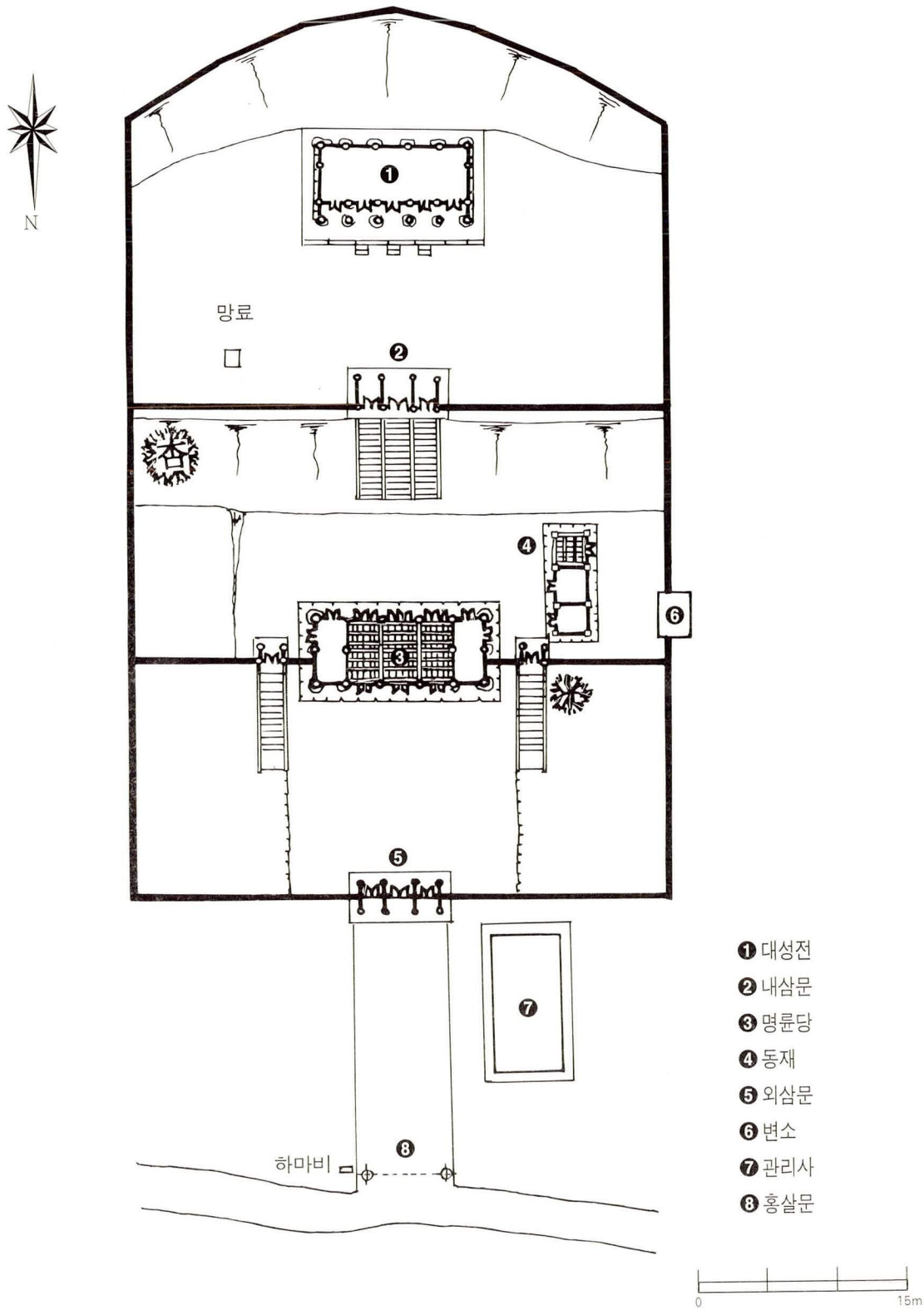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신문(3개소)
❸ 명륜당
❹ 동재
❺ 서재(8.48평)
❻ 외삼문
❼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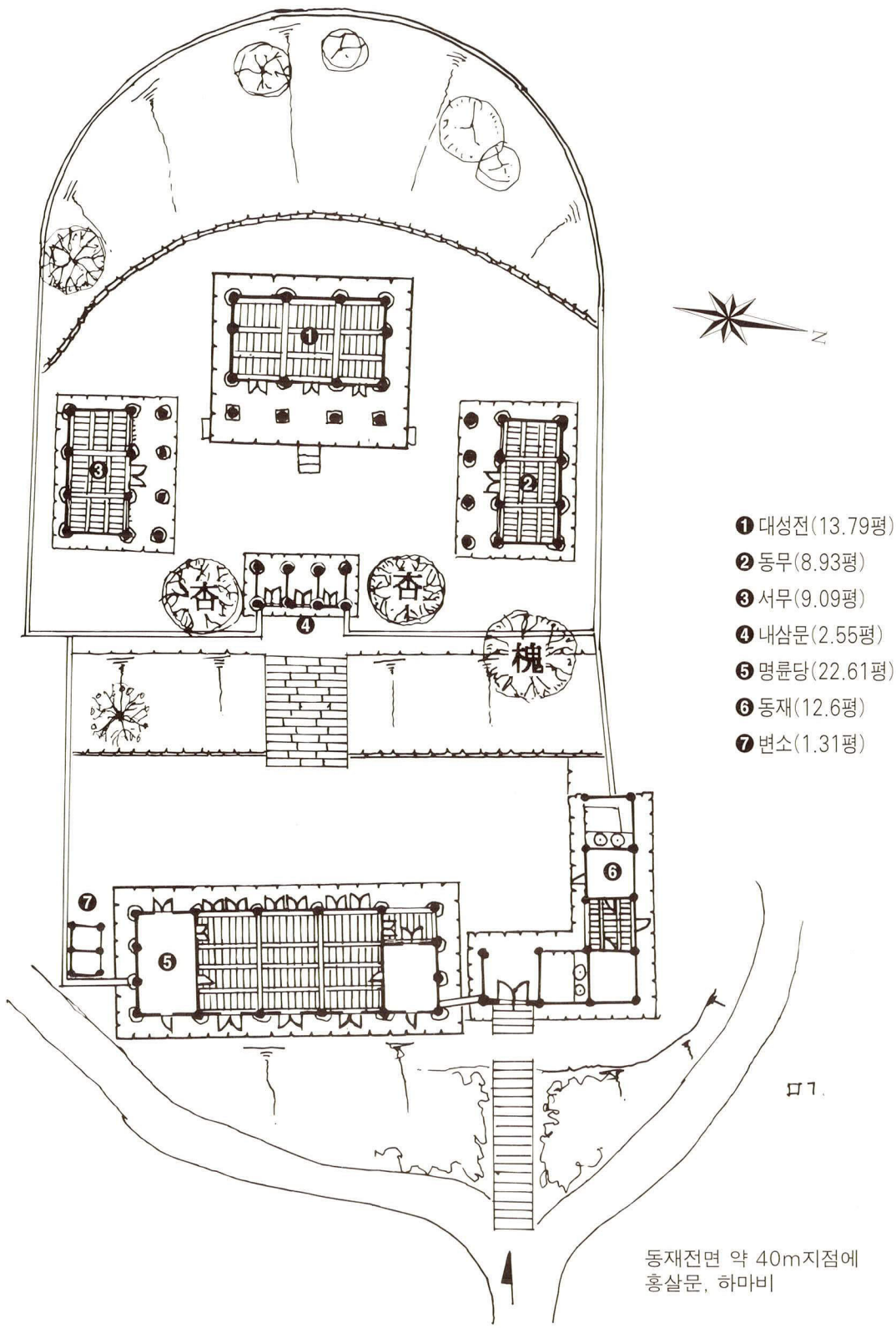
67. 天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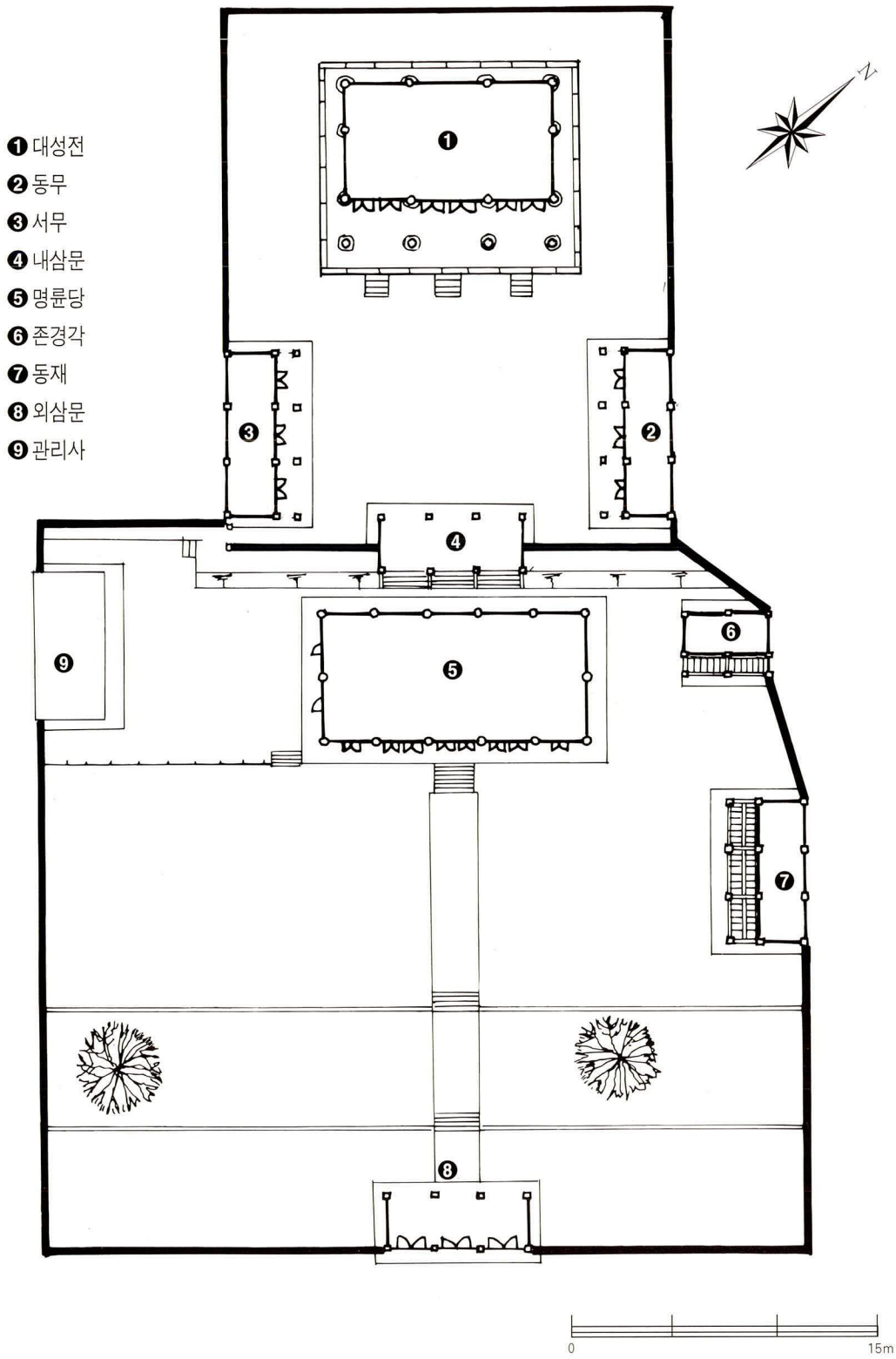
68. 稷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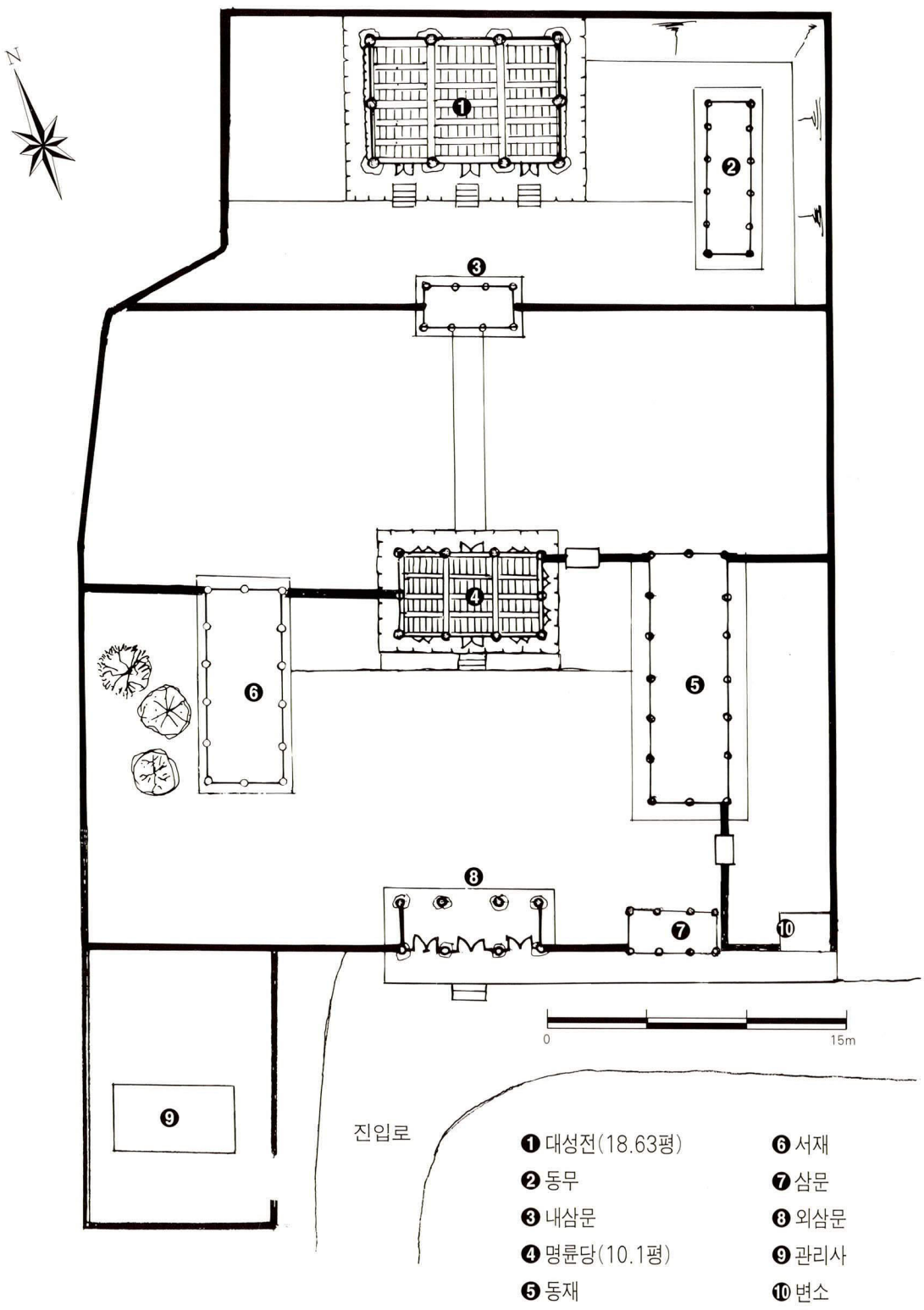
69. 木川鄕校 配置圖


N
杏
杏
槐
❶ 대성전(13.79평)
❷ 동무(8.93평)
❸ 서무(9.09평)
❹ 내삼문(2.55평)
❺ 명륜당(22.61평)
❻ 동재(12.6평)
❼ 변소(1.31평)
동재전면 약 40m지점에
홍살문,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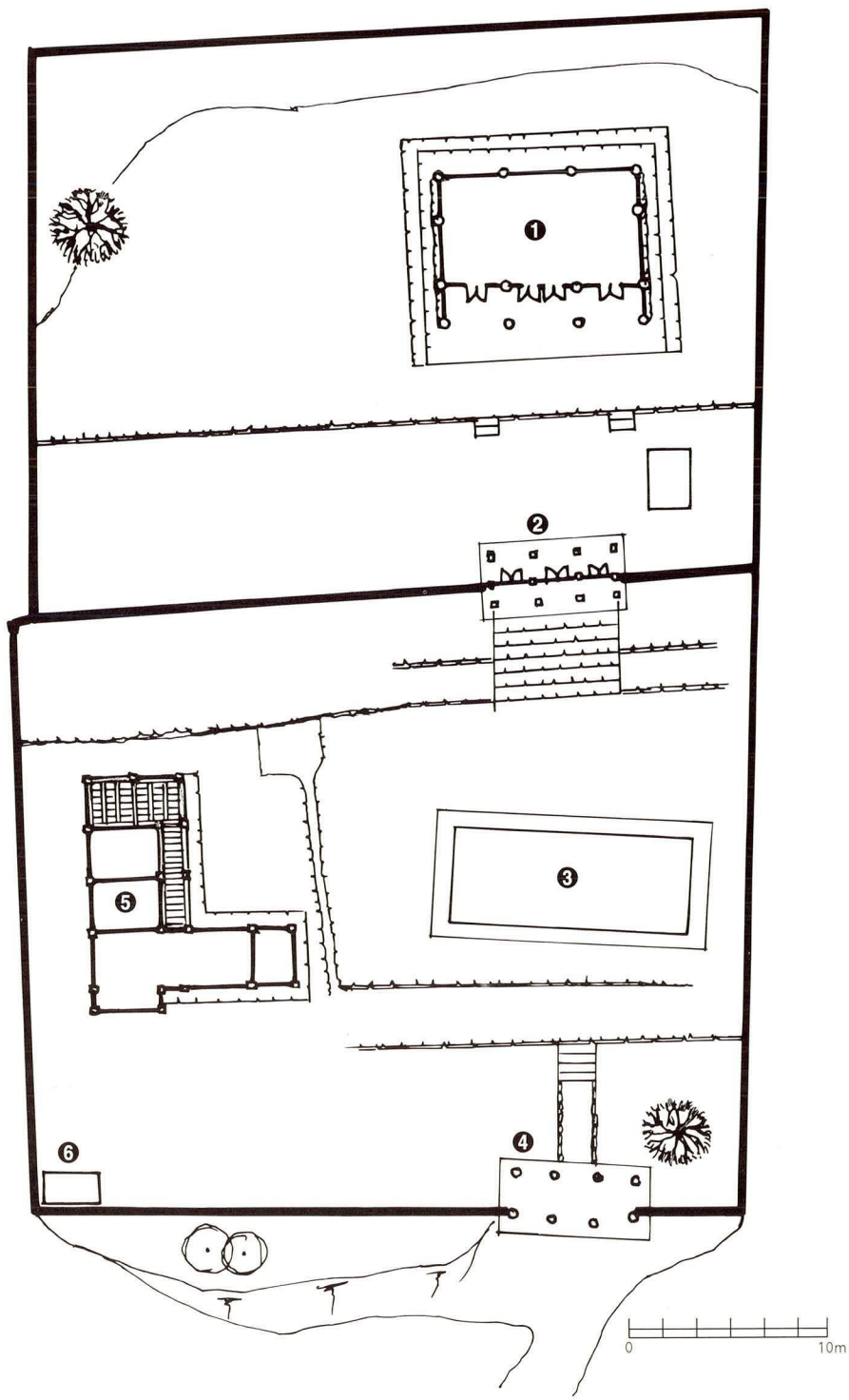
70. 公州鄕校 配置圖



71. 保寧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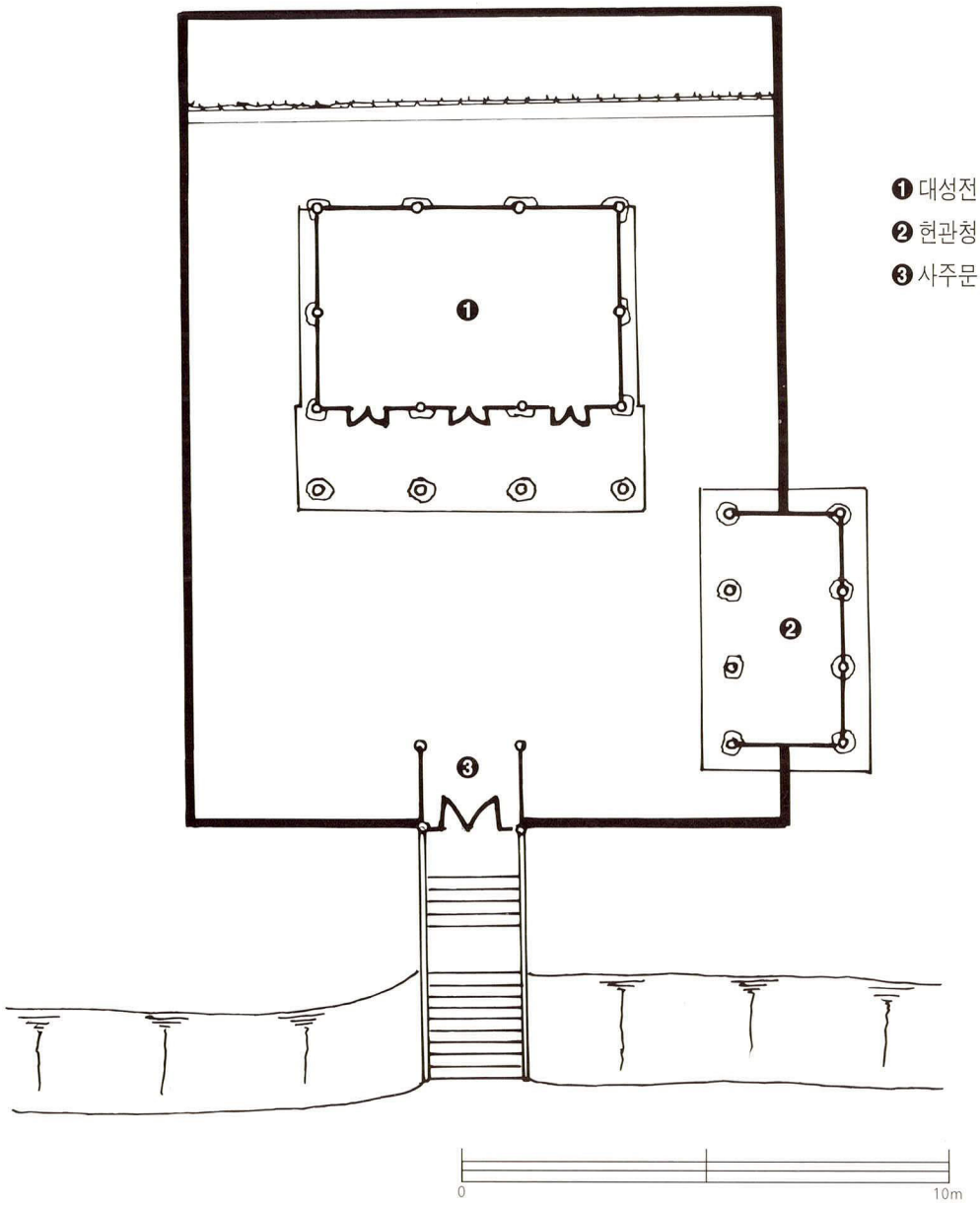

N
0
15m
진입로
❶ 대성전(18.63평)
❷ 동무
❸ 내삼문
❹ 명륜당(10.1평)
❺ 동재
❻ 서재
❼ 삼문
❽ 외삼문
❾ 관리사
❿ 변소

72. 藍浦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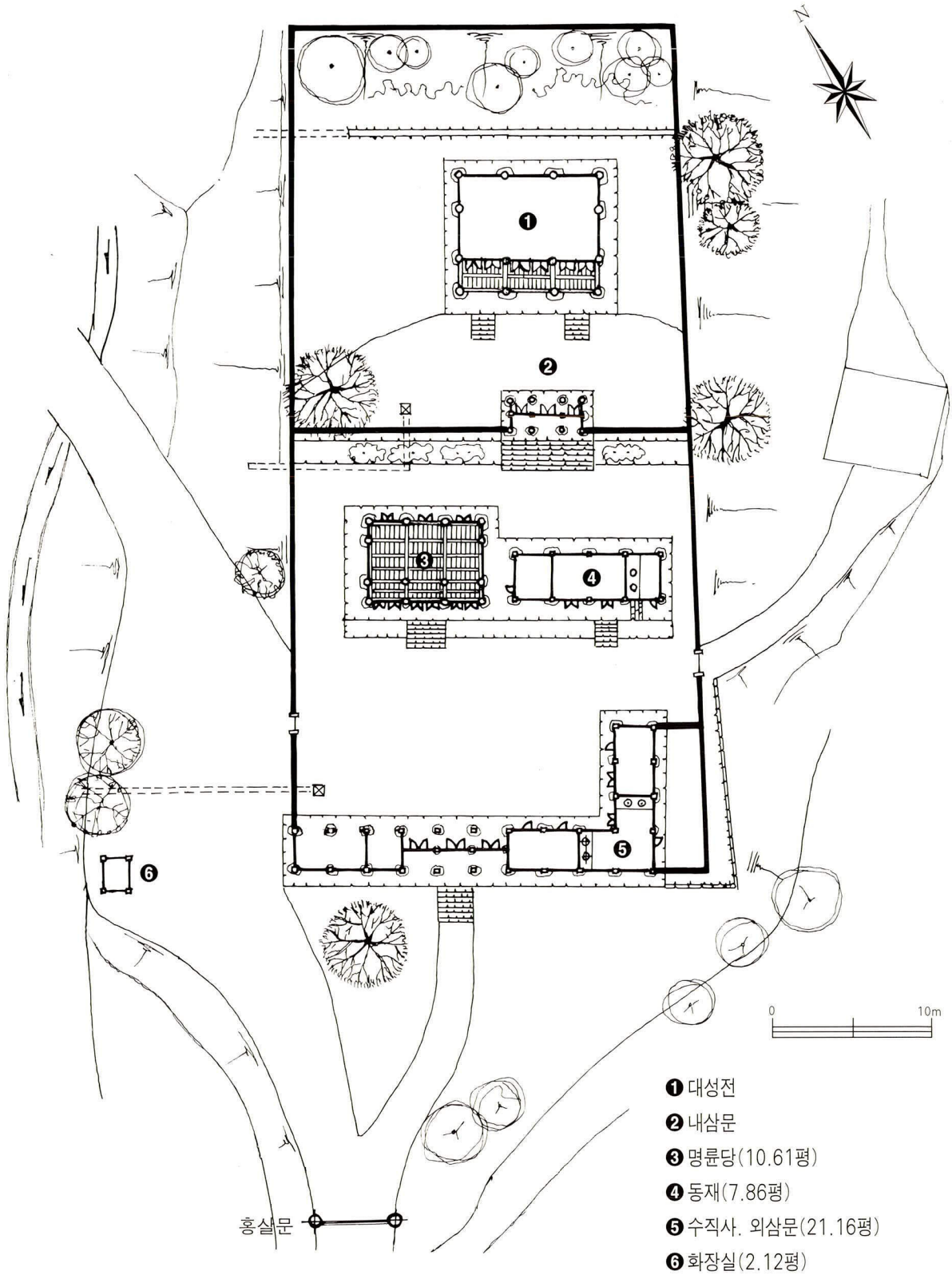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외삼문
❺ 고직사
❻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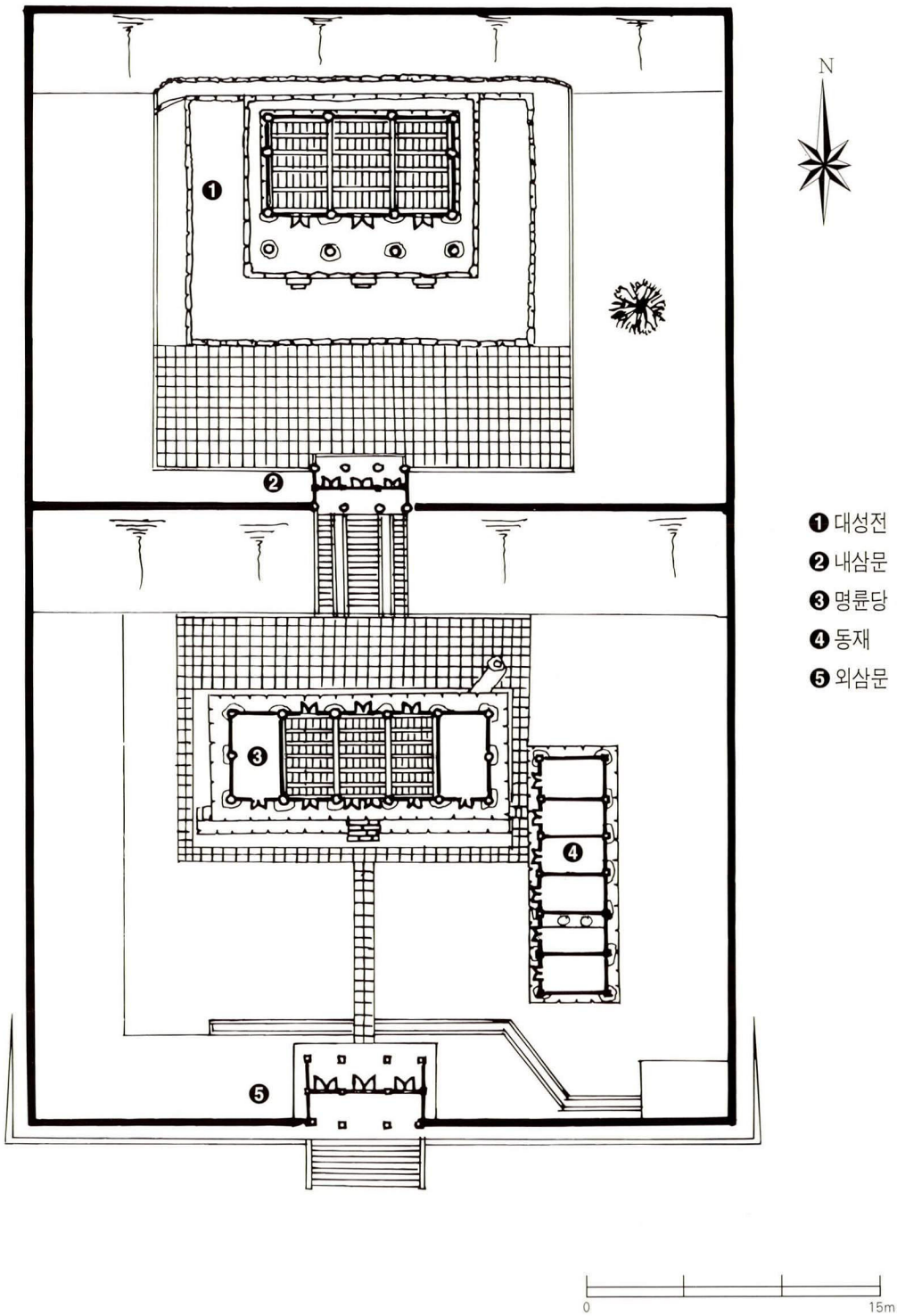
73. 鰲川鄕校 配置圖



74. 牙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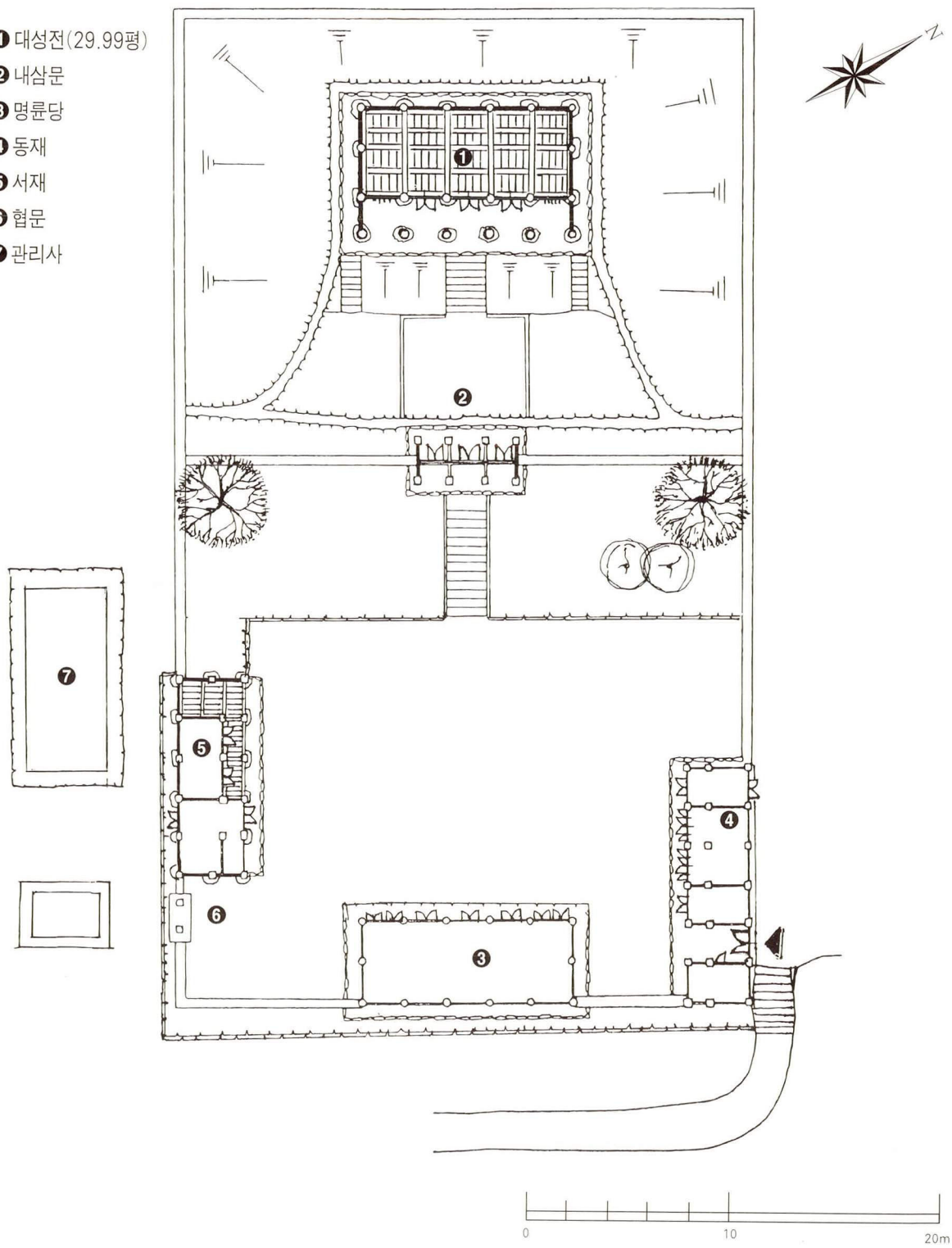

N
0
10m
홍살문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10.61평)
❹ 동재(7.86평)
❺ 수직사. 외삼문(21.16평)
❻ 화장실(2.12평)

75. 溫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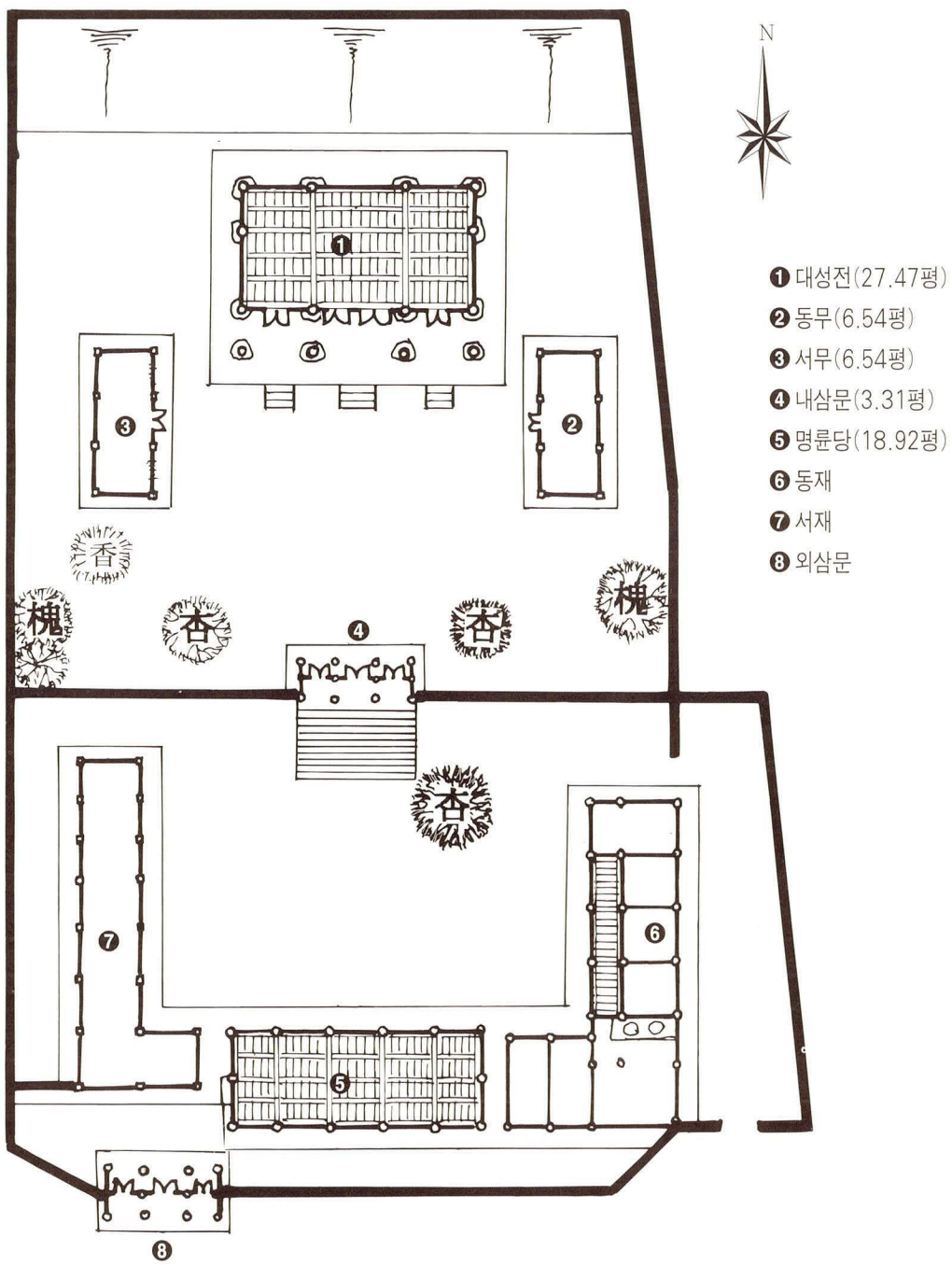


76. 新昌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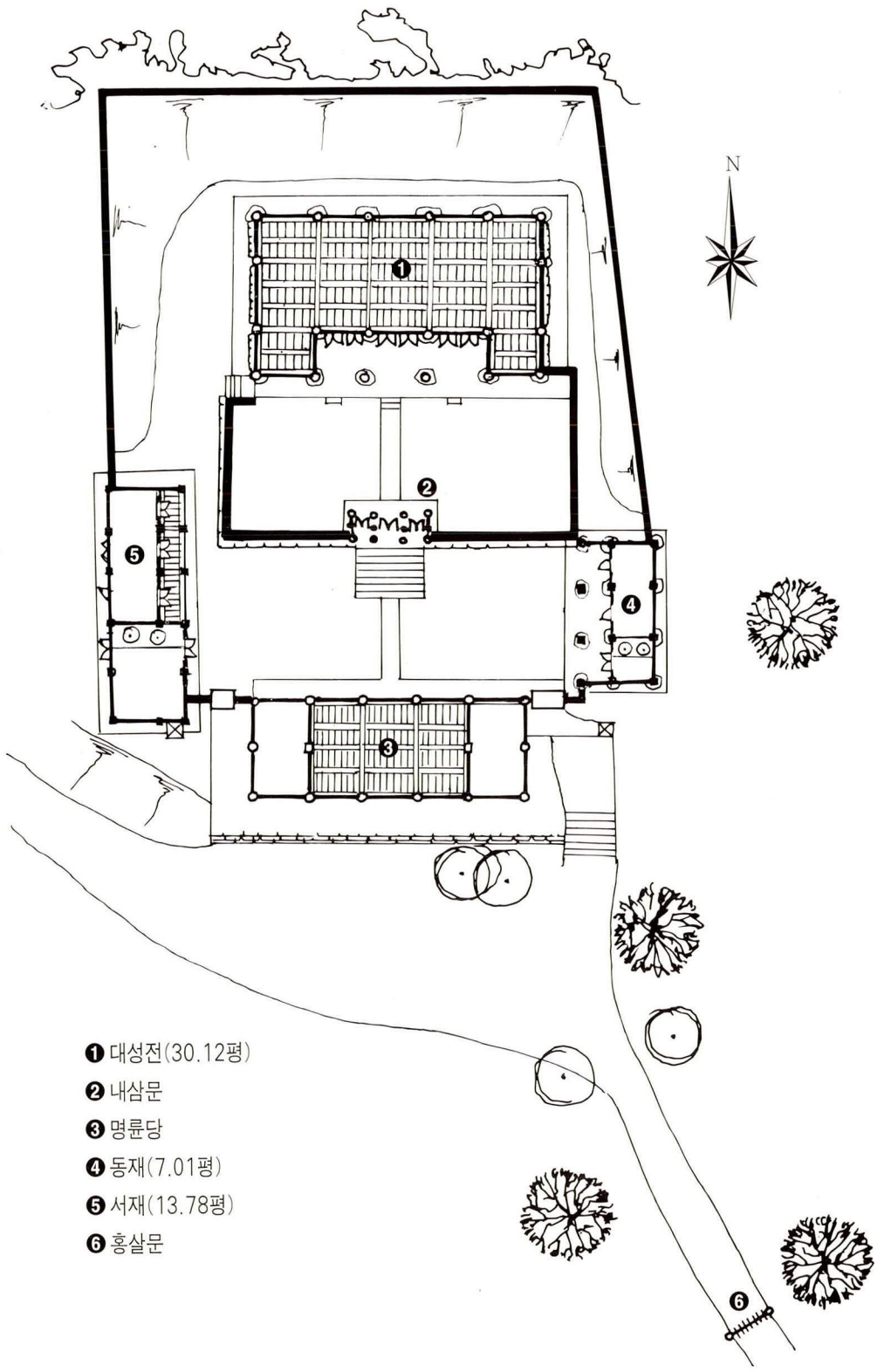
❶ 대성전(29.99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
❺ 서재
❻ 협문
❼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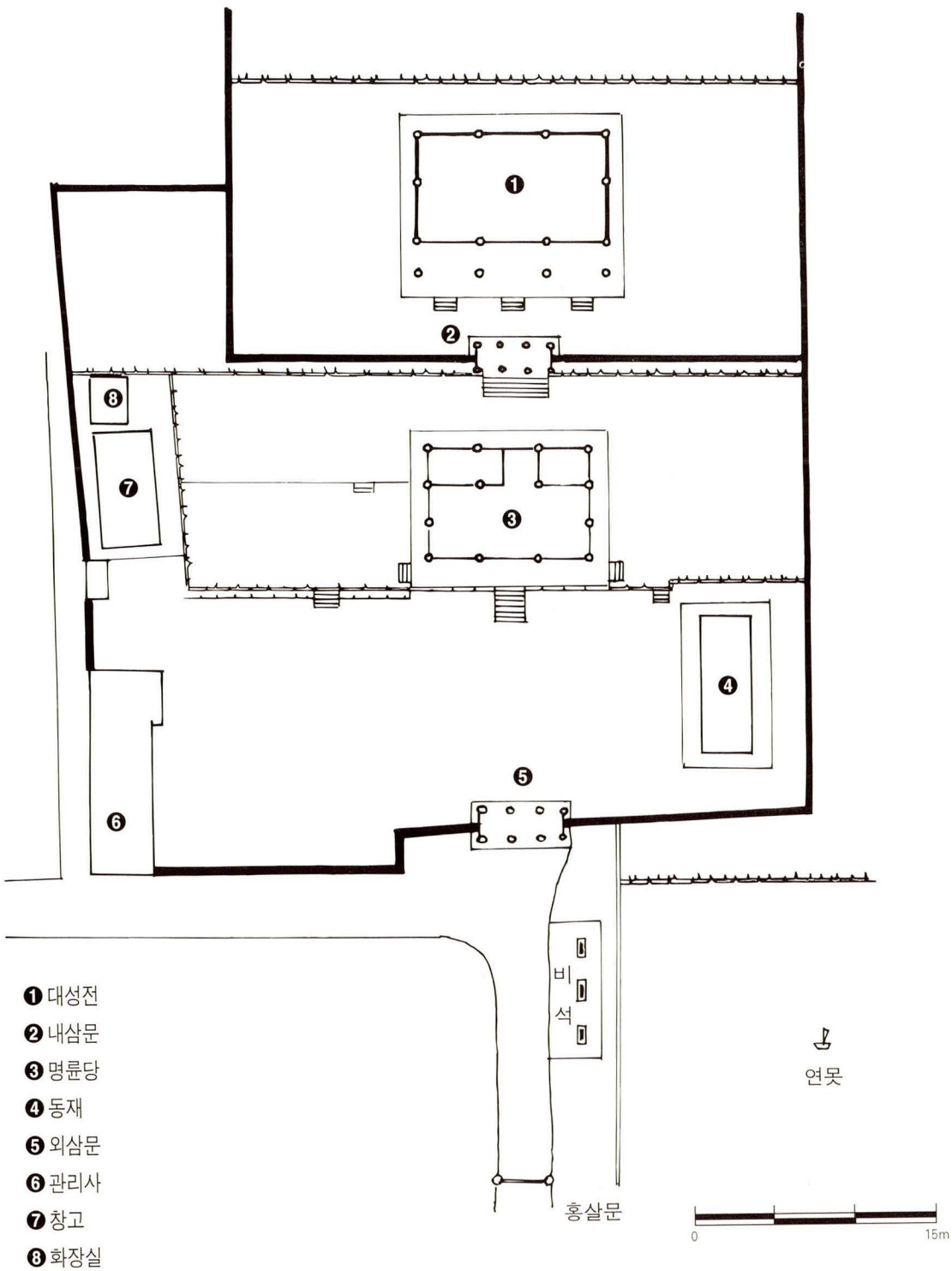
77. 瑞山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7.47평)
❷ 동무(6.54평)
❸ 서무(6.54평)
❹ 내삼문(3.31평)
❺ 명륜당(18.92평)
❻ 동재
❼ 서재
❽ 외삼문
香
槐
杏
杏
槐
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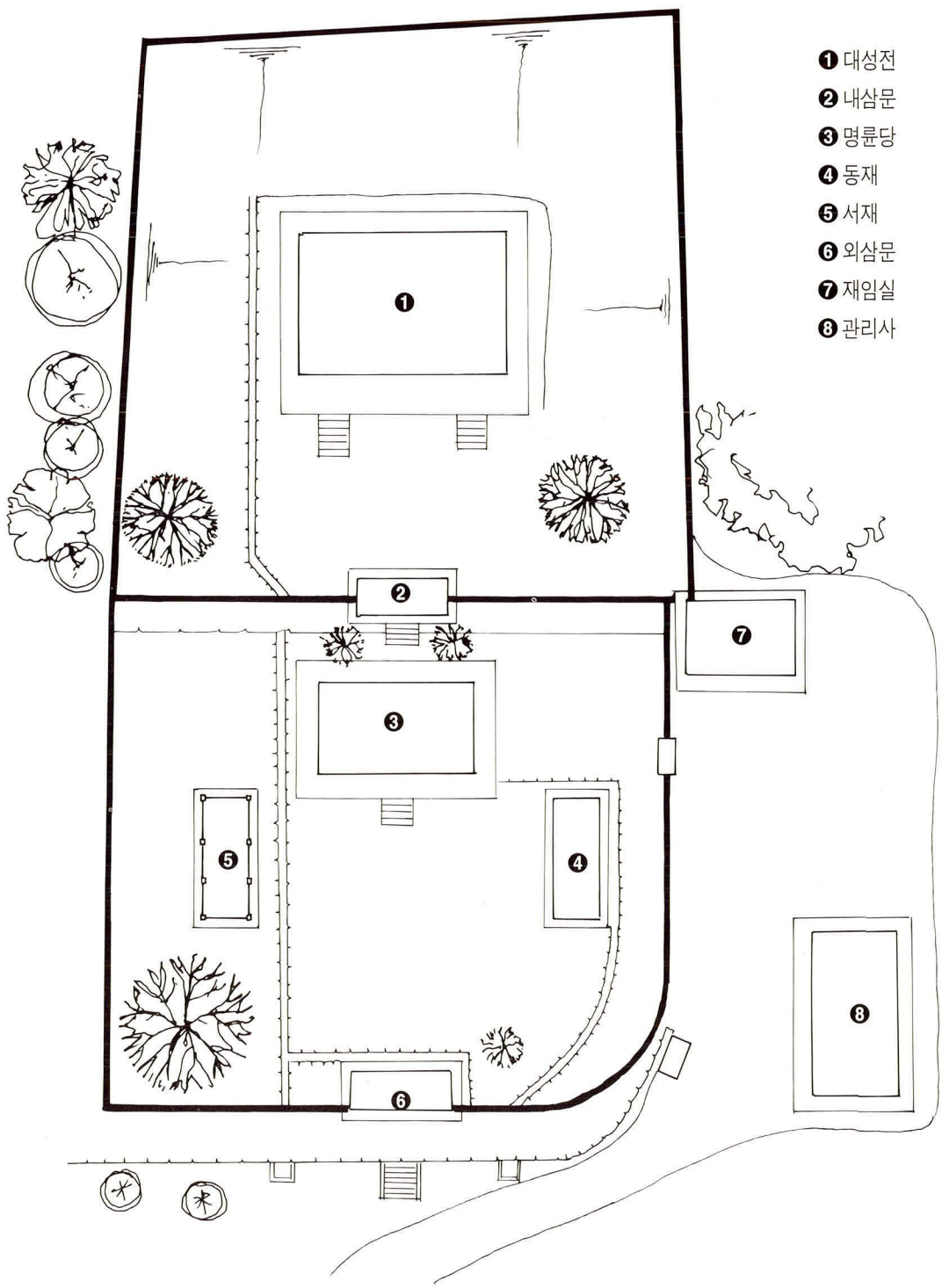
78. 海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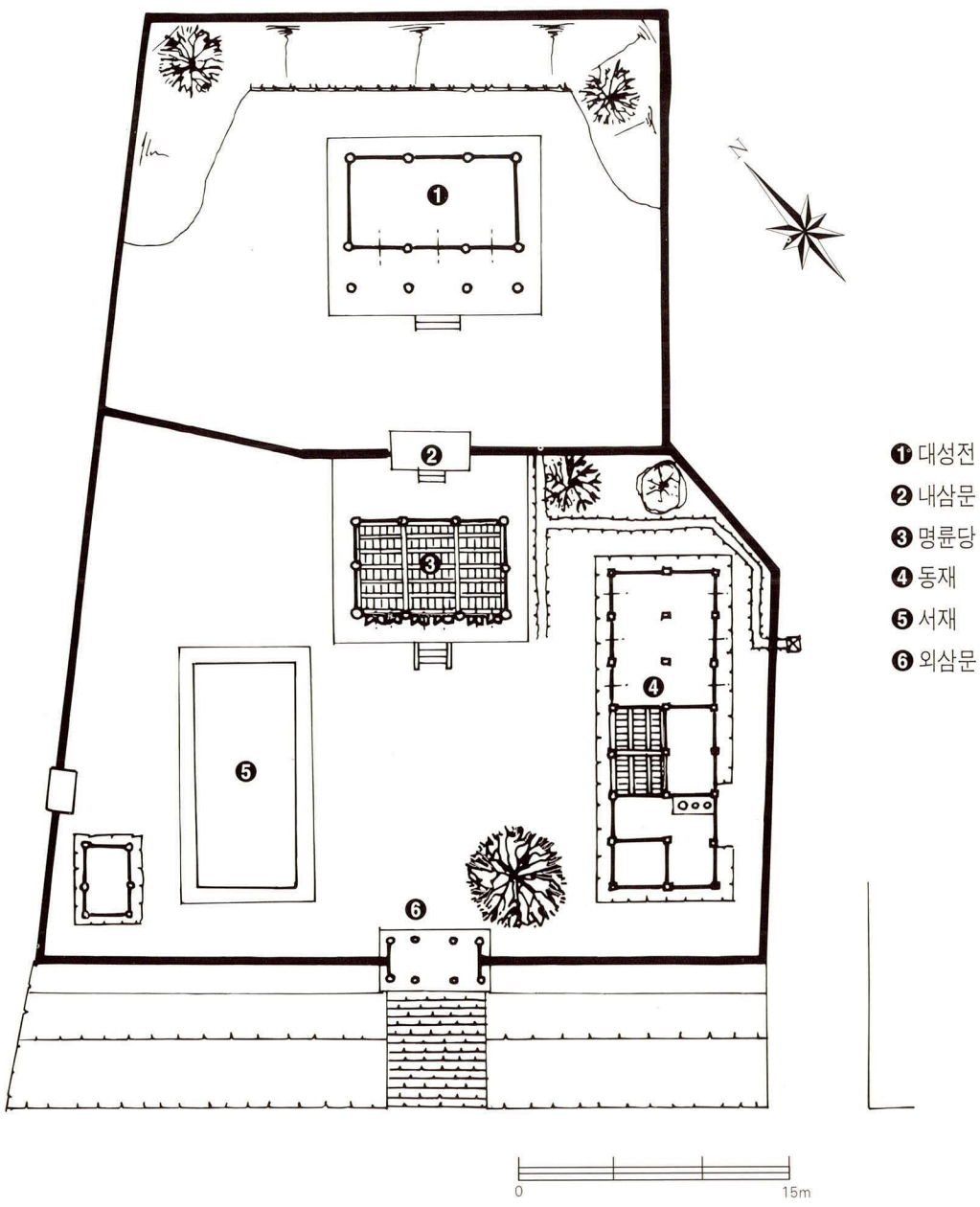
79. 魯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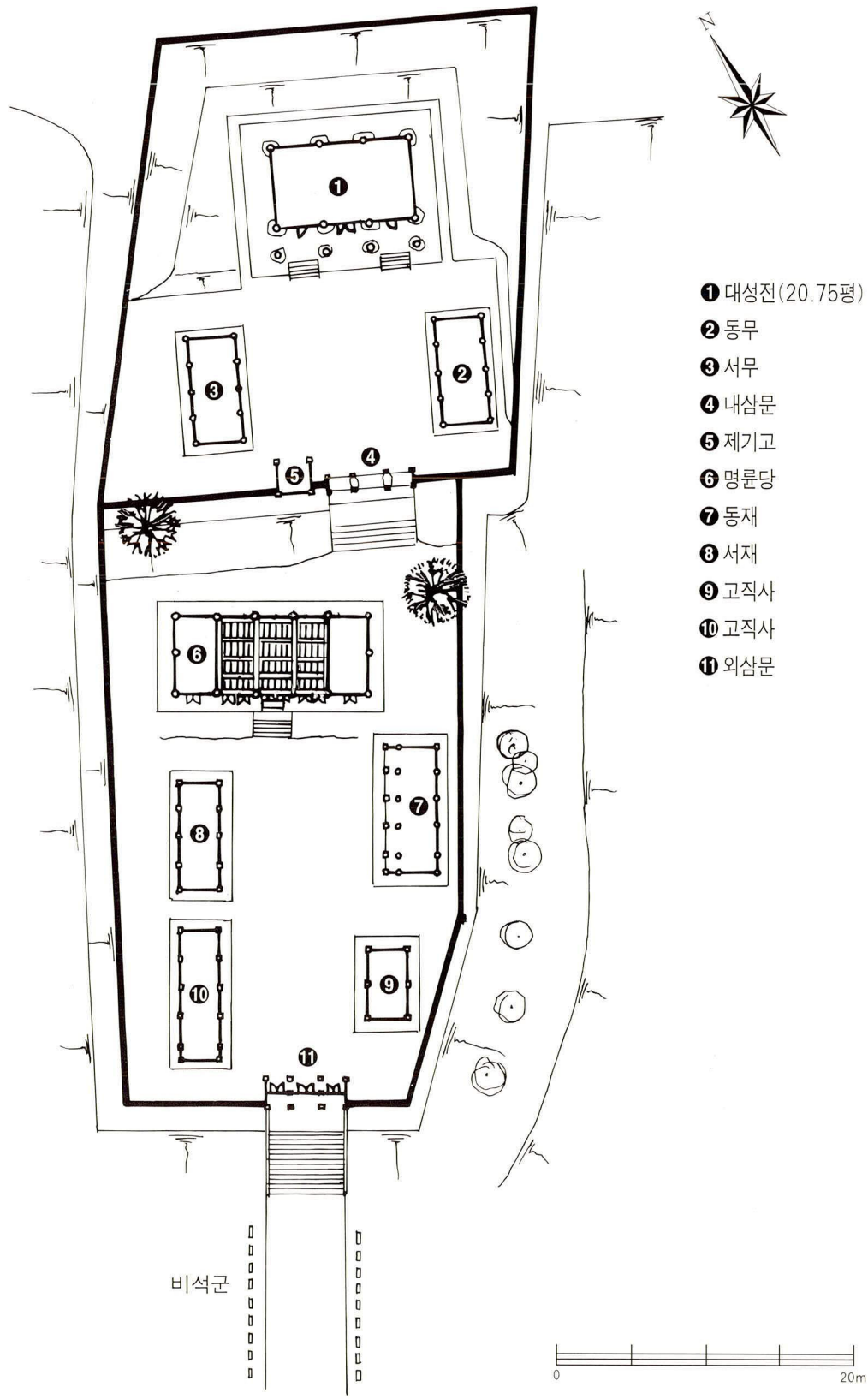
80. 連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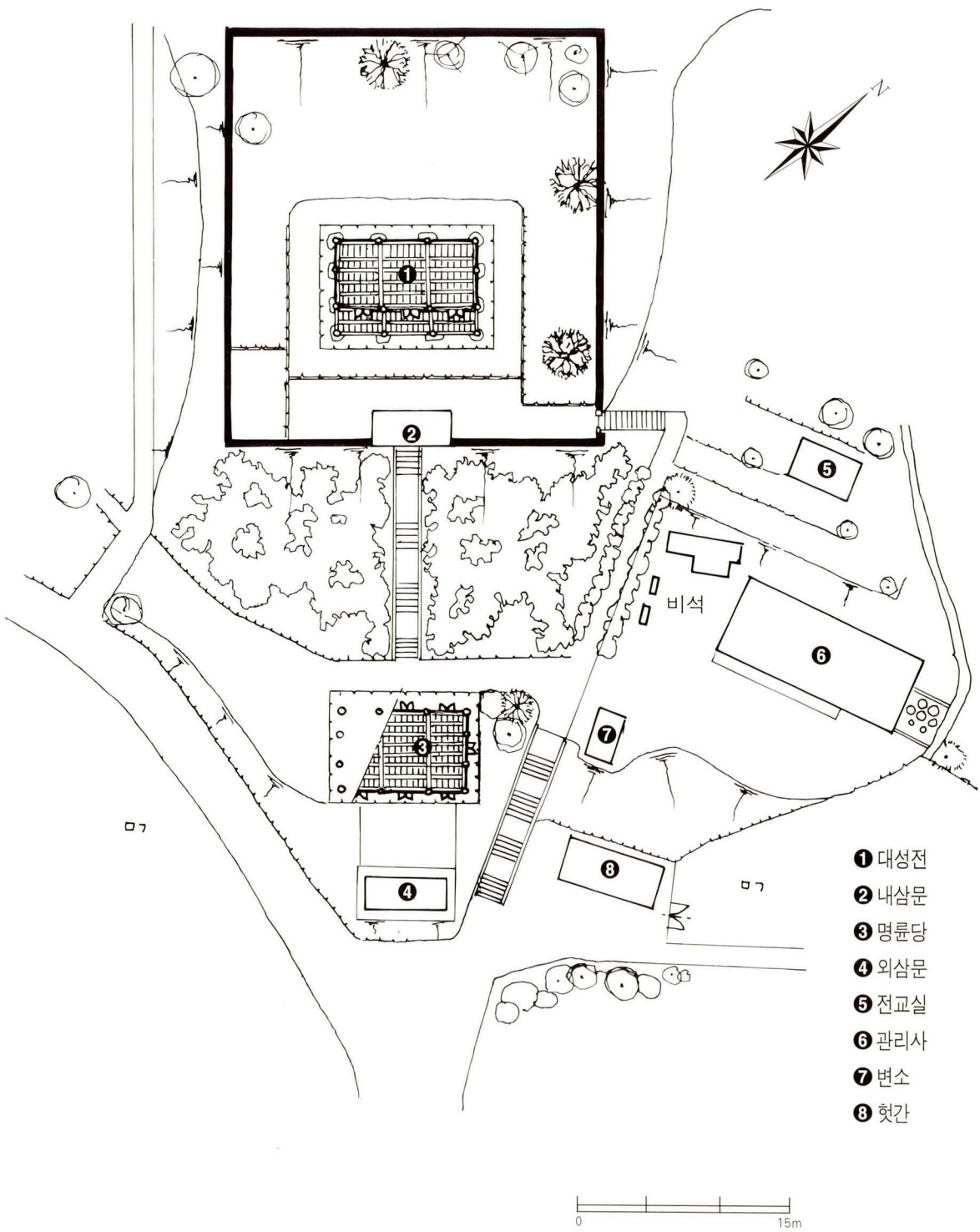
81. 恩津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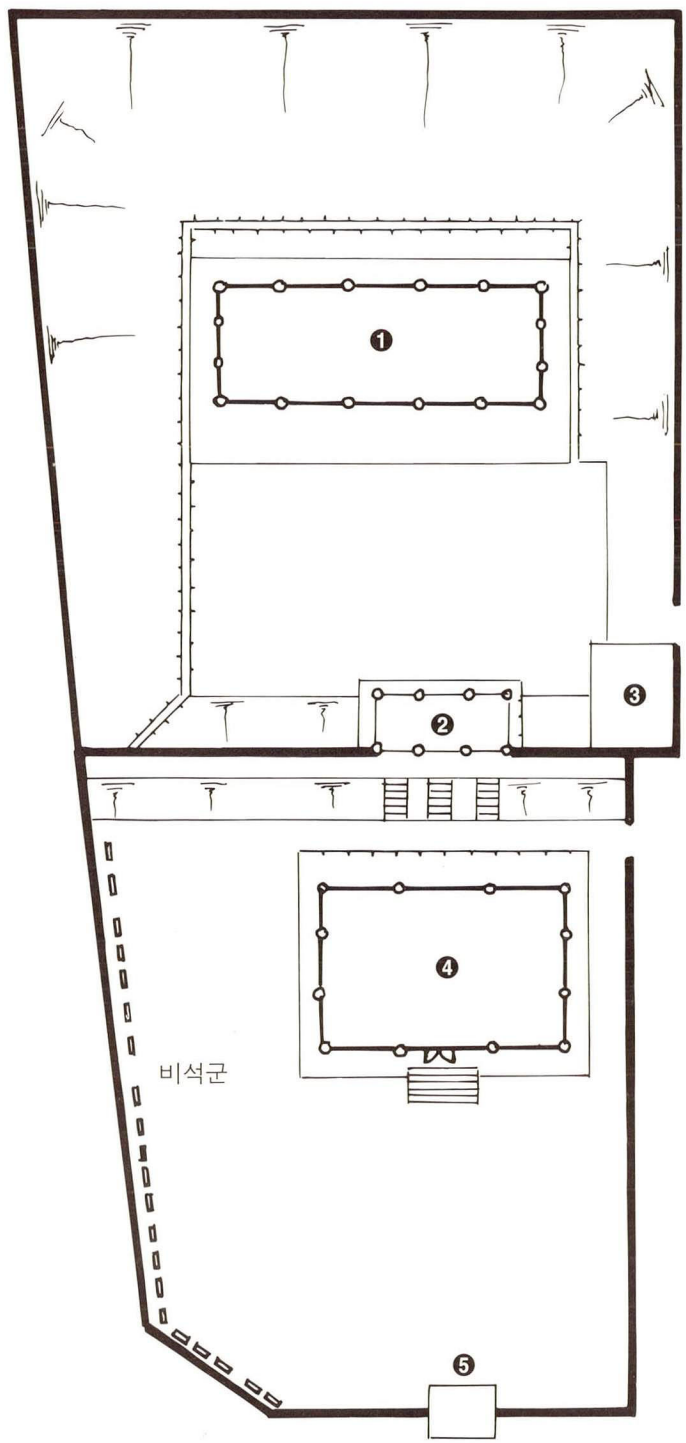
82. 錦山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0.75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제기고
❻ 명륜당
❼ 동재
❽ 서재
❾ 고직사
❿ 고직사
⓫ 외삼문
비석군
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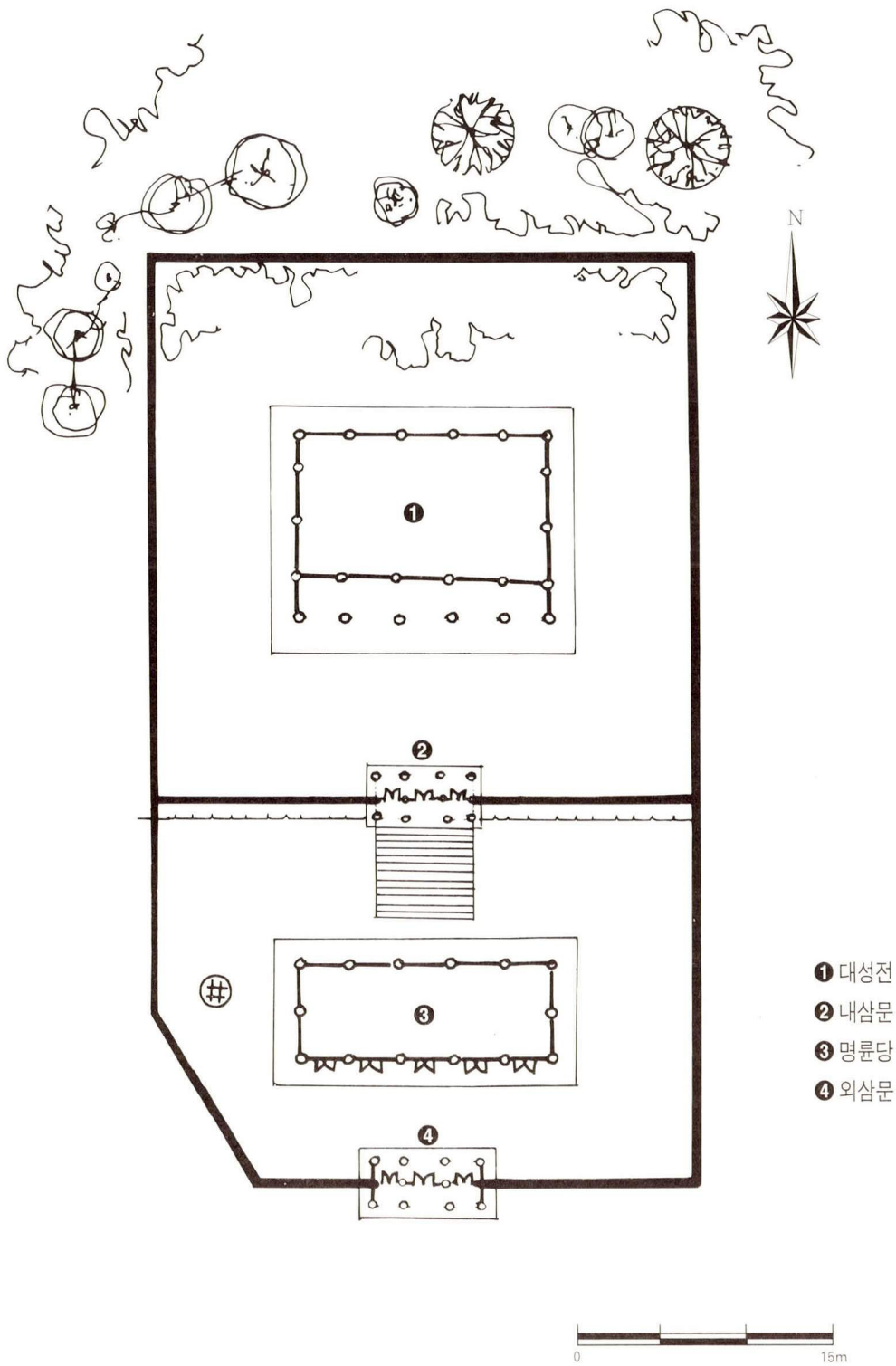
83. 珍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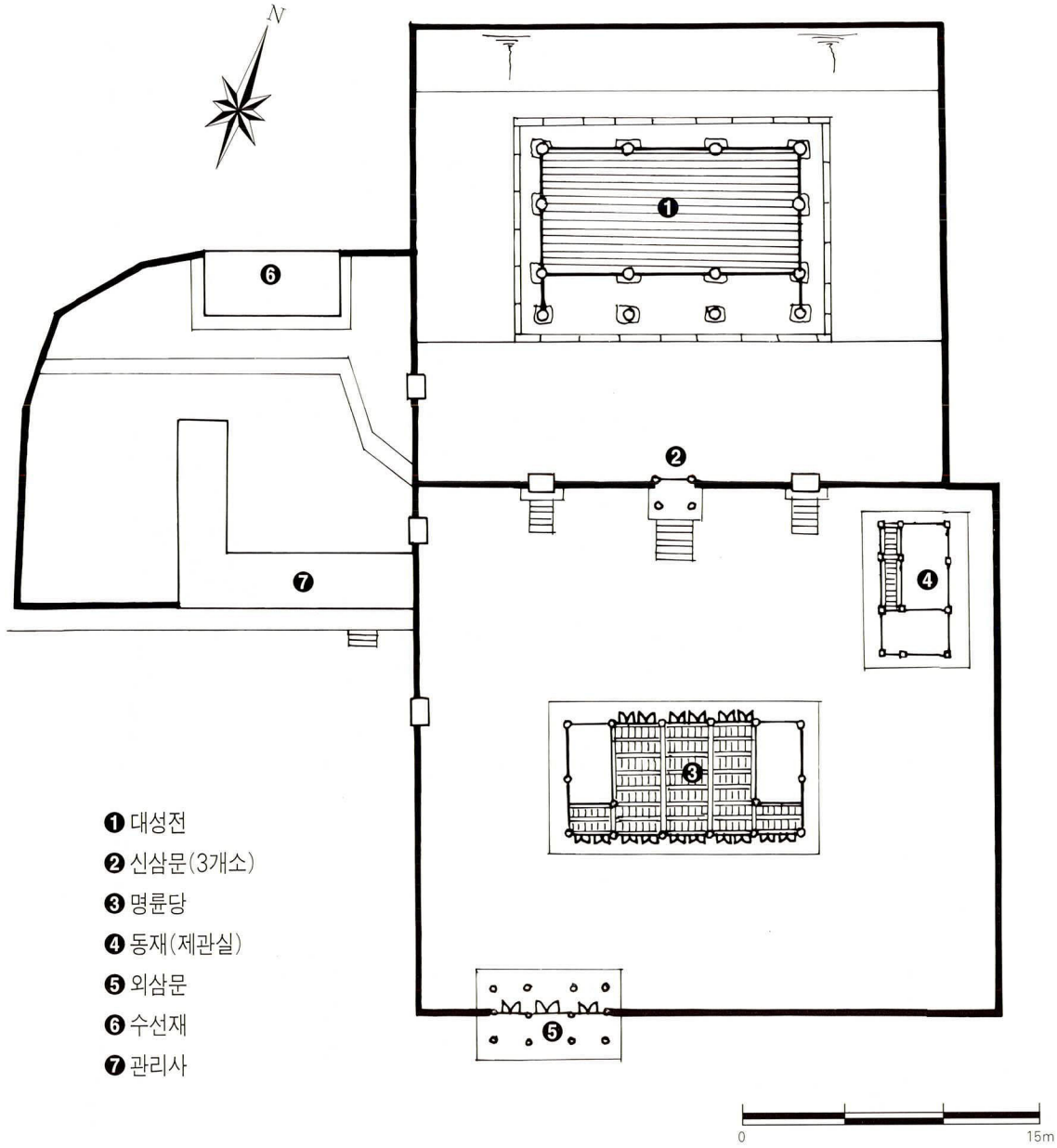
84. 燕岐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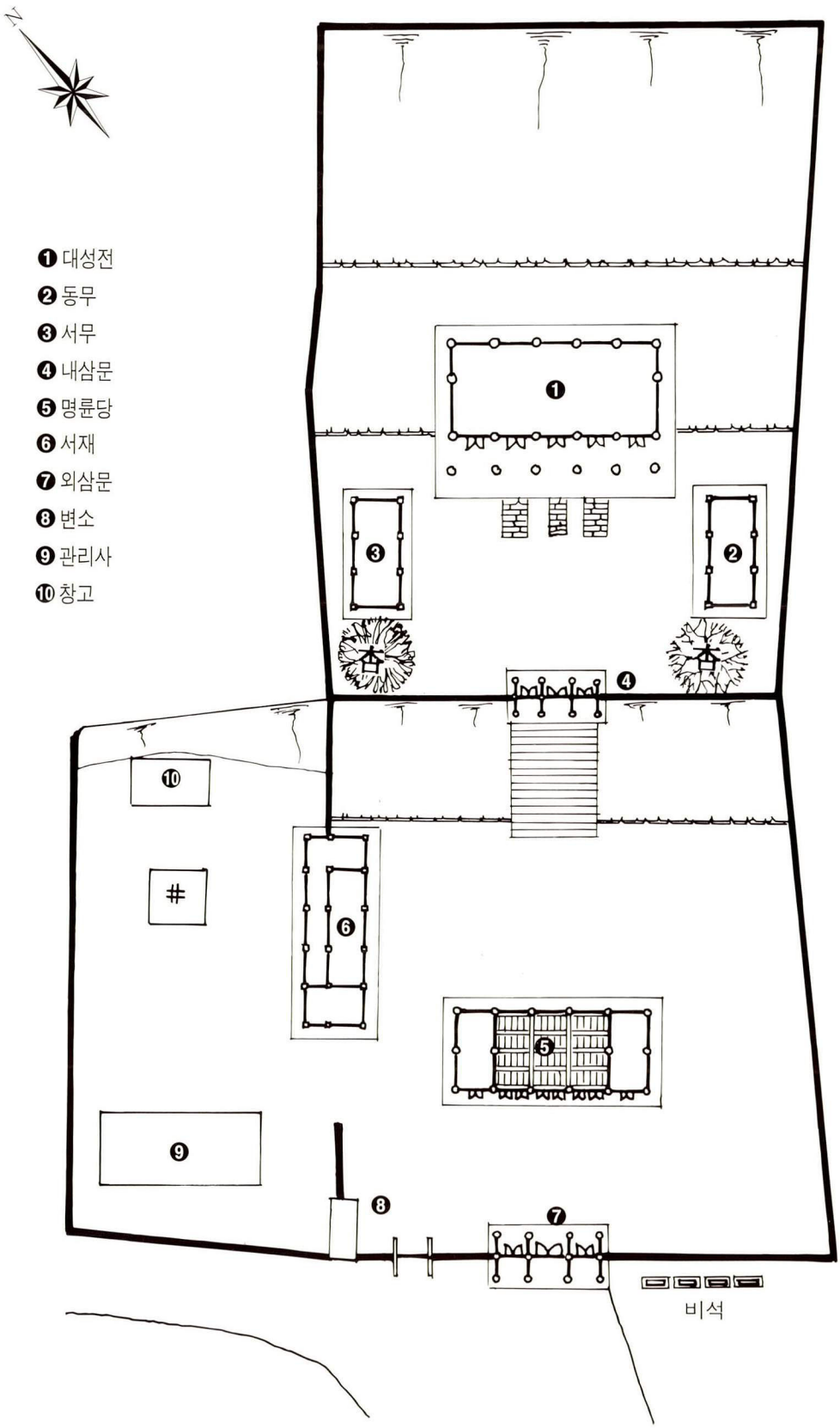
85. 全義鄕校 配置圖



86. 扶餘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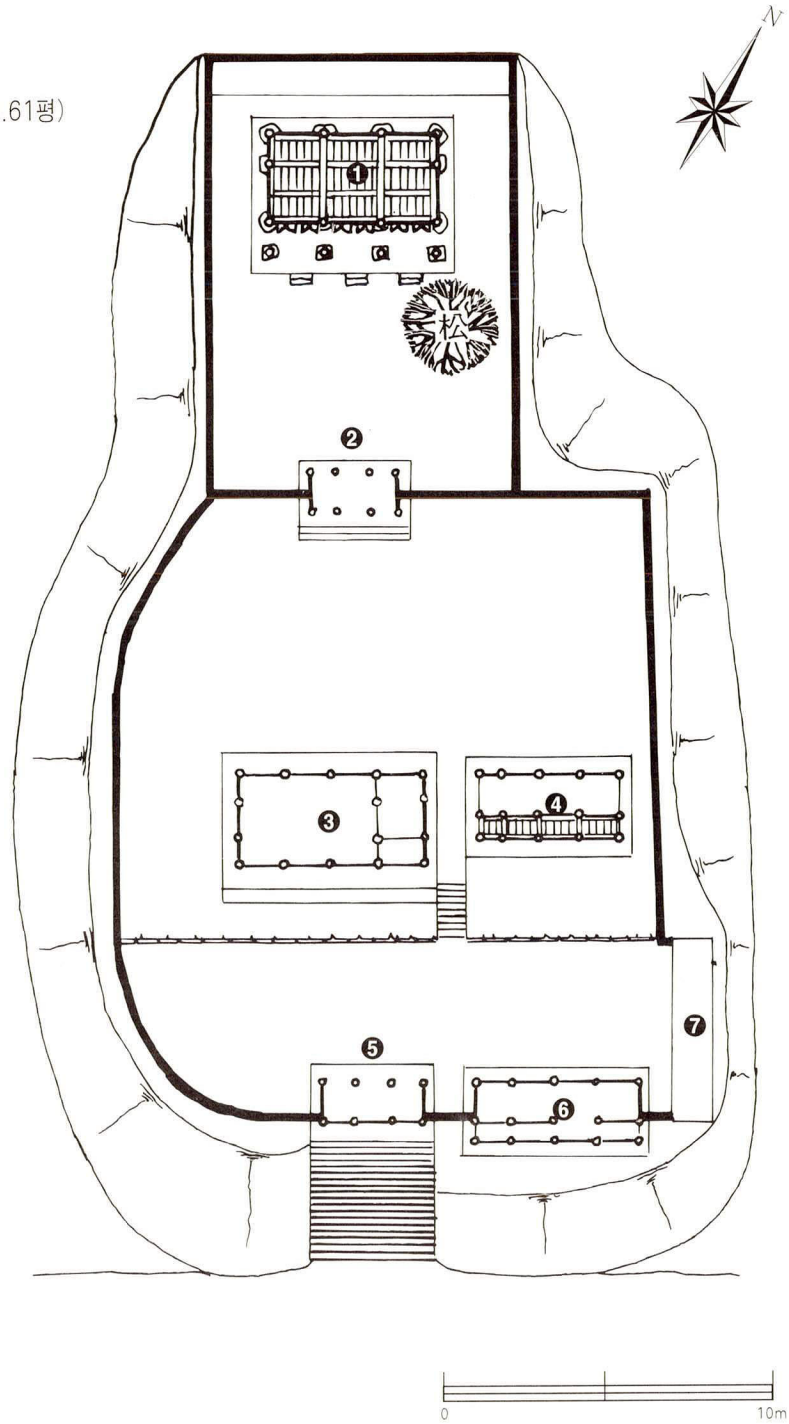


87. 林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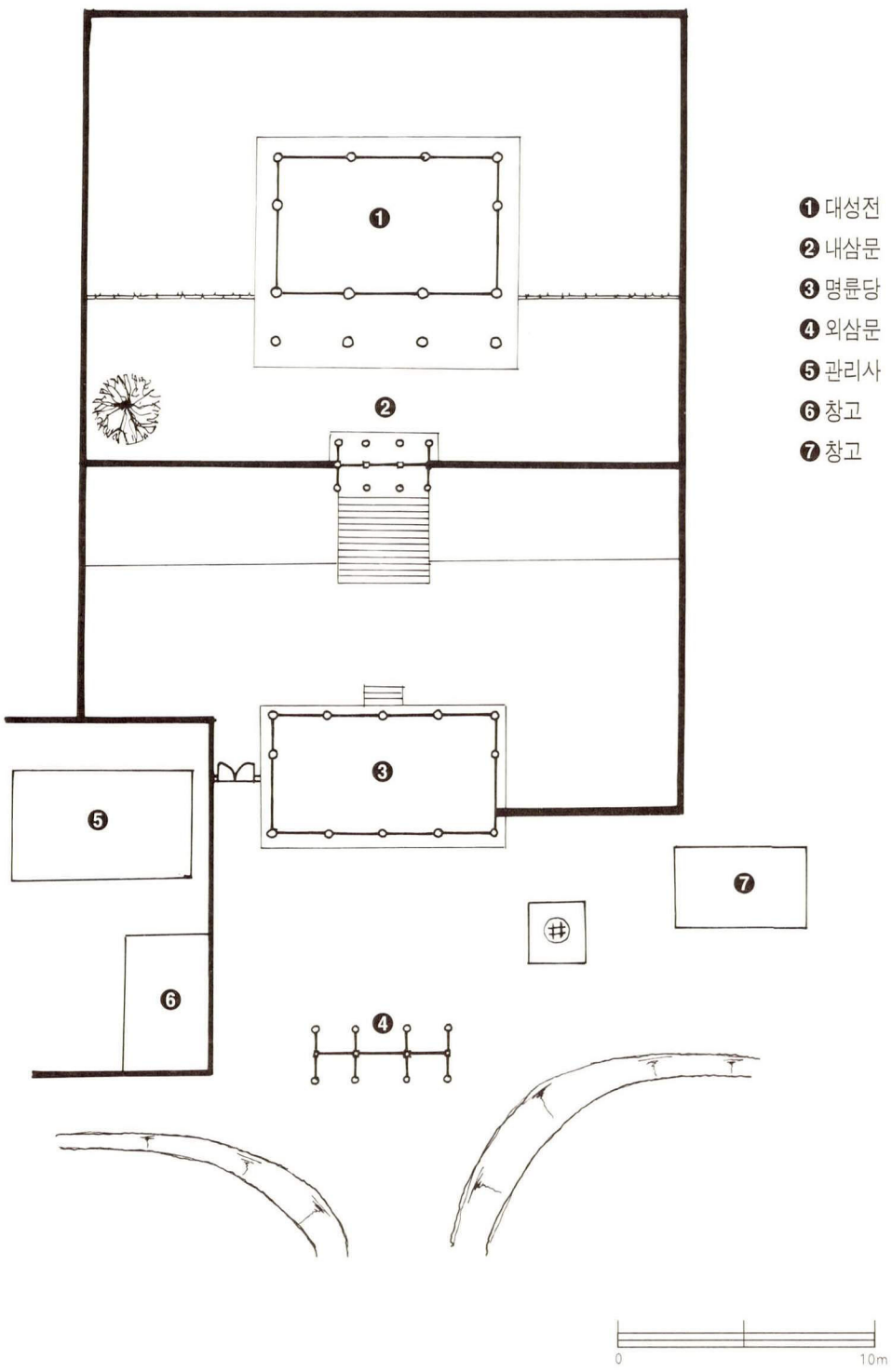


88. 石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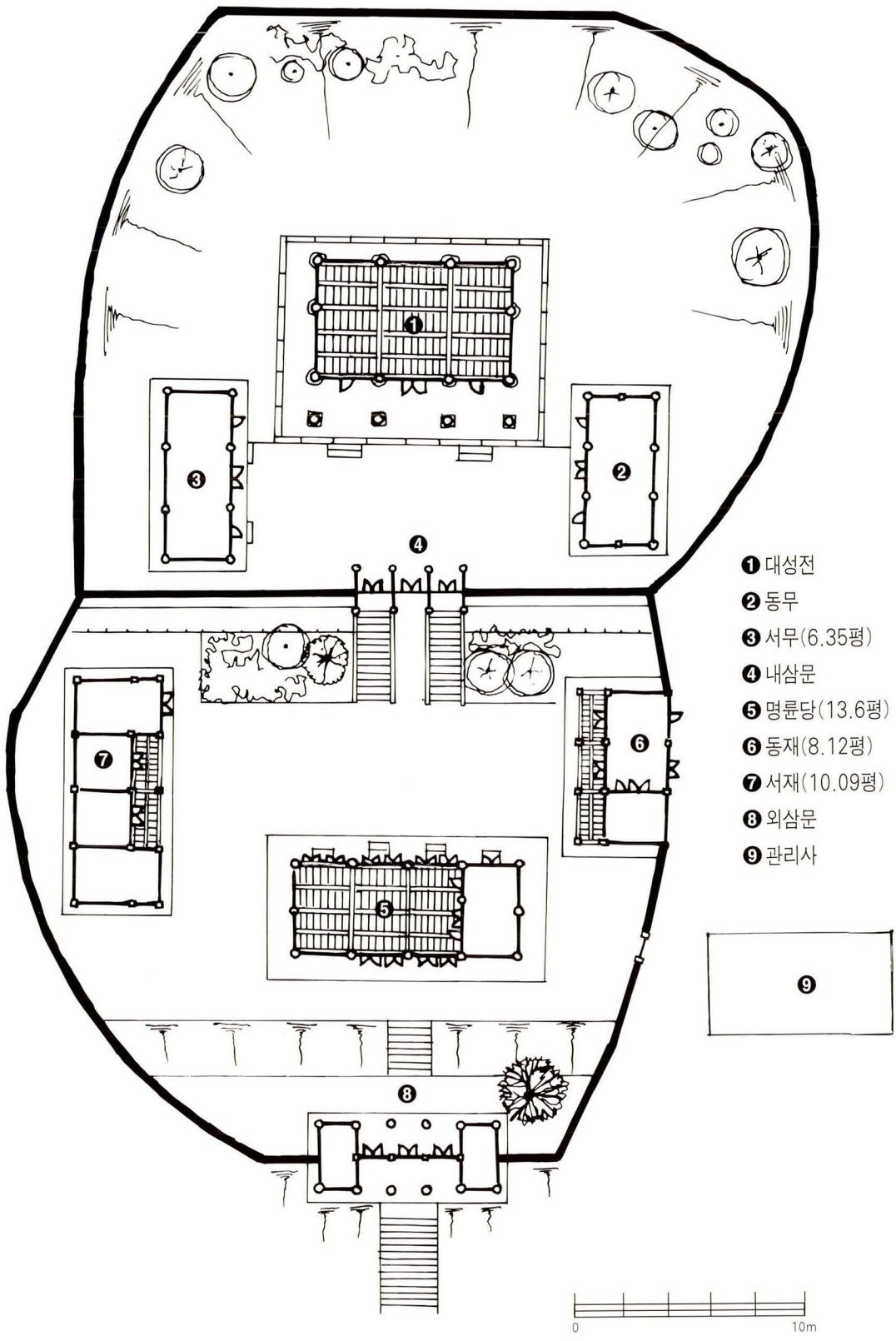
❶ 대성전(23.61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재실
❺ 내삼문
❻ 고직사
❼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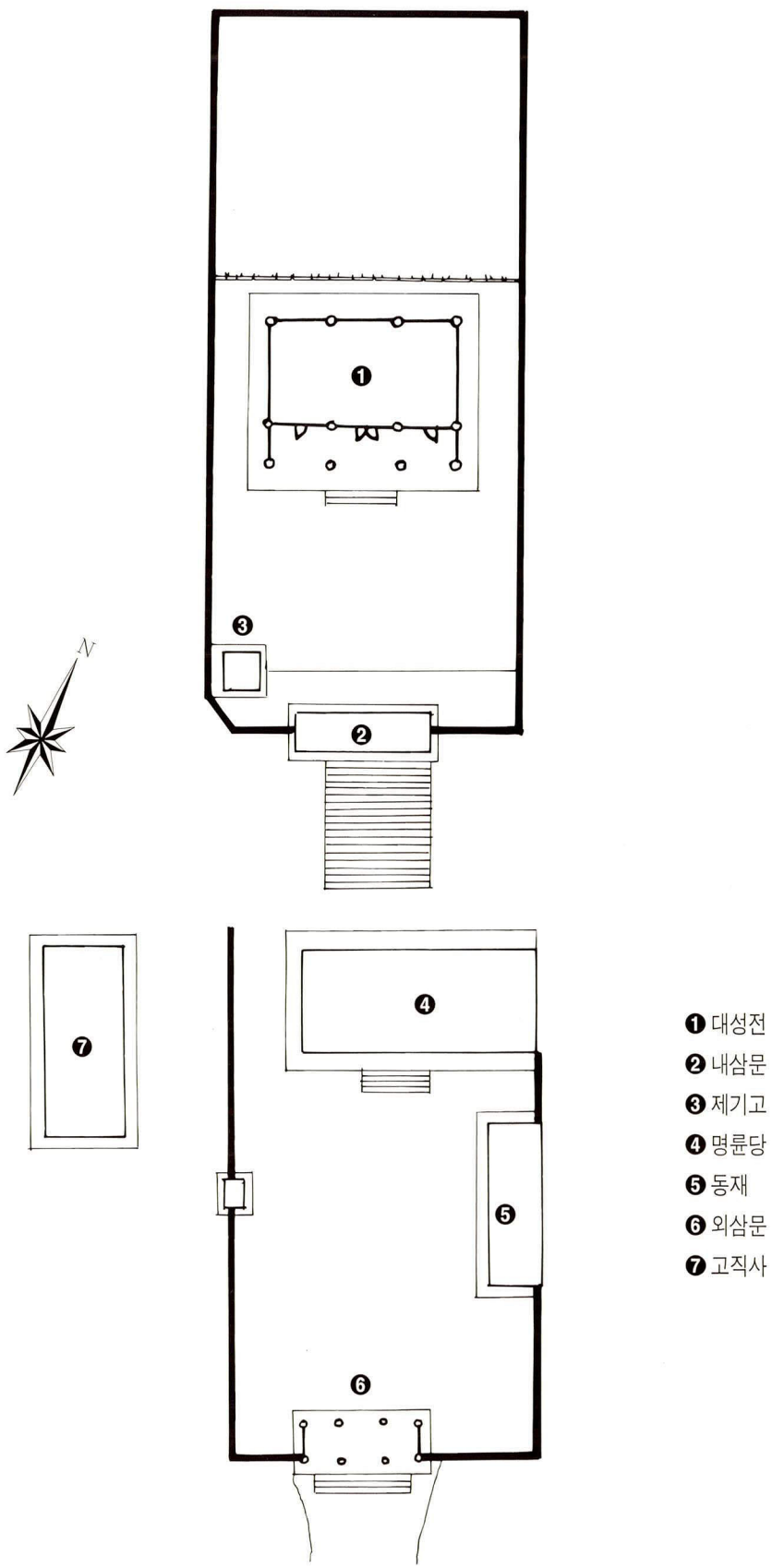
89. 鴻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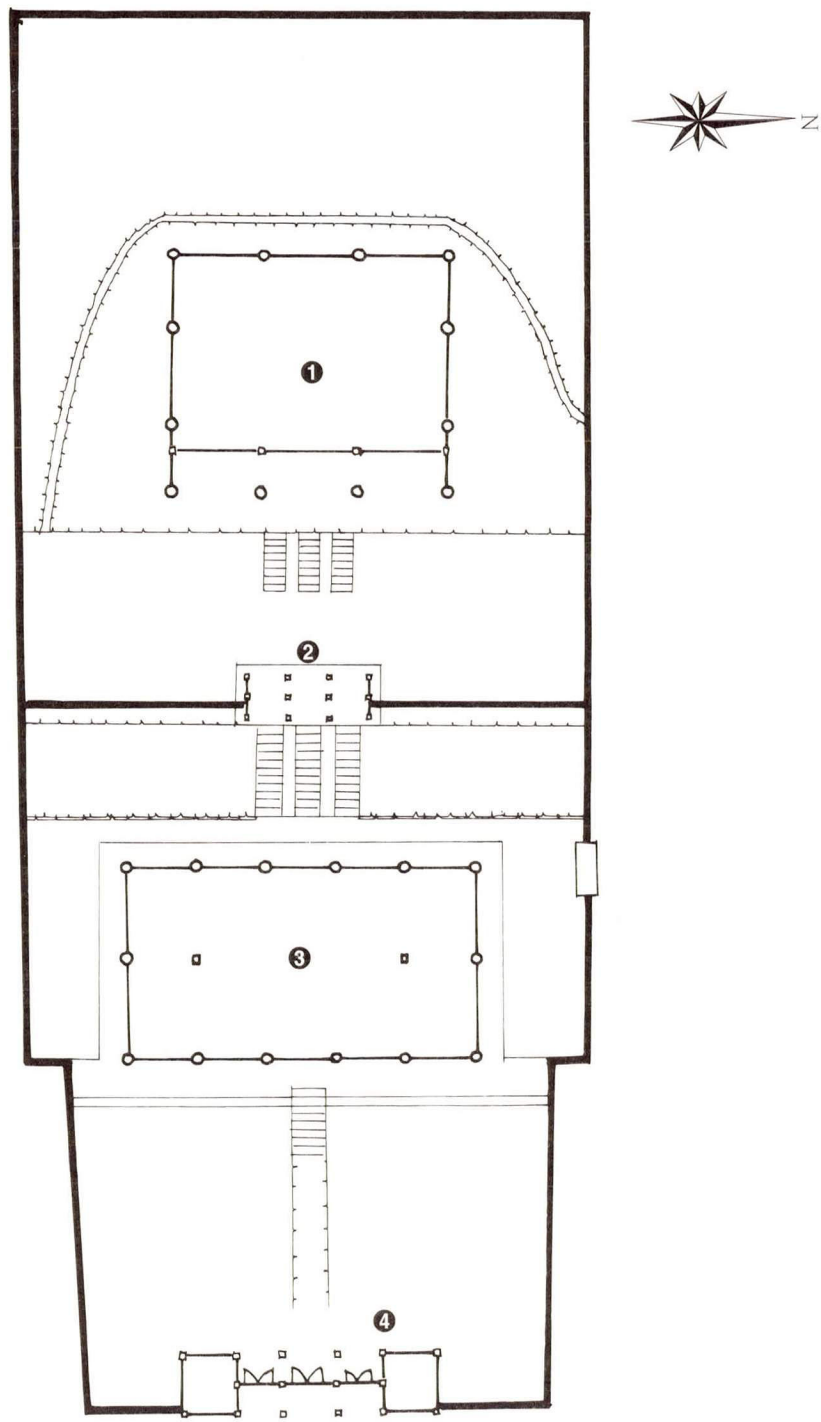
90. 舒川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서무(6.35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13.6평)
❻ 동재(8.12평)
❼ 서재(10.09평)
❽ 외삼문
❾ 관리사
0
10m

91. 韓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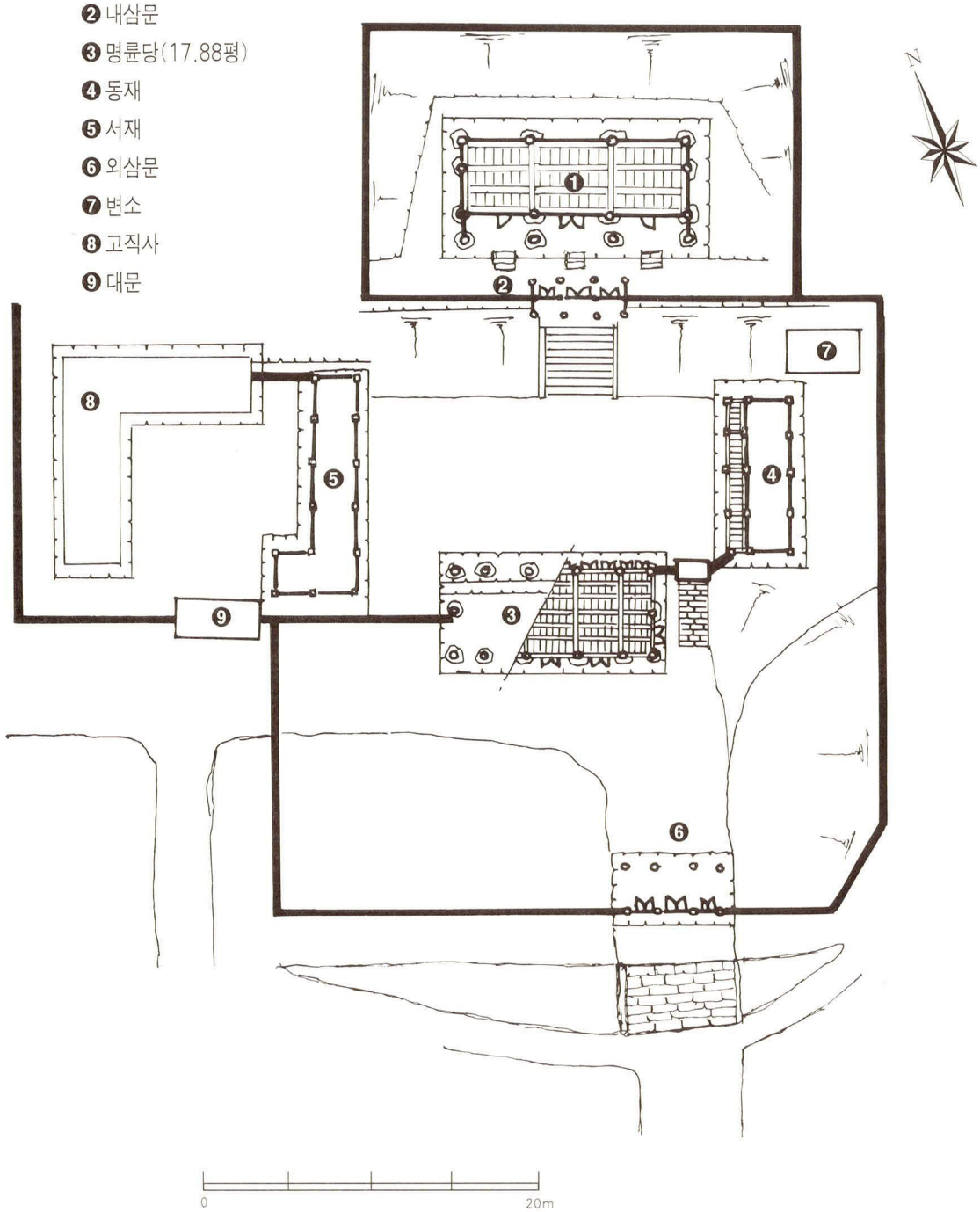
92. 庇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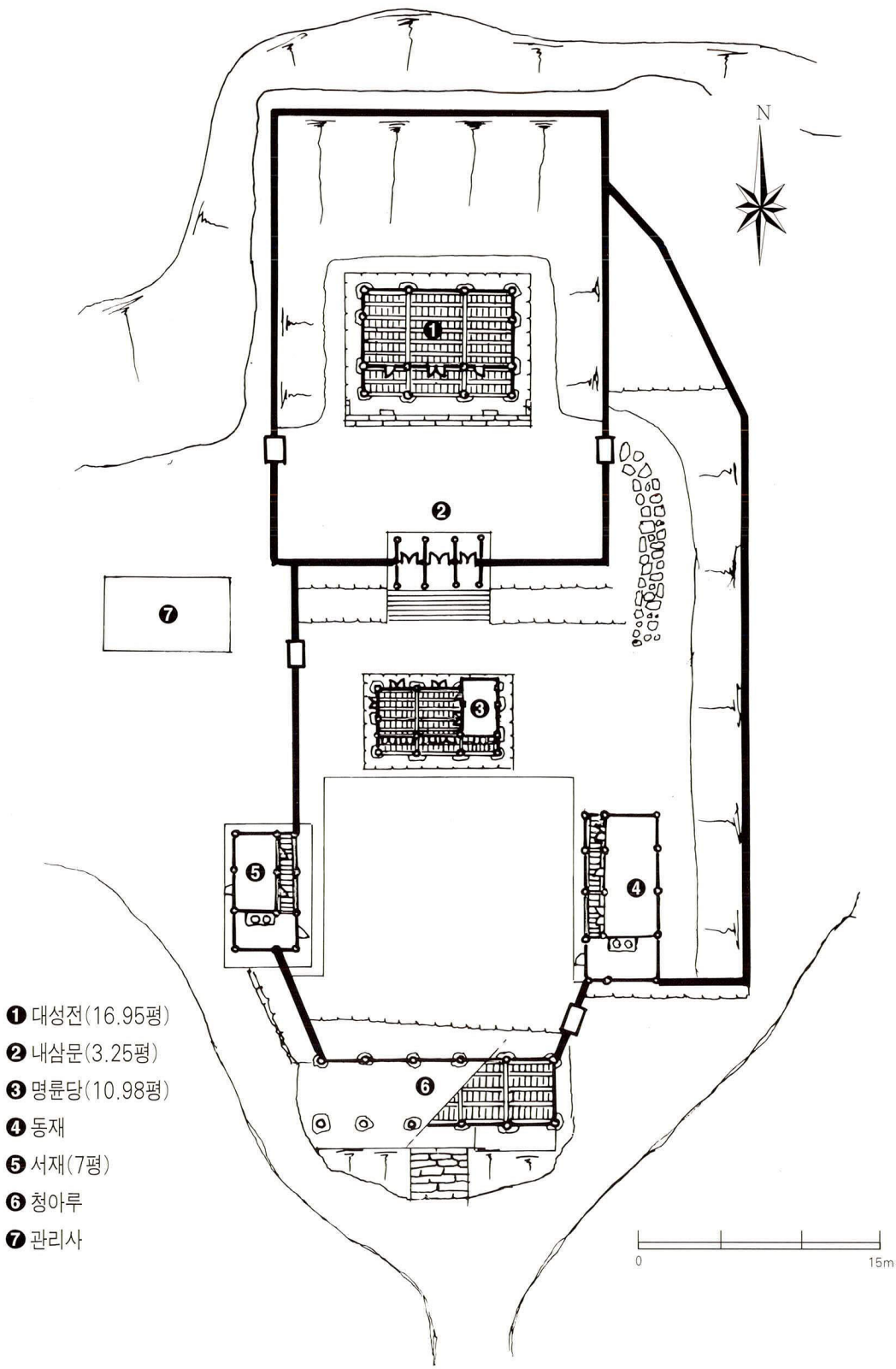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외삼문

93. 靑陽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9.76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17.88평)
❹ 동재
❺ 서재
❻ 외삼문
❼ 변소
❽ 고직사
❾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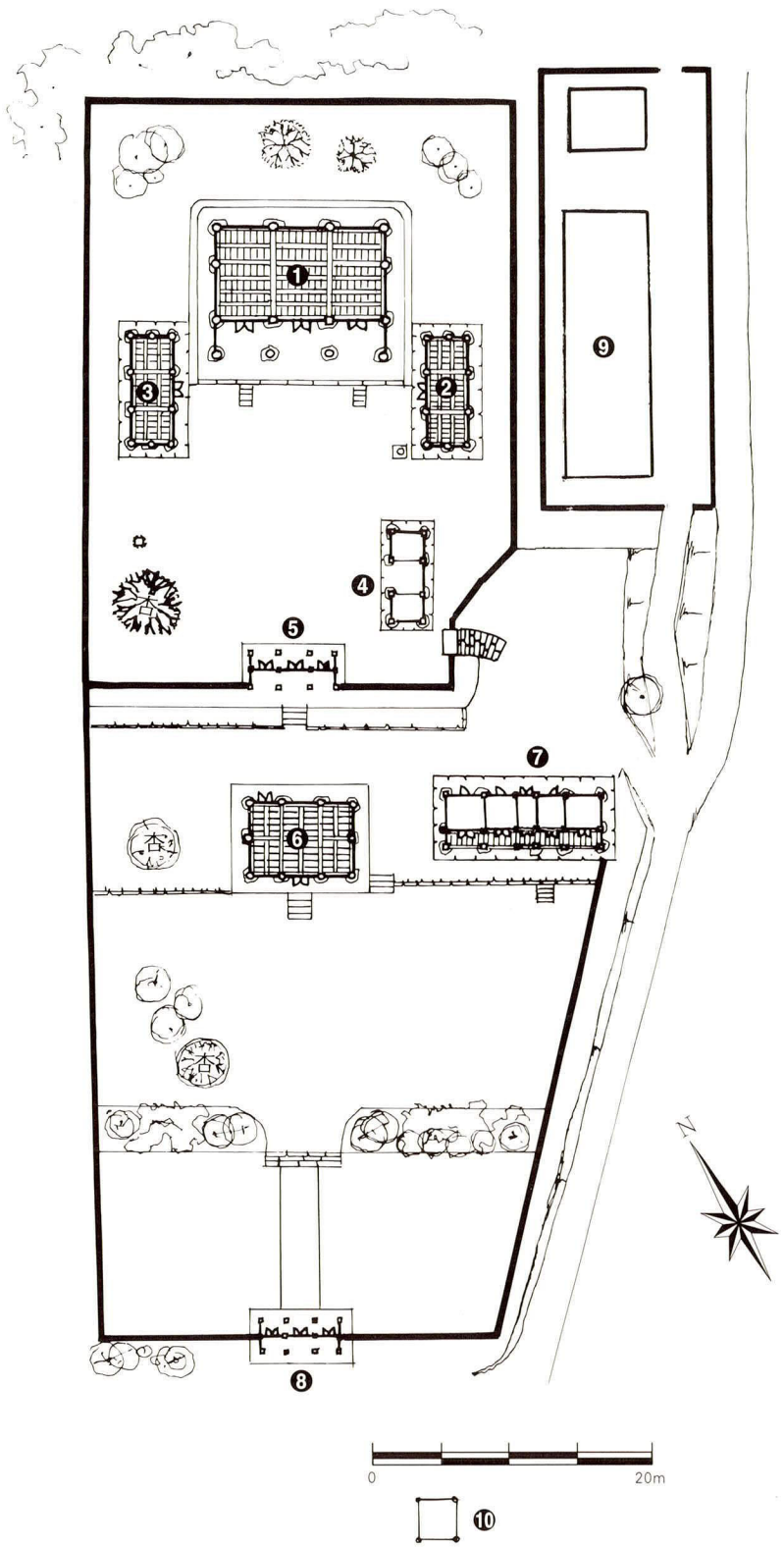


94. 定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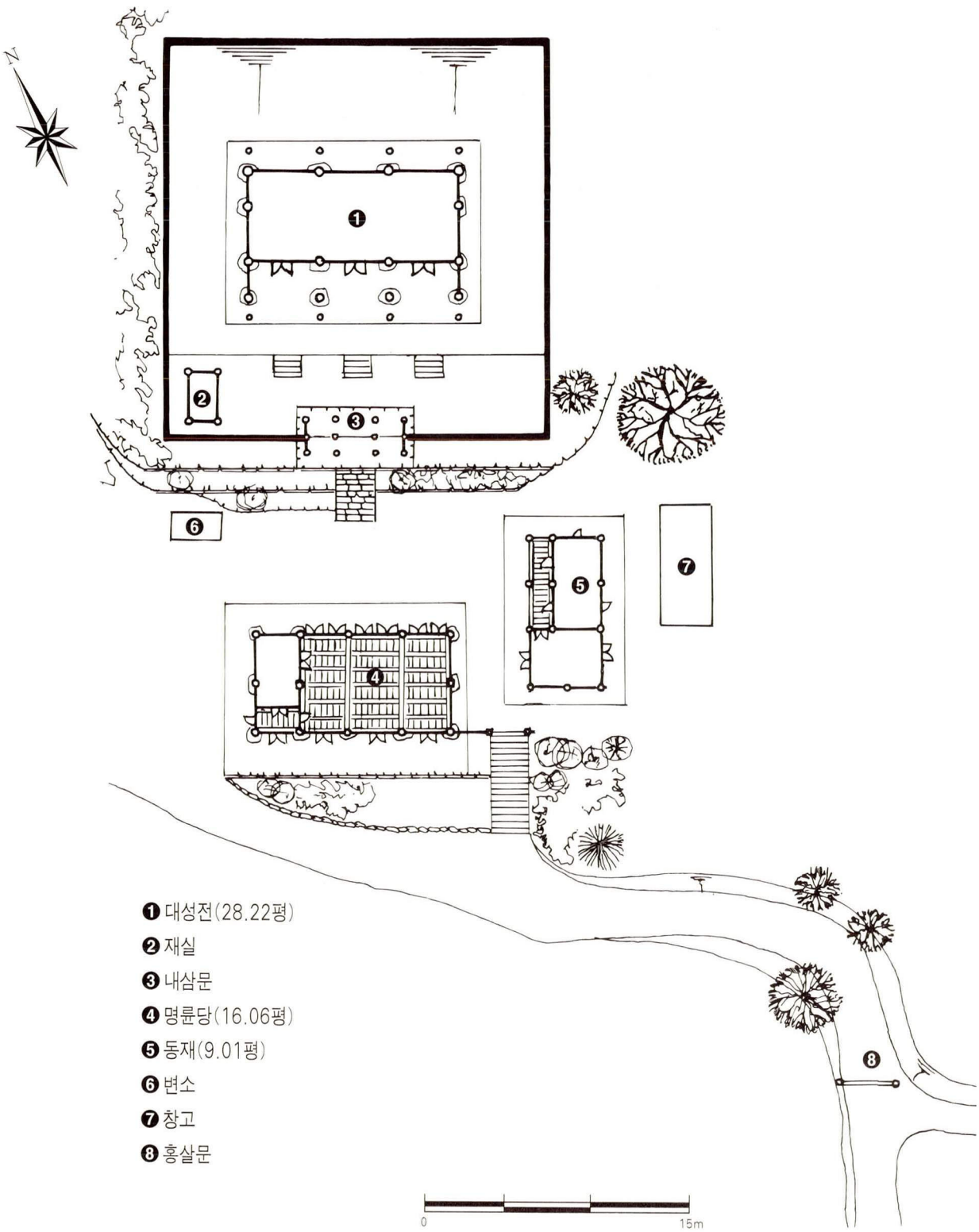


95.洪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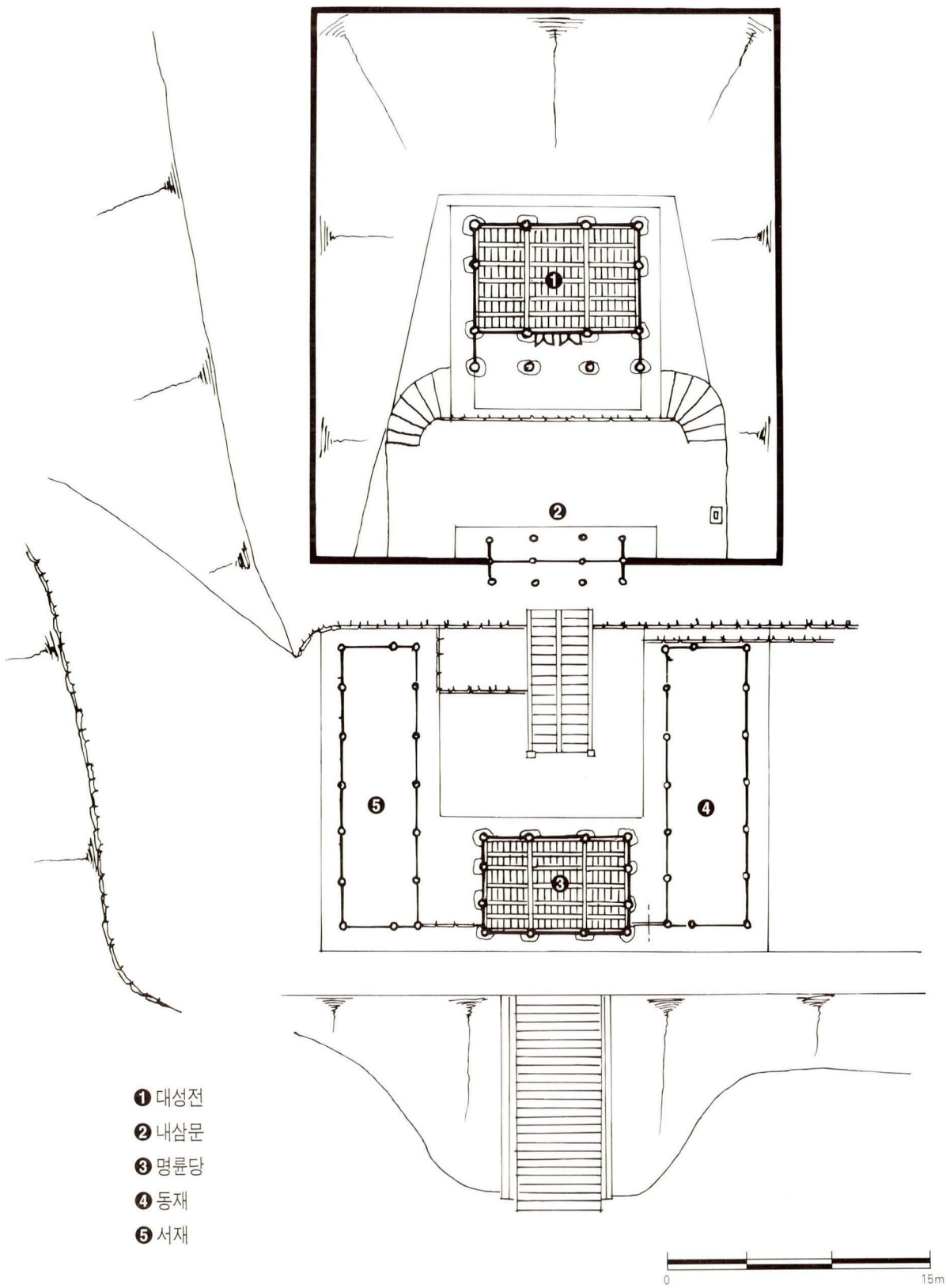
❶ 대성전(34.24평)
❷ 동무(6.70평)
❸ 서무(6.69평)
❹ 제기고(4.64평)
❺ 내삼문(4.86평)
❻ 명륜당(12.68평)
❼ 전사청(13.01평)
❽ 외삼문(3.62평)
❾ 관리사(42.26평)
❿ 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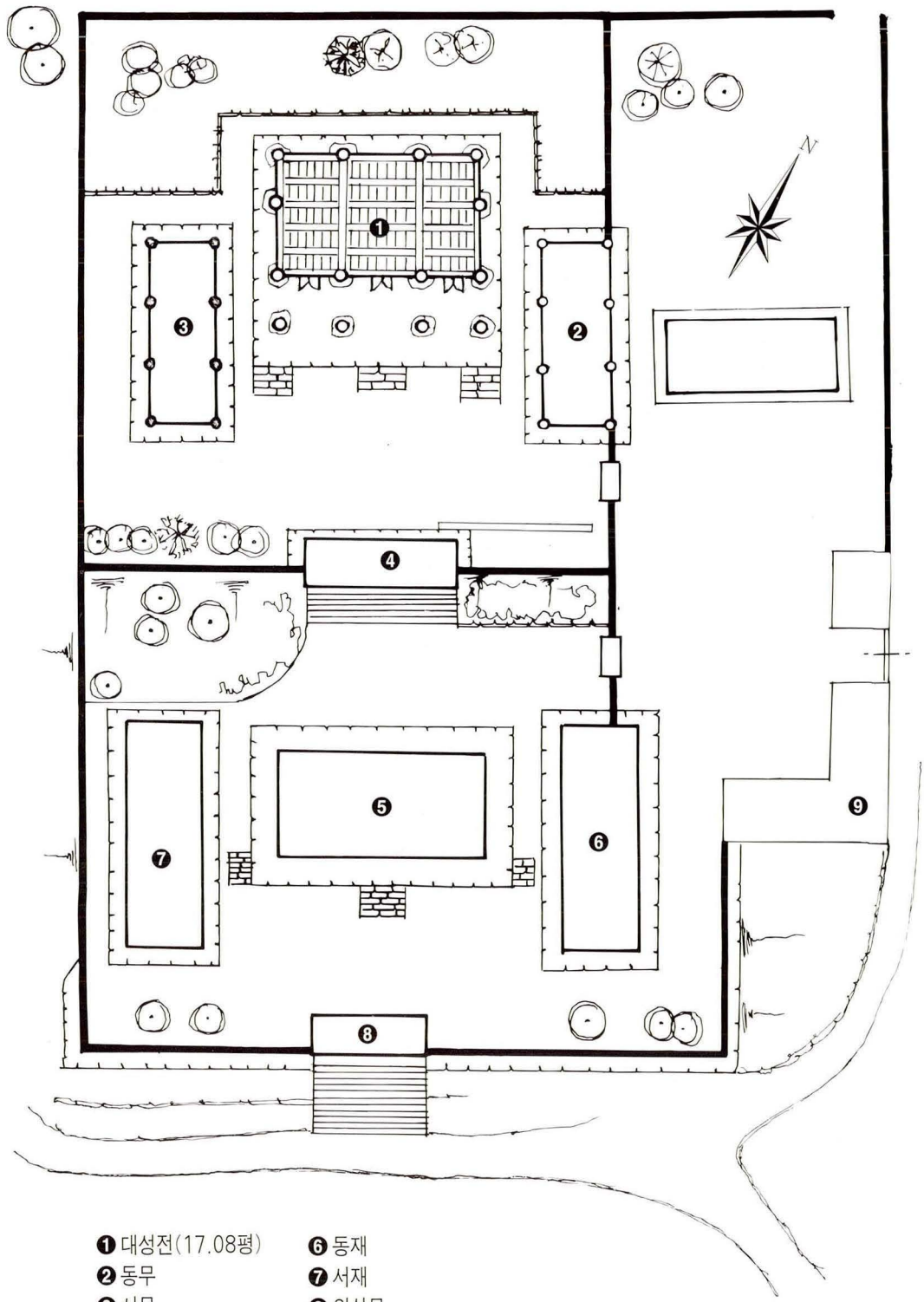
96. 結城鄕校 配置圖



97. 禮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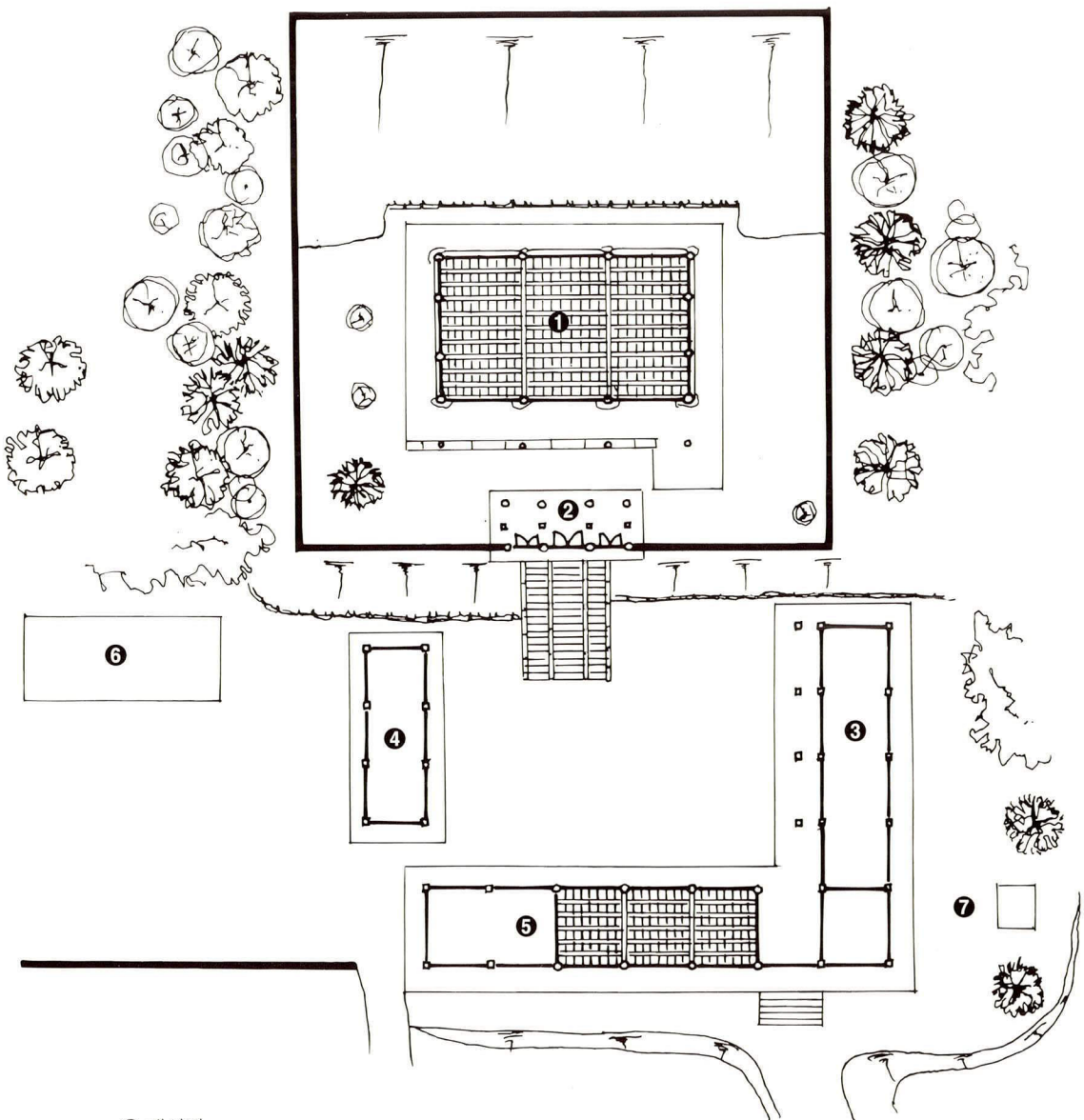


98. 大興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7.08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
❽ 외삼문
❾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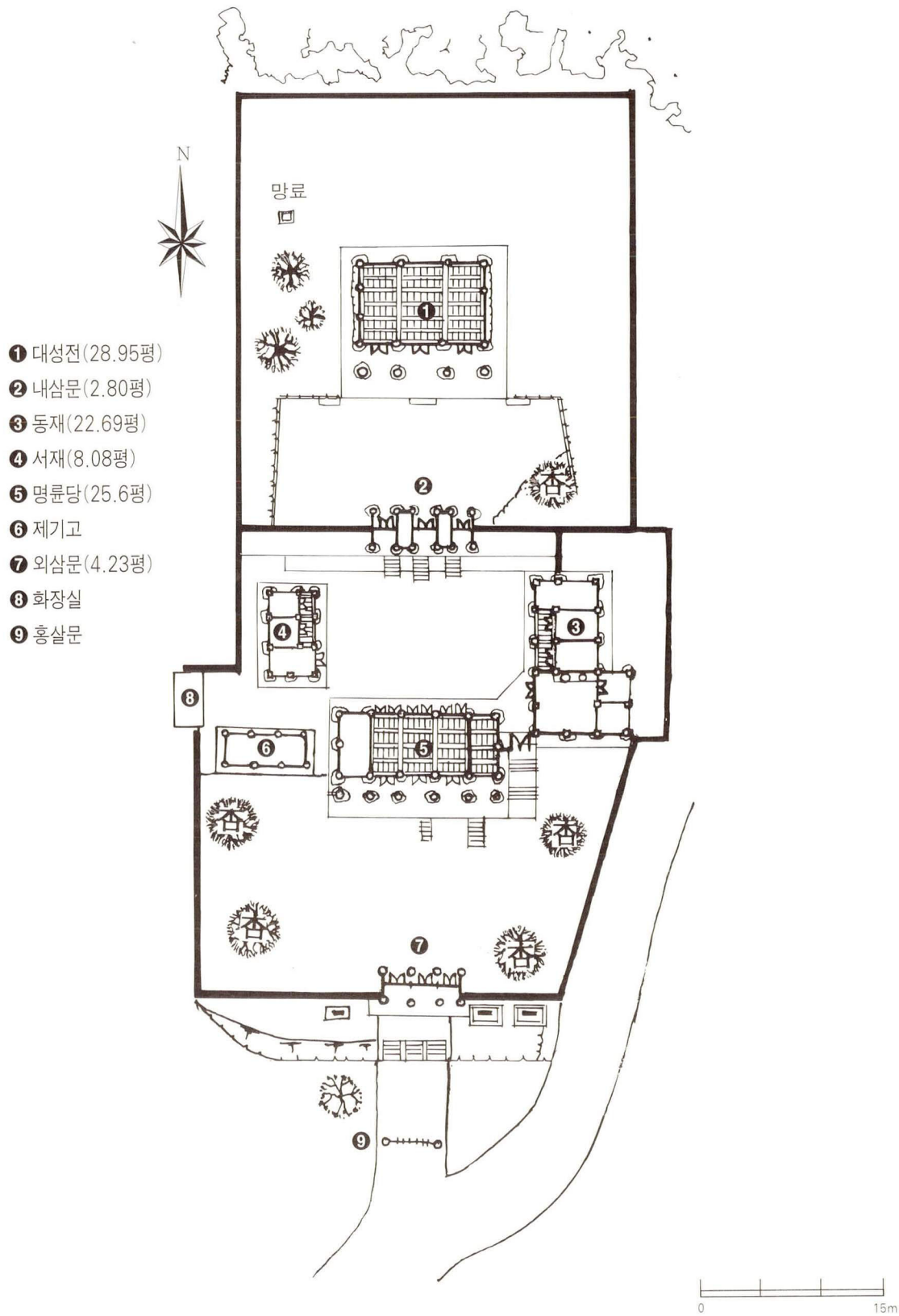
99. 德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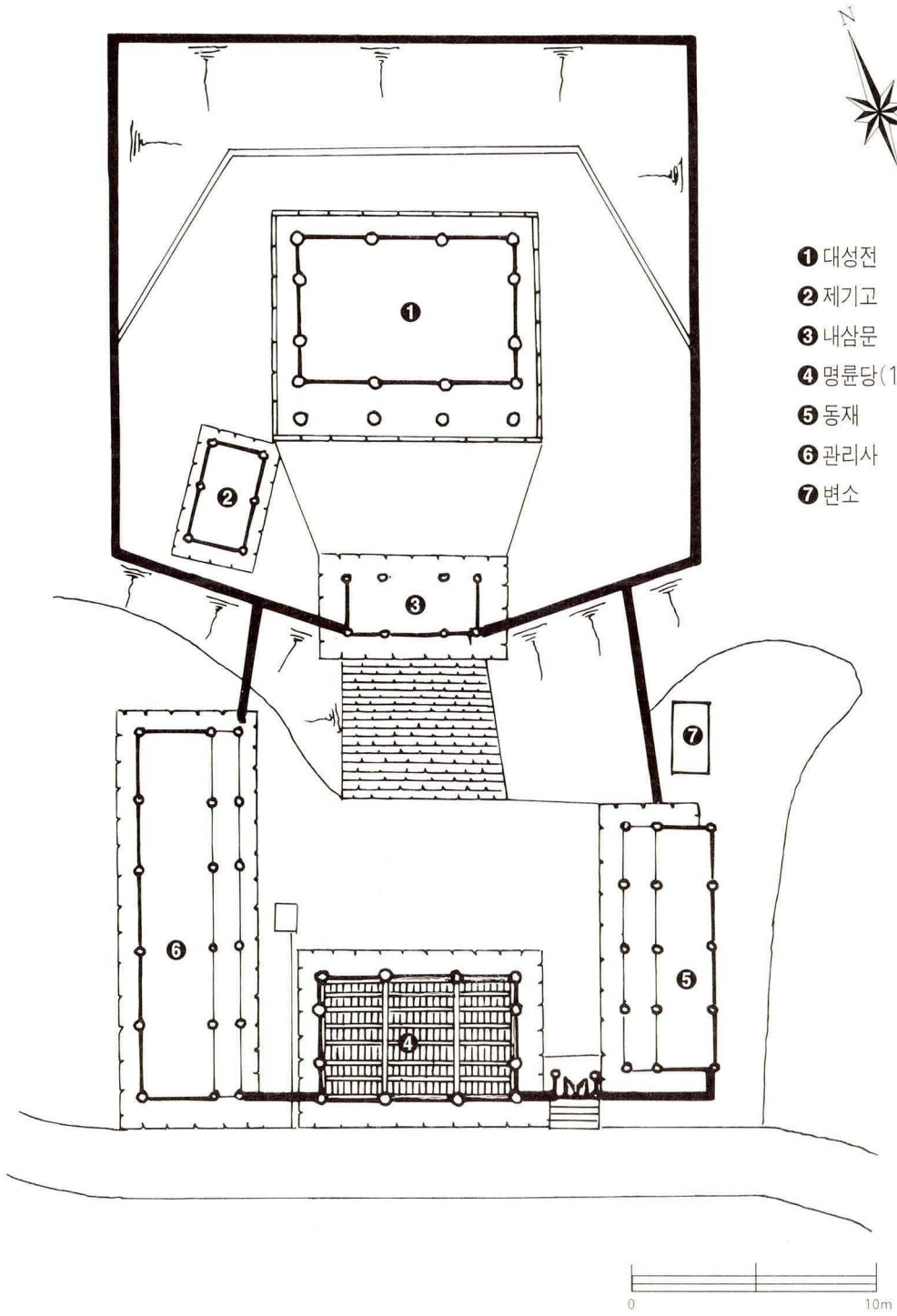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동재
❹ 서재
❺ 명륜당
❻ 관리사
❼ 변소

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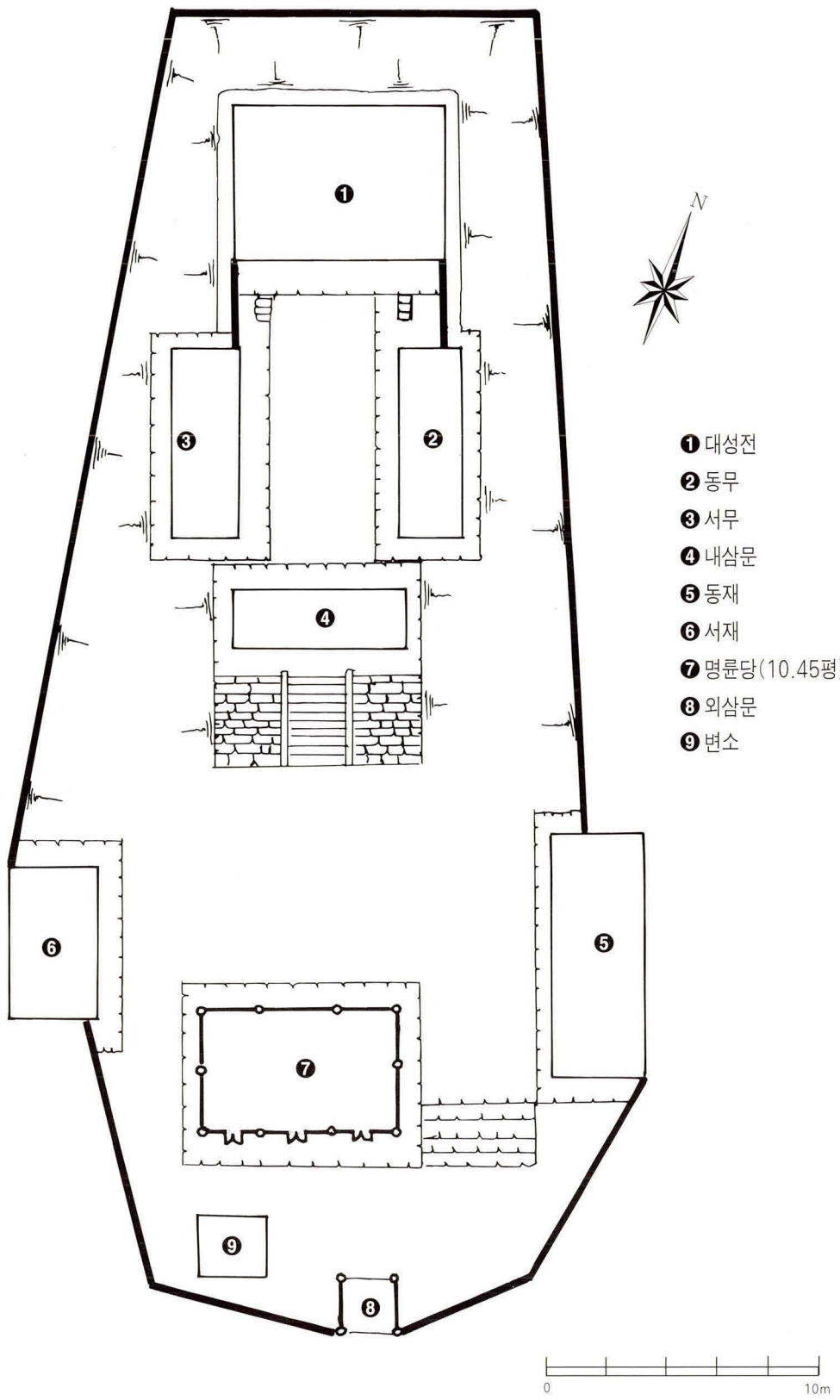
100. 泰安鄕校 配置圖


N
망료
❶ 대성전(28.95평)
❷ 내삼문(2.80평)
❸ 동재(22.69평)
❹ 서재(8.08평)
❺ 명륜당(25.6평)
❻ 제기고
❼ 외삼문(4.23평)
❽ 화장실
❾ 홍살문
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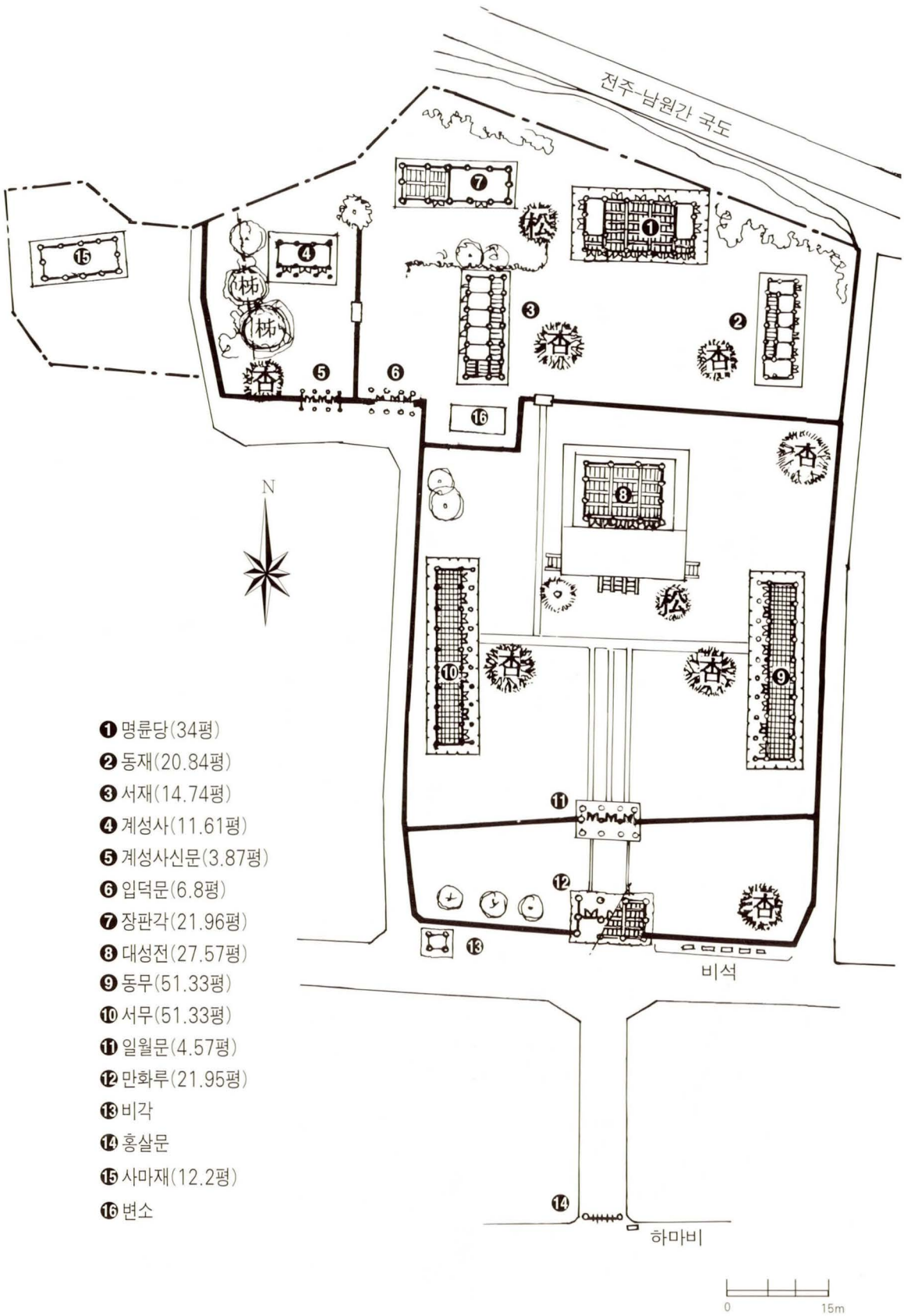
101. 唐津鄕校 配置圖



102. 沔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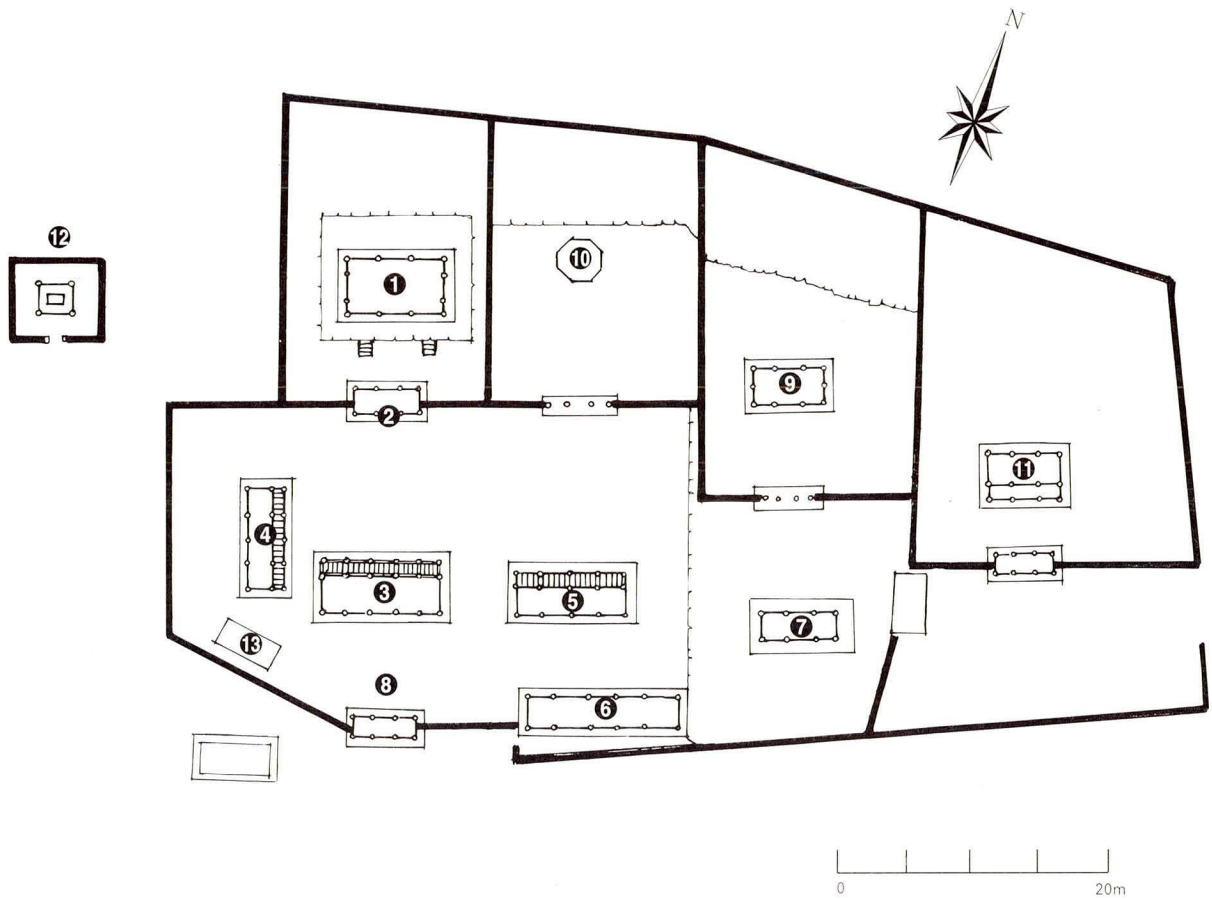


103. 全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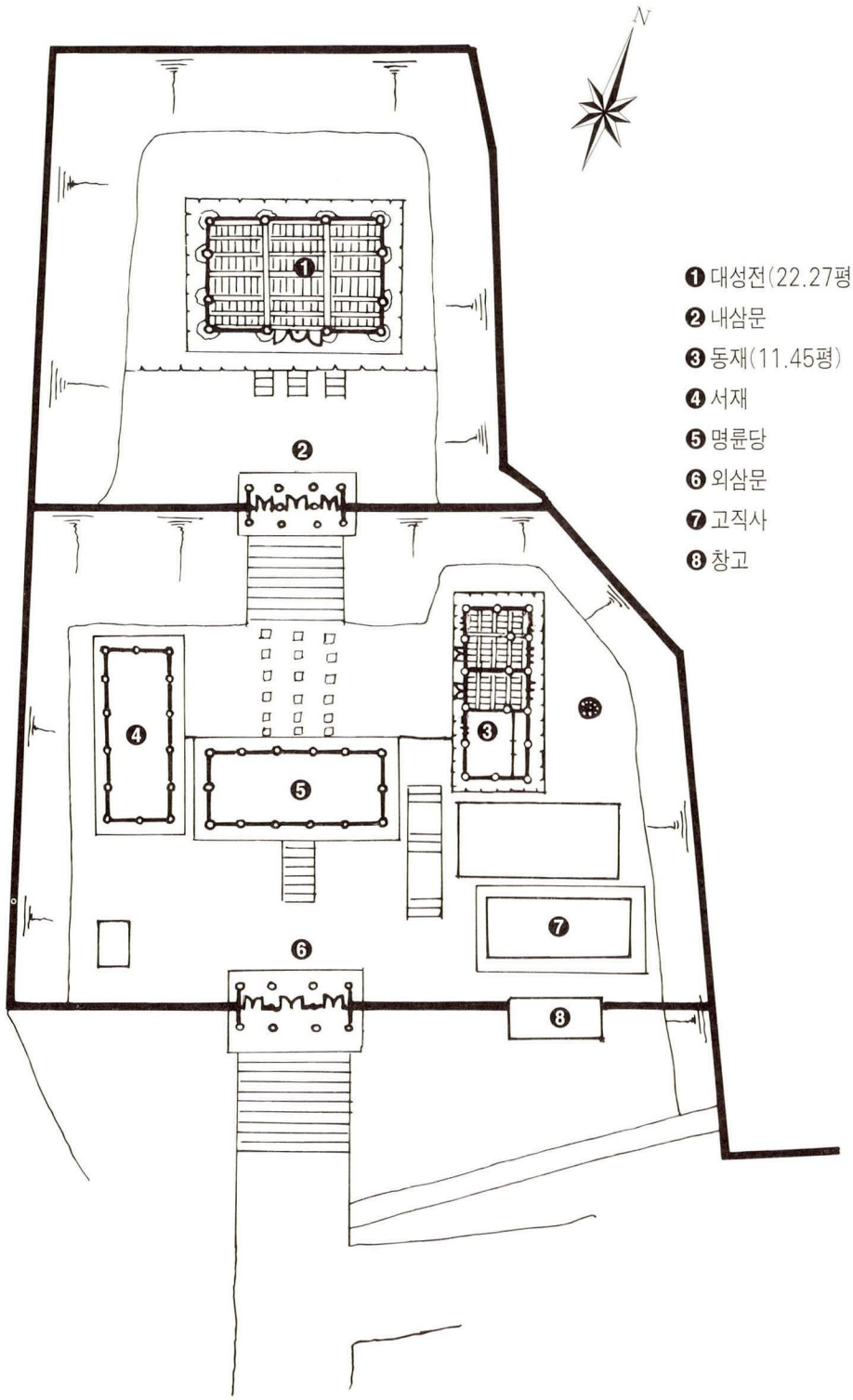
❶ 명륜당(34평)
❷ 동재(20.84평)
❸ 서재(14.74평)
❹ 계성사(11.61평)
❺ 계성사신문(3.87평)
❻ 입덕문(6.8평)
❼ 장판각(21.96평)
❽ 대성전(27.57평)
❾ 동무(51.33평)
❿ 서무(51.33평)
⓫ 일월문(4.57평)
⓬ 만화루(21.95평)
⓭ 비각
⓮ 홍살문
⓯ 사마재(12.2평)
⓰ 변소

104. 沃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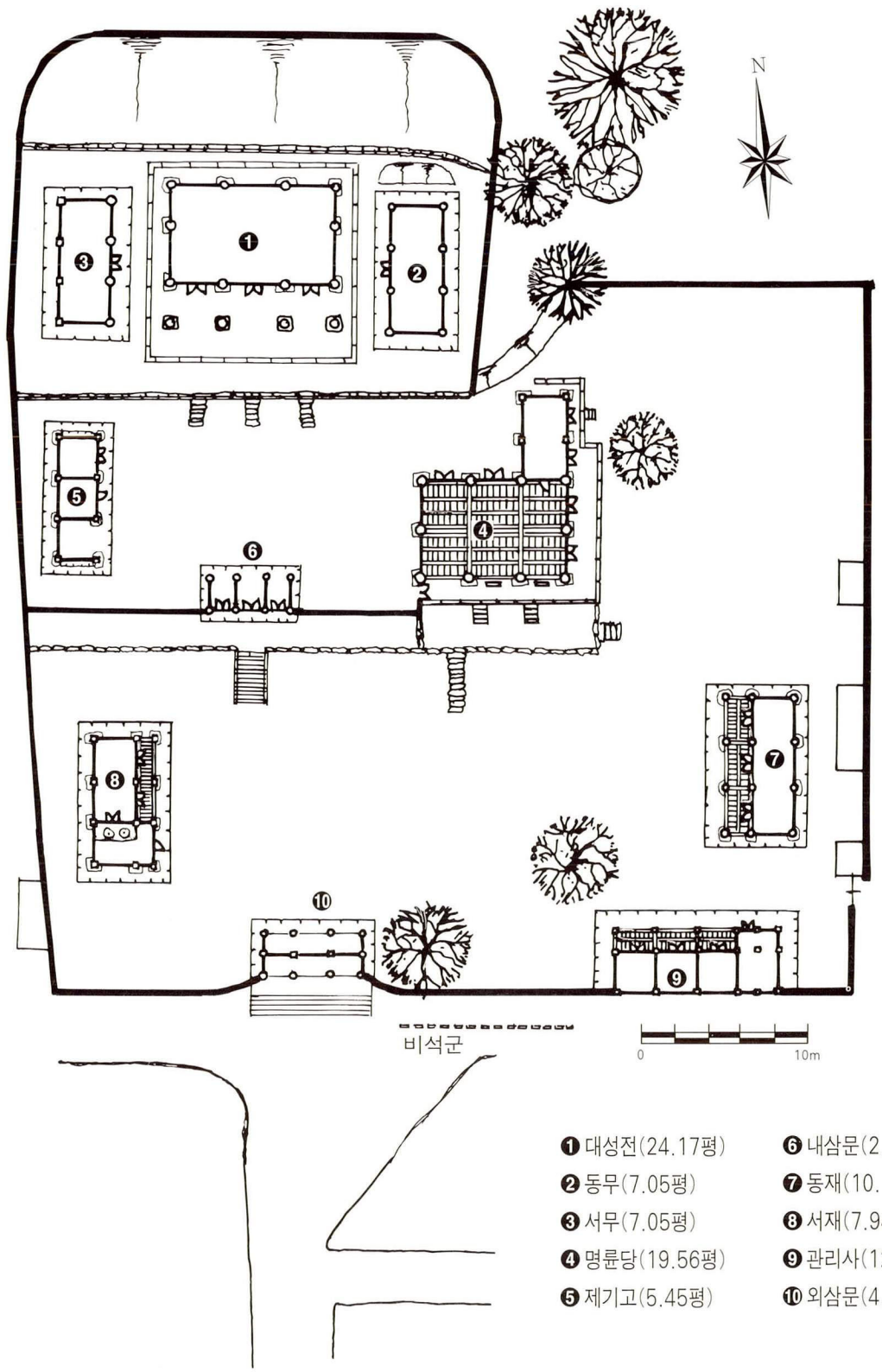


❶ 대성전(17.4평)
❷ 내삼문(4.6평)
❸ 명륜당(19평)
❹ 양사재(11.4평)
❺ 전사청(12.7평)
❻ 관리사(16평)
❼ 자천대(7.1평)
❽ 외삼문(4.3평)
❾ 문창서원
❿ 단군성묘
⓫ 옥산서원
⓬ 세종대왕 숭모비
⓭ 변소

105. 臨陂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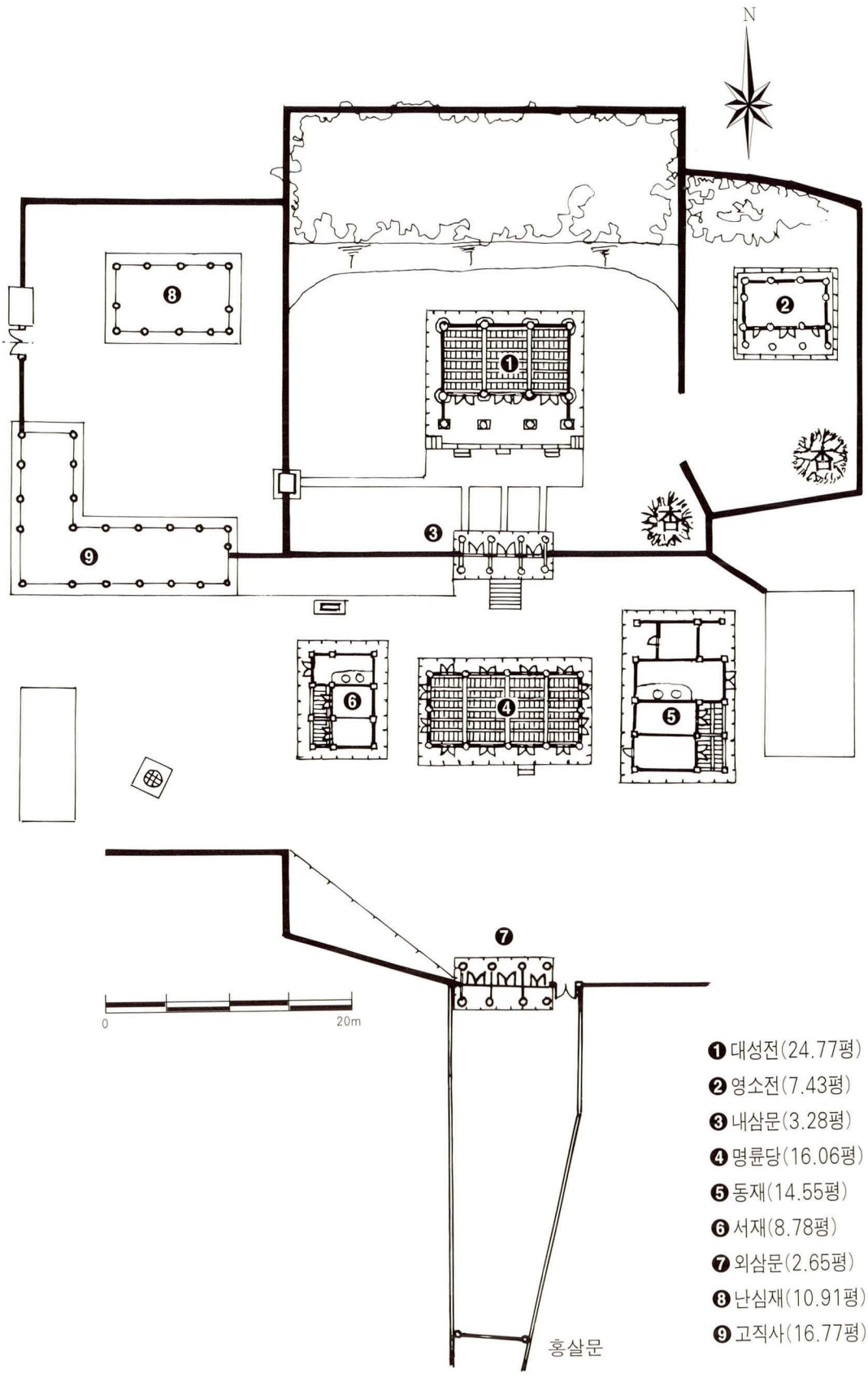


106. 益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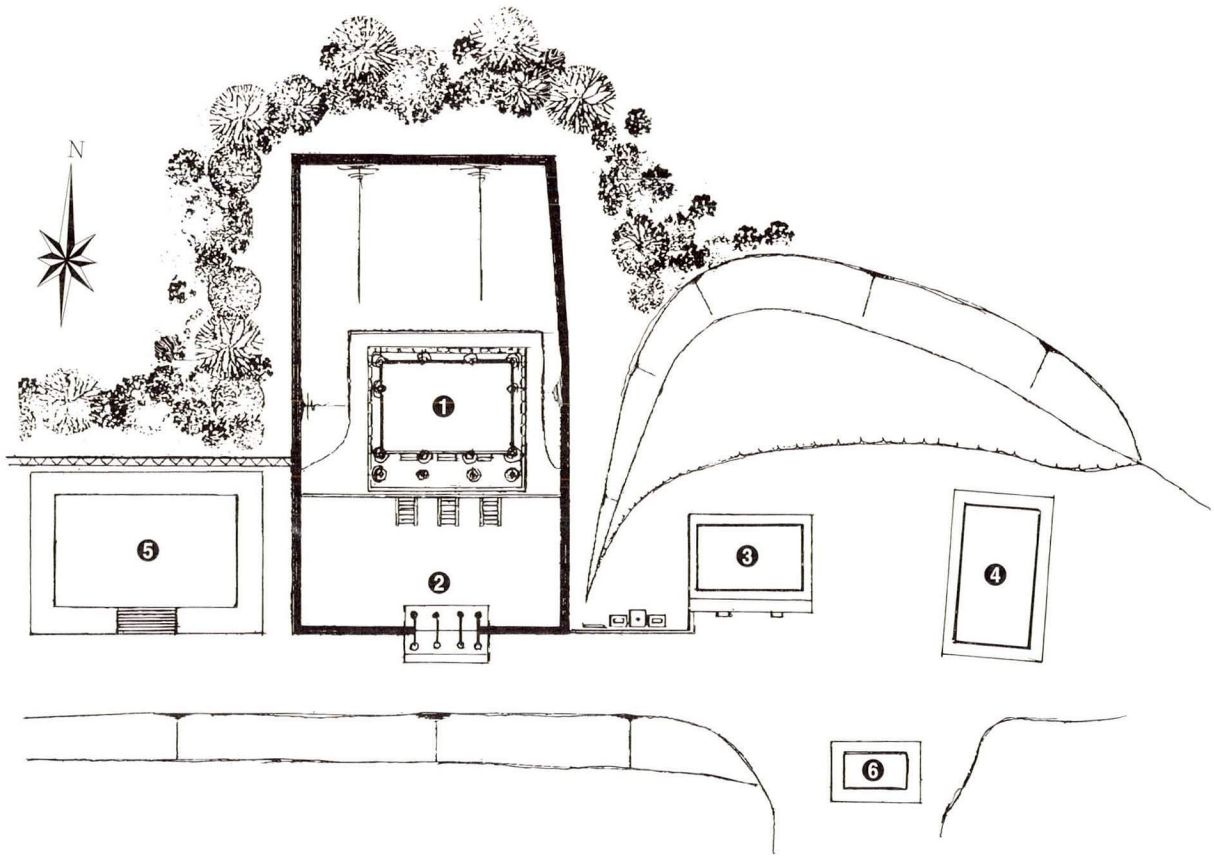
❶ 대성전(24.17평)
❷ 동무(7.05평)
❸ 서무(7.05평)
❹ 명륜당(19.56평)
❺ 제기고(5.45평)
❻ 내삼문(2.97평)
❼ 동재(10.18평)
❽ 서재(7.94평)
❾ 관리사(12.55평)
❿ 외삼문(4.96평)

107. 咸悅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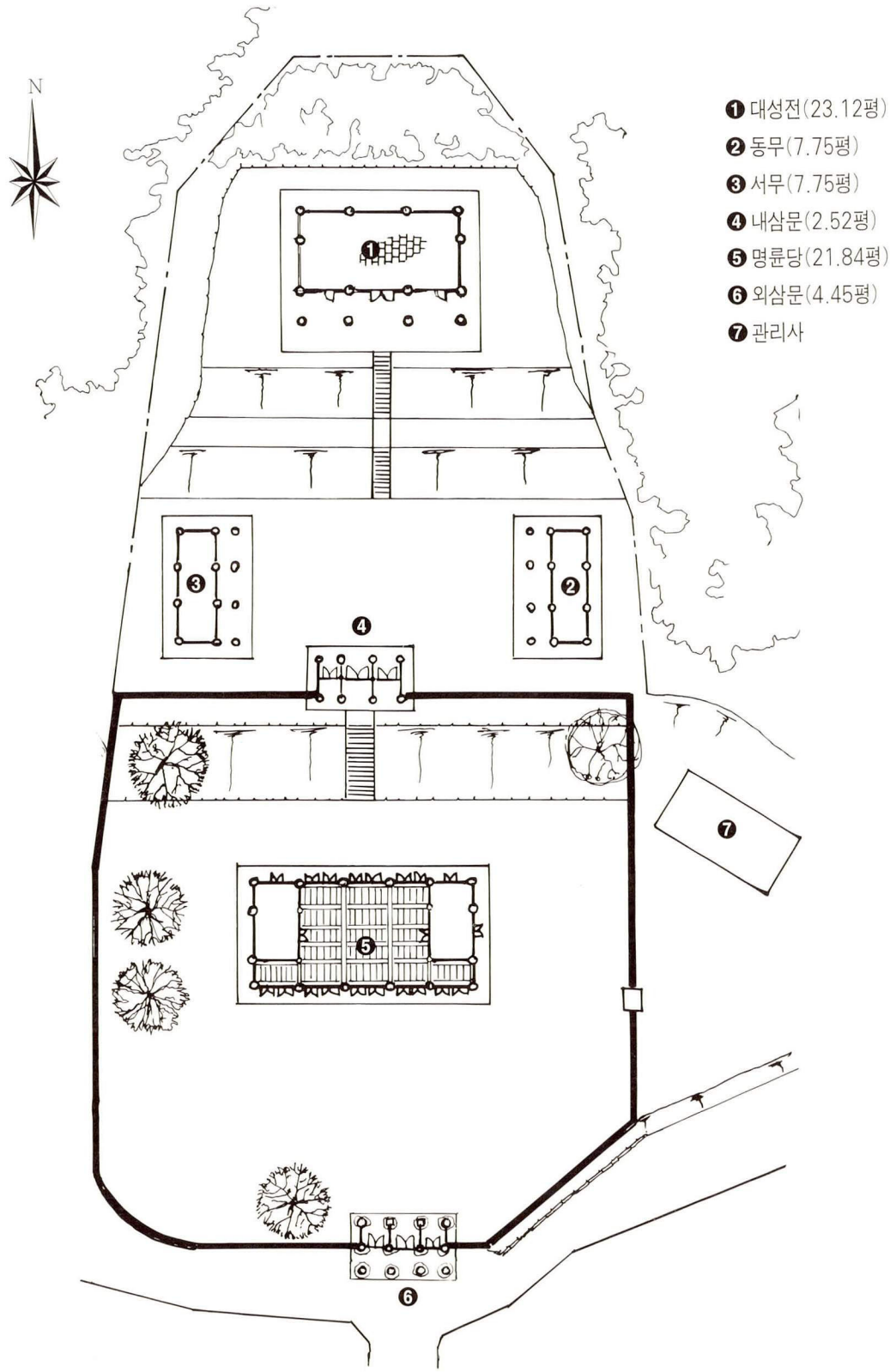
❶ 대성전(24.77평)
❷ 영소전(7.43평)
❸ 내삼문(3.28평)
❹ 명륜당(16.06평)
❺ 동재(14.55평)
❻ 서재(8.78평)
❼ 외삼문(2.65평)
❽ 난심재(10.91평)
❾ 고직사(16.77평)

108. 龍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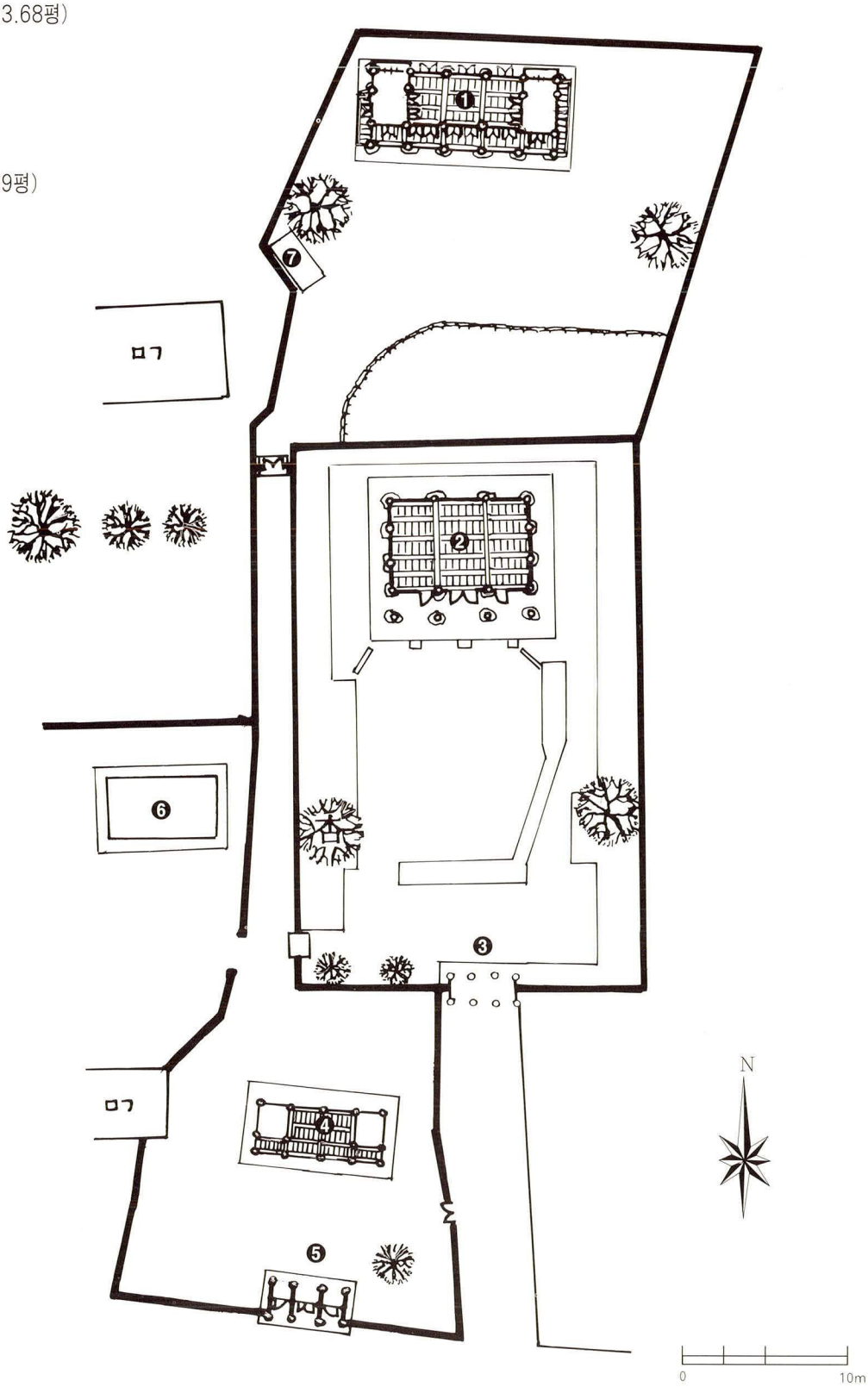
❶ 대성전(18.51평)
❷ 내삼문(3.09평)
❸ 명륜당(10.84평)
❹ 전사재
❺ 충효관(30.25평)
❻ 화장실

109. 礪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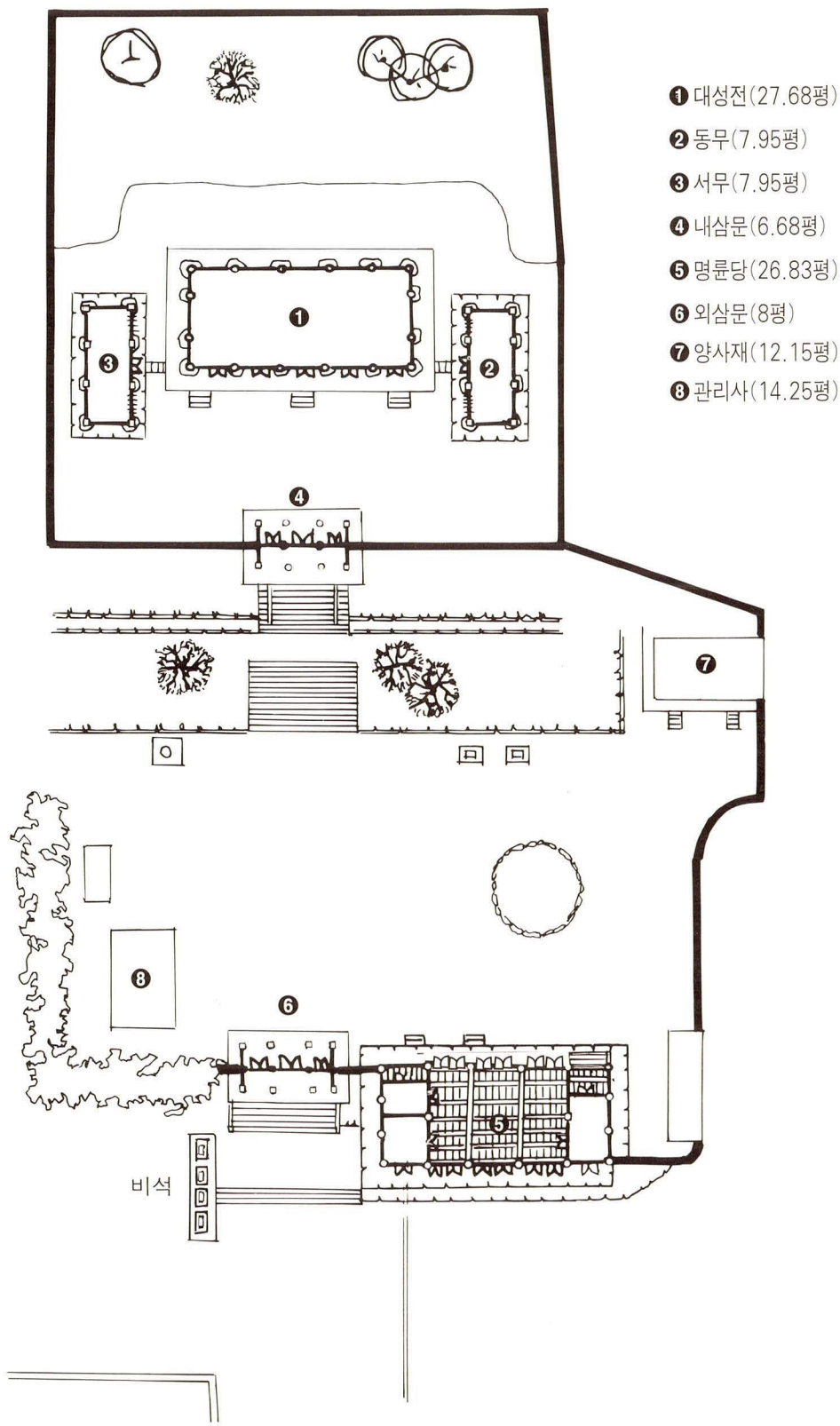

N
❶ 대성전(23.12평)
❷ 동무(7.75평)
❸ 서무(7.75평)
❹ 내삼문(2.52평)
❺ 명륜당(21.84평)
❻ 외삼문(4.45평)
❼ 관리사

110. 井邑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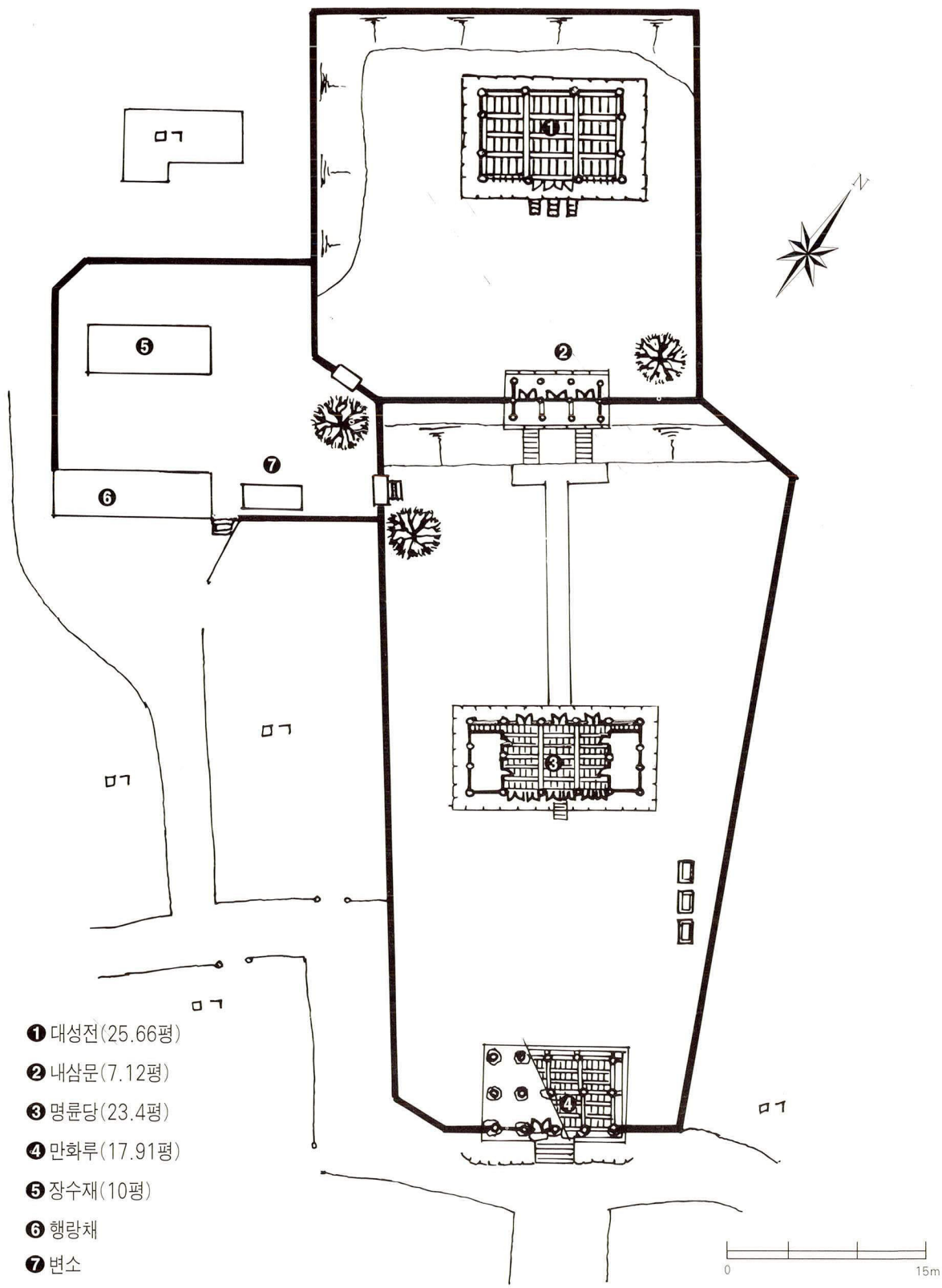
❶ 명륜당(23.68평)
❷ 대성전
❸ 신삼문
❹ 양사재
❺ 삼문(1.69평)
❻ 관리사
❼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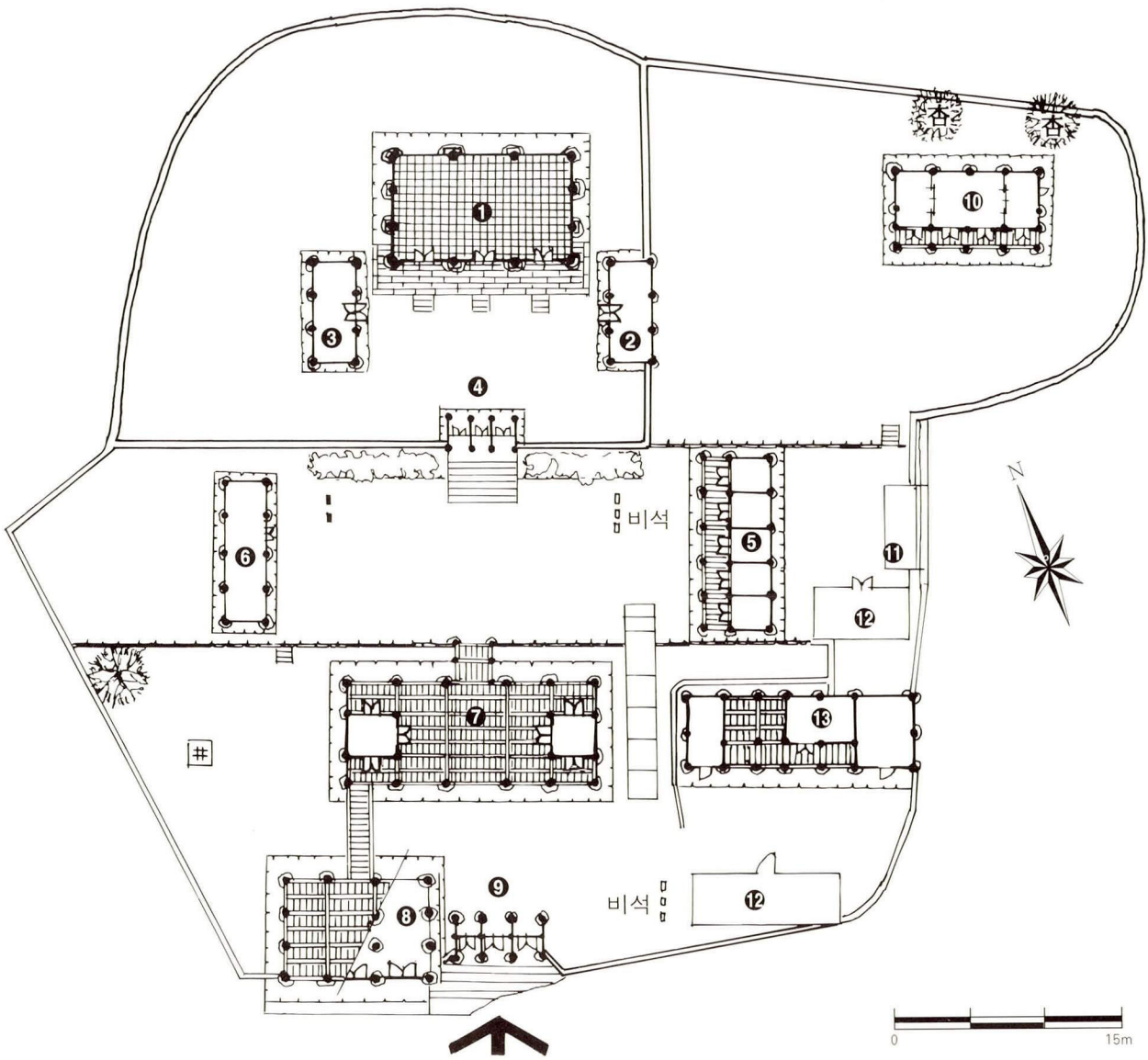
111. 古阜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7.68평)
❷ 동무(7.95평)
❸ 서무(7.95평)
❹ 내삼문(6.68평)
❺ 명륜당(26.83평)
❻ 외삼문(8평)
❼ 양사재(12.15평)
❽ 관리사(14.25평)
비석

112. 泰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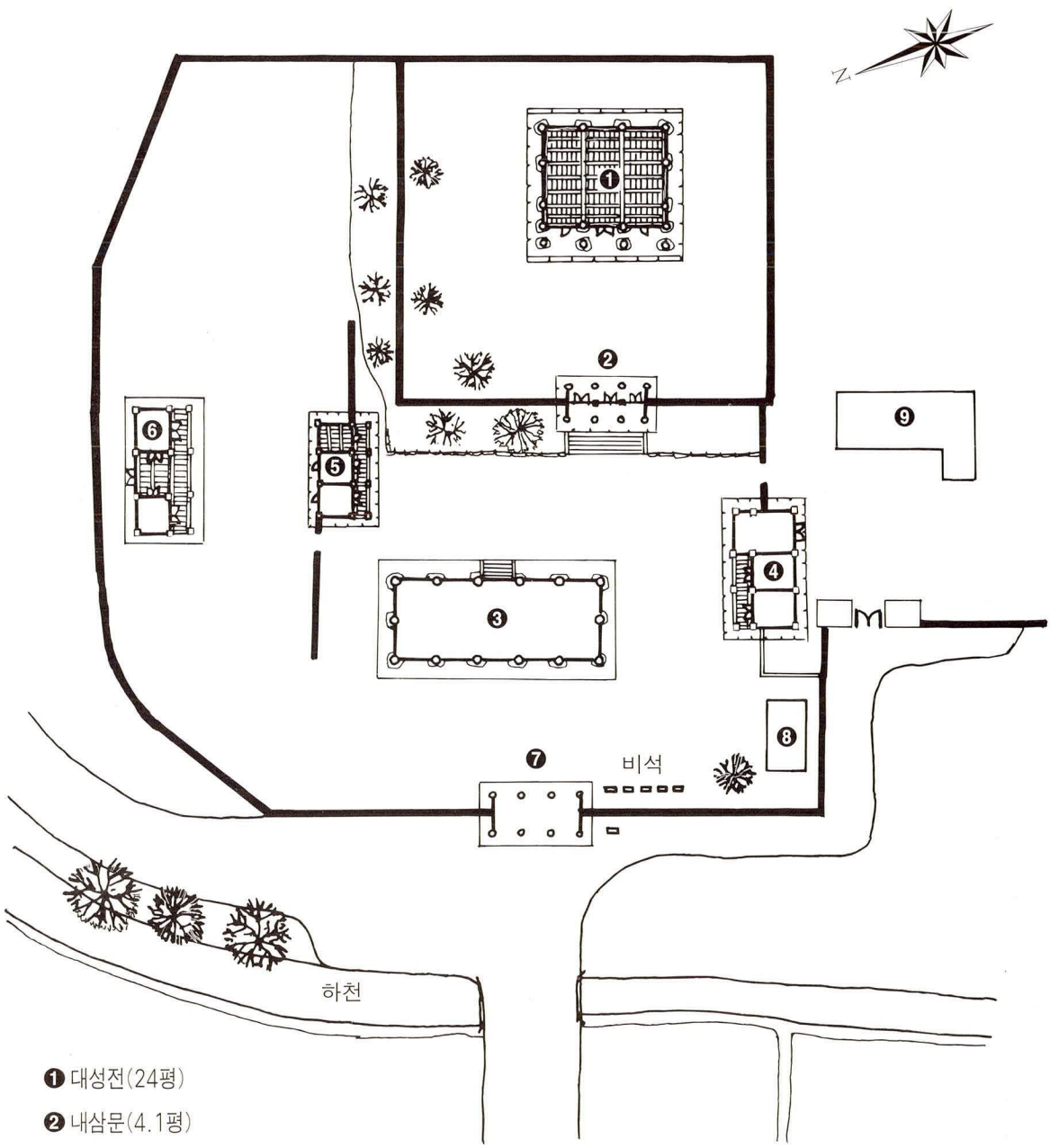

❶ 대성전(25.66평)
❷ 내삼문(7.12평)
❸ 명륜당(23.4평)
❹ 만화루(17.91평)
❺ 장수재(10평)
❻ 행랑채
❼ 변소
0
15m

113. 南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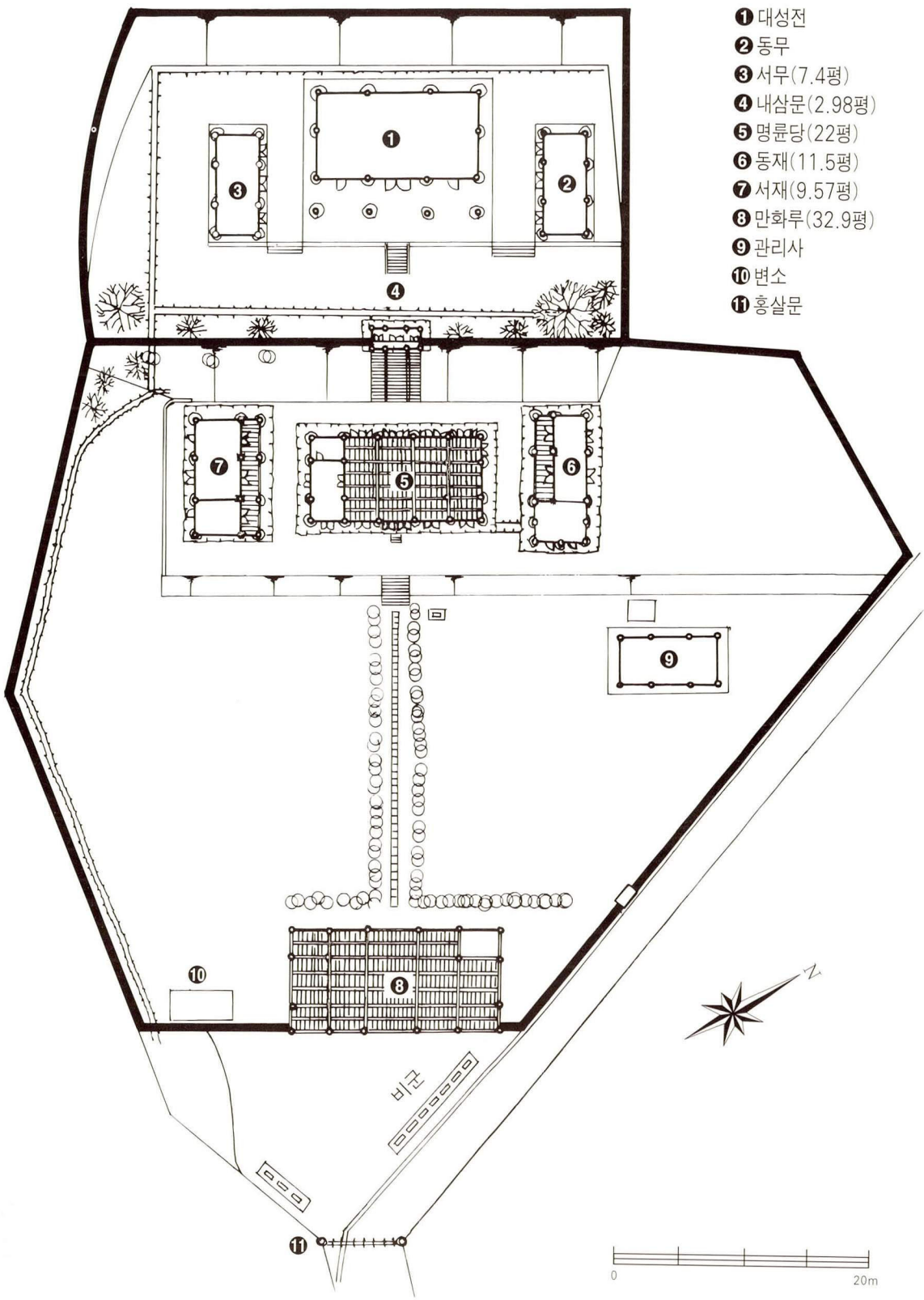
❶ 대성전(25.42평)
❷ 동무(6.03평)
❸ 서무(6평)
❹ 내삼문(2.21평)
❺ 동재
❻ 서재
❼ 명륜당
❽ 진강루
❾ 외삼문
❿ 사마재(15.01평)
⓫ 변소
⓬ 창고
⓭ 관리사

114. 雲峰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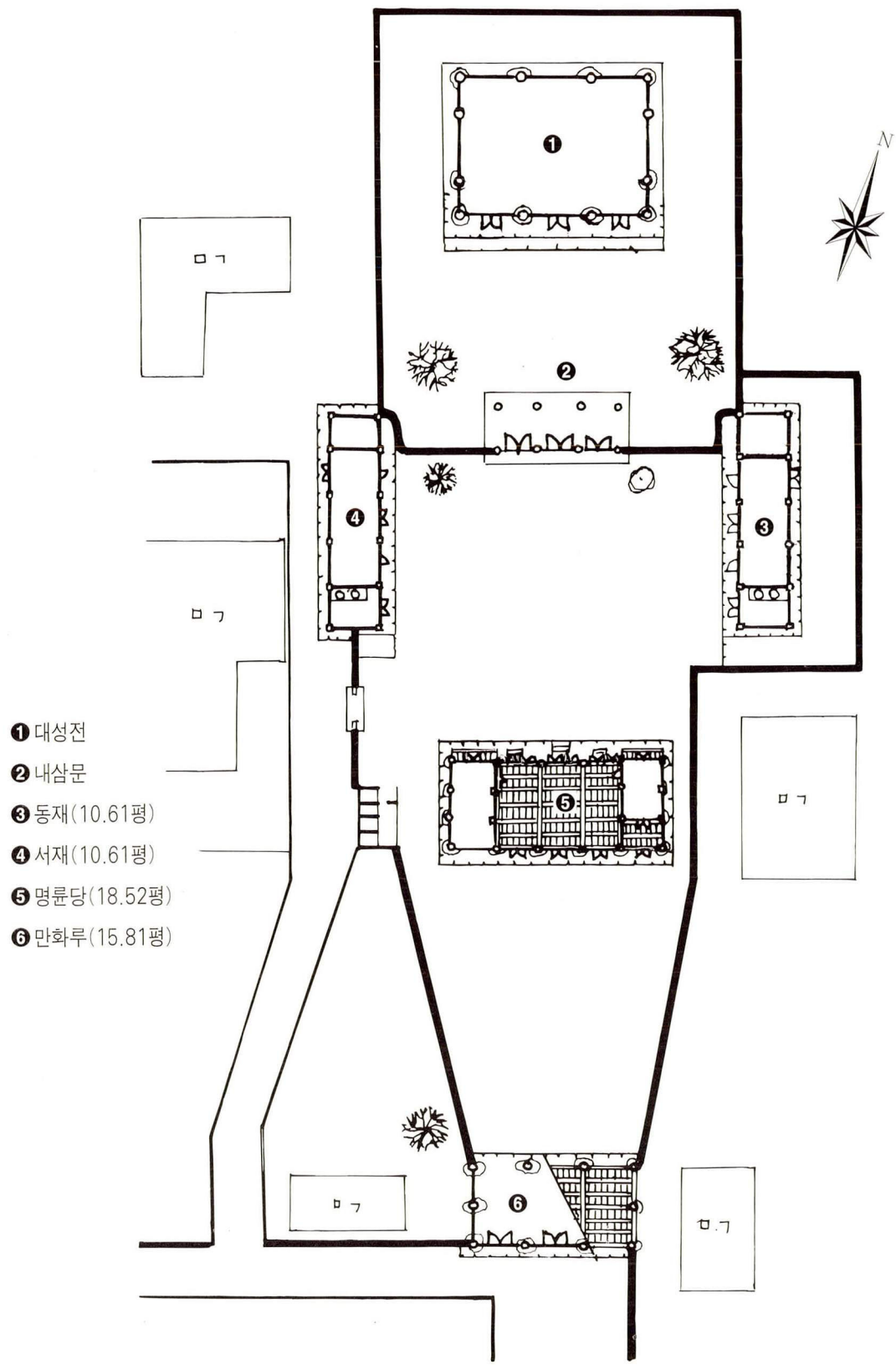


❶ 대성전(24평)
❷ 내삼문(4.1평)
❸ 명륜당
❹ 동재(10.73평)
❺ 서재(전사청7.5평)
❻ 양사재(10.47평)
❼ 외삼문
❽ 변소
❾ 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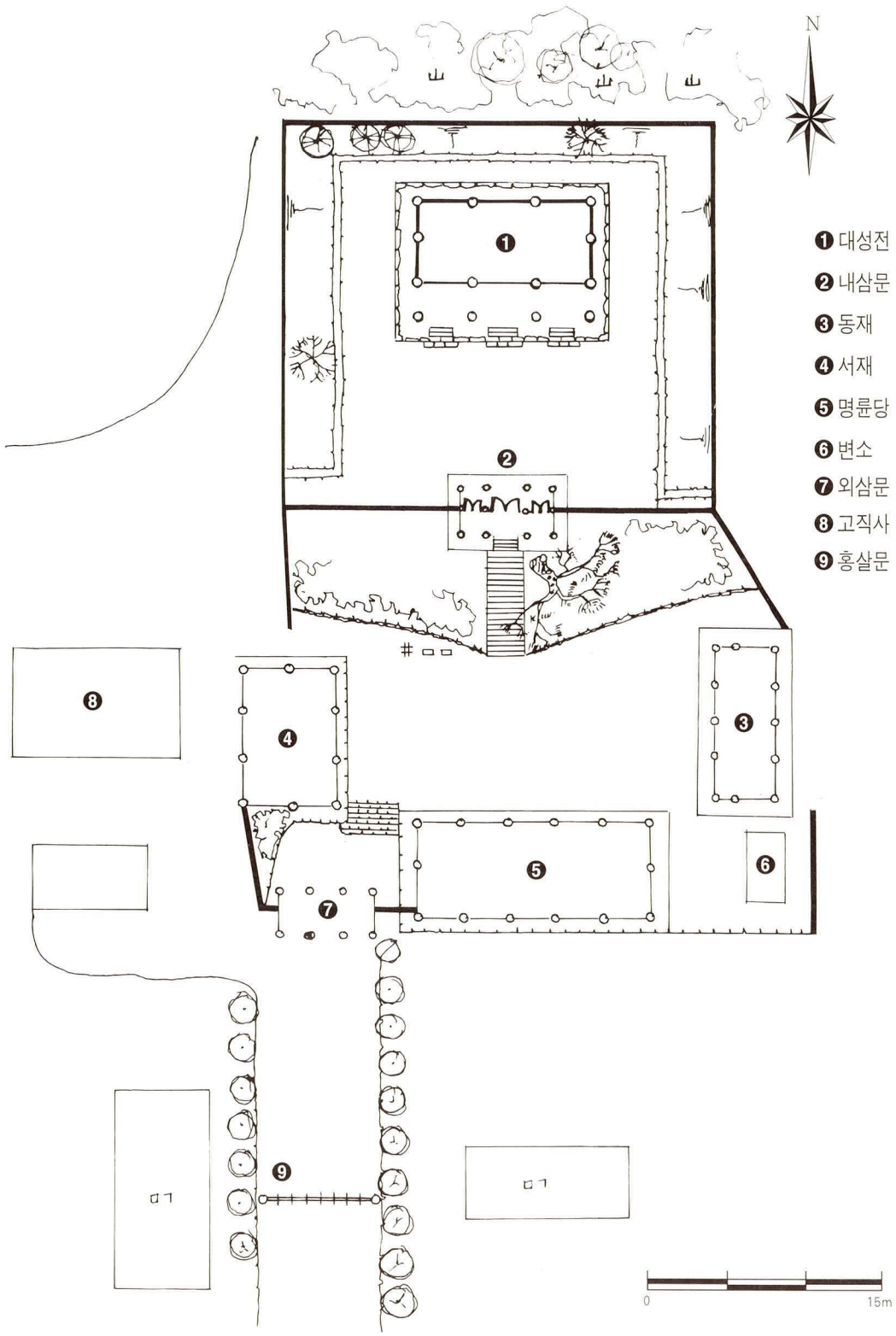
115. 金堤鄕校 配置圖


❶대성전
❷동무
❸서무(7.4평)
❹내삼문(2.98평)
❺명륜당(22평)
❻동재(11.5평)
❼서재(9.57평)
❽만화루(32.9평)
❾관리사
❿변소
⓫홍살문
비군
N
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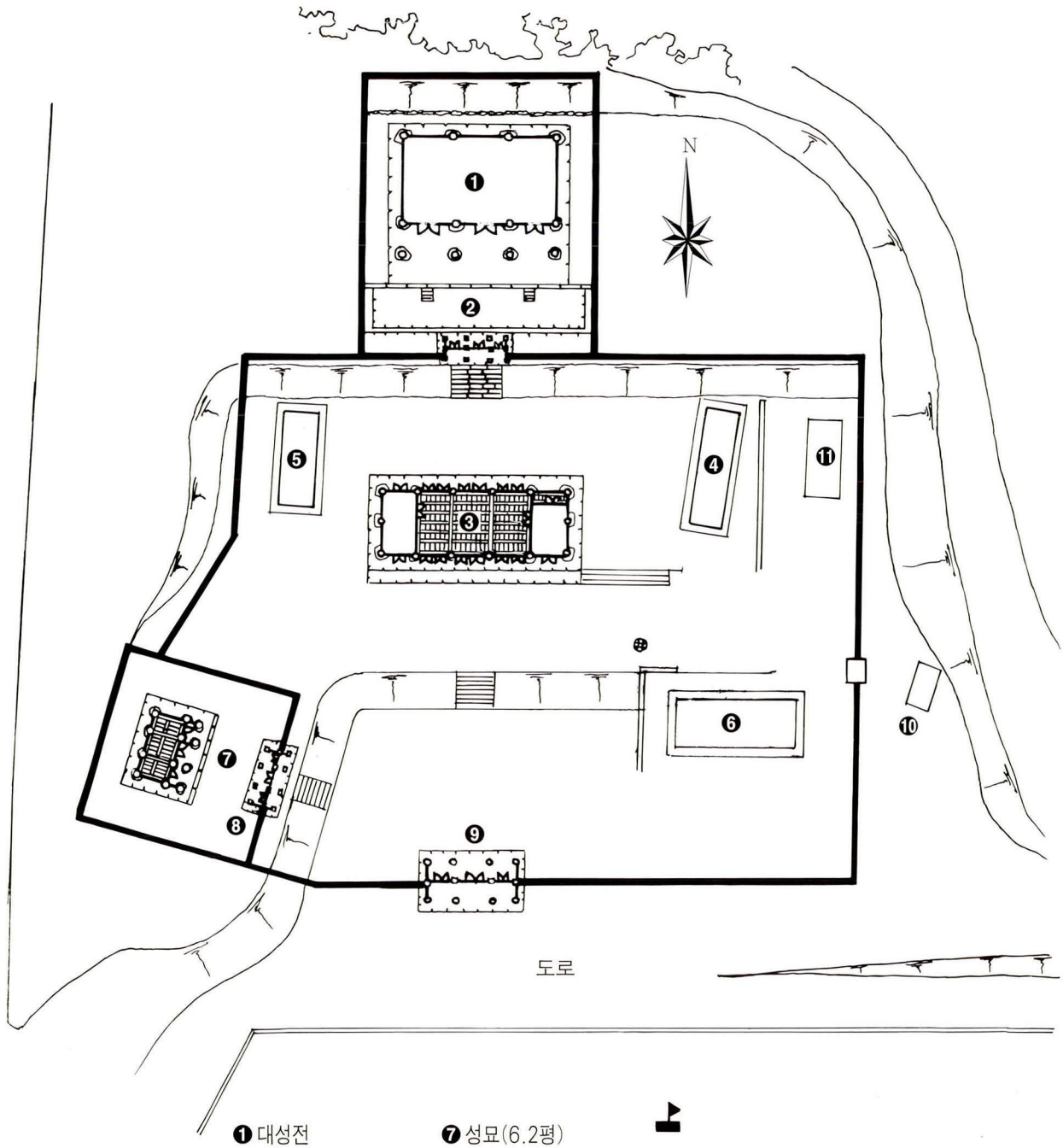
116. 金溝鄕校 配置圖



117. 萬頃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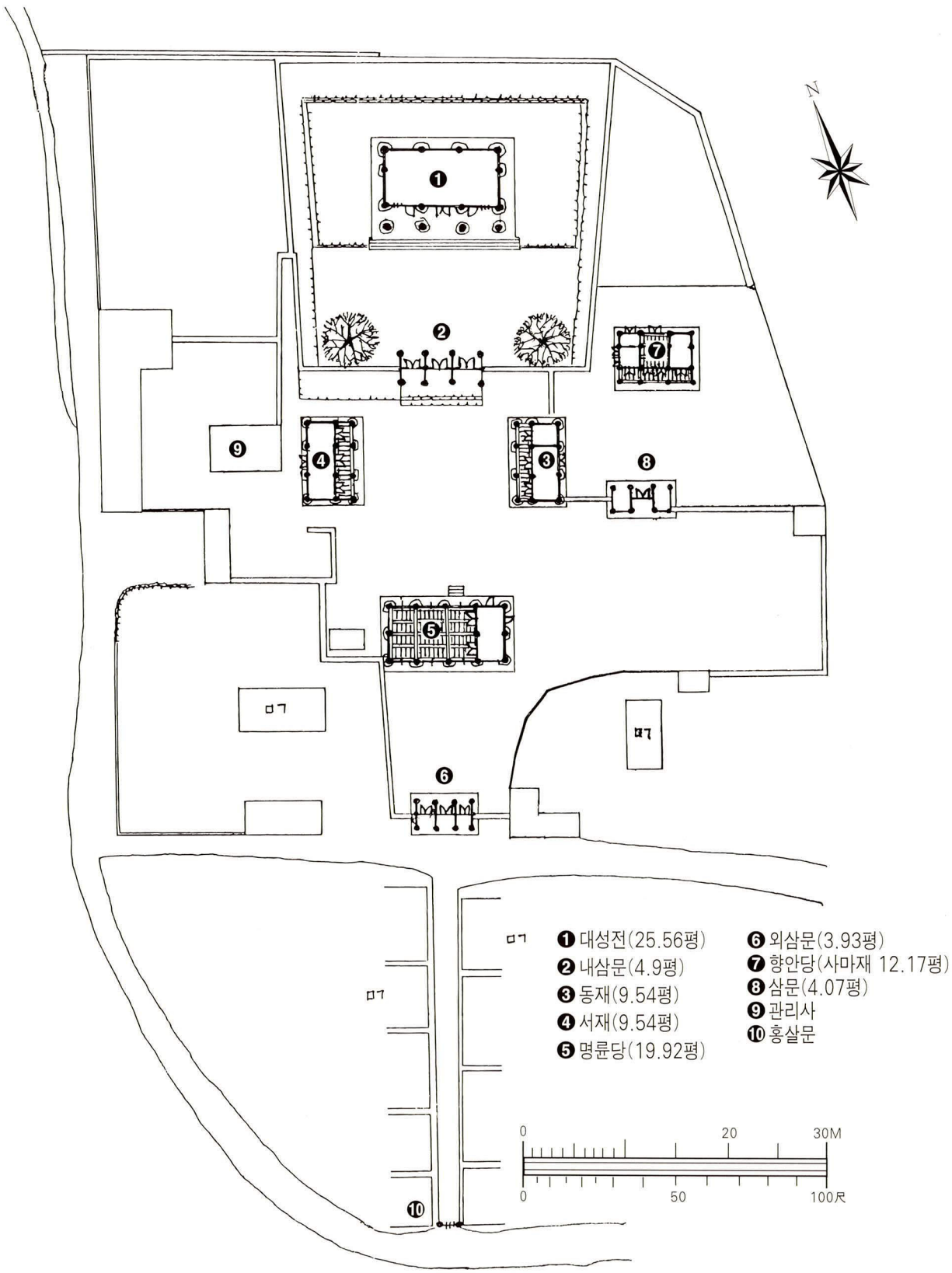


118. 高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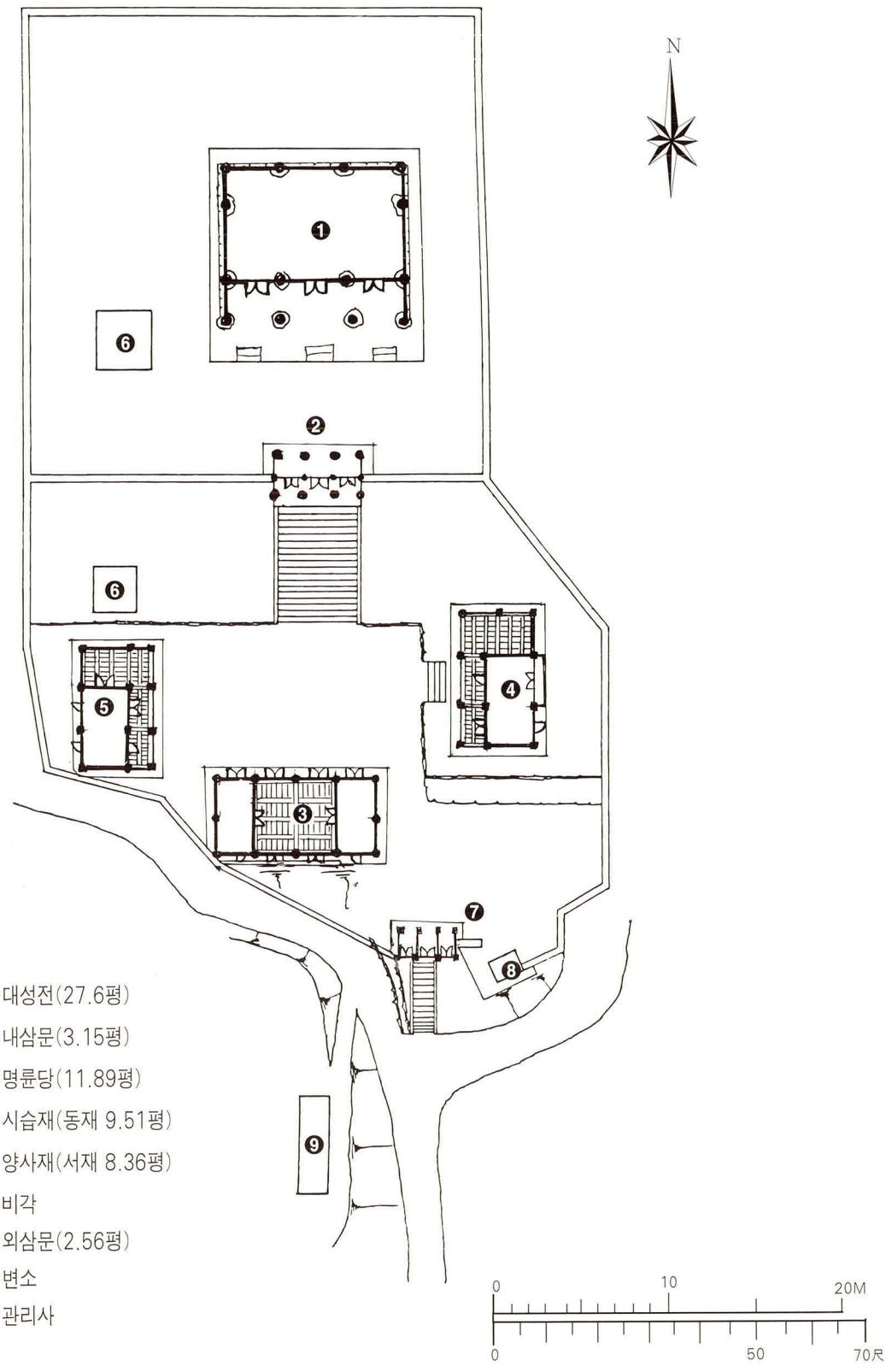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23.18평)
❹ 동재
❺ 서재
❻ 관리사
❼ 성묘(6.2평)
❽ 신문(2.88평)
❾ 외삼문(6.64평)
❿ 변소
⓫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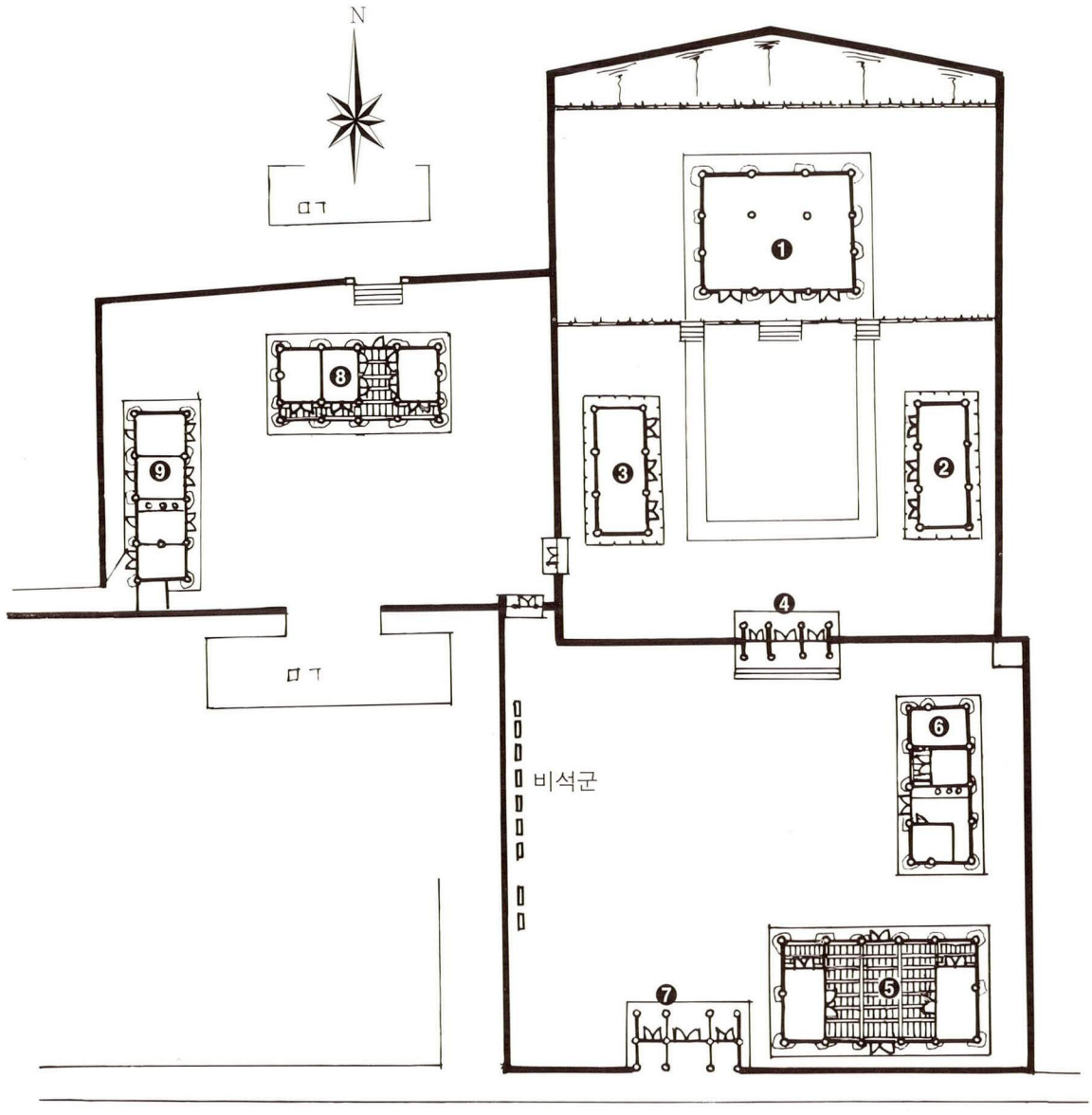
119. 鎭安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5.56평)
❷ 내삼문(4.9평)
❸ 동재(9.54평)
❹ 서재(9.54평)
❺ 명륜당(19.92평)
❻ 외삼문(3.93평)
❼ 향안당(사마재 12.17평)
❽ 삼문(4.07평)
❾ 관리사
❿ 홍살문
0 20 30M
0 50 100尺

120. 龍潭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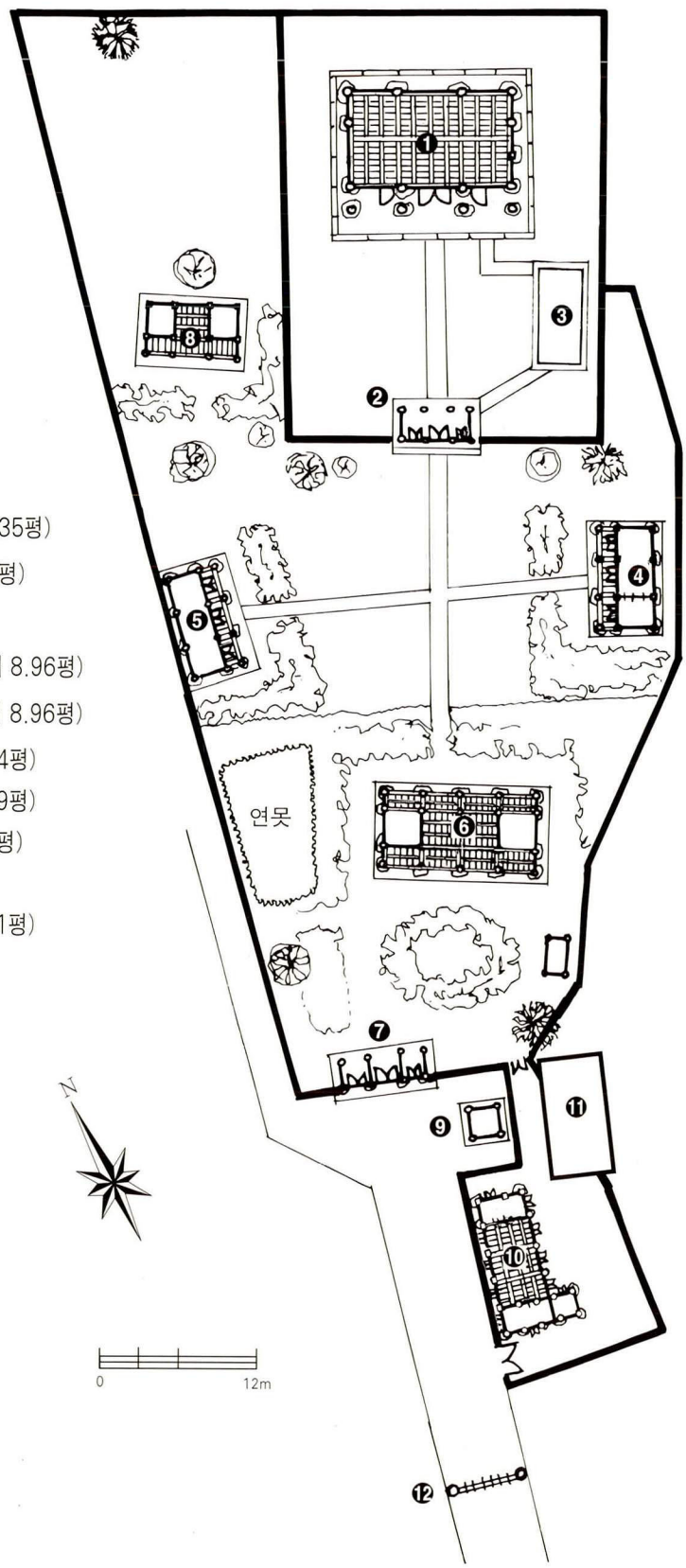

N
❶ 대성전(27.6평)
❷ 내삼문(3.15평)
❸ 명륜당(11.89평)
❹ 시습재(동재 9.51평)
❺ 양사재(서재 8.36평)
❻ 비각
❼ 외삼문(2.56평)
❽ 변소
❾ 관리사
0 10 20M
0 50 70尺

121. 茂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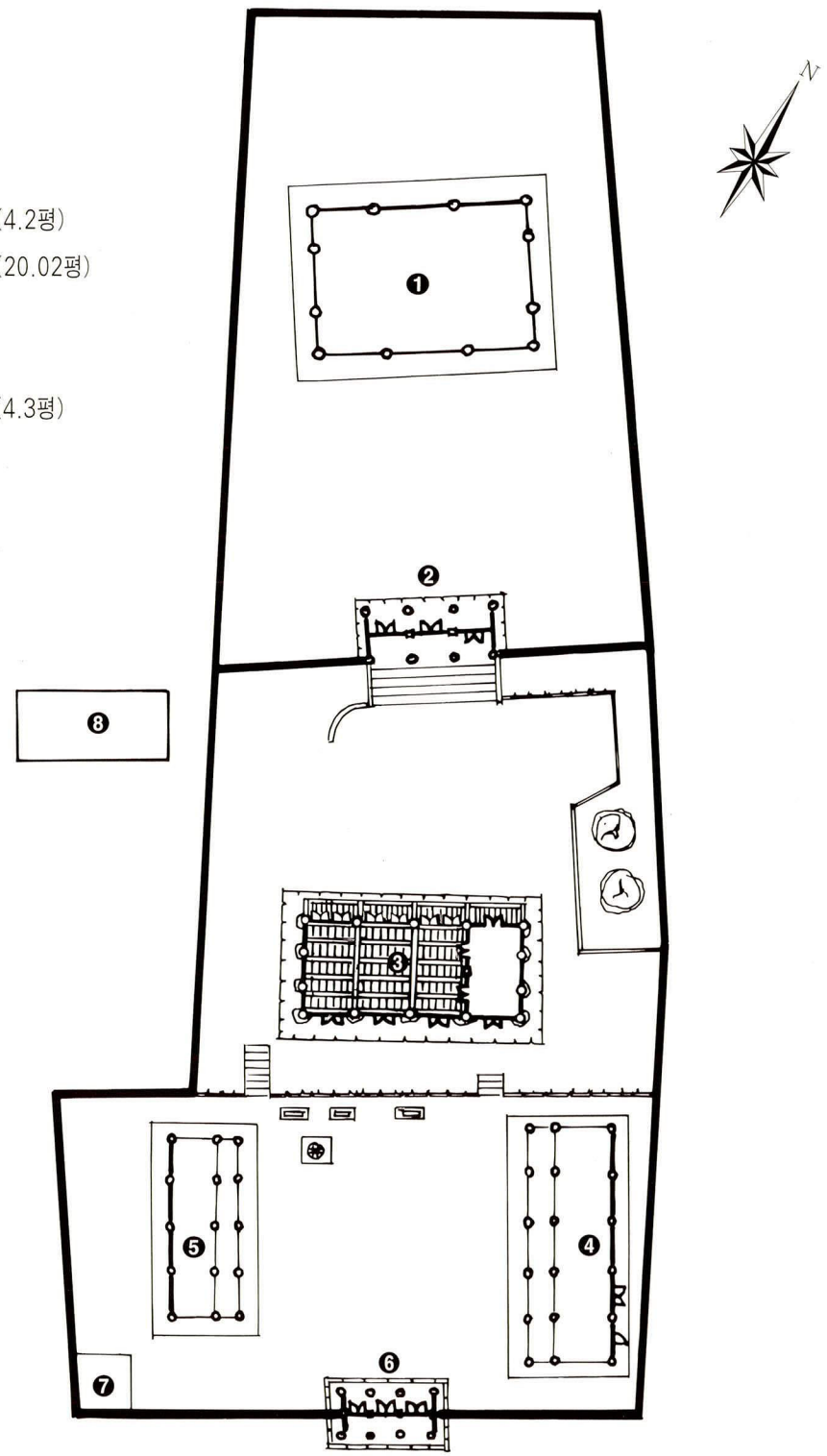
❶ 대성전(23.4평)
❷ 동무(8.09평)
❸ 서무(8.09평)
❹ 내삼문(3.45평)
❺ 명륜당(24.78평)
❻ 동재(10.89평)
❼ 외삼문(7.19평)
❽ 양사재(15.1평)
❾ 고직사(10.45평)

122. 長水 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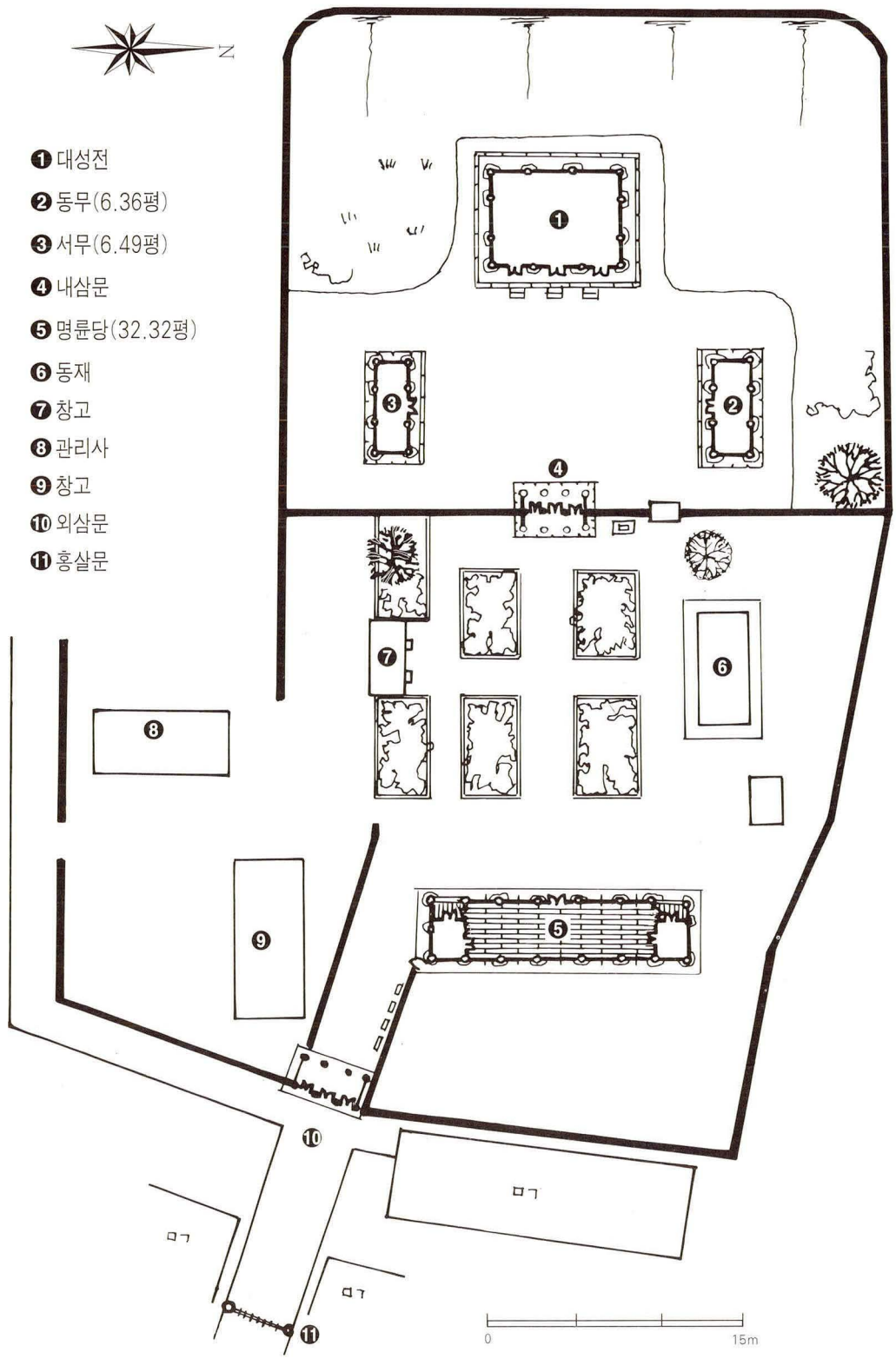

❶ 대성전(29.35평)
❷ 내삼문(3.4평)
❸ 전사청
❹ 동재(경성재 8.96평)
❺ 서재(진덕재 8.96평)
❻ 명륜당(17.4평)
❼ 외삼문(4.99평)
❽ 사마재(7.7평)
❾ 비각
❿ 관리사(19.1평)
⓫ 유림회관
⓬ 홍살문
연못
N
0
12m

123. 任實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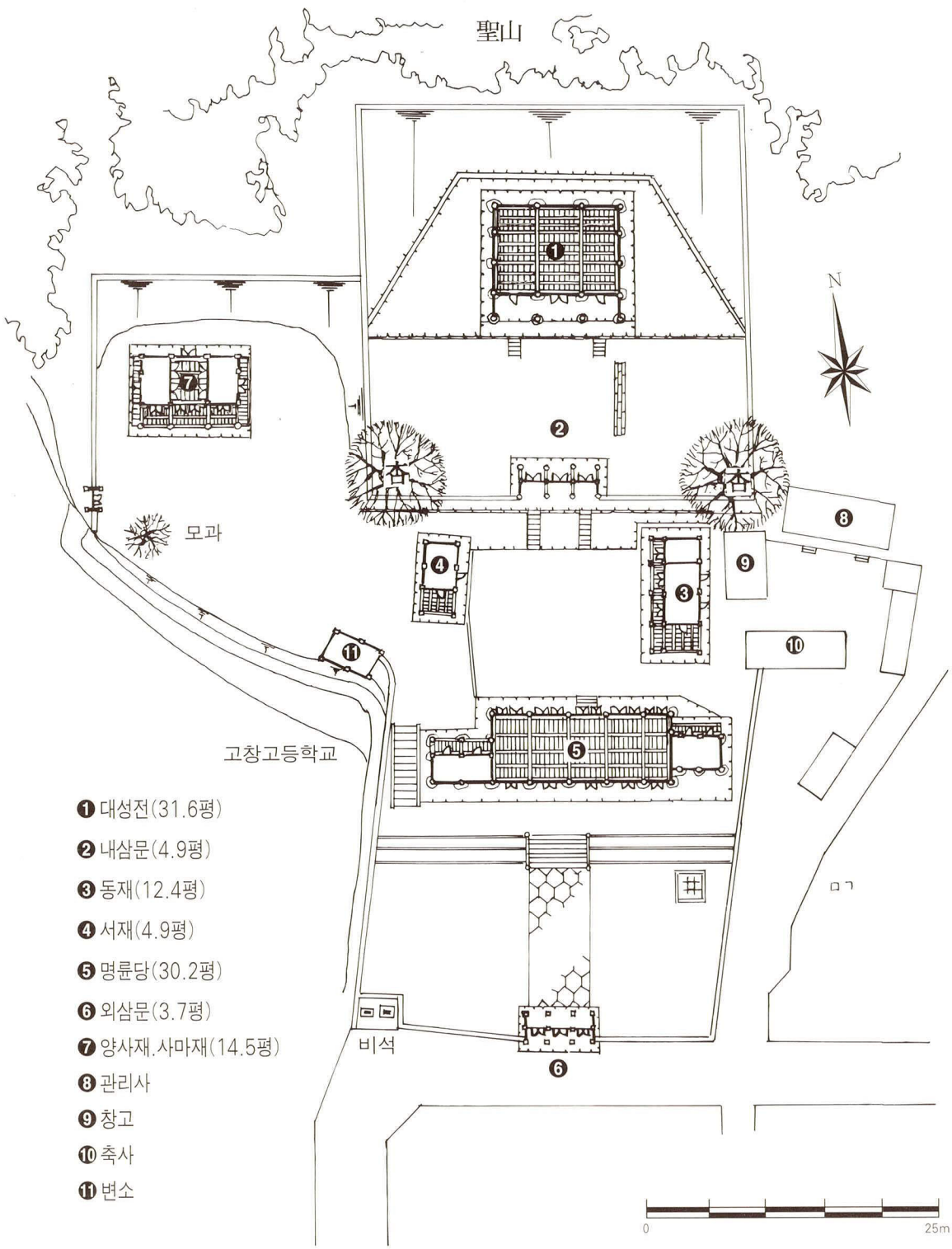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4.2평)
❸ 명륜당(20.02평)
❹ 동재
❺ 서재
❻ 외삼문(4.3평)
❼ 변소
❽ 관리사



124. 淳昌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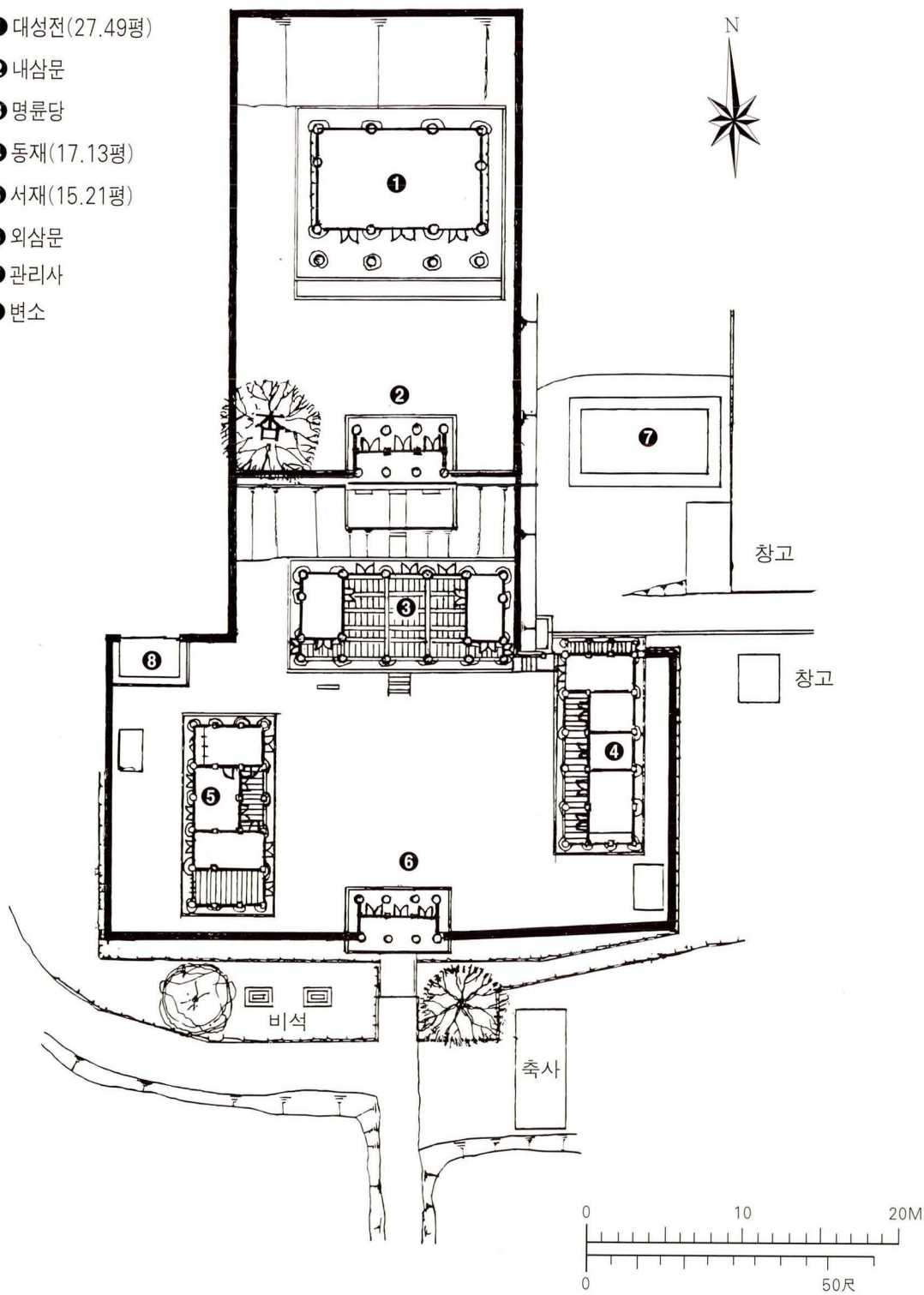

N
❶ 대성전
❷ 동무(6.36평)
❸ 서무(6.49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32.32평)
❻ 동재
❼ 창고
❽ 관리사
❾ 창고
❿ 외삼문
⓫ 홍살문
0
15m

125. 高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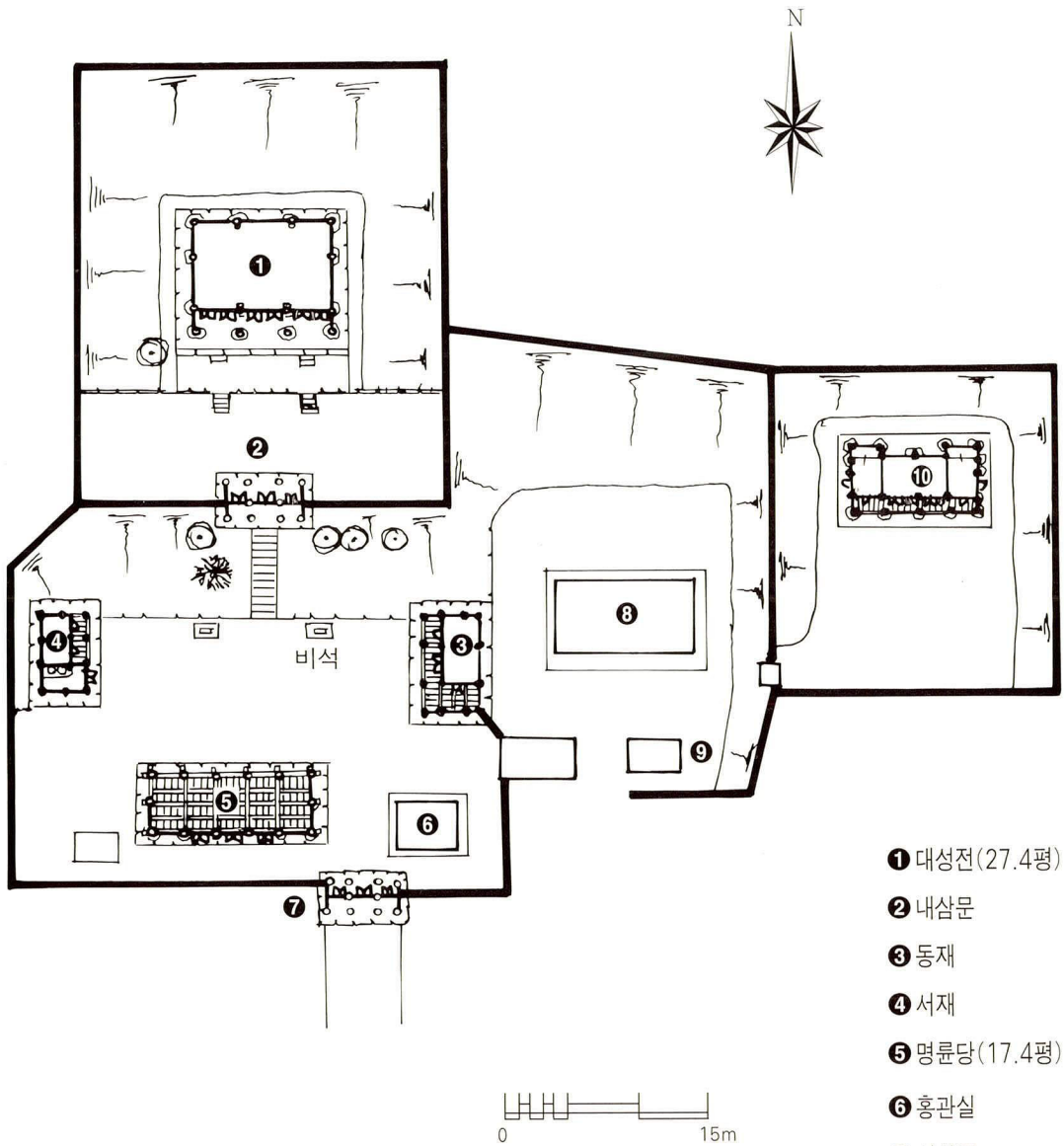

聖山
N
모과
고창고등학교
비석
0
25m
❶ 대성전(31.6평)
❷ 내삼문(4.9평)
❸ 동재(12.4평)
❹ 서재(4.9평)
❺ 명륜당(30.2평)
❻ 외삼문(3.7평)
❼ 양사재.사마재(14.5평)
❽ 관리사
❾ 창고
❿ 축사
⓫ 변소

126. 茂長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7.49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17.13평)
❺ 서재(15.21평)
❻ 외삼문
❼ 관리사
❽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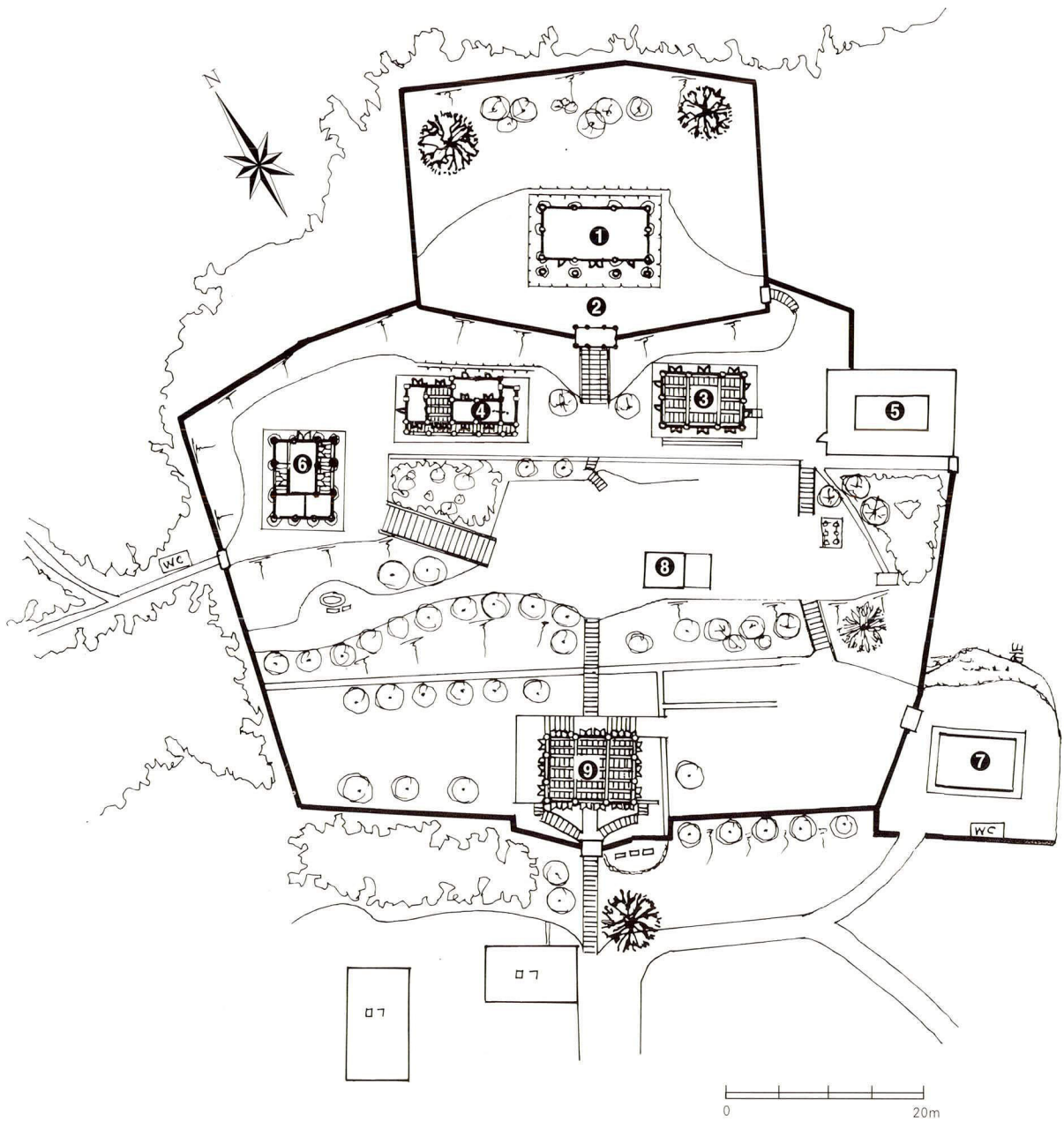


127. 興德 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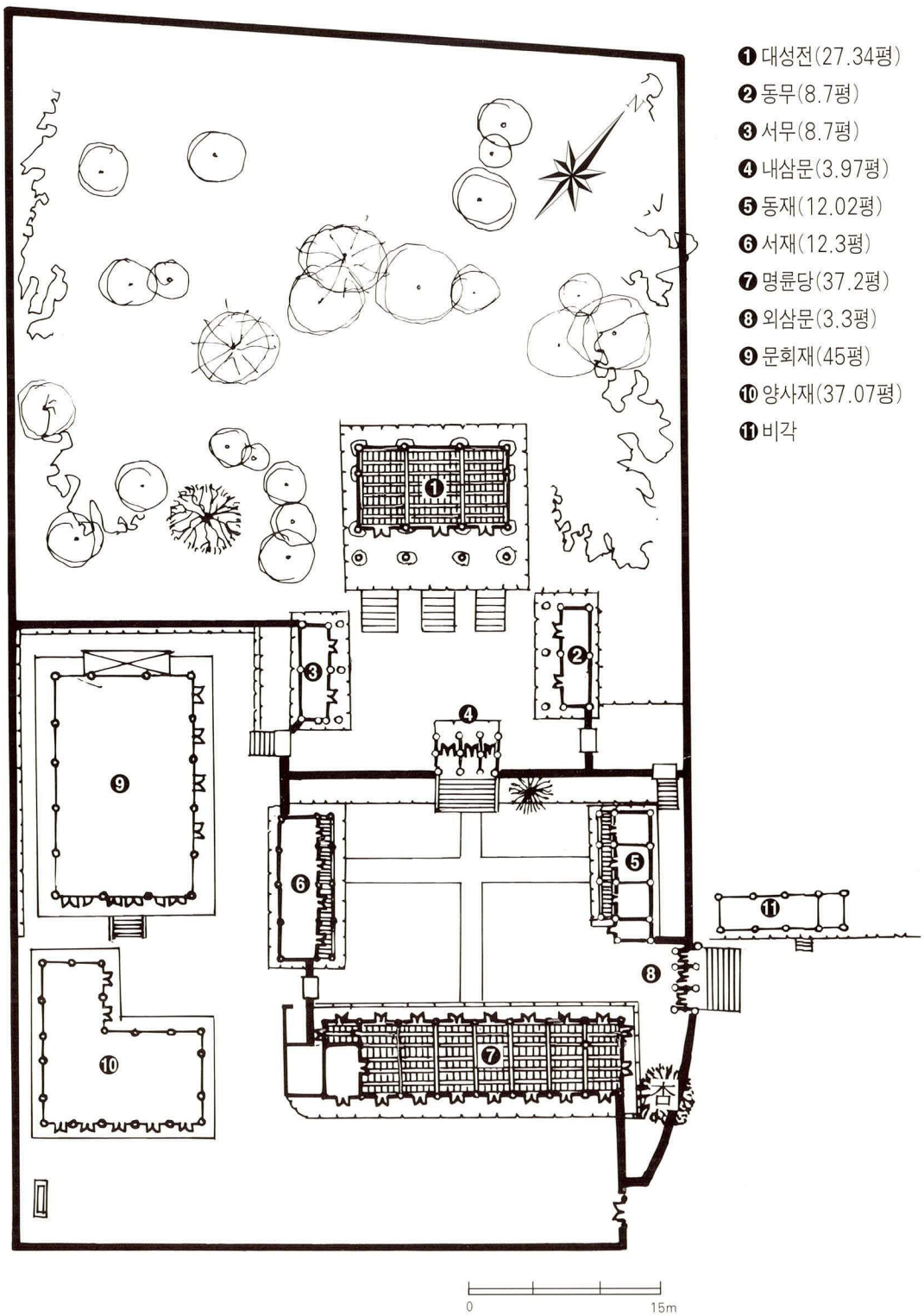
❶ 대성전(27.4평)
❷ 내삼문
❸ 동재
❹ 서재
❺ 명륜당(17.4평)
❻ 홍관실
❼ 외삼문
❽ 고직사
❾ 창고
❿ 양사재(14.97평)

128. 扶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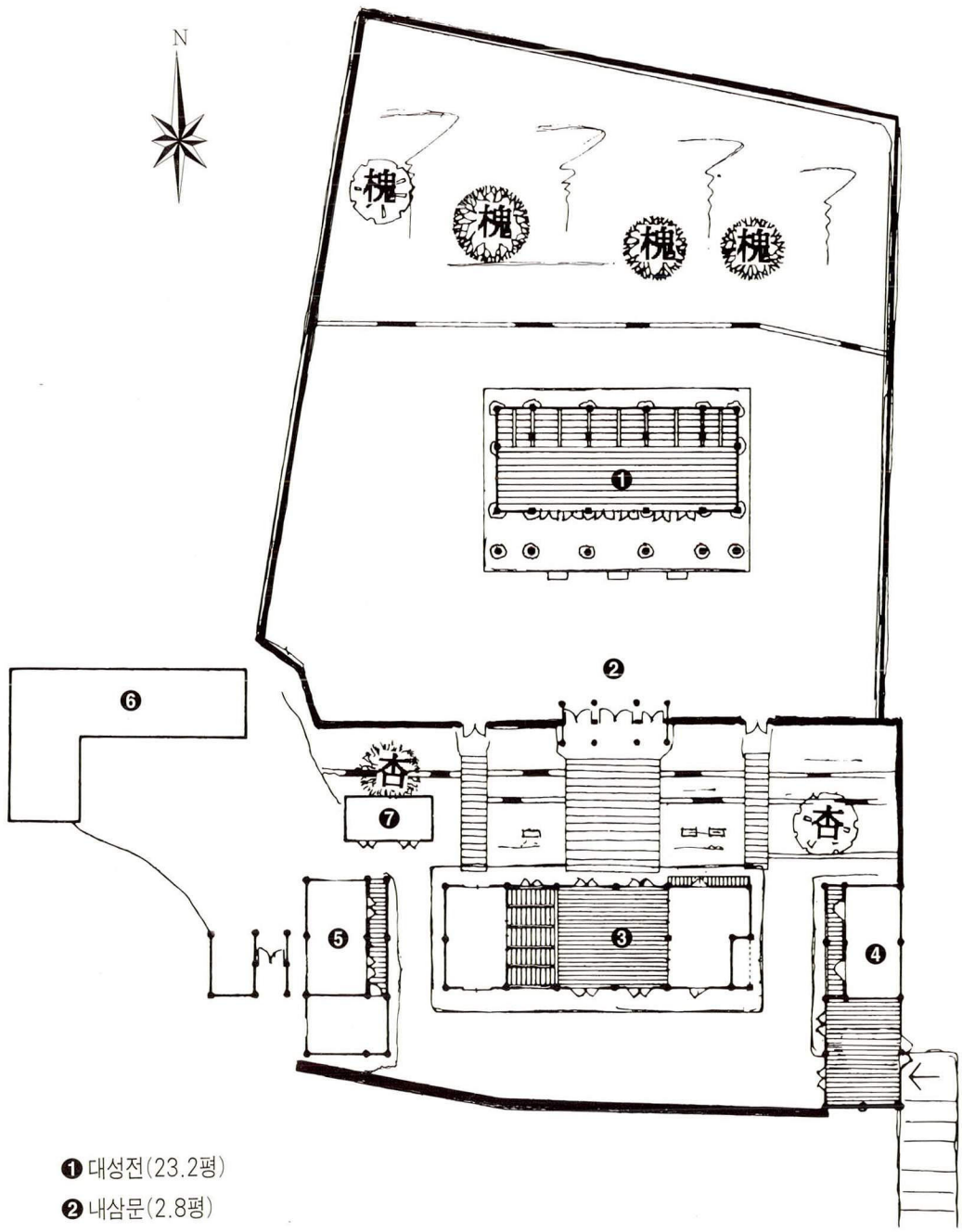


❶ 대성전(23.85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14.25평)
❹ 진덕재(17.04평)
❺ 전사각
❻ 종의재(15.24평)
❼ 관리사
❽ 헛간
❾ 만화루(19.59평)

129. 光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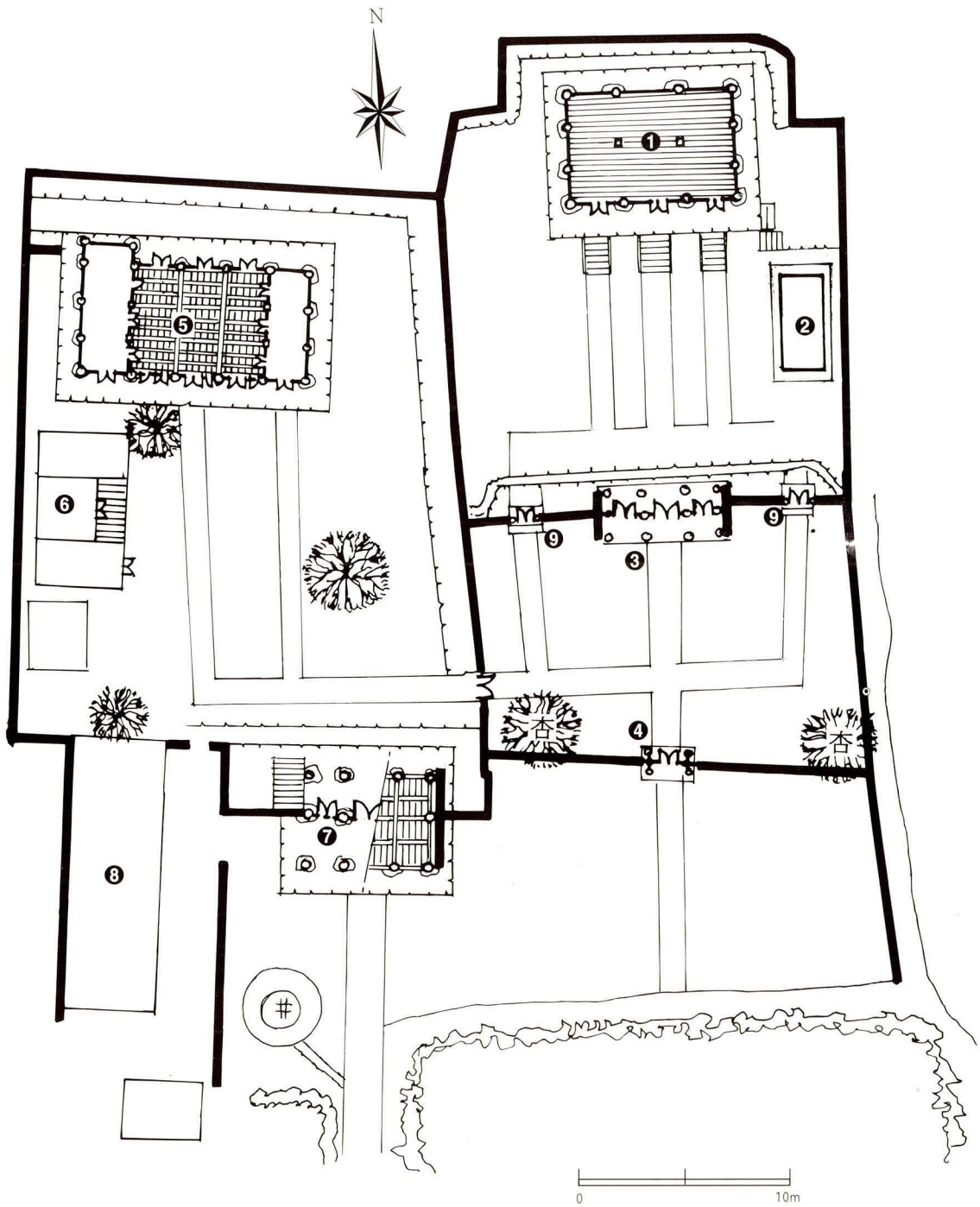

❶ 대성전(27.34평)
❷ 동무(8.7평)
❸ 서무(8.7평)
❹ 내삼문(3.97평)
❺ 동재(12.02평)
❻ 서재(12.3평)
❼ 명륜당(37.2평)
❽ 외삼문(3.3평)
❾ 문회재(45평)
❿ 양사재(37.07평)
⓫ 비각
杏
0
15m

130. 麗水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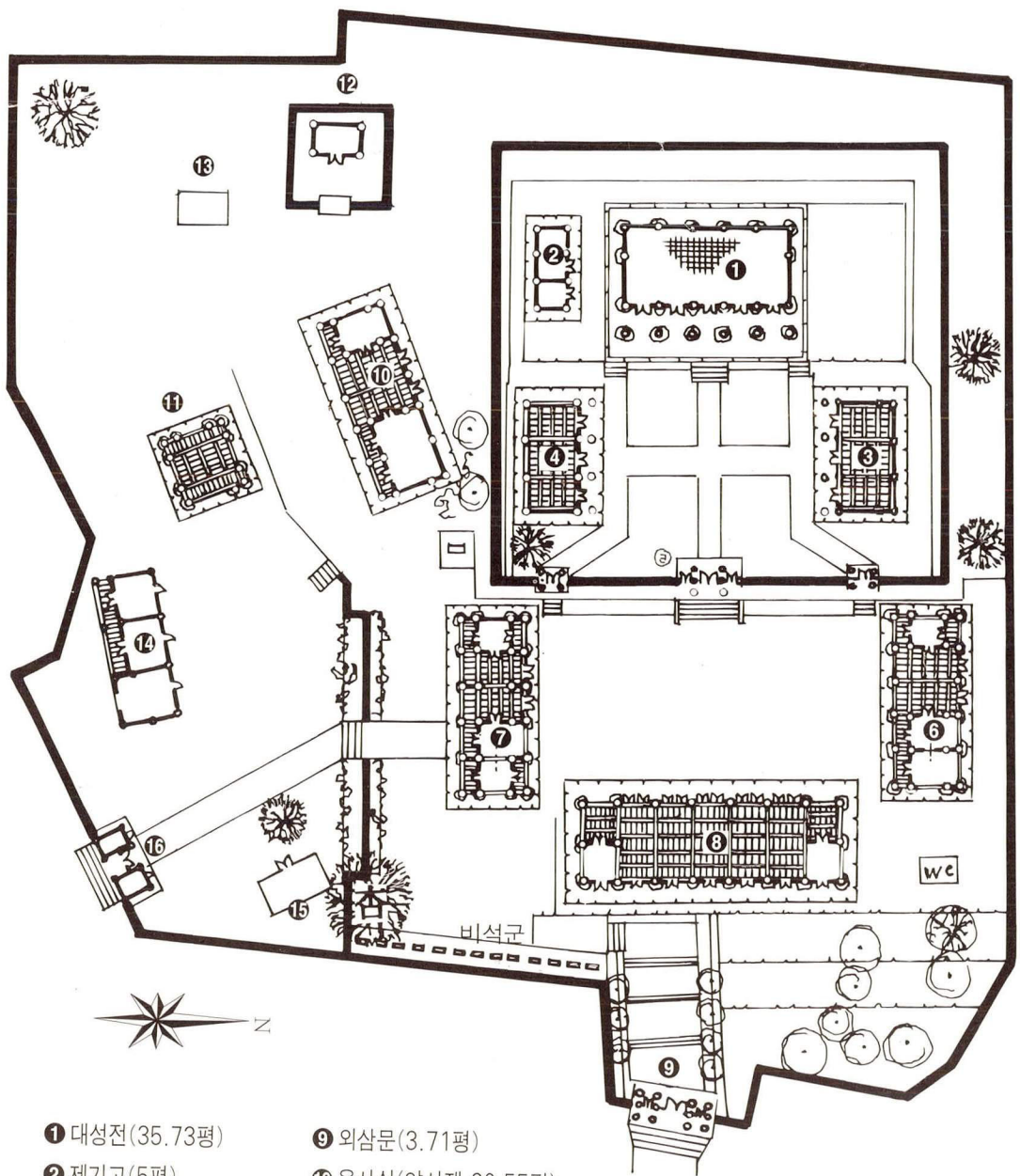
❶ 대성전(23.2평)
❷ 내삼문(2.8평)
❸ 명륜당(21.9평)
❹ 동재 · 풍화루(11.7평)
❺ 서재(9평)
❻ 고직사
❼ 창고

131. 突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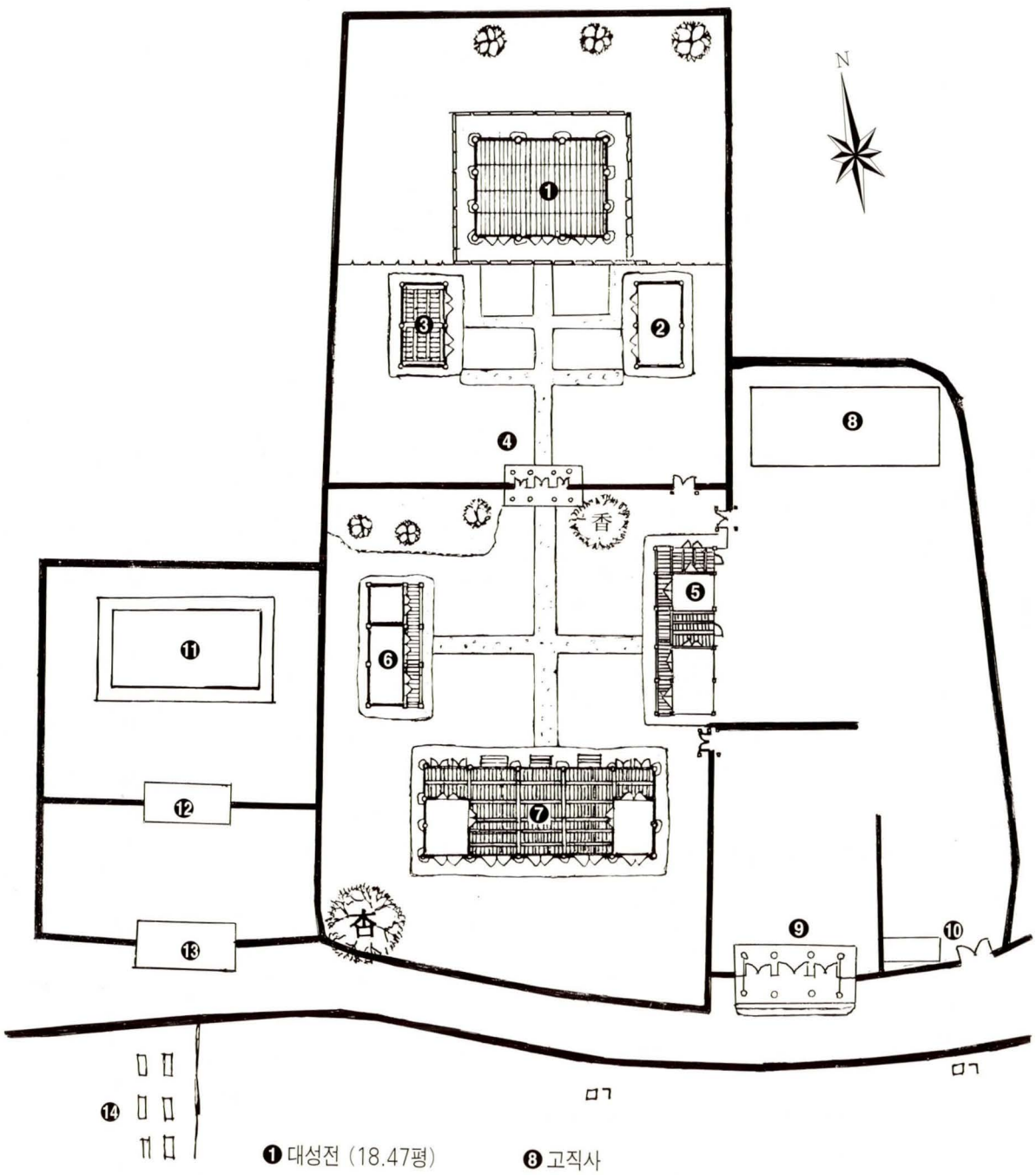
❶ 대성전(14.2평)
❷ 제기고
❸ 내신문(4.3평)
❹ 외신문
❺ 명륜당(19.4평)
❻ 창고
❼ 풍화루(9.22평)
❽ 관리사
❾ 신협문(2개소)

132. 順天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35.73평)
❷ 제기고(5평)
❸ 동무(11.4평)
❹ 서무(11.4평)
❺ 내삼문(3개소)
❻ 동재(23.67평)
❼ 서재(23.67평)
❽ 명륜당(41.62평)
❾ 외삼문(3.71평)
❿ 유사실(양사재 20.55평)
⓫ 풍화루(7.3평)
⓬ 사직단
⓭ 변소
⓮ 수호실
⓯ 창고
⓰ 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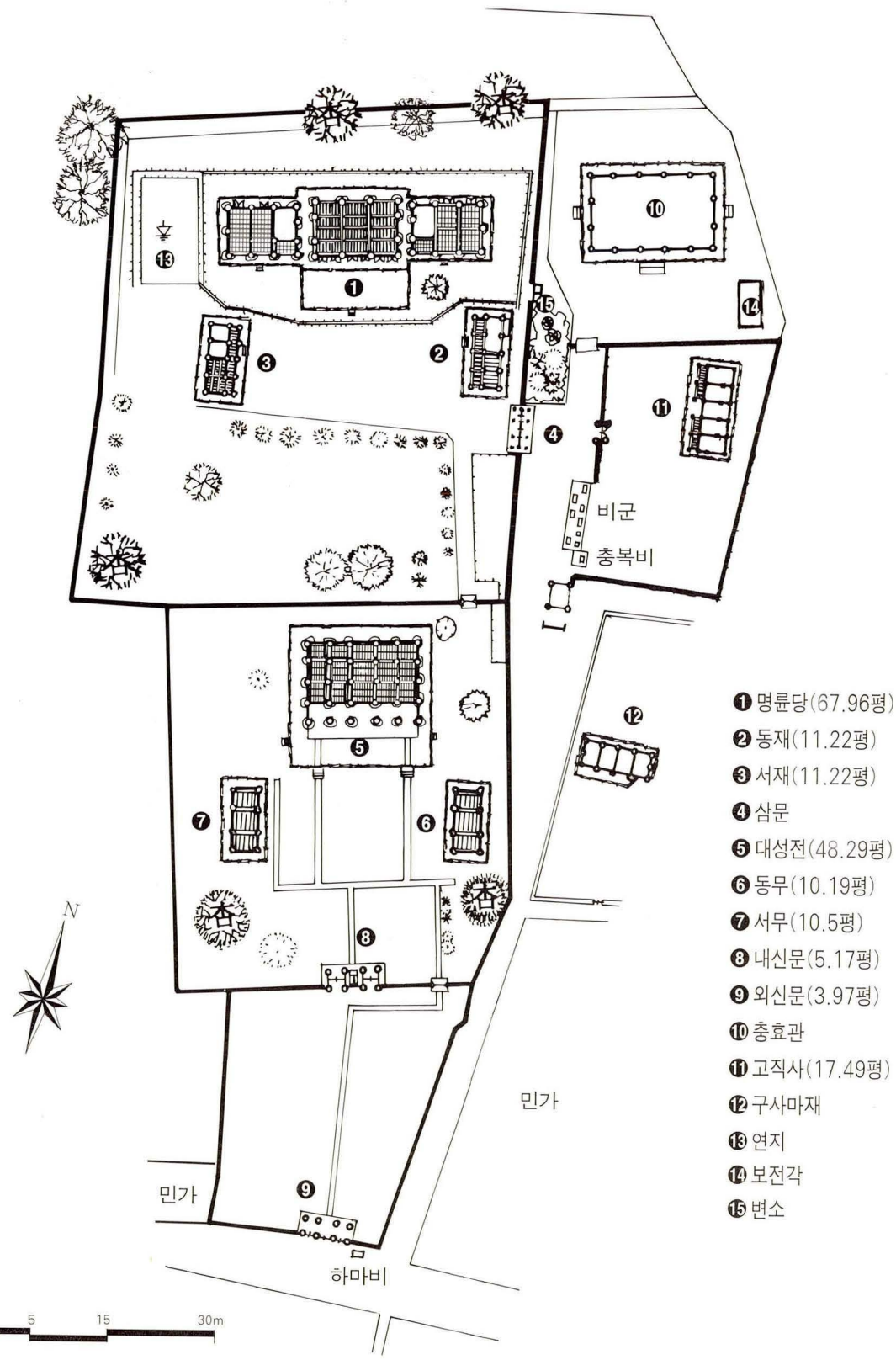
133. 樂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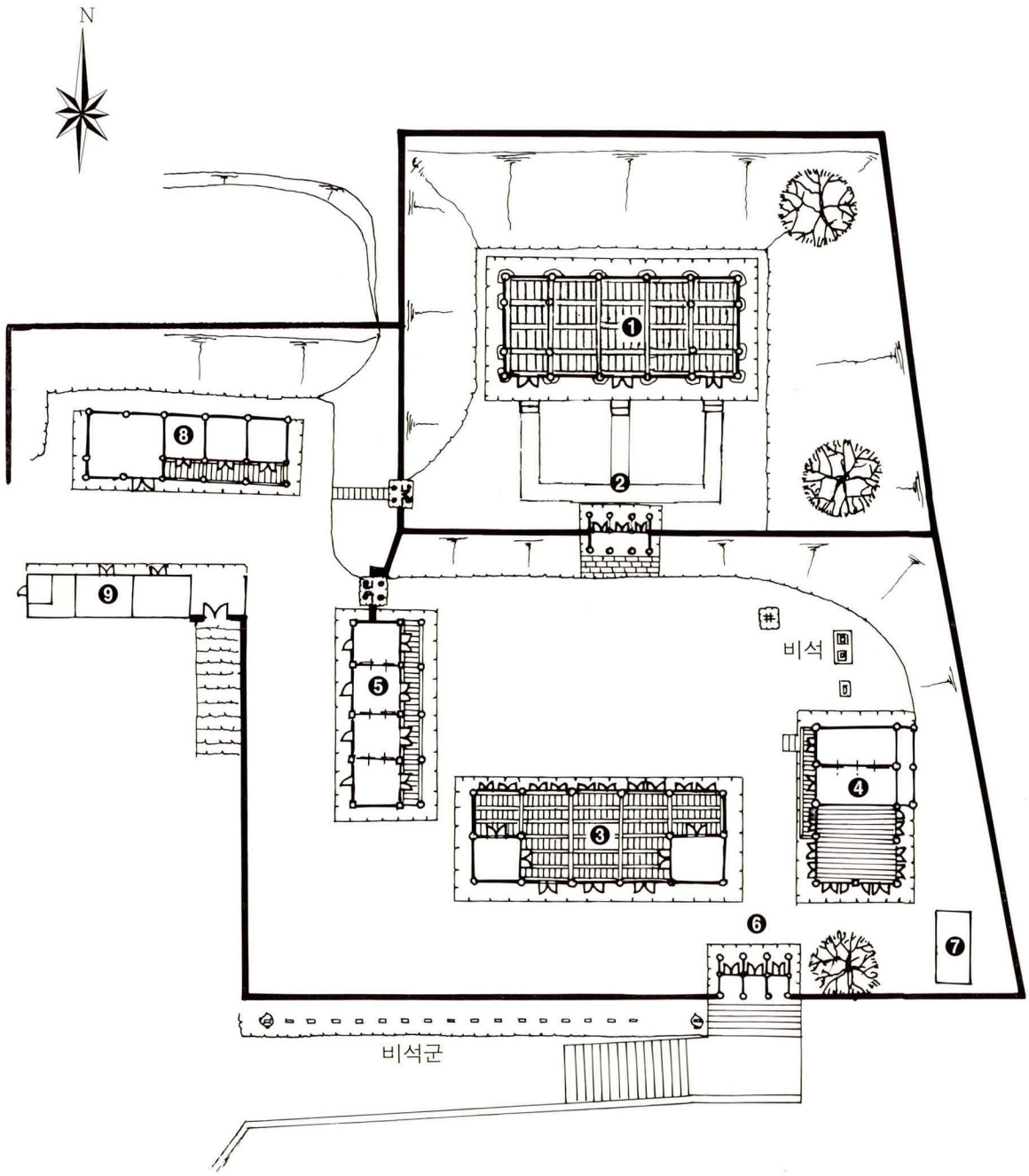
❶ 대성전 (18.47평)
❷ 동무(5.6평)
❸ 서무(5.6평)
❹ 내삼문(2.56평)
❺ 동재(13.75평)
❻ 서재(9.3평)
❼ 명륜당(32.11평)
❽ 고직사
❾ 외삼문(5.78평)
❿ 변소
⓫ 충민사
⓬ 상의문
⓭ 충민사 외삼문
⓮ 비석군

0 3 6 12m

134. 羅州鄕校 配置圖


비군
충복비
민가
민가
하마비
N
0 5 15 30m
❶ 명륜당(67.96평)
❷ 동재(11.22평)
❸ 서재(11.22평)
❹ 삼문
❺ 대성전(48.29평)
❻ 동무(10.19평)
❼ 서무(10.5평)
❽ 내신문(5.17평)
❾ 외신문(3.97평)
❿ 충효관
⓫ 고직사(17.49평)
⓬ 구사마재
⓭ 연지
⓮ 보전각
⓯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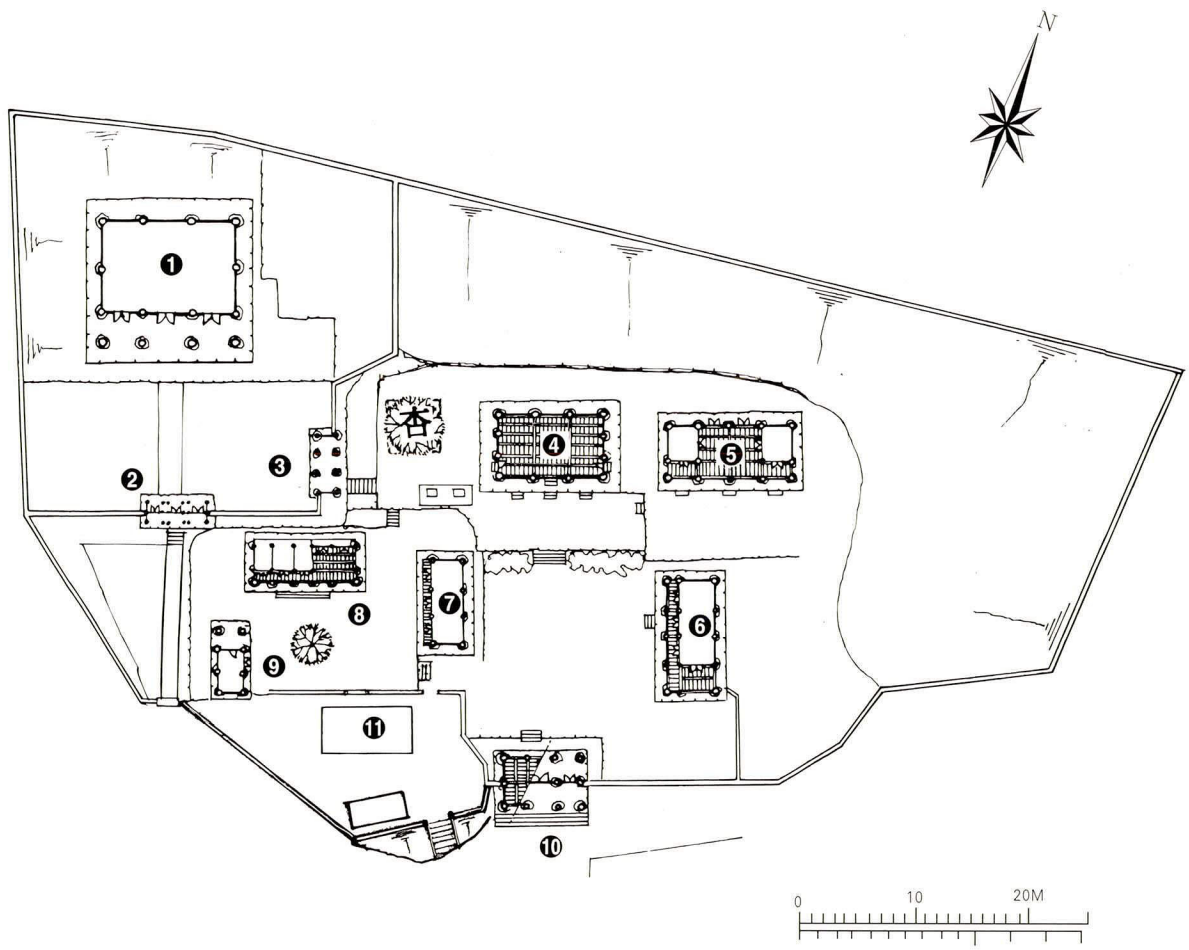
135. 南平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31.64평)
❷ 내삼문(2.62평)
❸ 명륜당(30.5평)
❹ 동재(10.2평)
❺ 서재(15.5평)
❻ 외삼문(2.9평)
❼ 변소
❽ 고직사(18평)
❾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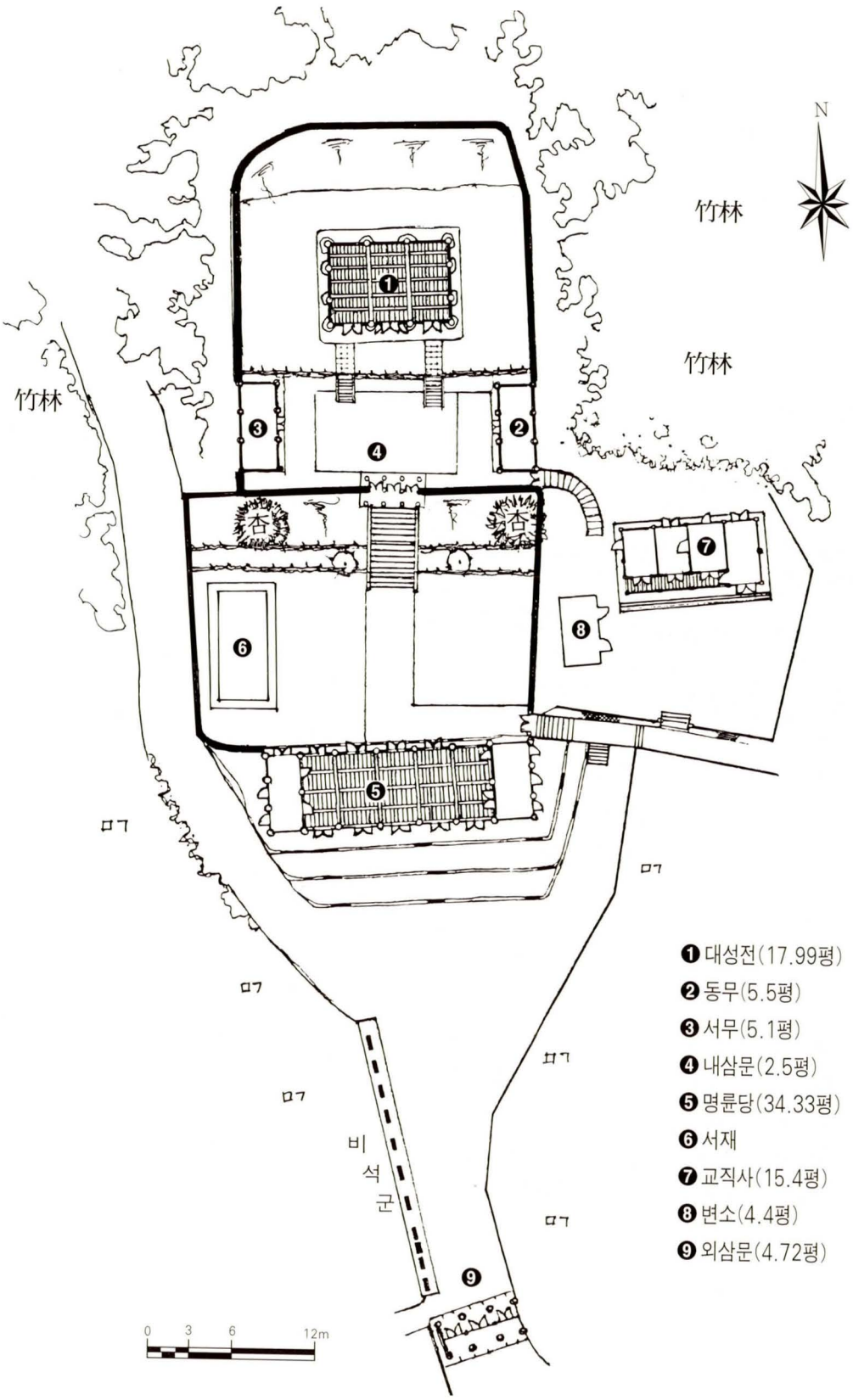
0 15m

136. 光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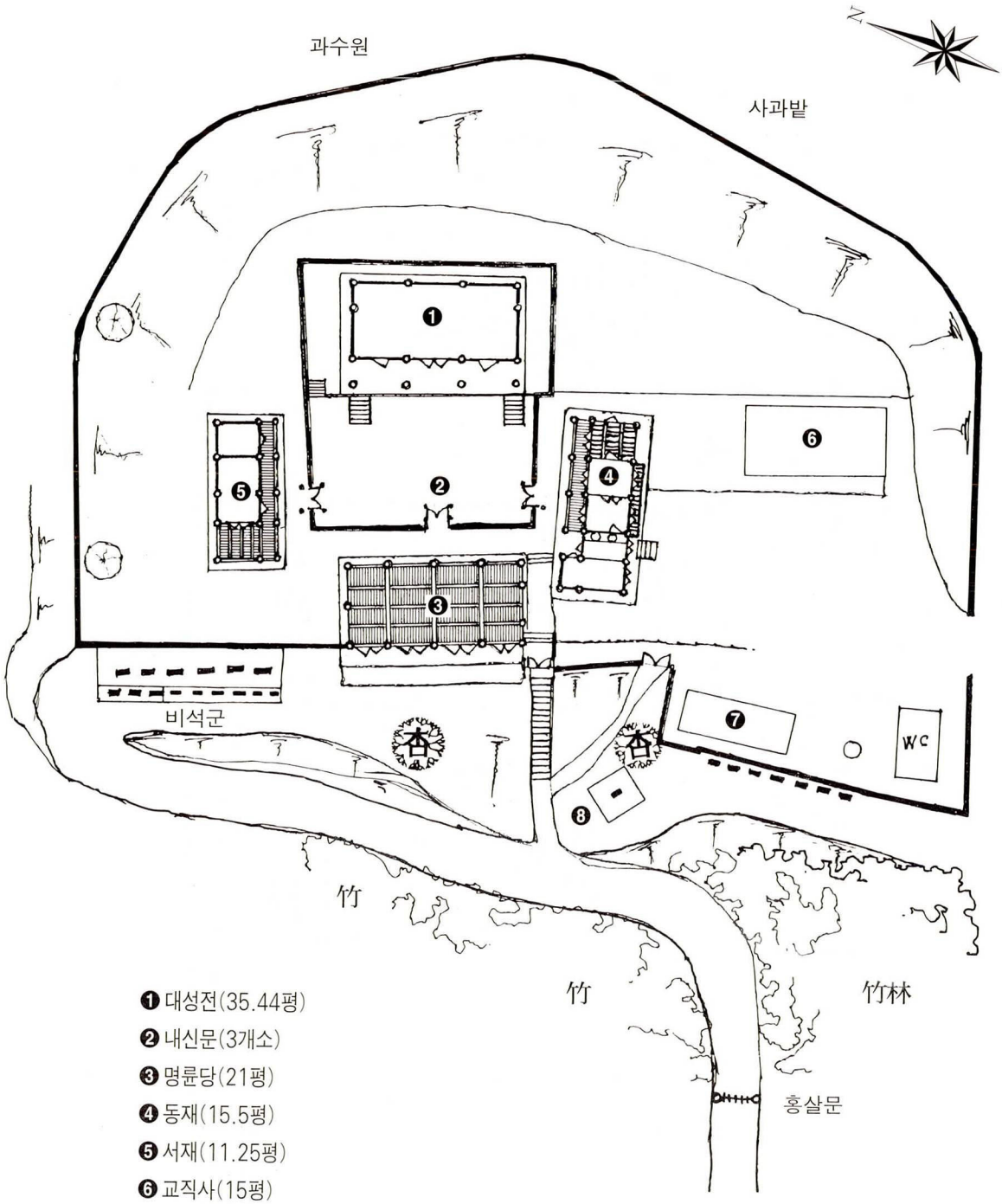


❶ 대성전(38.96평)
❷ 내삼문(3.2평)
❸ 측문(2.9평)
❹ 명륜당(19.24평)
❺ 상재(15.8평)
❻ 동재(12.91평)
❼ 서재(6.2평)
❽ 재실(17.9평)
❾ 제기고(6.2평)
❿ 풍화루(12.6)
⓫ 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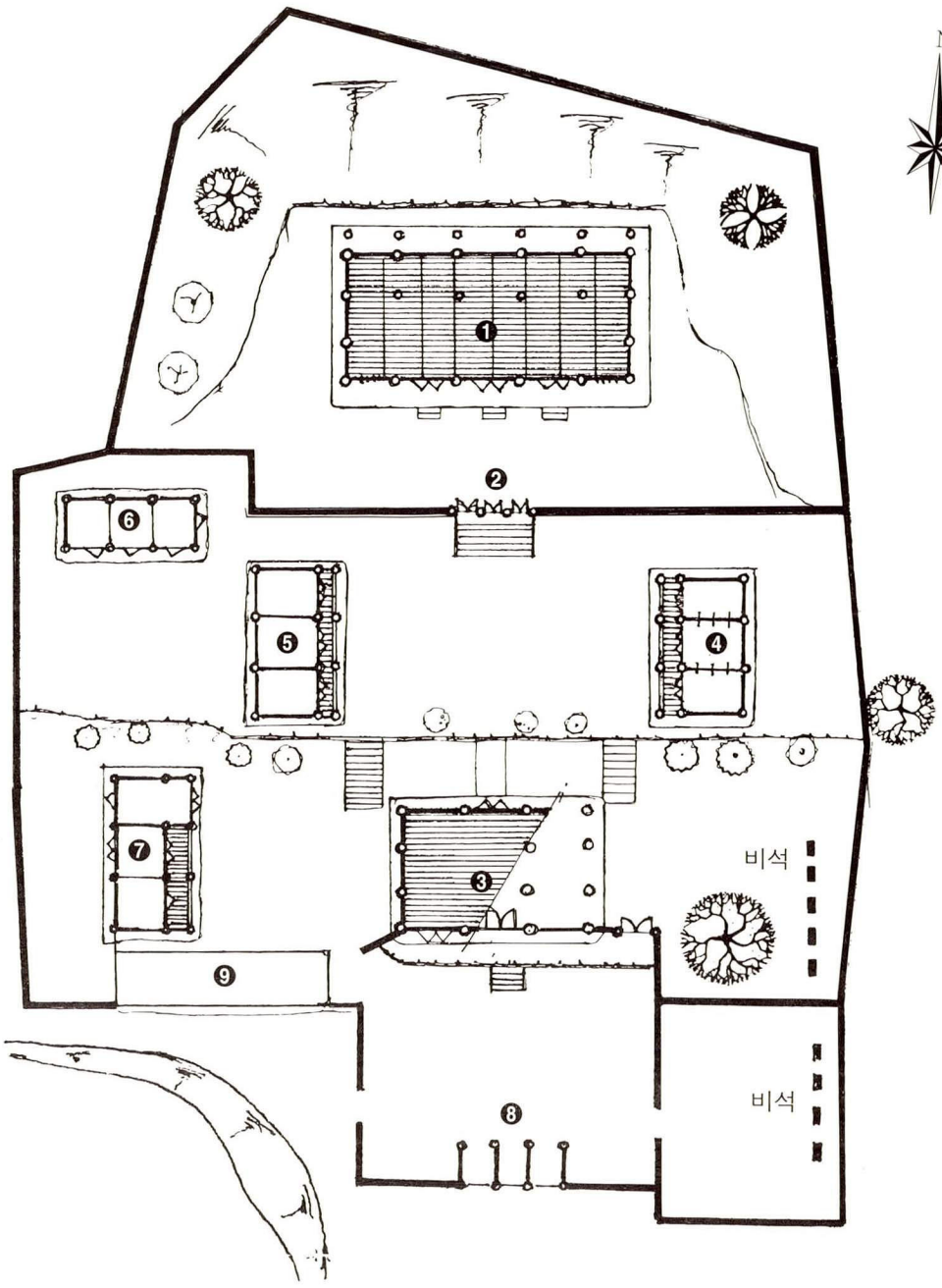
137. 潭陽鄕校 配置圖


N
竹林
竹林
竹林
杏
杏
비
석
군
0 3 6 12m
❶ 대성전(17.99평)
❷ 동무(5.5평)
❸ 서무(5.1평)
❹ 내삼문(2.5평)
❺ 명륜당(34.33평)
❻ 서재
❼ 교직사(15.4평)
❽ 변소(4.4평)
❾ 외삼문(4.72평)

138. 昌平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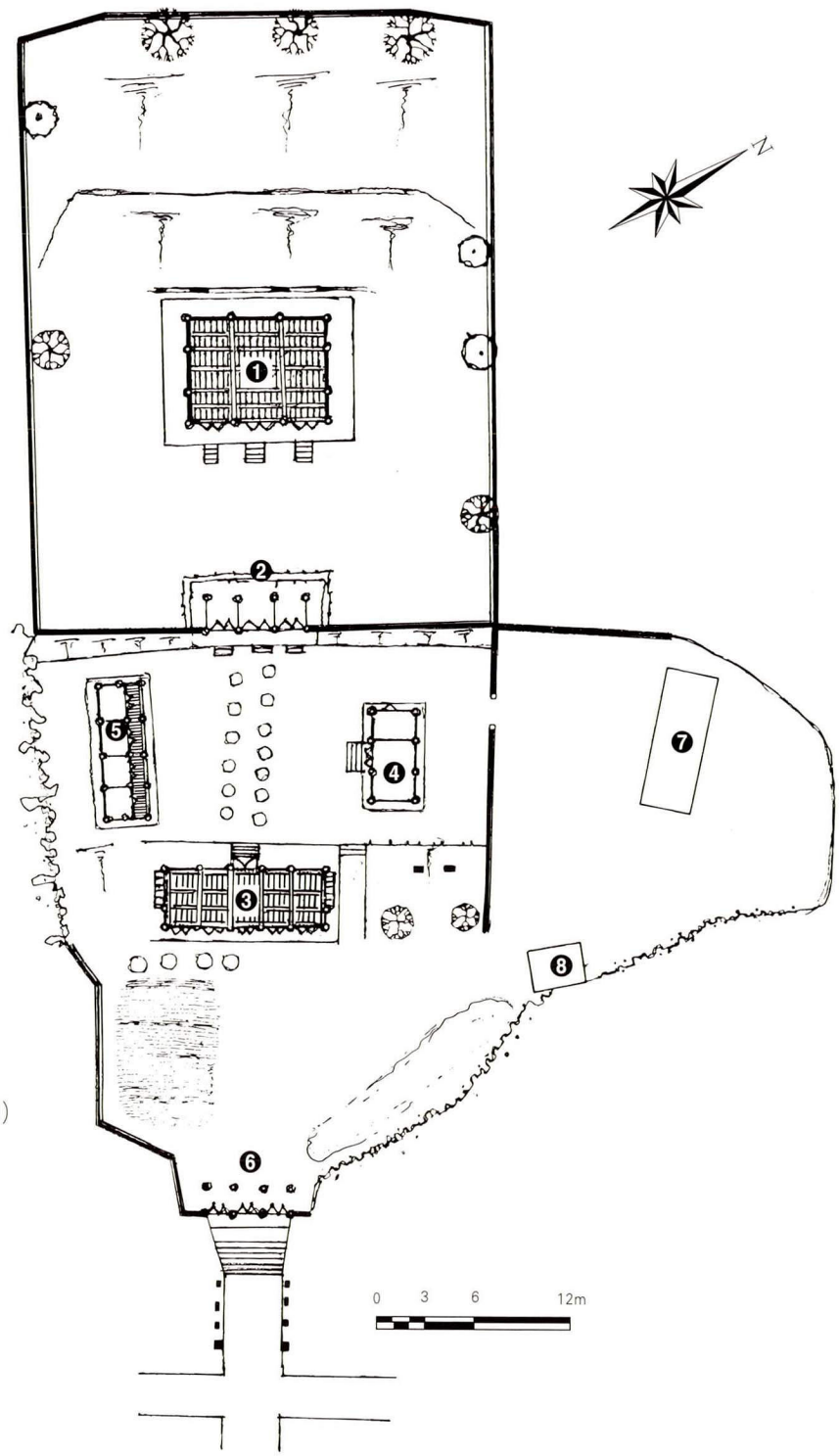

과수원
사과밭
비석군
竹
竹
竹林
WC
홍살문
❶ 대성전(35.44평)
❷ 내신문(3개소)
❸ 명륜당(21평)
❹ 동재(15.5평)
❺ 서재(11.25평)
❻ 교직사(15평)
❼ 창고
❽ 비각
0 3 6 9 12m

139. 谷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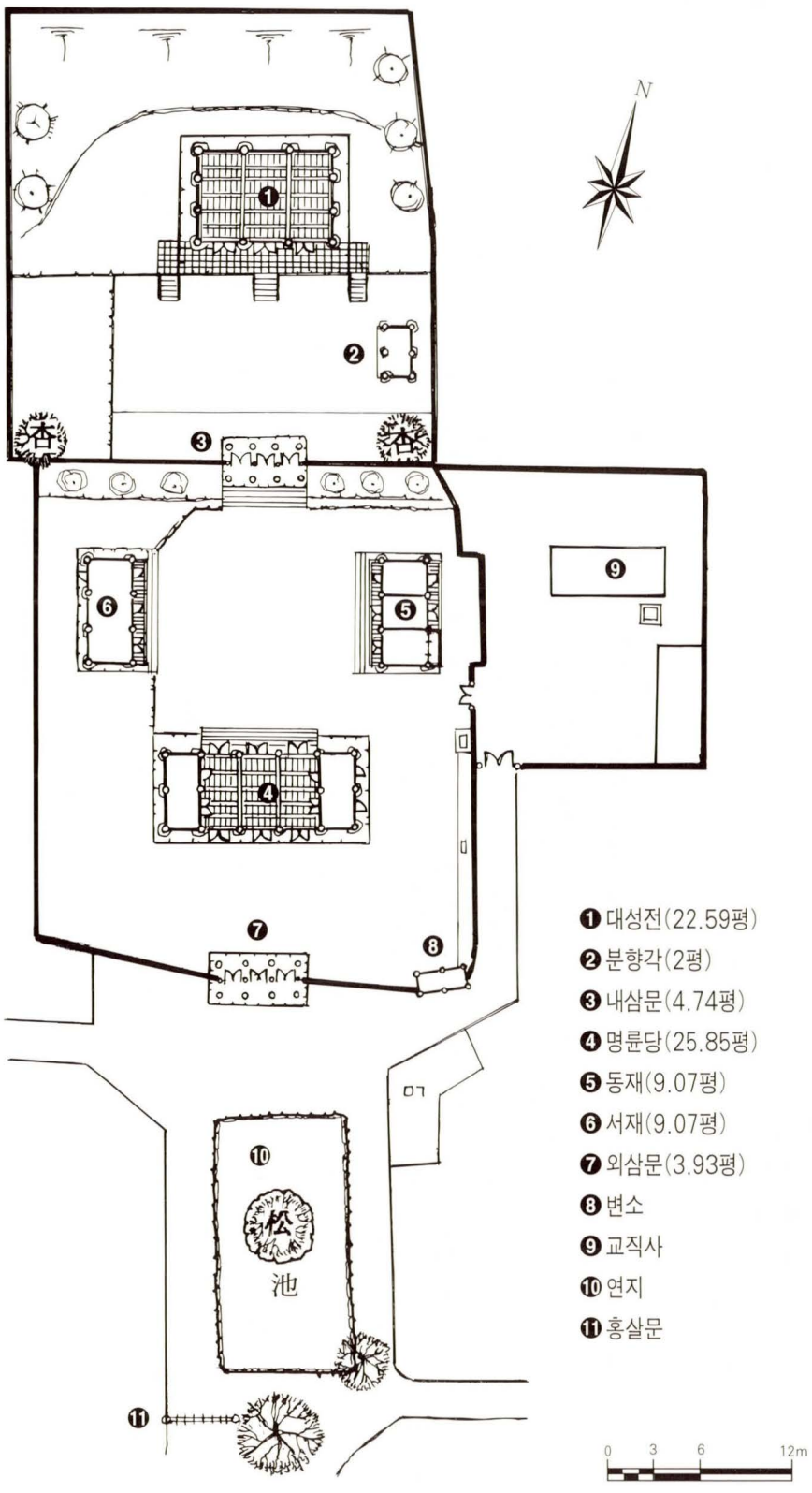
❶ 대성전(31.6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19.78평)
❹ 동재(10.7평)
❺ 서재(11평)
❻ 전사청(6평)
❼ 고직사(10.4평)
❽ 외삼문
❾ 유림관

140. 玉果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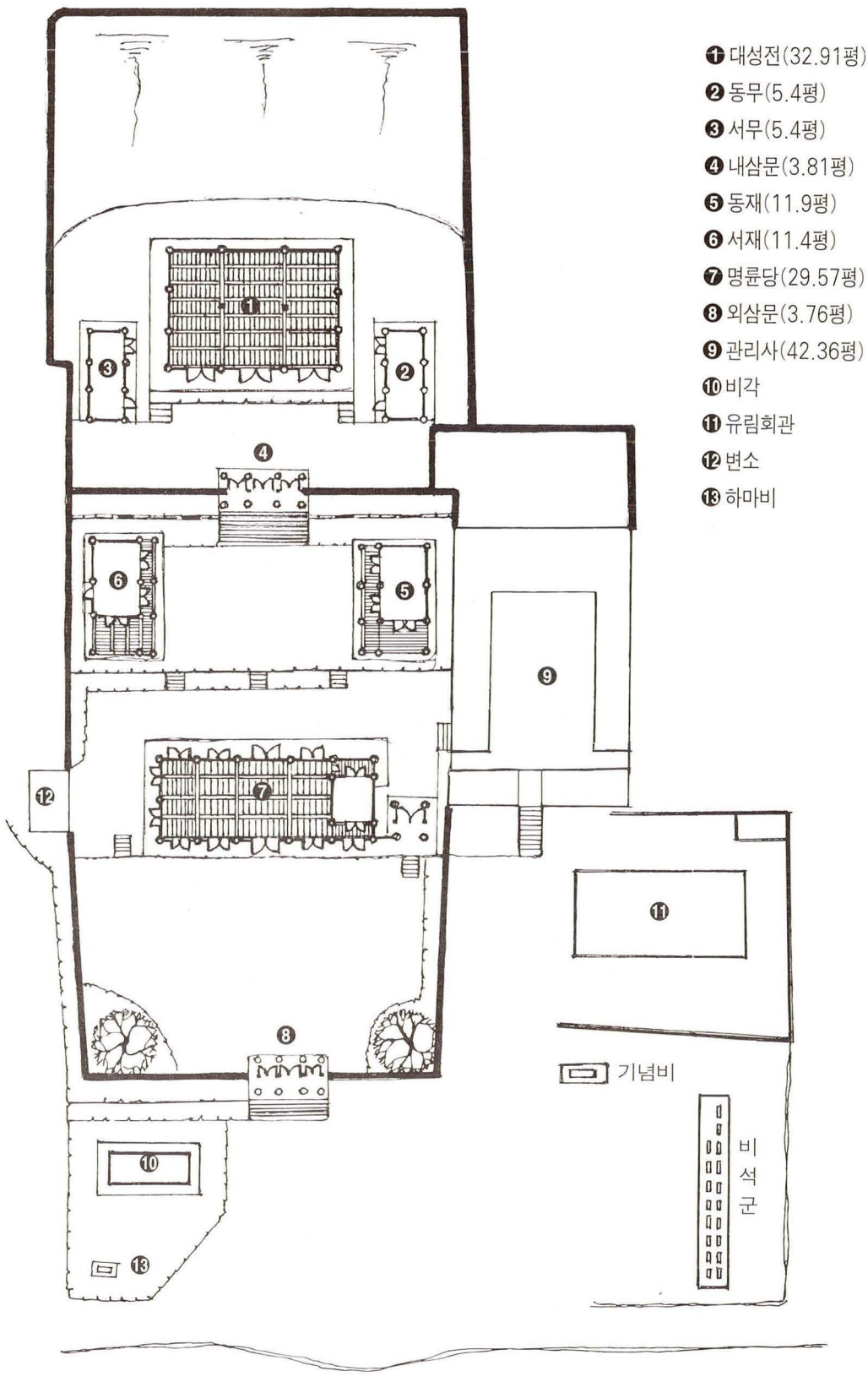
❶ 대성전(25.99평)
❷ 내삼문(6.3평)
❸ 명륜당(17.8평)
❹ 동재(7평)
❺ 서재(9.9평)
❻ 외삼문(4.53평)
❼ 고직사(12.9평)
❽ 변소

141. 求禮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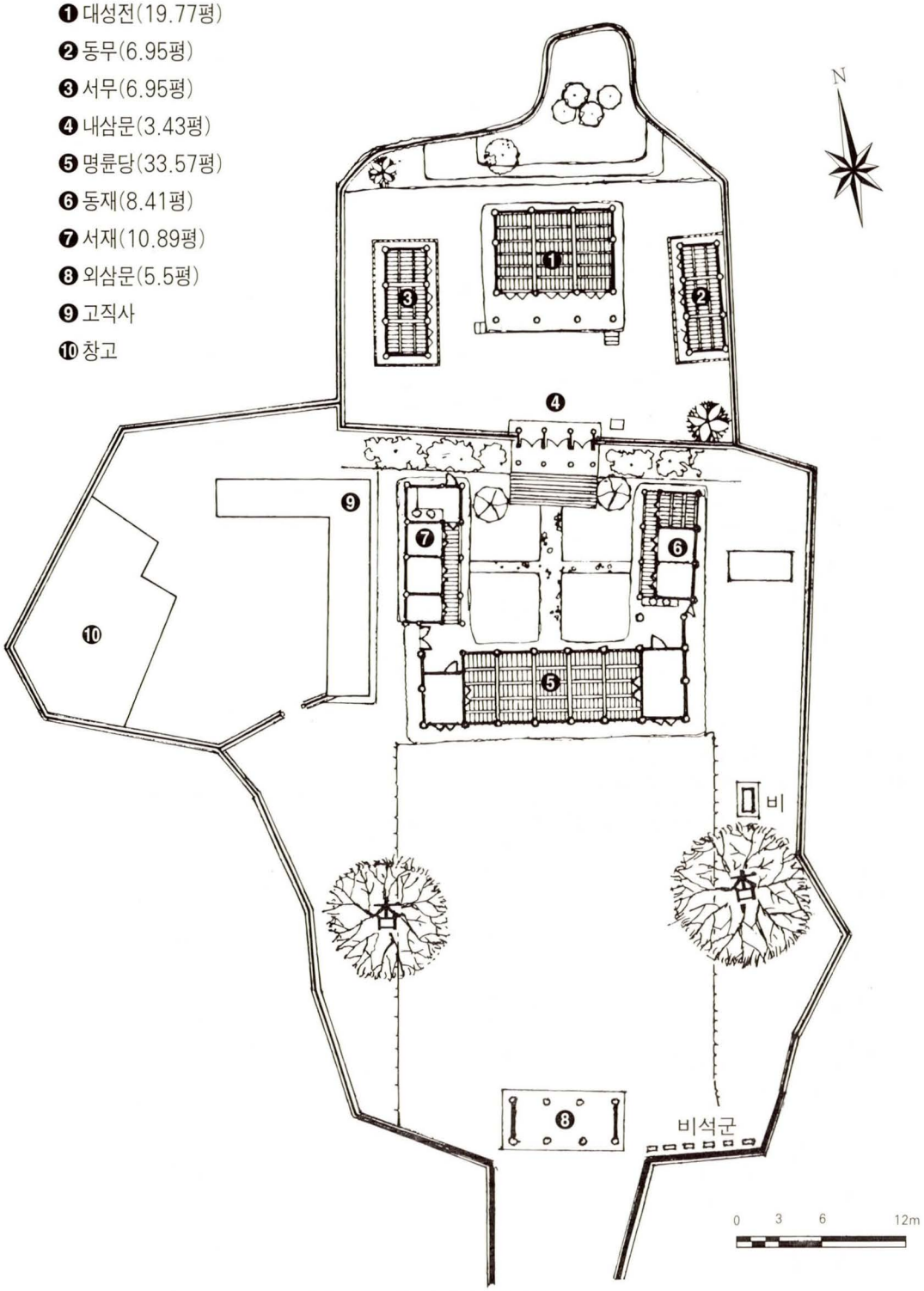
❶ 대성전(22.59평)
❷ 분향각(2평)
❸ 내삼문(4.74평)
❹ 명륜당(25.85평)
❺ 동재(9.07평)
❻ 서재(9.07평)
❼ 외삼문(3.93평)
❽ 변소
❾ 교직사
❿ 연지
⓫ 홍살문

142. 高興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32.91평)
❷ 동무(5.4평)
❸ 서무(5.4평)
❹ 내삼문(3.81평)
❺ 동재(11.9평)
❻ 서재(11.4평)
❼ 명륜당(29.57평)
❽ 외삼문(3.76평)
❾ 관리사(42.36평)
❿ 비각
⓫ 유림회관
⓬ 변소
⓭ 하마비
기념비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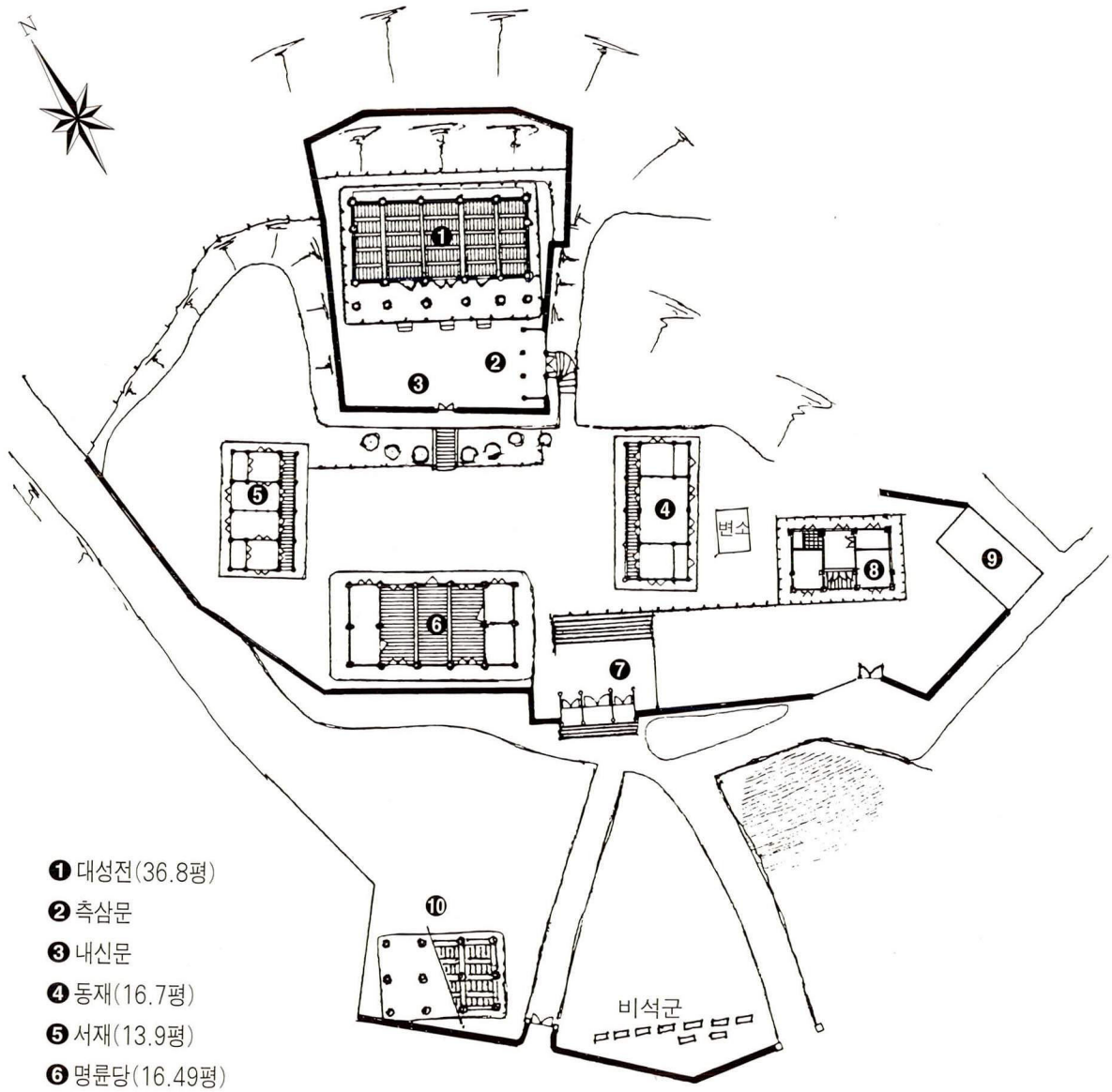
143. 寶城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9.77평)
❷ 동무(6.95평)
❸ 서무(6.95평)
❹ 내삼문(3.43평)
❺ 명륜당(33.57평)
❻ 동재(8.41평)
❼ 서재(10.89평)
❽ 외삼문(5.5평)
❾ 고직사
❿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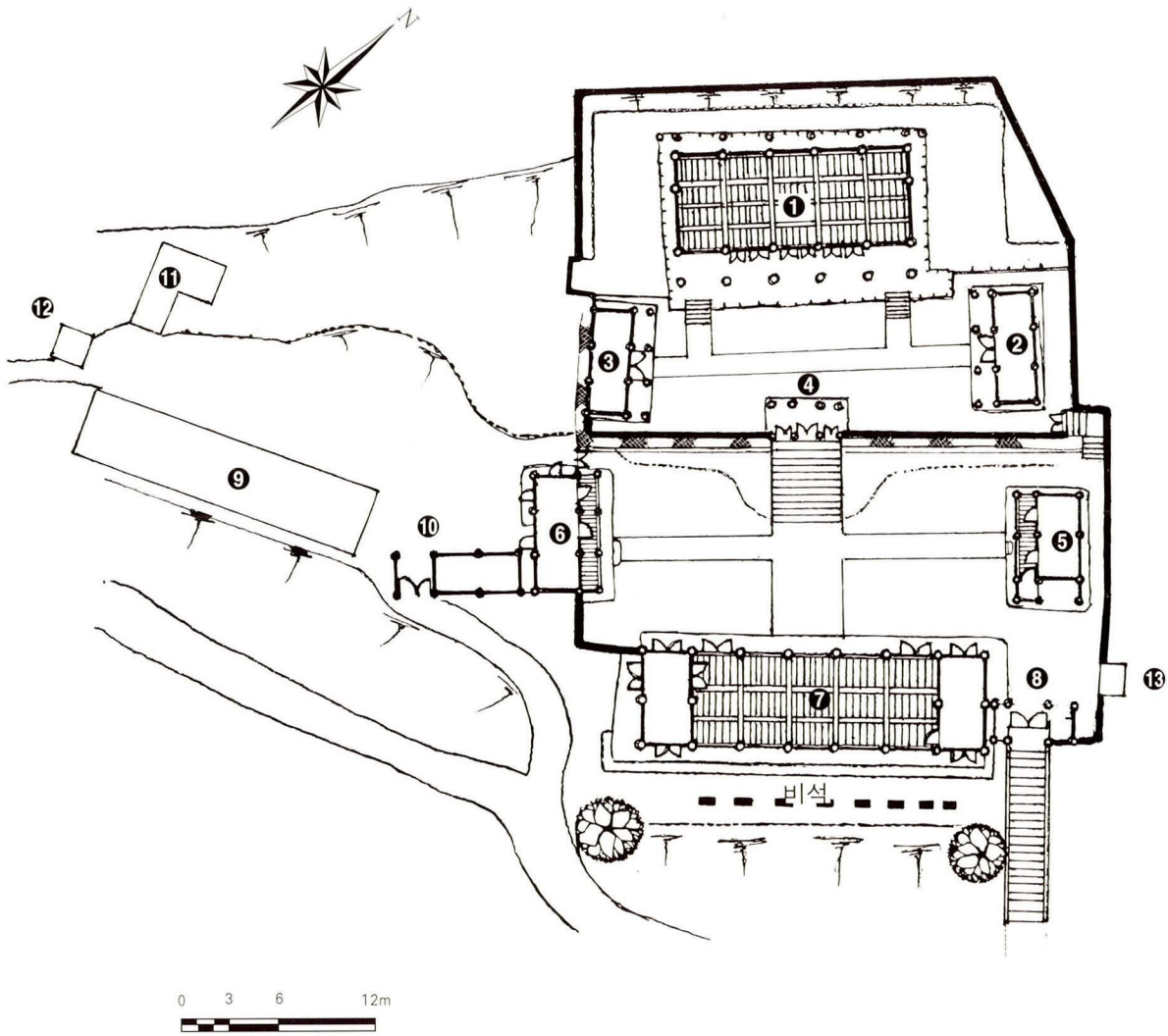
향교 입구에 하마비, 홍살문

144. 和順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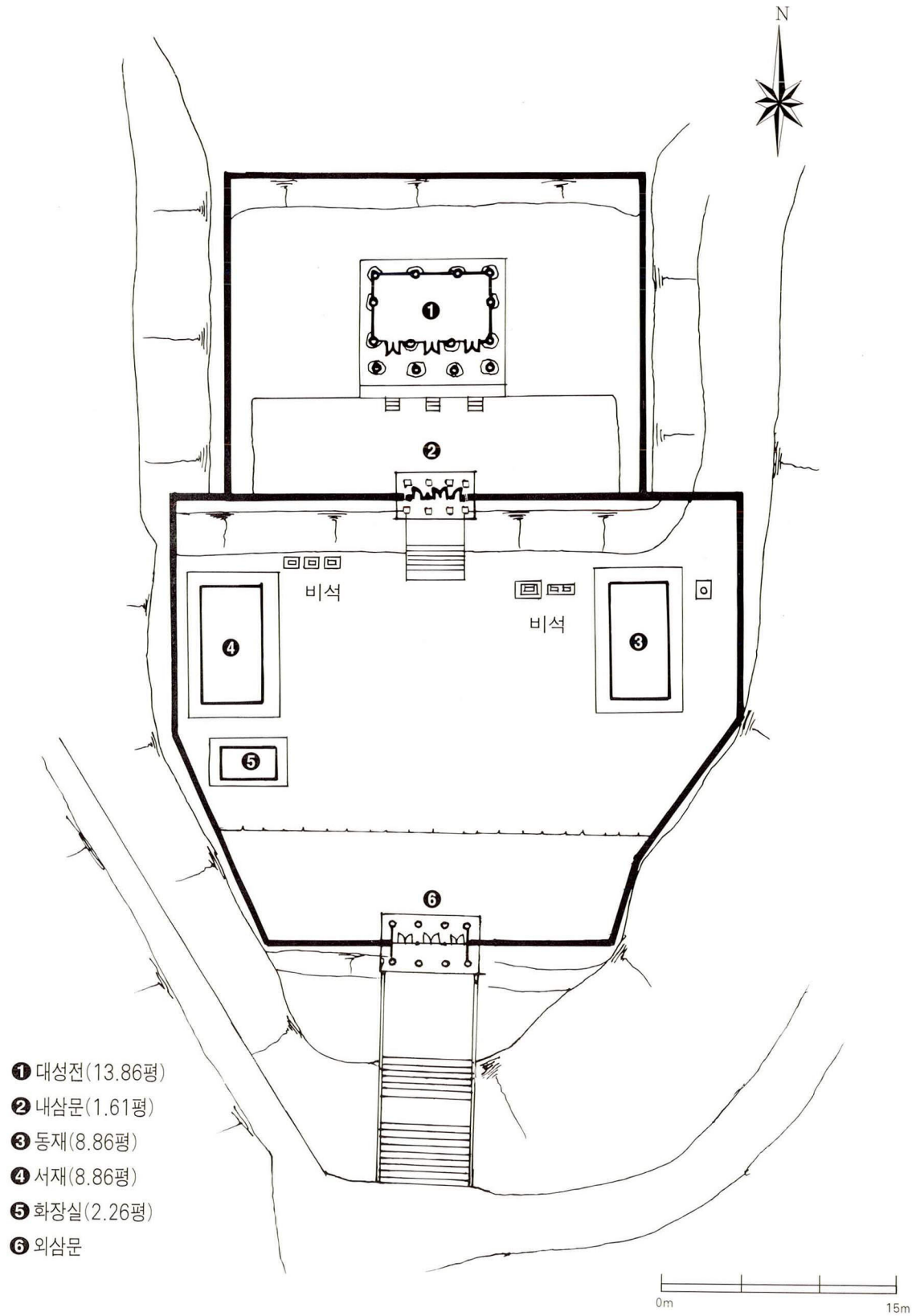
❶ 대성전(36.8평)
❷ 측삼문
❸ 내신문
❹ 동재(16.7평)
❺ 서재(13.9평)
❻ 명륜당(16.49평)
❼ 외삼문(4.4평)
❽ 고직사
❾ 창고
❿ 만화루(14.85평)

145. 綾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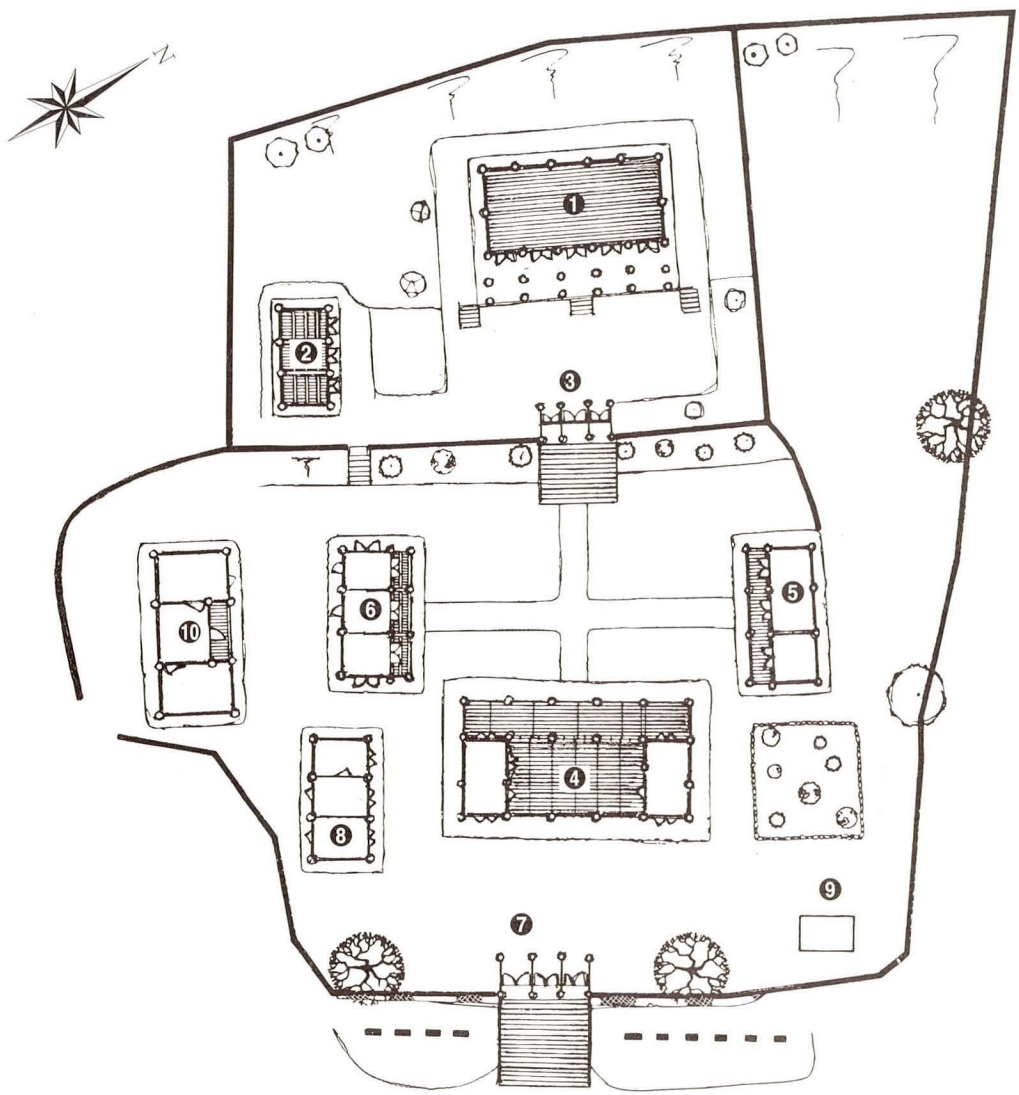
❶ 대성전(32.3평)
❷ 동무(7.21평)
❸ 서무(6.8평)
❹ 내삼문(2.4평)
❺ 동재(6.9평)
❻ 서재(8.4평)
❼ 명륜당(35.1평)
❽ 외삼문(3.5평)
❾ 교직사
❿ 대문칸
⓫ 별채
⓬ 변소
⓭ 변소

146. 同福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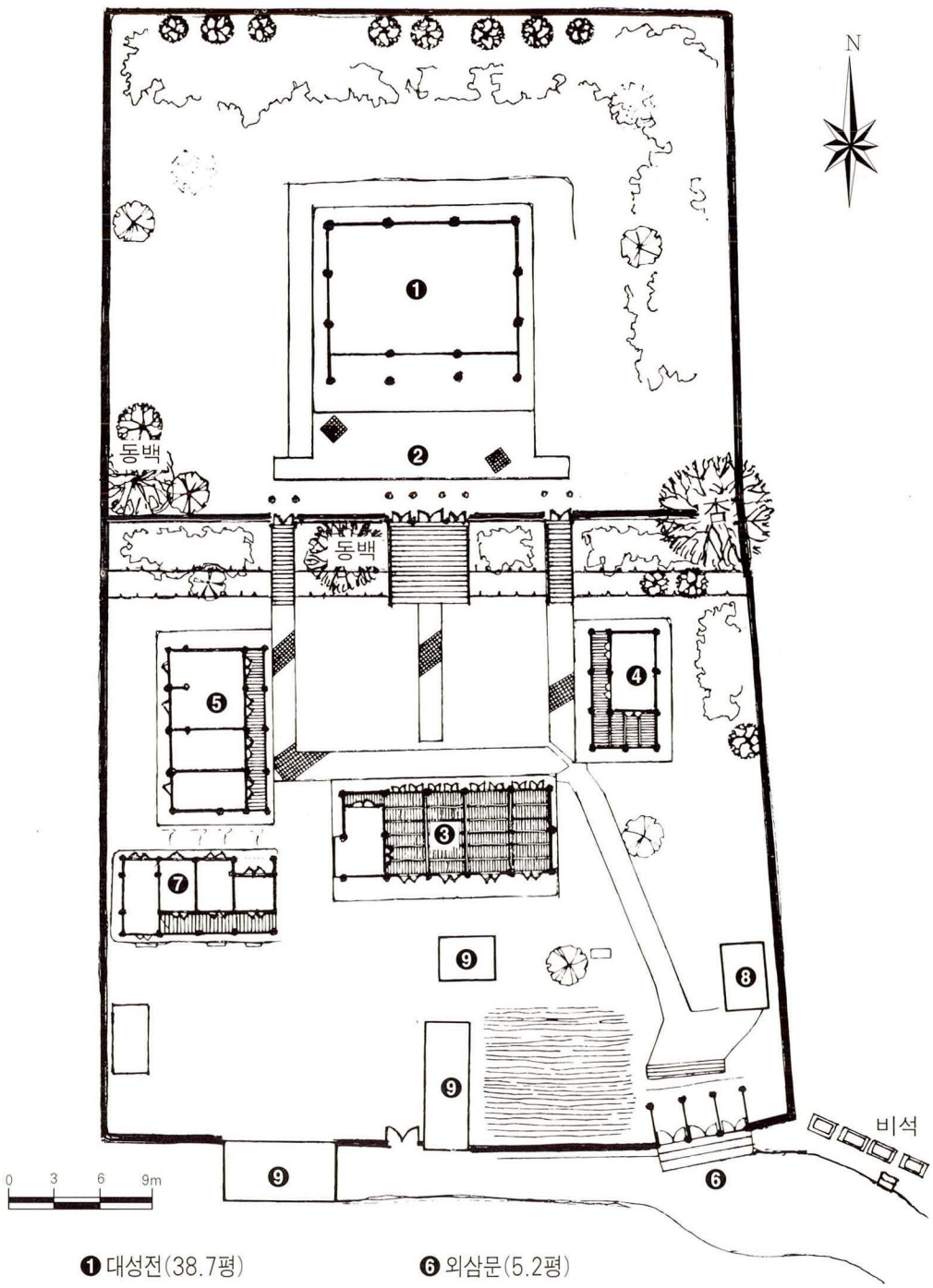
❶ 대성전(13.86평)
❷ 내삼문(1.61평)
❸ 동재(8.86평)
❹ 서재(8.86평)
❺ 화장실(2.26평)
❻ 외삼문

147. 長興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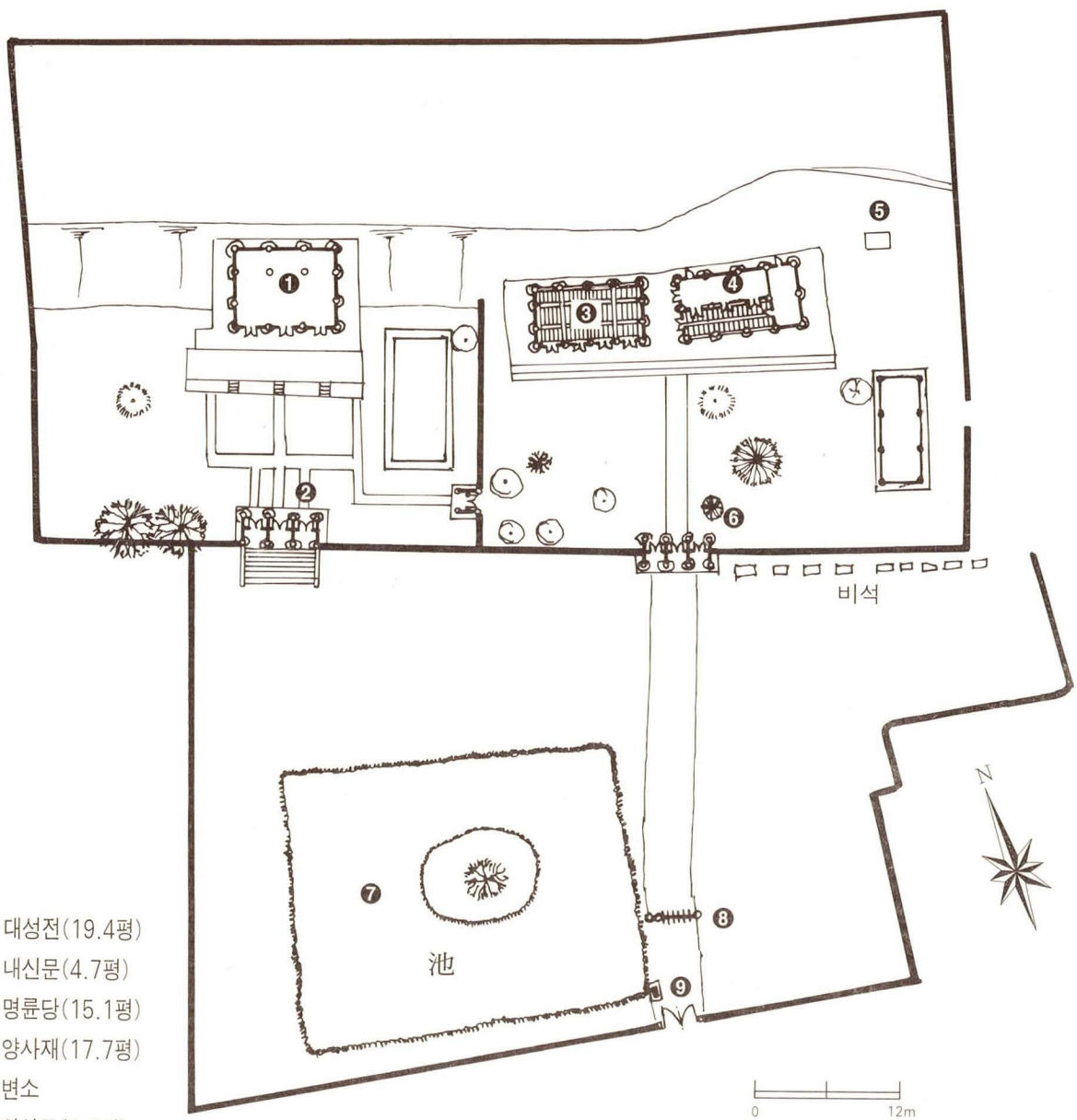
❶ 대성전(28.7평)
❷ 전사청
❸ 내삼문
❹ 명륜당
❺ 동재
❻ 서재
❼ 외삼문
❽ 사무실
❾ 변소
❿ 고직사

148. 康津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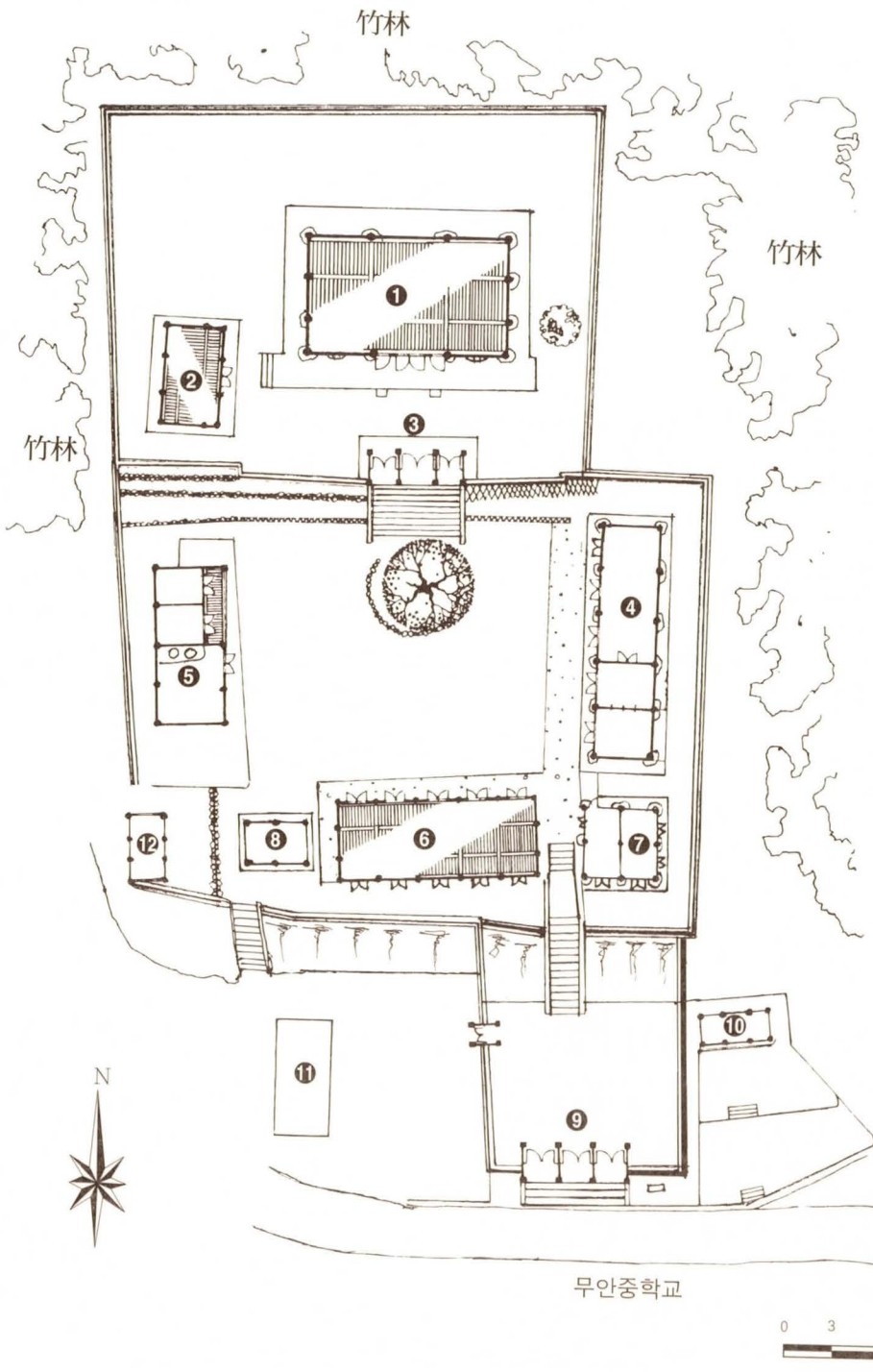
❶ 대성전(38.7평)
❷ 내삼문(2.8평), 사주문(2동)
❸ 명륜당(22.08평)
❹ 동재(8.46평)
❺ 서재(19.9평)
❻ 외삼문(5.2평)
❼ 고직사(14.5평)
❽ 변소
❾ 창고

150. 靈岩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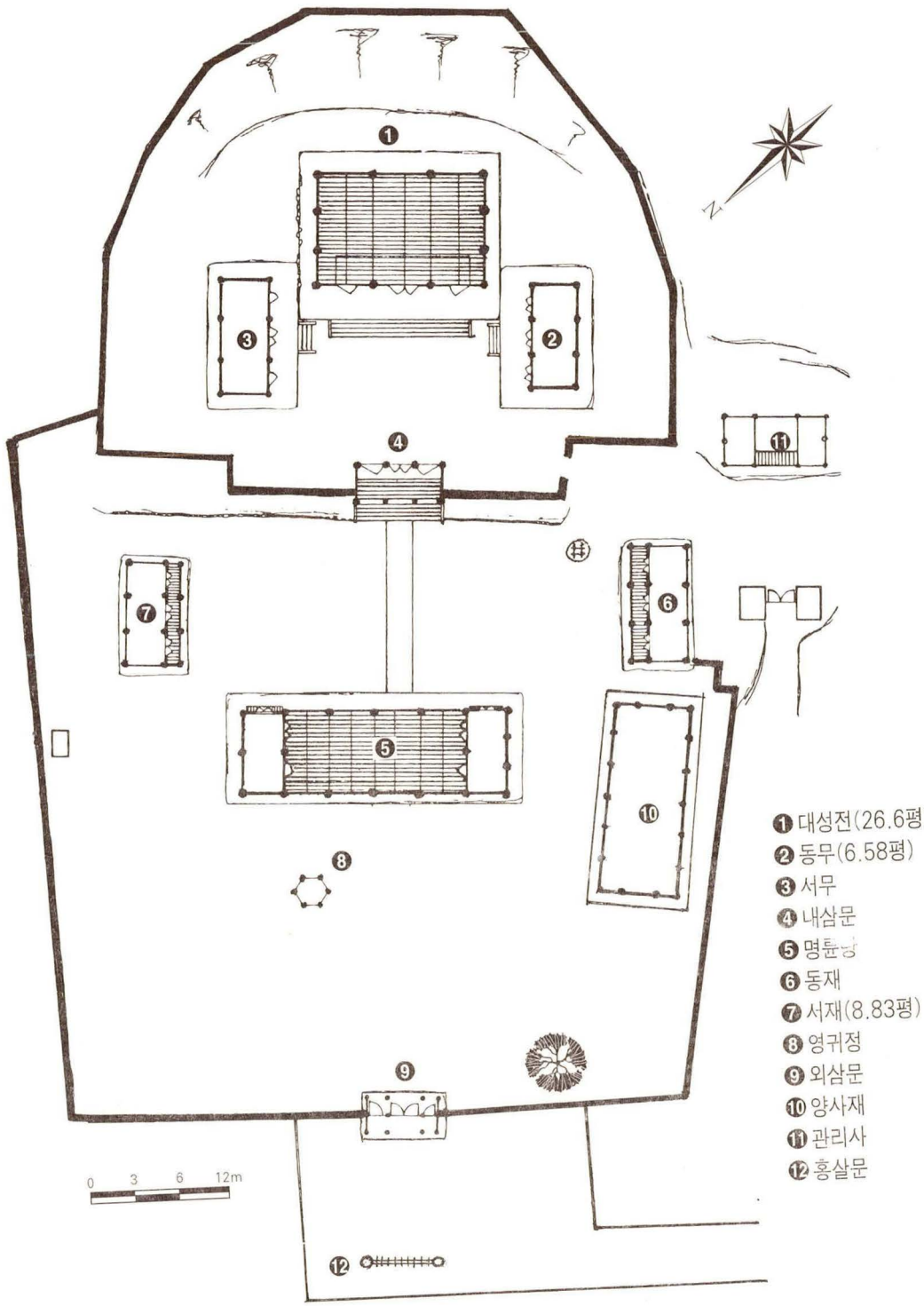


❶ 대성전(19.4평)
❷ 내신문(4.7평)
❸ 명륜당(15.1평)
❹ 양사재(17.7평)
❺ 변소
❻ 외삼문(3.9평)
❼ 연지
❽ 홍살문
❾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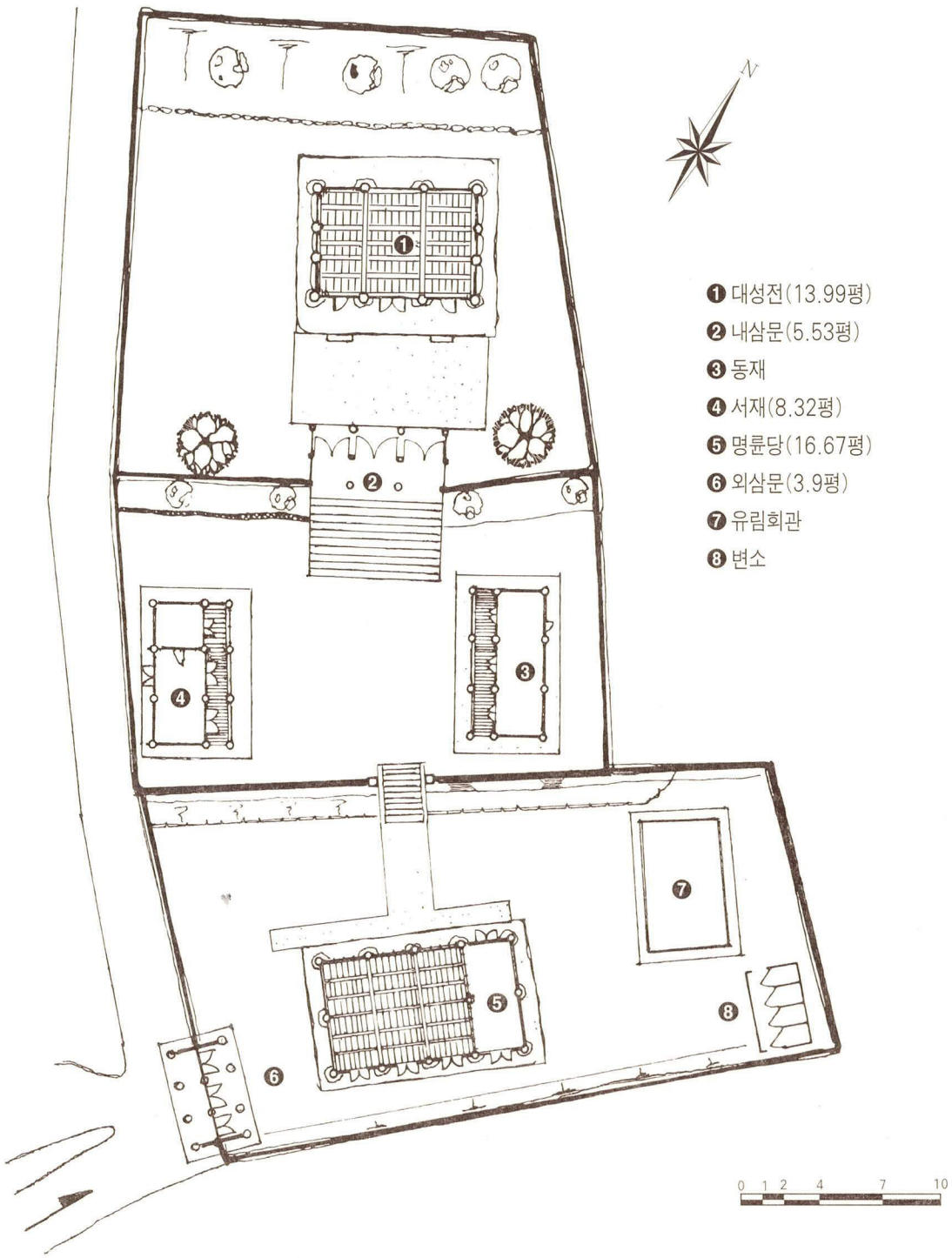
151. 務安鄕校 配置圖


竹林
竹林
竹林
❶ 대성전(26.27평)
❷ 제기고(6.1평)
❸ 내삼문(3.1평)
❹ 동재(14.7평)
❺ 서재(제관실 11.5평)
❻ 명륜당(18.26평)
❼ 동별당(5.7평)
❽ 서별당(2.73평)
❾ 외삼문(3.4평)
❿ 비각(삼강문 2.1평)
⓫ 고직사
⓬ 변소(2.97평)
N
무안중학교
0 3 6 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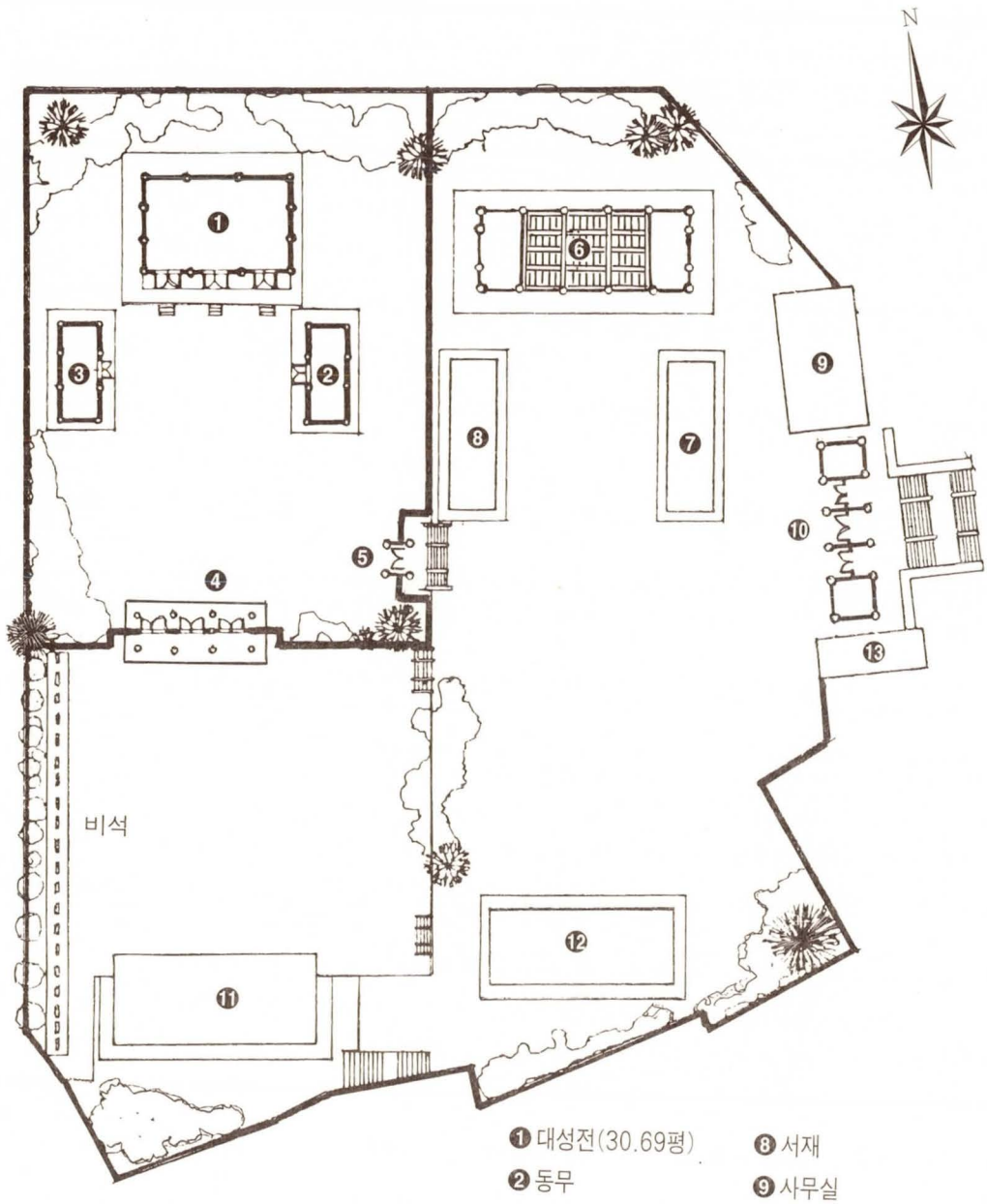
154. 長城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6.6평)
❷ 동무(6.58평)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8.83평)
❽ 영귀정
❾ 외삼문
❿ 양사재
⓫ 관리사
⓬ 홍살문
0 3 6 12m

155. 莞島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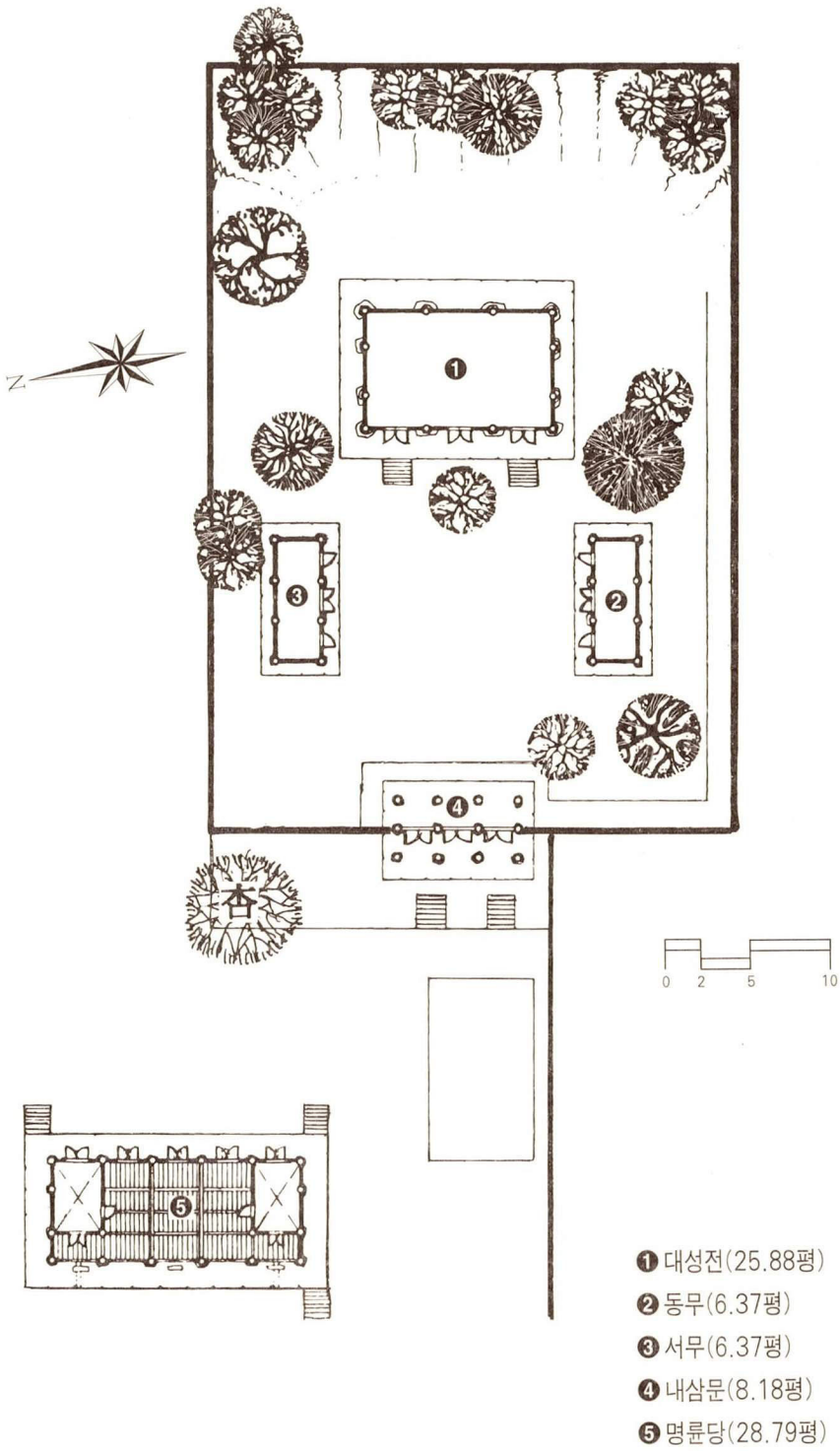

❶ 대성전(13.99평)
❷ 내삼문(5.53평)
❸ 동재
❹ 서재(8.32평)
❺ 명륜당(16.67평)
❻ 외삼문(3.9평)
❼ 유림회관
❽ 변소
0 1 2 4 7 10

158. 大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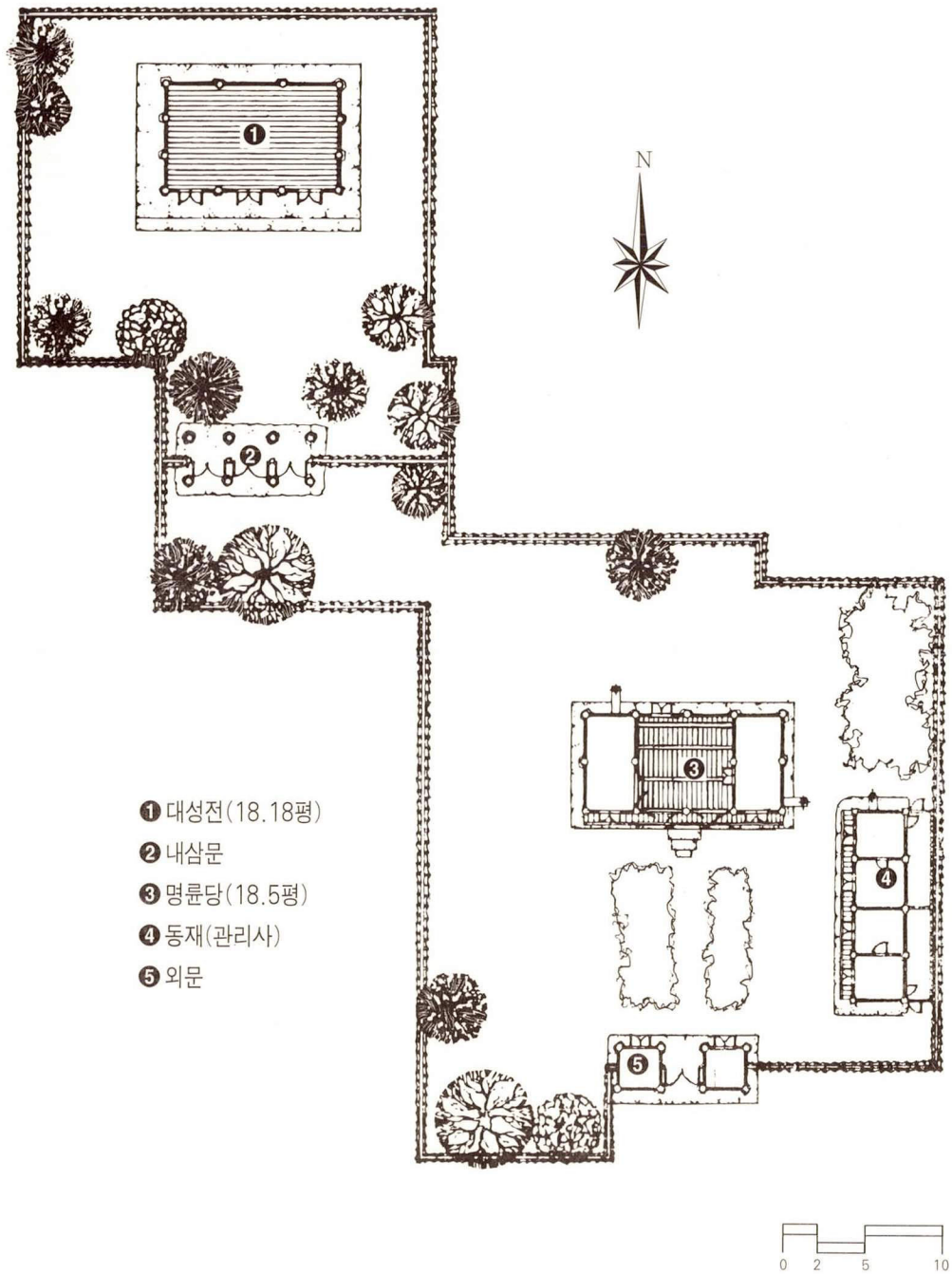
❶ 대성전(30.69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협문
❻ 명륜당(21.82평)
❼ 동재
❽ 서재
❾ 사무실
❿ 외문
⓫ 양사재
⓬ 낙육재
⓭ 관리사

159. 漆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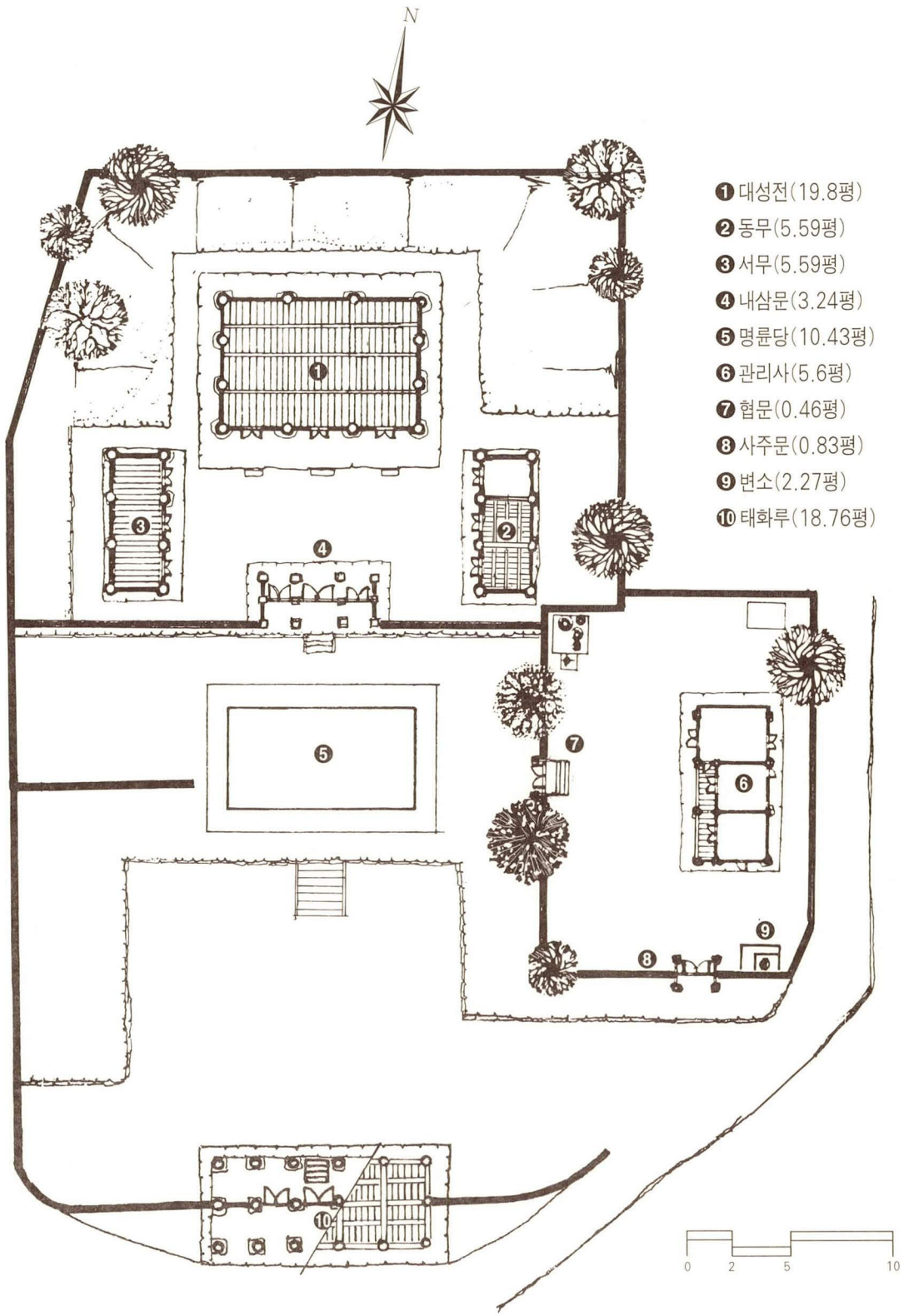


❶ 대성전(25.88평)
❷ 동무(6.37평)
❸ 서무(6.37평)
❹ 내삼문(8.18평)
❺ 명륜당(28.7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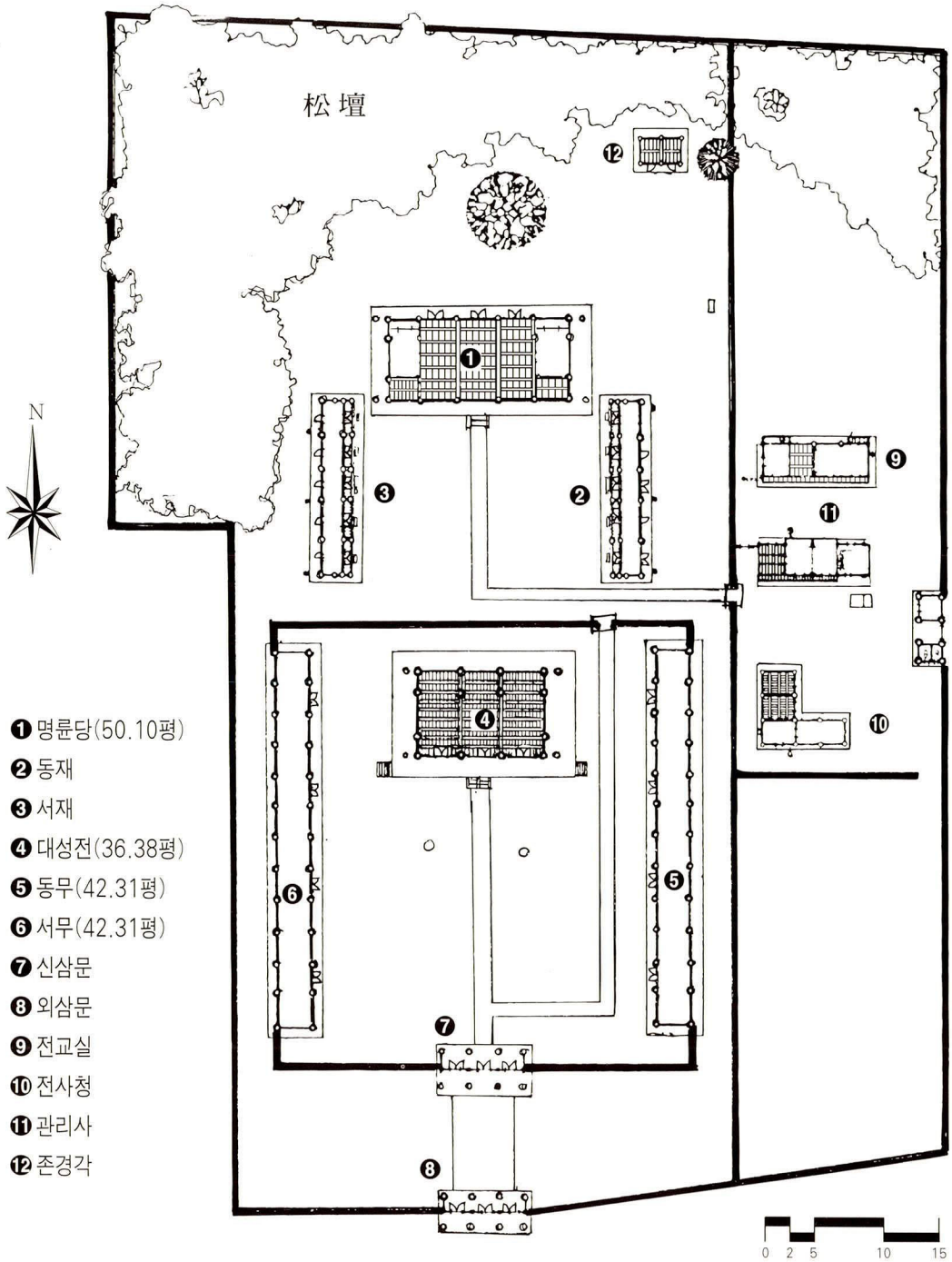
162. 淸河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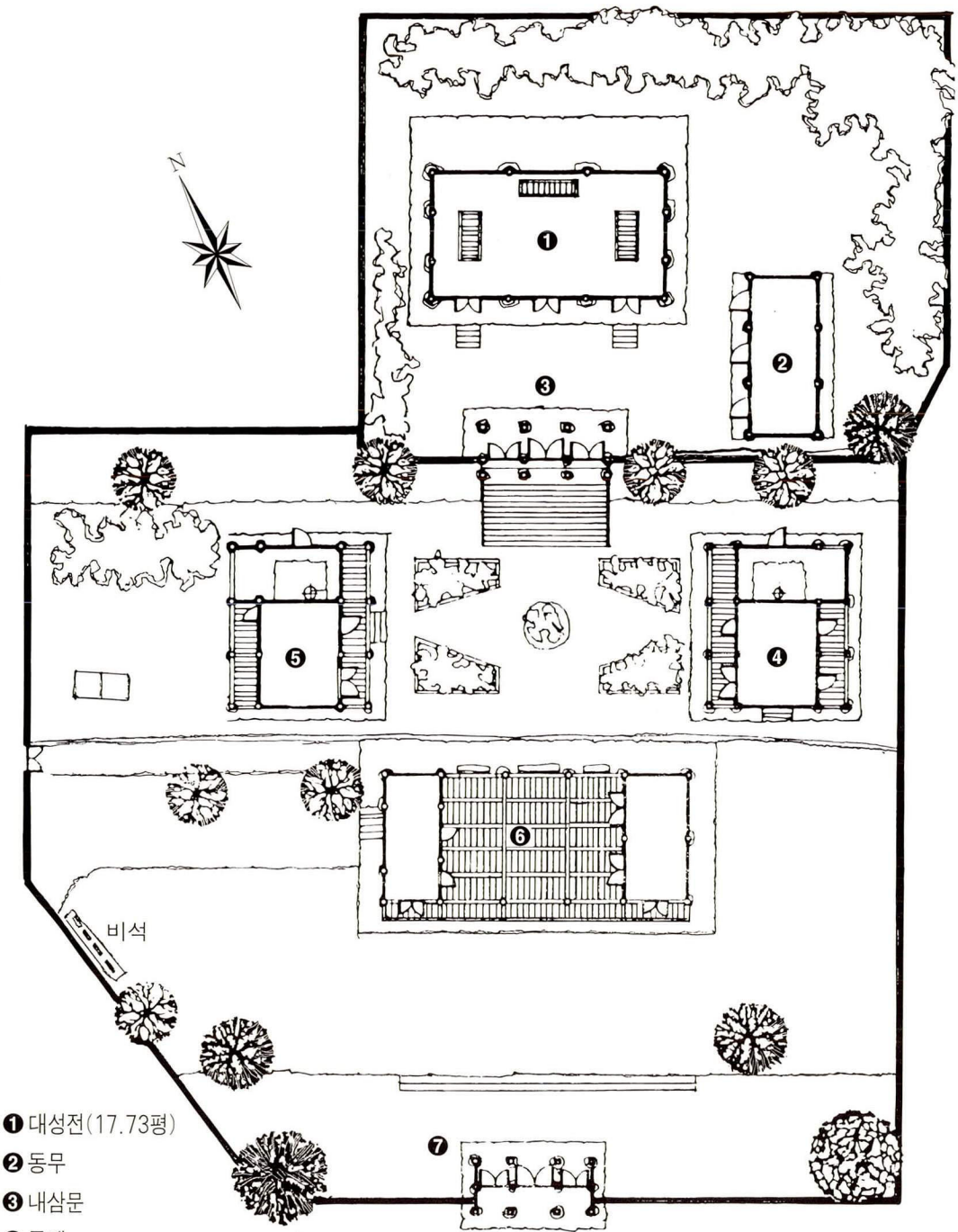
163. 興海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19.8평)
❷ 동무(5.59평)
❸ 서무(5.59평)
❹ 내삼문(3.24평)
❺ 명륜당(10.43평)
❻ 관리사(5.6평)
❼ 협문(0.46평)
❽ 사주문(0.83평)
❾ 변소(2.27평)
❿ 태화루(18.76평)
0 2 5 10

165. 慶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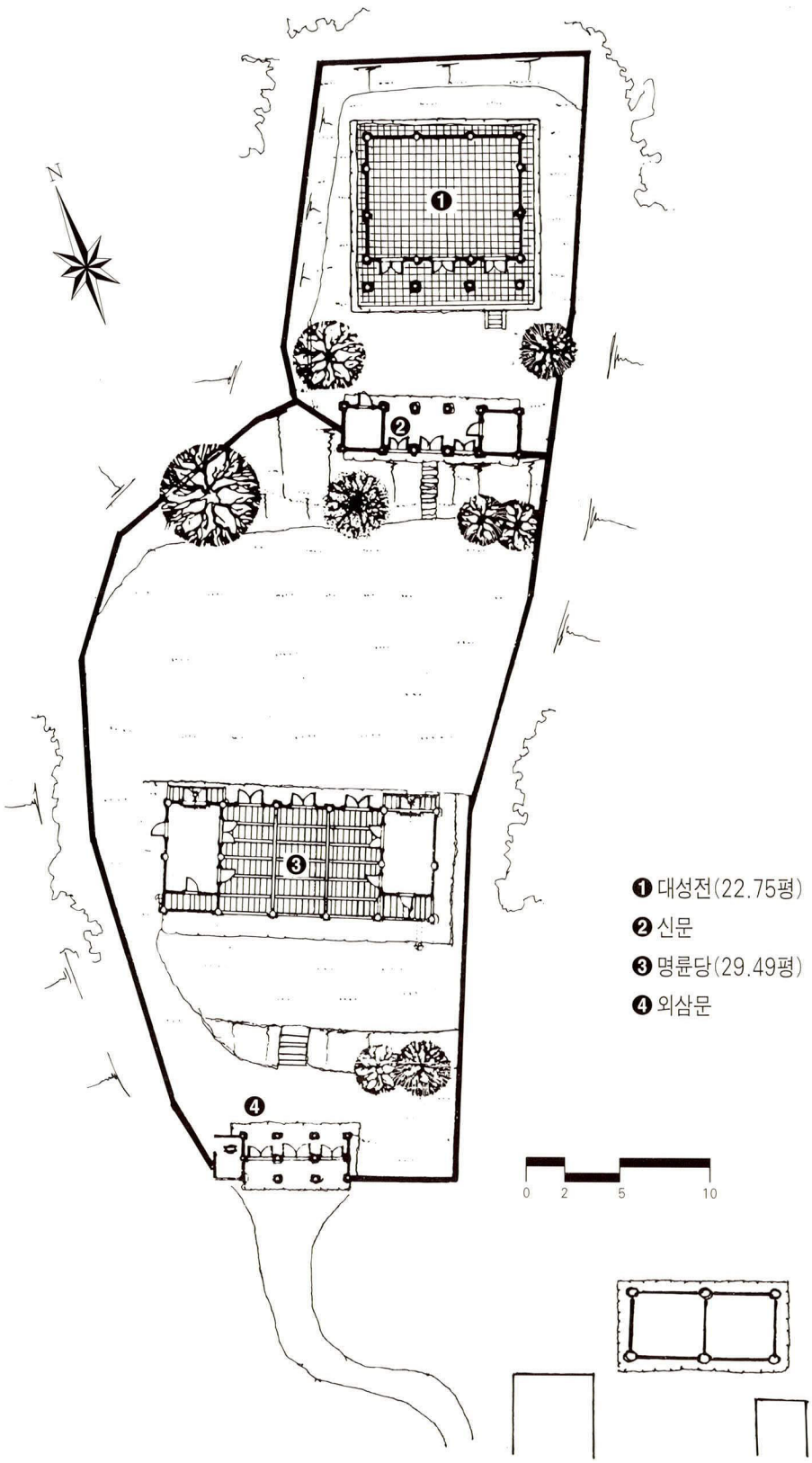

松壇
N
❶ 명륜당(50.10평)
❷ 동재
❸ 서재
❹ 대성전(36.38평)
❺ 동무(42.31평)
❻ 서무(42.31평)
❼ 신삼문
❽ 외삼문
❾ 전교실
❿ 전사청
⓫ 관리사
⓬ 존경각
0 2 5 10 15

166. 金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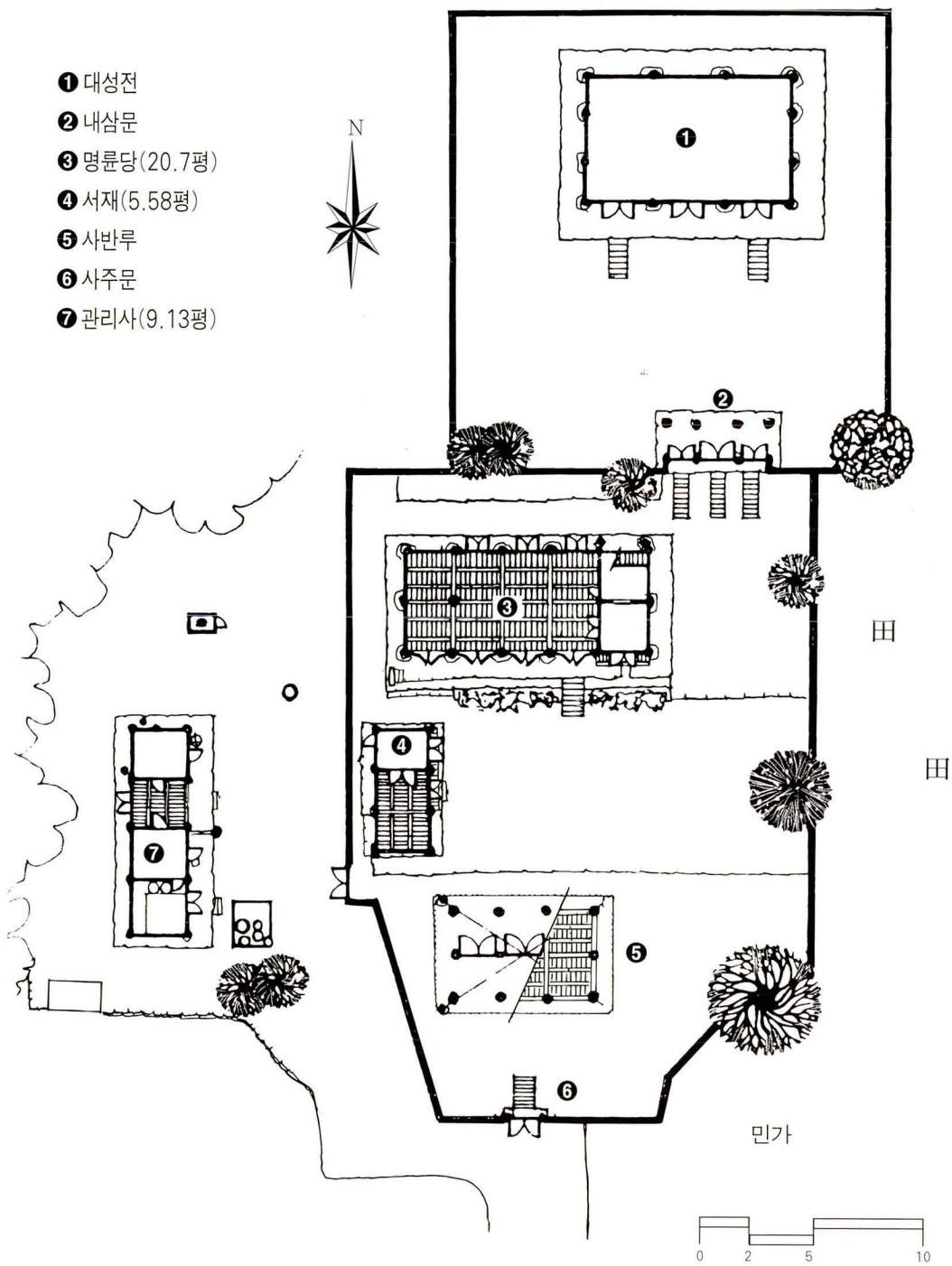


❶ 대성전(17.73평)
❷ 동무
❸ 내삼문
❹ 동재
❺ 서재
❻ 명륜당(23.01평)
❼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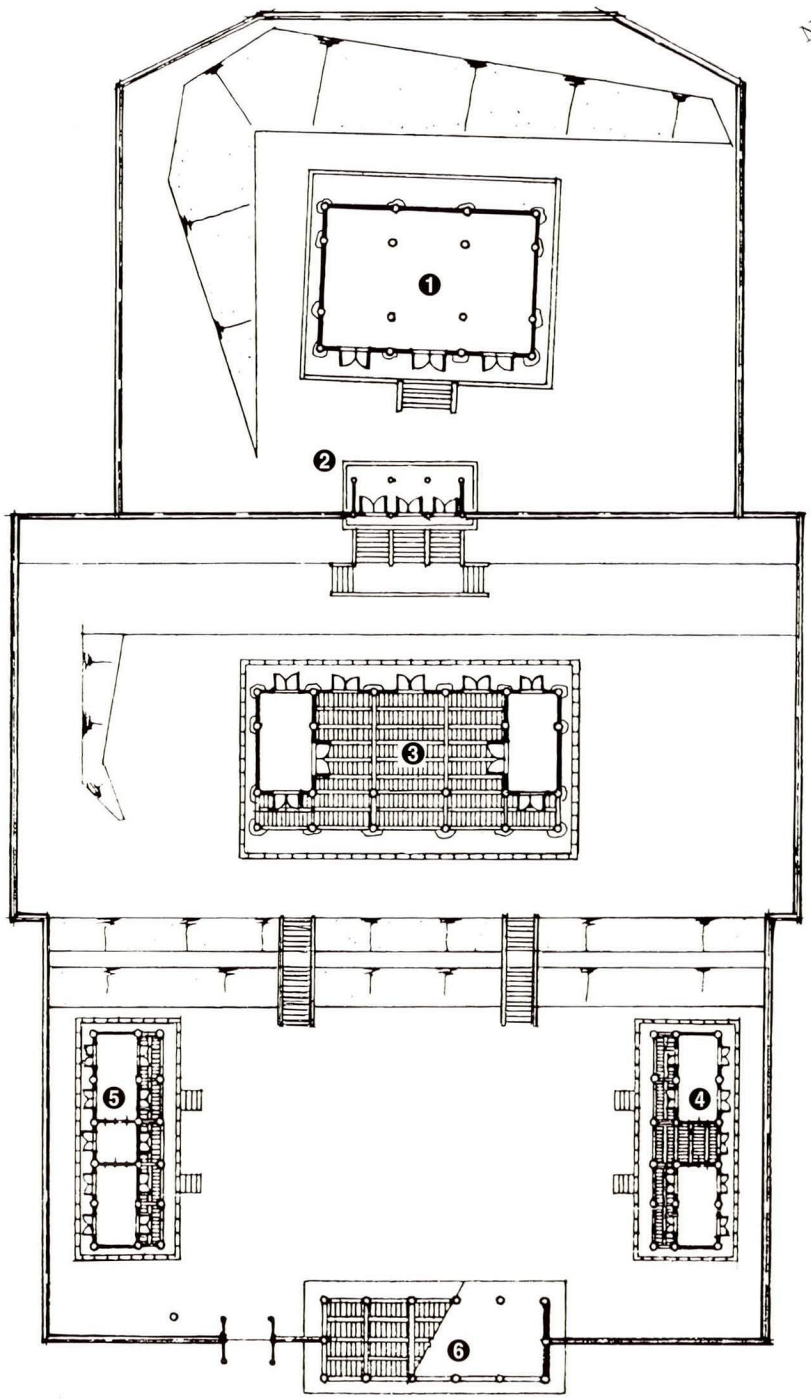
167. 開寧鄕校 配置圖



168. 知禮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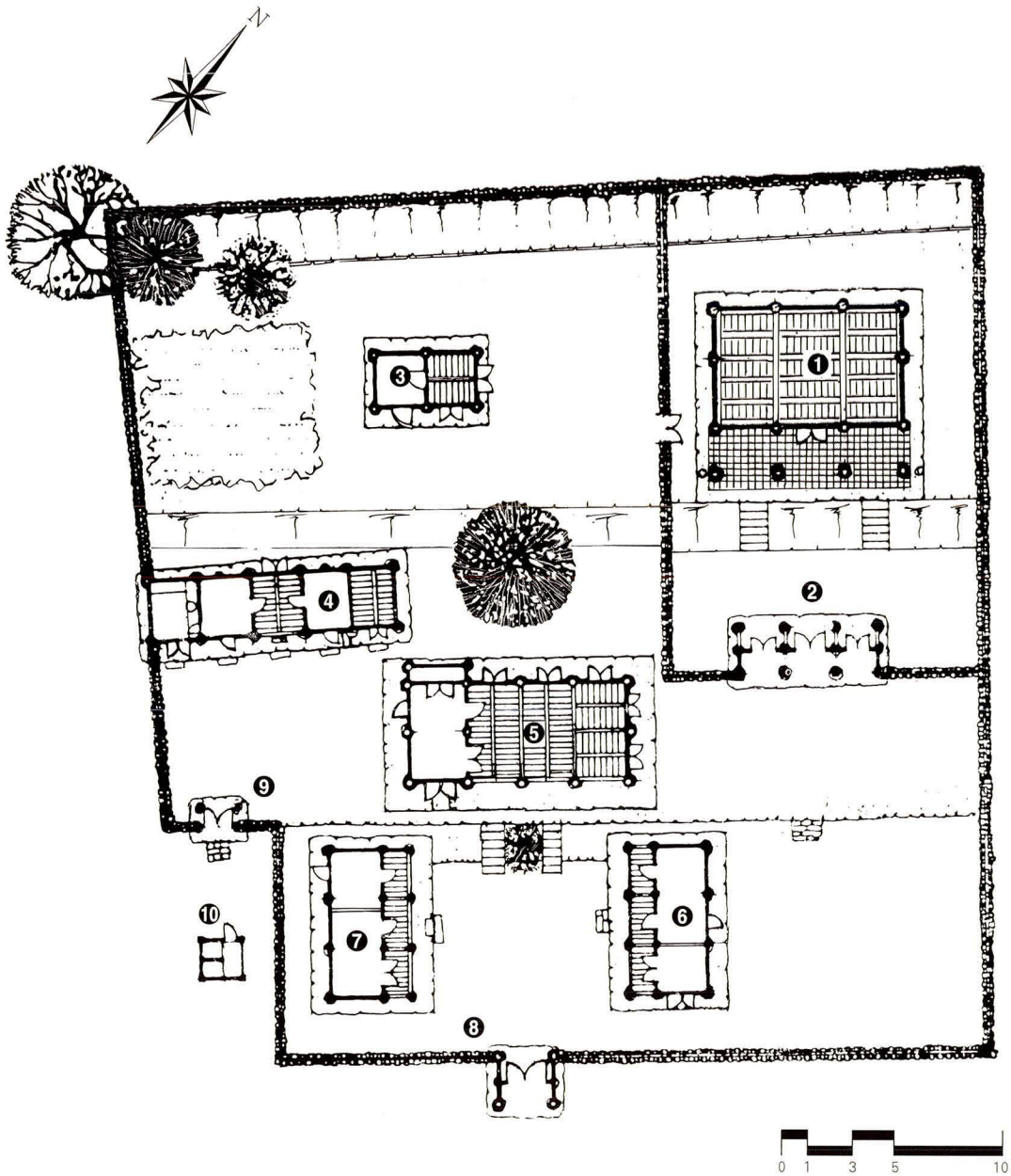


169. 安東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8.6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
❺ 서재
❻ 청아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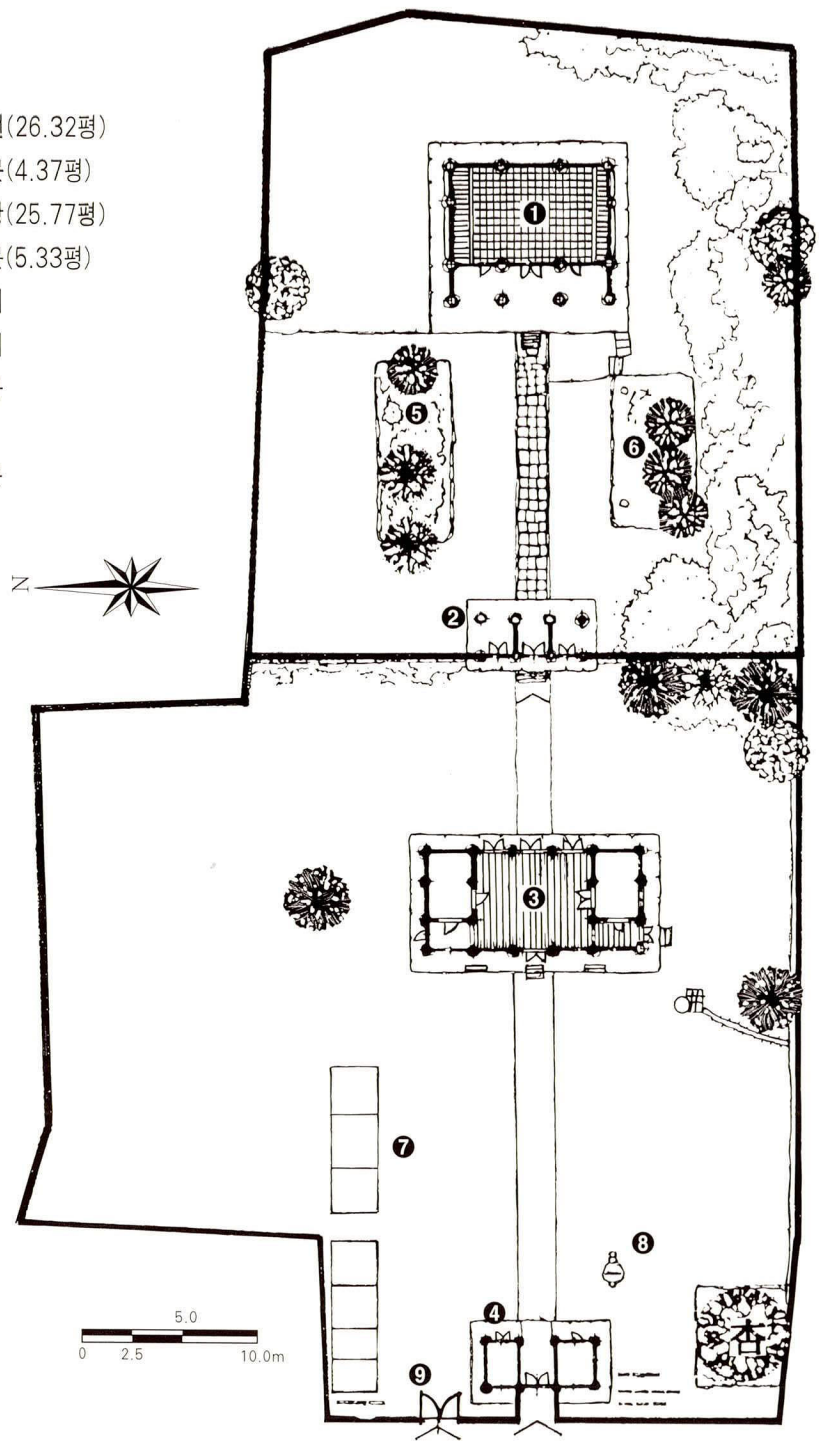
170. 禮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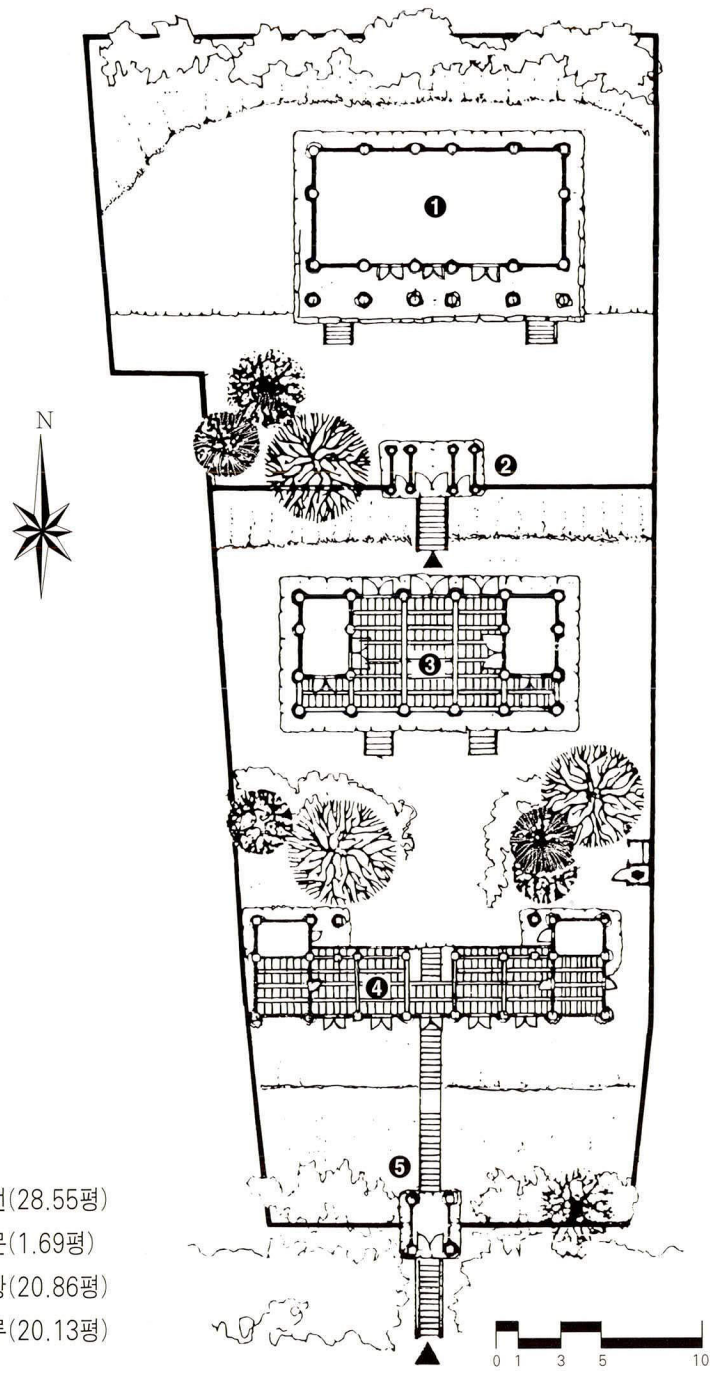
❶ 대성전(19.51평)
❷ 내삼문(4.38평)
❸ 전사청(3.18평)
❹ 주사(9.24평)
❺ 명륜당(13.24평)
❻ 동재(8.06평)
❼ 서재(7.52평)
❽ 외문
❾ 협문
❿ 화장실

171. 仁同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6.32평)
❷ 내삼문(4.37평)
❸ 명륜당(25.77평)
❹ 외삼문(5.33평)
❺ 서무지
❻ 동무지
❼ 관리사
❽ 비석
❾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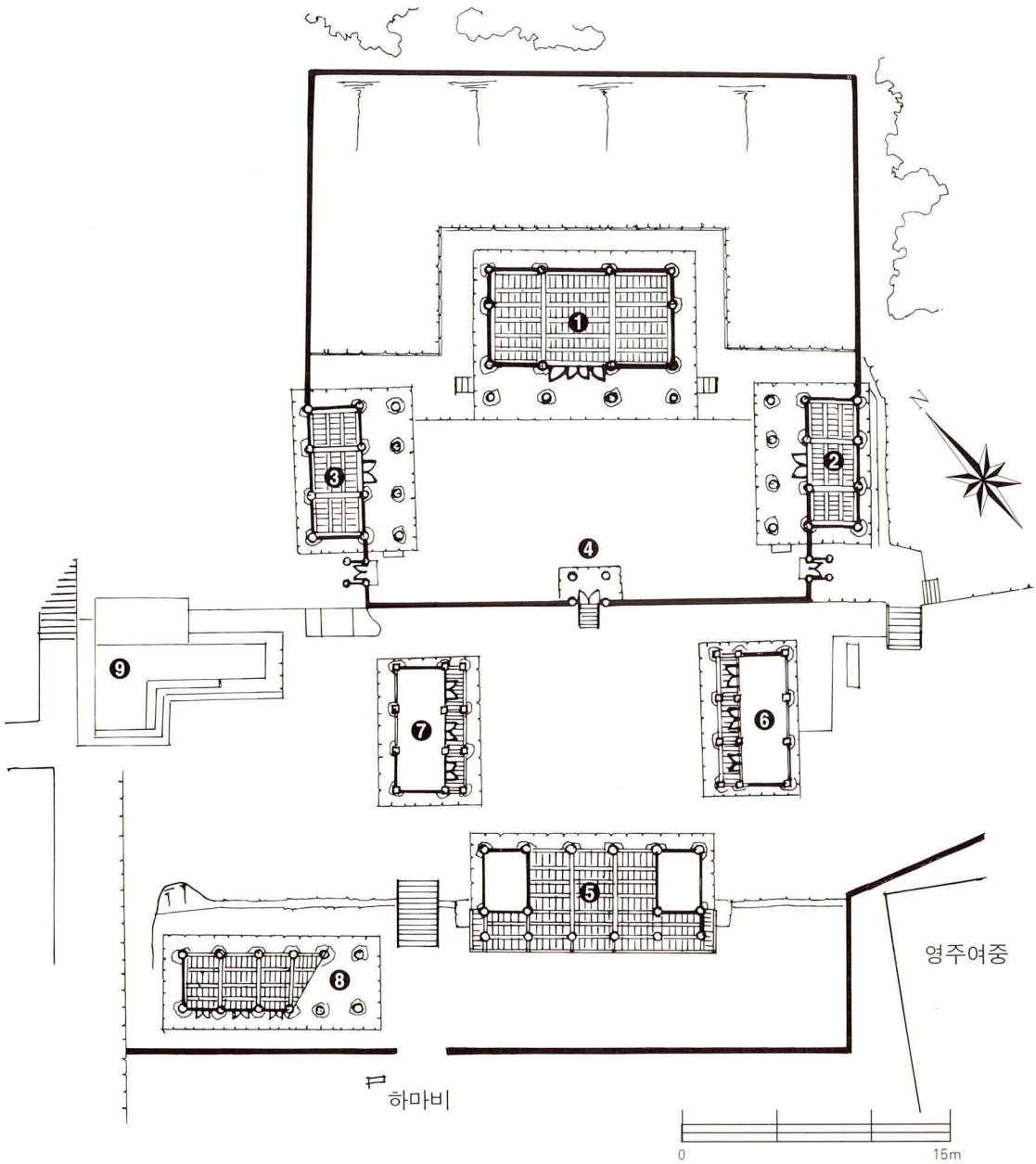


172. 善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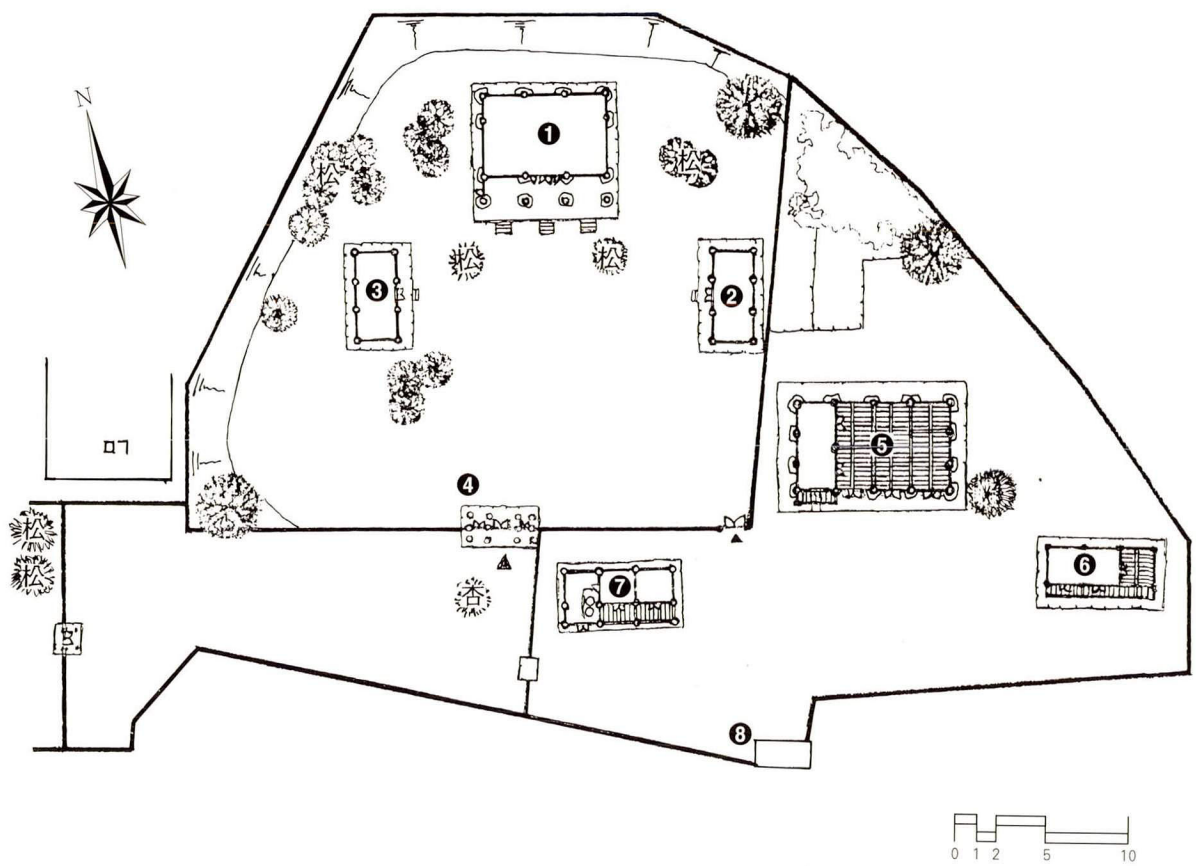
❶ 대성전(28.55평)
❷ 내삼문(1.69평)
❸ 명륜당(20.86평)
❹ 청아루(20.13평)
❺ 외문

173. 榮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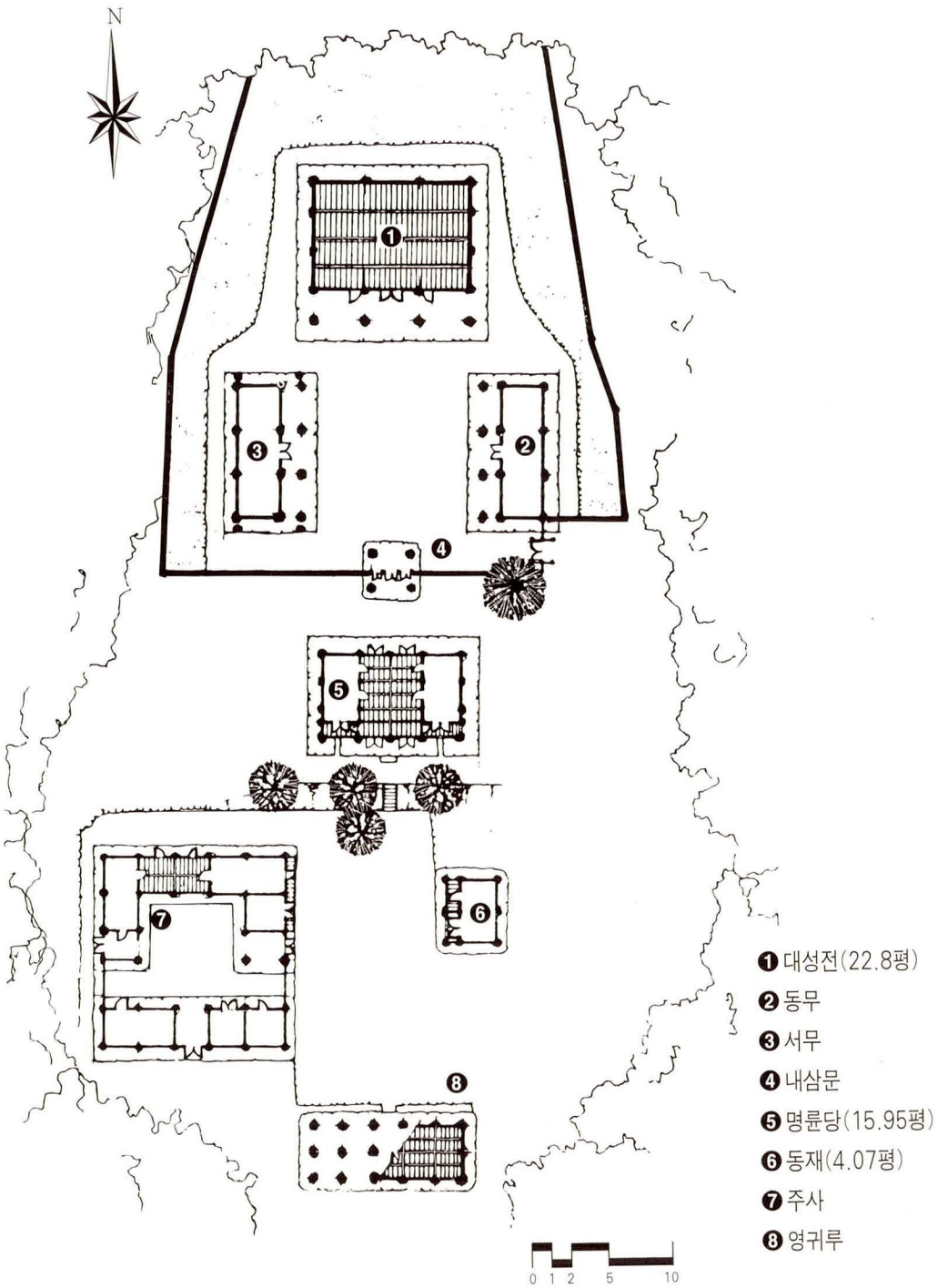
❶ 대성전(18.6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신문
❺ 명륜당(16.77평)
❻ 동재(8.13평)
❼ 서재(8.13평)
❽ 영귀루
❾ 관리사

174. 豊基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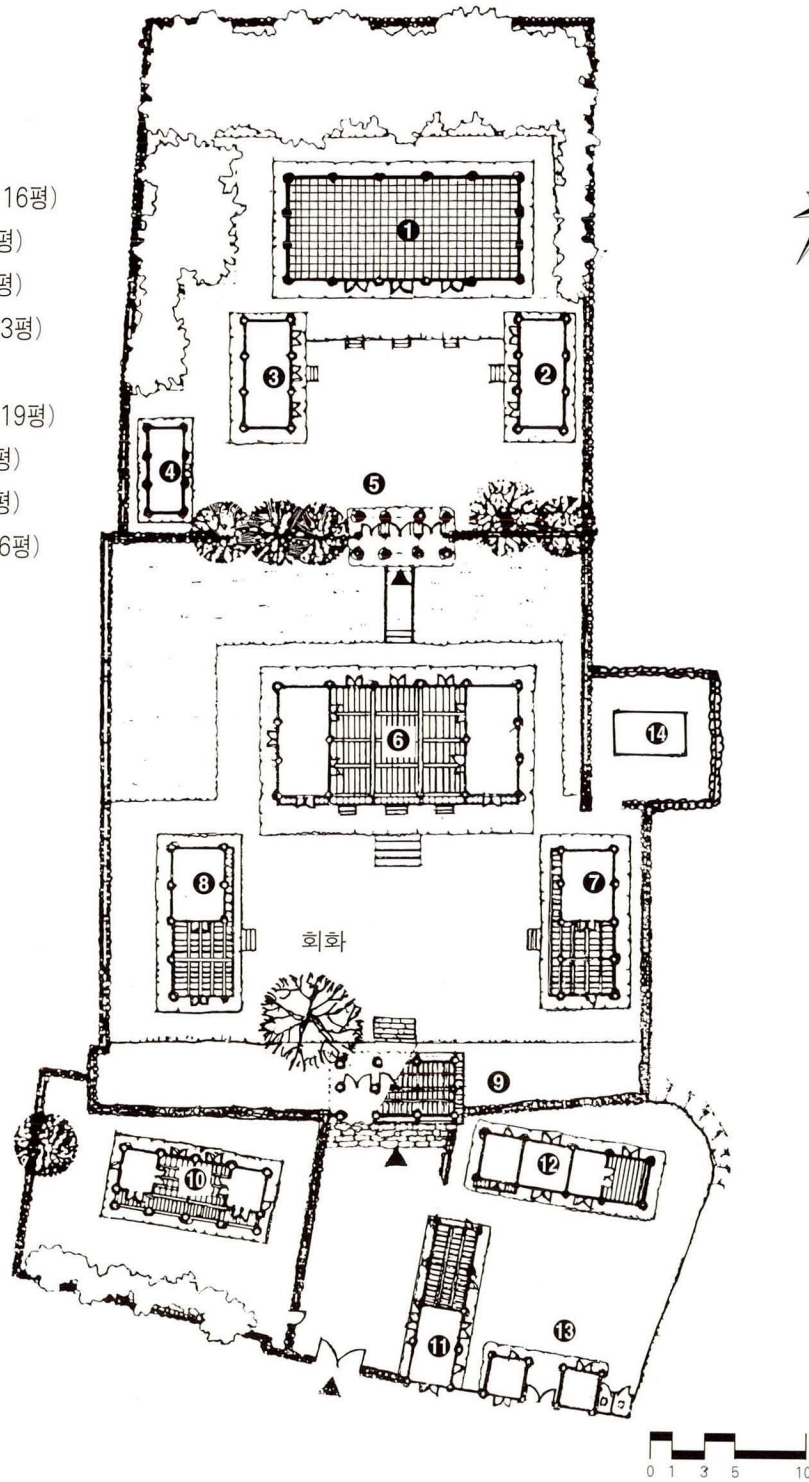
❶ 대성전(22.26평)
❷ 동무(5.63평)
❸ 서무(5.63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21.4평)
❻ 현관실
❼ 관리사
❽ 변소

175. 順興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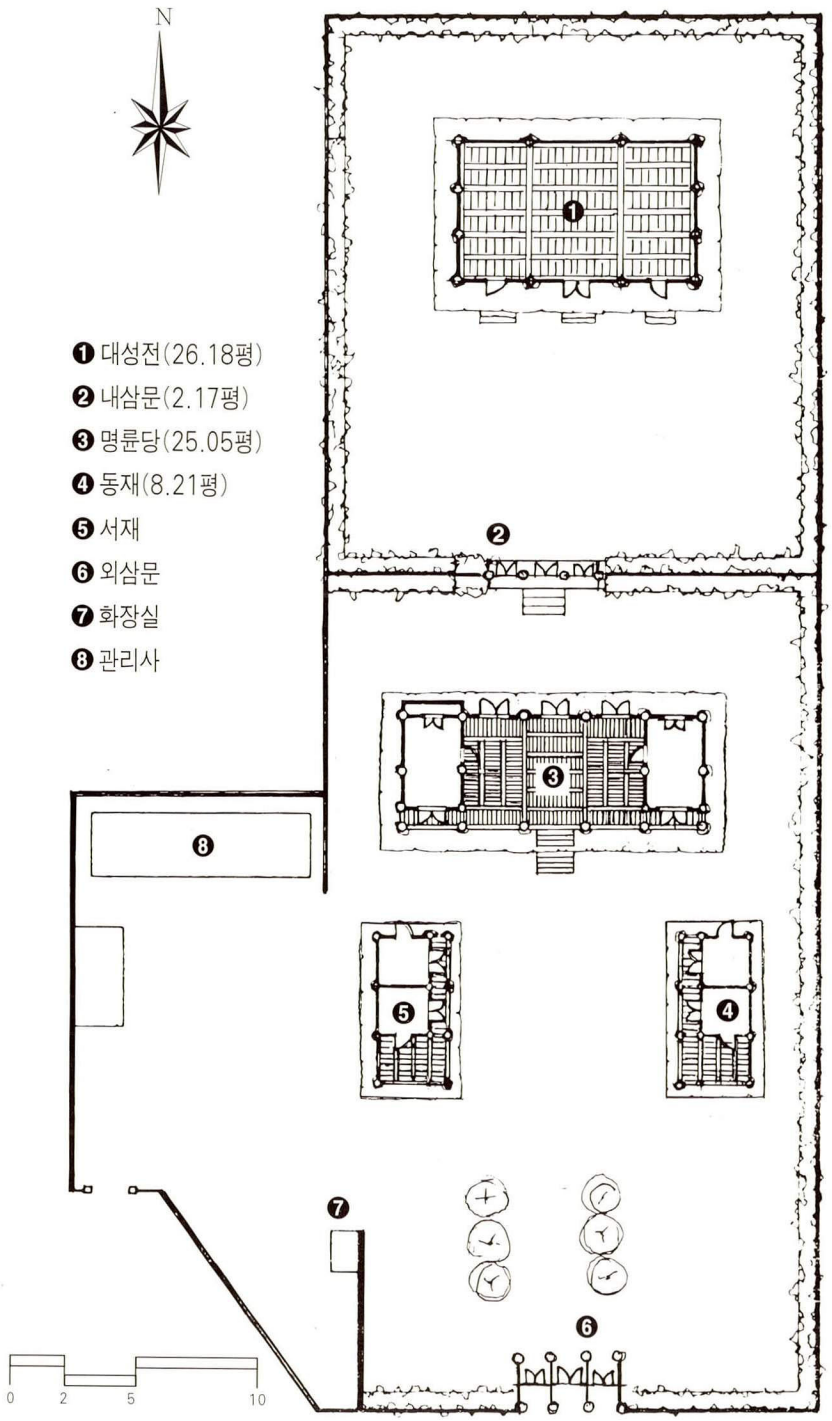


176. 永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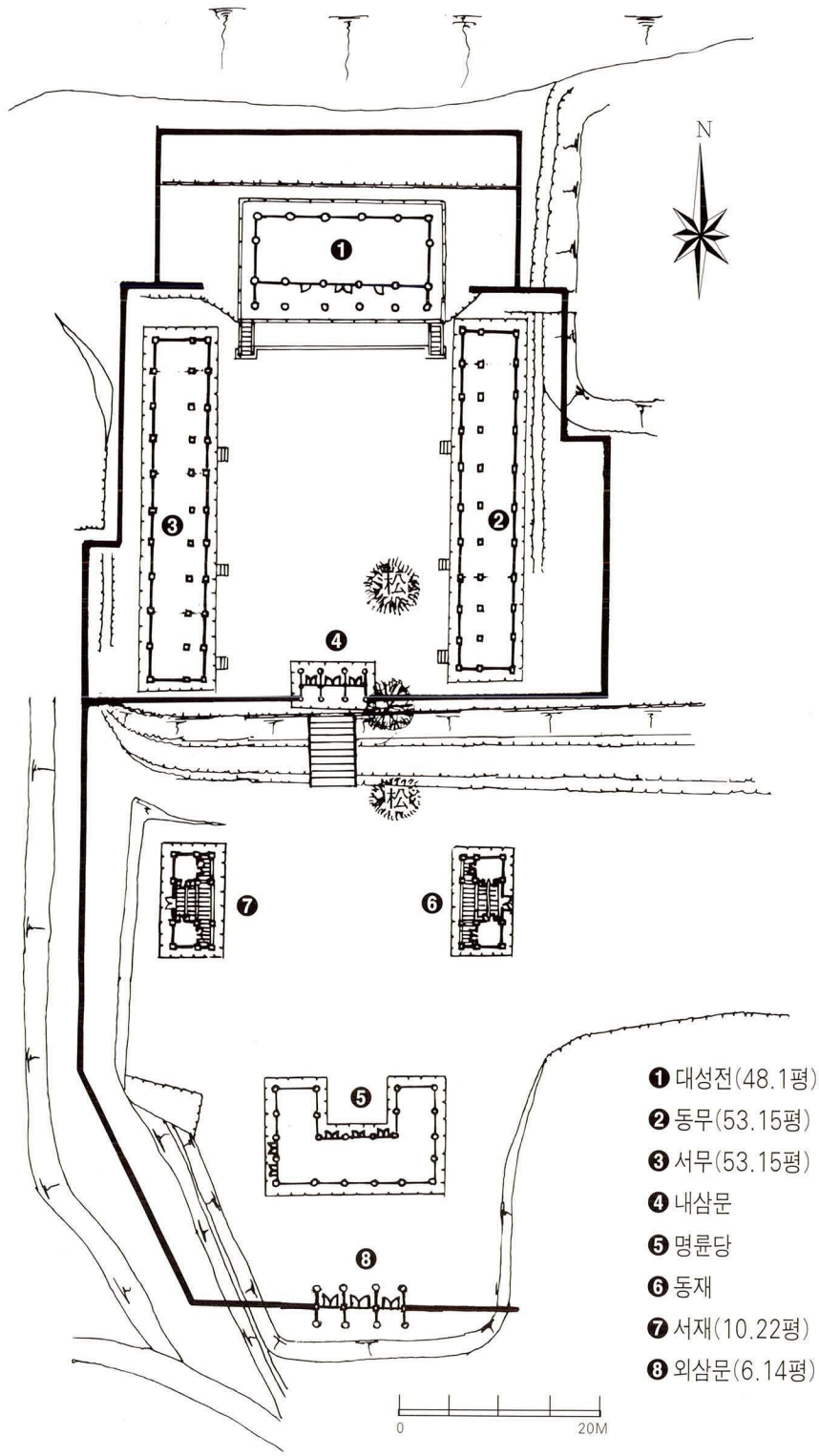
❶ 대성전(31.16평)
❷ 동무(7.09평)
❸ 서무(7.09평)
❹ 전사청(4.83평)
❺ 내삼문
❻ 명륜당(39.19평)
❼ 동재(10.8평)
❽ 서재(10.8평)
❾ 유래루(8.46평)
❿ 삼일재
⓫ 전교실
⓬ 관리사
⓭ 대문채
⓮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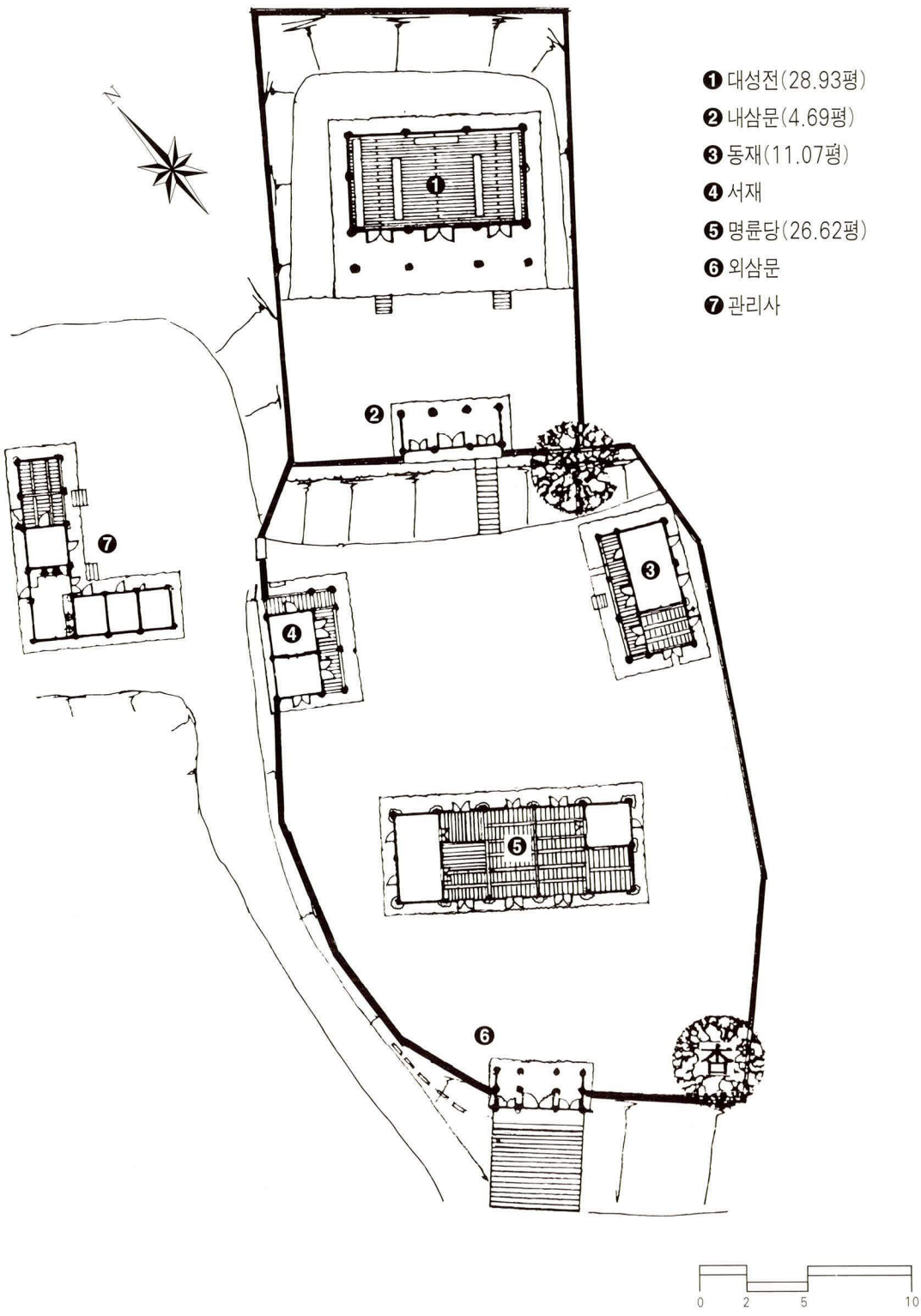
177. 新寧鄕校 配置圖


N
❶ 대성전(26.18평)
❷ 내삼문(2.17평)
❸ 명륜당(25.05평)
❹ 동재(8.21평)
❺ 서재
❻ 외삼문
❼ 화장실
❽ 관리사
0 2 5 10

178. 尙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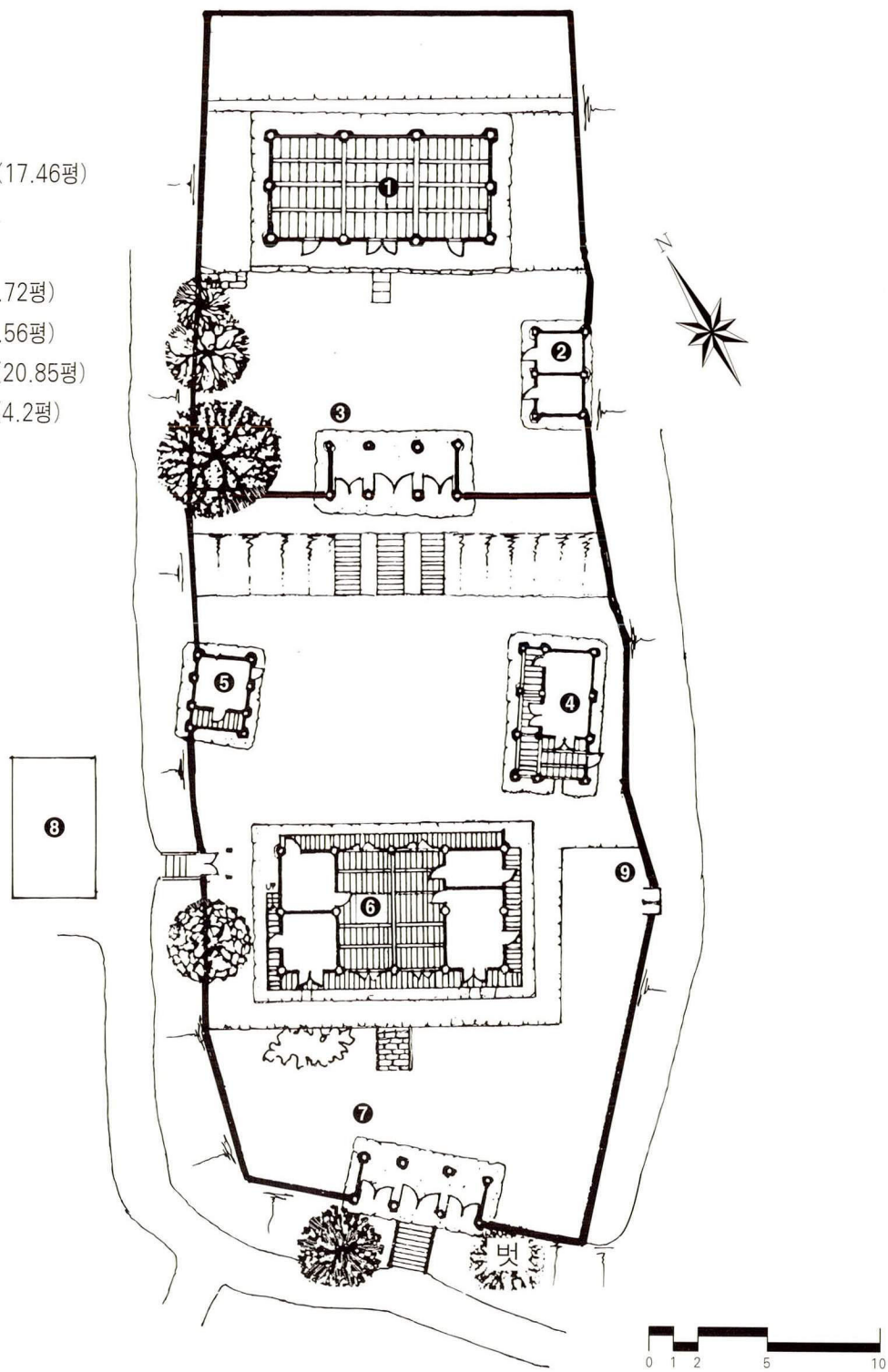

N
松
松
❶ 대성전(48.1평)
❷ 동무(53.15평)
❸ 서무(53.15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10.22평)
❽ 외삼문(6.14평)
0
20M

179. 咸昌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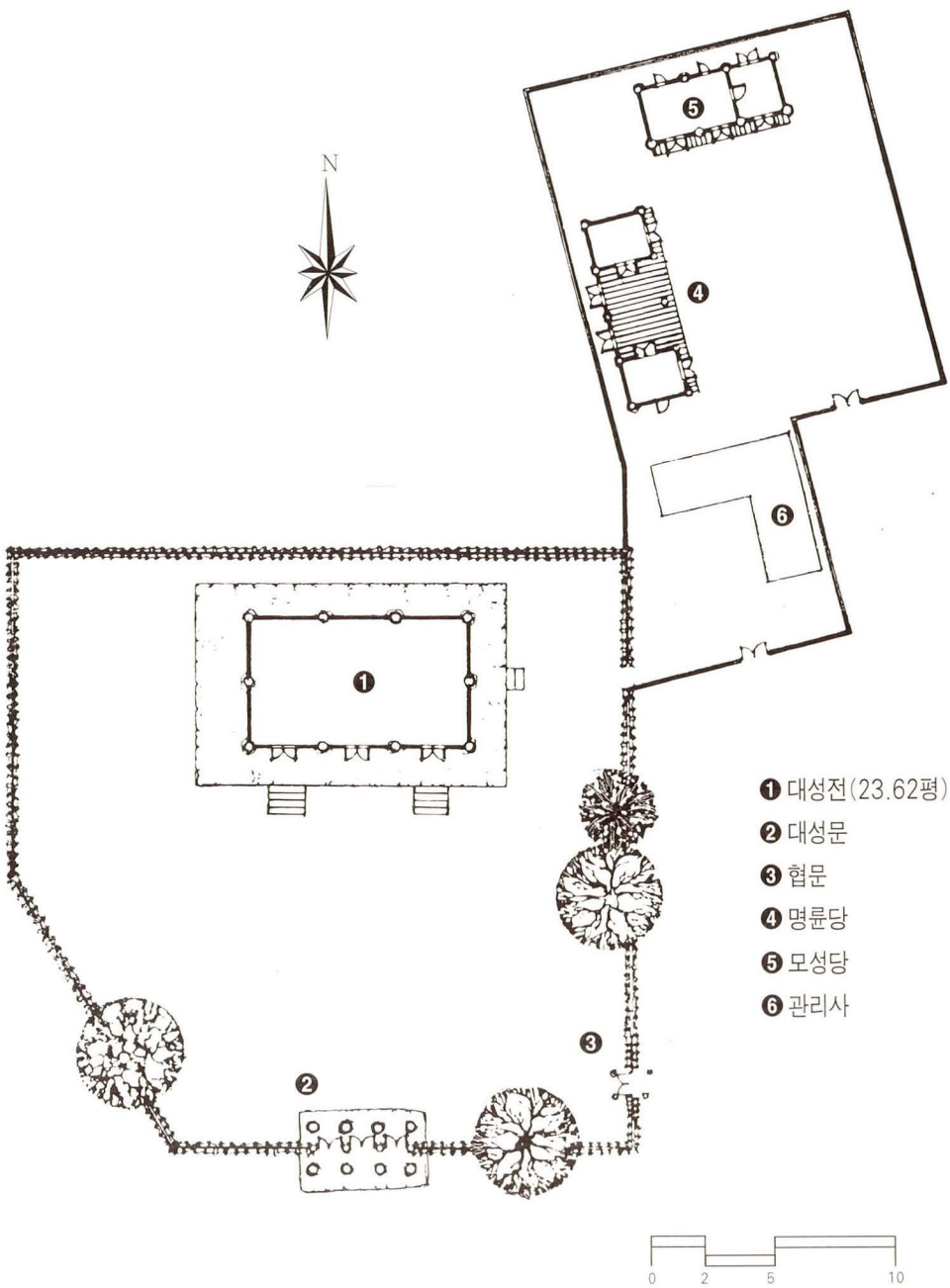

❶ 대성전(28.93평)
❷ 내삼문(4.69평)
❸ 동재(11.07평)
❹ 서재
❺ 명륜당(26.62평)
❻ 외삼문
❼ 관리사
N
杏
0 2 5 10

180. 聞慶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7.46평)
❷ 동무
❸ 내삼문
❹ 동재(6.72평)
❺ 서재(3.56평)
❻ 명륜당(20.85평)
❼ 외삼문(4.2평)
❽ 관리사
❾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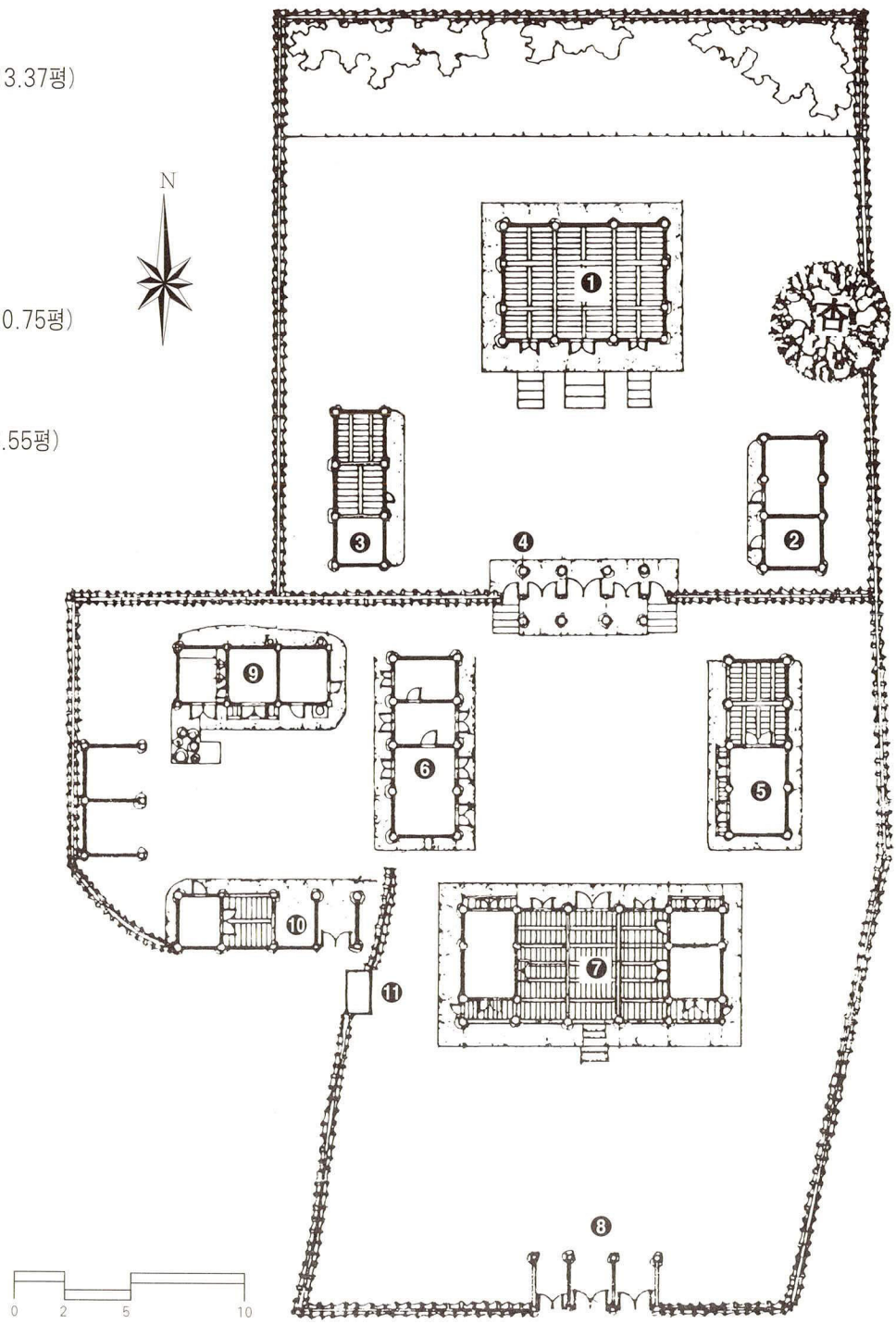


181. 慶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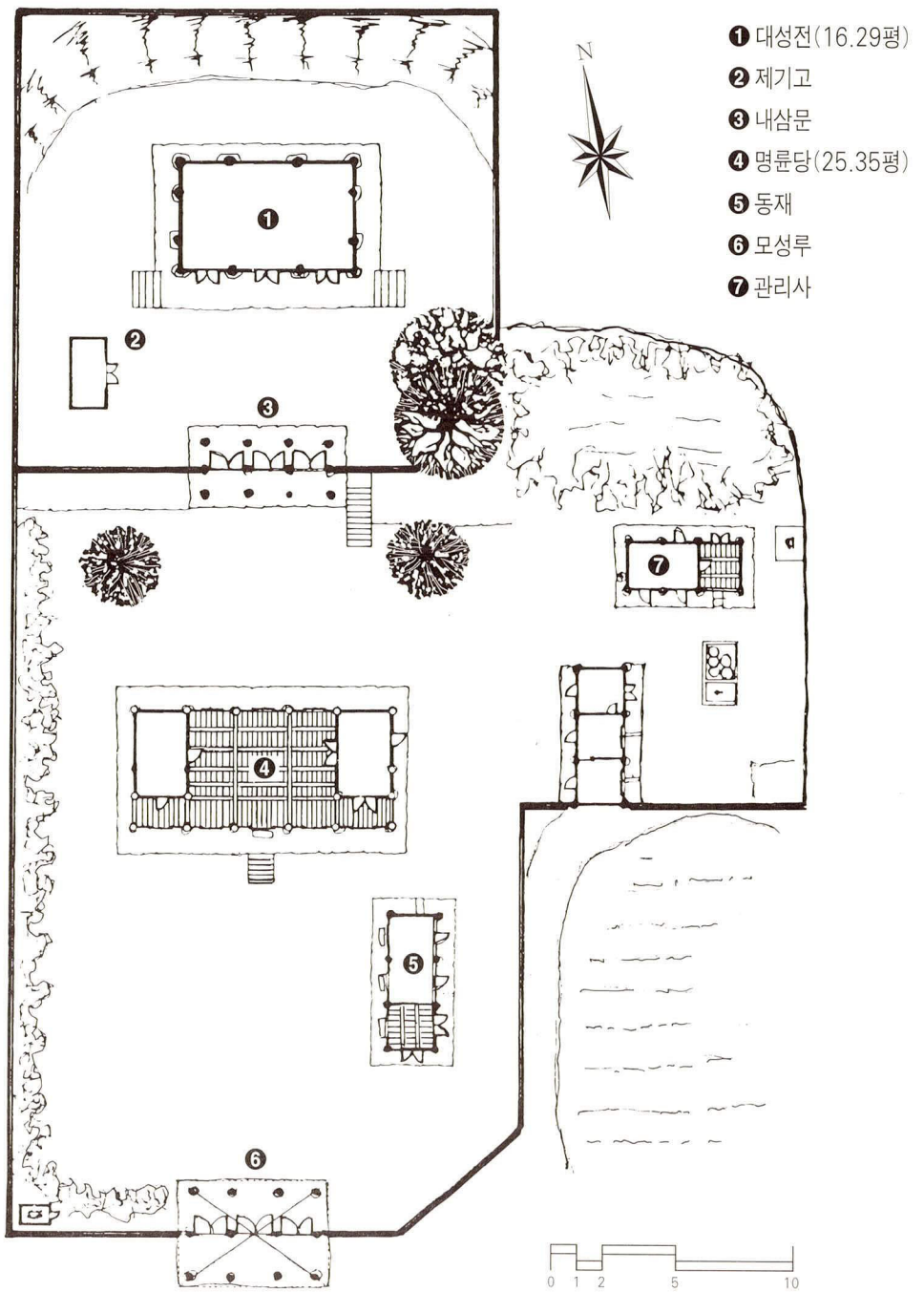


182. 河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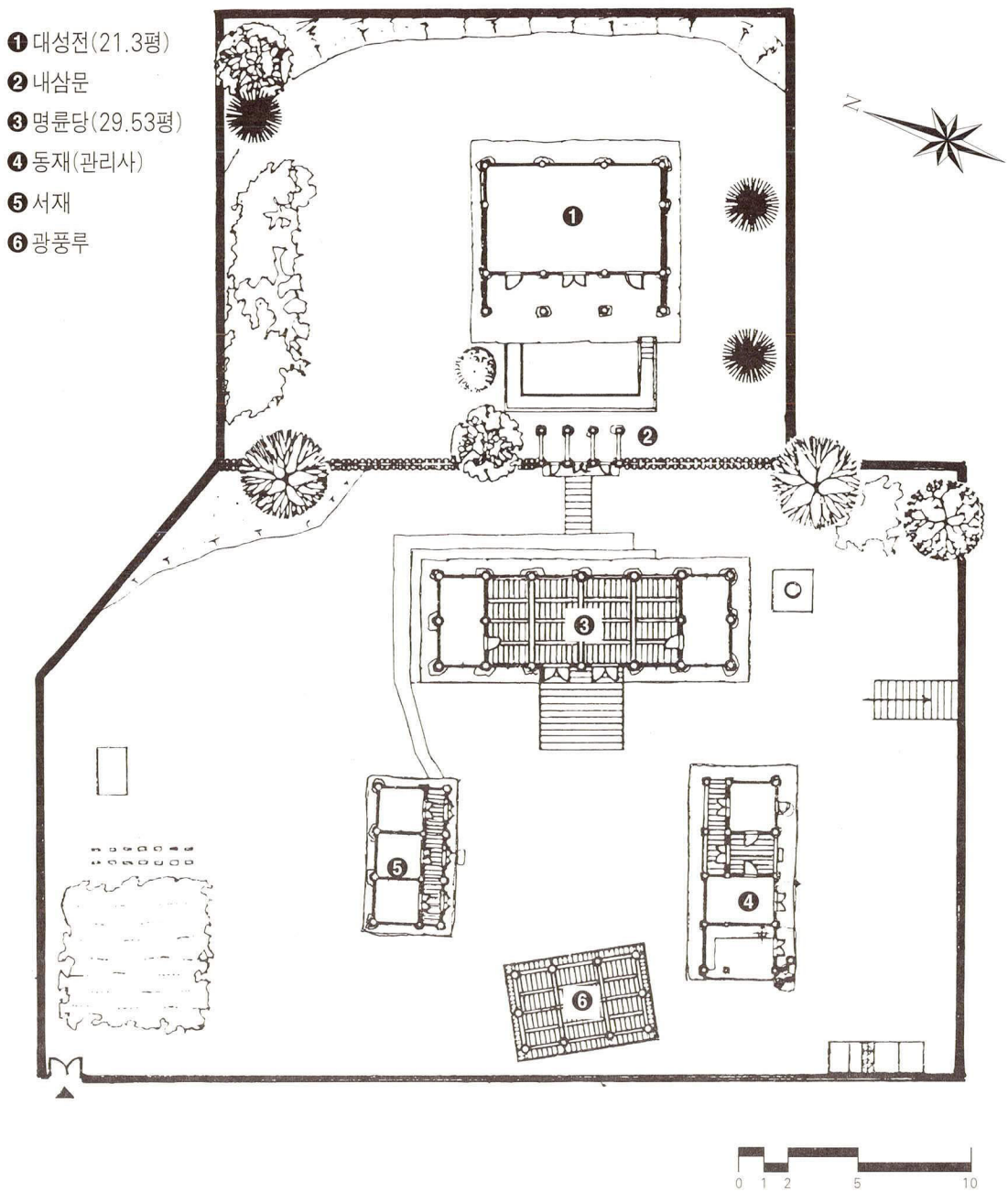
❶ 대성전(13.37평)
❷ 제기고
❸ 전사청
❹ 내삼문
❺ 동재
❻ 서재
❼ 명륜당(20.75평)
❽ 외삼문
❾ 관리사
❿ 문간채(6.55평)
⓫ 변소



183. 慈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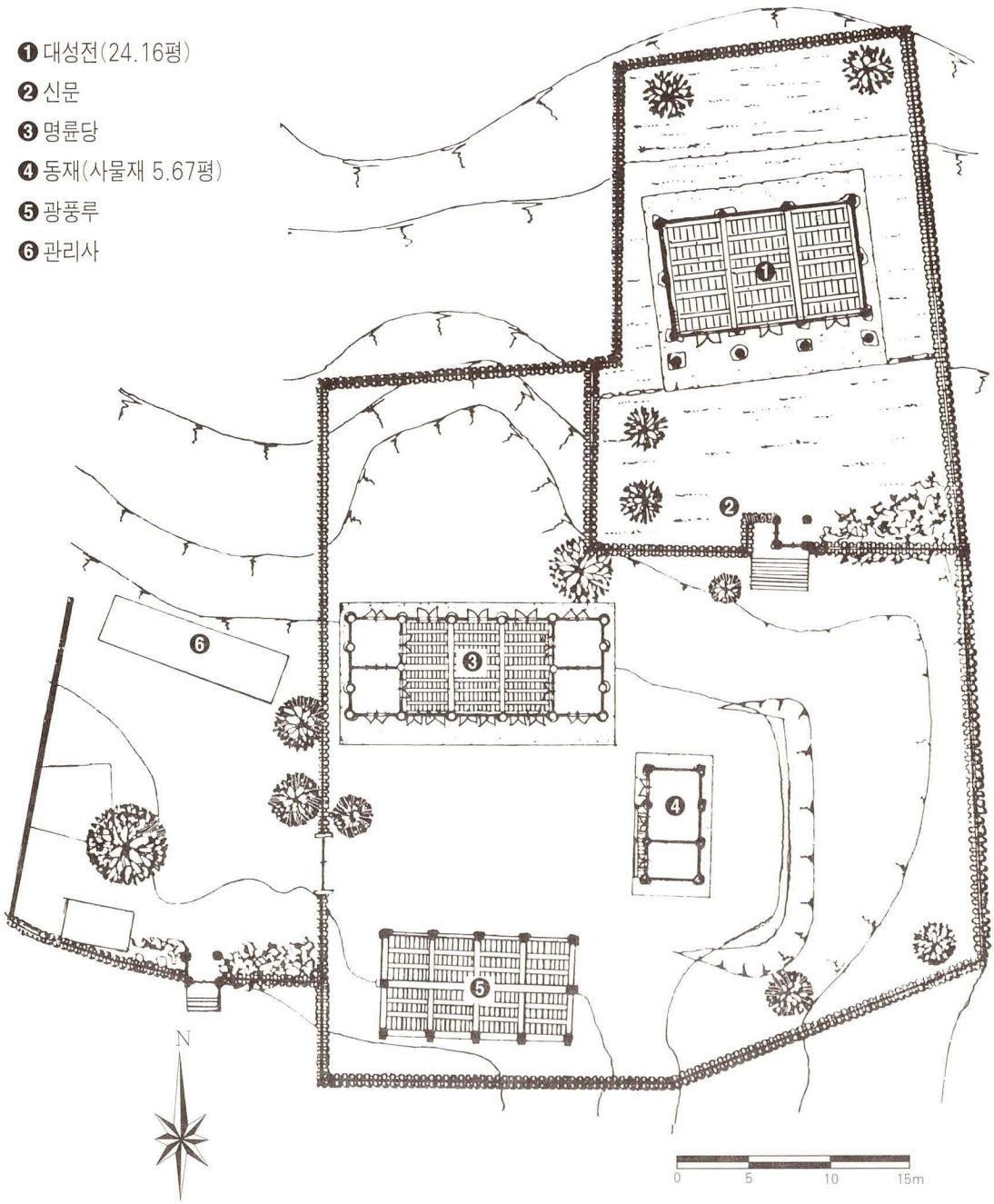


184. 軍威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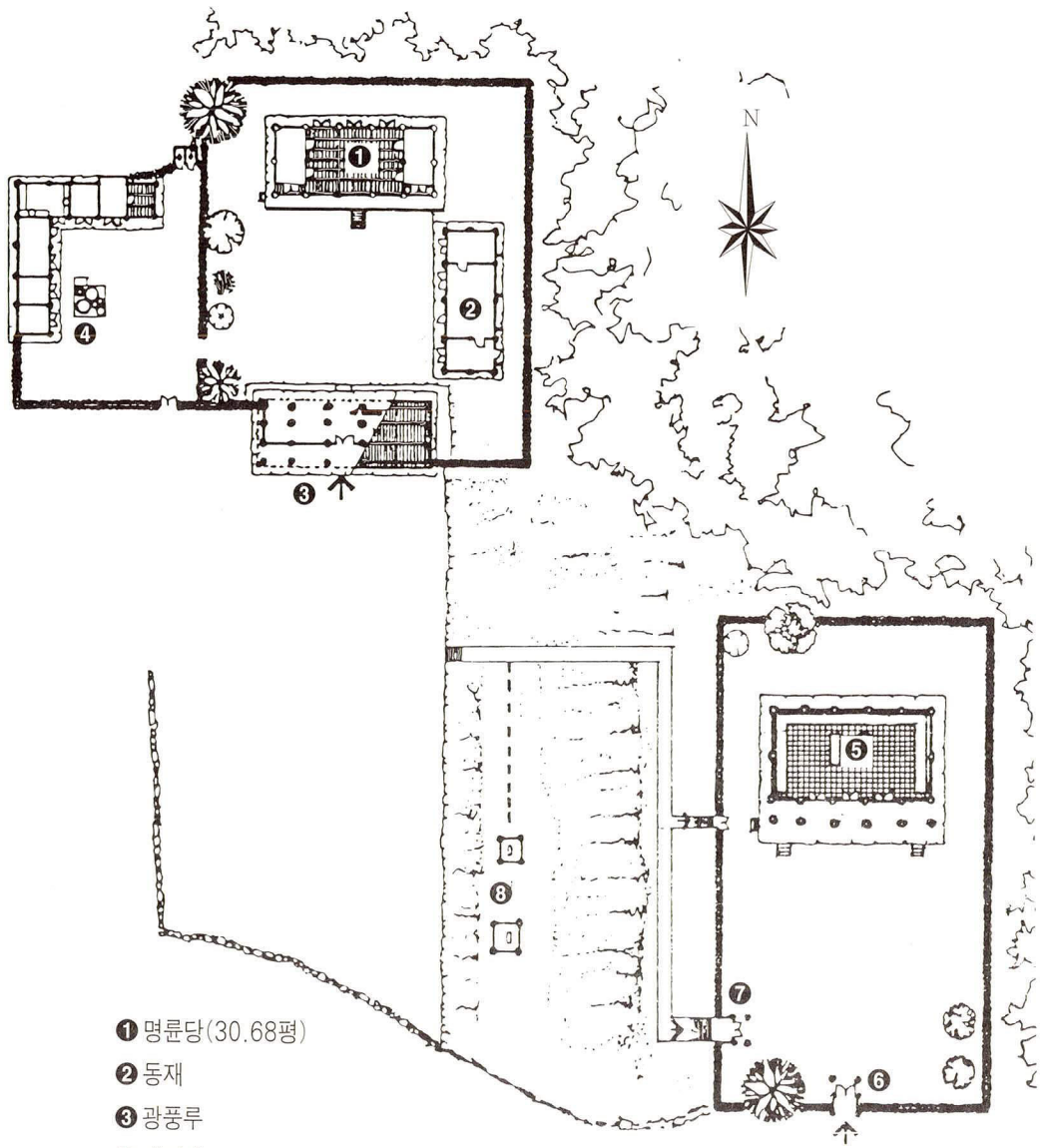


185. 義興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4.16평)
❷ 신문
❸ 명륜당
❹ 동재(사물재 5.67평)
❺ 광풍루
❻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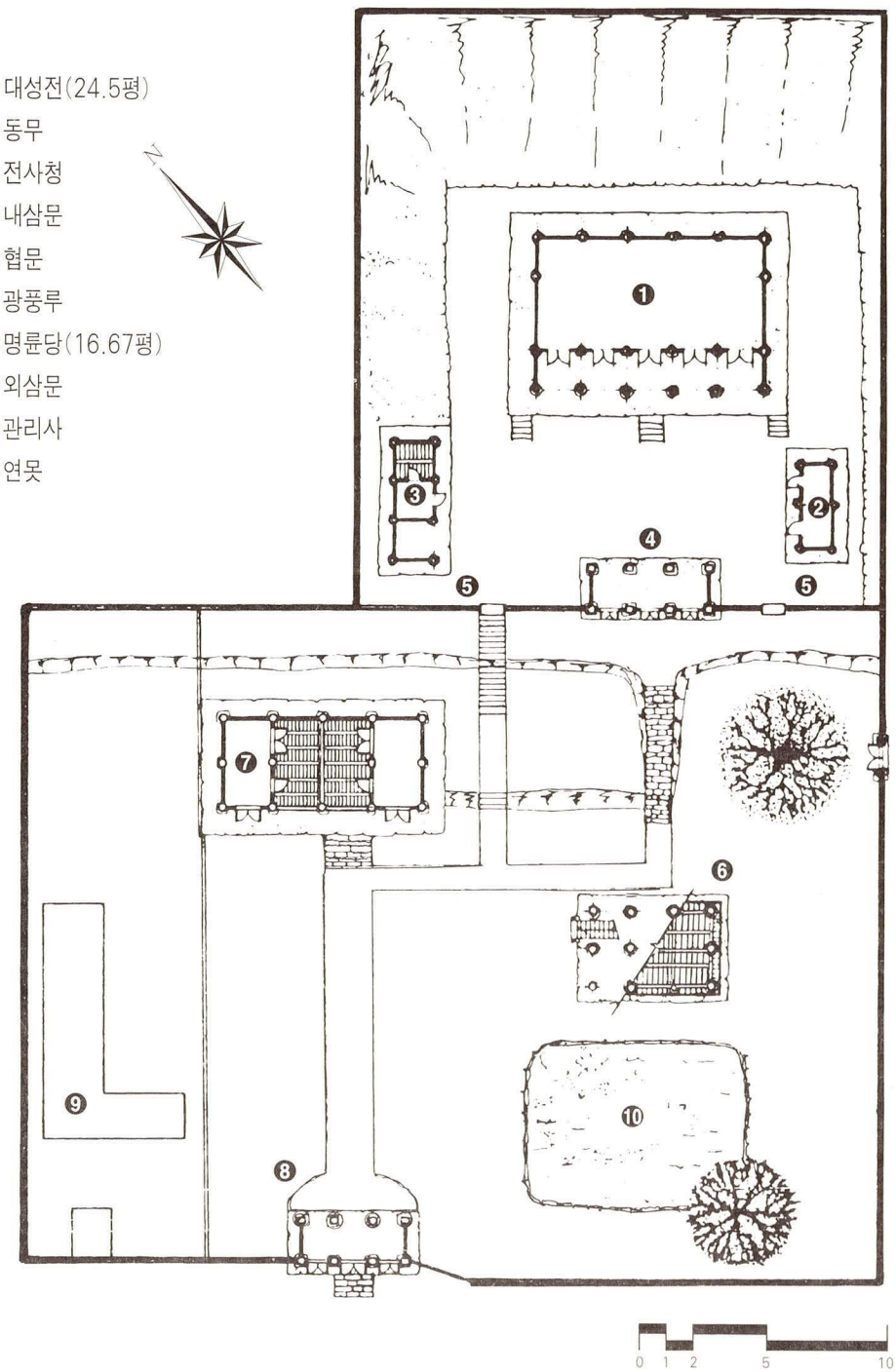
186. 義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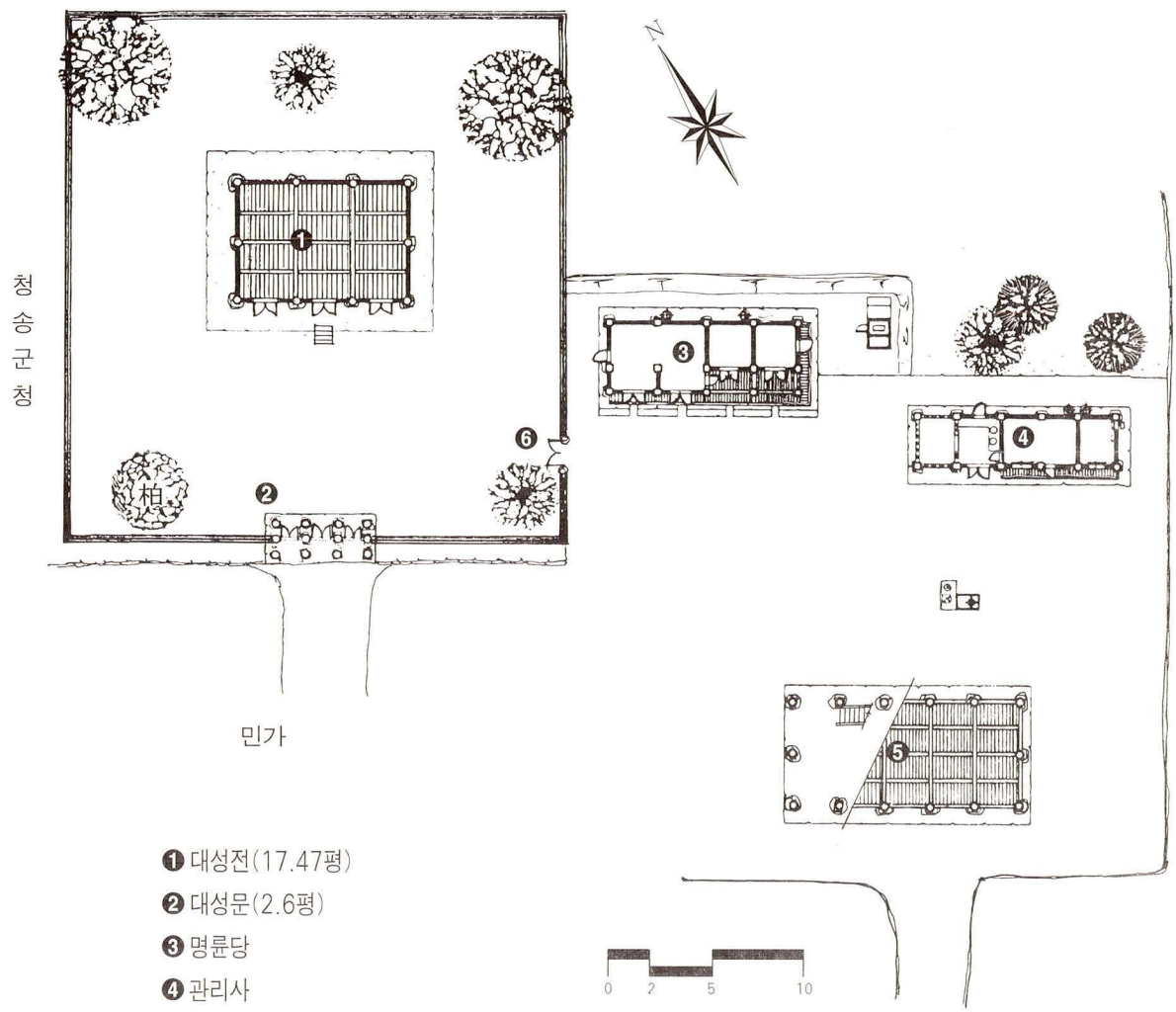
❶ 명륜당(30.68평)
❷ 동재
❸ 광풍루
❹ 관리사
❺ 대성전(30.68평)
❻ 신문
❼ 협문
❽ 비각

187. 比安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24.5평)
❷ 동무
❸ 전사청
❹ 내삼문
❺ 협문
❻ 광풍루
❼ 명륜당(16.67평)
❽ 외삼문
❾ 관리사
❿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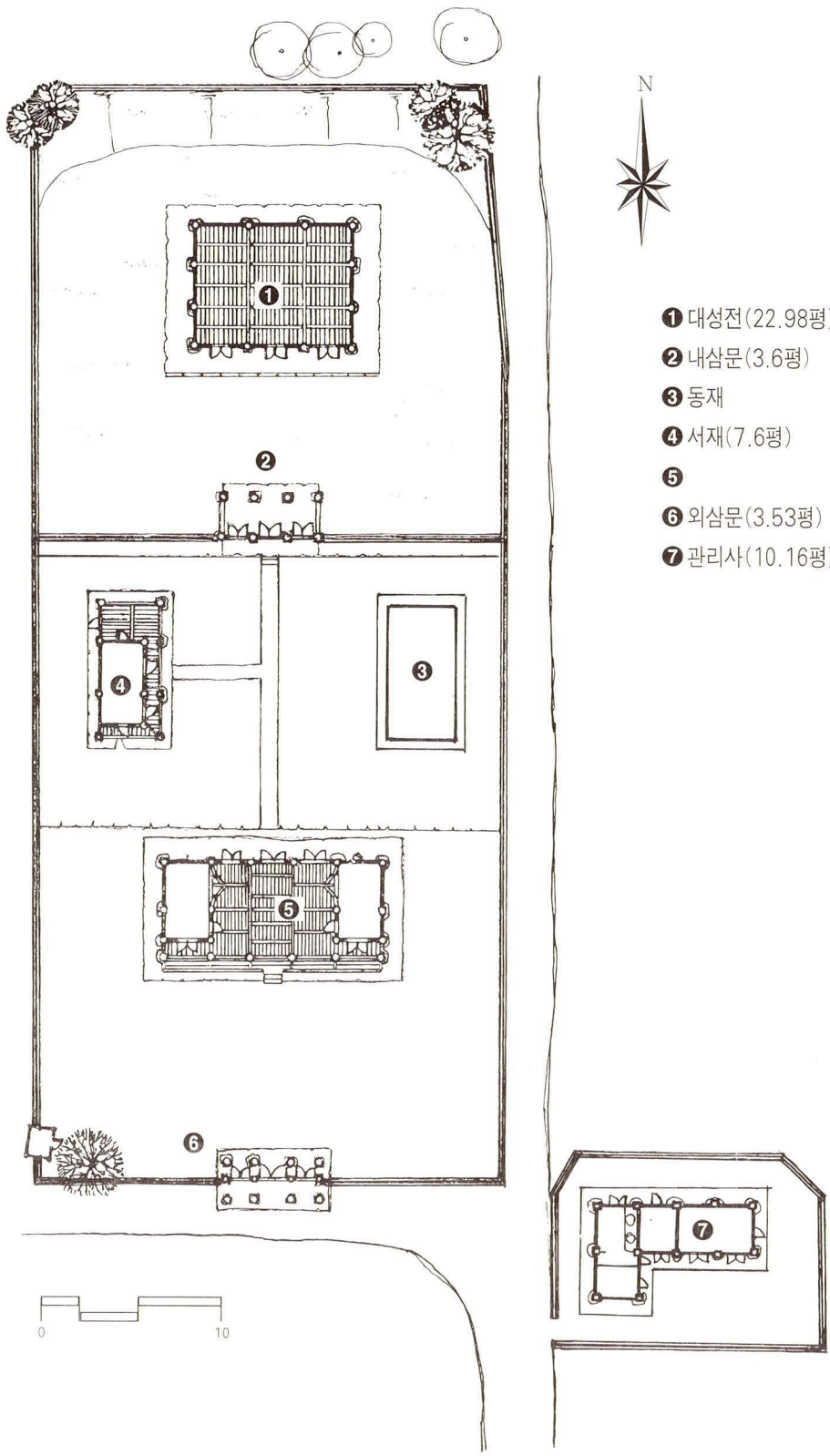


188. 靑松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7.47평)
❷ 대성문(2.6평)
❸ 명륜당
❹ 관리사
❺ 청아루(19.8평)
❻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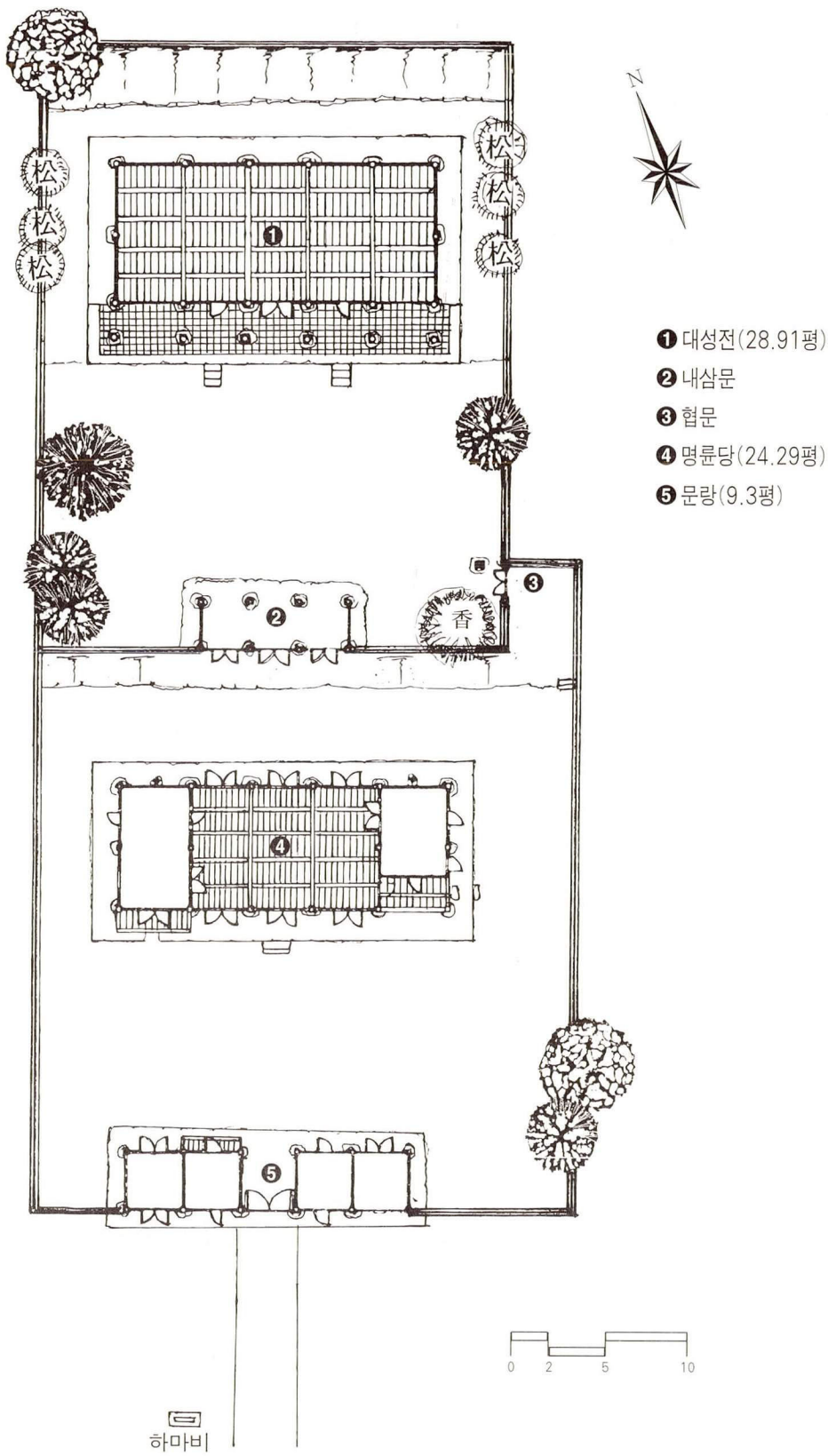
189. 眞寶鄕校 配置圖



명륜당(19.2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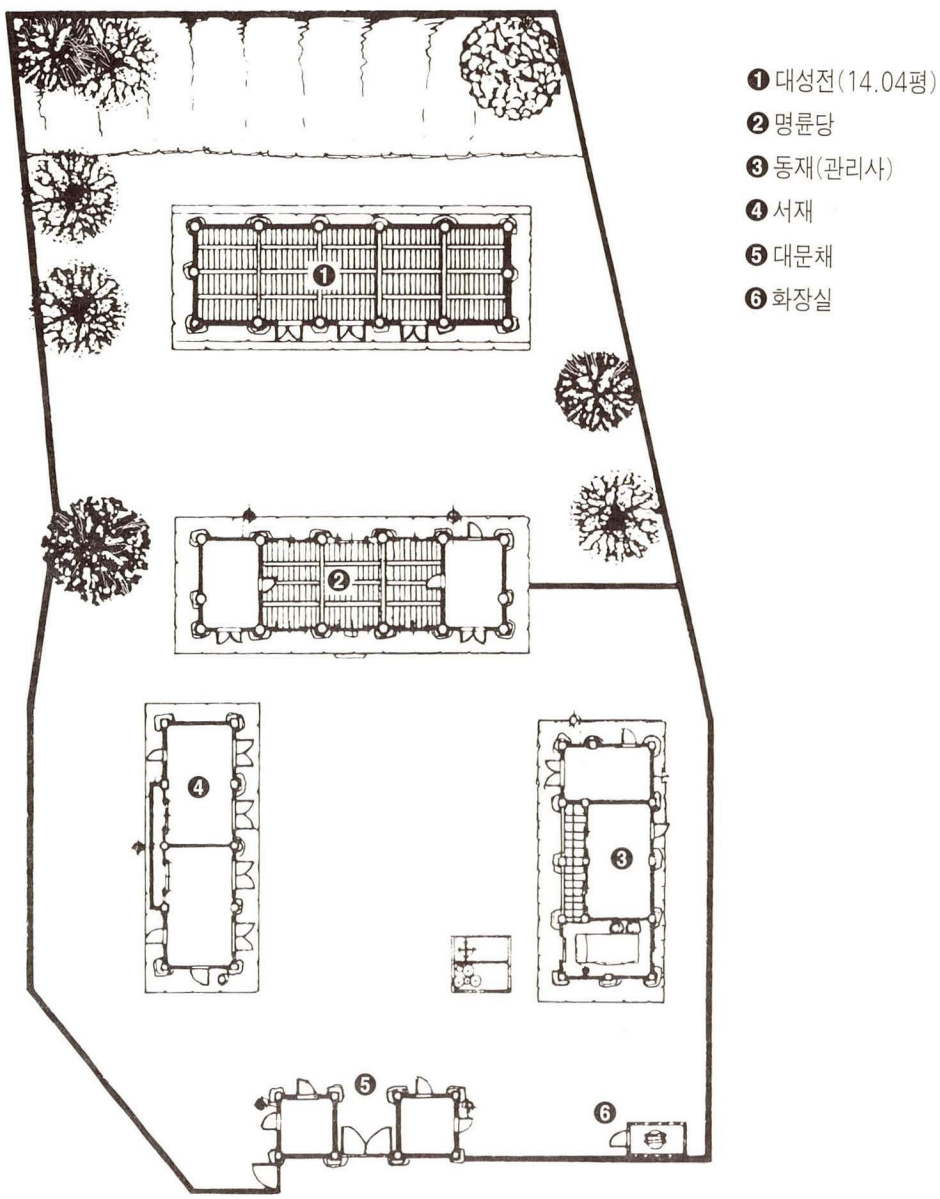
❶ 대성전(22.98평)
❷ 내삼문(3.6평)
❸ 동재
❹ 서재(7.6평)
❺
❻ 외삼문(3.53평)
❼ 관리사(10.16평)

190. 英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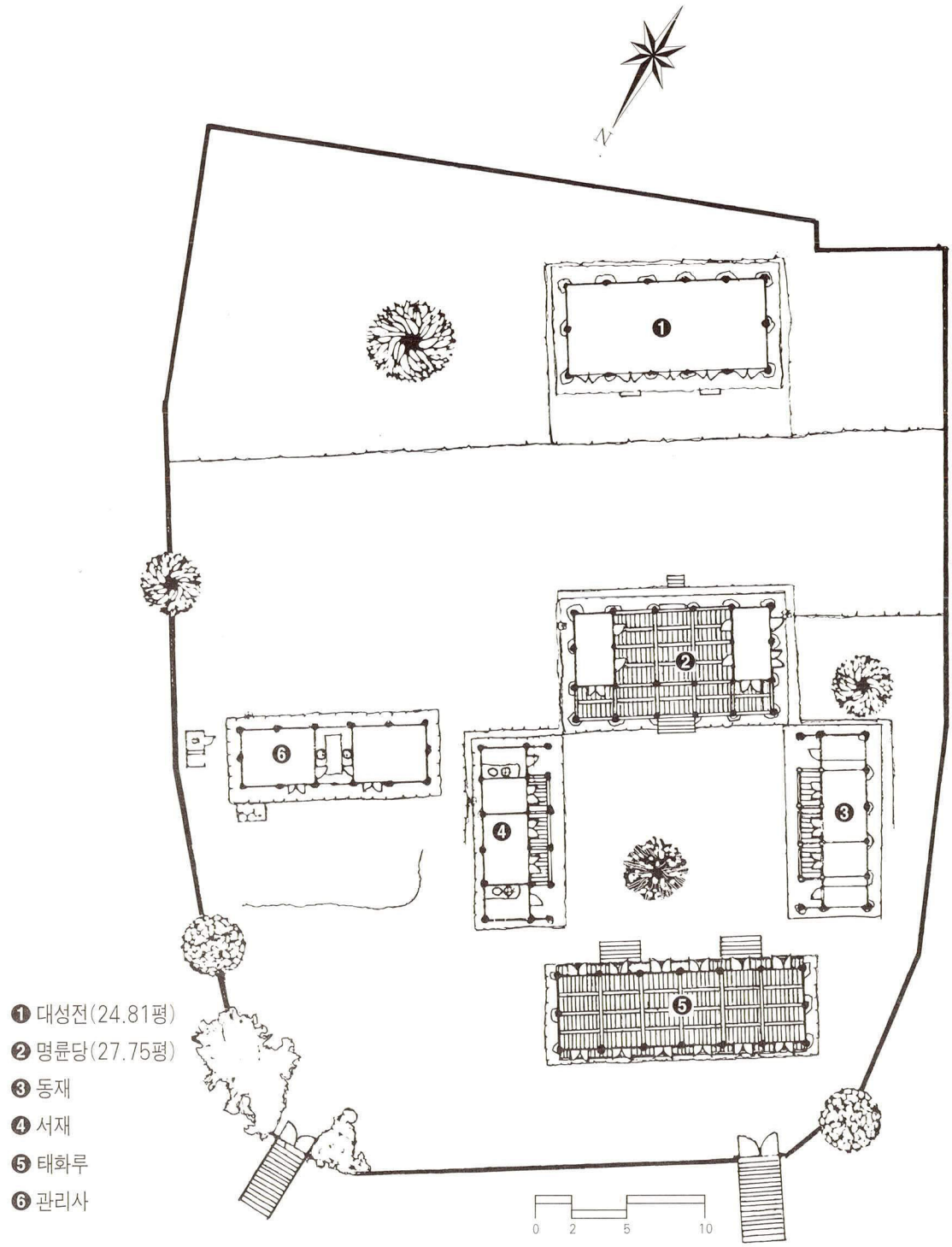


❶ 대성전(28.91평)
❷ 내삼문
❸ 협문
❹ 명륜당(24.29평)
❺ 문랑(9.3평)

191. 盈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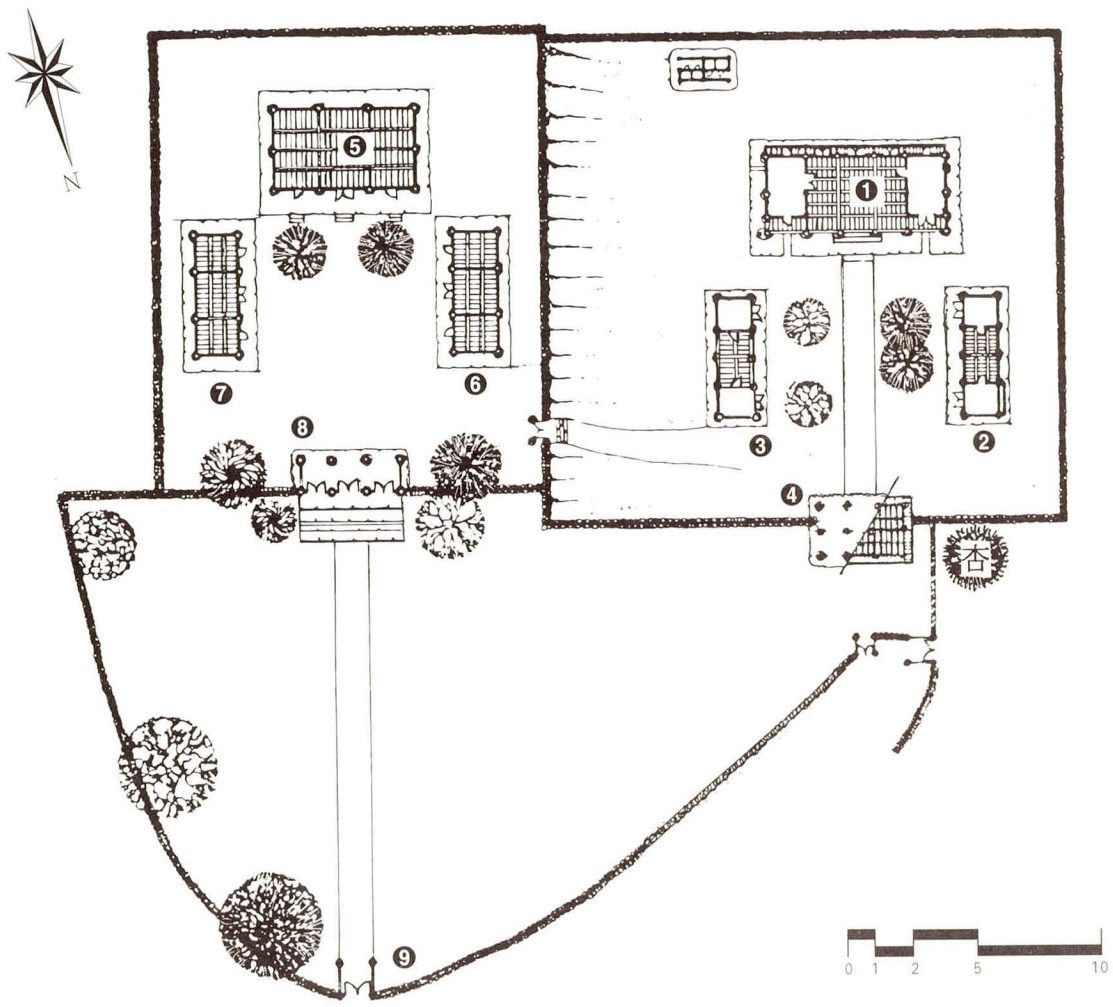


192. 寧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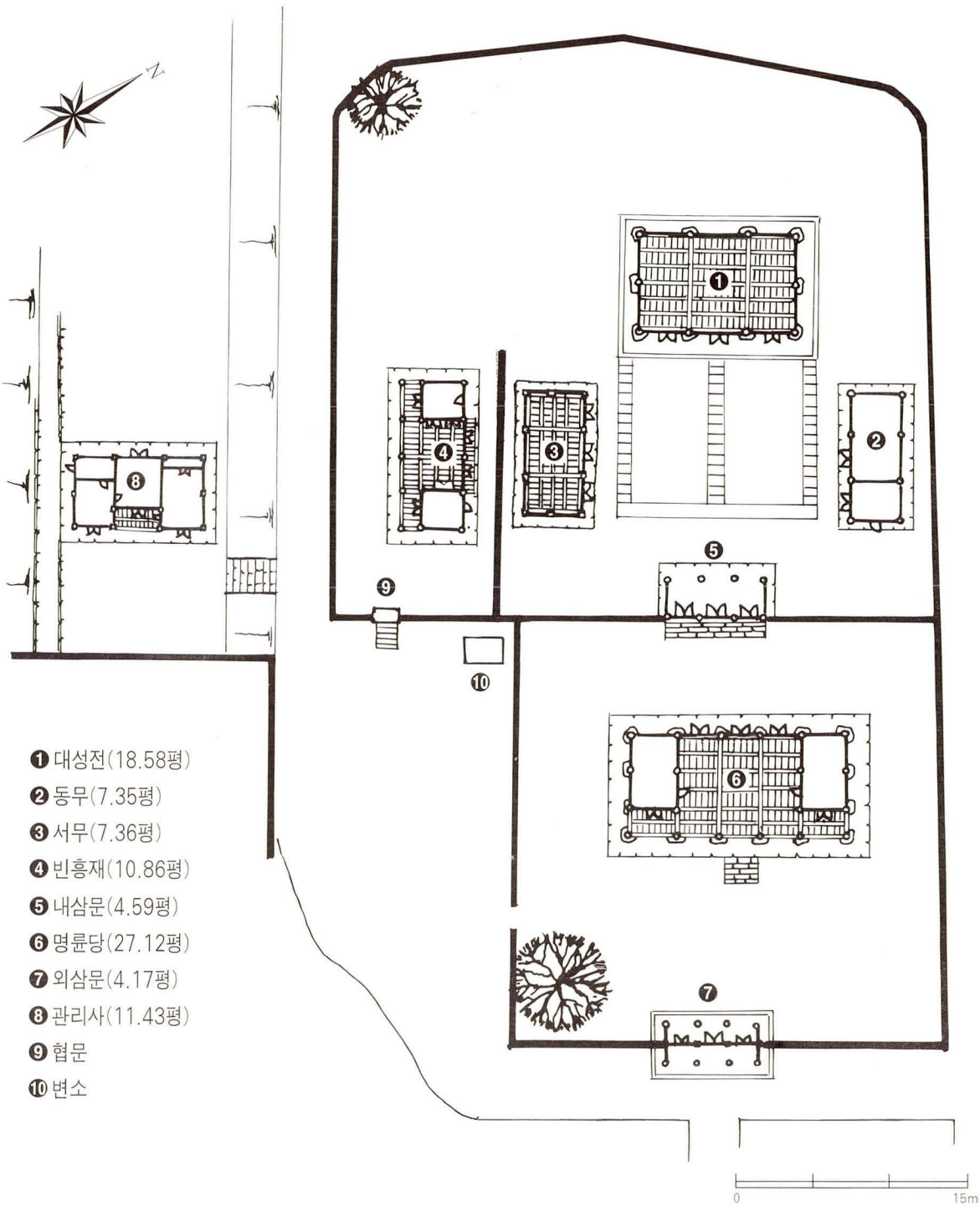
❶ 대성전(24.81평)
❷ 명륜당(27.75평)
❸ 동재
❹ 서재
❺ 태화루
❻ 관리사

193. 淸道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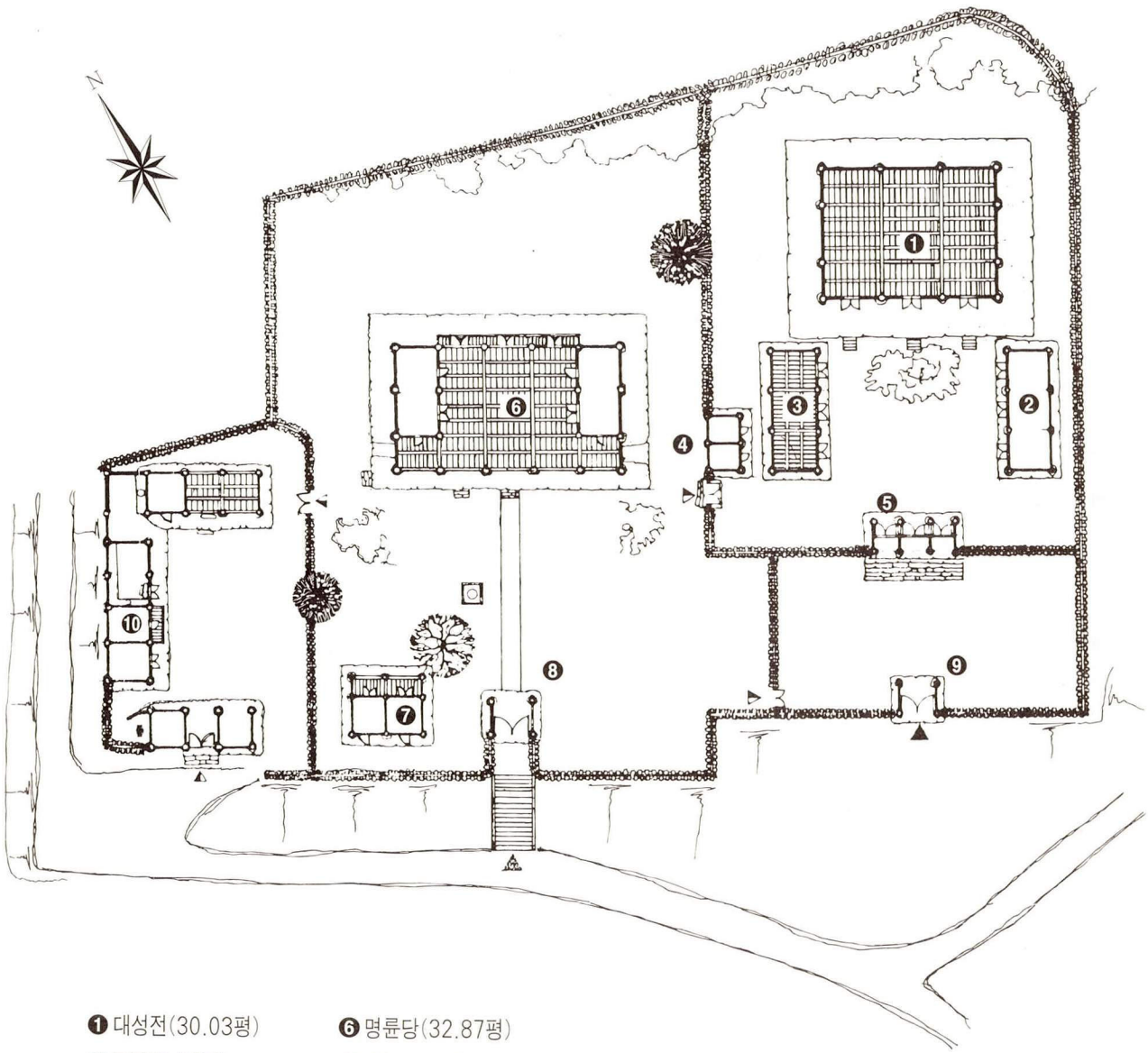


❶ 명륜당(22.5평)
❷ 동재(8.2평)
❸ 서재(8.2평)
❹ 사락루(11.29평)
❺ 대성전(21.86평)
❻ 동무(10.21평)
❼ 서무(10.36평)
❽ 내삼문(6.09평)
❾ 사주문(2.21평)

194. 高靈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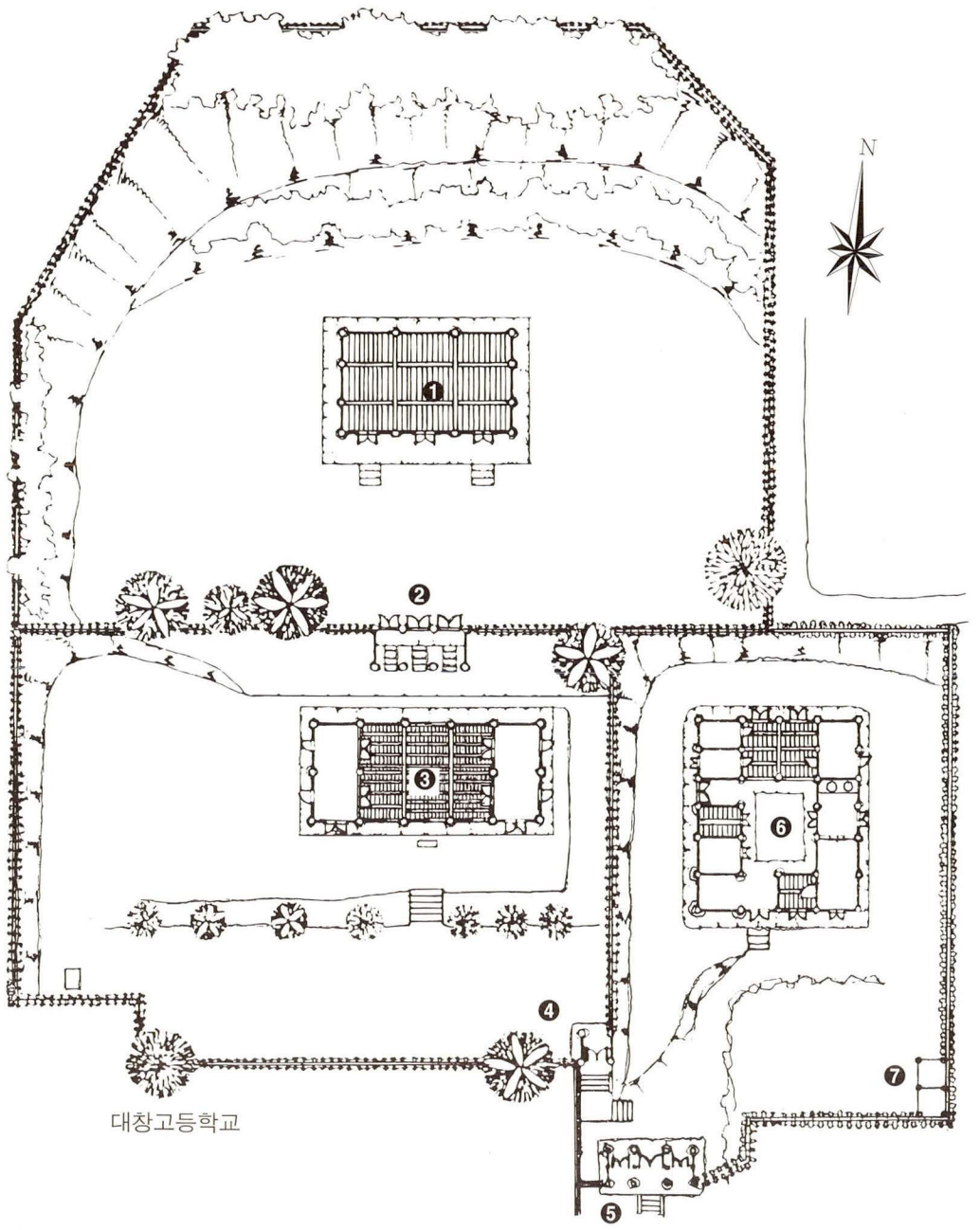

N
❶ 대성전(18.58평)
❷ 동무(7.35평)
❸ 서무(7.36평)
❹ 빈흥재(10.86평)
❺ 내삼문(4.59평)
❻ 명륜당(27.12평)
❼ 외삼문(4.17평)
❽ 관리사(11.43평)
❾ 협문
❿ 변소
0
15m

195. 星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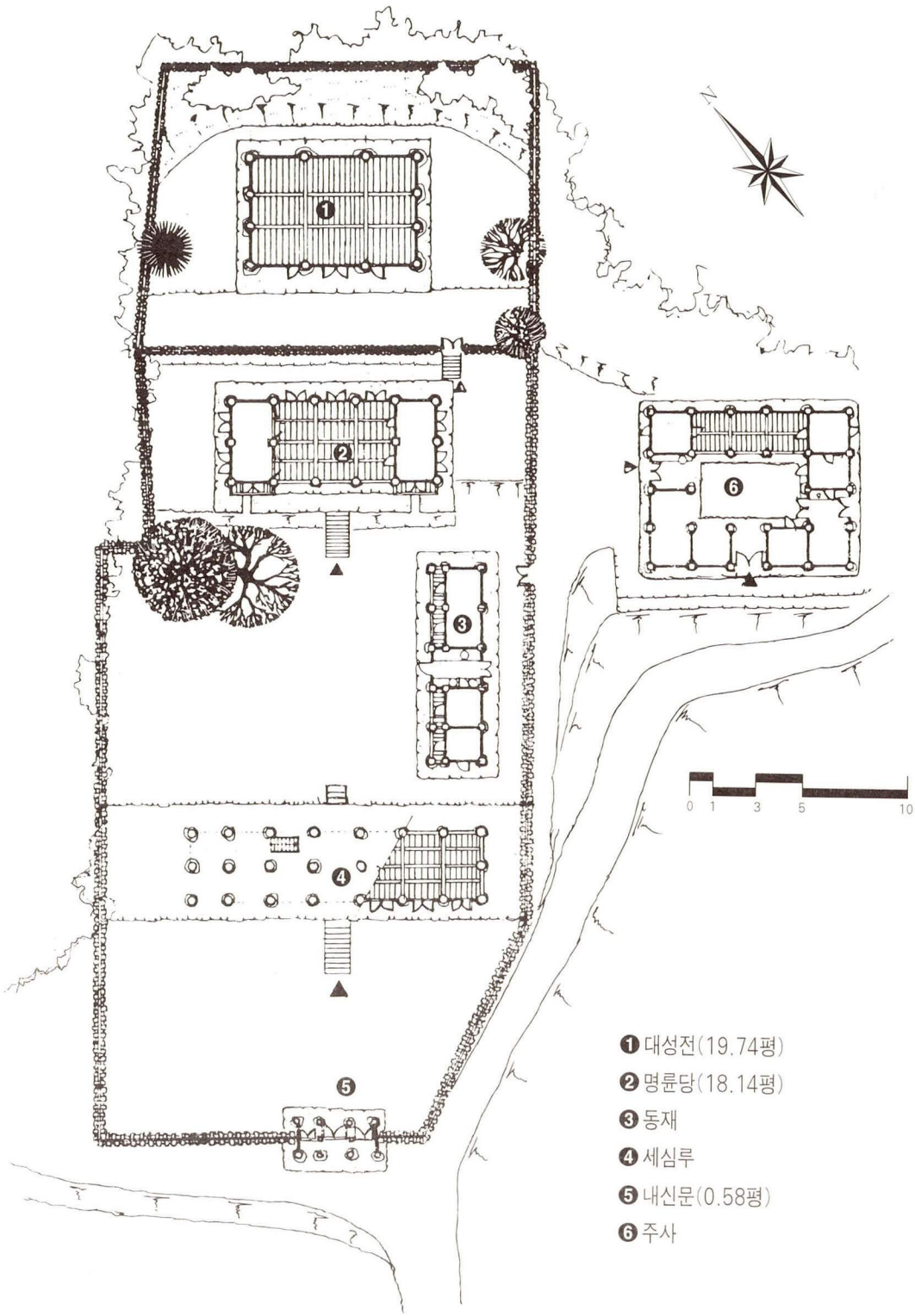
❶ 대성전(30.03평)
❷ 동무(6.52평)
❸ 서무(6.52평)
❹ 제기고(2.26평)
❺ 대성문(3.6평)
❻ 명륜당(32.87평)
❼ 수복사(5.16평)
❽ 입덕문(1.46평)
❾ 사주문(1.46평)
❿ 관리사

196. 醴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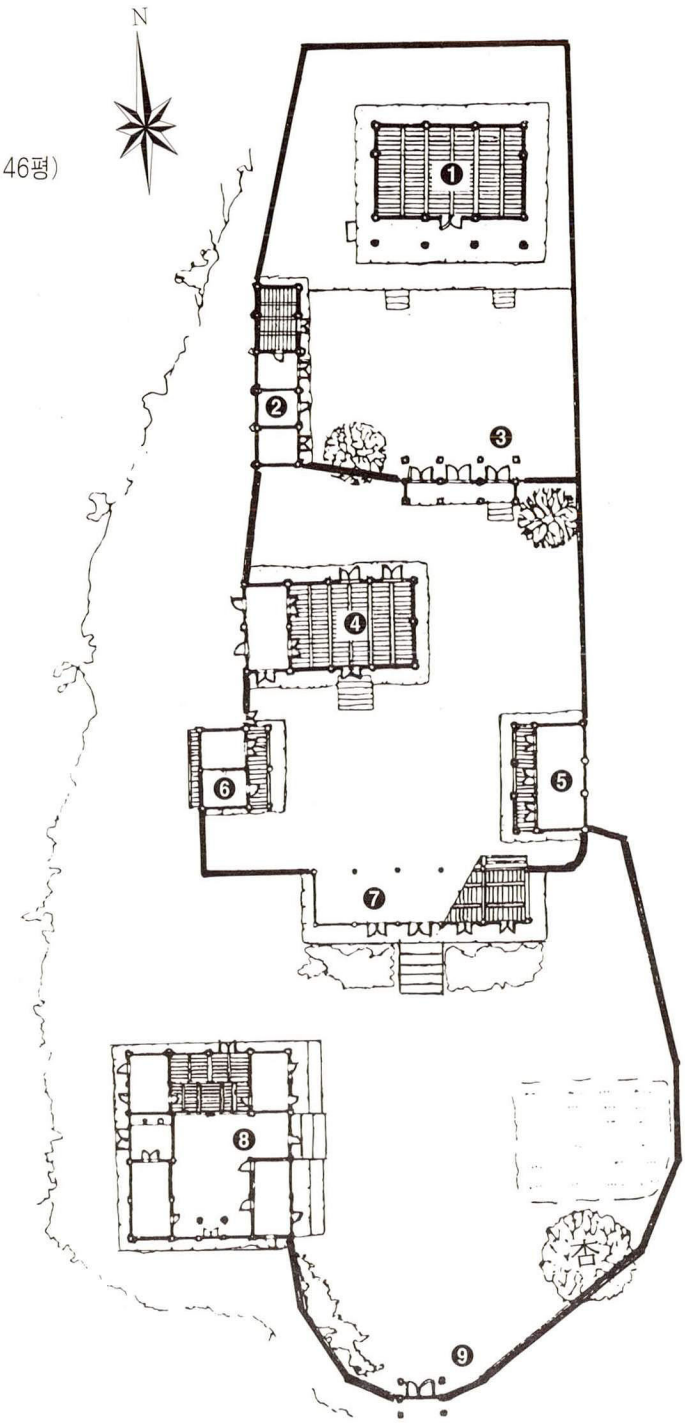
❶ 대성전(19.75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39.93평)
❹ 사주문(0.89평)
❺ 외삼문(3.34평)
❻ 주사(26.74평)
❼ 변소(1.96평)

197. 龍宮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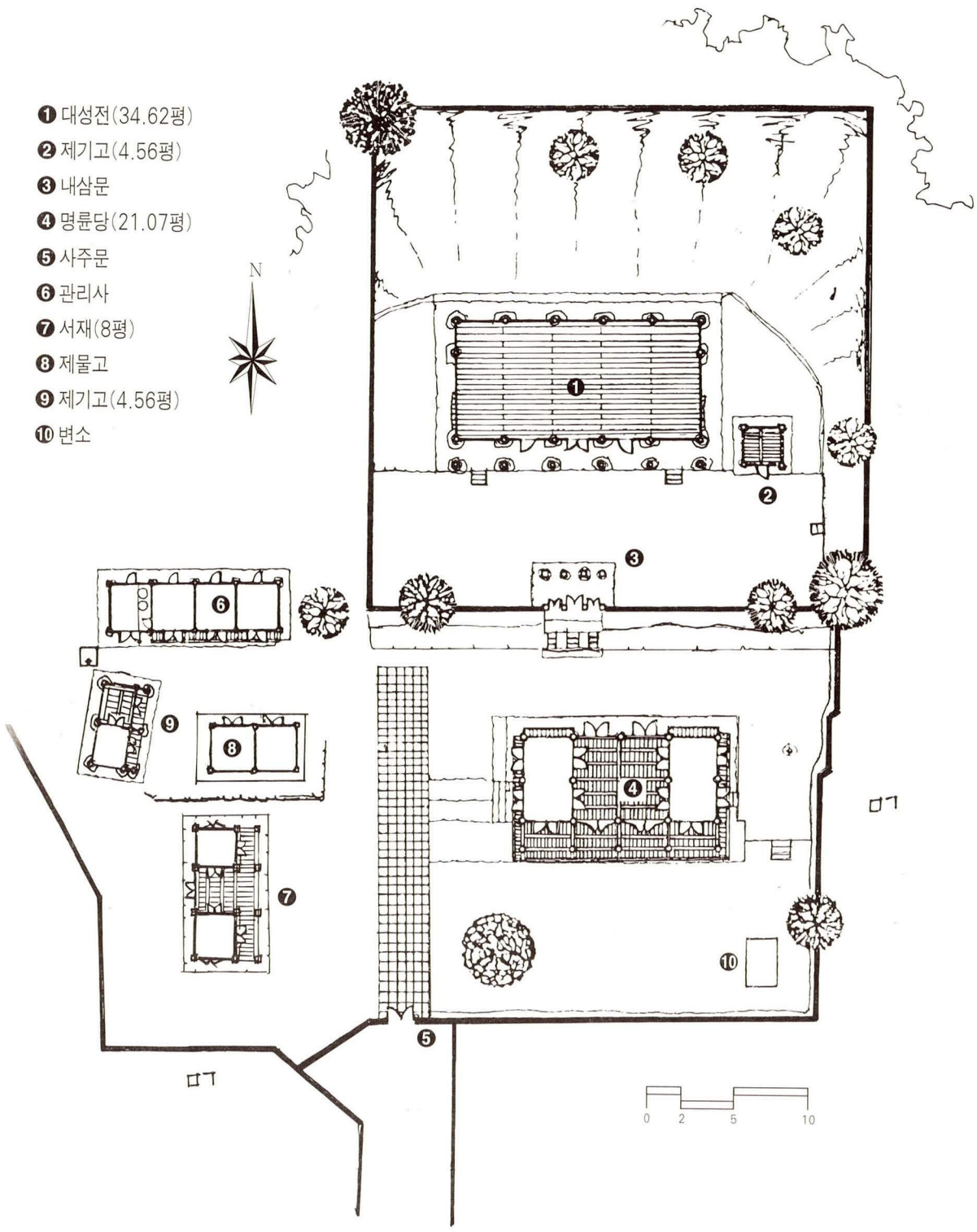


198. 奉化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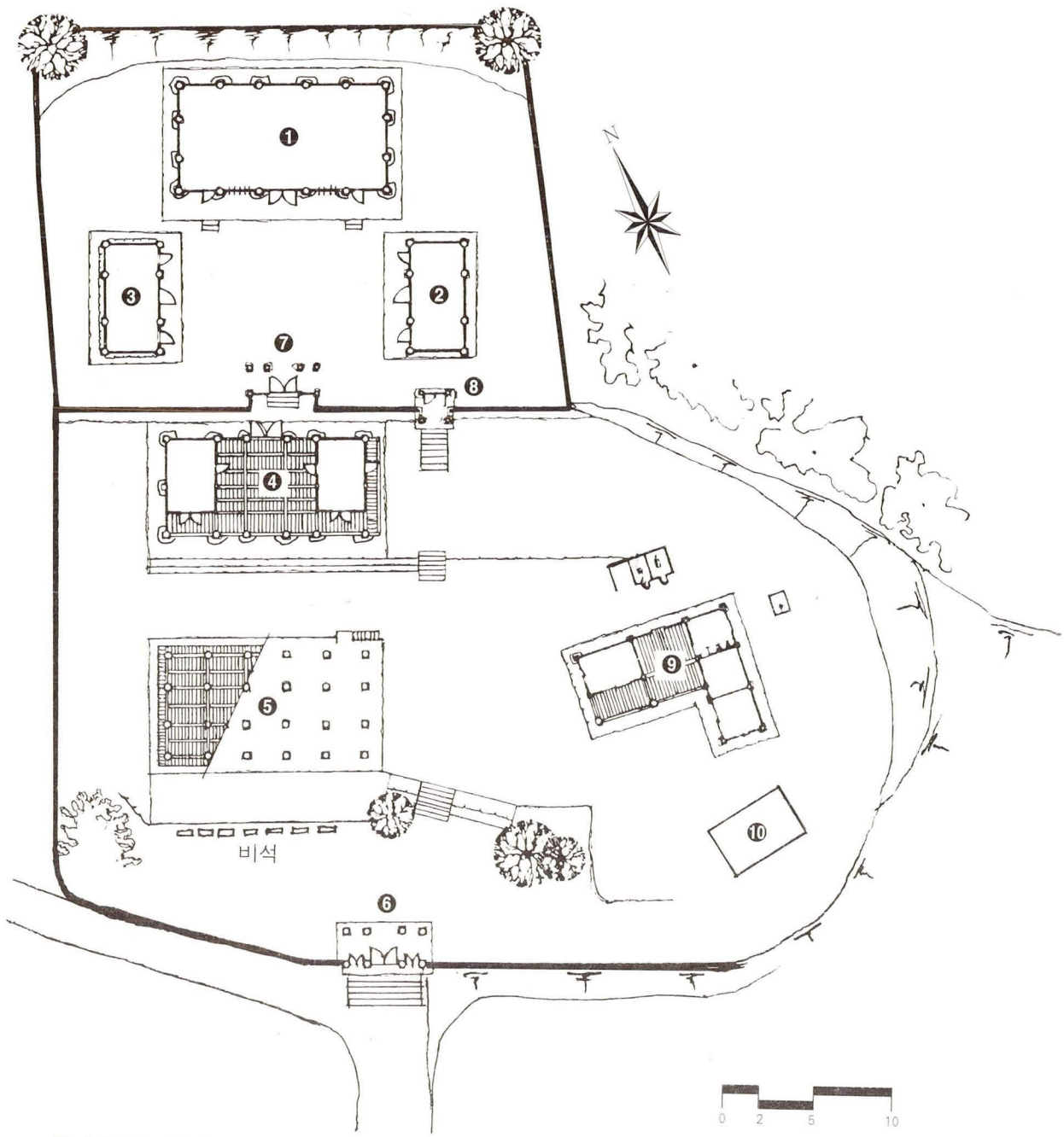
❶ 대성전(15.68평)
❷ 정노당(전사청 20.46평)
❸ 내삼문
❹ 명륜당(15.13평)
❺ 동재
❻ 서재
❼ 문루
❽ 주사
❾ 사주문



199. 蔚珍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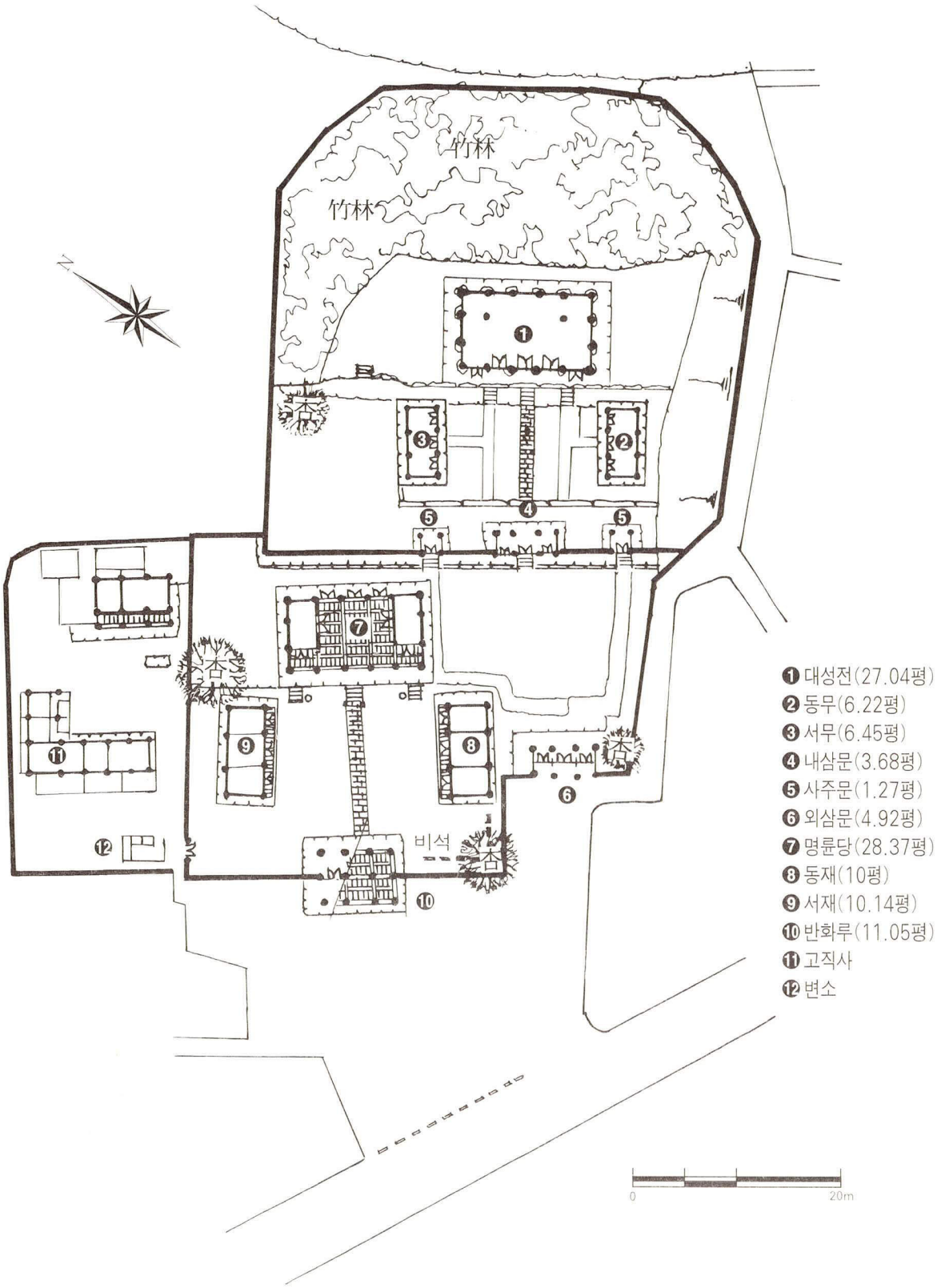

❶ 대성전(34.62평)
❷ 제기고(4.56평)
❸ 내삼문
❹ 명륜당(21.07평)
❺ 사주문
❻ 관리사
❼ 서재(8평)
❽ 제물고
❾ 제기고(4.56평)
❿ 변소
N
0 2 5 10

200. 平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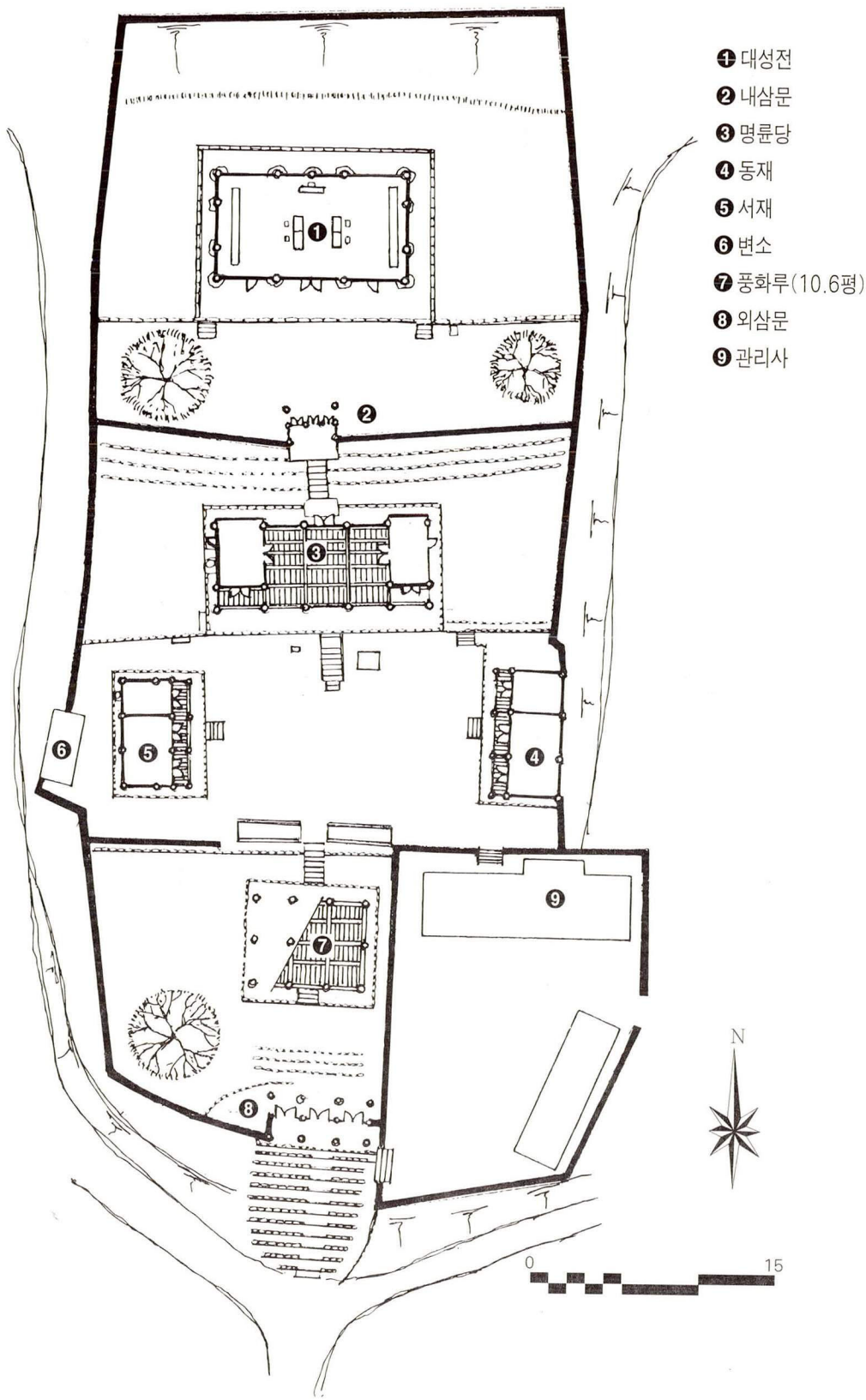


❶ 대성전(24.83평)
❷ 동무(6.64평)
❸ 서무(6.64평)
❹ 명륜당(21.53평)
❺ 태화루(22.58평)
❻ 외삼문
❼ 내삼문(2.07평)
❽ 협문
❾ 관리사
❿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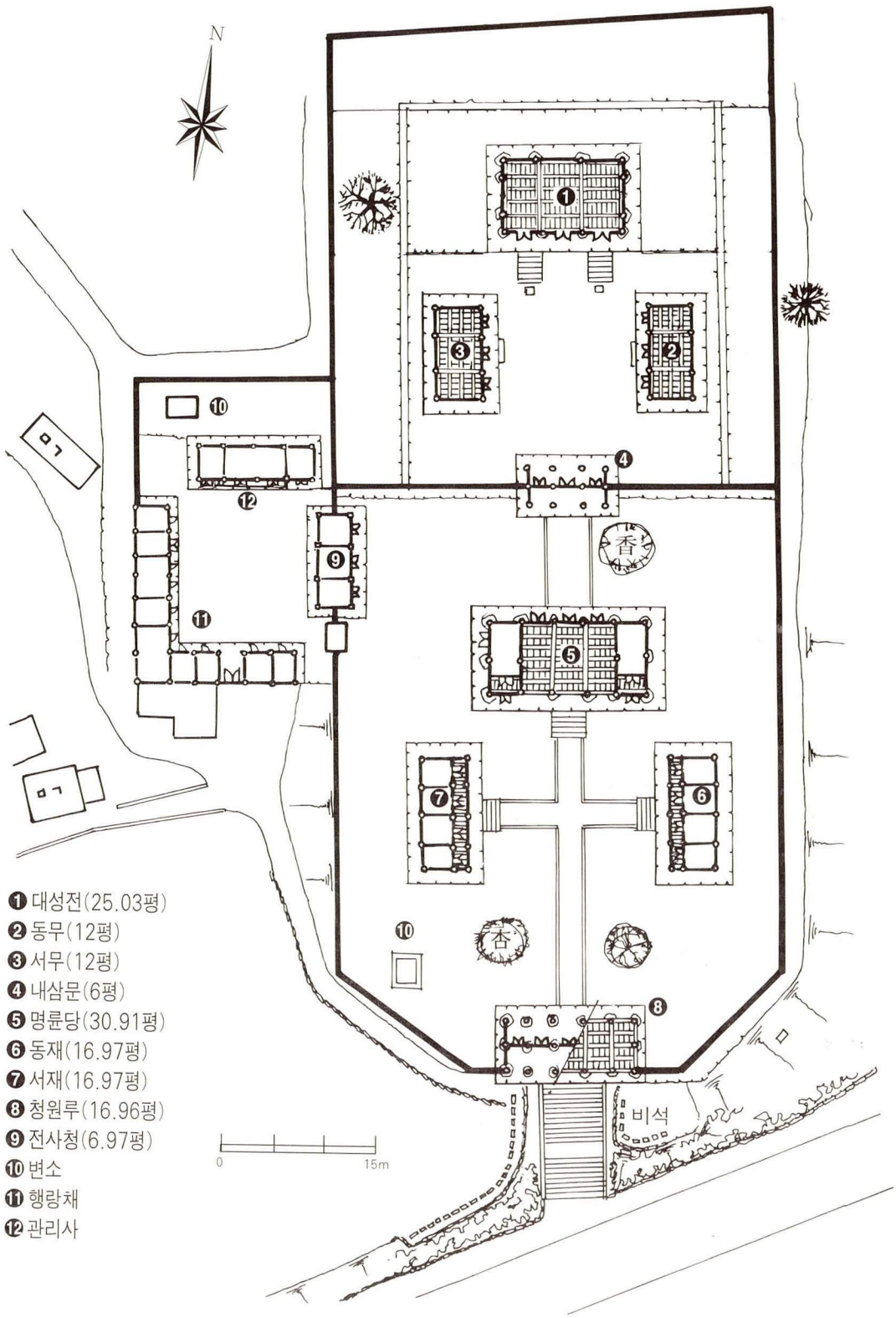
201. 東萊鄕校 配置圖


竹林
竹林
N
杏
杏
杏
杏
비석
❶ 대성전(27.04평)
❷ 동무(6.22평)
❸ 서무(6.45평)
❹ 내삼문(3.68평)
❺ 사주문(1.27평)
❻ 외삼문(4.92평)
❼ 명륜당(28.37평)
❽ 동재(10평)
❾ 서재(10.14평)
❿ 반화루(11.05평)
⓫ 고직사
⓬ 변소
0
20m

202. 機張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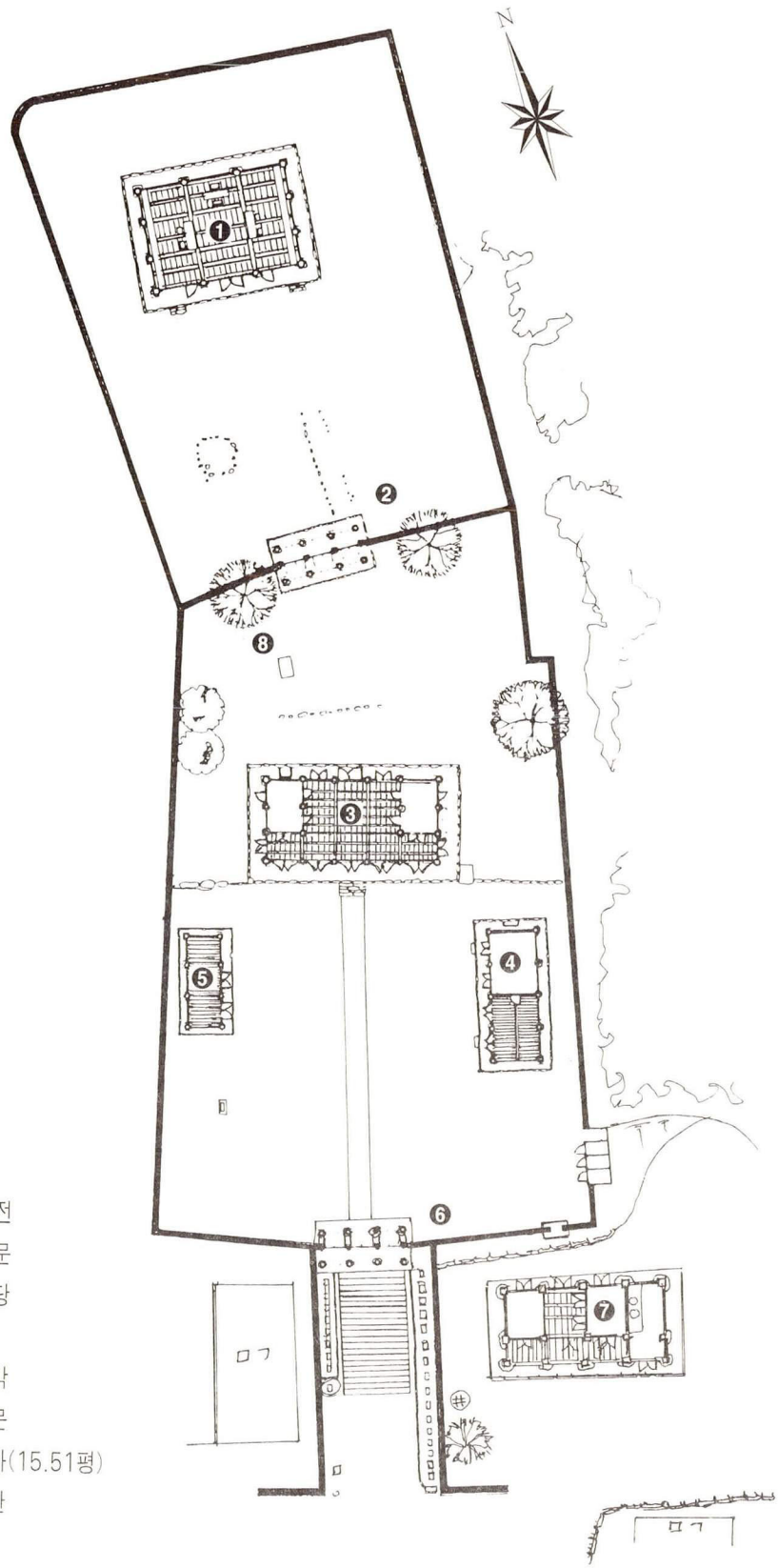


203. 蔚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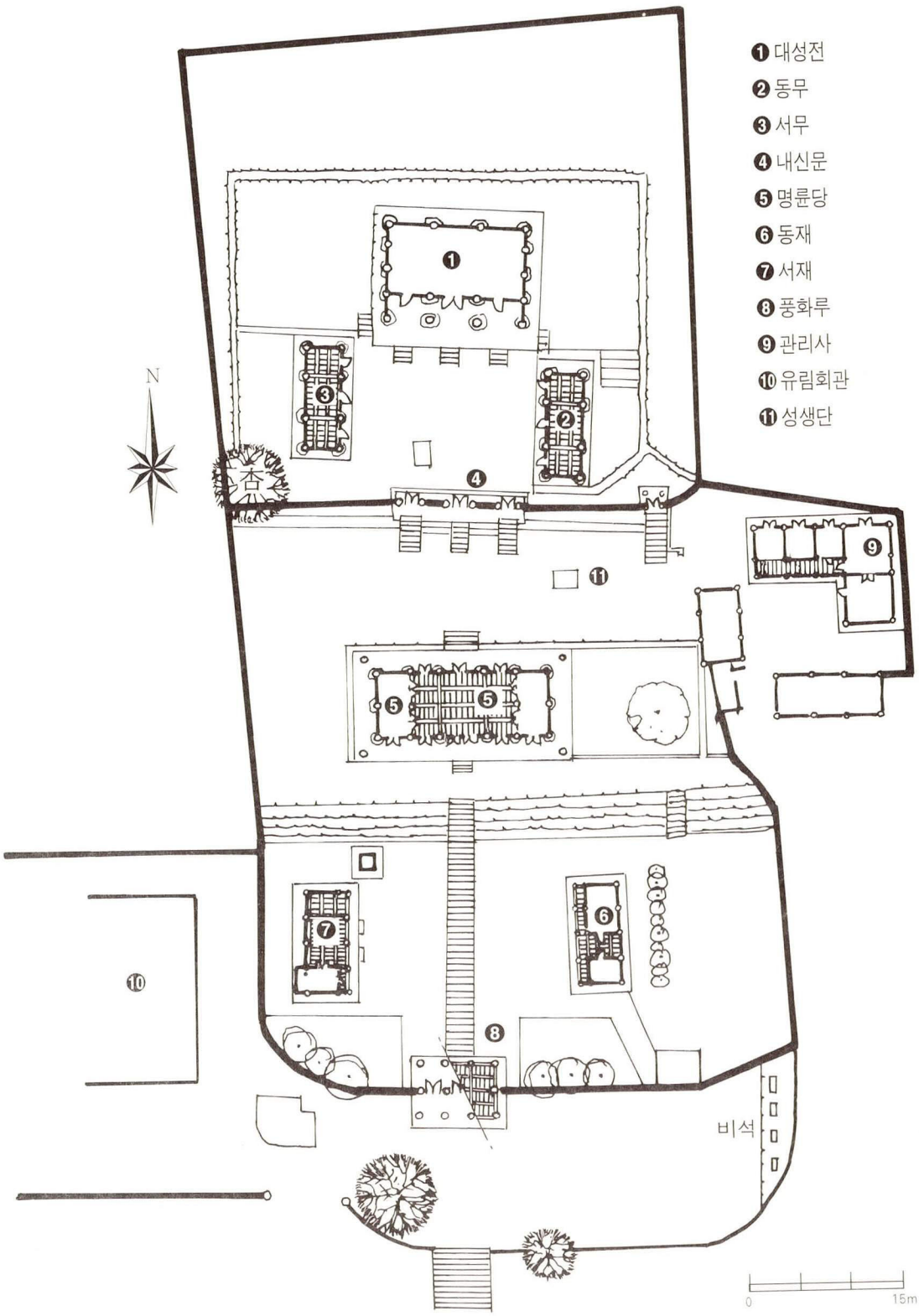
❶ 대성전(25.03평)
❷ 동무(12평)
❸ 서무(12평)
❹ 내삼문(6평)
❺ 명륜당(30.91평)
❻ 동재(16.97평)
❼ 서재(16.97평)
❽ 청원루(16.96평)
❾ 전사청(6.97평)
❿ 변소
⓫ 행랑채
⓬ 관리사

204. 彦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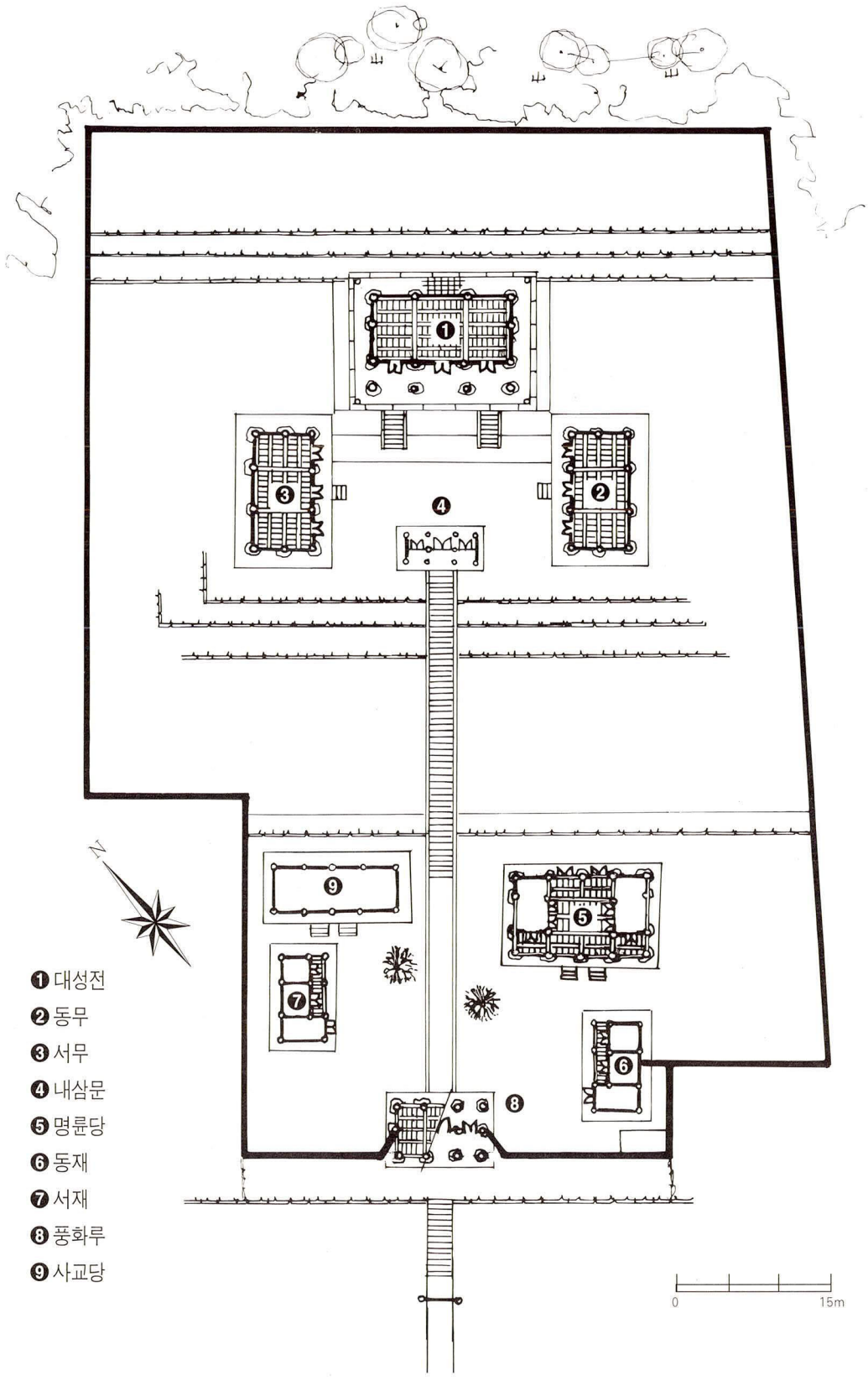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내삼문
❸ 명륜당
❹ 동재
❺ 존경각
❻ 입덕문
❼ 관리사(15.51평)
❽ 성생단

205. 昌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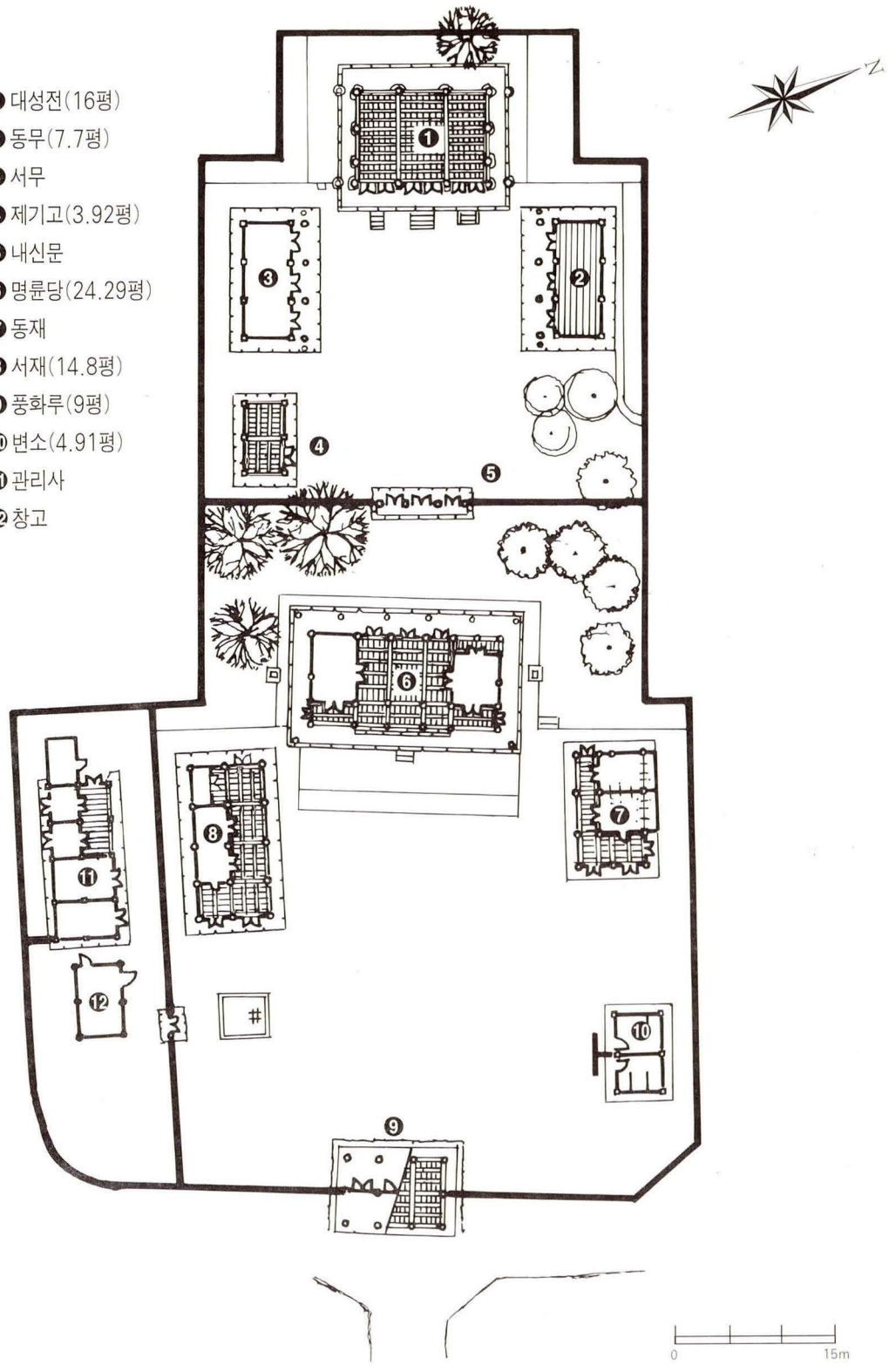


206. 晉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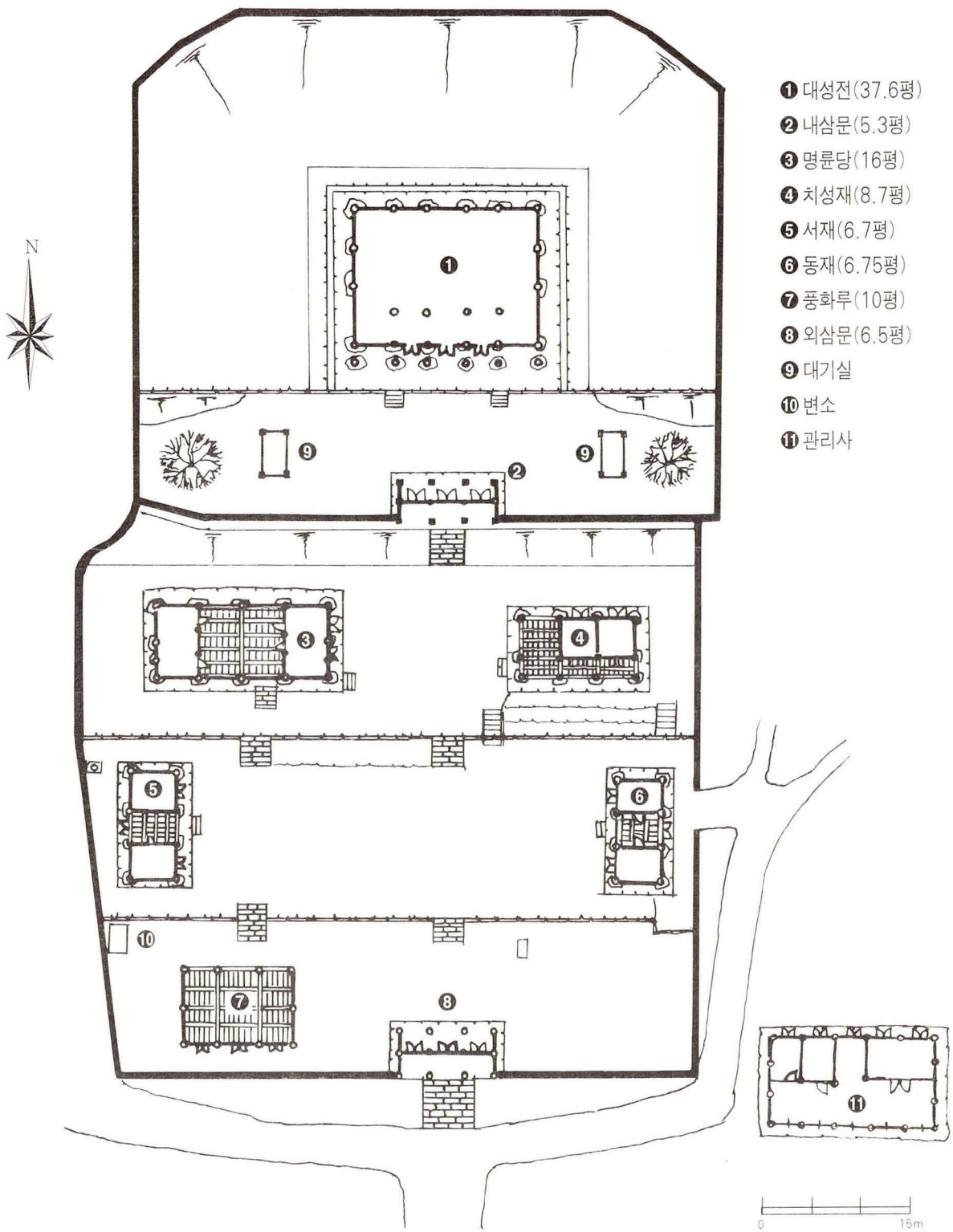


207. 統營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16평)
❷ 동무(7.7평)
❸ 서무
❹ 제기고(3.92평)
❺ 내신문
❻ 명륜당(24.29평)
❼ 동재
❽ 서재(14.8평)
❾ 풍화루(9평)
❿ 변소(4.91평)
⓫ 관리사
⓬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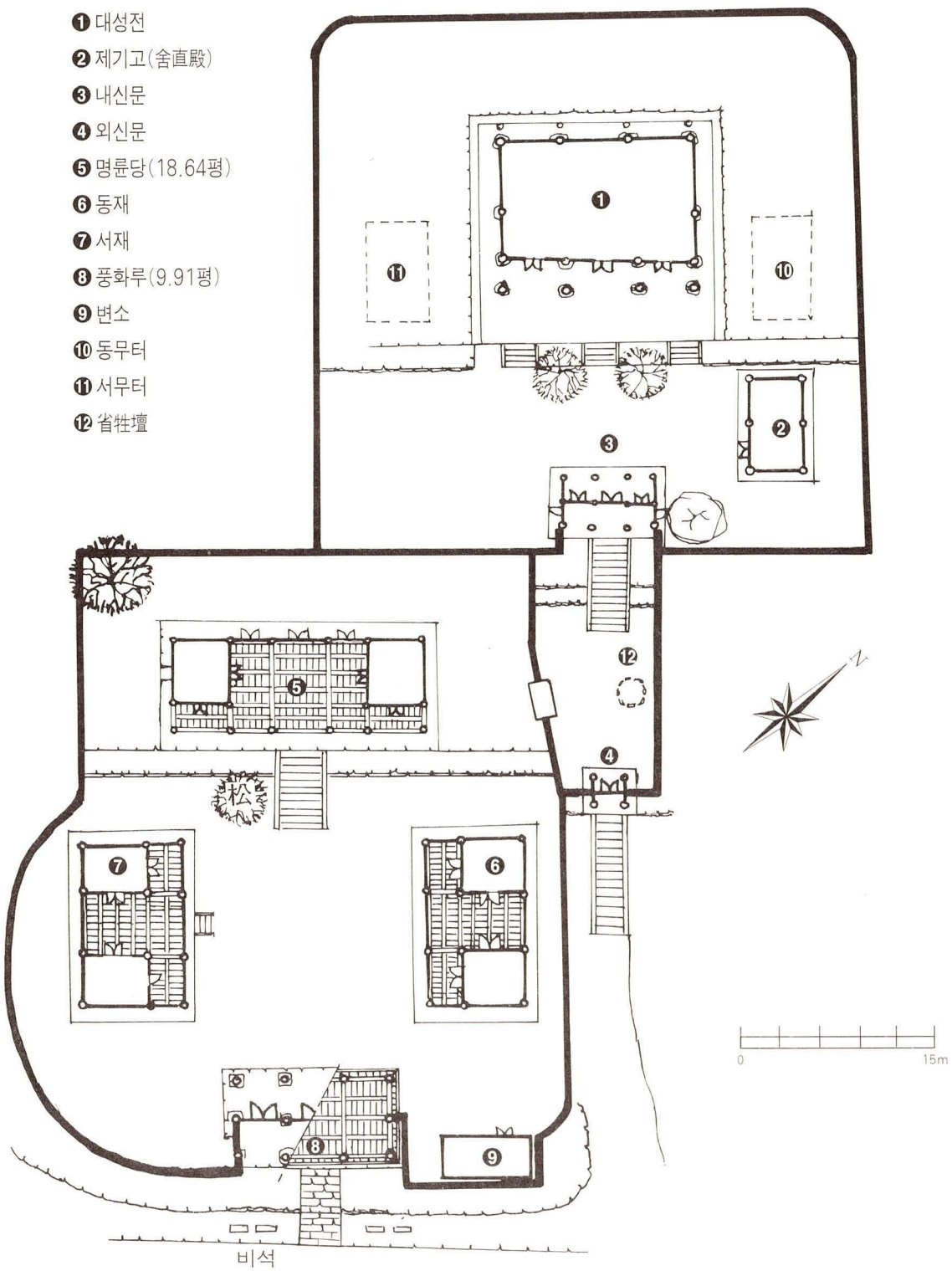


208. 泗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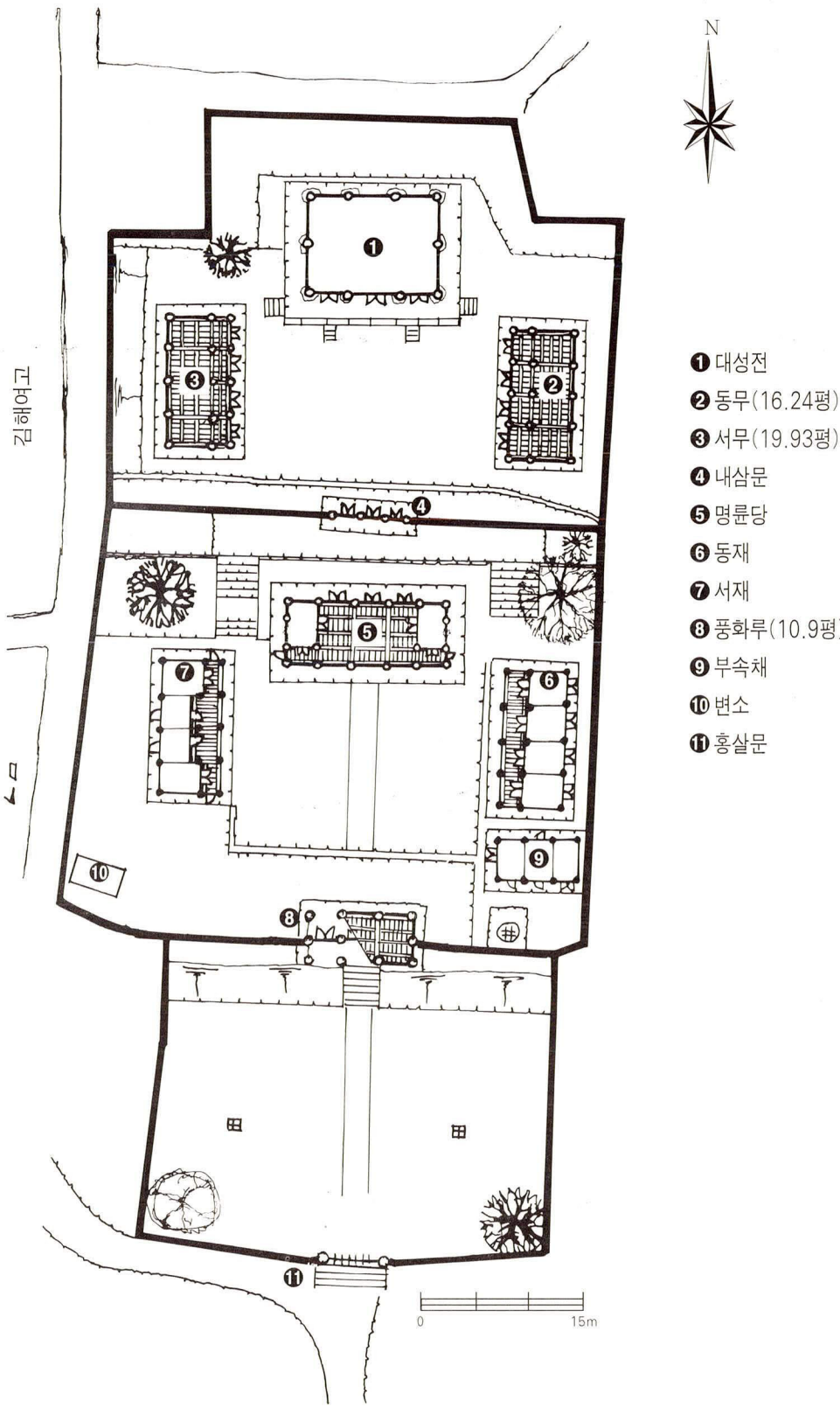

N
❶ 대성전(37.6평)
❷ 내삼문(5.3평)
❸ 명륜당(16평)
❹ 치성재(8.7평)
❺ 서재(6.7평)
❻ 동재(6.75평)
❼ 풍화루(10평)
❽ 외삼문(6.5평)
❾ 대기실
❿ 변소
⓫ 관리사
0
15m

209. 昆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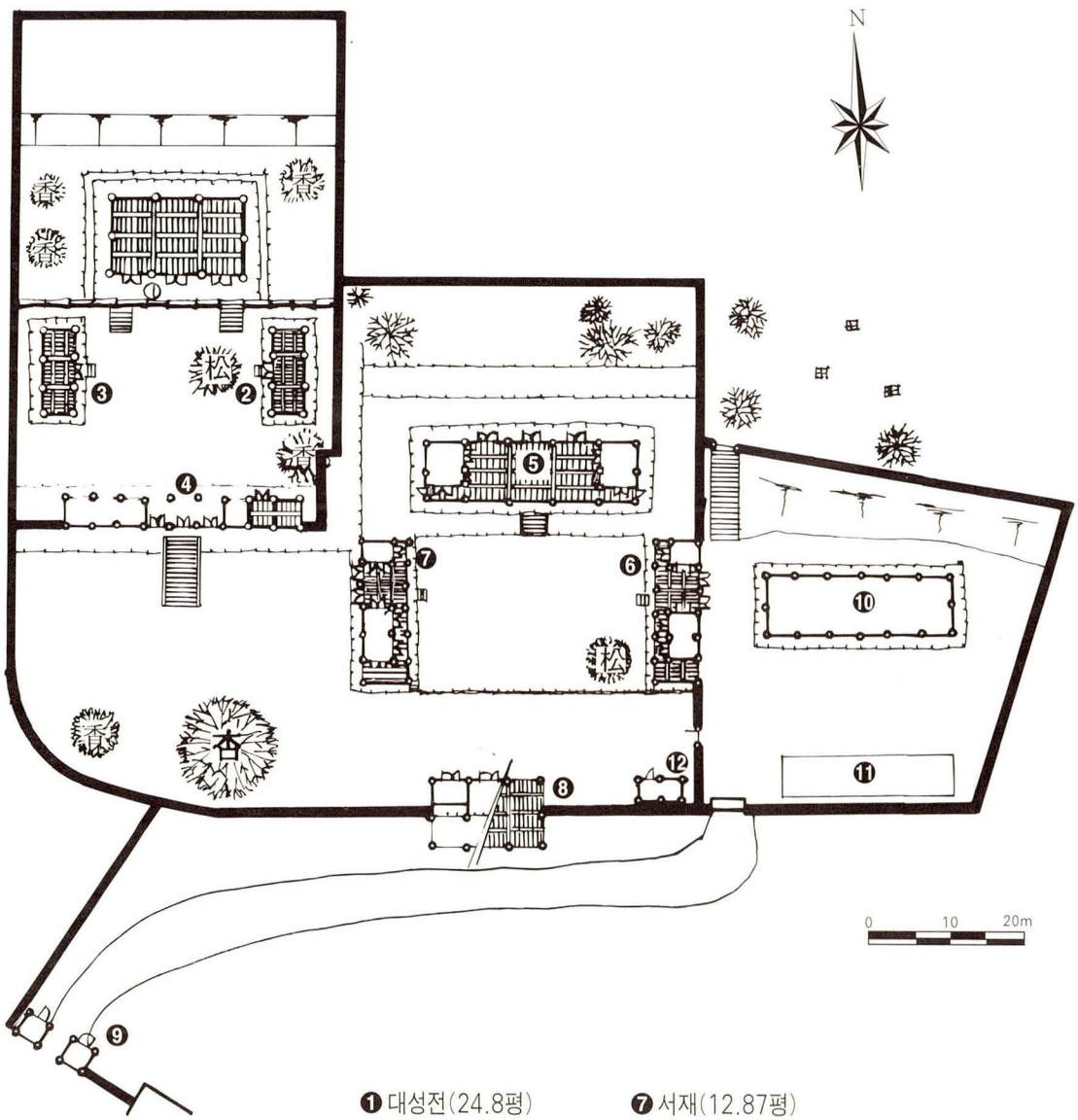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제기고(舍直殿)
❸ 내신문
❹ 외신문
❺ 명륜당(18.64평)
❻ 동재
❼ 서재
❽ 풍화루(9.91평)
❾ 변소
❿ 동무터
⓫ 서무터
⓬ 省牲壇



210. 金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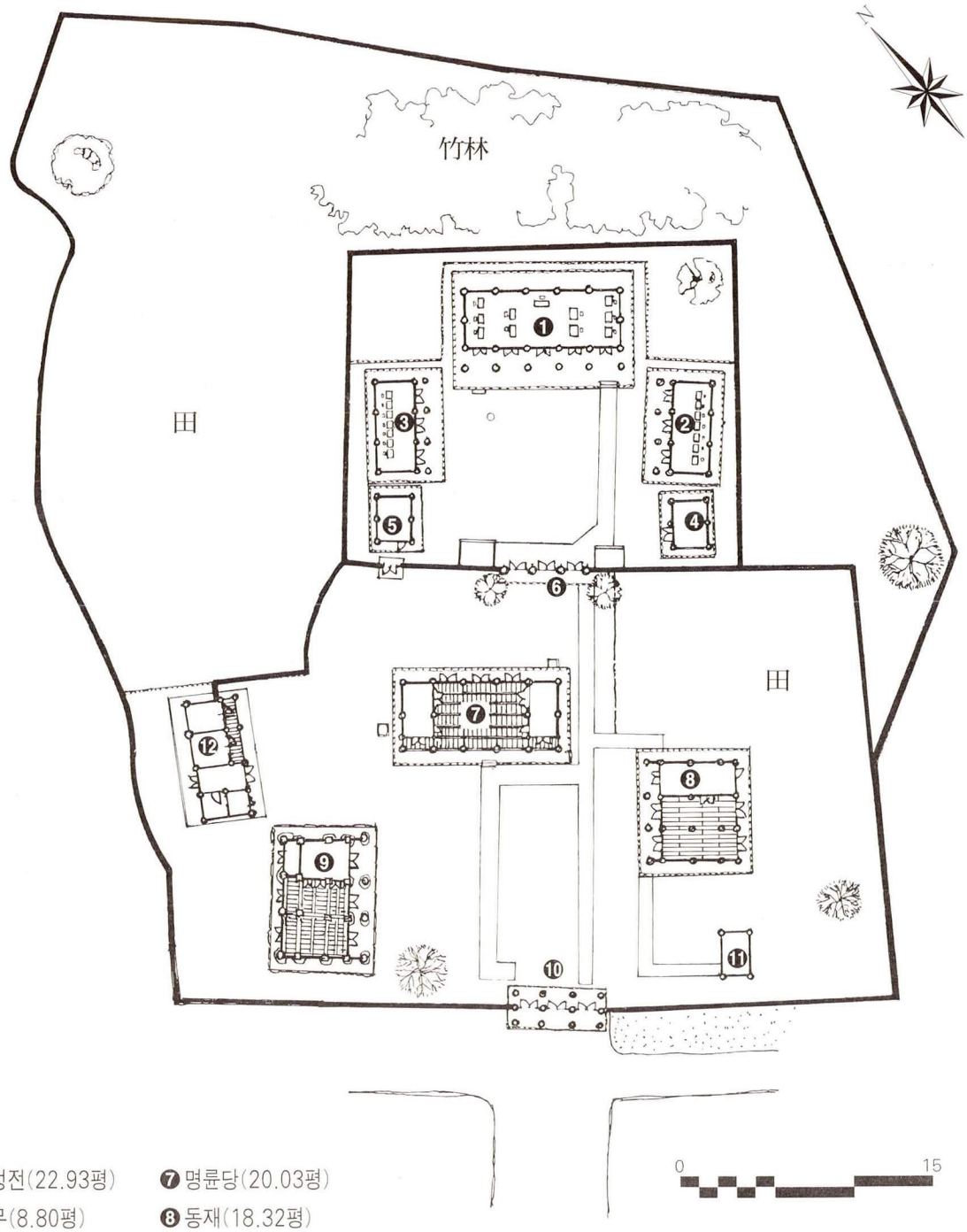

N
김해여고
❶ 대성전
❷ 동무(16.24평)
❸ 서무(19.93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
❽ 풍화루(10.9평)
❾ 부속채
❿ 변소
⓫ 홍살문
0
15m

211. 密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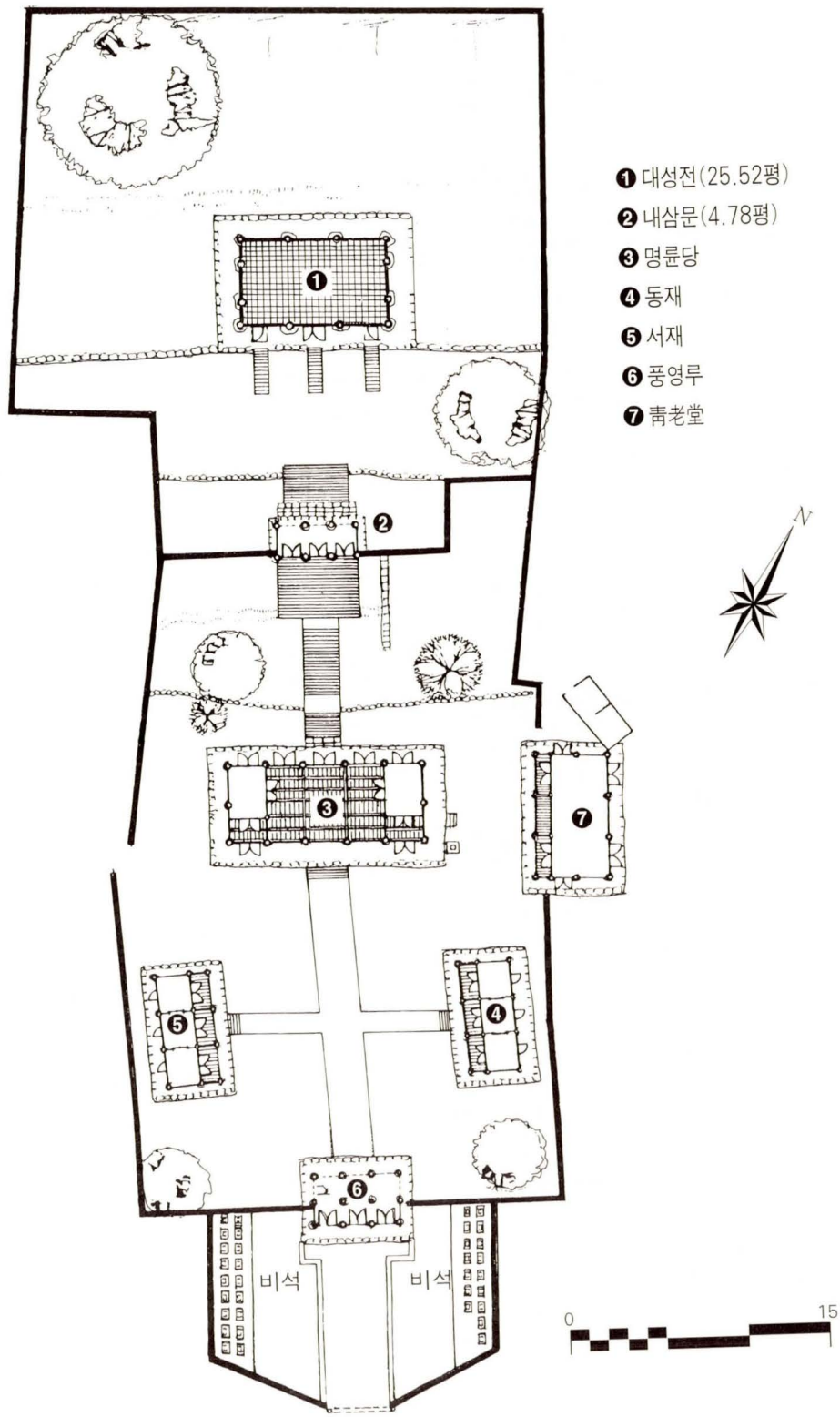
❶ 대성전(24.8평)
❷ 동무(6.7평)
❸ 서무(6.7평)
❹ 내신문(15.64평)
❺ 명륜당(35.51평)
❻ 동재(15.8평)
❼ 서재(12.87평)
❽ 풍화루(16.84평)
❾ 개복청
❿ 관리사
⓫ 창고
⓬ 변소

212. 巨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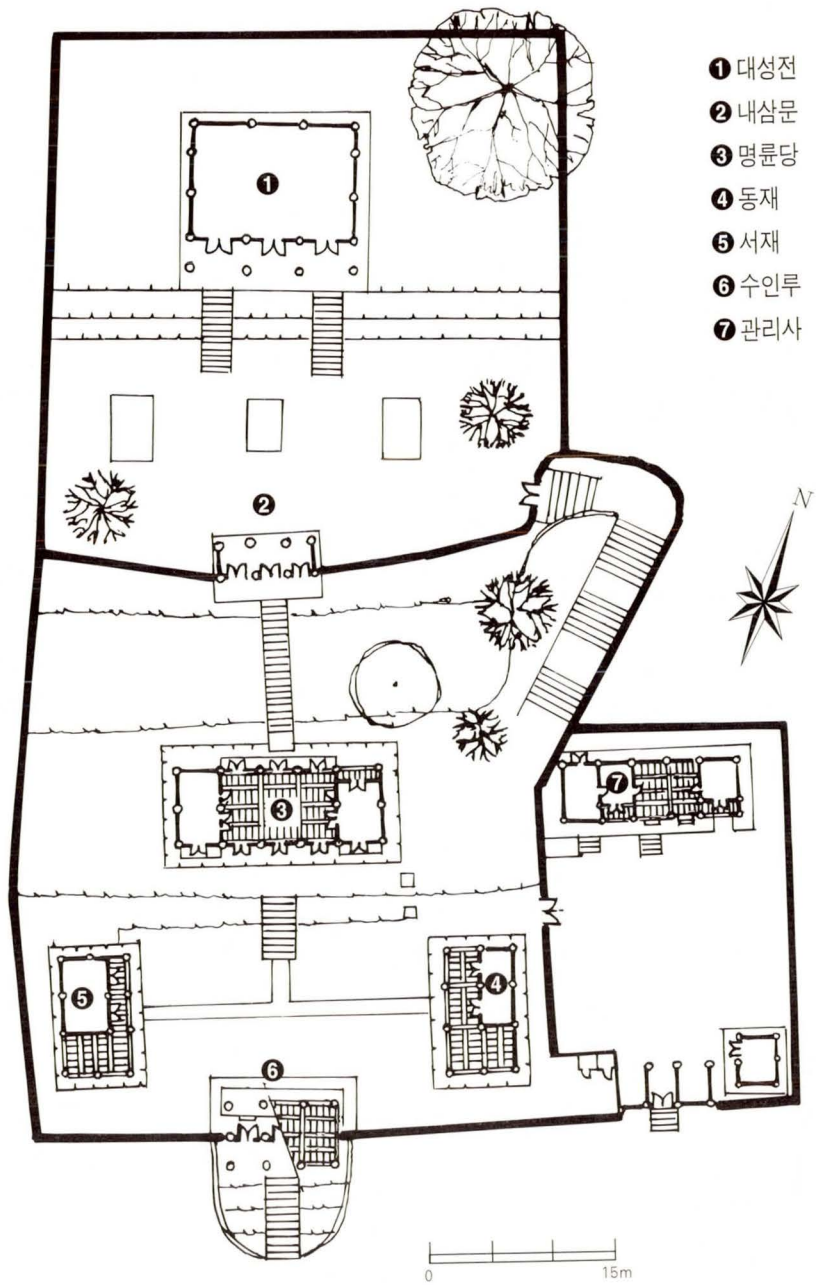


❶ 대성전(22.93평)
❷ 동무(8.80평)
❸ 서무(8.80평)
❹ 제기고(3.50평)
❺ 증반실(3.30평)
❻ 내삼문
❼ 명륜당(20.03평)
❽ 동재(18.32평)
❾ 서재(17.15평)
❿ 외삼문
⓫ 변소(2.98평)
⓬ 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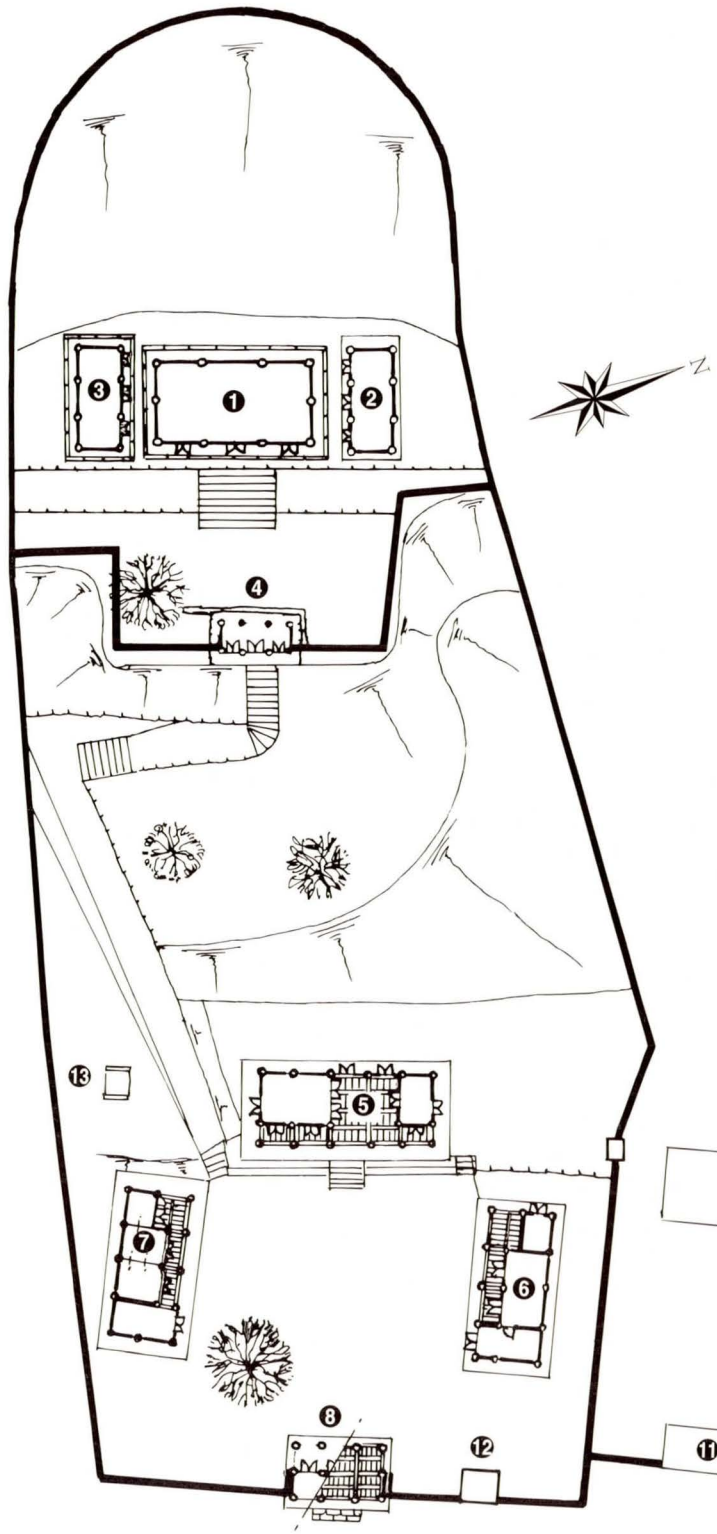
213. 梁山鄕校 配置圖



214. 宜寧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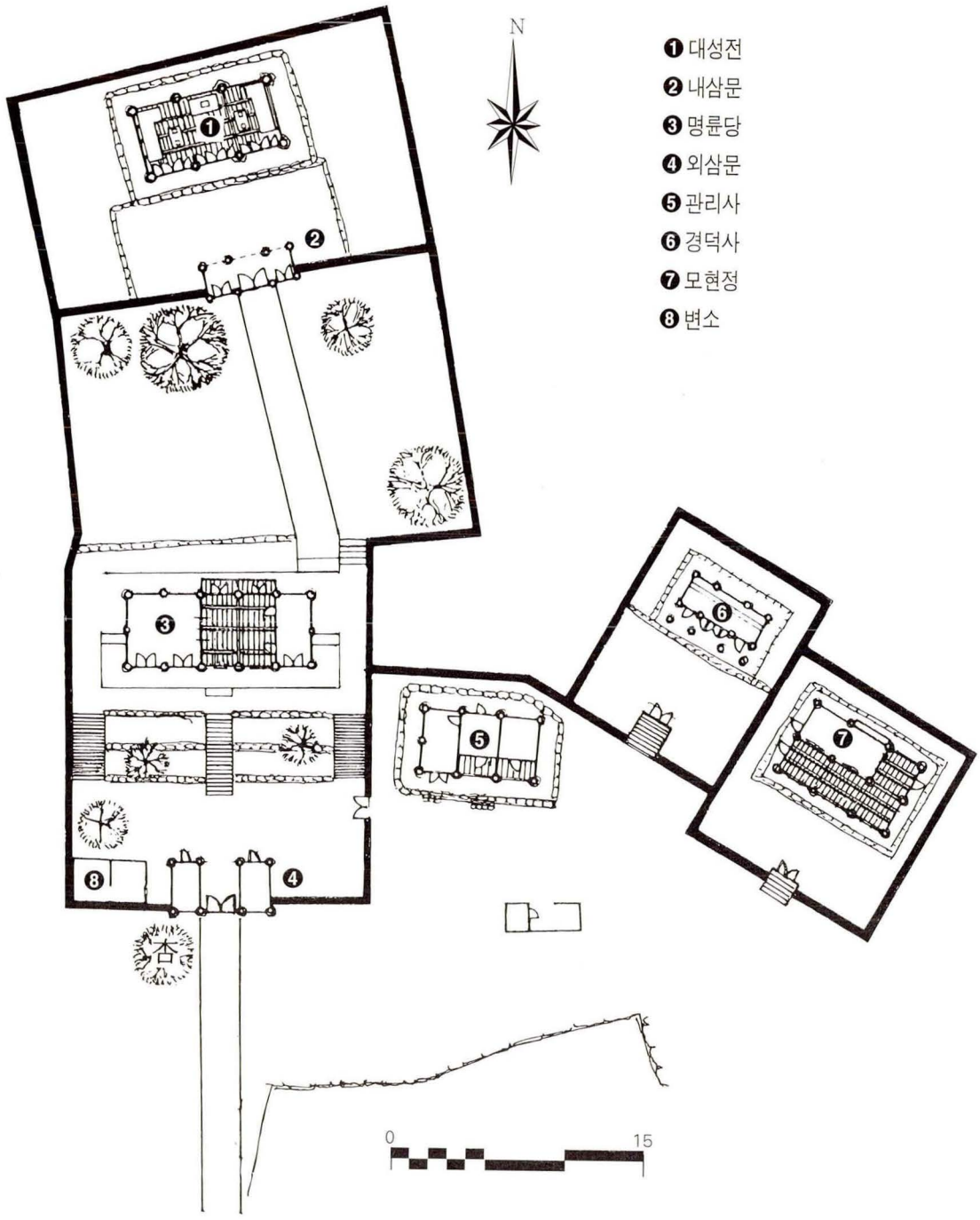
215. 咸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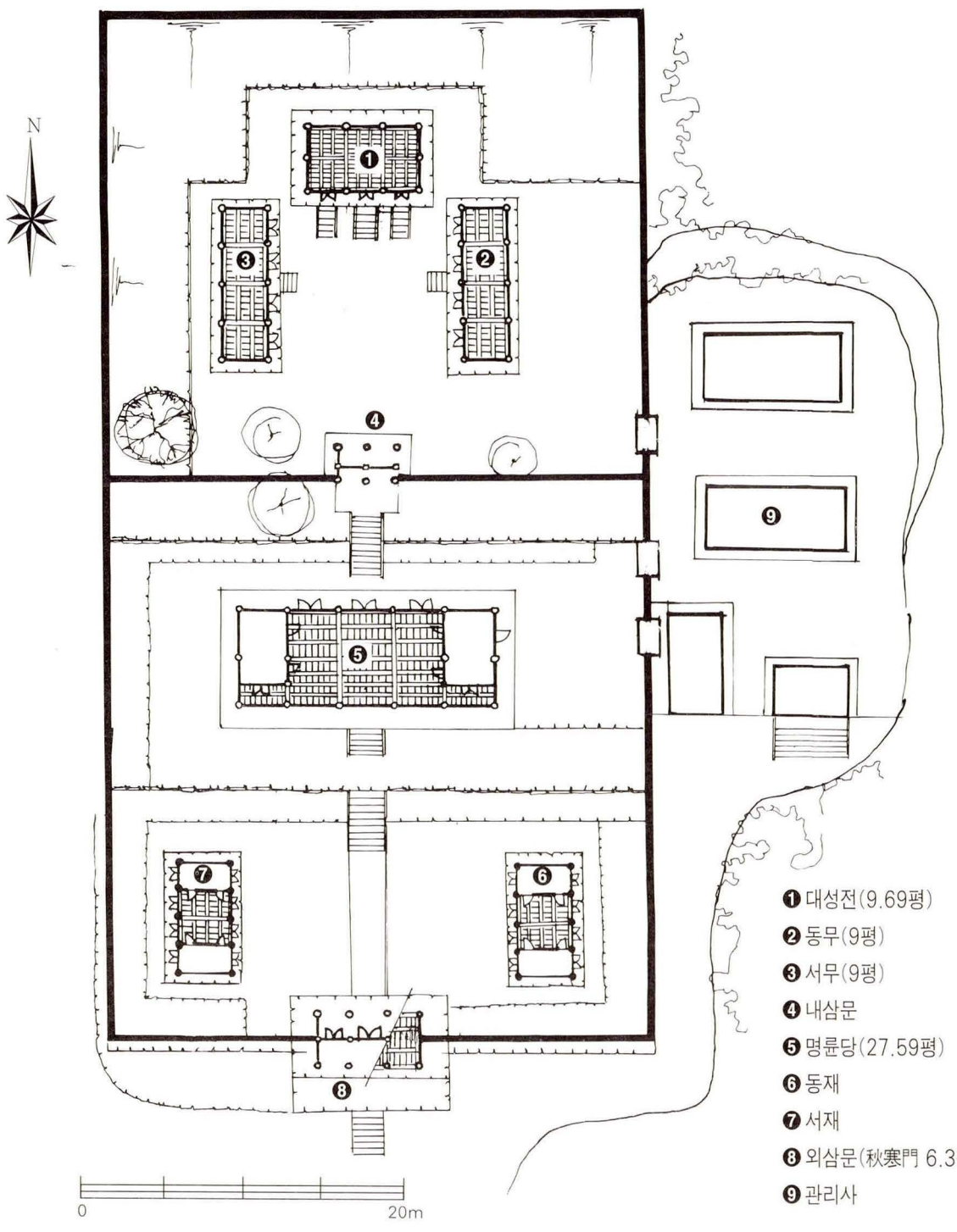
❶ 대성전(18.4평)
❷ 동무
❸ 서무(6.88평)
❹ 내삼문(2.7평)
❺ 명륜당
❻ 동재(13.95평)
❼ 서재
❽ 풍화루(6.5평)
❾ 관리사 안채
❿ 헛간채
⓫ 대문채
⓬ 변소
⓭ 성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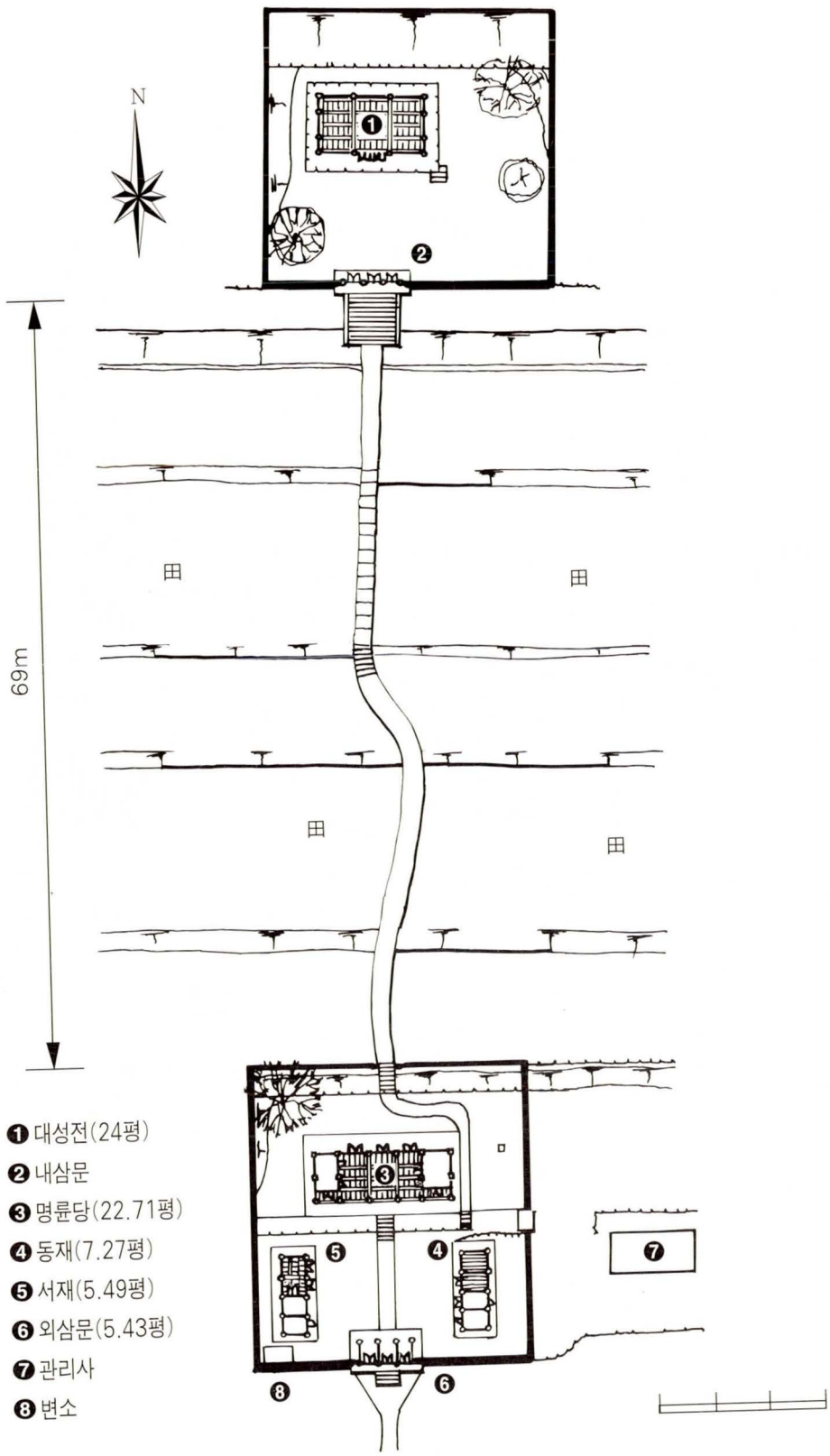
216. 漆原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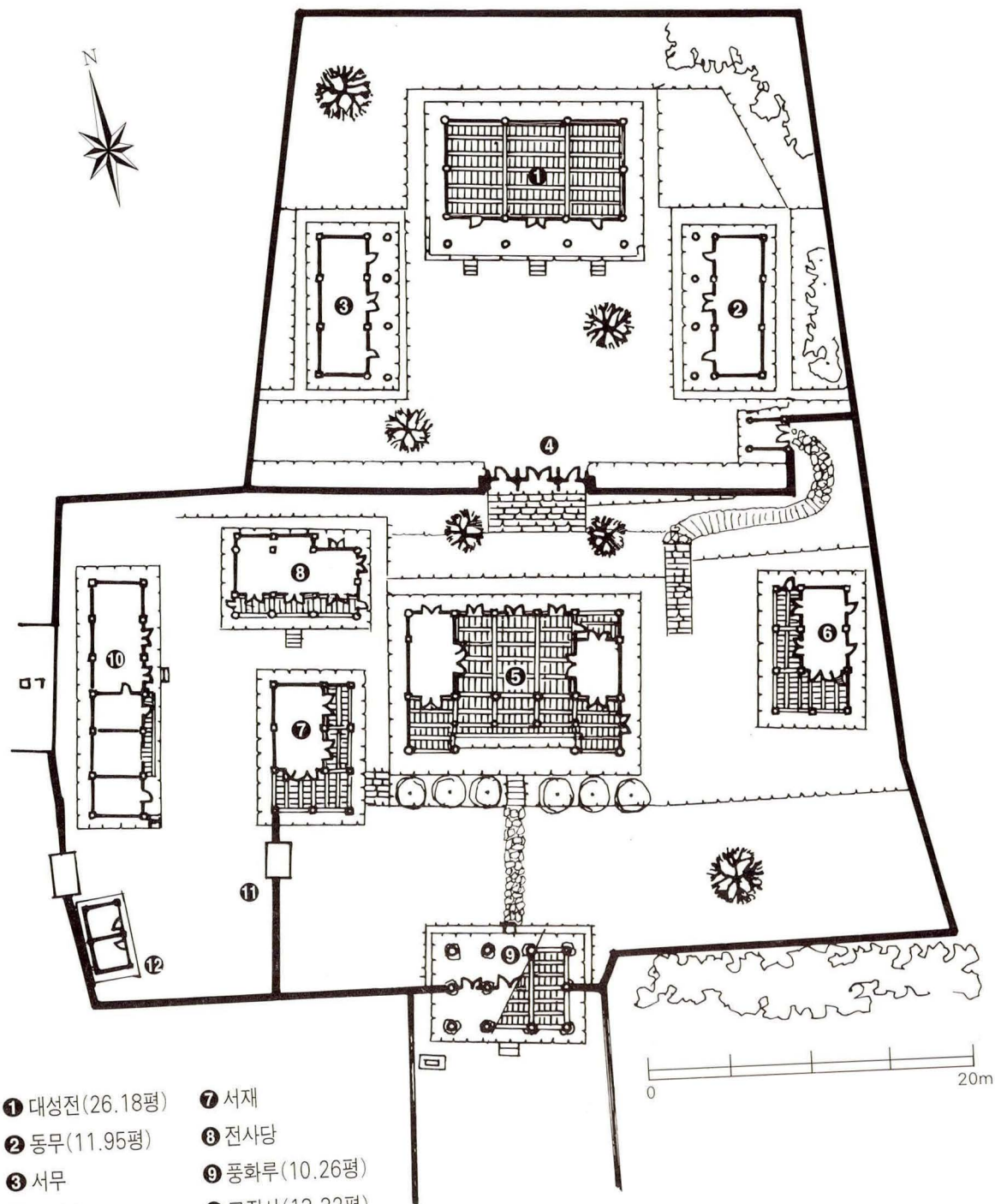
217. 昌寧鄕校 配置圖


N
0
20m
❶ 대성전(9.69평)
❷ 동무(9평)
❸ 서무(9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27.59평)
❻ 동재
❼ 서재
❽ 외삼문(秋寒門 6.3평)
❾ 관리사

218. 靈山鄕校 配置圖


N
69m
田
田
田
田
❶ 대성전(24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22.71평)
❹ 동재(7.27평)
❺ 서재(5.49평)
❻ 외삼문(5.43평)
❼ 관리사
❽ 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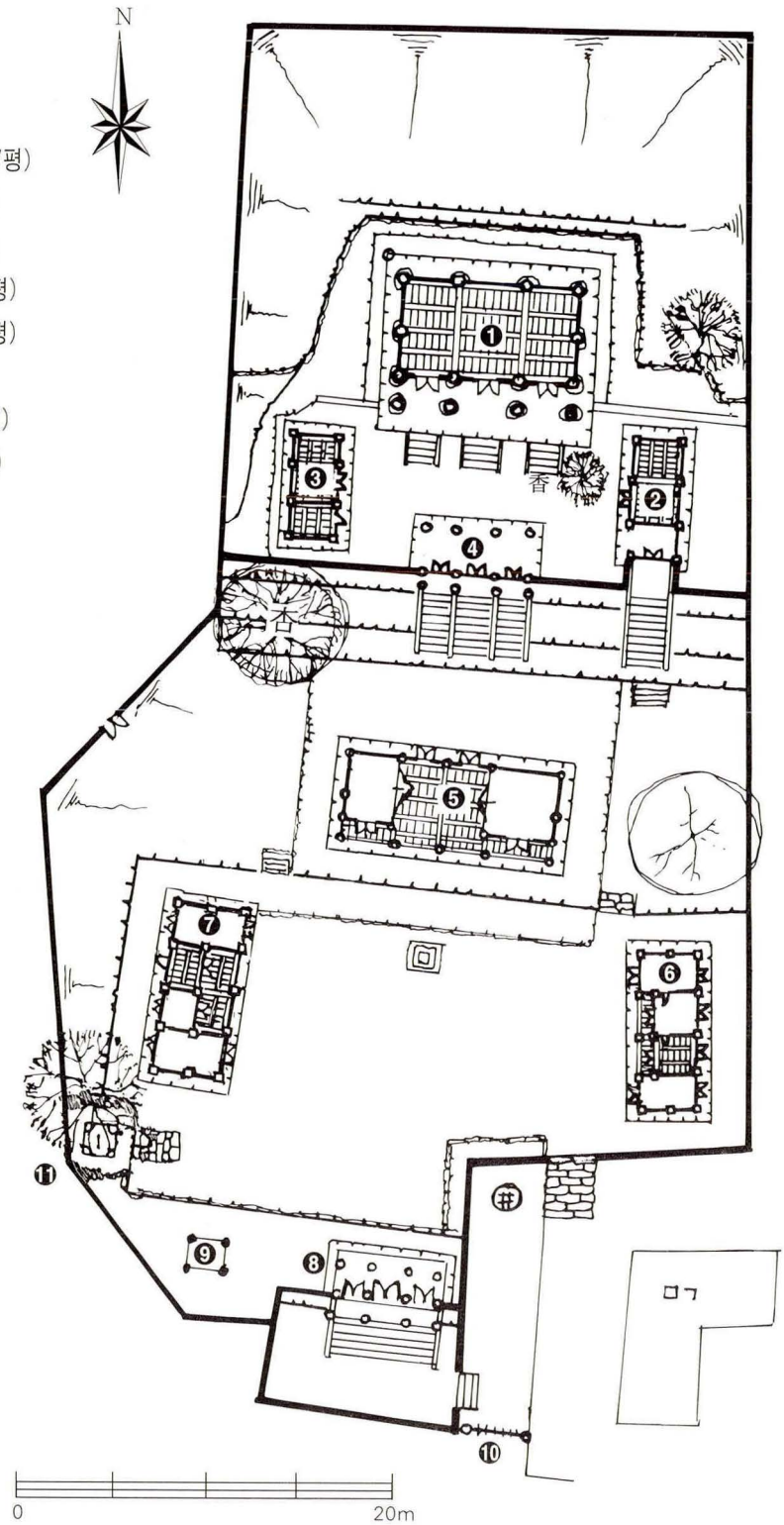
219. 固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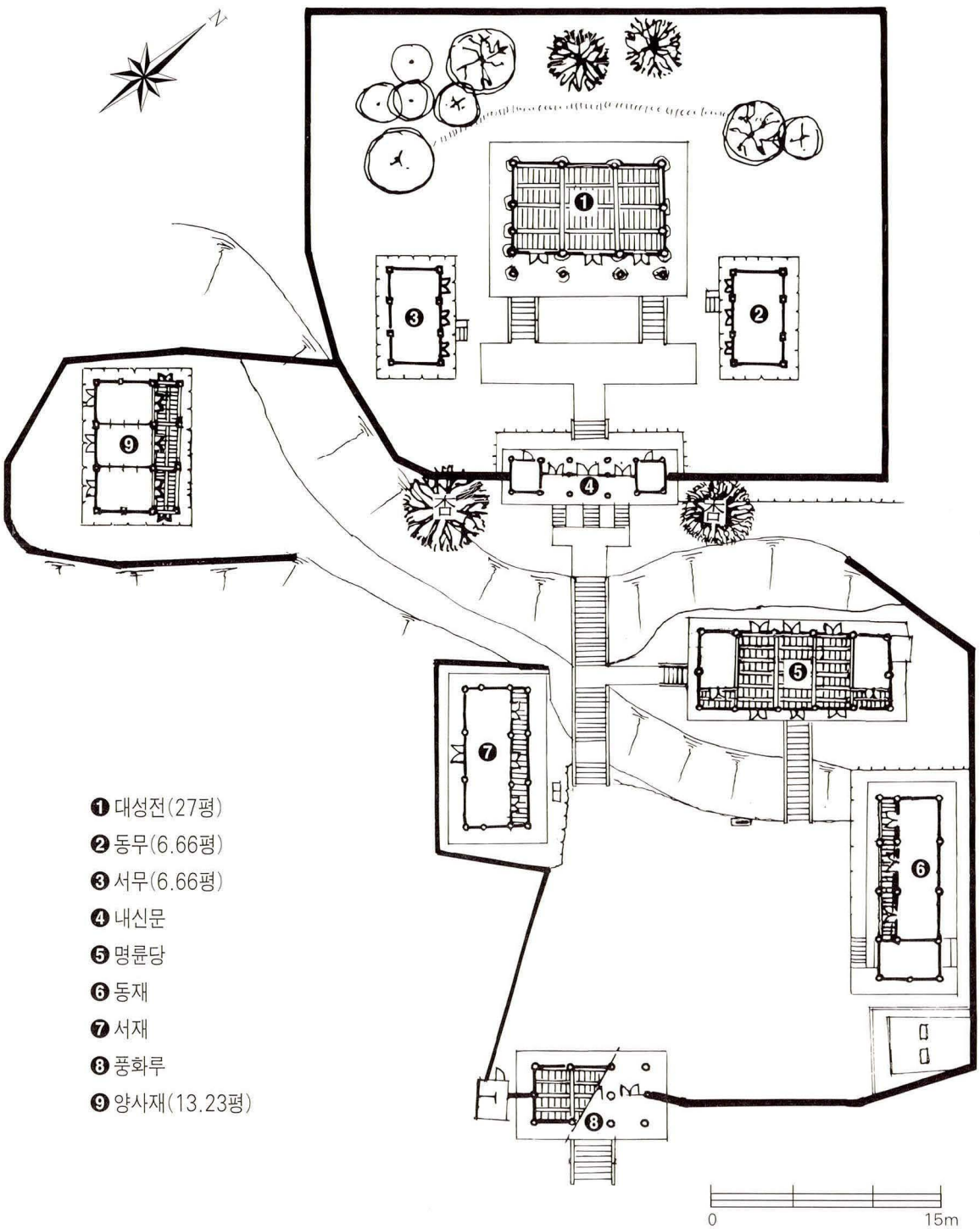
❶ 대성전(26.18평)
❷ 동무(11.95평)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동재(敬身齋)
❼ 서재
❽ 전사당
❾ 풍화루(10.26평)
❿ 고직사(13.32평)
⓫ 사주문
⓬ 변소

220. 南海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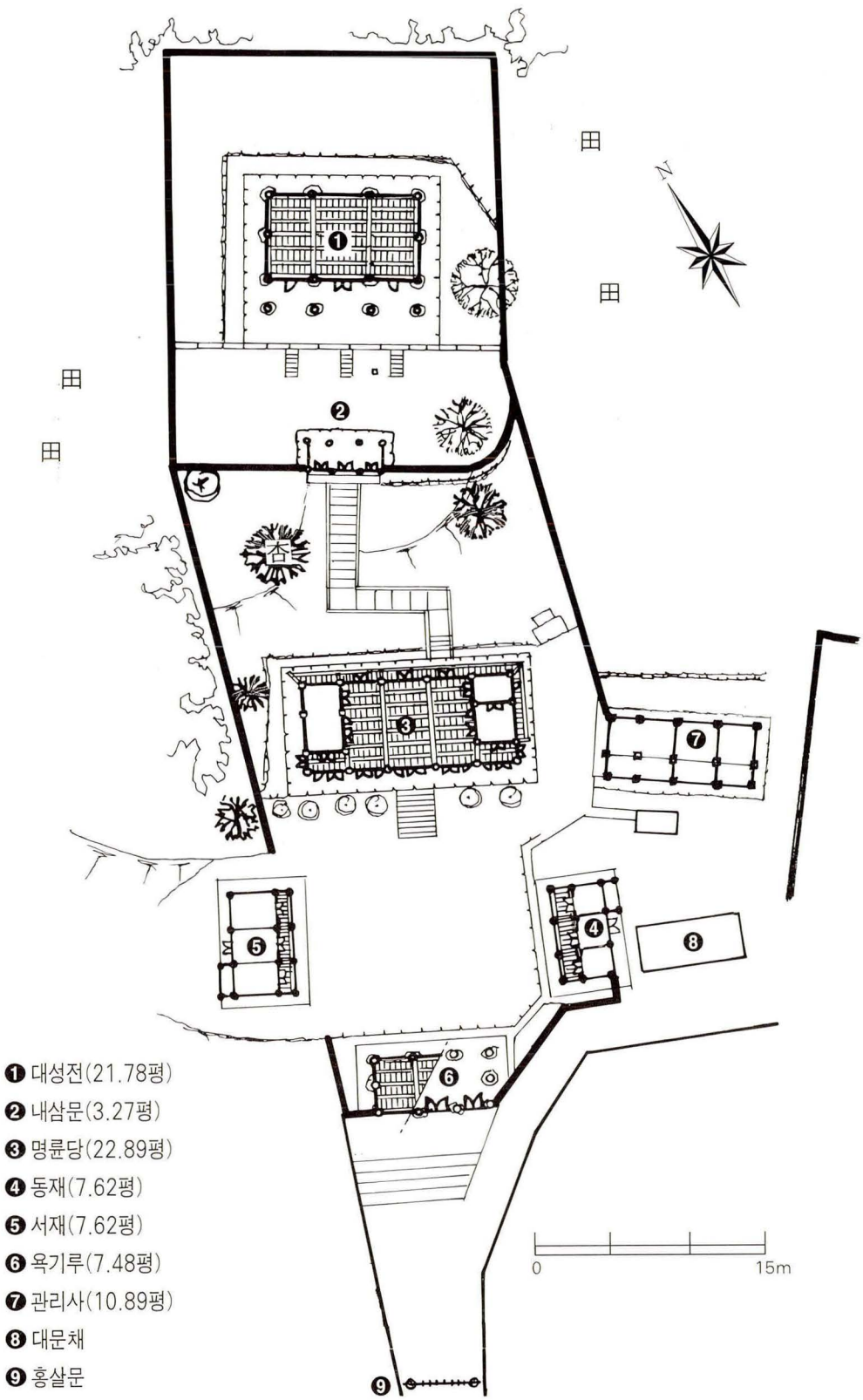
❶ 대성전(26.97평)
❷ 동무(8.09평)
❸ 서무(5.28평)
❹ 내삼문(5.60평)
❺ 명륜당(29.4평)
❻ 동재(9.73평)
❼ 서재(10.78평)
❽ 외삼문(6.1평)
❾ 변소(1.39평)
❿ 홍살문
⓫ 성생단



221. 河東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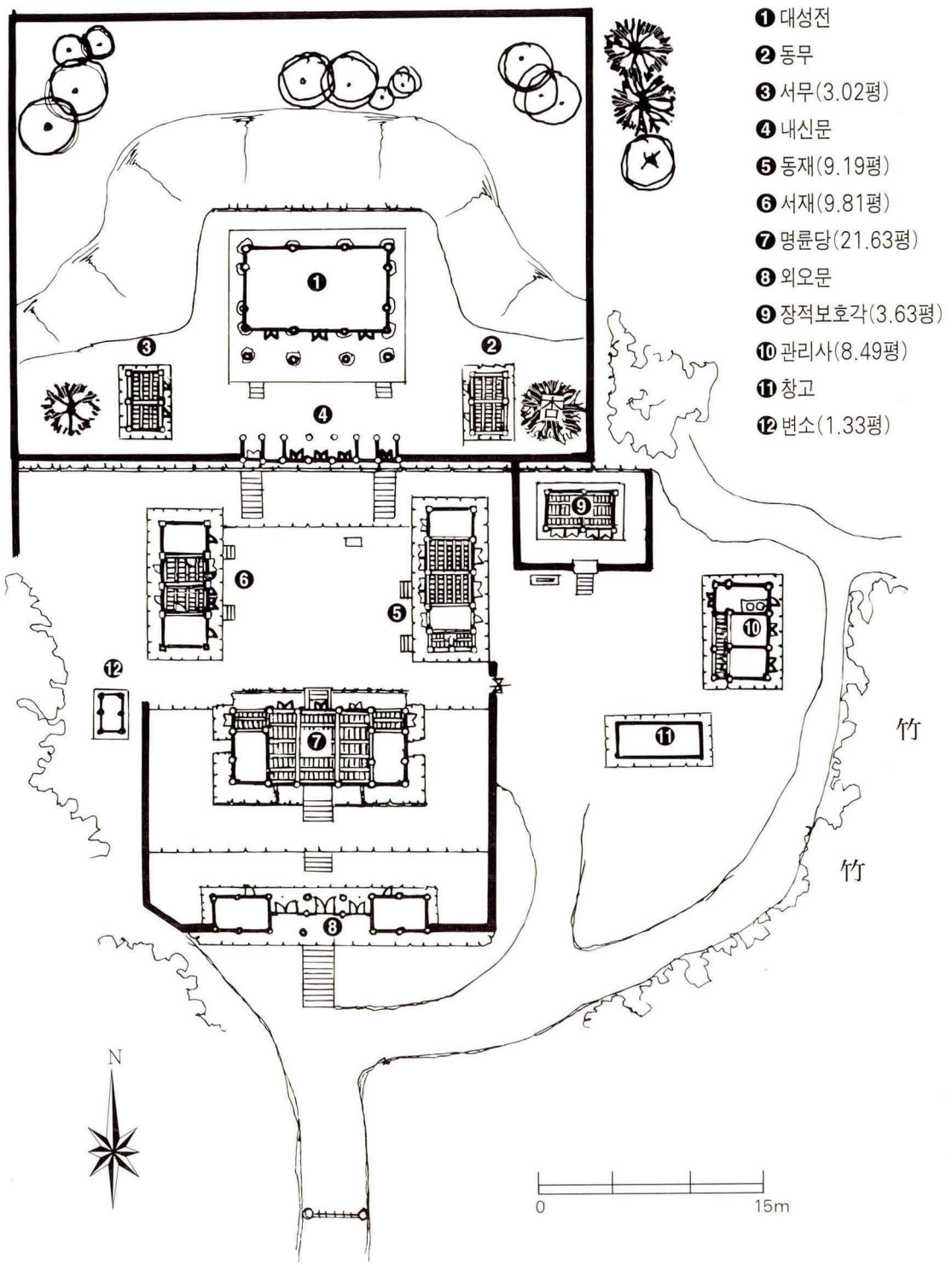

❶ 대성전(27평)
❷ 동무(6.66평)
❸ 서무(6.66평)
❹ 내신문
❺ 명륜당
❻ 동재
❼ 서재
❽ 풍화루
❾ 양사재(13.23평)
0
15m

222. 山靑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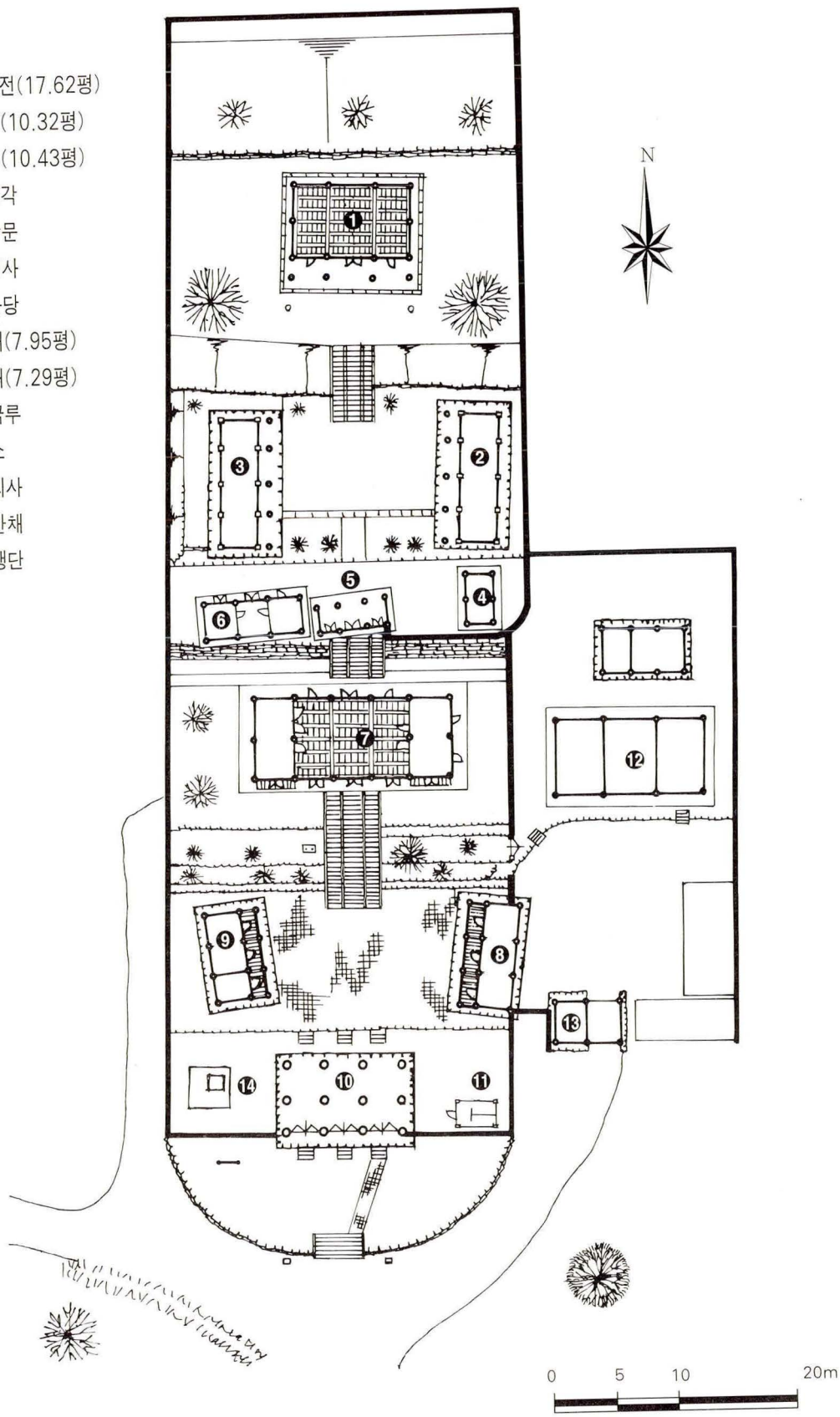
❶ 대성전(21.78평)
❷ 내삼문(3.27평)
❸ 명륜당(22.89평)
❹ 동재(7.62평)
❺ 서재(7.62평)
❻ 욕기루(7.48평)
❼ 관리사(10.89평)
❽ 대문채
❾ 홍살문

223. 丹城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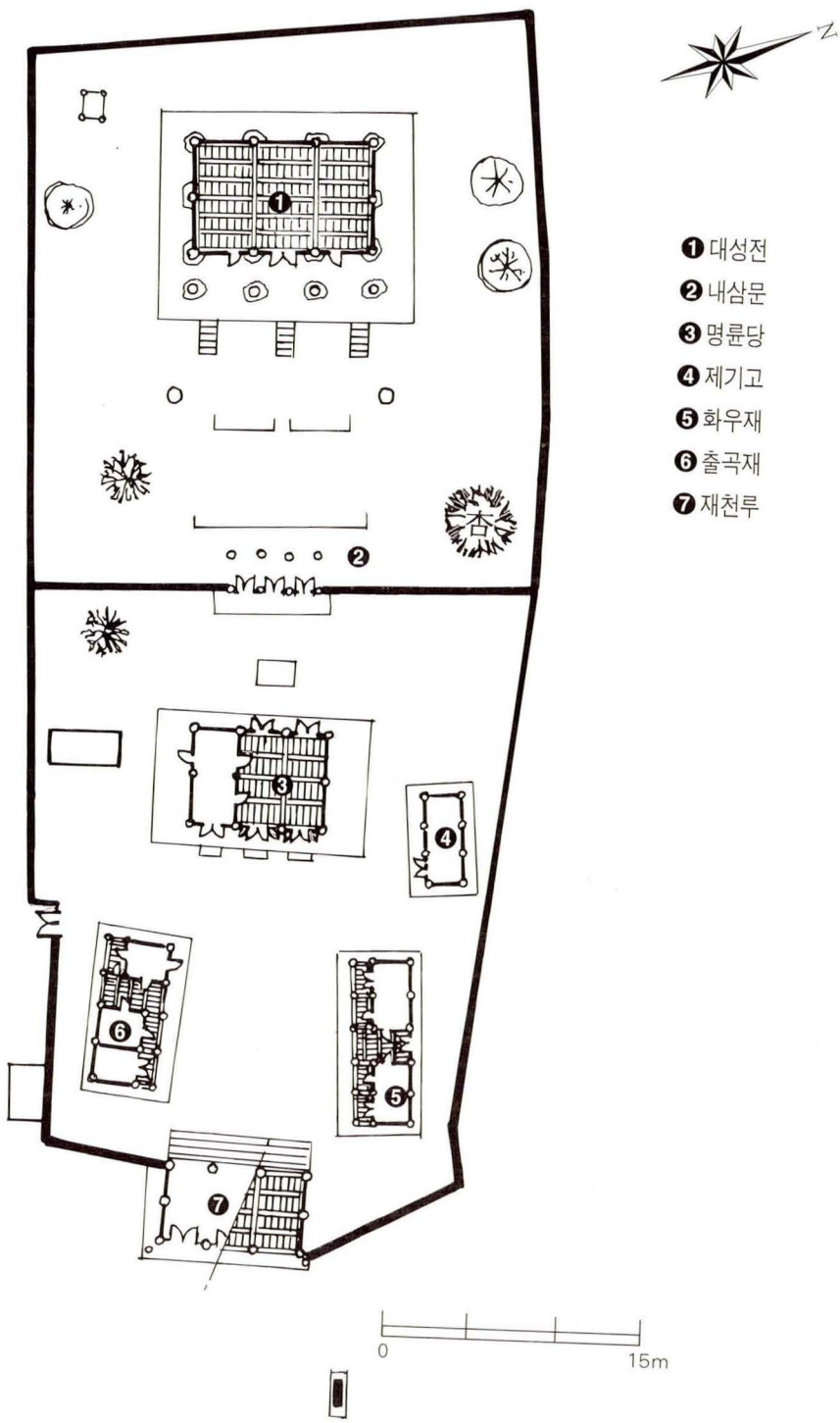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서무(3.02평)
❹ 내신문
❺ 동재(9.19평)
❻ 서재(9.81평)
❼ 명륜당(21.63평)
❽ 외오문
❾ 장적보호각(3.63평)
❿ 관리사(8.49평)
⓫ 창고
⓬ 변소(1.33평)
竹
竹
N
0
15m

224. 咸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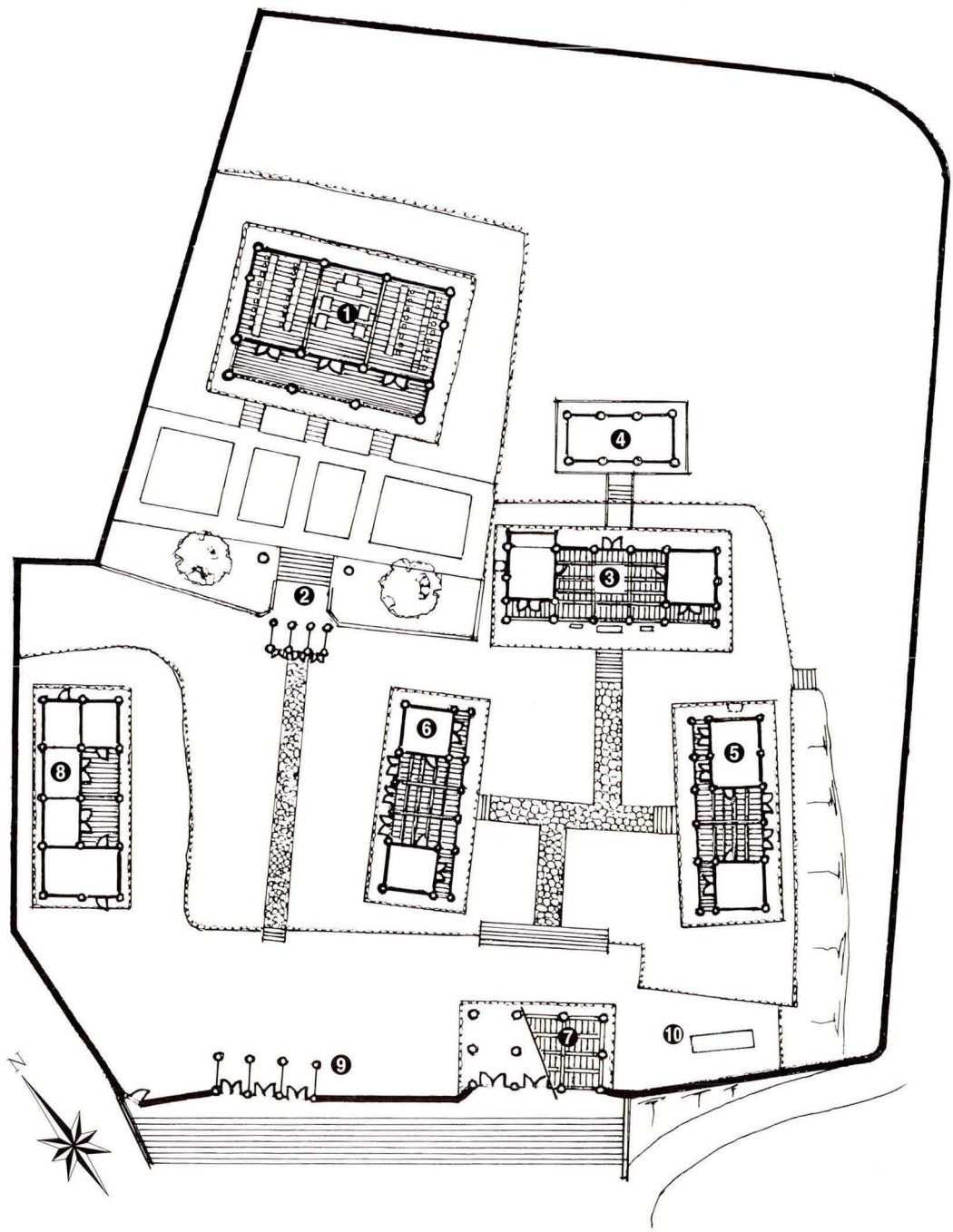
❶ 대성전(17.62평)
❷ 동무(10.32평)
❸ 서무(10.43평)
❹ 장경각
❺ 내삼문
❻ 전직사
❼ 명륜당
❽ 동재(7.95평)
❾ 서재(7.29평)
❿ 태극루
⓫ 변소
⓬ 관리사
⓭ 문간채
⓮ 성생단



225. 安義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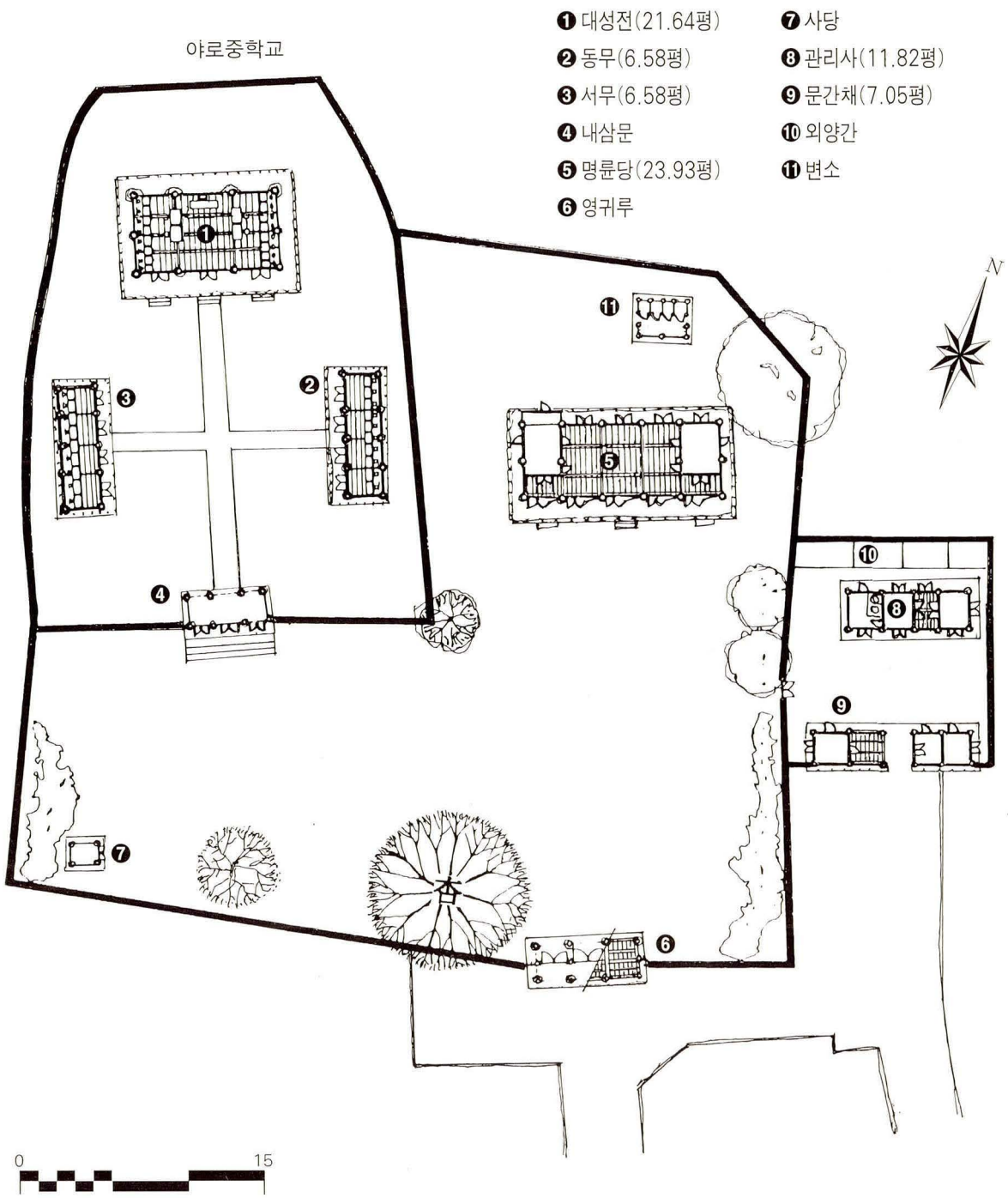


226. 居昌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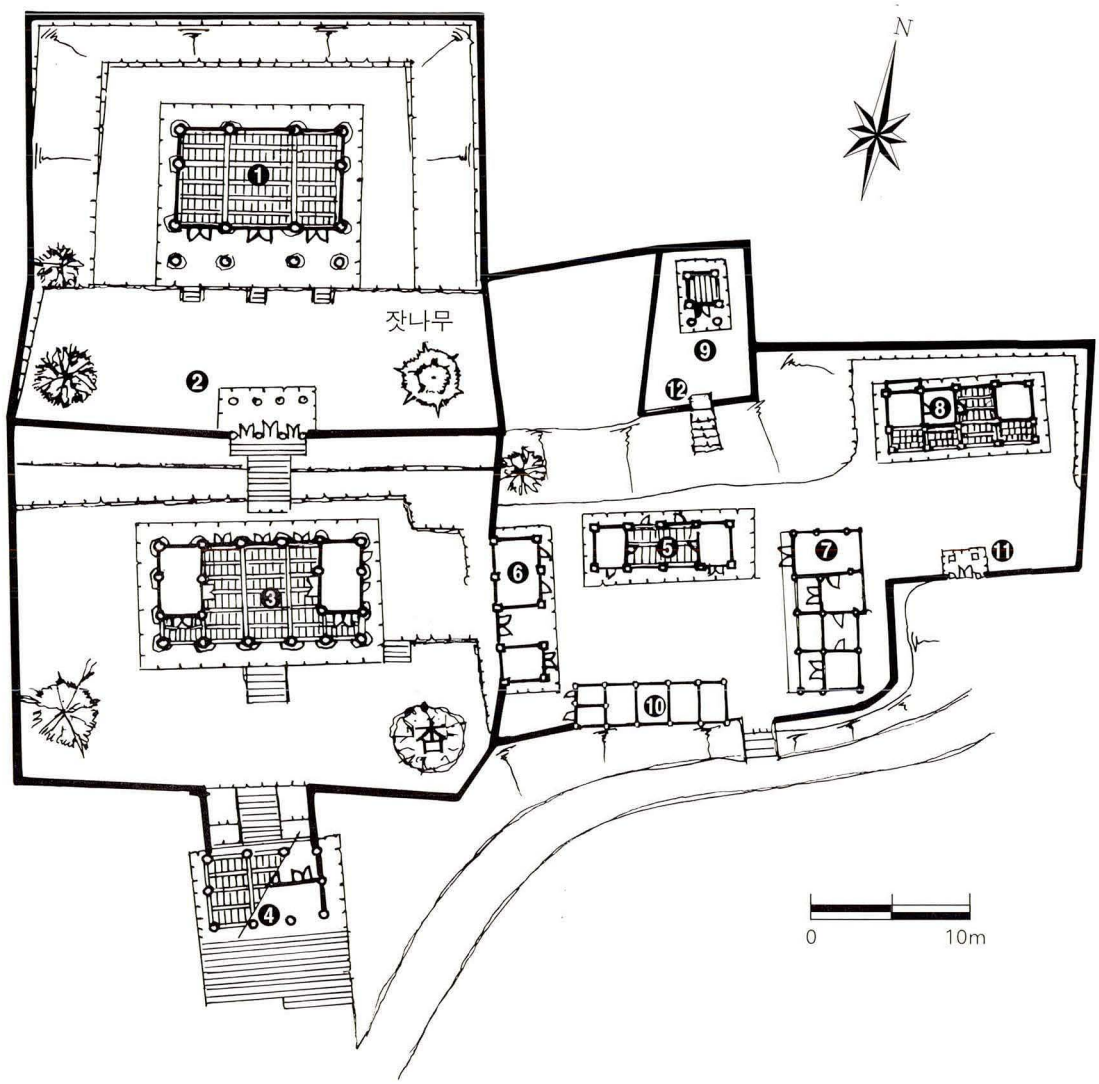


❶ 대성전(30.26평)
❷ 내삼문(2.18평)
❸ 명륜당
❹ 제기고
❺ 동재(14.51평)
❻ 서재(14.98평)
❼ 춘풍루
❽ 관리사
❾ 외삼문
❿ 변소

227. 陜川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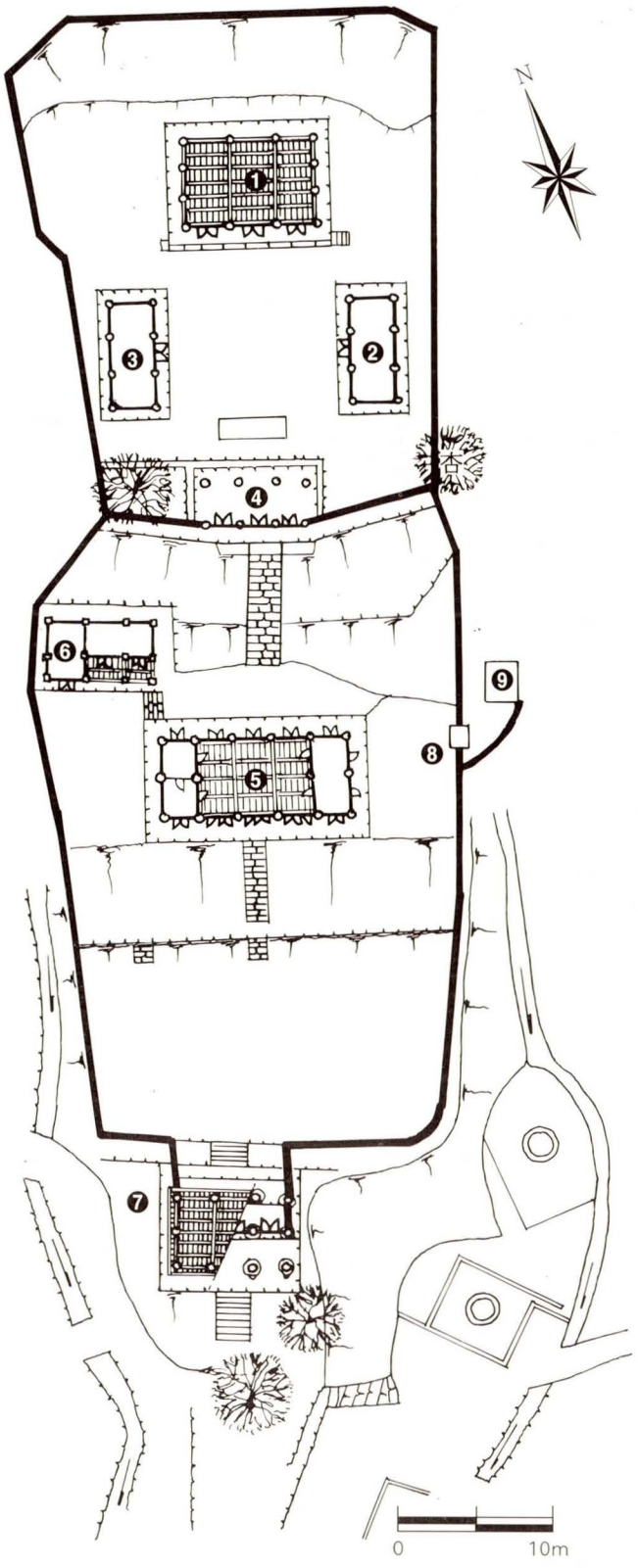

❶ 대성전(21.64평)
❷ 동무(6.58평)
❸ 서무(6.58평)
❹ 내삼문
❺ 명륜당(23.93평)
❻ 영귀루
❼ 사당
❽ 관리사(11.82평)
❾ 문간채(7.05평)
❿ 외양간
⓫ 변소
야로중학교
N
0
15

228. 三嘉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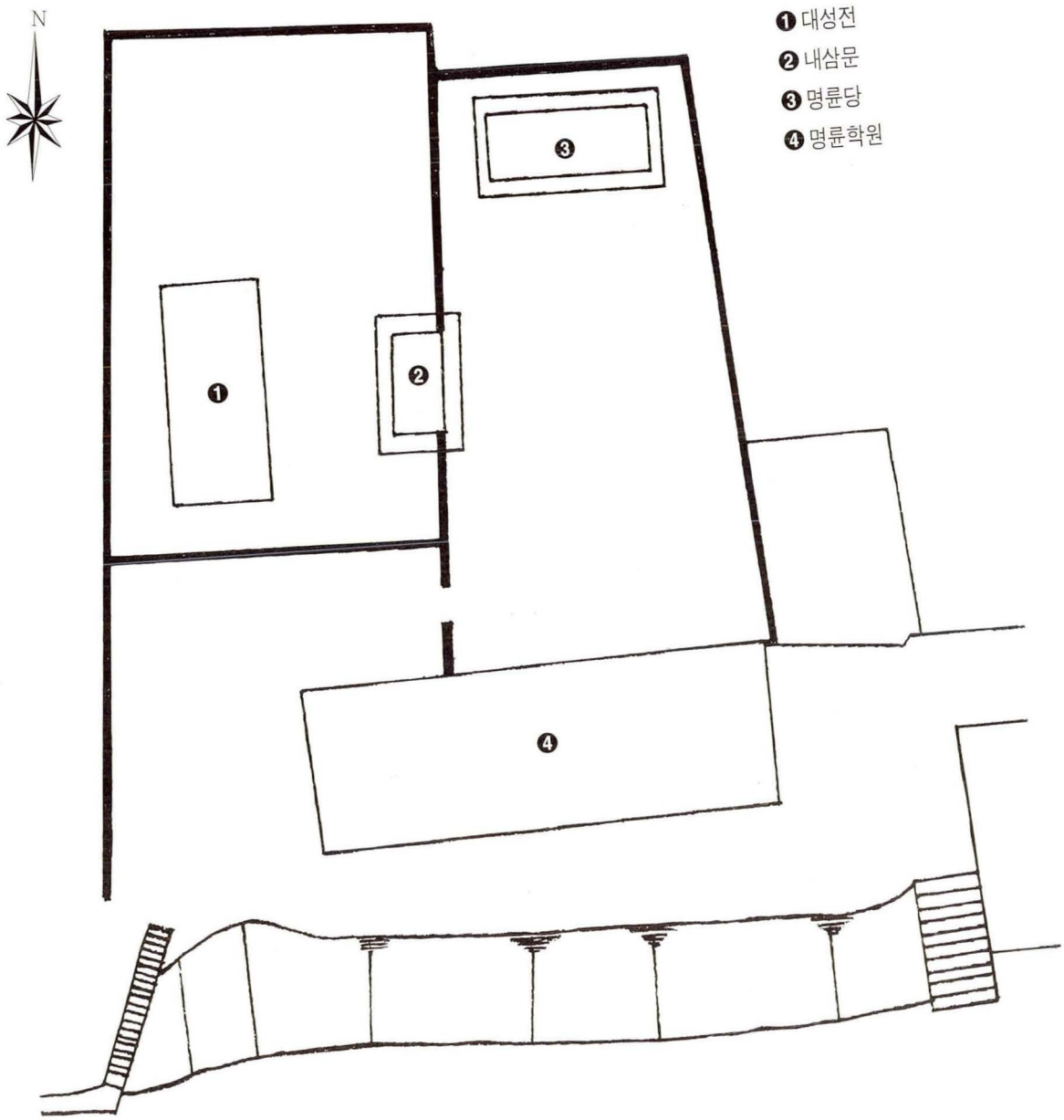
❶ 대성전(27.59평)
❷ 내삼문
❸ 명륜당(25.21평)
❹ 풍화루(9.06평)
❺ 전사청(7.09평)
❻ 문간채
❼ 관리사
❽ 사마재(10.76평)
❾ 별묘(2.01평)
❿ 축사
⓫ 사주문
⓬ 협문(0.49평)

229. 草溪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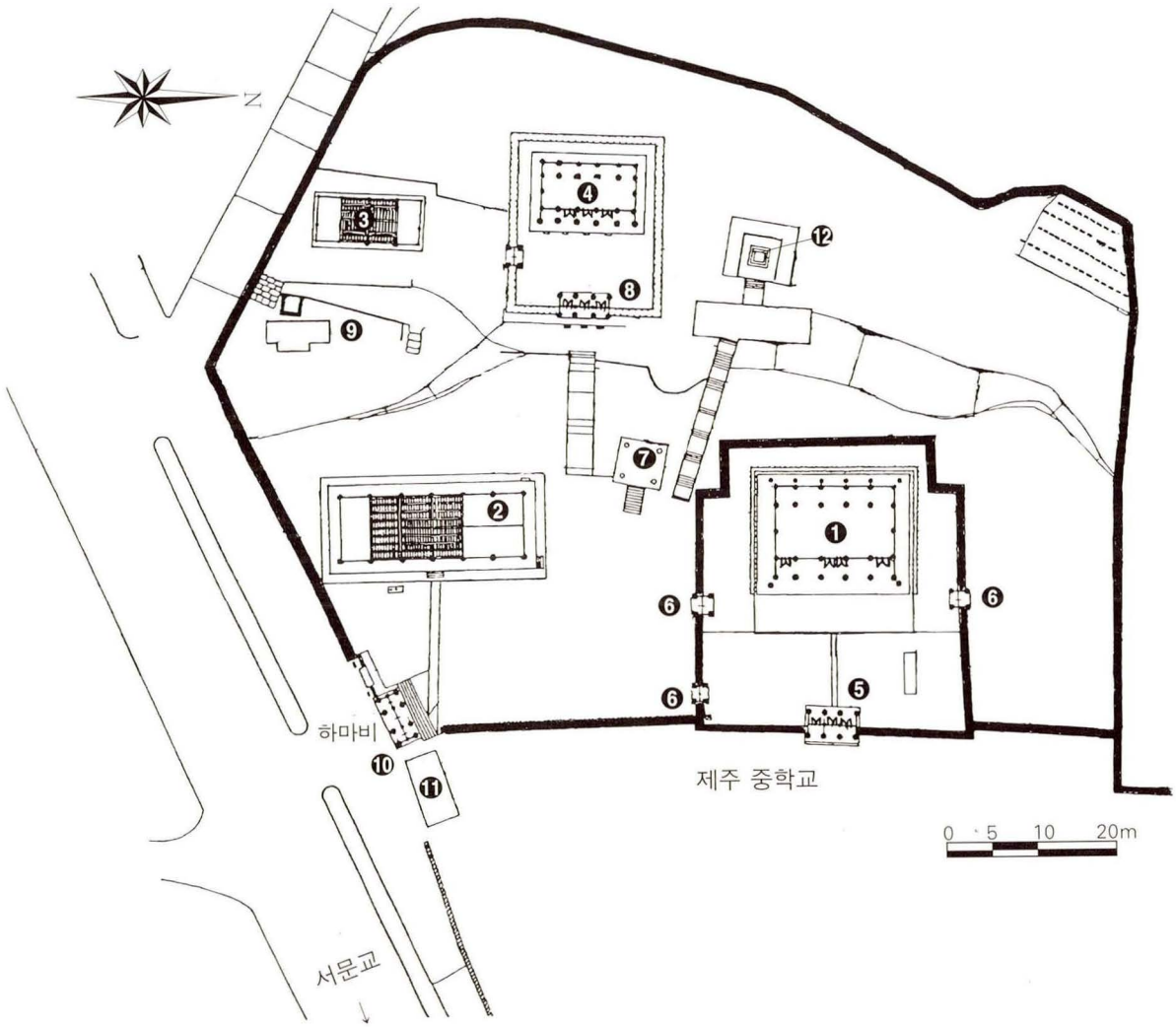


❶ 대성전(16.1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고직사(9.12평)
❼ 풍화루(9.93평)
❽ 협문
❾ 변소

230. 江陽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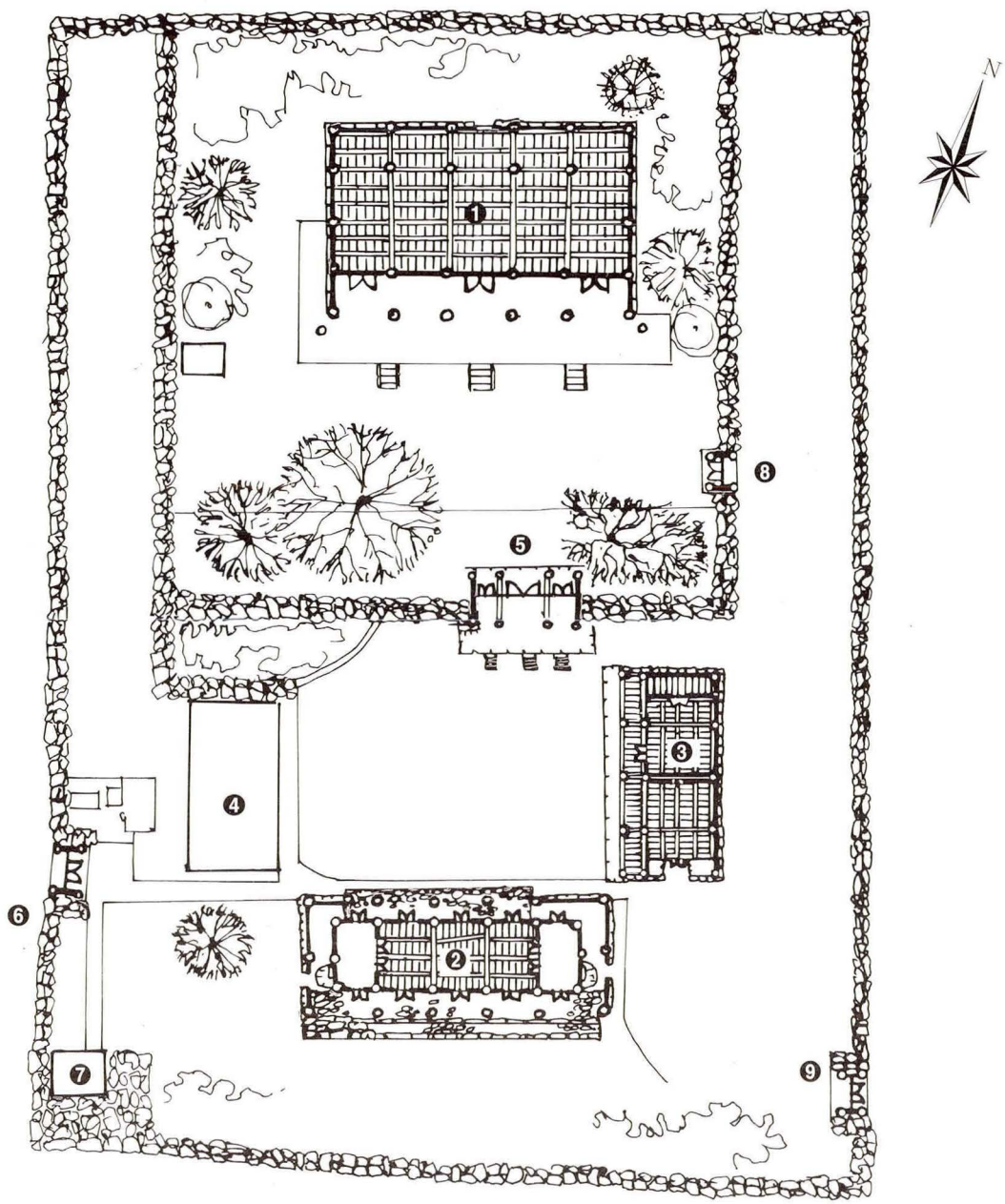


231. 濟州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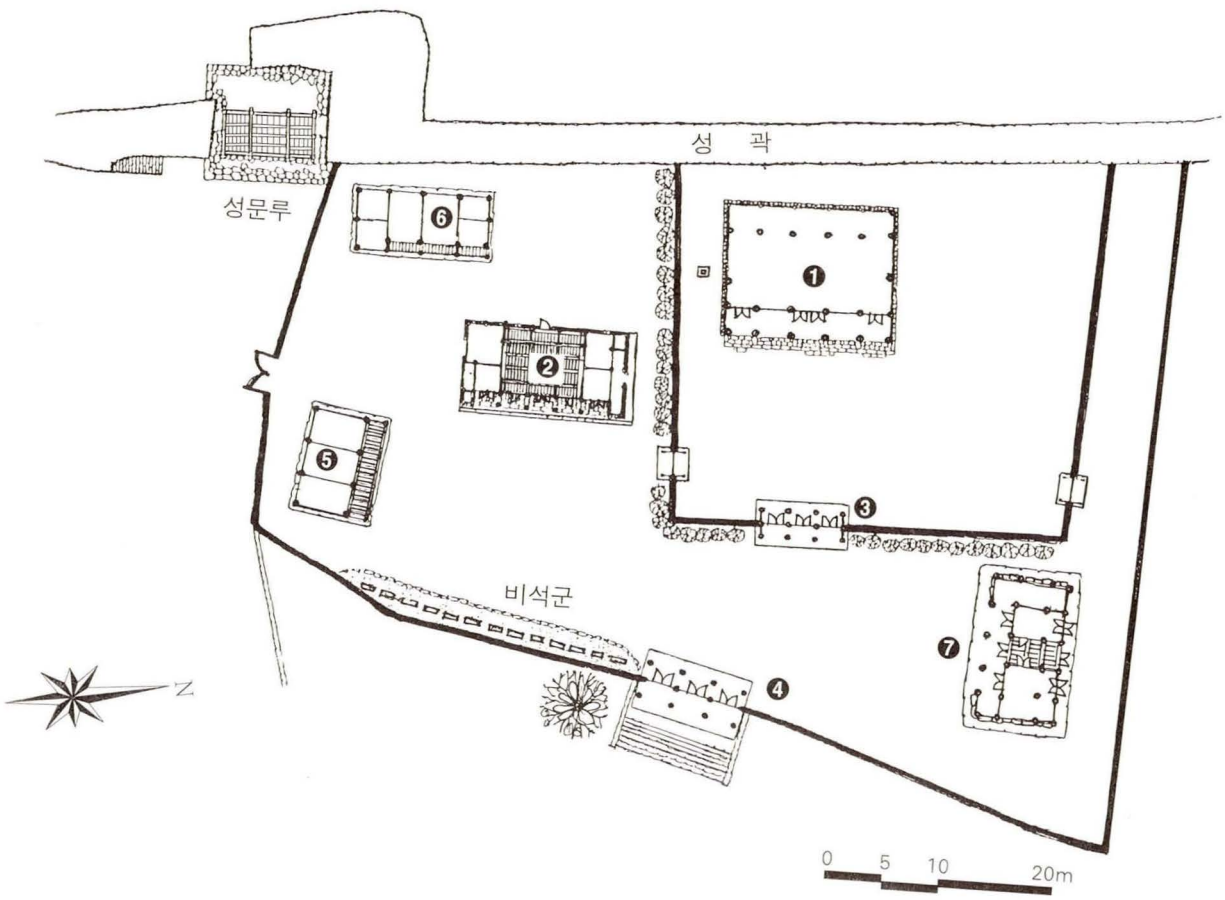
❶ 대성전(46.98평)
❷ 명륜당(48.64평)
❸ 전사청16.44평)
❹ 계성사(23.96평)
❺ 신삼문(5.44평)
❻ 협문(좌문 1.65평)
(좌하문 0.76평)
(우문 1.45평)
❼ 행단정
❽ 계성사삼문(3.89평)
❾ 변소
❿ 대성문(4.31평)
⓫ 수위실
⓬ 공자동상

232. 大靜鄕校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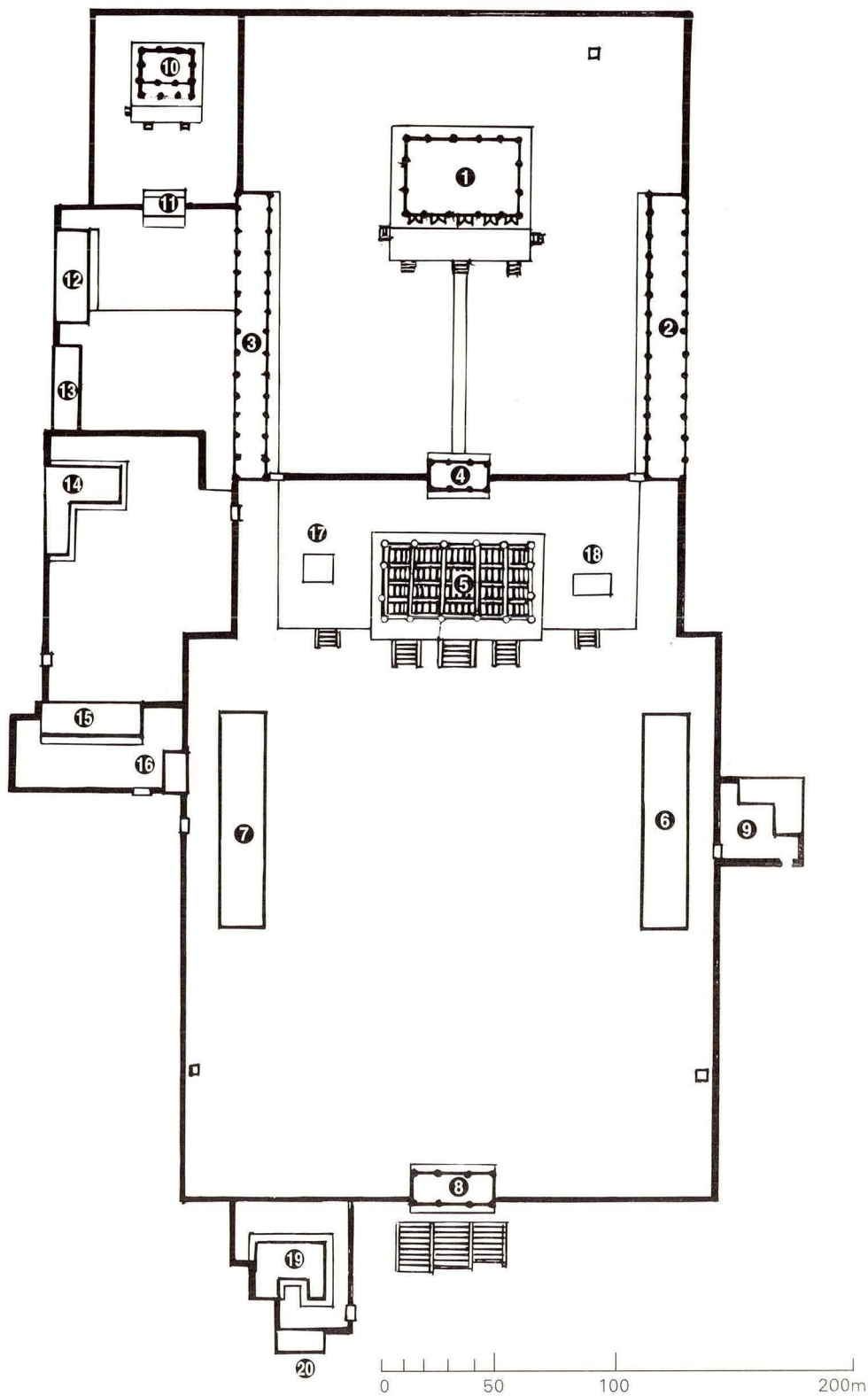
❶ 대성전(46.55평)
❷ 명륜당(24.48평)
❸ 동재(13.59평)
❹ 서재
❺ 내삼문(4.11평)
❻ 협문
❼ 변소
❽ 협문(1.53평)
❾ 협문(1.49평)

233. 旌義鄕校 配置圖



❶ 대성전(44.17평)
❷ 명륜당(24.98평)
❸ 내삼문
❹ 외삼문
❺ 수선당
❻ 수호사(20.69평)
❼ 동재(16.07평)

※ 開城 成均館 配置圖


❶ 대성전(43.40평)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신문
❺ 명륜당(54.62평)
❻ 동재
❼ 서재
❽ 외삼문
❾ 잡사
❿ 계성사
⓫ 계성사 삼문
⓬ 잡사
⓭ 잡사
⓮ 전사청
⓯ 제기고
⓰ ??
⓱ 존경각
⓲ 향실
⓳ ? ?
⓴ ? ?
0
50
100
200m

2. 주요 건물 도면

(1) 대성전(大成殿)

1. 나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2. 강릉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 장수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앙시 와복도

4. 영천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5. 성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6. 익산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7. 칠곡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8. 대정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9. 순천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0. 선산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11. 거제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2. 능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13. 사천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4. 수원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5. 상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6. 동래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가구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17. 의흥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8. 남해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9. 함양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0. 보성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1. 목천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2. 양지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3. 양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4. 개령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5. 廣州鄕校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6. 청풍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7. 정산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8. 밀양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9. 양근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30. 고흥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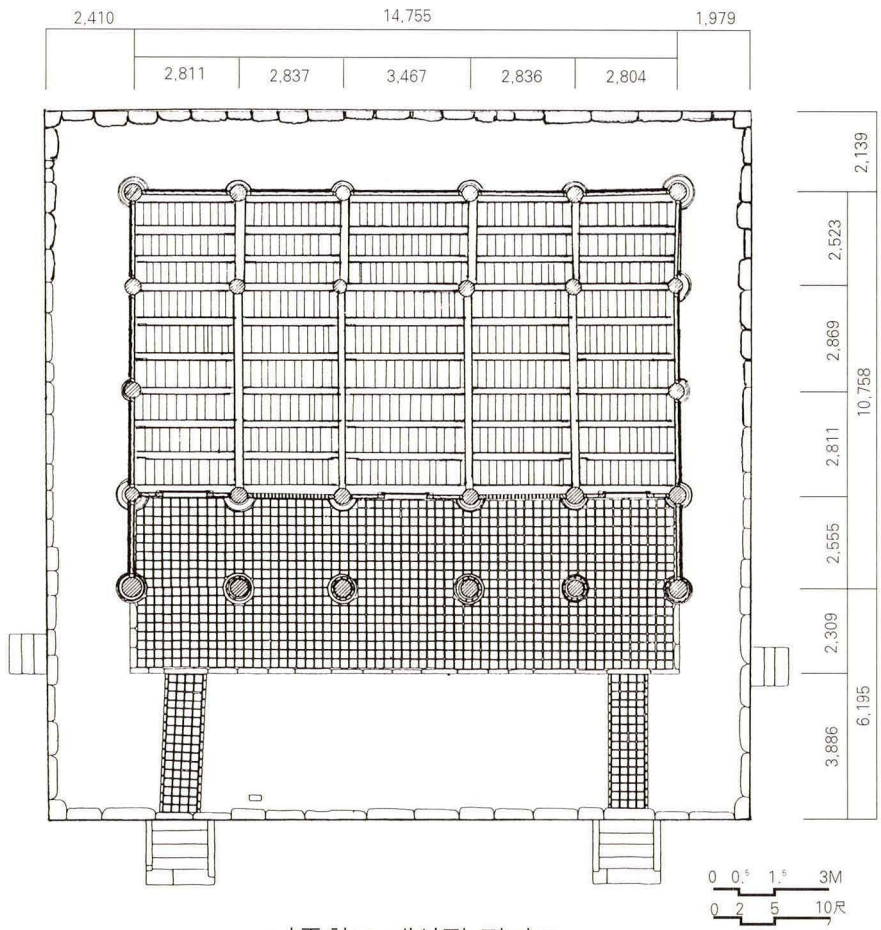
31. 통영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2. 현풍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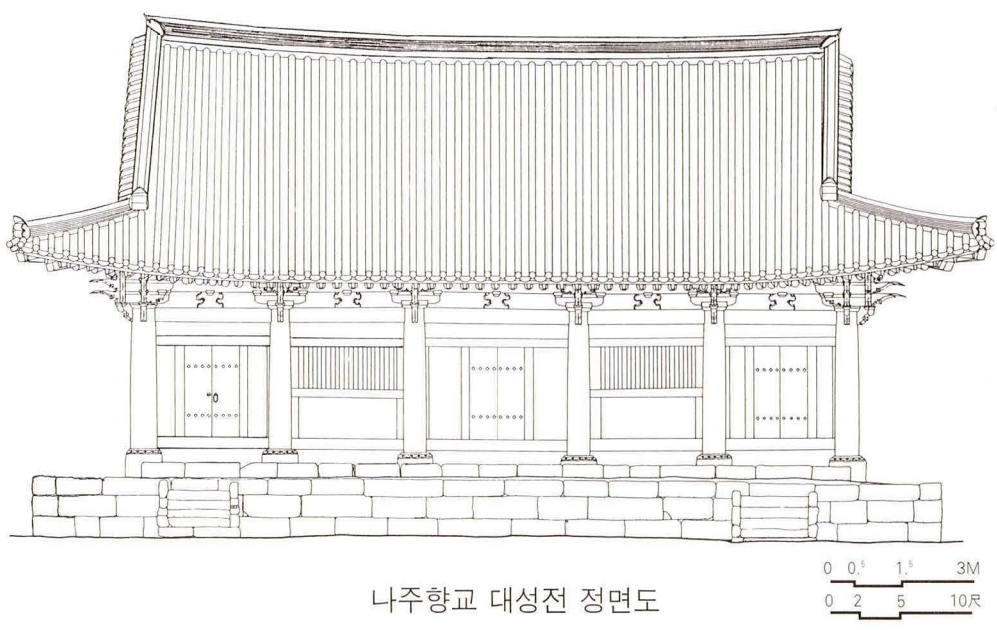
33. 영산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34. 문의향교 대성전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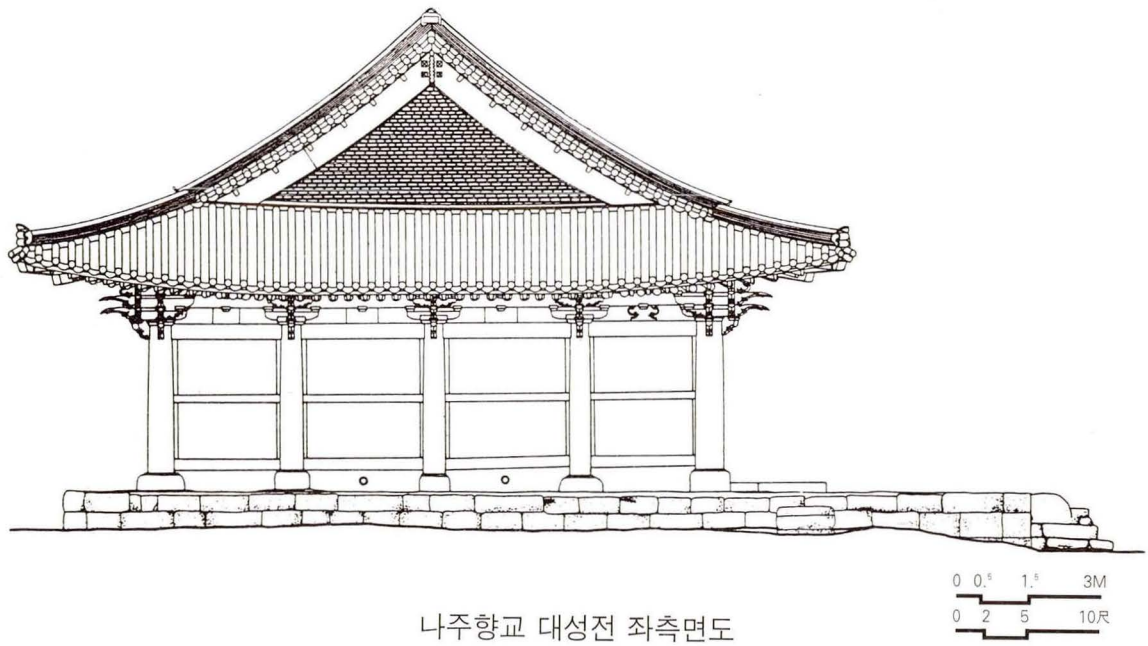
1. 나주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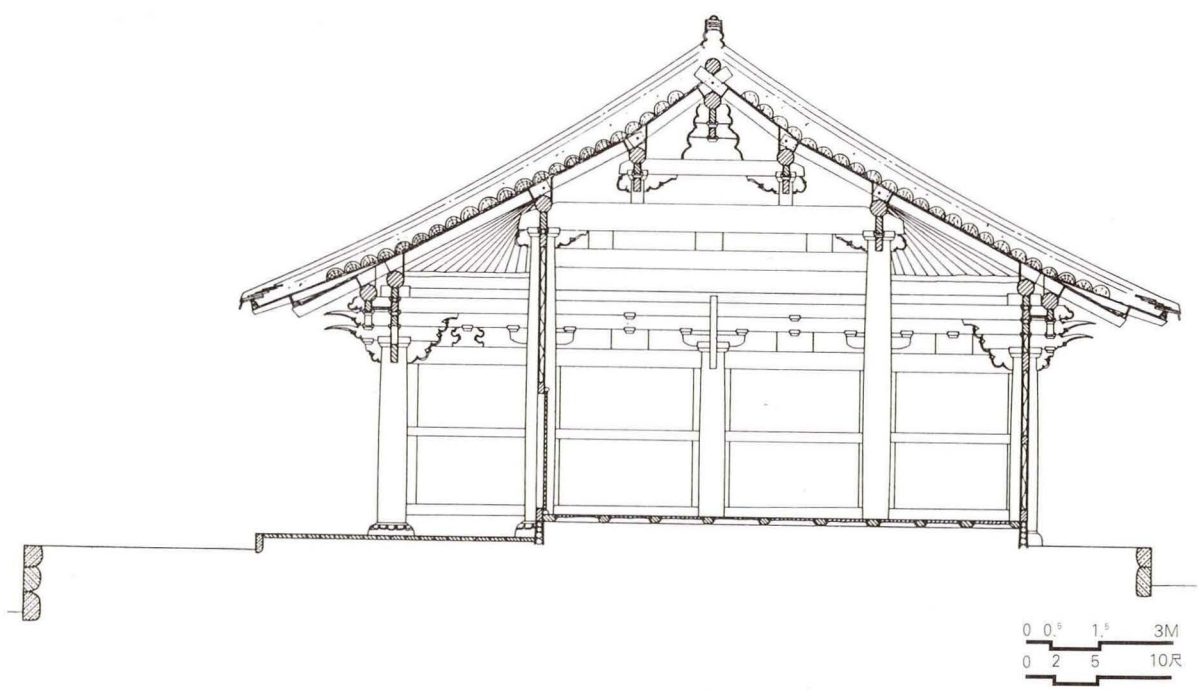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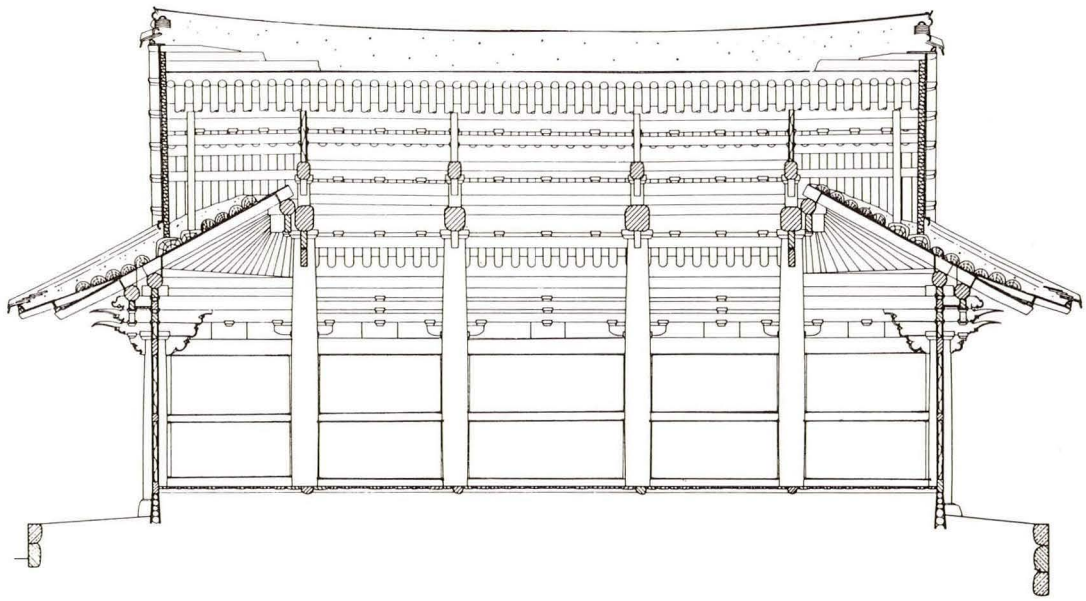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정면도



나주향교 대성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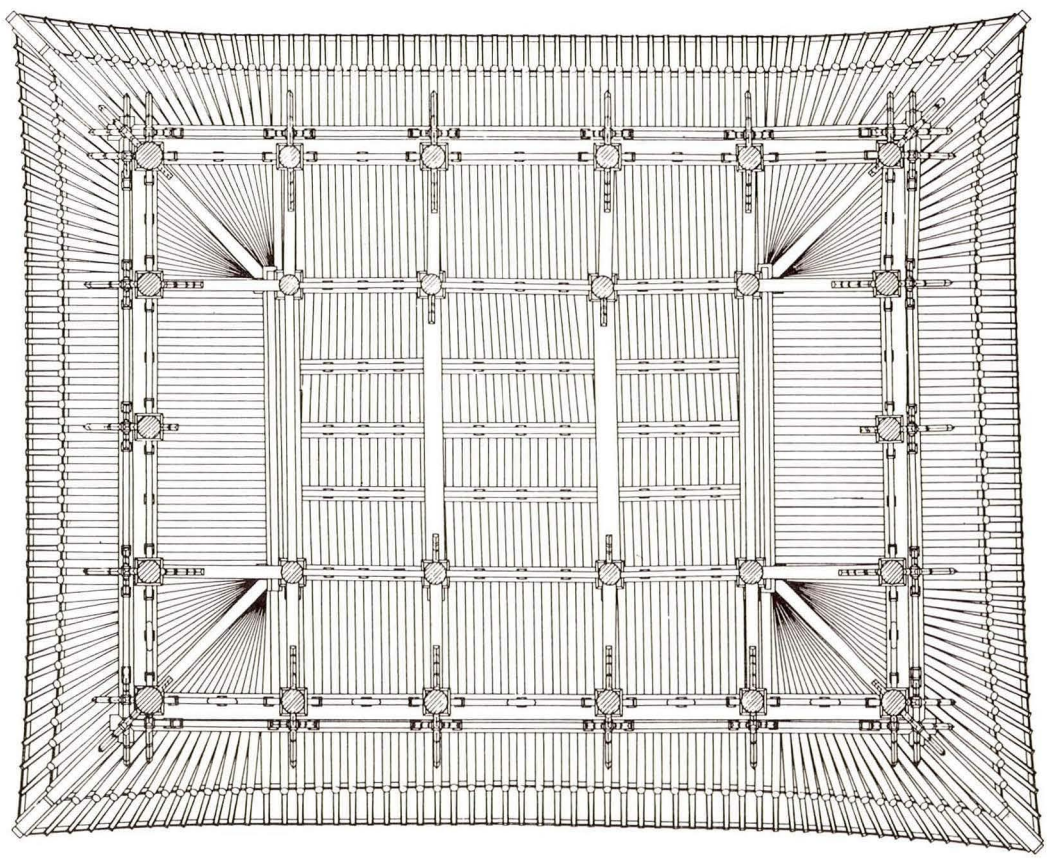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0 0.5 1.5 3M
0 2 5 10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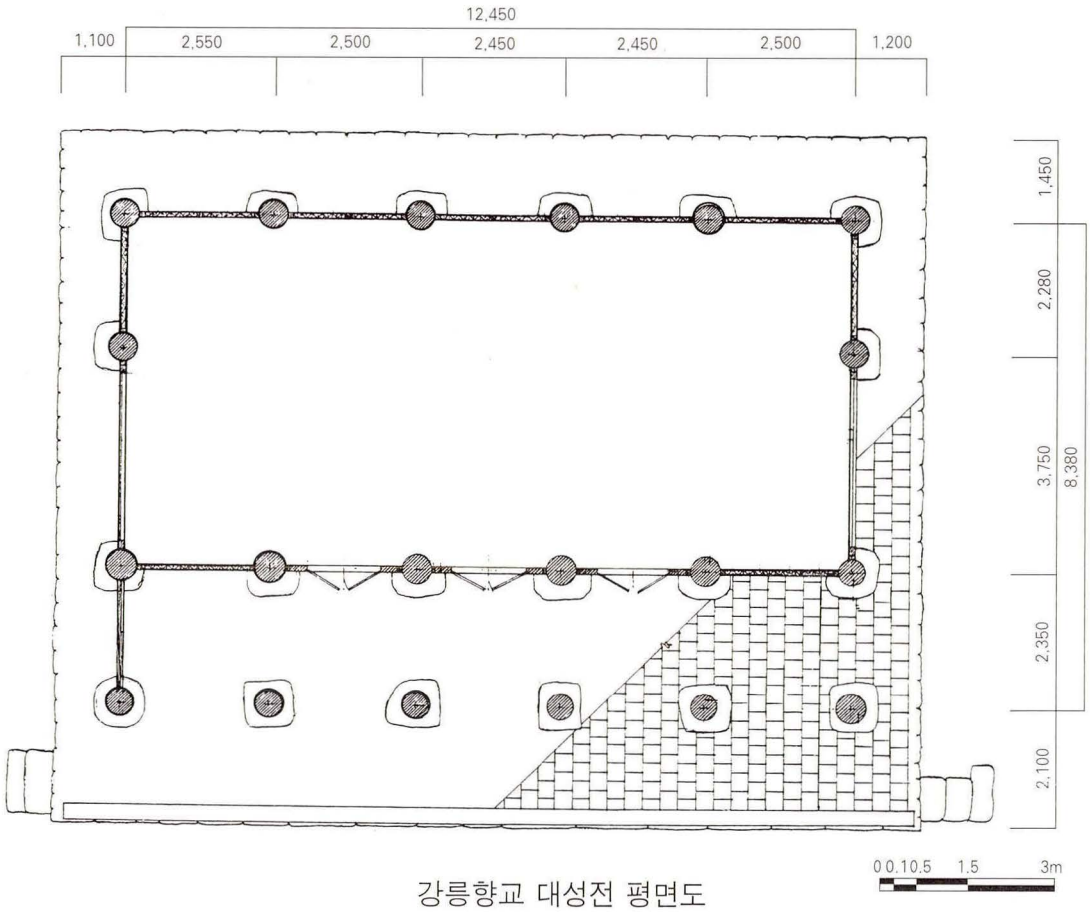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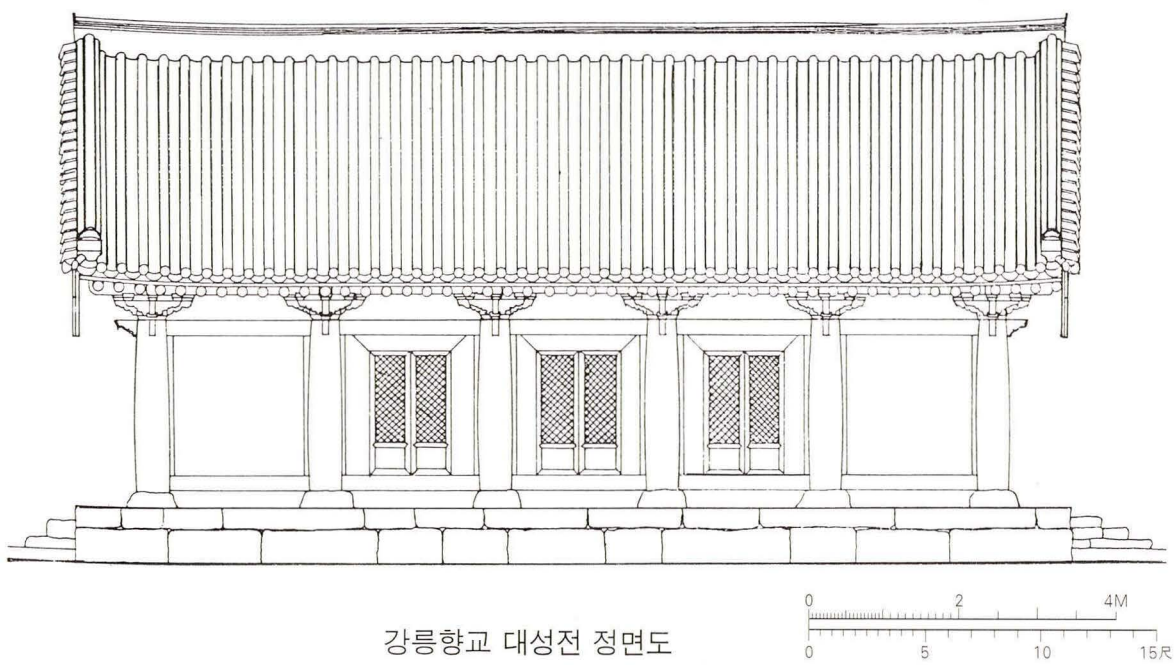
0 0.5 1.5 3M

나주향교 대성전 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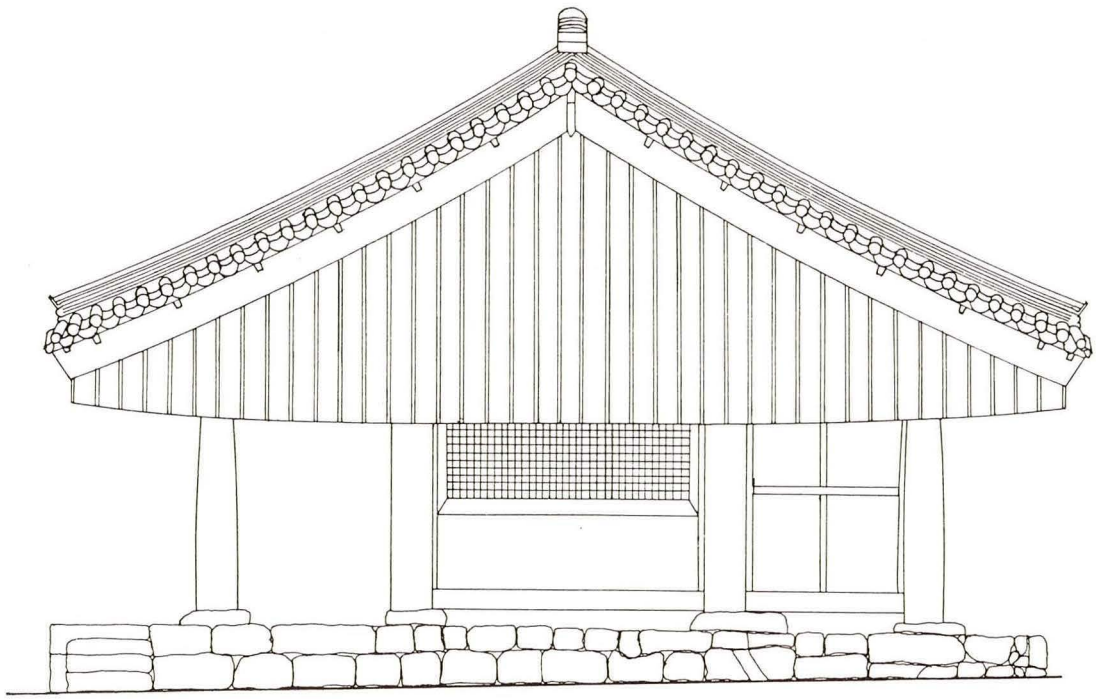
2. 강릉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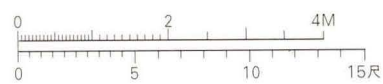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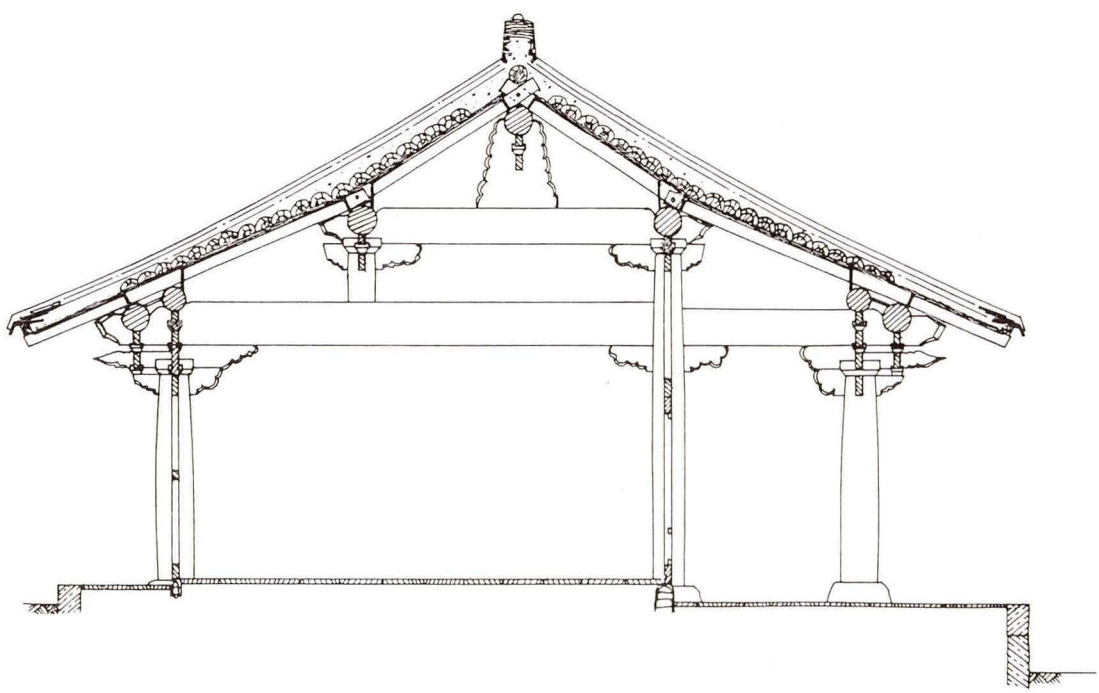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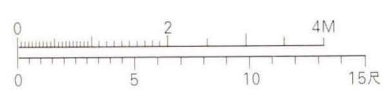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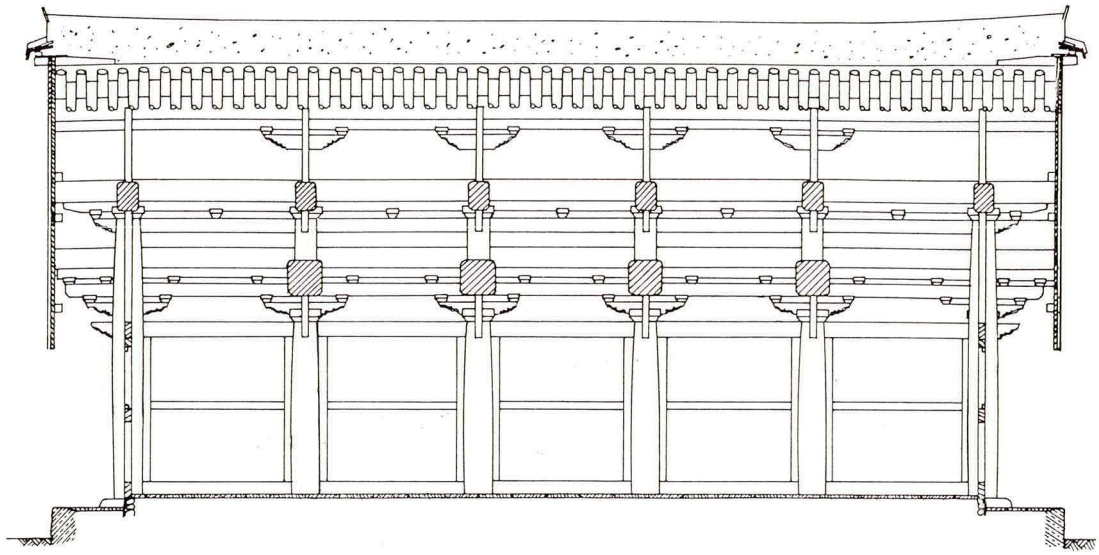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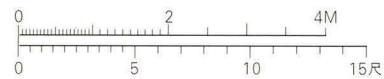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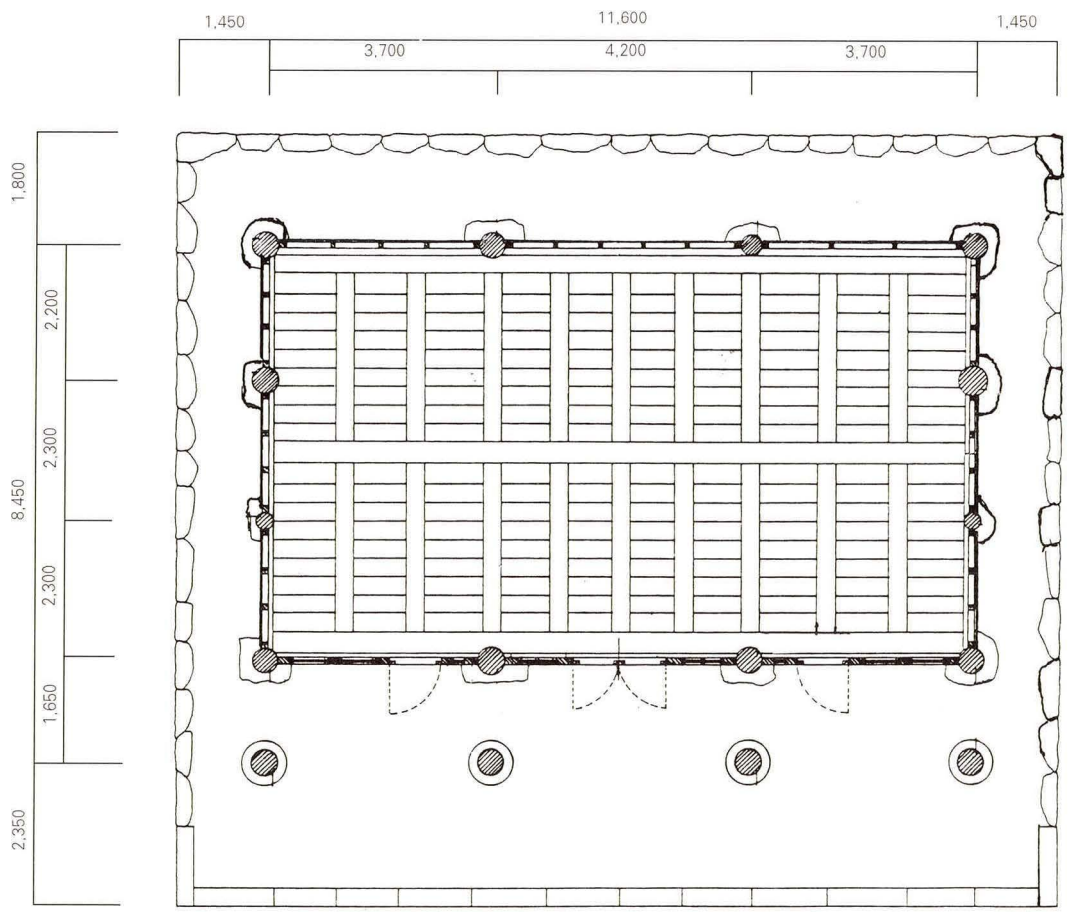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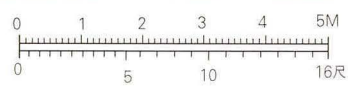
강릉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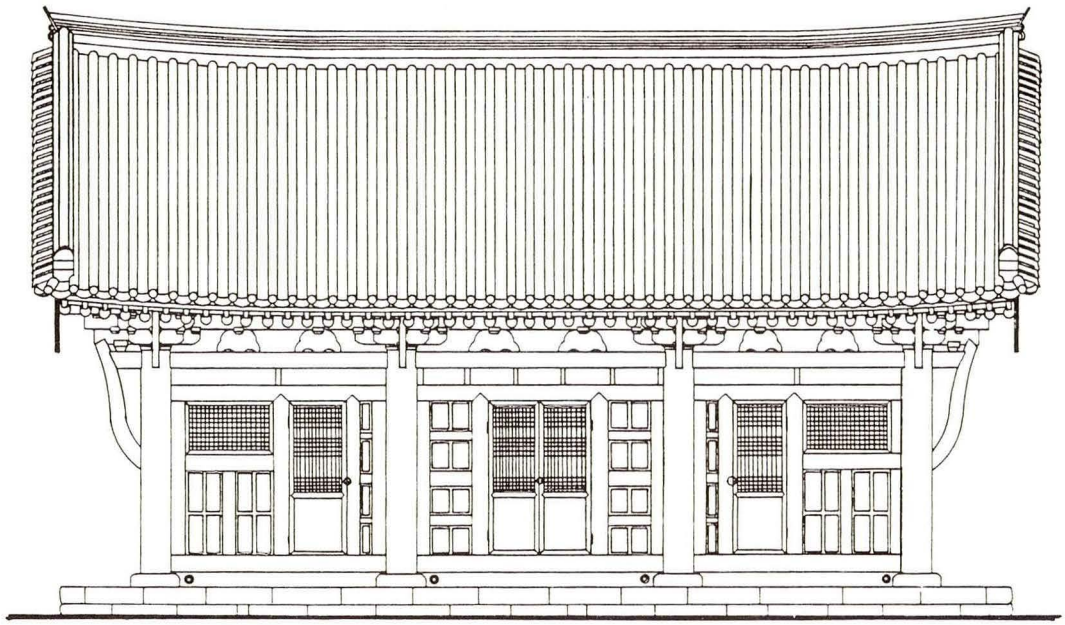


3. 장수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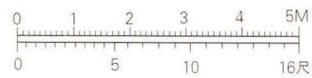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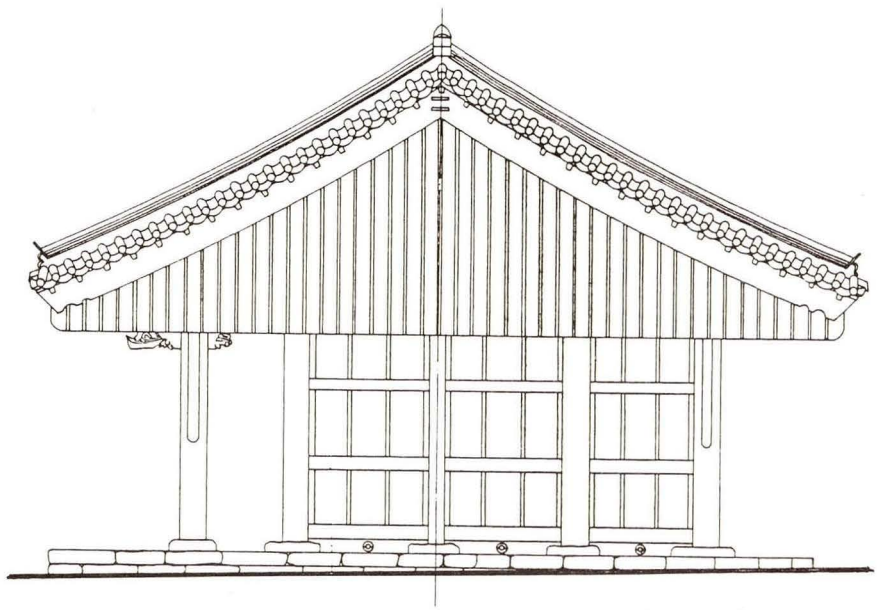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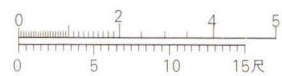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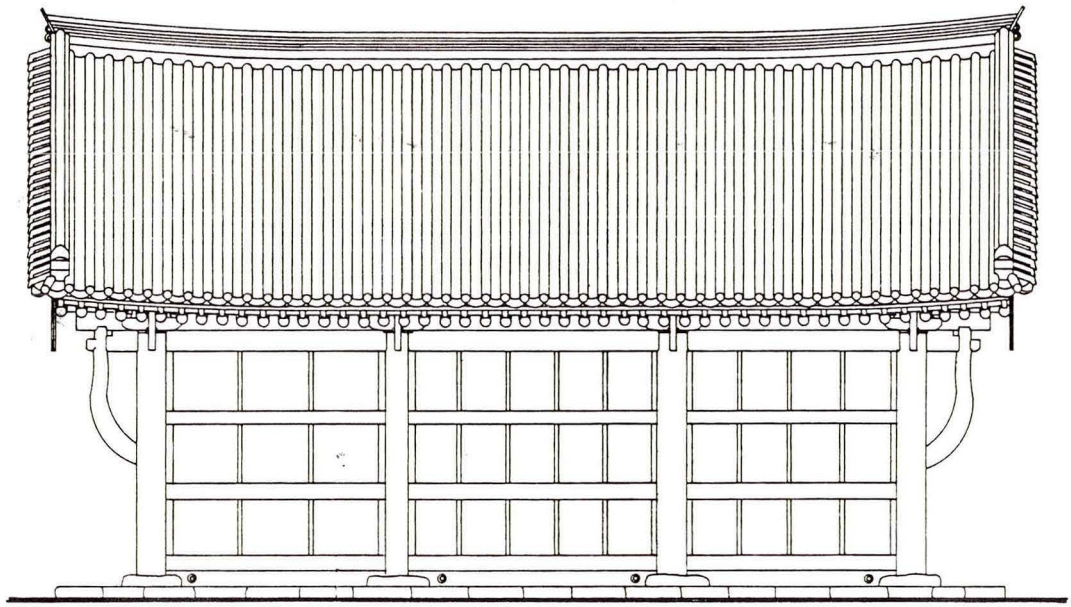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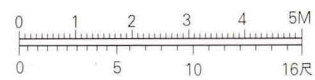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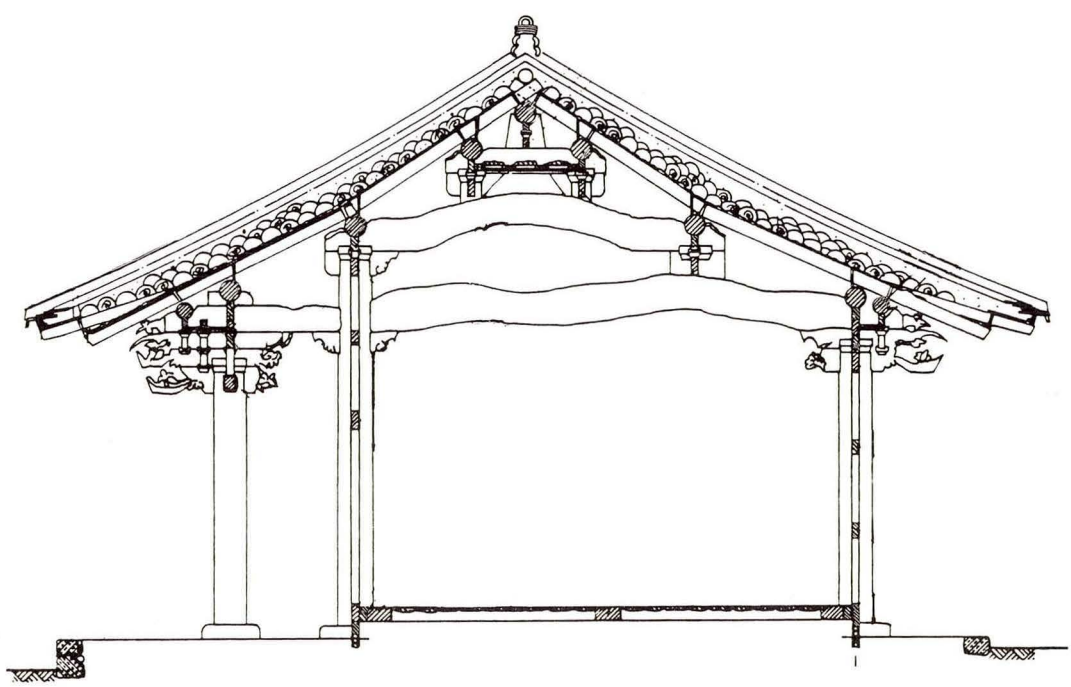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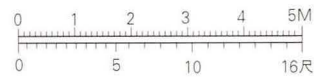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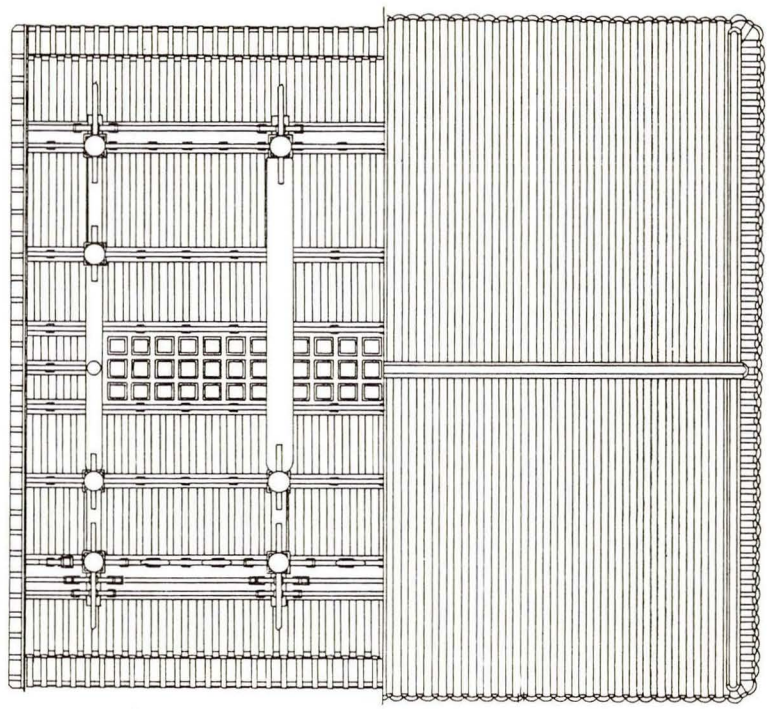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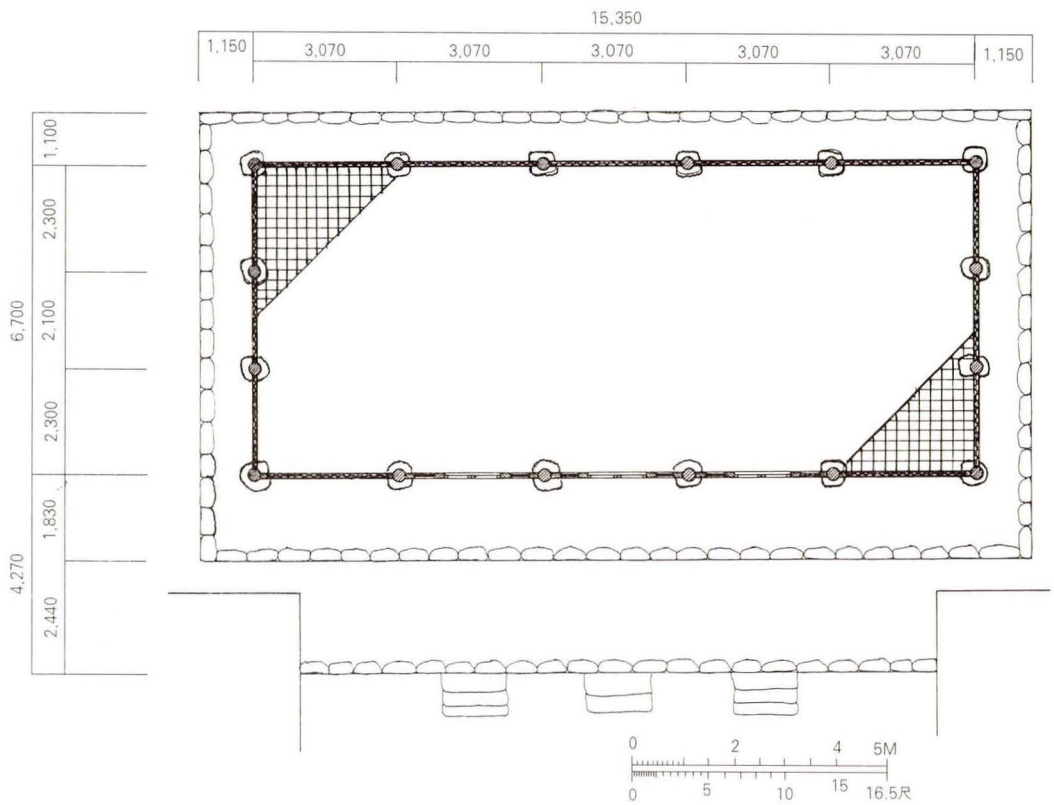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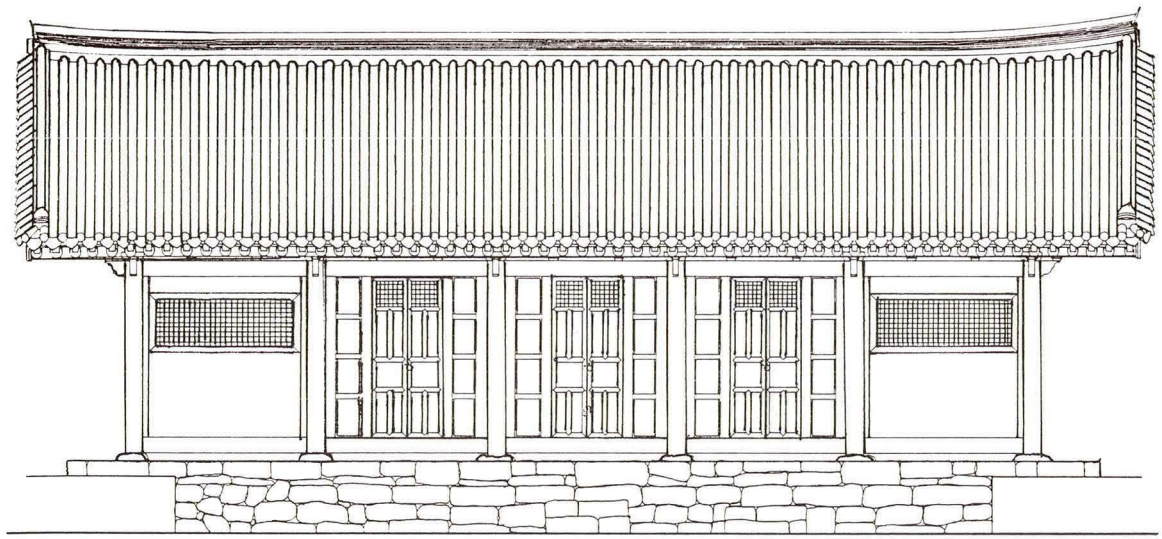


장수향교 대성전 앙시 와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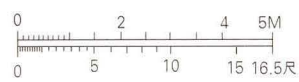
4. 영천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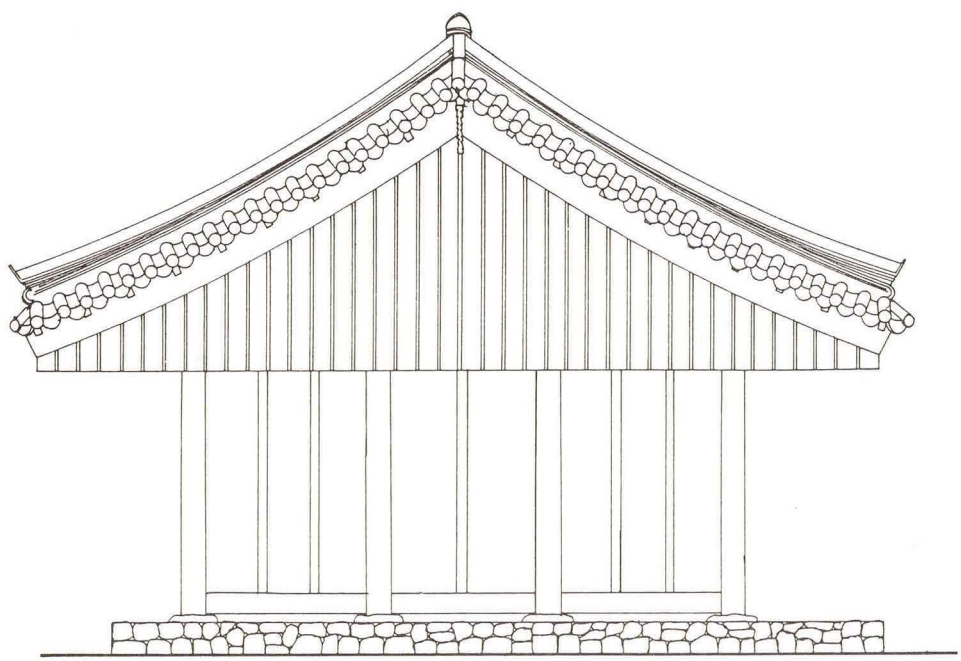


영천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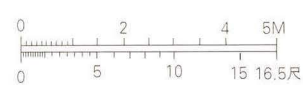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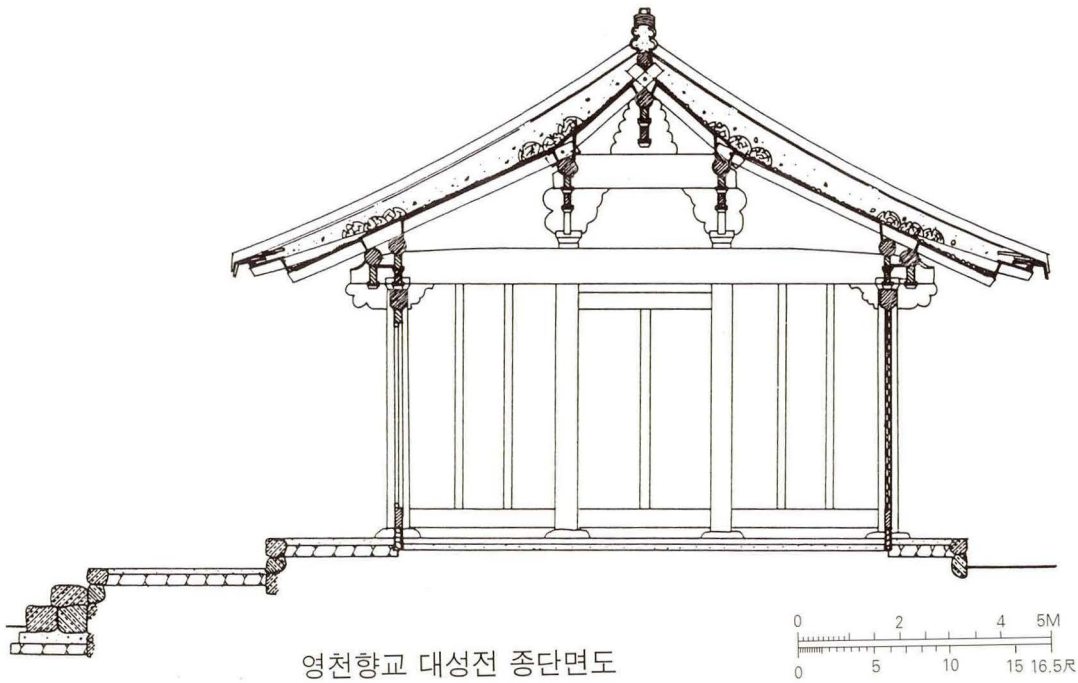
영천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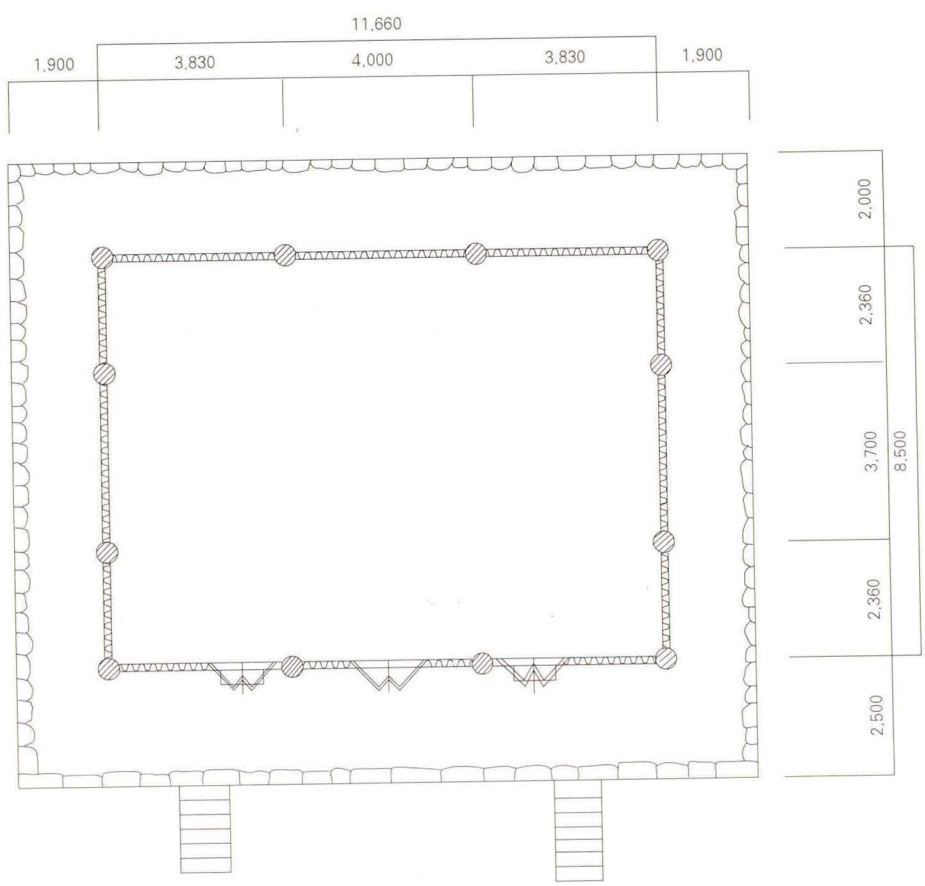
영천향교 대성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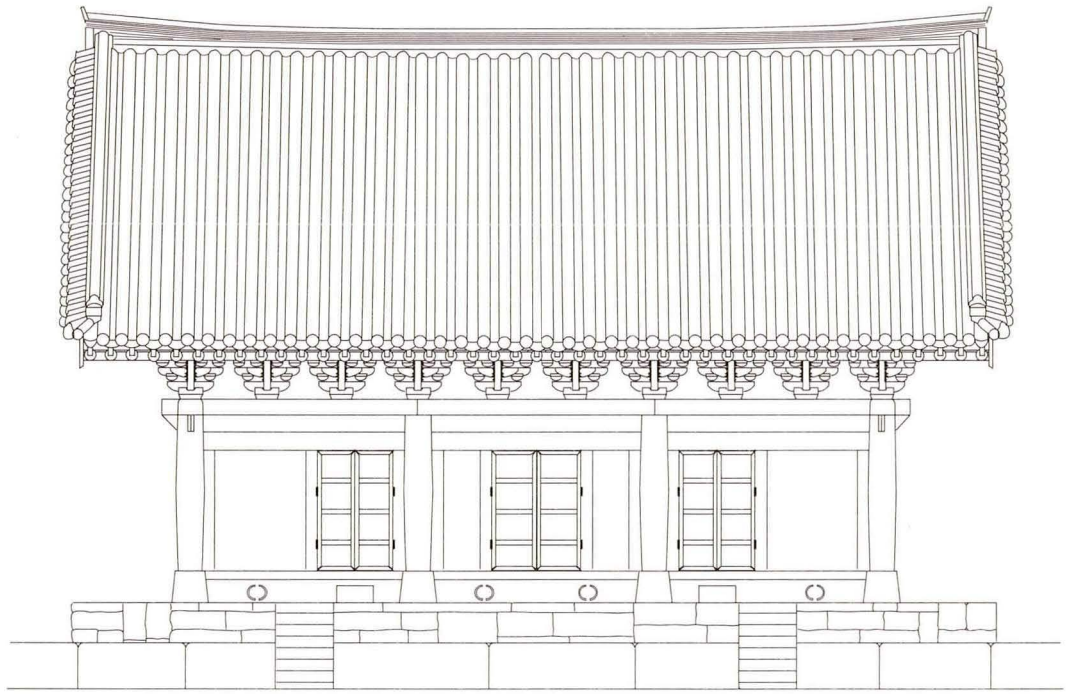


영천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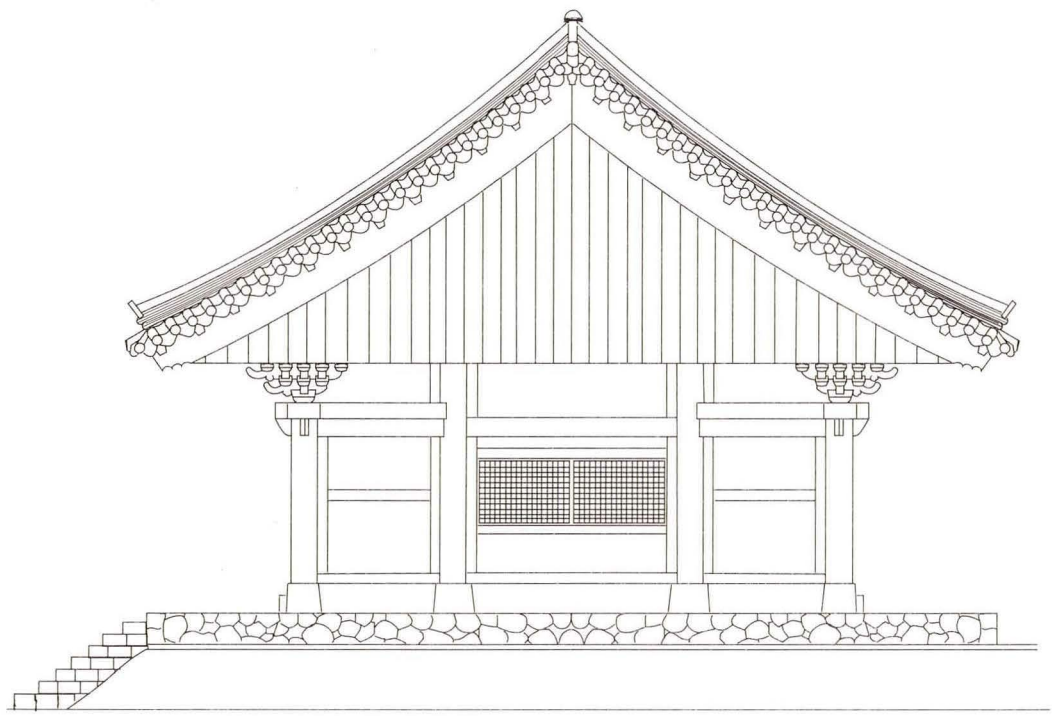
5. 성주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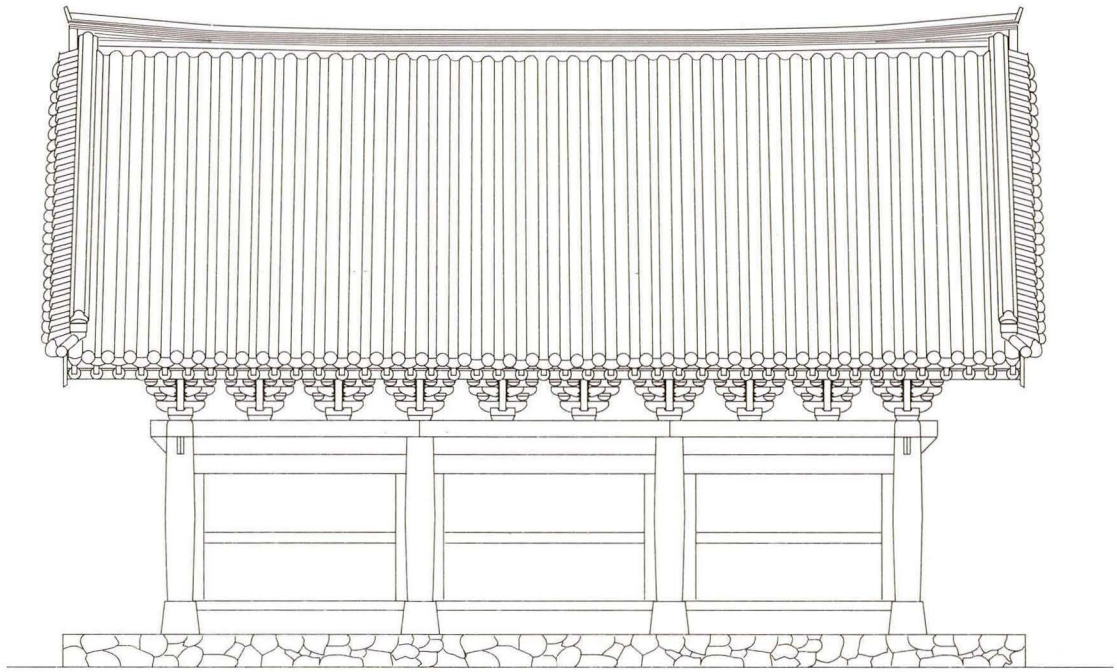
성주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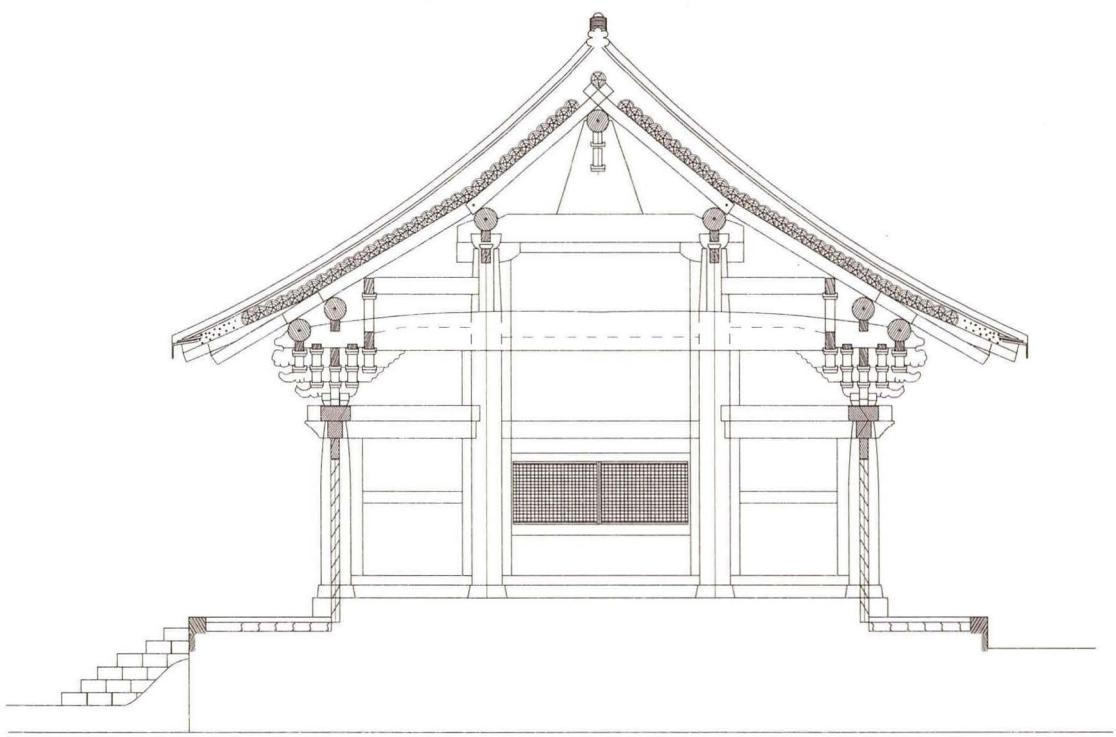
성주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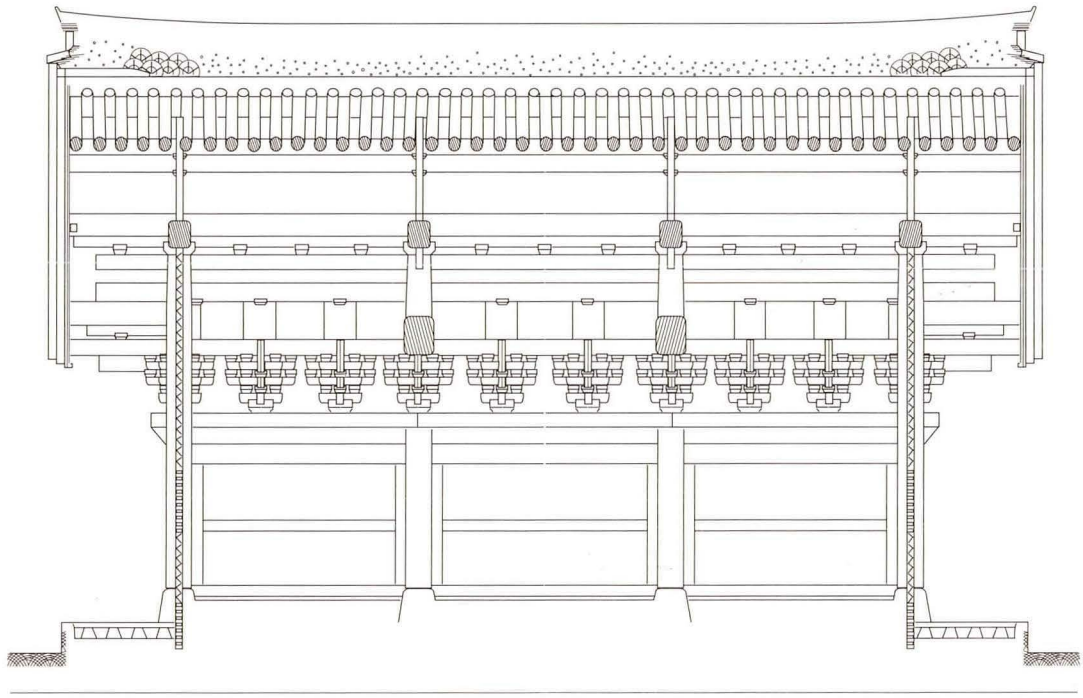
성주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성주향교 대성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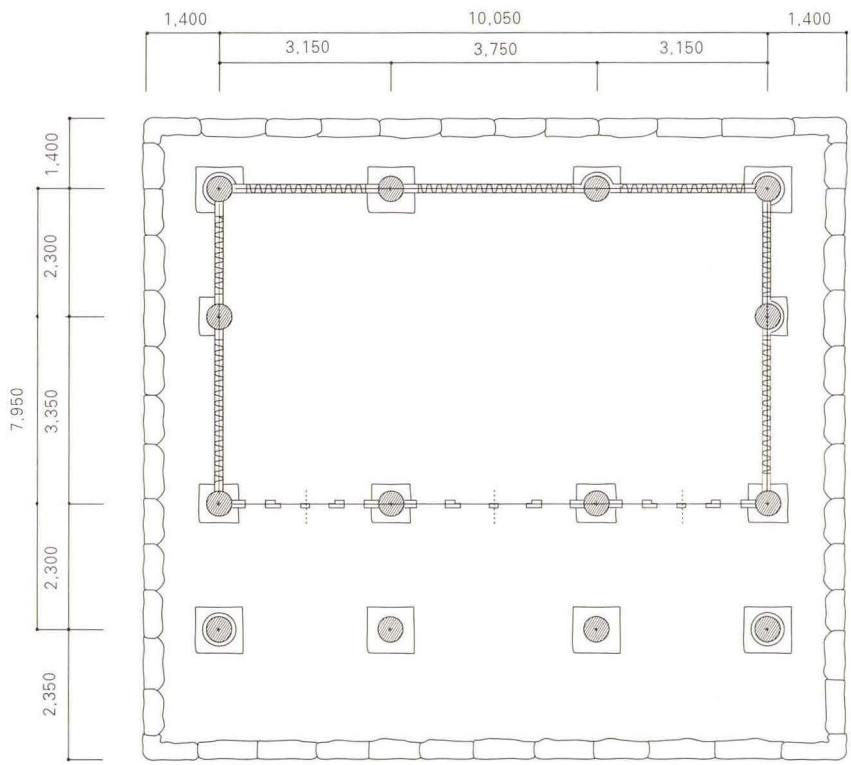


성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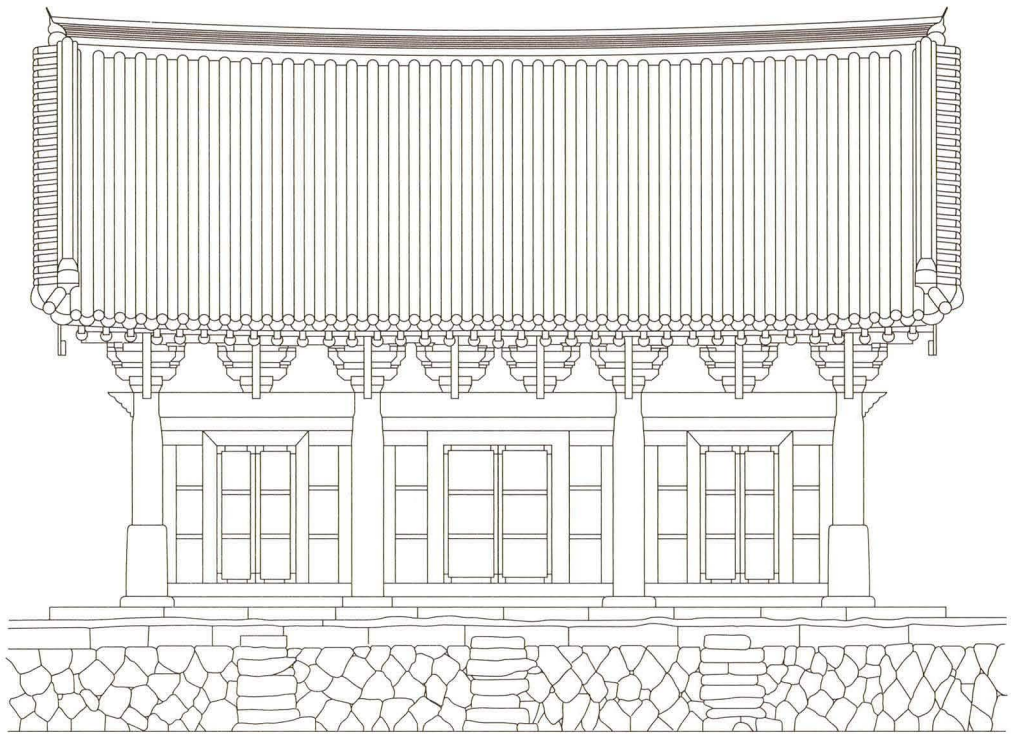


성주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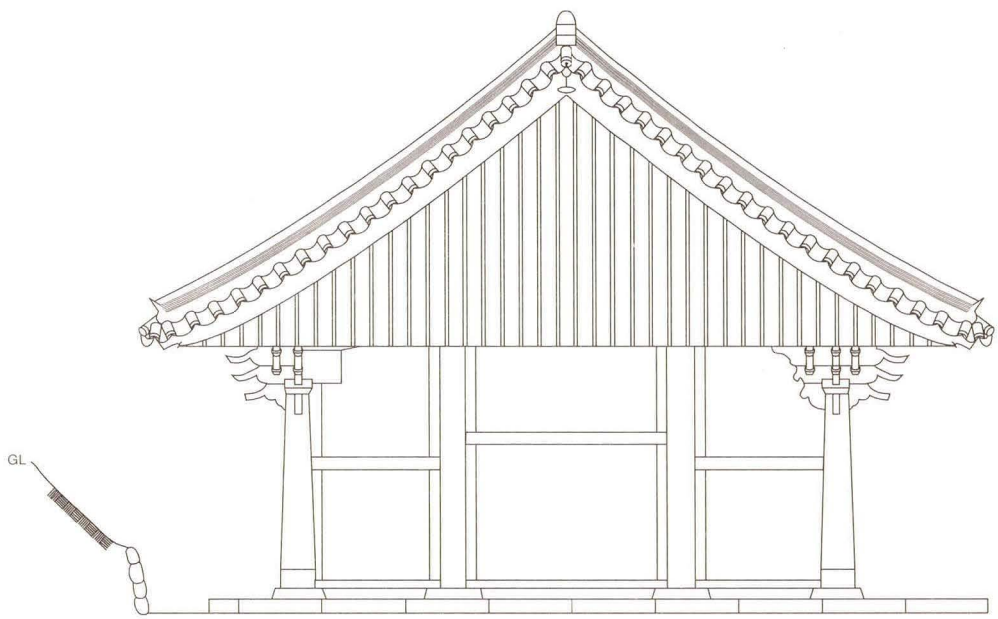
6. 익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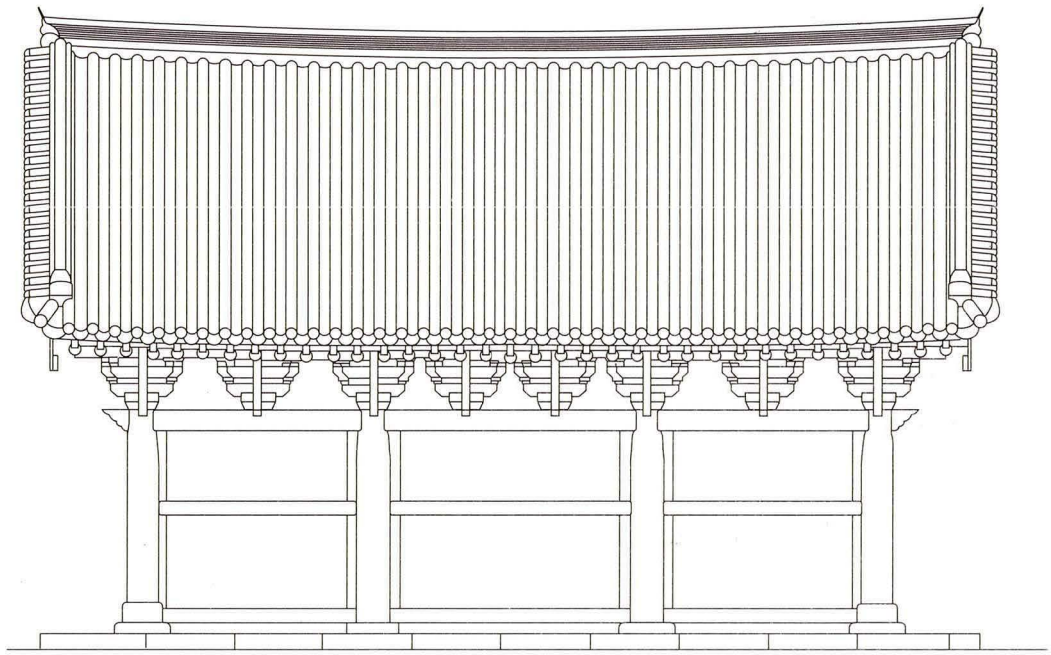
익산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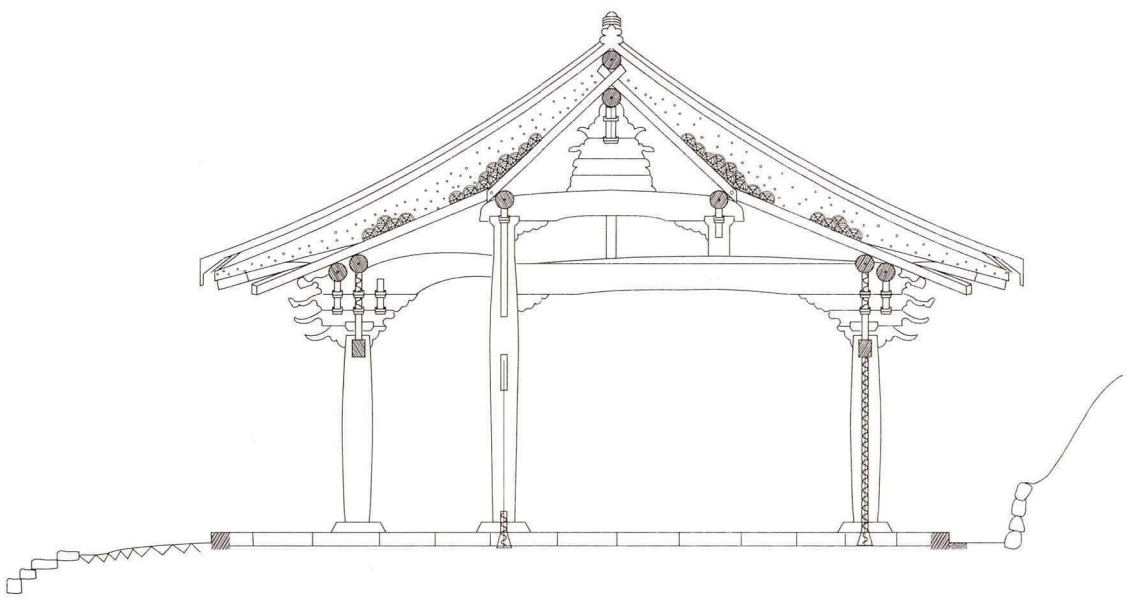
익산향교 대성전 정면도



익산향교 대성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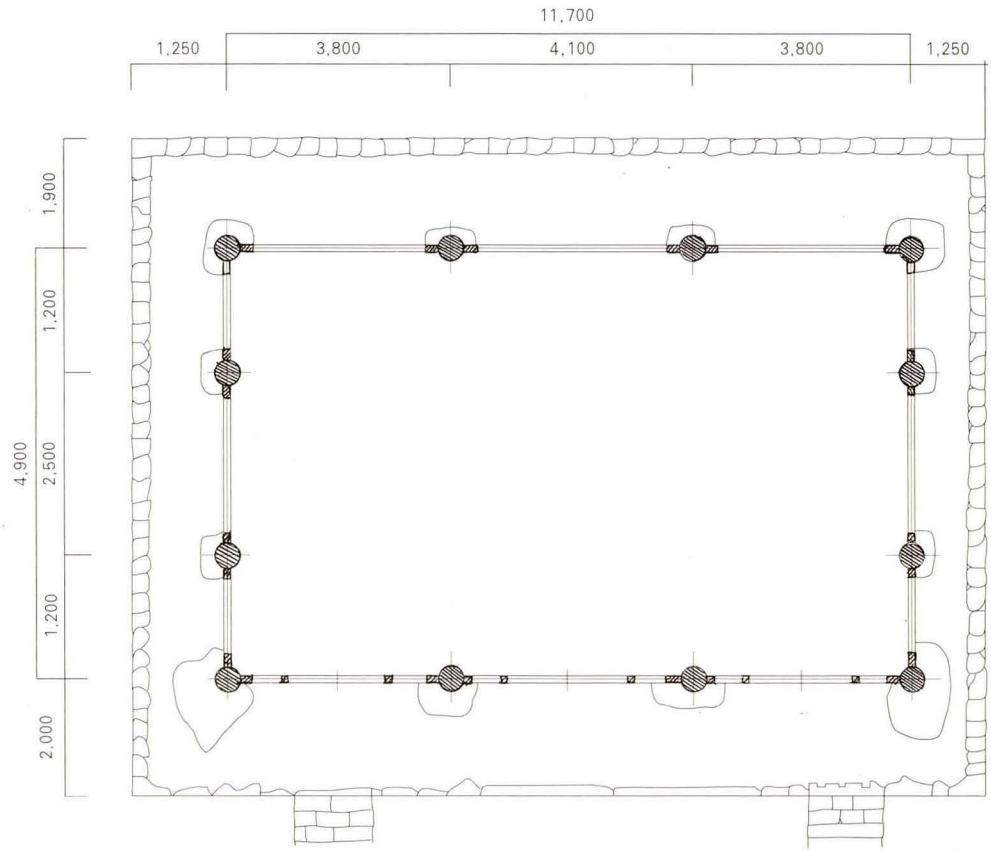


익산향교 대성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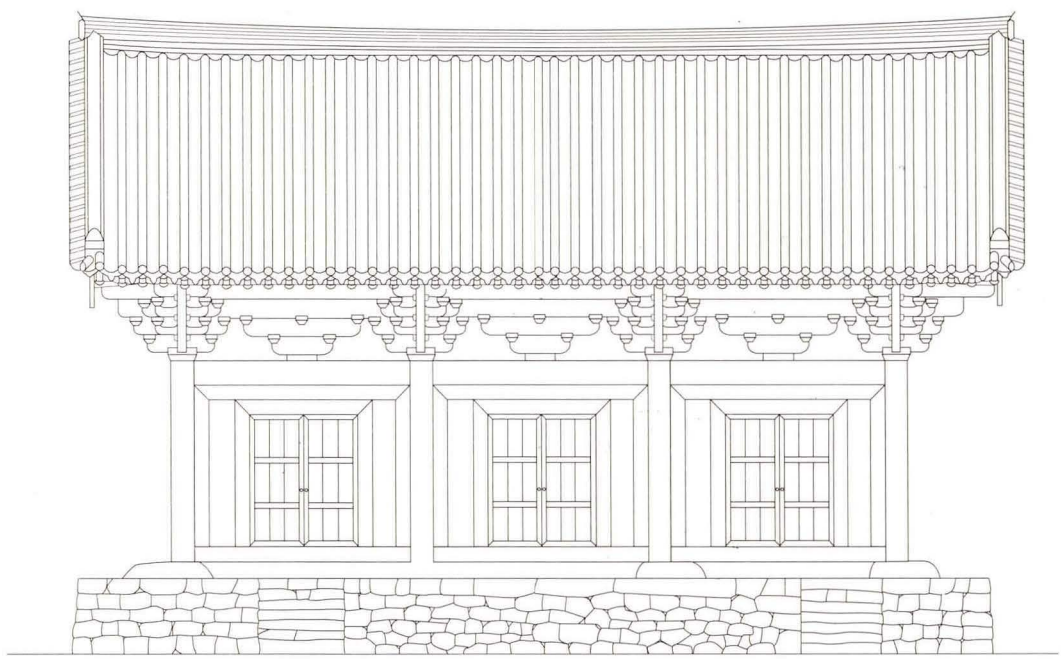


익산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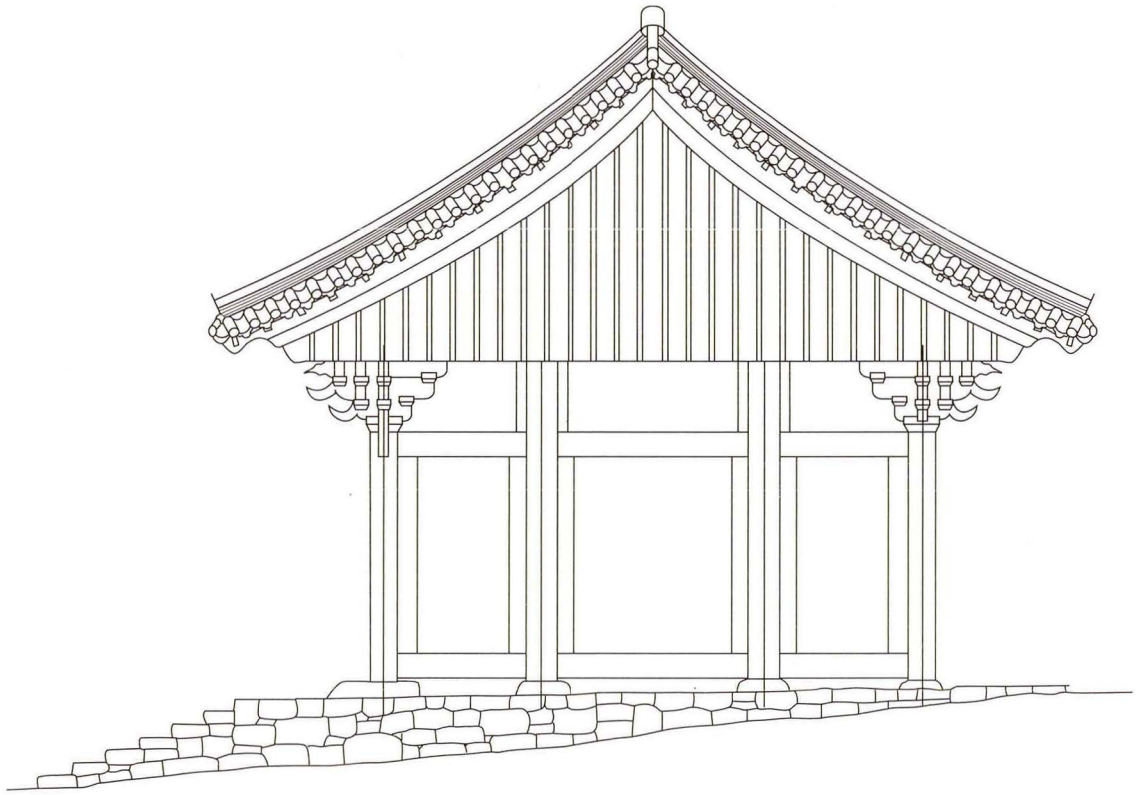
7. 칠곡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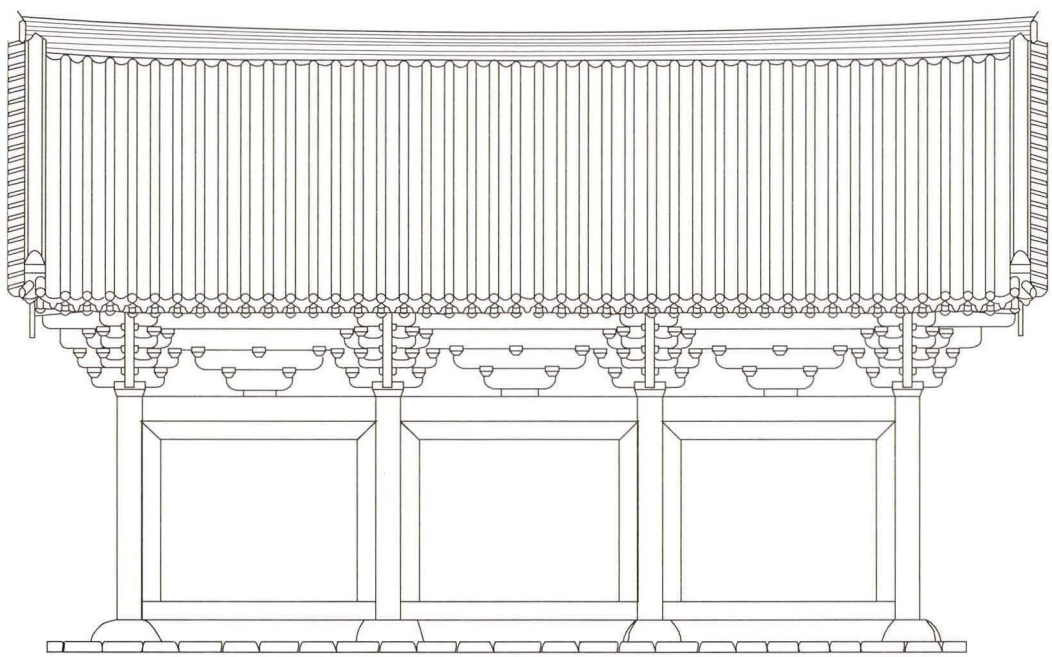
칠곡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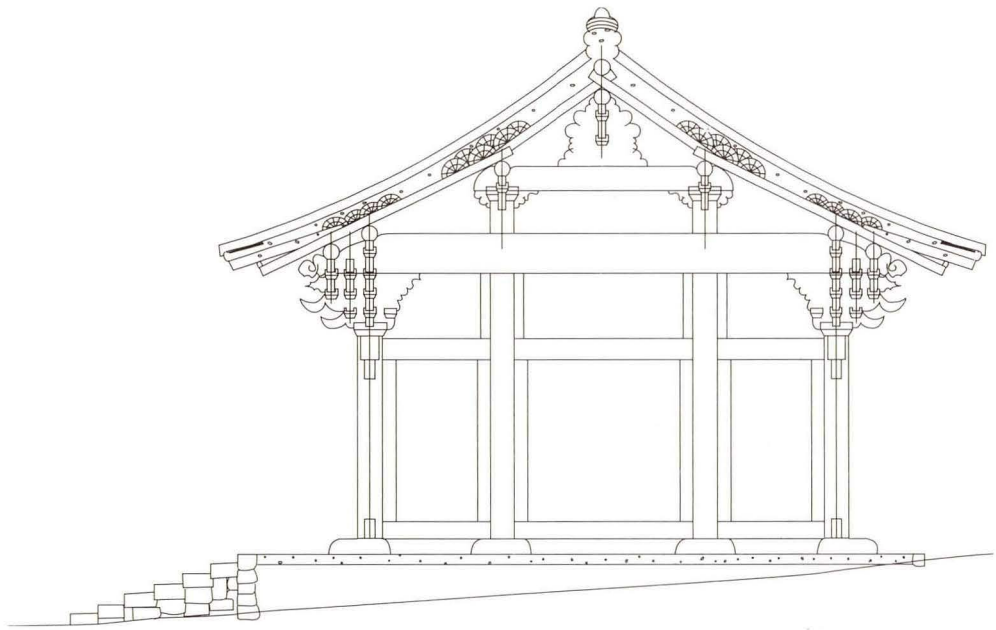
칠곡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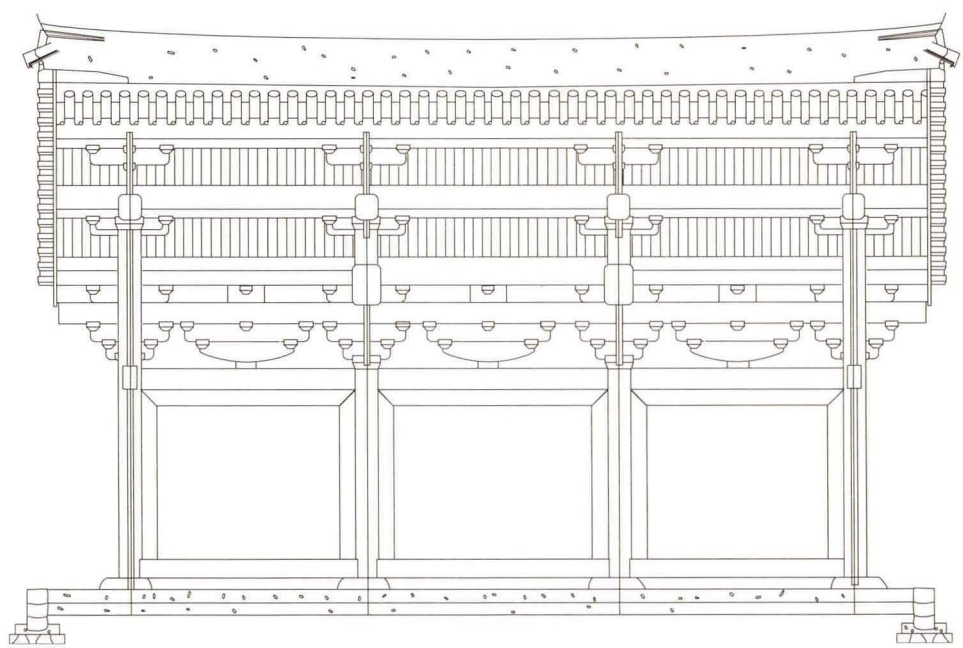
칠곡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칠곡향교 대성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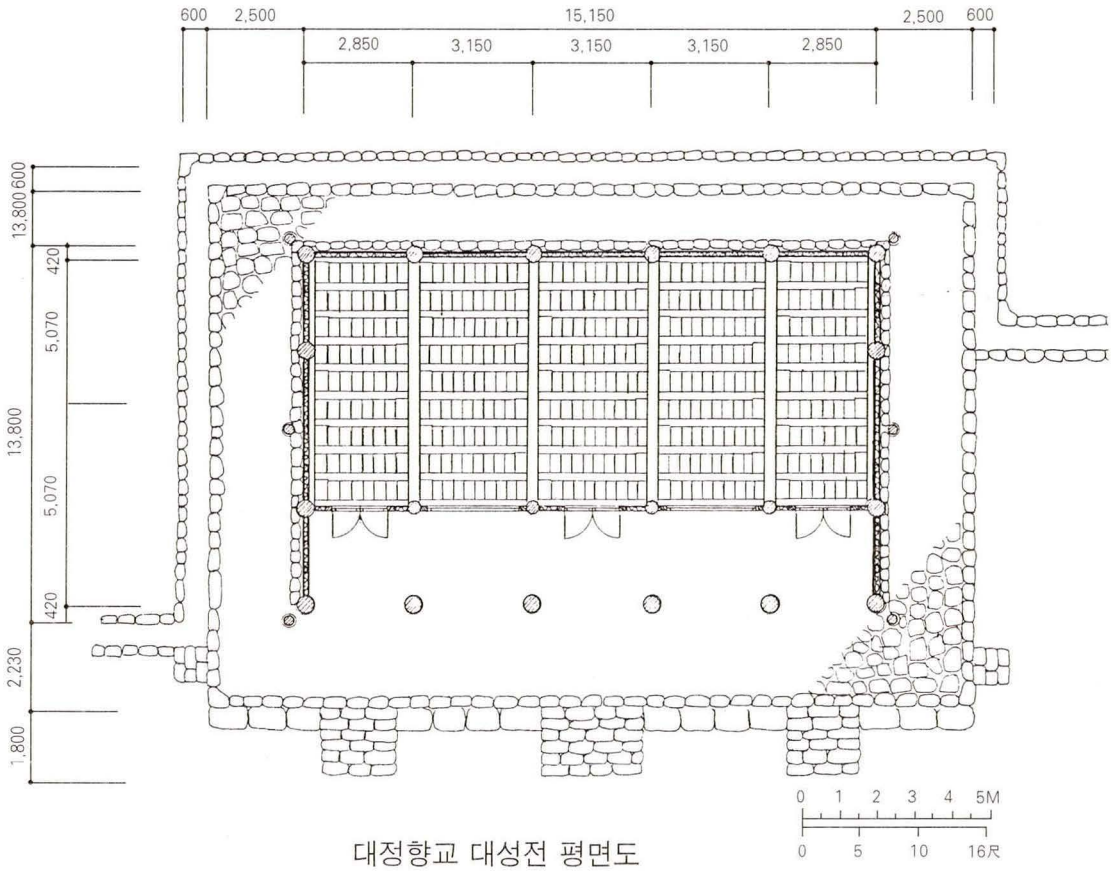


칠곡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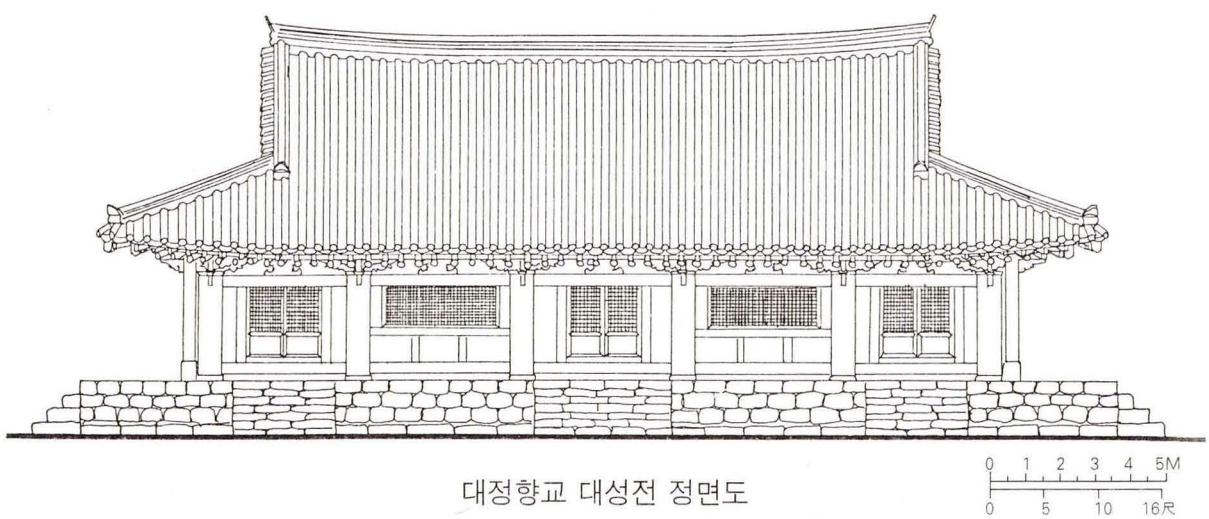


칠곡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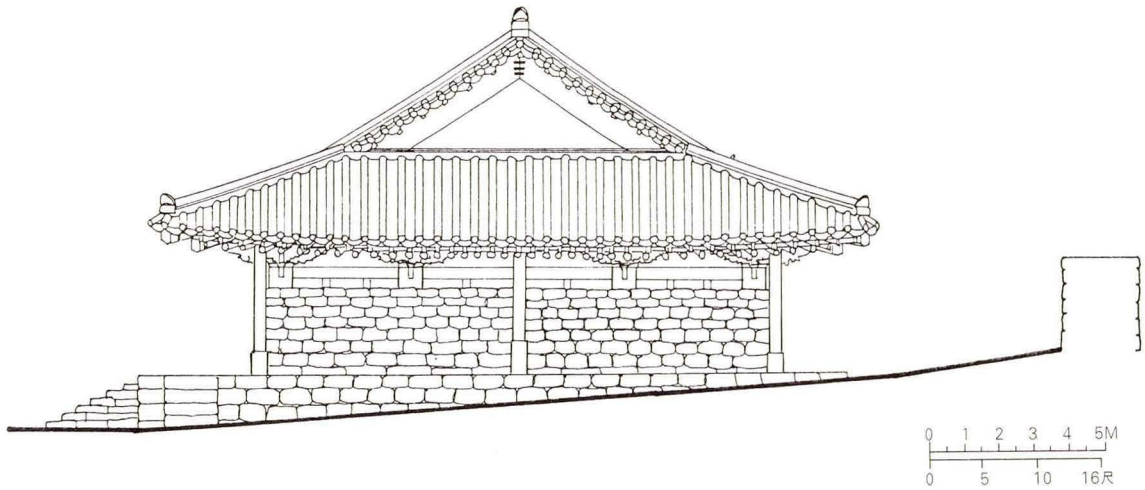
8. 대정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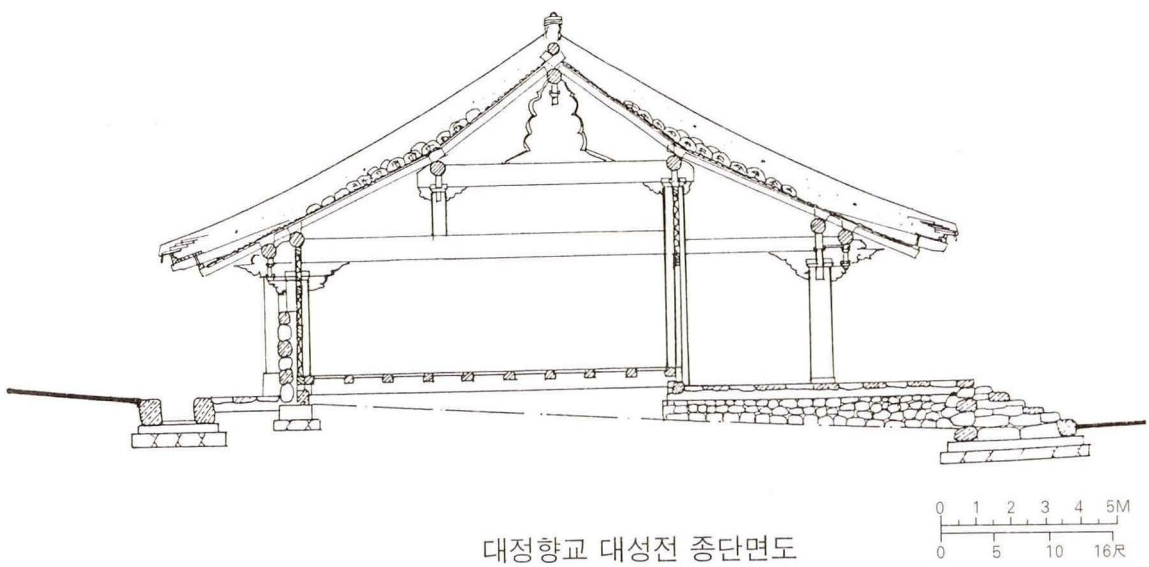
대정향교 대성전 평면도



대정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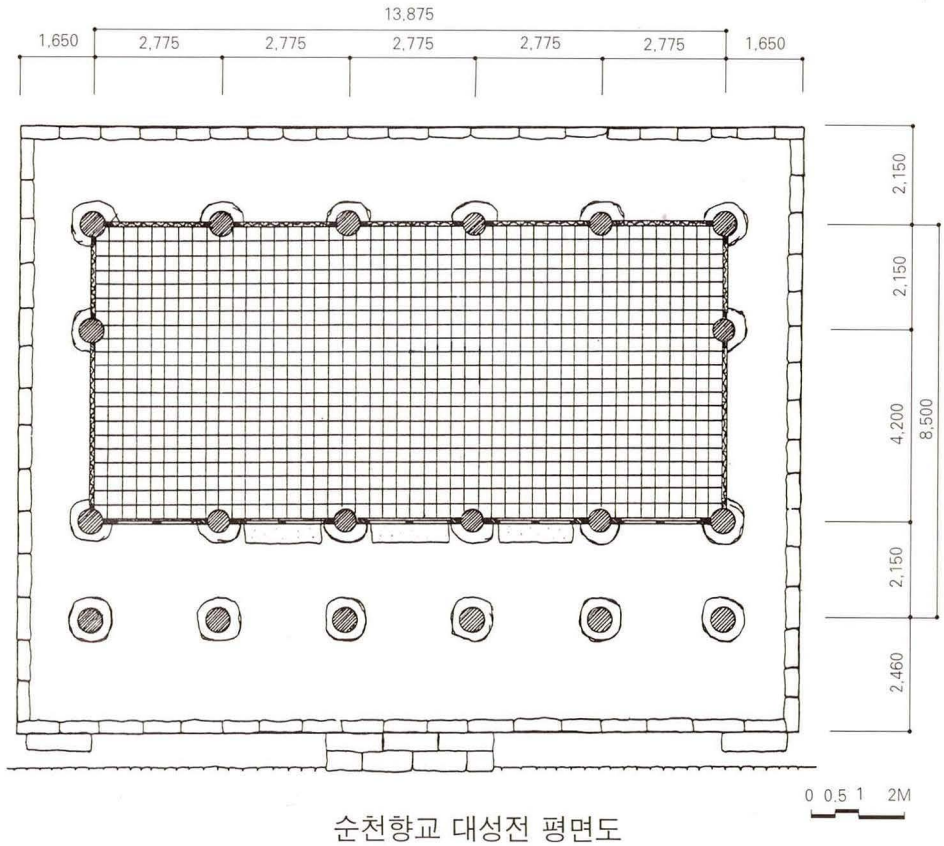


대정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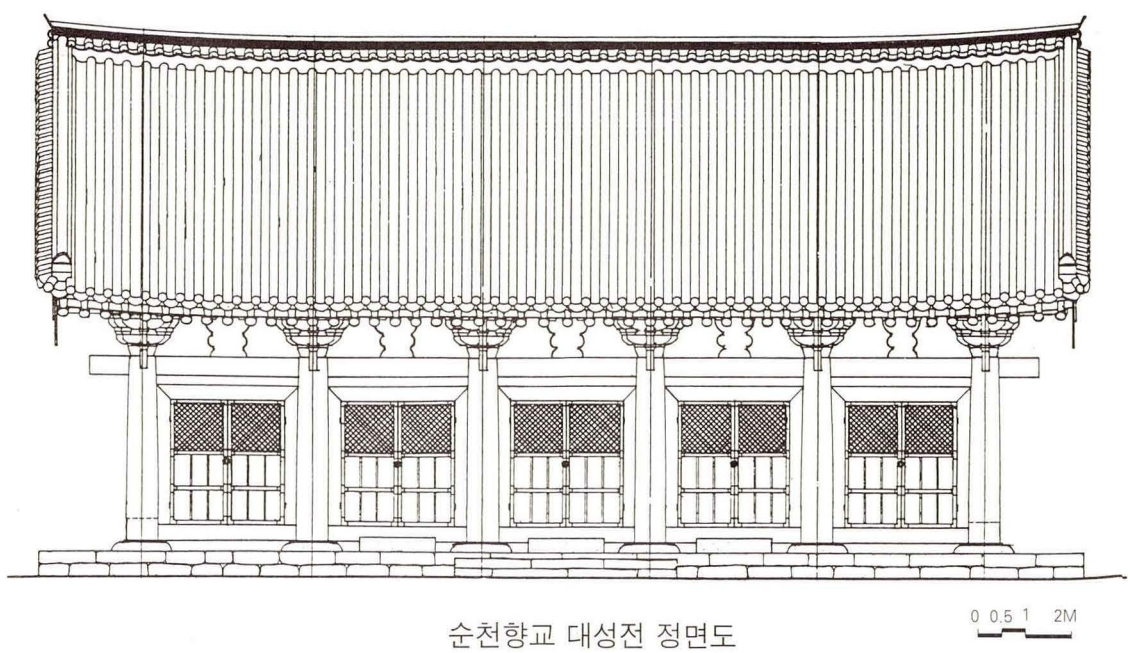


대정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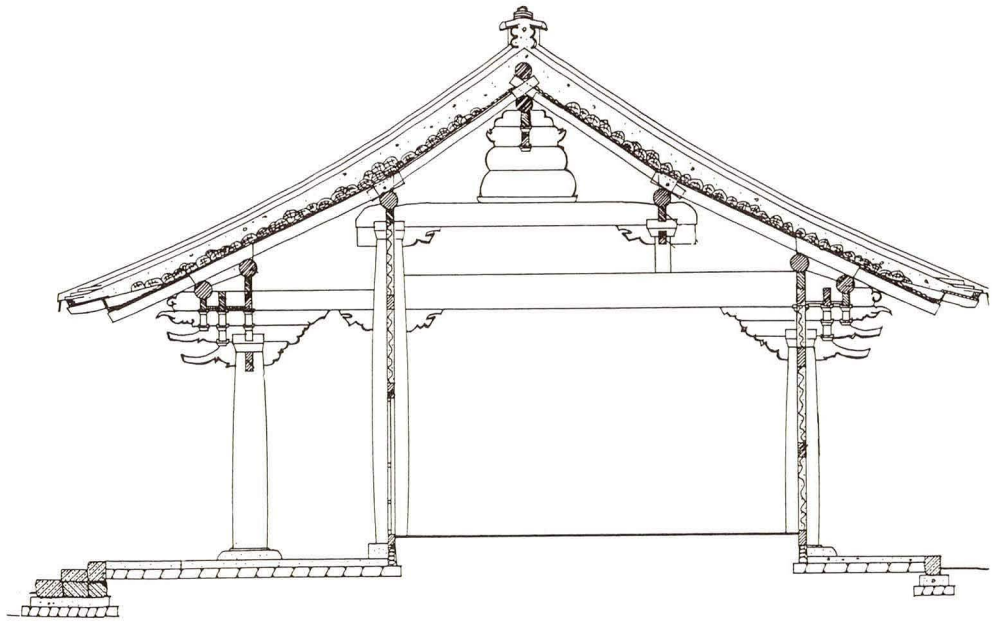
9. 순천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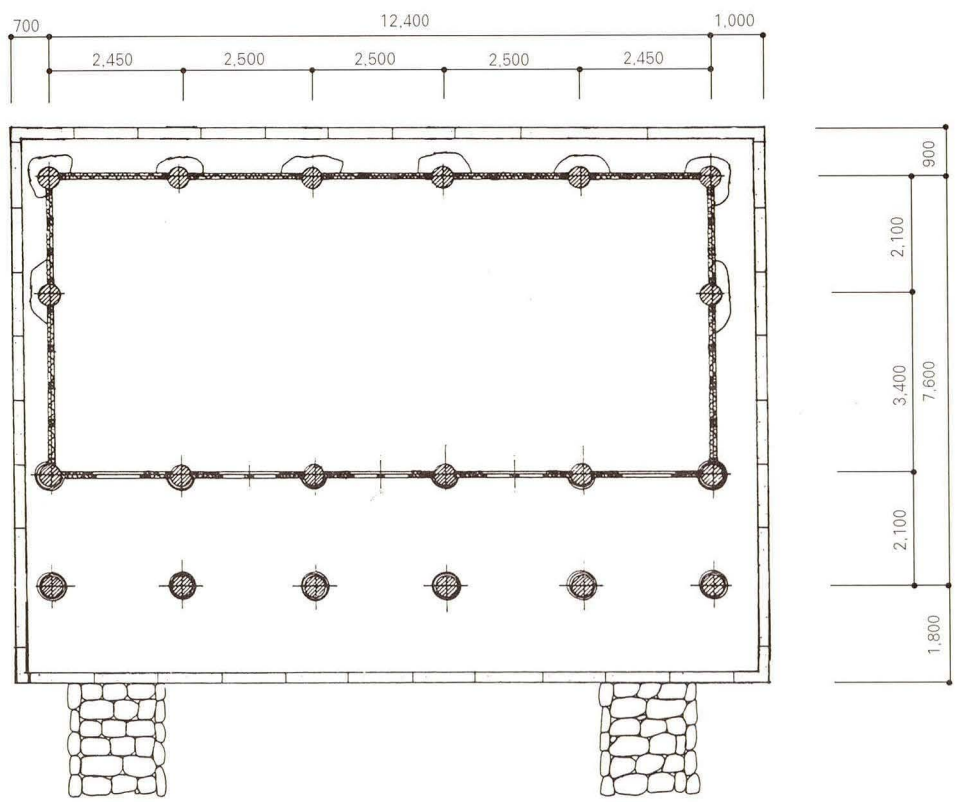
순천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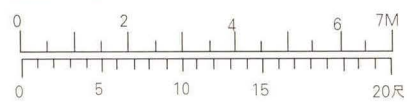
순천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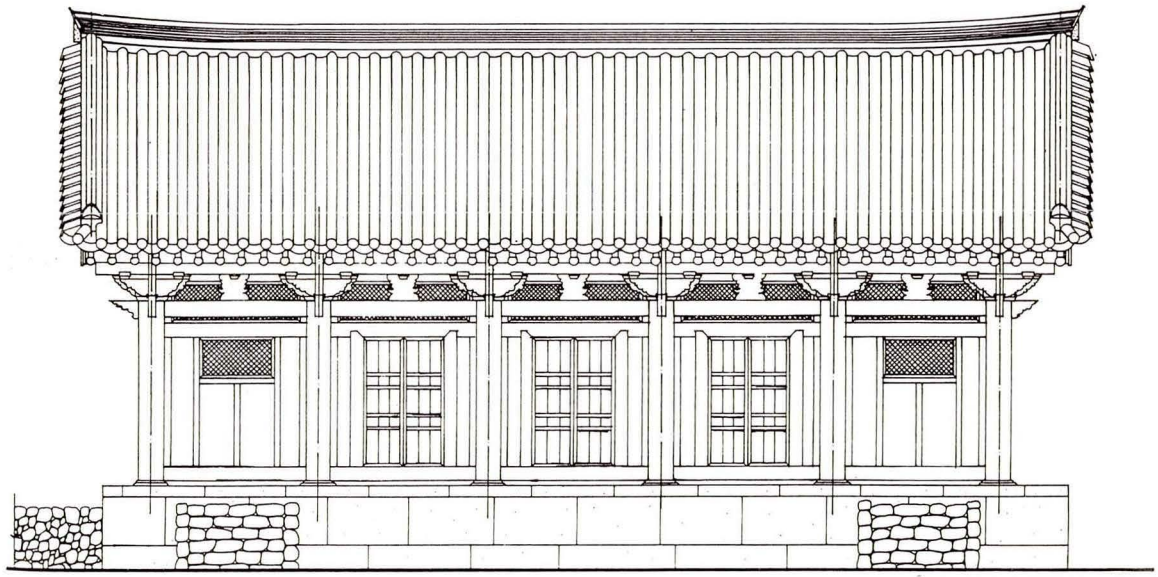


10. 선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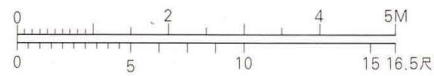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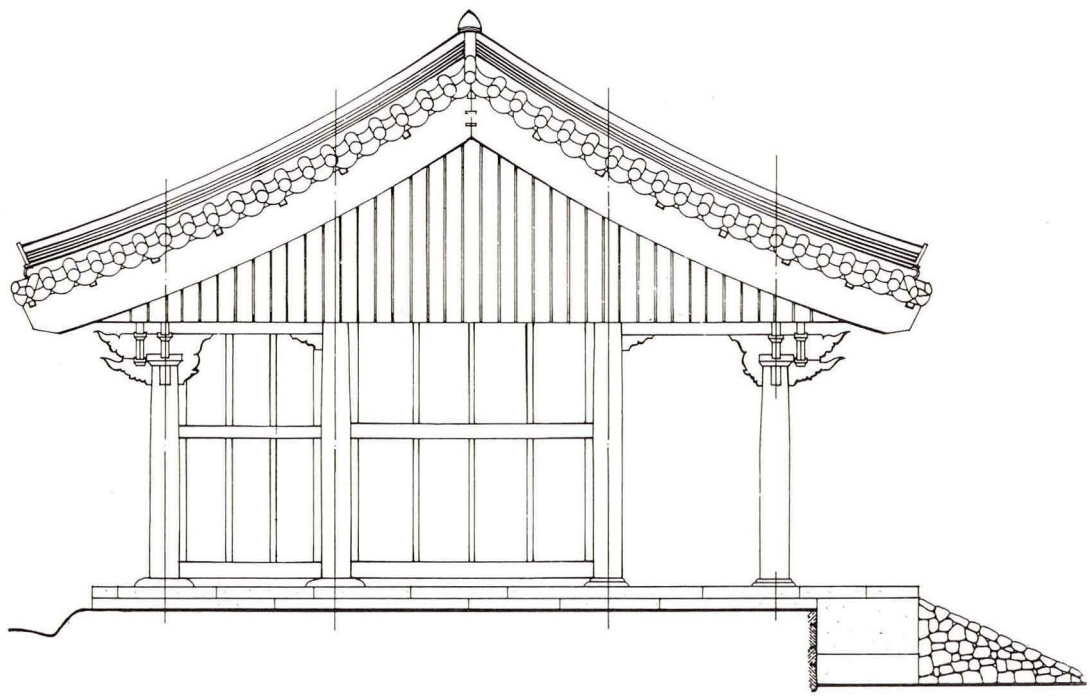
선산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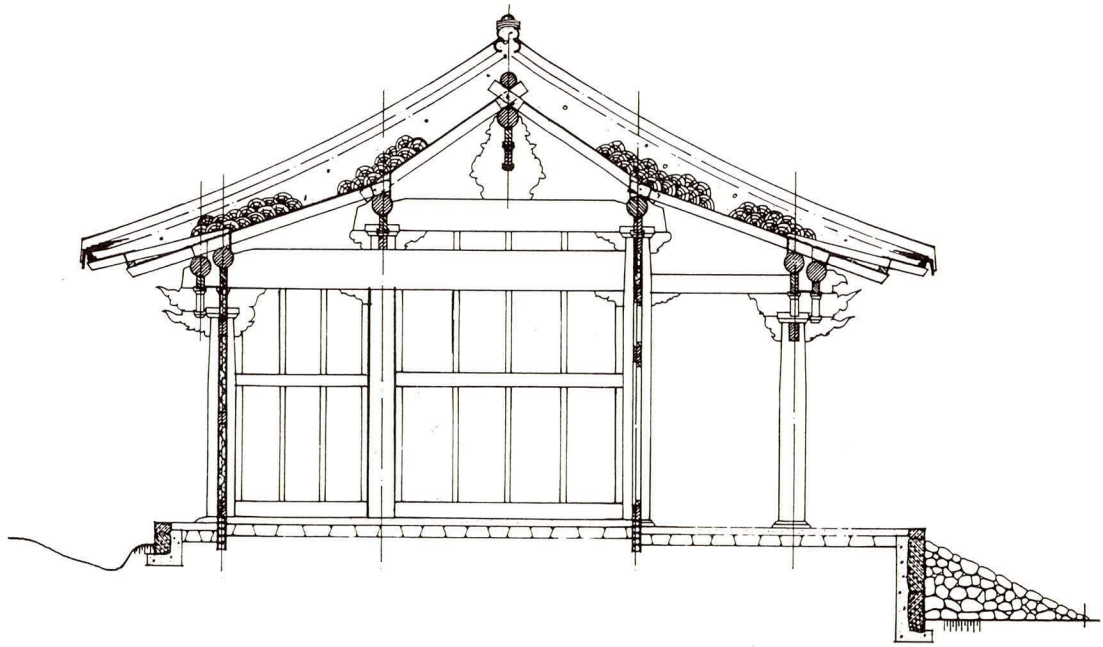


선산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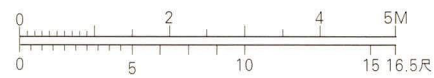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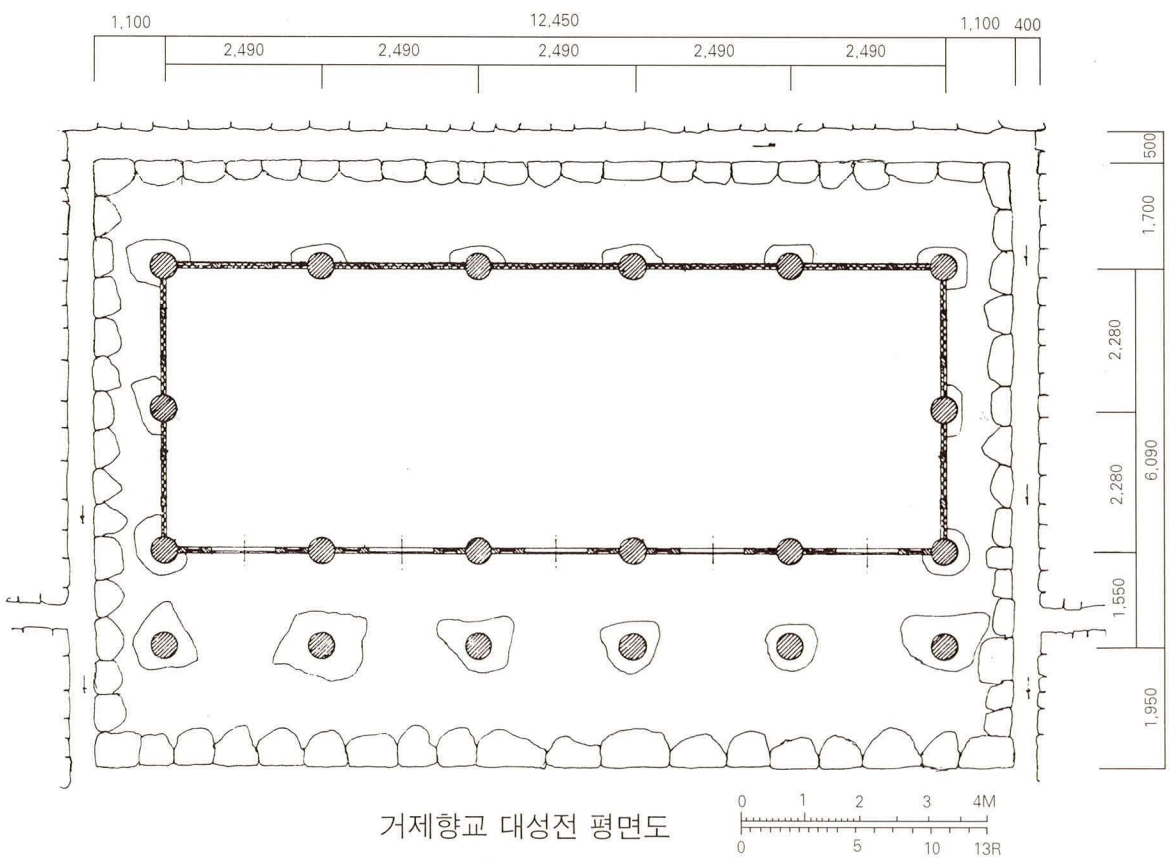
선산향교 대성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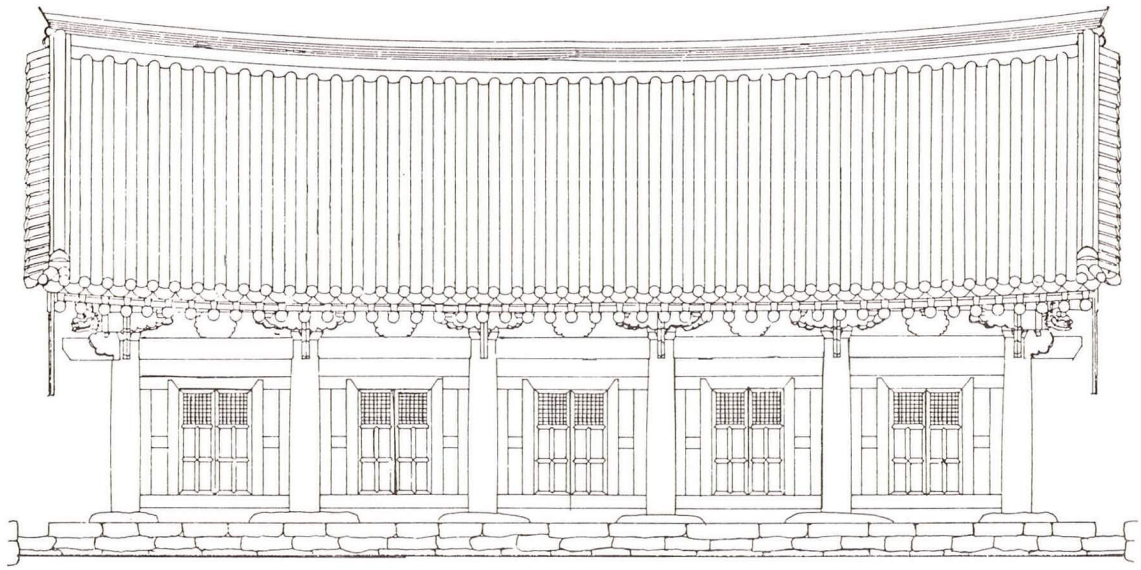
선산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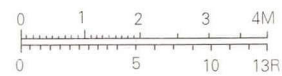
11. 거제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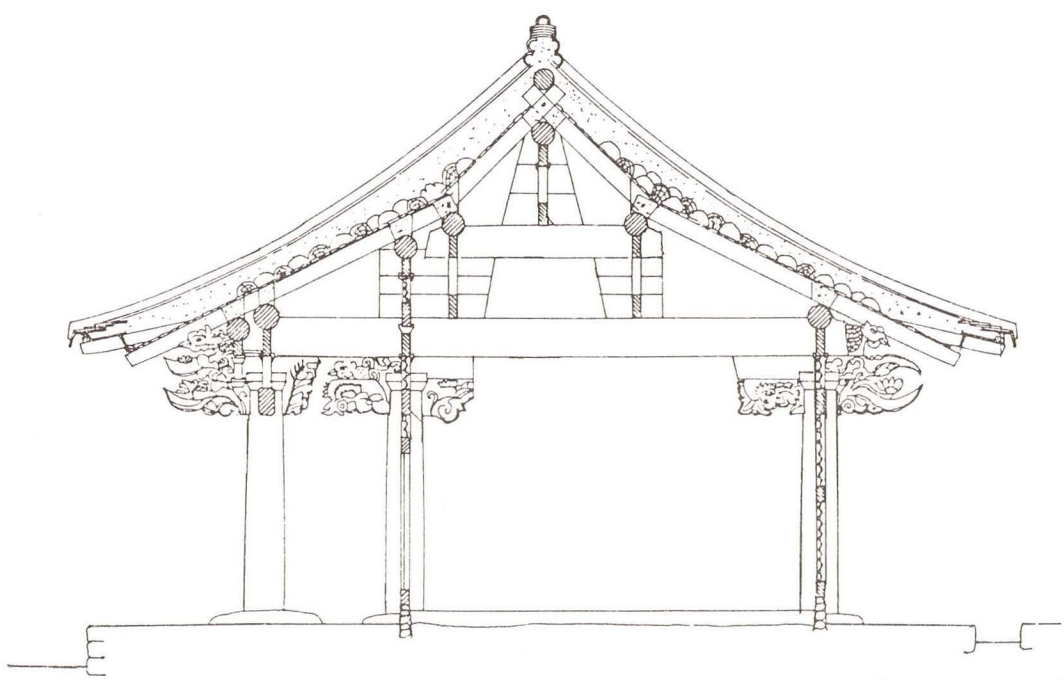


거제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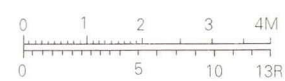


거제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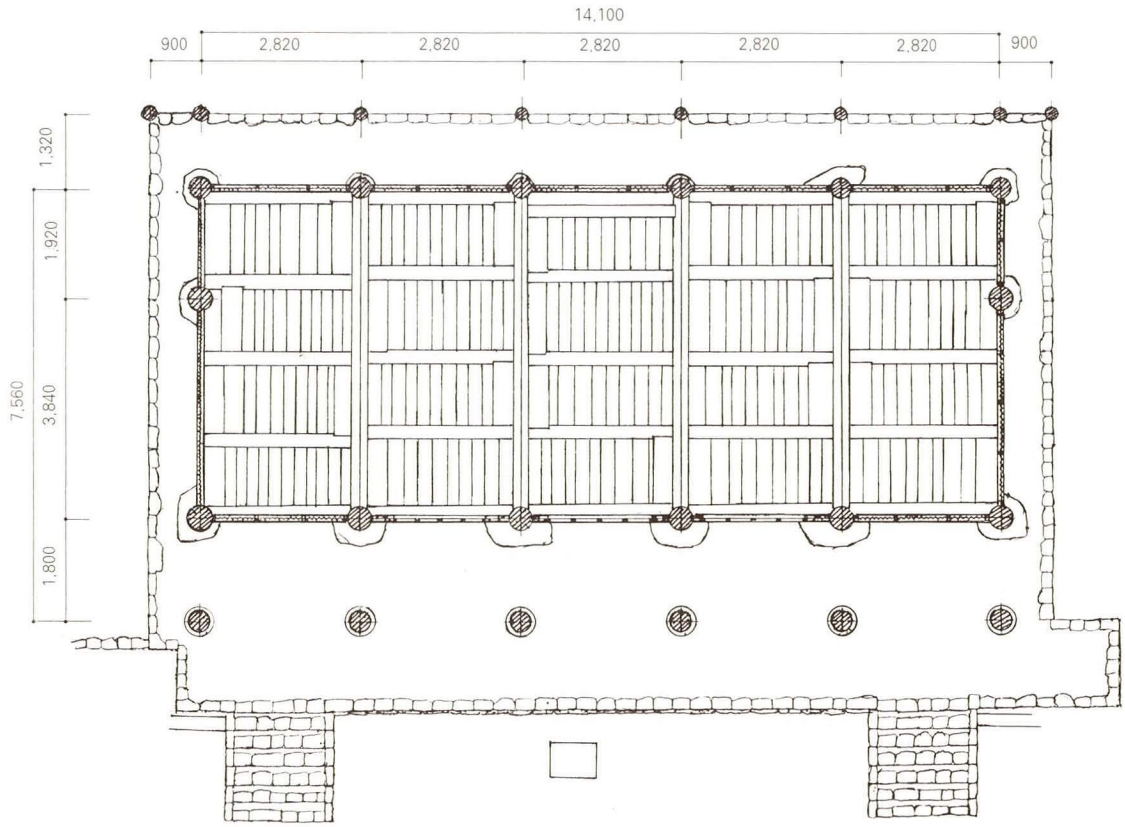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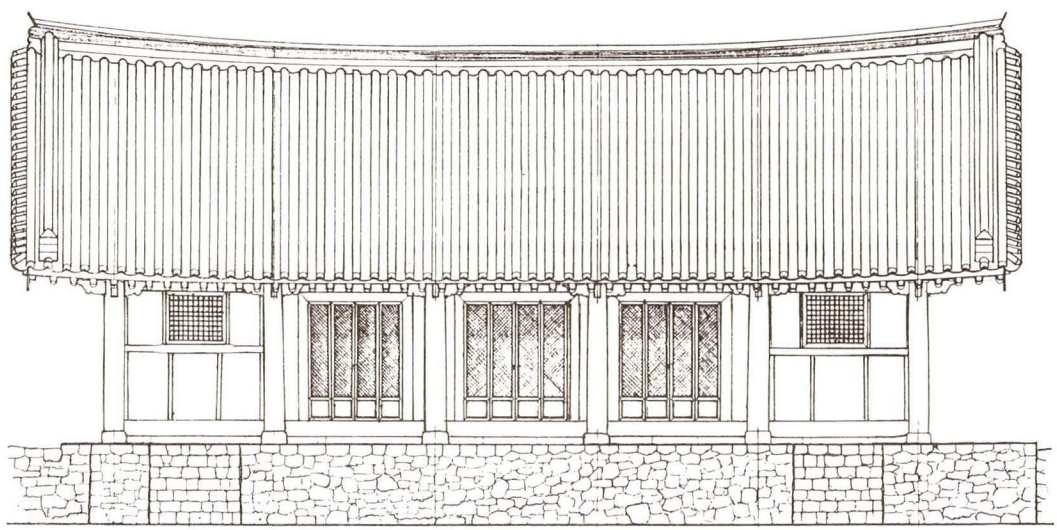
거제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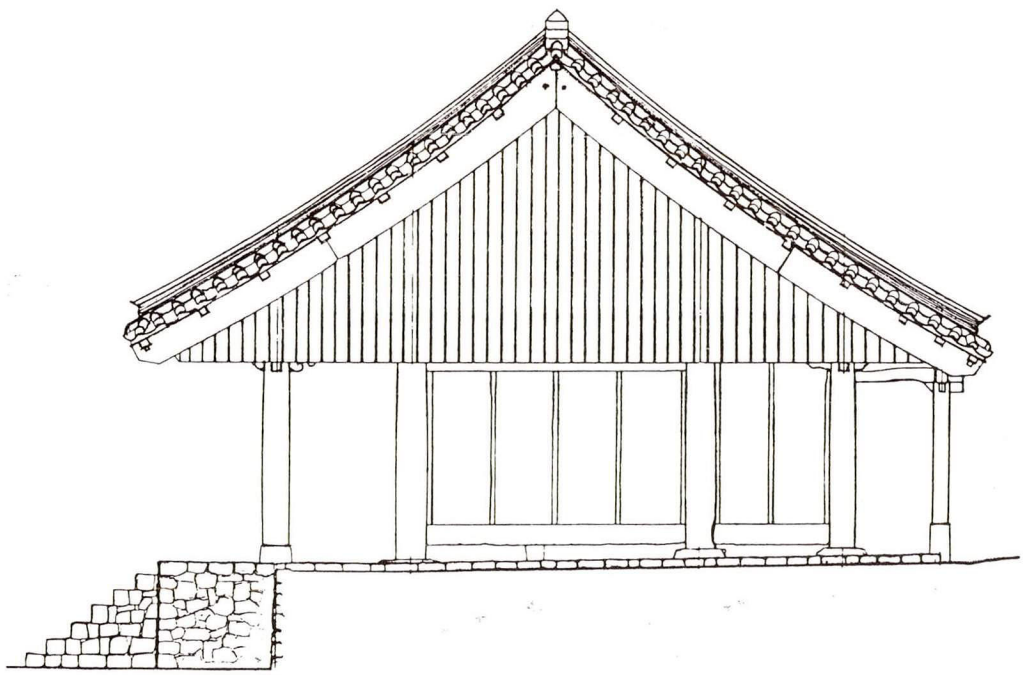
12 능주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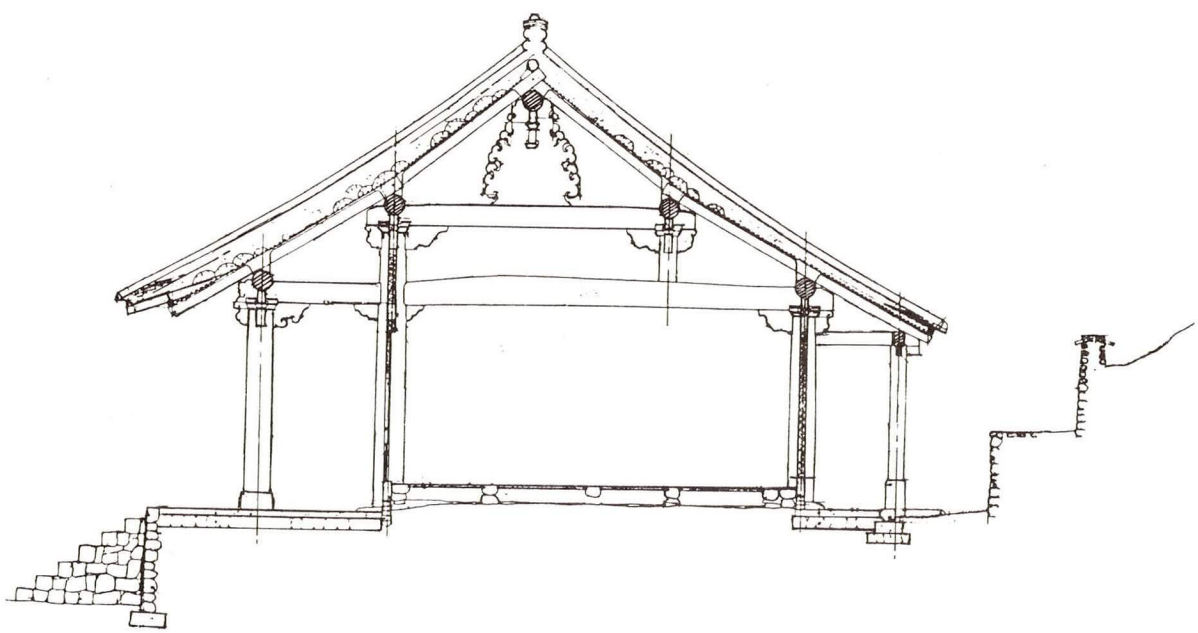
능주향교 대성전 평면도



능주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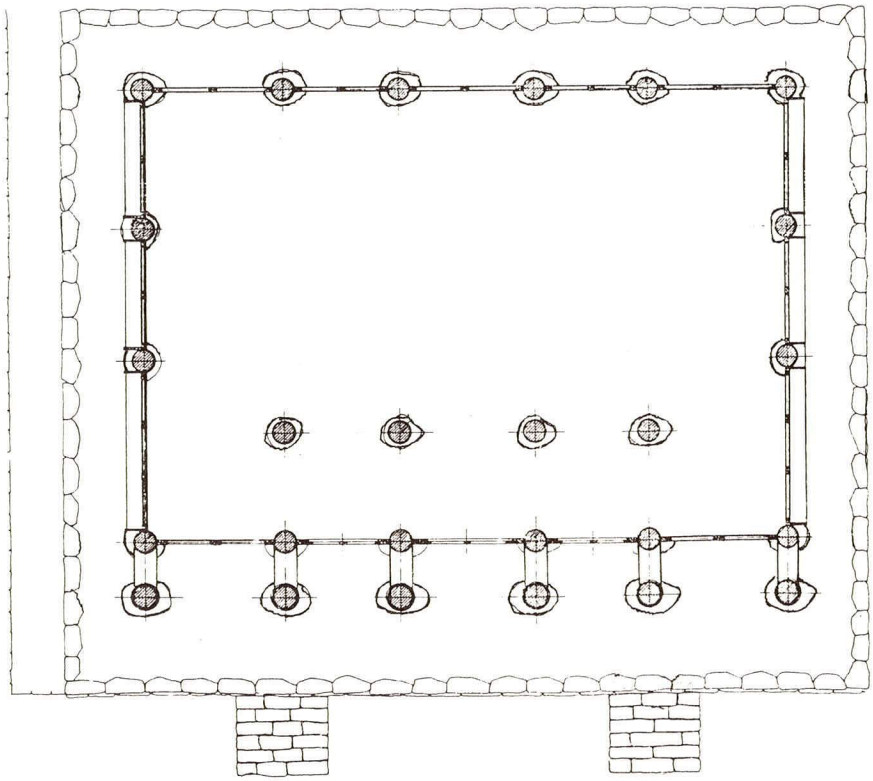


능주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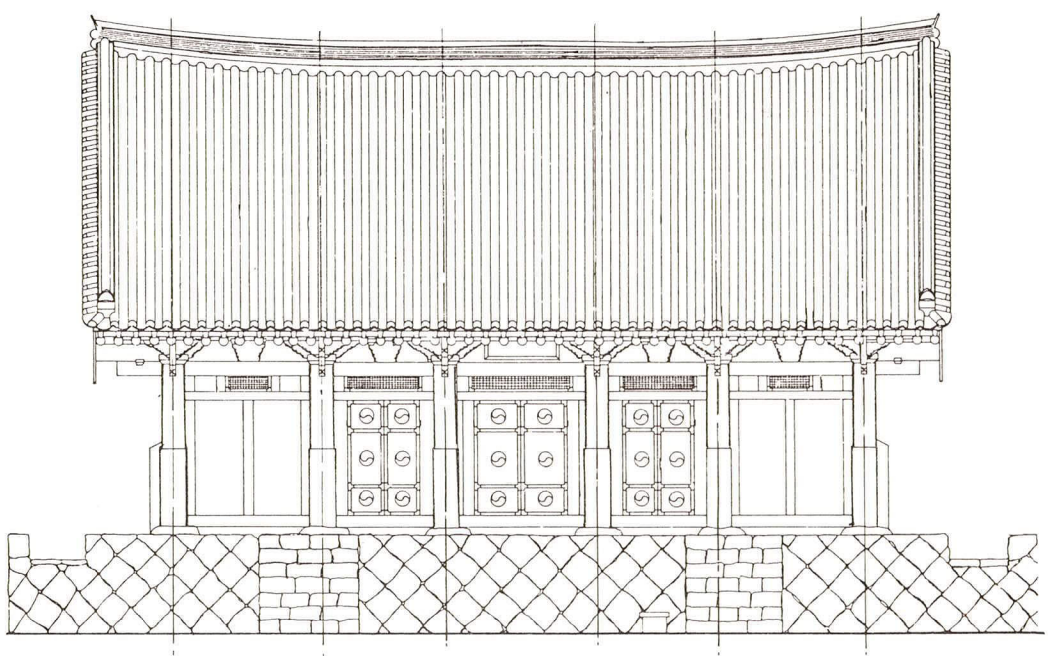


능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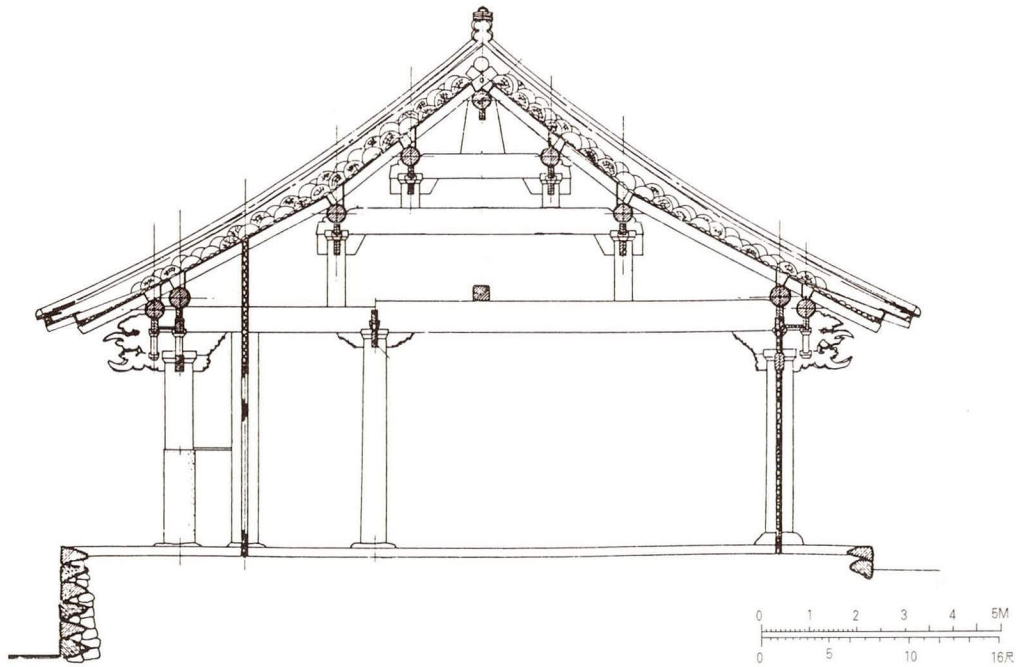
13. 사천향교 대성전



사천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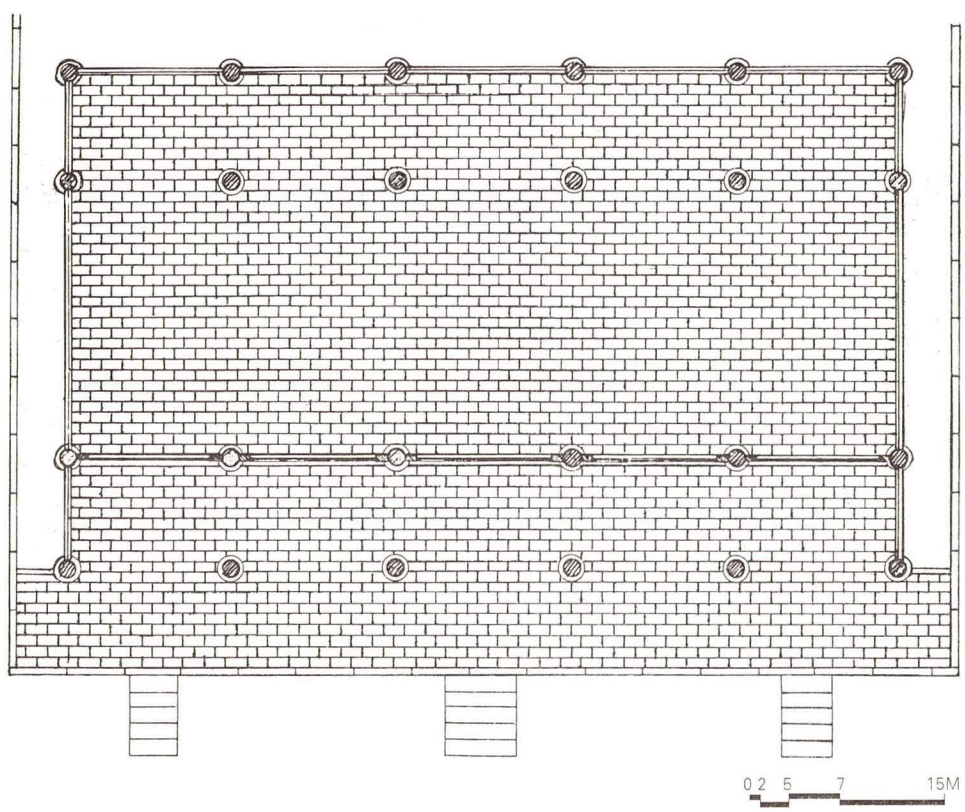


사천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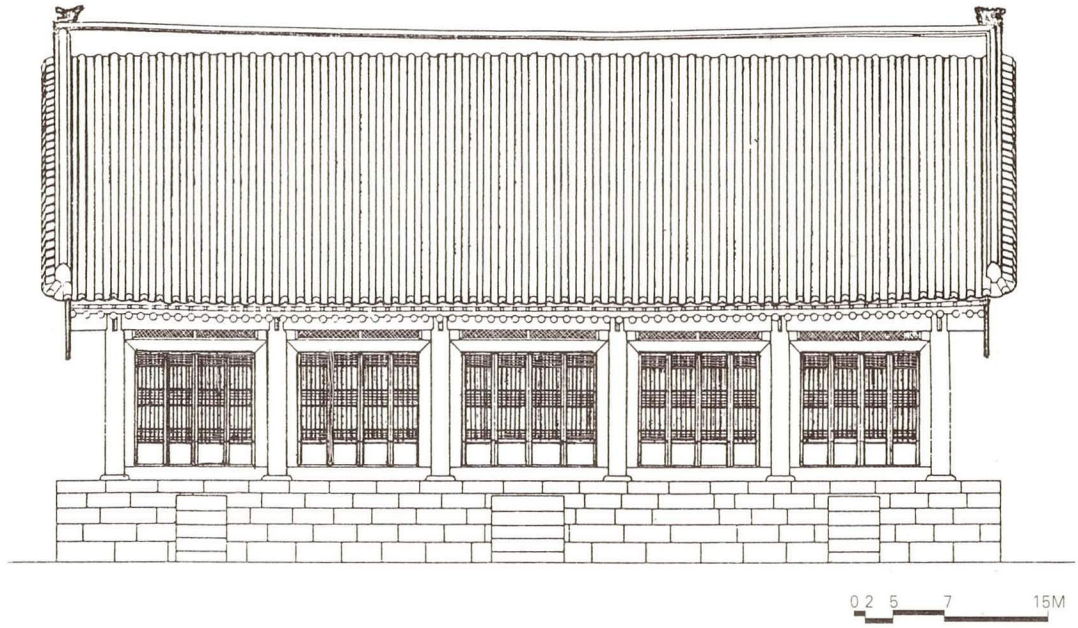


사천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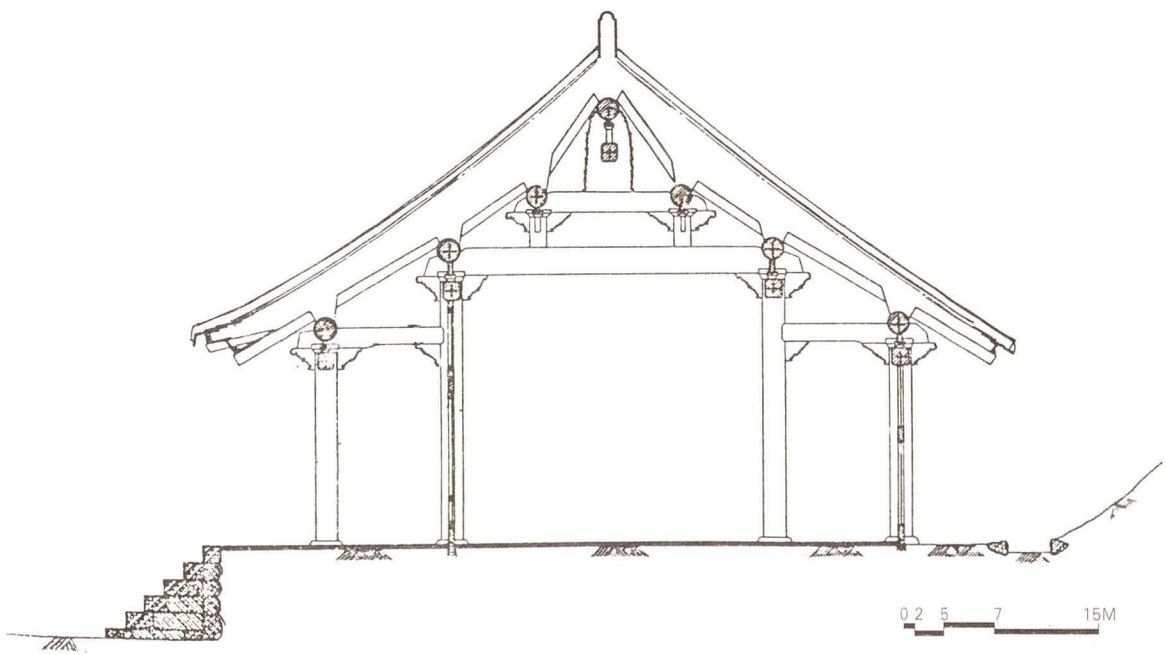
14. 수원향교 대성전



수원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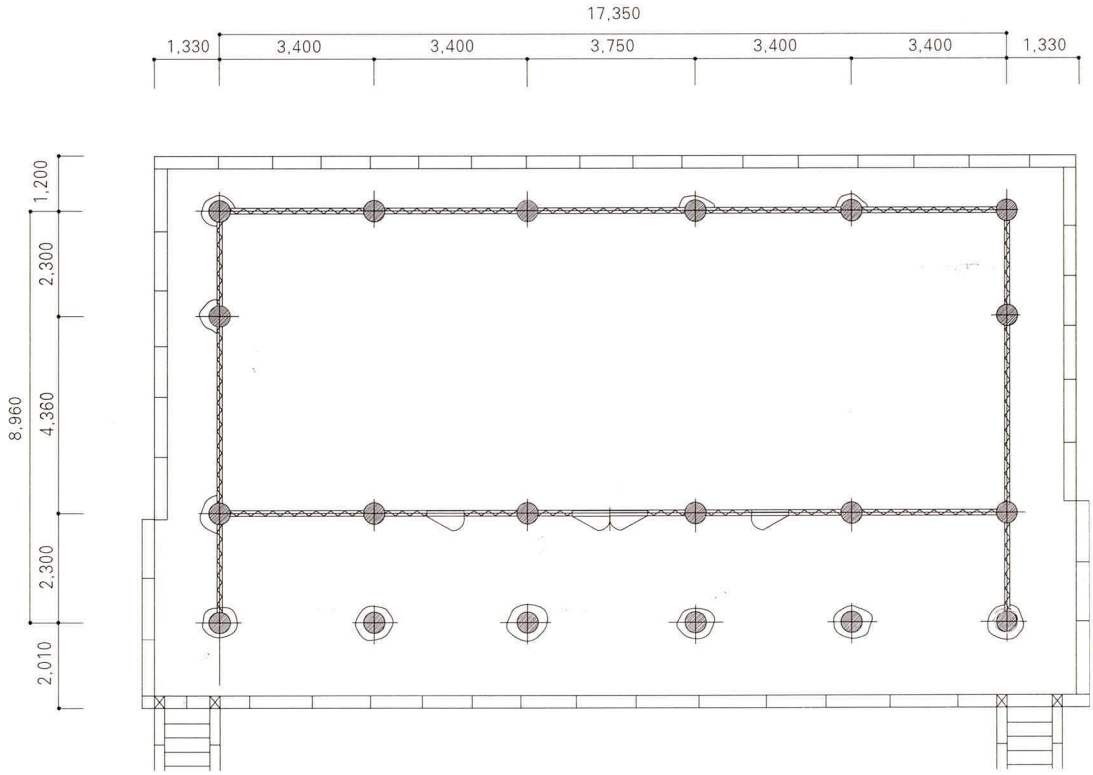


수원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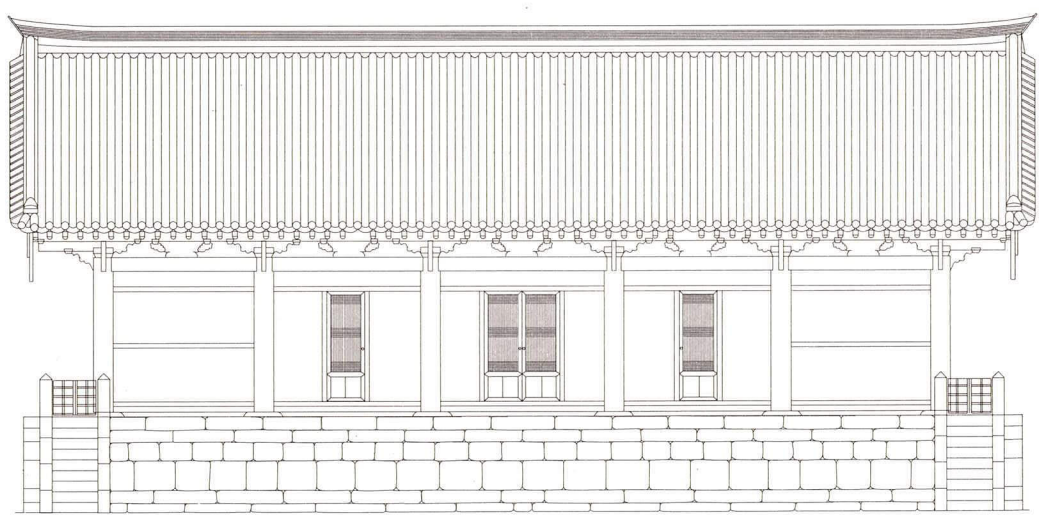


수원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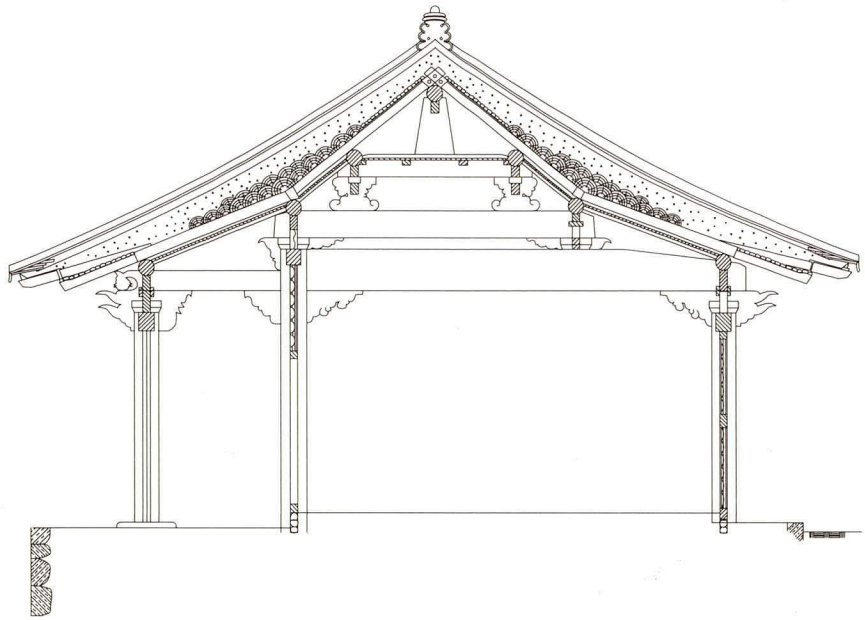
15. 상주향교 대성전



상주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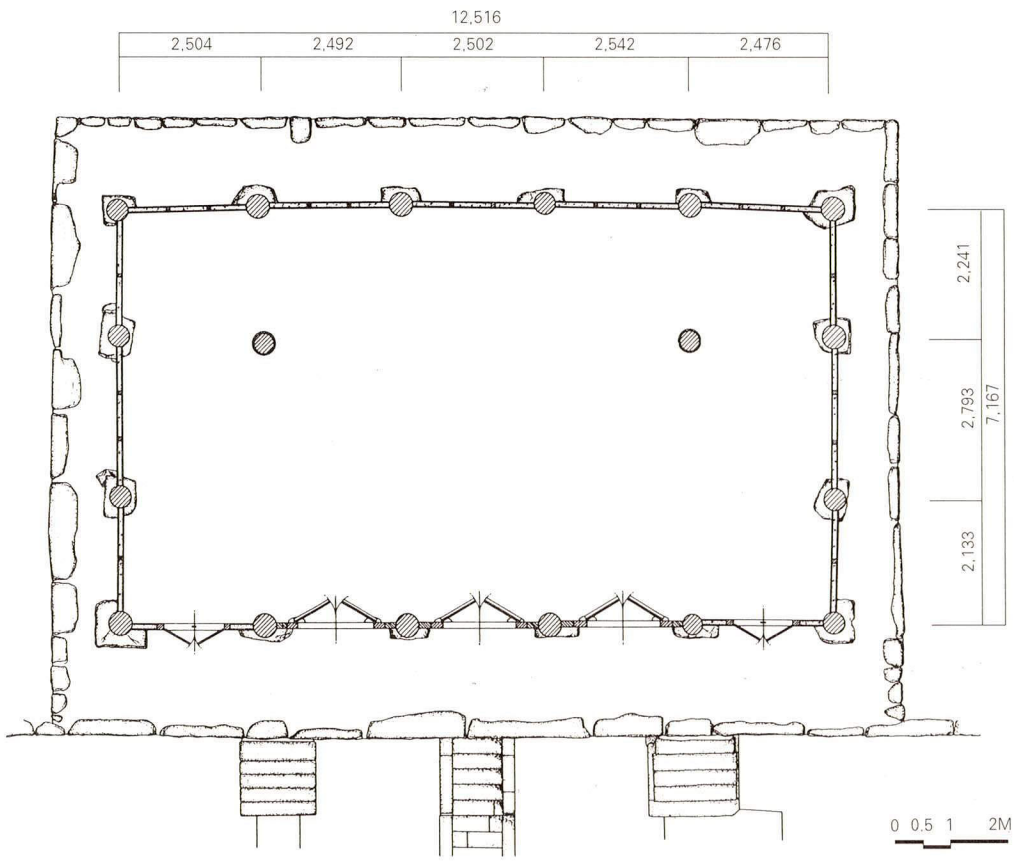


상주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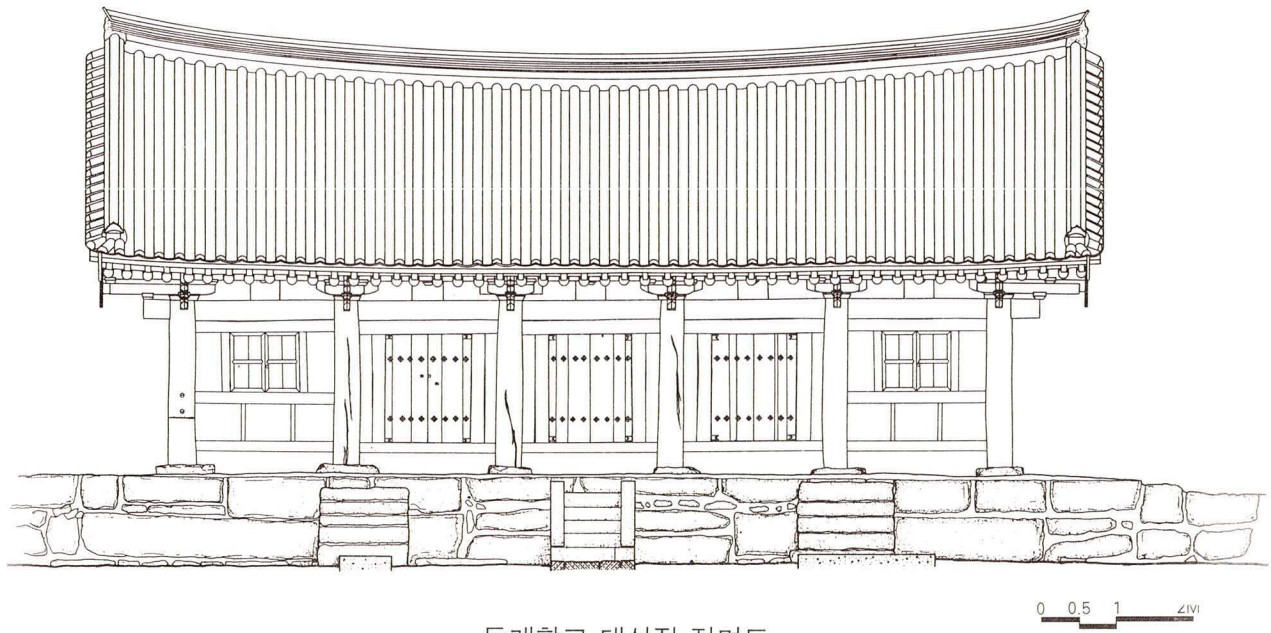


상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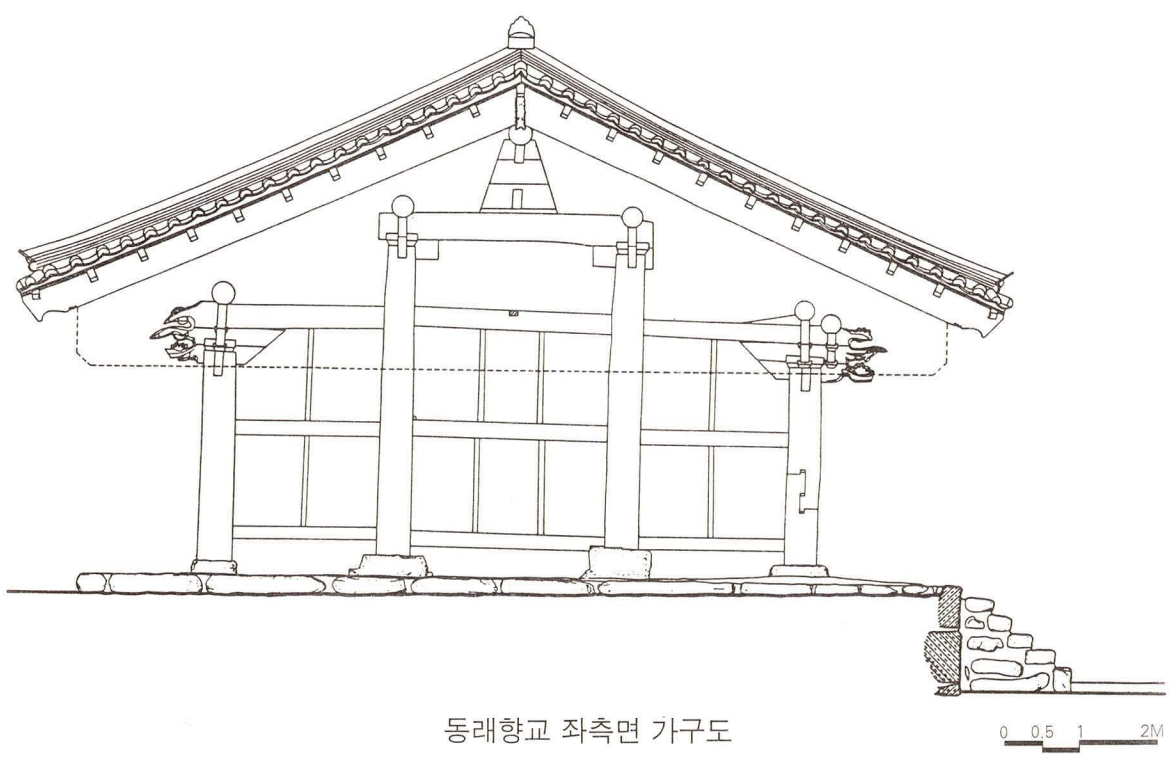
16. 동래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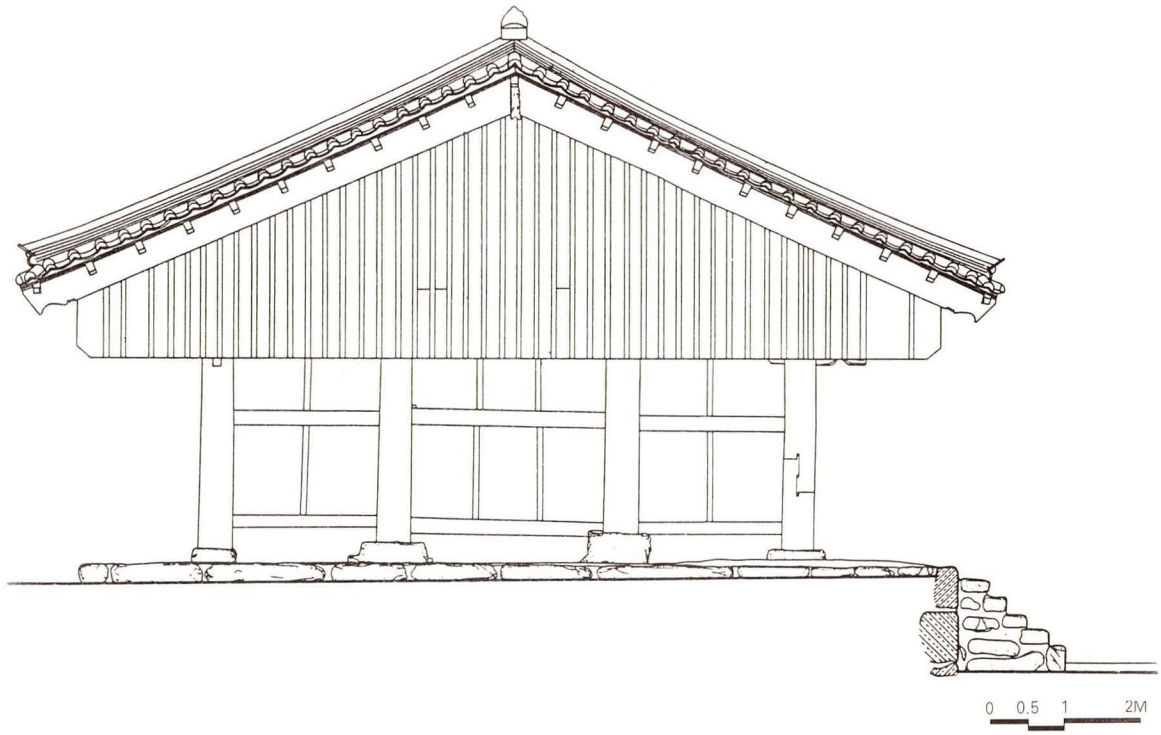
동래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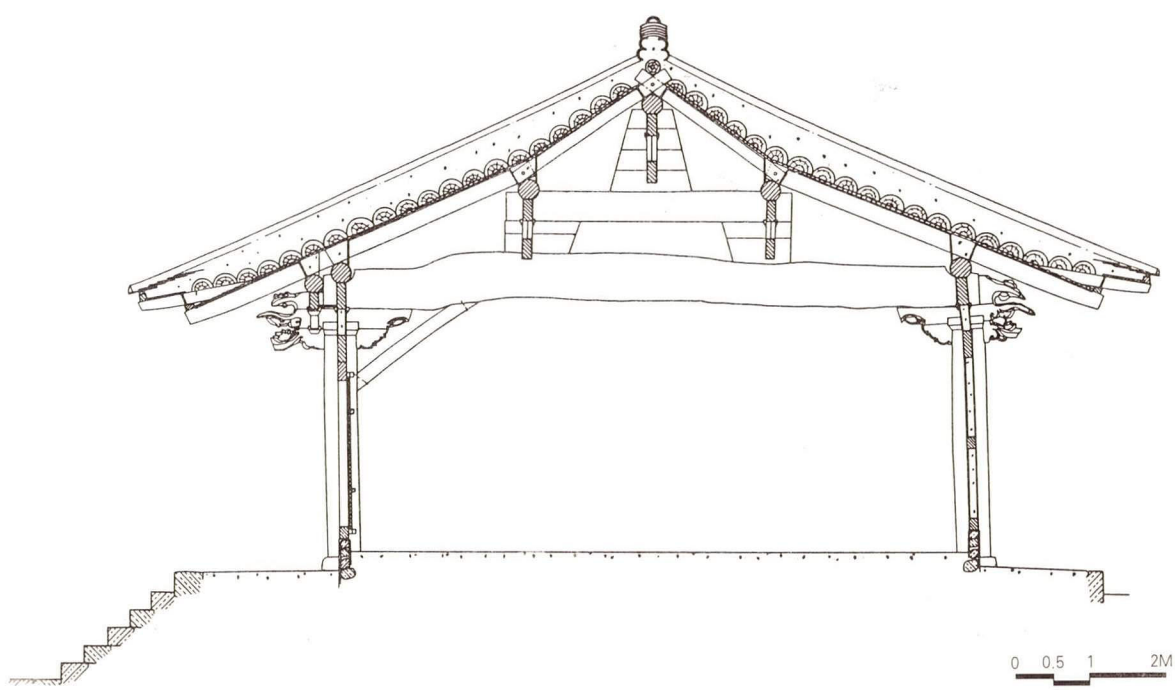
동래향교 대성전 정면도



동래향교 좌측면 가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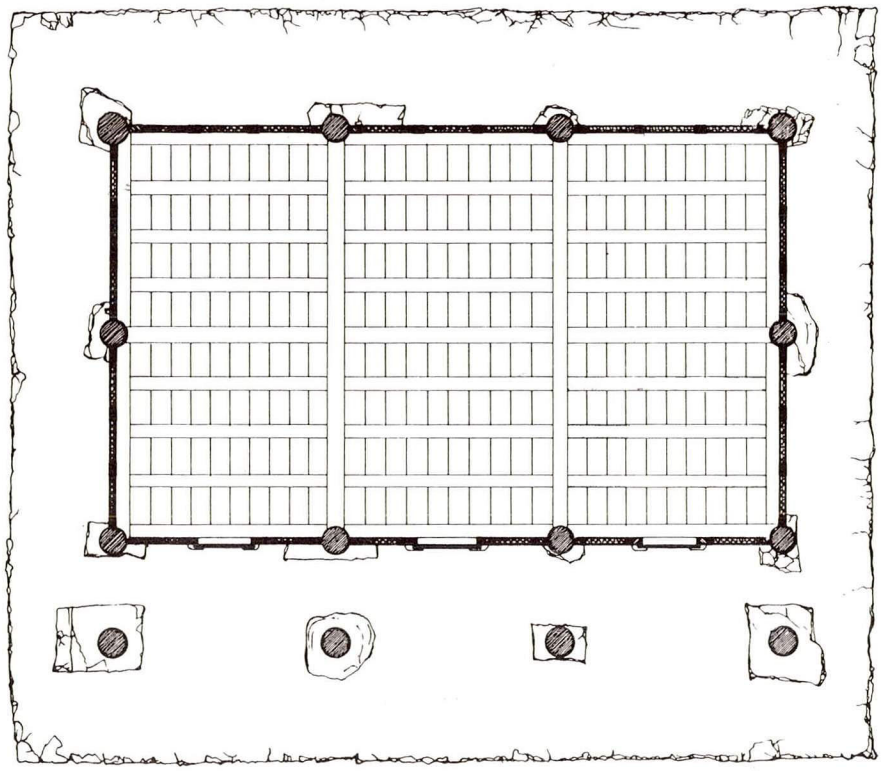


동래향교 대성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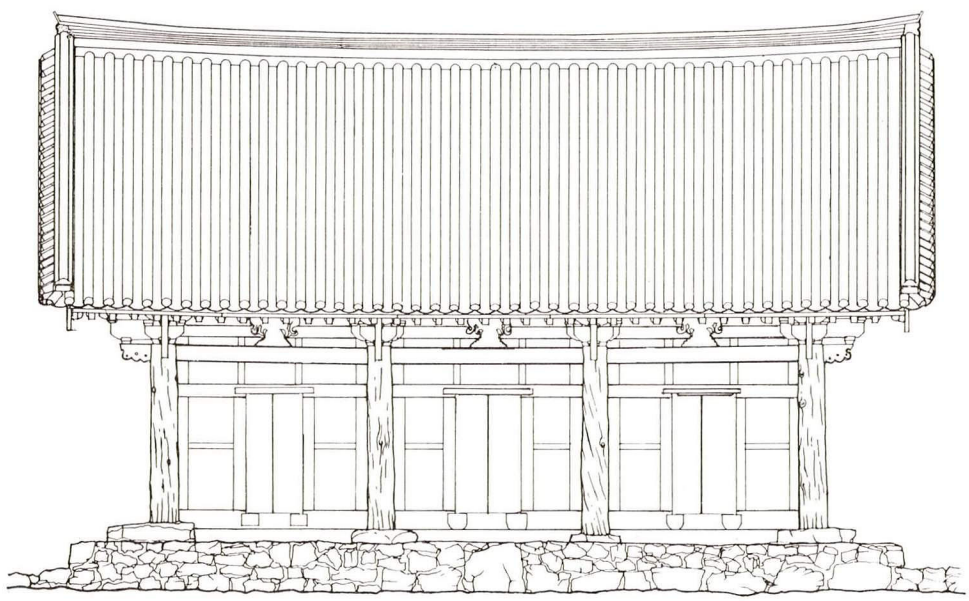


동래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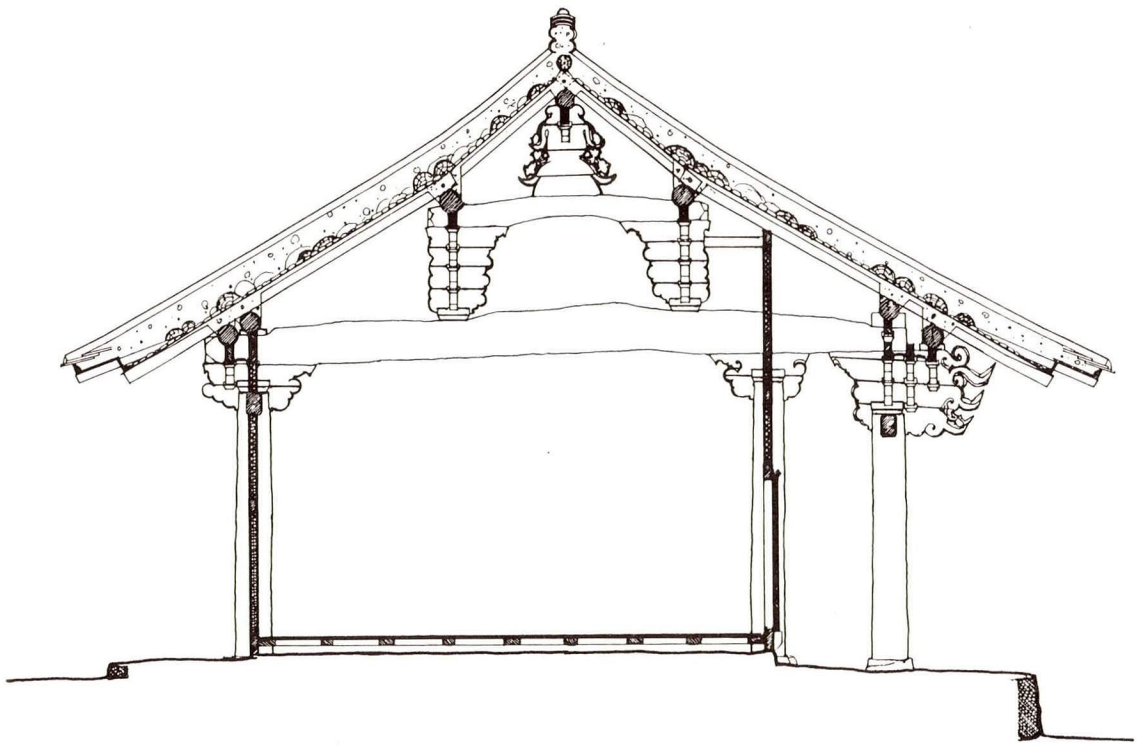
17. 의흥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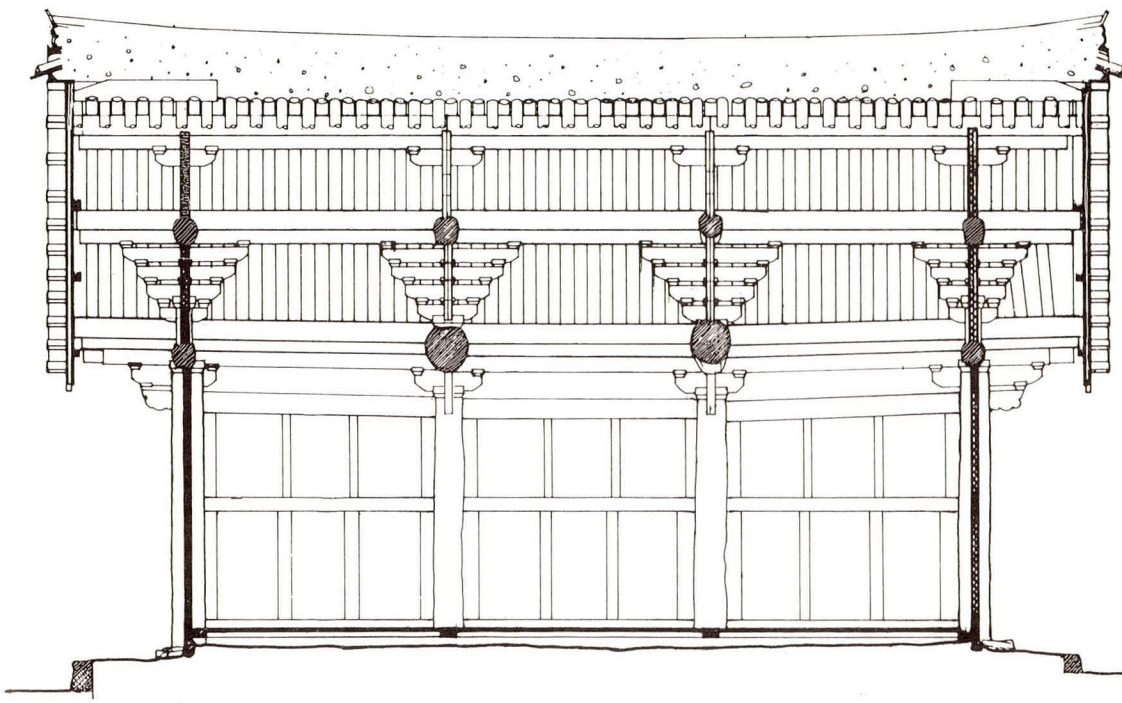
의흥향교 대성전 평면도



의흥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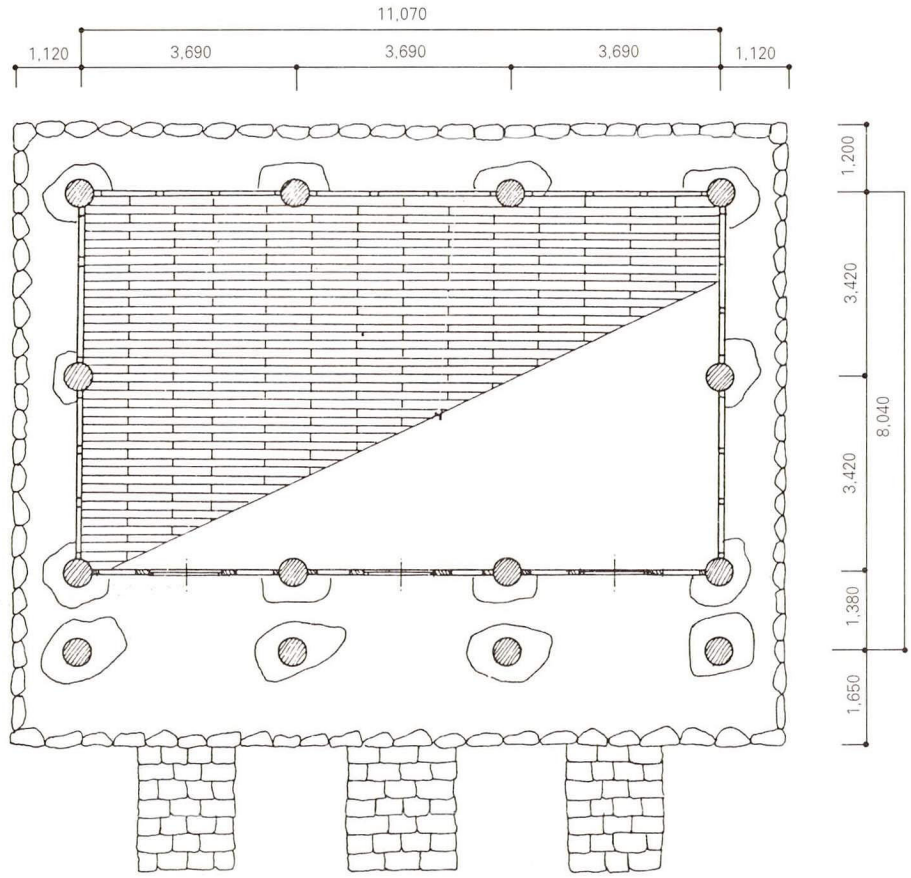


의흥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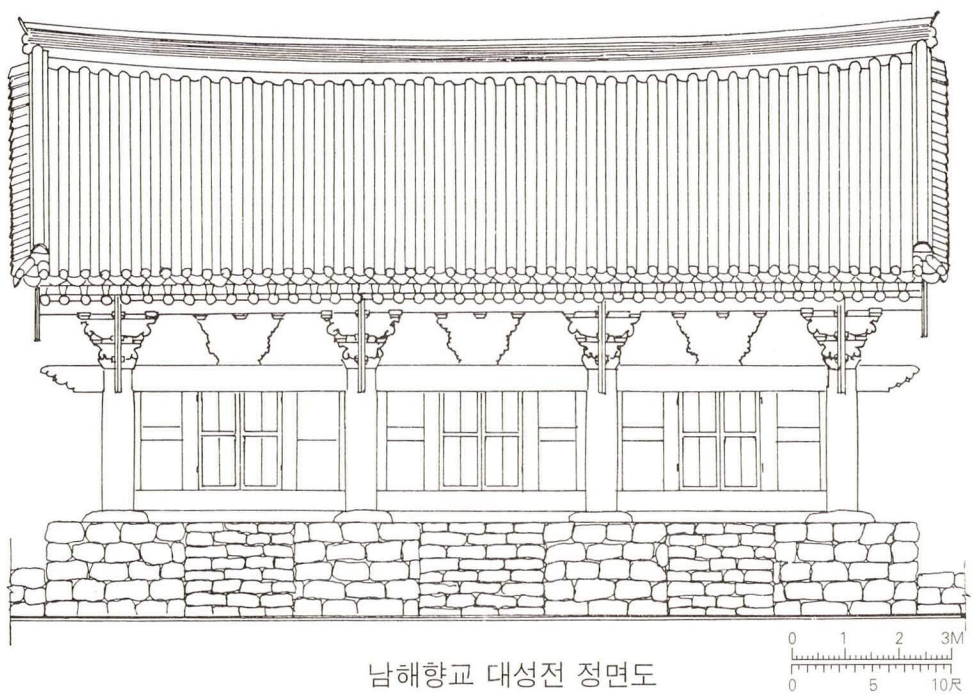


의흥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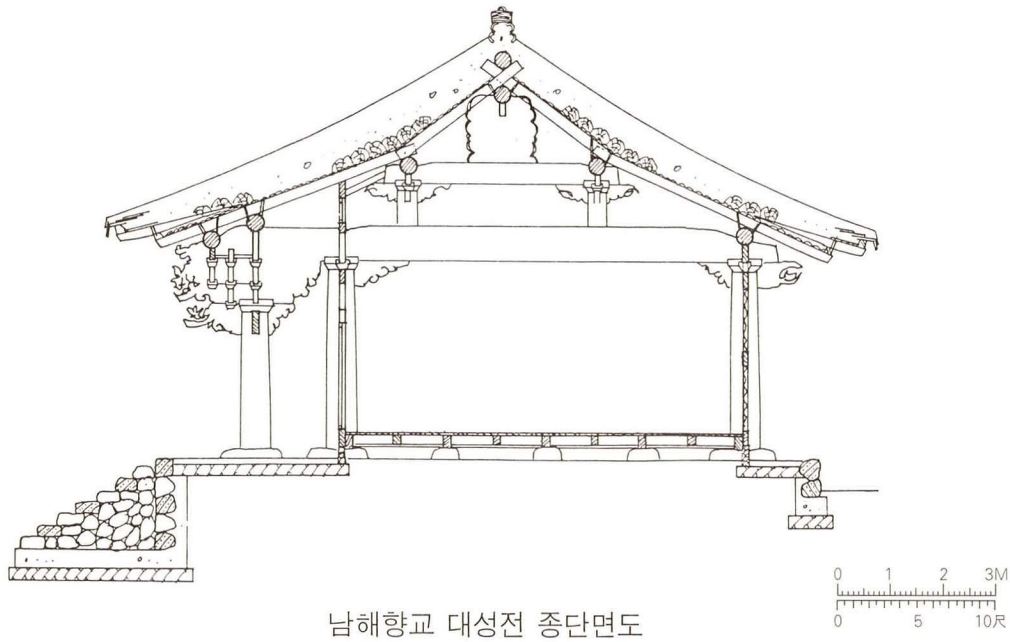
18. 남해향교 대성전



남해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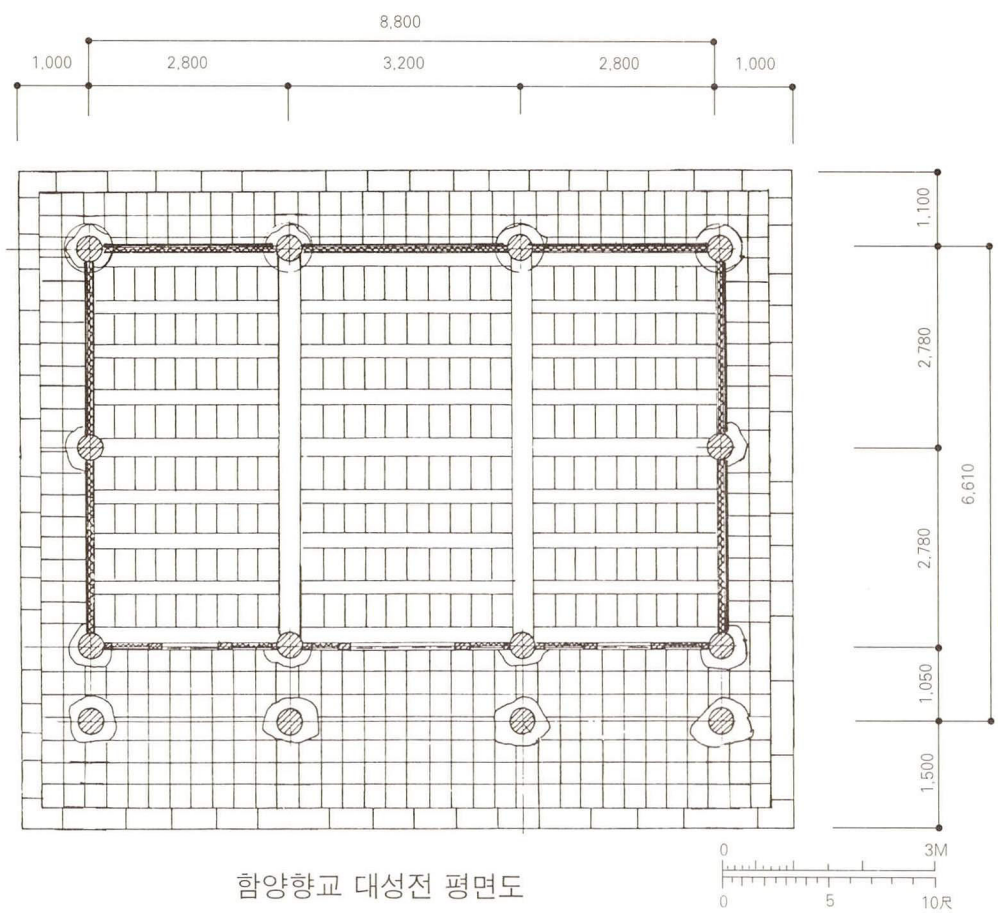


남해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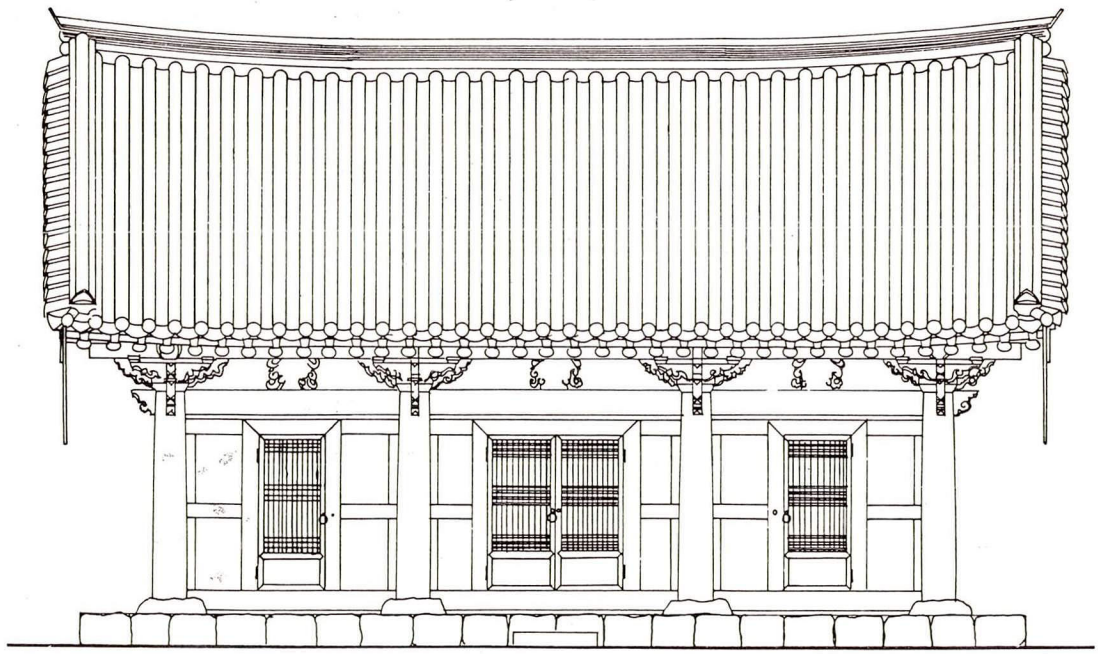


남해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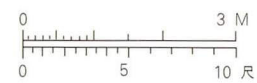
19. 함양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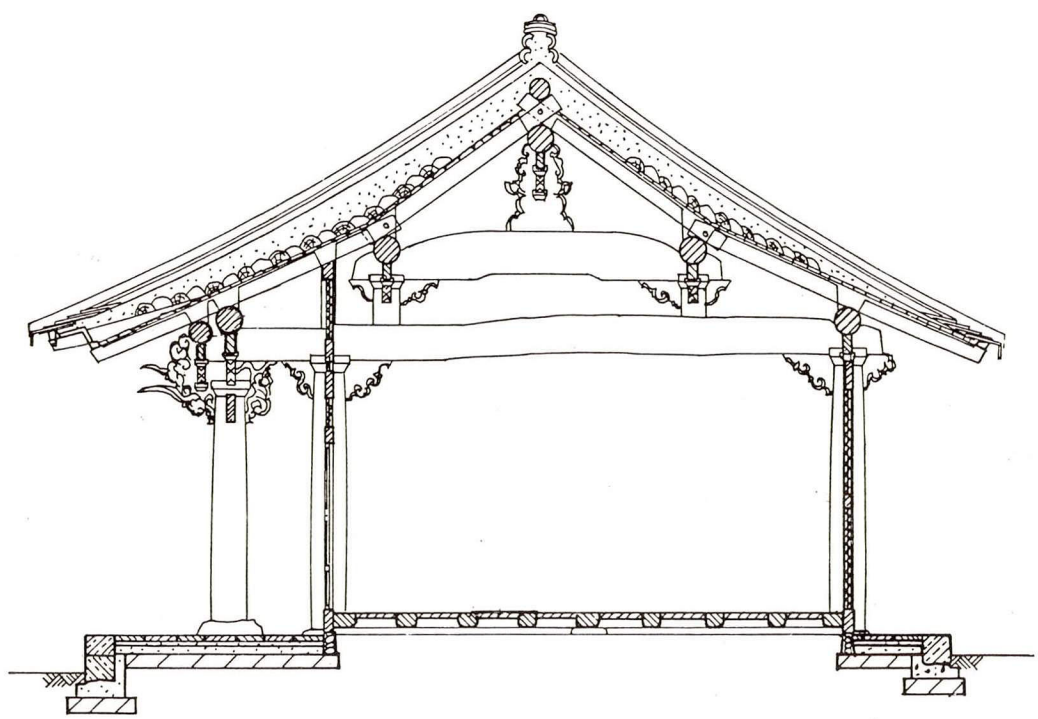


함양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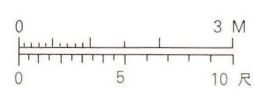


함양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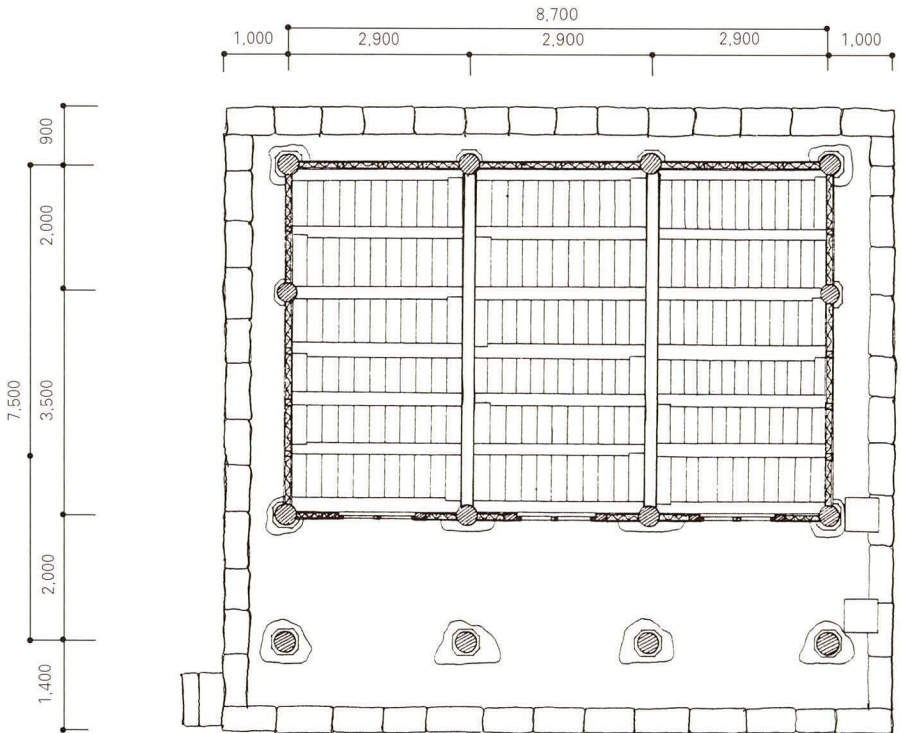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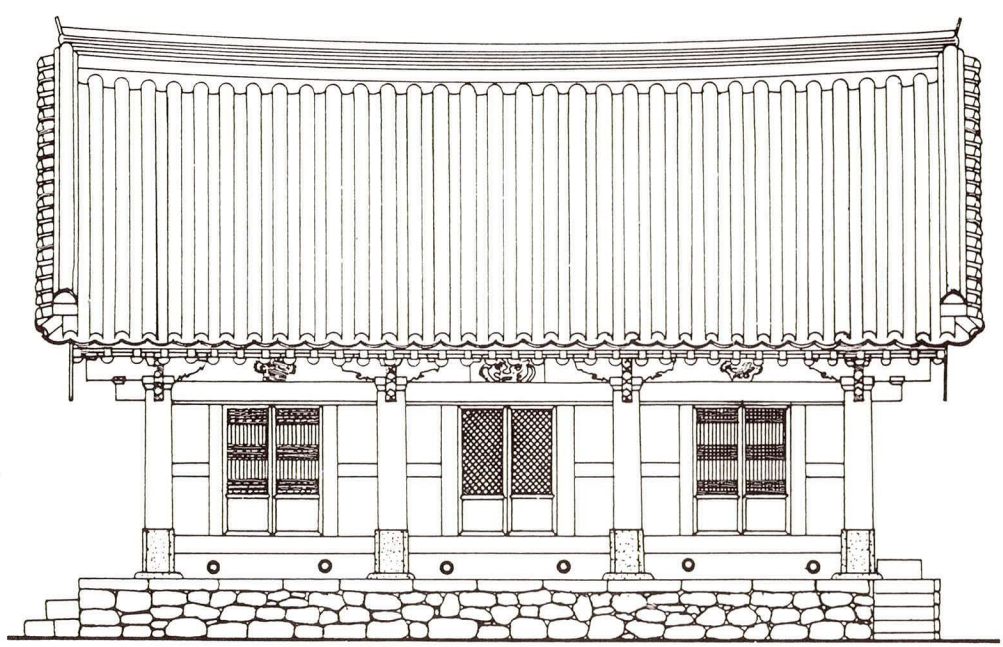
함양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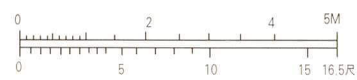
20. 보성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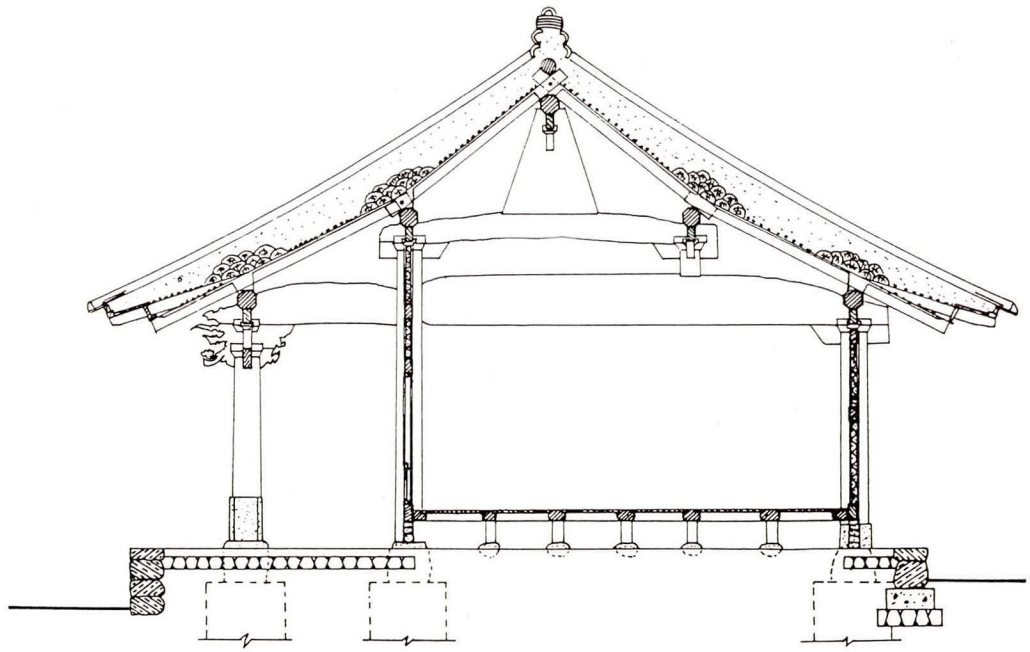


보성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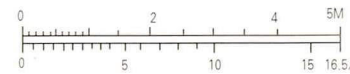


보성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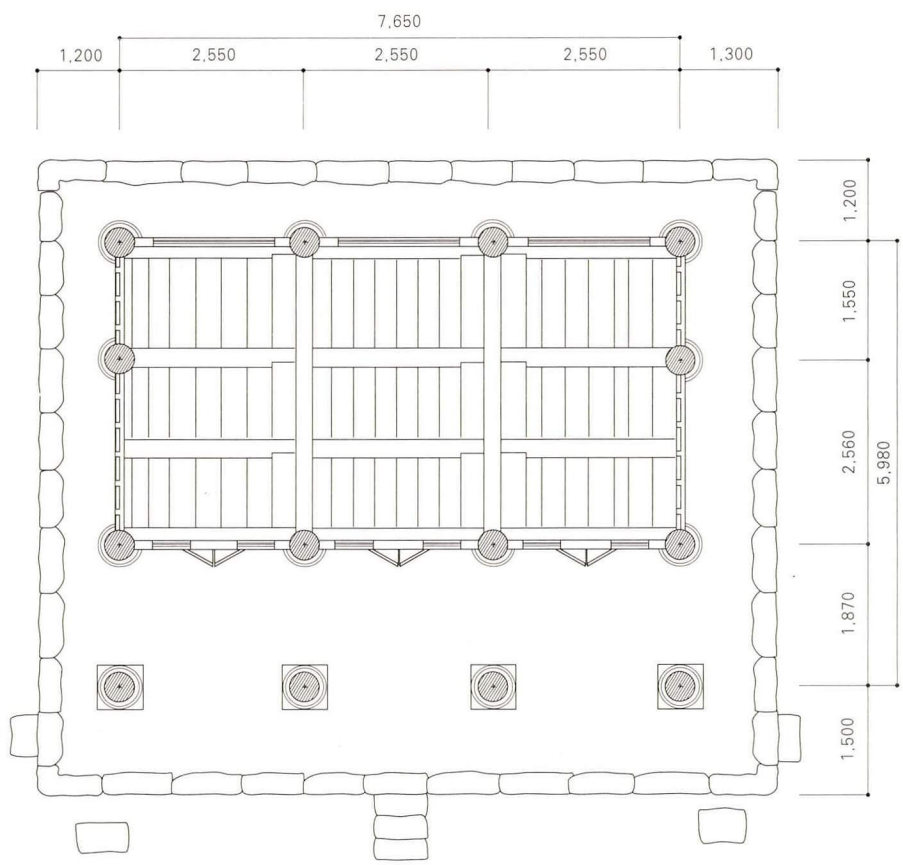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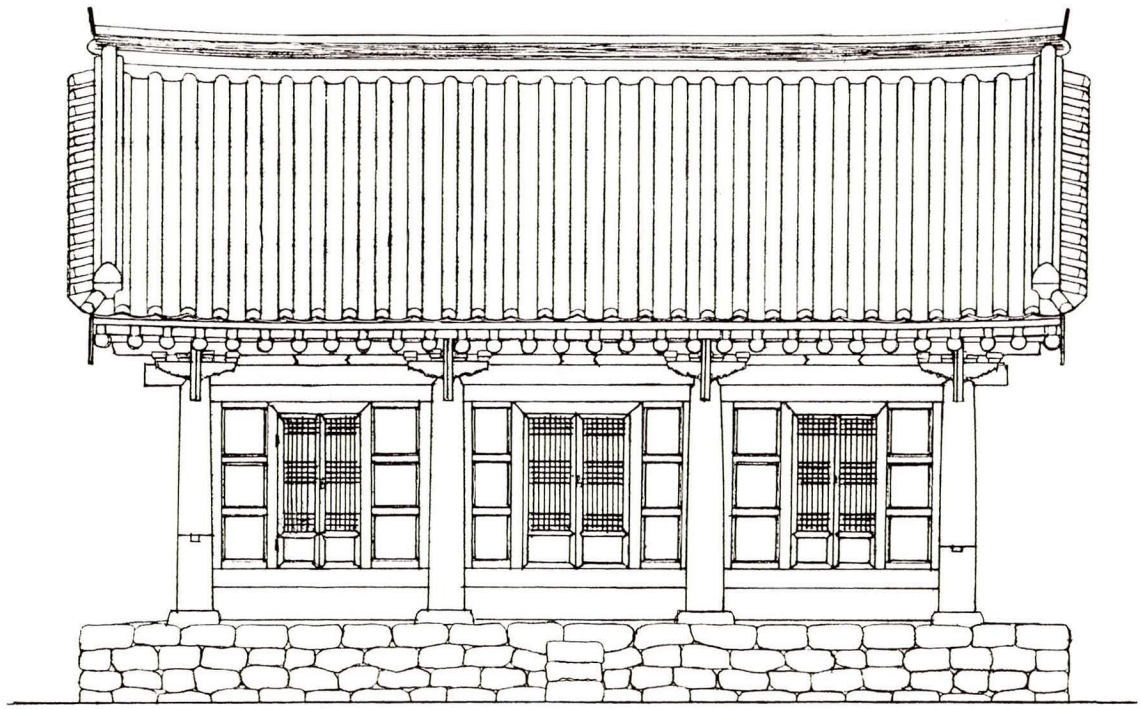
보성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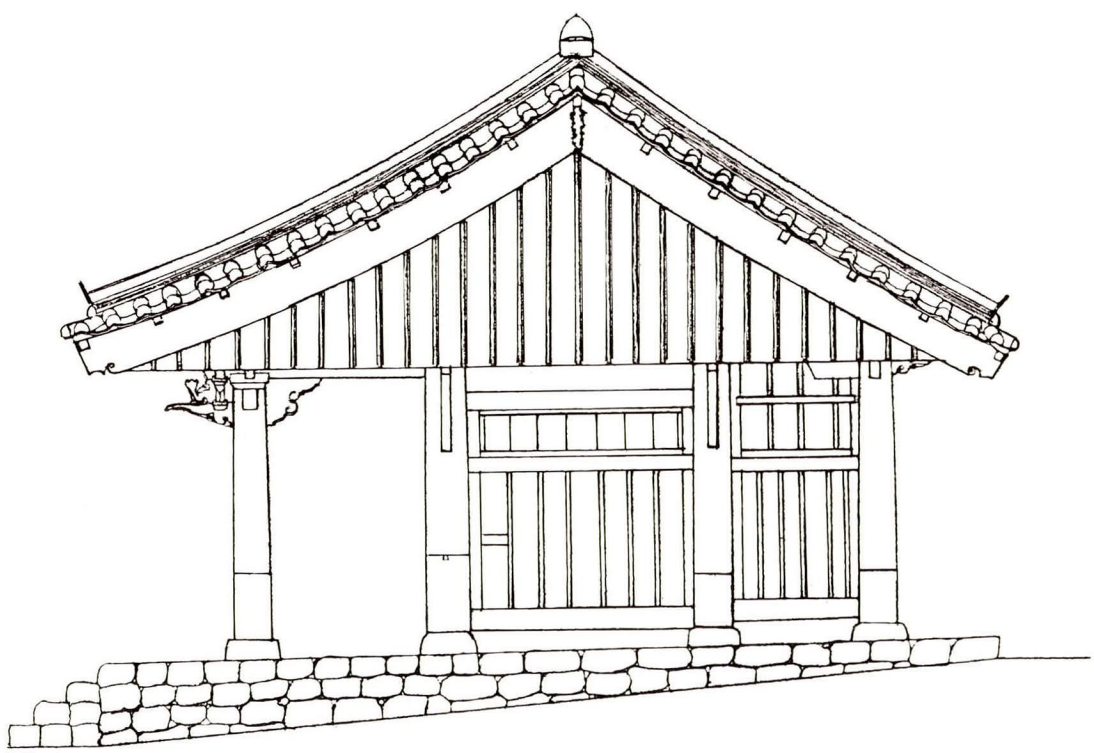
21 목천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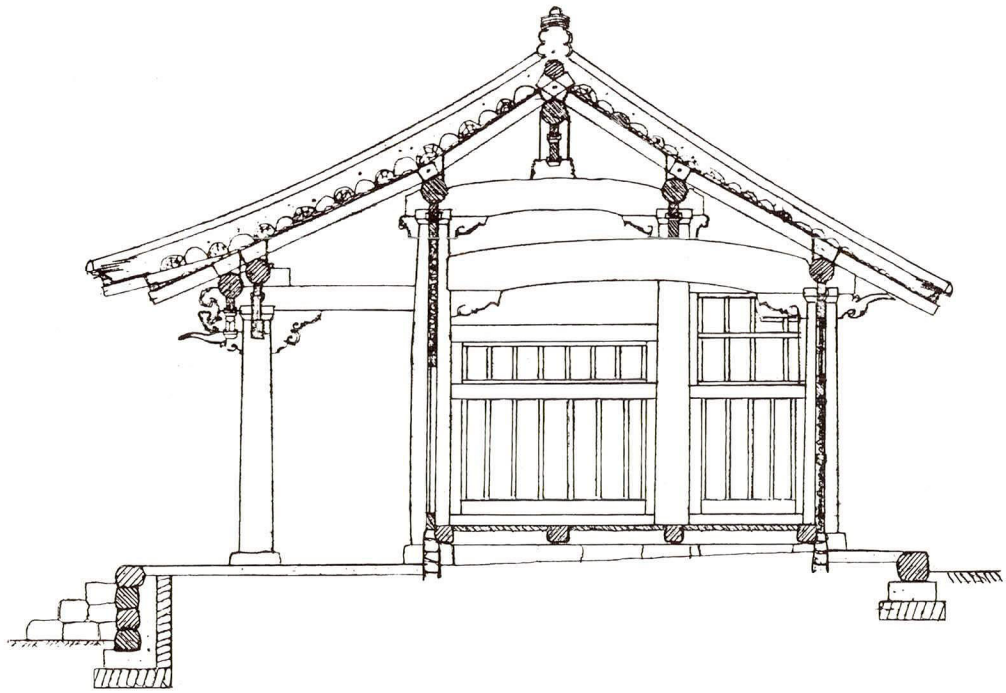
목천향교 대성전 평면도



목천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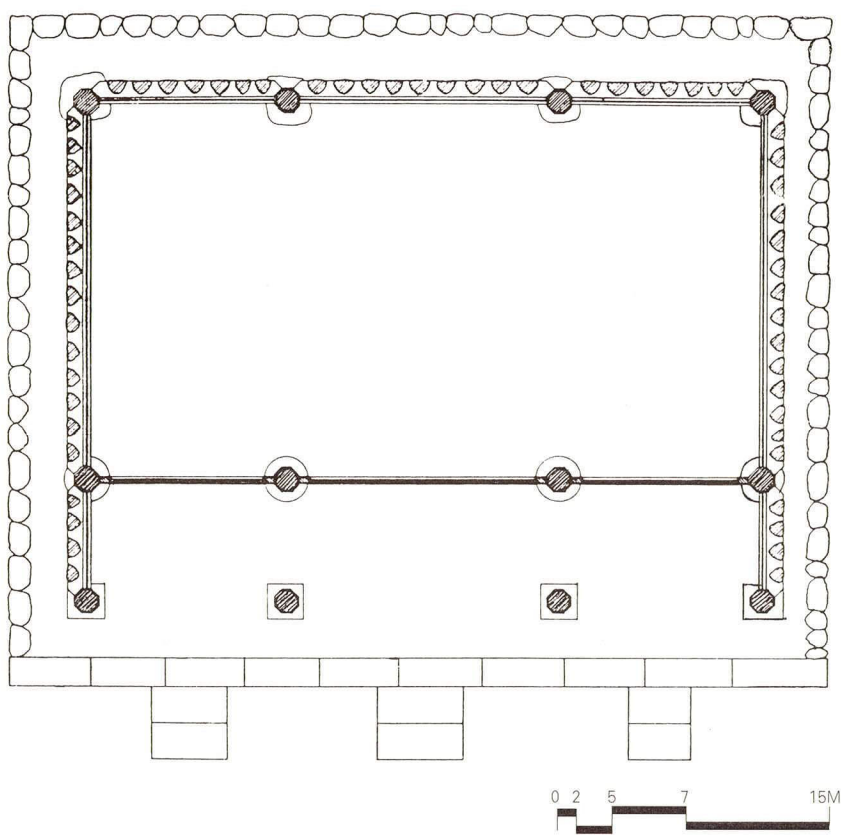


목천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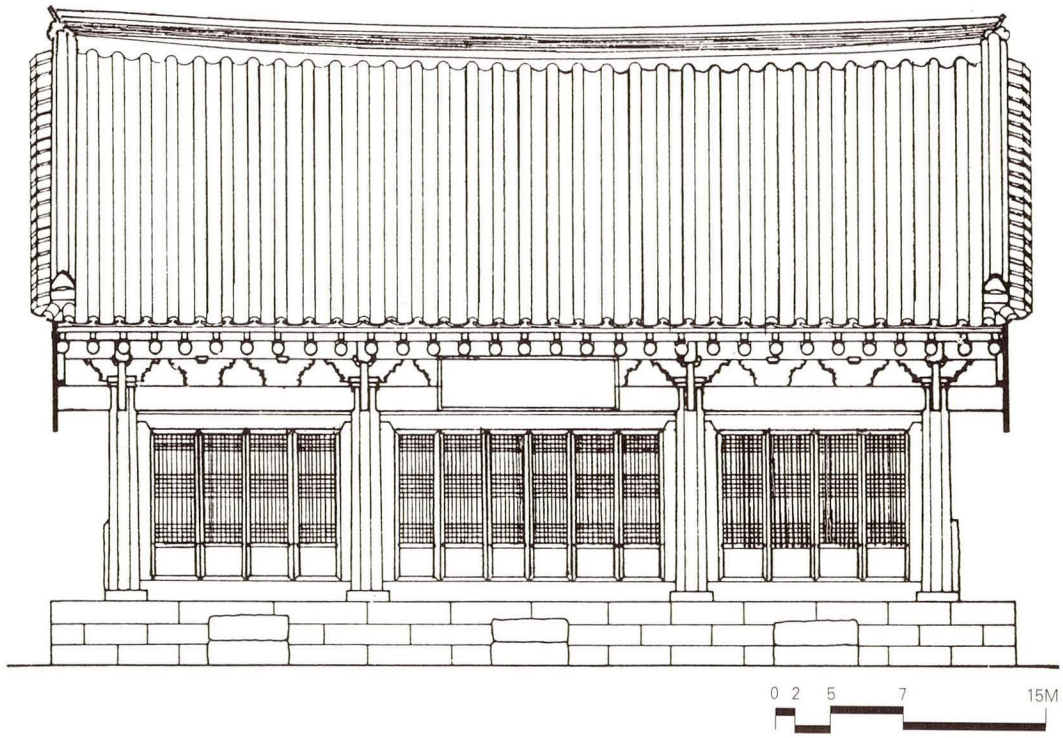


목천 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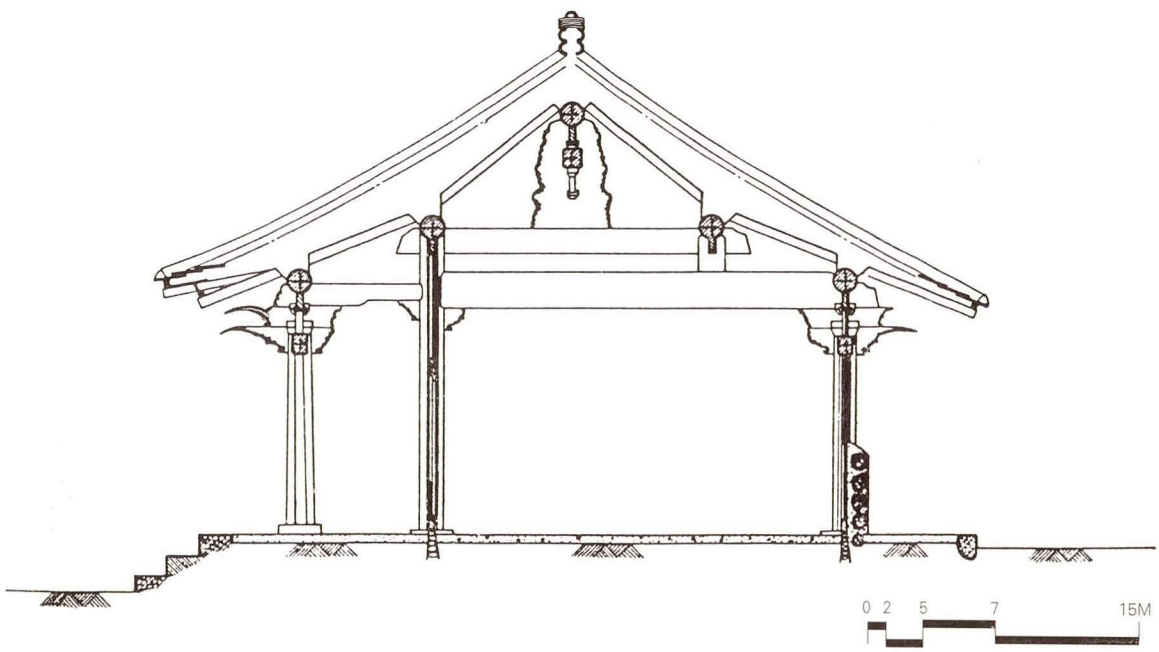
22. 양지향교 대성전



양지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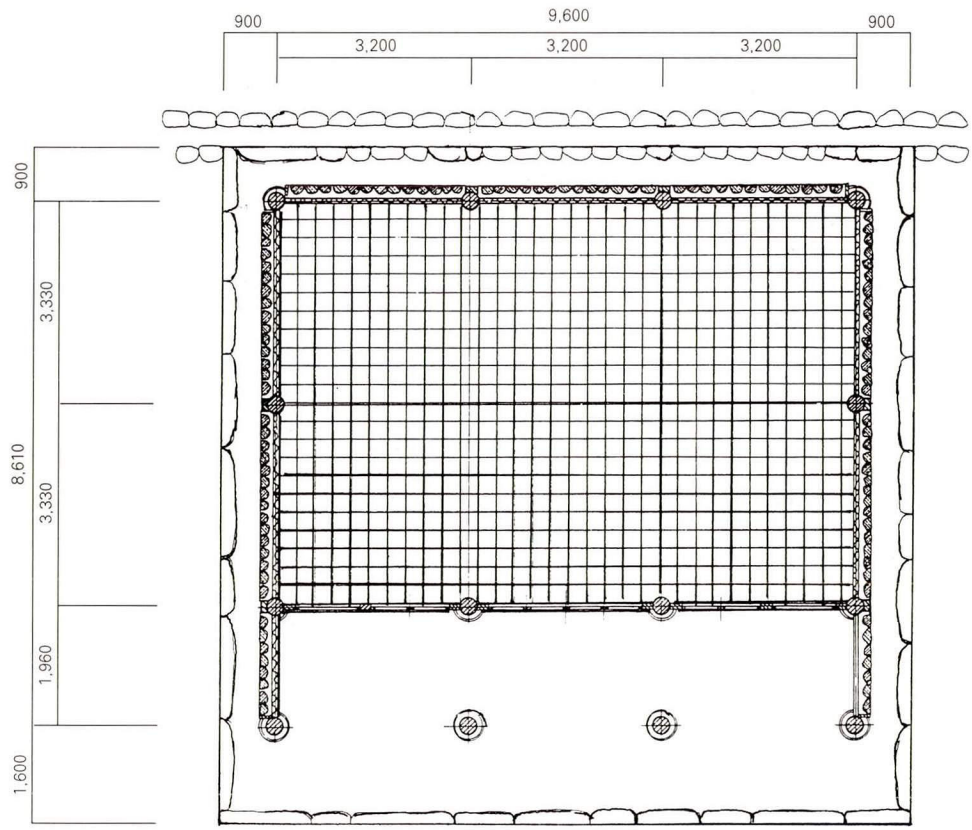


양지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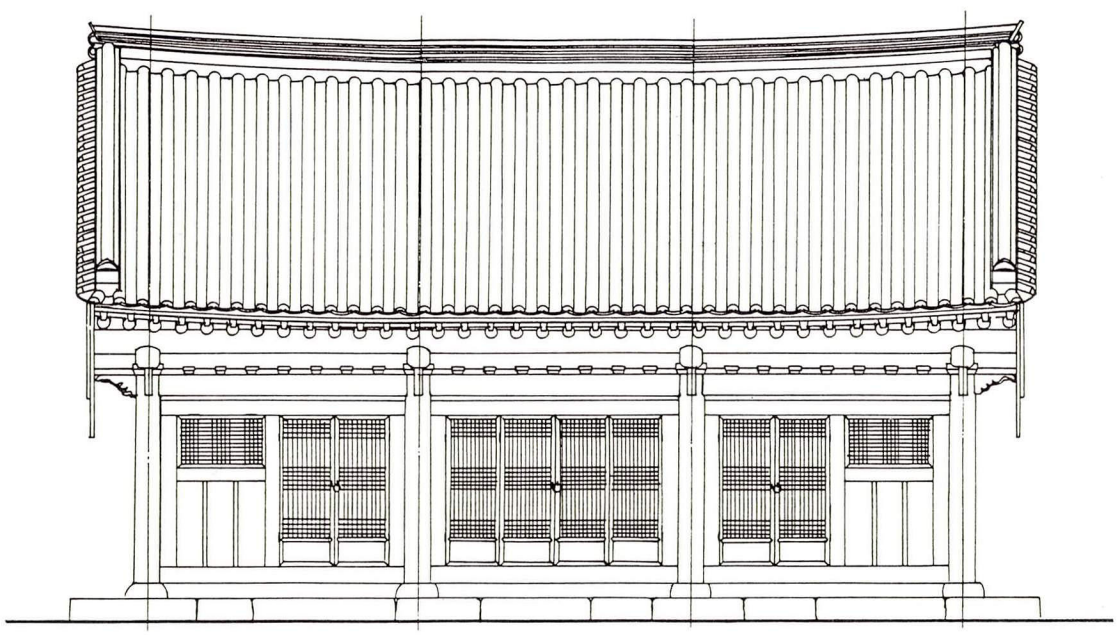


양지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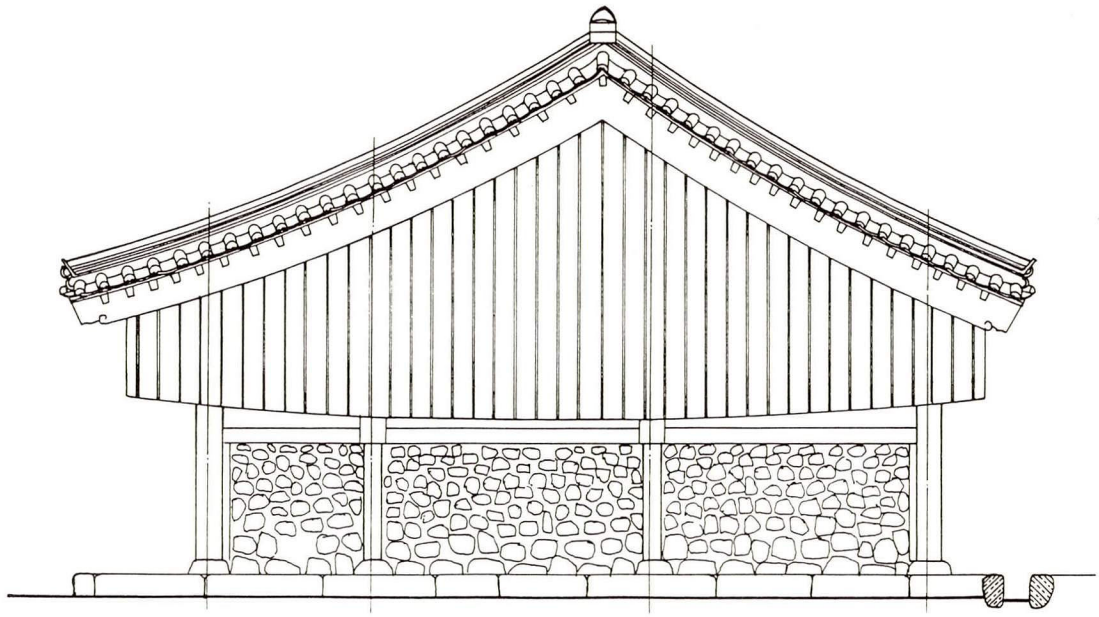
23. 양주향교 대성전



양주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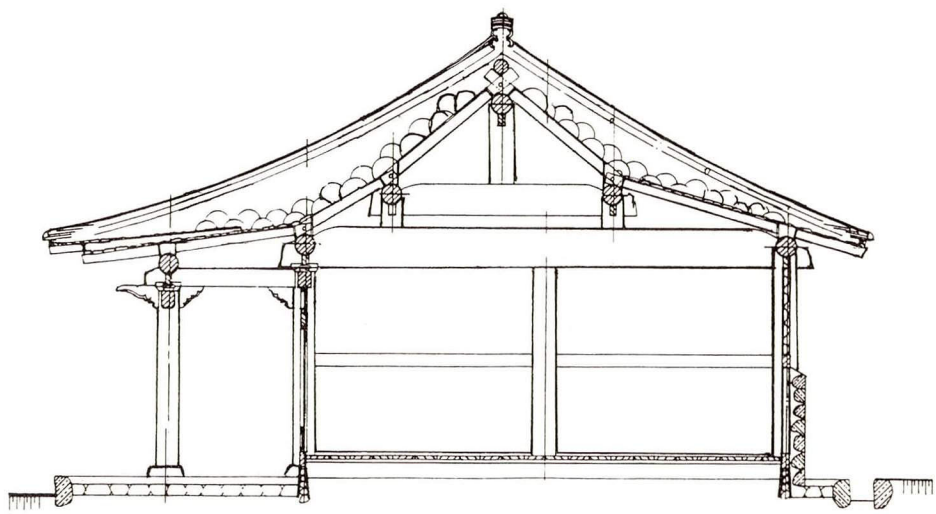


양주향교 대성전 정면도



양주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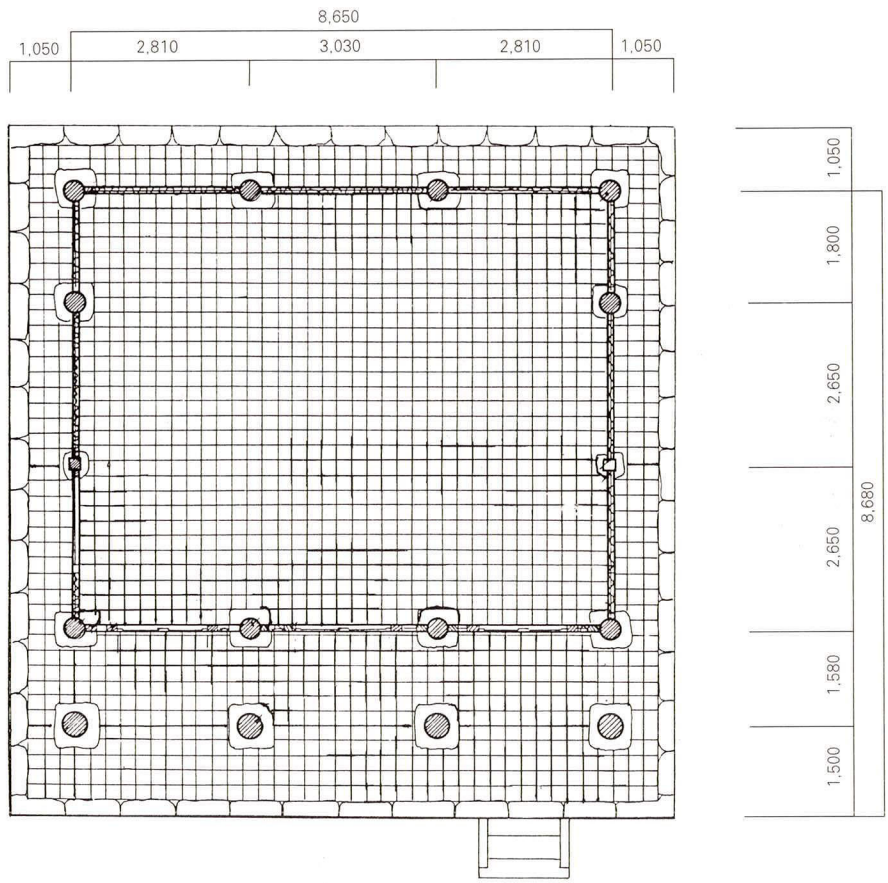
0 1 2 3M
0 5 10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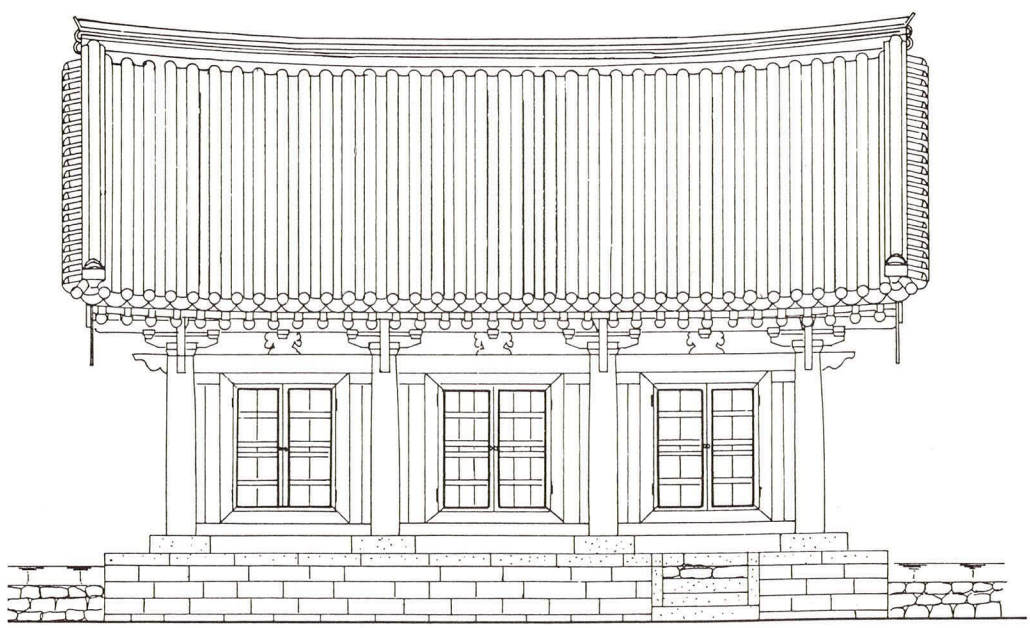
양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0 1 2 3M
0 5 10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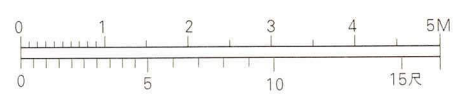
24. 개령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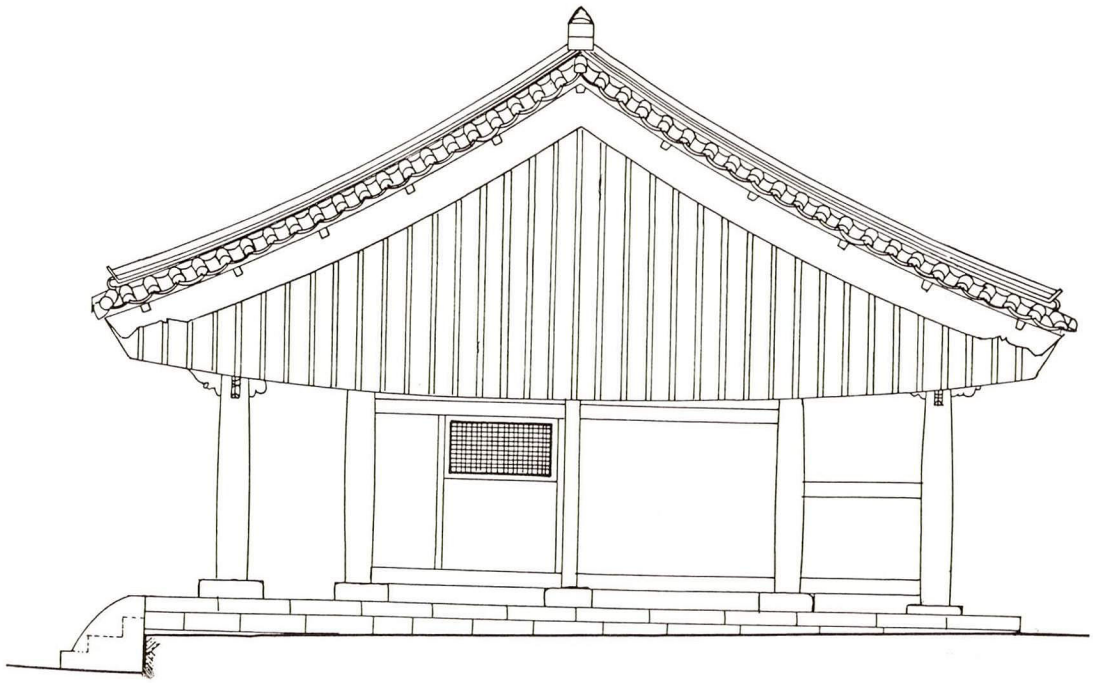


개령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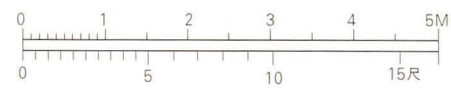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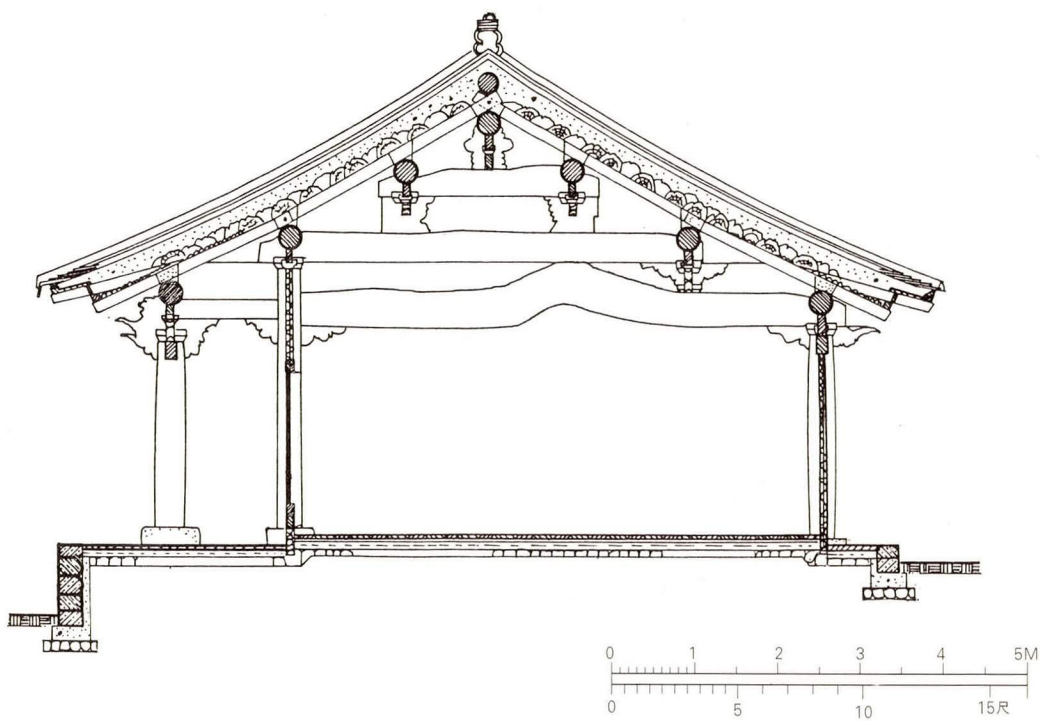
개령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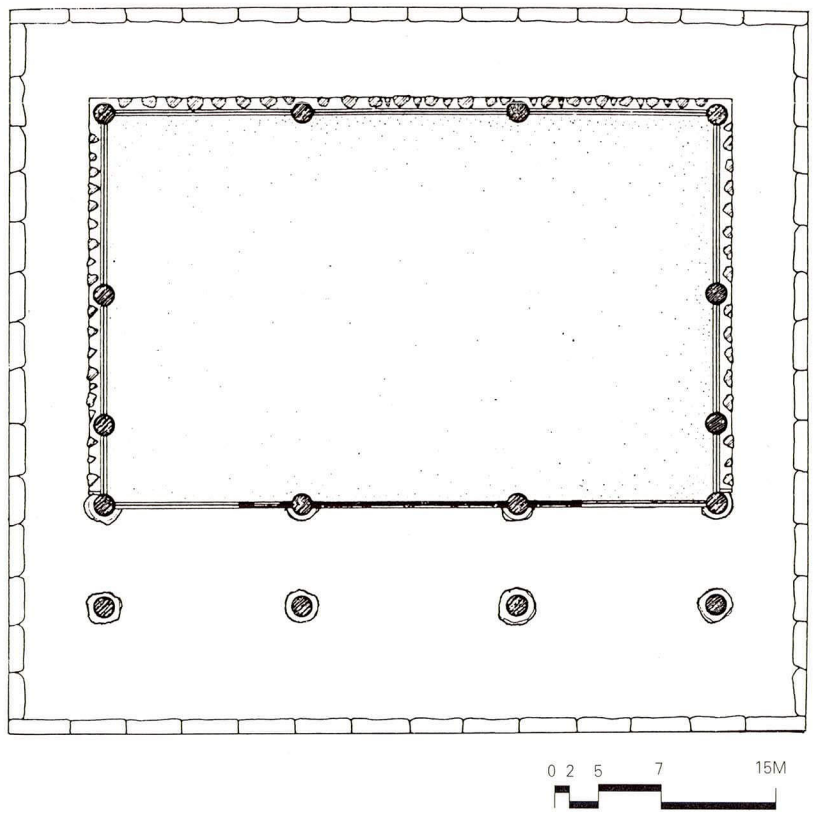
개령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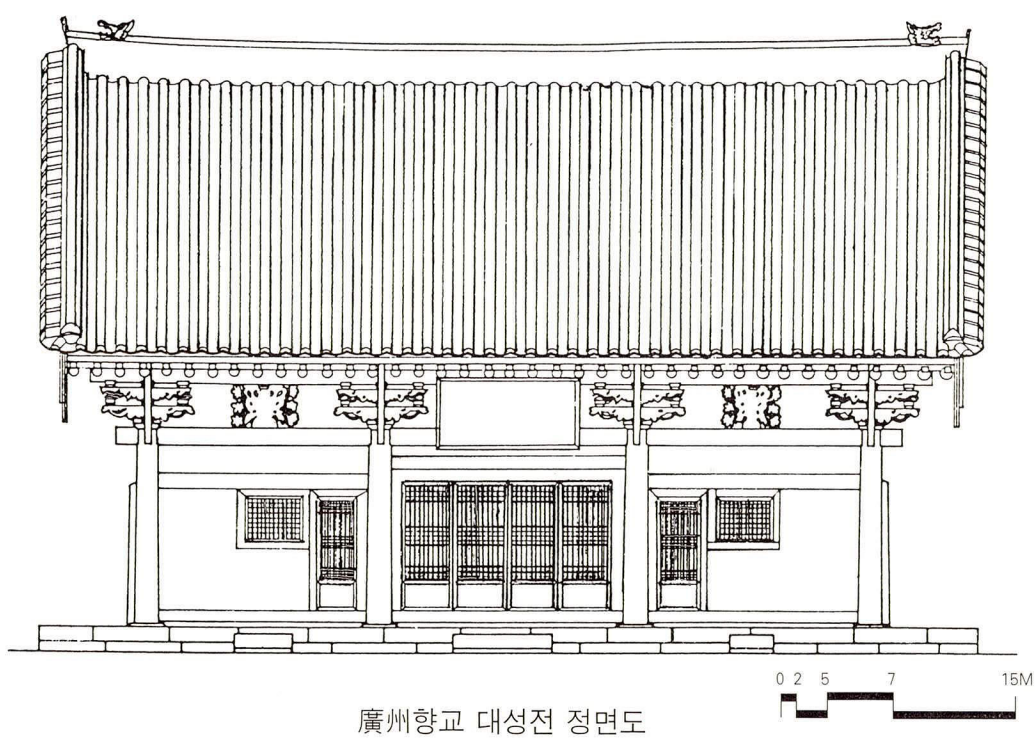


개령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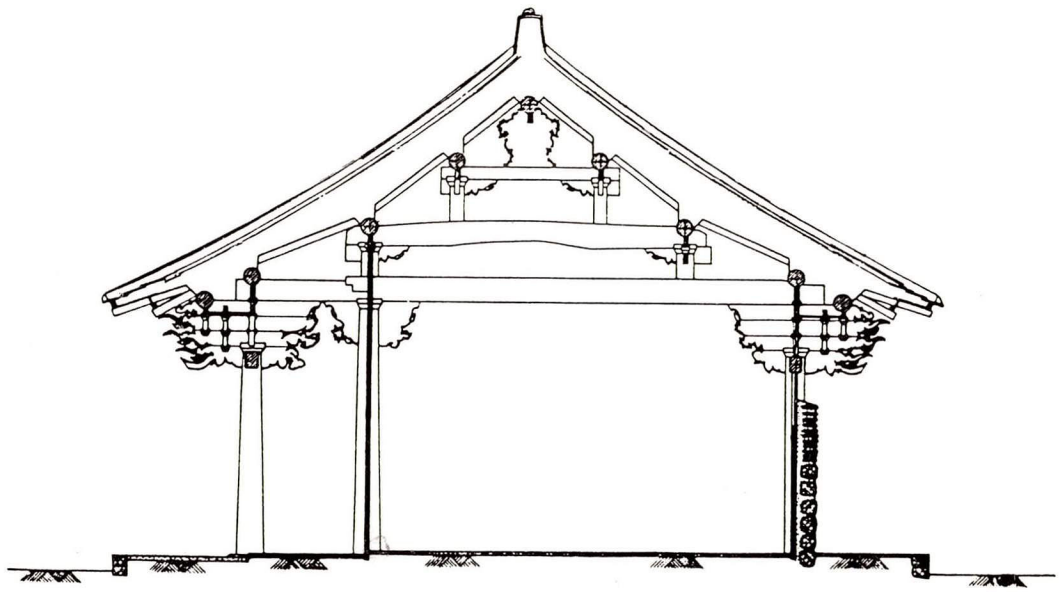
25. 광주향교 대성전



廣州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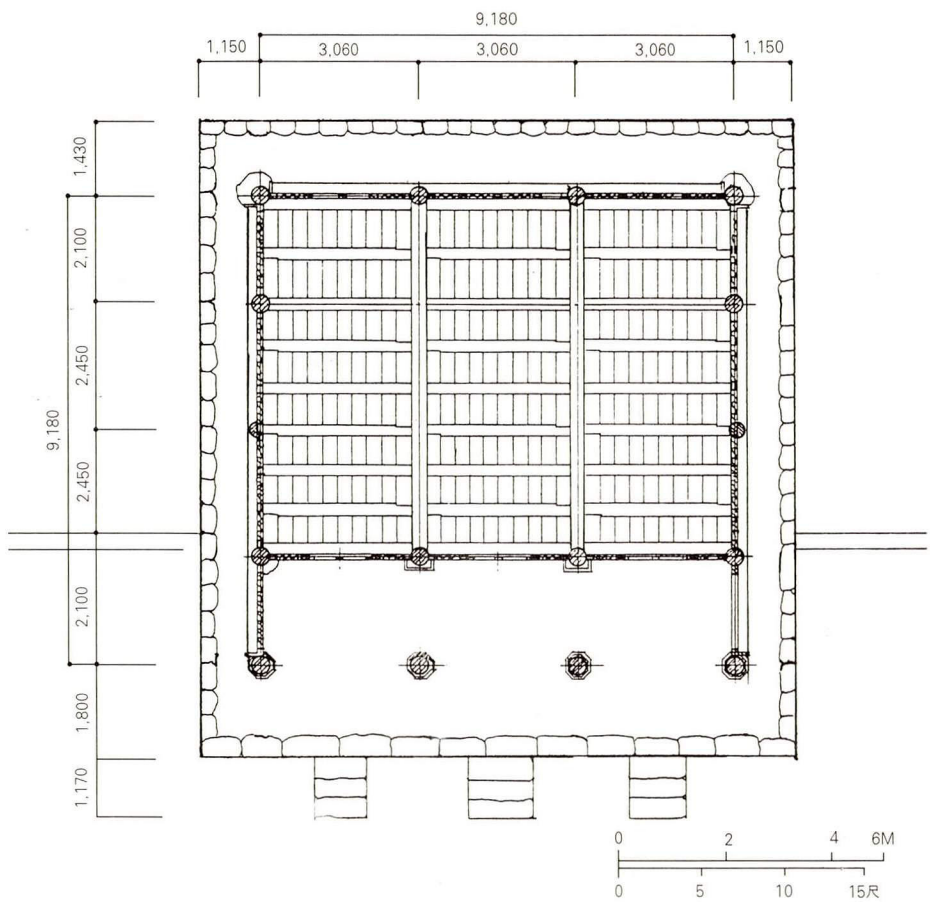


廣州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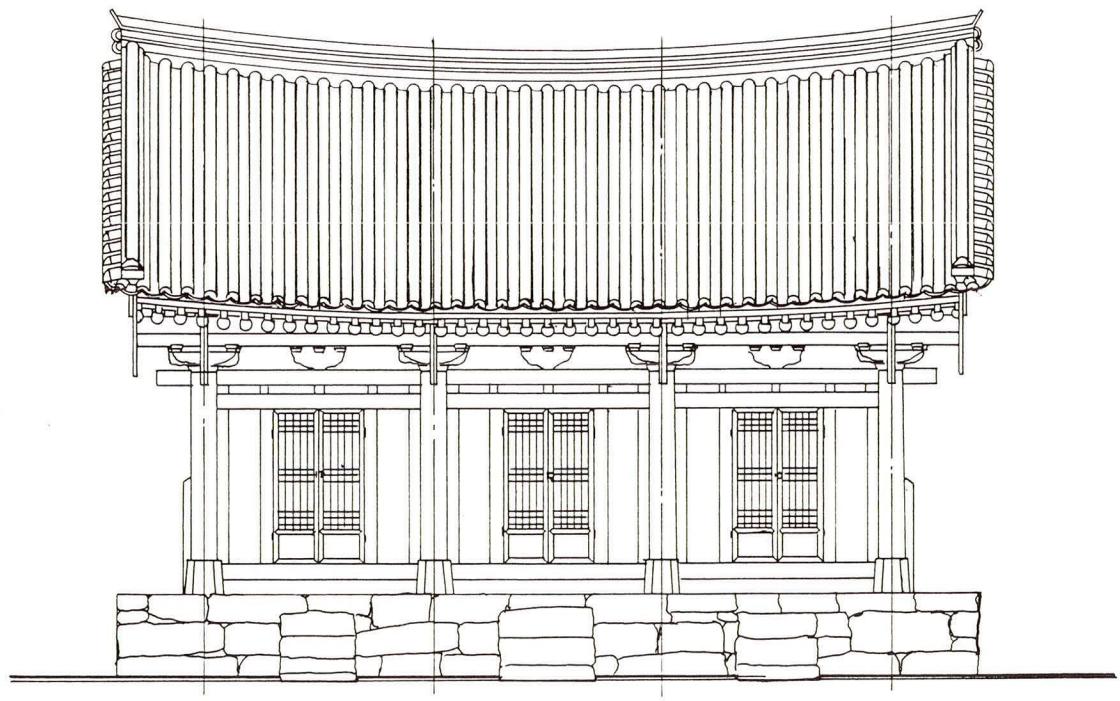


廣州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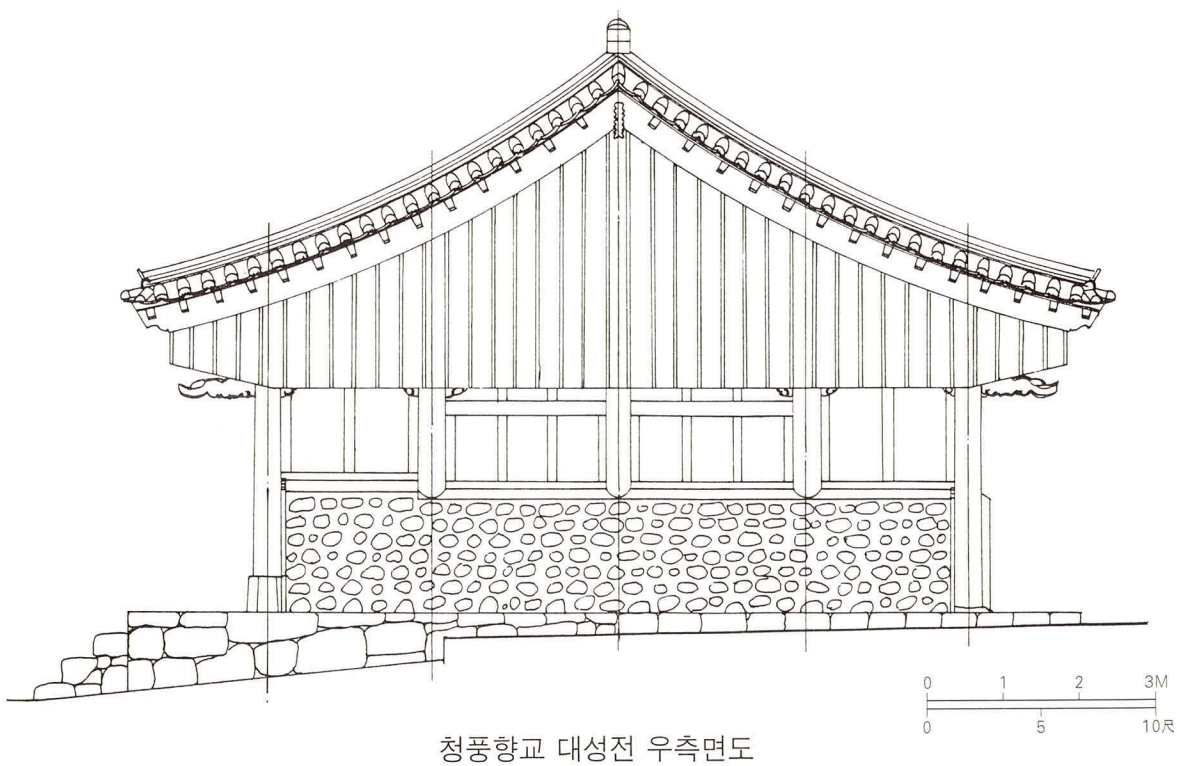
26. 청풍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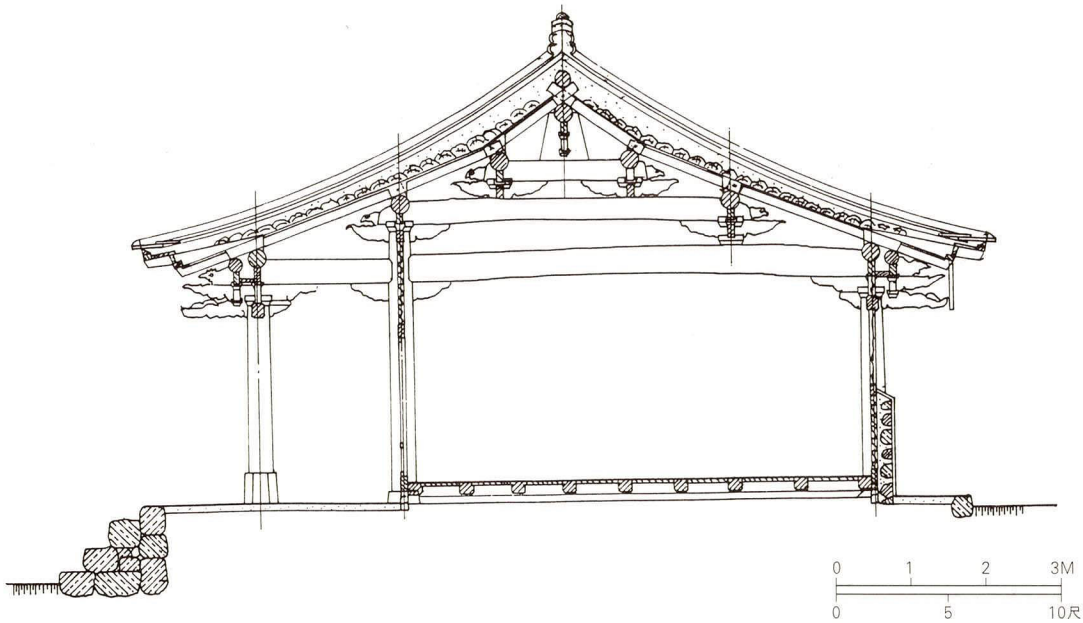
청풍향교 대성전 평면도



청풍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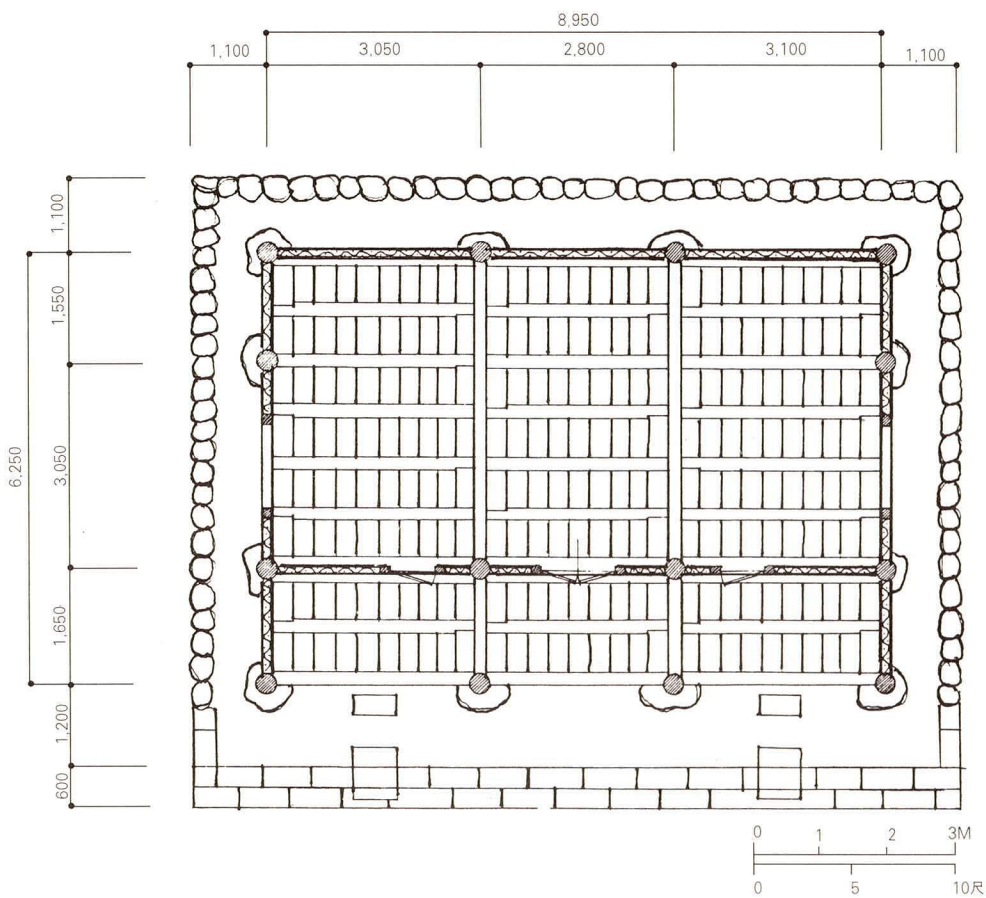


청풍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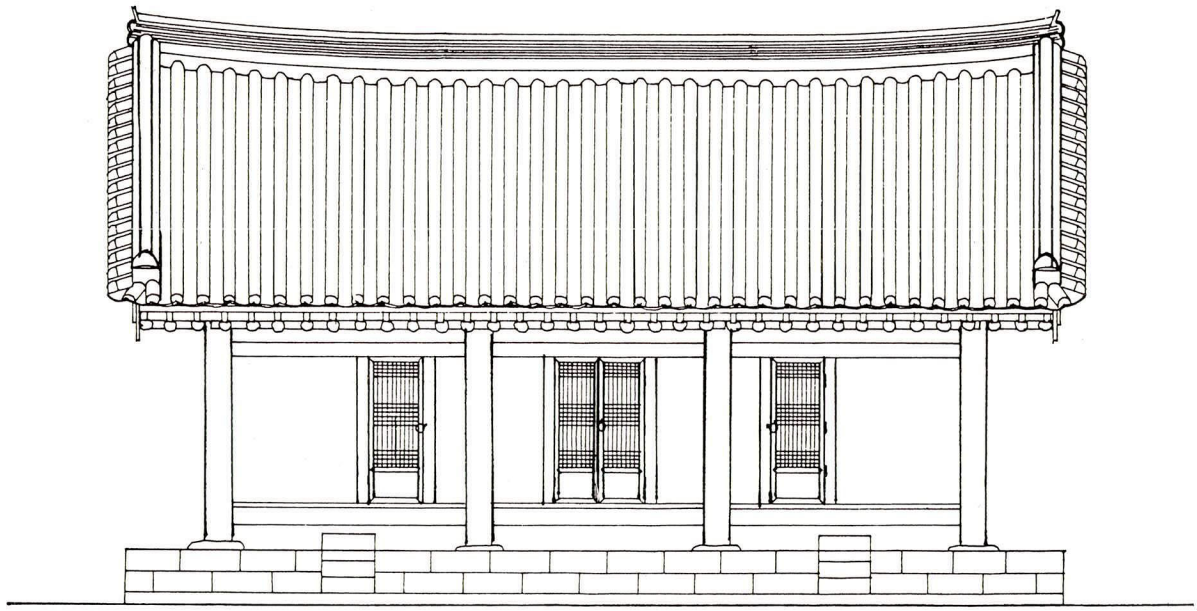


청풍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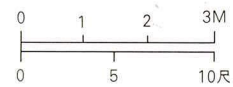
27. 정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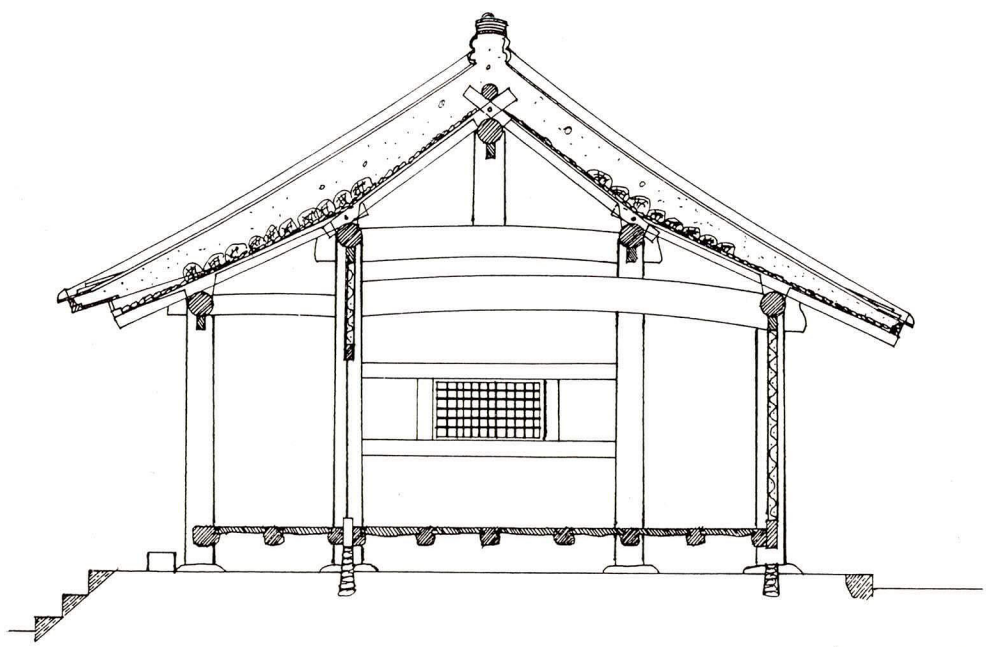


정산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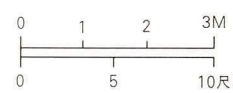


정산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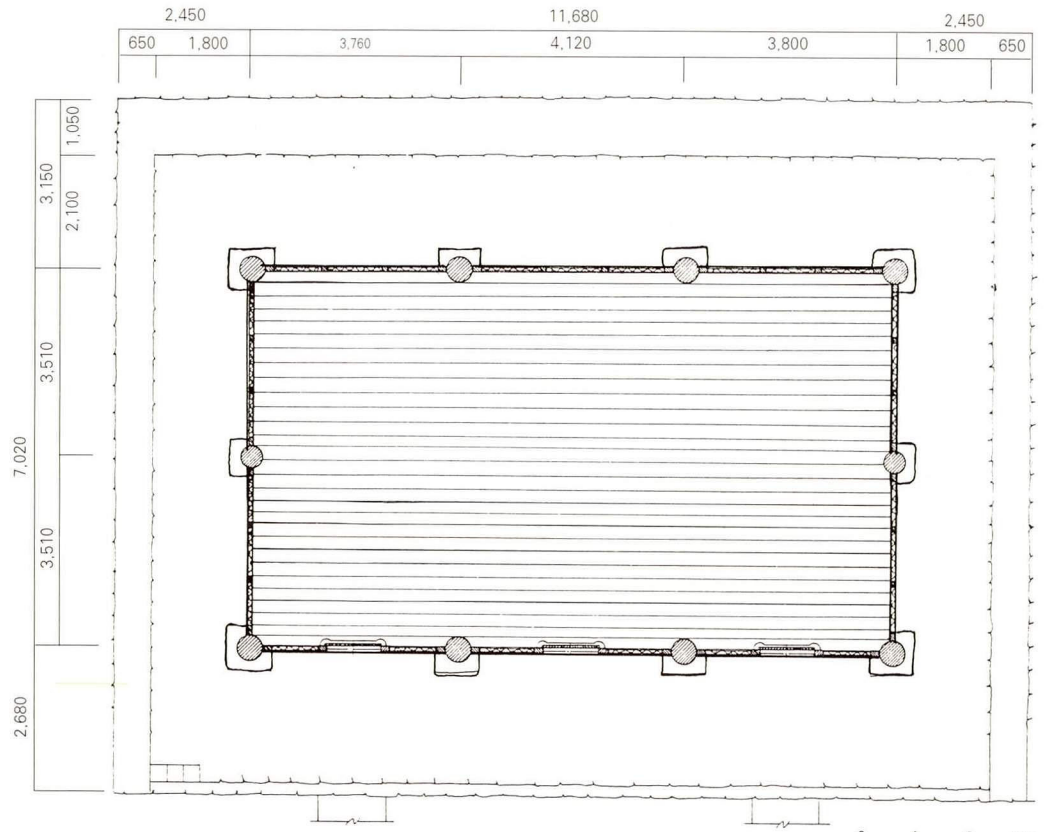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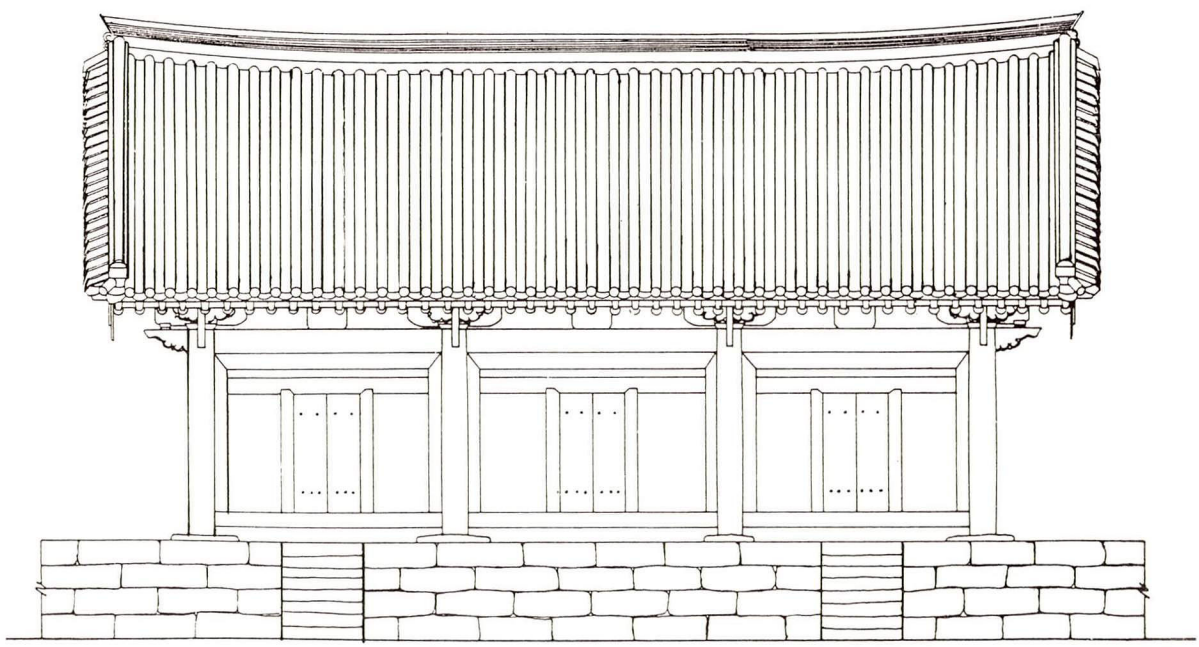
정산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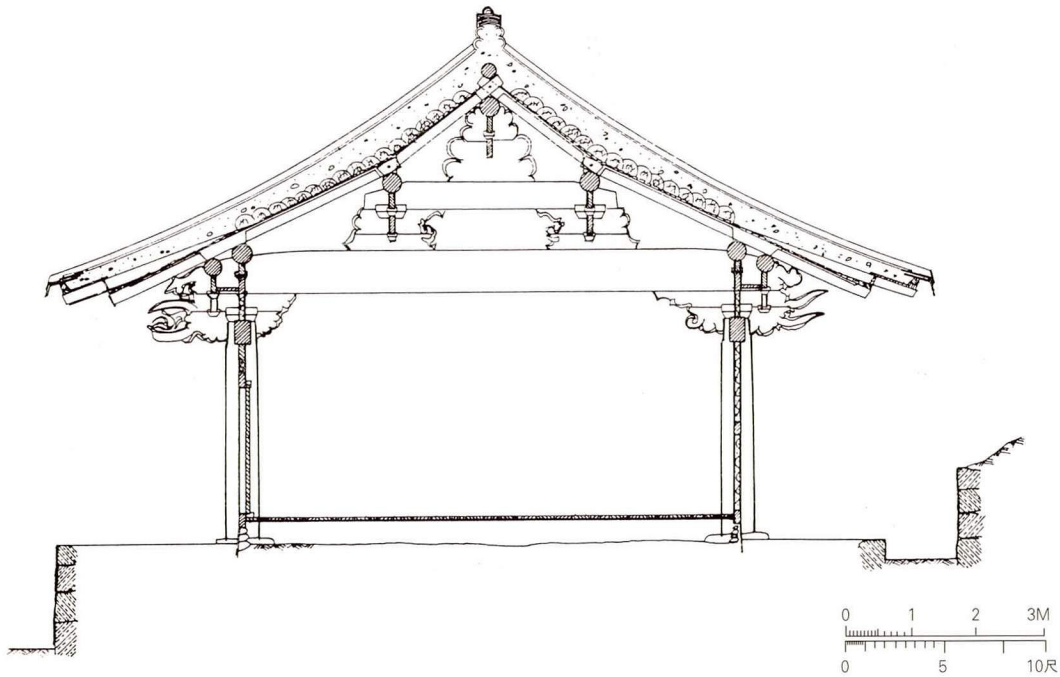
28.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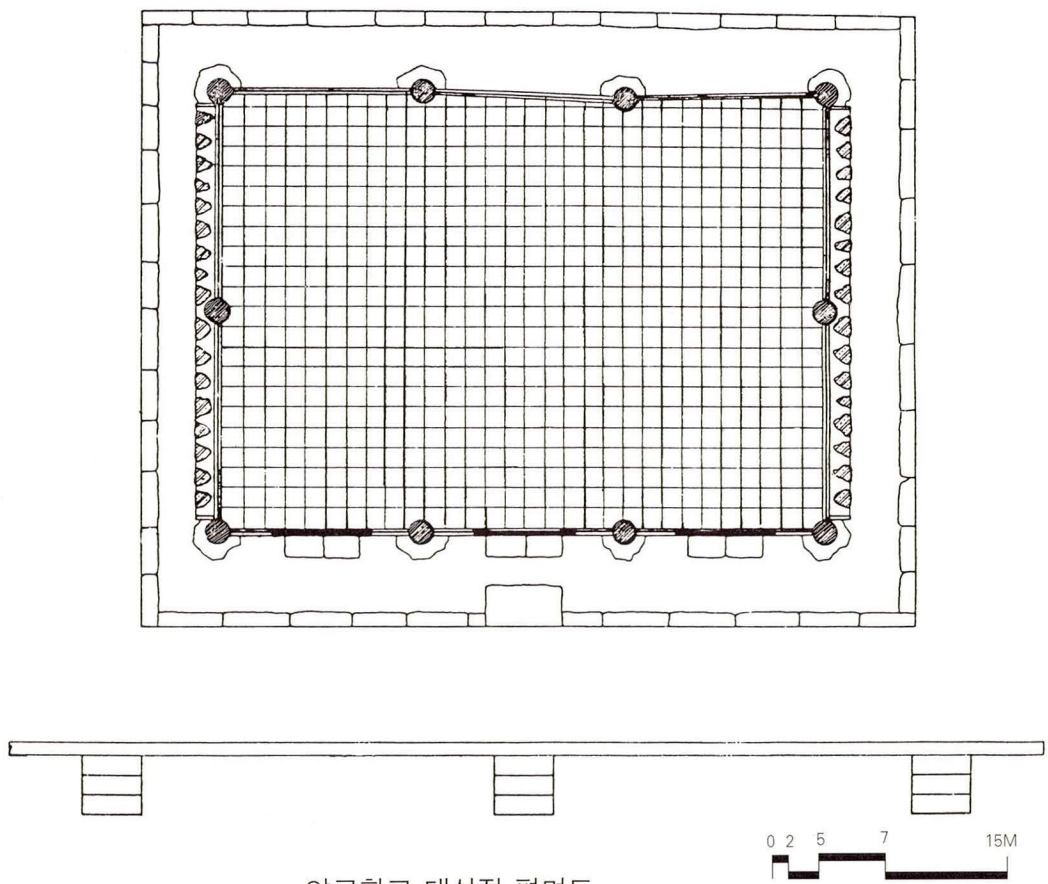


밀양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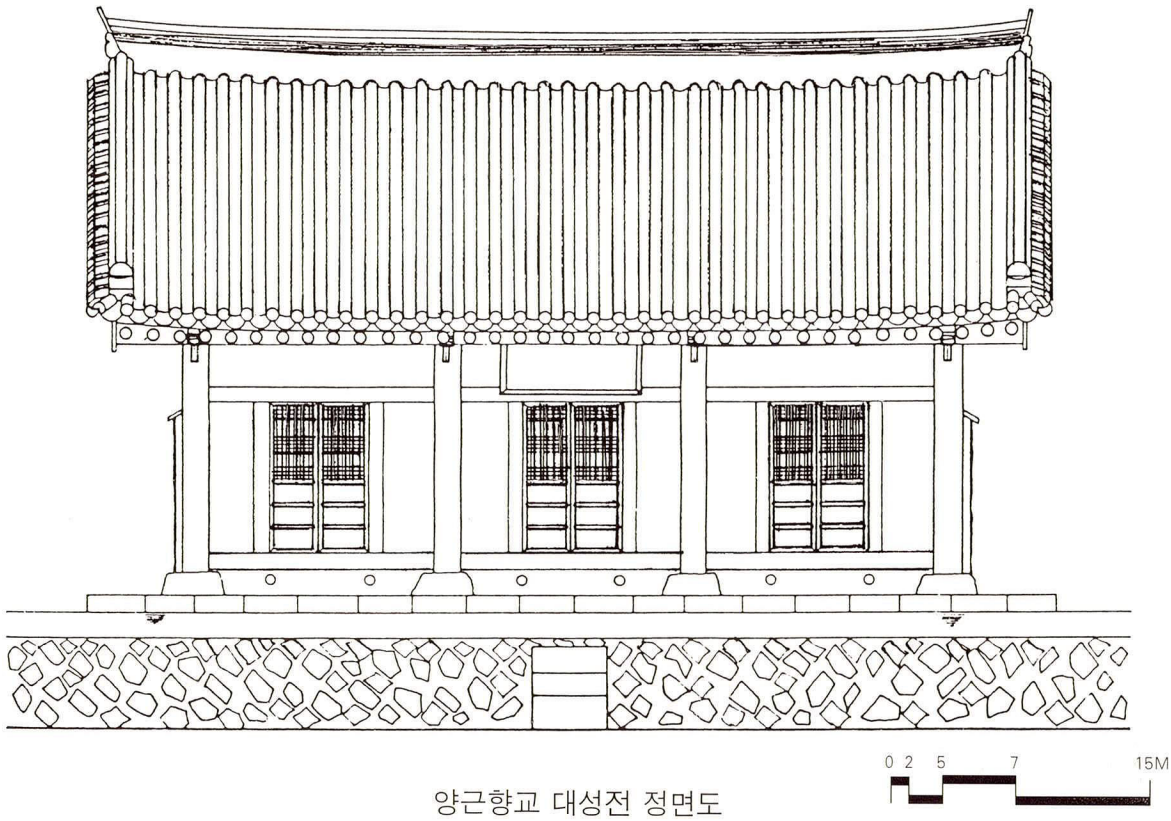


밀양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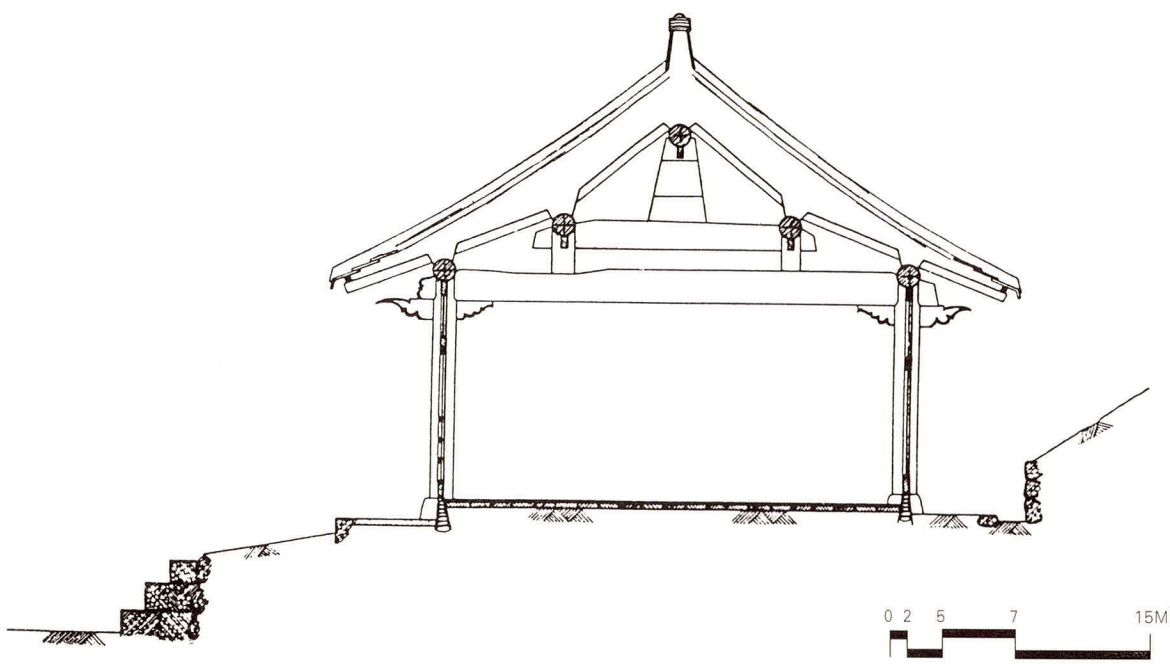
29. 양근향교 대성전



양근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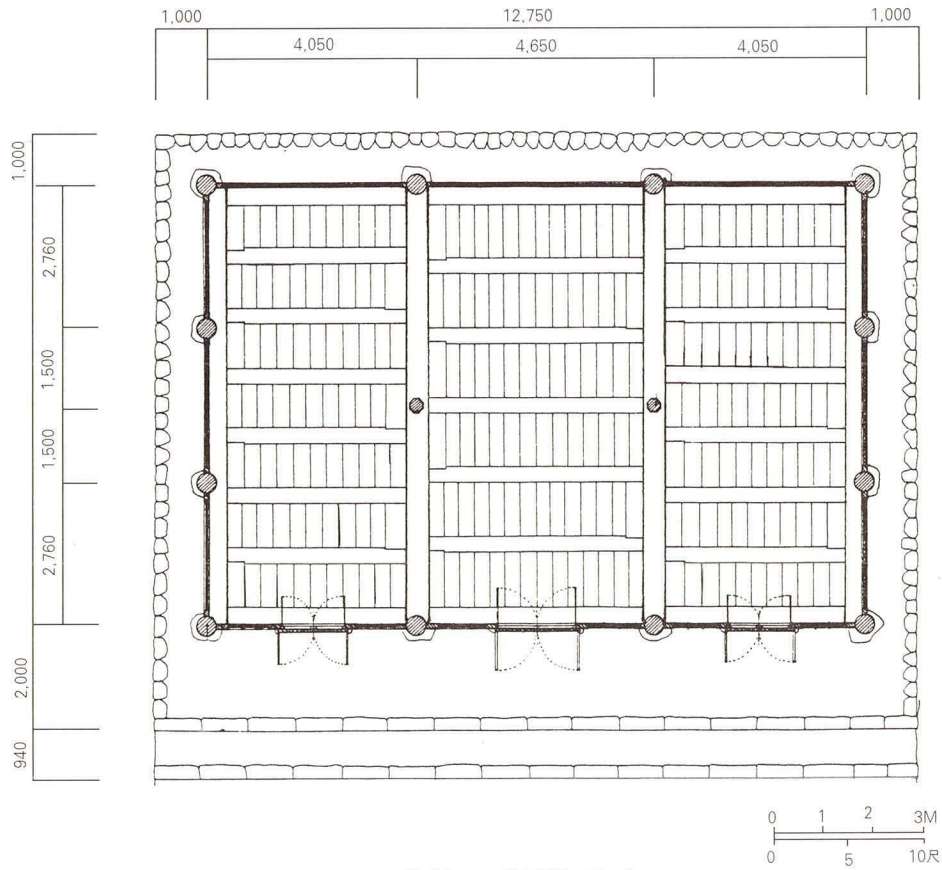


양근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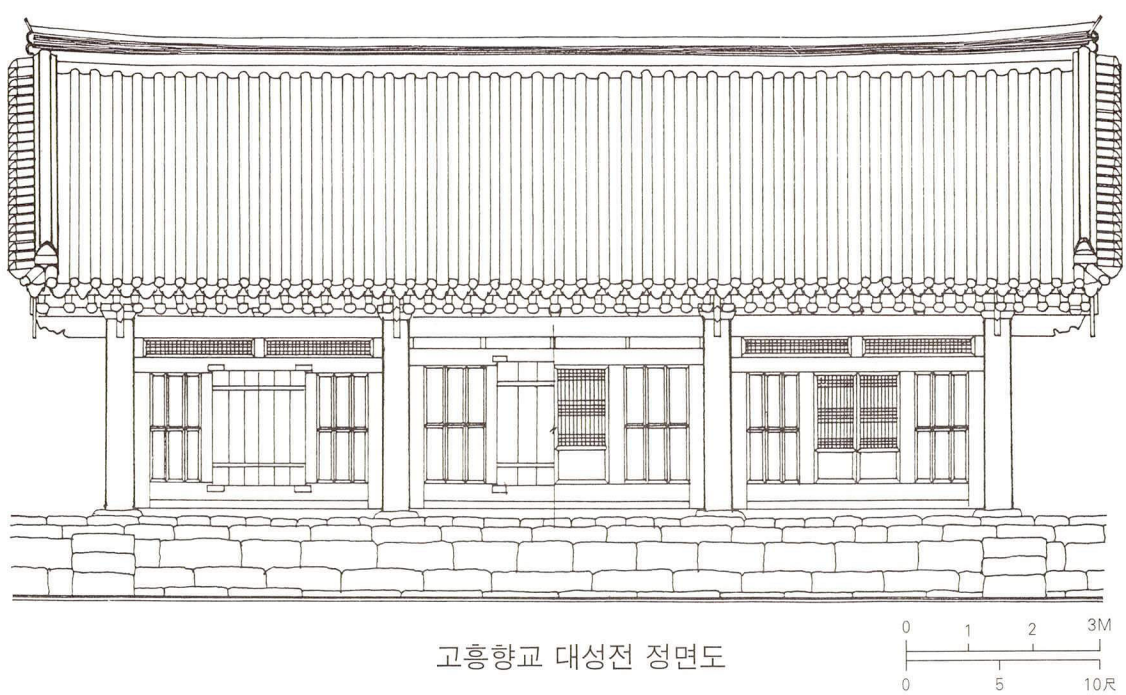


양근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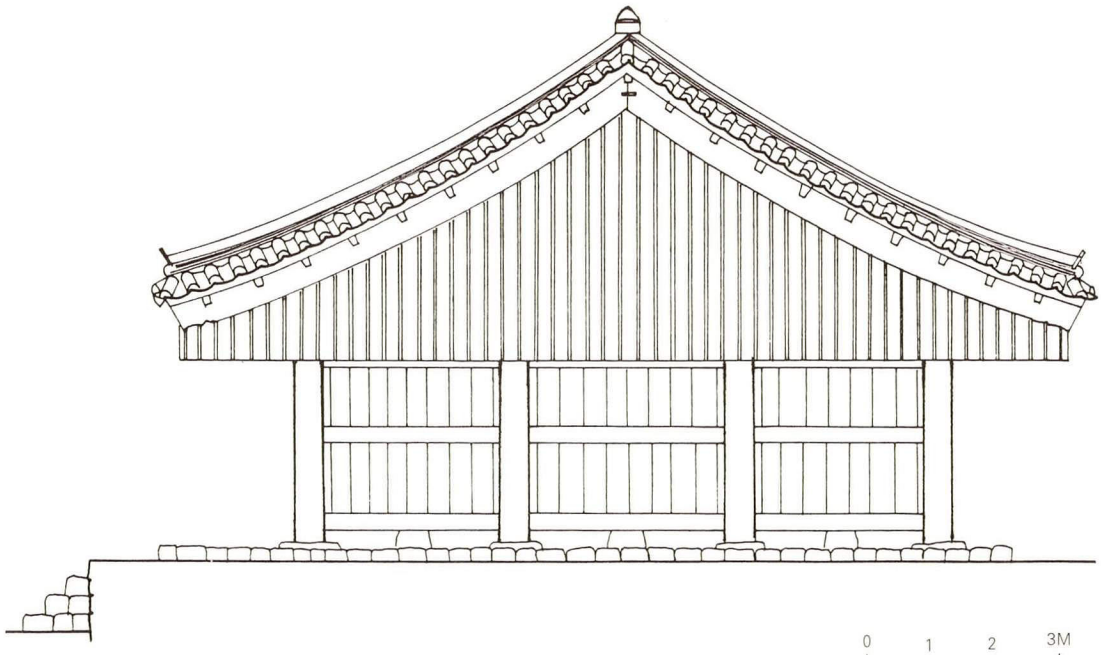
30. 고흥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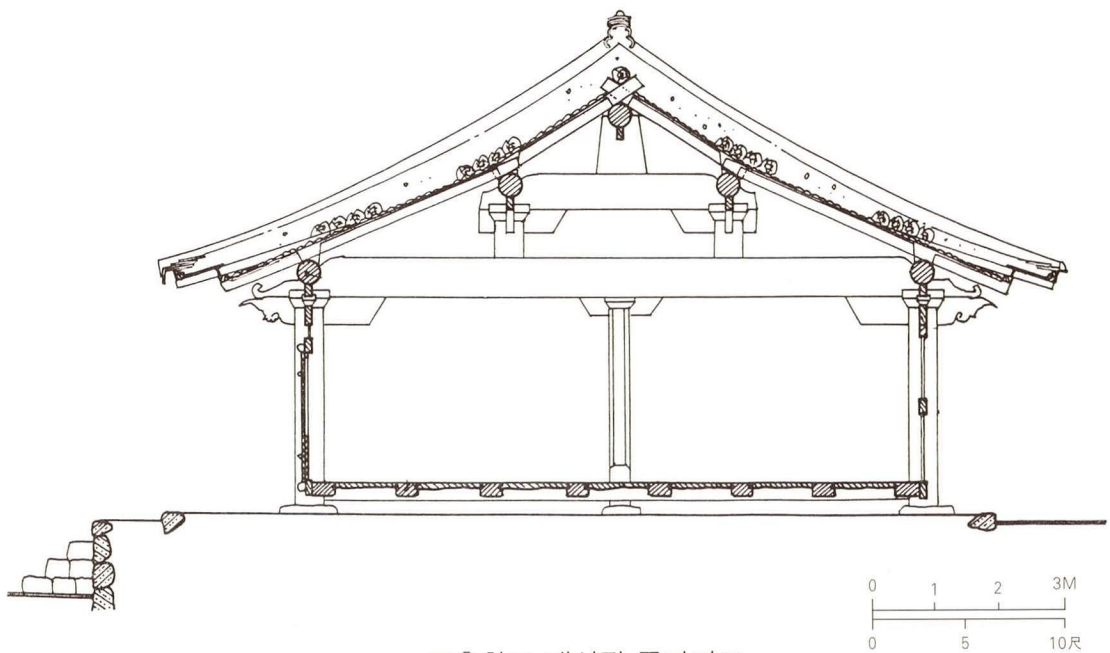
고흥향교 대성전 평면도



고흥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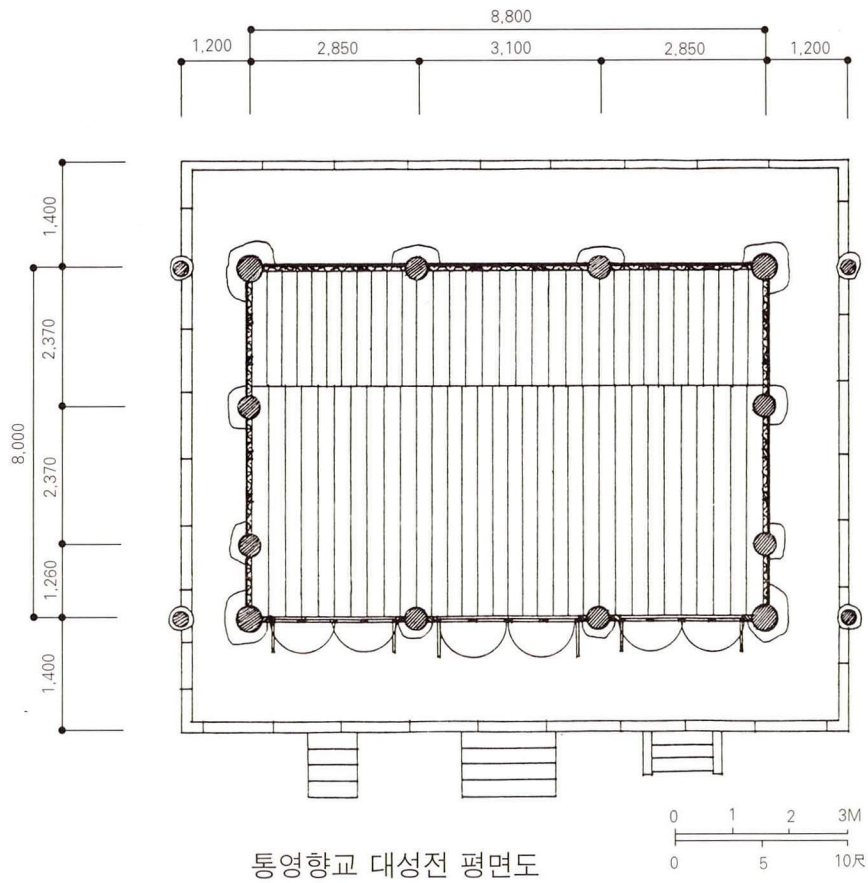


고흥향교 대성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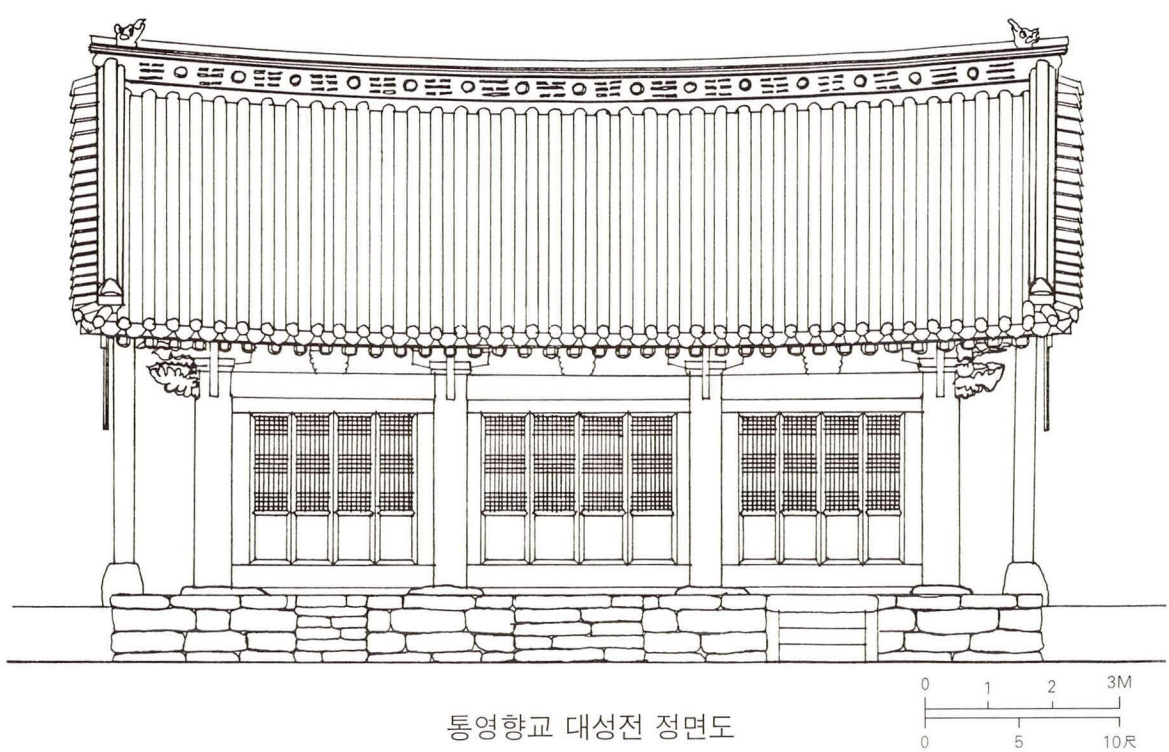


고흥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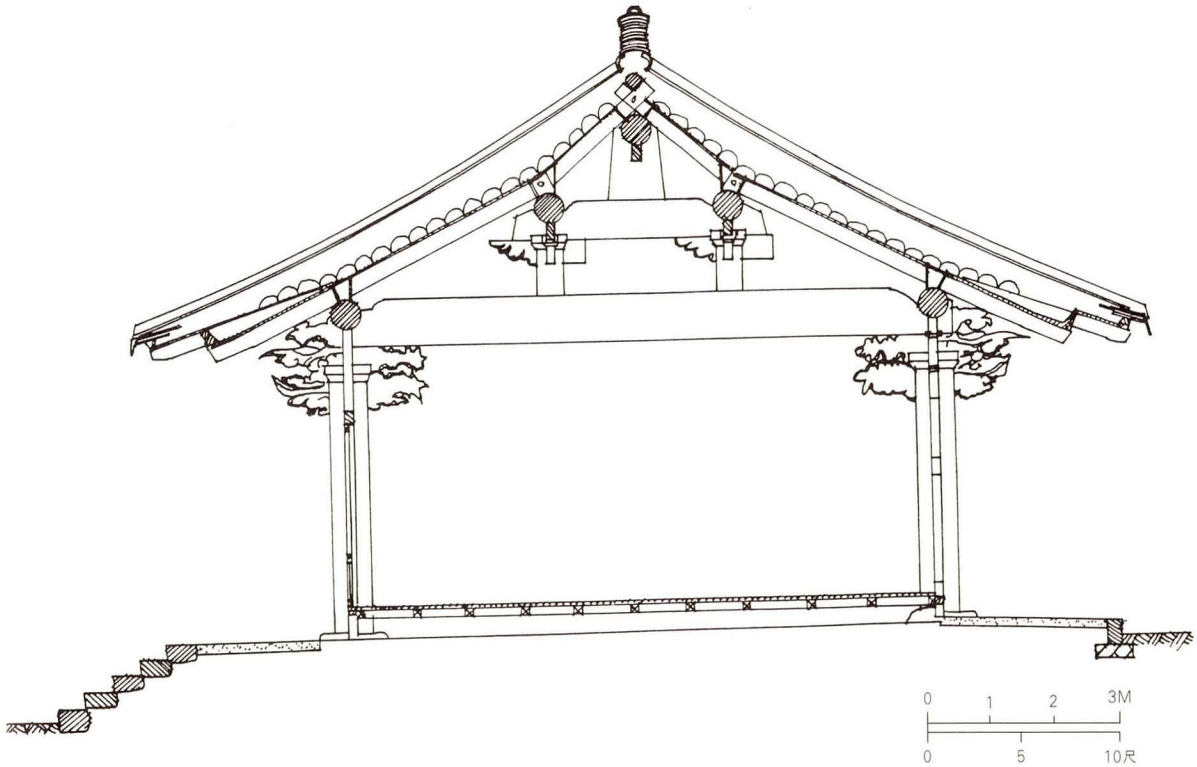
31. 통영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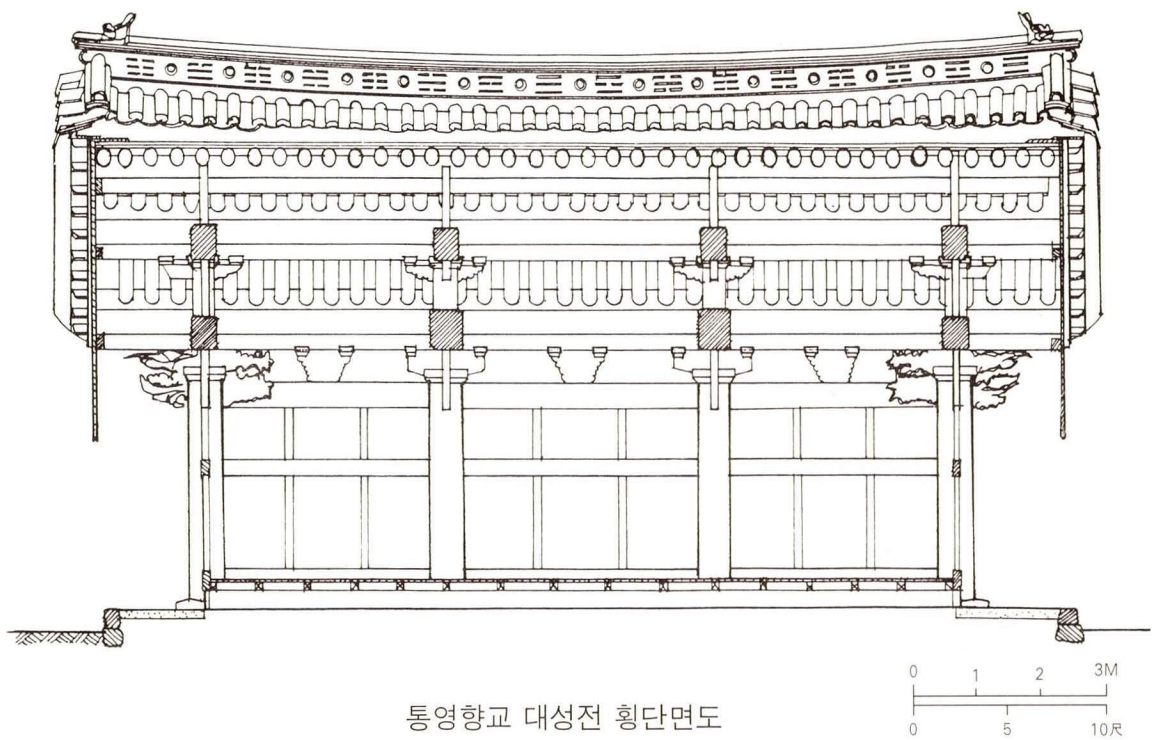
통영향교 대성전 평면도



통영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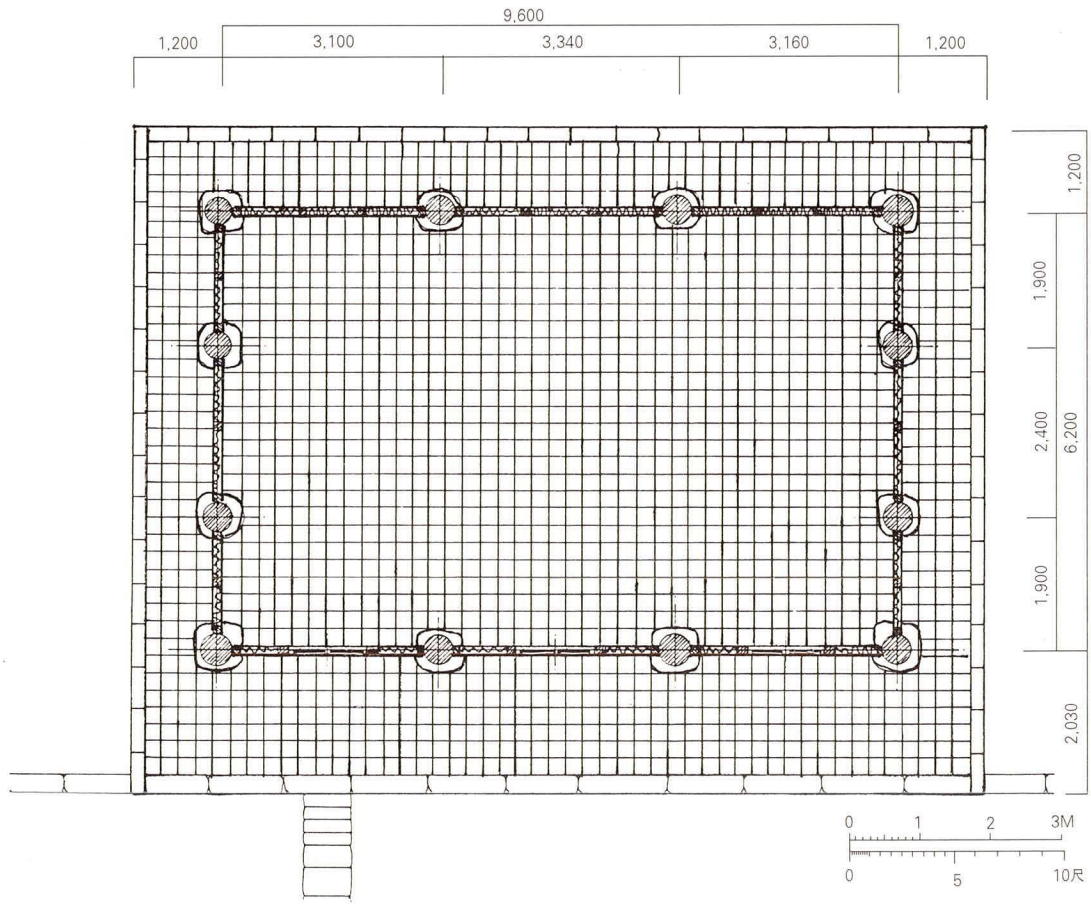


통영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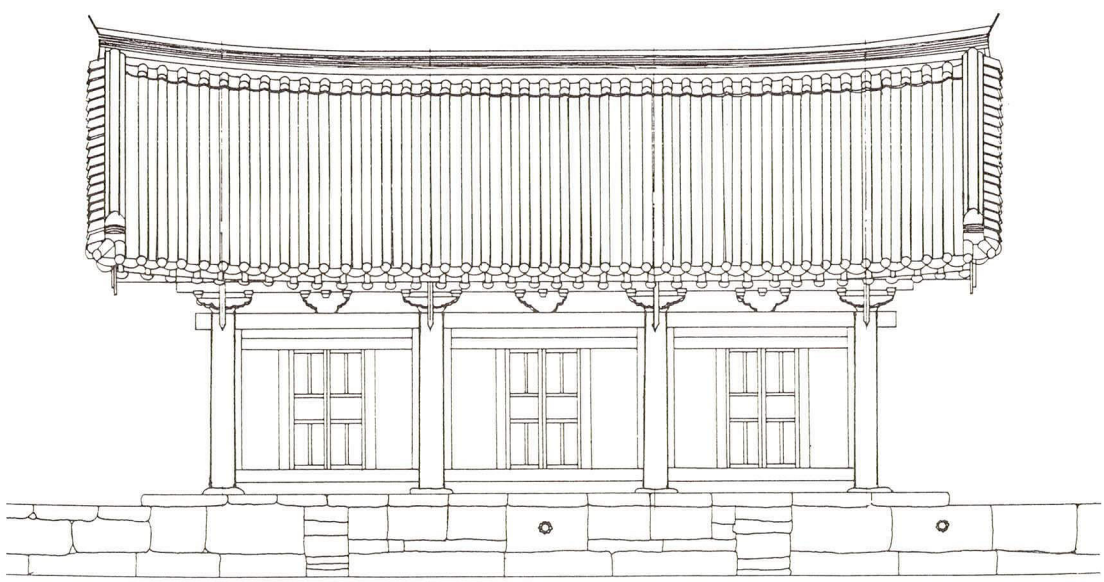


통영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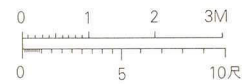
32. 현풍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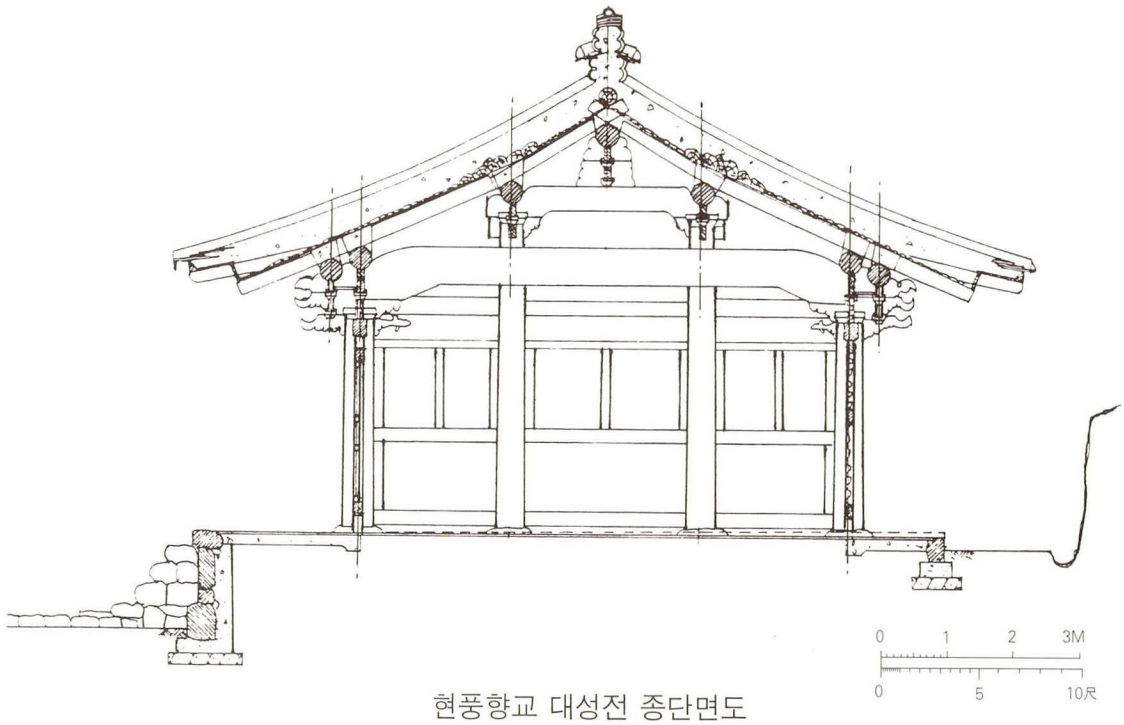


현풍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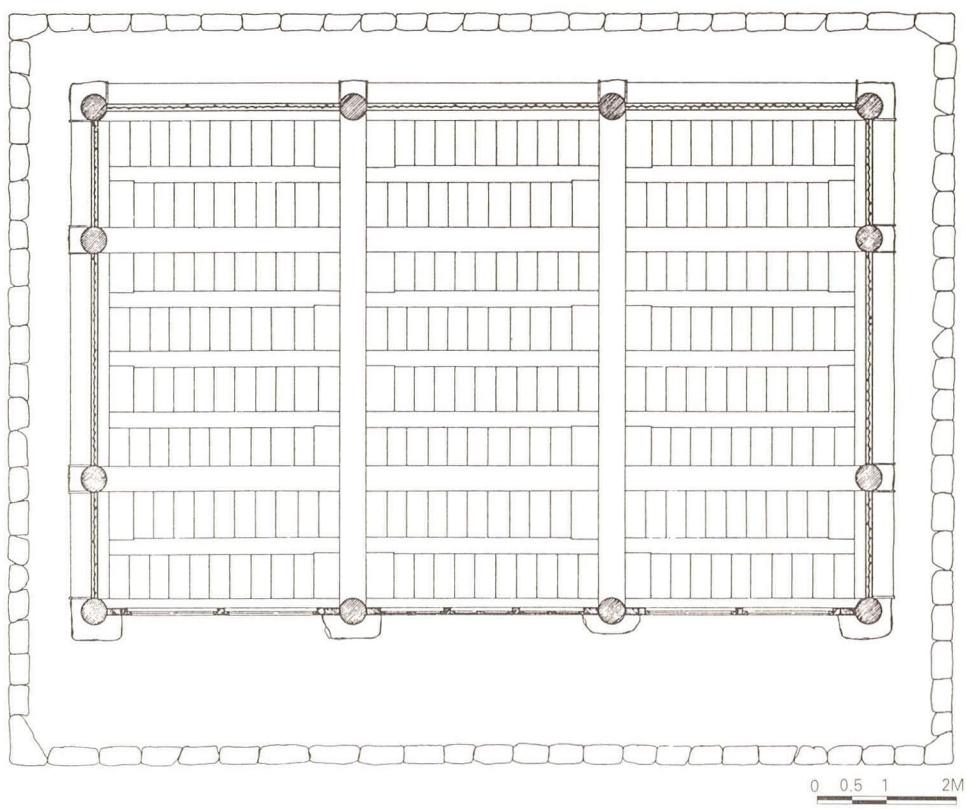
현풍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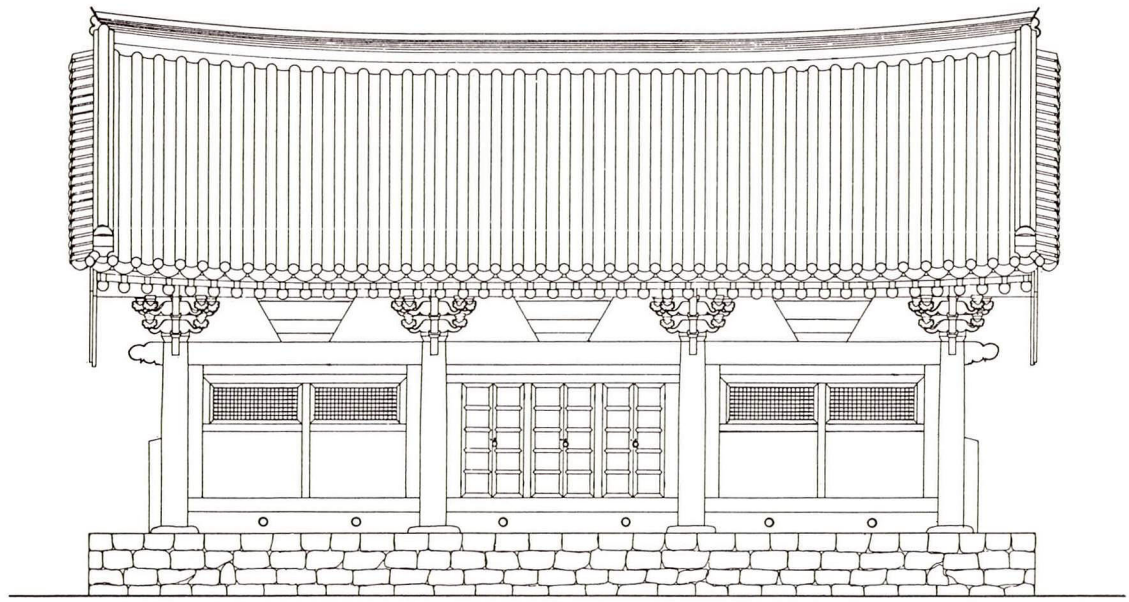


현풍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33. 영산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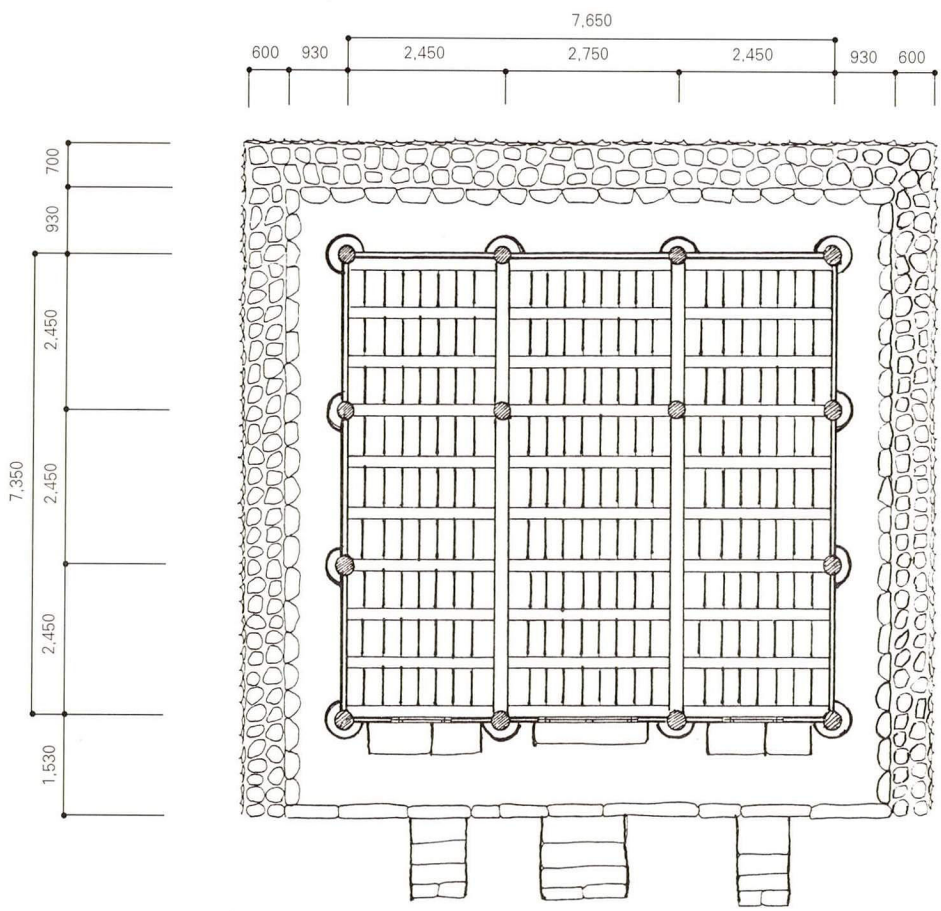


영산향교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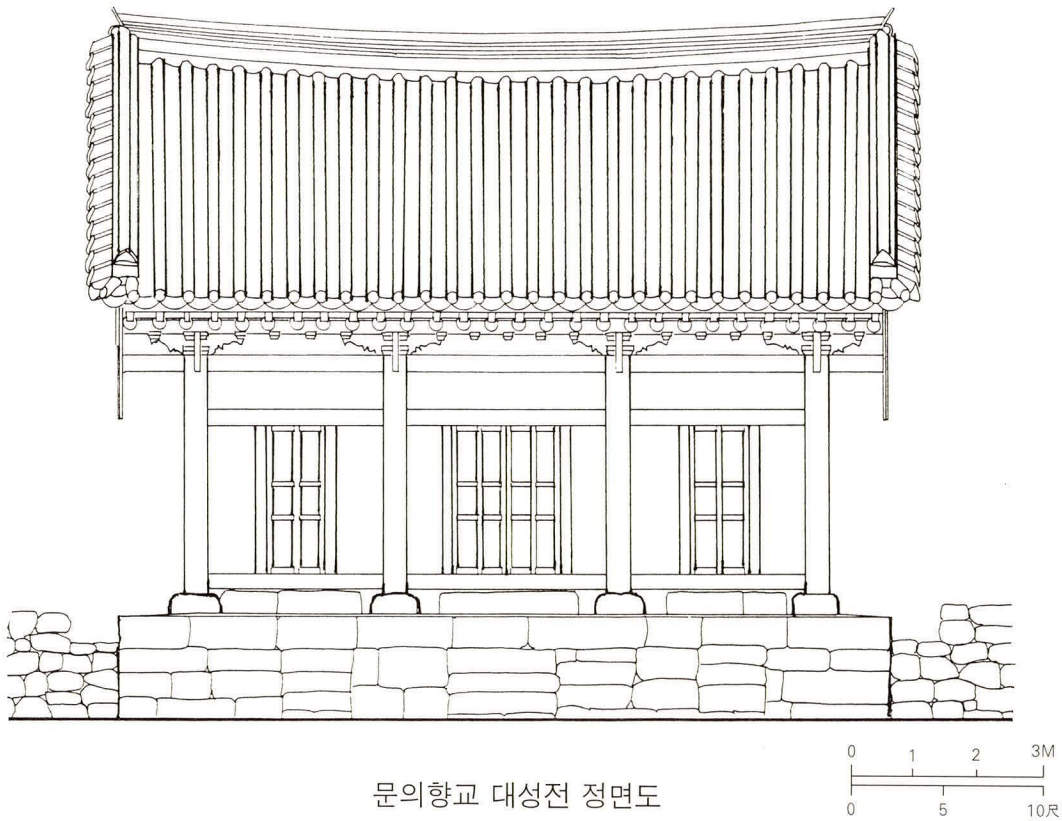


영산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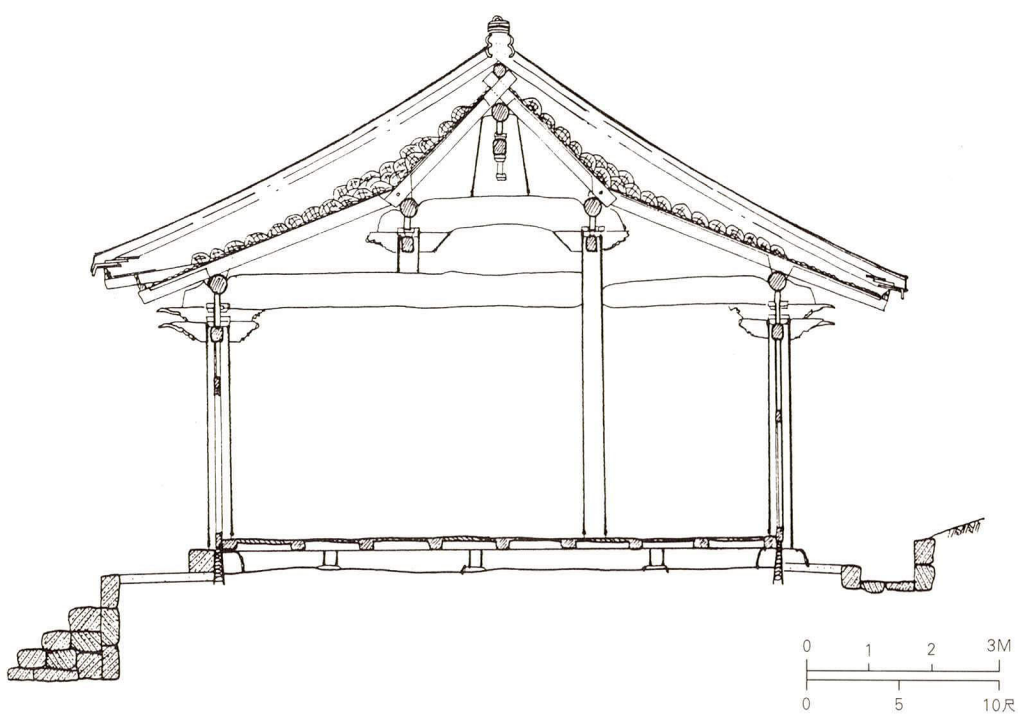
34. 문의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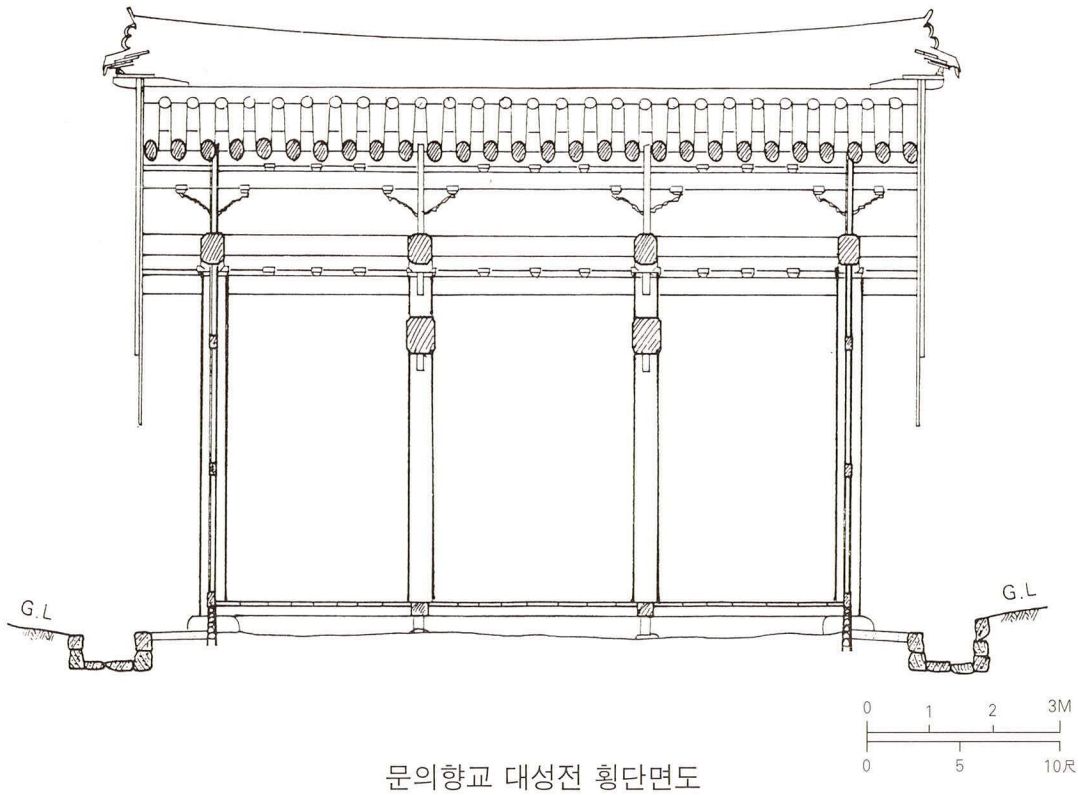
문의향교 대성전 평면도



문의향교 대성전 정면도



문의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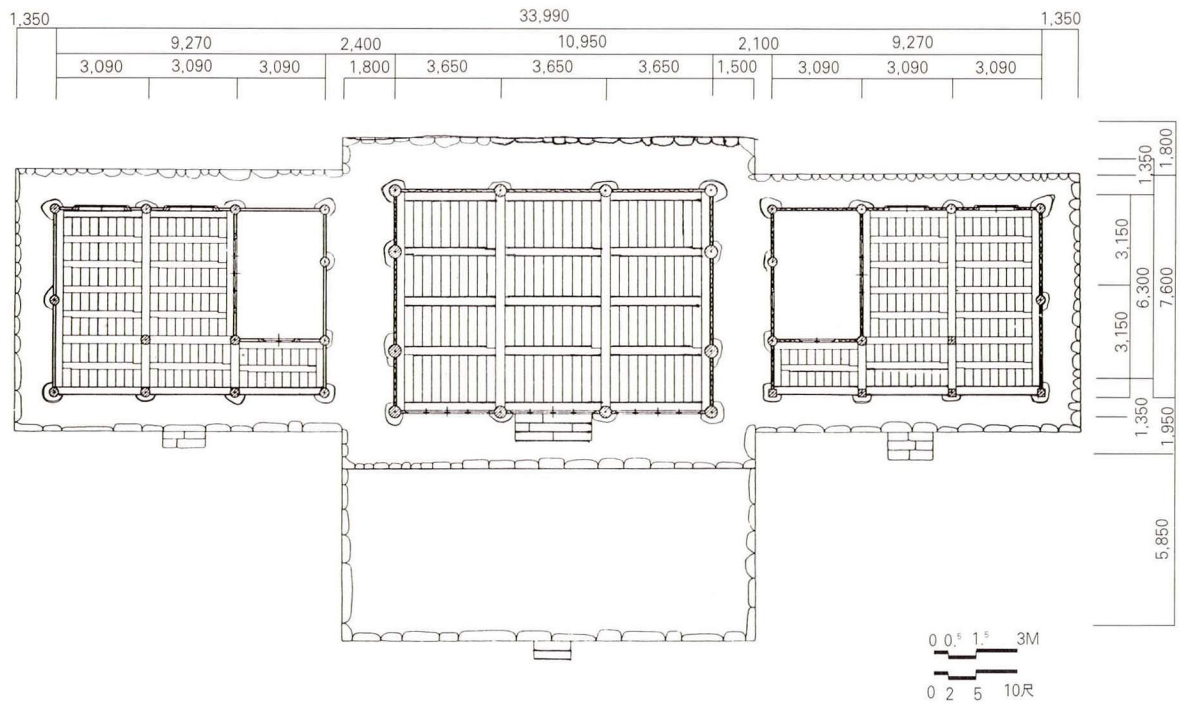


문의향교 대성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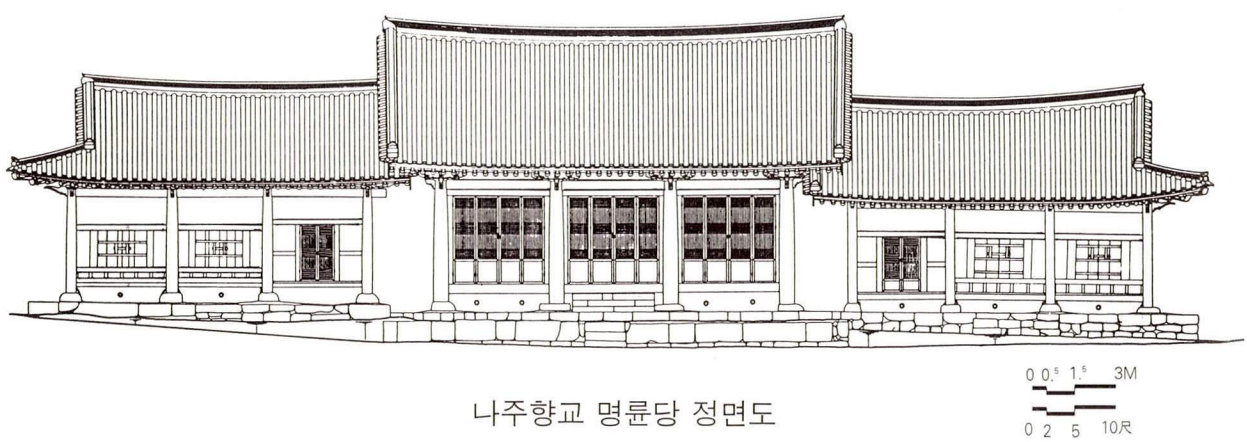
(2) 명륜당(明倫堂)

1. 나주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익실 좌측면도, 좌익실 우측면도, 배면도, 우익실 우측면도, 중당 종단면도, 좌익실 종단면도, 우익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2. 고창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3. 김제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4. 여주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5. 전주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6. 단성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앙시・와복도
7. 인동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8. 흥덕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9. 대정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0. 옥천향교 명륜당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1. 익산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2. 통영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13. 문경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14. 성주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15. 청양향교 명륜당 : 하층 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16. 순천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17. 강릉향교 명륜당 : 하층 평면도, 상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18. 곡성향교 명륜당 : 하층 평면도, 상층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9. 정산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0. 동래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1. 경주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22. 양양향교 명륜당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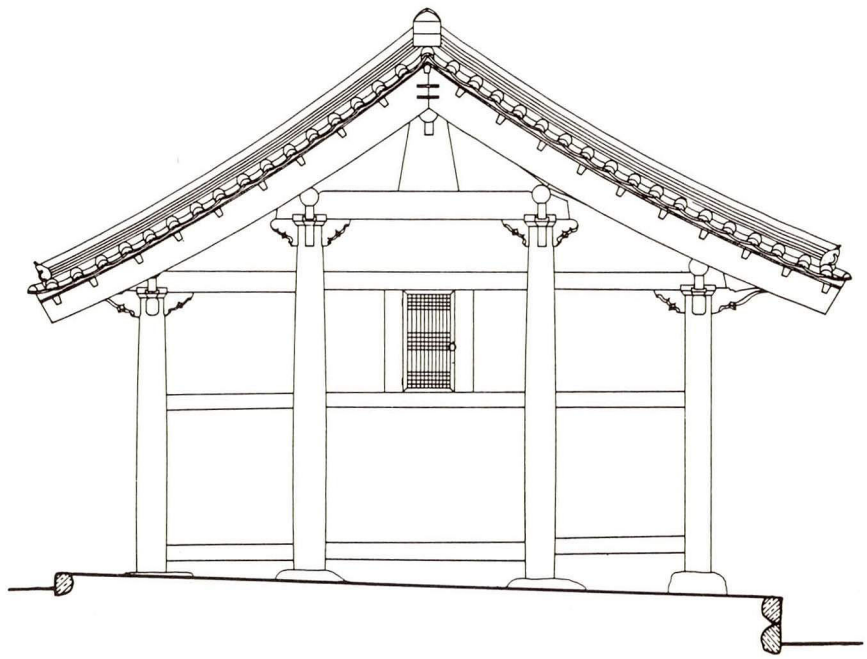
1. 나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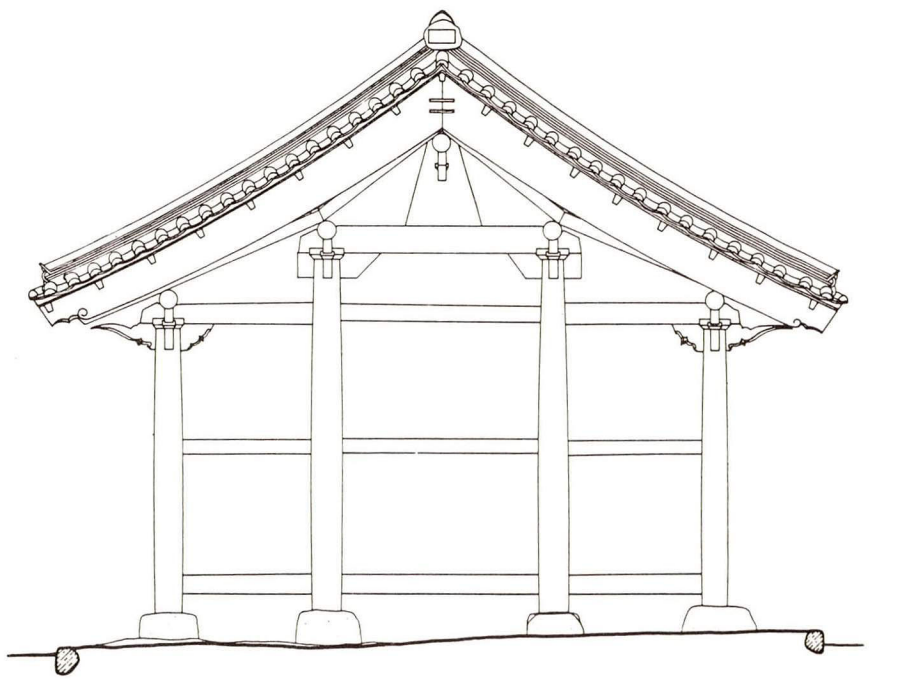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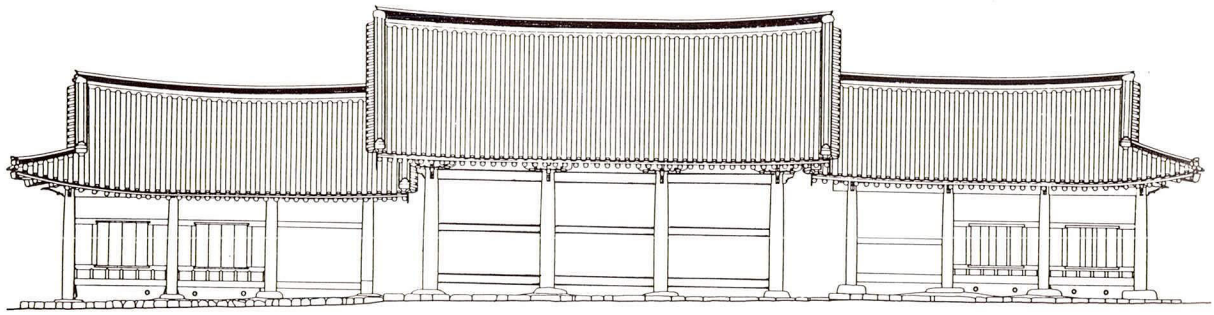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정면도



나주향교 명륜당 우익실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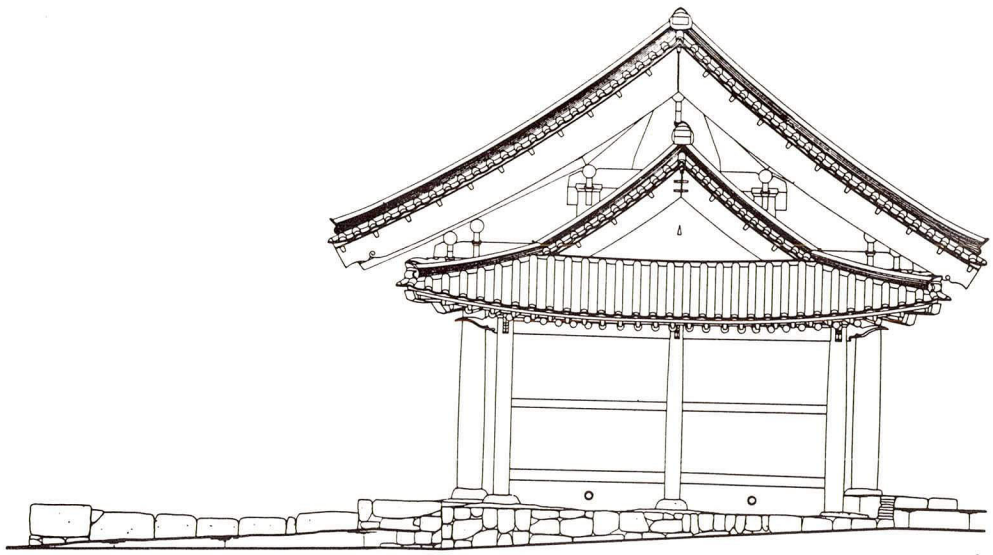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좌익실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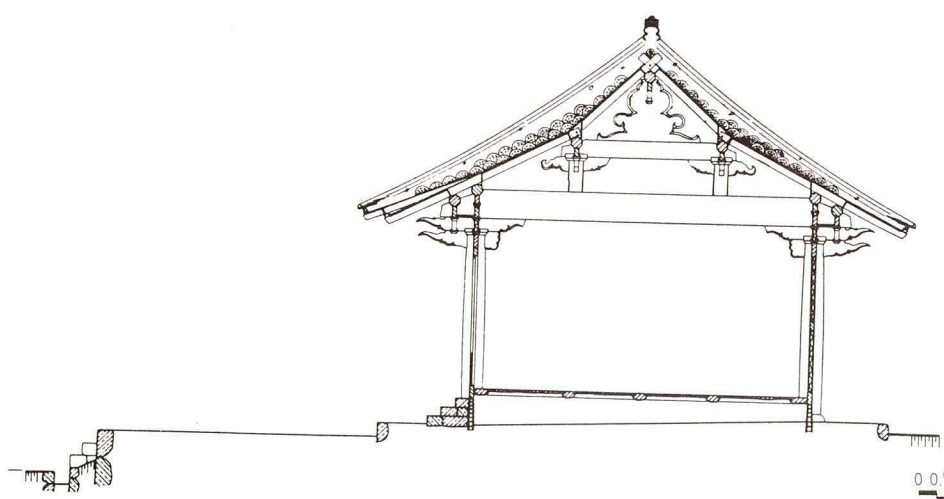
0 0.5 1.5 3M
0 2 5 10尺

나주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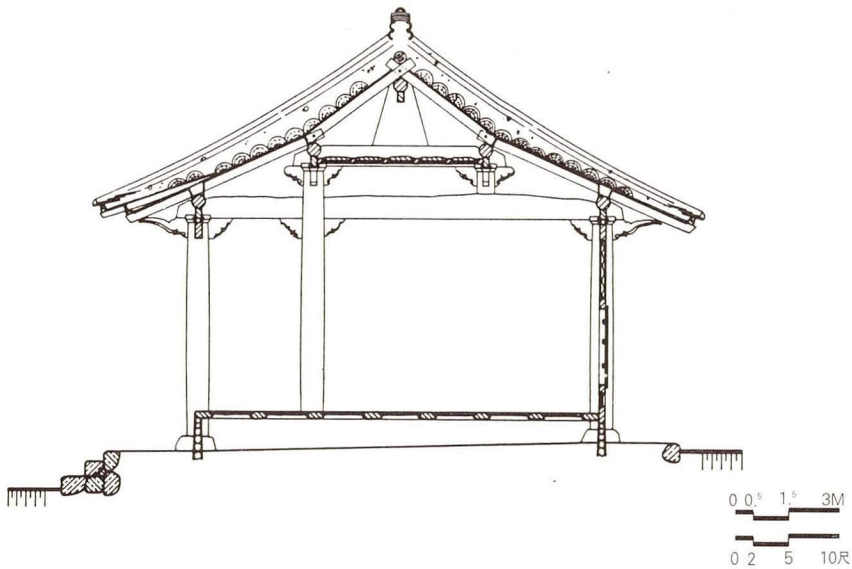
0 0.5 1.5 3M
0 2 5 10尺

나주향교 명륜당 우익실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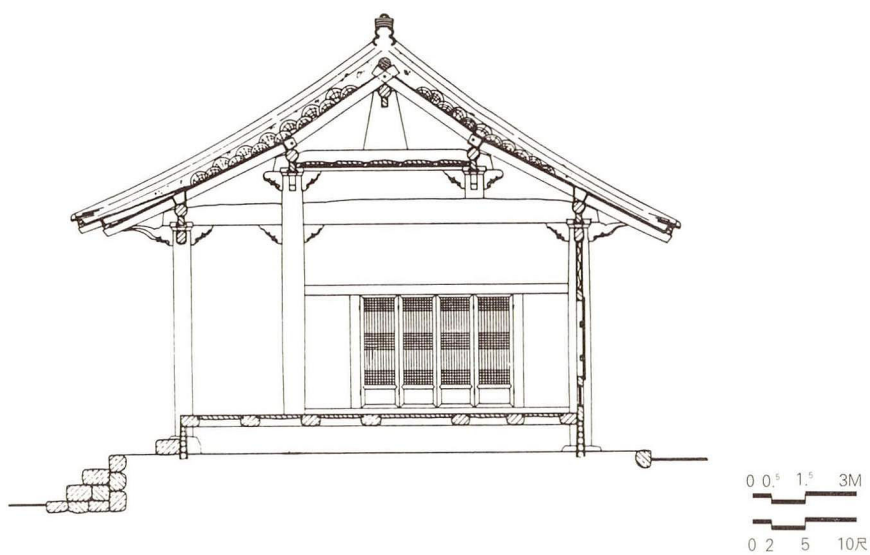


0 0.5 1.5 3M
0 2 5 10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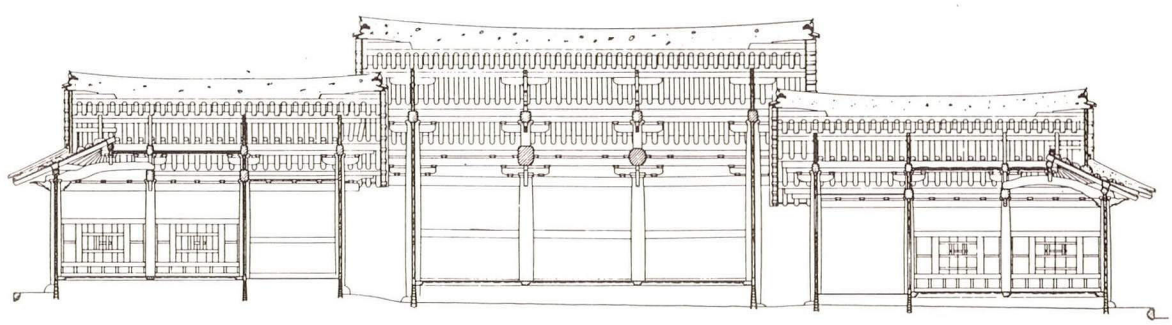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중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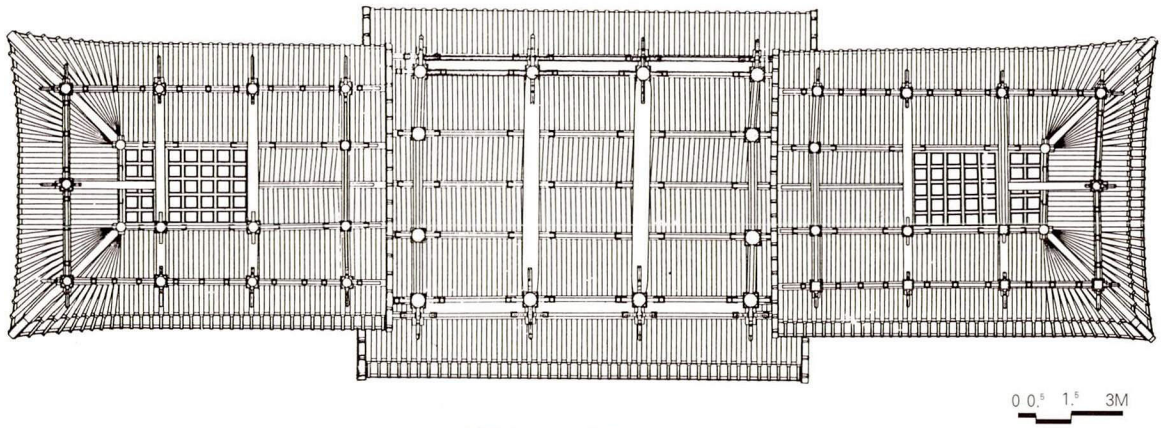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좌익실 종단면도



나주향교 명륜당 우익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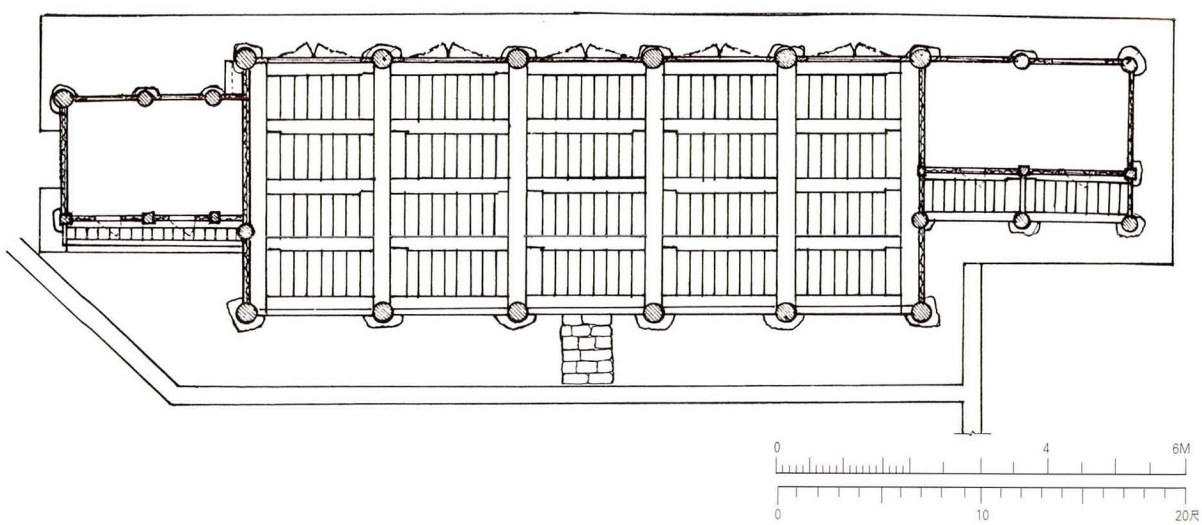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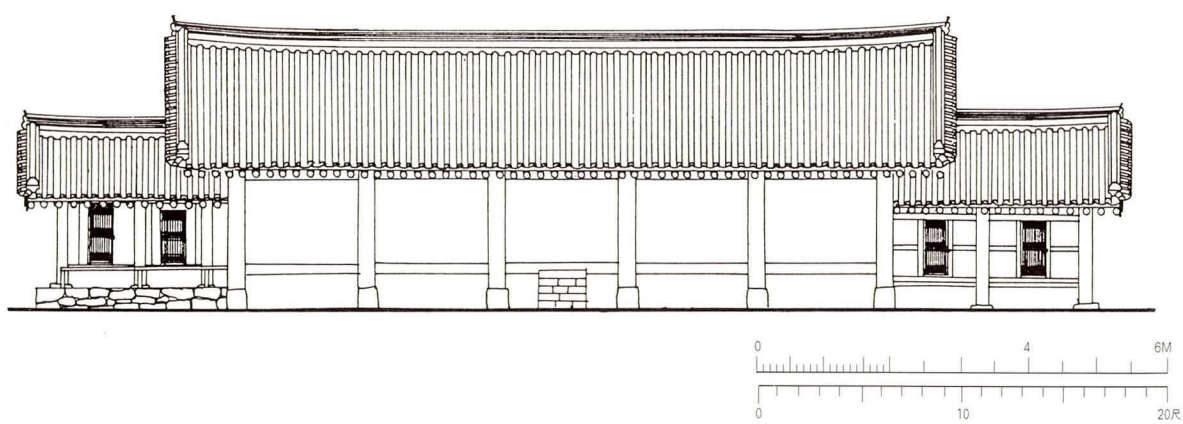


나주향교 명륜당 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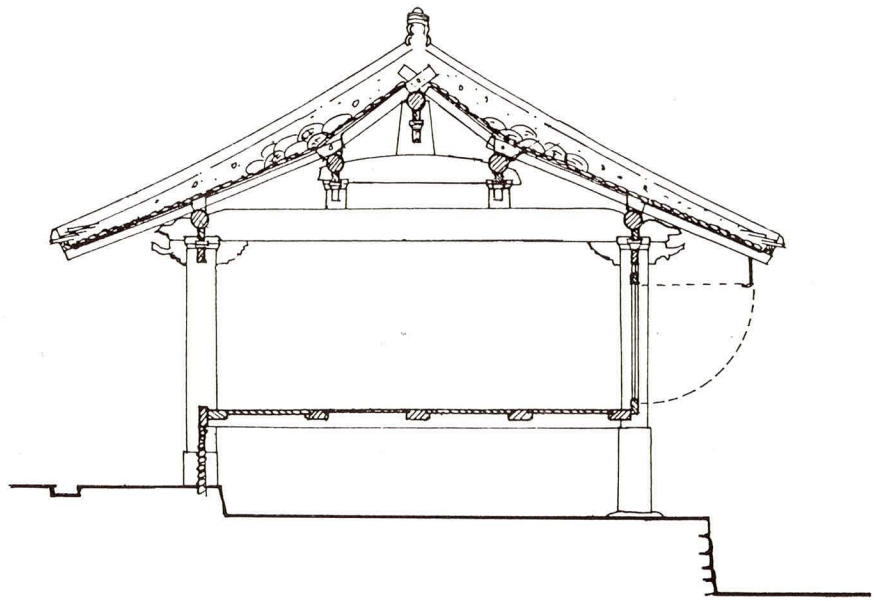
2. 고창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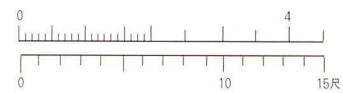
고창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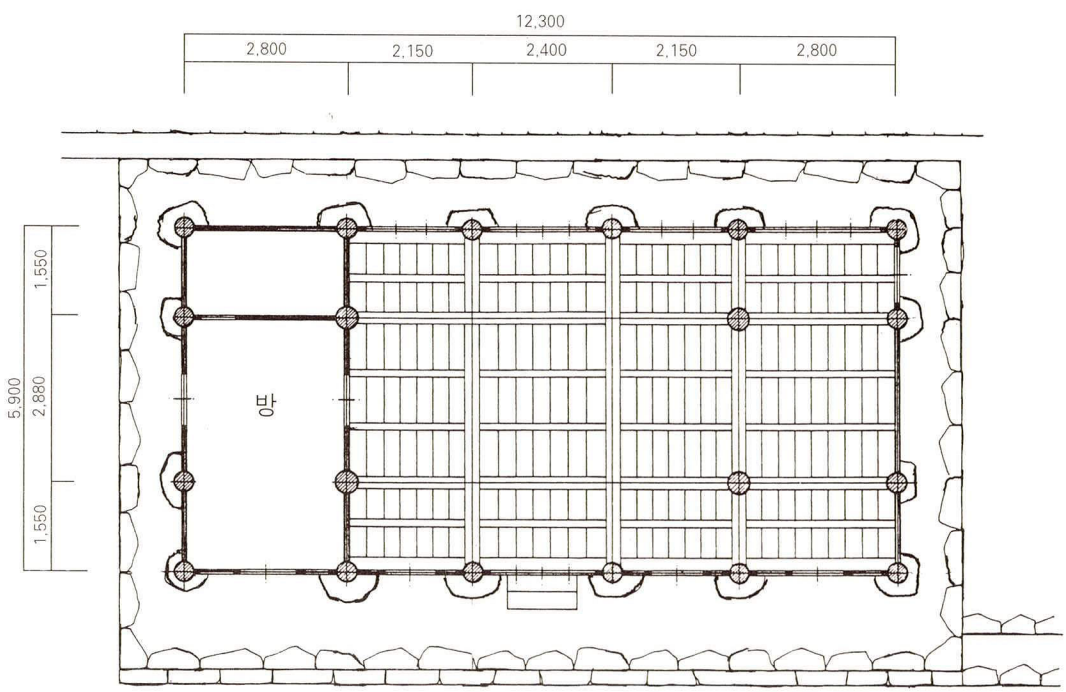
고창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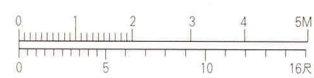
고창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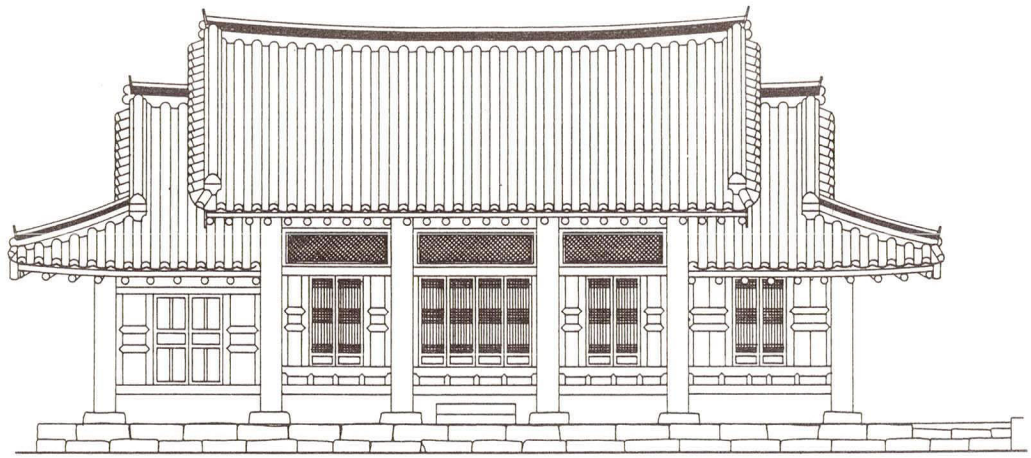


3. 김제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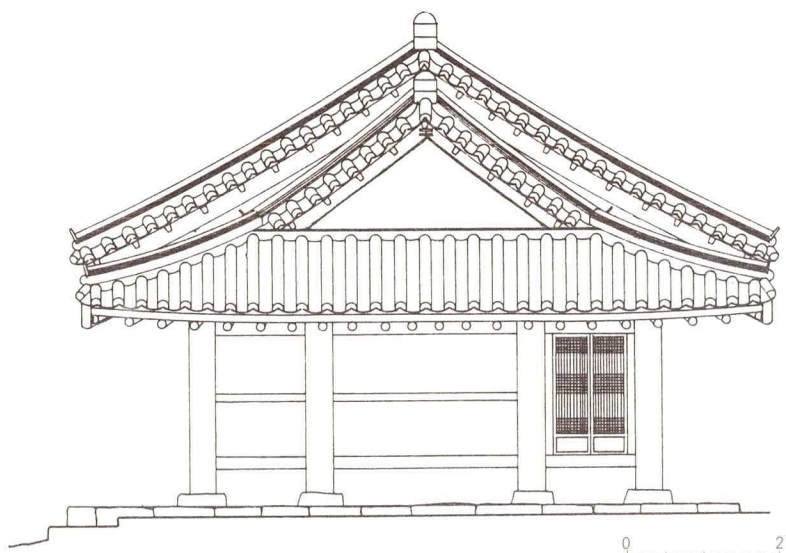
김제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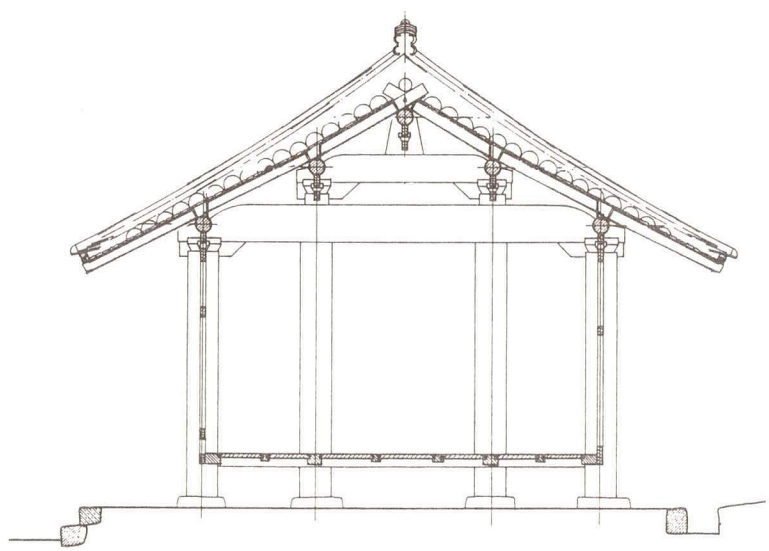
김제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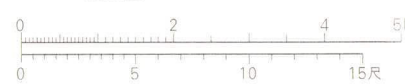


김제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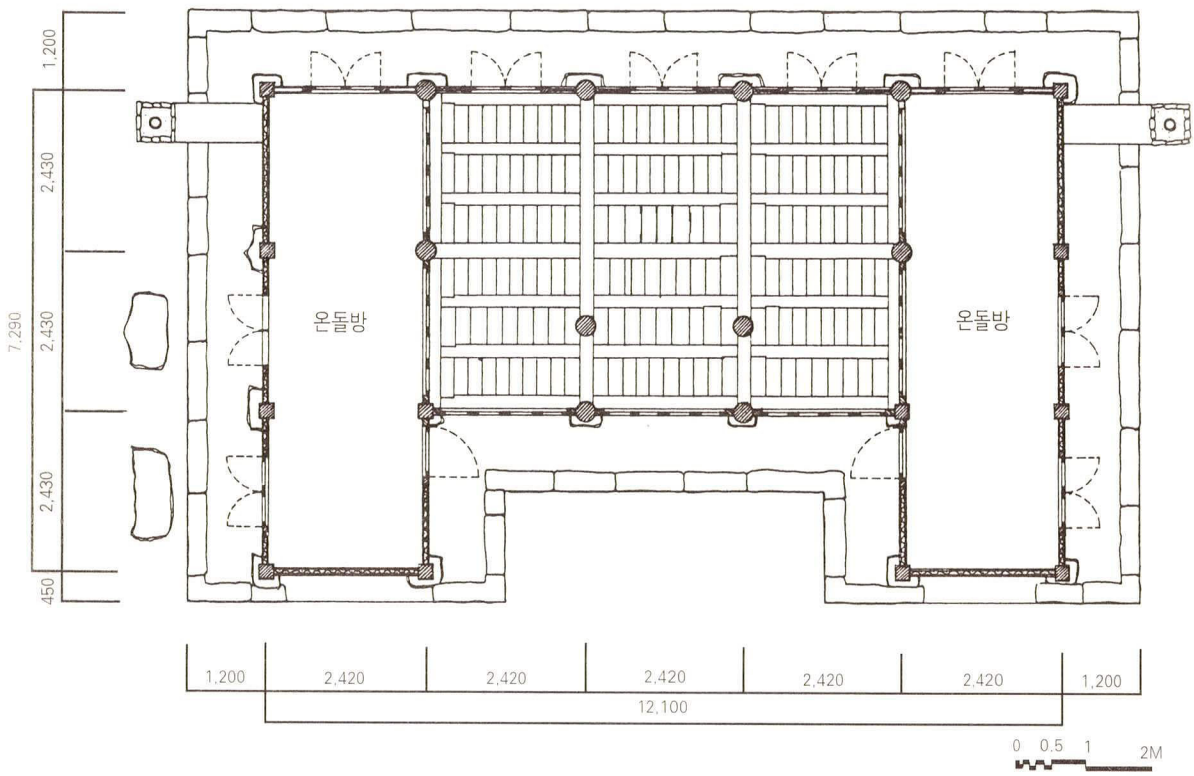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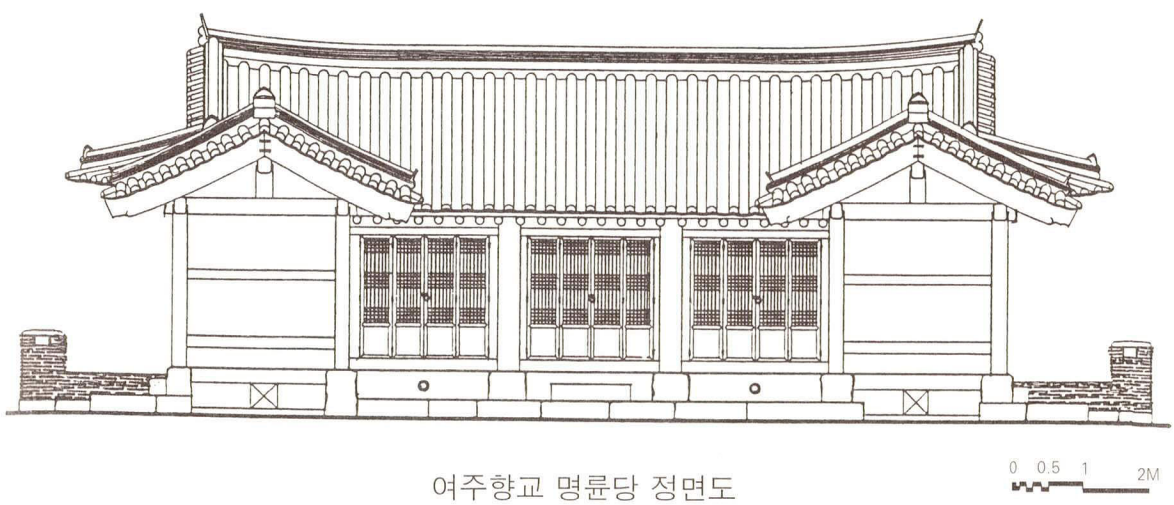
김제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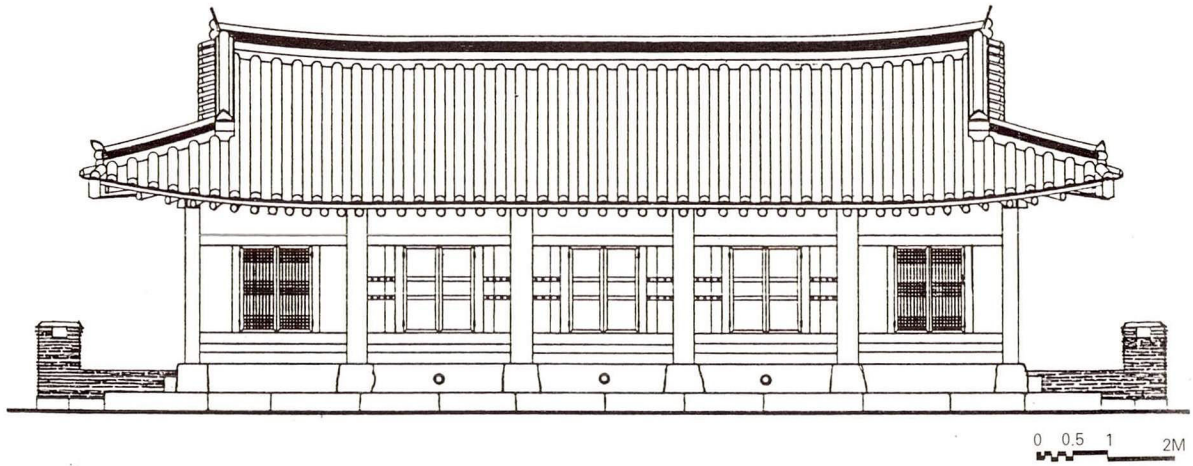
4. 여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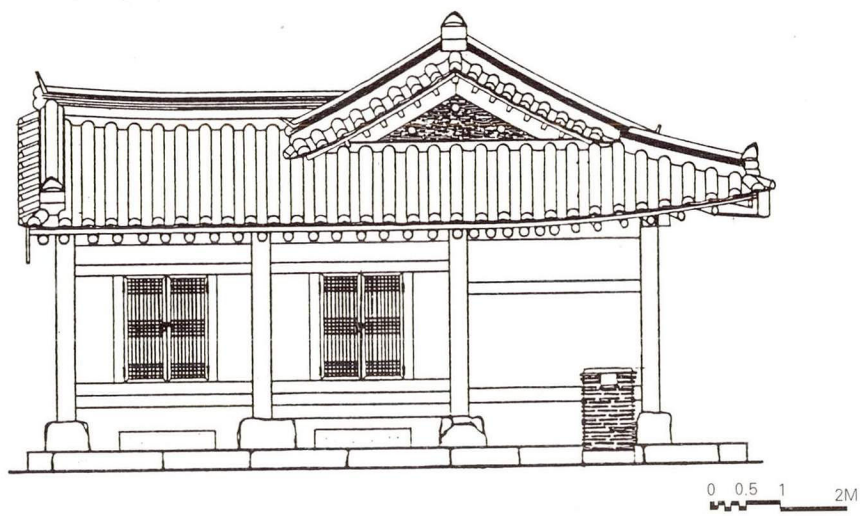
여주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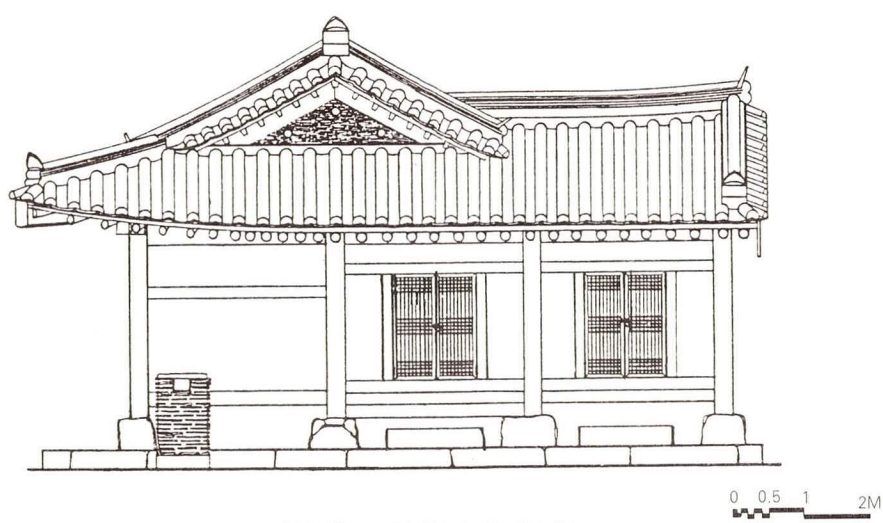
여주향교 명륜당 정면도



여주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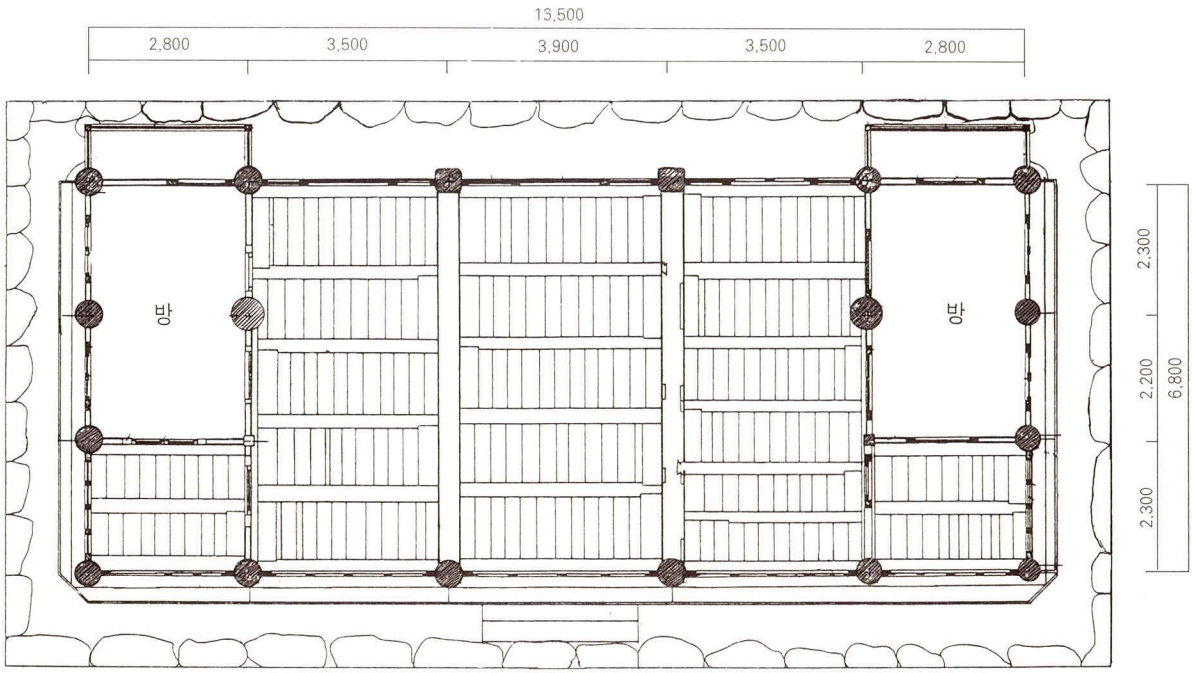


여주향교 명륜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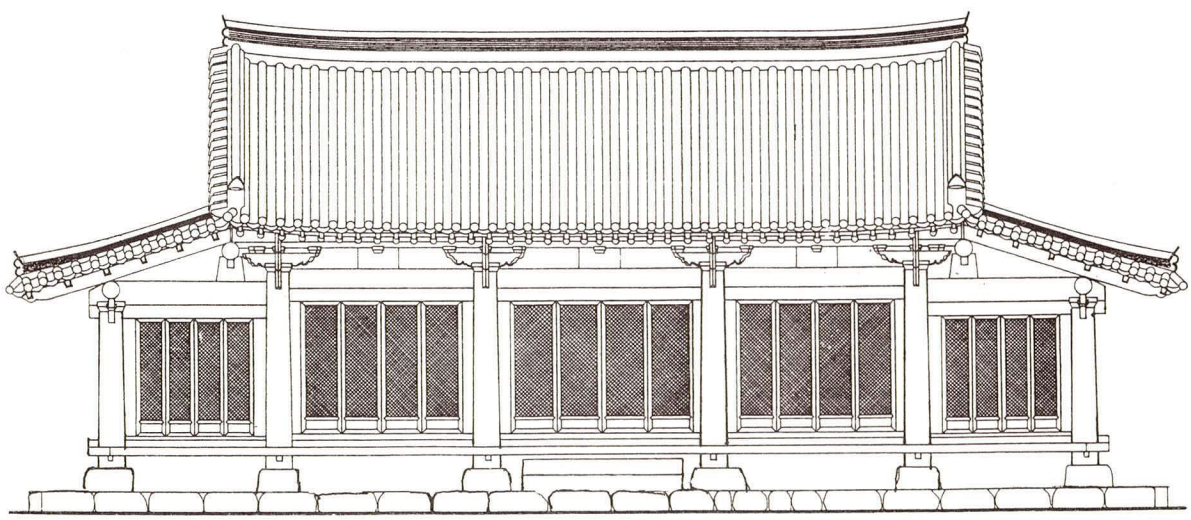


여주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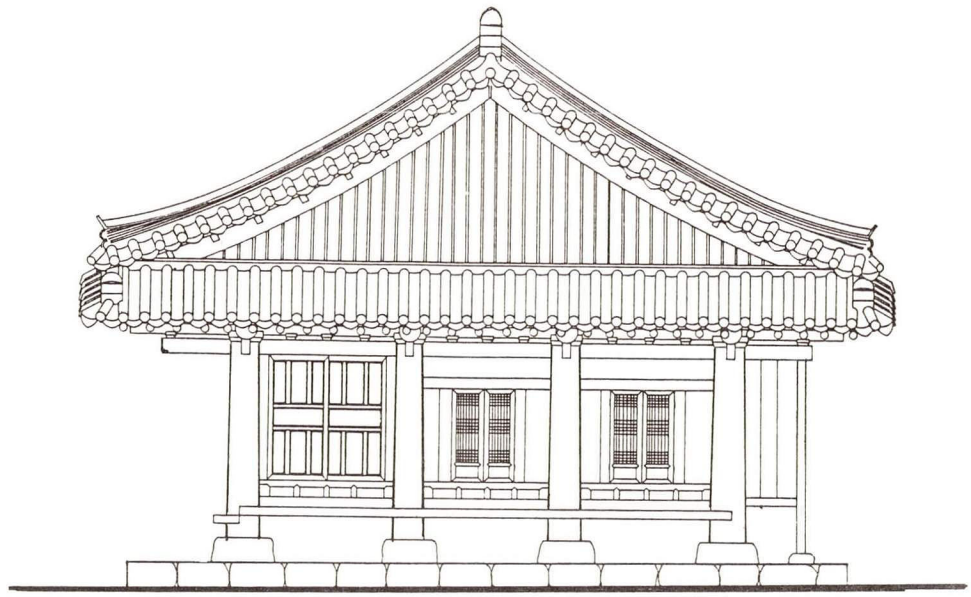
5. 전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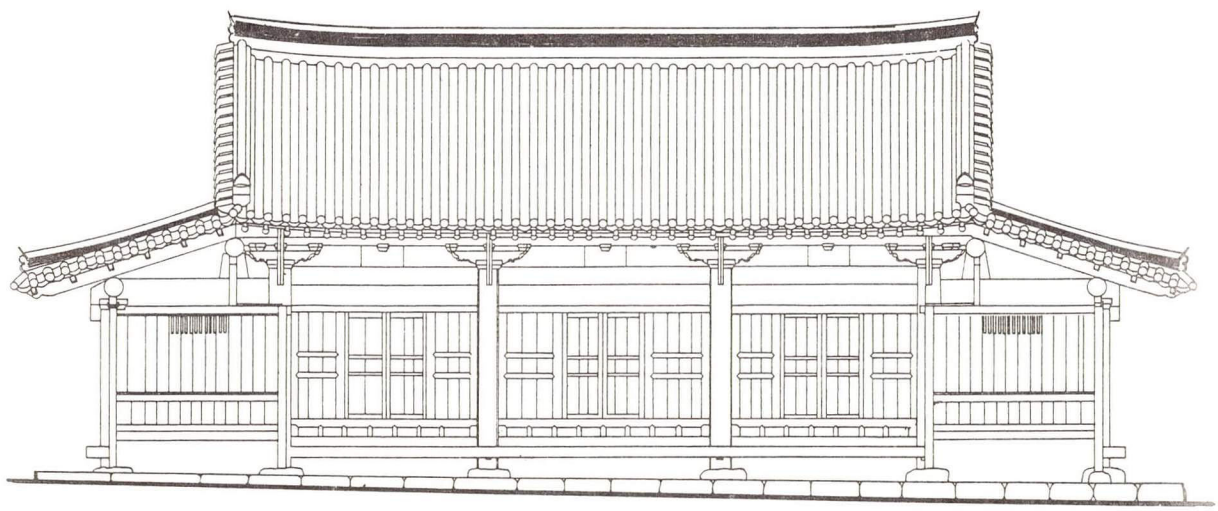
전주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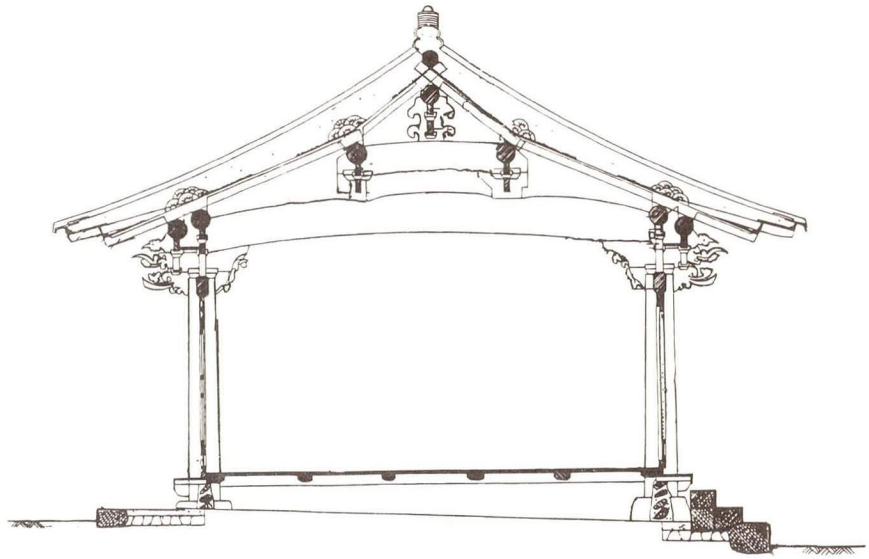
전주향교 명륜당 정면도



전주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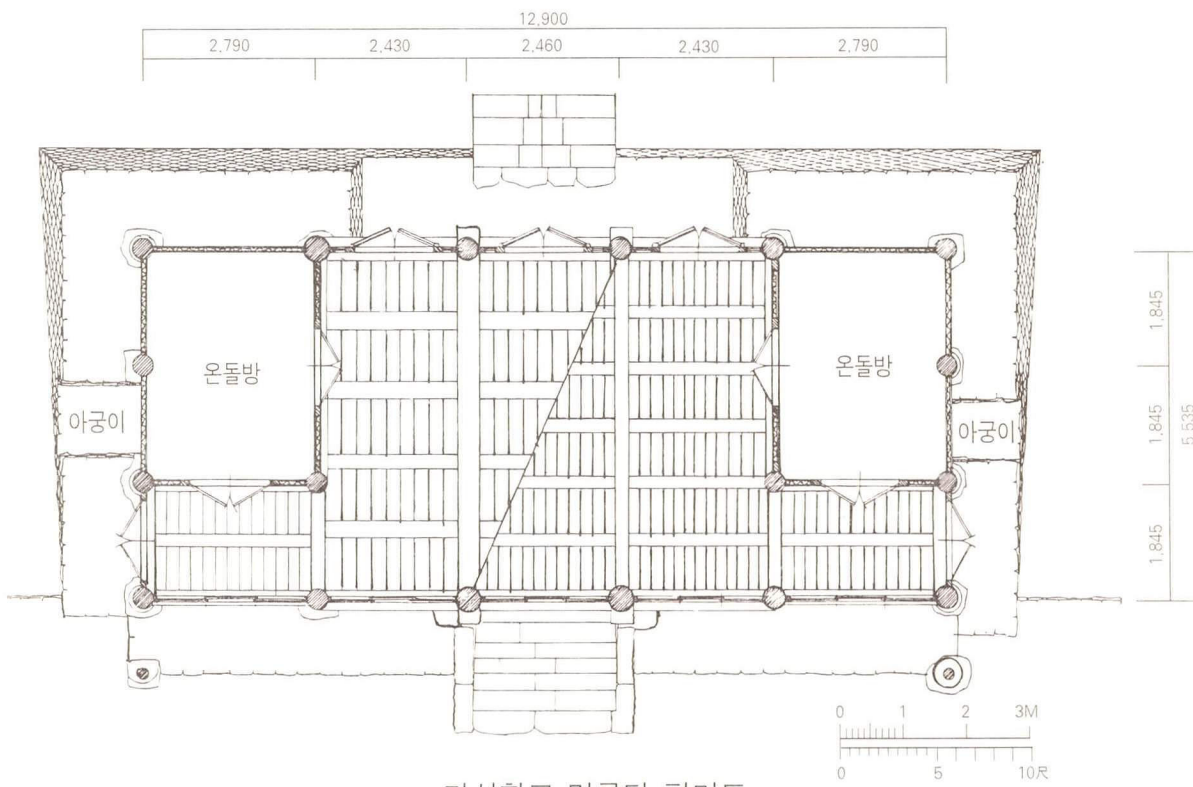


전주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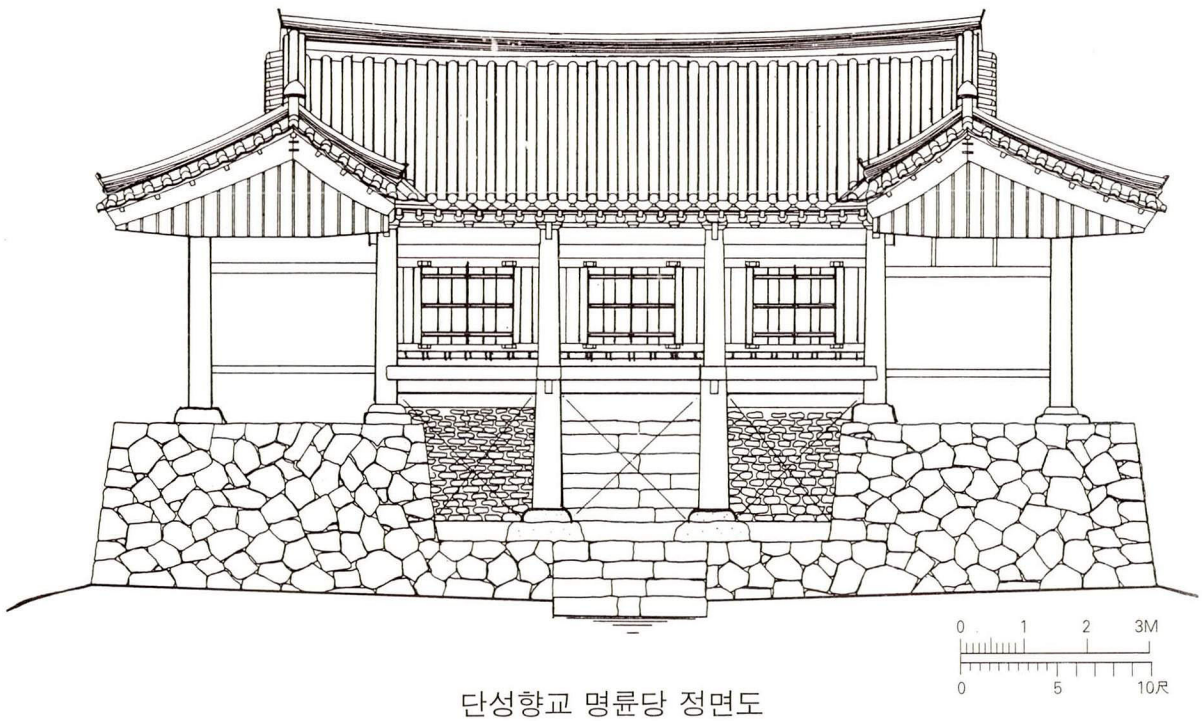


전주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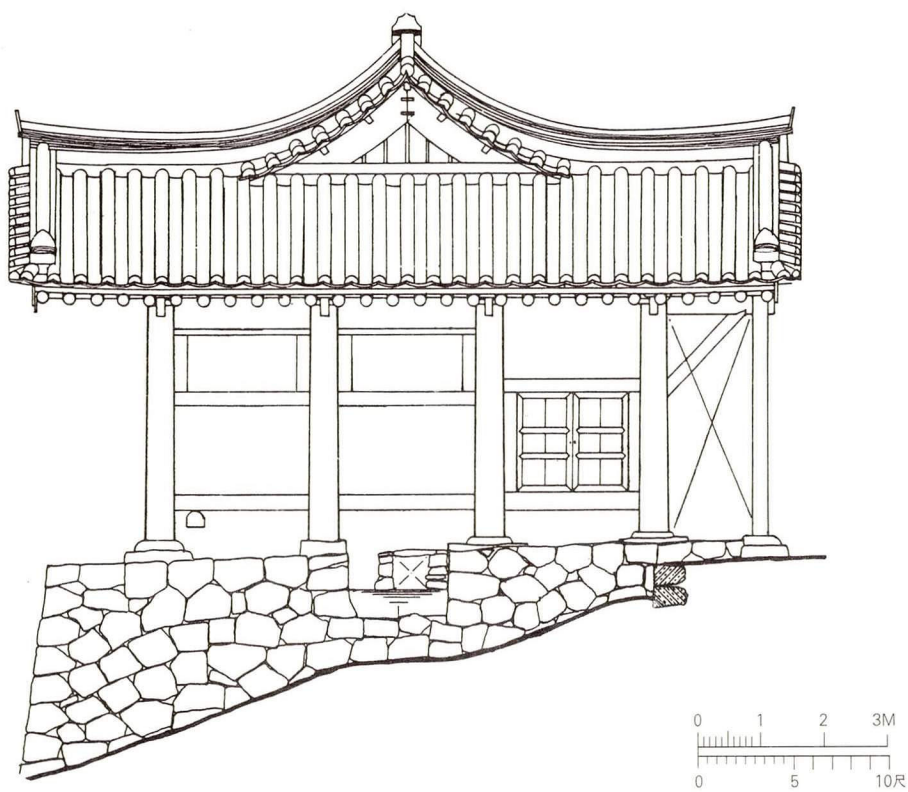
6. 단성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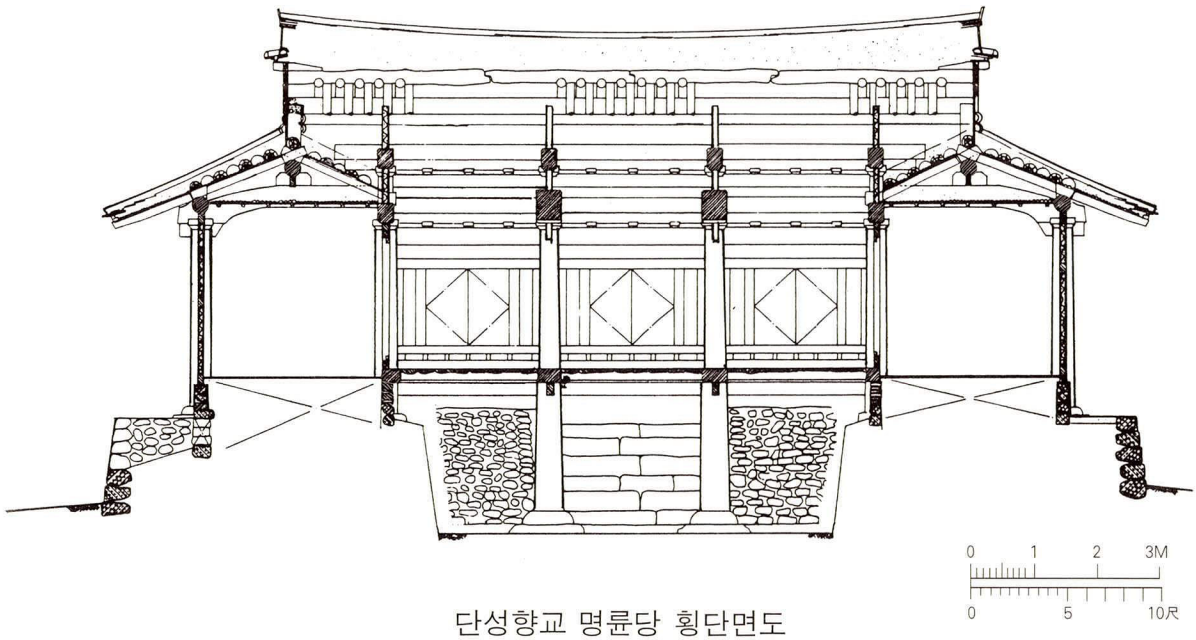
단성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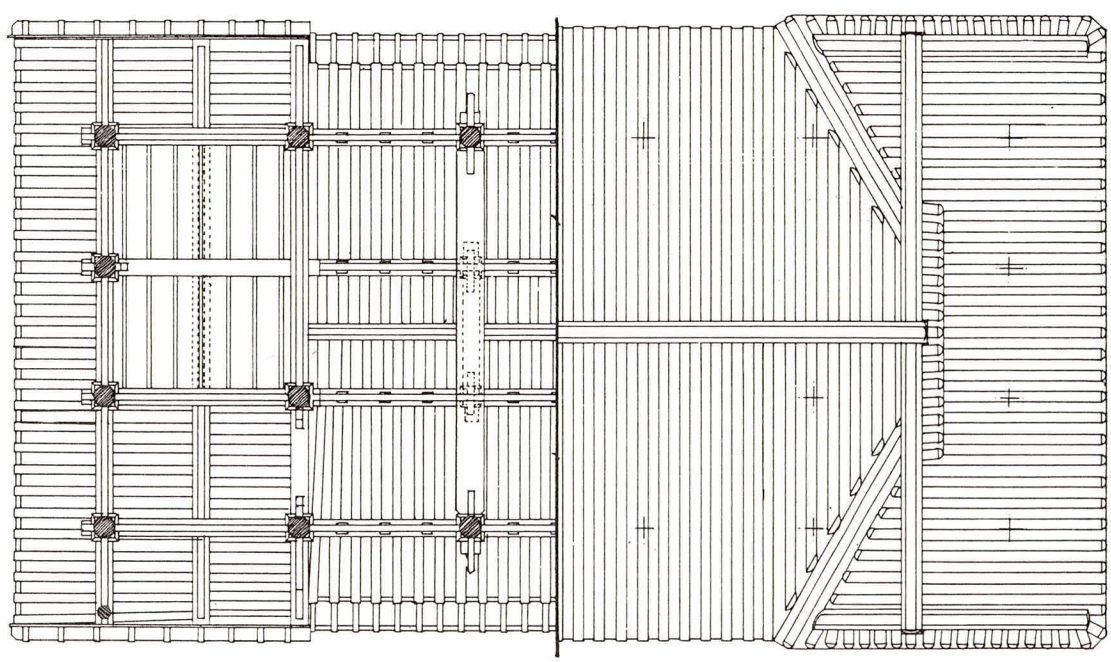
단성향교 명륜당 정면도



단성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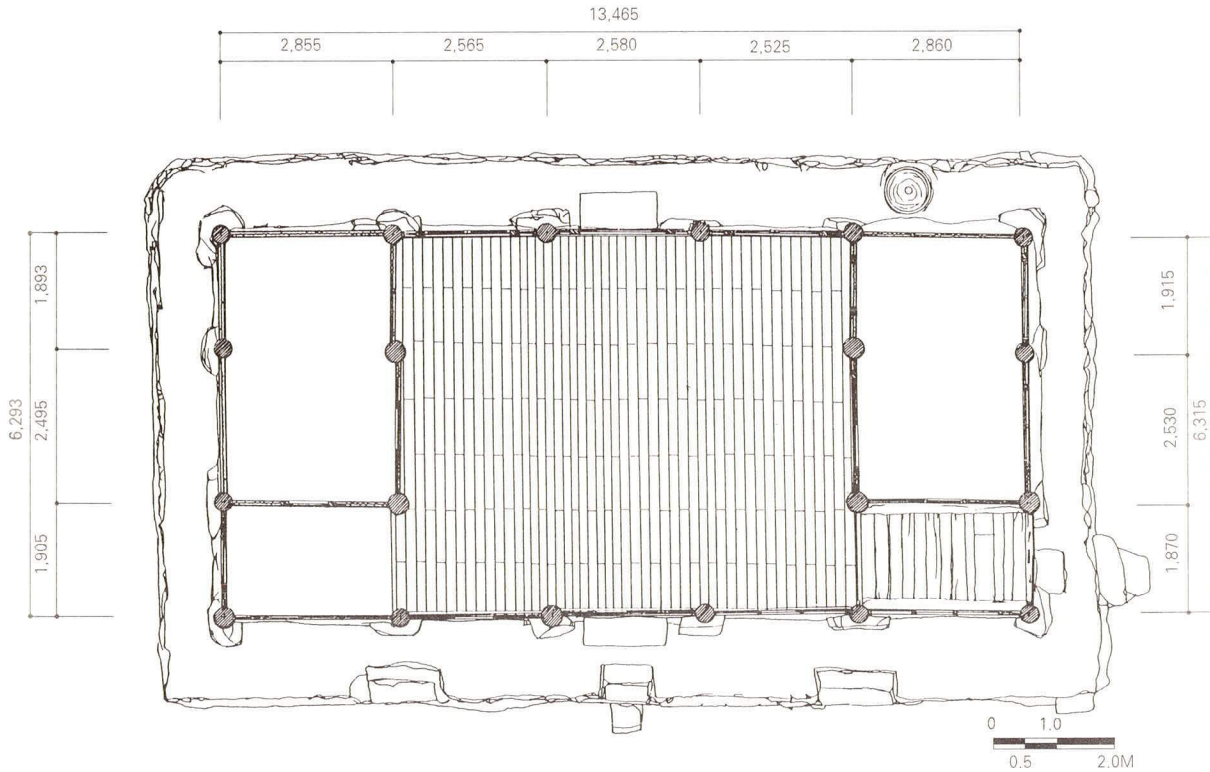


단성향교 명륜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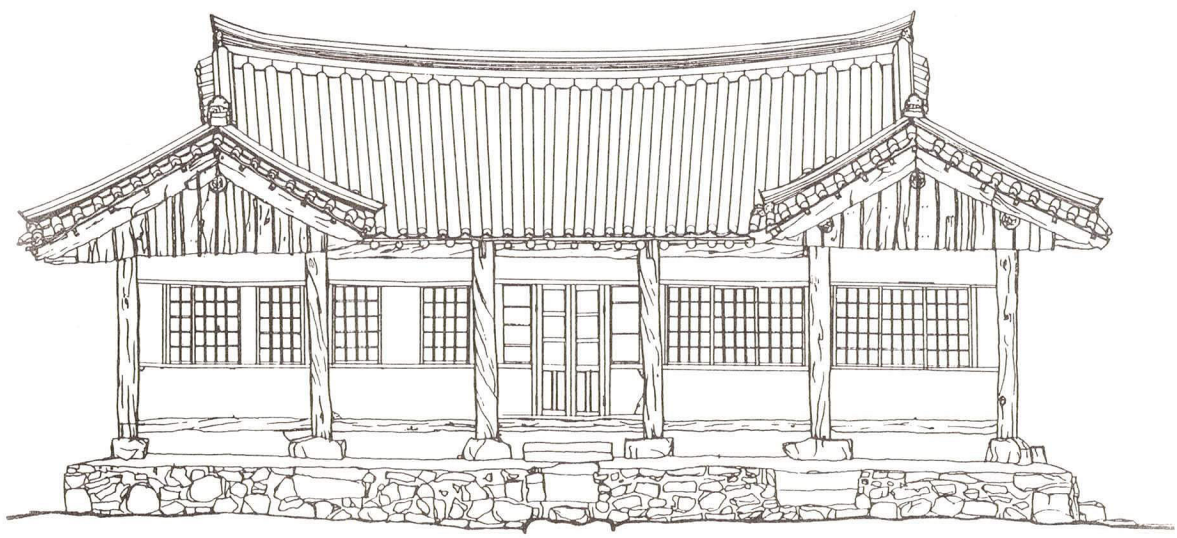


단성향교 명륜당 앙시 · 와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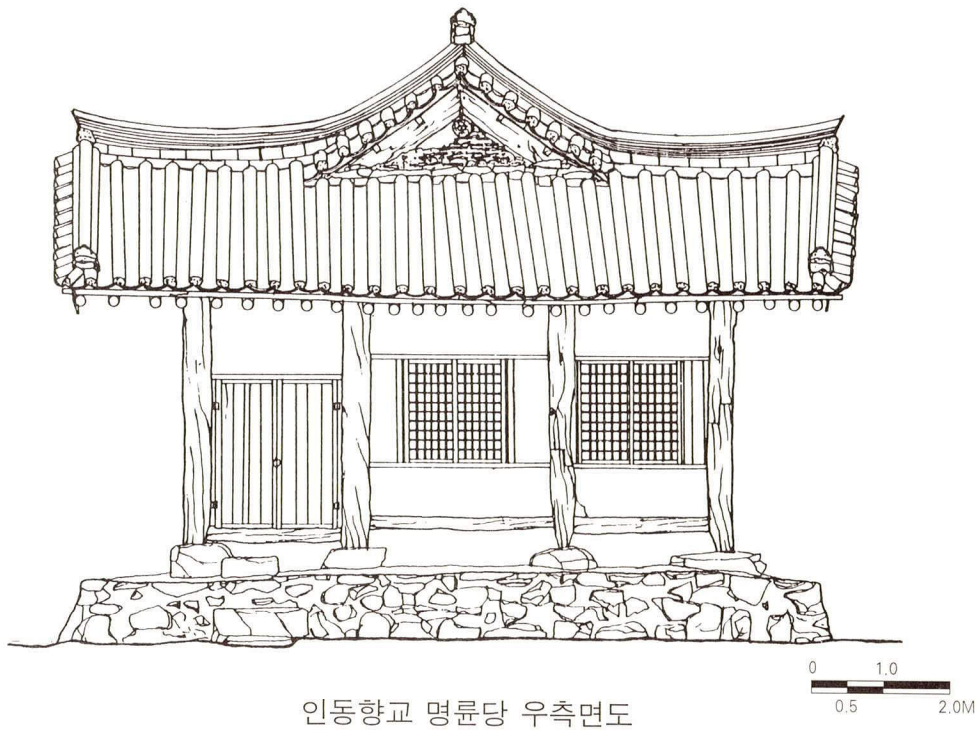
7. 인동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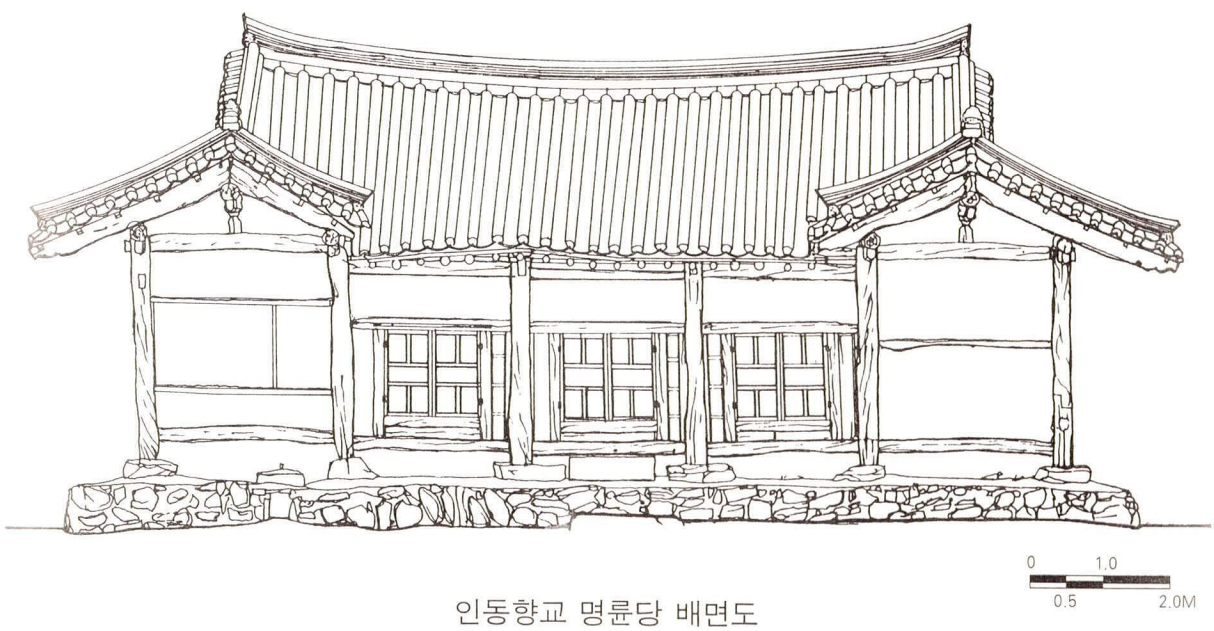
인동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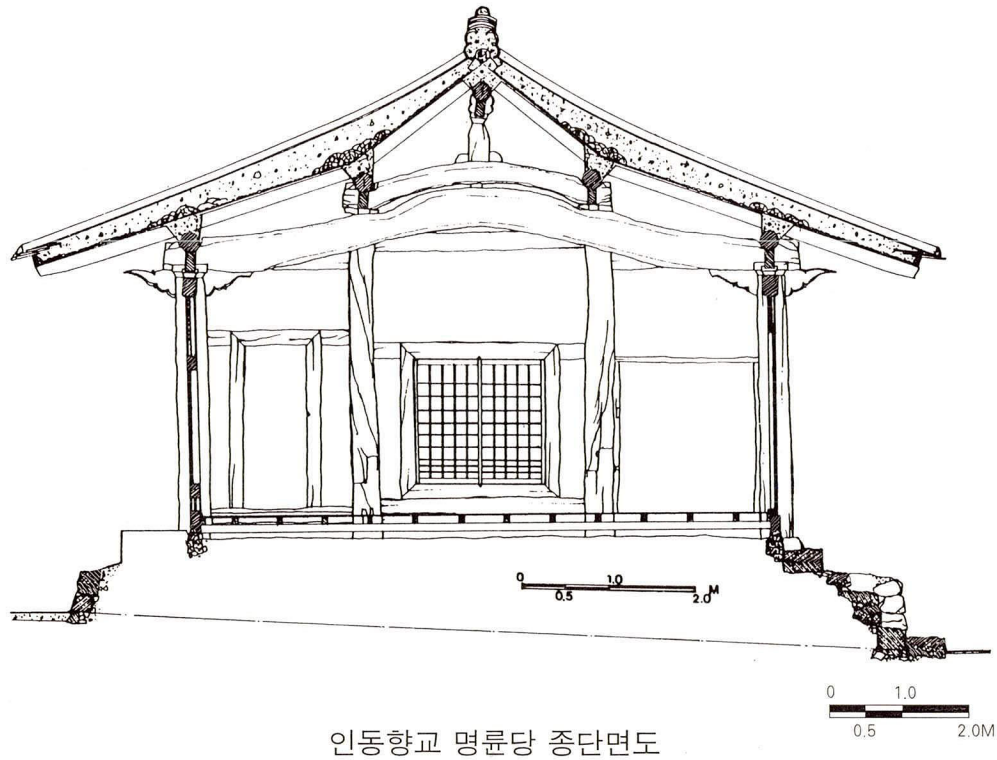
인동향교 명륜당 정면도



인동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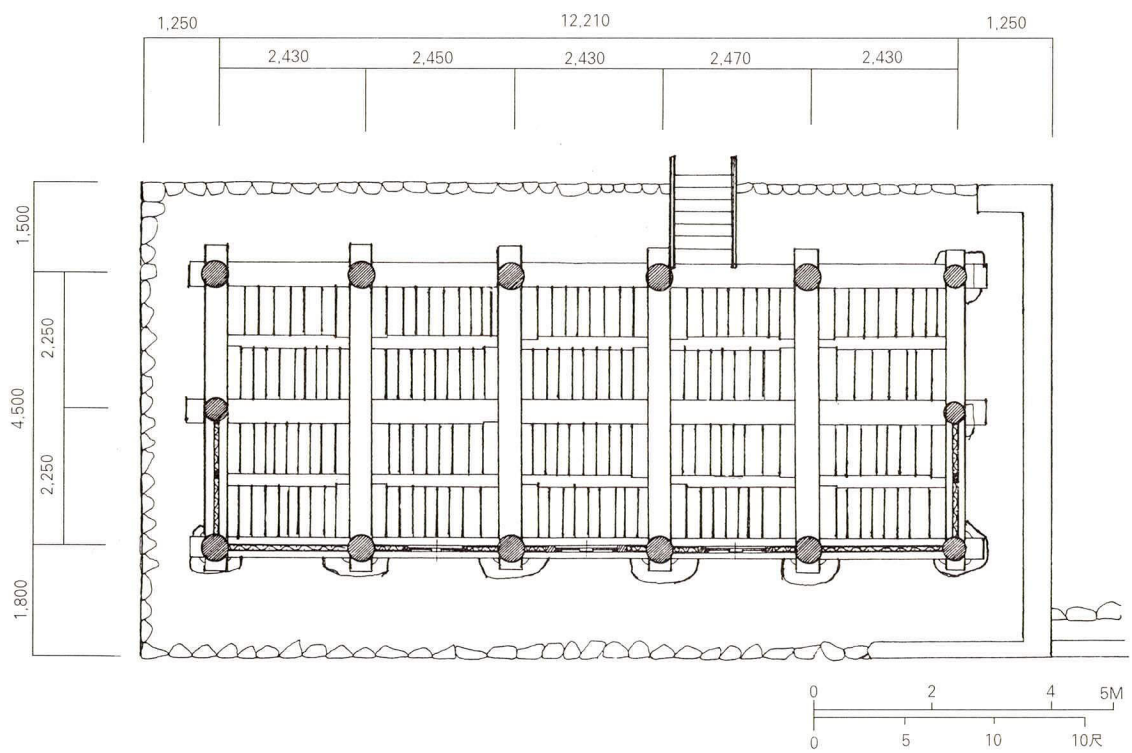


인동향교 명륜당 배면도



인동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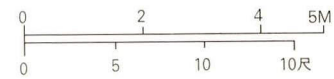
8. 흥덕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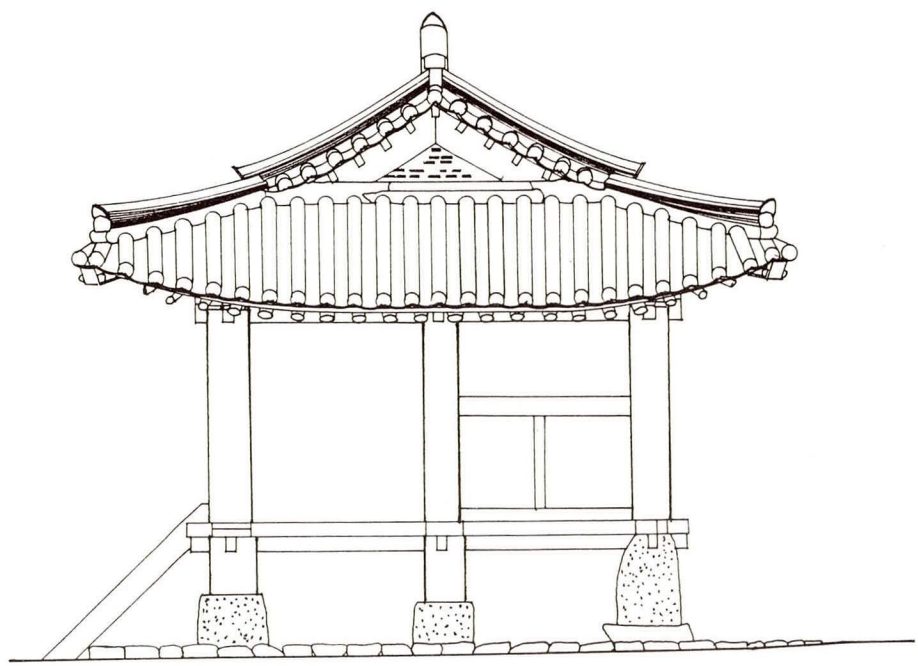


흥덕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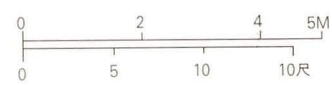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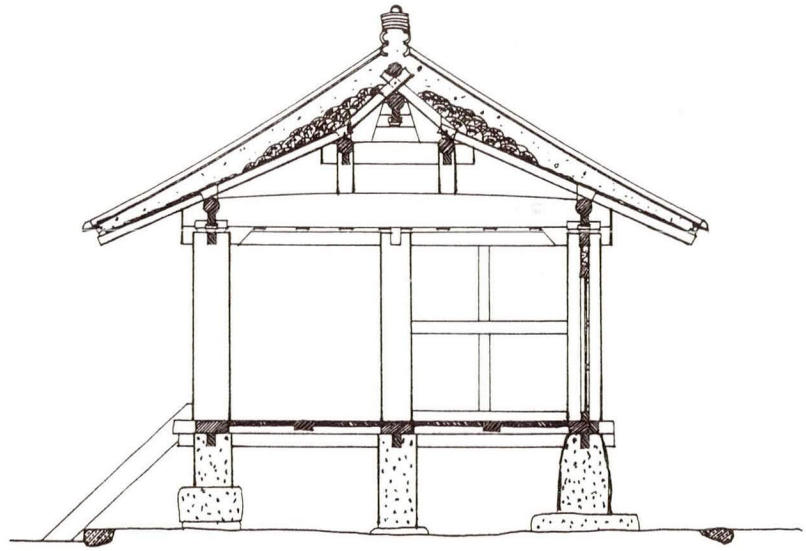
흥덕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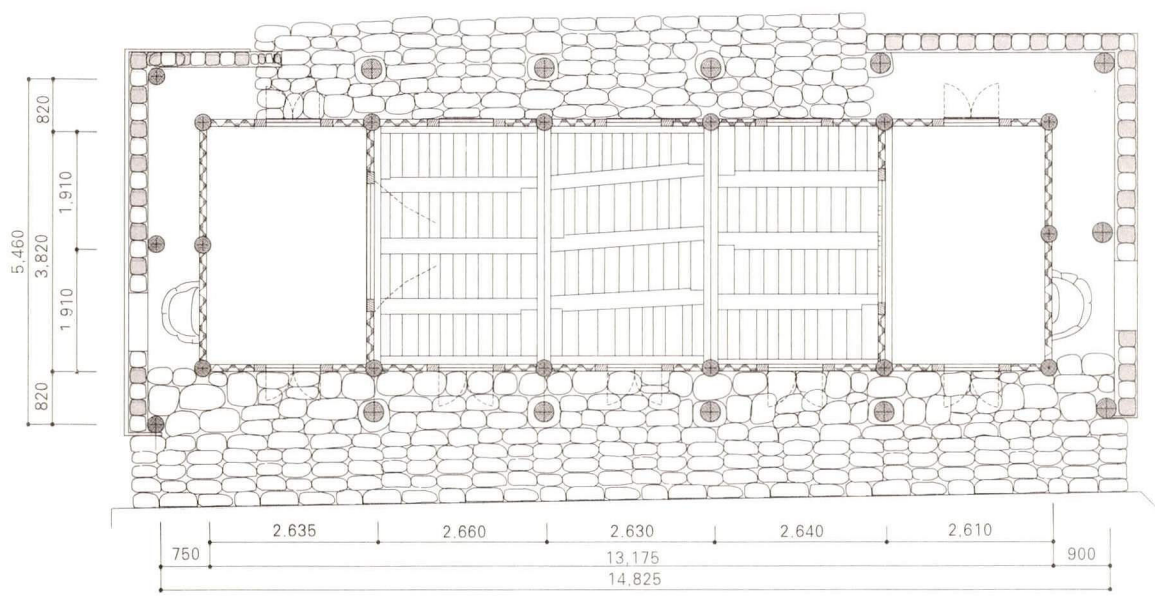
흥덕향교 명륜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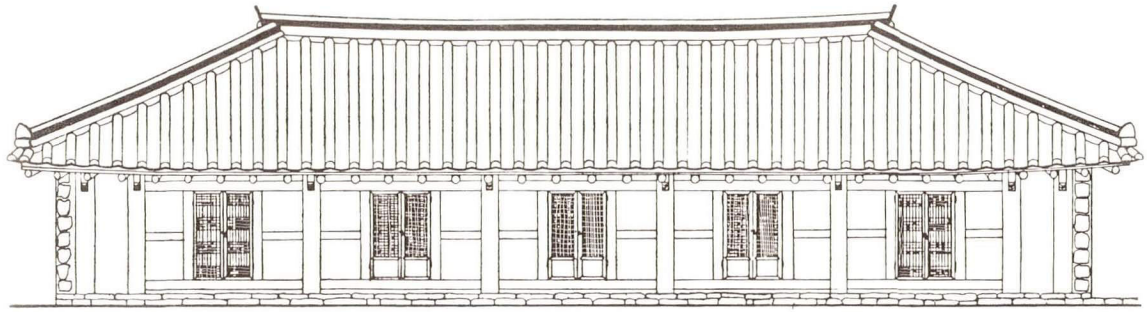


흥덕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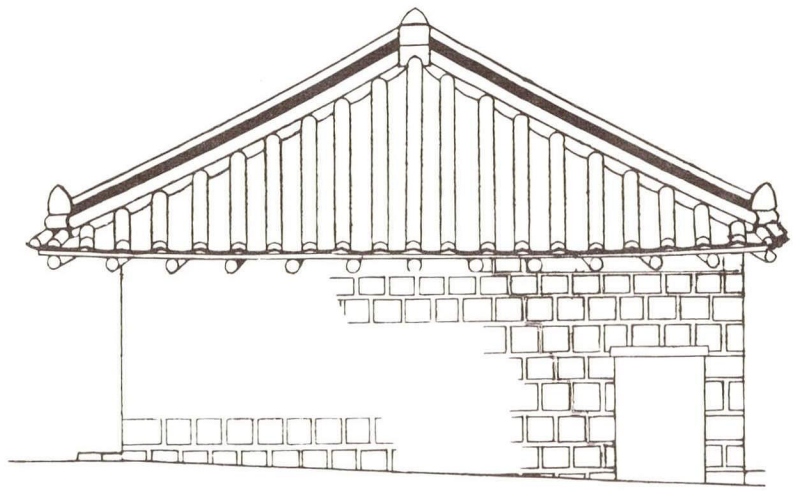
9. 대정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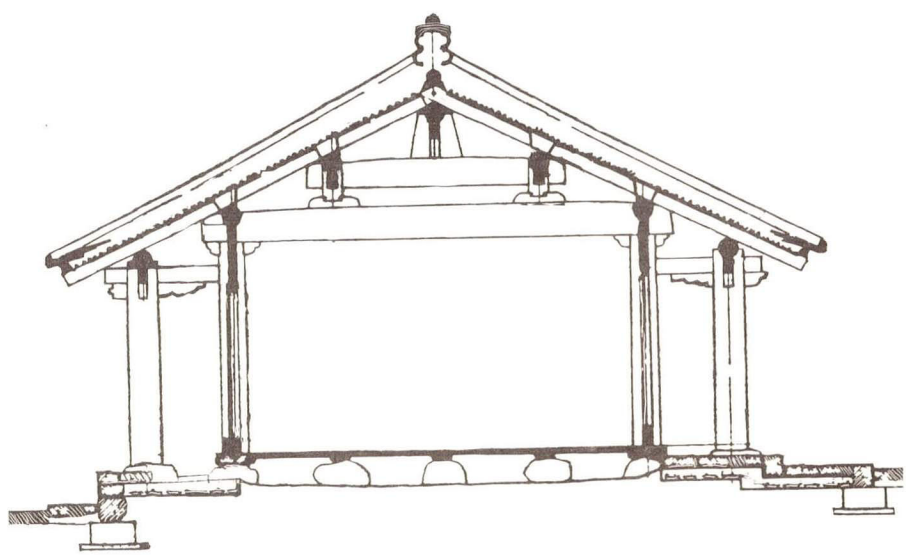
대정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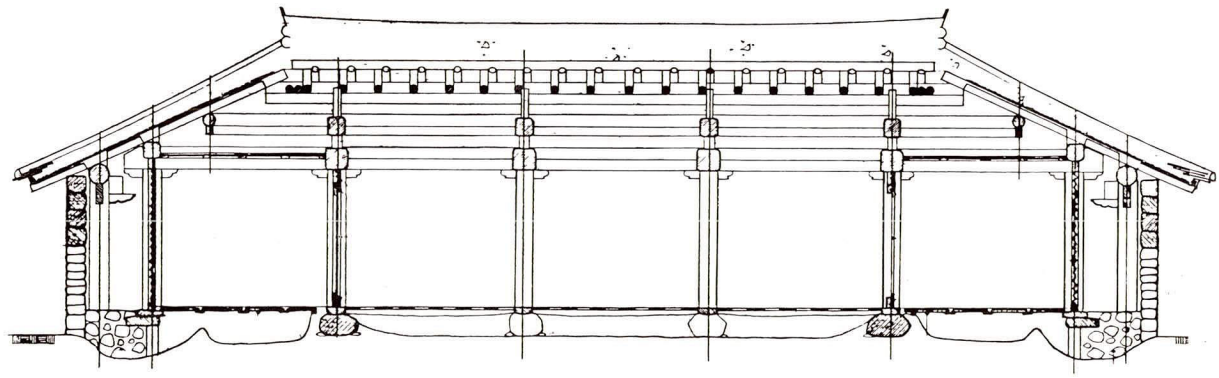
대정향교 명륜당 정면도



대정향교 명륜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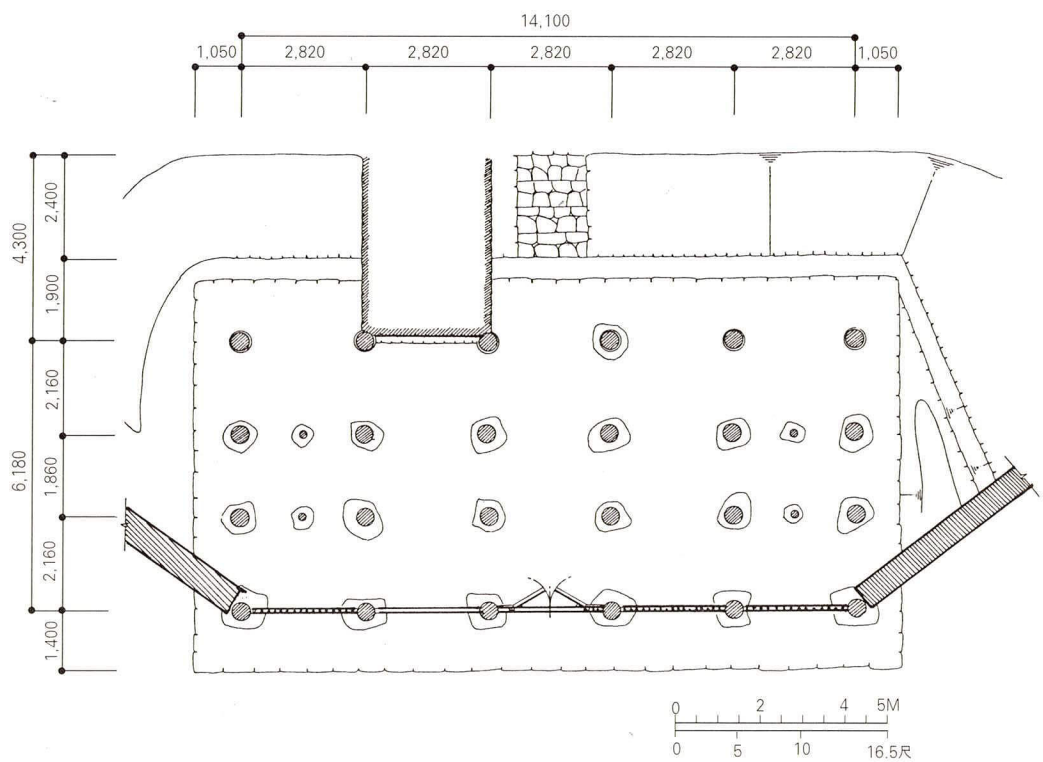


대정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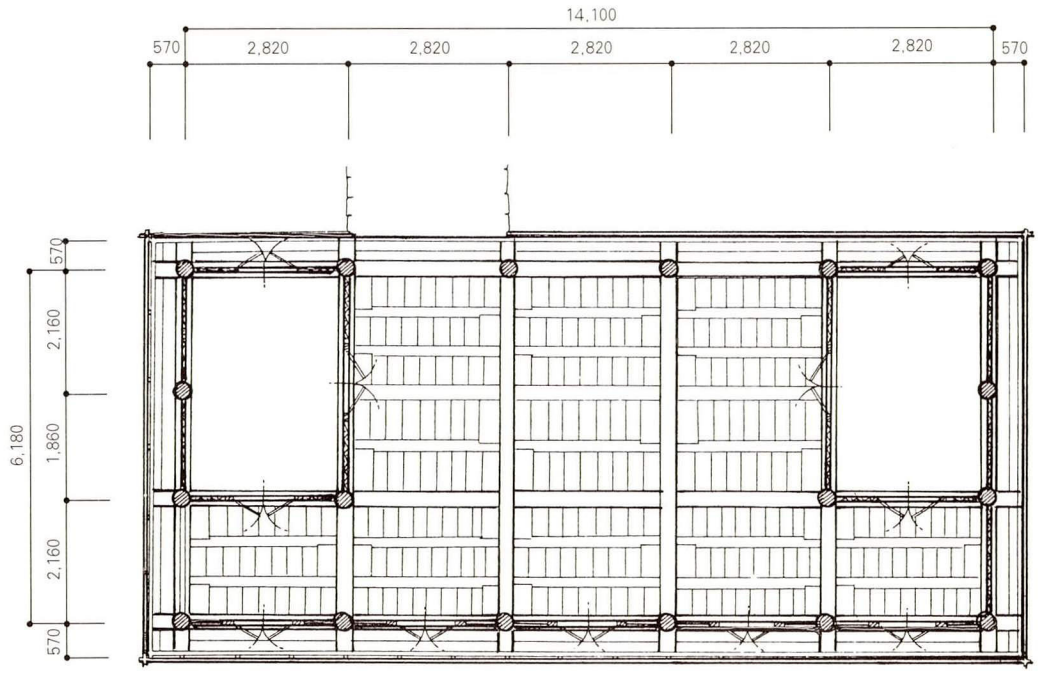


대정향교 명륜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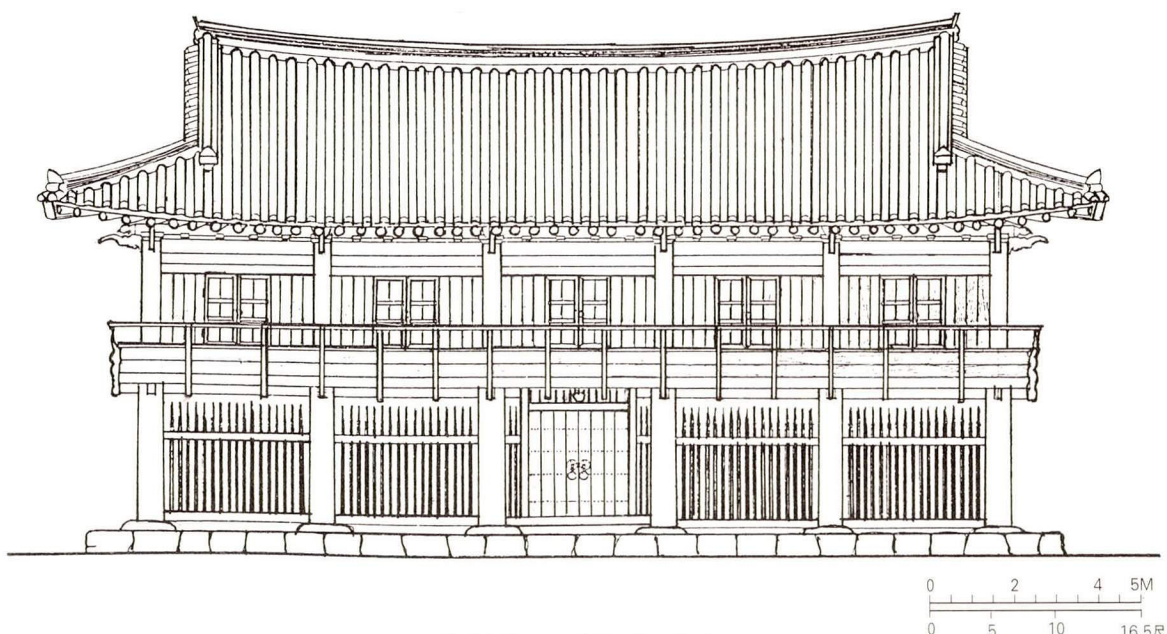
10. 옥천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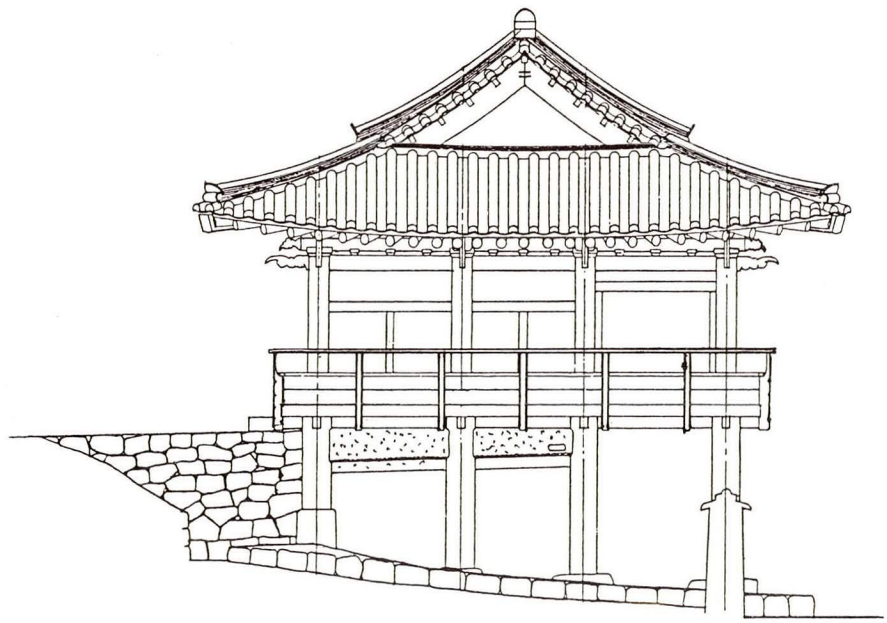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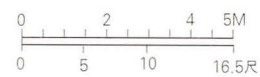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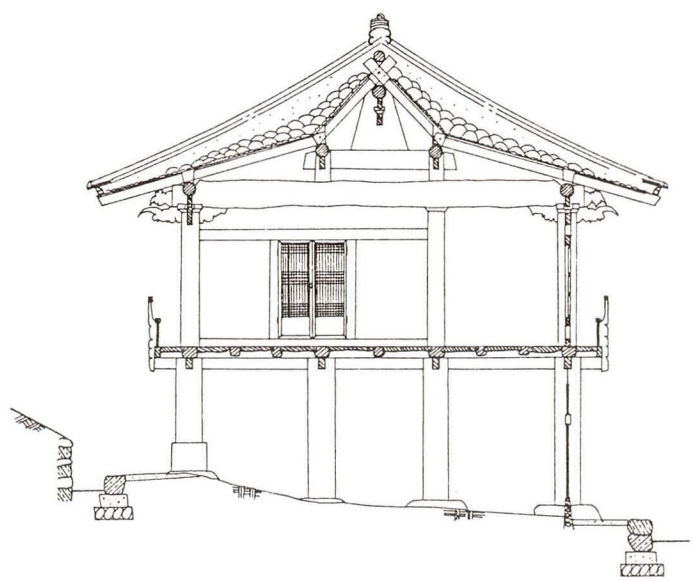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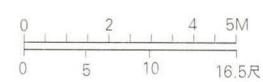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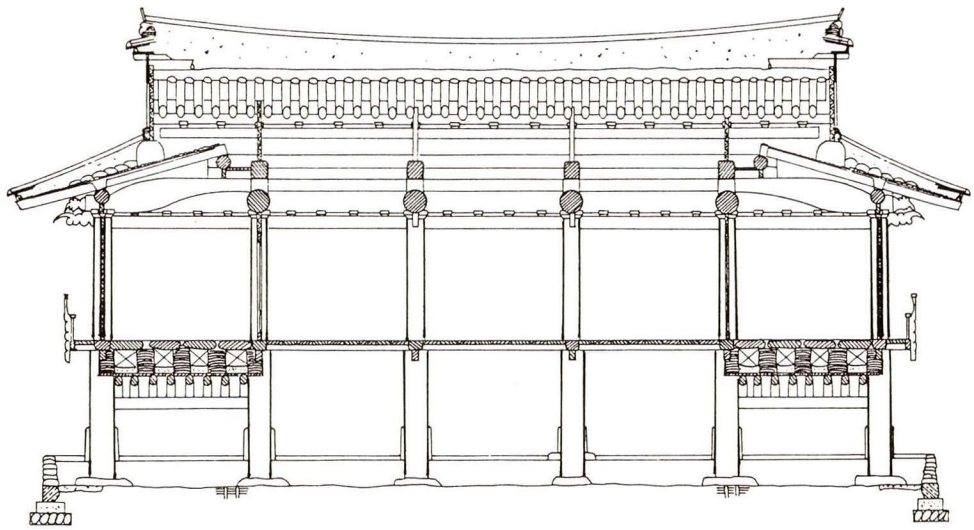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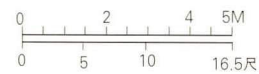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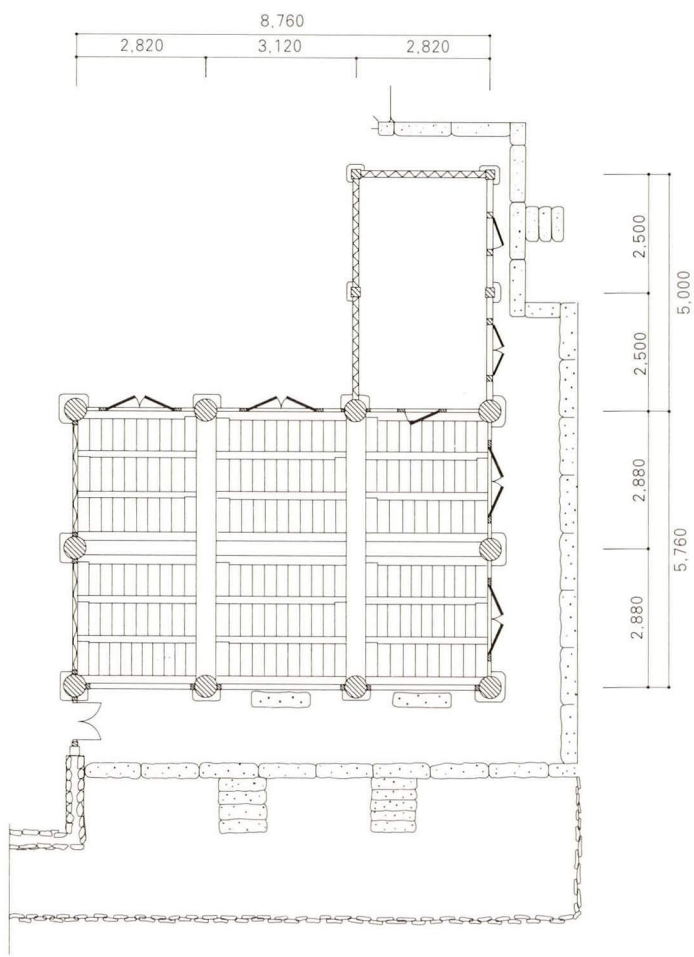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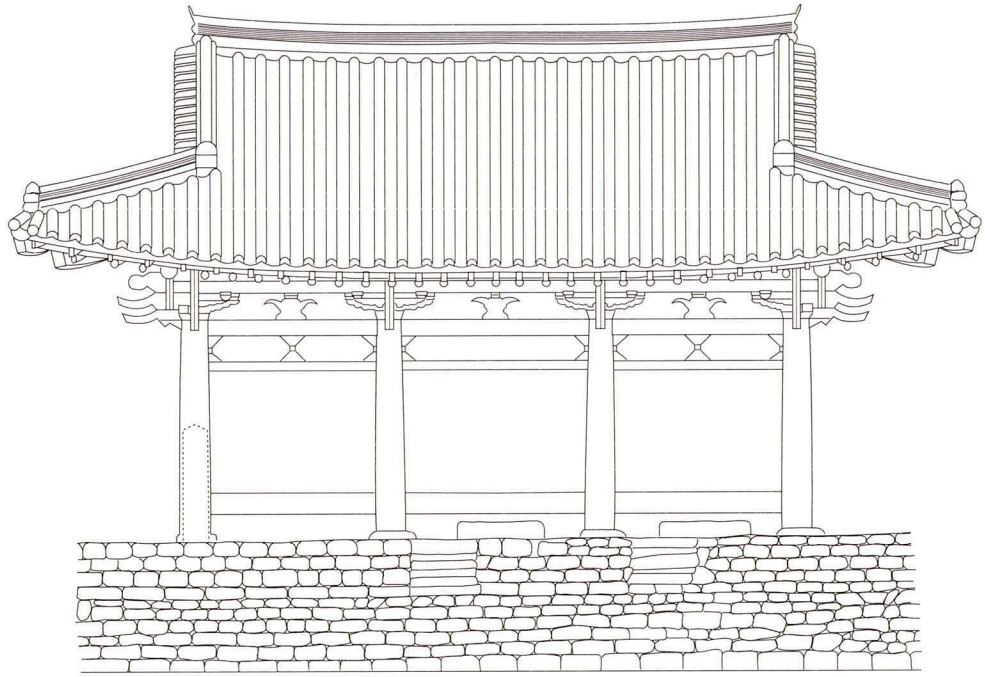
옥천향교 명륜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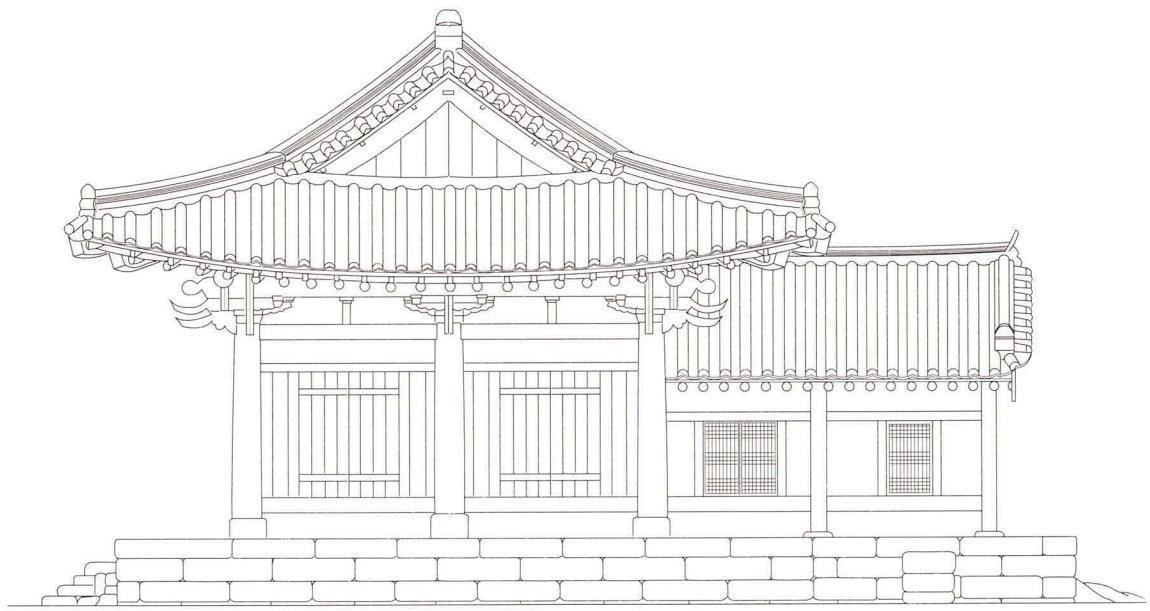
11. 익산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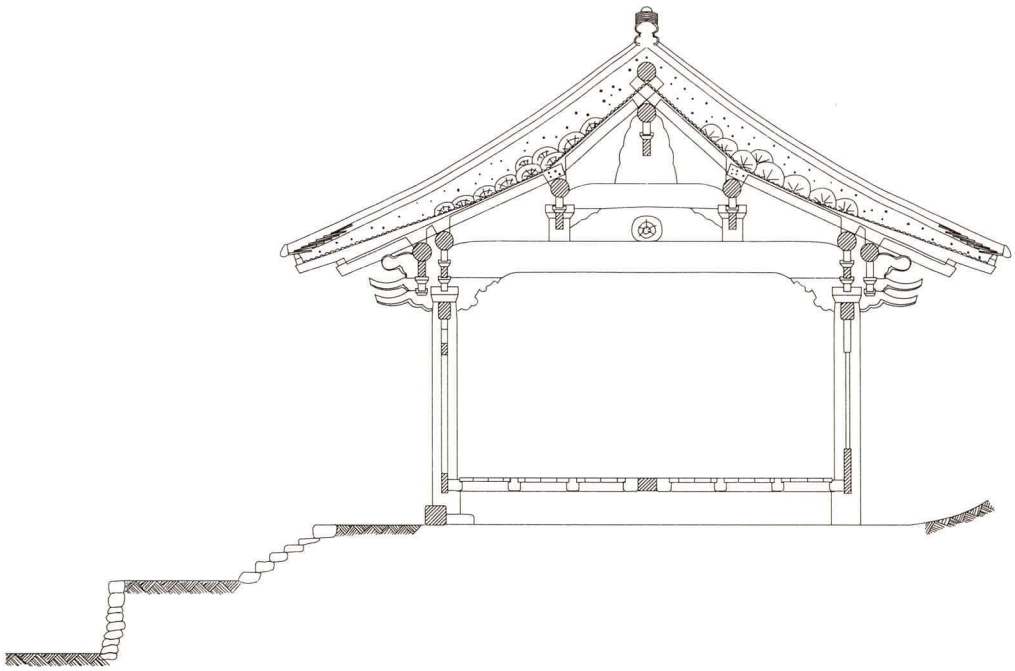
익산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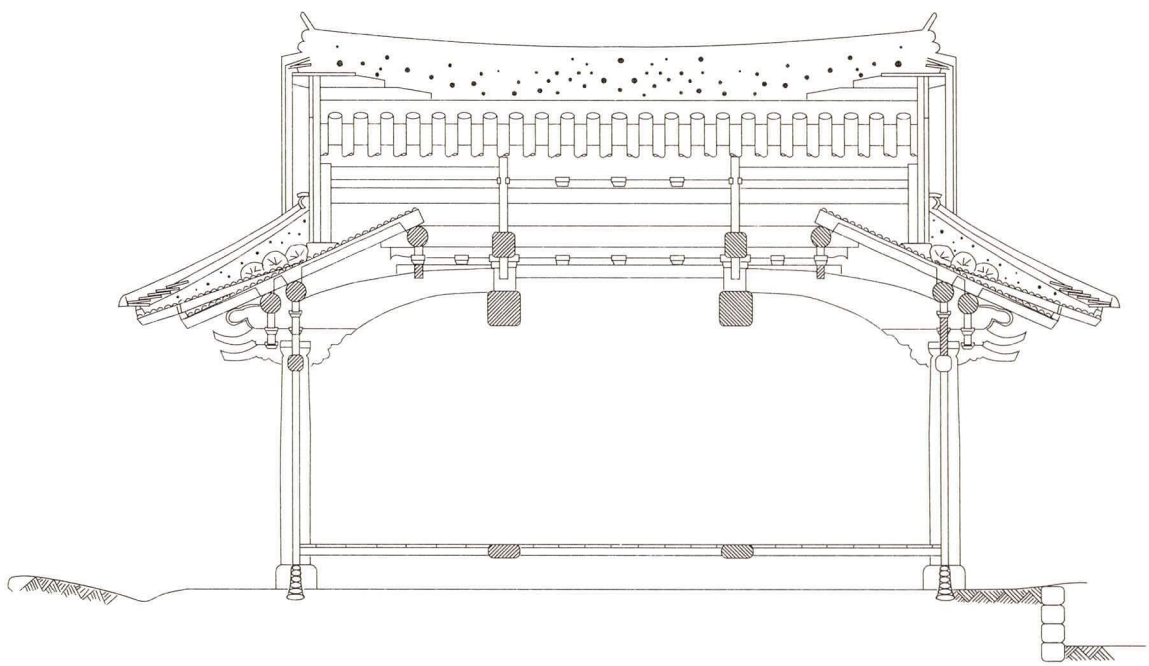
익산향교 명륜당 정면도



익산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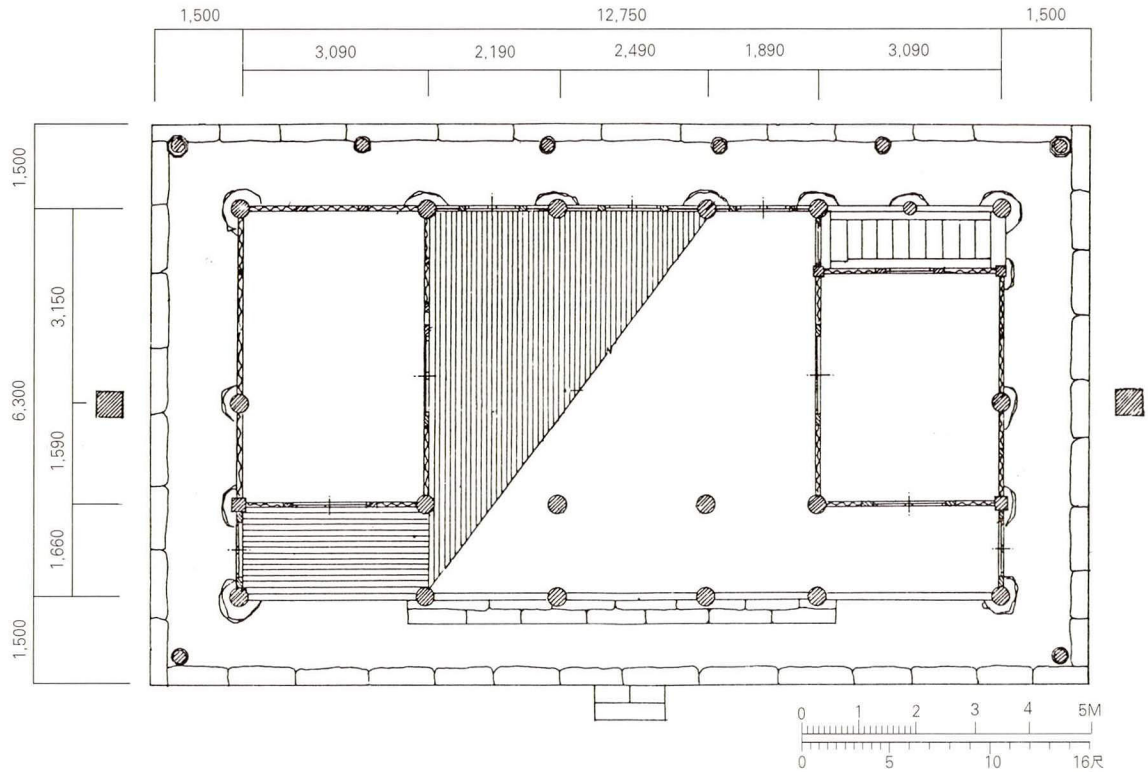


익산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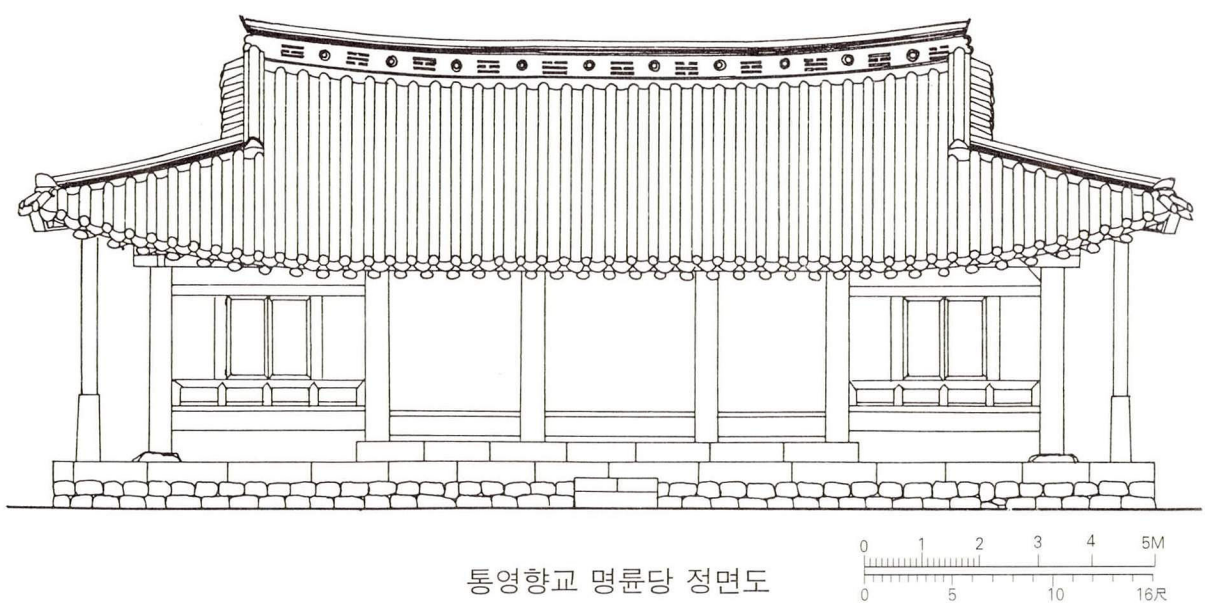


익산향교 명륜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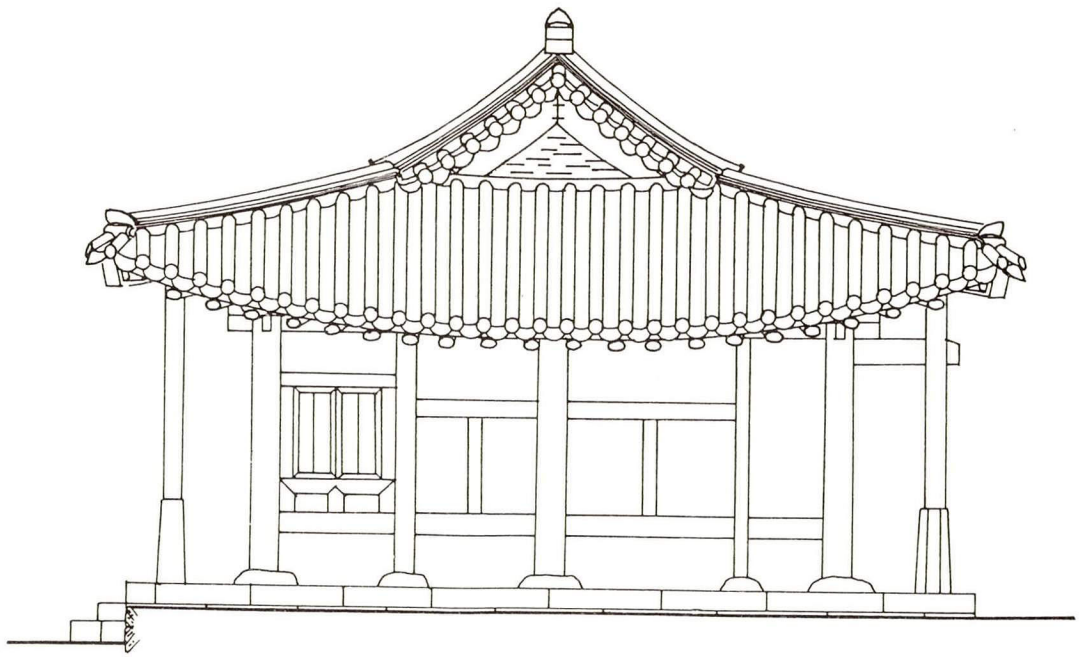
12. 통영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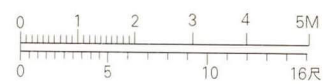


통영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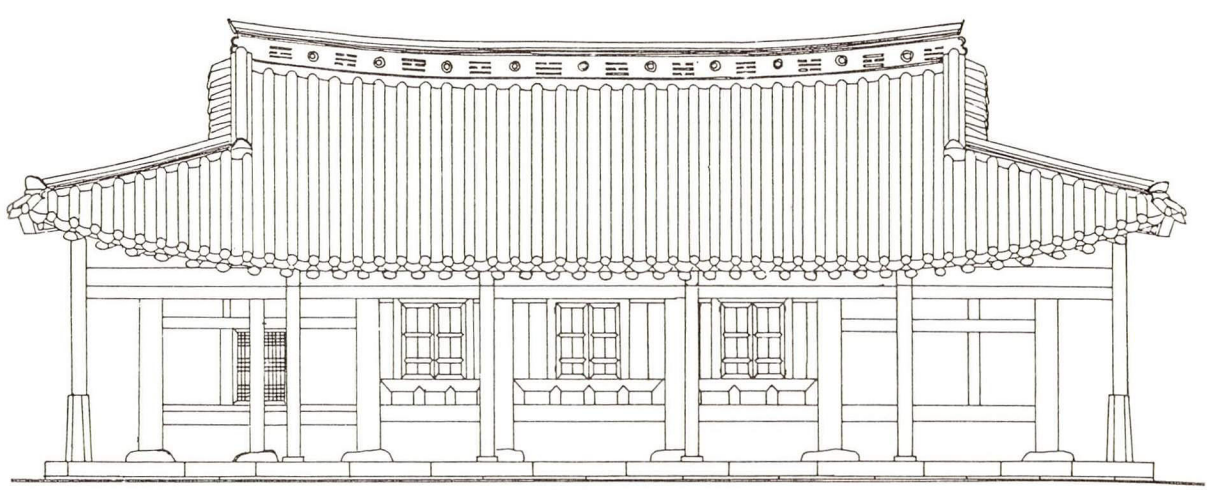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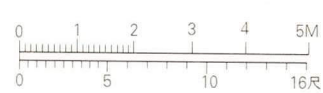
통영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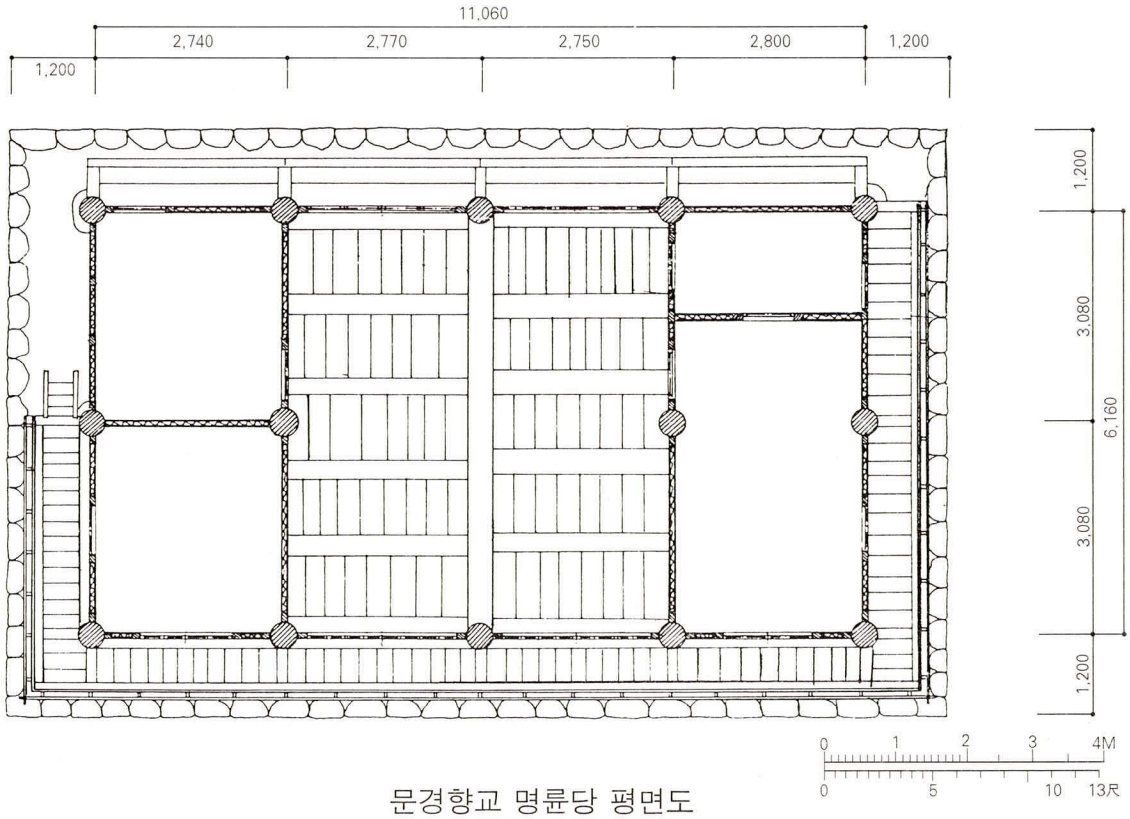
통영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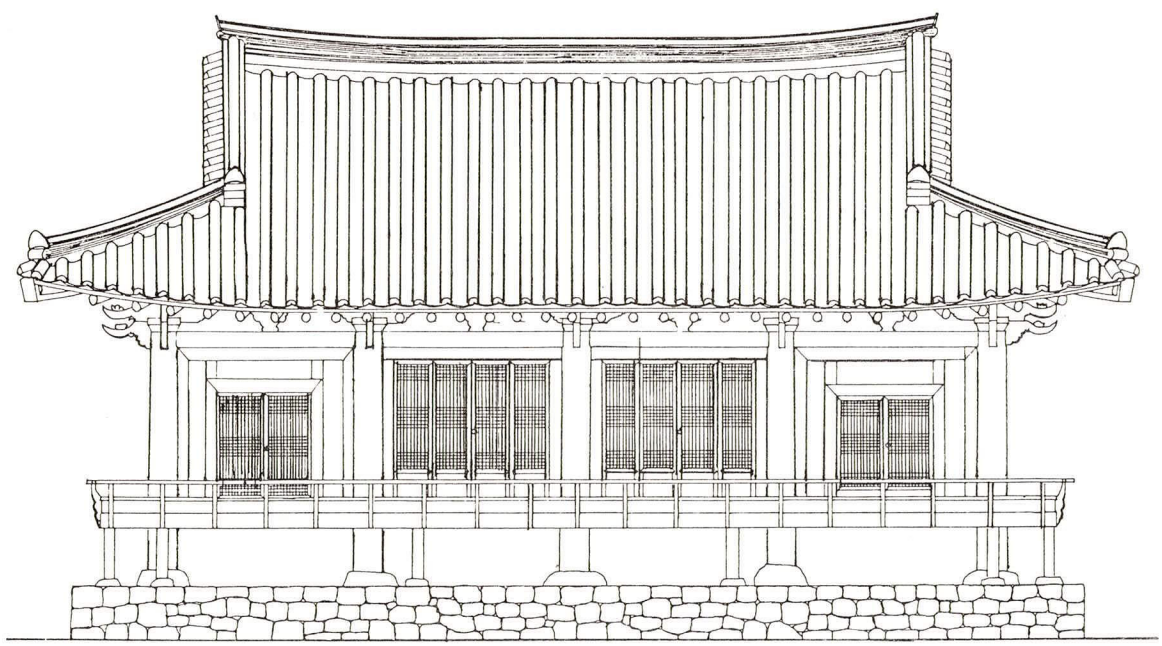


통영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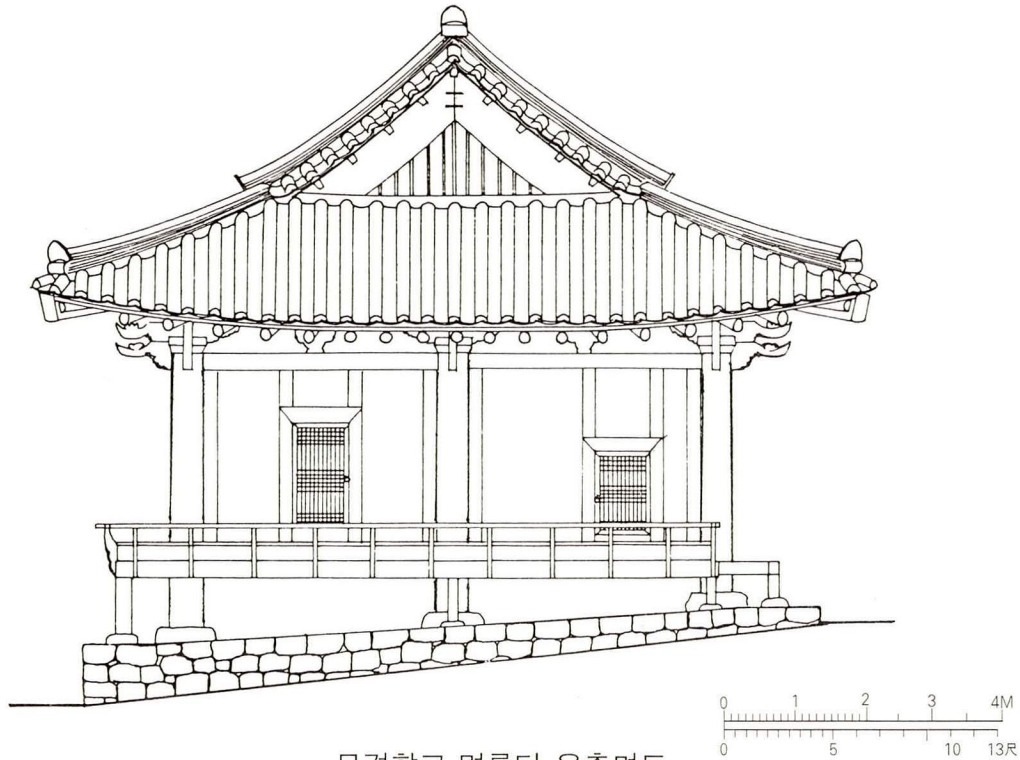
13. 문경향교 명륜당



문경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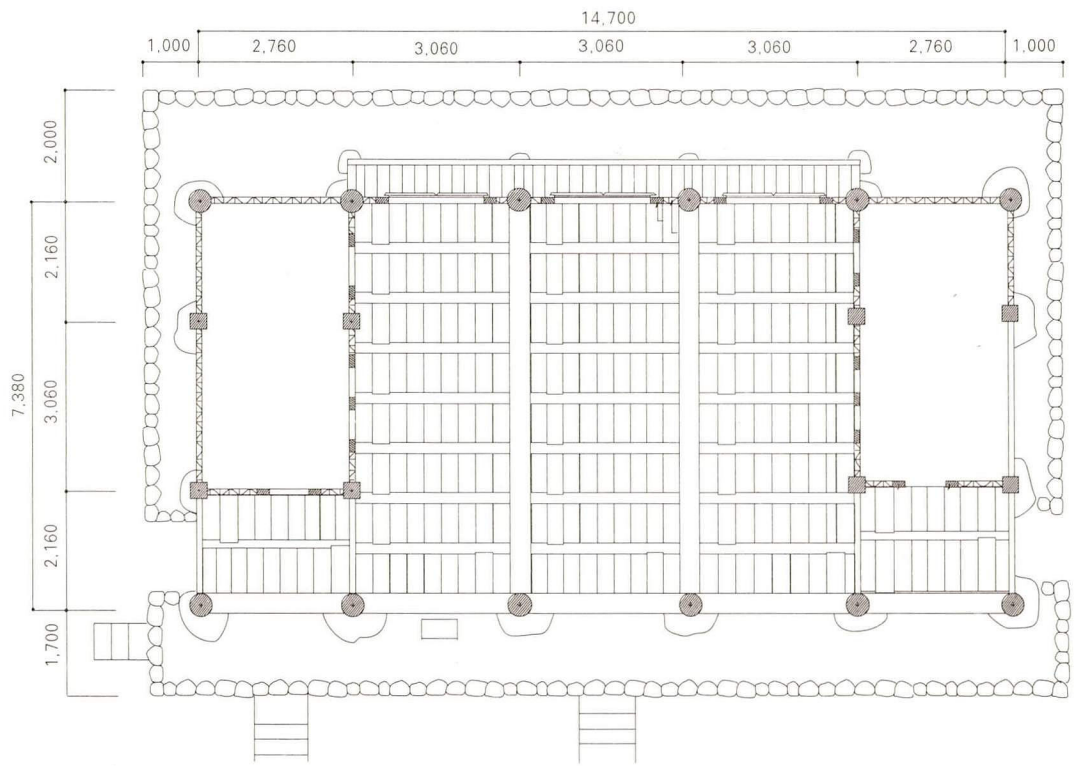


문경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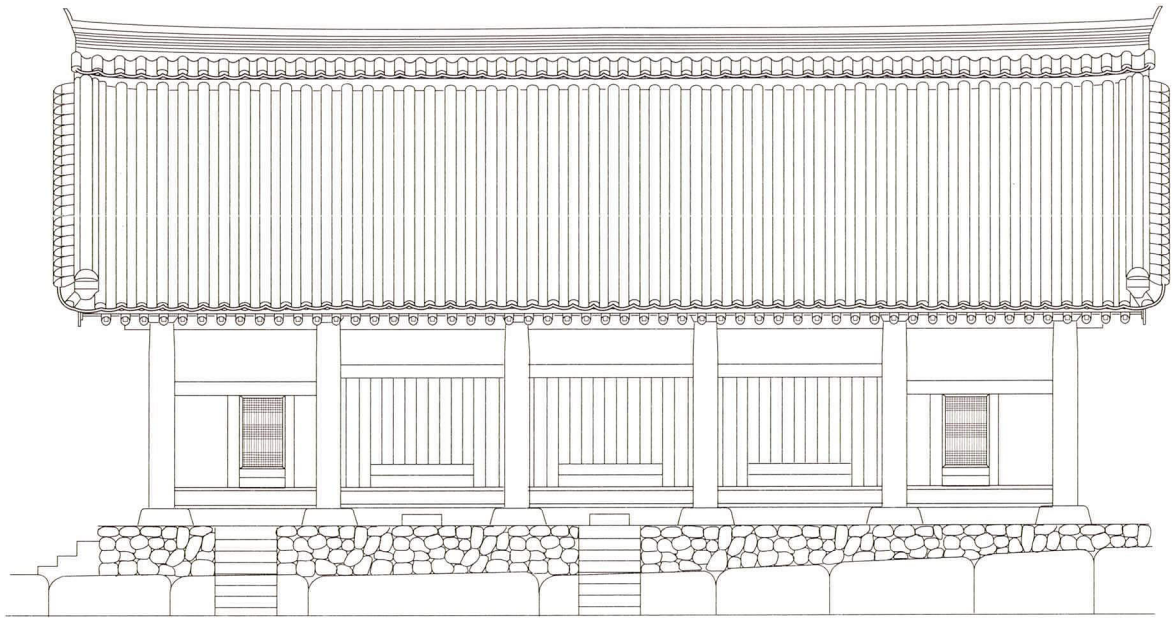


문경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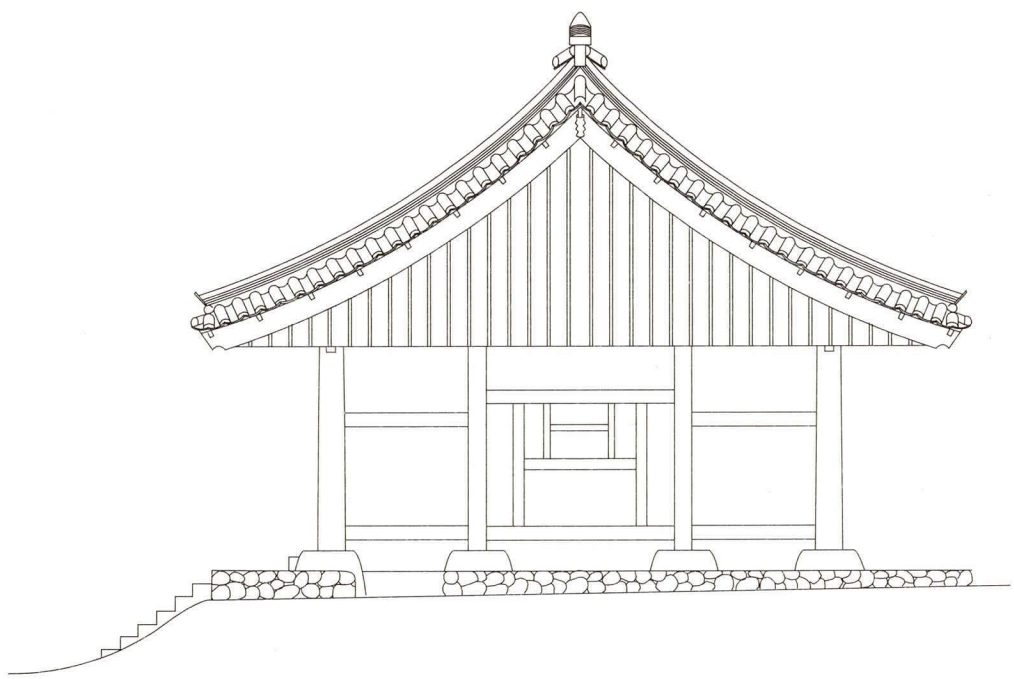
14. 성주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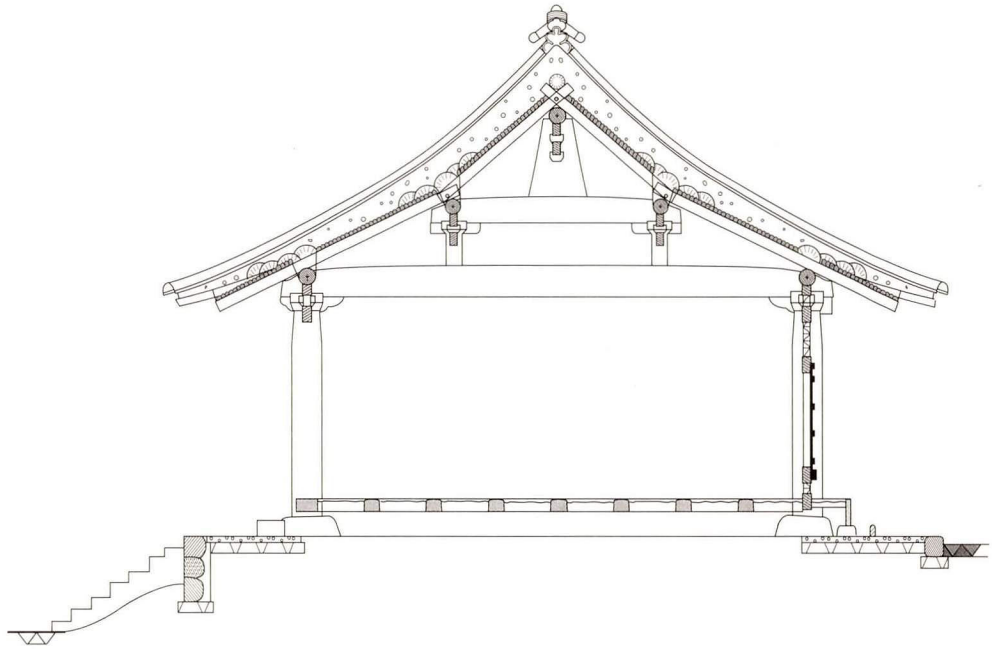
성주향교 명륜당 평면도



성주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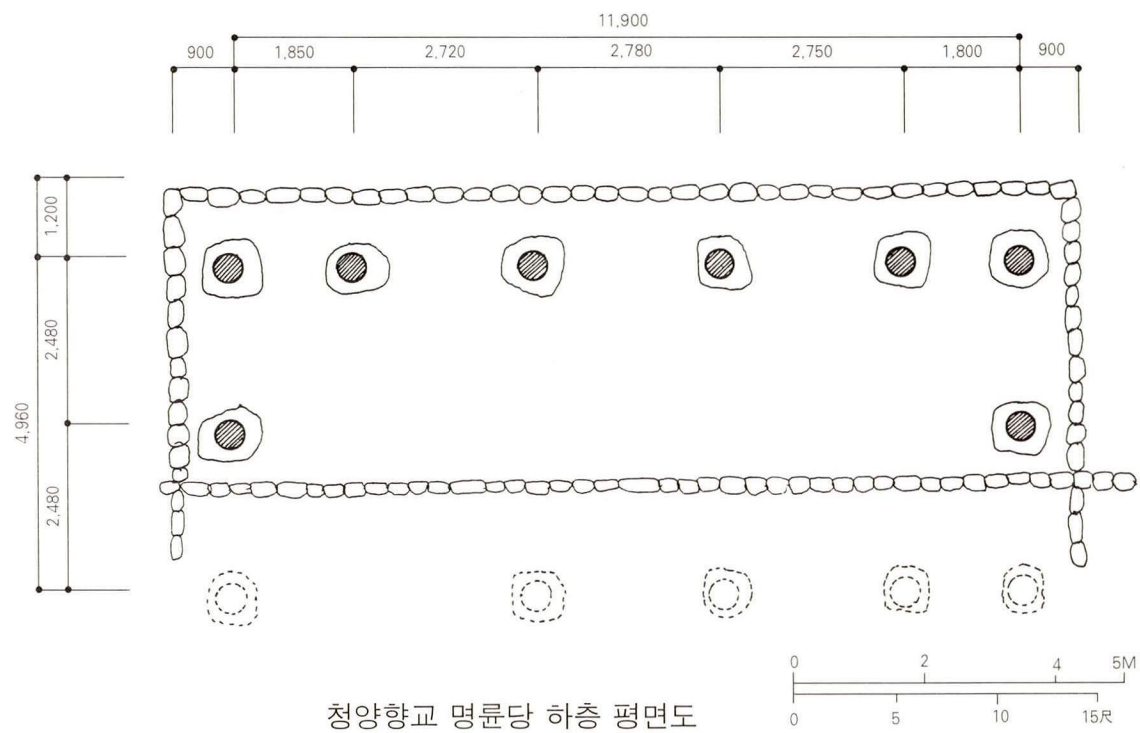


성주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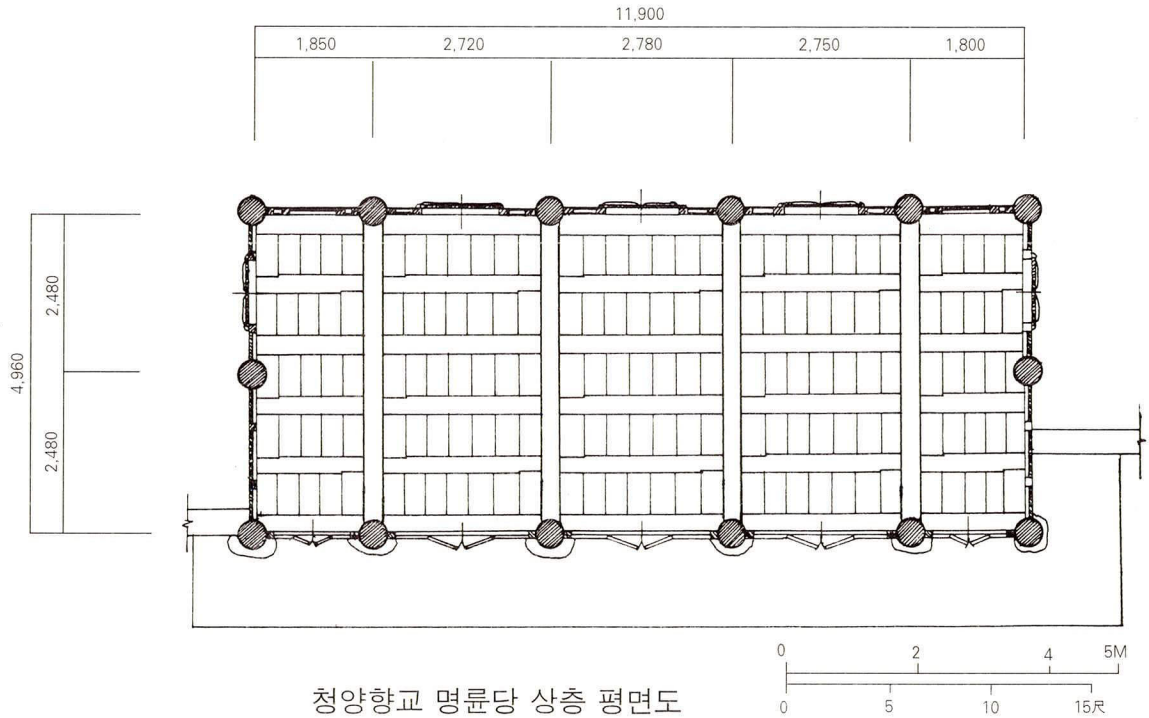


성주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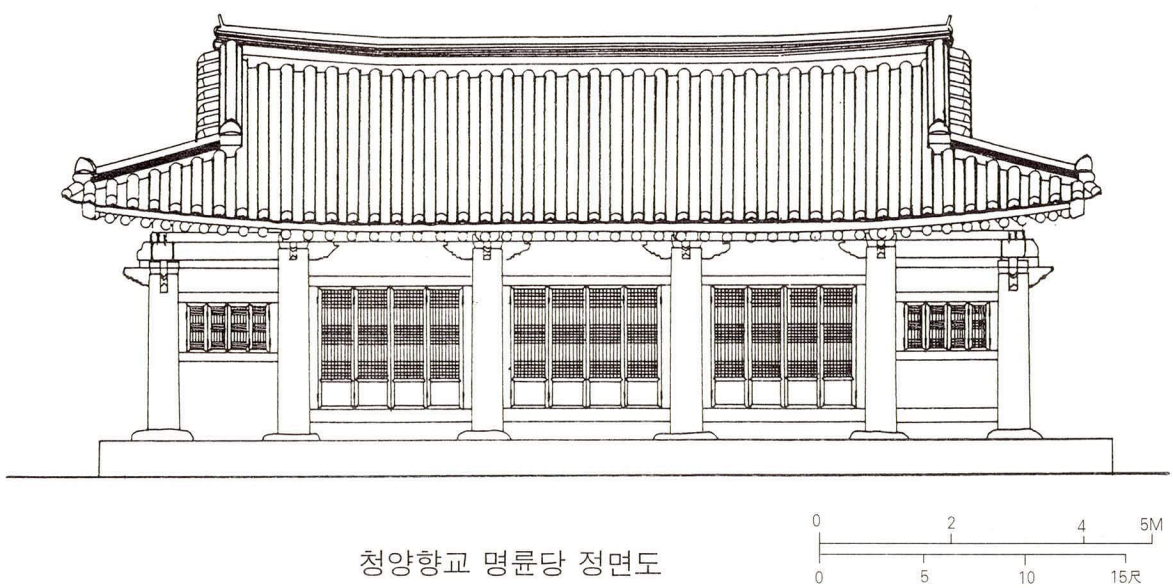
15. 청양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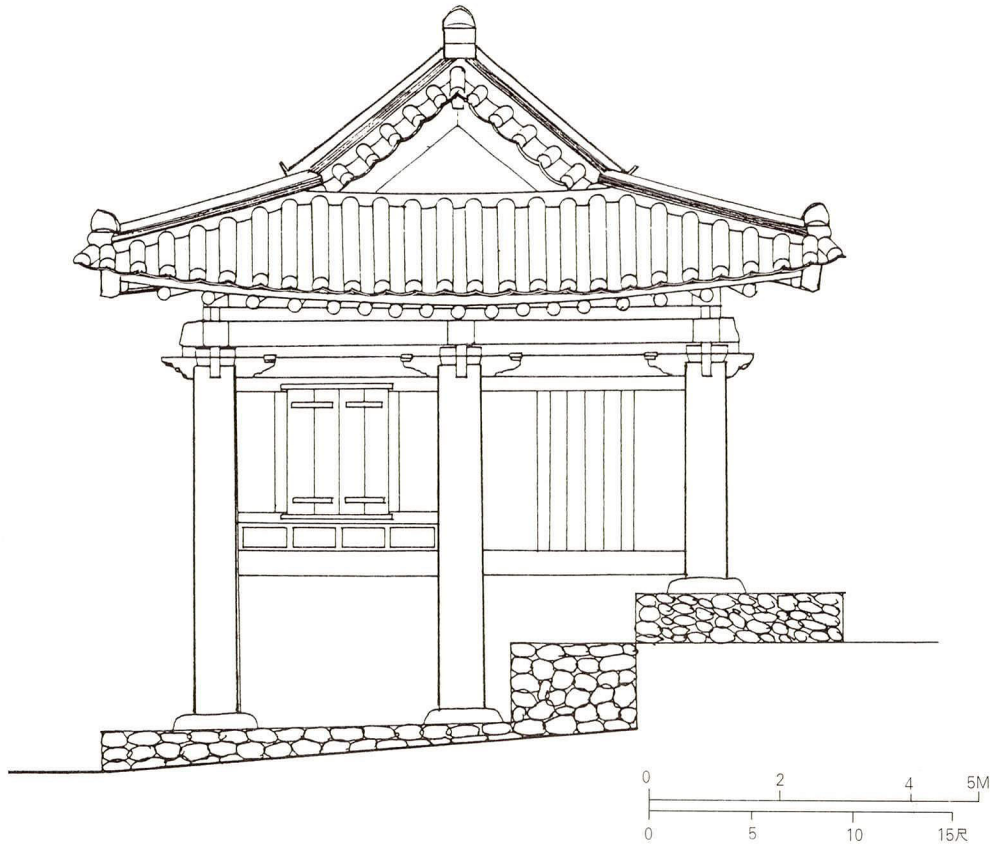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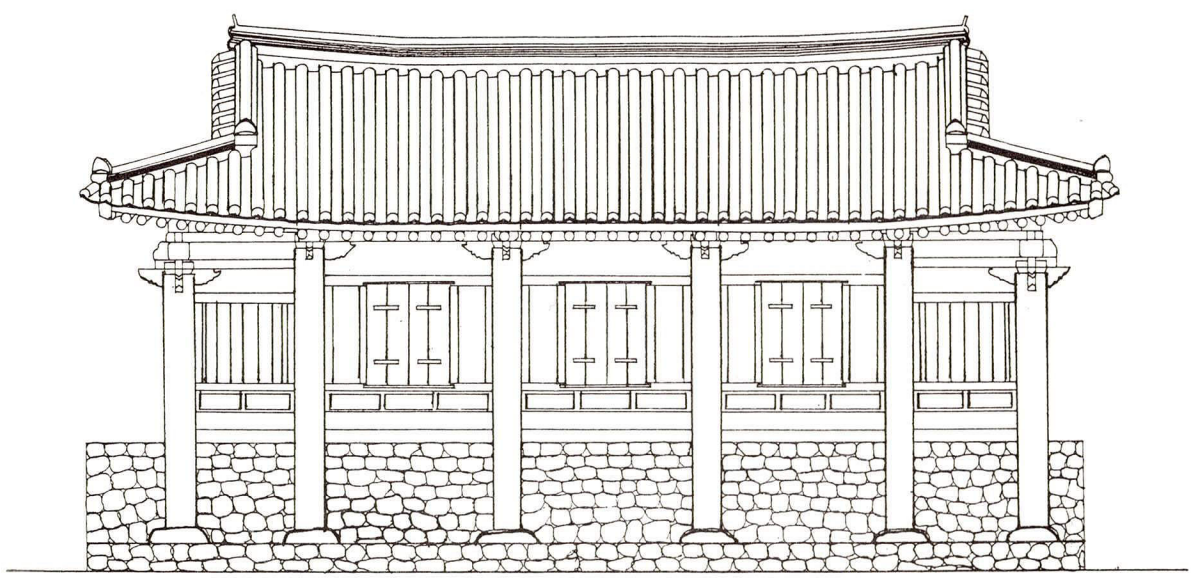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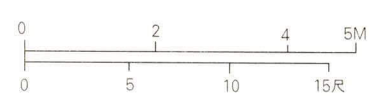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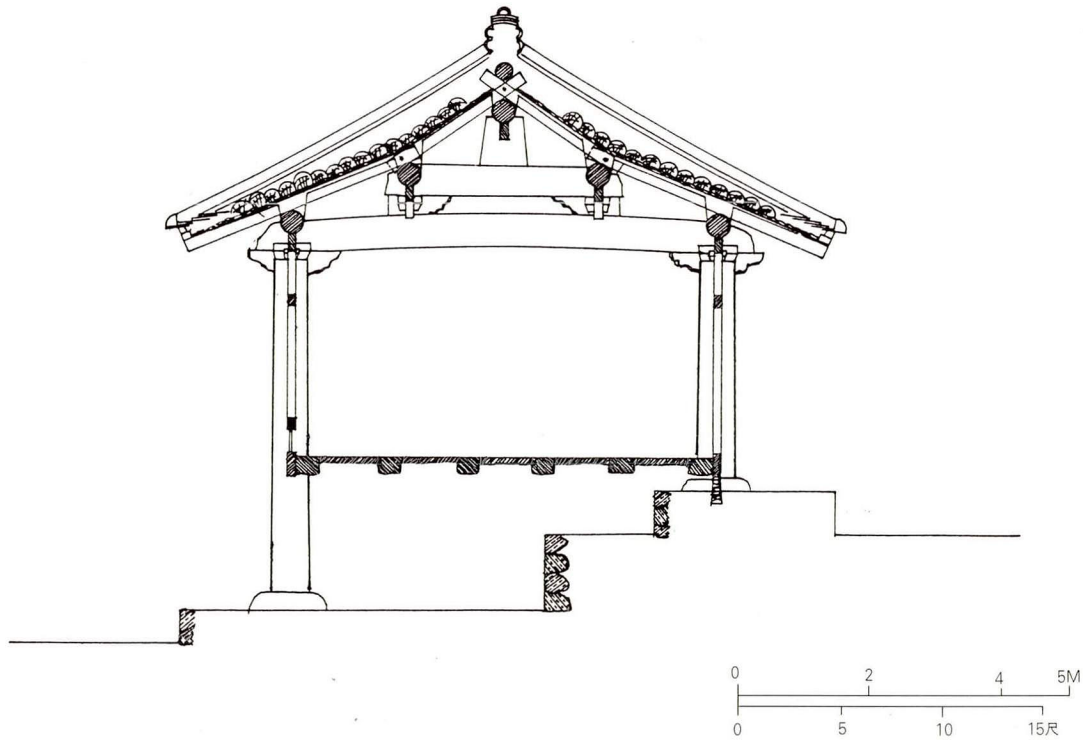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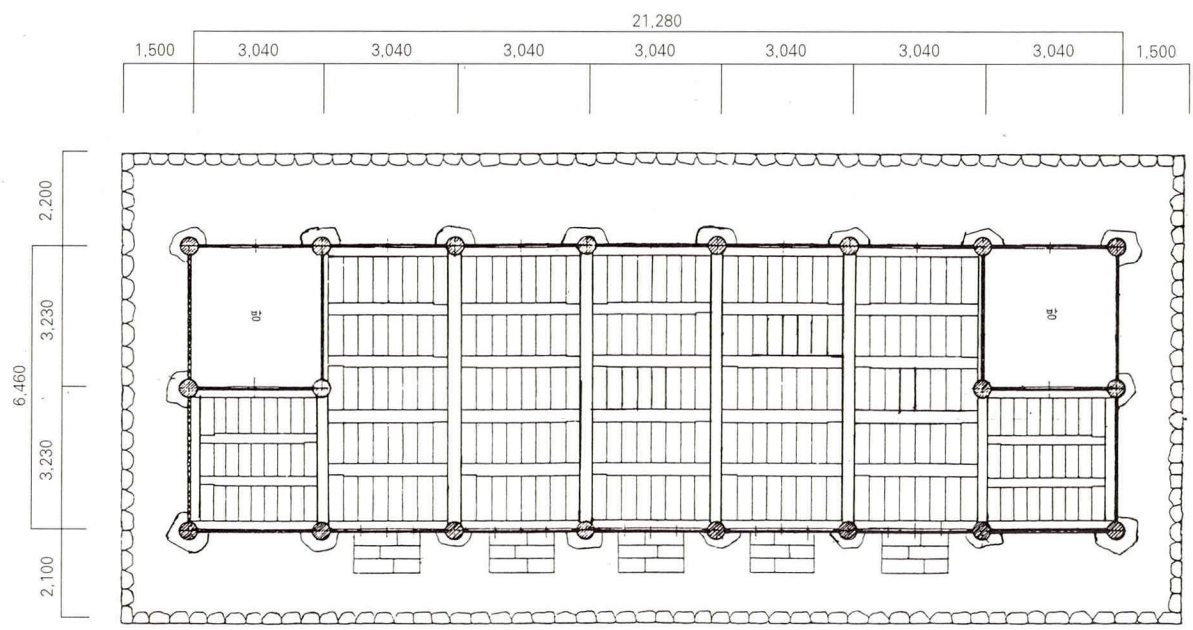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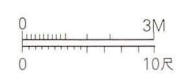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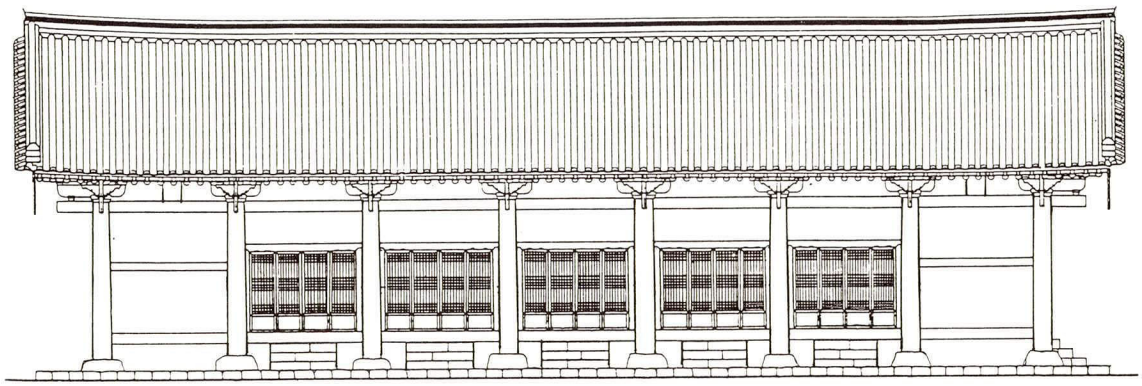
청양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16. 순천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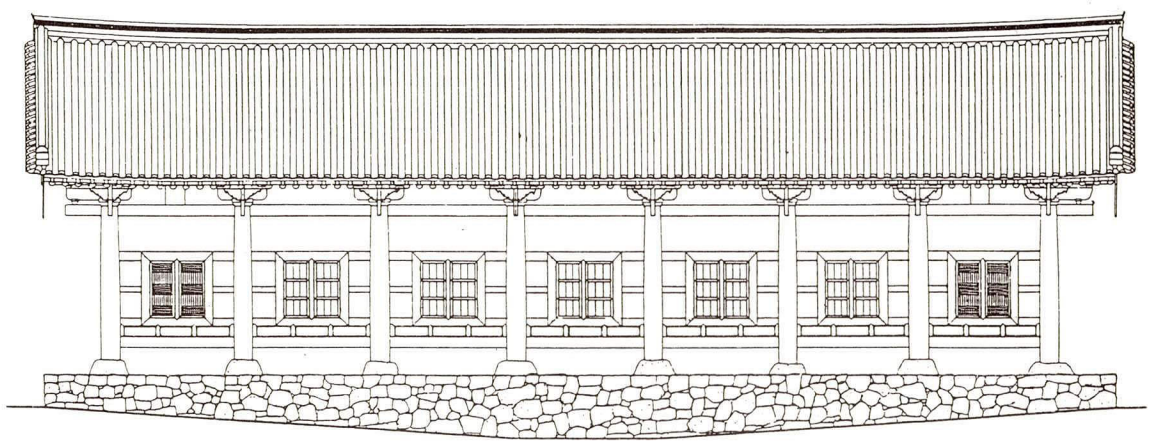
순천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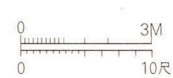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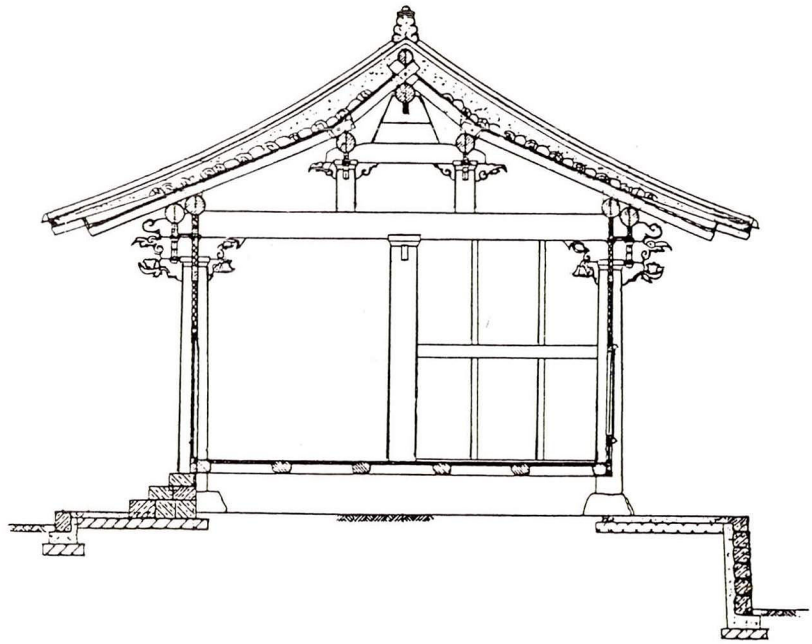
순천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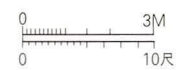


순천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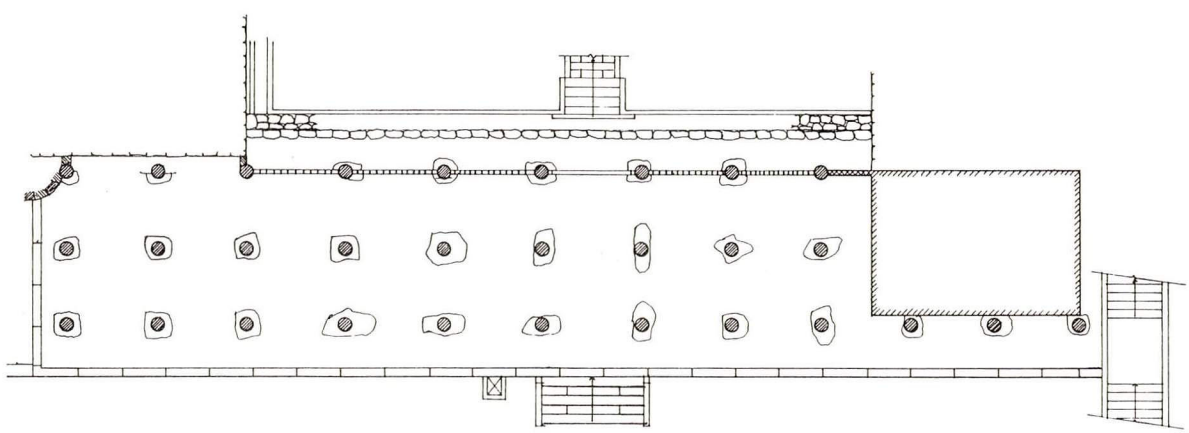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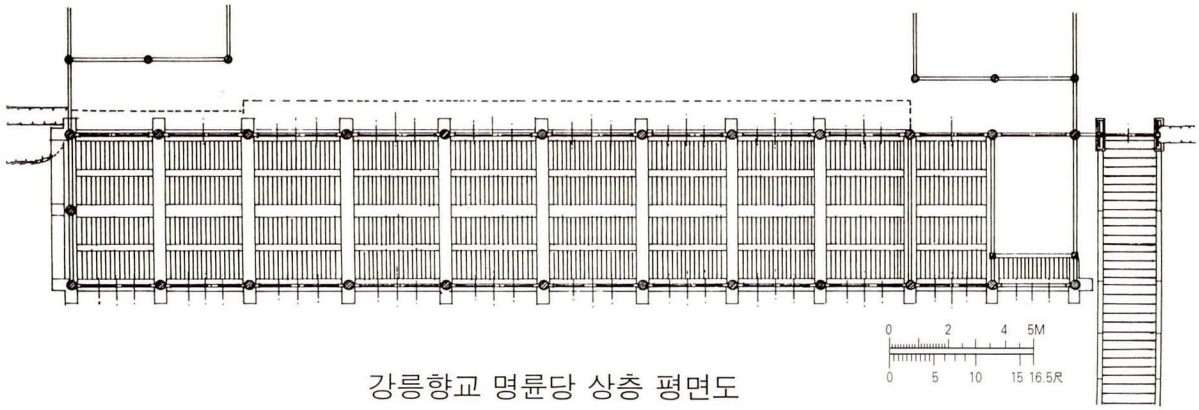
순천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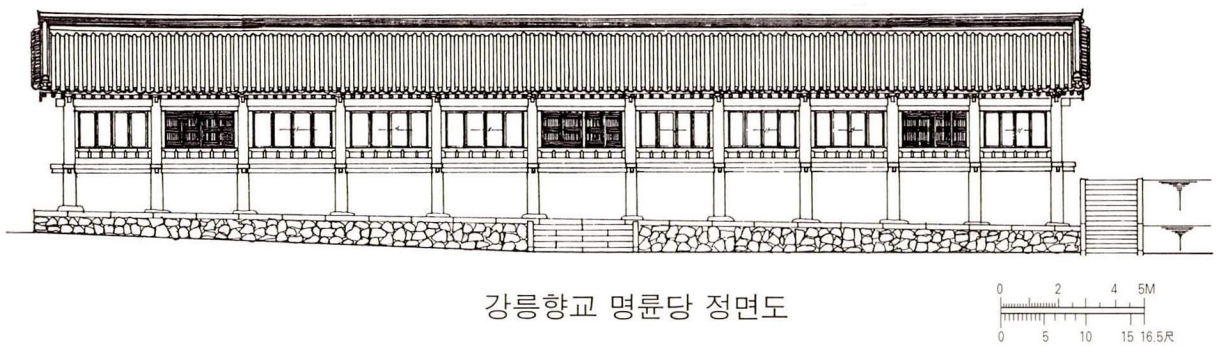
17. 강릉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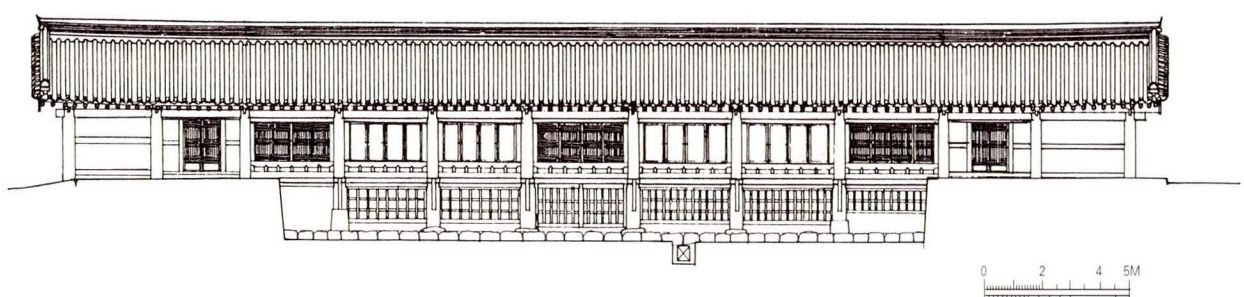
강릉향교 명륜당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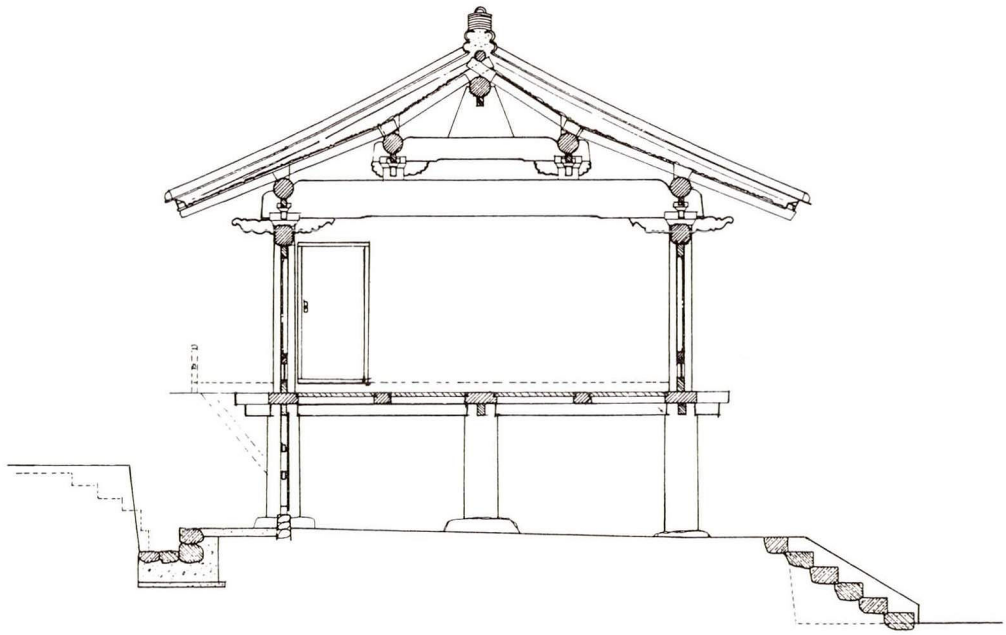
강릉향교 명륜당 상층 평면도



강릉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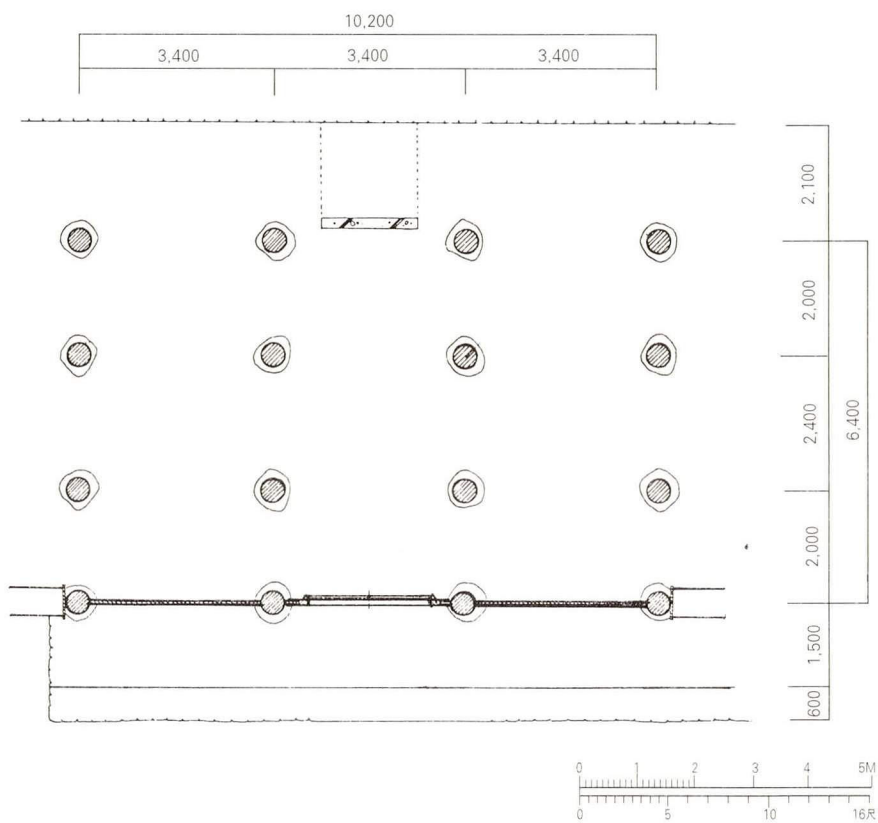


강릉향교 명륜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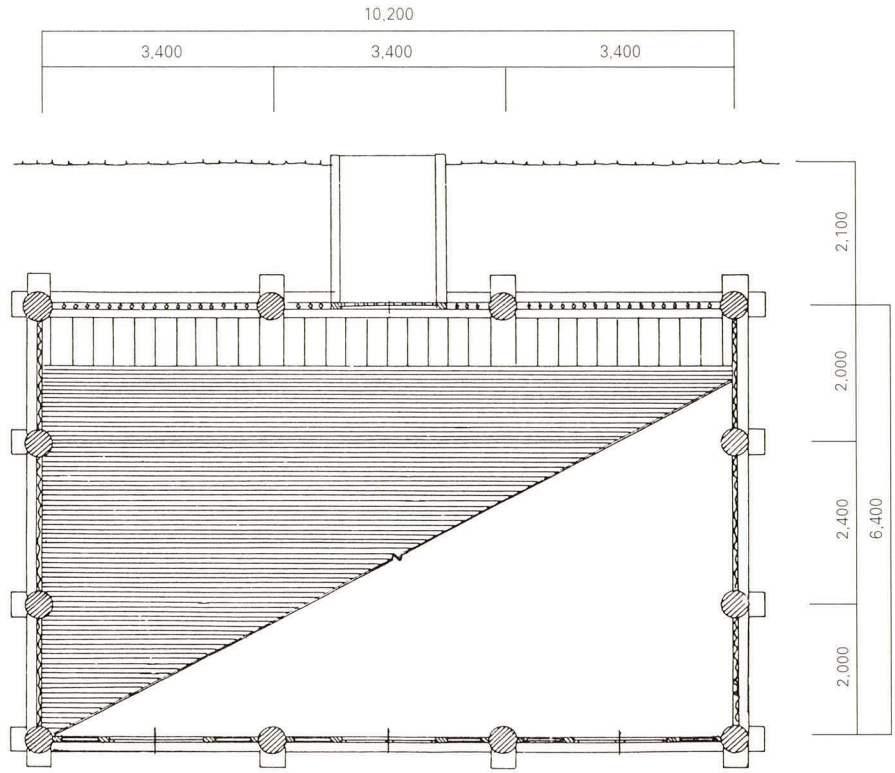


강릉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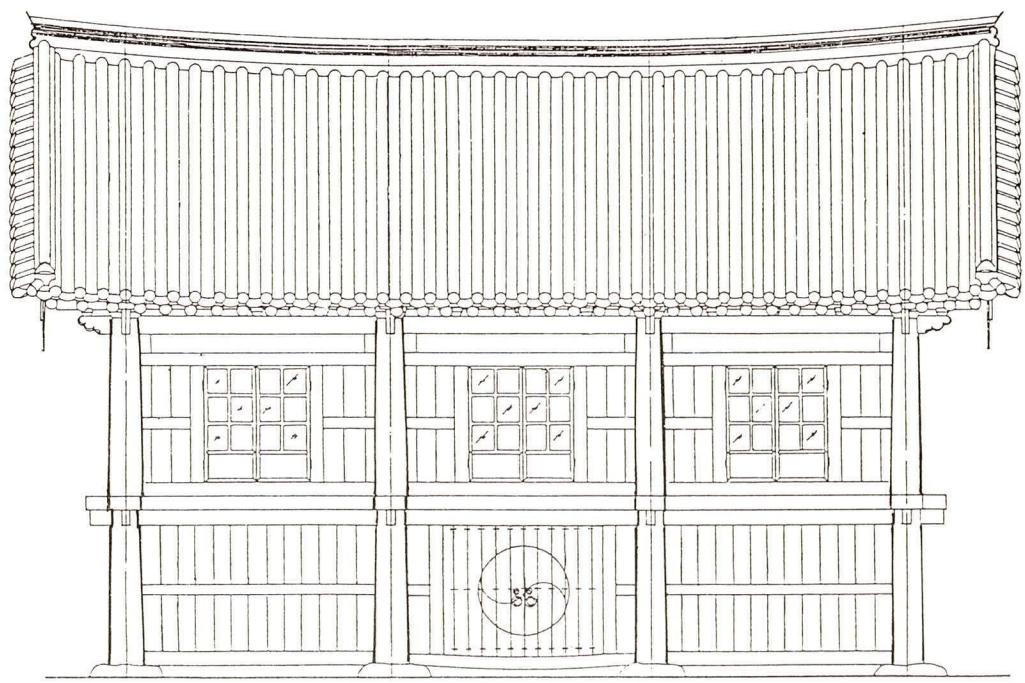
18. 곡성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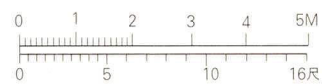
곡성향교 명륜당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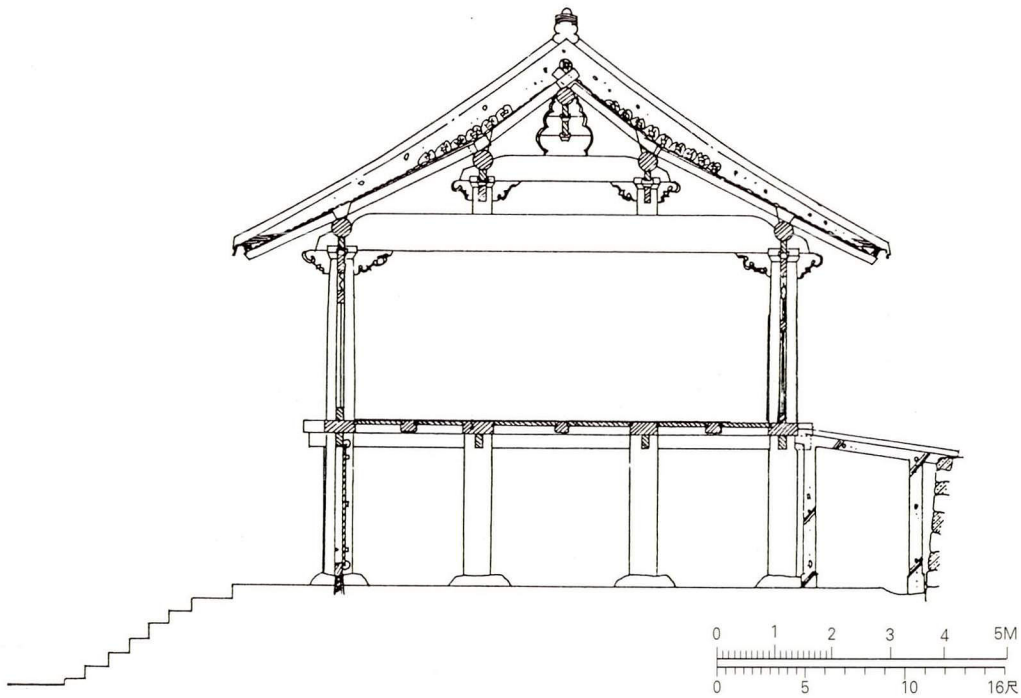


곡성향교 명륜당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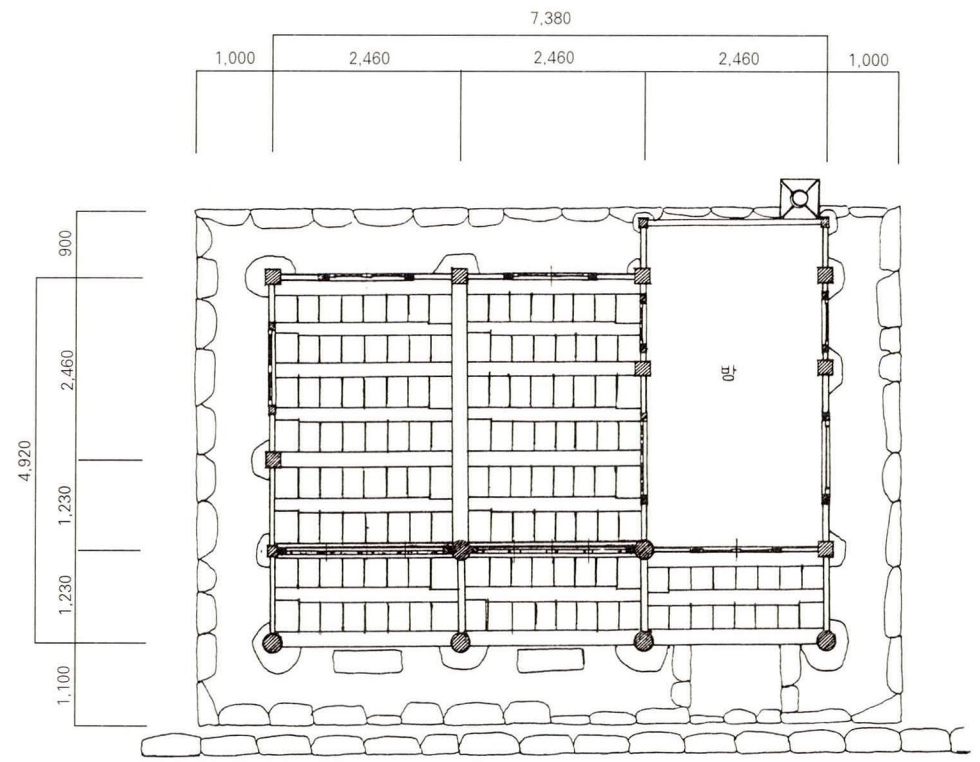
곡성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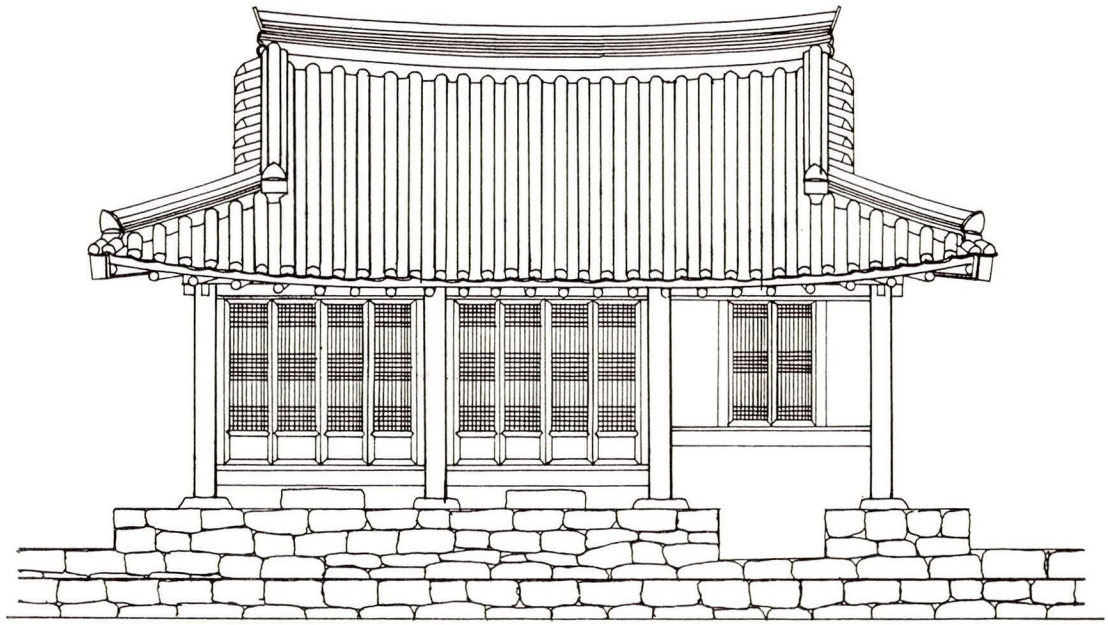


곡성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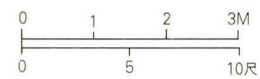
19. 정산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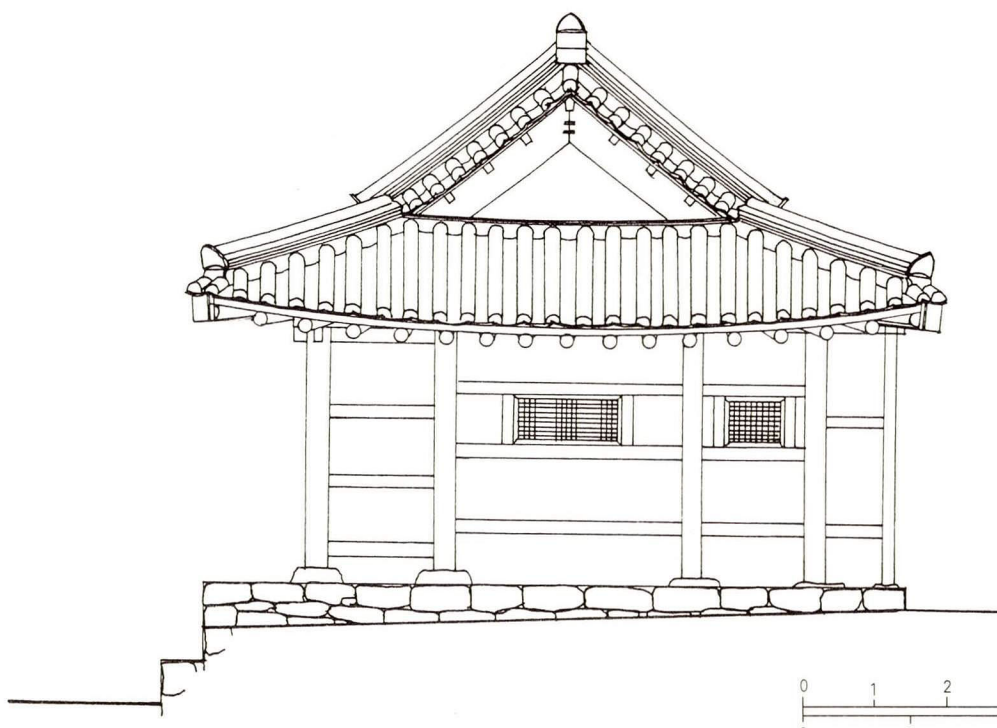


정산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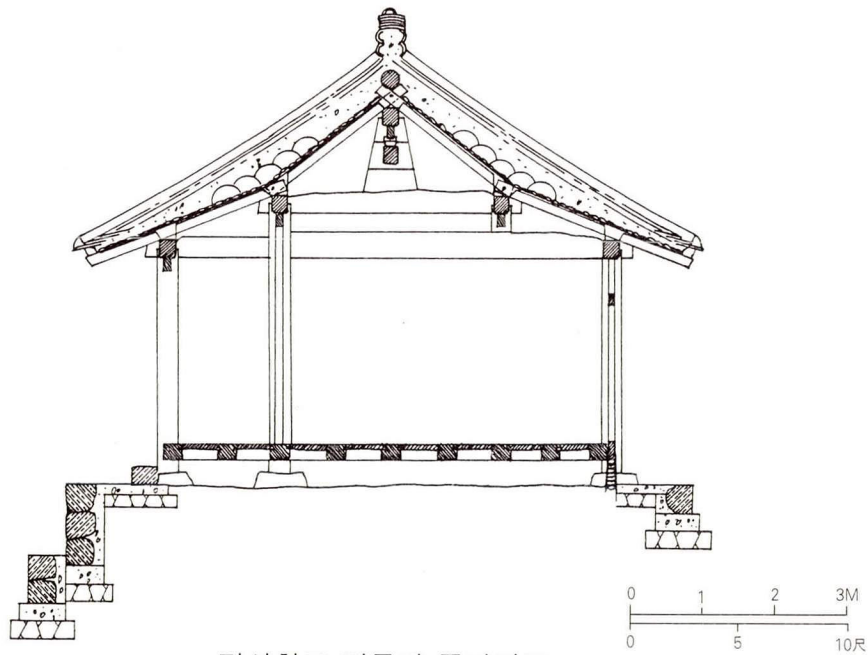


정산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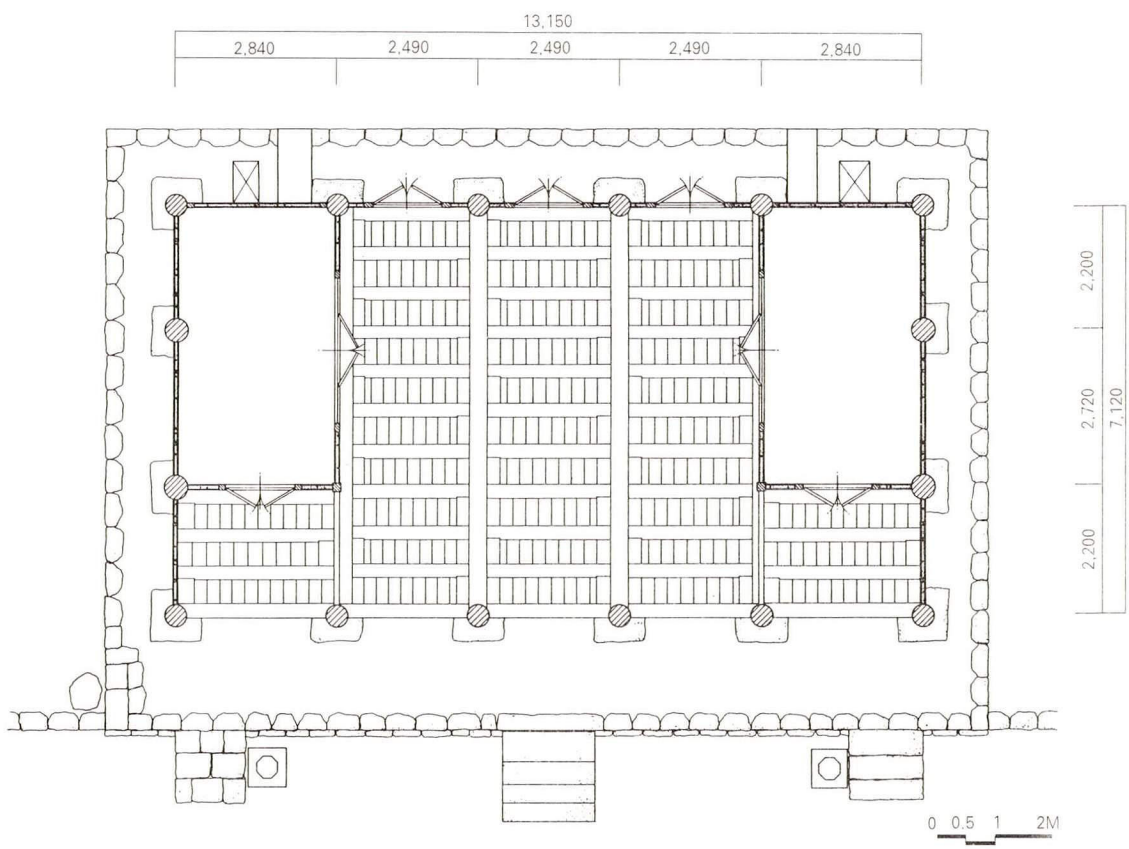


정산향교 명륜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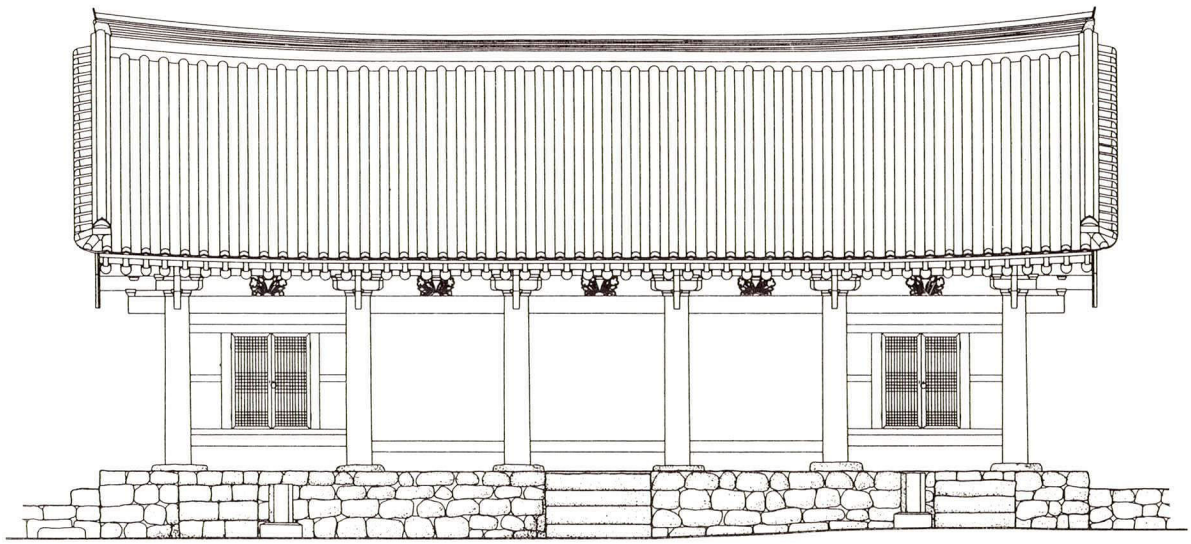


정산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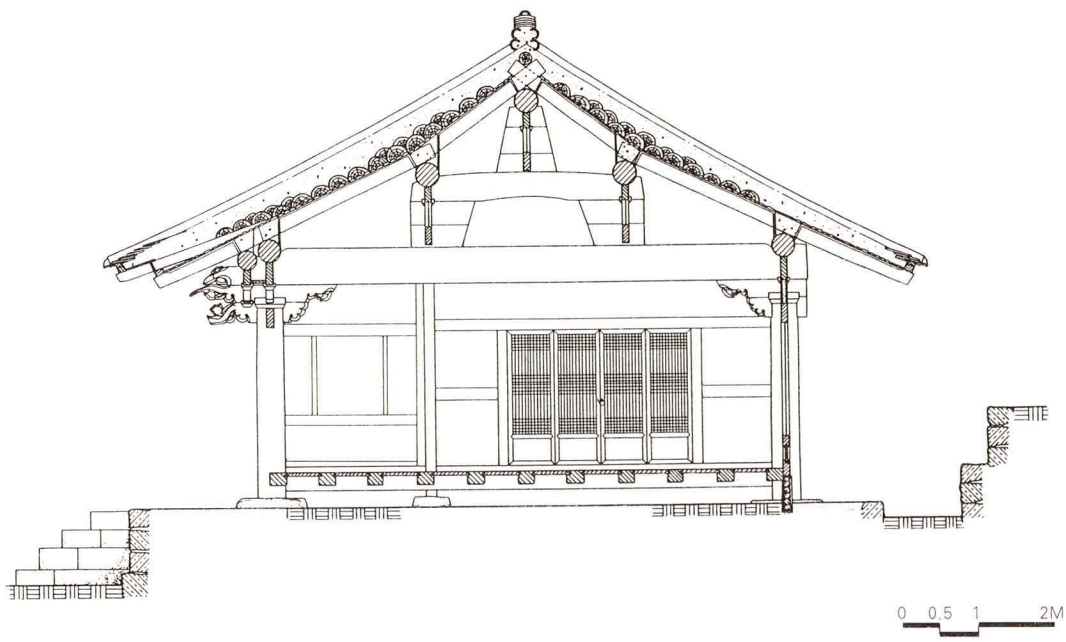
20. 동래향교 명륜당



동래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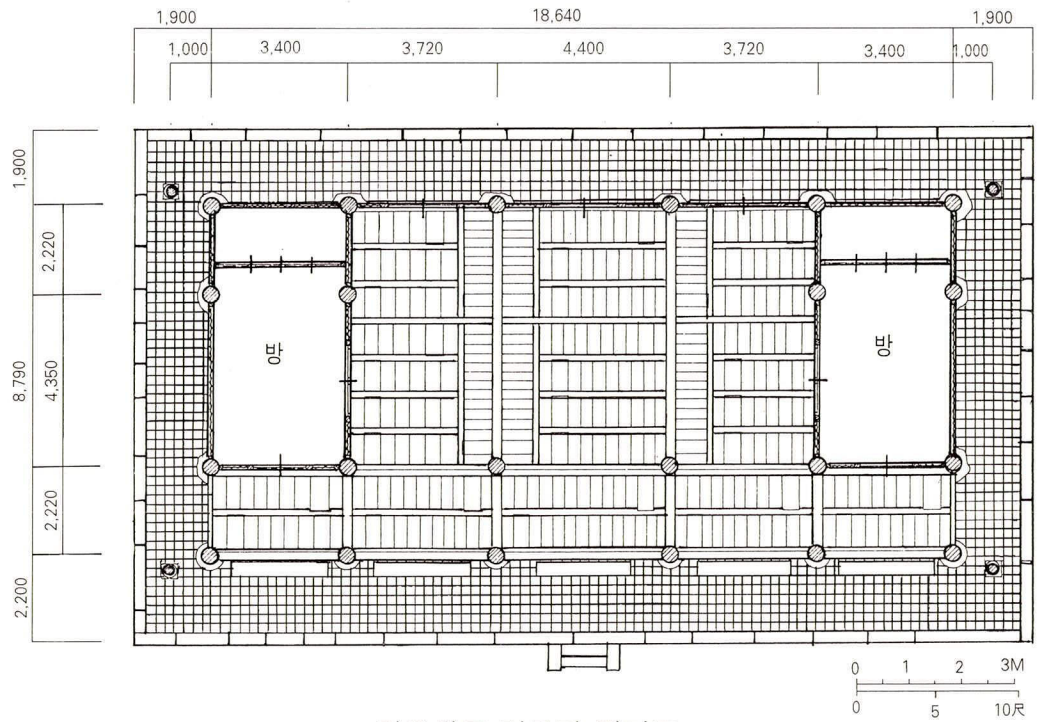


동래향교 명륜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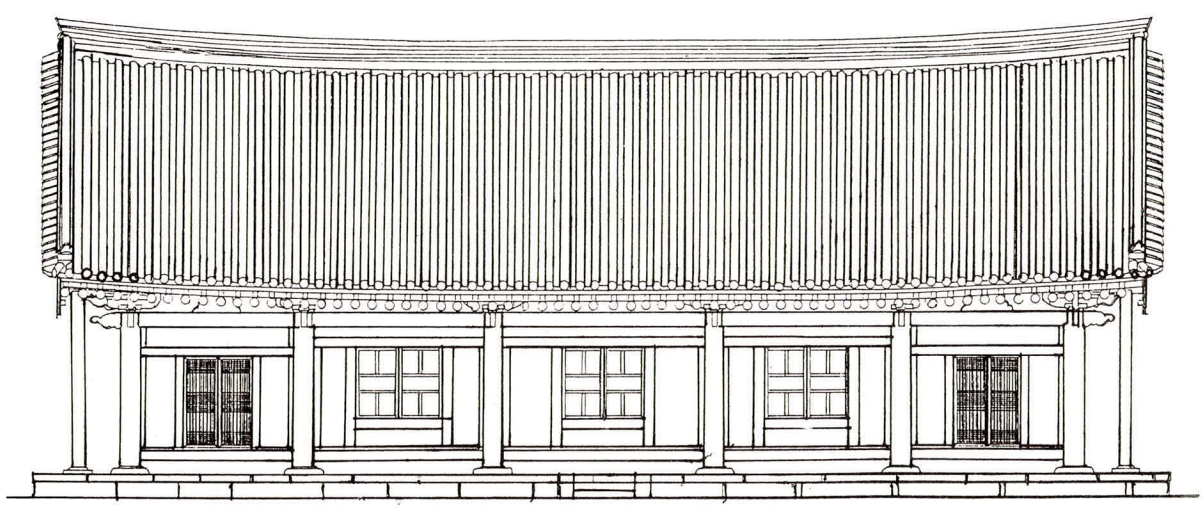


동래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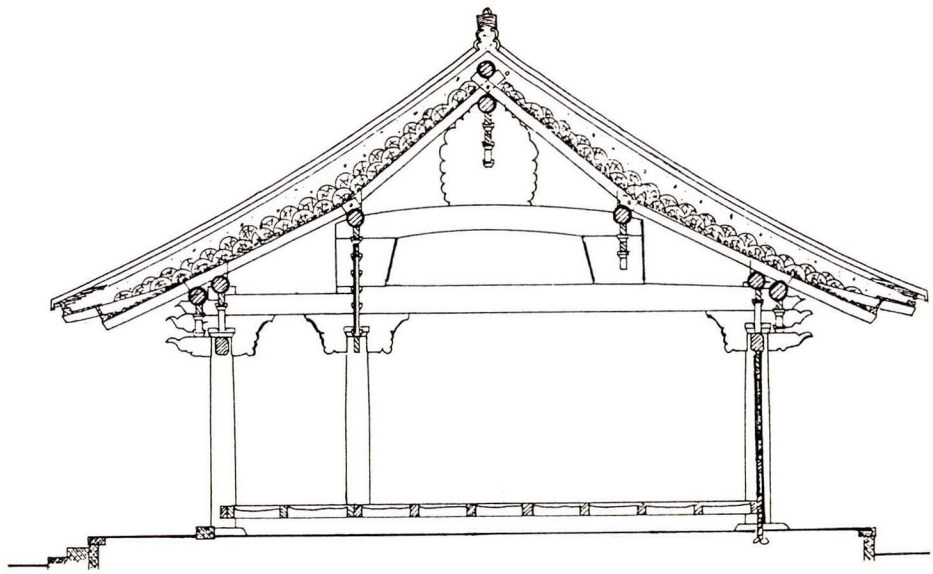
21. 경주향교 명륜당



경주향교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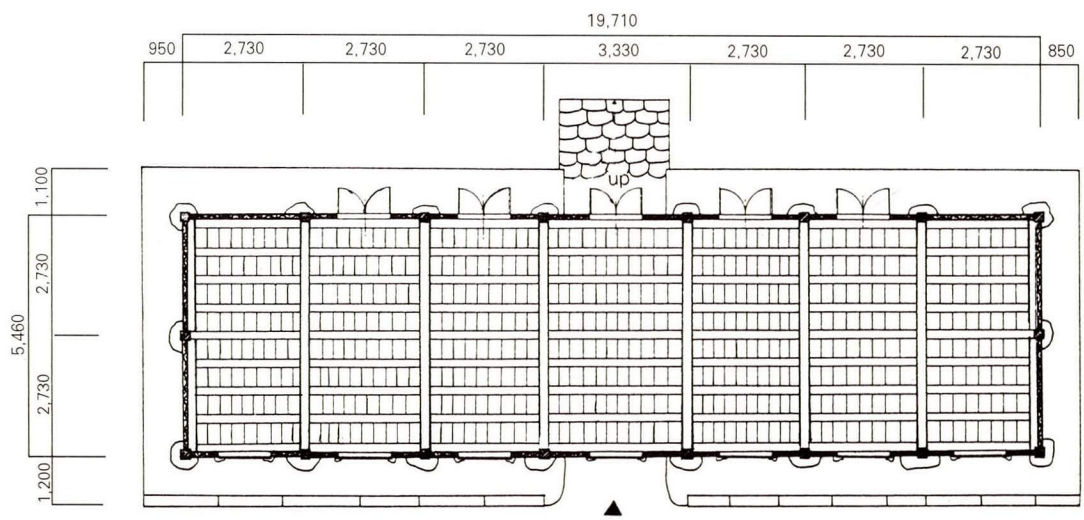
경주향교 명륜당 정면도



0 1 2 3M
0 5 10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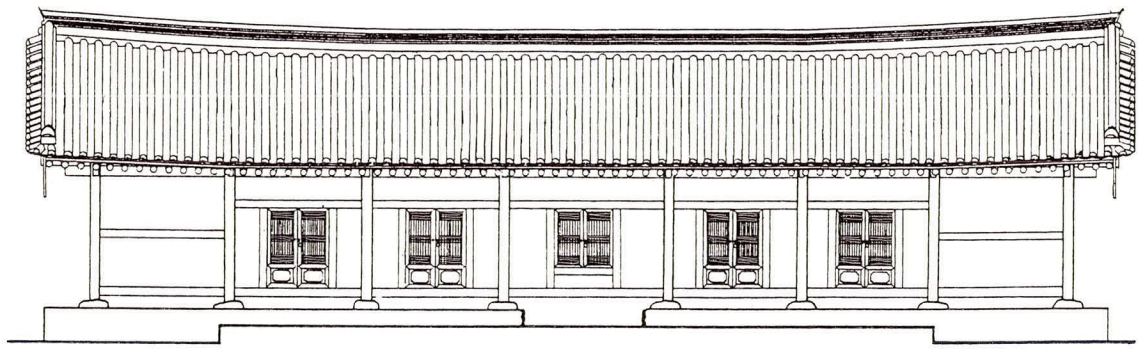
경주향교 명륜당 종단면도

22. 양양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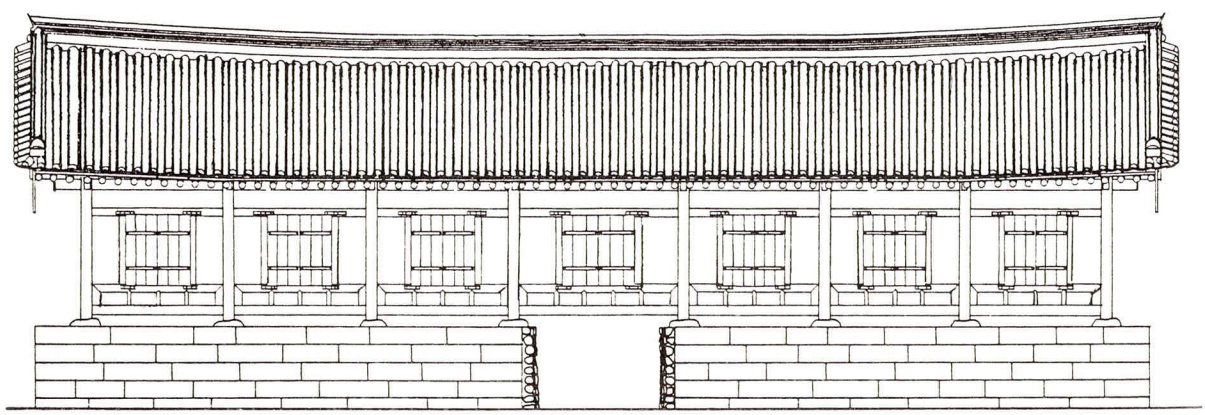


양양향교 명륜당 평면도

0 2 4 6 7M
0 5 10 15 20 22尺



양양향교 명륜당 정면도



양양향교 명륜당 배면도

(3) 누각(樓閣)

1. 동래향교 반화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2. 초계향교 풍화루 : 하층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3. 금구향교 만화루 : 하층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4. 밀양향교 풍화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5. 부안향교 만화루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6. 태인향교 만화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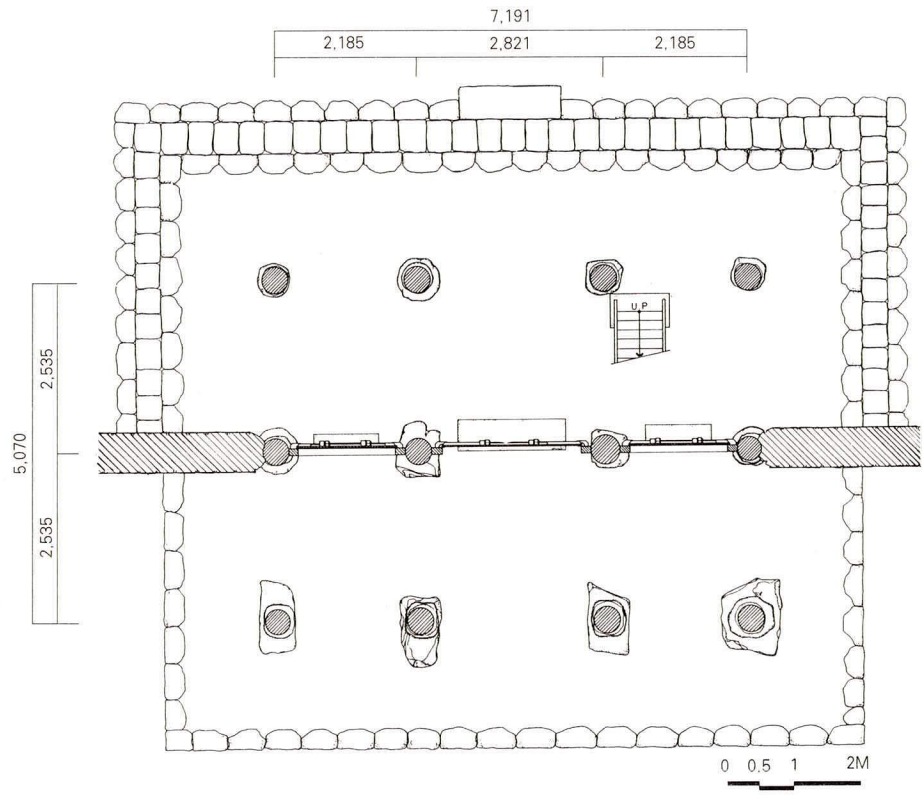
7. 의흥향교 광풍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8. 청송향교 청아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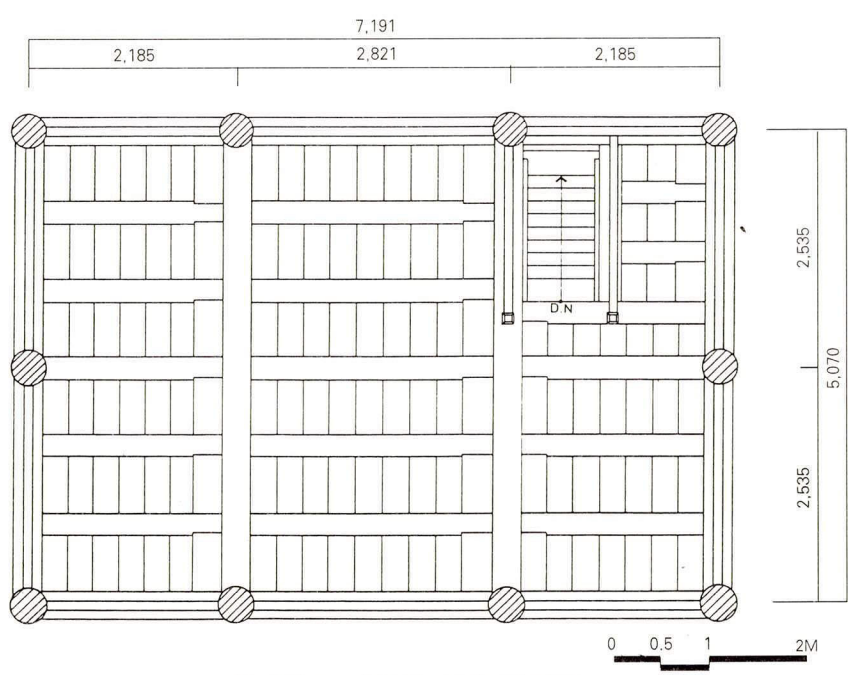
9. 안성향교 풍화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및 동서재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및 서재 정면도

10. 진천향교 풍화루 : 하층평면도, 상층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어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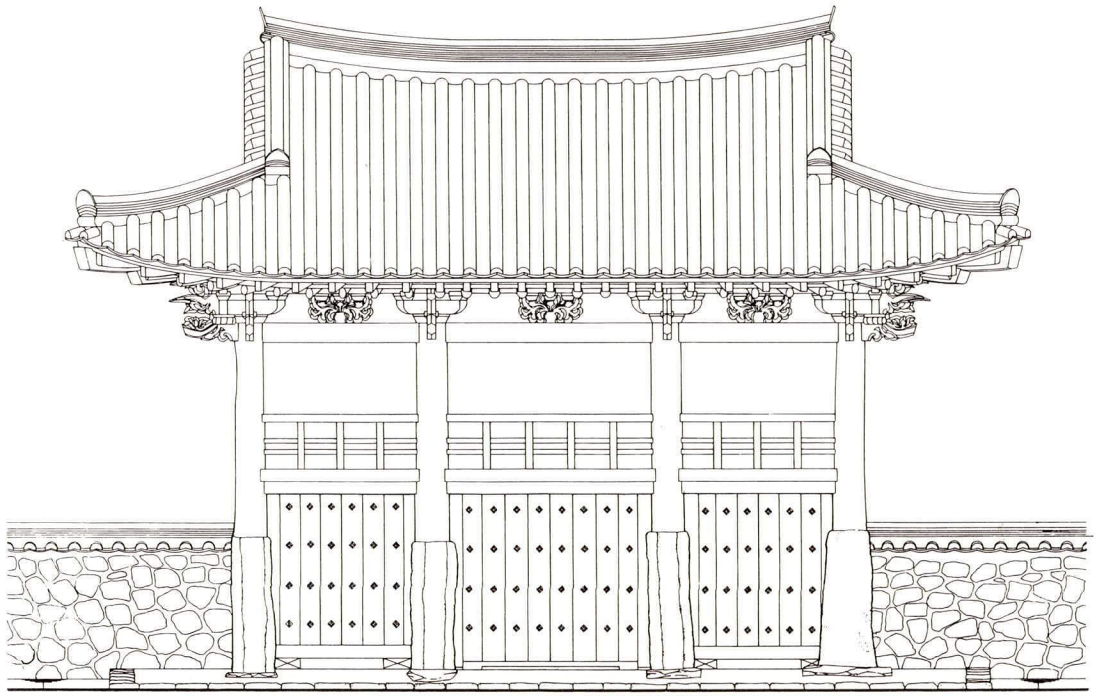
1. 동래향교 반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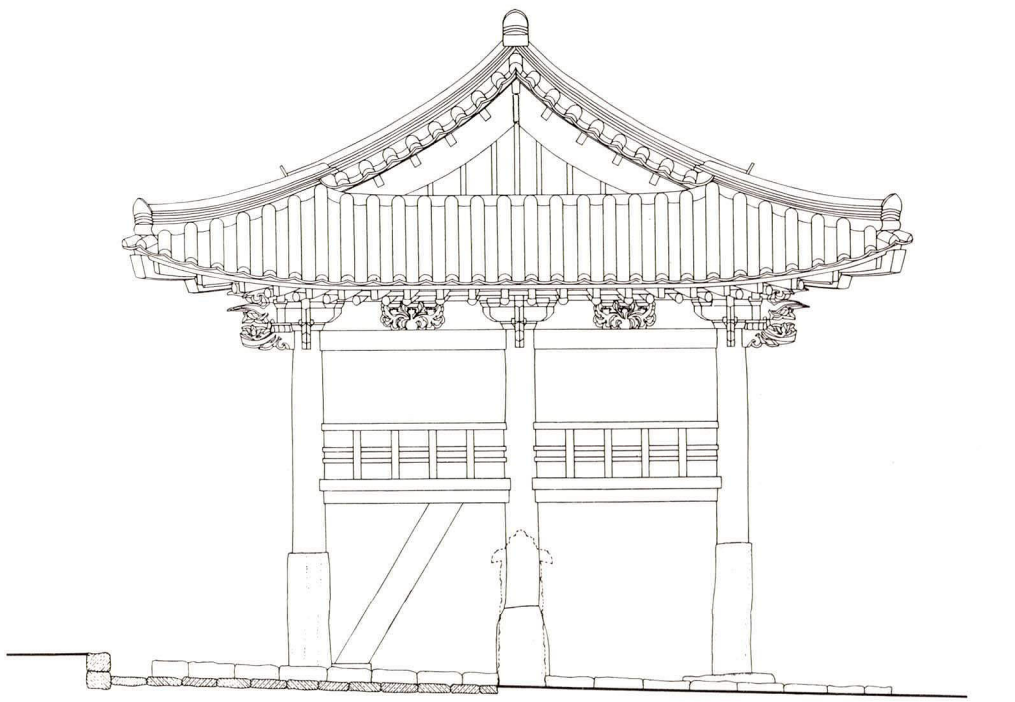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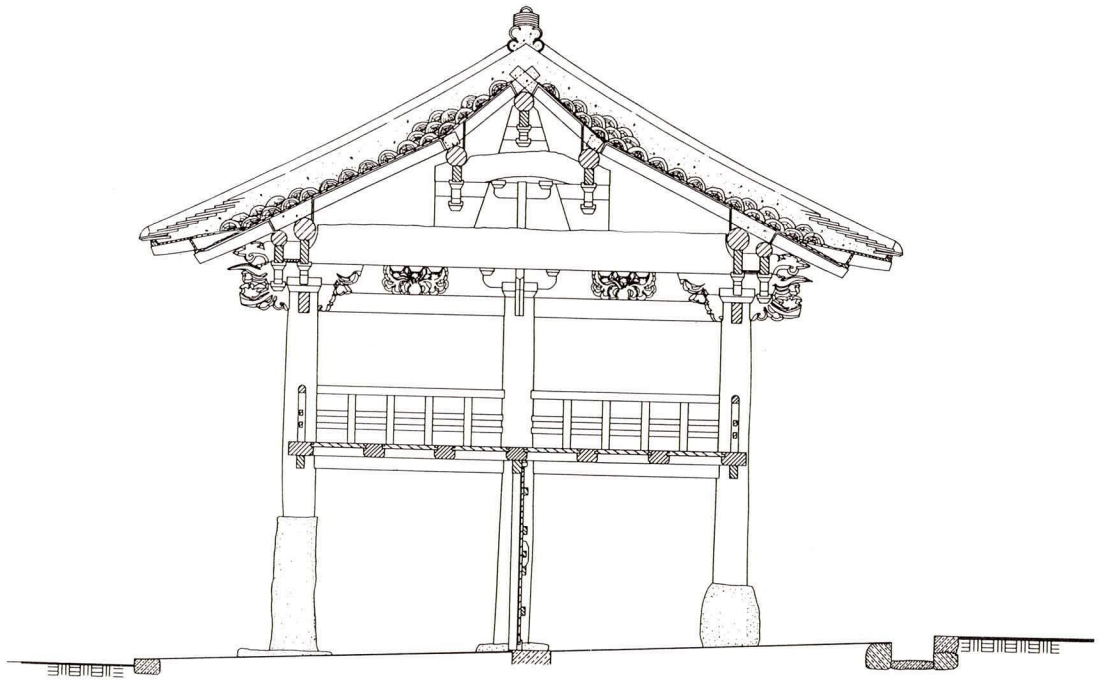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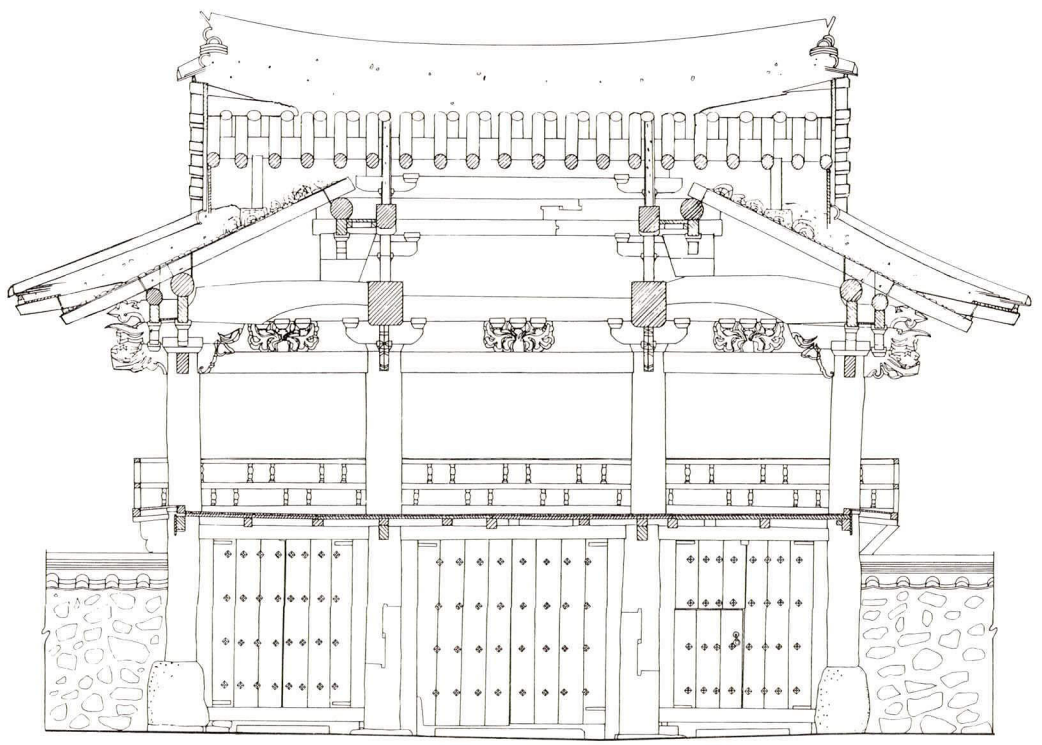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정면도



동래향교 반화루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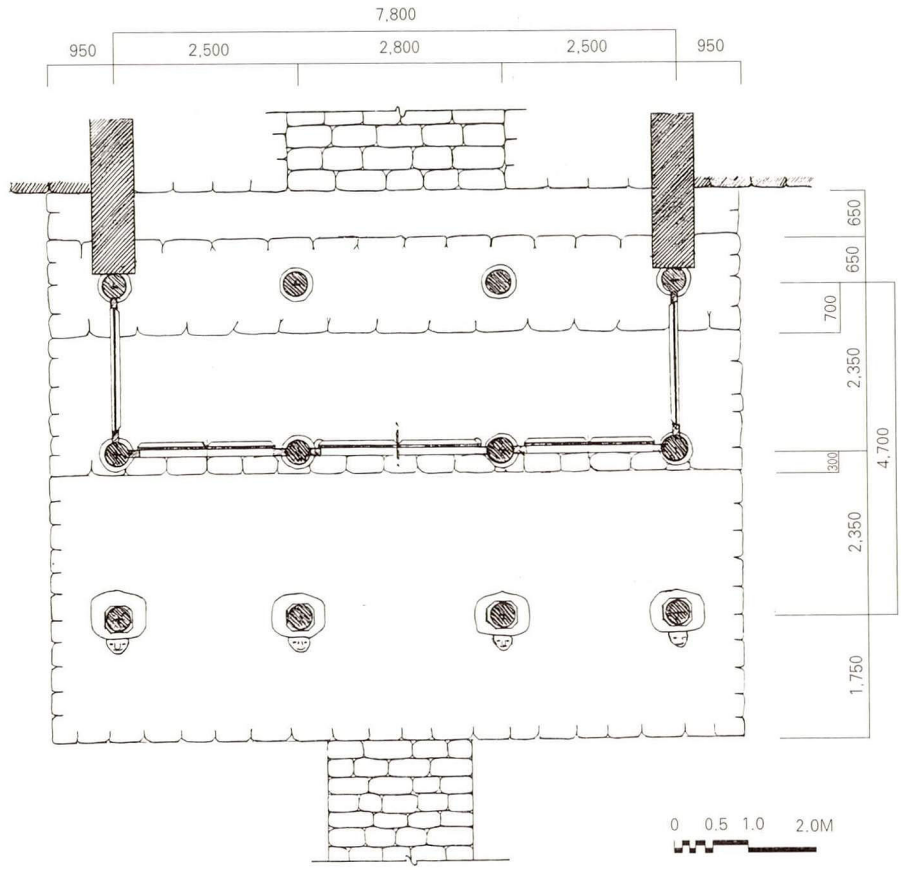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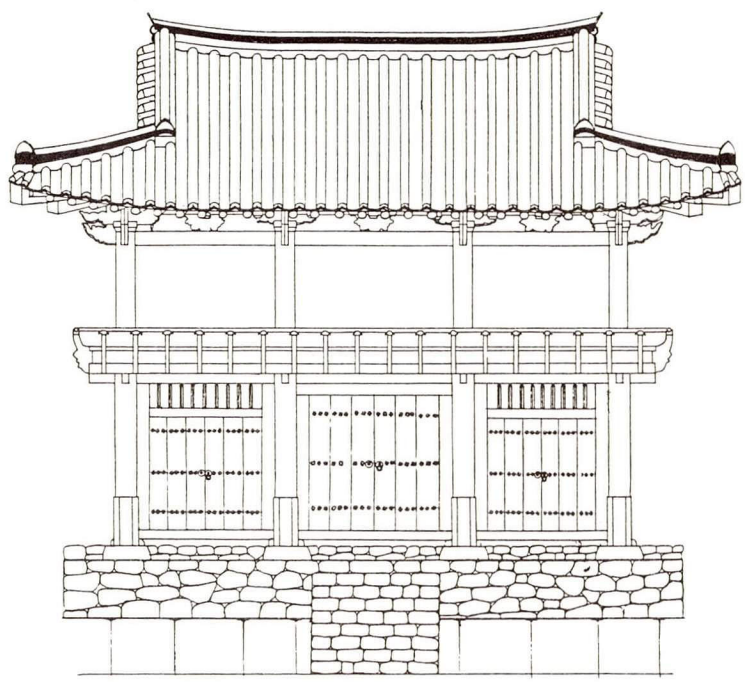


동래향교 반화루 횡단면도

2. 초계향교 풍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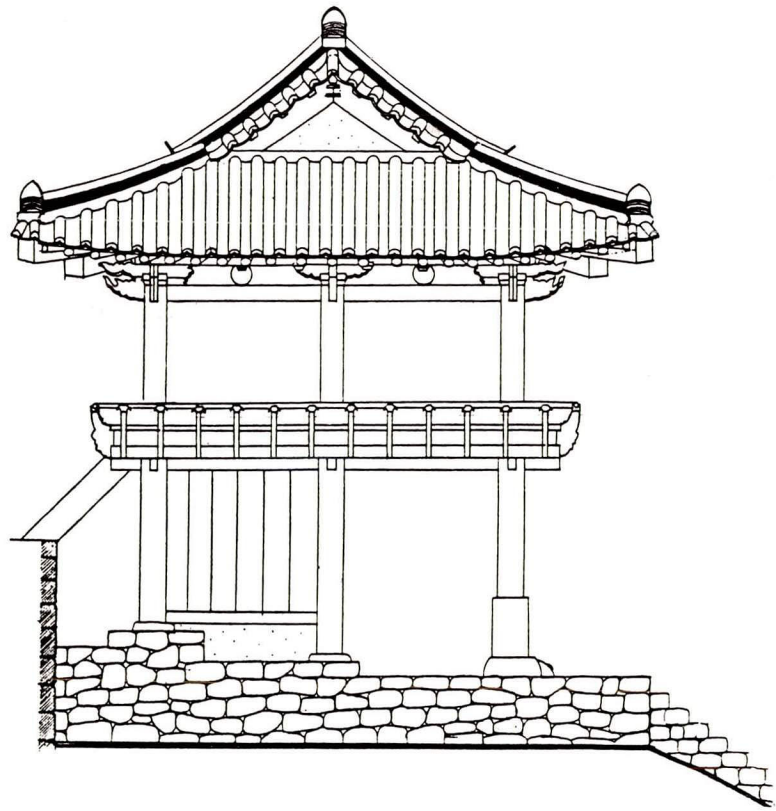


초계향교 풍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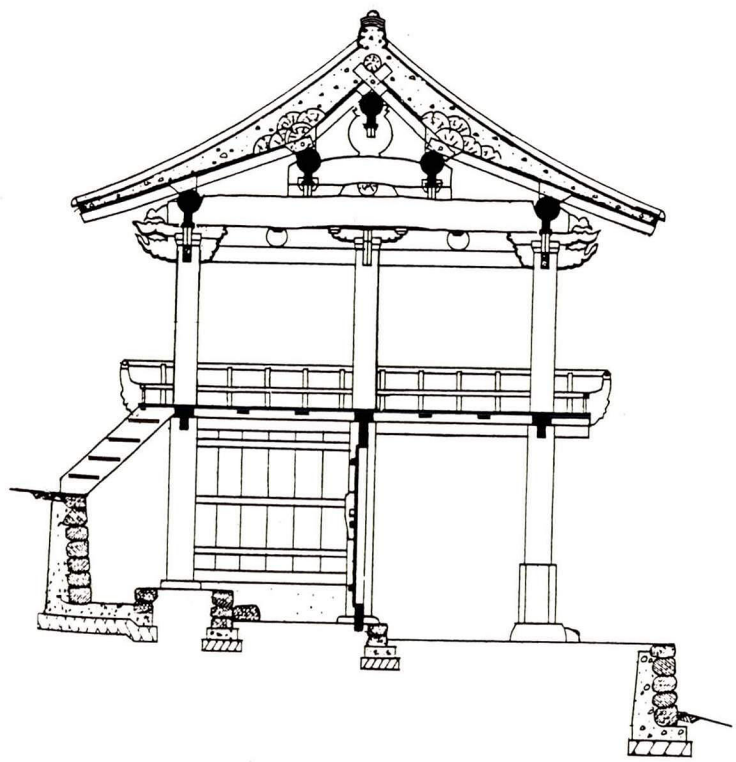


초계향교 풍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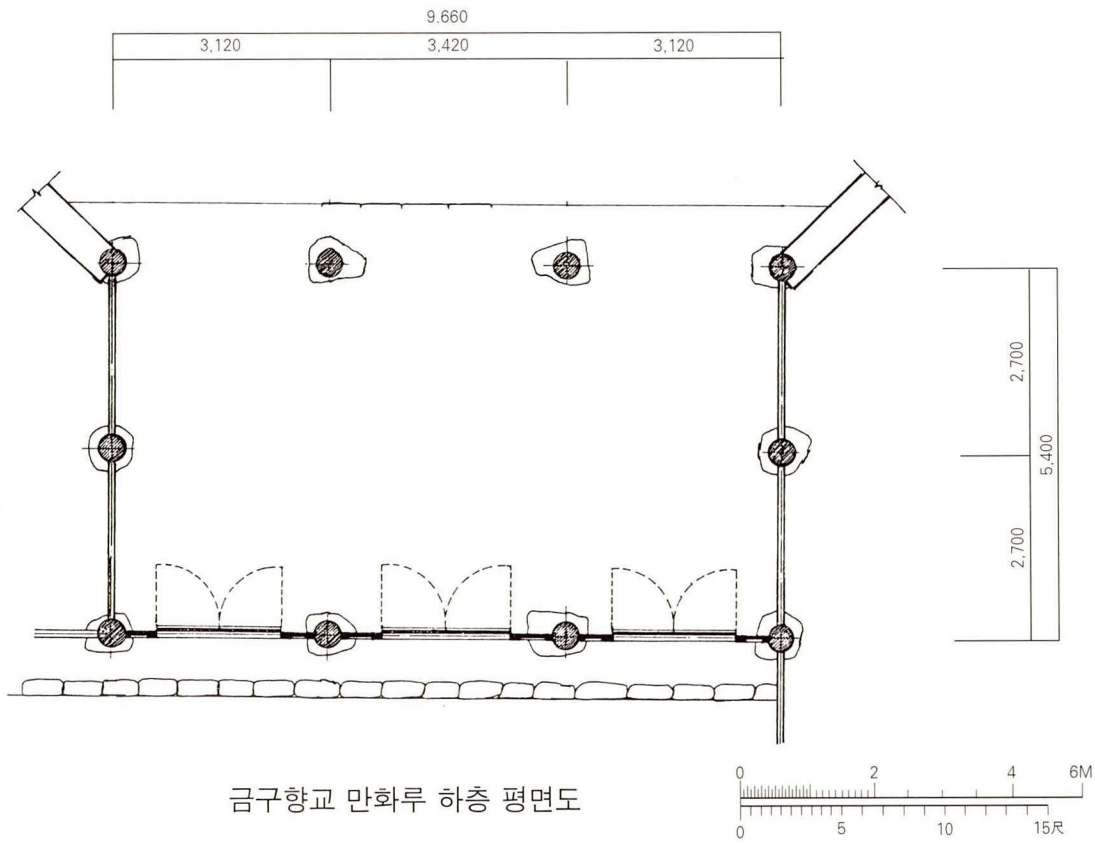


초계향교 풍화루 측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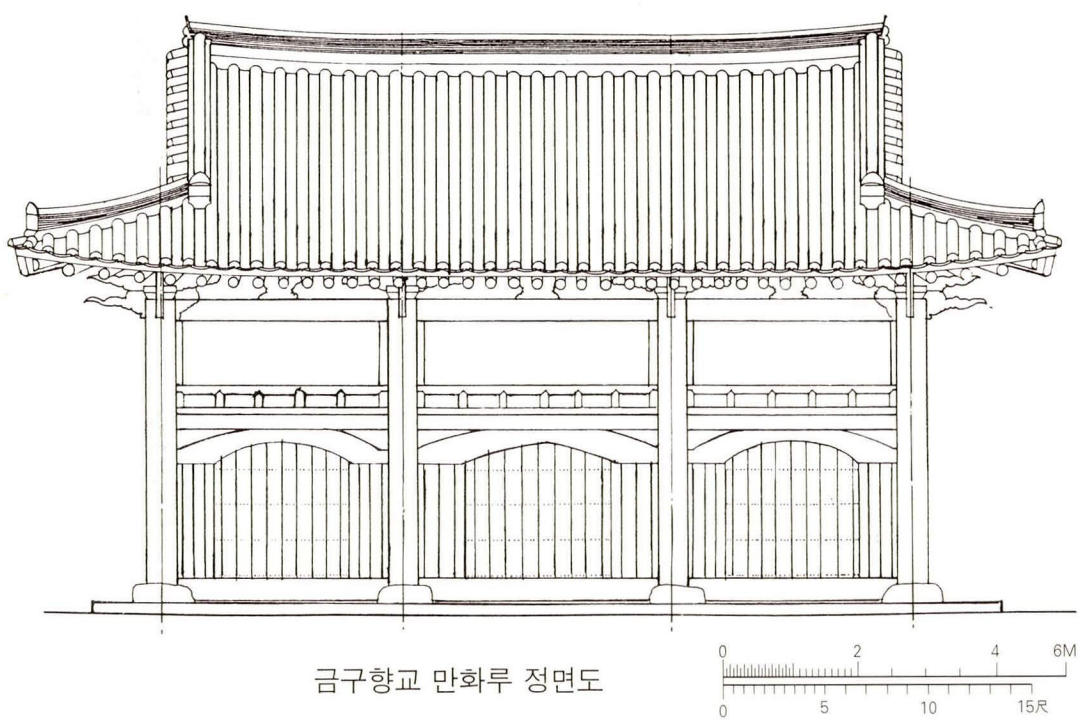


초계향교 풍화루 종단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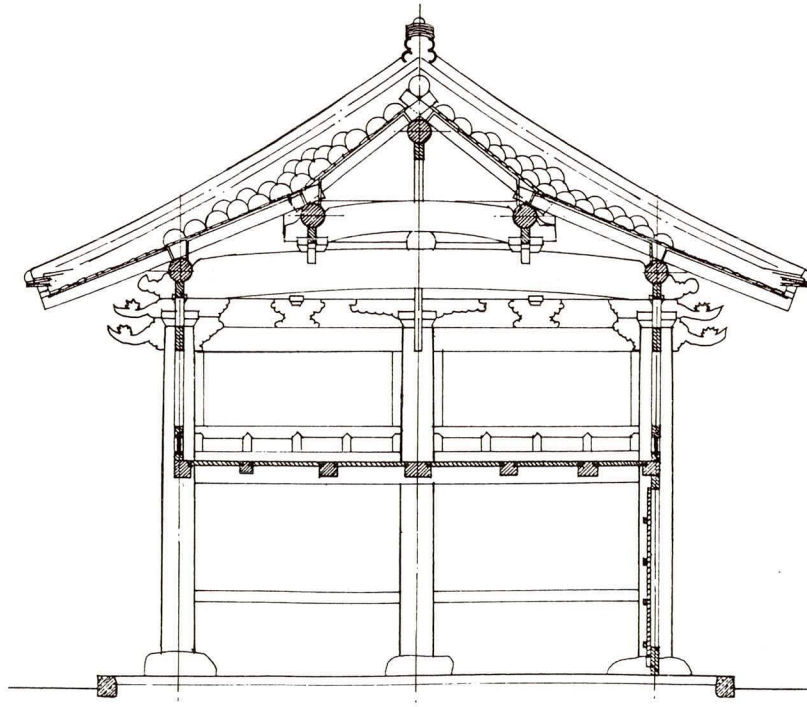
3. 금구향교 만화루



금구향교 만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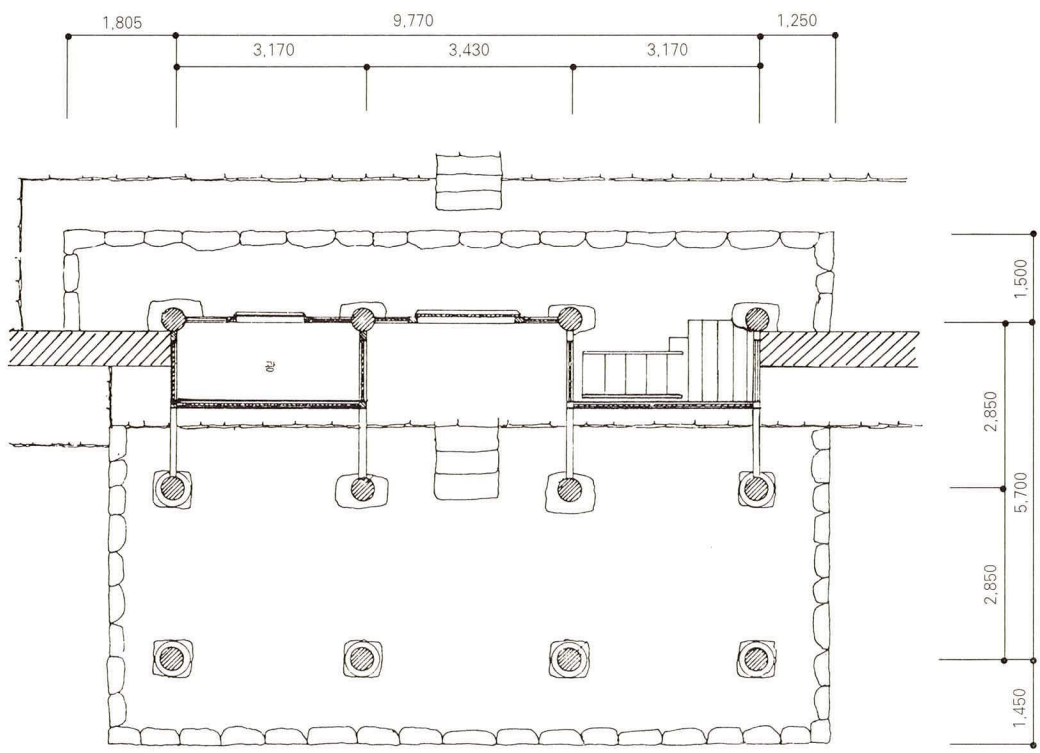


금구향교 만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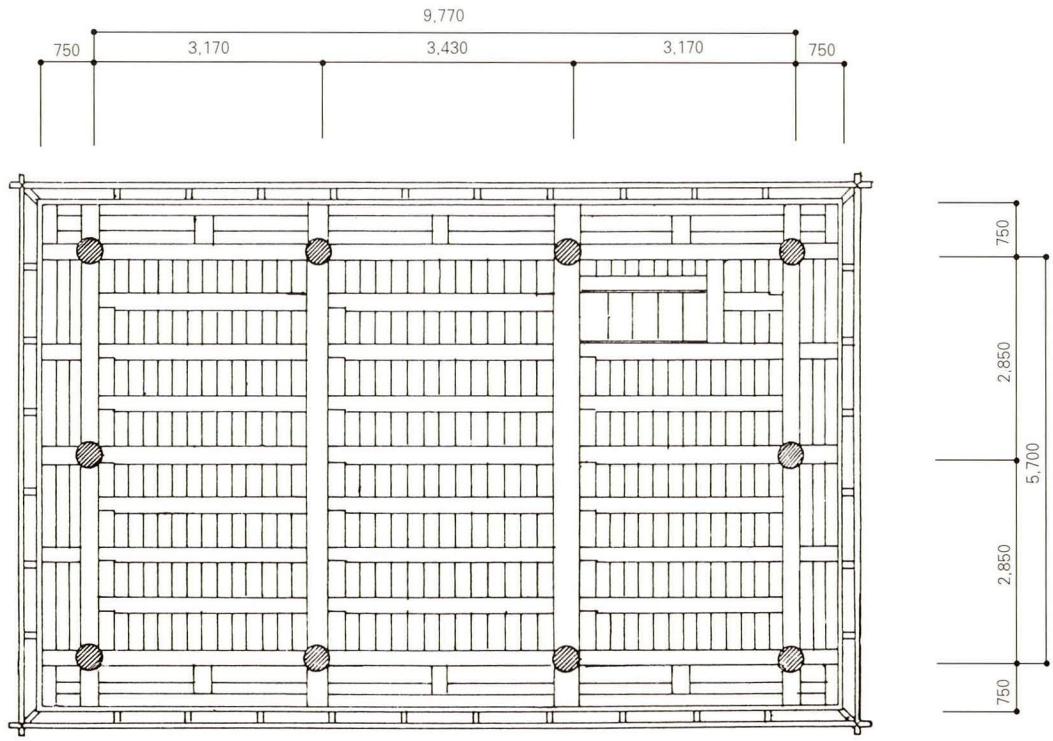


금구향교 만화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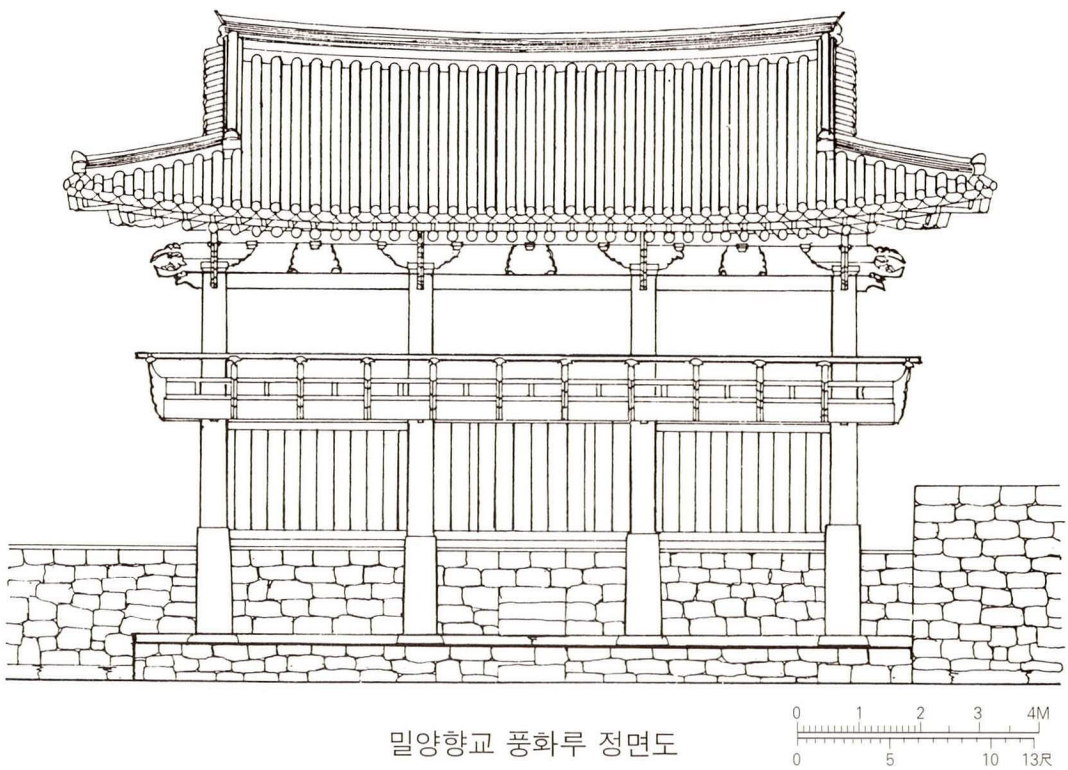
4. 밀양향교 풍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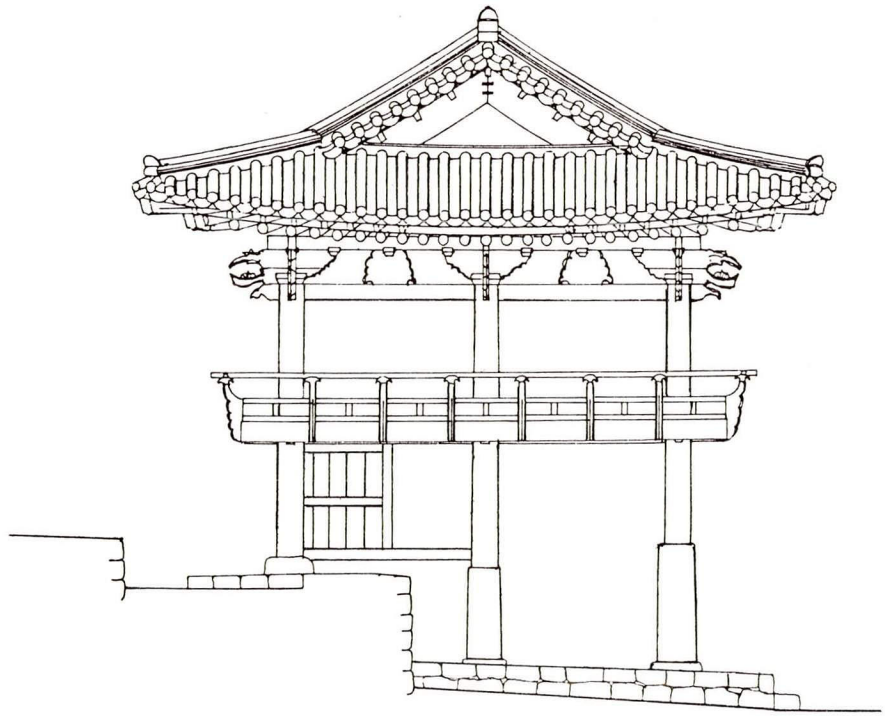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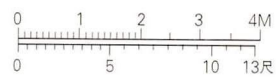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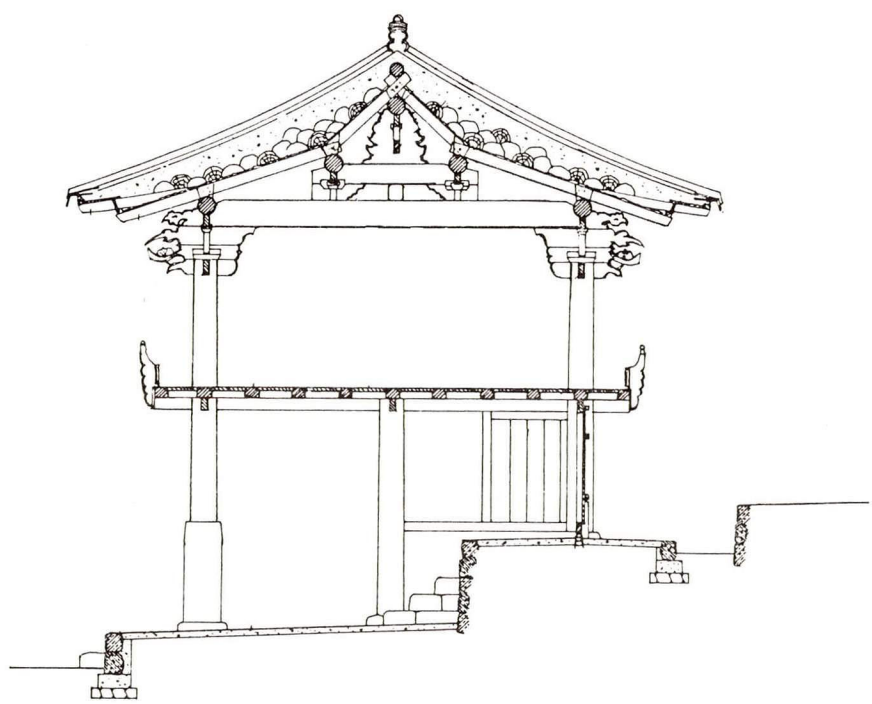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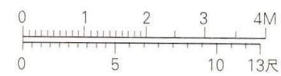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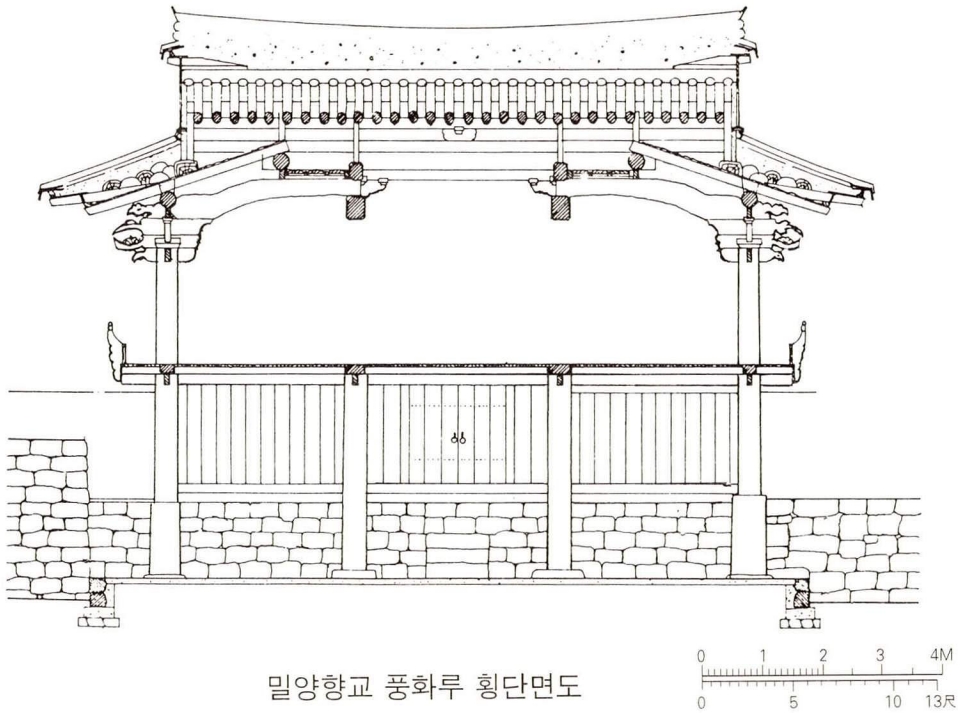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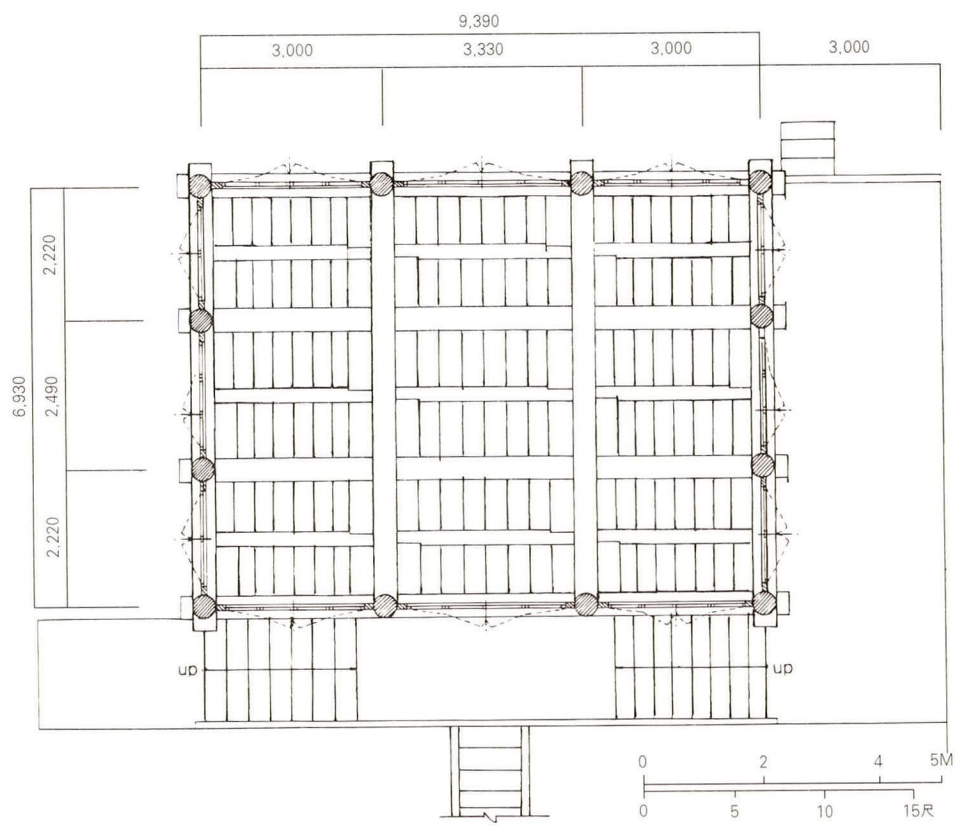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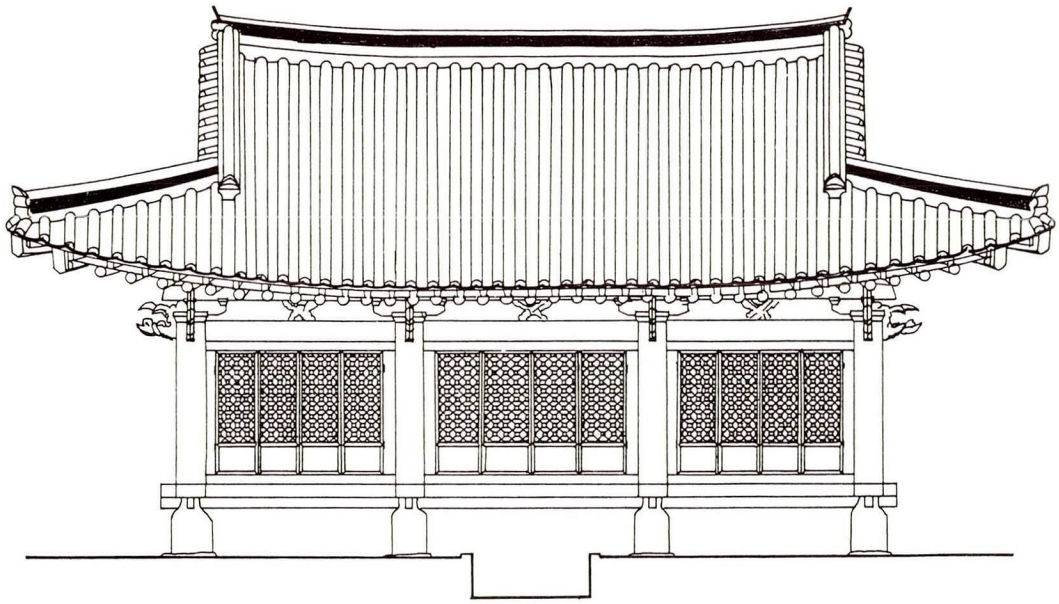


밀양향교 풍화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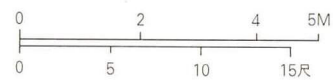
5. 부안향교 만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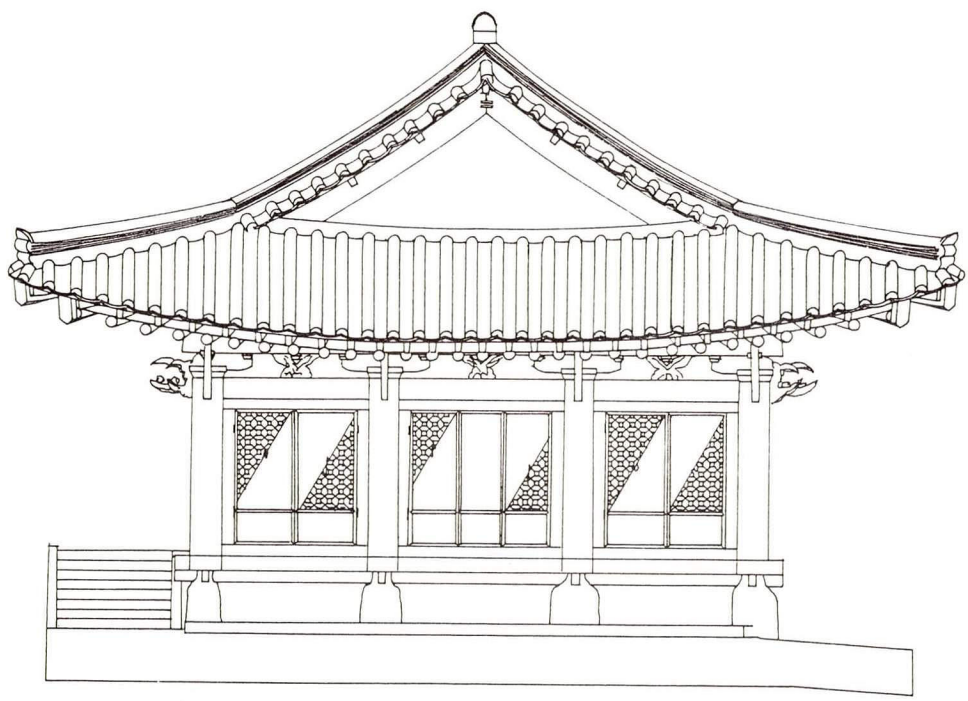


부안향교 만화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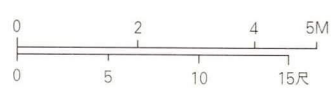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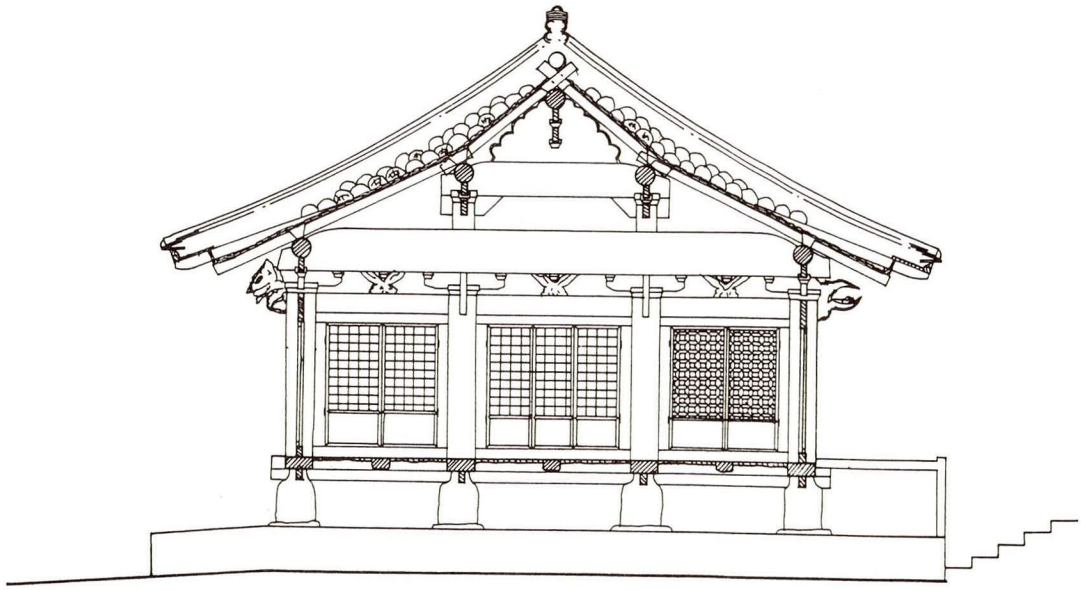
부안향교 만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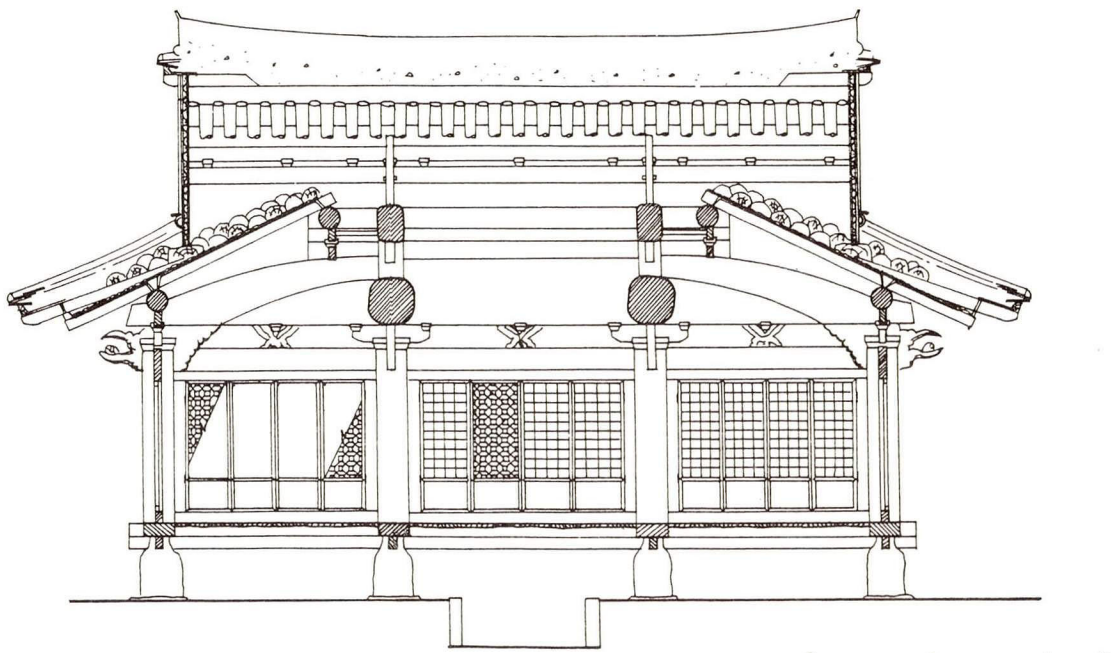


부안향교 만화루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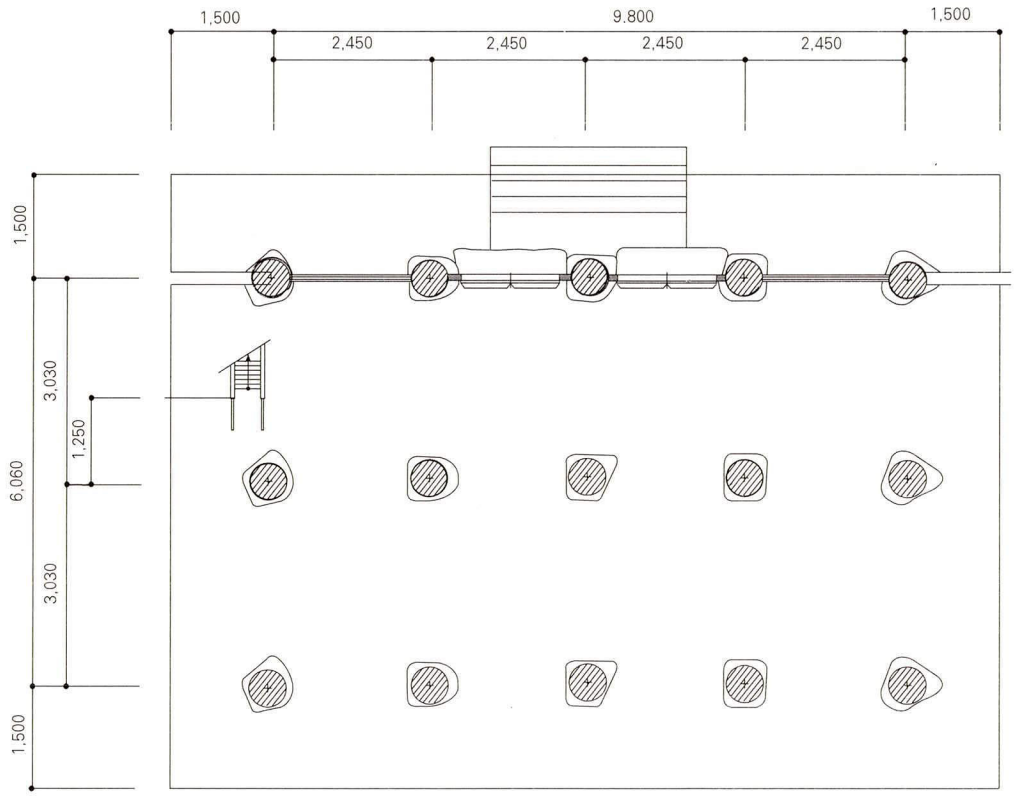


부안향교 만화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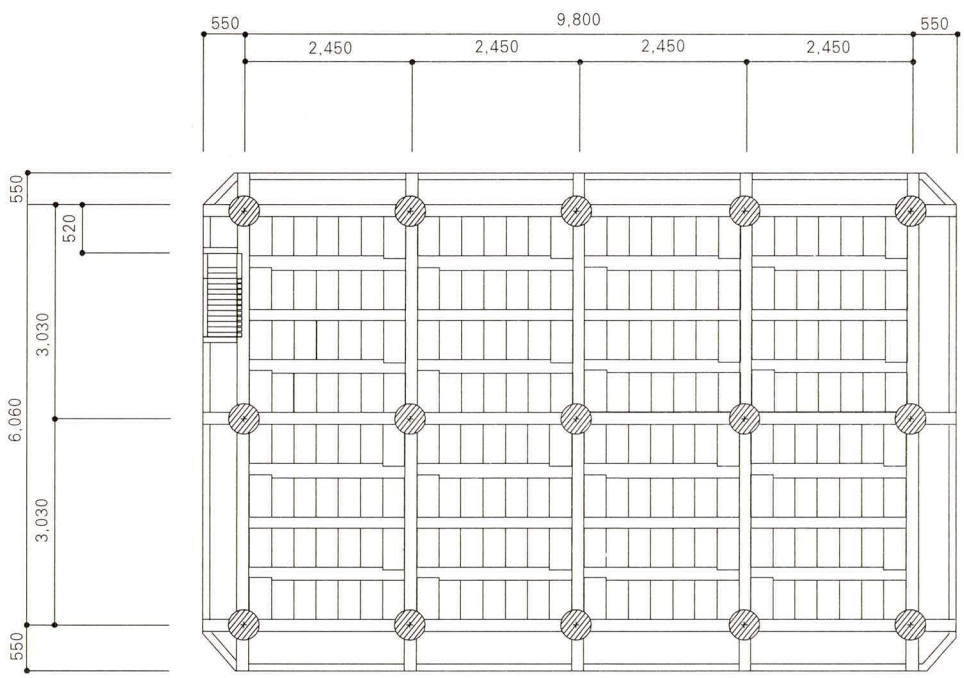


부안향교 만화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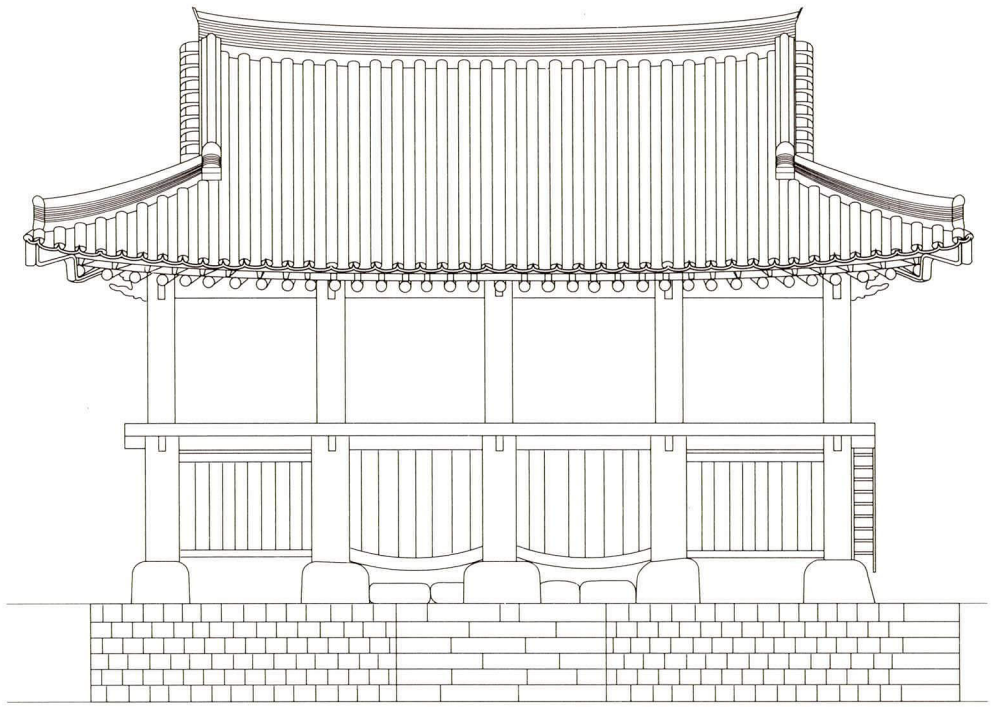
6. 태인향교 만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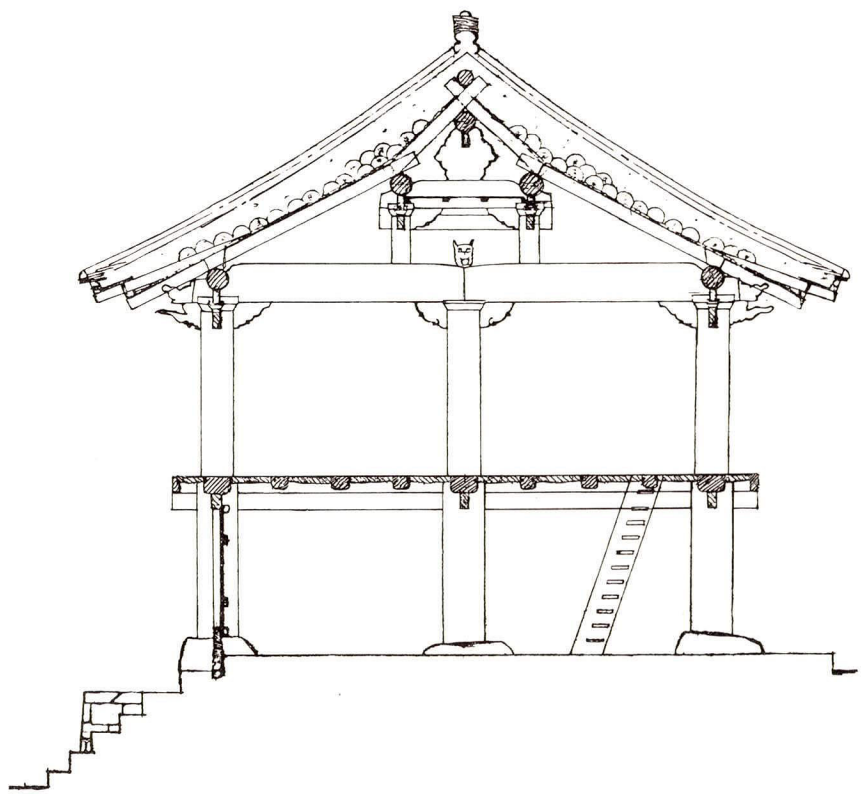
태인향교 만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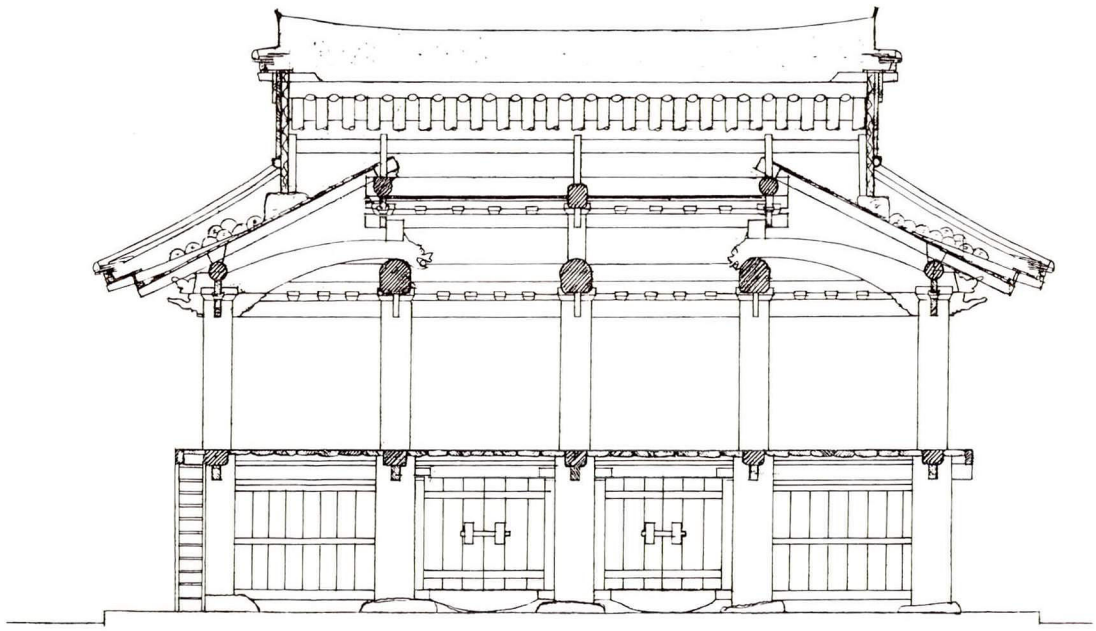
태인향교 만화루 상층 평면도



태인향교 만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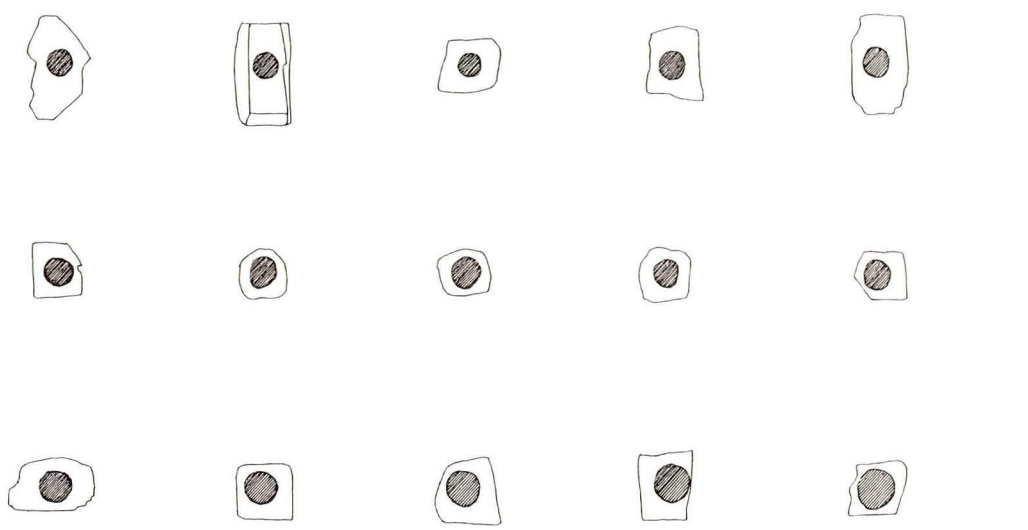


태인향교 만화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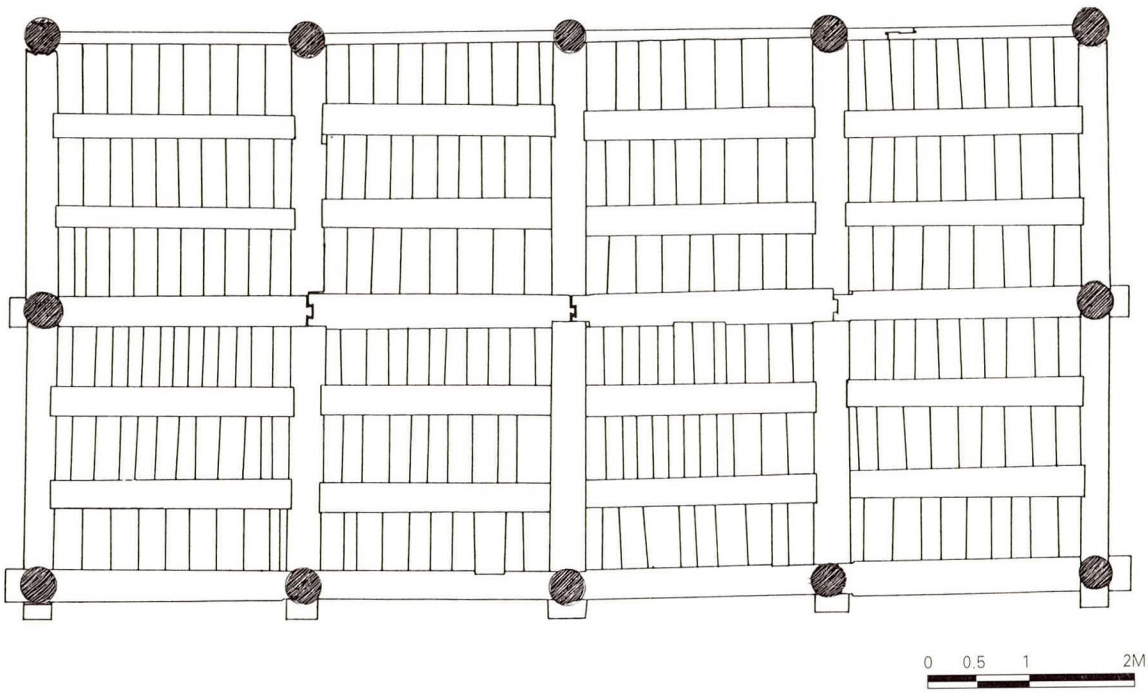


태인 향교 만화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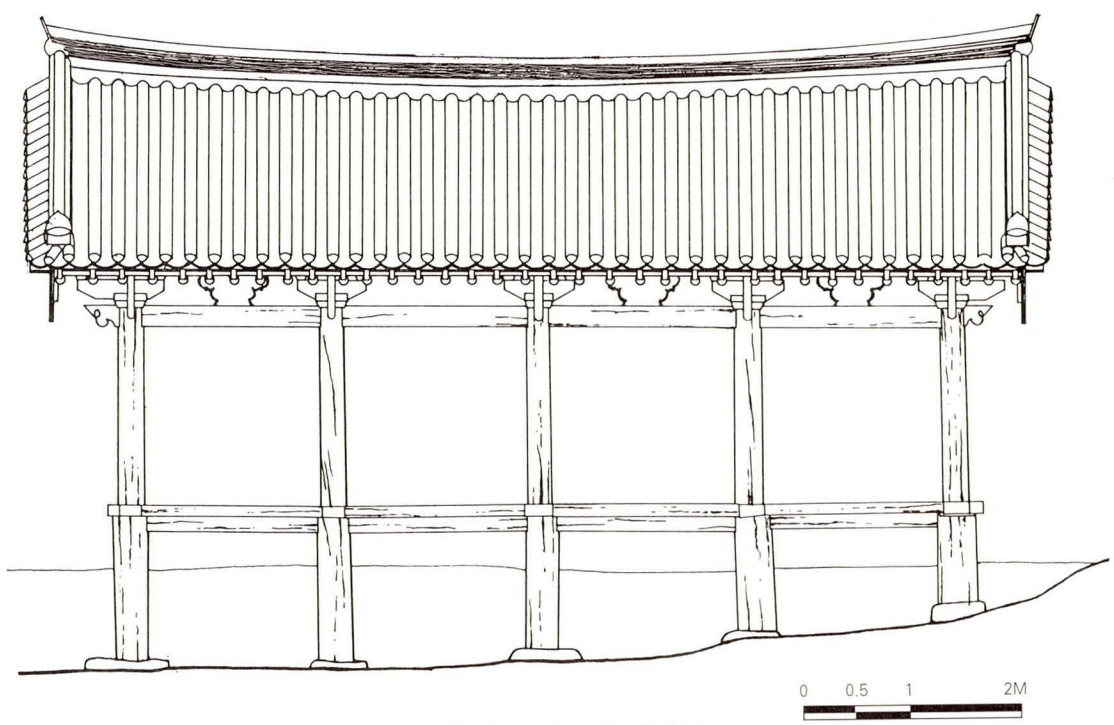
7. 의흥향교 광풍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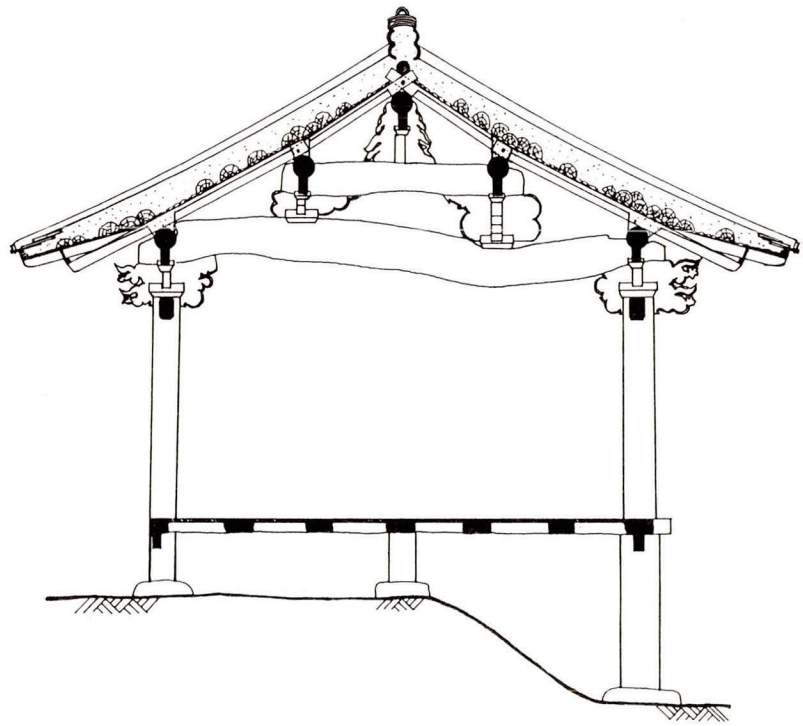
의흥향교 광풍루 하층 평면도



의흥향교 광풍루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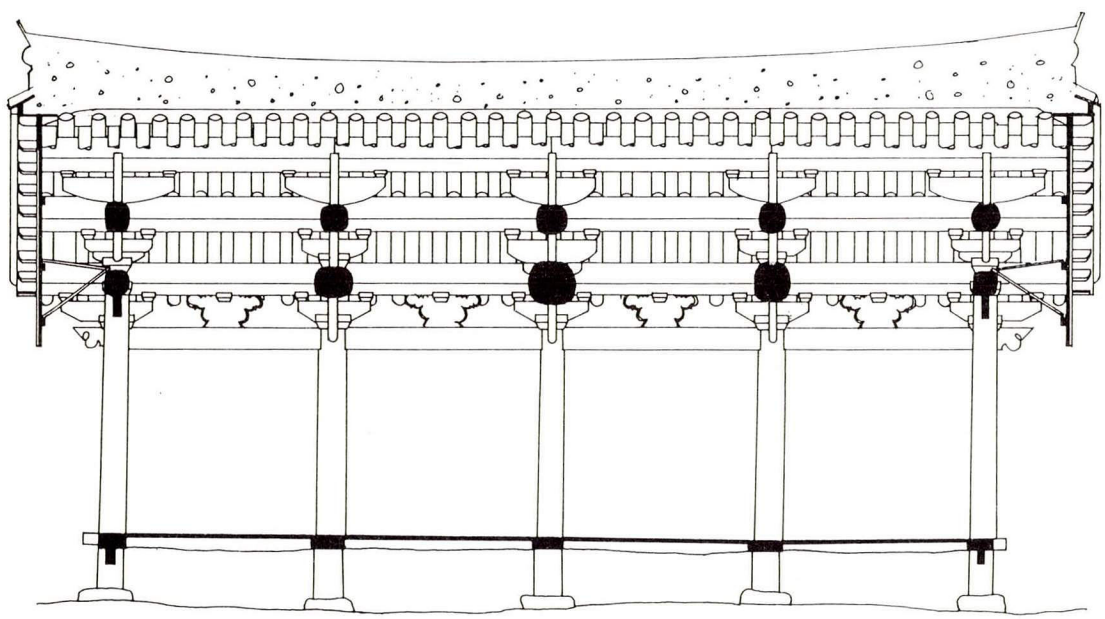


의흥향교 광풍루 정면도



의흥향교 광풍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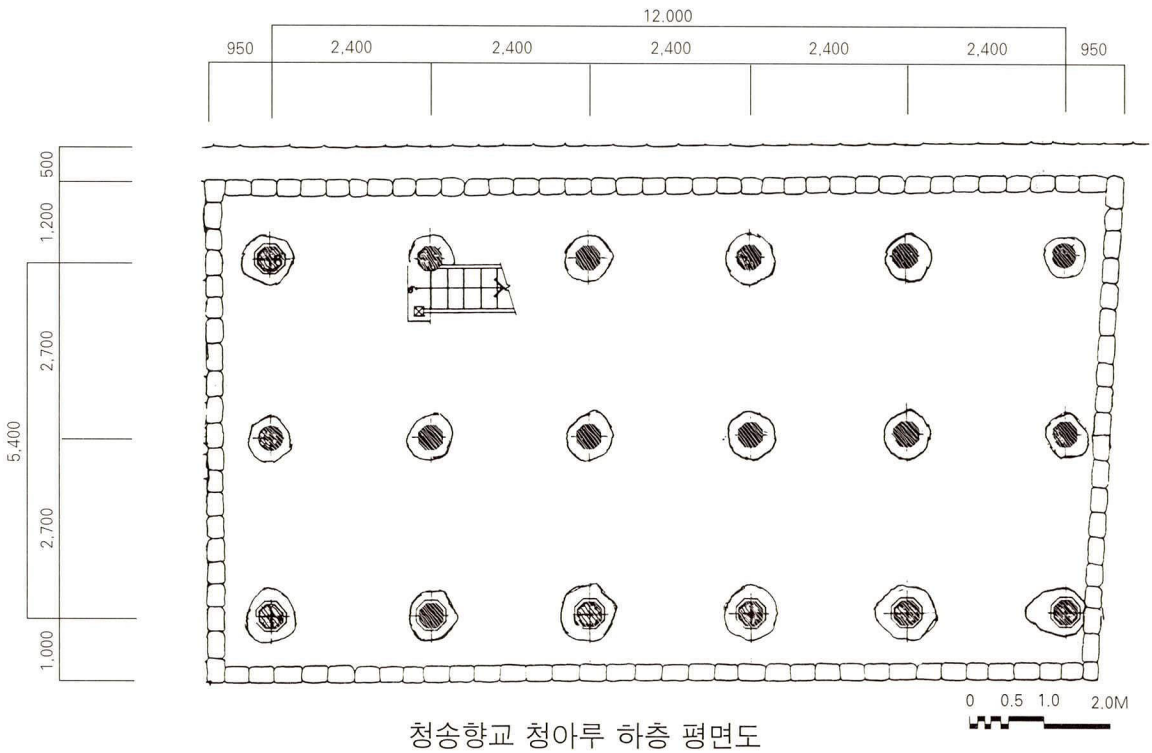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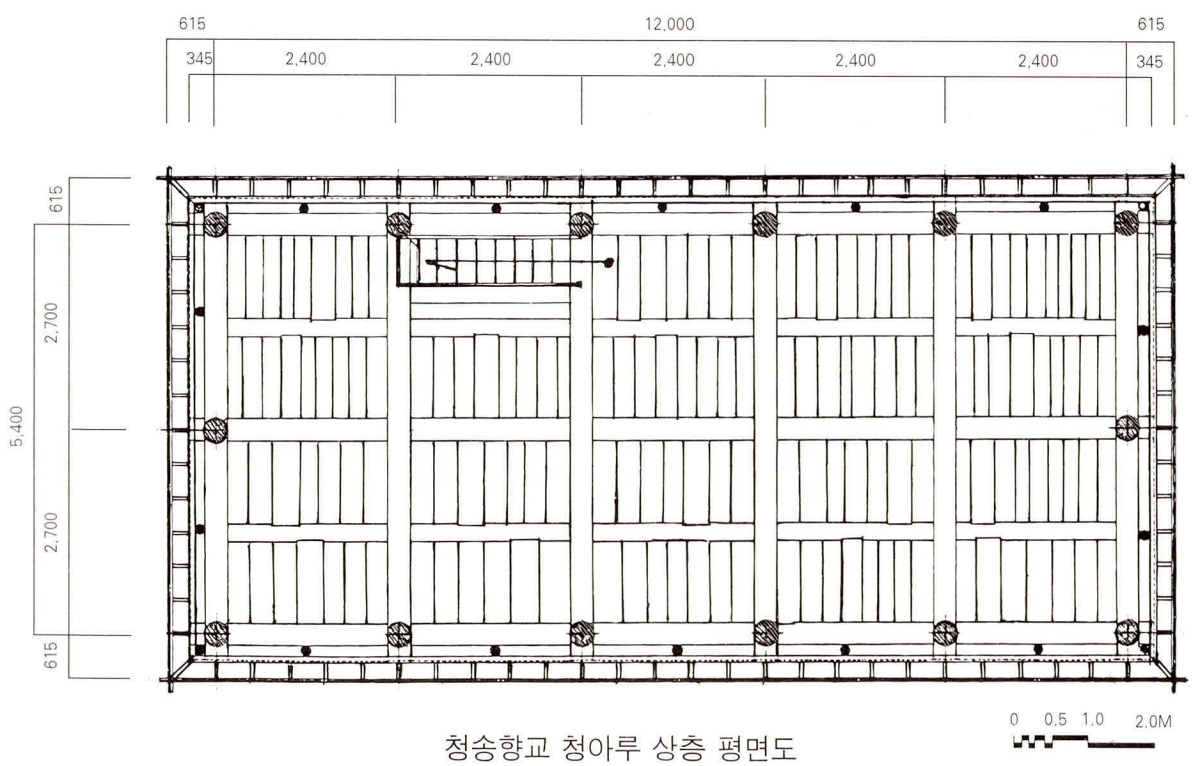
의흥향교 광풍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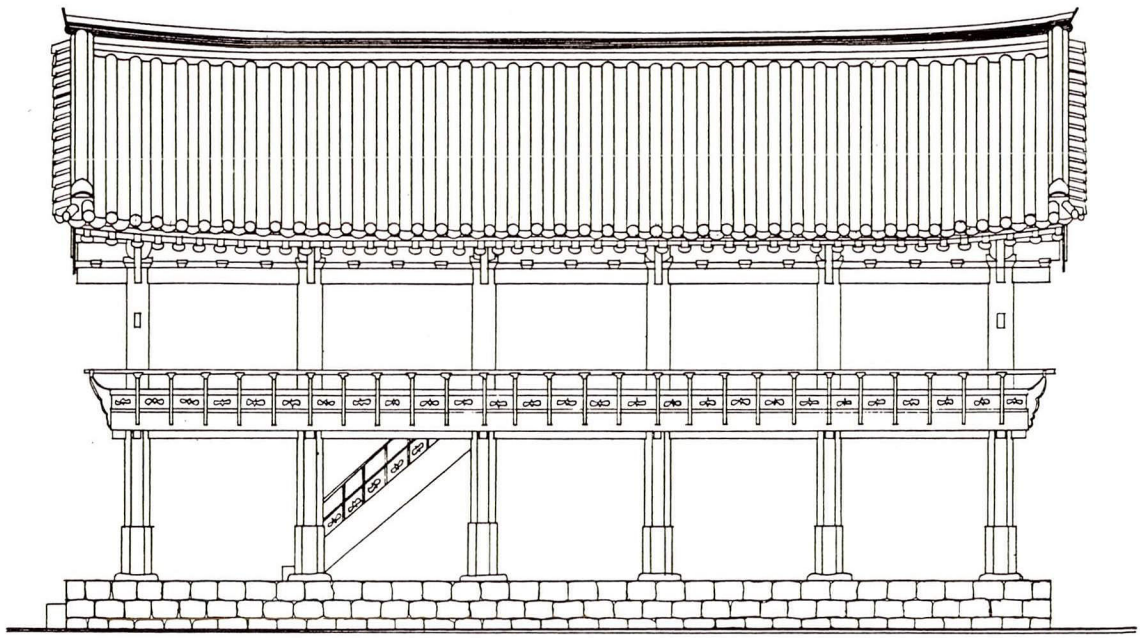
8. 청송향교 청아루



청송향교 청아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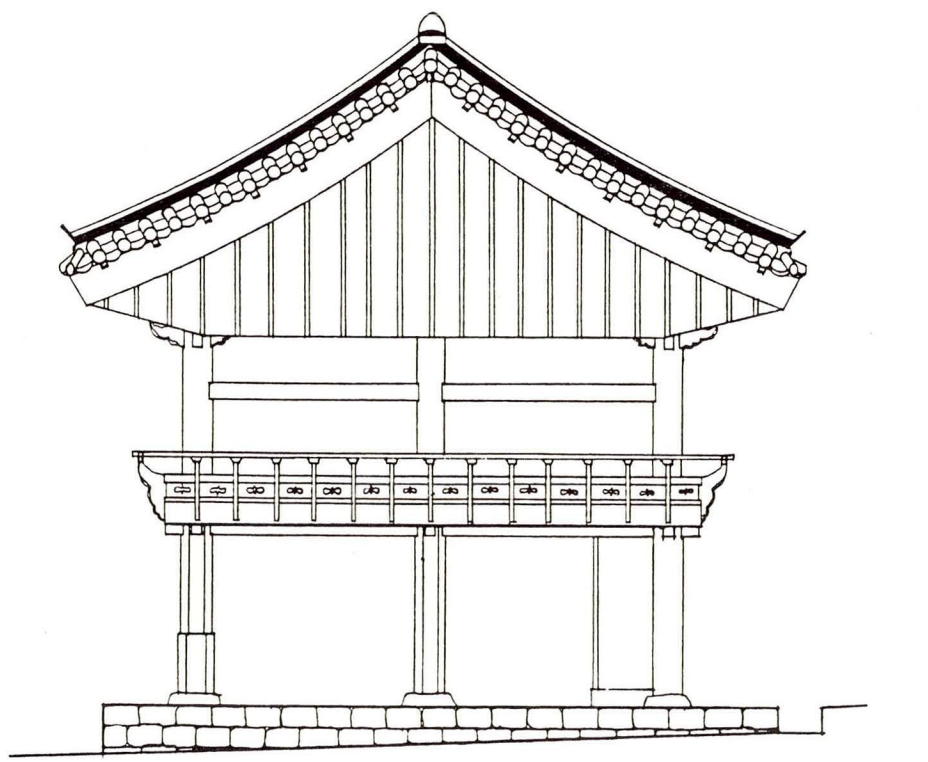


청송향교 청아루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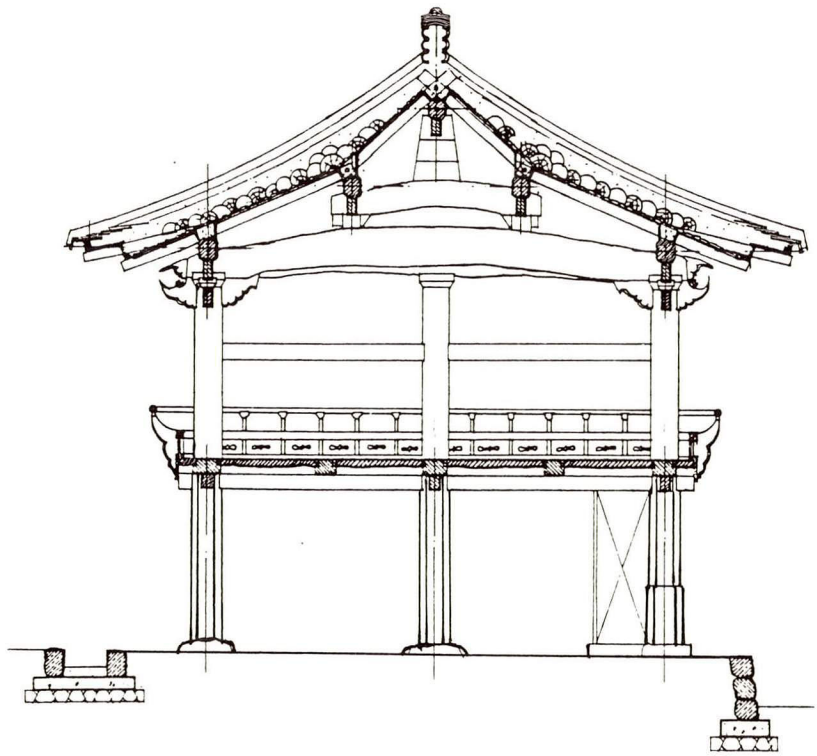
청송향교 청아루 정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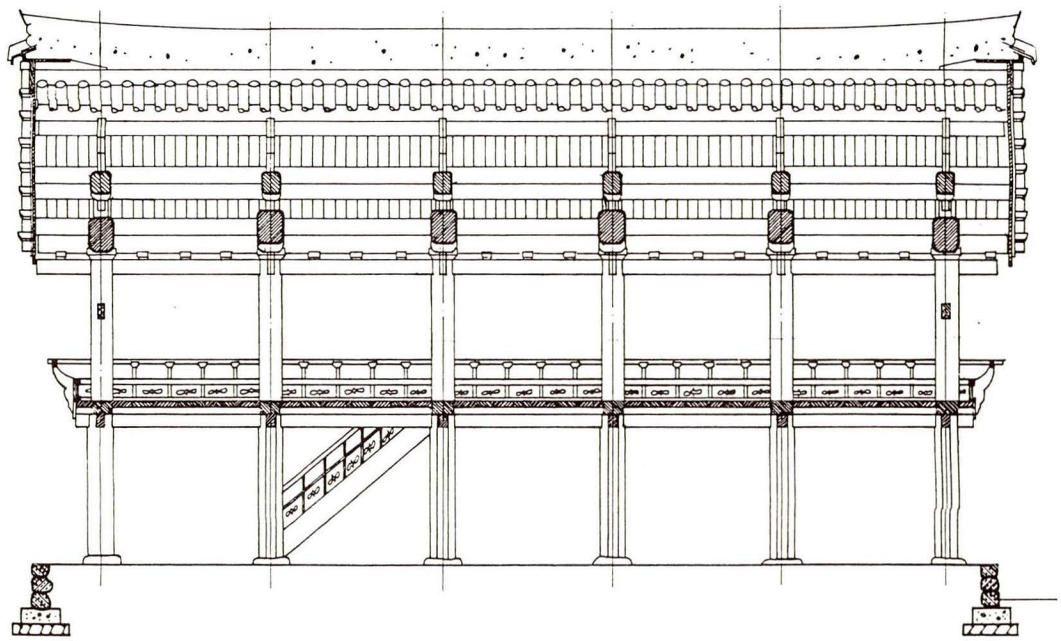
청송향교 청아루 우측면도

0 0.5 1.0 2.0M



청송향교 청아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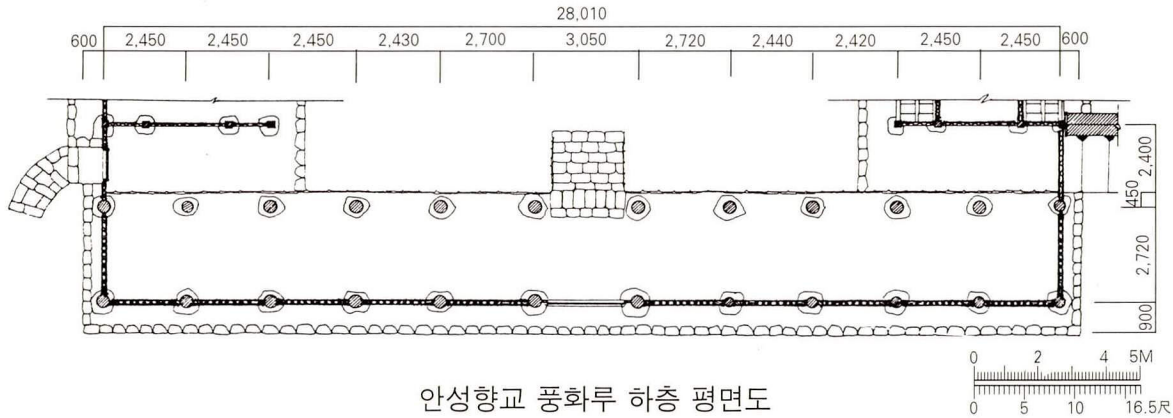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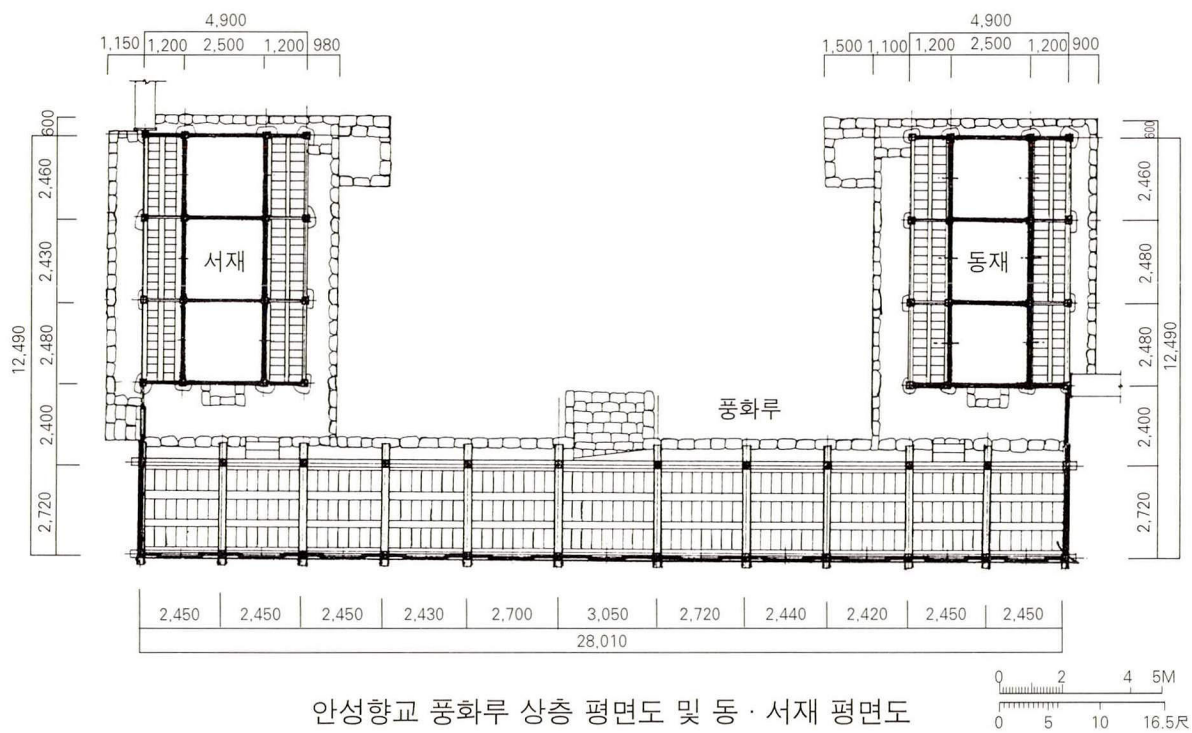
청송향교 청아루 횡단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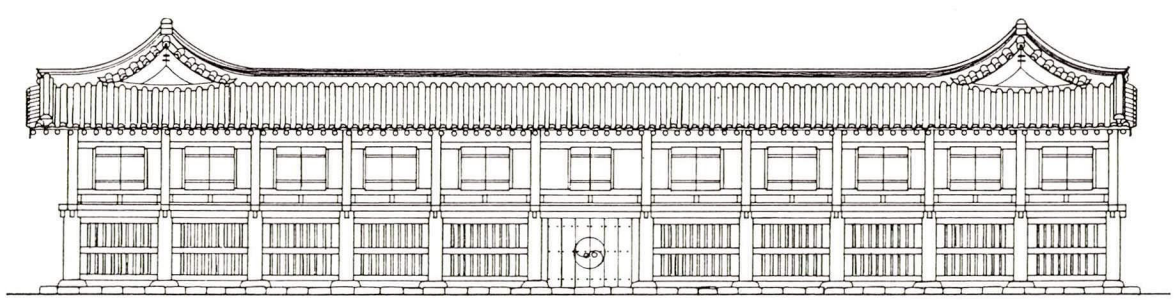
9. 안성향교 풍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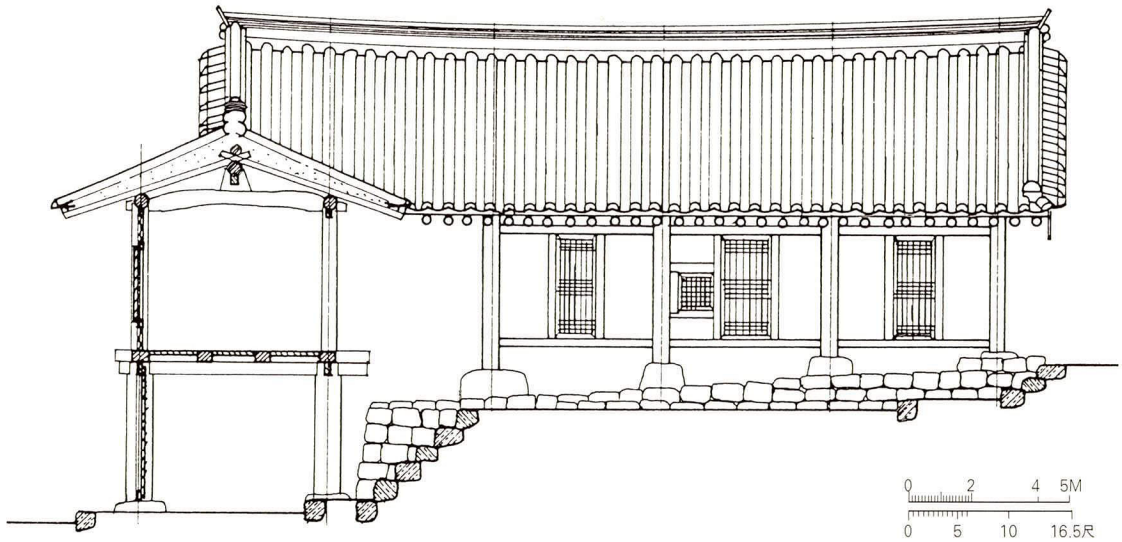
안성향교 풍화루 하층 평면도



안성향교 풍화루 상층 평면도 및 동 · 서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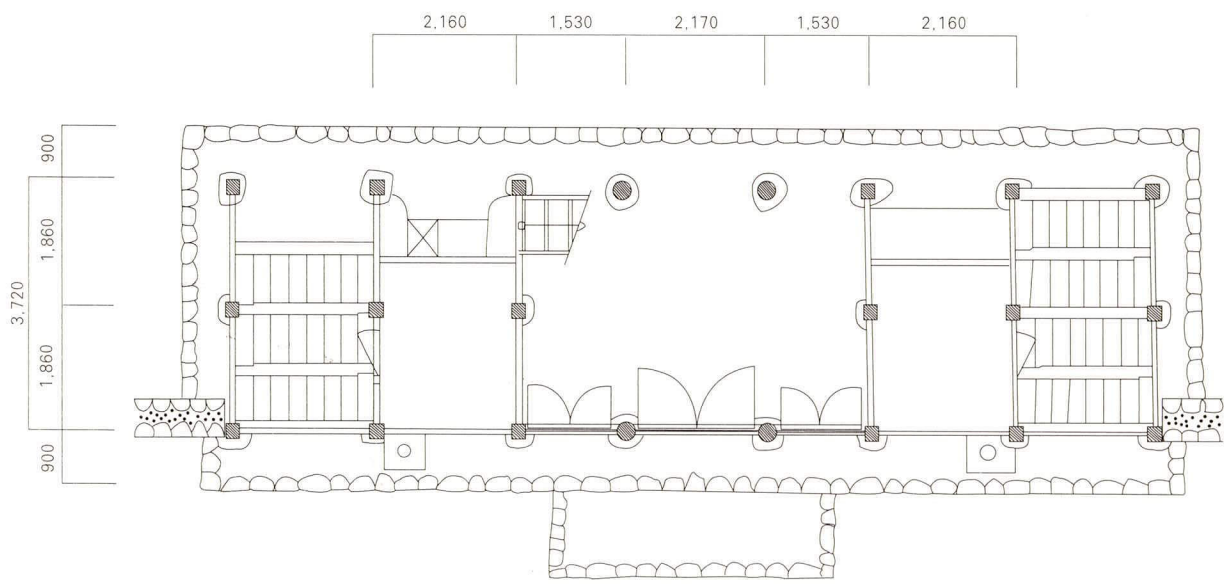


안성향교 풍화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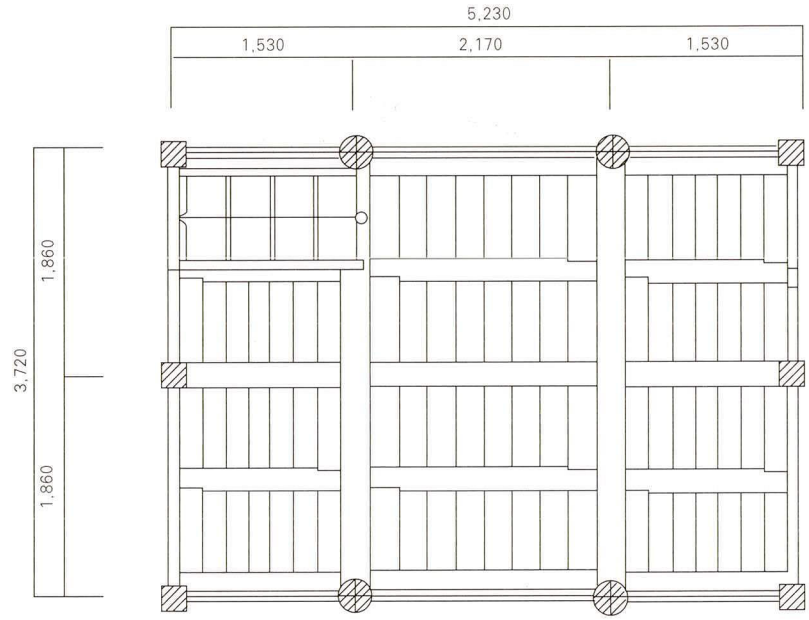


안성향교 풍화루 종단면 및 서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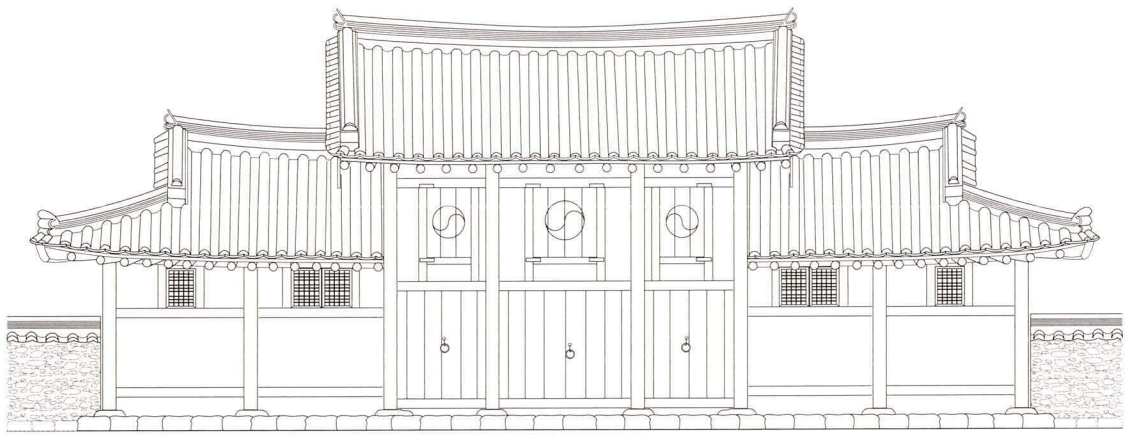
10. 진천향교 풍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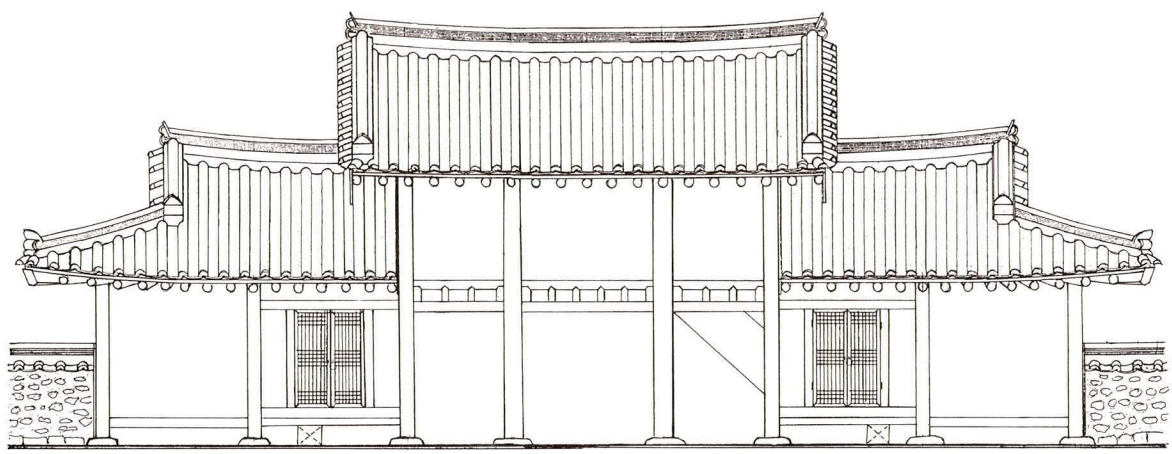
진천향교 풍화루 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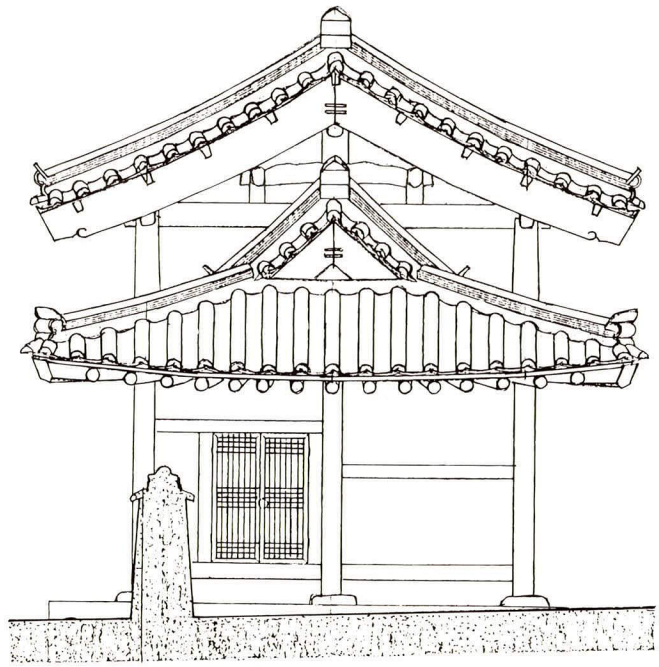
진천향교 풍화루 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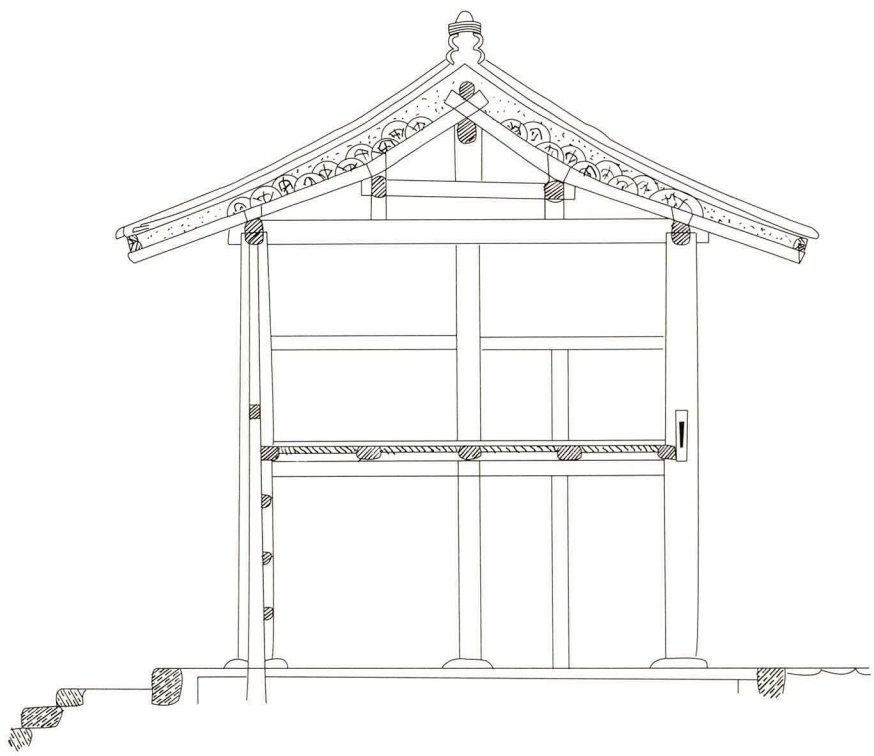
진천향교 풍화루 정면도



진천향교 풍화루 배면도



진천향교 풍화루 우측면도



진천향교 풍화루 어칸 종단면도

(4) 동·서무(東西廡)

1. 낙안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2. 부평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3. 남해향교 서무 : 평면도, 정면도

4. 인천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5. 춘천향교 서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6. 풍기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7. 단양향교 서무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8. 남해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9. 교동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0. 순천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1. 옥천향교 동서무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12. 거제향교 동서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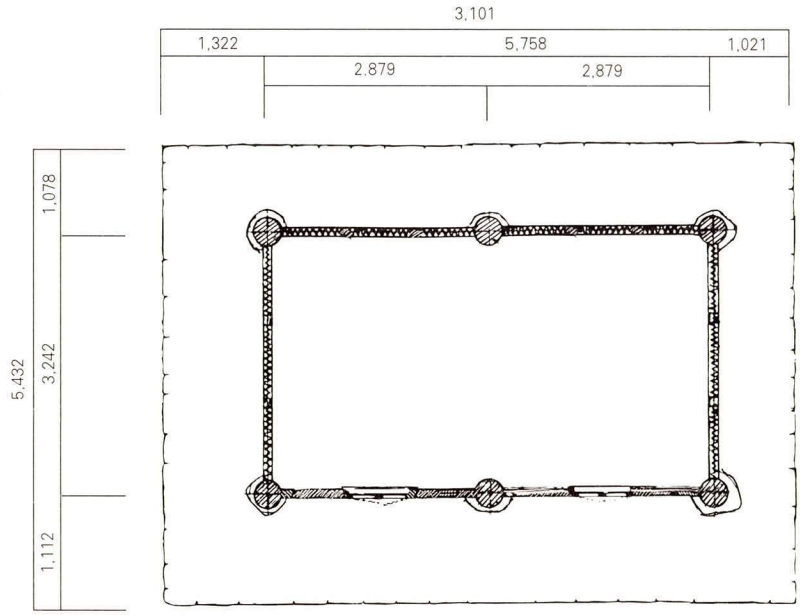
13. 목천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4. 함양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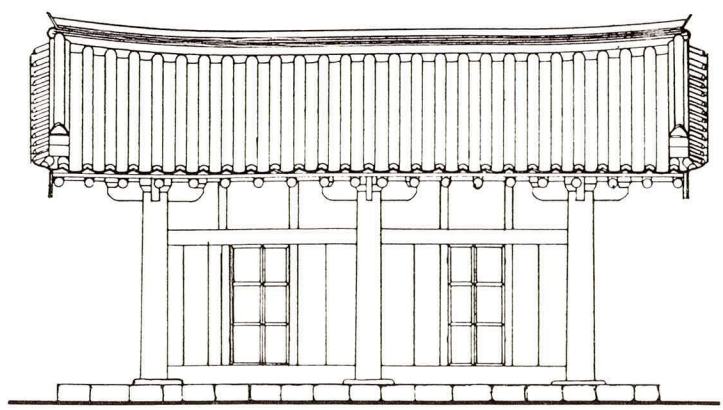
15. 김해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6. 강릉향교 동무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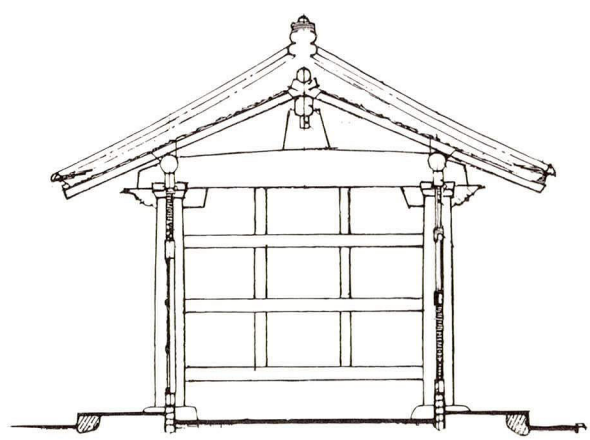
1. 낙안향교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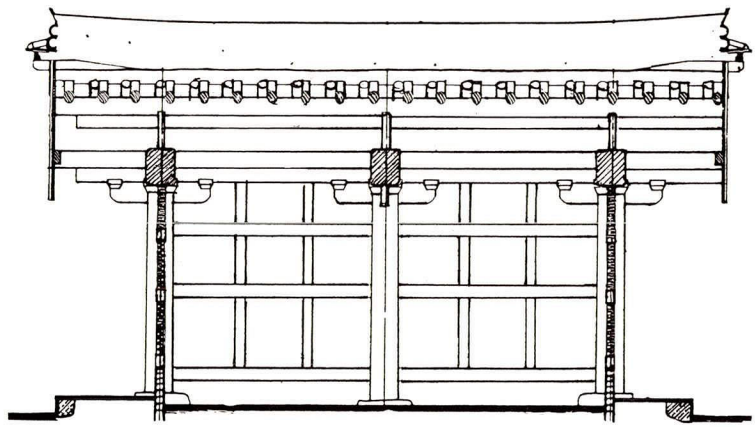
낙안향교 동무 평면도



낙안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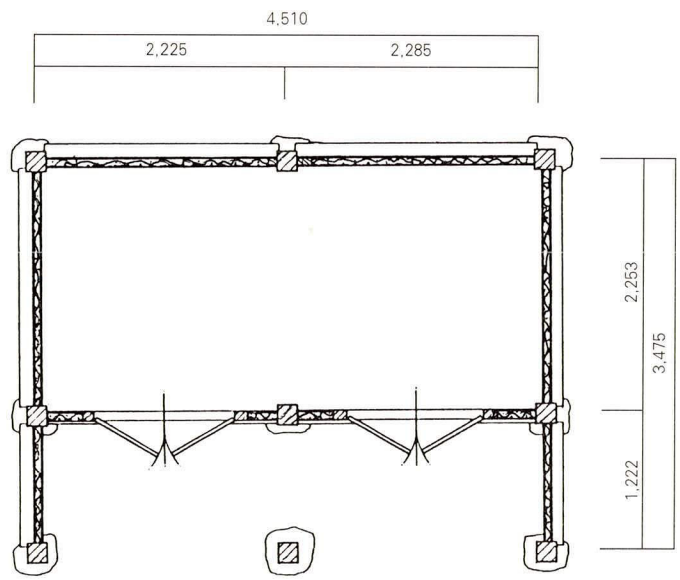


낙안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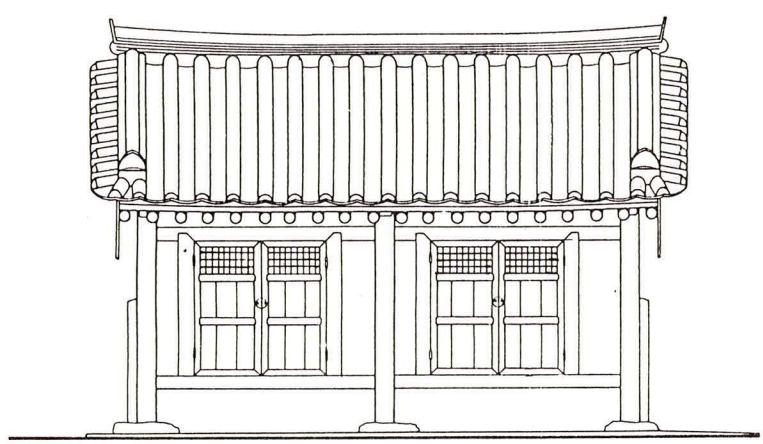


낙안향교 동무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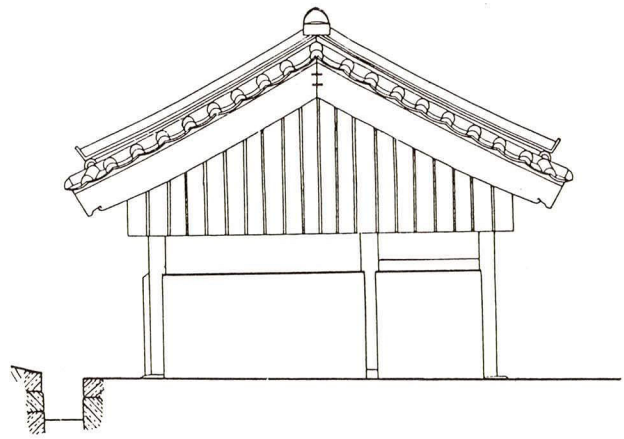
2. 부평향교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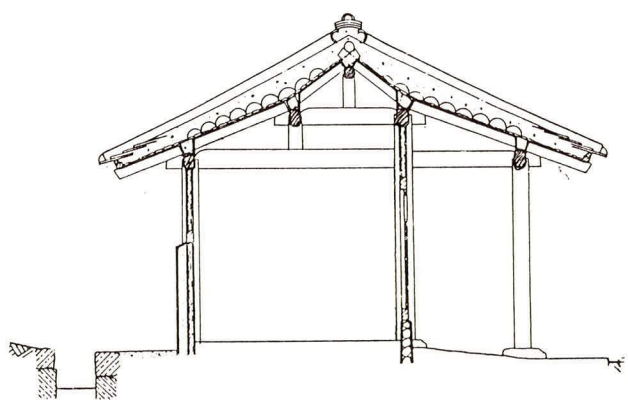
부평향교 동무 평면도



부평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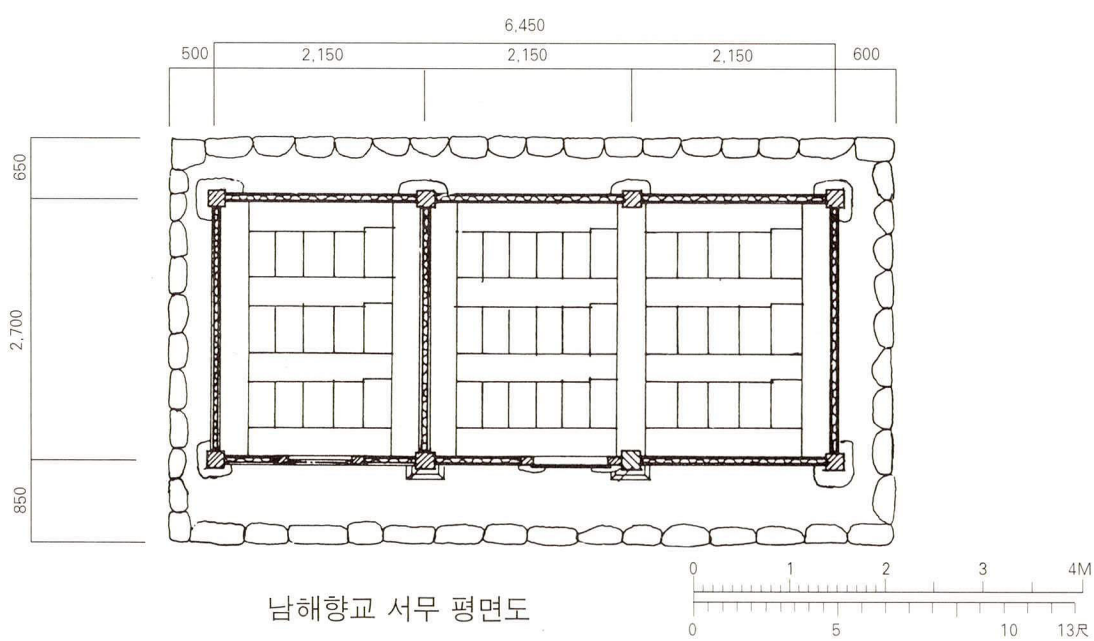


부평향교 동무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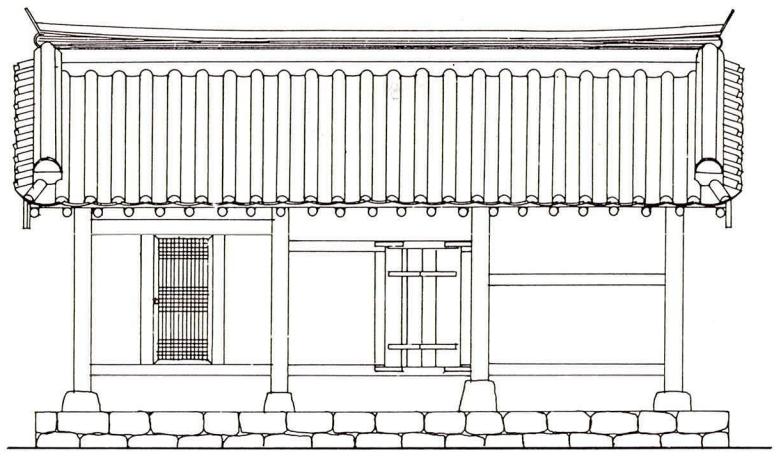


부평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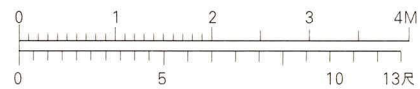
3. 남해향교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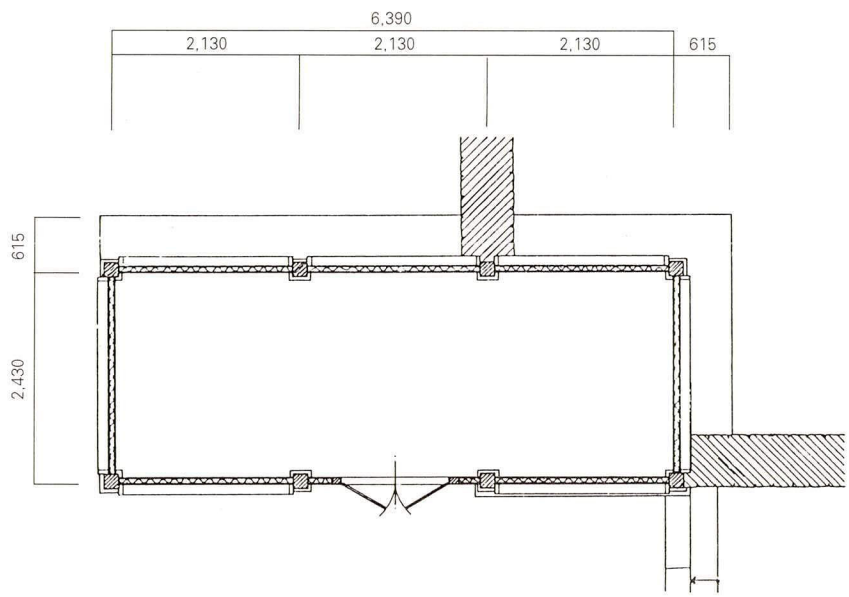
남해향교 서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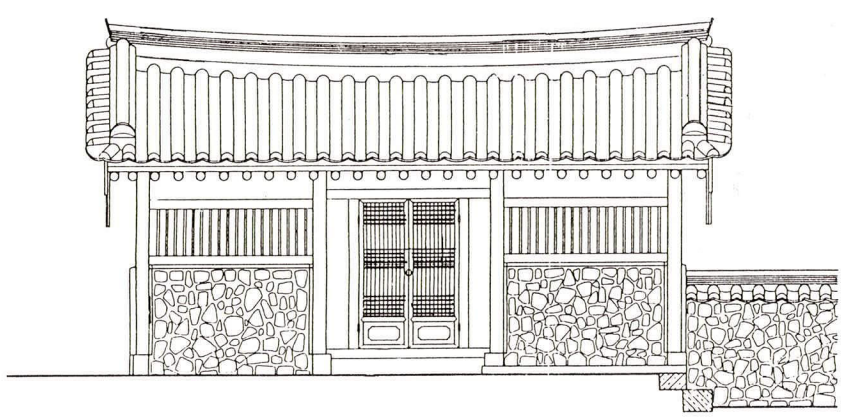
남해향교 서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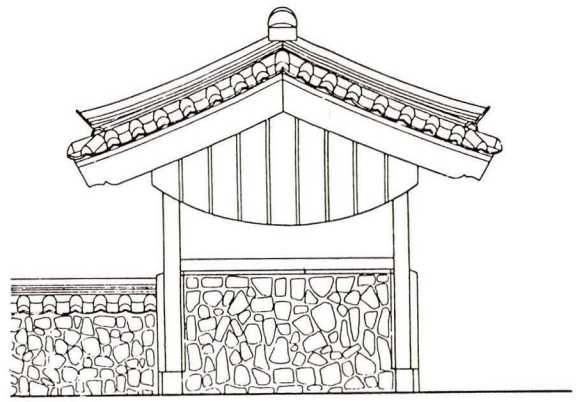
4. 인천향교 동무



인천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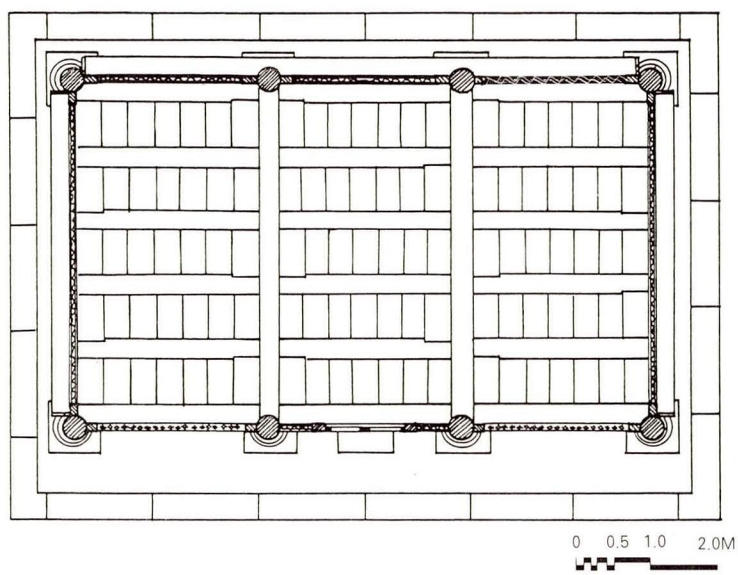


인천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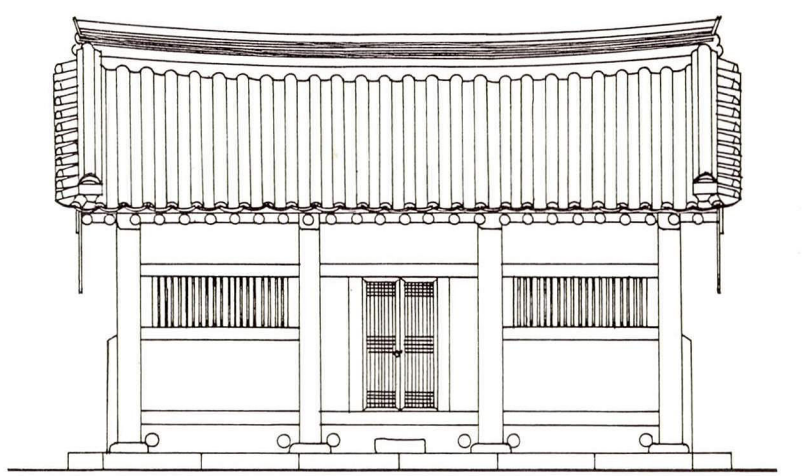


인천향교 동무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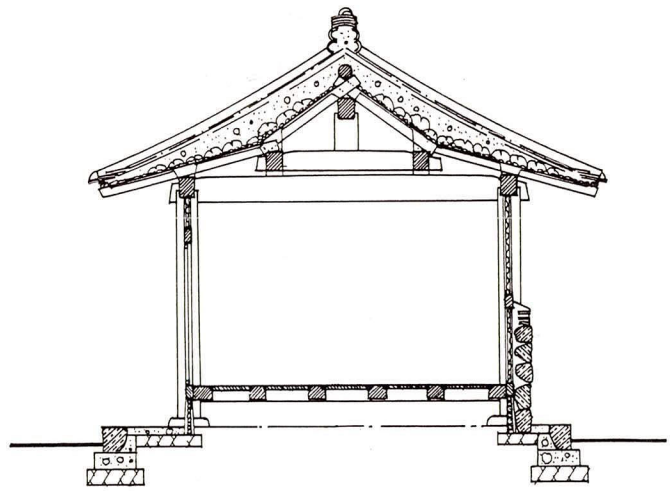
5. 춘천향교 서무



춘천향교 서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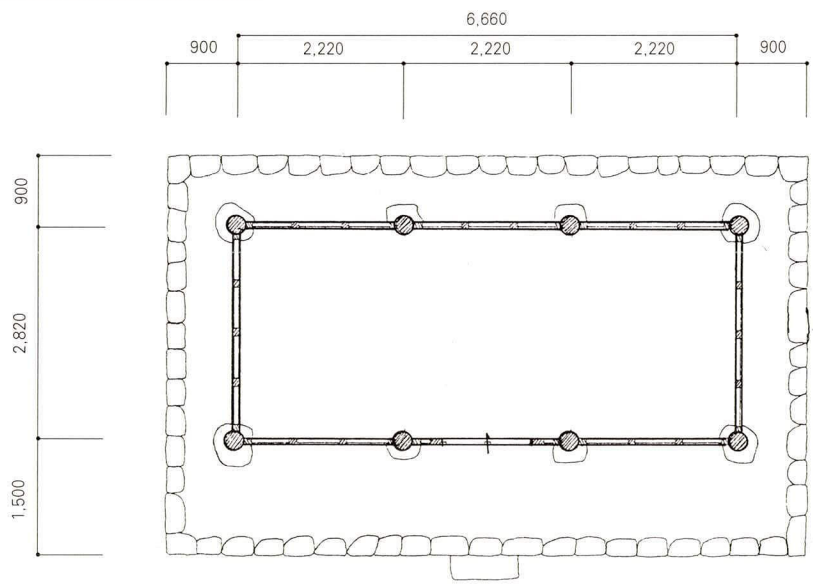


춘천향교 서무 정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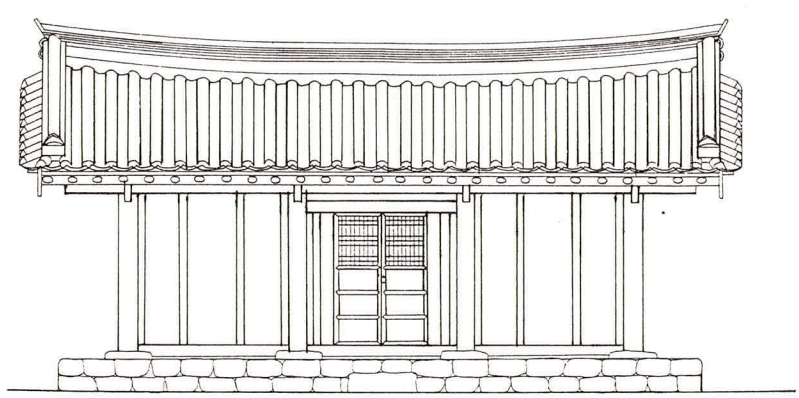


춘천향교 서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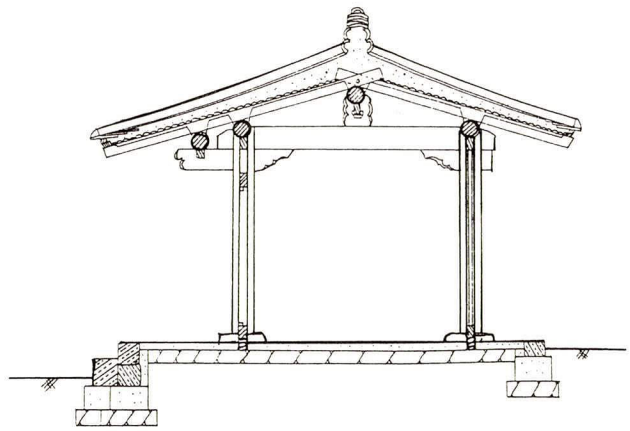
6. 풍기향교 동무



풍기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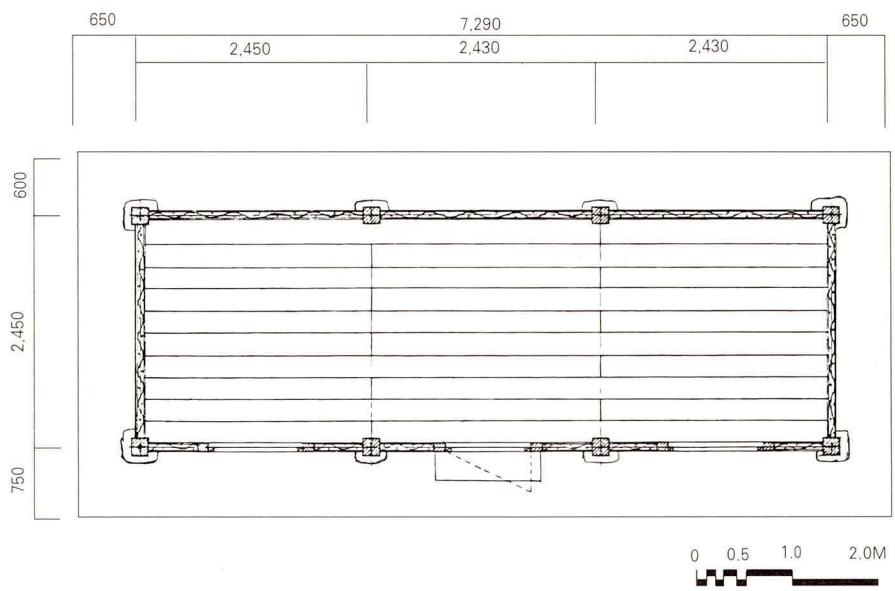


풍기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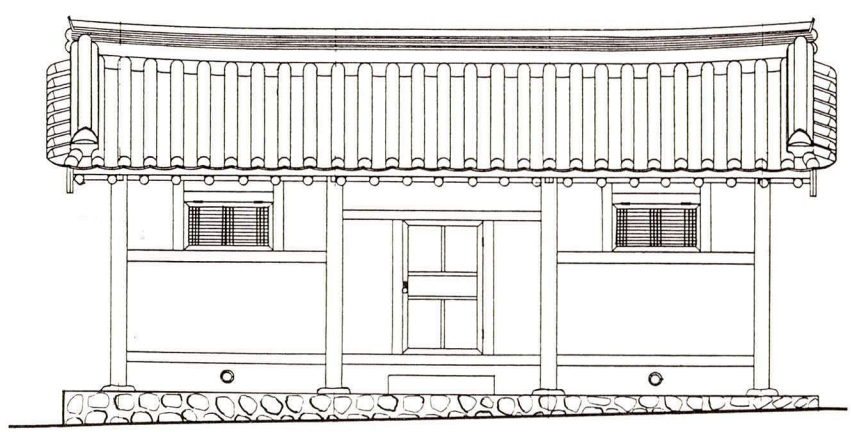


풍기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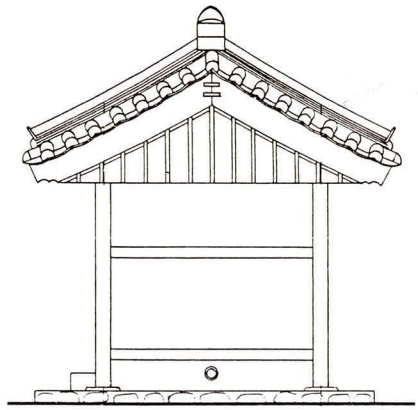
7. 담양향교 서무



단양향교 서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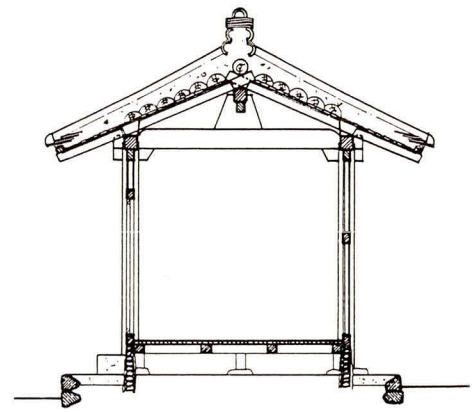


단양향교 서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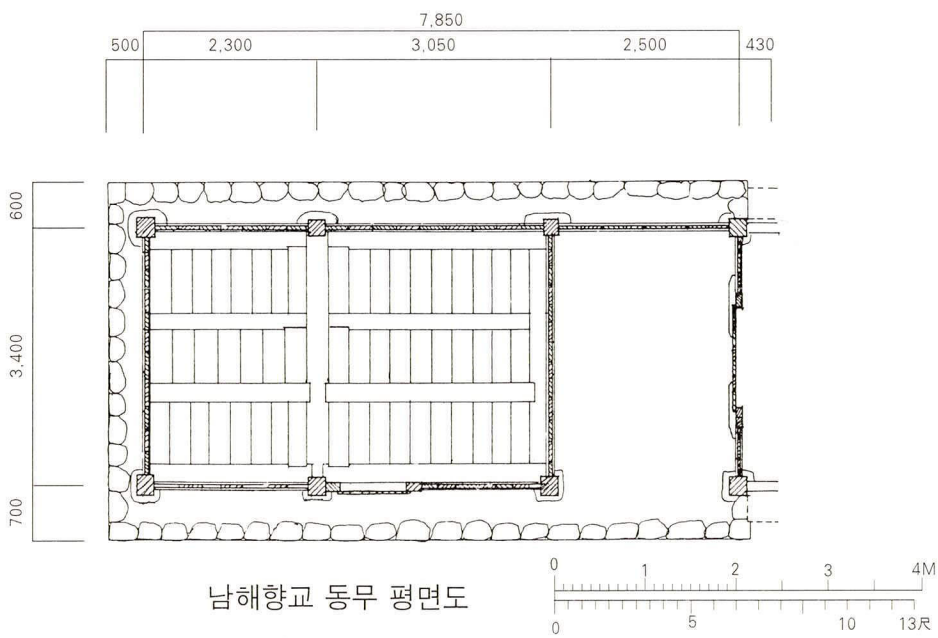
단양향교 서무 우측면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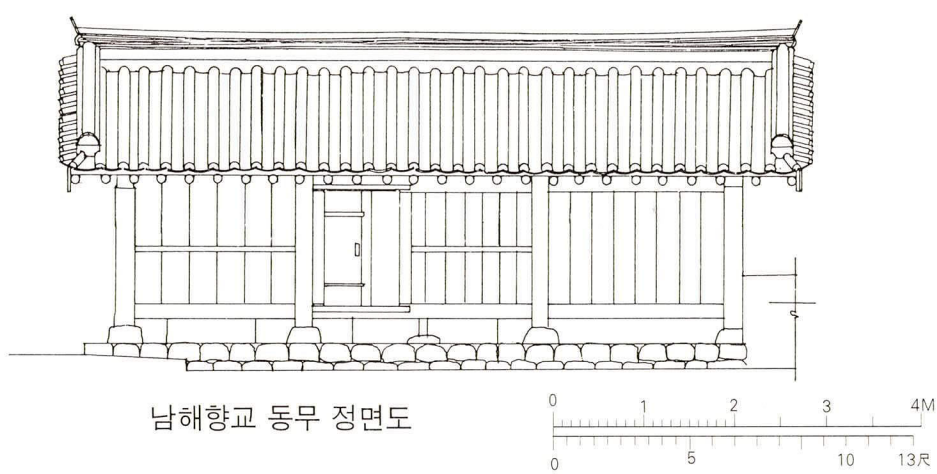


단양향교 서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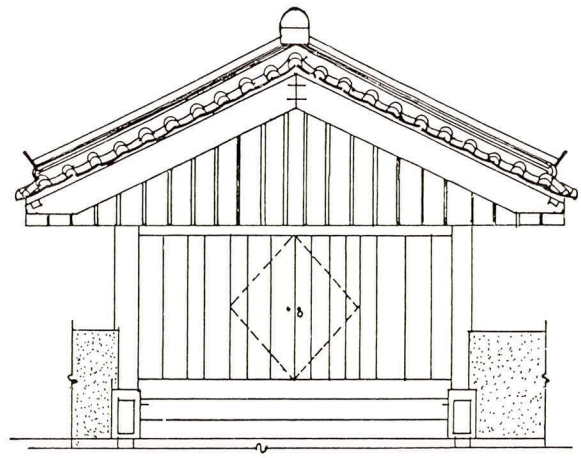
8. 남해향교 동무



남해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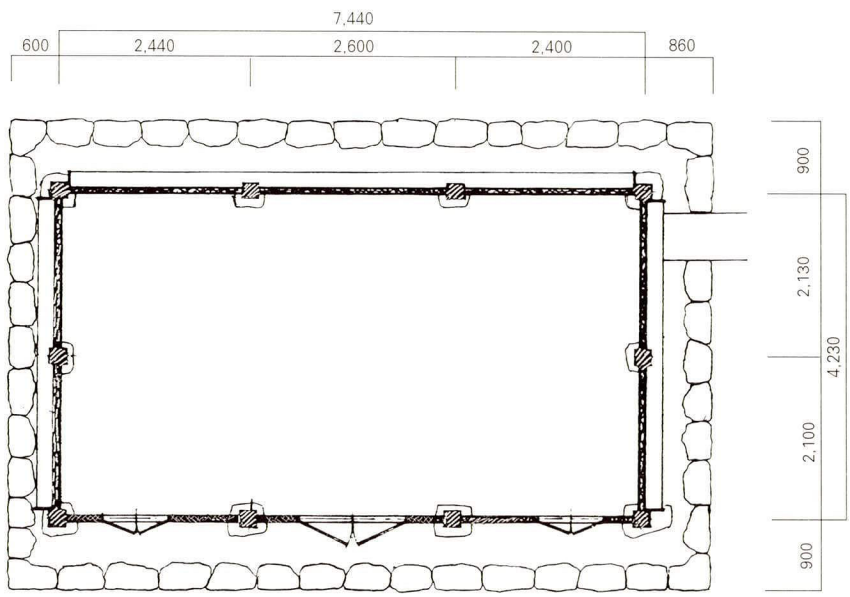


남해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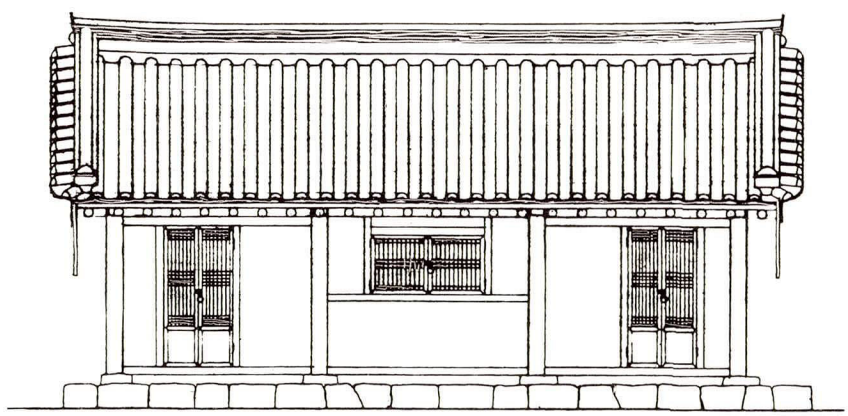


남해향교 동무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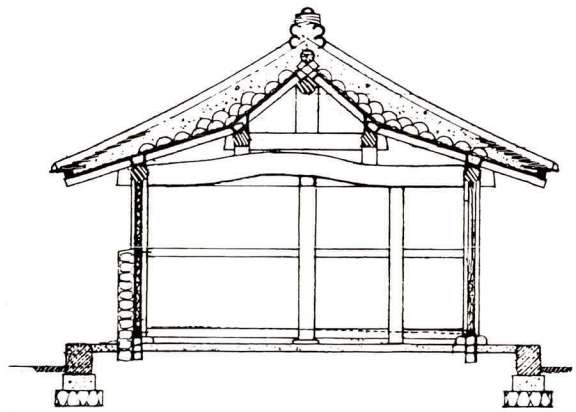
9. 교동향교 동무



교동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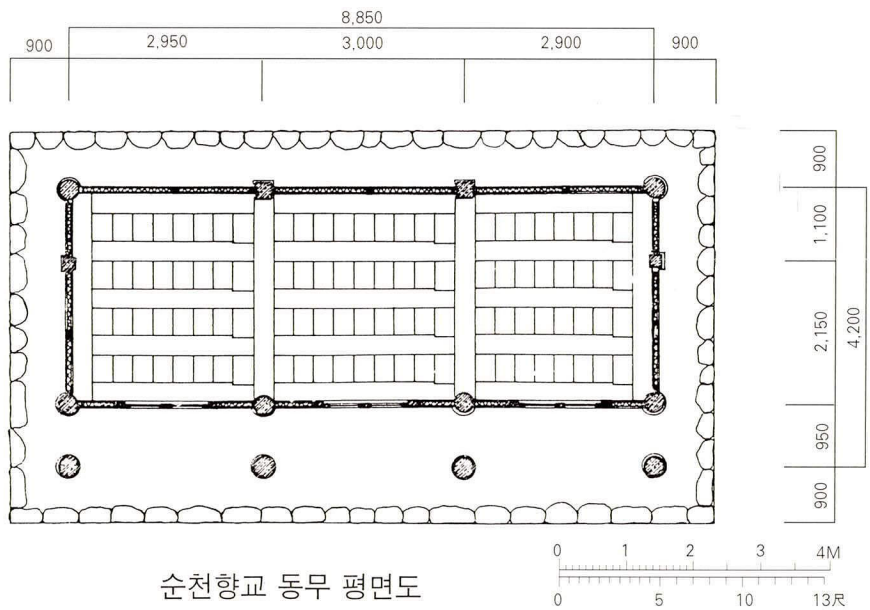


교동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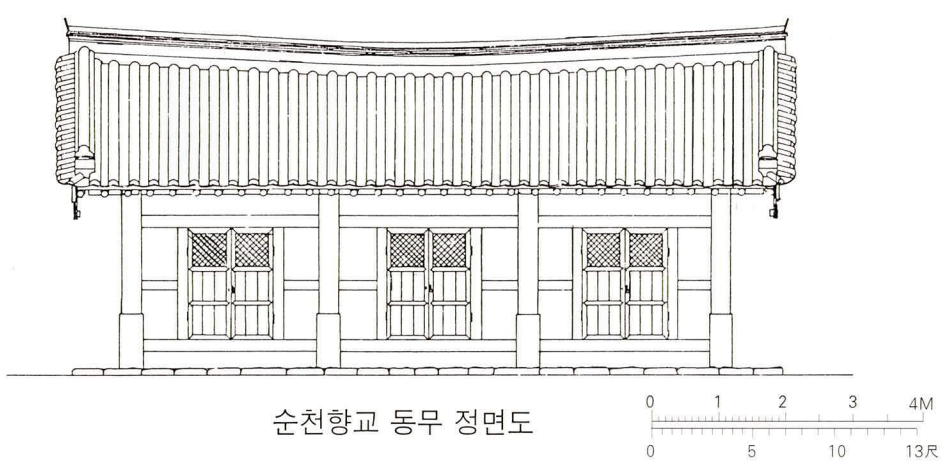


교동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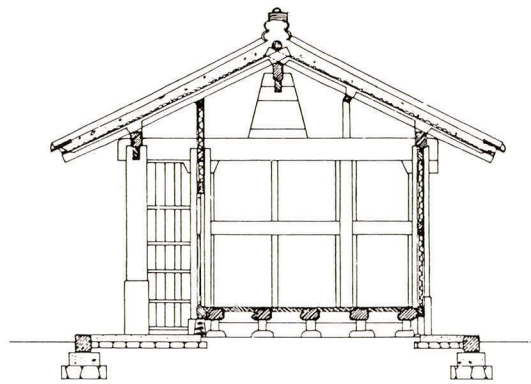
10. 순천향교 동무



순천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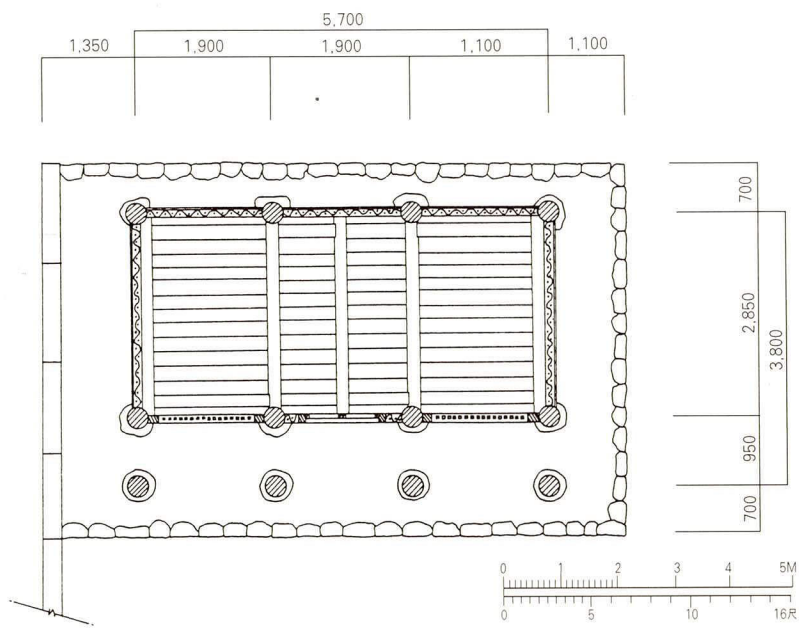
순천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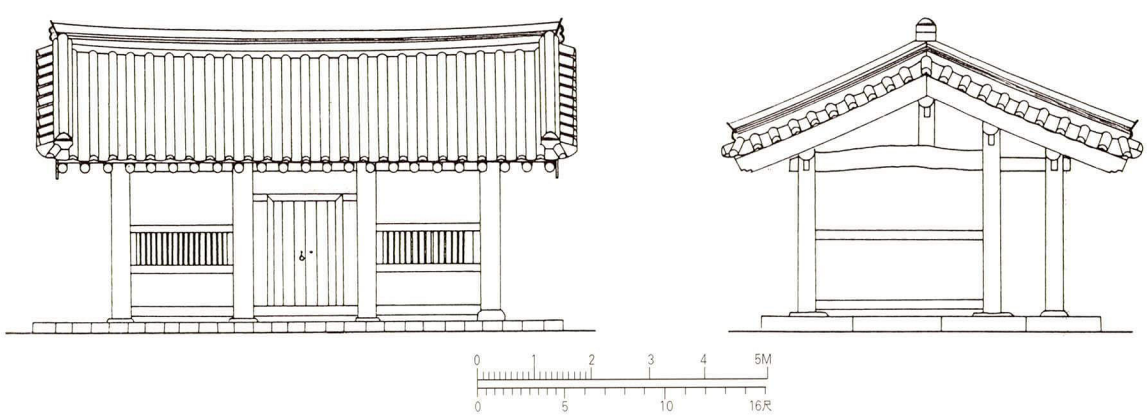
순천향교 동무 종단면도

0 1 2 3 4M
0 5 10 13尺

11. 옥천향교 동·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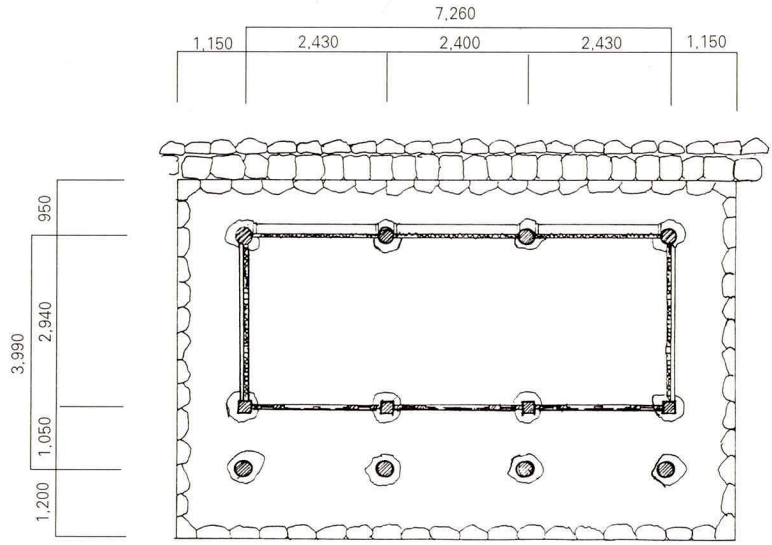


옥천향교 동 · 서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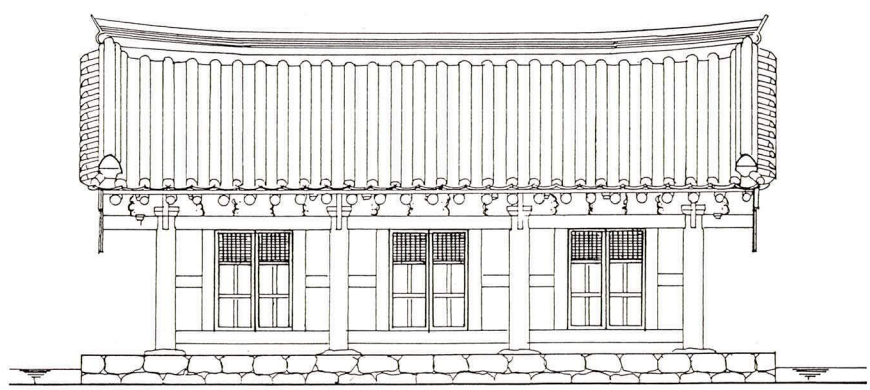


옥천향교 동 · 서무 정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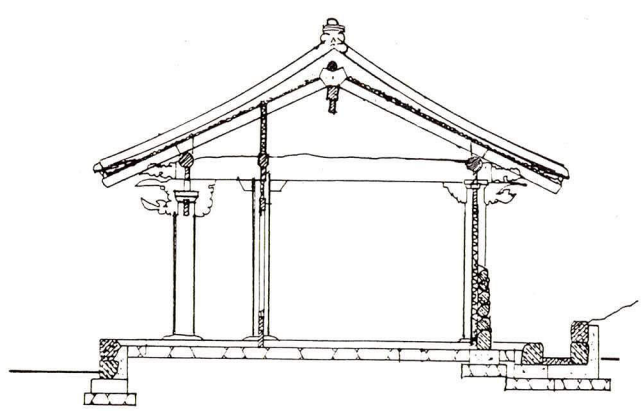
12. 거제향교 동 · 서무



거제향교 동 · 서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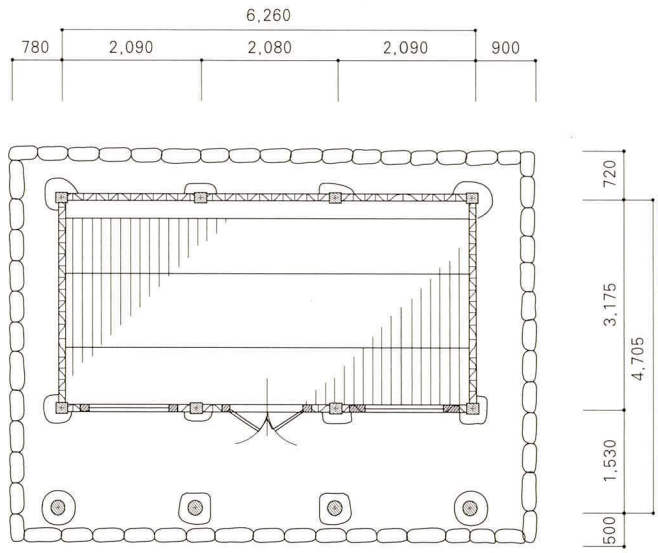


거제향교 동 · 서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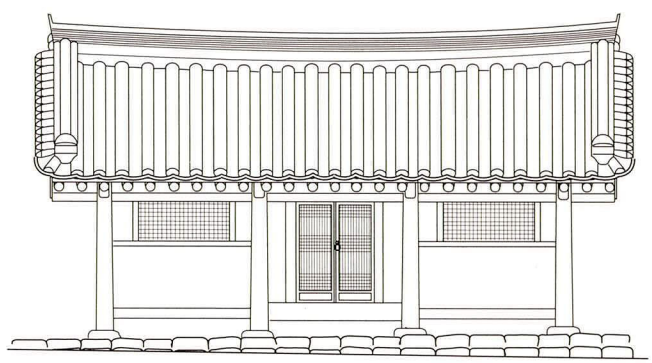


거제향교 동 · 서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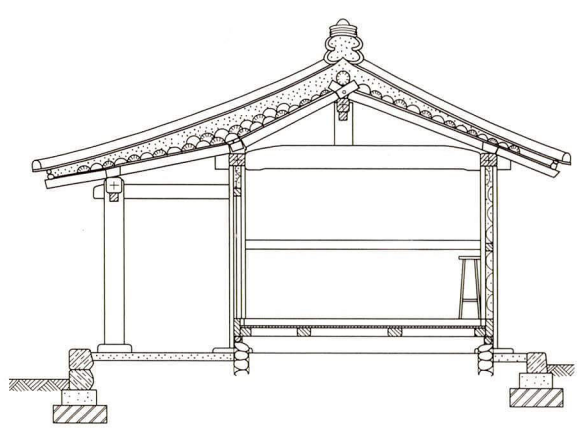
13. 목천향교 동무



목천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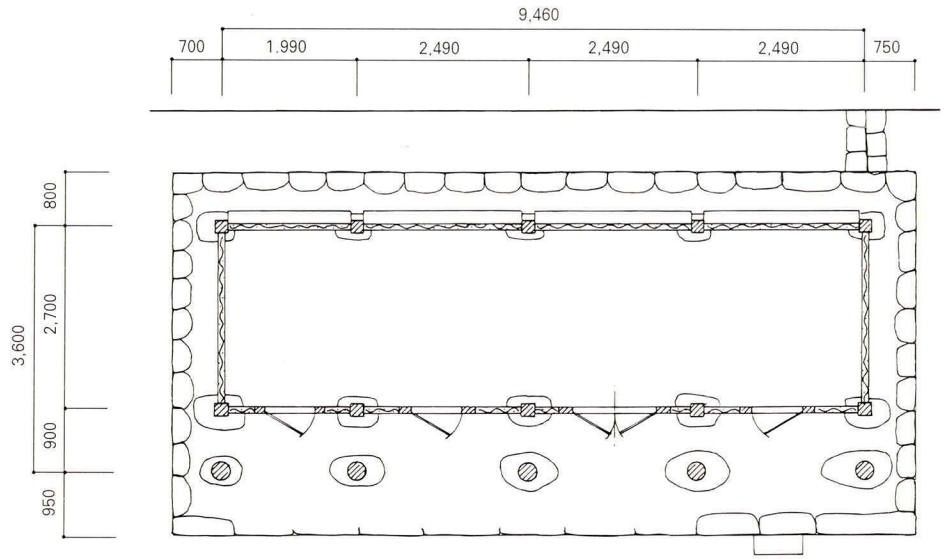


목천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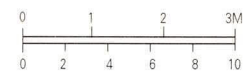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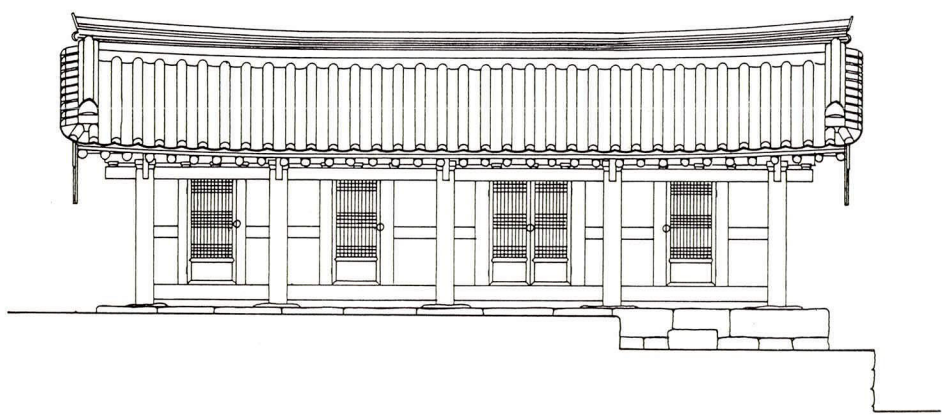
목천향교 동무 종단면도

14. 함양향교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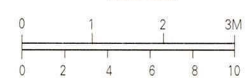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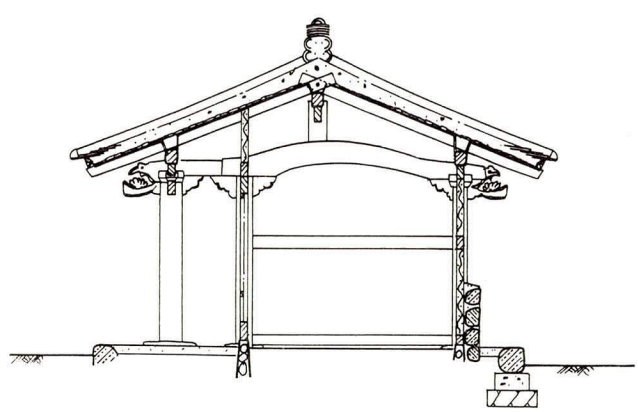
함양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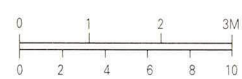


함양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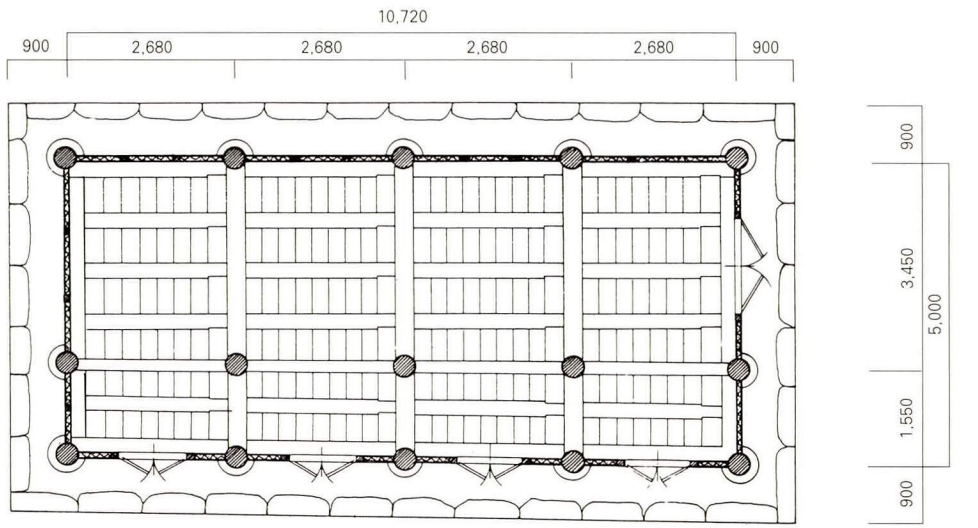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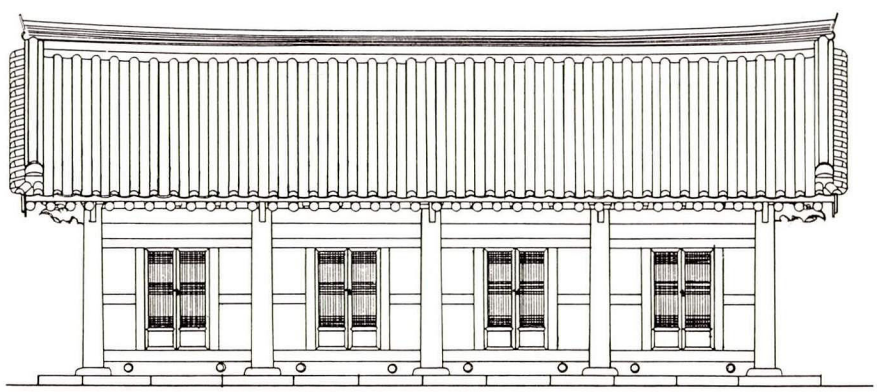
함양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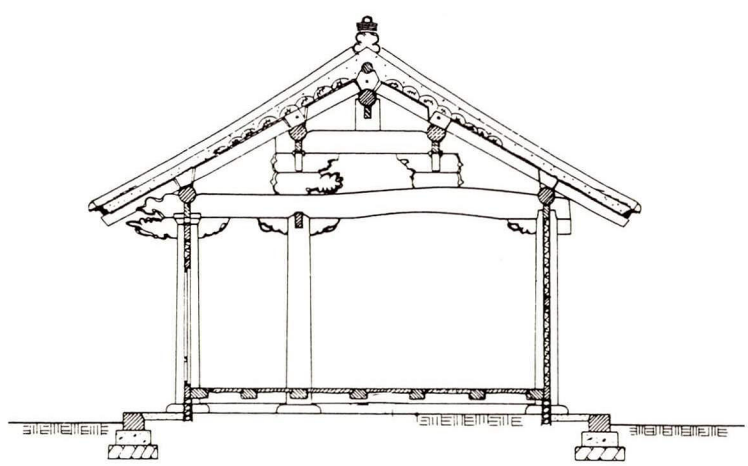
15. 김해향교 동무



김해향교 동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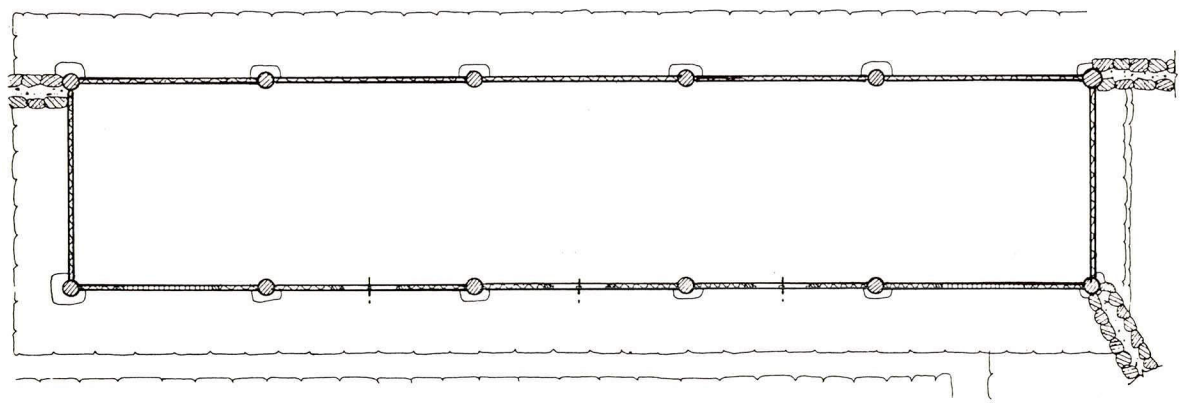


김해향교 동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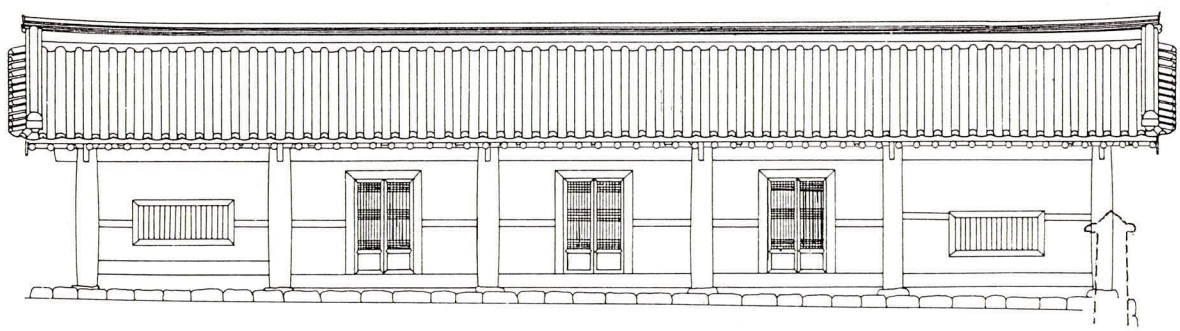


김해향교 동무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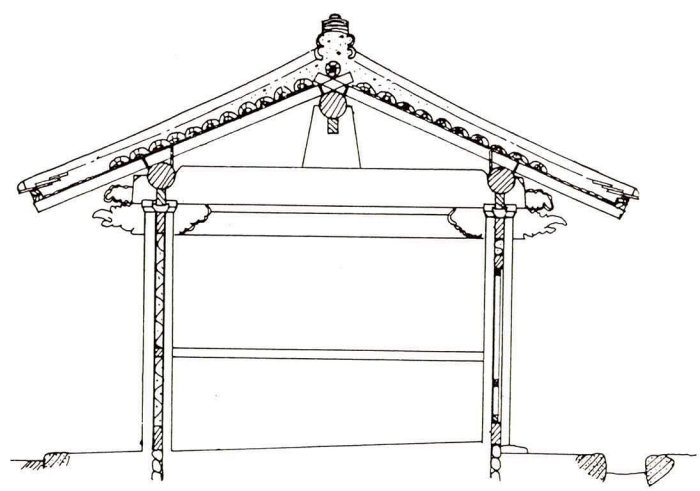
16. 강릉향교 동무



강릉향교 동무 평면도



강릉향교 동무 정면도



강릉향교 동무 종단면도

(5) 동·서재(東西齋)

1. 문경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2. 문경향교 서재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 장수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4. 동래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5. 인천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6. 나주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7. 원주향교 동재 : 평면도

8. 원주향교 서재 : 평면도

9. 대정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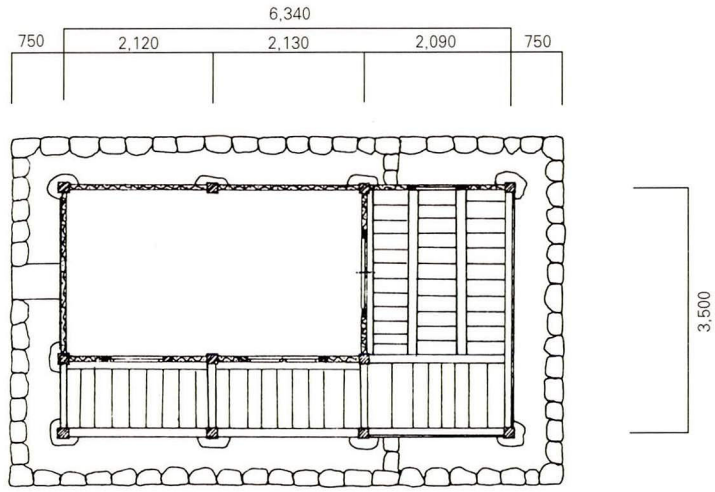
10. 강릉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1. 단성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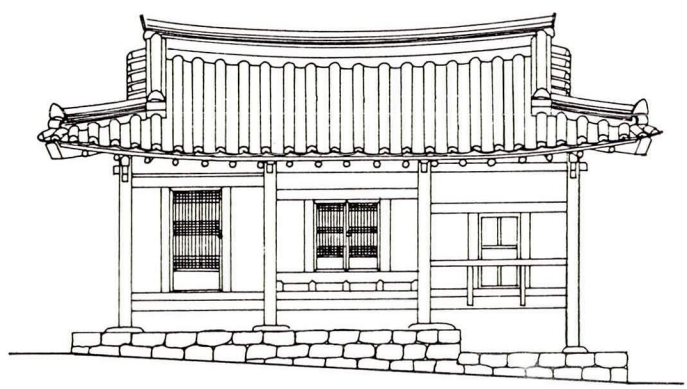
12. 낙안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13. 순천향교 동재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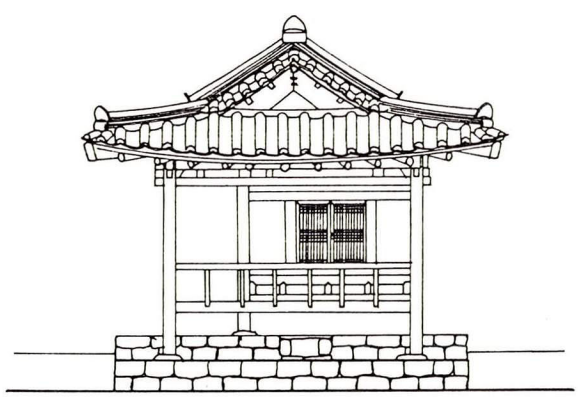
1. 문경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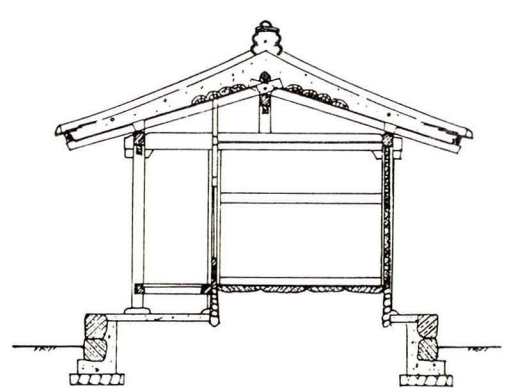
문경향교 동재 평면도



문경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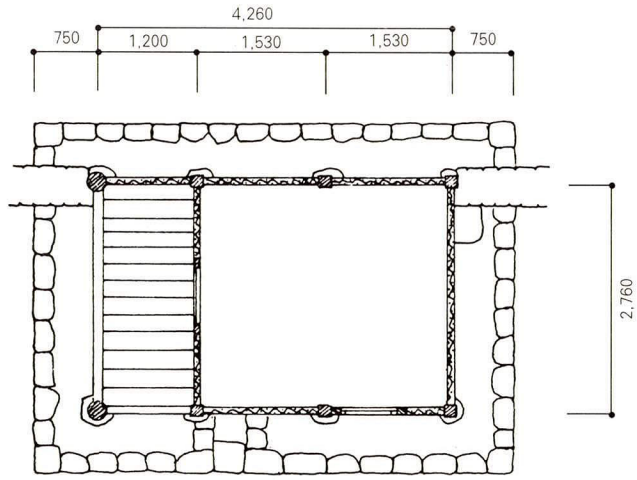


문경향교 동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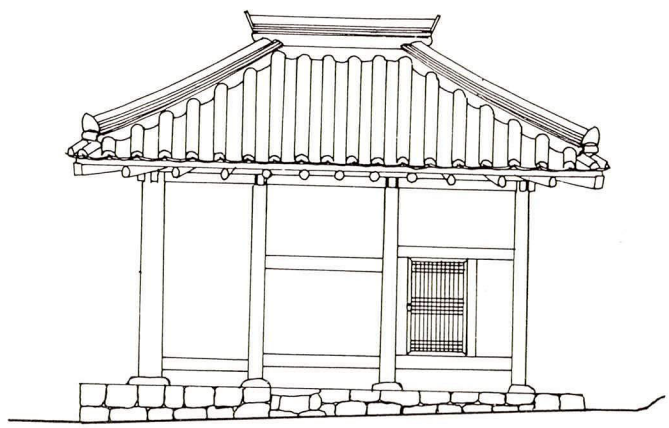


문경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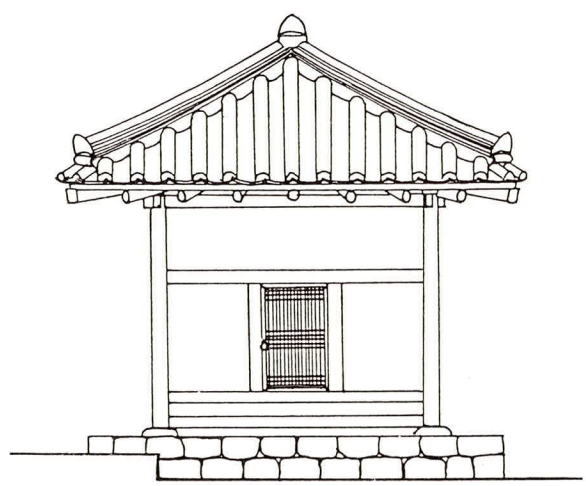
2. 문경향교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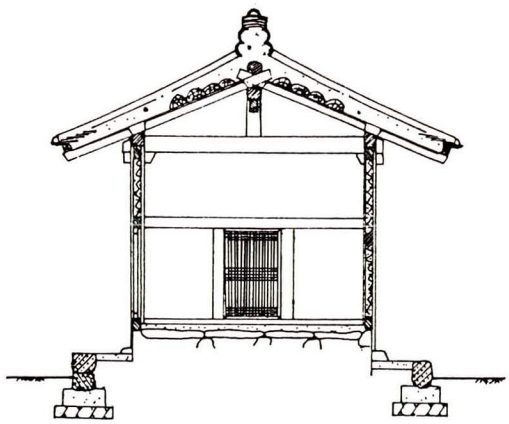
문경향교 서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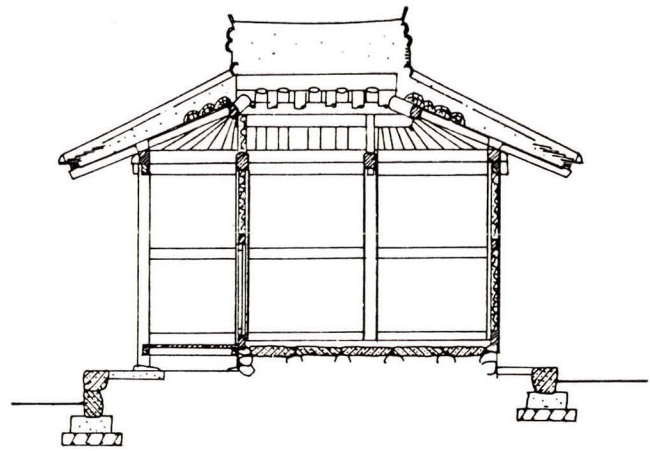
문경향교 서재 정면도



문경향교 서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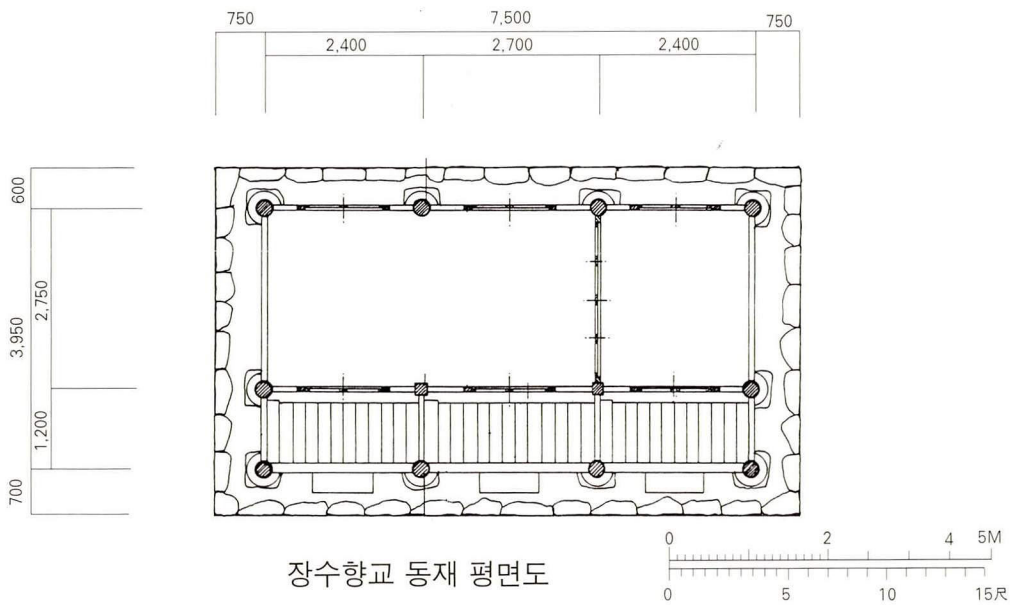


문경향교 서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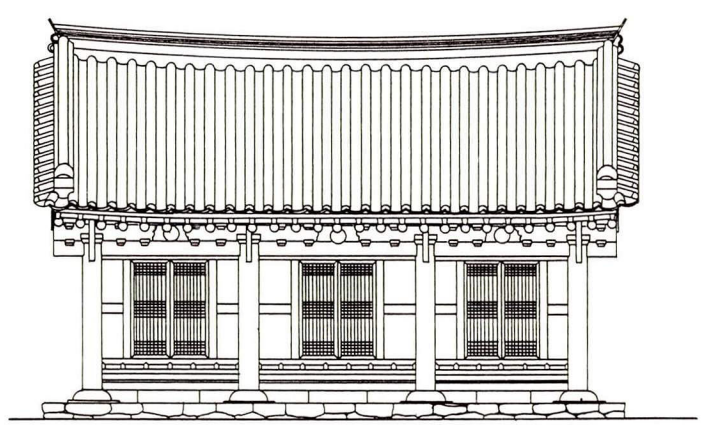


문경향교 서재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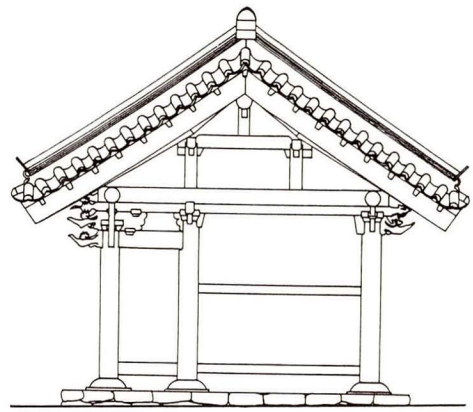
3. 장수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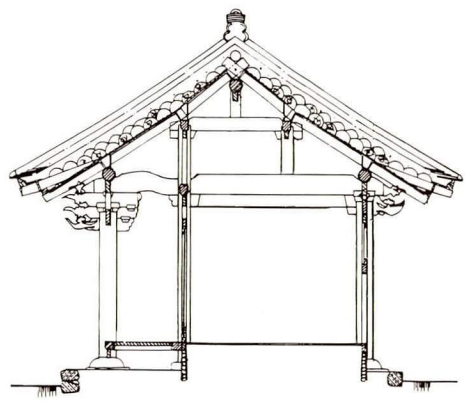
장수향교 동재 평면도



장수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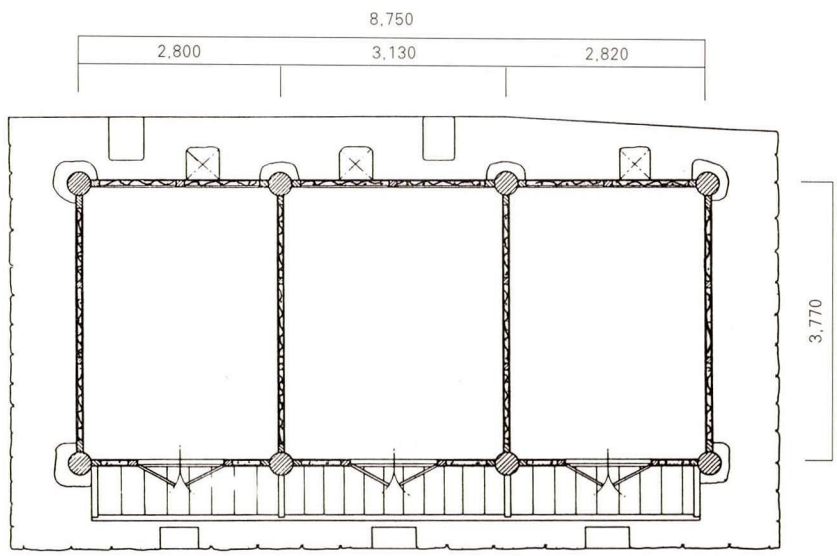


장수향교 동재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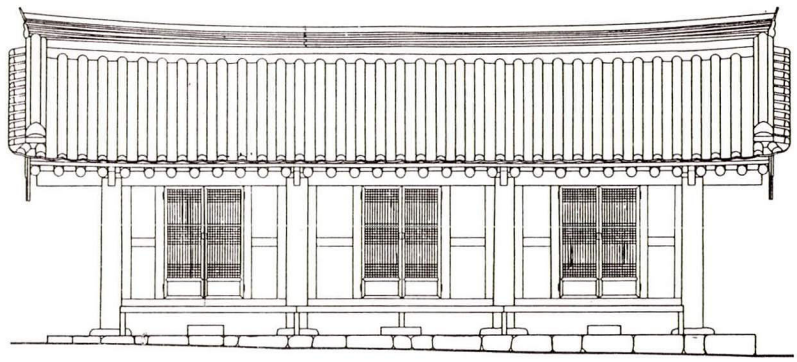


장수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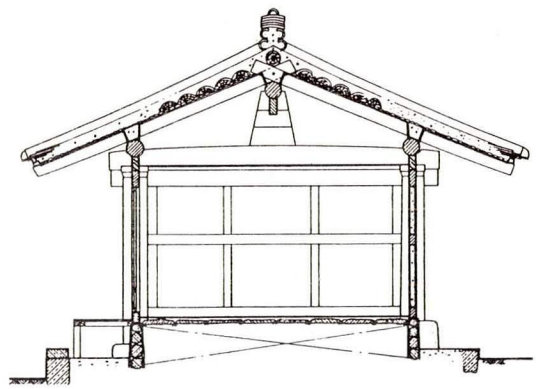
4. 동래향교 동재



동래향교 동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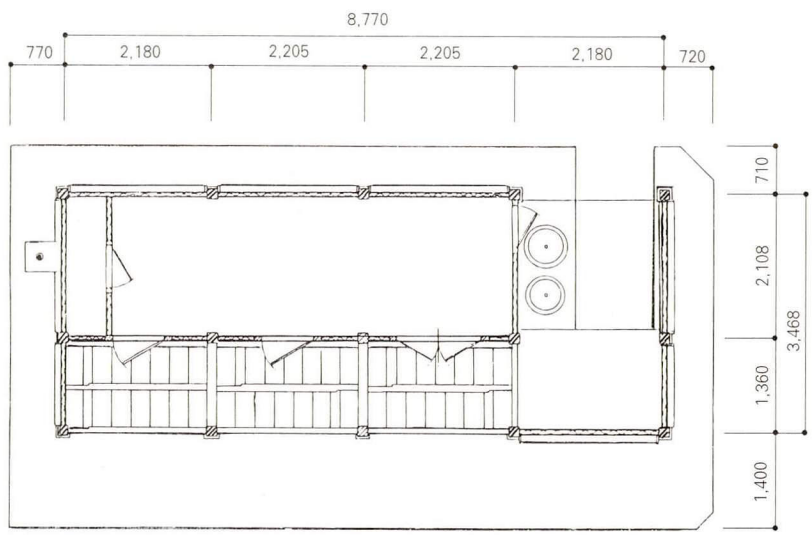


동래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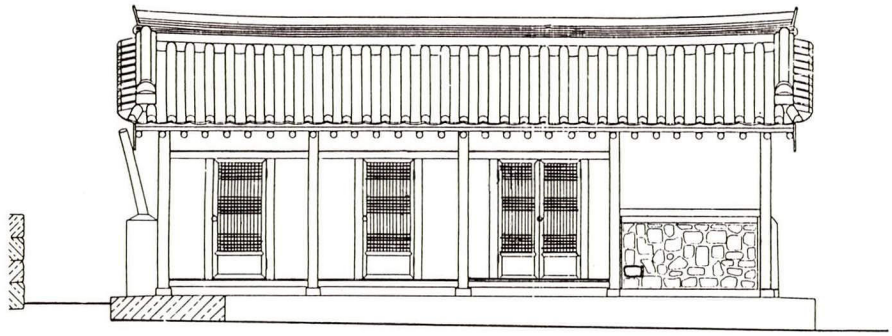


동래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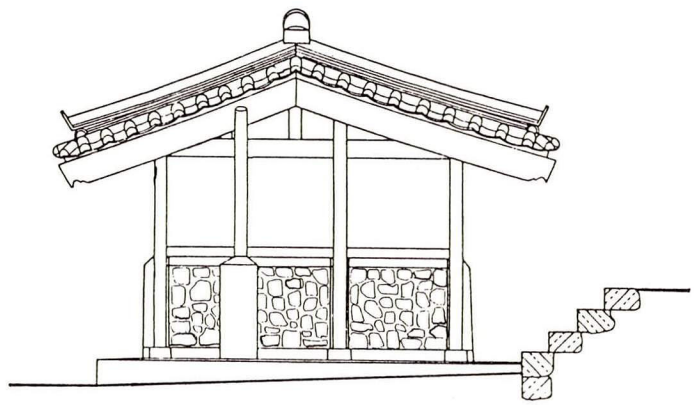
5. 인천향교 동재



인천향교 동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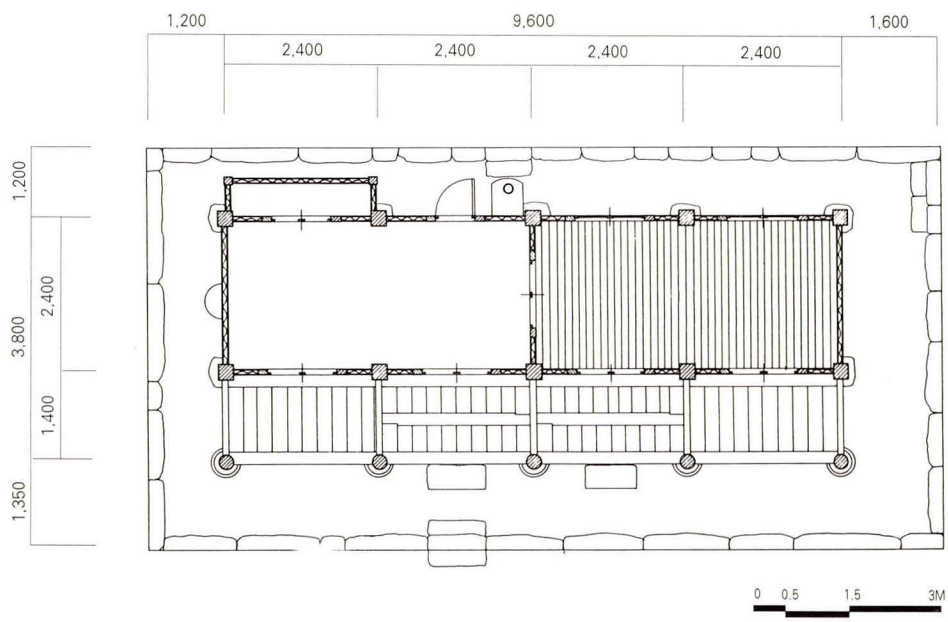


인천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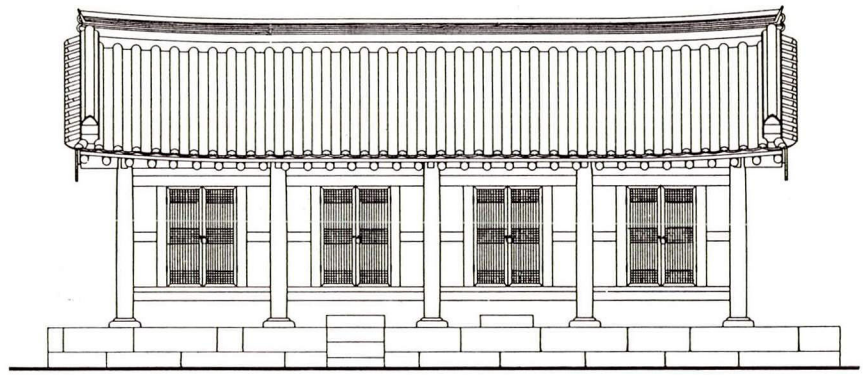


인천향교 동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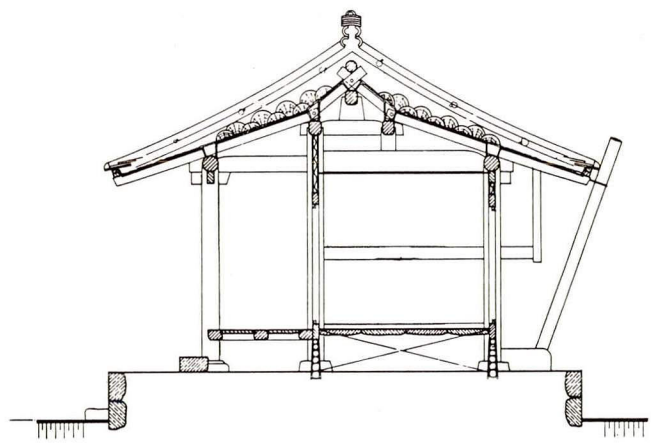
6. 나주향교 동재



나주향교 동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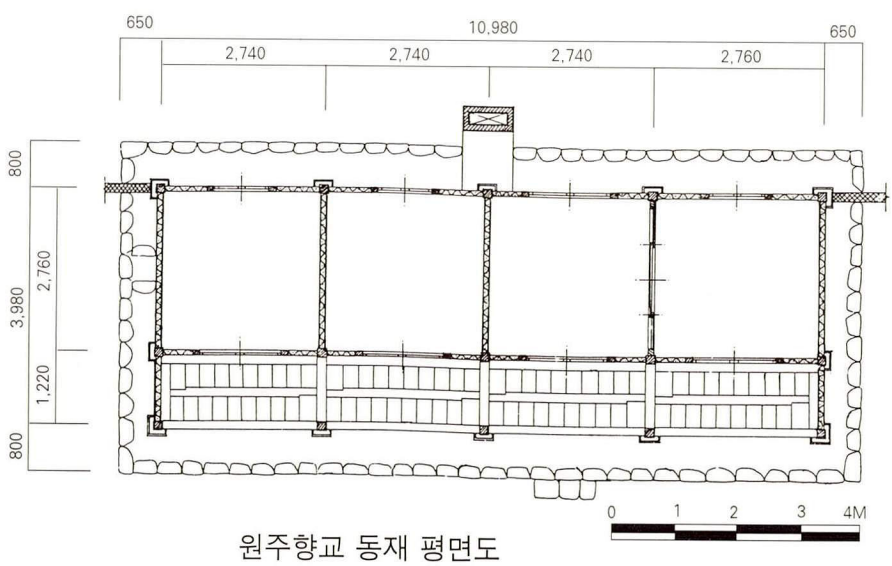


나주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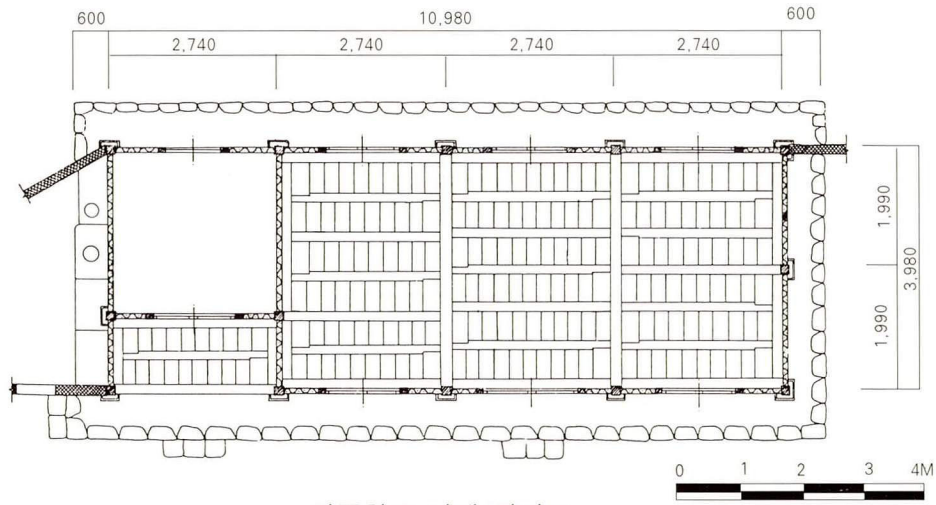
나주향교 동재 종단면도

7. 원주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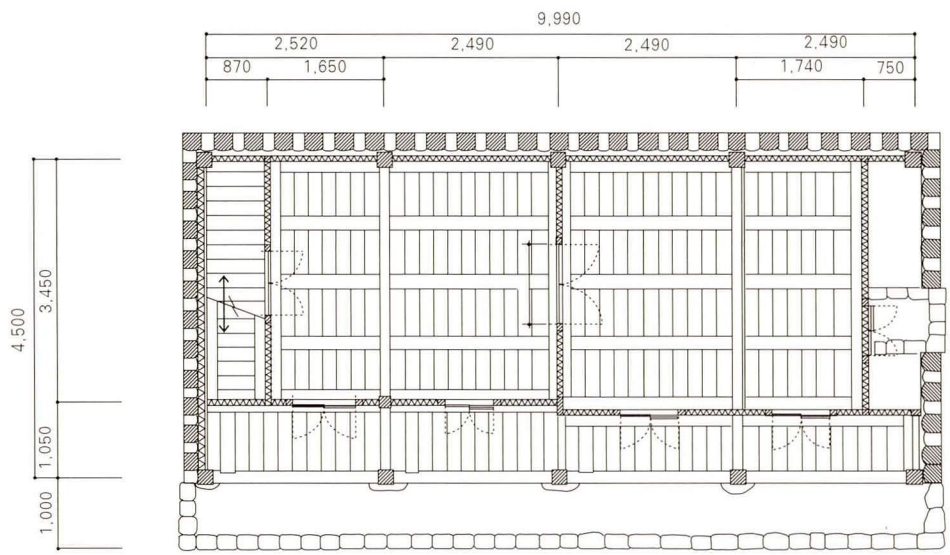
원주향교 동재 평면도

8. 원주향교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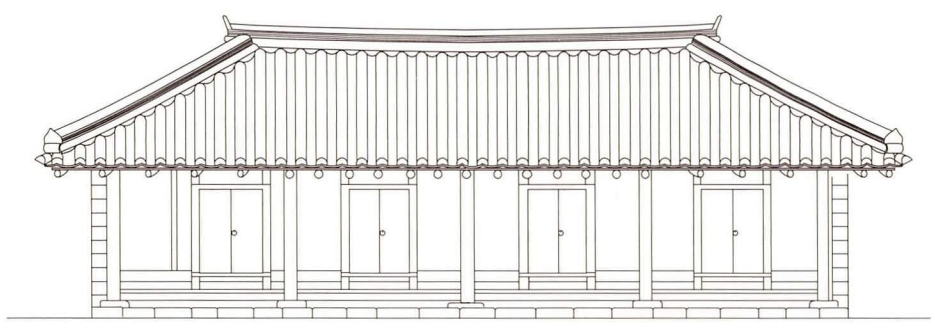


원주향교 서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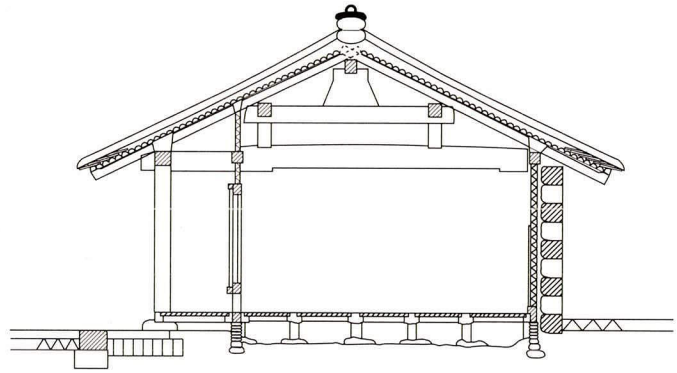
9. 대정향교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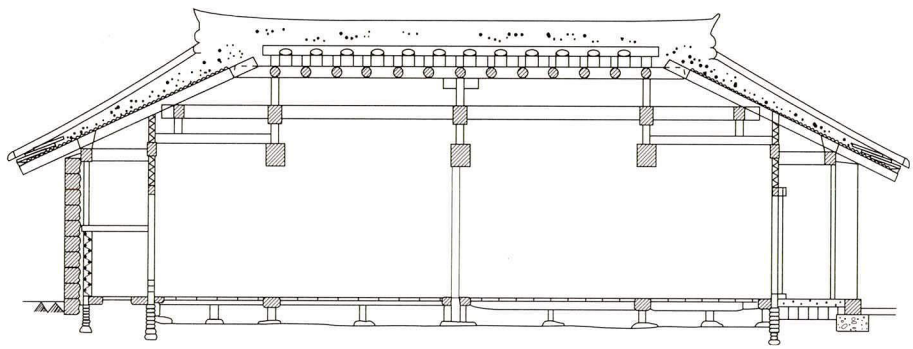
대정향교 동재 평면도



대정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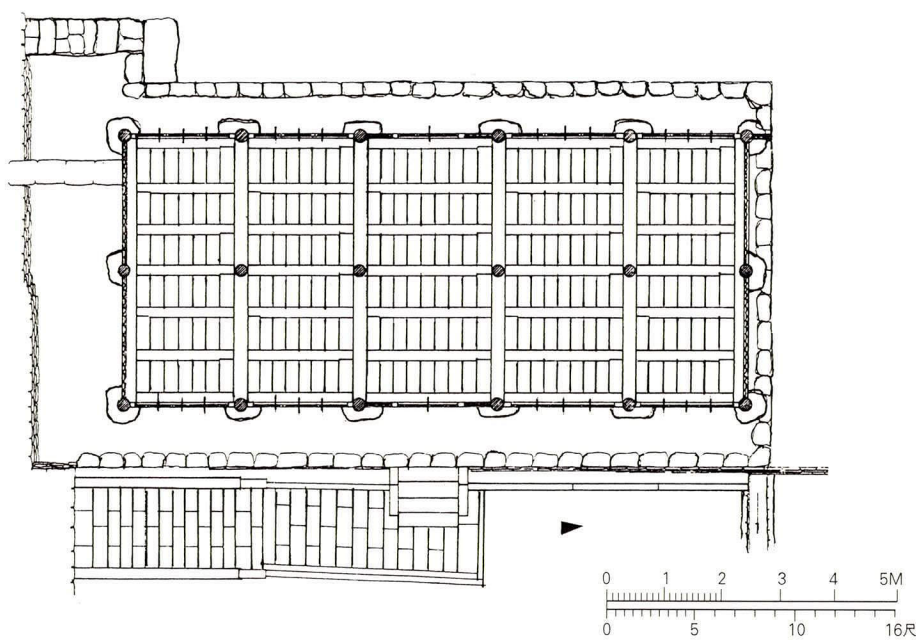


대정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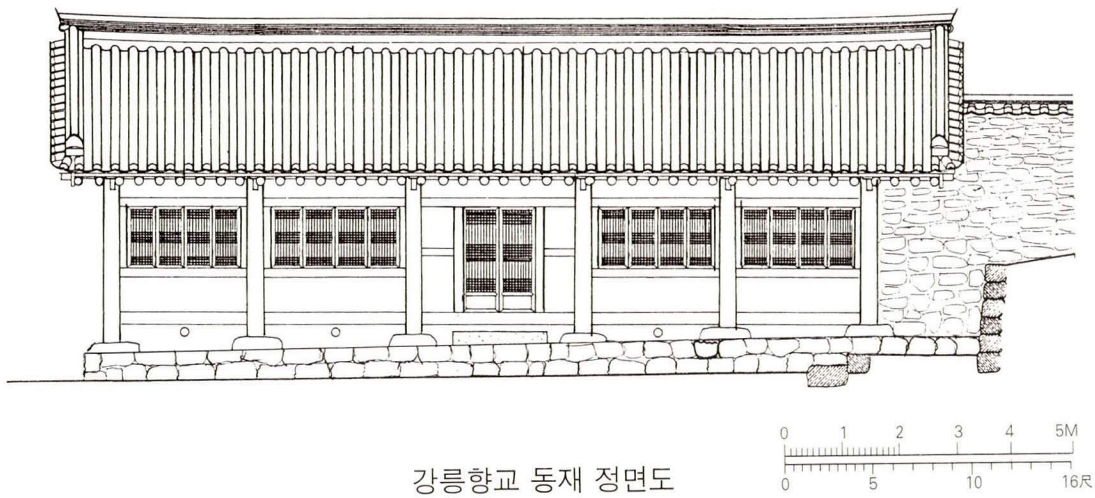


대정향교 동재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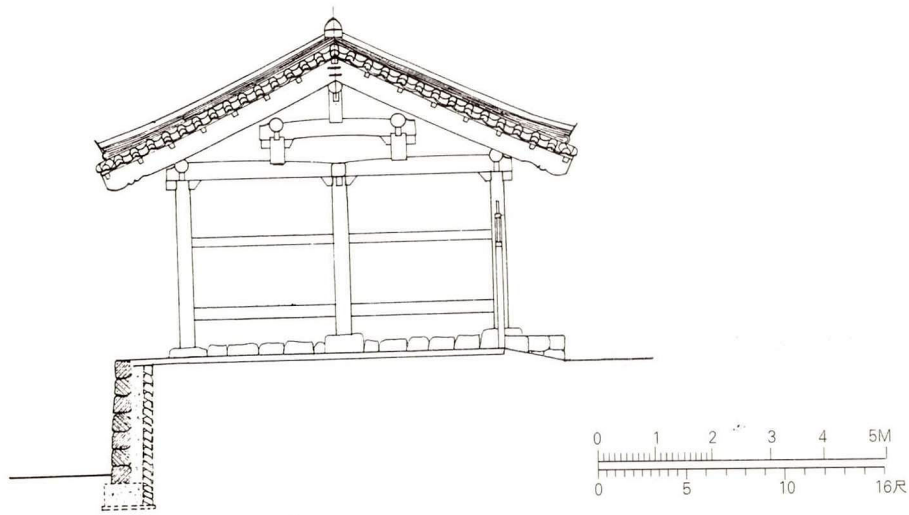
10. 강릉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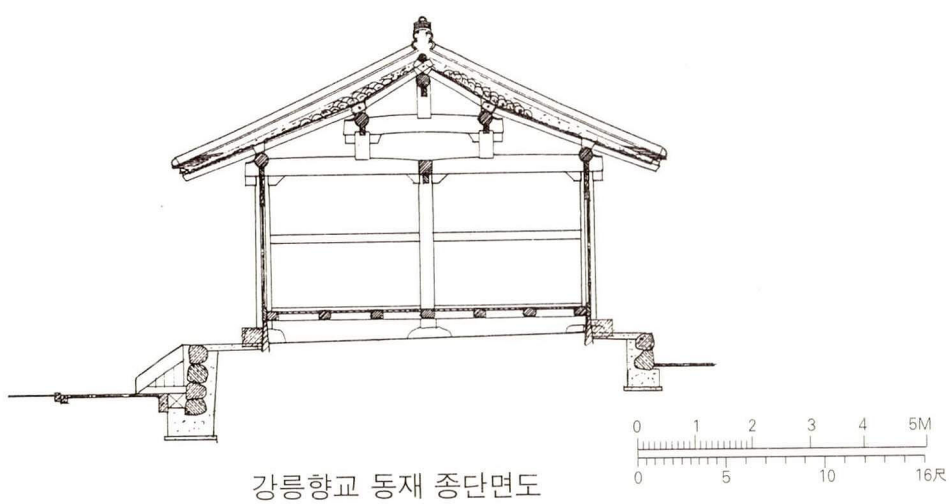
강릉향교 동재 평면도



강릉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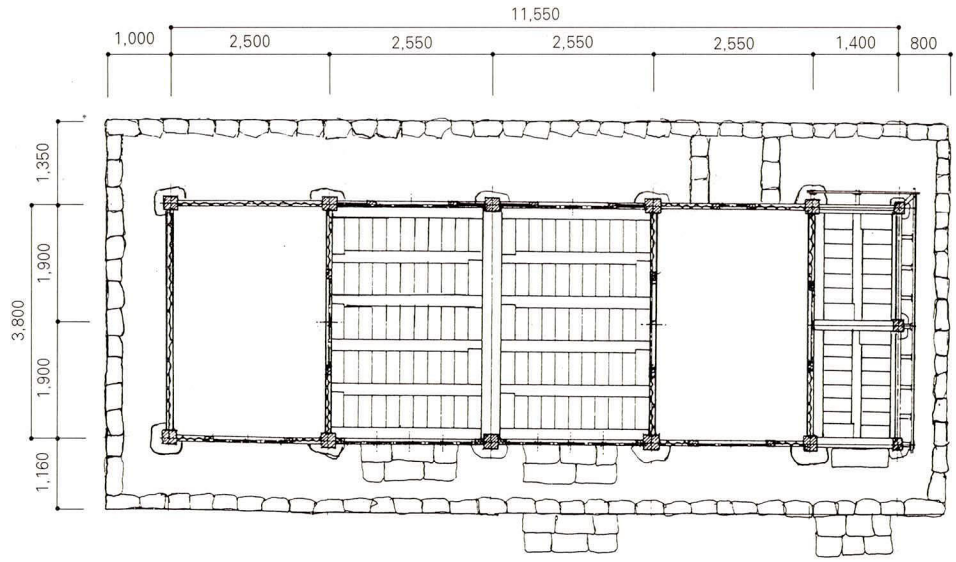


강릉향교 동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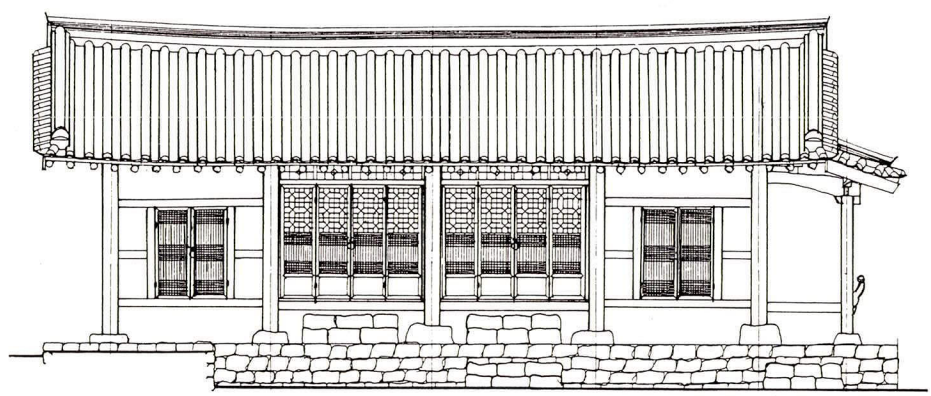


강릉향교 동재 종단면도

11. 단성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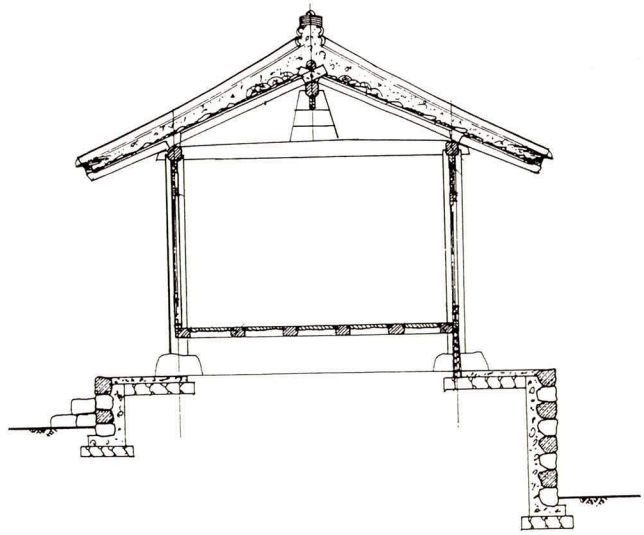
단성향교 동재 평면도



단성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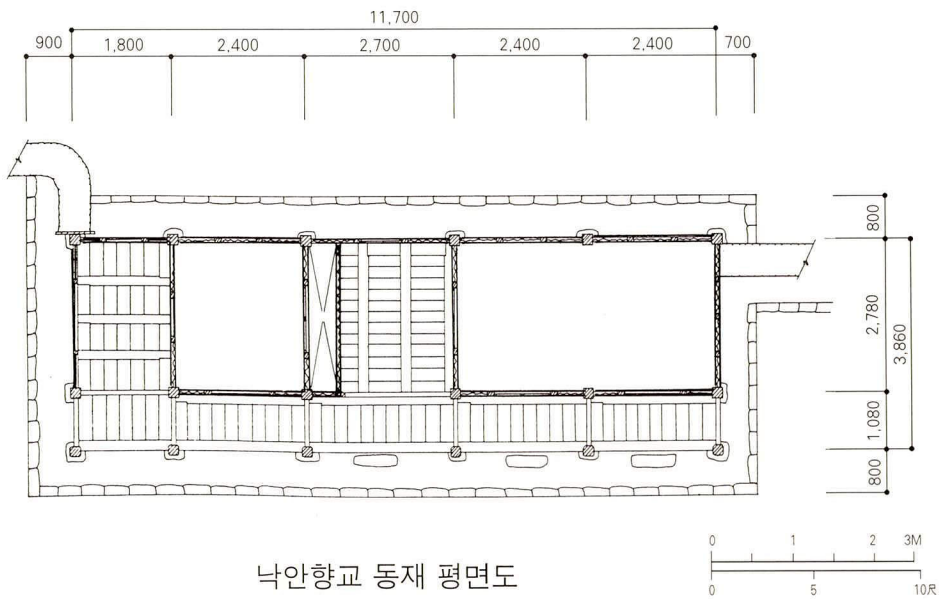


단성향교 동재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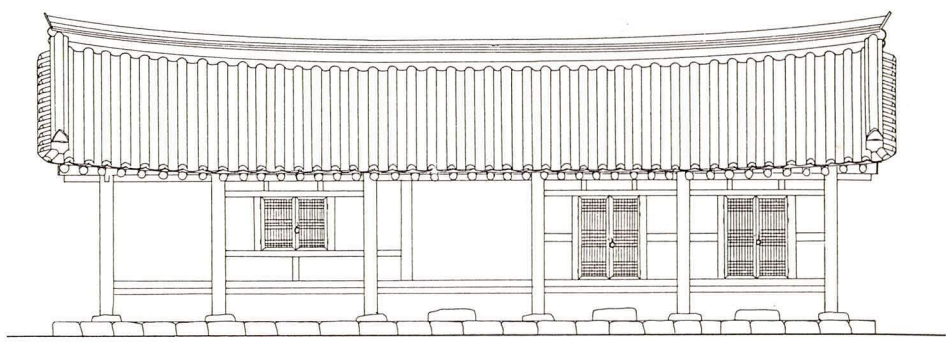


단성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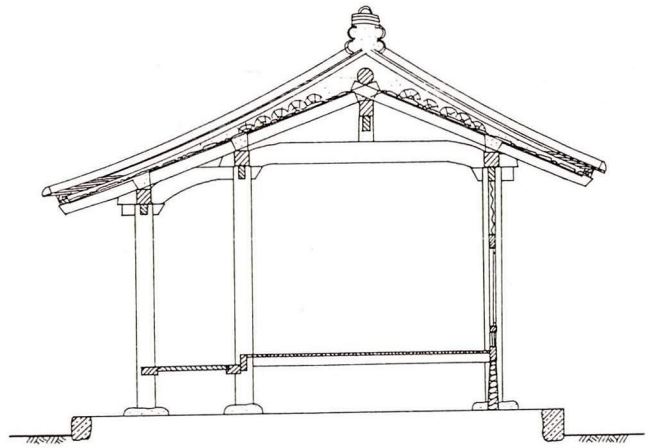
12. 낙안향교 동재



낙안향교 동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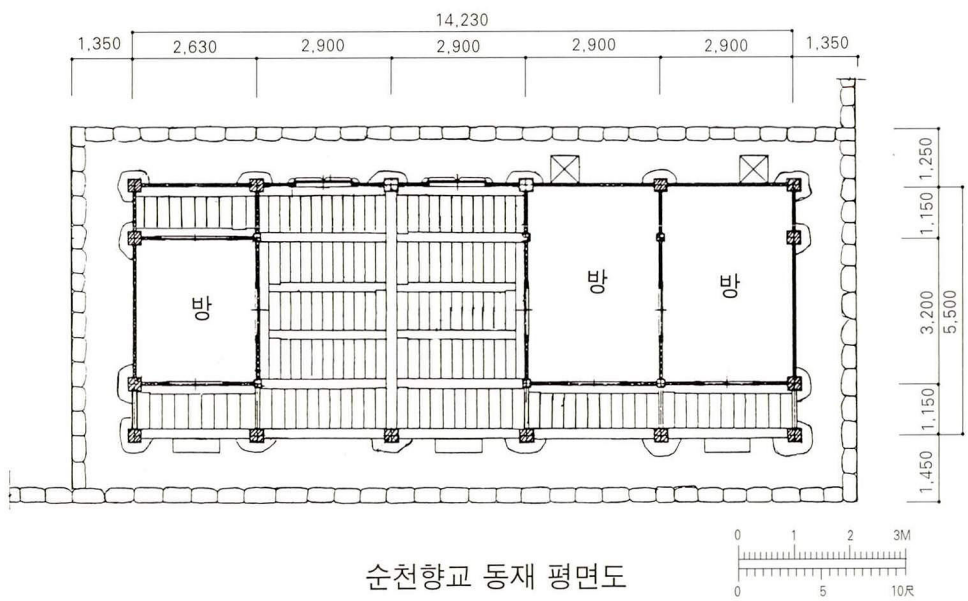


낙안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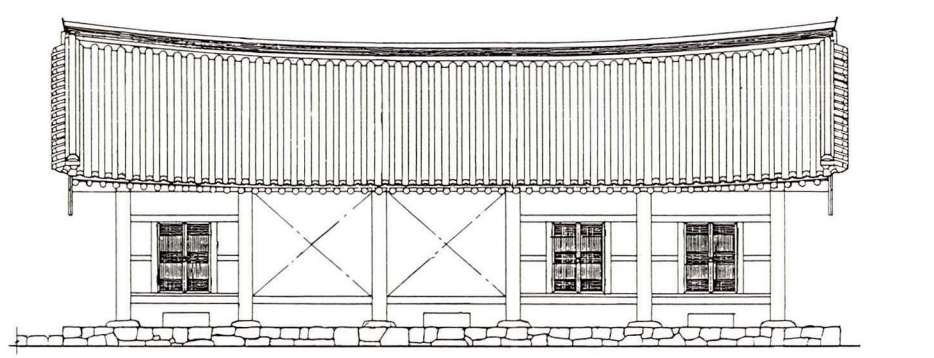


낙안향교 동재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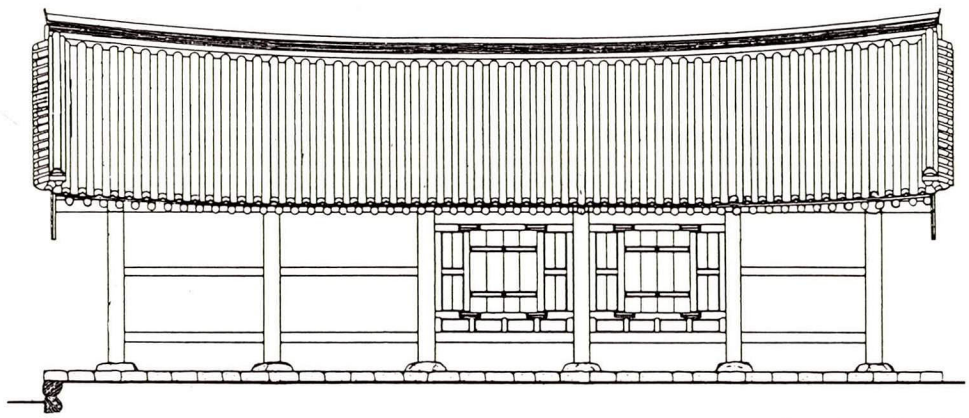
13. 순천향교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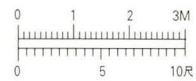
순천향교 동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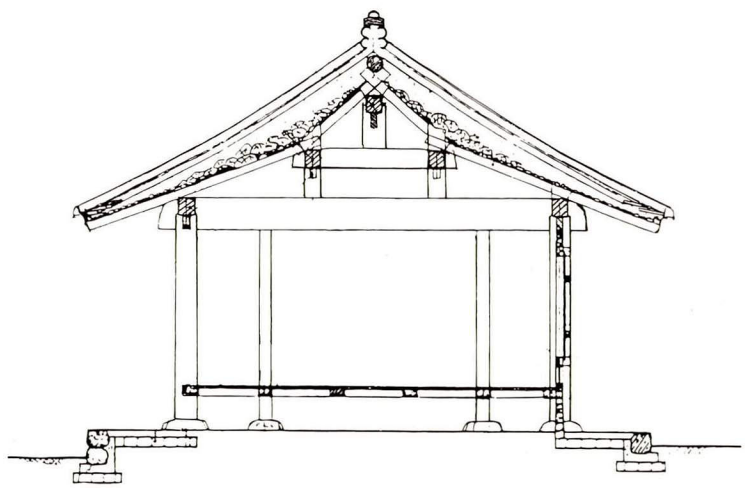


순천향교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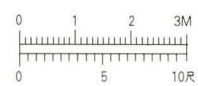


순천향교 동재 배면도





순천향교 동재 종단면도



(6) 내·외삼문(內外三門)

1. 인천향교 외삼문 :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2. 밀양향교 내삼문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3. 김해향교 내삼문 : 평면도, 정면 및 배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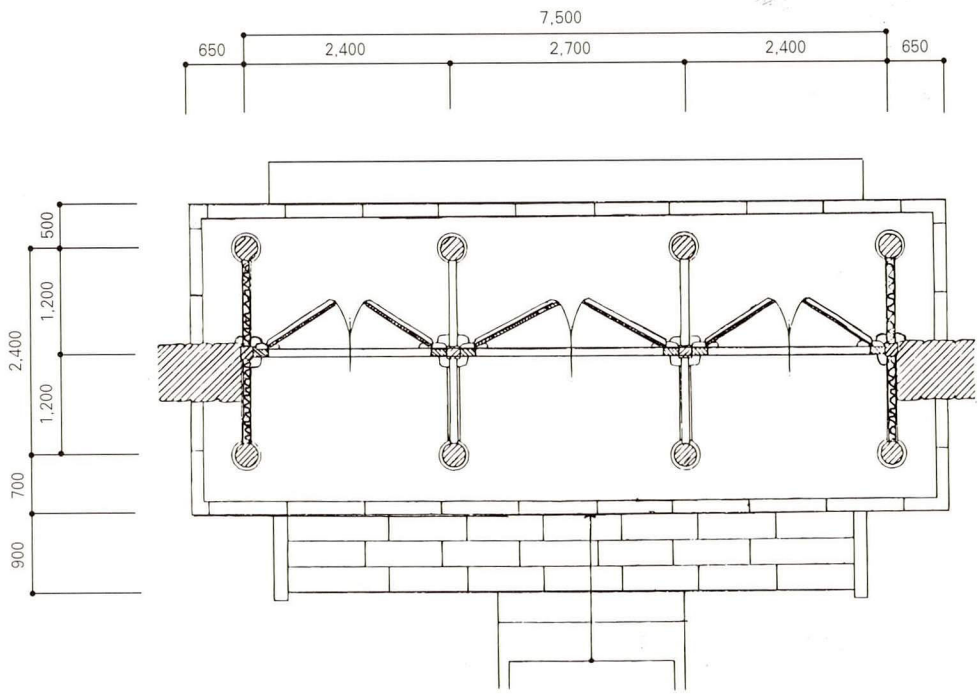
4. 통영향교 내삼문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정칸종단면도, 협칸종단면도

5. 예천향교 내삼문 :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 및 배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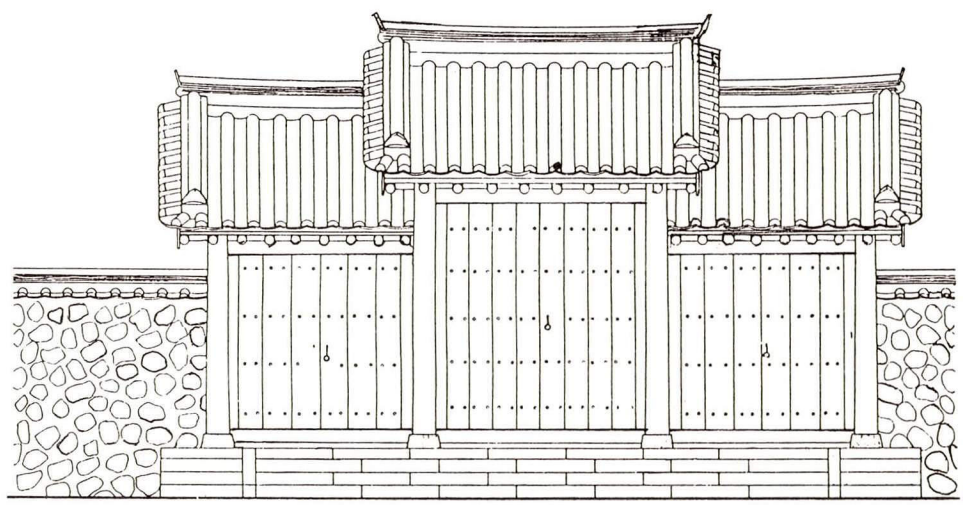
6. 간성향교 내삼문 : 평면도, 정면도

7. 대정향교 내삼문 :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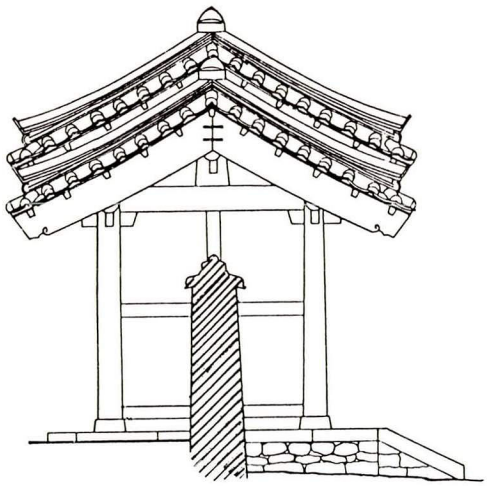
1. 인천향교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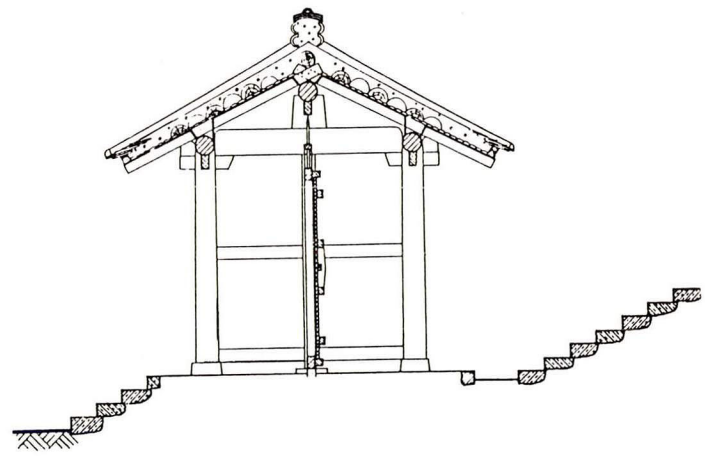
인천향교 외삼문 평면도



인천향교 외삼문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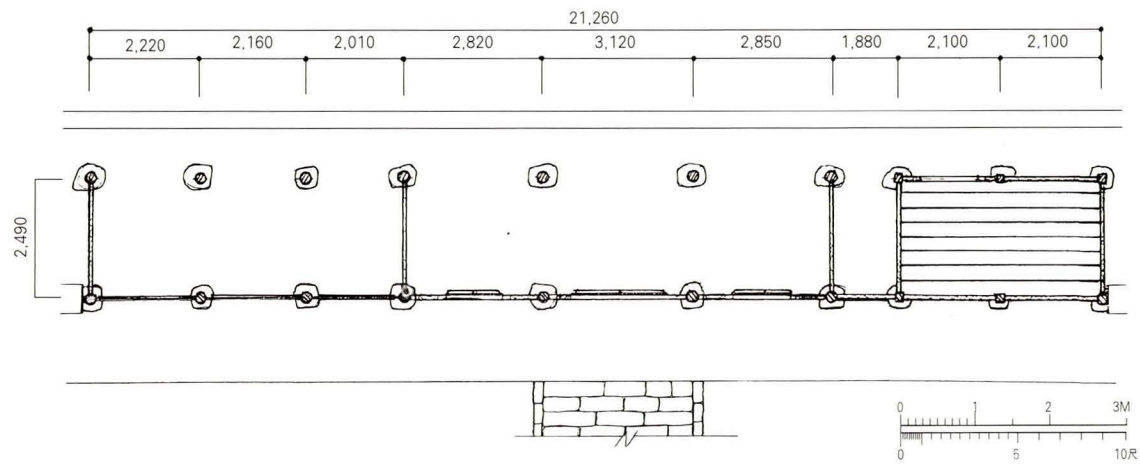


인천향교 외삼문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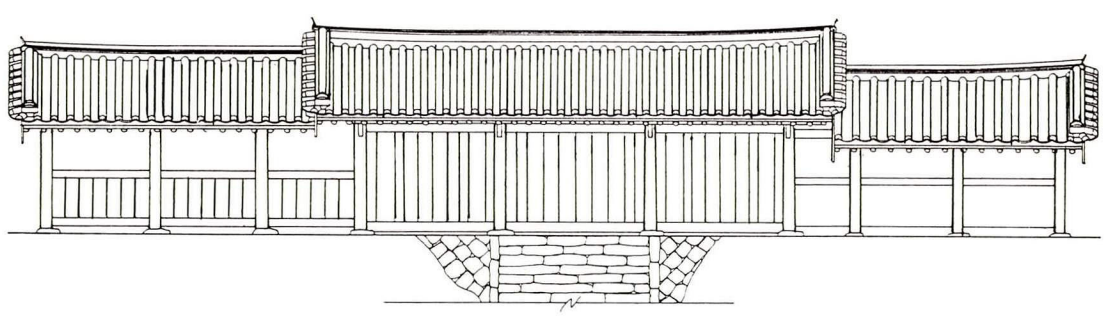


인천향교 외삼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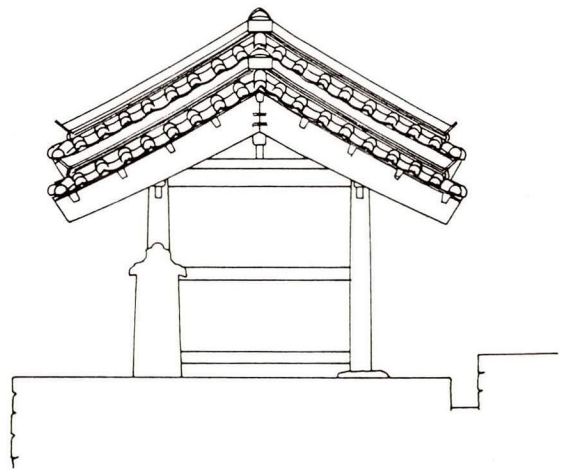
2. 밀양향교 내삼문



밀양향교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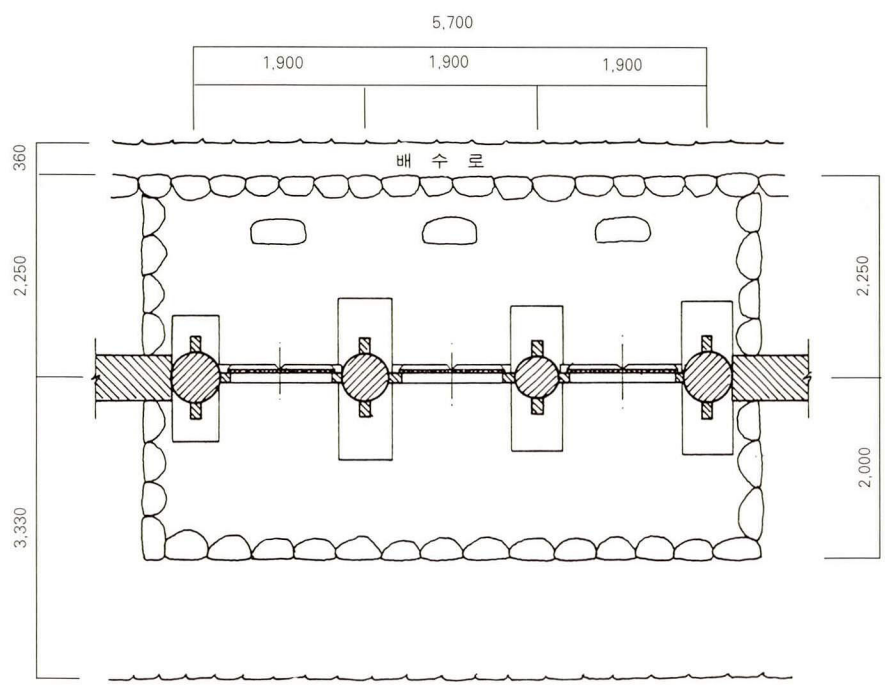


밀양향교 내삼문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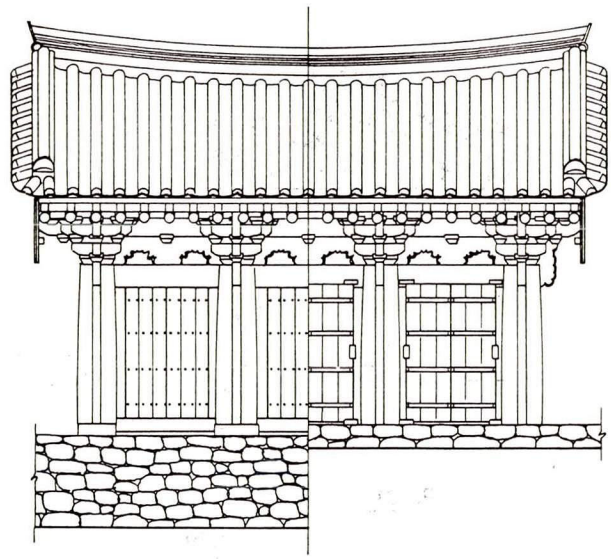


밀양향교 내삼문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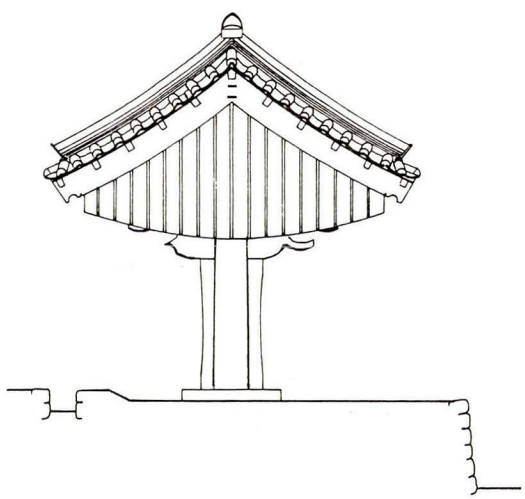
3. 김해향교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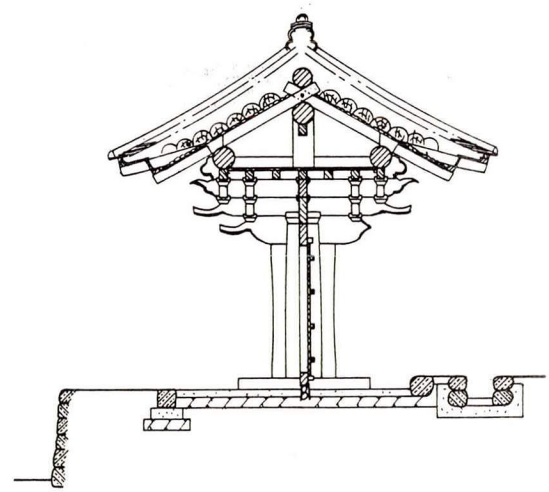
김해향교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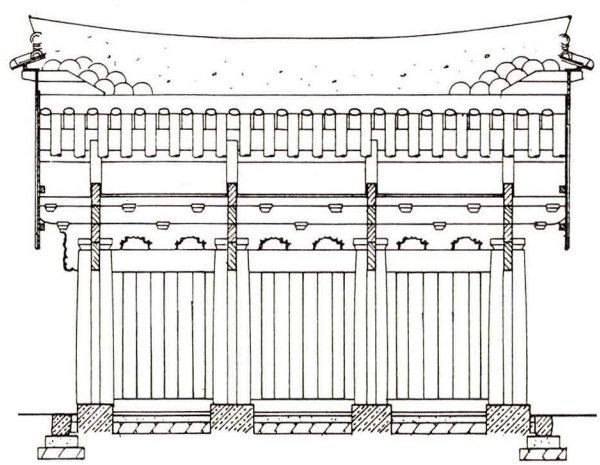
김해향교 내삼문 정면 및 배면도



김해향교 내삼문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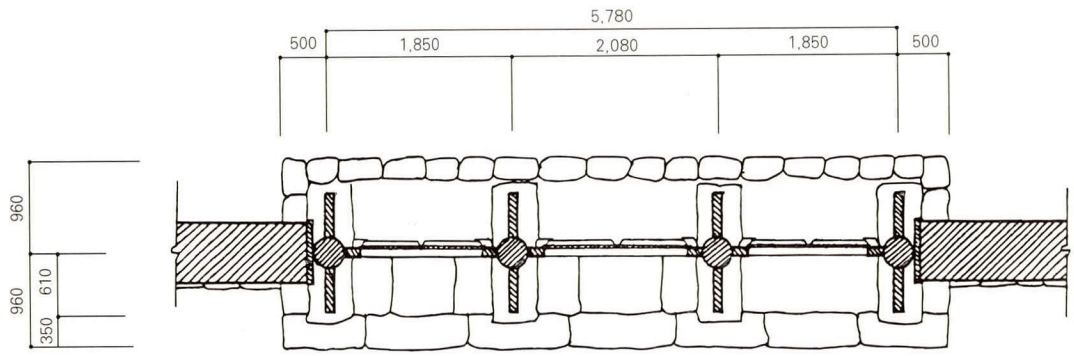


김해향교 내삼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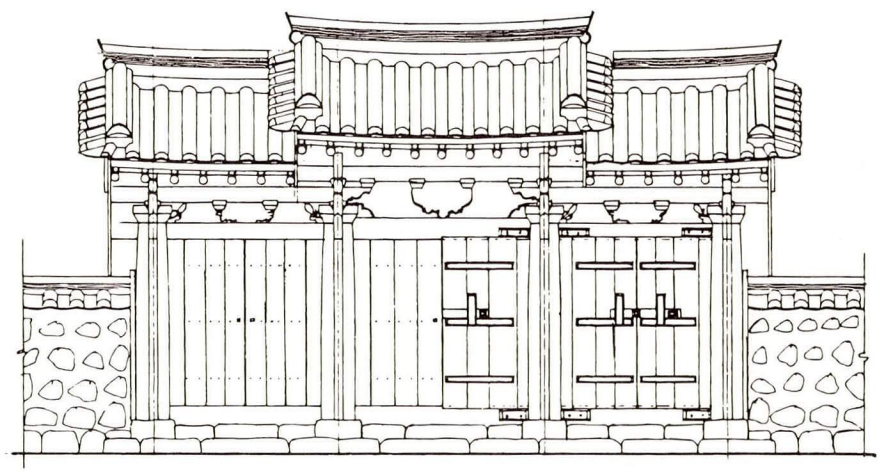


김해향교 내삼문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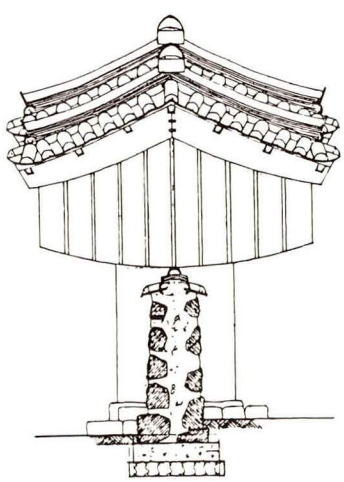
4. 통영향교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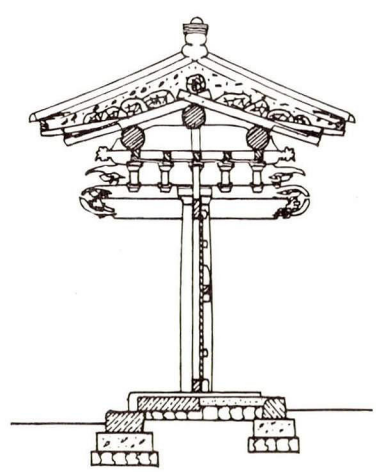
통영향교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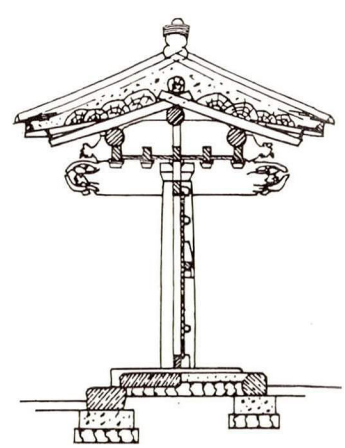
통영향교 내삼문 정면도



통영향교 내삼문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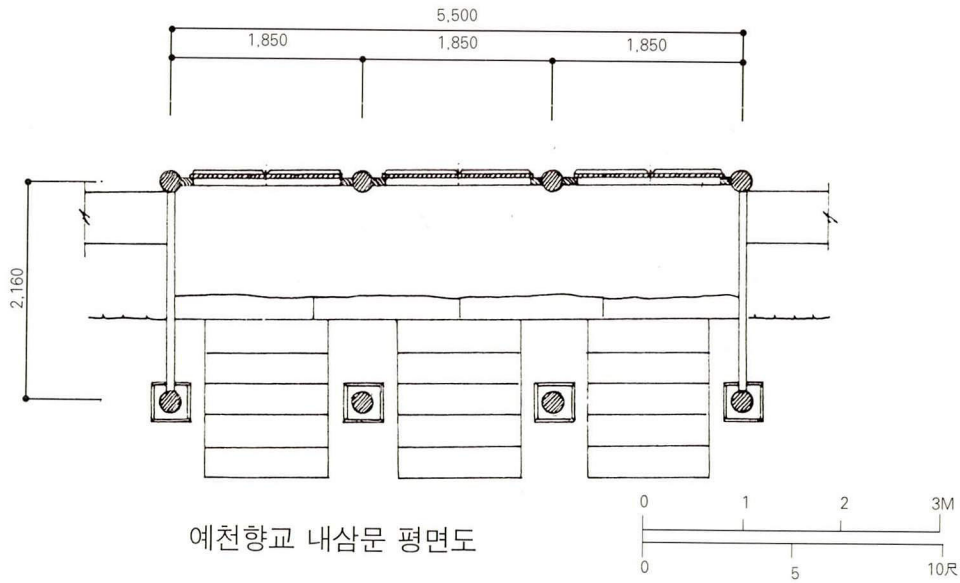


정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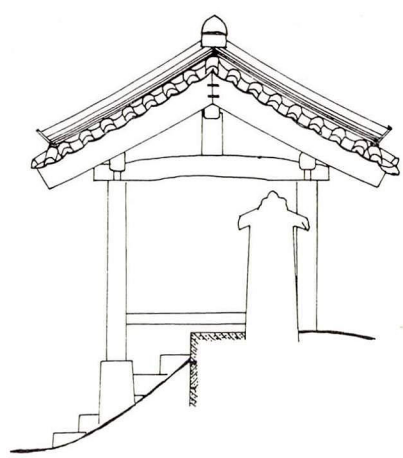


협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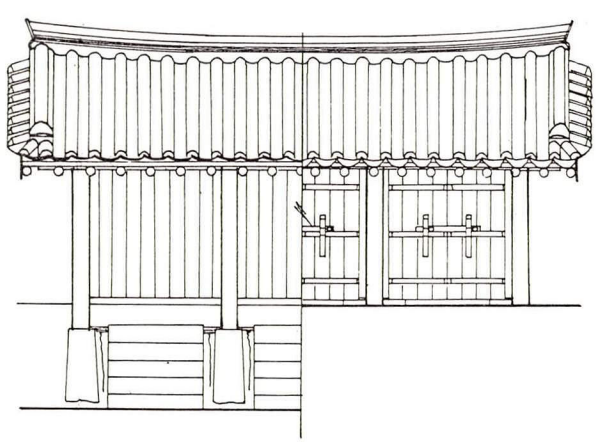
5. 예천향교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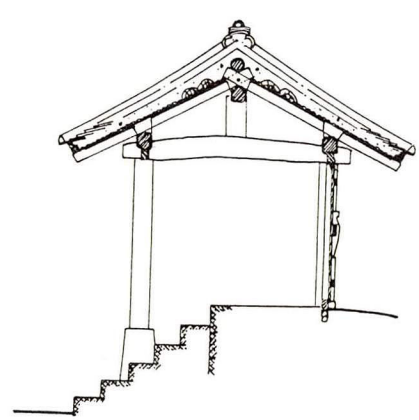
예천향교 내삼문 평면도



예천향교 내삼문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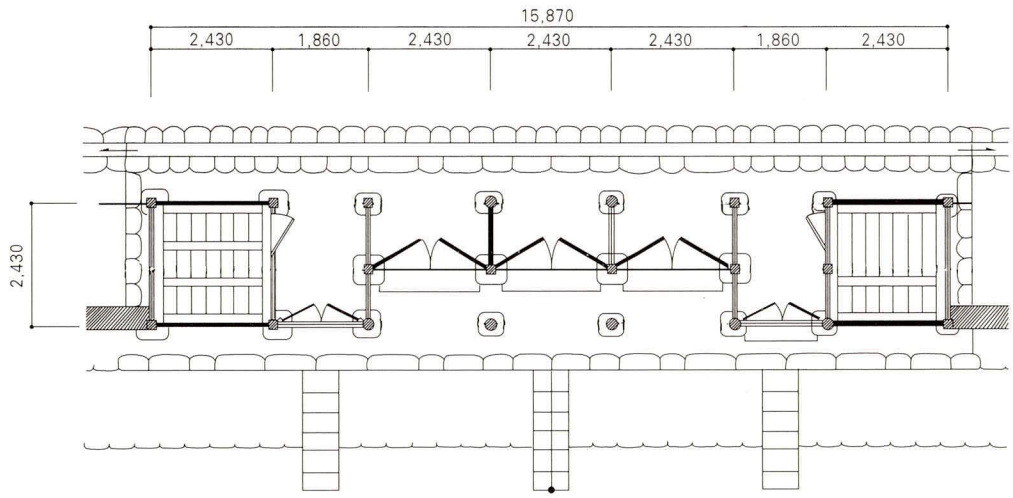


예천향교 내삼문 정 ·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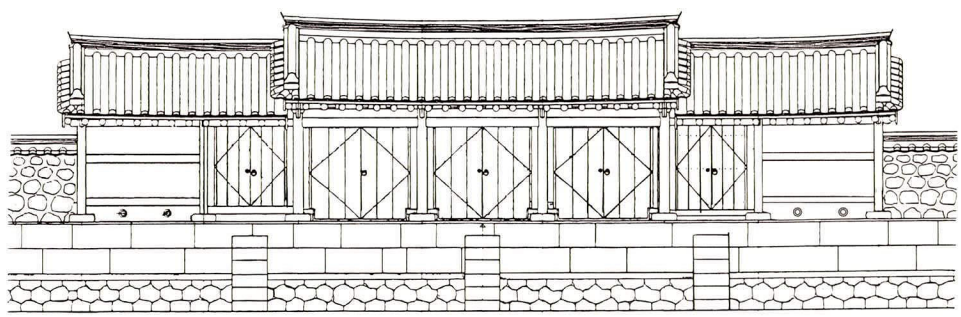


예천향교 내삼문 종단면도

6. 간성향교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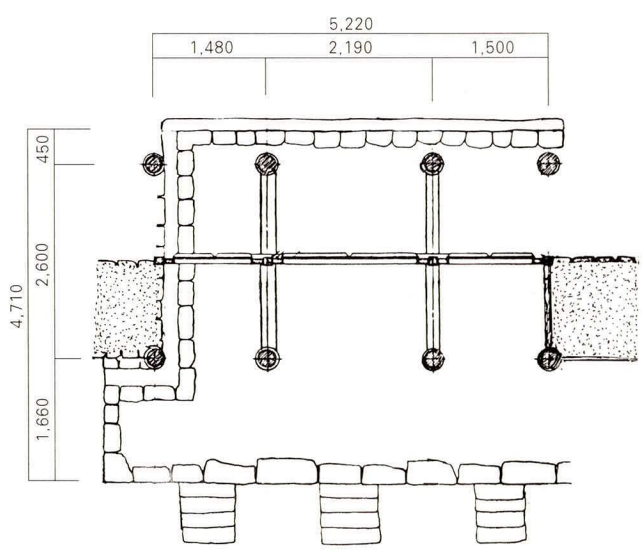


간성향교 내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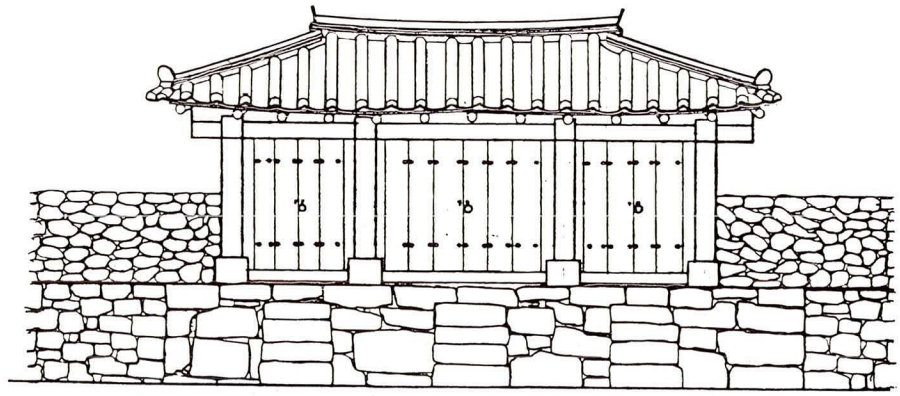


간성향교 내삼문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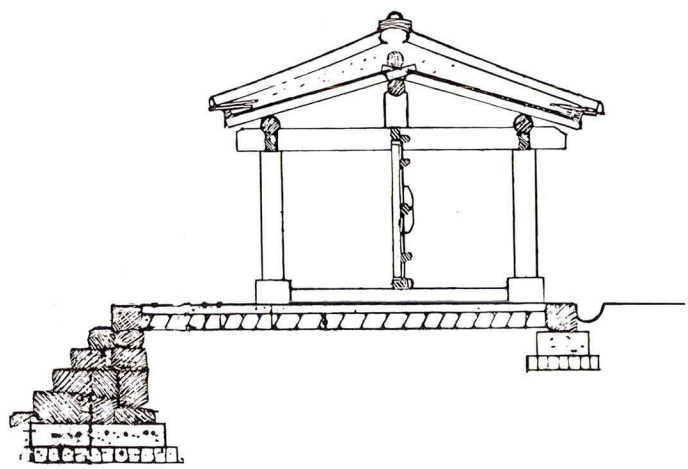
7. 대정향교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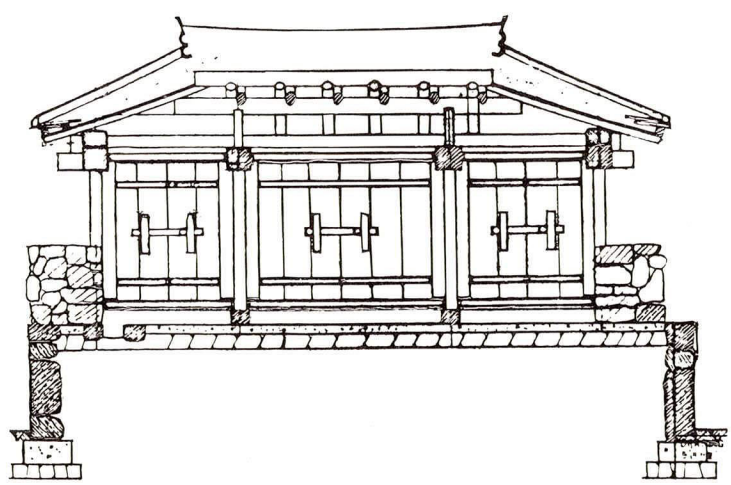
대정향교 내삼문 평면도



대정향교 내삼문 정면도



대정향교 내삼문 종단면도



대정향교 내삼문 횡단면도

『참고문헌』

〈 古文獻資料 〉

- 高麗史
- 高麗圖經
- 大邱府邑誌
- 東國輿地備考
- 牧民心書
- 三國史記
- 新增東國輿地勝覽
- 輿地圖書
- 朝鮮古蹟圖譜
- 增補文獻備考
- 大典通編
- 大典會通
- 續大典
- 朝鮮王朝實錄
- 화성성역의궤

〈 著 書, 論文, 報告書, 其他資料 〉

- 『강원 문화재 대관』〈강원도〉- 1993
- 『江原道 鄕校 書院 寺刹誌』〈강원도〉- 1992
- 『경기도 문화재 대관』〈경기도〉- 1990
- 『京畿道 鄕校,書院建築 調査報告書』〈경기도,서울대학교〉- 1986
- 『慶南 文化財 大觀』〈경상남도〉- 1995
- 『경남의 향교건축』〈울산대학교 한국건축 연구소〉- 1991
- 『경북 향교지』〈경상북도,영남대학교〉- 1991
- 『경북지방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 조영배 〈영남대학교〉 1987
-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보고서』
- 『광주의 문화유적』〈광주광역시〉- 1990
- 『국사대사전』〈한국출판사〉- 1982
- 『軍威 義興鄕校 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군위군,영남대학교〉- 1989
- 『錦江誌』〈충청남도〉- 1993
- 『꾸밈』 김지민 - 1986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유홍준〈창작과비평사〉- 1997
- 『羅州鄕校 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91
- 『道東書院 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89
- 『東萊鄕校 實測調査報告書』〈부산직할시〉- 1989
-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 『문화재 안내문안집』〈문화재관리국〉
- 『文化財修理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86~1995
- 『문화재지』〈전라북도〉- 1990
- 『북한지역 종교자료집』〈문화체육부〉- 1984
- 『서울 文化財 大觀』

- 『서울 民俗大觀』〈서울특별시〉- 1996,2
- 『嶺南 建築史 硏究會 十年史』〈영남건축사연구회〉- 1992
- 『유교대사전』〈박영사〉
- 『儒林敎養全書』〈성균관〉1993,4,29
- 『仁同鄕校 實測調査報告書』〈영남대학교,인동향교재단〉1989
- 『인천개항 100년사』
- 『全南의 鄕校』〈전라남도〉- 1987
- 『全羅南道 文化財 圖錄』〈전라남도〉
- 『전라북도 문화재 대관』〈전라북도〉- 1979
- 『全北 文化 藝術 資料集』〈전라북도〉-1990
- 『제주도 민속자료』〈제주도〉- 1987
- 『濟州道의 食生活』〈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 『제주도지』〈제주도〉- 1993
- 『濟州의 文化財』〈제주도〉- 1982
- 『濟州鄕校 實測調査報告書』〈제주시〉- 1997,8
- 『조선건축사』〈북한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조선시대 교생신분』- 이범직
- 『朝鮮時代鄕校建築配置에 關한硏究』장현석〈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1985
- 『조선시대 향교교육제도의연구』- 한동일 〈성균관대〉
- 『中國建築槪說』〈泰林文化社〉1990
- 『중국과 인도대륙의 건축』- 金晟坤 〈建築士〉1995,5
- 『충남 문화재 대관』
- 『충남의 맥락』
- 『충북 문화재지』〈충청북도〉- 1982
-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 김지민〈건축사〉- 1995,6
- 『한국건축미』- 주남철
- 『韓國建築史論』- 尹張燮〈技文堂〉- 1990
- 『한국건축연구』- 윤장섭
- 『한국건축조사보고』- 관야정
- 『한국고건축단장』김동현, 신영훈〈동산문화사〉- 1975
- 『韓國文化財保存考〈日政期資料集成』〈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199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사학 5』
- 『한국유교건축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지민
- 『한국유교건축의 재조명』- 김지민〈건축사〉1995
- 『한국의 건축』〈공간사〉- 1985
- 『韓國의 建築과 藝術』〈동경제국대학보고서〉
- 「한국의 유교건축」- 김지민〈도서출판 발언〉- 1996
- 『한국의 전통건축』- 장경호 - 1992
- 『韓國의 風水思想』- 崔昌祚〈民音社〉1984
-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3) - 향교』〈월간 환경과 조경〉- 1982,1
-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문화체육부〉-1995
- 『한밭의 얼』〈대전광역시〉- 1990
- 『鄕校管理指針書』-〈成均館〉- 1993
- 기타 전국 시,군지

한국의 향교 건축

인쇄일 : 1998. 12. 25

발행일 : 1998. 12. 30

저 자 : 박 왕 희

감 수 : 김 지 민

발행처 : 문화재관리국

인 쇄 : 대 흥 문 화 사

서울 구로구 온수동 100-19호

(02)625-6178~9

〈非賣品 · 限定版〉